

한국 민속 문학 사전



7L C 2 0 8 3

한국민속문학사전

Encyclopedia of
Korean Folk Literature

설화
Folktale

발행일 2012년 12월 5일
발행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전화 02-3704-3230)
발행인 천진기
총괄 정명섭
기획 김태우
편수원 백민영 변혜민 은현정 이경민 조선영
윤문·교열·교정 도서출판 평사리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 www.gointro.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36-000116-01
ISBN 978-89-289-0031-2
978-89-92128-58-2(세트)

한국 민속 문학 사전



7L C 2 0 B S

국립민속박물관

발간사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며 본류가 되는 것이 설화와 같은 민속문학일 것입니다. 민속문학은 마치 비석에 새겨놓은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오는 문학이라는 뜻으로 구비문학(口碑文學)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에서 구비문학에 대한 연구가 한 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마땅한 설화사전이나 민요사전이 없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올해 〈한국민속문학사전〉의 첫 결실인 ‘설화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한국 문화의 저장소이면서 씌어지지 않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신화’를 비롯한 시조의 신화와 전국 각지의 전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같은 옛이야기가 현재까지 꾸준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설화는 오늘날에도 영화나 애니메이션, 전시, 공연, 게임 산업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설화의 영역 확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한할 것입니다.

그간의 설화 연구 성과를 130여 명의 설화 전문가들이 노력하여 이 책에 모았습니다. 이 책이 모든 설화를 담은 사전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설화 연구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설화편’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집필진, 자문위원, 감수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 기관과 사전이 나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전편찬팀을 비롯해서 도움을 준 우리 박물관 직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발간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 제공, 민속문화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 환기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의 제1주제인 〈한국세시풍속사전〉 전 5권이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발간되었고, 2009년부터 제2주제인 〈한국민속신앙사전〉 편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9년에 ‘무속신앙편’(1·2권), 2010년에 ‘마을신앙편’(1·2권), 2011년에 ‘가정신앙편’(1·2권)이 발간되었다. 올해는 제3주제인 〈한국민속문학사전〉 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첫 결실인 ‘설화편’이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설화편’은 표제어 889항목(가표제어 70항목 포함), 원고 8,000여 장, 사진 200여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자료로는 집필자에게서 이용권을 구입한 사진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사진, 다른 기관에서 제공 받은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사진자료에는 제목,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자를 기입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화편’은 설화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사전편찬팀에서 선정한 표제어가 적합한지를 검증하였고 선정에서 빠진 중요한 표제어를 추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설화를 전공한 133명의 집필진이 원고를 작성하였다.

수합된 원고는 사전편찬팀의 엄격한 검수를 거쳤고 전문업체가 교정·교열·윤문을 했다. 또한 설화 분야에서 출중한 연구업적을 지닌 6명의 학자로 구성된 감수위원이 최종 원고를 감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원고는 필자들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여 사전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에서는 주로 개별 설화 제목을 표제어로 삼았다. 또한, 사전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어와 자료들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설화를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 구분하고 그 대항목 밑에 중항목을, 중항목 밑에 소항목을 두어 구체적인 설화들을 분류하였다.

사전은 발간사와 발간개요, 일러두기와 목차, 그리고 본문과 색인, 필자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제어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목차는 크게 가나다 차례와 분류별 차례를 병행하였다. 가나다 차례는 일반적인 사전 찾기 방식으로서 비교적 편리하게 표제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분류별 차례를 병행한 것은 설화의 성격과 관련 설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는 이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설화가 어떤 성격의 설화인지, 그 설화와 비슷한 성격의 설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제어의 접근성을 높였고, 백과사전의 특징인 참조와 학습의 기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필자란에는 집필자 성명과 소속만을 표기하지 않고 집필자가 작성한 표제어와 쪽수를 써 두어 이를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전에서는 적극적으로 ‘상호참조(cross reference)’ 표시를 하여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전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했다. 서로 연관되는 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독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특히 설화 분야는 연관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관련 표제어를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상호참조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설화는 같은 이야기가 달리 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가표제어’를 설정하여 독자가 표제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러두기

사전의 전체 구성

〈한국민속문학사전〉은 설화편, 민요·판소리편으로 구성된다.

표제어 선정과 범주

- 표제어라 함은 〈한국민속문학사전〉에 독립항목으로 배열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민속문학'이라 함은 민간에서 구전된 문학을 말하며, 〈한국민속문학사전〉에서는 설화(무속신화 포함)와 민요·판소리의 사설을 대상으로 한다.
- '설화편' 사전에서는 구비전승되는 설화를 대상으로 표제어를 우선 추출하였다. 또한, 문헌으로 전해지지만 신화나 구전성을 지닌 것은 표제어 대상에 포함했다. 설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학술용어와 문헌·자료집도 표제어 대상에 포함했다. 그런 다음 중요도, 조사 연구한 성과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 이 사전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따랐다. 또한, 설화의 구체적인 제목을 표제어로 삼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여러 설화를 포괄할 수 있고 널리 쓰이는 제목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 이 사전의 표제어는 표제어들이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된다는 점과 먼저 발간된 다른 사전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붙여 썼다. 또한, 학술 용어로 굳어진 경우나 관행적으로 붙여서 쓰는 경우에도 붙여 썼다. 그러나, 민담처럼 이야기 제목이 표제어가 된 경우에는 한국 어문 규정을 따라 띄어 썼다. 또한, 이 사전의 표제어는 설화 사전을 전제로 하기에 소항목 표제어 뒤에 붙을 수 있는 '○○설화' 혹은 '○○전설' 등의 부가적인 명칭은 생략했다. 단, 신화와 용어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제시하되, 국어와 한자가 섞인 경우와 국어와 한자가 일대일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생략했다. 용어 중에서 외국 이론의 용어를 번역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함께 써 두었다.
- 표제어는 그 층위에 따라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누었다. 표제어를 층위별로 분류한 것은 표제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류하였다.
 - 대항목 : 신화, 전설, 민담 등 3개항으로 나누었다.
 - 중항목 : 대항목을 세분하여 41개항으로 나누었다.
 - 소항목 : 구체적인 설화 제목, 자료, 용어 등 독립항목을 소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각 항목별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화** : 세상을 창조한 신이나 나라를 세운 인물들의 이야기, 특정 성씨의 시조 이야기, 무속 신들의 이야기, 마을에서 모시는 신들의 이야기 등을 표제어로 삼았다.
 - ◆ 건국신화 :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등을 세운 인물의 이야기
 - ◆ 시조신화 : 성씨 시조 신화 중에서 연구 성과가 있으며 출처가 분명한 이야기
 - ◆ 마을신화 : 마을에서 모시는 신에 대한 이야기
 - ◆ 무속신화 : 천지창조 이야기, 무속 신의 내력담, 제주도의 당본풀이 등 무속에서 전승되는 신들의 이야기
 - ◆ 기타 신화 : 거인신화, 풍신신화, 신모신화 등 거인이나 바람신, 기타 여성신에 대한 이야기
 - 전설** : 일반적인 기준처럼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설로 분류했다.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전설을 표제어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지역에 국한되어 전승되는 경우에는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출처의 명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 ◆ 자연창조 전설 : 해, 달, 별, 산이나 섬 등 자연물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담은 이야기
 - ◆ 산·봉·영 전설 : 산이나 봉우리, 고개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바다·섬 전설 : 바다나 포구, 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강·폭포 전설 : 강이나 나무, 폭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연못·샘 전설 : 연못이나 샘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바위·굴 전설 : 바위나 절벽, 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지명 전설 : 마을이나 땅, 폭포 등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
 - ◆ 성·다리 전설 : 성곽이나 다리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사찰·탑상 전설 : 사찰, 탑, 종, 불상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누정·비각 전설 : 비석이나 무덤, 정자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꽃·나무 전설 : 꽃이나 나무 등 식물과 관련된 이야기
- ◆ 동물·사물 전설 : 상상이나 현실 속의 동물, 사물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풍속 유래 전설 : 세시풍속이나 놀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영웅·장수 전설 : 영웅이나 장수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이인·명사 전설 : 충신이나 학자, 권신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고승·이승 전설 : 행적이 기이하거나 불법이 높아 추앙받았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
- ◆ 예인·재인 전설 : 예술적 재능이나 의술, 풍수 등으로 유명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 ◆ 기타 인물 전설 : 기타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3) **민담** : 역사나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를 민담으로 분류했다. 민담 중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편 존재하고 연구 성과가 있는 이야기를 표제어로 우선 선정하였고 그 밖에 조사·연구 성과물의 유무, 출처의 명확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 ◆ 이계담 : 천상이나 지옥, 혹은 용궁이나 신선세계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환생담 : 동물이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
- ◆ 변신담 : 동물이나 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바뀐 이야기
- ◆ 동물담 :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
- ◆ 이물담 : 도깨비나 괴물, 혼백이나 귀신, 기이한 물건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기인담 : 신이한 능력을 가진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
- ◆ 풍수담 : 명당이나 명지관 등과 관련된 이야기
- ◆ 점복담 : 점이나 점쟁이와 관련된 이야기
- ◆ 운명담 : 예언이나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이야기나 운명을 바꾸게 된 이야기
- ◆ 행운담 : 의외의 행운을 얻게 된 이야기
- ◆ 윤리담 : 효자나 효부, 열녀, 우애 있는 형제 등 교훈을 주는 이야기
- ◆ 지혜담 :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
- ◆ 사기담 : 거짓으로 속여 남을 골탕 먹이거나 남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
- ◆ 우행담 : 바보나 바보스러운 행위에 대한 이야기
- ◆ 과장담 : 과장된 행위나 결과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
- ◆ 육담 : 성에 관련된 이야기
- ◆ 어희담 : 글자나 말장난으로 웃음을 주는 이야기
- ◆ 형식담 : 반복이나 연속 등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전개되는 이야기

4) **용어** : 설화에 대한 설명이나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를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5) **자료** : 설화가 수록되어 있는 역사서나 야담집 등의 문헌을 표제어로 선정하였다.

표제어 배열과 목차

- 표제어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 목차는 가나다 차례와 분류별 차례 두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사전의 끝부분에는 집필자별로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표제어는 흐리게 표기하여 주표제어와 구별하였다.

가표제어와 상호참조

- 가표제어 :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야기는 대표형을 주표제어로 선정하고, 주표제어와 거의 대등하게 불리는 것을 가표제어로 선정하였다. 이런 경우 가표제어를 표제어와 같은 위치에 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관련한 표제어로 이동을 유도하여 사전 이용자의 검색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 가표제어 표시 :  원고가 있는 표제어로 페이지 이동
- 상호참조 : 내용적으로 상호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자가 능동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상호참조 표시 :  관련성이 있는 표제어 간의 상호 참조

서술 체계

이 사전에서 분류한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에 따라 서술 체계와 분량에 차이를 두었다. 서술 체계와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 피정의항과 정의항을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되 명사형으로 끝맺도록 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국어사전식 정의보다는 민속문화사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역사 : 대항목이나 중항목에는 해당 표제어의 발생 배경이나 역사적 전개 양상 등을 기술하였다. 소항목 중 설화는 그 설화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 등을 기술하였다.
- 줄거리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러 비슷한 설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선택하여 대강의 줄거리를 소개하였다.
- 변이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설화의 다양한 형태를 소개하고 지역과의 관련성이나 변이의 원인 등을 기술하였다.
- 분석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화를 분석한 연구 현황과 성과 등을 소개하였다.
- 내용 : 대항목과 중항목, 용어와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표제어에 대한 개관, 연구의 동향과 성과 등을 기술하였다
- 특징 : 해당 표제어의 민족적, 지역적, 시대적, 민속학적 특징 등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설화의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이야기와 구별되는 특징을 기술하였다.
- 의의 : 해당 표제어가 전체 민속문화 상에서 차지하는 의의, 사회적 의미, 문화적 상징성 등을 기술하였다.
- 출처 : 소항목 중 설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채록한 설화를 실은 자료집이나 줄거리가 수록된 문헌을 제시하여 이용자가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가공된 경우는 되도록 출처로 제시하지 않고 검증된 채록본이나 문헌 등을 출처로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일차 자료가 실린 출처와 구별하여 표제어를 분석한 연구 논문이나 저서를 제시하였다.
- 필자 : 집필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표기 방법

- 부호와 기호
 - 맞춤법과 표기법은 현행 교육과학기술부 규정 '한글 맞춤법(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1990년 10월 발간)'을 따랐다.
 - 작은따옴표 ‘ ’ : 어느 부분을 강조하거나 특별히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뜻할 때 쓴다.
 - 큰따옴표 “ ” : 직접 인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 겹낫표 『 』 : 문헌이나 저서명을 나타낼 때 쓴다.
 - 낫표 「 」 : 책의 하위 장 제목과 논문명 등을 나타낼 때 쓴다.
 - 대괄호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를 나타낼 때 쓴다.
 - 소괄호 () : 원어, 한자병기, 주석, 설명 등을 넣을 때 쓴다.
 - 출격쇠표 < > : 설화나 고전소설 등의 작품명을 지칭할 때 쓴다.
 - 줄임표 …… : 원문을 용례로 인용할 때 임의적으로 생략함을 나타낼 때 쓴다.

(9) 가운뎃점 · :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와 특정 차례를 일괄적으로 나열함을 나타낼 때 쓴다.

(10) 온점 .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

(11) 물결표 ~ : '내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와 생몰년 사이에 쓴다.

2) 한자와 한자어는 속자나 약자를 피해 정자로 정확히 표기하되, 한자음에 특별한 관용이 있을 경우 현실음을 따랐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한자는 뒤에서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유명사나 특수한 용어 등 한자 표기가 필요할 때에는 한자를 ()속에 병기하였다.

3) 외래어와 외국어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서는 이해가 편하도록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5) 도량형·단위의 경우는 미터법에 따른 부호를 단위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사진과 자료

사진, 도표, 삽화, 지도 등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진과 자료는 본문의 해당 부분에 첨부하고 그 출처 또는 소장처(제공처) 등을 밝혔다.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마포문화원 / 문화재청 / 온양민속박물관 / 한국관광공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색인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와 표제어에 준하는 용어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해당 쪽수를 기재하여 본문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필자

필자의 성명과 소속 그리고 집필한 표제어와 해당 쪽을 기재하여 필자란을 통해서도 표제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통해 필자가 어떤 표제어를 집필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 자문위원은 강진욱(이화여대), 신동훈(건국대), 이강욱(영남대), 정명기(원광대), 조현설(서울대), 천혜숙(안동대), 최원오(광주교대) 교수 등이 맡았다.
- 감수위원은 신화 분야는 김열규(서강대)와 서대석(서울대), 전설 분야는 나경수(전남대)와 최래옥(한양대), 민담 분야는 조희웅(국민대)과 최인학(인하대) 교수 등이 맡았다. 자료와 용어 분야는 서대석 교수와 최인학 교수가 각각 맡았다.



가마고개	30
가야건국신화	30
가짜열녀	30
가짜지관의 성공	31
각시섬	32
각편	32
간부 잡은 원님	33
감기의 유래	33
감은사	34
감은장아기	35
강·폭포전설	35
강감찬	36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가지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개무덤	41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개운포	43
개촌신화	44
거북바위	44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거인 장길손	45

거인설화	46
거짓말 세 마디	46
건국신화	48
건망증 심한 사람	49
걸어온 산	50
견묘쟁주	51
견우직녀	51
견훤	52
계룡산	53
계모담	54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고구려건국신화	56
고금소총	56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대정보풀이	57
고려건국신화	58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리봉	59
고분지통 유래	60
고석정	61
고수레 유래	62
고승·이승전설	6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고유	64
고조선건국신화	66
고종달	66
고창녕	66
곡성 안 들은 상복	66
곰나루	67
공갈못	68
공민왕	68
공식적표현	70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과부와 머슴	71
과장담	72
곽재우	73
관용적표현	75
관음사	75
관촉사은진미륵	76
관탈민녀	77
관덕 엄장	77

광청애기본풀이	78
광포전설	7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령덩당신선비	80
구령이의 보은	81
구룡사	82
구복여행	83
구비문학	84
구슬할망본풀이	87
구연	88
구운 계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구월산	89
구토지설	90
국사봉	90
군웅본풀이	91
궁예	92
괘네킷당본풀이	93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강산	96
금계필담	97
금기화소	97
금도끼은도끼	98
금돼지굴	98
금산	99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금시발복 명당	101
금와왕신화	102
금척	103
기능	105
기문	105
기문총화	105
기인담	106
기지 있는 부인	107
기지사줄다리기 유래	108
김녕사굴	109
김덕령	110
김병연	111
김부대왕	113
김삿갓	115
김선달	115
김수로왕신화	116
김알지신화	118
김유신	119

김유신신화	120
김응서	121
김종진	122
김춘추	122
김춘추신화	123
김현감호	124
김호랑이굴	125
까지의 재판	12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꼬리 잘린 호랑이	127
꼬리따기	128
꼬마 명재판관	129
꼬부랑할머니	130
꽃·나무전설	130
피로 얻은 명당	132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피쟁이 하인	133
꿀 싸는 강아지	134
끝없는 이야기	135

나도 계집 있다	138
나도밤나무	138
나옹화상	139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낙안읍성	141
낙화암	142
난생화소	143
남매탑	143
남매혼설화	144
남사고	144
남산	145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남이	148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남한산성	152
내 병 다 나았다	153
내 복에 산다	154

노적봉	155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논개	157
놋다리밧기 유래	158
농다리	159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누정·비각·묘총전설	160

다리 떨어 북 떨어진다는 유래	164
다시 찾은 옥새	164
다자구할머니	165
닥실나루	166
단군신화	166
단락소	168
단종	168
단혈전설	169
달래강	170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당금애기	172
당신화	173
대감구무가	173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대국산성	176
대동야승	177
대신 든 장가	177
대왕암	178
대흥수	178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덕진다리	180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보	185
도깨비불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험	186
도담삼봉	187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둑 잡은 아이	188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도드람산	189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도량 넓은 남편	191
도미의 처	192
도선	193
도술화소	193
도화녀비형랑	194
독도	195
독장수구구	195
돈 때먹는 법	196
돈 천냥의 구원	197
돈전풀이	197
동명왕신화	199
동물 나이 자랑	200
동물·사물전설	201
동물담	202
동부여건국신화	203
동야휘집	203
동자삼	204
동지팔죽 유래	204
동패낙송	205
돼지 맞돈	205
돼지꿈	206
두꺼비신랑	207
두꺼비의 보은	208
두더지의 혼사	209
등나무	210
땀 흘리는 비석	210
떠내려온 섬	211
떡보와 사신	211

류성룡	212
마고할미	216
마누라본풀이	217
마십굴	218
마을신화	219
마이산	220

막산이	221
만어사	222
만파식적	223
말무덤	224
말바위	224
말하는 남생이	225
망부석	225
망우리	226
매옹한록	227
맹감본풀이	227
맹사성	228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꿈지	231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며느리 고르기	233
며느리고개	234
며느리밥풀꽃	235
며느리의 말대꾸	236
멸치의 꿈	236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명엽지해	237
모방담	237
목도령과 대흥수	238
묘향산	239
무너미고개	239
무당호랑이	240
무등산	240
무속신화	241
무수옹	243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무영탑	245
무왕	246
무학대사	246
문경새재	246
문굿무가	247
문동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문무왕	249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문전본풀이	251
문헌설화	252
미륵사	253
미추왕신화	254

미혈	255
민담	256
민속문학	259
일본	259
ㅅ	
사다·섬전설	262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바리공주	264
바리데기	265
바보며느리	265
바보사위	266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바보원님	2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바위·굴전설	270
박문수	27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박상의	273
박연폭포	274
박엽	275
박제상	276
박혁거세신화	276
반쪽이	277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방귀시합	279
방귀쟁이며느리	280
방리특보	282
방이	282
방학중	282
배너미골	284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백두산	285
백마강	286
백일홍	287
백제건국신화	288
뱀신랑	288
범어사	288
빙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벽골제	290
변신담	291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변신화소	293
변이	293
병립구조	294
보리암	294
보양	295
보은속리정어품송	295
보한집	296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본풀이	297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	299
봉정사	299
부모 때리는 효자	300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부부의 떡 다툼	301
부석사	302
북두칠성	303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북부여건국신화	304
불가사리	304
불국사	306
불씨 지킨 며느리	30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비 내린 이무기	308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빈대절터	310
뼈꾸기	310
뼈악뼈악꼬꼬	311

ㅈ	
사귀가 된 엽전	314
사기담	314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사만이본풀이	317
사명당	317
사복	318
사자바위	319
사자생손지지	320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사찰·탑상전설	321
산·봉·영전설	323
산방산	324

산삼과 이시미	325
산상왕	325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삼각산	328
삼공본풀이	329
삼국사기	331
삼국유사	331
삼년고개	331
삼대 후레이들 농	332
삼두구미본풀이	333
삼부연폭포	334
삼성신화	335
삼승할망본풀이	336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삼죽구	338
삼죽오	338
삼척해신당신화	339
삼천갑자동방삭	341
삼태성	341
삼학도	342
삼화	343
상가승무노인탄	343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상객의 망신	345
상사바위	345
상사뱀	346
상사여귀	347
상원사	348
새끼 뱀 쥐와 옹한 점쟁이	348
새끼 서 발	349
새빨간 거짓말	350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새털 사서 장기간 총각	351
새털옷 신랑	352
생불할망본풀이	353
서경덕	354
서고청	355
서귀포분향당본풀이	355
서기	357
서동	357
서산대사	358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서화담	360

석탈해신화	361
선녀와 나무꾼	362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364
선도산성모	365
선운사	366
설문대할망	367
설씨녀	368
설화	369
섬진강두꺼비	372
성·다리전설	372
성기 큰 남녀	374
성덕대왕신종	374
성삼문	374
성조무가	375
성질 급한 사위	377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 여인의 소원	378
세검정	379
세경본풀이	379
세민황제본풀이	381
생굿무가	383
소 바뀐 탄 사돈	385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소백산	388
소화	389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속리산	391
속어면순	392
손 없는 색시	392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손님굿무가	394
손돌목	396
손순매아	397
송광사	397
송당분향당본풀이	398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송시열	400
송익필	400
송징장군당신화	401

수로부인	403
수부지모	403
수성당신화	404
수수께끼 풀 아이	405
수이전	406
수증명당	407
숙영랑영연랑신가	407
순차구조	408
술 귀신 유래	408
스님 골러먹은 상좌	409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시골취서울취	411
시래호박소 이무기	411
시루말	412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시무굿무가	414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시조신화	415
시퀵스	417
신돌석	417
신라건국신화	418
신립	418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420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게모	422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다	422
신중본풀이	423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신화	425
신화소	428
심청굿무가	428
심화요탑	430
쌀 나오는 바위	430
쌀 나오는 죽순 뚱 나오는 죽순	431
쌀 노적 돌 노적	431
쌍계사	432
쌍녀분	433

○	
아기봉	490
아기씨당신화	490
아기업개당신화	491
아기장수	493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아랑각	496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버와 동침할 운명	498
아우라지	499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아지담	500
아지재판	501
아차산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악형선제	502
암행어사 젓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애오개	504
아래자설화	504
양사언	506
양씨아미본풀이	506
양은천미	508
양이목사본풀이	508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어면순	511
어사가 된 막넛사위	511
어우야담	512
어희담	513
영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얌질러진 물	515
에밀레종	515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	516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여우고개	518
여우구슬	518
여우누이	520
여우와 까마귀	521
여우혈 명당	521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역옹패설	523
연명설화	523
연못·샘전설	523
연오랑세오녀	525
연이와 버들도령	526
열녀시험	526
열두 띠 유래	528
열불열녀	529
열행담	530
영규대사	531
영남루	531
영등할머니	531
영웅·장수전설	532
영웅의 일대기	534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영지	535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예인·재인전설	537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오곡밥 유래	539
오뎨산성	540
오뎨탑	540
오뎨힘내기	540
오동도	541
오물음	542
오백장군	542
오성과 한음	543
오성의 장난	543
오세암	54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오찰방	545
옥녀봉	546
온달	547
온조비류신화	548
왕건신화	550
왕십리	551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용 못 된 이무기	552
용 승천	553
용 싸움	555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용다리	557
용머리고개	557
용문사	558

용미리석불입상	559
용소	560
용재총화	561
용추폭포	562
우렁각시	563
우목낭상	564
우물명당	564
우부현녀	564
우애담	565
우연히 들어온 업	565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우탁	567
우행담	567
운림지	569
운명담	569
운문사	571
운주사	571
울돌목	572
울산바위	573
웃개나루	573
원광법사	574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원님의 명판결	576
원두표	577
원천강본풀이	577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원형	580
원훈설화	580
원효	582
월성	583
유금이들	584
유리왕신화	584
유왕산	586
유의태	587
유형	587
유화부인	588
육담	589
윤리담	590
은혜값은 까치	591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음탕한 선생 발거벗긴 과부	592
의견	593
의상	593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95
이계담	596
이계여행화소	597
이공본풀이	597
이괄	599
이류교혼화소	600
이몽학	600
이물담	601
이산해	602
이서구	603
이성계	604
이순신	605
이야기꾼	606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607
이야기판	608
이어도	608
이여송	609
이완	610
이원익	610
이의 울음	611
이이	612
이인·명사전설	612
이재수	614
이준경	614
이지란	615
이지함	615
이차돈	617
이태원	617
이항복	618
이황	619
인문전설	620
인물전설	620
인불구 유래	620
인신공회	621
일뤼또본풀이	621
일식 월식	623
일월노리푸념	623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일월신화	626
일화	627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임격정	629
임자 있는 명당	629

임지한	630
잉어의 보은	631
ㅈ	
자린고비	634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자연전설	636
자연창조전설	637
자청비신화	638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잡기고담	639
장군봉	639
장군수	640
장보고	640
장수바위	641
장승재판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장자못	643
장자풀이	644
재담	646
재복대기	646
재인폭포	647
재주 많은 의형제	648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사자의 실수	650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적강화소	652
적대자	652
전봉준	652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전설	654
전실 자식 눈 뵈는 계모	656
전황장군당신화	657
절부암	658
젊어지는 샘물	659
점복담	660
접동새	661
정기룡	662
정도전	663

정령	664
정만서	664
정방폭포	666
정승 낳을 여자	666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정철	669
정충신	669
제석본풀이	670
제왕운기	670
조력자	671
조마구	671
조신	671
죽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종소리	673
주몽신화	673
주왕산	674
주원장	675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주천강	676
죽령산신당신화	677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죽을 고비 세 번	679
중들의 절 자랑	680
쥐떼도강	681
쥐의 둔갑	681
쥐의 보은	683
지귀	683
지네각시	684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지네장터	685
지령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지령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지리산	687
지리산성모	688
지명전설	689
지성이감천이	690
지역전설	691
지장본풀이	691
지중용출	692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694
지혜담	695

진가장무가	697
진담록	697
진목대사	697
진정한 친구	698
진좌수	699
짐가제무가	699
쫓겨날 머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

차북	704
차사본풀이	704
차산필담	705
차전놀이 유래	705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창세가	707
채제공	709
처녀 더위 빼기	710
처녀고개	711
처용	711
처용암	712
천남점 치고 잘된 사람	713
천년두골쌍용수	71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천부지모	715
천생연분	715
천안삼거리	715
천예록	716
천자가 된 구렁이	717
천자명당	717
천자바위	718
천지왕본풀이	719
철쭉꽃	720
첫날밤에 똥 싼 신부	721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청구야담	723
청다리	723
청실홍실	724
청야담수	724
청어장수	725
청평사	725

초공본풀이	726
촌담해이	728
최영	728
최영장군당신화	729
최제우	731
최치원	732
춤추는 호랑이	732
총렬굿무가	733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치마대	735
치마바위	735
치술령	736
치악산	737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칠산바다	739
칠성본풀이	740
칠성풀이	741
칠월칠석 유래	743

ㅋ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콩쥐팍쥐	744

ㄷ

탐색담	748
탕건바위	748
태백산	749
태평한화골계전	750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토끼의 재판	752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토정	754
통과제의	754
통도사	754
통두란	755
트릭스터담	756

ㅍ

파송자	757
파자놀이	757
파자점	759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파한집	760
팔봉산	760
팔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팔죽할멈과 호랑이	762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표충비	763
풍속유래전설	763
풍수담	765
풍신신화	766
피바위	767

ㅎ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는 유래	770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하회마을	771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학산한언	774
한라산	774
한양도읍	776
한우물	777
할미산성	778
할미할아비바위	778
해동고승전	779
해모수신화	779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해부루신화	78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해인사	784
행운담	785
허가바위	786
허목	787
허미수	788
허웅애기본풀이	788
허준	789
허풍선이	790
허황옥신화	791

형산강	792
형식담	793
형제바위	794
형제투금	795
혜통	796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호랑이 눈썹	797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호랑이로 변한 남편	801
호랑이와 꽃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3
호식당할 운명	804
호종단	805
흑부리영감	805
훈취	807
홀어미산성	808
흥계관	808
홍수설화	808
화석정	809
화소	809
화수분	810
화엽사	810
환생담	811
환생화소	813
황룡사	81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황희	814
효녀 지은	816
효부와 호랑이	816
효불효다리	817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효자동	818
효행담	819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흥륜사	821



신화	425
건국신화	48
가야건국신화	30
고구려건국신화	56
고려건국신화	58
고조선건국신화	66
금와왕신화	102
김수로왕신화	116
단군신화	166
동명왕신화	199
동부여건국신화	203
박혁거세신화	276
백제건국신화	288
북부여건국신화	304
삼성신화	335
석탈해신화	361
신라건국신화	418
온조비류신화	548
왕건신화	550
유리왕신화	584
주몽신화	673
해모수신화	779
해부루신화	781

무속신화	241
감은장아기	35
고대정본풀이	57
광청애기본풀이	78
구슬할망본풀이	87
군웅본풀이	91
퀘네킷당본풀이	93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당금애기	172
대감굿무가	173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둔전풀이	197
마누라본풀이	217
맹감본풀이	227
문굿무가	247
문전본풀이	251
바리공주	264
바리데기	265
사만이본풀이	317
삼공본풀이	329
삼두구미본풀이	333
삼승할망본풀이	336
생불할망본풀이	353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성조무가	375
세경본풀이	379
세민황제본풀이	381
세화본향당본풀이	382
생굿무가	383
손님굿무가	394
송당본향당본풀이	398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숙영랑영연랑신가	407
시루말	412
시무굿무가	414
신중본풀이	423
심청굿무가	428
양씨아미본풀이	506
양이목사본풀이	508
원천강본풀이	577
이공본풀이	597
일췌또본풀이	621
일월노리푸념	623
자청비신화	638

장자풀이	644
제석본풀이	670
지장본풀이	691
진가장무가	697
짐가제무가	699
차사본풀이	704
창세가	707
천지왕본풀이	719
초공본풀이	726
총렬굿무가	733
칠성본풀이	740
칠성풀이	741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허웅애기본풀이	788

마을신화	219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삼척해신당신화	339
송징장군당신화	401
수성당신화	404
아기씨당신화	490
아기업개당신화	491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전황장군당신화	657
죽령산신당신화	677
최영장군당신화	729

시조신화	415
김말지신화	118
김유신신화	120
김춘추신화	123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미추왕신화	254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허황옥신화	791

기타신화	
다자구할머니	165
마고할미	216
선도산성모	365
설문대할망	367
영등할머니	531
유화부인	588
지리산성모	688

전설	654
자연창조전설	637
걸어온 산	50
견우직녀	51
대홍수	178
떠내려온 섬	211
북두칠성	303
삼태성	341
연오랑세오녀	525
울산바위	573
일식 월식	623

산·봉·영전설	323
가마고개	30
계룡산	53
고리봉	59
구월산	89
국사봉	90
금강산	96
금산	99
남산	145
노적봉	155
도담삼봉	187
도드람산	189
마이산	220
며느리고개	234
묘향산	239
무너미고개	239
무등산	240
문경새재	246
백두산	285
산방산	324

삼각산	328
삼년고개	331
소백산	388
속리산	391
아기봉	490
아차산	501
여우고개	518
옥녀봉	546
용머리고개	557
유왕산	586
장군봉	639
주왕산	674
지리산	687
처녀고개	711
치술령	736
치악산	737
태백산	749
팔봉산	760
한라산	774

바다·섬전설	262
각시섬	32
개운포	43
독도	195
삼학도	342
손돌목	396
오동도	541
울돌목	572
이어도	608
칠산바다	739

강·폭포전설	35
곰나루	67
닥실나루	166
달래강	170
박연폭포	274
백마강	286
삼부연폭포	334
섬진강두꺼비	372
아우라지	499
용추폭포	562
웃개나루	573
재인폭포	647
정방폭포	666

주천강	676
형산강	792
연못·샘전설	523
공갈못	68
벽골제	290
영지	535
용소	560
운림지	569
장군수	640
장자못	643
절어지는 샘물	659
한우물	777

바위·굴전설	270
거북바위	44
금돼지굴	98
김녕사굴	109
김호랑이굴	125
낙화암	142
대왕암	178
마십굴	218
말바위	224
망부석	225
미혈	255
사자바위	319
상사바위	345
쌀 나오는 바위	430
오백장군	542
장수바위	641
절부암	658
처용암	712
천자바위	718
치마바위	735
탕건바위	748
피바위	767
할미할아비바위	778
허가바위	786
형제바위	794

지명전설	689
망우리	226
배너미굴	284
애오개	504

왕십리	551
유금이들	584
이태원	617
지네장터	685
천안삼거리	715
치마대	735
하회마을	771
한양도읍	776
효자동	818

성·다리전설	372
낙안읍성	141
남한산성	152
농다리	159
대국산성	176
덕진다리	180
도깨비보	185
오뎬산성	540
오뎬힘내기	540
용다리	557
월성	583
청다리	723
할미산성	778
홀머미산성	808
효불효다리	817

사찰·탑상전설	321
감은사	34
관음사	75
관촉사은진미륵	76
구룡사	82
남매탑	143
만어사	222
무영탑	245
미륵사	253
범어사	288
보리암	294
봉정사	299
부석사	302
불국사	306
빈대절터	310
상원사	348
선운사	366
성덕대왕신종	374

송광사	397
쌍계사	432
에밀레종	515
오뎬탑	540
오세암	544
용문사	558
용미리석불입상	559
운문사	571
운주사	571
청평사	725
통도사	754
해인사	784
화엄사	810
황룡사	813
흥륜사	821
누정·비각·묘총전설	160
개무덤	41
고석정	61
땀 흘리는 비석	210
말무덤	224
세검정	379
아랑각	496
영남루	531
표충비	763
화석정	809

꽃·나무전설	130
나도밤나무	138
등나무	210
머느리밥풀꽃	235
백일홍	287
보은속리정어품송	295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철쭉꽃	720

동물·사물전설	201
만파식적	223
불가사리	304
비 내린 이무기	308
빠꾸기	310
삼족구	338
삼족오	338

상사뱀	346
시래호박소 이무기	411
용 못 된 이무기	552
용 승천	553
용 싸움	555
의견	593
접동새	661

풍속유래전설	763
고수레 유래	62
기지사줄다리기 유래	108
놋다리밧기 유래	158
동지팔죽 유래	204
열두 띠 유래	528
오곡밥 유래	539
차전놀이 유래	705
칠월칠석 유래	743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영웅·장수전설	532
강감찬	36
견훤	52
고종달	66
곽재우	73
궁예	92
김덕령	110
김부대왕	113
김유신	119
김응서	121
김춘추	122
남이	148
막산이	221
문무왕	249
박엽	275
선덕여왕	364
신돌석	417
신립	418
아기장수	493
오찰방	545
온달	547
원두표	577
이괄	599
이몽학	600
이성계	604

이순신	605
이여송	609
이완	610
이재수	614
이지란	615
임격정	629
임지한	630
장보고	640
전봉준	652
정충신	669
주원장	675
최영	728
최제우	731
통두란	755
호종단	805

이인·명사전설	612
고유	64
고창녕	66
김병연	111
김삿갓	115
류성룡	212
맹사성	228
박문수	271
박제상	276
서경덕	354
서고칭	355
서기	357
서화담	360
성삼문	374
송시열	400
송익필	400
양사언	506
우탁	567
이산해	602
이서구	603
이원익	610
이이	612
이준경	614
이지함	615
이항복	618
이황	619
정기룡	662
정도전	663

정렴	664
정철	669
채제공	709
최치원	732
토정	754
허목	787
허미수	788
황희	814

고승·이승전설	63
광덕 업장	77
나옹화상	139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도선	193
무학대사	246
밀본	259
보양	295
사명당	317
사복	318
서산대사	358
영규대사	531
원광법사	574
원효	582
의상	593
이차돈	617
진묵대사	697
해통	796

예인·재인전설	537
김선달	115
김종진	122
남사고	144
박상의	273
방학중	282
오물음	542
유의태	587
정만서	664
진좌수	699
허준	789
홍계관	808

기타인물전설	
공민왕	68
김현감호	124

논개	157
단종	168
도미의 처	192
도화녀비형량	194
무왕	246
방이	282
산상왕	325
서동	357
설씨녀	368
손순매아	397
수로부인	403
심화요탑	430
조신	671
지귀	683
처용	711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효녀 지은	816

민담	256
-----------	-----

이계담	596
선녀와 나무꾼	362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다	422
영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의 실수	650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69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환생담	811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천자가 된 구렁이	717

변신담	291
구령덩덩신선비	80
두꺼비신랑	207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백신랑	288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새털옷 신랑	352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여우구슬	518
여우누이	520
우렁각시	563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쥐의 둔갑	681
지네각시	684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호랑이로 변한 효자	801

동물담	202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견묘쟁주	51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구렁이의 보은	81
구토지설	90
까치의 재판	126
꼬리 잘린 호랑이	127
동물 나이 자랑	200
두꺼비의 보은	208
두더지의 혼사	209
말하는 남생이	225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꿈지	231
멸치의 꿈	236
무당호랑이	240
방리득보	282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시골쥐서울쥐	411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여우와 까마귀	521
은혜깊은 까치	591
인불구 유래	620
잉어의 보은	631
종소리	673
쥐의 보은	683
지렁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춤추는 호랑이	732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토끼의 재판	752
팔죽할멈과 호랑이	762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와 꽃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이물담	601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불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사귀가 된 엽전	314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산삼과 이시미	325
상사여귀	347
선녀홍대	363
쌍녀분	433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이야기주머니	607
조마구	671
흑부리영감	805
혼취	807
화수분	810

기인담	106
거인 장길손	45
목도령과 대홍수	238
반쪽이	277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삼천갑자동방삭	341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재주 많은 의형제	648

풍수담	765
가짜지관의 성공	31
금시발복 명당	101
괴로 얻은 명당	132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사자생손지지	320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수중명당	407
여우혈 명당	521
우물명당	564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임자 있는 명당	629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천자명당	717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점복담	660
다리 떨어 볼 떨어진다의 유래	164
돼지꿈	206
새끼 뺨 쥐와 웅한 점쟁이	348
천냥점 치고 잘된 사람	713
파자점	759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운명담	56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복여행	83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내 복에 산다	154
무수옹	243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재복데기	646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정승 낳을 여자	666
죽을 고비 세 번	679
차복	704
천생연분	715
청실홍실	724
호식당할 운명	804

행운담	785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금척	103
다시 찾은 옥새	164
대신 든 장가	177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새끼 서 발	349
쌀 노적 돌 노적	431
암행어사 젓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어사가 된 막넛사위	511
우연히 들어온 업	565
호랑이 눈썹	797

윤리담	590
가짜열녀	30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분지통 유래	60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도끼은도끼	98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랑 넓은 남편	191
돈 천 냥의 구원	197
동자삼	204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문동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부모 때리는 효자	300
불씨 지킨 며느리	30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상가승무노인탄	343
손 없는 색시	392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431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악형선제	502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엎질러진 물	515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516
연이와 버들도령	526
열녀시험	526
열불열녀	529
옛 지아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우목낭상	564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95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전실 자식 눈 뺨 계모	656
지렁이 삶아 봉양한 효자	686
지성이감천이	690
진정한 친구	698
천년두골쌍용수	714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말보다 나온 양아들	739
콩쥐팍쥐	744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의 유래	770
형제투금	795
효부와 호랑이	816

지혜담	695
간부 잡은 원님	33
곡성 안 들은 상복	66
기지 있는 부인	107

꼬마 명재판관	129
괴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도둑 잡은 아이	188
며느리 고르기	233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지재판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원님의 명판결	576
장승재판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파자놀이	757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사기담	314
거짓말 세 마디	46
괴쟁이 하인	133
꿀 싸는 강아지	134
돈 때먹는 법	196
돼지 맞돈	205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스님 골러먹은 상좌	409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오성과 한음	543
오성의 장난	543
음탕한 선생 발가벗긴 과부	592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첫날밤에 똥 싣 신부	721

우행담	567
거울 처음 본 사람	45
독장수구구	195
떡보와 사신	211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바보며느리	265

바보사위	266
바보원님	2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병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부부의 떡 다툼	301
상객의 망신	345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청어장수	725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팔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과장담	72
건망증 심한 사람	49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방귀시합	279
방귀쟁이며느리	280
성질 급한 사위	377
술 귀신 유래	408
이의 울음	611
자린고비	634
중들의 절 자랑	680

육담	589
감기의 유래	33
과부와 머슴	71
나도 계집 있다	138
내 병 다 나았다	153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	299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삐악삐악꼬꼬	311
삼대 후레아들 놈	332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성기 큰 남녀	374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 여인의 소원	378
소 바퀴 탄 사돈	385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처녀 더위 빼기	710
어회담	513
며느리의 말대꾸	236
새빨간 거짓말	350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허풍선이	790

형식담	793
꼬리따기	128
교부랑할머니	130
끝없는 이야기	135
쥐떼도강	681

용어	
	

각편	32
개촌신화	44
거인설화	46
계모담	54
공식적표현	70
관용적표현	75
관탈민녀	77
광포전설	79
구비문학	84
구연	88
금기화소	97
기능	105
난생화소	143
남매혼설화	144
단락소	168
단혈전설	169
당신화	173
도술화소	193
모방담	237
문헌설화	252
민속문학	259
변신화소	293
변이	293
병립구조	294

본풀이	297
삼화	343
설화	369
소화	389
수부지모	403
순차구조	408
시퀀스	417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420
신화소	428
아지담	500
아래자설화	504
연명설화	523
열행담	530
영웅의 일대기	534
우부현녀	564
우애담	565
원형	580
원혼설화	580
유형	587
이계여행화소	597
이류교혼화소	600
이야기꾼	606
이야기판	608
인문전설	620
인물전설	620
인신공희	621
일월신화	626
일화	627
자연전설	636
재담	646
적강화소	652
적대자	652
조력자	671
지역전설	691
지중용출	692
천부지모	715
탐색담	748
통과제의	754
트릭스터담	756
파송자	757
풍신신화	766
홍수설화	808

화소	809
환생화소	813
효행담	819

주제	
	

자료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고금소총	56
금계필담	97
기문	105
기문총화	105
대동야승	177
동야취집	203
동패낙송	205
매옹한록	227
명엽지해	237
보한집	296
삼국사기	331
삼국유사	331
속어면순	392
수이전	406
양은천미	508
어면순	511
어우야담	512
역옹패설	523
용재총화	561
잡기고담	639
제왕운기	670
진담록	697
차산필담	705
천예록	716
청구야담	723
청야담수	724
춘담해이	728
태평한화골계전	750
파한집	760
학산한언	774
해동고승전	779

가마고개
 가야건국신화
 가짜열녀
 가짜지관의 성공
 각시섬
 작편
 간부 잠은 원님
 감기의 유래
 감은사
 감은장아기
 강·폭포전설
 강감찬
 강릉인인진해령사신화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개로 환생한 어머니
 개무덤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개운포
 개촌신화
 거북바위
 거울 처음 본 사람
 거인 장길손
 거인실화
 거짓말 세 마디
 건국신화
 건망증 심한 사람
 걸어온 산
 견묘쟁주
 견우직녀
 견훤
 계룡산
 계모담
 계불삼년 구불십년
 계서야담
 계서잡록
 고구려건국신화
 고금소총
 고기 놓친 까마귀
 고대정본풀이
 고려건국신화
 고려장 없어진 유래
 고리봉
 고분지동 유래
 고석정

고수레 유래
 고승·이승전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고유
 고조선건국신화
 고종달
 고창녕
 곡성 안 들은 상복
 곱나루
 공갈못
 공민왕
 공식적표현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과부와 며슴
 과장담
 광재우
 관용적표현
 관음사
 관촉사은진미륵
 관탈민녀
 광덕 엄장
 광청애기본풀이
 광포전설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구렁덩덩신선비
 구렁이의 보은
 구룡사
 구복여행
 구비문학
 구슬할망본풀이
 구연
 구운 계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구월산

구도지설
 국사봉
 군웅본풀이
 궁예
 케네깃당본풀이
 귀머거리 동문서답
 글 잘하는 황정승 딸
 금강산
 금계필담
 금기화소
 금도끼은도끼
 금돼지굴
 금산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금시발복 명당
 금와왕신화
 금척
 기능
 기문
 기문총화
 기인담
 기지 있는 부인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김녕사굴
 김덕령
 김명연
 김부대왕
 김삿갓
 김선달
 김수로왕신화
 김알지신화
 김유신
 김유신신화
 김응서
 김중진
 김춘추
 김춘추신화
 김현감호
 김호랑이굴
 까치의 재판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꼬리 잘린 호랑이
 꼬리따기
 꼬마 명재판관
 꼬부랑할머니
 꽃·나무전설
 피로 얻은 명당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피쟁이 하인
 꿀 싸는 강아지
 끝없는 이야기



: 기억

L
 C
 2
 0
 8
 人

가마고개

정의 학통을 중시하는 각기 다른 두 집안 딸의 가마 행렬이 고개에서 충돌하여 대립하다가 두 딸을 자결하게 했다는 가마고개에 얽힌 지명전설.

역사 『하동지(河東誌)』에 전하는 비극적인 전설로 조선 유학자들의 파당 의식(派黨意識)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갈등이 크 나큰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이야기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현대시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줄거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중화골에서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학통을 이은 집안의 딸이 시집가기 위해 가마를 타고 나섰다. 고갯마루 안계골에 사는 퇴계 이황(李滉)의 학통을 이은 집안에서도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 가마를 내 보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가마가 고갯마루에서 서로 만나 대치하였고, 평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두 집안의 싸움으로 번져 나갔다. 며칠을 두고 대치하는 사이, 영남의 남명파와 퇴계파가 모여들어 자존심을 내세워 갈등은 점점 고조되었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두 집안에서는 가마에 타고 있는 딸들에게 돌덩이를 치마에 안고 절벽 아래 덕천강으로 투신하도록 권했다. 두 딸이 투신하고 난 후 대립했던 유학자들과 두 집안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흩어졌다.

변이 이 이야기는 남명 조식의 학통이 이어지는 영남, 그 가운데서도 서부 경남에서는 전승될 수 있는 내용인 까닭에 분포 지역이 하동에 한정된다. 대체로 『하동지』에 기록된 내용이 하동군 역사와 마을 유래 및 사적전설에 확대되어 전승된다. 두 집안의 가마가 고개에서 대치하는 상황 묘사에서 열사 흩어 연 사흘로 변이되는 기록도 있고, 영남 유학자들이 모여들어 저자를 이룰 정도였다고 묘사하는 변이도 있다.

분석 〈가마고개전설〉은 한국 선비들의 파당의식을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로 말미암은 비극으로 분석된다. 한편, 돌덩이를 치마폭에 감싸고 투신한 두 여인을 소속 집단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희생하는 이들로 보기도 한다. 즉, 가마고개에서의 대치와 소동이 공교롭게도 자신들이 시집가는 가마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일종의 죄의식을 느껴 두 여인이 죽음을 결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여인 중 한쪽 편만 죽으면 결과적으로 상대편 가문에게 승리를 제공하기에 상호 합의하여 함께 죽게 된 것이며, 이러한 두 여인의 자책감과 쌍방의 희생

이 이야기를 애뜻한 비극으로 끝맺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징 영남의 유학은 경상북도 안동 중심의 퇴계학풍과 경남 밀양, 산청 중심의 남명학풍이 경쟁하는 구도로 유지되었다. 중앙정계 진출이 잦았던 퇴계학풍은 산림처사를 표방한 남명학풍에 대해 우위를 강조하면서 남명학풍을 폄하하는 시각을 가졌다. 이러한 지역적인 갈등을 이 전설을 통해 표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선비의 의식구조(이규태, 신원문화사, 1984), 하동군지-해(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참고문헌 남과 북(고은, 창작과비평사, 2000),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박정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필자 김종군(金鍾濤)

가야건국신화

伽倻建國神話

김수로왕신화

가짜열녀

정의 부정(不貞)한 여자를 열녀로 꾸며 열녀비를 세운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어사 박문수가 민심과 풍속을 살피기 위해 전국을 순행하다가 어느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 집 총각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총각이 밤에 일이 있어 집을 비운 사이, 박문수가 바깥에 나갔다가 우연히 그 집의 과부 며느리가 간부(姦夫)와 놀아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죽였다. 밤중에 돌아온 총각은 죽은 형수가 자결한 것으로 꾸며 장사를 지낸 후, 정려(旌閭) 포상에 관한 제반 절차를 박문수에게 부탁하여 열녀비까지 세웠다. 그리고 낙성식을 한다면 서 잔치를 열고 의도적으로 거지들을 박대하였다. 그러자 거지들이 열녀비를 불태워 없앴다. 이는 총각이 외부의 정탐자로 인해 가짜 열녀비가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변이 〈가짜열녀〉 이야기는 내용상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세상에 알려진 열녀들 가운데는 가짜열녀도 있다는 것과 어느 특

정 성씨의 가문에서 열녀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가 사실은 가문을 위해서 꾸며낸 가짜라는 내용이다. 전자를 일반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특정 성씨 가문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문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기본적으로 열녀에 대한 화자(전승집단)의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그러나 각편에 따라서는 결말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부정한 형수를 열녀로 만든 총각을 적극 긍정하고 옹호하거나, 여자의 성욕을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로 인식하여 부정행위(不貞行爲)를 합리화하거나 이해하는 식의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분석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 따르면, 이 설화는 첫 번째 단계의 상위 유형에서 ‘4. 바르고 그르기’, 두 번째 상위 유형에서 ‘44. 그를 만해서 그르기’, 그리고 세 번째 상위 유형의 ‘441. 가족관계 그르치는 악행’ 중 ‘441-12. 서방질하다 들킨 가짜열녀’에 속한다. 각편의 변이를 기준으로 일반형과 가문형으로 구분하여 그 전승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다시 모티프의 침식에 따라 기본형, 변개형, 확장형의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여성의 정절에 대한 사회 일반의 요구와 기대, 사회적 욕구불만에 따른 비판과 여성의 생리적 욕구를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생기는 생명존중과 같은 전승집단의 의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특정 성씨 가문과 결부되는 변모를 통해 전승력을 갖추었다고 하겠으며, 지나친 정절의식이나 가문의식에 대한 화자의 비판을 반영함으로써 강한 공격성을 띠는 점이 특징이다.

의의 여성의 성욕을 생리적 본능으로 인식함으로써 열녀설화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4, 292; 4-5, 589; 5-7, 69; 6-3, 454; 6-10, 522.

참고문헌 가짜열녀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전승의식(곽정식, 어문학88, 한국어문학회, 2005), 구비 열설화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이인경,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한국고전여성학회, 2002).

필자 곽정식(郭正植)

가짜지관의 성공

정의 가짜풍수 또는 가짜지관이 진짜 노릇을 하여 우연히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민담.

줄거리 형은 지관으로 풍족하게 살고 동생은 멩팅구리로 못 살았다. 하루는 동생 부인이 형의 쇠[佩鐵, 지관이 가지고 다니는 자침]를 훔쳐 남편에게 주고 지관질을 하라고 떠나보냈다. 어느 부잣집 상가(喪家)에 가서 주인의 맘에 들어 밧자리를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의 도움으로 밧자리를 무사히 잡아 주고 나왔다. 또, 도시혈(逃尸穴)에 쓴 묘의 시신을 찾아주고 많은 돈을 받아서 두 내외가 그 아이와 행복하게 살았다. 국상(國喪)이 나자 나라에서 부르니 그 아이가 젓가락으로 눈을 멀게 한 후 떠났다.

분석 가짜지관은 처음부터 가짜가 아니고 지관인 형이나 이웃 사람의 행위를 모방하여 의도적으로 가짜가 되는 인물이다. 풍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고사하고 아무런 예비지식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길을 떠나는 존재이기도 하다. 설화 전승집단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행위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구연하고 듣는다. 바꿔 말하면 가짜지관이 출발할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 성공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한다.

지술을 시행할 때 가짜지관은 난관에 봉착한다. 때로는 위계를 쓰거나 거짓말을 하며, 때로는 이인(異人)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명당을 선정하여 준다. 그러나 가짜지관의 행위는 반복되지 않는다. 가짜지관은 경제적 결핍과 같은 이유 때문에 풍수 행세를 하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일종의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통해 성공하고 행운을 얻는다. 민담이 가지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가짜지관 이야기는 풍수담의 일반 양식에서 크게 어긋나 보이나 이 역시 난해하고 추상적인 풍수 관념을 단순화시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민중의 상상력이 발휘된 결과이며, 전형적인 민담적 발상이다.

특징 멩풍수 이야기와는 달리 가짜풍수가 엮어내는 예기치 못한 행위 양식과 결과에 관심을 두며, 결핍 상황에서의 출발과 결핍 해소 상황의 귀환이라는 민담의 서술형식(敘述形式)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짜지관들은 ‘출발-탐색 과정-귀환’을 통해 민담이 지닌 골격적(骨格的) 특성을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5-2, 396; 5-6, 107; 5-7, 423.

참고문헌 가짜 풍수담 연구(장장식, 인산김원경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동 간행위원회, 1988), 구조적으로 본 민담의 주인공(최인학, 한국민속학17, 민속학회, 1984), 백제문화권역의 상례풍습과 풍수설화(이수봉,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6), 한국설화분류체계와 알고 모르는 사연(조동일, 구비문학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한국 풍수설화 연구(손정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장장식(張長植)

각시섬

정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섬으로 약초를 구하러 갔다가 구렁이가 된 아내와 그 섬의 지명유래에 얽힌 전설.

줄거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백학산 밑 갯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다. 남편이 우연히 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이르자 아내가 마을 앞에 있는 영광군 불귀도(不歸島)로 약초를 캐러 갔다. 불귀도는 한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고 알려진 섬이었다. 아내가 불귀도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남편은 미음도 마시지 못하고 섬을 바라보면서 애처롭게 죽어 갔다. 먹구름이 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보니 불귀도 쪽에서 무엇인가가 헤엄쳐 오고 있었는데 구렁이었다. 사람들은 구렁이가 이상한 풀잎을 입에 물고 남편이 죽어 있는 백학산 산자락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 이튿날 날이 밝자 전날 바다를 건너왔던 구렁이가 부부의 집을 나와 다시 섬으로 건너갔다. 사람들은 그때야 백학산 산자락의 젊은 남자를 생각해 내고 집으로 가 보았다. 하지만 병든 남자는 이미 죽었고 그 곁에는 어제 구렁이가 물고 온 풀잎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 구렁이가 분명 약초를 구하러 간 아내였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후부터 사람들은 불귀도를 각시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람들은 아내의 정성을 가늠하게 여겨 장사지내고 불귀도에 각시당을 지었다. 그리고 매년 정월에 큰 제사를 지내 그 원혼을 달래 주고 있다.

변이 줄거리에서는 구렁이가 불귀도로 돌아가지만 변이본에서는 죽기도 한다. 구렁이가 약초를 물고 헤엄쳐 온 이튿날 날이 밝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미 죽은 남자 옆에 구렁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는 내용이다. 내용이 다른 <지리산설화>도 있다. 지리산 산신이 큰 각시와 작은 각시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두 각시가 질투가 심해 산신이 그들을 바다로 던져 버렸더니 각각 대각씨도와 소각씨도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분석 이 전설은 구렁이 이야기와 섬의 지명유래담으로 구성된다. 설화에서 구렁이는 ‘업’으로 간주하여 매우 신성시되는데 이 전설에서는 각시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약초를 구해오지만 이미 남편이 죽어 쓸모없어졌다는 비극적인 사랑이야기로 남아 있다. 돌아오지 못하는 섬, 불귀도라는 지명과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을 다녀온 아내의 역할에서 물과 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 ‘대칭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특징 서남해 전 지역에 이 설화가 다양하게 분포한다. 여기서는 무안반도와 불귀도 간의 관계가 구렁이와 각시당으로 나타난다. 무안반도의 마을 사람들이 각시당을 지어 매년 성대한 당제를 지냈다는 것은 무안반도와 불귀도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했음을 보여 준다.

의의 아내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섬인 불귀도로 들어가 구렁이가 되었다. 구렁이는 변이본에 따라 다시 각시섬으로 돌아간 예도 있고, 남편과 같이 죽은 예도 있다. 이를 열녀설화적 관점보다는 섬과 물의 불가분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전설에서 물과 섬의 대칭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이입해 구렁이라는 신성한 매개물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출처 영광의 노래와 글 모음(영광향토문화연구원, 1991), 한국지명총람-전남 3(성문출판사편집부, 한글학회, 1983).

참고문헌 칠산어장권의 해신신앙과 특징(이영금, 인문과학논총27,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필자 이윤선(李允先)

각편

各篇

정의 구연자가 구연한 구비문학 작품을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말.

내용 구연자가 구연한 각각의 구비문학 자료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미 존재하는 형식에 구연자가 자신만의 표현 등을 첨가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따라서 구연자의 능력에 따라 각편은 같은 갈래의 것이라 하여도 서로 편차가 클 수도 있다. 각편은 각각의 자료를 구분시켜 주는 고정체계와 구연자의 특성이 발휘되는 비교정체계로 이뤄져 있다. 구연자의 능력에 따라 각편은 풍부해지기도, 빈약해지기도 하는데 이 양상은 갈래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민담이나 민요, 판소리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구연자에 따른 각편의 차이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무가, 수수께끼, 속담 등은 구연자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연자의 망각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구연이 있을 경우, 구연자료를 각편을 형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자 노영근(盧暎根)

간부 잡은 원님

정의 현명한 원이 지혜를 통해 살인자를 밝혀낸 설화.

줄거리 선비 셋이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막 주인 내외가 장을 보러 간 사이 그 집 딸이 저녁상을 봐 왔는데, 미모가 출중하였다. 선비들은 그 처녀에게 먼저 말을 붙이는 사람이 서울까지 가는 경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그날 밤에 최 씨가 처녀의 방에 가 보니 처녀는 칼을 맞아 이미 죽어 있었다. 최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칼을 빼서 씻고 손수건으로 싸서 가지고 있었다. 주인 내외가 돌아와서 딸이 죽은 것을 보았다. 최 씨는 자기가 처녀를 죽였다고 말하고는 스스로 관가 옥에 갇혔다. 원은 이방을 옥에 보내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 오도록 했다. 최 씨는 이방에게 손수건에 쓴 칼을 건넸다. 원은 제일 좋은 칼을 가져 온 사람에게 황소 한 마리를 준다고 온 동네에 알렸다. 칼이 다 모였을 때 최 씨가 가지고 있던 칼의 주인을 수소문하니 처녀의 간부였던 범인이 멀리 부산에 있는 외가에 있다가 잡혀 왔다. 그렇게 해서 범인을 잡았다.

변이 열다섯 먹은 현명한 원이 본처의 아이를 죽인 첩을 잡은 이야기도 있다. 원은 고을 안의 모든 사람을 모아 놓고 해가 질 때까지 서 있게 했다가 가라고 한다.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돌아갈 때, “애 죽인 놈(년) 게 셋거라.” 하니 아이 죽인 첩이 제자리에 주저앉았다는 내용이다.

분석 현명한 원이 지혜와 기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들에서는 송사, 재판 등 풀기 어려운 사건들이 제시되고 긴장이 고조되다가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서 원의 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반전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심리적 접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송사나 재판 등 개인의 이권이 얽힌 문제에서는 논리적인 설득보다 이면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의 해결을 통해 원의 우월성이 드러나며, 통치의 정당성이 지지된다.

특징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중심 모티프라는 점에서 <아지재판>과 같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이가 아닌 어른인 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의의 지혜 있는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혜가 통치에 있

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임을 시사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602; 7-11, 782.

참고문헌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지혜담 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필자 이성희(李聖熙)

감기의 유래

정의 성기를 두 개 가진 사람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죽어 귀신이 되어 콧구멍에 대고 욕망을 푸는 데서 감기의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 감기의 유래에 관한 설화.

줄거리 어떤 왕자가 있었는데 성기가 두 개였다. 왕자가 장가 갈 나이가 되자 왕은 신하들에게 성기가 둘인 처녀를 찾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처녀는 없었고, 결국 왕자는 죽었다. 죽어서 감기(고뿔) 귀신이 된 왕자는 생전에 채우지 못했던 욕망을 사람의 콧구멍에다 대신 풀곤 하였다. 감기에 걸리면 처음에 코가 막히고 코 막힘이 풀린 후에는 콧물이 흐르면서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감기 귀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변이 이 설화의 변이형은 짝을 찾는 주인공이 두 개의 성기를 가진 처녀로 바뀌는 형태이다. 어떤 대감이 성기가 둘인 딸을 시집보내고자 성기 둘 가진 총각을 찾는 방을 붙이는데, 냇물에 떠내려오는 성기를 주워 자신의 것과 크기를 비교하려다 몸에 달라붙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성기가 둘이 된 가난한 총각이 그 처녀와 혼인하여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이 설화는 다시 처녀가 과부로 바뀌기도 하고, 부자가 된 총각을 보고 이웃 총각이 따라 하려다가 성기가 코에 가서 붙는다는 내용이 덧붙은 각편도 있다. 그 밖에 감기에 걸렸을 때 “에이, 이놈의 개좃뿌리야.”라고 외치면 감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주인공의 욕망이 좌절되고 비극적 결말을 맞으며, 감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특정 현상에 대한 유래담이라는 점에서 전설적 성격을 띤다. 이와 달리 둘째 유형은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만난 주인공이 욕망을 실현하고 부자가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맺는 전형적인 민담의 성격을 지닌다. 두 개의 성기를 가진 주인공이 왕

이나 대감 같이 지체 높은 집안의 자제이거나 부유한 과부로 나타나는 것은 두 유형 모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의의 예로부터 민속에서는 큰 성기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다. 설화를 보면 신라의 지증왕과 왕비,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그 왕비 역시 엄청나게 큰 성기를 지닌 인물들로 전해진다. <선문대할망> 같은 거인설화에서도 커다란 성기가 강조된다. 성기를 두 개로 과장한 이 설화 역시 모티프에서 이전 설화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주인공이 원하는 짝을 찾고 가족과 부를 함께 얻는 이야기는, 대형 성기를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했던 기존 신화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성기 관련 신화의 원형적 상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또, 코의 크기가 남근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믿는 속설, '개좃뽕'을 외쳐 감기를 쫓았던 민간 풍습에 대한 이해와 감기의 고유어인 '고뽕'의 어원을 밝히는 자료로도 참고할 만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3, 493; 8-9, 92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151; 10, 341.

참고문헌 한국문화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2),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김복순(金福順)

전설

감은사

感恩寺

문무왕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 있는 절터 감은사지



감은사지 전경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문화재청

와 관련된 전설.

줄거리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선대 부왕인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 해변에 감은사(感恩寺)를 지었다. 절 기록에 이르기를 문무왕이 일본 군사를 진압하기 위하여 처음 이 절을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어 용이 되었으며,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 682년(개요 2)에 내부 장치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절 문지방 아래 동쪽을 향하여 구멍이 한 개 났는데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서릴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한다. 유언에서 뼈를 간직하라는 곳이 대왕암이요, 절 이름이 감은사며, 현신한 장소를 이견대(利見臺)라 하였다고 한다. 절의 폐사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은 금당터 앞에 거대한 석탑 2기가 동서 양쪽에 있다. 이들 두 탑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이른 시기의 삼층석탑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112호로 지정되어 지금에 이른다.

분석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은 감은사와 죽어 자임하여 용이 된 문무왕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설화이다. 감은사 관련 설화들은 감은사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설화와 문무왕 득천설화가 서로 분리되거나 결합하면서 변이형을 낳는다. 전자의 예는 용혈을 통해 감은사로 내왕하는 용 설화, 호국사(護國寺)가 감은사가 된 내력담, 감은사 대종을 훔쳐 가다가 대왕암 앞에 빠뜨린 왜적에 관한 이야기 등이다. 후자의 예는 전자의 이야기에 문무왕이 득천하면서 울릉도를 제외한 동해의 섬을 없앴다는 내용이 결합된 것이다.

<감은사설화>들은 증거물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놓여 이야기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연구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다만 이들 개별 이야기가 한국적 호국룡설화의 층위로 통합될 때는 한국 호국룡설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감은사지 발굴시 노출된 유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문화재청

특징 감은사, 용이 드나들도록 만들어 놓은 용혈, 그리고 대왕암 등의 상관구조는 특이하게 평양의 <기린굴신화>의 영명사, 기린굴, 초전석 등의 상관구조와 같다. 이를 통해 볼 때, <기린굴신화>의 바탕을 이루는 신화 체계가 고구려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은사설화>에도 그대로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의의 감은사는 원래 죽어서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자임한 문무왕이 창건을 시작한 절이다. 마침내 문무왕은 호국의 용신으로서 그리고 풍요신이자 농업의 용신으로서 득천한다. 이로 보아 <감은사설화>와 이와 결합된 문무왕 득천설화는 불교의 호법용과 고유의 용신앙을 기반으로 한 한국 고유의 호국룡설화이다.

출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634; 636.

참고문헌 감은사지 삼층석탑 구조에 관한 연구(남시진, 건축역사연구17, 한국건축역사학회, 2008), 기린굴신화 연구(전관수, 동방학지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문무왕의 사상과 대왕암전설(영전정지,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문무왕의 산골 처와 문무왕릉비(김창호, 경주문화연구9,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문무왕 호국룡설화의 교육적 의미(이동철, 한민족문화연구16, 한민족문화학회, 2005).

필자 김화경(金和經)

신화

감은장아기

삼강분류기

전설

강·폭포전설

江·瀑布傳説

정의 강과 폭포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설화.

역사 신화 속에서 강은 인류 탄생의 모태(母胎)이다. 고구려 시조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柳花)는 강의 신 하백(河伯)의 딸이며, 해모수(解慕漱)와 압록변(鴨綠邊)에서 사통하고 낳은 아들이 주몽이다. 한편, 강은 두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境界)로서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주몽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졸본부여(卒本夫餘)를 건설하였다. 무신(巫神)인 마리공주는 갓은 고난 끝에 강을 건너 서역국에서 생명수를 얻었다. 폭포는 물의 흐름이 중단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폭포는 적막함과 신비로운 정경에 의하여 선녀와 용과 관련한 설화를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어 왔다. 대부분의 폭포 관련 설화는 폭포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 폭포 아래에 있는 용소(龍沼)에 살던 용이 승천(昇天)하는 과정에서 폭포가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

내용 설화 속에서 강은 공간적으로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짓는 경계선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인간을 현실 세계로부터 격리 또는 분리시키기도 한다. 한편, 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흐른다는 속성을 지니기에 두 대상을 연속선상에서

만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6대 임금인 단종은 강 건너에 위치한 청령포(淸冷浦)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조선시대 중기의 장군인 신립은 임진왜란에서 왜군과 대결해 패배하자, 그의 부하 장수와 함께 강에 투신하여 자살을 한다. 여기서의 강은 그들이 몸담았던 현실 세계와의 격리 또는 죽음을 통한 이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설화 속에서 비극성을 더해 준다. 한편 조선시대 초기 문신인 원호는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자, 그 서쪽에 집을 짓고 단심(丹心)으로 단종을 그리며 편지를 써서 표주박에 담아 강을 통해 단종에게 보낸다. 단종 또한 답신을 표주박에 넣어 강에 띄운다. 강을 거슬러 흘러간 표주박에 담긴 답신을 원호가 전해 받는다. 강은 충(忠)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두 인물을 이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강이 때로는 설화 속 주인공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구려 장군이었던 온달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산성에서 싸움을 하던 중에 산성 앞을 흐르는 강을 말을 타고 건너뛴다. 인간이 느끼는 강의 거리감을 스스로 극복하고 장군적인 면모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폭포 또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속성으로 인간 세상에서 죽음을 통해 대상을 분리시킨다. 반대로 폭포 아래에서 폭포를 바라보면 위로 올라가는 공간, 곧 승천의 공간, 바꾸어 말하면 폭포 아래 살던 용이 승천하는 곳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폭포가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폭포설화는 대부분 폭포에 의해 형성된 소(沼)와 연계해서 설화가 전승한다. 박연폭포의 경우, 박 진사가 폭포에 놀러 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못 속에 사는 용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폭포에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 자신도 떨어져 죽는다. 이후로 박씨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 불렀다고 한다. 청학동에 소재한 불일폭포 아래는 신

선과 용이 살던 공간이었다. 청학동이 소문이 나자 유람객들과 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름답고 조용하며 살기 좋던 신선의 동네가 차츰 번잡해졌다. 용추에 살던 용은 알맞은 풍우와 온화한 기후로 만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였다. 그러나 분위기가 어수선했지자 용은 승천을 하고 만다. 승천하는 과정에서 산이 갈라지고 물길이 바뀌면서 폭포가 생기게 된 것이다. 한편, 폭포의 힘찬 물줄기는 '씻어낸다'라는 이미지에 때문에 설화 속에서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의정부에 소재한 회룡폭포는 문동병에 걸린 처녀의 병을 고쳐 준다. 한 처녀가 문동병에 걸리자 전염을 두려워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패산의 한 동굴에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굴 옆에 있는 폭포에 가서 세 번 기도한 후 물을 마셨더니 처녀의 병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특징 전승하는 강·폭포 관련 설화는 매우 다양해서 간단히 정리할 수 없다. 보편적으로 강과 폭포는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해서 흐르기 때문에 강의 이편과 저편, 폭포의 위와 아래의 세계로 구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설화에서는 강을 인간의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경계로서 인식하게 하기도 하며, 강을 통해서 인간과 신의 세계를 구분하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폭포도 용의 승천으로 형성되었지만, 강과 마찬가지로 역할을 담당한다.

의의 이와 같은 설화를 간직한 강과 폭포는 우물, 바다, 못 등과 아울러 수신(水神)이 거처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고대 국가로부터 제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곧, 하나의 성역(聖域)으로서 신앙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단양군 민속조사보고서(김영진, 단양문화원, 1992), 단양 남한강 민속을 찾아서(최명환 외, 대선, 2004), 역사 인물담에 수용된 남한강의 의미(최명환, 충북학10, 충북학연구소, 2008), 온달문학의 설화성과 역사성(이창식 외, 박이정, 2000), 한국문화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두산동아, 1992).

필자 최명환(崔明煥)

전설

강감찬

姜邯贊

정의 고려의 명장 강감찬(姜邯贊, 948~1031) 장군과 관련된 설화.

역사 강감찬은 우리나라 3대 명장 중의 한 명으로, 그가 주도한 귀주대첩은 우리나라 6대 전첩으로 꼽힌다. 그의 공적은 문헌기록이나 인물전설로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강감찬설화>는 문곡성과 관련된 탄생담, 호환이나 미물 퇴치 등으로 나뉜다. 한 사신이 밤에 시흥군으로 들어서는 데 큰 별이 어떤 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집을 살펴보니 마침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았다. 사신은 이 아이를 데려다 길렀으니 곧 강감찬이었다. 강감찬이 한성판관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아전과 백성들이 범에게 피해를 입자 범이 중으로 변한 것을 알고 강감찬이 이를 강력하게 징벌하여 한성부의 호환을 없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落星臺)는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로, 그가 출생할 때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지명이 유래하였다. <강감찬전설>은 고려시대 최자(崔滋, 1186~1260)의 『보한집(補閑集)』에서 문곡성

(文曲星) 출현의 출생담이 전하고, 조선시대 초기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호환을 없앤 이야기가 실려 있다. 만종의 『해동이적(海東異蹟)』에도 호환 퇴치와 문곡성 이야기가 전하고, 손진태는 <강감찬 금와환(禁蛙喧)전설>을 소개하였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감찬 관련 설화는 65편이다. 이들 설화 각편으로 본 변이양상은 별자리와 관련된 시흥군 문곡성의 탄생, 염정성 별자리의 탄생, 한양에서 중으로 변한 호랑이 퇴치, 경주 개구리울음 퇴치 등 신비한 행적을 보인다. 그는 강릉부사, 공주목사, 논산현감, 경주부사 등의 벼슬을 하였다고 하며, 강릉 지역에 구전되는 설화에서는



낙성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문화재청



낙성대 유희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문화재청

강릉원님, 장군, 대감, 여우를 퇴치한 지혜로운 사람, 개미를 없게 한 기가 센 인물, 개구리를 못 울게 한 신통력 있는 장군, 풍수를 아는 인물 등으로 나온다. 경기도 지역은 강감찬의 부친이 고을 원님·훈장·선비·정승으로, 충청 지역은 오입쟁이·소금장수·무관으로, 경상도 지역은 정승 등으로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강감찬의 어머니는 여우가 변신한 아흔아홉 번째 처녀라고도 한다. 이는 짐승과 결혼한 이물교혼(異物交婚) 또는 이류교구(異類交媾)의 경우로서, 그런 연유로 강감찬은 짐승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여우가 변신한 신랑을 퇴치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강감찬이 천리안을 지녔으며 축지법과 부적을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기도 한다. 그는 오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별상인 손님마마신을 불러 얼굴에 곰보자국을 일부러 세 차례 또는 다섯 차례나 만들었다고 한다. 귀가 작은 박색, 작은 키, 여우상, 거지꼴 등 외모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짐승이나 미물 등을 퇴치한 경우 대상은 호랑이가 가장 많고, 개구리, 모기, 개미, 구렁이, 도깨비, 독수리, 용이나 자연현상인 벼락, 식물인 칩뿌리를 제거하는 등의 변이가 나타난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여우혈을 없애 집안을 구하고 혼령을 잃은 친구를 구하며, 벼락살 또는 벼락방망이를 쥐는 등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이적(異蹟)을 보이지만, 물 인심이 야박한 동네에서는 부적으로 그 동네의 물을 마르게 하는 등 훈계적 행위도 보인다. 강릉단오제에서 진행되는 <관노가면극>의 험상궂은 인물인 '시시딱딱이'는 강감찬 장군이 마마에 걸린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질병이

돌지 않게 하는 예방주술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향토오락』에도 강릉국사당계오광대놀이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목제인형으로 놀이한다고 하였다.

분석 조선 효종 때 홍만종이 쓴 『해동이적』에는 호환 퇴치와 문곡성 외 두 가지 화소가 들어 있다. 그 줄거리를 기술하면, 강감찬은 평장사로서 고려 현종 때 사람이라 하였다. 성품이 청렴하고 검소하며 지략이 풍부했다. 일찍이 한양부 관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 한양에 호랑이가 출몰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강감찬은 문서를 써서 복문 밖의 두 중에게 전달했다. 강감찬은 이들에게 속히 무리를 이끌고 멀리 가라고 명하였다. 한양유수는 중더러 호랑이라 한다고 믿지 않았으나, 강감찬이 본신을 드러내라고 하자 두 중은 가사를 벗고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울부짖었다. 강감찬이 빨리 가라고 명하니 간 곳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뒤부터 호랑이로 인한 근심이 사라졌다. 처음에 강감찬이 태어날 때 송나라 사신이 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갔다가 큰 별이 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전을 보내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집 부인이 마침 사내아기를 낳았다. 송나라 사신이 와서 그를 보고는 문곡성이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기에 있다며 절을 하였다. 강감찬은 나이 84세에 죽었는데, 세상에서는 그가 신선이 되어 올라갔다고들 했다. 현공림이 쓴 <강감찬전>에는 강감찬이 삼각산에서 중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쫓은 일과, 경주의 개구리울음을 그치게 한 공로를 기록하였다. 이 내용은 지역에 따라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역을 바꾸어 전승하기도 한다.

특징 <강감찬전설>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 실존인물의 위대성이 민간에서 숭앙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문곡성의 화신이라는 탄생담, 여우 모친의 신비한 출생, 작은 키, 곰보, 박색의 특이한 외모, 벼슬한 관리, 짐승이나 미물 퇴치의 능력 소유, 마을신격으로 강원도 횡성 현천성황신이 되기도 하였다. 강감찬의 모계가 여우라는 동물교혼설화 유형을 밟는 등 실존인물 강감찬에서 민담적 인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의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인 강감찬에 대한 전기적 구성으로 출생부터 성장, 관원의 길을 통해서 민중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상들을 척결하는 친근한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외적에 맞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역사성을 기초로 민중과 관련된 구체적 사건을 통해서 존재를 부각시키고, 벽사진경을 추구하는 신앙인물로 형상화하였다. 강감찬이 민중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술사의 모습으로 구체

화되거나 생활상 장애를 제거하는 현실적 해결사로 구전된다는 점에서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姜邯贊傳, 高麗史, 補闕集, 海東異蹟,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574; 2-3, 194.

참고문헌 강감찬전(현공림, 경성 광동서국, 1908), 강감찬전설연구(장장식, 석천 정우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0), 강릉지역 강감찬설화의 내용과 상징(장정룡, 임영문화29, 강릉문화원, 2005), 강원지역 강감찬설화 고찰(장정룡, 강원민속학17, 강원도민속학회, 2003),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장정룡(張正龍)

신화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江陵安仁津海靈祠神話

정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강릉안인진해령사에 전해 오는 신화.

역사 이 신화는 약 400여 년 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안인진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의 결집을 위하여 동제를 지냈는데, 이때부터 <해령사신화>는 제의와 함께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강릉에 이 부사라는 사람이 관리로 부임해 왔다. 날씨 좋은 어느 날, 이 부사는 경치가 좋은 강릉 안인진으로 관기(官妓)를 데리고 놀러 갔다. 안인진의 해령산에 도착한 부사는 관기에게 그네를 타 보라고 청하였고, 관기는 그네를 타다가 그만 줄이 풀어져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일로 이 부사는 안인진 사람들에게 죽은 관기를 해령신으로 모시고, 닳을 위로 하기 위해 성황당을 지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 주라고 명하였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는데, 처음에는 보통 제사처럼 제(祭)를 지냈다. 그러나 마을에는 해난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고기도 잘 잡히지 않아 근심 걱정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신이라 해도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나무로 깎은 남근(男根)을 제물로 봉헌하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로 바다에 풍년이 들고 해난 사고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1930년 경, 마을 이장의 부인이 갑자기 미쳐 “나를 김대부에게 시집을 보내 달라.”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해령당 근처를 날뛰고 다녔다. 마을 이장은 부인을 위해 세상의 모든 약을 다 써 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저 여자 말대로 한번 해 봅시다.” 하고 김대부신의 위패를 깎아 놓



강릉안인진해령사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2011.10.14, 김태우



사당안의 신위와 영정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2011.10.14, 김태우

고 해령신과 혼인시켜 주었다. 그러자 이장 부인의 미친병이 깨끗이 나았고,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해령당에 남근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다른 지역의 어부가 이곳에 와서 남근을 깎아서 제를 지내다가 그만 바위 끝에서 발을 헛디뎠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지켜 본 마을 사람들은 해령신이 이미 김대부신과 혼인했기 때문에 남근을 바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 생각되어, 더 이상의 남근은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

변이 이 신화와 비슷한 유형은 동해안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남근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역에 따라 나무로 깎은 남근을 제물로 바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소의 생식기를 바치는 곳, 여신을 모시는 서낭당의 위패를 남근 모양으로 깎아 사용하는 곳, 심지어는 여신을 모신 곳에 제판들이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는 곳도 있다. 이 신화의 내용에서는 처음에 남근을 바쳤다가, 신화의 주인공인 해령(여신)과 김대부(남신)가 혼인한 이후부터는 남근 봉헌을 하지 않았다.

분석 이 신화에서 처녀로 죽은 해령을 위해서 나무로 남근을

깎아 봉헌 했다는 것은 동해안 어촌의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구조의 하나이다. 강원도 고성군 문암에서는 여신에게 나무로 만든 남근을 바쳤으며, 이 지역에 있는 가진에서는 여신을 모시는데 위패를 남근 모양으로 하였다. 그 밖에 다른 어촌 지역에서는 수소의 생식기를 제물로 봉헌하였다. 이런 행위는 바다의 신(神)인 여성신에게 결핍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바다에서 풍어와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주술 행위이다. 그러나 해령과 김대부를 혼인시키고 난 후부터는 남근을 바치지 않았으며, 두 신이 혼인한 사실을 무시하고 또 남근을 바쳤다가 화를 당한 내용은 동해안 어촌신화에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내용이다. 이미 결혼한 여신에게 남근을 봉헌한다는 것은 간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조선시대 유교의 교풍을 배경으로 의도된 발상으로 보인다. 사회학에서 ‘단혼제(單婚制)’라고 불리는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두고 혼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비록 신화지만 여성은 마땅히 사회 제도를 따라야 하며 조신하게 한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행위소의 결합구조

이 신화는 원혼·신벌·영험 세 가지의 ‘행위소(actant)’가 나타난다. 또한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사슬형이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왼쪽과 같다. 그림을 살펴보면, 신화의 주인공이 죽은 후 마을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흥어와 기근을 가져오고(원혼), 마을 이장의 부인이 미쳐서 김대부와 혼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신벌), 제물로 처음에는 남근을 바치지만 나중에는 김대부신과 혼인시켜 마을에는 풍어와 안녕을 가져왔다(영험)는 것이다.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원혼·신벌·영험 간에 서로 떨어지지 않는 친연성을 보이고 있으나, 원혼과 영험의 행위소는 서로 결합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고리를 신벌이라는 행위소가 이어 주고 있다. 즉, 신벌의 행위소는 원혼행위소와 영험행위소 사이에서 결합을 이어 주는 교량 역할을 하며, 신벌의 행위소가 빠지면 이 신화의 행위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구조가 된다.

특징 이 신화에서는 행위소 사이의 결합 구조가 ‘원혼+신벌+영험’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벌’의 행위소는 두 번이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신화의 주인공이 ‘신벌’을 내리는 이유는 처음엔 자신의 결핍된 남성성을 채우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는 이미 결혼한 자신에게 간통을 시키려다 ‘신벌’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신화의 전승과정에서 사회 질서가 반영되어 내용이 첨가된 형태로 보인다.

의의 신화의 주인공은 자신에게 결핍된 남성성을 목조 남근으로 채워 주자 마을에 풍어와 해상 안전을 보장하였다. 그 후 신화의 주인공은 김대부신과 혼인하였고, 이로써 목조 남근의 봉헌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김대부신과 혼인한 후에도 목조 남근을 제물로 바친 사람에게는 신벌을 내렸다는 내용에서 볼 때, 이 신화는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유교를 근간으로 일부일처제라는 사회 약속이 신화 속에 서사구조로 반영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강릉시사(강릉문화원, 1996), 강원 어촌지역 전설 민속지(강원도, 1995),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이승철,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두창구, 국학자료원, 199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508.

참고문헌 강원도 서낭신앙의 유형적 연구(장정룡, 한국민속학22, 한국민속학회, 1989), 성기신앙의 형태와 성격(장장식, 한국민속학27, 한국민속학회, 1995),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근, 집문당, 1994), 한국민속제의와 음양오행(김의숙, 집문당, 1993), 한국 성신앙연구(이종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이승철(李昇哲)

민담

개가지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정의 며느리가 친정의 강권에도 개가지지 않고 시부를 모신 호랑이가 감동하여 도와주었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어느 곳에 남편이 일찍 죽어 과부가 된 며느리가 살았는데, 친정에서는 자꾸만 개가하라고 했다. 하지만 홀로 된 시부가 병까지 나서 어렵게 살기에 개가할 생각은 않고 정성껏 봉양을 하였다. 친정에서는 딸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느 날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 부고를 보냈다. 며느리는 병든 시부를 위해 죽을 꿇여 상에 차려 놓고 친정에 갔다. 가서 보니 개가지키기 위한 계략이었다. 딸은 화를 내면서 그 밤으로 되돌아오는데 산과 강이 있어 밤길이 어려웠다. 그때 어디서 호랑이가 나타나서 며느리를 태워 단번에 시가까지 데려다 주었다. 며느리는 더욱 정성으로 시부를 봉양했는데, 어느 날 꿈에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음을 알렸다. 며느리가 그곳으로 찾아가 호랑이를 살려 주었다.

변이 가난한 시가의 시아버지 처지는 홀아비가 대부분인데, 병중이거나 맹인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간혹 시부 대신 맹인 시모가 등장하기도 한다. 며느리의 남편은 없는 것이 주종을 이루나, 있어도 앓은뱅이 같은 장애인이다. 호랑이의 도움으로 맹인이 눈을 뜨거나 앓은뱅이가 일어설게 되기도 한다. 며



열녀를 도운 호랑이 무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능산리, 2012.6.9, 배도식



언양 열녀정려각 정려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능산리, 2012.6.9, 배도식

느리가 호랑이 목구멍에 낀 비너를 제거해 주어 그 보답으로 호랑이의 도움을 받는 확장형도 보인다.

분석 착한 며느리를 도와주는 이런 유형의 호랑이설화는 상당히 많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7편이 실려 있고, 『한국의 민담』에 1편, 『조선호랑이 이야기』에 1편이 실려 있다. 문헌 설화로는 『동야취집(東野彙輯)』과 『청구야담(靑邱野談)』에 도 각 1편씩 있다.

이 설화에서 호랑이는 사람을 해하는 맹수나 단순한 짐승으로 등장하지 않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는 신령성을 지니고 있다. 효부를 등에 태워 주는 것은 물론 시가의 맹인이나 앓은뱅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능력을 보이는 점이 그러하다.

의의 부족한 환경에서 홀로된 며느리가 불구의 시부모를 잘 모심으로써 효를 실천함을 보여 주는 교훈적인 설화이다.

출처 東野彙集, 靑邱野談, 조선호랑이 이야기(이가원, 학민사, 1993),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설화문화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한국 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호설화 연구의 예비적 접근(배도식, 국어국문학16, 동아대학교, 1996).

필자 배도식(裴桃植)

민담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정의 유복자를 임신한 채 개가한 여인이 유복자를 잘 키워서 본가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소씨 가문의 삼대 과부인 한 여인이 보쌈을 당한다. 여인은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유복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하문(下門)을 지키며 버틴다. 이후에 후부(後夫)와의 사이에서 형제를 낳고 살았는데, 장성한 유복자가 장원급제하자 본남편의 아들임을 밝히고 함께 본가로 떠난다. 여인은 유복자를 먼저 들여 보낸 후에 본가 때문에 한 발만 내딛고 자결한다.

변이 유복자를 가진 채 개가하게 되는 여인이 절손(絶孫)의 위기에 처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변이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 화자의 각편에서는 여인이 정절을 지키려고 자해하며 후부의 자식을 낳태하거나, 아이를 낳더라도 잔인하게 죽인다. 여성 화자의 각편에서는, 아이를 낳다 부인이 죽은 상민의 집으로 보쌈을 당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자신의 유복자와 상민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운다. 상민이 죽은 뒤, 유복자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고 상민의 아들은 낙방하지만, 며느리는 상민의 아들도 잘 살게 해 주고 유복자와 함께 본가로 돌아가 잘 살았다는 내용이다. 남성 화자는 여인과 후부의 결합 동기를 후부의 정욕으로 설정하지만, 여성 화자는 갓난아기의 양육을 위한 것으로 설정하여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확대된 모성애를 드러낸다.

분석 양반 가문의 대 잇기가 서사갈등의 핵심인 이 설화에서 유복자의 과거급제와 가문의 대 잇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중세적 의미의 열(烈)이 근본적으로 양반 사대부 가문의 영달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양반 가문의 여성은 아들을 낳아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여 가문의 지속과 번영을 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과부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유복자를 양육하여 절손의 위기에서 가문을 구하는 일은 수절보다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열행에 해당한다. 여인은 유복자를 통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자결하

여 자신의 훼손로 손상된 가문의 도덕성도 만회한다. 이 설화의 절정은 유복자가 본가의 제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혈연관계가 밝혀지는 장면인데, 유복자의 가슴이 뜨거워진다가거나 조상의 위패가 유복자의 가슴에 달라붙는 것으로 혈연성이 진하게 부각된다. 혈연관계가 제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제사가 양반 사대부 가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의례이기 때문이다.

특징 남성들이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명예에 최상의 가치를 두는 반면, 여성들은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부부의 애정을 더 소중히 한다는 일반적 특징이 이 설화 유형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여성 의식은 고전소설에서 여성 작가의 존재를 추적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166; 4-4, 306; 6-4, 455; 7-12, 213; 8-5, 915.

참고문헌 구비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열녀설화의 재해석(이인경, 월인, 2006).

필자 이인경(李仁卿)

민담

개로 환생한 어머니

정의 평생 구경 한번 안 다니고 일반 하다 죽은 어머니가 그 벌로 개로 환생하자 아들이 이를 알고 개를 등에 업고 팔도를 구경시켜 준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구경 한번 안 다니고 집에서 악착같이 살림만 하던 여자가 죽어 저승에 갔다. 저승에서는 구경 한번 안 다니고 일반 하다 왔다 하여 여자를 저승에 들여보내지 않고 개로 환생시켜 아들의 집이나 지키며 살라 했다. 개로 환생하여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된 어머니는 어느 날 제사 음식을 훔쳐 먹다 들켜서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다. 어머니가 아들(딸)에게 현몽을 하여 자초지종을 말하니, 아들은 어머니가 구경 한번 못 하고 죽어 개로 환생한 것을 알고 눈발을 팔아 돈을 마련하여 개를 업고 다니며 팔도를 구경시켰다. 구경이 거의 끝나 갈 즈음 한곳에서 잡자기 개가 죽었다. 아들이 그곳에 개를 묻었는데, 그곳이 명당이라 아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았다.

변이 이 설화는 경기도 안성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 및 정읍시, 경상남도 진양군·밀양군·김해군·하동군

등에서 채록되었다. 어머니가 구령이로 환생하는 경우는 한 편뿐이고, 대부분 개로 환생한다. 어머니가 개로 환생하는 것이 구경 한번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료에 공통이다. 따라서 개로의 환생은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들이 어머니가 죽어 개로 환생하게 된 원인을 알고, 개를 등에 업고 팔도를 구경 다니는 것 역시 모든 자료에 공통이다. 개를 그냥 등에 업기도 하지만 등구미나 꽃방석 같은 것을 만들어 그곳에 앉혀 업기도 한다. 개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가 죽고 나서 아들이 복을 받고 잘 살았다는 것은 공통이다. 개를 묻은 곳이 어떤 곳의 개무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많고, 개무덤과 관련이 없는 것은 개가 허물을 벗고 인도환생(人道還生)하였다거나 뇌성벽력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개가 사라지고 어머니가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분석 이 설화는 환생담, 효행담, 풍수담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설화가 사람들에게 세상 구경하기, 즉 여행이나 관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설화라는 것이다. 여행, 혹은 관광은 다른 인간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주관이나 편견, 무지에서 벗어나 열린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설화 전승 집단은 '구경'이 가지는 이와 같은 의의나 기능을 알기에, 이러한 설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상 구경하기를 권하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구연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채록된 다수의 자료에서 마지막 부분에 절이나 부처가 언급되고 있어 불교설화와의 관련성을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490; 864; 5-2, 86; 5-7, 419; 8-3, 576; 8-4, 321; 8-8, 169; 8-9, 807; 8-14, 356.

참고문헌 개설화의 유형구조와 의미 연구(이경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관광의식-개가 된 어머니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이수자, 역사민속학1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필자 이수자(李秀子)

전설

개무덤

정의 개가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은혜를 갚은 것을 주제로 한 설화.

역사 의견설화는 고려시대 최자(崔滋)가 지은 『보한집(補閑

集)에 수록된 이후 여러 문헌에 실렸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어독본(朝鮮語讀本)』에도 실렸고,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전국 각 지역에 다양한 유형으로 구전되고 있는 설화 가운데 하나이다.

줄거리 의견설화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자료는 <오수의견설화>와 같은 ‘진화구주형(鎭火救主型)’이다. 개 주인이 장에 갔다 오는 길에 술에 취해 길가 풀밭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들불이 나 번지자, 개가 냇물로 달려가 몸에 물을 적셔 와 주위의 잔디를 적셔 주인을 살리고 자신은 지쳐 죽었다. 그 뒤 깨어난 주인은 슬퍼하며 개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주었다. 후세 사람들은 주인을 구한 개를 지금도 칭송하고 있다.

변이 의견설화는 여러 유형으로 변이되어 구전되고 있다. 고 문헌에서는 주제별로 충견(忠犬)·의구(義狗)·의오(義獒)·효구(孝狗)로 구분하였다. 내용별로 ‘구주형(救主型)’, ‘신원형(伸冤型)’, ‘순사형(殉死型)’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들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자료도 적지 않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불을 끄고 주인을 구한다는 ‘진화구주형’이다.

분석 의견설화는 ‘구주형(救主型)’, ‘신원형(伸冤型)’, ‘순사형(殉死型)’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들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



의구총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 2010.4.25. 홍순석



오수의견비각
전북 임실군 오수면 원동산, 2012.4.25. 홍순석

나는 자료도 적지 않다. 구주형·신원형의 의견설화는 인간의 위기와 그 해결의 화소가 주가 된다. 이들 유형에서는 주인과 의견의 교감적 관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순사(殉死)’, ‘수시(守屍)’, ‘시묘(侍墓)’와 관련한 설화는 단순히 의견의 의로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술 자체도 기록자의 관점에서 의도하는 교훈성만 강조될 뿐이다.

의견설화의 주인공인 개 주인과 의견은 성격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개 주인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사람이며 개의 도움을 받아 목숨이 구제되거나 억울함이 신원될 정도로 나약한 존재이다. 이와는 달리 의견은 지(知)·덕(德)·체(體)를 겸비한 영리한 존재로 나타나며, 주인에게 들이닥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구원적인 존재로 부각된다. 결말에서도 인간보다는 의견이 높이 평가되어 후인에 의해 무덤이나 비석이 세워지는 반면, 주인은 그저 개의 주인일 뿐이다.

의의 의견설화는 개무덤이나 개비석과 같은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어 관심을 끌기에 족하다. 다른 동물보은담보다 비교적 설화가 짧고 내용이 고정적이며, 교훈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구전되는 자료의 증거물이나 고문헌의 후반부에 첨부된 평에는 도덕적 규범을 일깨우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유학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도덕적 교화의 수단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출처 補閑集, 新增東國輿地勝覽, 義狗道, 一善誌, 靑邱野談

참고문헌 오수형 의견설화의 연구(최래옥, 한국문학론, 일월서각, 1981), 한국의 견설화연구(홍순석, 논문집, 강남대학교출판부, 1993).

필자 홍순석(洪順錫)

민담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정의 개와 고양이가 주인의 은혜를 갚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가난한 어부가 어렵게 생계를 잇고 있었다.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겨우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았지만, 잉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는 놓아 주었다. 다음 날 어부가 바닷가에 가니, 한 소년이 나타나 절을 하면서 자신은 전날 구해 준 잉어로, 용왕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소년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부를 용궁으로 초대하였다. 어부는 용왕의 대접을 받고 보배 구슬을 얻어 큰 부자가 되었다.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노파가 찾아와서, 다른 구

슬과 바꿔치기하여 보배 구슬을 가져갔다. 그 후 어부의 집은 다시 가난해졌다. 어부가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은혜를 갚으려고 노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사는 쥐를 위협해 구슬을 되찾았다. 돌아오면서 강을 건널 때 개는 혜엄을 치고 고양이는 개에 업혀 구슬을 물고 있었는데, 개가 구슬을 잘 간수하고 있는냐고 자꾸 묻자, 고양이는 대답하다가 구슬을 물에 빠뜨린다. 이 일로 서로 다투다 개는 먼저 집으로 가고, 고양이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그 속에서 구슬을 찾아 주인에게 돌아갔다. 주인이 고양이를 우대하고 개를 박대하여 그 뒤로 둘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어부가 잉어를 살려 주고 구슬을 얻는 과정과, 구슬을 잃어버리는 과정, 그리고 구슬을 다시 되찾게 되는 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첫째 과정인 ‘구슬 획득’ 부분은 ‘잉어(용왕 아들)에게 보은의 선물을 받는다.’는 내용의 설화가 결합하고 있는데, 이 유형은 대개 <방리득보(放鯉得寶)>로 불린다. 또한 <평과 이시미> 유형이 결합되어 ‘부자가 된 부부의 구슬을 친구가 찾아와 빌려 가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구슬 분실 과정이 전개되는 예도 있다. 각편에 따라 <방리득보>가 결합된 것에는 구슬 외에 여의주나 연적이, <평과 이시미>에는 네모 또는 세모난 구슬, 연적 등이 등장한다. 또 구슬을 훔치는 사람으로 방물장수, 친구가 나오며, 구슬을 빌려 갔다가 돌려주지 않기도 한다. 결말에 개와 고양이 사이가 나빠진 유래를 생략한 각편도 있다.

분석 잉어,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보은은 사람이 먼저 동물을 살려 주거나, 길러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보은의 대가로 얻은 보물 덕분에 부자가 된다. 이처럼 <방리득보>가 결합된 설화는 인간의 선행과 그에 따른 동물의 보은으로 인간의 고난이 해결된 것이다. <평과 이시미>가 결합된 설화를 보면, 보물의 획득은 신부의 지혜 덕에 가능했는데, 이 유형은 인간의 지혜로 운명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방리득보>가 결합된 각편들이 <평과 이시미>가 결합된 각편들보다 선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의의 잉어가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용궁의 보물을 주고, 개와 고양이가 주인의 은혜를 갚으려고 보물을 되찾아 온다는 점에서 ‘동물보은담’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개와 고양이가 사이가 나빠진 유래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동물유래담’의 성격도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636; 1-7, 292; 2-7, 243; 4-3, 491.

참고문헌 견묘쟁주형 설화의 유형결합양상과 그 의미(강진옥, 한국문화연구논총 5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7),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이지영(李志映)

전설

개운포

開雲浦

상해포도
처용암

정의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외항룡강 하구에 있는, <처용설화>의 배경이 되는 개운포(開雲浦)와 관련된 전설.

역사 13세기 말에 지어진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 처용랑망해사 조에 이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이 지명은 신라 제49대 헌강왕 때에 있었던 일에서 연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줄거리 신라 제49대 임금인 헌강왕 때에는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이어지고 초가라고는 없었다. 길에는 음악과 노래가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 어느 날 임금이 학성(鶴城, 울산시의 옛 지명)의 서남쪽에 있는 포구에서 놀다가 돌아가려고 하여 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서 길을 잃고 말았다. 왕이 이상하게 여겨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일관(日官)이 말하기를 “이것은 동해 용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해 주어 그 마음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명하여 용을 위해 근처에 절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게 하였다. 그랬더니 구름과 안개가 말끔히 걷혔다. 그래서 이 포구의 이름을 ‘개운포’라고 하게 되었다. 동해의 용이 기뻐해서 아들 일곱을 거느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 그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그중 한 아들을 서울로 보내 임금의 정사를 돕게 했는데 그가 바로 처용(處容)이다.

분석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처용설화>의 앞부분이다. <처용설화>는 전체적으로는 문신(門神)인 처용신의 신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대목은 개운포의 지명유래전설에 해당한다. 동해 용의 조화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서 길을 잃은 헌강왕이 근처에 절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였더니 그 구름과 안개가 말끔히 걷혔기 때문에 ‘구름이 걷힌 포구’라는 뜻에서 ‘개운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의의 이 설화는 전형적인 지명유래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명유래전설은 간단한 설명만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 전설은 자체로도 하나의 서사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개운포라는 지명은 신라 헌강왕 때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형적인 지명유래전설로 〈처용설화〉와 함께 오늘날에도 지역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고 있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오랜 역사적 유래가 있다는 데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 전설은 〈처용설화〉를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장소적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필자 박경신(朴敬伸)

용어

개촌신화

開村神話

정의 처음으로 마을을 개척한 시조 및 개촌(開村)의 신성한 역사에 관한 신화.

내용 특정 마을에 처음으로 입향(入鄕)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 시조 및 그와 연관된 신성한 역사를 전하는 신화이다. 어느 마을이든지 개촌이라는 신성한 시작이 있어서 존재해 온 것인 만큼, 많은 마을들에서 개촌신화가 전승되어 왔다. 동성촌(同姓村)일 경우 입향조가 곧 개촌조인 곳도 많다. 용 싸움을 도와주고 용으로부터 넓은 토지를 얻어서 마을 농사의 기반을 마련한 청주 한씨 시조신화는 대표적인 개촌신화이다. 많은 마을에서 전승되는 “○씨 터전에 ○씨 문전에 ○씨 배관”이라는 향언은 해당 마을의 개촌신화가 집약된 표현이다.

필자 천혜숙(千惠淑)

전설

거북바위

정의 거북 형상의 바위가 증거물로 남아 있는 곳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역사 거북 형상을 한 바위에 대한 설화는 장수(長壽)의 상징이자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진 거북을 신성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한다. 예로부터 거북은 용, 기린, 봉황과 함께 사령(四靈)으로 일컬어졌으며, 재복을 가져다주거나 신령스러운 일을 하는 능력을 보여 주는 일들이 거북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었다.

줄거리 만석지기 최부자 집에는 늘 손님이 드나들었고, 최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았다. 집 앞에는 거북 모양의 바위가 엉덩이를 집 쪽으로 하여 입을 벌리고 있었다. 최부자에게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선비에게 보내서 교육을 부탁했다. 행실이 좋아지고 공부도 경지에 이르렀을 때, 선비의 딸과 결혼했다. 아들이 과거 보러 한양에 간 사이 며느리는 매일 드나드는 손님을 치르느라 바빴다. 소식 없는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며느리는 스님에게 손님을 줄일 수 있는 방편을 물었다. 스님은 거북바위의 머리를 깨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하인을 시켜서 거북바위의 머리를 깨뜨리자 그 뒤로 최부자의 집은 기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몹쓸 병에 걸려 돌아왔다.

변이 이 설화는 장수를 뜻하는 동물 중의 하나로 알려진 거북이 재복을 가져다주거나 신성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이야기이며,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에도 등장한다.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서는 천년초를 두고, 동해와 서해의 거북이가 다투다가 천년초도 사라지고 두 거북이가 바위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상북도 고령군에는 대가야국의 마량 장군이 신라군을 무찌르고 죽은 자리에 거북 형상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분석 거북은 장수와 재물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이다. 상서롭고 영력이 있는 동물에게 해를 가하거나 몹쓸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과 탐욕이 가져올 파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특징 거북 모양을 한 바위를 통해 사령신앙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거북바위와 관련 있는 설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거북바위를 훼손했을 때 가져올 재앙에 대한 것과 훌륭한 인물의 탄생이나 삶과 관련된 것이다.

의의 〈거북바위〉의 주요 모티프는 ‘신성한 바위의 훼손과 가족의 파멸’, ‘신성한 바위의 태몽과 영웅의 탄생’ 등이다.

거울을 선물한다. 이에 아들은 거울을 방에 숨겨 두고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몰래 꺼내 본다. 그런 시간은 점점 짧아진다. 이런 남편의 행동을 의심한 아내가 뒤를 밟고, 결국은 거울을 찾아낸다. 그 후의 상황은 앞의 내용과 비슷하다.

분석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광포설화다. 참과 거짓에 혼동하는 어리석음과 그 어리석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철학적인 물음을 소화(笑話)로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의의 이 이야기는 중국의 소화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또한 한국에서 다양한 층위로 변이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73; 4-5, 489.

참고문헌 고금소총·명엽지해(정용수, 국학자료원, 1998),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김준형(金竣亨)

민담

거인 장길손

정의 우리나라 거인설화에 등장하는 대표적 남성 거인인 장길손과 관련된 설화.

줄거리 장길손에 관한 설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하는 형태이다. 장길손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라 옷을 해 입지 못하자 왕이 불쌍히 여겨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는 옷감을 모아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자 기분이 좋아진 장길손이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그 그림자에 해가 가려 사람들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화가 나서 장길손을 만주로 쫓아내니 장길손이 흙을 파먹고는 배설물로 산맥과 강 등의 지형을 형성시켰다. 두 번째 형태는 후반부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옷이 없던 장길손에게 삼남 사람들이 베를 모아 옷을 해 입혔으나 오히려 장길손의 그림자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자 나라에서 장길손에게 곤장을 때리는 형벌을 내리지만, 워낙 거구여서 엉덩이를 찾지 못해 결국 온전히 벌을 내리지 못했다. 두 형태 모두 희화화된 양상으로 내용이 전개되지만, 전자는 그나마 거인신격이 지형을 형성했다는 창조신화적 흔적을 다소 간직하고 있다.

출처 공주의 맥(공주시·공주문화원, 1992), 김제시사(김제시편찬위원회, 1995), 진천군지(진천군지편찬위원회,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797.

참고문헌 이야기 충북(충청북도·충북학연구소, 충북발전연구원, 2004), 후백제 전주의 도성구성에 나타난 사령체계(조법중, 한국고대사연구29, 한국고대사학회, 2003).

필자 박성석(朴性錫)

민담

거울 처음 본 사람

정의 거울을 처음 본 시골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린 민담.

역사 이 이야기는 불전설화(佛典說話)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갖춘 형태는 중국 후한(後漢) 말에 활동했던 한단순(邯鄲淳)이 편찬한 『소림(笑林)』에 실려 있다. 우리나라에는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명엽지해(冥葉志諧)』에 실린 〈부처송경(夫妻訟鏡)〉을 비롯하여 문헌과 구전으로 향유되는 작품이 매우 많다. 이야기의 연원이 찍 오래 되었고 향유 폭도 넓었던 작품이다.

줄거리 일이 있어 서울에 가는 남편에게 아내는 빚을 사다 달라고 한다. 마침 그때는 반달이 떠 있어서, 아내는 빚이란 게 저 달과 같은 모양이라고 말해 준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올 즈음에는 시간이 지나 보름달이 떠 있었다. 이에 남편은 보름달과 같은 거울을 사서 돌아온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아내는 젊은 첩을 데려왔다며 따진다. 이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거울을 보니, 거기에는 웬 늙은 아낙만 있었다. 이에 시어머니는 이왕이면 젊은 첩을 데리고 오지, 왜 이리 늙은 첩을 데려왔느냐고 한다.

변이 이 이야기의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상 변이의 폭은 비교적 큰 편이다. 이 이야기 후미에 시아버지가 등장하여 첩뿐 아니라 시돈까지 같이 왔다고 한다는 내용, 집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관아에 가 고을 수령에게 알렸더니 거울을 본 수령이 새로운 사또가 왔다며 고을을 떠난다는 내용 같이 다양한 이야기가 덧붙여진다. 그런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골격 외에 다른 이야기 형태가 별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거울을 사는 동기가 아내의 부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효심에서 발동했다는 점이다. 즉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아들에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보고플 때에는 이것을 보이라.” 하며

분석 거인 장길손에 대한 채록 자료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전국적으로 고루 수집되었다. 채록 지역은 전라남도 강진군, 충청남도 금산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수원시, 평안북도 선천군 등지로 특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전송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길손은 지형을 창조하는 남성 거인으로, 마고할미나 설문대할망 등과 같은 여성 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이다. 장길손은 배설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형성하는 거인신의 면모를 보이지만, 배설을 강조하거나 거인적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회화화한 모습을 보여 창조신의 모습은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거인 장길손에 대한 설화는 남성 거인 신격의 창조행위의 신성함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흥미를 위해 회화화시키고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전개하는 형태이다. 배설물로 지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마고할미설화〉나 〈설문대할망설화〉와 흡사한 자료적 양상을 보이는 하나, 특히 여성 거인설화 자료 중 회화화되거나 신화적 성격이 탈락한 채 민담화된 형태의 자료에 상응하는 양상이다. 특정 남성 거인이 등장하는 설화는 이처럼 신화적 성격을 유지하기보다는 흥미 본위의 거인 행적을 보이는 형태로 퇴색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189.

참고문헌 여성 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권태효, 탐라문화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천지창조의 지신설화(장주근,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6),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한국인의 신화(한상수, 문음사, 2003).

필자 권태효(權泰孝)

용어

거인설화

巨人說話

정의 거인의 거대한 외모가 잘 묘사되어 있거나 우주 창조 및 지형 형성과 같은 거인적 행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설화.

내용 거인설화는 과생된 변이형 설화를 제외한다면 창조신화 성격이 남아 있는 거인설화와 신성성을 잃은 채 회화화된 양상을 보이는 설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조신화적 성격을 담은 자료는 〈창세기〉의 미륵처럼 천지를 분리시키고 일월을 조정하며, 자연현상이 생기는 까닭을 거인의 행위로 설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우주 형성형 설화와 〈마고할미설화〉처

럼 이 세상의 산천을 만드는 행위를 보여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지형 창조형 설화가 있다. 한편 회화화된 거인설화로는 거근형 거인설화와 배설형 거인설화 형태가 있다. 거근형은 성기의 크기를 강조하는 형태로 외설담화된 내용을 보이고, 배설형은 거인의 배설 행위로 인해 지형이 형성되었다는 내용으로 배설 부분을 흥미롭게 회화화시키는 설화이다.

거인설화의 변이유형 자료는 구전자료와 문헌자료로 구분된다. 구전자료로는 〈산이동설화〉, 〈오늬힘내기전설〉, 〈장수혼적전설〉 등이 있다. 〈산이동설화〉는 거인에 의해 산이나 섬이 옮겨지는 형태의 설화를, 거인 존재를 생략한 채 산이 스스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모시킨 것이다. 〈장수혼적전설〉은 거인의 흔적을 점차 현실화하여 힘센 장수에 의해 그 흔적이 남게 되었다는 형태로 변모시킨 설화이다. 〈오늬힘내기전설〉은 여성 거인의 성 쌓는 행위를 누이가 그대로 이어받아 대결을 벌이는 형태로 변이된 설화이다. 한편 문헌에 기록된 변이유형 자료로 꿈의 형식을 빌어 거인성을 드러내는 선류몽담(旋流夢談)과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도록 거인성을 표출하는 형태의 문헌자료를 들 수 있다.

필자 권태효(權泰孝)

민담

거짓말 세 마디

정의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고자 하는 대감에게 한 총각이 찾아가 거짓말 세 마디를 하고서 사위가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과년한 딸을 둔 한 대감이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고자 하였다. 이에 거짓말 세 마디를 하면 사위로 삼겠다는 방을 붙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대감이 두 마디까지는 거짓말로 인정해 주다가도 세 마디 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어떤 거짓말 잘하는 한 총각이 찾아와서 자기도 거짓말을 해 보겠다고 했다. 첫 마디는 은진미륵에 관한 거짓말이었다. 은진미륵의 머리 위에서 대추나무가 아주 크게 자랐다. 가을이 되니 대추가 풍성하게 열렸는데,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대추를 딸 방법이 마땅치 않아, 긴 장대로 은진미륵의 코를 쭈서 재채기를 하게 했다. 그 바람에 대추들이 우수수 떨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여름에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자기가 사는 마을

에서는 한겨울에 세차게 부는 찬바람을 봉지 같은 데에 모아 두었다가, 여름에 풀어 놓아 시원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이상 두 마디에 대해서는 대감이 거짓말임을 순순히 인정해주었다. 그러자 총각은 옷실에서 주섬주섬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예전에 대감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빌려간 거금에 대한 차용증서라는 것이었다. 거짓말이라고 하자니 사위를 삼아야겠고, 참말이라고 하자니 거금을 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는 수 없이 거짓말로 인정하고, 이 총각을 사위로 삼았다.

변이 하필이면 왜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고자 했는지, 또 왜 그 거짓말이 세 가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거짓말은 곧 이야기를 뜻하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라거나 대감이 알고 있지 않은 거짓말을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거짓말을 하려면 참가비를 내야 한다거나 자기 집에 와서 일정 기간 머슴처럼 일을 해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알뜰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짓말과 두 번째 거짓말은 순서가 일정치 않다.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 각편에서 두루 나오는 것으로는 줄거리에서 나온 두 가지를 제외하고도 세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날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거짓말이다. 돼지를 사다가 양철로 만든 네모난 통에다 넣어서 키운다. 물론 통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다. 돼지가 잘 자라 통의 구멍으로 살이 빠져나오면 날마다 살점을 잘라서 반찬으로 먹는다는 것이다. 핑을 잡는 방법에 관한 거짓말도 기발하다. 소의 엉덩이에 진흙을 묻히고, 거기에 핑이 좋아하는 콩을 박아 둔 다음, 소의 꼬리에는 망치를 매 놓는다. 그리고 소를 핑이 잘 나타나는 산속에 데려다 매 놓으면, 핑이 소 엉덩이에 있는 콩을 쪼아 먹는다. 이 때 간지러움을 느낀 소는 꼬리를 이리저리 흔들게 되고 결국 날아든 망치에 핑이 맞아 죽는다는 내용이다. 또 특이한 농사법에 관한 거짓말도 있다. 모를 심고 벼를 베어서 탈곡하는 복잡한 과정이 번거로워 농사짓는 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했는데, 그 방법이 기발하다. 우선 눈에 벼씨를 뿌리고, 그 위에 아주 촘촘한 그물을 깔고서 논의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아 고정시킨다. 벼가 그물 사이로 자라나서 익으면 그물의 네 귀퉁이를 쭈 잡아 올린다. 그러면 그물에 걸린 벼가 그대로 훑어진다는 것이다.

분석 누군가를 사위로 삼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은 〈해모수신화〉에서 나오는 해모수와 하백의 대결부터 이어져 내려 온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매개를 통해 구현되었다. 거짓말은 흔히 ‘진실성’이라는 잣대로 판단한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일인

지 아닌지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거짓말이 대체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거짓말이다. 예를 들면, 은진미륵의 머리 위에 과일나무가 아주 크게 자란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열매를 따기 위해 은진미륵의 코를 쭈서 재채기를 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각을 제외하곤 다른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런 수준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총각의 세 번째 거짓말처럼 거짓말이라고도 참말이라고도 하기 곤란한 독특한 영역이 참과 거짓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영역을 활용하여 참과 거짓을 판별해야 하는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도록 유도했다는 데 이 거짓말의 매력에 있다. 머리가 영리해야 거짓말을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어야 시험에 통과하여 대감의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징 이 이야기는 에피메니데스의 ‘거짓말쟁이의 역설(liar paradox)’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바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풀어낸 독특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크레타인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이다.”라는 말을 했다면, 이것은 참도 거짓도 아닌 역설적인 진술이 되어 버린다. 이로부터 언술의 세계에 참과 거짓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사람과의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영역, 즉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설화의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일종의 메타설화이다. 거짓말에 관한 몇몇 이야기들이 대체로 메타설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화도 이야기 혹은 이야기하기와 관련된 설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설화의 허구성이 단순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경계 영역에서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창발해낸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55; 1-2, 52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88.

참고문헌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심우장,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거짓말 이야기에 대한 고찰(류정월, 한국고전연구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이야기꾼사위설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필자 심우장(沈愚章)

신화

건국신화

建國神話

정의 국가의 기원을 신성하게 설명하는 신화.

역사 건국신화(建國神話)는 고대 국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단군>, <고주몽>, <박혁거세>, <김수로> 등의 신화가 그 사례이다. 그러나 건국신화는 고대 국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세 또는 근대 국가의 경우에도 만들어진 사례가 있다. <왕건신화>, <이성계신화>가 중세의 건국신화라면 근대계몽기의 종교화된 시조 단군, 혹은 근대적 민족의 표상으로 작용한 단군에 관한 신화는 근대의 건국신화이다.

내용 고대 국가들은 국가적 제전에서 국가의 신성한 기원을 설명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건국의 서사시를 만든다. 서사시 형식으로 구술되던 건국 이야기는 역사를 기록하게 되면서 각국 역사의 서두에 등록된다. 이 산문 형식의 기록을 건국신화라고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인용되어 있는 『단군고기(檀君古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등이 그런 사례이다.

건국신화는 시조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고대 국가는 대개 강력한 힘을 지닌 특정 부족에 의해 다수의 부족이 통합되면서 설립된다. 고구려의 5부, 신라의 6부 등의 존재가 그것을 입증한다. 이때 각 부족은 자신들의 종족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시조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국가 건립의 주도 세력이 된 부족의 시조신화를 중심으로 다른 시조신화들이 통합되면서 건국신화로 재구성된다. 예를 들어 고조선 건국신화에는 환웅으로 대표되는 부족과 웅녀나 호랑이로 대표되는 부족이 등장하는데, 환웅 집단의 주도에 의해 고조선의 건국이 이뤄지면서 환웅 집단의 천신계 신화에 웅녀 집단의 토LEM 신화가 통합되는 형식으로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조선 건국신화는 국가 통합의 강력한 원천으로 최고신, 곧 환인을 내세운다. 이렇게 고조선은 최고신 환인의 뜻에 따라 지상에 설립된 신성한 나라라는 건국신화의 이야기 형식과 이념이 만들어졌다.

문헌에 기록되어 전하는 한국의 건국신화에는 고조선의 <단군신화>, 북부여의 <해부루신화>, 동부여의 <금와신화>, 고구려의 <주몽신화>, 신라의 <박혁거세신화>, 가락국의 <수로신화>, 탐라국의 <삼을라신화>가 있다. 이런 고대 국가의 건국신

화 외에도 고려의 왕건과 그 선대에 관한 신화, 조선의 이성계와 그 선대에 관한 신화와 같은 중세의 건국신화도 있다. 비록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형태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태봉국 궁예, 후백제 건원의 탄생 또는 성장과 관련된 전설에서도 건국신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고대 건국신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천부지모(天父地母)의 결합이다. 고조선의 환웅과 웅녀, 고구려의 해모수와 유화, 신라의 박혁거세와 알영, 가락국의 수로와 허황옥의 결합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이때 남성 쪽이 천신계(天神系), 여성 쪽이 지신계(地神系)에 속한다. 환웅은 천신 환인의 아들이고, 해모수는 천제의 아들이며, 혁거세와 수로는 하늘에서 알에 담겨 강림한다. 웅녀는 정체가 곰 혹은 곰신이고, 유화는 수신 하백의 딸이고, 알영은 계룡의 옆구리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역시 수신의 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허황옥은 바다를 건너온다. 여성 쪽은 대지나 대지의 물과 관계된 여성 혹은 여신이기 때문에 지신계에 포괄할 수 있다. 이런 천부지모의 결합을 통한 건국의 형성은 건국의 주도 세력이 천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룩된 것일 가능성도 있고, 부계의 주도성을 표현하기 위해 부계 쪽에 천신의 위치를 배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천부지모의 결합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북부와 남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북부의 고조선과 고구려의 경우는 천부지모의 결합 이후 건국주가 탄생하여 나라를 세운다. 단군과 주몽이 그렇다. 그러나 남부의 신라와 가락국의 경우는 건국주가 탄생한 이후 건국주의 결혼이 이뤄진다. 혁거세는 알에서 태어난 후 계룡이 낳은 알영과 결혼한 뒤 6부의 촌장들에 의해 추대되어 건국주가 된다. 수로 또한 알에서 태어나 9간에 의해 왕으로 추대된 후 바다를 건너온 아유타국의 허황옥과 결혼한다. 남부의 경우 추대의 형식으로 건국주가 되는 데 비해 북부의 경우 주몽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과 정복을 통해 나라를 세우고 건국주가 되는 것도 이와 관련된 차이라고 할 만하다.

중세에 제작된 건국신화는 고대 건국신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다양한 신성 계보를 통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고려 건국신화의 서두에 등장하는 왕건의 6대조 호경은 신라 성골장군 출신인데 백두산에서 내려와 구룡산의 산신이 된다. 신라와 고구려의 신성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 왕가의 신성 계보를 중국에 대려는 의도도 보인다. 왕건의 3대조는 당나라 숙종이다. 중세 문명의 중심인 당나라 천자의 혈통을 통해 고려 왕가의 신성성을 확보하려는 뜻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건국주 자신보다는 선대(先代)를 신화

화, 신성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의 경우는 왕건 자신보다 호경-강충-보육-진의(숙종)-작제건-용건-왕건으로 이어지는 선대 혈통과 그 사적이 신비화되어 있다. 조선의 경우는 이성계 자신보다는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로 이어지는 선대의 사적이 신비화되어 있다. 이는 신과 신성 동물이 등장하는 고대의 건국신화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는 중세적 합리성의 기틀 위에서 혈통의 지속성과 예조(豫兆), 또는 풍수지리설과 같은 세계 해석의 이론을 통해 신성성과 왕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고대의 건국신화는 집단의 기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대 민족신화로 재인식되기도 한다. 고조선의 <단군신화>의 단군은 이미 고려대에 와서 삼한과 삼국의 근원으로 인식된 바 있다. 신라·고구려·남옥저·북옥저·동부여·북부여·예·맥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고 읊은 이승휴의 한문서사시 『제왕운기(帝王韻紀)』가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전례를 보여 준 바 있는 단군은 19~20세기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의 외침이라는 집단적 위기의식 속에서 단일민족의 기원으로 재인

민담

건망증 심한 사람

정의 건망증이 심해 발생하는 기막힌 일들과 자신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건망증이 심한 영감이 길을 가다가 일어서면 툭 떨어질 곳에 자기 갓을 걸어 놓고 똥을 누었다. 똥을 누고 일어나니 갓이 떨어졌다. 영감이 “아따, 갓 하나 주웠다.” 하고 돌아보니 똥에서 김이 나는 게 보였다. 그러자 영감은 “어떤 놈이 금방 거기다 똥을 누었네.”라고 하였다. 그 영감이 어느 집에 하룻밤을 묵으러 갔는데 마침 중 한 명도 그곳에 자리 왔다. 영감이 “중은 어디에 있는고?”라고 물으니 “아무개 절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영감은 들은 내용을 금방 잊어버려 밤새도록 중에게 했던 질문을 또 했다. 중이 화가 나서 아침에 영감의 상투를 싹 잘라 놓고 도망갔다. 영감이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쓰다듬어 보니 본인이 중이 되어 있었다. 그러자 영감은 “주인,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소?”라고 물었고, 주인은 어이가 없어 “뒤라 했소?”라고 했다. 영감 본인도 기가 차서 갓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혹시 나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욕을 하고 가 버렸다.

식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편찬을 통한 역사 교육, 민족종교인 대종교 등에 의한 신격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군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단군신화>에 표현되어 있는 ‘홍익인간’이 해방 이후 교육이념으로 채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대의 <단군신화>는 단일민족의 신화이자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국신화로 재탄생한다.

의의 건국신화는 국가 설립을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정당화하려고 하는 신화이다. 그래서 건국신화는 단순한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드러내고 그것을 집단 내부에 강제하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국신화는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화 형식이라는 데 구비문학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遺事, 世宗實錄地理志, 三國史記, 동아시아 건국신화의 역사와 논리(조현설, 문학과지성사, 2003),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명,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高)

번이 건망증 관련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똥, 갓 걸기, 스님에게 반복 질문하기, 담뱃대 출몰, 반복해서 말하기이다. 그중 한두 개와 다른 소재들이 결부되어 전해지는 변이형이 있다. 김백곡의 탄생설화에 나오는 건망증 이야기에 여러 소재를 결부시킨 유형이다.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 1604~1684)은 효종 때 대표적인 시인이다. 김백곡 탄생설화는 백곡의 아버지가 꿈에 득승하려는 용에게 “용이래” 하고 말하면 될 것을 “내가 용이냐” 했더니, 용이 꿈에 나타나 “겨우 ‘내가 용이냐’가 뒤라”는 소리를 들은 후 백곡이 태어났다. 용의 요구에 부족한 답을 주었으므로 지적으로 부족한 자손을 보답으로 받았다. 백곡은 둔하고 정신이 없어 담뱃대 출몰, 고지서 천 번 읽기, 외출나갔다 바로 집에 오기, 스님에게 반복 질문하기가 나온다. 이것은 절반은 운명론적이지만 부족함을 극복하여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분석 이 설화에는 똥과 갓, 스님에게 반복 질문, 상투 자르기가 나오며, ‘나는 어디 갔소?’ 라는 해학적인 소재가 연결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한다. 사람에게 기억은 중요하다.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망증 환자라는 것도 모른다.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다. 자신에게 건망증이 있다는 것을 알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하기, 반복하여 말하기와 같은 장치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건

망중 탓에 발생한 일들에 실소하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의의 건망증설화의 기법은 삽화를 나열하여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재미가 반복된다. 나를 발견하는 소재가 이야기 끝에 나오면서 웃음 속에 담겨진 철학적인 면이 제시된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던 시대에 자신의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설화이다. 이것을 확대하면 일반적인 재미와 진지함, 곧 문학과 철학의 공존을 엿볼 수 있다. 이 설화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결국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며 지금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출처 醒睡轉說,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83; 4-3, 635; 5-7, 539; 7-1, 308; 8-7, 622.

참고문헌 한국문헌설화7(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김낙효(金洛孝)

전설

걸어온 산

정의 산이 걸어오거나 섬이 물에 떠내려오다가 멈추어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된 내역을 밝히는 설화.

줄거리 〈걸어온 산〉 관련 설화는 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와 지금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서너 줄로 이야기하는 형식인 것이 대다수이다. 크게 '산이동', '산멈춤', '산세다툼'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산이동'은 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 왔는지를 전하는 부분으로, 산이 스스로 걸어오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고 홍수에 떠내려왔다고 한다거나 거인장수가 메고서 옮겨 왔다고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이동'은 거인에 의해 산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자료가 많아서 거인설화와의 관련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산멈춤'은 이동하던 산이 멈추는 과정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대체로 여인이 멈추라고 말하거나 빨랫방망이나 부지깥이로 때리는 행위를 통해 산이 멈추고, 그 결과 마을이 서울이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이처럼 산을 멈추게 하는 여인의 성격은, 여성 거인설화 중 회초리로 바위들을 몰아 성 쌓는 곳으로 이동하다 성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바위를 버려두어서 멈추도록 하였다는 여성 거인의 모습과 행위에 그대로 상응한다. 따라서 여성 거인설화가 변이형 자료를 파생시키는 과정에서

바위를 옮기던 여성 거인이 말이나 도구로 산을 멈추게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이된 것으로 파악한다. 한편, '산세다툼'은 원래 산이 있던 곳에서 산세(山稅)를 받아가고 있었으나 한 아이의 지혜로 그 세금을 다시는 물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산을 끌어가도록 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 간 지혜 겨룸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걸어온 산〉은 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옮겨 왔는지를 전하는 내용만으로 설화를 완결 짓는 형태가 적지 않기에, 이런 '산세다툼'이 이 설화에서 본래부터 있었던 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곧 '산세다툼' 화소는 설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이 설화의 비현실적인 면을 약화시키면서 진실성을 부여하고자 추가된 화소의 성격을 지닌다.

분석 〈걸어온 산〉은 산이 걸어오거나 섬이 물에 떠내려오다가 멈추어 지금의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경위를 밝히는 산이동설화로, 전국적으로 널리 전승되는 광포설화이다. 이 설화는 본래 지형을 형성하는 거인설화의 한 형태였던 것이 후대에 변이된 양상을 보이는 자료이다. 이 설화에서 산은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많은 자료에서 거인이 산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산의 이동 부분이 거인의 행위와 복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해서 거인설화의 후대적 변이형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거인이라는 존재 설정 및 산을 옮기는 행위가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면서 점차 거인이 배제되는 형태로 변모되는 양상을 보인다.

〈걸어온 산〉은 전국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채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채록된 자료의 편 수가 다소 많은 편이나, 여타 다른 지역 또한 적지 않은 채록 편 수를 보여 주고 있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자료는 아니다. 내용에서도 지역별로 그다지 편차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내륙 지방에서는 산이 걸어가거나 떠 가는 형태를 취하고, 도서 지방에서는 섬의 이동으로 나타나 지역성을 반영한 차이만 나타나는 정도이다. 한편, 특이한 지역 사례로는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설화〉를 들 수 있는데, 마이산은 스스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료와 더불어 산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가 공존하고 있어서 '산이동'과 연계되면서도 그 나름의 독자적인 설화 전승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의 거인설화의 후대적 변이 형태로, 거인인격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라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산이 옮겨가 다른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이 설화는 거인에 의한 지형 창조의 이야기와 이와는 전혀 별개인 산이 스스로 이동하는 설화 형태가 병존하는 양상을 잘 보여 준다. '산이동'의 주체가 거인으로 나타나는 자료들도 적지 않고, 스스로 이동한다고 하면서도 거인의 혼

적을 증거물로 보여 준다는 점 등에서 산이동설화와 거인설화가 겹쳐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거인설화와 복합 양상을 보이는 자료의 수가 아주 많고 다양하여 거인설화가 변이해 가는 과정의 면면을 살필 수 있어, 그 소멸 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아울러 거인설화가 사라지면서 다른 형태의 설화를 파생시키는 모습을 잘 보여 주는 자료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58; 7-1, 35; 622; 8-3, 452; 8-11, 384,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강원도 민속문화론(김의숙, 집문당, 1995), 부래도전승의 원초적 의미와 습합양상(김문태, 반교어문연구1, 반교어문학회, 1988), 부래산유형 설화에 대한 역사고학적인 접근(오강원, 강원민속학12, 강원도민속학회, 1996), 산이동설화의 연구(최래옥, 관악어문연구3, 서울대학교, 1978), 산이동설화적 관점에서 본 거인설화의 성격과 변이(권태효,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한국이야기문학연구(조석래, 학문사, 1993).

필자 권태효(權泰孝)

민담

견묘쟁주

犬猫爭珠

요약문 개와 고양이 구슬다툼

전설

견우직녀

牽牛織女

요약문 칠월칠석 유래

정의 견우와 직녀가 한 해에 한 번 만나는 칠월칠석의 유래 설화.

역사 매년 칠월칠석이 되면, 두 별이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그 위치가 매우 가까워지는데, 이 사실에서 설화가 생겨났다. 이 설화의 발생 시기는 불확실하나, 중국 후한(後漢) 때 조성된 효당산(孝堂山)의 석실 속 화상석(畫像石)의 삼족오도(三足烏圖)에 직녀성과 견우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전한(前漢)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곧 춘추전국시대에 천문 관측을 통해 은하수가 발견되었으며, 『시경(詩經)』 「소아(小雅)」 〈대동(大東)〉에 설화의 연원으로 추정되는 시구가 있다. 후한(25~220) 말경에는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인격화하면서 설화로 꾸며졌고, 육조(六朝, 265~589) 시대에 이르러 '직

녀가 은하수를 건너 견우를 만난다.'라는 전설로 발전하였으니, 이 설화의 가장 오랜 것은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는 평안남도 강서 덕흥리 고구려고분 벽화(408년)에 은하수 사이에 견우와 개를 데리고 있는 직녀의 그림이 발견된다.

줄거리 직녀는 하늘님(天帝)의 손녀로 길쌈을 잘하고 부지런했다. 하늘님이 매우 사랑하여 은하수 건너편의 하고(河鼓)라는 목동(견우)과 혼인하게 했다. 그러나 직녀와 견우는 신혼의 즐거움에 빠져 매우 게을러졌고, 하늘님은 크게 노하여 둘을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다시 떨어져 살게 하였다. 그리고 한 해에 한 번 칠월칠석에만 같이 지내도록 했다. 은하수 때문에 칠월칠석에도 서로 만나지 못하자, 보다 못한 지상의 까막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 다리를 까막까치가 놓은 다리, 즉 '오작교(烏鵲橋)'라 하며, 칠석이 지나면 까막까치가 다리를 놓노라고 머리가 모두 벗겨져 돌아온다고 한다. 또한 이 날 오는 비는 '칠석우(七夕雨)'라 하여 그들이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며,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한다.

분석 이 설화는 혼인한 부부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말은 바직분을 수행해야 함을 말해 준다. 또한 남녀가 신의 벌을 받고 재회를 위하여 일 년간 인고의 기다림을 겪는 것은, 하나의 통과례로 절차로 간주할 만하다. 그리고 남과 여가 항상 만남과 헤어짐, 다시 만남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 천체 우주 질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이한 점은 중국의 설화에는 앞부분에 〈나무꾼과 선녀〉가 결합하면서 "지상에 남은 우랑(牛郎, 곧 견우)이 말하는 소(牛)의 지시로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설화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특징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 이 설화에 해당하는 유형 항목



덕흥리벽화고분(견우직녀)

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 (우랑직녀(牛郎織女))는 4대 전설로 여길 정도로 널리 전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채록본은 심의린이 『조선동화대집』에 수록한 (오작교)이며, 그 외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채록된 자료가 없다. 다만 최근에 신원기가 박사논문 부록에 개인 채록본 3편을 게재하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칠월칠석의 민속과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 정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야기로 평가된다.

출처 조선동화대집(심의린, 신원기 역, 보고서, 2009).

참고문헌 견우직녀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 연구(신원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견우직녀 취회설화의 문학적 전개(김석하, 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1970).

필자 이지영(李志映)

전설

견훤

甄萱

정의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甄萱)의 출생에 관한 설화.

역사 〈견훤설화〉는 백으로 변해 찾아온 남자와 관계를 맺은 처녀가 비범한 아이를 낳았다는 내용의 야래자형 설화(夜來者型說話)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 후백제 견훤 조에 그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유사한 이야기가 『청구야담(靑邱野談)』에 (괴물매야색명주(鬼物每夜索明珠))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수신천황(崇神天皇) 조에도 실려 있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널리 분포되어 전승되어 온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광주(光州) 북촌에 사는 부잣집 딸이 부친에게 말하기를, ‘밤마다 자춧빛 옷을 입은 남자가 침실에 와서 교혼(交婚)하고 간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친이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꿰으라고 하자 딸이 그 말대로 하였다. 날이 밝은 뒤 실을 따라 갔더니 큰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로 태기가 있어 사내를 낳으니 이가 곧 후백제시조 견훤이다.”라고 되어 있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견훤 조에 보면, “견훤은 본래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본래 성은 이씨였으나 후에 견으로 성을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로, 농사로 생활하다가 나중

에 스스로 장군이라 칭하였다. 처음에 견훤이 어려서 아직 강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어머니가 밭을 나르면서 어린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으므로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장성하매 몸집이 크고 외모가 기이하며 기품이 활발하여 범상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변이 〈견훤설화〉는 야래자설화라고도 하는데, 각편에 따라 ‘야래자’의 양상이 지렁이, 수달, 절굿공이, 동삼(童參), 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절굿공이인 경우에는 태어난 아들이 없으며, 수달인 경우에는 머리가 노랗게 태어나서 ‘노랗지’라고 불린 아들이 청나라 태조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고, 용인 경우에는 아들이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고 한다. 지렁이인 경우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후백제를 세운 견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야래자를 죽이는 방법은 대체로 물에 소금을 타서 죽이는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영원면 지역에서는 야래자에 의해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는 동안에 가난해서 어머니가 일을 나간 사이에 호랑이가 풀밭에 누워 있는 견훤에게 젖을 먹이는 형태로 전승되고 있어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는 후백제 견훤이 안동을 공격하자 당시 안동을 지키던 권행(權幸), 김선평(金宣平), 장정필(張貞脚) 등의 삼태사(三太師)가 지렁이로 변한 견훤을 차전으로 몰아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와 결부되어 안동차전놀이의 유래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1912년에 「한·일 양국에 분포된 미와야마(三輪山) 전설」이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야래자설화가 한국과 일본에 분포함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학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손진태와 소재영, 오바야시 타로(大林太良), 장덕순, 최래옥, 김화경, 서대석 등에 의해 설화의 내용과 전파 경로, 그리고 생성 배경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손진태는 본 설화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된 것이라고 하여 남방전래설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재영은 〈견훤설화〉를 이류교구설화(異類交媾說話)의 유형이라고 보고 중국과 일본, 몽골 등의 설화와 비교한 뒤 ‘중국-몽고-우리나라-일본’의 경로로 전파된 것이라는 추정을 제기하면서 손진태의 남방전래설을 부정하였다. 노성환은 본 설화가 5세기경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뒤 일본에 건너가 『고사기』의 (미와야마전설)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파 경로와 더불어 설화의 신화적 속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서대석은 〈견훤설화〉를 수부지모형(水父地母型) 신화로서 마한

의 신화라 보았다. 백제 후기에 마한의 부족들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이 설화를 차용한 서동설화가 생겨났고, 또한 백제 멸망 이후에도 백제 유민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견훤의 후백제시대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견훤설화〉를 포함한 야래자형 설화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징 우리나라의 고대 건국신화나 왕권신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탄생 과정을 부각시킴으로써 비범성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통성과 절대성을 확립시켜 왔다. 이는 〈견훤설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견훤이 후백제의 건국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건국신화의 특성을 공유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야래자설화는 『삼국유사』 무왕 조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과거 무왕의 탄생담에 차용되었던 바, 견훤은 옛 백제 땅에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자신의 탄생담에도 역시 야래자설화를 삽입함으로써 자신의 비범성과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야래자설화는 여성과 야래자와의 관계를 통해 2세의 탄생을 본다는 점에서 이물교혼담(異物交婚談)의 한 유형으로 보며, 태어난 2세가 후에 왕이나 건국주 또는 마을신이 된다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후백제의 건국주 견훤, 송나라 태조, 청나라 태조 누르하치의 부친 등과 같은 건국시조의 탄생담에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평강체씨 시조탄생담에도 들어 있어서 성씨시조신화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견훤, 즉 야래자설화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전래된다는 점은, 이 설화가 오랜 기간 동안 전승되어 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야래자설화는 신화적 성격과 함께 전설과 민담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693; 7-8, 926; 984; 7-9, 843,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백제신화 연구(서대석, 백제는총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 야래자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전승에 관한 연구(이지영,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야래자전설과 일본의 삼륜산전설과의 비교연구(장덕순, 한국민족학의 연원과 현장, 집문당, 1986),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문학연구(소재영,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한일야래자설화의 일연구(노성환,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15-2, 울산대학교, 1984).

필자 한미옥(韓美玉)

전설

계룡산

鷄籠山

정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의 명산 계룡산에 얽힌 전설.

역사 계룡산은 지리산, 경주에 이어 1968년에 세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으로,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계룡시,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다. 동학사와 갑사, 신원사 같은 고찰이 있으며, 국보와 보물, 지방문화재도 많다. 계룡산은 신라 오악(五嶽) 가운데 서악(西嶽)으로 중국까지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삼악(三嶽) 중 중악(中嶽)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계룡산이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을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자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한 데서 계(鷄)와 용(龍)을 따 왔다는 설이 있다. 풍수지리상 명산으로 꼽혀 조선 초에 계룡산 기슭에 도읍을 건설하려 한 적도 있으며, 『정감록(鄭鑑錄)』 같은 비기류(秘記類)에서 한양을 이룰 도읍지로 적시한 바 있다. 계룡산 지역에서는 이성계의 신도(新都) 도읍에 얽힌 전설과 정 도령의 미래 도읍에 관한 풍설이 널리 전해져 왔고, 갑사와 동학사에 얽힌 전설과 용추계곡에 얽힌 자연전설 등이 전해 왔다.

줄거리 우선 계룡산 도읍에 얽힌 전설이 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운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물색하다가 계룡산 신도안 일대가 명당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도읍지로 삼고자 하였다. 직접 신도안에 내려온 이성계는 궁궐 자리를 정한 뒤 작업을 서둘러 주춧돌까지 다 마련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고 정 씨가 팔백 년 도읍을 할 자리니 물러가라.”라고 했다. 노인이 바로 계룡산신이였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신도안을 포기하고 물러가서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였다. 신도안에서 도읍 건설을 할 때 사람들이 신발에 묻은 흙을 한곳에 모아서 털었는데 그 흙이 쌓여서 산이 되어 ‘신트리봉’이라 불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말채(말채찍)를 꽂아 놓고 간 것이 살아나 자랐는데 이는 말채나무라고 불린다. 조선왕조가 망한 뒤 계룡산에 새로운 도읍을 세울 사람은 정 도령이라 불린다. 해도정출(海島鄭出)이라 하여 정 도령이 바다에서 나온다고도 하며, ‘육대구월(六代九月)에 해운개(海雲開)나 ‘계룡석백(鷄籠石白)하고 초포행선(草浦行船)이면 세사가지(世事可知)’와 같은 참언들도 전해진다. 공주시 계룡면의 무너미 고개가 터져 물이 흐르게 되던 계룡산 형세가 산태극, 수태극이 되어 도읍지가 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 밖의 전설로, 먼저 (남매탑전설)이 있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가는 길에는 남매탑(오늬탑)이 있다. 한 스님이 도를 닦다가 호랑이 목에 걸린 비너를 빼 주었는데, 그 호랑이가 보답으로 웬 처녀를 산 채로 물어다 주었다. 스님이



계룡산산신제 국립민속박물관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처녀는 스님과 남매를 이루어 평생 함께 살면서 도를 닦았다. 사람들이 그들의 덕을 기려 두 개의 탑을 세우니 바로 남매탑이다. 남매탑에서 고개를 넘어 가면 계룡산 갑사가 있는데, 짐대라 불리는 커다란 철덩간이 있다. 갑사와 동학사의 장사가 서로 철덩간을 차지하려 경쟁했다고 한다. 갑사의 영규대사와 동학사의 여장군이 돌아가며 짐대를 빼 왔다. 원래 여장군이 힘이 더 셧지만 영규대사가 커다란 짚신을 삼아 길가에 떨어뜨려 놓은 걸 보고 여장군이 짐대를 포기했다고 한다. 영규대사와 짐대를 놓고 싸운 절은 동학사가 아니라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의 구룡사였다고도 한다. 구룡사 장수가 갑사에 짐대를 빼앗긴 뒤 구룡사 절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계룡산의 자연전설로는 암용추와 수용추 이야기가 유명하다. 이는 신도안 지역에 있는 두 개의 연못으로 거기엔 용이 살았는데 한 곳에는 암룡이 살고 다른 곳에는 수룡이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사이좋게 살다가 굴을 뚫고 나와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고 한다. 암용추와 수용추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데 밑에서 서로 연결돼 있어 암용추에 물건을 넣으면 수용추로 나온다고 한다.

분석 계룡산에 얽힌 전설은 명산의 형세에 관한 해석이 도읍과 새 왕조에 대한 역사적 관심으로 연결돼 있다. 그 핵심은 계룡산이 오백 년 조선왕조를 이을 팔백 년 도읍지라는 것인데, 그 속에는 왕조에 대한 대타의식과 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계룡산신이 이성계를 신도안에서 내쫓았다는 설정에 조선왕조에 대한 부정적인 대타의식이 잘 나타나 있으며, 진인(眞人) 정도령의 출현에 대한 여러 풍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떠돌고 있는 데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가 망한 지 백 년이 되도록 현지에서 계속 계룡산 도읍설 전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데서 그 기대와 욕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읍설의 핵심 지역이었던 계룡산 신도안 일대는 현재 계룡시로 편입되어 삼군 본부가 들어서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를 계룡산 도읍설이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지만, 일부는 도읍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설이 잔존 문화가 아니라 현장에서 지역민에게 생활문화로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특징 계룡산 도읍설은 일반 전설과는 성격이 좀 다른 ‘구전 예언’이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허황한 기대를 담은 ‘유언비어’로 볼 수도 있으나, 그와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현실 대응적 의의를 지닌 이야기로 평가할 수도 있다. 현실의 문제를 되새기고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를 위한 행동 방향을 준비하는 이야기로서 현실의 문학과 짝을 이루는 ‘이상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이 전설은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적 전승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야기는 단지 언어적 전승에 그치지 않고 계룡산 일대를 미래 문화의 상징으로 부각시켜 수많은 도인과 무속인, 신흥종교의 본거지로 만들기도 했다. 구비전승과 역사문화의 이러한 깊은 관련성은 독특하고도 의미 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구전 예언의 문학적 고찰(신동훈, 어문연구26, 어문연구회,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163.

참고문헌 구전 예언의 문학적 고찰(신동훈, 어문연구26, 어문연구회, 1995), 계룡산과 승지 신앙(김홍철, 종교연구52, 한국종교학회, 2008), 계룡산 산신제의 역사성과 구비성 연구(안상경, 구비문학연구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필자 신동훈(申東昕)

용어

계모담

繼母談

정의 계모와 전설 지식 사이의 갈등을 다룬 설화.

내용 계모담에는 다양한 장르와 하위 유형을 가로지르는 공통적인 틀로서의 서사구조가 존재한다. 공쥐뿔쥐형 설화가 대표적이다. 서사구조는 친모의 죽음으로 인한 계모의 영입과 그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하며, 주로 계모와 전설 지식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계모는 끊임없이 전설 지식을 가정에서 소외시키려 한다. 한편,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정에서 축출된 전설 지식은 원조자나 배우자를 만나 시련을 극복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 전설 지식의 귀환으로 계모는 그 악행이 드러나 응징되고, 서두에 제시되었던 가정의 갈등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계모담은 인물 간의 갈등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동원되는 모티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동일한 서사구조 안에서 하위 유형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이루게 된다. 또한 계모담은 설화(민담), 서사무가, 고소설, 신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존재하면서 서로 영향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계모담의 서사문학적 존재감을 기능하게 한다.

필자 이윤경(李倫慶)

민담

계불삼년 구불십년

鷄不三年 狗不十年

정의 보통 “계불삼년(鷄不三年) 구불십년(狗不十年)” 형태의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는 전설로 닭은 3년 이상, 개는 10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설화.

줄거리 어떤 주인이 닭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닭이 사라졌다. 닭을 찾기 위해 나서 보니 털이 빠지면서 구렁이로 변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닭을 오래 키우면 요물로 변하기 때문에 3년 이상 키우면 안된다. 개도 마찬가지로 오래 키우다 보면 사람의 생각을 읽고 잡아먹으려 하면 도망가거나, 주인 혹은 주변 사람을 무는 등 은혜를 갚는커녕 양화를 입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변이 “계불삼년(鷄不三年) 견불오년(犬不五年)”이라고 해서 구불십년 대신 견불오년이라고도 한다. 닭은 3년 이상 키우면 안 되고,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닭은 3년이면 구렁이로 변하고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반드시 주인을 해친다는 속설이다. 이러한 속설을 바탕으로 “견불오년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도 파생되었다. 즉, 개는 5년 이상 키우면 안 되고 권력은 절대 10년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미이다.

분석 닭과 개는 인간 사회가 오래 전부터 가장 친근한 가축으로 키워 온 동물이다. 그런데 수명이 1~2년인 닭이나, 대체로 10년 이내의 수명을 가진 개가 통상적인 수명을 넘기게 되면 구렁이로 변하거나 주인을 무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닭이나 개 모두 본래는 야생에 살던 것이 인간 사회에 적응된 것인데, 오래 키우다 보면 이들에게 숨겨져 있던 동물의 본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징 “계불십년 구불십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구연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닭에 얽힌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개와 관련한 이야기는 소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 수명보다 오래 산 동물에 대한 신뢰와 불안이 동시에 이야기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개와 관련하여 의구(義狗), 의견(義犬)의 전설이 공존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는 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의의 대체로 개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심상은 인간의 오래된 친구로 여기는 것이지만, 이 설화를 통해서 야생의 기질이 언제든 드러날 수도 있는 가축을 경계하는 인식 또한 잘 드러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241.

참고문헌 구비문학개론(윤용식·손종흠,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1998).

필자 조정현(曹鼎鉉)

자료

계서야담

溪西野談

정의 조선 후기에 편찬된 편자 미상의 야담집(野談集).

내용 『계서야담(溪西野談)』은 『기문총화(紀聞叢話)』를 중심에 두되, 일부 이야기는 계서(溪西) 이희평(李義平)이 1828년에 편찬한 『계서잡록(溪西雜錄)』에서 발췌한 편자 미상의 야담집이다. 그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문총화』의 형성 시기인 1833년에서 1869년 이후인 것은 틀림없다. 그 시기를 더 늦춰 1880년 이후로 추정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4권 4책으로 되어 있는 일본 천리대본이 가장 선본(善本)이다. 1권에는 71편, 2권에는 27편, 3권에는 45편, 4권에는 170편으로, 총 313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계서야담』의 편찬자에 대해서 이희준(李義準)이나 이희평(李義

平)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이다. 『계서야담』은 『계서잡록』의 이본이 아니라, 『기문총화』와 『계서잡록』을 혼효하여 새로 편찬한 야담집이기 때문이다. 『계서야담』에 새로 추가된 이야기는 〈홍순언(洪純彦) 이야기〉뿐이다. 또한 특이한 것은 『계서야담』에는 『기문총화』를 수용하되, 그 출전을 『어우야담(於于野談)』으로 밝힌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다. 야담의 향유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흥미로운 자료이다.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휘집(東野彙輯)』과 더불어 조선조 3대 야담집이라 칭해진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자료

계서잡록

溪西雜錄

정의 조선 후기 이희평(李羲平, 1772~1839)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계서(溪西) 이희평이 1828년에 4권 4책으로 편찬한 야담집이다. 현재는 필사본으로만 존재한다. 1권은 성균관대본, 2~3권은 연민 이가원본, 4권은 서울대 일사문고본이 선본(善本)이다. 1권에는 76편, 2권에는 76편, 3권에는 52편, 4권에는 30편으로, 총 234편이 수록되어 있다. 『계서잡록(溪西雜錄)』에 실린 이야기는 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안의 사적[家間事蹟]과 선배들의 행적 중에서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前輩行于世之古談]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권에는 집안의 사적이, 2~4권에는 선배들의 일화와 고담이 실려 있다. 편자는 노명흡(盧命欽)이 편찬한 『동괘낙송(東稗洛誦)』을 읽고 그 기억에 의거하여 『계서잡록』에 일부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구술과 기록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에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계서잡록』은 『기문총화(記聞叢話)』와 『계서야담(溪西野談)』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청구야담(靑邱野談)』 및 『동야휘집(東野彙輯)』 등 걸출한 여러 야담집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필자 김준형(金埈亨)

신화

고구려건국신화

高句麗建國神話

주몽신화

자료

고금소총

古今笑叢

정의 조선 후기 편찬된 편자 미상의 소화집(笑話集).

내용 조선 초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편찬된 웃음 관련 설화집 11편을 총집으로 엮은 설화집이다. 1959년 민속자료간행회에서 유인본(油印本) 『고금소총(古今笑叢)』 제1집이 편찬자 미상으로 간행되었다. 그 이전에는 1947년 송신용(宋申用)이 『조선고금소총(朝鮮古今笑叢)』 제1회 배본에 『어수록(禦睡錄)』, 제2회에 『촌담해이(村談解頤)』와 『어면순(禦眠楯)』을 묶어 정음사(正音社)에서 출판했다. 또, 1970년에 조영암(趙靈巖)은 『고금소총』이라는 표제로 소화(笑話) 379편을 추출해 번역하고 그 원문까지 인용하여 명문당(明文堂)에서 발간했고, 2008년 자유문학사에서 민속자료간행회본 『고금소총』 전체를 김현룡(金鉉龍) 번역 전 5책으로 편찬했다. 민속자료간행회 편 『고금소총』 소재 각 설화집과 수록 설화 수 그리고 편지자를 명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태평한화괄계전(太平閑話滑稽傳)』·146편·서거정(徐居正), 『어면순』·82편·송세림(宋世琳), 『속어면순(續禦眠楯)』·32편·성여학(成汝學), 『촌담해이』·10편·강희맹(姜希孟), 『명엽지해(莢葉志諧)』·79편·홍만중(洪萬宗), 『파수록(破睡錄)』·63편·김연(金淵), 『어수신화(禦睡新話)』·129편·장한중(張漢宗), 『진담록(陳談錄)』·49편·미상, 『성수괘설(醒睡稗說)』·80편·미상, 『기문(奇聞)』·66편·미상, 『교수잡사(攪睡雜史)』·86편·미상, 이와 같이 11편의 설화집에 총 822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필자 김현룡(金鉉龍)

민담

고기 놓친 까마귀

정의 먹이를 물고 있던 까마귀가 자신의 목소리를 칭찬하는 여우의 꼬임에 넘어가 입을 벌리는 바람에 물고 있던 먹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이솝우화』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이솝우화』가 처음 소개된 것은 1896년에 발간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이다. 여기에 〈가마귀와 여호의 이익기라〉라는 제목의 우화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이 이설화와 동일하다. 또한 『이소보(伊蘇普)의 공전격언(空前格言)』(普及書館, 1911)에는 〈가마귀의 스사로 홀님〉, 『경향잡지(京鄕雜誌)』 제10권 제11호(1916.11.15)에는 〈가마귀와 여호〉, 『이습우언(朝鮮耶蘇敎書會, 1921)에는 〈여호와 가마귀〉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이습우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팔도재담집(八道才談集)』(1926), 『옥련기담』(1925), 『십삼도재담집(十三道才談集)』(1925) 등 재담집에도 같은 내용의 설화가 실려 있다.

줄거리 그 생긴 모양과 울음소리 때문에 까마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루는 까마귀가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와서 나무에 올라앉아 뜯어 먹으려고 했다. 그때 여우가 그 모습을 보고 병아리를 뺏어 먹고 싶어서 “까마귀 선생님은 모양이 거무스름해도 울음소리가 참 듣기 좋다.”라고 칭찬하였다. 아무데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까마귀는 여우의 칭찬을 매우 기쁘게 여겨 감동하였다. 이어 여우가 “까마귀 선생님의 울음소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까마귀는 가당찮게도 한번 울어 보겠다고 입을 벌렸다. 그러자 까마귀의 입에 있던 병아리가 나무 밑으로 떨어졌고, 여우는 떨어진 병아리를 물고 달아났다.

변이 구전설화에서는 병아리 대신에 고기가 나오기도 한다. 재담에는 모두 고기로 나오고, 『이솝우화』에는 생선, 고기, 건락(乾酪), 유병(乳餅) 등으로 나온다.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뽐내려다 먹이를 떨어뜨리는 것이 다수이지만, 재담에서는 여우의 칭찬하는 말에 응답하려다 먹이를 떨어뜨리는 예도 있다.

분석 사람들이 아침할 때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점,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당치 않은 칭찬을 탐하다가는 자기 몫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못난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인간사회의 이해관계와 세태를 잘 보여준다.

의의 『이솝우화』가 한국 근대의 구비문학 또는 구전설화에 끼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근대계몽기 조선의 이솝우화(허경진·표연복·유준동, 보고서, 200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459, 한국재담자료집성 1·2(정영기, 보고서, 2009)

참고문헌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김태준, 한국학보7, 일지사, 1981), 1910년대 아동문학 연구(정혜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최원오(崔元午)

신화

고대정보풀이

정의 고대정이라는 무당의 영웅적 면모와 활약 때문에 제주 성안의 신당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신앙서사시. 또 다른 삽화는 부군칠성(뱀신)을 조상으로 모신 덕분에 집안을 크게 일구고 부자로 살게 된 고대정의 내력을 담은 조상신본풀이.

역사 18세기 초 이형상이 제주목사 시절(1702~1703) 유교적 이념을 적극적으로 일반 민가에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당 오백 개와 절 오백 개를 파괴한 적이 있다. 이 본풀이는 제주에서 무속과 불교가 시련을 겪었던 역사와 무속 집단의 소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 파괴되었던 당을 복구한 뒤 그 복구를 주도한 영험한 지도자 고대정을 추앙하는 이야기이자, 무속이 패배했던 현실에 대한 정신적 승리담이다. 또 하나의 삽화는 뱀 신앙에 대한 것인데, 육지와 빈번한 교류가 있던 시기에 육지에서 새로운 신앙이 전해졌고 그것을 잘 수용한 무당이 발복한다는 설화 유형이다. 고려 이후에 만들어진 본풀이일 것이고, 고려 말 유명했던 나주 금성산 뱀 신앙의 제주도 유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고대정보풀이〉는 세 개의 삽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이형상이 제주목사 시절 당 오백 개와 절 오백 개를 불태워 없애면서 제주 삼문 안에 들어와 있는 성내의 모든 당과 절을 없애려 할 때였다. 남문 밖에 있는 각시당을 없애기 전에 고대정 심방을 불러 당신(堂神)의 영험함을 보이라고 명한다. 고 심방이 주변 심방과 도황수까지 불러 칠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굿을 하였더니, 천하가 요동치며 광풍이 불고 깃대가 떨기 시작했다. 이 목사는 그 영험함을 인정하고 각시당을 비롯한 광양당, 내왓당, 궁당, 운지당, 가스락당, 칠머리당 등의 신당을 파괴하지 않았다고 한다. 둘째, 순흥 안씨 삼형제가 제주 한라산에 사냥감이 많다는 말을 듣고 입도했다. 큰형은 애월 어음리에, 둘째는 남읍리에, 막내는 선흘리에 들어와 사냥을 하며 살았다. 첫째와 둘째는 사냥이 잘 되어 재산을 일으키고 잘살았는데, 막내는 사냥이 안 되어 가난하게 살았다. 막내가 집을 치니 산신기도를 하라고 해서, 고대정을 불러 굿을 하게 되었다. 고대정이 굿을 끝내고 쌀자루를 들고 돌아오다가 자루가 무거워 걸을 수가 없어서 열어 보니 그 안에 뱀이 들어 있었다. 고대정이 자신에게 태운 조상이라 여기고 모셔 갔다. 이때 배가 고파 사경을 헤매던 중을 구해 주니, 부군칠성(富君七星)이 원래 안씨 집 조상이었는데 옮겨온 것

이라 일러 준다. 중이 고 심방에게 집터와 밭자리 등 명당자리를 골라 주어 그곳에 묘를 쓰고 뱀신을 수호신으로 모시자, 고 심방은 그로부터 천문지리(天文地理)를 깨치고 대정현감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식들 또한 제주관관, 정의현감, 대정현감, 만호, 훈장, 좌수, 별감 등의 벼슬을 하고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 셋째, 제주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사또는 고대정을 동헌으로 불러 기우제를 드리라고 명한다. 고대정은 많은 심방을 불러 모아 짚으로 55발 크기의 큰 용을 만들고 칠일 동안 치성을 드렸다. 그때 사라봉에서 구름이 솟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섬 곳곳에 큰 비가 쏟아졌다. 심방들은 짚으로 만든 용을 들고 춤을 추며 거리굿을 했고, 관원들도 함께 기뻐했다.

분석 이형상의 <탐라순력도>에는 성안 여러 곳의 신당이 불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많은 당이 파괴되었지만 성안의 신당은 보존될 수 있었다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기보다 신당의 신성함을 믿는 심방들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고,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된 내력을 말할 것일 수도 있다. 첫 번째 삽화는 삼문 안의 각시당과 그 당을 지키고 고대정 심방의 영험함이 돋보이는 신화적 영웅담이다. 세 번째 삽화도 기우제와 관련한 고대정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영웅담이라 하겠다.

고대정과 그 자손들이 거부로 살면서 높은 벼슬까지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뱀 조상을 모신 덕이고, 다른 하나는 중이 일러 준 대로 명당에 이장을 했기 때문이다. 뱀신 숭배사상과 풍수신앙이 결합된 사례라고 하겠다.

<선홀안판본풀이>는 <고대정본풀이>와 동일 문맥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안동에서 안씨 삼형제가 제주로 들어와 사냥을 업으로 삼았다. 칠성부군이 선홀리 셋째에게 의탁하여 셋째의 조상신이 되었다. 그 후 셋째의 자손들에서 대대손손 벼슬아치들이 나왔다. 그중 제주관관이 된 자가 고대정 심방을 모셔 굿을 하는 도중 제주목사가 되지 못함을 탓하니, 조상신인 뱀신이 서운해 하며 집 속에 숨어들어 고 심방의 집으로 옮겨 갔고, 그 후 고 심방은 큰 심방이 되어 동지, 첨지, 별장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선홀안택>이란 설화에도 뱀신이 조상신이 된 후 셋째의 집안이 흥했던 내력담이 전한다.

안씨 조상이 고씨 조상으로 옮겨 간 내력이다. 부귀도 함께 옮겨 갔다.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일반신본풀이에도 남아 있다. <칠성본풀이>에서도 뱀신이 송대장의 집안으로 들어와 조상신이 되면서 집안이 크게 일어났다고 되어 있다. 후에 칠성신은 제주 관내의 여러 곳으로 옮겨가 좌정하는 바람에 조상신에서 벗어나 일반신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의 조상신은 집안 위주의 신이었다가, 전승폭을 확대하면 마을 수호신으로, 제주 전역의 신격으로 확장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의의 불도맞이의 '석살림' 절차에서 군웅본판 뒤에 일월조상을 놓리는 곳에서 이 <고대정본풀이>가 불렸다. <고대정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다. 제주의 조상신은 혈육 조상이기보다 직업 조상인 경우가 많은데, 고대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조상을 일월조상이라고도 한다. 김윤수 심방의 '일월조상' 놀리는 곳에 보면, "양반집엔 사당일월도 있고, 책 보는 집엔 책불일월도 있고, 농부 집엔 제석일월도 있고, 배 부리는 집엔 선양일월도 있고, 사냥하는 집엔 산신일월도 있고, 심방 집엔 당주일월도 있다."라고 한다. 책불일월은 택일하는 사람이나 지관이나 한의원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시는 조상신이고, 사냥하는 집과 비슷하게 도살업을 하는 사람(피쟁이)도 산신일월을 모시고 있다.

고대정은 훌륭한 무업 조상으로 숭앙되었다. 또한 고대정은 부군칠성을 잘 위해서 크게 복을 누렸다. <고대정본풀이>는 무속의 위엄을 실증한 영웅 서사시이면서 뱀신앙과 관련된 신앙서사시라 하겠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제주설화집성(김영돈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현용준, 집문당, 2005), 제주도 본풀이와 주변신화(허남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필자 허남춘(許南春)

신화

고려건국신화

高麗建國神話

▶▶▶ 왕건신화

민담

고려장 없어진 유래

정의 고려장(高麗葬)이란 장제(葬祭)가 없어지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고려장은 사람이 늙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산 채로 산이나 들에 내버리는 장제를 말하는데, 이러한 장제가 없어지게 된 유래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의 설화가 구전되고 있다. 이를 편의상 지계형과 문제형으로 나누기로 한다.

지계형 설화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는 사람이 예순 살이

넘으면 산 채로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어미)가 늙자 산 채로 지계에 지고 가 산에 내버렸는데 따라 갔던 아들이 그 지계를 도로 가져오려 하니 아버지가 말렸다. 아들이 자기도 후일 아버지가 늙으면 그 지계에 저다 버려야 하니가 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아버지가 자신의 불효를 깨닫고 다시 늙은 아버를 모시고 집으로 왔다. 후에 고려장이 없어졌다.

문제형 설화는 다음과 같다. 고려시대에 국법으로 사람이 늙으면 산 채로 내버리는 고려장이 있었다. 어떤 대신이 어머니가 늙어 고려장을 해야만 했지만 차마 노모를 버릴 수 없어 고려장을 한다는 소문을 낸 후 물레 벽장 속에 숨기고 모셨다. 중국에서 고려에 인재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마리 말 중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기, 나무토막의 상하 구별하기, 코끼리 무게 알기 등 어려운 문제 3개를 내고 해답을 요구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려워 풀지 못해 애를 쓰는데, 벽장 속의 어머니가 간단하게 그 답을 알려 주었다. 말은 먹이를 주어 먼저 먹는 것이 새끼이고, 나무토막은 물에 담그면 윗부분이 위로 뜬다. 그리고 물 위의 배에다 코끼리를 태워 금이 진 곳을 표시하고, 코끼리를 내린 후 금이 진 곳까지 돌을 실은 후 돌의 무게를 달면 코끼리의 무게를 알 수 있다. 임금이 국난을 물리친 대신에게 큰 상을 주며 소원을 말하라 했다. 대신이 이실직고하며 자신의 불충을 사죄하고 고려장의 폐지를 소원하니, 임금이 고려장을 폐지했다.

변이 두 유형 모두 외국에서 전래한 것으로, 원래의 이야기에는 둘 다 고려장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모두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고려장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었다. 지계형 설화는 중국의 『효자전(孝子傳)』과 같은 책에 실려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 여기에는 어린아이가 원곡(原穀)이고, 버리는 도구가 여(輿)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원곡네 집의 가정사를 전하는 단순한 일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앞뒤에 고려장과 관련된 내용이 첨가되었다. 문제형 설화는 불경인 『잡보장경(雜寶藏經)』 기로국(棄老國) 조의설화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기로국 설화는 불경을 통해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승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기로국이 고려국으로, 천신과 국왕과의 관계는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갈등 관계로, 부친은 어머니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두 유형의 설화는 원래 각각 독자적인 이야기였으나, 고려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탓에 함께 고려장 설화로 묶였다.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 효 윤리가 강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불효는 용납하기 어렵다. 그래서 문제형 설화에서처럼 우리나라에 원래 고려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차용되어 붙게 되었고, 고려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늙은 부모를 내버려야만 한다는 이

야기로 변하였다.

분석 <고려장설화>는 모두 고려장이 실재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학계에서는 과연 고려시대에 이러한 장제가 실존했던 것인가 하는 점 때문에 이 설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 손진태나 김정학은 고려시대에 이와 같은 풍습은 없었을 것이라 하였다. 사실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실재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야기를 통해 허구적으로 창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장설화>는 노인의 경험적인 지혜를 중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육체적인 힘이나 능력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또한 늙은 부모에 대해 자식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보여 줌으로써, 효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형은 사람에게는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반면에 지계형은 사람들에게 불효의 본능이 있을 수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어, 효의 본질에 대한 물음과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의의 <고려장설화>는 자식들에게 효를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녀, 끊임없이 구연되고 전승되어 올 수 있었다. 고려장 설화는 이처럼 효 윤리가 강조되는 사회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될 때 더욱 분명하게 그 의미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586; 6-3, 47.

참고문헌 고려장설화의 형성과 의미(이수자, 국어국문학98, 국어국문학회, 1987), 고려장의 전설에 대하여(김정학, 사상계, 사상계사, 1962), 기로전설(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7).

필자 이수자(李秀子)

전설

고리봉

정의 대홍수 때에 높은 산인 고리봉의 꼭대기만 물에 잠기지 않아, 배에 탄 사람이 고리를 달아 배를 매었다는 전설.

역사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과 산내면과 주천면이 접하는 곳에 있는 높은 산을 고리봉(1,304m)이라 하는데, 그 아래에는 홍수 때 배를 띄운 마을이라 하여 배마을, 곧 배벌, 주촌(舟村)이 있다. 이런 고리봉과 관련된 <고리봉전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홍수전설이다. 고리봉은 『구약성경』 창세기(6~9장)에 있는 <노아홍수전설(Noah Flood, AT1021)>에서 노아 가족이 탄 배가 머무른 아라라트 산(창세기 8장 4절)에

해당한다. 홍수전설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이나 부족에도 거의 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홍수전설 중 <고리봉전설>은 무서운 자연현상인 홍수를 만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담은 점에서 오랜 역사가 있다고 하겠다.

줄거리 옛날 대홍수가 났을 때, 세상이 거의 다 잠겨 생명이 있는 것은 거의 다 죽게 되고 사람도 거의 다 죽게 되었다. 겨우 몇 사람만이 배를 마련하여 타고 물 위에서 떠돌다가 물위로 조금 솟은 고리봉에 배를 매어 살아났다.

분석 세계적으로 홍수설화의 구성은 이렇다. “①인간이 타락해서 ②신이 진노하여 벌을 내리려고 할 때 ③구원된 가족이 있는데 ④살 방도로서 배를 마련하고 ⑤식량을 준비하며 ⑥신이 물로 징벌하여 ⑦물로 세상을 파멸시켰는데 ⑧인간의 시조를 구원하고 ⑨동물의 시조를 구원하고 산 정상에 배와 가족이 상륙하고 홍수가 그쳤는지 새를 보내어 알아보고 예 배를 드리고 신이 축복하고 인간이 존속할 방법을 찾았는데 지금도 홍수의 증거가 있다(산에 조개가 나온다, 홍수에 관한 신앙과 풍습과 관념이 남아 있다, 함몰(陷沒)이 있다).” <고리봉전설>은 위 홍수전설 중, “④적은 사람이 살 방도로서 배를 마련하고 ⑦자연이 물로 세상을 파멸할 때 사람이 산 위에 고리를 매어 배를 붙들어 두고 상륙하여 살 수 있었다.”라는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고리봉전설>은 홍수전설의 파편(破片)이기도 하고,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증거 노릇도 한다.

특징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약 800군데에 <고리봉전설>이 골고루 있으며, 단일 전설로 증거가 가장 많다. 바닷가에서는 홍수가 해일(海濤)로 바뀐다.

의의 <고리봉전설>은 개인과 가정 또는 사회나 국가에 홍수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 예컨대 전쟁, 질병, 내란 등이 덮쳐 99%가 패배, 실패, 좌절, 절망, 무기력 상태일 때, 그래도 1%가 남았으니 희망을 가지고 분발하면 역전을 하여 복을 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상징한다. <고리봉전설>은 ‘재난과 위기에서 피신, 생존하여 복구하고 재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1, 101,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지명총람13-전북·상(한글학회, 1981).

참고문헌 사대강 유역의 홍수에 대한 Perception 연구(이문중, 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1974), 한국 홍수설화에 대하여(최래옥, 한국민속학9, 민속학회, 1976), 한국 홍수설화의 변이양상(최래옥, 한국민속학12, 민속학회, 1980), Folklore in The Old Testament(J. Frazer, Hart Publishing Company, 1975).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고분지통 유래

鼓盆之痛 由來

정의 부인이 죽었을 때 남편이 물항아리를 두드리며 가슴 아파하는 일의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

역사 『장자(莊子)』의 「지락편(至樂篇)」 이야기와 관련이 깊다. 혜자(惠子)가 장자의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는데, 장자는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鼓盆而歌). 이유를 묻자, 장자는 아내가 죽은 것이 사실은 천지 사이에 편히 쉬게 된 것이니 울지 않고 동이를 두드린다고 대답하였다. <고분지통 유래>는 부인이 죽어 남편이 물항아리를 두드린다는 부분은 「지락편」과 같지만 나머지 내용이나 주제는 많이 다르다.

줄거리 어떤 남자가 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새로 만든 봉분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는데, 죽은 남편이 묘의 때가 마르기 전까지는 개가지 말라고 유언하여 때가 빨리 마르게 부채질을 한다고 대답했다. 남자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만약 자기가 죽으면 개가하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절대 개가지 않겠다고 했다. 남자는 아내를 시험해 보려고 죽은 채하였다. 아내가 초상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다. 아내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 함께 살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몸져눕더니 다른 남자의 골을 파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말했다. 아내는 도끼를 가져와 죽은 남편의 머리통을 깨고 골을 파내려 하였다. 그때 남편이 일어나 무슨 것이냐고 따졌다. 아내는 물을 길어 오겠다고 물동이를 이고 나가서는 남편을 볼 면목이 없어 우물에 빠져 죽었다. 남자는 물동이를 두드리며 자기가 너무 심한 짓을 하여 아내가 죽었다고 후회하였다.

변이 남편 무덤에 부채질하는 부인 이야기가 앞 부분에 나오는 이본과 나오지 않은 이본이 있다. 부인 이야기가 없는 이본은 ‘남편의 아내 시험’이라는 통속적인 흥미소만 부각된 것이다. 남자 주인공으로 장자, 장주, 울곡이 등장하며, 부인은 외간 남자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 남자가 요구하는 남편의 골수나 간을 꺼내 주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부인이 목매달아 자살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에서 남편이 거짓으로 죽은 채하여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는 장면을 본다. 이것은 남편에게 건디

기 어려운 충격이고 고통이지만,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다. 이 설화의 귀결점은 부인의 죽음과 남편의 후회이다. 부인의 죽음은 남편의 입장에서 다른 남자를 가까이한 자기 부인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일부중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남편을 후회하게 만든 것은 그래도 부인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연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의 이 설화는 부부 사이의 충실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가짜열녀설화를 좀 더 일반화시켰다는 의의를 가진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371; 3-3, 490; 4-3, 234.

참고문헌 가짜열녀 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전승의식(곽정식, 어문학88, 한국어문학회, 2005),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한국고전여성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구비 열녀설화에 나타난 이념과 현실(이인경, 한국고전여성학회,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우울증 서사로 보는 공취팔췌, 상사뱀, 고분지통(강미정,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필자 이강옥(李康沃)

전설

고석정

孤石亭

정의 조선 명종 때의 의적(義賊) 임격정(林恪正)과 고석정에 얽힌 설화.

줄거리 천인(賤人)의 자식으로 태어난 임거정(林巨正)은 용



고석정
강원 철원군, 문화재청

맹스럽고 인물도 출중한데다가 외교술도 뛰어나고 무술에도 능했다. 그러나 천인의 자식이라 하여 등용되지 못하자, 이에 울분을 품고 도적이 되어 그 무리와 함께 고석정 부근에 성을 쌓고 살았다. 임거정이 이곳에서 함경도에서 조정으로 상납하는 조공을 약탈하였기에 나라에서는 근심거리였다. 임거정은 자기를 잡으러 관군이 오면 고석정 부근의 암벽 석굴에 있다가 꺾지라는 물고기로 변하여 한탄강에 숨었다. 그 때문에 임거정을 임격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변이 고석정에 얽힌 <임격정설화>는 이름을 임거정에서 임격정으로 바꾼 내력 이외에도 변신술에 관한 것이 있다. 둘 다 변신술을 기본으로 하나, 하나는 이름을 바꾼 내력을 말하고, 또 하나는 임격정의 변신술보다 능한 관군을 만나서 결국 잡혀갔다는 이야기이다. 즉, 임격정이 뛰어난 건 하지만 더 유능한 관군에게 잡힌 사연을 더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임격정 관련 설화는 그가 의적으로서 행한 사연과 문무를 겸비하게 된 사연을 담은 것이 전해진다.

분석 의적설화의 한 유형으로, 부패한 탐관오리가 부정 축재한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설화는 우리 고대 신화에서 보이는 변신설화가 주축을 이룬다. 그 이유는 그가 비록 천인의 신분이나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사람임을 보여 주려는 데 있다. 그래서 설화에서 임격정은 꺾지와 새매로 변신하여 관군을 따돌리고, 부정하게 거둬들인 나라의 재물을 빼앗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기장수설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한계처럼 임격정이 비록 대단한 능력을 타고났으나 기존 세력을 이길 수는 없다. 그 때문에 결국 임격정은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관군에게 잡히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임격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소설 <임격정>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고석정 전경
강원 철원군, 문화재청

서 이 설화에서 보여 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징 이 설화는 실존 인물인 조선 명종 때의 도적 임격정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고석정을 중심으로 전승되므로 지역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선조 당시의 신분 문제를 중심에 담고 있는 훌륭한 소재를 지닌 설화이다. 비록 이야기 구성은 단순하지만 당시 민중의 정서를 잘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의의 민중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적의 이야기 속에 자신의 염원을 담았다. 천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뜻을 펴지 못한 항거의 표시로 의적이 되어 활동하고, 또 변신술을 통하여 관군을 속이는 통쾌함을 이 설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였다. 끝내 관군에 의해 잡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의기는 세간의 화제를 뿌리고도 남았을 것이다. 현실과 이상을 다 아우르는 내용 때문에 흥명희의 〈임격정〉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과 영화가 나오는 바탕이 되었다.

출처 강원도의 설화(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강원도, 2005), 철원군의 역사와 문화유적(강원대학교박물관, 1995), 태백의 설화(강원일보사, 1974).

참고문헌 철원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북(이학주·박미현, 철원농업기술센터, 2012).

필자 김의숙(金義淑)

전설

고수레 유래

정의 야외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 떼어 “고수레”라고 외치면서 허공에 던지는 행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하는 설화.

역사 농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경시대 이후 발생된 음식 공회(供犧)와 ‘고수레’라는 주언(呪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후대에 그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줄거리 옛날 어떤 마을에 고 씨 성을 가진 사람이 의지할 곳 없이 어렵게 살았다. 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 씨를 불쌍히 여겨 자신들이 먹던 음식들을 나누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고 씨는 후손도 없이 죽어 들판에 묻혔는데, 이후 사람들이 죽은 고 씨를 불쌍하게 여겨 들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첫 손가락 음식을 “고씨네”라고 외치면서 허공에 던져 주었다. 이때부터 고씨레 풍속이 생겨나게 되었다.

변이 이 설화는 다양한 변이 형태가 보이는데, 가장 많은 것은 고 씨라는 인물의 신분이다. 각편에 따라 신라 말의 승려인 도선(道詵)의 어머니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도선의 어머니인 고 씨가 죽었는데 밥은 얻어먹을 수 있는 밋자리를 잡아 들에 묻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기 전 도선의 어머니인 고 씨에게 음식을 바친다는 것인데, 이는 음택풍수(陰宅風水)와 연관되어 있다. 다른 인물로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다 죽은 고 씨,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뱃사공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렇게 행한 행위는 보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고 씨에게 음식을 공양함으로써 가뭄 끝에 비가 내리거나 아픈 배가 낫는 등 고수레의 행위자가 복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분석 고수레에 관한 연구는 어원을 밝히거나 행위와 이야기의 유래에 관한 설명, 풍수설화로서의 의미 등을 살펴보는 작업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면서 ‘고수레’라고 하는 행위와 ‘고수레’라고 하는 주언(呪言) 그리고 ‘첫 손가락 음식’으로 인식되는 공회에 대한 것으로 고수레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특징 『환단고기(桓檀古記)』나 『규원사화(揆園史話)』에는 단군시대에 농사와 가축을 관장했던 고시(씨)가 죽은 후 음식을 먹을 때 먼저 그에게 음식을 바친 뒤에 먹게 된 데서 고수레가 유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설화의 내용은 음식 공회와 ‘고수레’라는 주언에 대한 설명을 풍수설, 기복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민간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행위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얻는다.

의의 고수레 유래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전승되고 있는데, 고수레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주언과 공회로 자신의 소원(豊요)을 기원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135; 1-8, 161; 328; 465; 8-11, 607; 8-12, 369; 498.

참고문헌 고수레설화 연구(최태호, 새국어교육76,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고씨레설화의 성격 고찰(박종오, 호남문화연구2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1),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열, 일조각, 1976),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박종오(朴宗燾)

전설

고승·이승전설

高僧·異僧傳說

정의 도력이 높고 훌륭한 업적(業績)을 남기거나 이적(異蹟)을 행한 스님의 이야기.

내용 역사적으로 이름이 있는 큰 스님들에게는 한두 가지의 영험담이 전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스님이라 하더라도 전설이나 민담 가운데 등장하여 기이한 행적을 보이는 이적담이 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험담은 불교설화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영험담은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불교설화 가운데 고승(高僧)의 영험담을 가장 앞서 집약시켜 놓은 것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감통」에 〈광덕엄장〉이나 〈월명사도술가〉, 〈용천사혜성가〉, 「신주」에 〈혜통항룡〉, 「홍법」 편에 〈원종홍법염축멸신(이차돈순교)〉처럼 이적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를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실고 있다. 『삼국유사』의 편제는 중국의 『당고승전』, 『송고승전』, 『신승전』 같은 고승전의 편제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고승·이승담(異僧談)을 분류하는 기준은 이야기가 담고 있는 주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동사열전(東師列傳)』 같은 고승전이 전하고 있으나 이 고승전들의 편찬자는 영험과 이적보다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험담이나 이적담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고승들의 영험담은 오히려 민간 설화집에서 많이 발견된다. 불교설화를 모아서 펴낸 설화집에 소개되고 있는 설화들도 대부분 불교의 영험담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불교설화집류에서 소개한 고승·이승들의 이야기는 높은 도력을 발휘하거나 ‘현신성불(現身成佛)’, ‘신통자재(神通自在)’, ‘생사자재(生死自在)’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신성불담은 살아서 높은 수행을 하여 부처가 되는 이야기이다. 『삼국유사』의 〈남백월이성 노힐부득달달박박〉과 신라 왕자(김교각)가 중국 구화산에 가서 지장보살이 되었다는 〈김지장보살담〉이 있다. 불교에서 부처가 되었다는 말은 곧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설화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나이는 대개 5세이다. 설악산 오세암은 5세 동자가 깨달아 ‘오세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오세암설화〉에서 5세 동자는 특정한 스님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실명으로 존

재하는 스님 가운데 5세에 깨달았다는 영원조사 이야기가 있다. 영원조사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스님이며, 이 경우는 전생에 스님이었던 영원조사가 다시 스님으로 환생하여 일찍 깨달았다는 내용이다. ‘생사자재’는 말 그대로 나고 죽음을 마음대로 한다는 뜻인데, 태어나는 일보다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입적한 고승들의 일화는 수없이 많다. 최근세의 효봉선사 같은 고승은 입적할 날과 시간까지 시자(侍者)들에게 말하고 병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 목욕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입적에 들었다. 죽을 날을 두 번이나 연장한 지리산 벽송암 서룡화상 이야기도 있다. 스님은 1890년 12월 27일에 문도들을 모아 놓고 “오늘 내가 갈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임종을 알렸다. 시자가 모레가 설이라 과세 준비를 하고 있으니 명을 늘일 수 없겠느냐고 묻자, “그럼 과세 불공 준비를 하라.”라고 일렀다. 설을 지내고 초이튿날 스님이 “이제 가도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제자들이 “내일이 초사흘이라서 많은 신도들이 불공을 드리러 오는데 돌아가시면 부정 탄다며 불공을 오지 못합니다.”라고 하자 “그럼, 하루 더 묵지.” 하고는 하루를 더 살았다. 초나흘날 다시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묻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설법을 마친 뒤 앉은 채로 입적에 들었다. 고승·이승담에는 대개 ‘신통자재’를 보인 스님들의 이야기가 많다. 이 경우는 대개 스님이 도술을 부리는 도승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건너가 신통자제한 도술을 보여 생불로 추앙받고 포로 3천 명을 구해 온 사명대사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고구려 보장왕 때 보덕화상이 고구려에 오두미교(도교)가 들어오자 불교가 쇠퇴할 것임을 알고 절을 공중으로 띄워서 전주 고달사로 옮긴 이야기, 석장이 혼자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아 온 양지스님의 석장 이야기, 마곡사에서 도둑들을 행복시킨 자장율사 이야기, 천성산 내원사에서 천 명의 목숨을 구한 원효대사 이야기, 모래를 선단으로 만든 청병산 보문암 해안대사 이야기, 유발승으로 효도하며 수도하여 득도한 부안 월명암 부설거사 이야기, 신록사에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용마를 순하게 만든 나옹대사 이야기, 나옹대사의 제자로 이성계에게 한양 도읍터를 잡아 준 무학대사 이야기, 산적들이 원하는 고기찌개를 먹은 후 토해 살아나게 한 진표율사 이야기 등은 고승들의 높은 도력을 바탕으로 행한 이적과 영험담이다.

의의 고승담은 높은 도력으로 사람들을 교화시킨 고승에게서 감화를 받은 신도들이 종교적 초월성을 드러내려고 지어낸 이야기이다. 또는 고승에게 기대하는 신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훌륭한 스님들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으로 승

화하여 설화 형성의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승이 영험이나 이적을 행한 설화는 종교적 감동을 크게 하고 신도들에게 신심을 두텁게 하는 방편이 된다. 고승·이승담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막연히 이적을 행하는 도승의 이미지를 가진 스님이 등장하는 민담도 많다. <장자못전설>에 등장하는 도승이나 착한 자손에게 명당 터를 잡아 주고 사라지는 이승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고승·이승담이다. 이런 이적담은 처음에는 이름이 함께 전하다가 전승과정에서 이름이 탈락된 경우가거나 막연히 고승(이승)들

의 행적으로부터 형성된 이미지만 남아서 포교를 위한 목적이나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기능으로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1·2(김용덕, 부림이, 2004), 불교영험설화(한정섭, 법륜사, 1975), 불교이야기1·2(김용덕, 창작과 비평사, 1985), 속편불교영험설화(한정섭, 법륜사, 1985), 영험설화전설집(서병재, 삼영출판사, 1986), 한국불교전설99(최정희, 우리출판사, 1986).

필자 김용덕(金容德)

열린 결말구조를 통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행할 수 없으면 헛된 공론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교훈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징 아르네-툼슨의 유형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Belling the cat, AT110)>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이습우화』와 합치되는 많은 한국 동물담은 근대 이후 교과서나 신문·잡지 기타 문헌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에 비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는 문헌자료 『순오지』에 <묘항현령>으로 실린 흔적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그 기록이 상당히 오래된 설화이다. 이야기가 문헌을 통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구전 채록 자료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의의 『이습우화』에서 같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문화적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며, 설화 전파에서 문헌이 구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담의 근원을 밝히는 설화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출처 旬五志.

참고문헌 순오지(홍만중, 이민수 역, 을유문화사, 1971),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박현숙(朴賢淑)

전설

고유

高裕

정의 경상도 일대에 전해지는 조선 후기의 명관 고유(高裕, 1722~1779)에 관한 설화.

이야기가 있다.

분석 그간 <고유설화>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구비전승의 자료를 대상으로, 설화의 유형적 특성과 전체적 전승양상을 밝히는 기초적 연구가 중심이었다. 이것은 <고유설화>가 주로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승된다는 지역적 제한성과, 단편적인 사건담과 사건의 연속체 형태로 전승된다는 형태적 특징 때문일 것이다. 고유는 인물됨이 비범해서 젊은 시절부터 인재로 주목을 받았고, 청렴결백하여 명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백성들의 곤궁한 삶을 구제하기 위해 경세치민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풍성한 설화가 형성되었다. 창녕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안찰사 조암이 민폐가 심하다는 이유로 조창(漕倉)의 신설을 허락하지 않자 그가 조정에 글을 올려 윤희를 얻어 조창을 건축하였다. 이 일로 곡식을 운송하는 노고를 덜게 된 읍민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또, 안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잡농(蠶農)을 권장하였고, 허호(虛戶) 7천을 폐지하고 고을의 조세를 감하여 백성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고 한다. <고유설화>는 정사에 실존했던 명관이 야사에서 초월적 인물로 영웅화되어 전승되는 대표적인 구비전승이라 하겠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광포설화인 어사 박문수의 순행이나 숙종의 잠행에 얽힌 이야기는 임금이나 목민관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백성을 구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유설화> 역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데, 고유가 경상남도 출신이 아님에도 임지인 경남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부당하게 억눌리는 백성의 원성을 풀어 줄 구원자에 대한 민중의 소망이 투영되면서 지역적 영웅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징 출생담에서 성장담, 그리고 행적담으로 이어지는 인물 전설의 과정들은 상호 인과적 관계에 의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 출생담에서 인물의 신이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날 경우 성장담 또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행적담의 모든 사건들은 출생담, 성장담과 연관성을 지니며 전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유설화>는 이러한 유형과는 판이하게 다른데, 신이한 출생담이 한 편도 없다. 그 이유는 고유가 18세기에 활동한 인물이므로 출생에 있어 신이적 요소가 가미될 만한 사회적 여건, 즉 설화 향유층의 신화적 인식이 희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담과 행적담에서도 신이한 요소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족적 영웅을 다룬 설화가 신이적 요소를 토대로 한 신화적 질서에 의해 이야기 전개되는 것에 반해, 중세에서 근세로 이어지는 이행기의 지역적 영웅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인물설화는 합리적 질서에 의해 이야기가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역사 고유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친시(親試) 제술과에서 장원을 하여 인재로서 주목을 받아 병조좌랑 등 내직에 머물다가 창녕현감, 안주목사(安州收使), 경상도사(慶尙都使) 등 외직을 거친 뒤 내직에 들어와 승정원 부승지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생전에 후손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문집조차 발간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문헌기록은 정범조(丁範祖)가 지은 『묘갈(墓碣)』이 유일하고,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기문총화(記聞叢話)』와 『동야휘집(東野彙輯)』 등에 기록되어 문헌설화로 전한다. 그의 치적은 칭송을 받을 만한데, 오히려 기록이 많지 않아서 설화로 풍성하게 전승되는 것 같다. 그는 첫 지방관인 창녕현감 때에 선정을 베풀고 명재판을 한 것이 널리 알려져서 고창녕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에 관한 설화는 18세기 이후부터 창녕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일대에 <치자담(治者譚)>, <명관설화>, <송사설화>로 유포·전승되었다고 보인다.

줄거리 <고유설화>는 단편적인 삽화를 이야기하거나 두세 개의 삽화를 연속하여 구연하는 경우가 많다. 그의 행적 중 치적담은 다음과 같다. 옹기장수가 바람 때문에 옹기를 깨뜨린 뒤 살길이 막막해서 고유에게 소지(所志)를 올리자 배가 잘 다니게 순풍을 달라고 풍성제를 올린 뱃사공들에게 옹기 값을 물어주게 한 기발한 판결 이야기가 있으며, 날아든 나뭇잎을 보고 그 근원을 추적하여 살인자를 잡아 걸담당한 뒤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하는 등 지혜로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귀중한 물건을 훔친 도둑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잡는 등 대부분 기지로 문제를 해결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변이 <고유설화>는 행적담 외에 벼슬하기 전의 일화를 다룬 성장담도 전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영웅적 인물을 다룬 일반적인 설화와 달리 신이적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 질서에 의해 전개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창녕이 과거를 보러 가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희롱하려고 했지만, 처녀의 재치에 답을 하지 못했다. 고창녕은 그길로 곧장 집으로 돌아와 더욱 열심히 노력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처녀는 산신이었다. 둘째, 머슴 하나를 데리고 살던 과부가 머슴이 징병을 당하게 되자 소지를 부탁하러 가던 중 어린 고창녕을 만났다. 고창녕이 “천 명 군사의 한 졸병은 천 마리 소의 한 털이요, 과부의 한 노비는 열 소경의 한 지팡이라(千軍之一卒 千牛之一毛 寡婦之一奴 十盲之一杖).”라고 소지를 작성해 머슴의 징병을 면해 준다. 문헌기록에도 고유가 선정을 베풀고 명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고창녕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비설화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고창녕 덕에 부자가 된 하인이 몰락한 고창녕의 손자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민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의 쥐들이 고양이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정작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는 쥐가 없었다는 내용의 동물 치우담(癡愚譚) 유형의 설화.

역사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홍만종이 지은 문학평론집 『순오지(旬五志)』(1687)에 <묘항현령(貓項懸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외국의 『이습우화』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줄거리 『순오지』에 실린 전문을 소개한다. 쥐떼들이 모여서 상의했다. 우리가 고양이의 피해를 면하려면 무슨 신기한 방법이 없겠느냐고 의논한 것이다. 쥐 한 마리가 나서더니 “그건 간단한 일이지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하나 달아 놓으면 그놈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게 아닌가?” 한다. 못 쥐들은 일제히 “그것 참 좋은 의견이다.” 하고 찬성했다. 그러나 늙은 쥐 한 마리가 나서더니, “그 의견이 좋기는 하지만 그 방울을 달아 놓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물었다는 이야기이다.

분석 실행하기 어려운 일은 애당초 계획하지 말라는 의미를 지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의 근원설화이다. 이 설화는 쥐와 고양이가 의인화된 동물담에 속한다. 그리고 쥐들이 모여서 고양이에 의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찾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정작 그것을 실행할 쥐가 없고, 구체적 실행 방법도 찾지 못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치우담이다. 늙은 쥐가 어린 쥐들의 의견에 대해 의견은 좋지만 누가 방울을 달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끝을 맺는

의의 관장(官長)은 뛰어난 지혜와 판단력을 갖추고 민중의 고충을 합리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야욕에 찬 관장이 가림주구를 일삼거나, 미숙하고 무능한 관장 아래에서 아전이나 권세가의 횡포가 극심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달리 (고유설화)는 기발한 착상으로 통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애민적인 관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향유층인 백성들의 희망을 투영하고 현실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설화 속에 보이는 고유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다소 비현실적이고 억지스러울지라도 명쾌한 판결로 향유층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출처 國朝榜目, 記聞叢話, 東野彙輯, 英祖實錄, 正祖實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5, 414; 8-2, 25; 8-4, 86; 8-7, 396; 8-8, 578; 8-10, 81.

참고문헌 고창녕설화 연구(장민석,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고창녕전설 연구(정상박, 국어국문학17,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8), 전설의 사회사(정상박, 민속원, 2000).

필자 정상박(鄭尙朴)

신화

고조선건국신화

古朝鮮建國神話

표제어 단군신화

전설

고종달

표제어 호종단

전설

고창녕

高昌寧

표제어 고유

민담

곡성 안 들은 상복

정의 시묘살이 중인 남편인 척 상복을 입고 와 동침한 남자

때문에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고을원이 범인을 찾아내 엄벌 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효자 남편이 젊은 아내를 두고 부친의 시묘살이를 하러 갔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상복을 입고 찾아와 아내에게 동침을 요구했는데,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목소리와 언행으로 미루어 남편이라 여긴 아내는 동침을 했다. 이후 아내는 임신하여 배가 부르게 되었다. 마침내 시묘살이를 마친 남편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임신해 있었다. 임신한 아내를 보고 이유를 묻고 자신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아내는 수치스럽고 억울하여 자살하고 만다. 아내의 억울한 임신과 죽음을 밝혀 달라고 처가식구들과 남편이 관가에 고소를 했지만, 원님은 뾰족한 해결 방도가 없어 고민만 하였다. 원님의 아내가 남편의 고민을 듣고 방도를 알려주었는데, 이는 원님 아내의 병을 낫게 하려면 곡성을 듣지 않은 상복이 필요하니 이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라는 것이었다. 범인이 상을 받을 생각에 상복을 가져오자 원님이 그를 잡아 엄벌에 처했다.

변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설화이다. 이본에 따라 여인이 정숙했지만 남편인 척한 범인의 교활함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한다. 남편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된 부인이 자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묘살이 중 임신은 불효라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자살을 종용하기도 한다. 또한 부인이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거나 가슴을 긋기도 하는데, 이는 효와 정절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를 드러낸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원님 스스로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아내가 도움을 주고, 간혹 며느리가 방도를 알려 주기도 한다. 또한 범인을 잡는 방법 중 버들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범인의 이름을 연상하는 경우도 있다. 설화의 일부에서는 아내가 자살했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정절 훼손의 억울함에 대한 전승집단의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분석 송사설화 중 이 유형은 범인을 잡아서 억울함을 밝혀주는 설화이다. 피해자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고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적 교훈을 전달한다. 또한 이러한 설화는 관리가 백성의 고충을 헤아려 선정을 베풀기를 기대하는 민중의 심리를 담고 있으며, 당대 이념상과 현실적인 모순까지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 속에서도 극단적인 이념과 욕망에 대한 자기반성과 변화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특징 고소설 <이운선전(李雲仙傳)>의 후반부에서도 김공필의 처 노 씨의 미모에 반한 백기삼이 시묘살이 중인 남편인 척

노 씨를 속여 아이를 낳게 하였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된 노 씨가 아이를 죽이고 자살, 친정에서 남편을 의심하여 고소했으나 노 씨의 원혼이 공청에 나타나 범인을 잡고 신원(伸冤)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출처 李雲仙傳,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20; 4-4, 577; 6-4, 384; 7-1, 287; 7-11, 782; 8-9, 253, 한국의 민담(최문식, 시인사, 1999).

참고문헌 송사설화 연구(배경옥,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한국 송사설화 연구(이현홍, 국어국문학지34, 문창어문학회, 1997).

필자 홍나래(洪나래)

전설

곰나루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일대에 전해 내려오는 곰나루(공주시 웅진동에서 맞은편 우성면 도천리를 연결하던 나루)의 지명전설이자 인간과 동물의 결연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아득한 옛날 지금의 곰나루 근처 연미산(燕尾山)에 큰 굴이 있었다. 이 굴에는 커다란 암곰이 한 마리 살았다. 나무 하러 나온 사내가 그 암곰에게 납치되어 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사내는 곰의 감시로 도망치지 못하고 곰이 사냥해 온 먹이를 함께 먹으며 살았다. 그러다 두 번째 새끼까지 낳게 되었다. 어느 날부터 사내를 믿기 시작한 곰이 동굴 입구를 막지 않았다. 그러자 사내는 암곰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탈출했다. 강변 쪽으로 도망가는 사내를 발견한 곰은 두 새끼를 데리고 강변으로 달려가 돌아오라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사내는 곰의 애원을 외면하고 강을 건넜고, 그것을 보고 있던 곰은 새끼들과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사



곰사당
충남 공주시 웅진동, 문화재청

내가 건너온 나루를 '고마나루' 또는 '곰나루(熊津)'라고 불렀다 한다.

변이 <곰나루전설>과 관련된 변이본은 많지 않지만 전국에서 여러 편이 채록되었다. 이 전설을 단군신화 및 만주족의 곰신화와 관련시켜 신화적 변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있다. 또한, 곰신화를 주인공이 호랑이로 바뀌어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호랑이 설화의 또 다른 변이 형태로 보는 관점도 있다. 전설의 변이군과 달리 민담의 변이군을 이루고 있는 이야기도 채록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암곰과 살았던 백령도 도사>로, 곰 가족의 비극적 결말과는 달리 헤어졌던 곰과 인간이 다시 만나 잘산다는 식으로 끝을 맺는다.

분석 <곰나루전설>은 이야기에서 곰의 등장 및 인간과의 교혼 그리고 이런 인수교혼으로 자식을 낳는 모티프가 특이해 단군신화와 연관을 짓는 연구가 있었다. 곰 관련 이야기는 시베리아의 곰제의와 곰신화에 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는 한민족이 시작되는 처음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고아시아족과 그 문화의 연장선에서 한민족의 기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중국의 홍산문화(紅山文化)와 관련된 곰 관련 신화와 문화요소들의 문제를 푸는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곰제의와 관련한 곰신화가 많이 채록되고 있는데, 이 전설은 그 변이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특히 인수교혼 모티프가 확대 해석되어 단군신화와와의 관련성이 논의되었다.

의의 <곰나루전설>의 신화적 속성은 수천 년에 걸친 고아시아족과 문화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어 그 과정을 밝히는 연구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 또한 홍산문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심화가 남아 있다. 아울러 아직도 일본에 이와 유사한 지명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고대 한일 관계에서 우리 문화,



곰나루 전경
충남 공주시 웅진동, 문화재청

특히 백제 문화가 끼친 영향을 증명해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23; 5-2, 781; 5-4, 36; 6-7, 395.

참고문헌 곶나루전설의 변이와 의미(김군태 외,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동북아의 꿈문화와 꿈신화(이정재, 민속원, 1997), 부여의 구비설화(김군태·강현모, 보경문화사, 1996),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최래옥,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82).

필자 이정재(李丁宰)

전설

공갈못

정의 전국에 분포한 공갈못과 관련된 전설.

줄거리 〈공갈못전설〉은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전해 내려온다. 첫 번째 유형은 옛날에 공갈못을 완성할 수 없었는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공갈이라는 아이를 묻은 후 못을 완성하여 그로부터 그 못을 ‘공갈못’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유형은 한 남자가 여인으로 변한 황룡과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경상북도 경주시 용담의 용녀였던 여인이 남자에게 공갈못의 용남(龍男)에게 시집가야 하는데 다른 용이 방해하니 처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 남자는 여인의 말대로 싸우는 세 마리 용 가운데 백룡을 처단하려 했으나 실수로 청룡의 허리를 잘라 공갈못의 용을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황룡이 자신을 과부로 만들었으니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남자에게 말했다. 남자는 결국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었다. 남자의 시체를 가져다 제사지내자 못 속에서 황룡이 나와 시체를 안고 들어갔다. 그 뒤로 이 지방 사람들이 공갈못의 얼음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이듬해 풍흉을 점치기 시작했다. 이를 ‘용갈이’라고 했는데, 못의 얼음이 동에서 서로 갈라지면 풍년이고 그 반대면 흉년이라 여겼다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옛날에 고기를 잡던 사람이 못에 살던 이십이를 잡아서 못이 다 메워지는 바람에 이를 공갈못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네 번째 유형은 백낙천환생담과 관련이 있다. 옛날 백낙천이 자식 없이 살다 죽으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시체를 공갈못에 넣고 “상주 함창 공갈못에 백낙천이 날 데려가소.”라고 외치며 올라 하였다. 아내가 남편이 시킨 대로 하던 어느 날 나라의 태자가 태어났는데, 주먹을 쥐고 울음을 울면서 누가 달래도 그치지 않았다. 그 소문을 듣고 백낙천의 아내가 올라가 아이 앞에 서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아이의 주먹을 펴 보니 ‘백낙천’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분석 이 전설은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이를 묻고 못을 완성한 인신공희설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용의 청을 받고 실수로 다른 용을 죽인 사람이 결국 죽어 못 속의 용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는 이십이를 죽여 못이 메워진 설화이고, 네 번째는 과거 공갈못이 더 넓었던 시절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이다. 마지막으로 못의 신성함과 영험함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의의 못은 우물이나 산, 바위처럼 우주 재생의 구심이자 우주의 기운이 생성되는 근원이다. 대지의 배꼽이자 우주의 중심인 이와 같은 상징 공간은 성스러운 힘으로 넘쳐나 중요한 주술 행위나 의례의 핵심 대상이 된다. 농사의 풍흉을 점치거나 기우제를 지내는 공간 등이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한다. 이런 공간에는 흔히 용이나 이무기 등이 깃들어 사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 의례가 행해지기도 한다. 인신공희는 설화의 주요 모티프로 소설 〈심청전〉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8, 377; 379; 385; 1031; 1214.

참고문헌 인신공희설화 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보10, 한국민속학회, 1999), 희생제의설화의 원형성 연구(이정재,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필자 김영희(金玲希)

전설

공민왕

恭愍王

정의 홍건적의 2차 침략을 피해 경상북도 안동에 머물렀던 고려 공민왕과 관련된 전설.

역사 홍건적이 1360년 11월 19일에 침략을 개시해 수도 개경을 향해 진격을 시작하자, 그날 공민왕은 왕궁을 떠나서 몽진길에 올랐다. 파주, 양주, 광주, 이천, 충주, 용궁 등을 거쳐서 동년 12월 15일에 안동(당시의 북주)에 도착한 뒤에 지역민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머물다가, 개경을 수복한 뒤인 이듬해 2월 신축일에 환도했다. 환도 이후 공민왕은 안동 주민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옥대와 옥관자, 상아홀 등의 진귀한 물품을 하사하는 한편, 북주목을 안동대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안동에서 회자되는 〈공민왕전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형성,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공민왕사당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줄거리 〈공민왕전설〉은 크게 보아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놀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안동늑다리밟기의 유래와 관련이 있다. 공민왕 일행을 맞이한 안동 주민들은 왕비인 ‘노국대장 공주’가 걸어서 냇물을 건너는 게 안타까워서 모두 등을 보이고 옆드려 ‘인교(人橋)’를 만들어 건너게 했는데, 그 뒤로 이 일을 기념해서 해마다 늑다리밟기를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승되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공민왕의 몽진 경로에 위치한 안동시 풍산읍 수동마을의 ‘국신당(國神堂)’ 건립과 연관된 것이다. 이 동네에 약 400년 전에 대홍수가 났는데, 매일 밤 희고 밝은 빛의 서기(瑞氣)가 피어오르는 곳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찾아가서 땅을 파 보았더니 공민왕이 친필로 ‘국신지위(國神之位)’라 쓴 신위가 나왔다. 이에 주민들이 그 자리에 당집을 짓고 신위를 모셨다고 한다. 이 밖에도 홍건적과 싸우기 위해서 마을 동쪽의 재령산에 진을 쳤는데, 군졸들의 인명피해가 컸으므로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국신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한다. 한편 공민왕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공민왕의 신이함을 드러내는 것들이다.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민왕은 청량산에 머물면서 홍건적과 전투를 벌일 때 뛰어난 전술을 구사했다. 공민왕은 축룡봉과 의성봉 사이에 줄을 설치하고 ‘허재비(인형)’를 만들어 칼춤을 추게 했으며 나무에 옷을 입혀놓고 냇물에 헛가루를 뿌려서 허연 물이 흘러가도록 했는데, 모두 적군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 밖에도 홍건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열두 성을 쌓은 이야기며 다섯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오마대도(五馬大道)’를 지나던 이야기, ‘안동웅부(安東雄府)’와 ‘영호루(映湖樓)’ 등의 현판 글씨를 쓴 이야기 등이 전한다. 한편, 이렇듯 탁월한 인물인 공민왕이 부인 때문에 홍건적에게 패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홍건적이 공민왕의 군세(軍勢)를

탐문하던 중에 빨래하는 여인 하나를 보고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이에 여인은 “공민왕이 벗짚과 수숫대, 나뭇잎을 부려서 사람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군사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사실을 알게 된 홍건적이 산성을 공략해서 함락했고 공민왕은 패퇴했다. 홍건적에게 비밀을 알려준 여인이 바로 공민왕의 부인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부는 갈라섰고 뒤에 공민왕은 청량산신, 부인은 인근 북곡의 동신(洞神)이 되었지만 서로를 외면했다고 한다.

분석 〈공민왕전설〉은 한결같이 공민왕의 몽진이라는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공민왕은 개혁 군주로서의 간섭을 배제하고 쇠잔해진 고려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국내의 정세의 불안함 때문에 좌절하고, 마침내 측근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또, 안동과의 인연을 놓고 본다면 홍건적의 2차 침입 당시 몽진길에 나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에 안동에 이르러, 고려 건국 당시부터 공로가 큰 안동부의 호장 세력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다가 환도 후에 온갖 혜택을 배분 인물이다. 전설 속의 공민왕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홍건적을 맞아 갖은 지략을 동원해 감언히 맞서는 인물이자 안동을 아낀 인물로 묘사된다. 이처럼 공민왕이 안동 지역민들에게 긍정적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외세를 배격해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고 권신들의 특권을 해체하려고 시도한 개혁성과, 노국대장 공주의 죽음 이후 황폐한 삶을 영위하다가 결국 측근에 의해 암살된 비극성,



공민왕 영정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마포문화원

그리고 안동과의 친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징 〈공민왕전설〉은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형성, 전승된 것으로서 역사에 대한 민중적 해석과 비극적으로 죽은 위대한 인물의 신격화 양상 등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전설이다.

의의 〈공민왕전설〉은 말로 기록된 역사라는 전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있었던 몽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지역민들은 안동인의 애국심과 충성스러움 때문에 공민왕이 다른 지역을 두고 안동을 전시 수도로 선택했다는 자긍심을 보여 주는 한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왕의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는 군주의 상을 투사한다. 또한 공민왕과 그 가족을 신격화해 청량산 일대를 비롯한 안동 지역 곳곳에 모심으로, 역사적 인연을 일회적인 것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현하는 민중적 가치관의 일면을 보여 준다.

출처 오봉산성 산신제와 당고사(이남식, 한국민속학16, 한국민속학회,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9, 186; 769; 772; 816; 7-10, 769; 817.

참고문헌 공민왕 몽진설화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역사인식(임재해,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2004), 청량산 일대 공민왕신앙의 분포와 성격(한양명,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2004).

필자 한양명(韓鄕明)

용어

공식적표현

公式的表現

정의 여러 유형의 설화들에 두루 나타나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둘 이상의 짝을 이루고 있는 연쇄적 표현.

내용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갈래로 구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과 재생이 용이하도록 잘 짜여진, 일정한 원리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공식적표현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립과 반복이라는 원리가 대표적이다. 선-악, 행-불행, 금기-금기의 파기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들은 많은 유형의 설화들에 두루 나타나고 같은 유형의 설화들 각편에도 두루 나타난다. 대립에는 인물의 대립, 구조적 대립, 어법적 대립 등이 있고, 반복에도 인물의 반복, 구조적 반복, 어법적 반복 등이 있다. 대립은 이야기 진행의 흥미

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반복은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기억을 용이하게 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해를 명확히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록문학이라면 이러한 공식적표현은 없어도 관계없고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비문학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있음으로써 구조화가 용이하고 따라서 기억과 이해에 편리하다. 구비문학을 구비문학답게 만드는 유용한 장치 가운데 하나가 공식적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박경신(朴敬伸)

민담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정의 과객의 부모 제사를 차려주고 그 은덕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민담.

줄거리 과객이 방문하자 주인이 며느리를 시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그런데 과객이 음식을 먹지 않고 오늘이 부모 제삿날이라 제사를 지내는 데 쓰겠다고 하자 주인이 제사상은 다시 차려줄 테니 저녁을 먹으라 하였다. 주인이 일을 많이 한 큰며느리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둘째, 셋째 며느리에게 부탁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큰며느리에게 다시 가서 부탁하니 흔쾌히 제사상을 정성껏 차려주었다.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큰며느리의 꿈에 인물 좋은 이가 나타나 봉학 한 쌍을 주었다. 십오 년간 자식을 두지 못하던 큰며느리는 그날로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았고, 삼 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진사가 되었다.

변이 과객의 제사상을 차려주고 그에 대한 복으로 과객 조상이 점지해 준 인재를 낳게 되는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인 경우도 더러 있으나 대부분은 맏며느리로 제시된다. 또, 제사를 지낸 후 과객의 조상이 시아버지나 며느리의 꿈에 나타나 구슬이나 봉학 등을 주는데, 이런 은덕으로 태어난 아들이 학봉 김성일, 사계 김장생, 강감찬 등 훌륭한 인물인 경우가 많다.

분석 이 설화는 제사를 지낸 공이 헛되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특히, 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 준비를 실제로 행한 며느리에게 보상하는 것은 후손보다 실제 제사 준비를 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셋째 며느리가 거부한 제사상 준비를 맏며느리가 흔쾌히 수락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맏며느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가문을 잇

는 큰 인물은 맏며느리가 낳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징 대부분의 제사 관련 설화가 제사를 모시는 자손과 제사를 받는 혼령과의 혈연적 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 데 반해, 이 설화는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소용 없는 일이 아니라 보상 받아 마땅한 큰 선행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 보상이 훌륭한 자손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훌륭한 자식을 얻으려면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제사에 대한 통상적인 관념과 연결된다.

의의 이 설화는 제사를 지내는 행위의 더욱 넓은 의미에 대해 시사한다. 양자보다는 친자가, 딸보다는 아들이, 차자보다는 장자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것이 제사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혈연적 친연성과 무관하게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면 그 공로를 크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제시하여 남의 부모를 제 부모처럼 모시는 선행과 적덕의 범주에 제사 지내기 역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151; 7-5, 41; 7-11, 440.

참고문헌 설화문화학적 관점에서 본 제사문화와 제례의 민중적 인식(임재해, 민속연구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제사설화에 대한 신세대의 해석과 구비전승의 항방(이인경, 국문학연구21, 국문학회, 2010).

필자 정경민(鄭京珉)

민담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정의 엄격한 신분 제도 아래에서 백정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백정에게 천재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엄격한 신분 제도 때문에 아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었다. 백정은 피를 내어 동네 고명한 훈장의 집에 쌀과 고기를 갖다 바쳤다. 신세를 진 훈장은 백정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 백정은 자기 아들을 공부시켜 달라고 했다. 훈장은 늦은 밤에 백정의 아들을 몰래 가르쳤다. 백정의 아들은 훈장 아들의 자격으로 과거를 보았고 장원급제하였다. 백정 아들이 마음에 든 영의정은 그를 사위 삼고자 하였다. 장원급제 소식을 들은 백정은 아들을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백정과 아들은 모든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몰래 만날 것을 약속했다. 백정의 아들은 밤에 몰래 일어나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고, 그의 아내가 뒤를 밟았다. 아내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차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을 영의정도 알게 되었지만, 묵인하였다. 영의정은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백정 사돈을 불러 들여 양반 교육을 시켰다. 그 후 백정은 양반이 되어 잘 살았다고 한다.

변이 이 설화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백정이 직접 주인공으로 양반이 되는 이야기도 있고, 아들 없는 정승과 딸 없는 백정이 아들과 딸을 서로 바꿈으로써 백정의 아들이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는 변이형도 있다. 특히 백정이 직접 양반이 되는 유형에서는 어사 박문수와 연결되는 예가 많다.

분석 이 설화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극심한 동요와 사회 변화 현상을 잘 보여 준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농민으로 천민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백정은 화척(禾尺)이라고 하여 천민 신분에 속해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이 설화는 천민인 백정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아들과 딸을 서로 바꾸고, 몰래 벼슬을 얻는 모습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반상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나 〈피쟁이 하인〉에서 보여 주는 속고 속임을 통한 신분 질서의 파괴와는 차이가 있다.

의의 박문수는 조선 영조 때의 대표적인 암행어사다. 박문수는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러한 박문수를 이 설화에 끌어들이는 것은 신분 제도 아래에서 겪는 천민의 설움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화에서 박문수는 백정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벼슬을 얻은 것을 알지만, 은근히 묵인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것은 어사인 박문수가 신분제 동요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511; 3-1, 296; 7-1, 213.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최은식, 청람어문교육 21, 청람어문교육학회, 1999).

필자 이동철(李東哲)

민담

과부와 머슴

정의 가난한 노총각이 순진한 처하는 피를 내어 부유한 과부와 결혼한다는 내용의 민담.

역사 여성의 개가(改嫁)가 자유롭지 않던 시절을 배경으로 과부의 실제 내면에 잠재한 개가 욕구를 은근히 드러내 준다.

줄거리 장가들기가 힘이 들 정도로 집이 가난한 노총각 머슴이 살고 있었다. 머슴은 한 마을에 사는 과부를 찾아가서는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손가락을 한 번 대보자고 했다. 과부가 허락하자 손가락을 한 번 대본 후에 백 냥을 주고 갔다. 다시 과부를 찾아가면 머슴은 이번에는 귀를 한 번 만져 보자고 했다. 과부가 허락하자 귀를 한 번 만져본 후 역시 백 냥을 주고 갔다. 그 다음에 또 찾아와서는 배꼽을 한 번 맞춰 보자고 했다. 과부가 허락하고 치마를 벗자, 배꼽을 맞추면서 성교를 하여 과부와 혼인하고 잘 살았다.

변이 이 설화의 변이로는 단계별로 신체 접촉을 하면서 결국 성행위에 이르러 혼인까지 하는 이야기 외에도, 혼례나 성에 아주 무지한 채하면서 과부에게 혼례 절차나 남녀가 동참하는 법을 일러 달라면서 목적을 이루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과부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함께 잠깐 척하여 꿈쩍없이 과부와 혼인하는 이야기, 새경을 받지 않는 대신 불만 끄지 말라고 하여 머슴으로 들어간 후 밤마다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서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혼인하는 이야기, 과부가 잘 때 자신의 정액을 묻혀 애를 낳게 하여 혼인하는 이야기처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분석 어느 이야기이든 겉으로는 어리석은 채하며, 과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접근하여 혼인에 이르는 내용이다. 머슴이 겉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등장하여 우행담 같지만 사실

은 순진한 과부를 사술(詐術)로 농락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부가 심하게 거부한다거나 결과가 불행하게 끝나는 서술이 아니다. 사실은 과부 또한 남편을 맞을 마음이 있었고 결국은 둘이 함께 잘 살았다는 식으로 서술하여 행복하게 끝난다.

특징 결혼은 하고 싶으나 결혼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총각과, 결혼할 경제적 능력은 충분하지만 남들의 이목 탓에 개가를 할 수 없는 과부가 결혼함으로써 서로의 결핍을 충족하게 되는 서사구조를 지닌다. 겉으로는 머슴의 승리이지만, 속으로는 머슴과 과부가 공동선(共同善)을 이루는 공동 승리이다.

의의 인물의 성격상 머슴과 과부는 서로 대립된다. 머슴이 겉으로는 바보인 척하지만 사실은 과부를 농락하여 아내로 맞이할 꾀를 지닌 인물이며, 과부는 어리숙한 머슴을 부리는 인물 같지만 사실은 머슴의 꾀에 놀아나는 모자란 인물이다. 특히 머슴이 새경을 받지 않겠다는 제안이나, 과부가 공동이 생기는 재미에 걸려드는 이야기에서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나는데, 속뚝뚝-겉바보, 겉뚝뚝-속바보의 대립이 특징이다. 남성이 바보인 채하면서 순진한 여성을 농락하는 이야기는 이른바 '바보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593; 5-5, 139; 443; 5-7, 749; 6-1, 619.

참고문헌 바보음담의 사회문화적 해석(이강연,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한국음담의 세계관(김선동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이강엽(李康燁)

의 재미가 있다. 이로 인하여 '거짓말 이야기' 또는 '허풍담' 등으로도 불린다. 과장담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부풀림을 가능하게 하는, 터무니없는 언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로 허풍쟁이, 방귀쟁이, 고집쟁이, 게으름뱅이, 구두쇠, 정신없는 사람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님과 같이 특별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과장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로 특별한 재능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 종종 신이담 중에서 소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과 혼동되기도 한다. 즉 <재주꾼 형제들>, <짐승의 말 알아듣는 사람>, <중국 천자가 된 총각>, <오늬힉내기> 등과 같은 이야기들은 등장인물의 행적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장담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수(多數)의 화소(話素)들로 이루어지며, 신이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신이담 중의 초인담으로 분류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웃음을 위해 구연되는 것이 아니라 교훈, 설명 등을 목적으로 구연되거나 웃음 이외의 미학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장담은 등장인물의 자질이 허황될 정도로 부풀려져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 간의 허황된 대결 혹은 경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게으름뱅이>나 <정신없는 사람>을 들 수 있다. 게으름뱅이는 숨쉬기도 귀찮아서 가끔 숨을 안 쉴 정도였다. 어느 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며칠 동안 친척 집 잔치에 가게 되자 그동안 먹으라며 입가에 떡을 달아 놓는다.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이것도 귀찮다고 안 먹어 결국 굶어 죽었다. 정신없는 사람이 아이를 업고 뛰어가다가 나뭇가지에 아이가 걸려서 목이 떨어진다. 한참 후에 이를 발견한 정신없는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면서 “이 애가 처음부터 목이 없었던가?”라고 한다. 이처럼 단순한 일화가 나열될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이 이야기의 펀치라인(punch-line)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마지막에 상식을 초월하는 말을 통해 이 이야기가 허황되게 부풀려진 이야기임이 드러나고, 웃음이 유발된다.

과장담 중에서 두 인물 간의 대결 혹은 경쟁이 그러지는 경우는 단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린고비>와 같은 구두쇠 이야기는 이야기의 한 유형을 형성할 정도로 많이 전승되고 있으며, <해인사 스님과 석왕사 스님의 자기 절 자랑>은 『성수패설(醒睡辨說)』에 실려 전할 정도로 유명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린고비>는 인색한 인물의 에피소드로 구성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린고비가 개과천선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그 편폭이 비교적 큰 유형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린고비의 인색함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상식의 선을 뛰어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부채를 아껴 쓰는 방법에 대한 자린고비 부자의 대화이다. 자린고비가 부채를 오래 쓰는 방법을 묻자, 다른 아들들이 1년, 2년이라는 상식적인 대답을 한 반면에 큰아들은 부채가 아닌 머리를 흔드는 방법으로 20년을 쓸 수 있다고 대답한다. 이 이야기는 두 자린고비의 대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다. 자린고비는 이 외에도 편지에 묻은 풀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생선 만진

전설

곽재우

郭再祐

손을 씻은 물로 국 끓인 머느리를 헤뜨다고 야단치는 등의 행태를 보인다.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인색함을 보임으로써 이야기는 극적인 재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 논리가 개입할 틈이 전혀 없는 과장담이 <해인사 스님과 석왕사 스님의 자기 절 자랑>이다. 작년에 배를 타고 동지팔죽을 저으러 떠난 상좌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해인사 술이나, 절을 떠날 때 본 대변이 아직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석왕사 뒷간이나 모두 현실에서는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다. 동해보다 큰 술과 구만 리 장천보다 높은 뒷간은 그 자체로 웃음을 유발시키는 요소이다. 이는 절이라는 공간이 갖는 비현실성에 기반을 둔 상상력의 작용이라고 하겠다. 즉, 일상 공간이 아닌 산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기에 일상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과장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과장담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게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이야기이면서도 그 대상에 따라 그 한계가 '상식적'으로 설정되고 있다고 하겠다.

의의 이외에 과장담의 성격을 보여 주면서 종류를 달리하는 이야기가 육담의 한 갈래를 형성하고 있다. 육담 중 성기의 크기를 과장하거나, 남성의 성적 능력을 과장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는 독립된 갈래로 전승되기도 하지만, 인물의 일화로 편입되거나 사물에 대한 설명의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즉, 성기가 너무 커서 결혼할 수 없었던 지철로왕의 이야기나, 소나기가 내리자 여인의 성기로 피신한 새우젓 장수의 실수로 새우젓이 얼어서 그 후로도 냄새가 남았다는 등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육담은 과장의 원리가 작용하여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장담과 유사하나, 구술 대상이 또래집단으로 한정된다는 특수성과 과장의 원리 이외의 원리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이야기 유형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醒睡辨說, 靑邱野談, 자린고비설화의 독해방식과 과장담의 문화(류정월, 서강인문논총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한국구전설화(인석재, 평민사, 1988), 한국 소담의 연구(조희용, 어문학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필자 노영근(盧暎根)

정의 임진왜란 때 의병장 곽재우(1552~1617)에 관한 인물 전설.

역사 곽재우는 경상남도 의령군 세간리에서 현풍 곽씨 월(越)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부인은 상산 김씨로, 부제학을 지

넌 언필의 손녀, 만호 행의 딸, 남명 조식의 외손녀이다. 광재우는 34세 때 별시에 합격했으나 글의 내용이 선조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파방(罷榜)당하자, 출사를 포기하고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기강나무에 은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관군이 패하자, 울분을 참지 못해 기병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광재우에 관한 설화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로 다양한 내용이 전승되고 있는데, 기기묘묘한 작전과 승리담, 부인과 흥의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줄거리 광재우가 부친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관상 보는 사람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했다. 광재우의 후처는 시집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놀기만 했다. 참다못한 시어머니가 꾸짖자 후처는 가진 것이 없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에 시어머니가 조, 노비, 소를 주며 무엇이든 해 보라고 하였다. 후처는 노비들을 전라북도 무주로 보내 농사짓게 한 다음 광재우에게 묘수를 가르쳐 동네 부자와 바둑을 두어 천석을 벌게 하였다. 광재우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교류를 맺었다. 부인 말대로 박을 많이 심어 수확하고, 쇠를 모아 박 모양의 바가지를 만들어 두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부인은 남편에게 농사지은 곡식을 주며 의병을 일으키게 하였다. 군사들에게 옷칠한 박을 차고 다니게 하고 같은 모양의 쇠박은 왜병 앞에 던져 놓아 조선 군사들의 용력에 놀라 스스로 물러가게 하였다. 광재우는 전시에 붉은 비단으로 휘장을 만들어 들렀기 때문에 천강홍의장군(天降紅衣將軍)이라 하였다. 말년에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 취산(鷲山) 창암(滄岩)에 살다가 번개치고 비 오는 날 향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광재우가 신선이 되었다고 하였다.

변이 문헌설화와 달리 구비설화에는 광재우의 비범한 능력과 활약상이 부인과 대등하게 전개되어있다. 광재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의 모친은 효성이 지극한 여자로 설정되어 있다. 광재우 모친은 호환(虎患)을 당할 위기에 처한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호랑이에게 어린 광재우를 던져 주었으나 호랑이는 해치지 않고 보호해 주었다. 광재우의 부인은 호환으로 부친을 잃고, 원수를 갚기 위해 조선까지 호랑이를 쫓아온 중국 젊은이의 동생이었다. 젊은이가 광재우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잡아 원수를 갚고 돌아갈 때, 동생과 함께 붉은 갑옷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 광재우는 바로 그 갑옷을 입고 싸워 많은 공을 세웠다. 광재우는 꿈에 나타난 도사의 지시로 남들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사나운 용마를 길들여 타고 왜군과 싸웠다. 또한 벌과 화약을 넣은 관을 보물상자인 것처럼 속여 왜병들이 가져다 열어 보게 하여 많이 다치게 했다. 한편, 광재우 부인은 젊은 아낙네들을 모아 놓고 어차피 죽을 것이니 남편들을 따라 싸우자며 설득하여 전장으로 나가

게 하였다. 구비설화의 <광재우> 이야기에는 특히 흥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광재우 부인이 시집안 간 여자들의 월경대를 모으고 면화를 많이 심어 붉은 군복을 만들었는데, 솜과 월경대 때문에 총알이 들어가지 않았 다. 또, 천 사람의 바늘땀으로 만든 옷은 총알을 피한다고 하며, 광재우의 부인은 천 사람의 땀으로 붉은 옷을 만들어 주었다. 광재우가 부친을 따라 중국에 갔을 때, 황제가 붉은 갑옷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전승된다. 문헌설화에서 광재우 부인은 이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비설화에서는 광재우와 함께 민담적 영웅으로 변이되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선조에게 버림받은 광재우의 영웅적 활약상과 승리담을 통해 선조를 비롯한 당시 위장자들의 모순과 무능을 비판한다. 문헌설화나 구비설화 모두 광재우의 성공 뒤에 부인의 선견지명과 대응 능력을 설정하고 있으나, 문헌설화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도움을 설정하여 남성의 성공을 약화시키거나 비하시키는 것은 문헌설화가 지닌 중요한 성격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 인물을 이인화해 역사성과 현실성을 약화시키는 것도 문헌설화의 특성이다. 구비설화에는 문헌설화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데, 광재우와 부인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영웅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비설화 담당 계층이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광재우를 자신의 신분과 동일시 한 결과로 보인다. 문헌설화는 광재우를 능가하는 부인의 능력을 통해 여성만 못한 남성을 비판하고 있으나, 구비설화는 광재우와 부인의 탁월한 능력과 승리를 통해 유능한 인재,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특징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비범한 능력과 내조를 설정한 이야기는 <정충신설화>와 <이순신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정충신설화>에서 정충신이 억지로 떠 안게 된 처첩이 못생겼다 는 이유로 무시하며 거들떠보지 않다가, 첩의 도움으로 공을 세운 다음부터는 첩의 말은 무조건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순신설화>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많은 공을 세우게 된 배경에 상사뻘이 된 처녀의 도움을 설정한 이야기도 이와 유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대로, 신립이 위기에 처한 처녀를 구해주었으면서도 거두지 않아, 처녀 원혼의 방해로 탄금대에서 패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립설화>도 있다.

의의 성공한 남성 뒤에 여성의 도움을 설정하고 있는 문헌설화에는 성공한 남성에 대한 담당 계층의 시기심과 열등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순신과 신립의 성공과 실패 뒤에 여성의 존재를 설정한 구비설화에는 무능한 남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현실 참여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

다. 남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의 삶이 나라와 백성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여성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강조한다.

출처 東野彙輯, 於于野談, 黑龍日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494; 1-7, 615; 3-1, 61, 한국의 전설(박영준,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참고문헌 광재우연구(이장희, 양명각, 1984), 설화와 민중의 역사(임철호, 집문당, 1989).

필자 임철호(林哲鎬)

용어

관용적표현

慣用的表現

정의 한 유형 설화의 여러 각편 또는 여러 유형의 여러 각편에 두루 나타나는 개별적 표현으로서 전승과정에서 고정된 표현.

내용 설화는 구비문학의 한 갈래로 구전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기억과 재생이 용이하도록 잘 가다듬어지고 널리 전승되는 고정된 표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숫자나 사물의 선택에서 오는 관용적표현, 수식구에 의한 관용적표현, 일정한 어법에서 생기는 관용적표현 등이 있다. 세 딸이 있을 때에 셋째가 가장 예쁘고 영리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거나, 똑같은 일이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설화에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상을 멋들어지고 골격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이야기 진행의 흥미를 강화하고 풍부한 정감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쉽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록문학에서라면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구비문학에서는 그 반대이다. 구비문학을 구비문학답게 만드는 유용한 장치 가운데 하나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 박경신(朴敬伸)

전설

관음사

觀音寺

정의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인 옛 옥과현(玉果縣) 성덕산(聖德山)의 관음사(觀音寺) 창건 연기설화.

역사 이 설화는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사적』에 실려 전한다. 1729년(영조 5)에 송광사의 백매 선사(白梅)가 관음사 장로 덕함 선사의 구술을 다듬어 기록했다고 한다. <심청전>의 근원설화라 할 흥장의 이야기에서 성덕 처녀가 관음상을 지고 머문 곳에 관음사가 창건되는데, 이는 흥장과 성덕을 모두 관음의 화신이라 하면서 사찰의 영험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덕의 관음사 창건은 월성자의 『전라좌도 옥과 성덕산 관음사 유산록』(1751), 권상로 편 『조선 사찰 사료』, 최상수의 『한국 민간 전설집』에도 나타난다. 구비 전승은 지속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관음사 연기설화(觀音寺緣起說話)는 한남본 <심청전>과 서사 전개 과정이나 모티프들이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고, 여러 불교 경전의 효 사상이나 표현들을 공유하여, 관음사 연기설화가 <심청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하게 한다.

줄거리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의 맹인 원량(元良)이 아내를 잃고, 흥장(洪莊)이라는 딸을 두고 살았다. 흥장은 효행으로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원량이 흥법사(弘法寺) 법당을 간선(幹善)하는 성공(性空) 스님에게서 시주를 부탁받자, 자신의 딸을 밀천으로 삼으라 했다. 아버지와 헤어져 흥법사로 가던 흥장은 소랑포(蘇浪浦)에서 진나라 사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황제의 명에 따라 새 황후를 모시러 왔다고 한다. 흥장은 배에 실린 보화를 화주에게 드리고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에도 착한 흥장은 황후가 되어 정업(淨業)을 닦고자 석수장이에게 마노로 탑을 만들게 하고, 고국으로 수많은 불보살상을 만들어 보냈다. 석수장이가 금강사와 경천사를 세우고, 흥장은 아버님을 사모해 불탑을 흥법사에 안치게 했다. 그리고 흥장은 원불(願佛)인 관음보살상을 주조해 돌배에 실어 동국에 보냈다. 이를 옥과에 사는 성덕 처녀가 발견하게 되었다. 성덕이 관음상을 등에 업고 이른 곳에 관음사가 창건된다. 성공 스님은 재물을 얻어 한 달 만에 절 공사를 마치고, 원량은 딸과의 이별 때 흘린 눈물로 눈이 밝아졌다.

분석 사적기에 기록된 관음사 연기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흥장의 보시에 의해 관음상이 성덕의 손으로 넘어

가고, 그것이 관음사 창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관음사와 관음보살의 영험함을 드러내는 불교 설화라 하겠다.

의의 불교설화가 사지(寺誌)에 기록되고, 다시 소설 또는 판소리 등과 관련을 맺고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음사 연기 설화는 한국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특징 성덕산 관음사가 창건된 유래를 담고 있는 설화로, 한반 본 <심청전>과 그 구성이나 내용이 유사하여 <심청전>의 형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출처 관음사의 연기설화(광민, 성덕산 관음사, 1995),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김상환, 부처님이 들려주는 호 이야기, 조계종출판사, 2000).

참고문헌 관음사연기설화와 심청전 불교사상(오대혁, 한국어문학연구44,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심청전 관련 설화의 전승 양상과 성격(최문식, 교원교육23-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7).

필자 오대혁(吳大赫)

전설

관촉사은진미륵

灌燭寺恩津彌勒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현 관촉동) 관촉사의 은진미륵 조성의 관련된 전설.

줄거리 고려 때 절 아래에 살던 한 노파가 썩을 캐러 갔는데 땅속에서 바위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노파가 이 일을 사위에게 말하자 사위가 관에 고하였다. 관에서는 기이한 일이라 하여 다시 조정에 알렸고, 당시 임금인 광종이 대신들과 상의하여 미륵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관촉사 미륵불 조성은 해명대사가 책임을 맡아 인부 100명을 데리고 38년에 걸친 불사 끝에 완공하였다. 당시 미륵불은 머리와 신체 상하부를 따로따로 조각하였다. 조각을 마치고 나서 이들을 하나로 세워야 하는데 각 부위가 너무 무거워 들어서 세워 올릴 수가 없었다. 이에 해명대사가 고민하면서 마을 앞 강가를 걷고 있는데 두 동자가 탑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두 동자는 하나의 돌을 놓고 그 주변에 흙과 모래를 채운 뒤 또 다른 돌을 굴러 기존의 돌 위에 포개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해명대사는 순간 미륵불 쌓기의 깨달음을 얻고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다. 그러자 탑 쌓기를 하던 두 동자가 일순간 사라져 버렸다. 해명대사는 사찰로 돌아와 아이들의 탑 쌓는 방법을 모방하여

미륵불을 세울 수 있었다. 사람들은 당시 해명대사에게 지혜를 알려 주고 사라진 두 동자를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이라고 하였다.

변이 은진미륵에 대한 조성담 외에 활동담도 있다. 고려 때 오랑캐가 압록강을 건너려 하였으나 물의 깊이를 몰라 우왕 좌왕하고 있었다. 그때 비쩍 마른 한 스님이 나타나 강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을 본 오랑캐 장수가 스님이 건너간 곳을 따라 강을 건너라고 병사들에게 명했는데, 물이 깊고 물살이 세서 수많은 병사가 강을 건너다 빠져 죽었다. 이에 화가 난 오랑캐 장수가 스님을 잡아오게 해 죽이라고 명하였다. 병사가 스님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쇠소리가 나면서 스님이 사라졌는데 그가 바로 은진미륵이었다고 한다.

분석 은진미륵에 대한 전설은 은진미륵의 '조성담'과 '활동담'으로 구분되는데, 이 전설들은 논산 일대와 그 주변 지역에 분포한다. 그중에서도 조성담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돌의 솟아오름을 알려 줌, 땅에서 솟아오른 돌 확인, 나라에서 돌미륵 조성을 명함, 해명대사가 돌미륵 조성을 주도함 동자의 탑 쌓기 놀이에서 돌미륵 쌓는 방식을 알게 됨과 같은 기본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기본형은 다수 전설에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동자의 탑 쌓기 놀이에 대한 표현에서 표진강가



관촉사은진미륵
충남 논산시 관촉동 관촉사, 1980.8. 한국관광공사

전설

광덕 엄장

廣德 嚴莊

정의 일념으로 수도 정진하여 극락왕생한 광덕과 그 아내의 깨우침으로 극락왕생한 엄장에 관한 설화.

역사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서라벌의 분황사(芬皇寺) 또는 황룡사(皇龍寺)를 배경으로 한다. 설화 속의 삼관법(鉢觀法) 혹은 쟁관법(爭觀法)이 원효(617~686)의 전기와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나온다고 하였다.

줄거리 친구 사이인 중 광덕과 엄장은 함께 안양세계(安養世界)를 회귀하였다. 광덕은 분황사 서쪽 마을에서 짚신 삼는 일을 해서 처자와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화전을 일구어 경작하였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엄장의 암자 창 밖에서 “먼저 서왕(西往)하니 뒤쫓아 오라.”라는 말이 들려 나가 보니 하늘에서 음악이 들리면서 빛이 내려왔다. 다음 날 광덕의 집에 가 보니 과연 광덕이 죽어 있었다. 그 아내와 함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 나서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함께 살기를 청하였다. 밤에 엄장이 통정(通情)하려고 하자 광덕의 아내는, 광덕이 생전에 자기와 접촉하지 않고 오로지 아미타불만 외우며 간혹 십육관(十六觀)을 짓던 일을 말하면서 엄장을 꾸짖었다. 엄장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나 원효(元曉)에게 가서 삼관법(혹은 쟁관법)을 받아 수도하여 마침내 서승(西昇)하였다. 광덕의 아내는 분황사의 계집종으로 19응신(應身)의 하나이다. 광덕이 지은 향가(鄉歌)로 <원왕생가(願往生歌)>가 있다.

분석 극락왕생을 위한 수도 방법으로 엄불과 관법(觀法)이 나와 있다. 향가의 작자에 대해서는 광덕, 광덕 아내, 원효라는 여러 설이 있는데 광덕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엄장은 관음의 화신인 광덕의 아내에 의해 깨우치는 것으로 그려졌다. 16관법에 없는 삼관법(혹은 쟁관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다.

특징 친구 사이인 두 인물이 득도하는 이성(二聖) 이야기의 하나이다. 수도하는 데에 인간의 성욕이 금기로 제시되었다. 향가의 내용이 설화에서 아내의 말로 표현된 광덕의 수도 자세를 대변해 주며, 시와 이야기가 결합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라고 하는 예와 사찰 아랫마을의 길가라고 하는 공간 설정의 차이가 있다.

의의 은진의 미륵불 조성은 고려 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만큼 은진의 미륵불은 국가의 보호 아래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이가 18.2m에 이르고 둘레 또한 9m가 넘는, 당시로서는 거대 석불이라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6, 238; 239; 241.

참고문헌 한국구전설화집14(박종익, 민속원, 2000).

필자 박종익(朴鍾翼)

용어

관탈민녀

官奪民女

정의 왕, 원(員) 등 지배계층의 남성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층민 여성의 정절을 뺏으려 하나 하층민 여성이 저항하여 정절을 지키는 내용의 설화 유형 혹은 모티프.

내용 <도미의 처>, <지리산 박색녀>, <우렁각시> 등의 설화와 고소설 <춘향전> 등이 관탈민녀(官奪民女)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관탈민녀형 설화에서는 지배계층과 하층민의 대립이 주요 갈등이 된다. 지배계층의 남성은 적법한 혼인 등이 아닌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보다 약자인 하층민 여성의 정조를 유린하려 한다. 하층민 여성은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저항한다. 지배계층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결과는 순탄치 않다. <도미의 처>에서는 타향으로 떠남, <우렁각시>에서는 하층민 남성의 죽음 등 부정적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나 고소설 <춘향전>의 경우에는 원의 요구에 저항한 춘향의 정절이 인정받으며, 후에 이 도령과의 재결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관탈민녀 모티프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면서, 상층민 남성과 하층민 여성의 계층 간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서 하층민 여성의 사랑이 가진 순수성을 드러내기 용이한 모티프로 기능한다. 하층민 여성은 상층민 남성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순응하지 않고 저항한다. 이러한 저항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필자 이성희(李聖熙)

의의 문무왕 대의 신라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정토(淨土)사상이 반영되었다.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수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 있다. 아미타신앙의 결정체인 향가〈원왕생가〉의 배경 설화이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유사 감통편 광덕엄장조와 아미타신앙(김영미, 신라문화재 학술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신라 왕생설화의 연구(경일남,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신라 정토사상의 전개와 원왕생가(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원왕생가 연구(황태강, 삼국유사의 문예적 연구, 새문사, 1982).

필자 신재홍(申載弘)

신화

광청애기본풀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동김녕 마을 송씨 집안에서 모시는 무속적 조상인 광청아기의 내력을 풀이하는 서사무가 형식의 무속신화.

역사 조선시대에는 제주와 육지의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출륙금지령’이라는 것이 있어 일반인들의 왕래가 철저히 금지되었다고 한다. 육지로 갈 수 있는 제주 사람은 진상을 위해 배를 띄우는 사람 정도에 불과했고, 육지에서 제주로 올 수 있는 사람 또한 관리나 유배객 등에 한정되었다. <광청애기본풀이>에서 송동지영감이 광청아기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제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본풀이는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외지의 여인이 남성을 따라 들어와 죽음을 매개로 남성을 수호하는 영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기본 서사는 <광청애기본풀이>에만 국한되는 고유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10세기경에 편찬된 『송고승전(宋高僧傳)』에는 신라의 승려 의상(義湘)을 사모한 선묘(善妙)라는 여인이 바다에 몸을 던져 용(龍)으로 변하여 신라로 돌아가는 의상 대사의 뱃길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설화는 <광청애기본풀이>의 서사적 원형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줄거리 제주도 동김녕 마을 송씨 집안의 송동지영감은 서울로 진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광청고를 허정승 댁에 하룻밤 유숙하게 된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섰다가, 허정승의 딸 광청아기와 하룻밤을 보낸다. 다시 진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허정승 댁에 들러 보니, 광청아기의 배

가 불러 있었다. 제주와 육지 사람들의 왕래가 금지되던 때인 지라, 송동지영감은 광청아기를 놓아둔 채 홀로 몰래 빠져나온다. 광청아기는 송동지영감을 찾아 제주로 가는 배가 떠나는 영암까지 따라온다. 그러나 발판을 디디고 배에 오르다가 사공이 발판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제주로 돌아오던 송동지는 뇌리에 자꾸 물에 빠져 죽은 아기사공이 언뜻언뜻 스쳐 지나가 이상하게 여긴다. 동김녕에 도착하자 송동지를 기다리던 딸이 별안간 머리를 풀어헤치고 부모도 몰라본 채 물에 뛰어들려 하였다. 송동지영감이 딸을 붙잡고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딸이 “나는 광청고를 광청아기 궁녀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광청아기의 혼령이 자기 딸에게 내린 것을 알게 된 송동지는 광청아기의 원혼을 풀어주려고 신의성방(제주도 무당)을 부른다. 신의성방은 용왕국에 빠진 광청아기의 혼을 건져 올린다. 그리고 송동지영감의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의 양자로 삼아 그 한 맺힌 마음을 풀어주는 곳을 행한다. 그 후 송동지영감 집은 삼시에 거부가 되고 셋째 아들은 무과에 급제하니, 송씨 집안에서는 광청아기를 일월조상으로 위하였다.

분석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는 일월조상을 모시는 집안이 어떤 연유로 그 일월조상과 연결되었는지 내력을 밝히는 서사무가이다. 조상본풀이를 통해 내력이 밝혀지는 일월조상은 혈연 조상, 외지에서 제주로 온 여인, 억울하게 죽은 처녀, 풍농신적 성격을 지닌 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광청애기본풀이>의 일월조상은 육지로 나간 제주 남성과 인연을 맺어 제주로 들어온 ‘광청아기’라는 여인이다. 요컨대 <광청애기본풀이>는 육지 광청고을의 광청아기가 어떻게 제주도 동김녕 마을 송씨 집안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신화이다. 진상을 위해 육지로 나갔던 제주 남성이 일월조상이 될 육지 여성의 입도를 초래했다고 전하는 이 본풀이는, 조선시대 육지와의 교류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육지의 신격이 제주도에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본풀이에서 송동지영감과 광청아기는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재각시 놀이’를 하다가 깊은 인연을 맺게 되는데, 무속에서 옷이 신의 신체를 대신하는 상징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이는 송동지영감이 광청아기라는 신격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신화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본풀이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일월조상의 내력만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일월조상으로 제향을 받게 되는 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송동지영감의 딸에게 빙의하여 인간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광청아기는, 송동지영감의 아들이 양자가 되어 대대손손 모실 것을 약속함으로써 집안의 수호신으로 자리하게 된다. 송동지영감은 육지에서 광청아기를 맞이했지만

정의 같은 줄거리를 지닌 유형 또는 각편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전설.

내용 전설은 원래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나 지명, 또는 그곳에서 있었던 특이한 사건, 풍속, 습관 등을 말하는 이야기 장르인데, 때에 따라서는 똑같은 줄거리의 전설이 전국 도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장자못전설>, <오뎨 힘내기>, <용소>, <용 싸움>, <아기장수전설>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이주(移住)에 의한 것인가, 다원발생(多元發生)에 의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광포하는 전설은 어디서나 생겨날 법한 사건과 연관된 경우가 더 많다. 그런 점에서 광포전설(廣布傳説)은 인간 정신의 보편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정의 구두쇠에게 죽음을 환기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 매우 인색한 천석꾼(또는 만석꾼)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적선하는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도 돈 한 푼 주지 않는 지독한 구두쇠였다. 어느 날, 구두쇠 집에 유숙하게 된 과객(또는 구두쇠의 자식)이 길거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구두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인즉, 상여가 나가는데 관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곳으로 망자의 두 손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구두쇠는 자신의 행실을 뉘우치고 과객(또는 자식)에게 선행을 베풀게 되었다.

분석 다른 사람의 주검을 통해 인색한 사람의 심성을 뉘우쳐 고치게 한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이 이야기에서 구두쇠는 재물을 모으고, 모은 재물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인륜이나 도덕, 동정심과는 담을 쌓고 지냈었다. 그런데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는 구두쇠가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동안 단절되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또, ‘망자의 두 손’은 구두쇠로 하여금 처음 태어났을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결국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평범

당대의 제도 때문에 제주도로 데려올 생각을 못하고 혼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송동지영감은 바다를 건너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광청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육지의 광청아기는 제주 동김녕 마을 송씨 집안의 수호신인 일월조상으로 맞이되어지게 된 것이다.

특징 광청아기는 진상을 위해 제주를 떠난 제주 남성이 육지에서 만난 ‘허정승 따님아기’이다. 진상 간 제주 남성과 결연을 맺는 육지의 ‘허정승 따님아기’가 등장하는 조상(신)본풀이에는 제주 신촌 마을 나주 김씨 집안의 일월조상에 대한 신화인 <구슬할망본풀이>가 있다. <구슬할망본풀이>에서 허정승 따님아기는 제주 남성의 도움으로 입도(入島)에 성공하고 혼인에까지 이르지만, <광청애기본풀이>에서의 허정승 따님아기(광청아기)는 제주 남성에게 버림을 받고 물에 빠져 죽는다. 외래 신격의 적극적 수용이 드러나는 <구슬할망본풀이>와는 달리, <광청애기본풀이>는 외래 신격이 제주의 조상신으로 좌정(坐定)하기까지의 난관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의의 당신화(堂神話)처럼 특정한 집단 내에서 배타적으로 전승되는 제주도의 무속 신화에서는 신의 내력만이 아니라 그 집단이 신격을 맞이하게 된 연유가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신은 평소와는 다른 변고를 일으키거나 현몽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집단으로부터 제향을 약속받게 된다. <광청애기본풀이>에도 이러한 당신화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집단 내에서 전승되는 일월조상에 대한 신화가 마을 단위에서 전승되는 당신화와 동계의 신화임을 뜻하는 것이다. <광청애기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가 당(신)본풀이의 소박한 형태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전승되는 당(신)본풀이가 조선시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 가문의 수호신인 일월조상에 대한 신화로 재생산되는 사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한선·현용준·강정식, 보고서, 2006).

참고문헌 선묘와 광청아기설화(이두현, 한국민속학논고, 학연사, 1984),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정진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필자 정진희(鄭眞熙)

용어

광포전설

廣布傳説

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즉, 오직 재물을 모으는 것만 중요시하고 극도로 인색하게 살았던 구두쇠의 삶이 ‘공수래공수거’에 인해 한번에 바뀐다.

의의 오늘날과 같이 대량생산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절약은 미덕이다. 하지만 구두쇠가 일상생활에서 한 행동은 지나친 인색함이지 결코 절약이 아니다. 이 설화는 구두쇠의 행동이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이 설화의 모티프인 ‘공수래공수거’가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두쇠가 다른 사람의 주검을 통해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 설화는 박정(薄情)한 구두쇠의 행위를 통해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일깨워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659; 5-7, 99.

참고문헌 구두쇠설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김수경,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자린고비설화와 강박성 성격장애와의 상관성(강미정, 문학치료연구9, 문학과치료, 2008), 자린고비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최은식, 청람어문교육36, 청람어문교육학회, 2007), 자린고비 이야기의 의미와 교과서 교재화 방안(이신성, 어문교육23, 한국어문교육학회, 2001).

필자 강재철(姜在哲)

민담

구렁덩덩신선비

정의 구렁이 모습을 한 신선비와 그 아내의 이별과 재결합을 다룬, 한반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되는 민담.

역사 〈구렁덩덩신선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큐피트 사이키 신화〉와 같은 서사 유형으로 아르네-토크슨의 유형 분류항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AT425)〉의 한반도 전승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설화는 한국의 대표 전래동화로 이야기의 세계가 환상적인 부분이 많다. 본래 이야기는 농경생산신신화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각편들은 신성성이 거세되고 환상적 흥미 본위의 민담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옛날 어떤 곳에 나이 많은 영감과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잉태를 해서 낳고 보니 구렁이였다. 할머니는 구렁이를 뒤뜰 굴뚝 옆에다 샷샷을 덮어 놓아두었다. 이웃에는 딸 셋을 둔 장자집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딸들이 찾아와서 보고 구렁이를 낳았다고 더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셋째 딸만 구렁덩덩신선비를 낳았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구렁이는 어머니에게 장자 딸에게 청혼을 하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주저하자 구렁이는 청혼을 하지 않으면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어머니 배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위협하였다. 어머니가 장자집에 청혼을 하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거절하는데 셋째 딸이 부모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하여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혼례를 치렀는데 첫날밤에 구렁이는 신부에게 간장(또는 기름) 한 독, 밀가루 한 독, 물 한 독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구렁이가 간장독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밀가루 독으로 들어가서 몸을 굴리고 물독으로 들어가서 몸을 행구더니 허물을 벗고 옥골선풍의 신선 같은 선비가 되었다. 언니들은 동생이 아주 잘생긴 신선 같은 선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

어느 날 구렁이는 각시에게 구렁이 허물을 잘 보관하라고 당부하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갔다. 그런데 언니들이 찾아와 동생을 잠들게 하고, 구렁이 허물을 꺼내 화로에 넣어 태워 버렸다. 서울에 있던 신선비는 구렁이 허물이 불에 탔음을 알고 자취를 감추었다. 신선비가 돌아오지 않자 각시는 신선비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까마귀, 멧돼지, 빨래하는 여인, 논을 가는 농부 등을 만나 그들이 요구하는 일을 해 주고 신선비의 행방을 물어 신선비의 집을 찾아가서 마루 밑에서 자기로 하였다.

그날 밤에는 달이 밝게 떠올랐다. 신선비가 다락에서 글을 읽다가 달을 쳐다보며 각시를 그리워하는 노래를 불렀다. 각시가 이 소리를 듣고 화답을 하여 신선비와 만나게 되었다. 그때 신선비는 새로 장가를 갔는데, 선비가 부인 둘을 데리고 살 수 없어서 두 부인에게 일을 시켜 보고 일 잘하는 부인과 살기로 하였다. 나무해 오기, 물 길어 오기, 호랑이 눈썹 빼 오기 같은 어려운 과제를 본래 부인은 잘 해냈으나 새 부인은 하지 못하였다. 신선비는 새 부인을 버리고 본래 부인과 다시 부부가 되어 잘 살았다.

변이 〈구렁덩덩신선비〉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34편,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13편, 임동권의 『한국의 민담』에 1편 등 48편이 채록, 정리되어 있다. 전승 지역별 각편 수를 보면 경기도 4편, 강원 1편, 충북 1편, 충남 7편, 전북 12편, 전남 2편, 경북 8편, 경남 9편, 평북 4편이다. 채록된 지역은 전북과 경남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전승이 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각편의 특징을 검토해 보아도 전북과 경남에서 채록한 각편이 비교적 내용이 풍부하고 이야기도 조리 있게 잘 갖추어져 있다. 구연자의 성별을 보면, 전체 48편의 구연자 중에서 여성 구연자가 40편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각편에 따라서 변이의 폭이 심하다. 구렁이를 출산하는 인물이 할머니 또는 과부로 되어 있는데 모두 아이를 출산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구렁이를 잉태한 이유는 대부분 각편에서 생략되어 있으나 동물의 알을 주워 먹거나, 배매는 부인을 중이 작대기로 찌른 뒤 임신하였다는 각편이 있다. 장자 딸과 구렁이의 정혼 과정도, 구렁이가 장자집에 청혼하자 장자가 구렁이의 목을 쳄으나 목이 도로 붙고 거절하면 장자의 구족이 망한다고 하여 허락한다는 각편도 있다. 구렁이의 탈각 과정이 상세하게 잘 나타나는 각편은 영남 지역 채록본이고, 셋째 딸과 신선비의 재회 과정이 상세한 각편은 호남 지역 채록본들이다. 특히 셋째 딸이 잠적한 신선비를 찾아내는 여행 과정은 각편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많다.

분석 〈구렁덩덩신선비〉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된 설화 유형으로서 〈큐피트 사이키 신화〉 같은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르네-토크슨의 설화 유형 분류에는 일상담(Ordinary Tales) 중 주술담(Tales of Magic)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유형의 공동 화소는 괴물남편, 주술에서 풀려난 괴물, 남편을 잃음, 남편 찾기, 남편을 도로 찾음으로 전개되는데 〈구렁덩덩신선비〉도 이러한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는 현실적 또는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적 부분이 많다. 이러한 환상성은 구렁이를 신으로 가정하고 이 이야기를 신화로 보았을 때 이해가 된다.

〈구렁덩덩신선비〉에서 출생한 구렁이는 보통의 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구렁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구렁이신을 봉안함을 의미하고, 구렁이와 장자 딸의 혼사는 신과 사제자의 만남이며, 구렁이 허물의 조각은 구렁이신을 거부한 것이고, 신선비의 잠적과 아내의 남편 찾기 여행은 사라진 신을 다시 맞이하여 봉안하는 신맞이굿의 의례가 언어로 정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구렁이가 어머니에게 청혼을 강요한 협박은 구렁이신을 따르지 않으면 대지를 생산력이 고갈된 불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장자가 혼인을 허락한 것은 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전답의 생산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구렁이가 혼인한 첫날밤에 허물을 벗고 신선비로 변모한 것은 농경시대에 이르러서 동물신 숭앙에서 인격신 숭앙으로 신의 형상이 바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렁이 허물의 조각과 신선비의 잠적은 구렁이신의 신앙을 거부하자 신이 잠적한 것이고, 허물 타는 누린내가 널리 퍼진 것은 신의 가호에서 벗어난 집단이 가뭄이나 질병 같은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고, 셋째 딸이 신선비를 찾는 고난의 여행은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맞이굿을 행하여 사라진 신을 다시 모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의의 〈구렁덩덩신선비〉는 환상적인 전래동화로써 어린이에게 부부 사이의 사랑과 역경을 극복하고 부부가 재결합하는 과정을 흥미 있게 진술하여 여성의 인내와 지성(至誠)이 가정을 유지하고 집단을 보전하는 길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출처 구렁덩덩신선비(최래옥, 전북민담, 형실출판사, 197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 19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0, 142.

참고문헌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서대석,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86).

필자 서대석(徐大錫)

민담

구렁이의 보은

정의 나눠 준 밥을 먹고 자란 구렁이가 첫날밤 신랑을 살해하려던 간부를 퇴치하여 목숨을 구해 주는 동물보은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한 아이가 공부하러 서당에 가는 길에 구렁이를 만났다. 아이는 구렁이에게 날마다 밥을 나누어 주었는데, 구렁이는 이것을 먹고 크게 자랐다. 시간이 흘러 총각이 된 아이가 장가를 가게 되자, 결혼식 전날 구렁이에게 밥을 주며 잔칫날에는 못 오니 나오지 말라고 하였다. 장가는 날, 구렁이가 총각을 따라 신부 집까지 따라 왔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구렁이는 신랑이 첫날밤을 보내는 방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 총각이 찾아보니 구렁이가 벽장(또는 껌짜)에 칼을 거두고 숨어 있던 간부를 잡아 죽였다.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총각은 새장가를 가서 잘 살았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 3권 2책의 〈은혜를 갚은 구렁이〉와 6권 7책의 〈은혜 갚은 구렁이〉가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은혜 갚은 구렁이〉는 간부를 중으로 설정하고, 껌짜를 여는 열쇠를 절대 주지 않는 신부를 강조한다. 결국 구렁이가 중과 신부 모두를 죽여 처단하는 결말로 끝난다. 한편 2권 5책의 〈구렁이의 은혜로 목숨 구한 신랑〉은 구렁이가 꼬리로 총각에게 글을 써 자신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며, 대들보 위에 있을 테니 첫날밤 덩다 하여 문을 열어 놓으라고 미리 알려 주는 부분이 다르다. 또한 총각을 죽이려던 간부가 벽장이나 껌짜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온다. 7권 17책의 〈간부를 퇴치하여 은혜를 갚은 뱀〉에는 서당에서 공

부하는 아이가 아닌 남의 집 일을 하는 노총각으로 그려진다. 한편 구렁이가 꼬리로 한시를 써, 문제 해결 방법을 암시해주는 각편도 있다.

분석 〈구렁이의 보은〉에서는, 인격화된 구렁이의 온정(溫情)과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예지력, 큰 몸집으로 사람을 죽이는 괴력과 같은 신이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주인공 이외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지켜 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이며, 특별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동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설화는 사회가 지향하는 윤리 의식, 도덕관념의 편에서 간통이나 살인에 대해 심판하는 응징과 경계의 의미를 가지며, 주제에서 사회 관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특징 엽구렁이는 예로부터 민속신앙의 대표적인 동물 업신이다. 설화 속에서 구렁이를 만난 주인공이 구렁이를 죽이거나 피해가지 않고 자신의 밥을 나누어 먹는 것은, 환죽을 마련하여 제물로 바치고 남은 환죽은 주인이 남김없이 먹어야 했던 업맞이 의례와 같은 맥락이다. 또 구렁이가 첫날밤 집 안에 들어온 장소와 실제 엽구렁이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도 비슷하다. 즉 엽구렁이를 융숭히 잘 대접해 왔던 보편적인 의례와 가정의 안정을 지켜 주길 소망했던 신앙 의식이 인간과 구렁이가 서로 공생하며 은혜를 주고 받는 서사의 바탕이 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329; 3-2, 392; 6-7, 720; 7-17, 566.

참고문헌 동물보은설화에 나타난 욕망 표출과 처리 양상(박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필자 이원영(李元榮)



구룡사 대웅전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문화재청



구룡사 보광루
강원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문화재청

전설

구룡사

龜龍寺

정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소재한 구룡사 창건에 대한 전설.

역사 구룡사 창건 인물에 대해서는, 『구룡사지(龜龍寺誌)』의 「치악산구룡사적기(雉岳山龜龍寺蹟記)」에 기록된 것으로 신라 668년(문무왕 8)에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설과 「구룡사사적(龜龍寺事蹟)」에 기록된 것으로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전한다.

줄거리 현재 구룡사 대웅전이 자리한 곳은 원래 깊은 소(沼)였는데, 그곳에 용이 아홉 마리 살고 있었다. 이곳에 대웅전을 짓기 위해 의상은 용들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청하였으나, 용들은 내기로 정하자고 하였다. 먼저 용들은 뇌성벽력과 함께 많은 비를 내려 주위 산들을 삼시간에 물에 잠기게 했다. 이에 의상이 부적 한 장을 그려 연못에 넣자 물이 부글부글 끓었다. 용들은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여덟 마리는 동해 바다로 가고, 눈이 먼 용 한 마리는 용소에 머물다 승천하였다. 의상은 연못을 흙으로 메워 대웅전을 짓고 구룡사(九龍寺)라 했다. 치악산의 나물은 진상품이었는데, 구룡사 주지가 이를 관리했다. 사람들은 좋은 값을 받으려고 주지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에 절은 풍요로웠으나 수행 풍토가 흐려졌다. 한 노인이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이니 그 혈(血)을 끊으라.'라고 일러 주었다. 그래서 거북바위의 등에 구멍을 뚫어 혈을 끊었지만 사세(寺勢)는 더욱 쇠퇴하였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 '거북의 혈맥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

리하여 거북바위의 혈을 다시 있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거북의 구룡사(龜龍寺)로 바꿨다.

변이 원래는 현재 부도가 있는 자리에 사찰을 세우려 하였으나, 하룻밤 사이에 제물들이 스스로 연못으로 옮겨진 것을 부처의 뜻으로 받아들여 그곳에 구룡사를 건립하였다고 한다. 또 구룡사와 인접한 횡성군 구룡마을에 원래 구룡사가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으며, 그때 마을의 우룡소에 살던 용도 함께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지금의 국사단 앞 거북바위는 잘못된 것으로, 국사단 앞 도로에 묻혀 있다고 한다.

분석 사찰의 창건전설에 나타난 용은 그 역할에 따라 선룡(善龍)과 악룡(惡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룡사의 경우는 악룡에 속한다. 이 전설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불영사(佛影寺)의 창건전설과 닮았으며 불영사 또한 의상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특징 거북바위 관련 내용은 사찰의 개명(改名)에 대한 이야기로 창건과는 별개지만, 이 전설은 이들이 한데 엮여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 전설에 용이 개입하고 사찰 이름에 용이라는 글자를 넣어 작명한 것은 용신사상이 결부된 결과이다. 거북바위의 길흉(吉凶)은 풍수사상이 결부된 것으로, 이 전설은 두 사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다.

출처 강원도의 설화2(강원도, 2005), 태백의 설화-상(최승순 외, 강원일보사, 1974), 한국불교사찰사전(이정, 불교시대사, 1996), 횡성의 지명유래(이영식, 횡성문화원, 2001).

참고문헌 강원도 산간지역 구비문학 연구(서준섭, 강원문화연구원,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88), 한국사찰연구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이영식(李英植)

민담

구복여행

求福旅行

원천강본물이

정의 주인공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도중에 여러 사람의 질문을 부탁받고 신적인 존재로부터 해답을 받아 해결해 줌으로써 그 보답으로 자신도 가난에

서 벗어나 잘살았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는 이 설화의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은 기원전 3세기 팔리문(불교에서 대중부와 대비되는 상좌부의 성스러운 언어)으로 된 『불본생경(佛本生經)』으로, 거기에 이미 〈구복여행〉의 형태가 하나의 삽화(挿話)로 기재되어 있다. 위(魏)나라 때 혜각(慧覺) 등이 서역에서 설법하는 것을 듣고, 중국어로 기술한 『현우경(賢愚經)』에도 하나의 삽화로 기록되어 있다. 『현우경』이 경전으로서 『고려대장경』과 『중국대장경』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한국에서 전승되는 〈구복여행〉은 『현우경』에 실려 있는 구복여행 삽화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줄거리 옛날에 한 총각이 나무를 한 짐 쌓아 두면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자 복을 타기 위해 서천서역국으로 떠났다. 가다가 어느 집에 묵게 되었는데 과부인 예쁜 집주인이 총각의 사연을 알고 자신에게 좋은 신랑감을 하나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승낙하고 또 길을 나섰다. 가다가 길가에서 동자 셋을 만났는데 서역국에 간다는 말에 왜 황금꽃이 피지 않는지 부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배도, 다리도 없는 큰 강에 이르러 고민하고 있는데 이무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총각의 사연을 듣고는 데려다 줄 테니 자신이 왜 승천하지 못하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마침내 부처님에게 도착한 총각이 복을 타러 왔다고 하자, 부처는 태어난 시에 복이 없어 못 탄 것이기에 자신도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할 수 없이 총각은 부탁받은 것들을 물어 그 답을 갖고 돌아왔다. 오는 길에 이무기를 만나서 여의주가 두 개라 무거워 못 올라간다고 하니 이무기가 여의주 한 개를 총각에게 주고 하늘로 올라갔다. 동자 셋을 만난 총각은 금 한 관이면 꽃을 만들 수 있는데 세 관으로 만들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자 동자들은 남은 두 관을 총각에게 주었다. 여자를 만난 총각은 혼자된 후 처음 만난 남자가 신랑감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총각이 바로 처음 만난 남자여서 둘이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

분석 〈구복여행〉은 운명에 정해진 가난을 극복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운명이라는 큰 주제와 결부하여 연구되었거나 공간 이동이나 복 등에 착안하여 내포되어 있는 설화의 의미가 다각도로 밝혀져 왔다. 주인공이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하나는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가'인데 이는 천생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설화 향유층의 염원이 잘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심은 지 몇 년이 되는 나무가 꽃만 피고 열매가 맺지 않거나 혹은 이유 없이

말라 가서 그 원인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부탁인데 이에 대한 답은 나무 밑에 묻혀 있는 금(金)과 은(銀)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금과 은이 비록 귀중한 재물이기는 하나 나무 밑과 같은 곳에 묻혀 있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邪)가 되어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 질문은 대부분 '왜 이무기가 승천하지 못하는가'를 물어봐 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은 필요 이상의 야광주와 같은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질적인 비약을 위해서는 과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 준다.

특징 『현우경』을 통해 볼 때, 〈구복여행〉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 설화만의 특징이 있다. 우선 출발 동기가 다른데, 『현우경』에 실려 있는 인도 설화에서는 가난한 주인공이 일련의 실수로 국왕의 재판을 받으러 길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 설화에서는 살면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길을 떠나는 반면, 한국 설화는 길을 떠나는 원인이 '복'으로 특화되어 있다. 또한 길을 가는 도중에 부탁받는 질문들이 주로 인간의 과욕에 대한 경계, 천생배필과 관련된 문제, 인간의 재물에 대한 인식에 집중되어 있다. 인도 설화는 인간의 심경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초월자와의 만남에서 중국 설화는 질문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반면, 한국 설화는 초월자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문제가 이미 해

결되었음을 암시한다. 주인공이 잘살게 되는 이유를 보면, 인도 설화는 국왕이 주인공에게 금을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 설화는 모두 문제해결에 대한 보답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인도 불경설화는 살아가는 과정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행이 들이닥치고 이 불행을 푸는 열쇠가 신적 존재인 부처에게 있으므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불교로 귀의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파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설화는 부유한 삶에 대한 소망, 천생배필을 만나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과 함께 과도한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한편, 선행에 따른 보답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설화 향유층의 소박한 마음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인도 불경설화인 〈구복여행〉을 접하면서 설화 향유층이 본래 갖고 있던 복에 대한 의식, 즉 복이 없으면 복을 구해 오거나 혹은 가져올 수 있다는 관념을 서사화하여 한국의 설화로 토착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전복민담(최래옥, 형설출판사, 197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616; 8-6, 124.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운영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한중 운영설화 연구(박명숙, 민속원, 2009), 한·중·인 구복여행설화의 비교적 고찰(황인덕, 비교민속학31, 비교민속학회, 2006).

필자 박명숙(朴明淑)

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 신에 대한 제의를 행하면서 송창(誦唱)하던 제신가(祭神歌)나 집단으로 노동을 하면서 부른 노동요 등은 초창기 구비문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강력한 체험이나 역사적인 큰 사건에 대한 흥미 있는 이야기가 집단의 호응을 받으면서 후대로 전승되면서 꾸며져 세련된 설화문학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비문학은 언어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언어생활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미개민족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도 구비문학만 존재하며, 구비문학으로 문학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문자가 발명되어 기록문학이 나타난 이후에도 구비문학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파 매체가 발달한 현대 전자문명사회에서도 구비문학은 방송문학으로 형태를 바꾸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구비(口碑)란 용어는 조선조 실학자들의 문헌에 나온다. 그 뜻은 전해지는 언어 중에서 비석에 새긴 것처럼 변하지 않고 전승되는 일정한 구조가 내재된 예술성 있는 언어라는 의미이다. 언어는 어휘 단위로 전승된다. 언어의 단위가 문학

비문학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문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징 구비문학은 기록문학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구비문학은 말로 이루어져 말로 구연되는 문학인데 전승자들의 뇌리에 기억으로 보존되어 있다가 구연 시에 그 실체가 드러난다. 구비문학은 구연할 때마다 새로운 각편(各篇)이 탄생되며, 엄격한 의미에서 똑같은 각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설화는 같은 유형이라도 구체적 언어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민요는 가사의 기억과 재생으로 전승되기에 음절단위의 언어 측면에서는 변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같은 각편은 존재하기 어렵다. 구비문학은 구연자의 개인적 자질과 취향, 구연상황, 청자의 성격, 그리고 전승집단의 문화에 따라서 변이가 나타난다. 구비문학은 구연되는 문학이다. 구비문학의 구연형태는 하위 갈래마다 다른 방식을 취한다. 산문으로 구연되는 설화는 반드시 청자가 있어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든, 많은 청중을 상대로 하든 표정이나 동작 등의 연기를 곁들인다. 민요나 무가 등 음악성을 곁들인 시가는 가창을 하거나 창송을 하는데, 많은 청중을 상대로 공연할 경우는 악기 반주에 맞추어 몸짓과 무용을 곁들여 노래로 구연하기도 한다. 판소리와 같은 공연서사시는 일정한 구연 격식이 있다. 민속극은 공연장이 설치되고 많은 관중을 대상으로 극으로 연행되며, 수수께끼는 문답식 대화로 연행된다. 구비문학 하위 갈래에 따른 이같이 다양한 모습의 구연형태는 바로 구비문학의 서술구조를 결정한다. 설화는 서사산문이고 민요나 무가 등은 율문시가이며 판소리는 산문과 율문의 교체 서술이고 민속극은 행위와 대화로 구성된 희곡이다.

구비문학은 공동창작의 문학이다. 구비문학 작품은 개인 작자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전승과정에서 수많은 전승자의 참여로 개작되기에 개인의 개성이 보존되기 어렵다. 개인이 지어낸 시가나 이야기가 민간에서 전승되어 구비문학으로 전승되는 경우에도 전승과정에서 수많은 전승자가 개작과 변이에 참여하여 당초 개인의 개성은 보존되지 않는다. 전승집단의 보편적 정서와 문화가 반영되어 변이되면서 작자도 잊히고 작자의 개성은 퇴색된다. 외국의 구비문학 자료가 유입되어 전승되는 경우도 전승집단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수용되어 변질된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은 전승집단의 보편적 정서에 영합되어야 인멸되지 않고 전승의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기에 보편적 성향을 띤다.

구비문학은 기억으로 보존되기에 글로 지어진 기록문학보다 단순하다. 구비문학은 기억으로 전승자의 뇌리에 보존되어 있다가 구연 기회를 만나면 언어로 연행되어 실체를 드

성을 나타내려면 일정한 구조를 갖춘 문장 이상의 의미단위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의미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구비문학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학계에서 구비문학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문화사대계』 5권 언어·문학사편에서 「한국구비문학사」가 저술된 이후 1971년 장덕순 외 3인이 공저한 『구비문학개설』이 간행되면서부터이다.

내용 구비문학은 구전문학, 구승문예(口承文藝), 민간문학, 민속문학, 적층문학(積層文學), 표박문학(漂泊文學), 유동문학(流動文學) 등의 다른 명칭들이 있다. 이러한 명칭은 각기 구비문학의 일면적 특징을 부각시킨 것이다. '구전문학'이나 '구승문예'는 말로 전승되는 문학이라는 의미가 분명하나, 변하지 않고 전승되는 구조가 내재된 문학이라는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구전이란 말은 언어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문학성을 갖춘 의미단위의 언어구조물에 국한되는 말이 아니다. '민간문학'은 중국에서 주로 구비문학을 일컫는 학술용어이다. 민간문학은 전승집단이나 향유집단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용어지만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구비문학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민속문학'은 구비문학을 민속의 한 하위 영역으로 생각하고 민속학의 일부로 구비문학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적층문학'은 전승되면서 많은 전승자가 개작에 참여하여 각 시대의 문화가 누적된 문학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표박문학', '유동문학'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모하면서 전파되고 전승된다는 일면적 특징을 부각시킨 용어라고 본다. 일부 기록문학 연구자들이 문자로 기록된 문학만을 문학이라고 하고 구비문학은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문학은 문자예술이 아니고 언어예술이고 의미예술이라는 점에서 구비문학은 분명히 문학이다. 따라서 구비문학은 문학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문자로 이루어진 기록문학과 대등한 문학이다. 구비문학의 존재양상은 전승자의 뇌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기에 구연(口演) 시에 실체가 드러나며 구연 시의 언어를 문자로 정착시켜 연구할 수 밖에 없다. 구연 그대로의 언어를 문자로 옮긴 자료들이 구비문학 작품이다. 그런데 구비문학 자료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문자로 정착시킨 문헌설화나 번역시가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자료에는 구비성(口碑性)과 역기자(譯記者)의 창작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번역된 자료는 구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번역자의 창작 부분이 미미할 경우 구비문학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역기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본래 모습과 다르게 변질된 경우에는 소재의 원천이 구

용어

구비문학

口碑文學

정의 민간에서 말로 전승되는 문학으로 개인이 창작한 문자화된 기록문학과 대립되는 것이며 언어공동체에서 말로 전승되고 있는 문학성을 갖춘 언어구조물. 설화, 민요, 무가,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을 총괄하여 일컫는다.

역사 구비문학은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사회생활을 할 때부터 형성된 문학으로서, 문자가 창제된 이후 글로 이루어진 기록문학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구비문학의 시원은 곧 문학의 시원인데,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통하여 협동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언어 단위가 예술성을 획득하여 후대로 전승되면서 형성되었다고

러낸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기억한 바를 즉석에서 인출하여 재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기록문학에서는 작가가 글로 쓰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퇴고(推敲)를 거듭하기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복잡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 구비문학은 일반인 모두가 전승에 참여하는 설화, 민요와 같은 일반인의 구비문학과 전문 수련을 거쳐야 구연할 수 있는 무가, 판소리와 같은 전문인의 구비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인의 구비문학은 전문 직업인의 구비문학보다 더욱 단순하다. 전문인의 구비문학은 작품의 양도 방대하고 복잡하기에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작품의 양이 많다고 하여도 기억하기에 편리한 공식구들의 반복이 많아서 창작문학보다는 단순한 것이 사실이다.

구비문학의 존재 기반은 언어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공동체는 작가는 마을 공동체로부터 크게는 민족공동체까지 확대된다. 구비문학의 전승과 전파는 언어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의 교류가 활발한 생활공동체가 구비문학 전승의 온상이다. 특히 생산활동의 현장에서 불리는 기능민요는 같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단위에서 전승된다. 이러한 구비문학은 일차산업에 종사하던 서민대중이 향유하던 문학이며, 그들은 한자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구비문학을 민중문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민중 의식은 노동요, 의식요와 같은 기능민요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구비문학의 전승범위를 확대하면 언어공동체인 민족이 되는데 한국구비문학에는 한민족의 민족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구비문학은 언어공동체의 문화나 의식을 담고 있고 공동체와 이질적인 요소는 전승과정에서 걸러져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에는 민족의식이 담기게 마련이고 구비문학은 민족문학의 성격을 띠게 된다. 민족 간의 갈등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이야기는 구비문학의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구비문학은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를 포함한다. 전승언어 중에서 욕설, 명언(名言), 금기어(禁忌語) 등은 제외한다. 욕설은 일정한 형식이나 비유가 담긴 언어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문학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표현이 저속하여 인류학의 연구자료로는 가치가 있지만 문학언어로 예술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명언은 교훈이 되는 언어로서 문학성이나 교훈성이 뛰어나지만 일반 대중이 전승하는 언어라고 보기 어렵기에 제외한다. 금기담은 속신(俗信)과 관련된 언어로서 문학적 흥미나 예술성보다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에 종교학이나 인류학의 연구자료로서는 중요할지 모르나 문학의 갈래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속담과 수수

끼는 누구나 전승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참신한 비유와 교훈적 의미가 응축되어 있어 문학의 갈래로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의의 구비문학은 문자가 창제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문학으로서 문자가 없는 민족의 경우는 물론 민족문자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시기가 늦었거나 일부 계층만 사용한 경우에도 구비문학의 유산이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한자가 전래되었으나 일부 상층에서만 통용되었고 일반대중이 향유하던 수많은 이야기나 노래는 말로 후대에 전승되었다. 신화는 부족 집단에서 형성된 구비문학으로서 제전에서 언어로 연행되고 사제자들이 전승하였다. 문헌에 기록으로 전하는 건국신화는 구비로 전승되던 부족신화가 그 부족이 지배세력이 되어 국가를 개창하면서 왕권을 신성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 것이다. 신화나 전설의 일부 자료는 한문으로 번역되어 비석이나 문헌에 남아 있으나 대부분 자료는 구비문학으로 민간에서 전승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생명이 존속되고 있다. 구비문학은 전승되면서 기록창작문학과 부단히 교섭하여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고 변모시키면서 한민족의 문학흐름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향찰로 기록된 향가에는 당시 대중들이 부르던 구비시가의 울격이나 형식, 노랫말 어휘가 들어 있다. 고려가요 중에는 당시까지 전승되던 민요나 무가 등의 구비시가가 문헌에 정착된 것이 많다. 한민족의 정형시로 알려진 시조도 분장체 삼행 구비시가를 모태로 이루어진 것이며 2음보 연속체의 가사형식은 짝수 음보의 선후창 민요의 울격과 형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학갈래이다. 한글 고소설도 구비설화에서 소재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웅의 일대기나 여성의 일생과 같은 전기적 유형의 서사가 영웅신화나 서사무가의 형태로 구비전승되다가 이야기문학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구비문학은 문학의 기초로서 문학언어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반대중이 향유하는 문학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설화는 흥미와 교훈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일반대중들의 문학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고 현대에는 전파매체를 통하여 재담과 극으로 변신하여 국민 모두를 즐겁게 하고 있다. 민요는 협동노동을 했던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무거운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다루면서 동작의 보조를 맞추는 데 민요가 큰일을 하였다. 또한 장례 시 상여를 운반하거나 묘지를 축조할 때도 민요는 없어서 안 될 실제 기능을 담당하였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피로를 잊고 일의 보람을 의식하면서 부른 수많은

은 노동요에는 일차 산업에 종사하던 근로 대중의 애환과 정서가 배어 있다. 전문인의 구비문학인 무가, 판소리, 민속극은 공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흥미를 주었고 언어의 결정체(結晶體)들을 집결시킨 한국 언어미의 산실로서 높은 예술성을 구현하였다. 판소리에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온갖 구비문학의 갈래가 두루 수용되어 있다. 특히 전통재담은 판소리의 문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판소리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향유자를 확보하고 환영을 받는 것은 구비문학 정수의 집결체이기 때문이다. 무가는 한국인의 생활신앙인 무속 제전에서 장구한 기간 전승되면서 한국인의 의식을 담아낸 구비문학이다. 서사무가는 무속신화와 무속서사로서 서사문학의 전개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투영하여 청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굿놀이를 통하여 전승되는 희곡무가에는 한국인의 해학을 드러내는 다양한 재담이 용해되어 있어 전통사회에서 공연예술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가면극

신화

구슬할망본풀이

정의 나주 김씨 집안의 조상신이 모셔지게 된 내력을 담은 본풀이.

역사 〈구슬할망본풀이〉는 〈광청할망본풀이〉와 함께 오랜 역사를 거쳐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슬할망본풀이〉가 현재와 같은 내용을 갖춘 것은 후대의 일이다. 구슬할망은 나주 김씨 집안의 조상신이다. 이 본풀이는 나주 김씨 집안에서 본래부터 전승하던 것이거나, 이들의 제주도 이주 역사와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그러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없다. 오히려 진상, 해녀 물질과 같은 주요 화소로 보아 후대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복과 진주를 제주 특산물로 진상하게 된 뒤에야 지금과 같은 내용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본풀이는 한때 제주도 동부 지역의 나주 김씨 집안에서 널리 전승되다가 근래 들어서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있다.

출거리 제주도 조천읍 신촌리에 사는 김동지라는 사람이 제주 특산물을 진상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 일을 마치고 서대문 밖에 이르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그때 어디선가 계집아

에는 상층신분에 대한 골계적인 비판정신이 담겨있고 멋스런 춤사위와 더불어 한국 서민대중의 풍류를 반영하고 있다. 속담에는 정제된 언어형식으로 한국인의 생활철학과 교훈이 응축되어 있다. 수수께끼에는 교묘한 비유와 기지가 담겨 있다. 재담은 한국어의 표현미와 재치가 응축되어 있는 보석과 같은 구비문학으로서 언어생활을 윤택하고 즐겁게 하며, 새로운 문학의 창작에도 문학성을 고양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또한 재담의 다양한 기법은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대인 관계를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구비문학은 독자적인 문학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문학과 교섭을 가지면서 한국문학사 전개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구비문학의 세계(조동일, 새문사, 1980),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김영규 외, 개문사, 197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필자 서대석(徐大錫)

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여기고 찾아보니 논둑 아래에서 아기씨가 혼자 울고 있었다. 아기씨는 자신이 허 정승의 딸인데, 부모 눈 밖에 나서 버려졌다고 하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 김동지는 아기씨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육지와 제주의 왕래가 금지된 터라 아기씨를 제주로 데리고 가려니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아기씨를 도포 자락에 몰래 숨기고 배에 올라 배 밑창에 숨겼다. 배가 무사히 제주도에 도착하자 밤이 되기를 기다려 아기씨를 몰래 집으로 데려다가 다락에 숨겨 길렀다. 아기씨가 자라 열여덟 살이 되자 사람들이 밭을 밟고 물질하는 소리를 듣고 아기씨도 물질하기를 원하였다. 뜻대로 하게 두었더니 물질을 익혀 곧 무리 가운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상군 잠수가 되었다. 아기씨는 전복을 많이 땀고 전복마다 진주가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동지도 매우 기뻐하였다. 그런 뒤 아기씨의 뜻에 따라 비로소 둘이 혼인하였다. 아기씨는 자신이 딴 진주를 임금에게 진상하자고 하였고 그대로 하였더니 임금이 상과 벼슬을 내렸다. 한편, 김동지와 아기씨는 딸만 아홉을 낳았다. 아기씨는 딸들을 앉혀 놓고 제사와 명절 때 그리고 굿을 할 때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악으로 놀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해서 구슬할망은 나주 김씨 딸의 자손들에 의해 전승되면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는 조상신이 되었다.

변이 안산인본과 양창보본이 소개된 바 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양창보본에서는 김동지가 진상이 아니라 미역 장사를 간 것으로 설정

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 노 젓는 소리, 숨비소리를 배 밑창에 숨은 상태에서 듣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아기씨가 김동지 집 수양딸이 되어 여덟아홉 살부터 물질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전복과 진주를 캐어 서울로 진상하여 상을 받는 것은 같으나, 벼슬을 받는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려받은 상 가운데 특히 고운 치마저고리, 명주 따위가 있었다고 하였다. 전복과 진주로 부자가 되거나 김동지와 아기씨가 혼인한다고도 되어 있지 않다. 딸을 아홉이나 낳았다는 대목도 없다. 할망을 조상으로 모시는 집안이 나주 김씨가 아니라 김해 김씨라고 하고, 김해 김씨 집에서 굿을 할 때 할망을 위하여 치마저고리를 내어 놓고 흥겹게 놀린다고 하였다. 김동지와 아기씨의 관계가 모호해져 있고, 아기씨가 구슬할망으로 제향을 받는 과정도 분명치 않게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안사인본이 상대적으로 서사성이 더욱 풍부하고 전후 맥락도 자연스러운 편이다. 다만 양창본은 임금으로부터 고운 치마저고리를 상품으로 받은 것과 의례에서 치마저고리를 내어 놓고 놀린다고 한 것에서 본풀이와 의례의 연관성이 뚜렷이 드러나 주목할 만하다. 한편, 양창본은 안사인본과 달리 중간마다 덕담창으로 구연한 점도 다르다. 아니리와 창을 교체하면서 구연하는 셈이다. 창을 할 때는 소미(小巫)들이 복과 장구로 반주해 준다. 조상신본풀이는 대개 석살림이라는 제차에서 구연하는 것이기에 양창본의 구연 방식이 적절하다.

분석 김현선은 <구슬할망본풀이>의 내용을 '맞이'로 풀이한 바 있다. 또한 이 본풀이가 기본적으로 <광청할망본풀이>와 같은 유형이되 결말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광청할망본풀이>를 <선묘설화>, <작제건설화>, <거타지설화>와 관련지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들 본풀이의 유래가 오랜 것이면서 동아시아의 보편적 전승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특징 조상신본풀이의 주인공은 대부분 원혼이 되어 제향을 받는데, 구슬할망은 행복한 삶을 마친 뒤에 조상신으로 모셔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상신본풀이의 여러 유형을 보면 제주 남성을 따르던 여성이 끝내 함께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여 원혼이 된 뒤에 남성의 자손들에게 흉험(凶險)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에 제향을 받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구슬할망은 이러한 보편적인 유형의 이야기와 유사하면서도, 비극적인 대목이나 자손에게 흉험을 주어 자신을 알리는 대목이 없다는 점이 특별하다.

출처 제주도무가(현용준·현승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현선 외, 보고서, 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김현선, 한국무속학11, 한국무속학회, 2006).

필자 강정식(姜晶植)

용어

구연

口演

정의 이야기관에서 설화를 여러 사람에게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행위.

내용 설화 구연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를 말로 전승하는 것을 뜻한다. 설화 구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설화 구연의 구심이 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견고하고도 원형적인 구조와 상징을 함유한 채 수많은 구연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롭게 재창조된다. 둘째는 이야기를 할 사람, 구연자이다. 설화 구연은 구연자마다 말투, 억양을 비롯한 언어적 특성은 물론 표정, 몸짓, 손짓과 같은 비언어적 특성, 이야기의 세부 묘사나 화법까지 다르게 표현한다. 이처럼 설화 구연에서 구연자는 제각기의 개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각편을 창조한다. 세 번째는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 청자이다. 이때 청자는 이야기관의 상황에 따른 이야기의 축소·생략·과장·확대와 같은 이야기 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설화 구연에서 구연자와 청중의 쌍방향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설화 구연은 이야기를 매개로 구연자와 청자가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필자 박현숙(朴賢淑)

민담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정의 어떤 사람이 시묘살이를 끝낼 무렵에 구운 게를 먹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어떤 효자가 삼 년째 시묘살이를 하고 있었다. 시묘살이가 끝나갈 무렵, 소문이 퍼져서 나라에서 큰 상을 내리기 위해 조사차 시묘살이하는 곳으로 관리를 보냈다. 때마

침 효자가 밥을 하려고 물을 뜨러 개울로 갔는데, 비가 와서 물이 탁해 밥은 해 먹지 못하고 개울에 떠내려 온 게를 잡아 구워 먹고 있었다. 개울의 외나무다리를 건너 찾아온 관리가 이 모습을 보고 나라에 고해서 상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유래하여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라는 말이 생겨났다.

변이 형제가 함께 시묘살이를 하다가 형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계장수에게 게를 사서 먹다 들켜 망신을 당하는 예도 있고, 상을 받은 효자를 보고 자신도 시묘살이로 상을 받아 보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예도 있다. 오성대감과 같은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분석 시묘살이는 효행에서 무척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다. 시묘살이 기간에는 금욕 생활은 물론 비린 것도 먹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시묘살이가 끝나갈 무렵에 어쩔 수 없이 게를 구워 먹은 것이 화근이었다. 하필 이때 시묘살이를 응원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게를 먹는 모습을 들켜고 만다. 여기서 오는 안타까움을 개울의 외나무다리로 옮겨서 속담으로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의의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혹은 매어) 먹어라.”라는 속담은 무슨 일이든 앞뒤를 신중히 고려하여 조심해서 행동하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다리는 원래 게의 다리로, 게의 다리에 집히는 것이 위험하니까 설령 죽은 게일지라도 다리를 매어 놓거나 떼어 놓고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다리[脚]를 다른 의미의 다리[橋]로 치환하여 시묘살이 상황과 절묘하게 연결시켜 전혀 다른 유래로 이끄는 것이 이 설화의 매력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111; 4-5, 407; 7-7, 770.

참고문헌 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효불효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최기숙,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필자 심우정(沈愚章)

전설

구월산

九月山

정의 황해도 신천군 용진면과 은율군 남부면·일도면에 걸쳐 있는 구월산의 전설.

줄거리 구월산 관련 전설 가운데에서 <구월산의 백도라지>의 줄거리는 이렇하다. 구월산 기슭 금산포 마을에 인심 좋은 늙은 어머니가 '리라'라는 효자와 살았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땀나무가 없어 걱정하자 리라는 지게를 지고 구월산으로 올라갔다. 잠시 쉬고 있는데, 웬 선녀가 산봉우리에 내려와 앉았다. 선녀는 하늘왕의 무남독녀 공주 별이었는데, 구월산의 절경에 취해 이리저리 다니다 날개옷이 찢어져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리라가 다가가 어머니한테 가면 날개옷을 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선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어머니는 선녀에게 누런 기장밥에 금산포의 명물인 백도라지나물을 주어서 먹게 했다. 도라지나물 맛을 본 공주는 도라지밭에 데려가 달라고 했고, 도라지밭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다. 리라가 도라지꽃을 꺾어 꽃뭉음을 만들어 공주에게 선물하면서 둘 사이에는 사랑이 싹텄고, 리라는 도라지노래도 불러 주었다. 아들과 선녀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기워 놓은 날개옷을 내놓았고, 그 다음 날 공주는 작별 인사를 하고는 사황봉을 넘어 승천했다. 하늘나라로 돌아온 공주는 리라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친 나머지 병이 났다. 병을 낫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차도가 없었고, 한 의원이 아마도 상사병인 듯 하다고 했다. 리라의 어머니가 해 주는 백도라지나물을 먹어야 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하늘왕은 하는 수 없이 공주를 다시 지상에 내려 보냈다. 백도라지나물을 먹고 건강해진 공주는 지상에서 리라와 살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분부를 어길 수 없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 사위를 구하겠다는 하늘왕의 말에 공주는 다시 병이 들었고, 하늘왕은 눈물을 머금고 공주를 리라에게 시집보내기로 하였다. 이렇게 부부가 된 둘은 도라지밭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금산포마을은 백도라지가 유명한 고장이 되었고, 정월대보름이나 단오날 또는 결혼식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도라지타령을 즐겨 불렀다.

분석 왜 금산포 지역이 도라지와 도라지타령으로 유명한지, 그 유래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지역전설이다. 애항심과 자궁심을 고취하면서 단합을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전설이라 하겠다. 특히 하늘나라의 공주가 지상의 총각과 정을 맺은 후 잊지 못하고, 도라지나물을 먹어야만 병이 낫는다거나, 결국 부왕의 허락을 받아 지상에 내려와 결혼한다는 설정은 <단군신화>의 모티프와 닮아 있다. 이는 뿌리 깊은 현세 중심주의 또는 인간 중심주의 시각을 잘 드러낸다.

의의 제보자가 구연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남한 자료집과는 달리, 북한의 자료는 조사자가 윤색한 상태로 되어 있어 일반 대중의 독서물로는 적합하지만 학술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출처 구월산전설(리학남 외,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218; 229,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북한설화에 대하여(이복규, 한국문화연구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1), 북한설화의 연구(김화경, 영남대학교출판부, 2001).

필자 이복규(李福弼)

민담

구토지설

龜兔之說

토끼의 간

전설

국사봉

國師峰

정의 국사신당이 있던 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줄거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에서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에 흠어미를 모시고 사는 산지기가 있었다. 산지기는 산 밑에 가서 맑은 물로 목욕하고 웅달샘의 청수를 길어다 당산 제단에 놓고 날마다 국태민안과 시화연풍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편안한 탓에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하게 흉년이 들었다. 산지기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늙은 중이 나타나 저 당산에 극진히 지성을 드리면 가뭄과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당산을 국사봉(國師峰)이라 부르라고 하였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다시 당산에 친신을 모시고 청수를 떠다 제를 지냈는데, 그러자 곧 삼 일간 비가 내려 농작물이 소생하고 유행병도 사라졌다. 얼마 후 산지기의 꿈에 노승이 다시 나타나 국사봉을 가리키며 앞으로 복된 마을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변이 현재는 이런 전설이 남아 있는 곳이 드물다. 다만 산 이름으로만 국사봉, 국수봉으로 남아 있는데, 충남 서북부 지역 해안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곰개 남쪽에 있는 국수봉 등 3곳, 예산군에 4곳, 서산시 운산면 팔중리 황새바위 밑에 있는 국수봉(124.5m) 등 6곳, 보령시 주교면 신대리 국수봉(205.8m) 등 7곳,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국사봉(205.4m) 등 6곳이 있다. 산 이름으로만 남아 있고, 일부에서 상단신으로 존재해 설화도 대부분 소멸한 것

으로 보인다.

분석 국사봉이나 국수봉은 대개 마을 뒤횥에 있는 높은 산으로, 꼭대기에 마을을 수호하는 국사당이라는 신을 모시는당이 있던 산이다. ‘국사(國師), 국수(國守)’는 한자로 취음 표기된 문헌상 기록으로 특별한 뜻이 있지 않으며 어원은 구수봉이다. 구수(龜首)는 ‘구(龜)가 향찰어 음차 ‘검’, ‘신’으로 읽었음과 ‘수(首)가 향찰어 음차 ‘마루’로 읽어 순국어음으로 거북의 머리가 아니라 ‘신(神)마루’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사봉, 국수봉은 ‘당검’, ‘당그미’로 어미 -검, -그미는 짐, 검, 곶, 금 등 신을 가리키는 말로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고 천신이 하강하는 신산(神山)마루를 의미한다. 신산마루는 천상신이 하강한 태백산정, 가야국 시조가 강림한 ‘가락구기’의 구지봉, 신라 육촌장이 하강한 산정(山頂)을 말한다. 하지만 전국에 걸쳐 믿어졌던 전통적인 마을 신앙의 한 갈래인 국사당은 점차 사라지고 일부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당은 국사당신을 직접 신체로 봉안하지는 않고, 산꼭대기에 석반단(石盤壇)을 가운데 두고 잡석을 쌓아 두른 돌담 안에 신수(神樹)를 둔 형태다. 오늘날에는 특히 제단나 제당이 없이 ‘국수봉’이나 ‘국사봉’이라는 산 이름만 남아 있다. 이런 국사당은 현재는 대부분 사라져 중서부 해안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그 자취를 산 이름에서나 가꿈 찾아볼 수 있다. 관북과 관서 지방에서는 국사당이 신수와 누석단 형태로 서낭당 신앙에 흡수되어, 그 신당의 명칭만 남아 있는 형태로 이들 산에 전해오고 있다.

특징 이 전설은 친신을 모시지 않아 마을에 재앙이 닥쳤지만, 꿈 속에서 계시를 받아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지내니 재앙이 물러가고 마을이 편안해졌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마을에 안전을 기원하던 마을신앙의 유래를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신앙의 옛날 모습을 담고 있다.

의의 이 전설은 마을에 전해 오는 조상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재해에서 안정적인 삶을 희구했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출처 태안군재태안군, 1995)

참고문헌 내포지역 마을제당의 민속지리(이인화, 민속원, 2006),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94).

필자 이인화(李仁和)

신화

군웅본풀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의 원형에 해당하는 본풀이.

역사 군웅이라는 용어로 본다면 군사영웅신의 내력을 전승하는 것인데, 이 신의 내력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승되는 신라시대의 민간 영웅 거타지, 『고려사(高麗史)』에 등장하는 작제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2장 도조 등의 내력과 일치한다. 또한 현재 구전되는 설화 속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승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 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줄거리 군웅의 할아버지는 천왕제석, 할머니는 지황제석, 아버지는 왕태조 왕장군, 어머니는 희숙여낭, 큰아들은 왕근, 둘째 아들은 왕빈, 막내아들은 왕사랑이다. 군웅의 아버지가 흠아비로 살아가면서 나무장사를 하는데, 한 초립동이가 와서 자신은 동해용왕의 아들이라 말하고 동해용왕과 서해용왕이 싸움을 하는데 항상 자기 편이 지니 장군을 칭하려고 왔다고 한다. 왕장군이 동해용왕궁에 가니 동해용왕이 내일 서해용왕과 싸움을 할 터인데, 자신이 지는 척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면 서해용왕은 물 위에 올라 이겼다고 기뻐할 것이니 그때 화살로 쏘아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동해용왕의 부탁대로 서해용왕을 쏘아서 죽이니 동해용왕이 기뻐하여 무슨 상을 바라느냐고 물었다. 용왕 아들이 연갑 속에 자기 누이가 있다면서 그 연갑을 달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기에 연갑을 달라고 요구했다. 연갑을 받아 돌아왔더니 그 속에서 미녀가 나와 부부가 되어 왕근, 왕빈, 왕사랑 세 아들을 낳고 부자로 살았다. 어느 날 처가 자신은 인간이 아니므로 용왕궁으로 돌아가야 하니 당신은 군웅을 차지해서 살라고 하면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강남에는 천자군봉, 일본에서는 효자군봉, 조선에서는 역신군봉으로 높고, 높은 벼슬을 한 집에서는 사당위패로 높고, 중인 집에서는 책불일월로 높고, 무당 집에서는 당주일월로 높고, 사냥하는 집에서는 산신일월로 높고, 과거급제한 집에서는 홍부일월로 높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 〈군웅본풀이〉는 일제강점기 때 자료집인 아카마스 지조(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수집한 『朝鮮巫俗の研究』에 처음 본풀이로서 면모를 보였다. 박봉춘이 구연한 자료로 제주도 도항수를 지냈다고 할 정도로 유식한 면이 많

았던 인물이 이 본풀이를 제공하였으므로 신뢰도가 높은 가치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 본풀이는 육지와 제주도의 역사적 연계성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이고, 동시에 제주도의 본풀이 내력과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여서 전승 상황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징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도 이 본풀이를 구연하는데, 일제강점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요 내용인 서사적 본풀이가 탈락하고 교술적인 서사무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볼 때 제주도에서는 축소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리함에도 〈군웅본풀이〉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준거가 되는 것은 이 본풀이가 구연되는 위치이다. 바로 제주도의 ‘맞’이라는 절차에서 보여주는 기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본풀이의 기능과 의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곳에는 ‘맞’이라는 각별한 제차(祭次)가 있는데, 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본풀이들의 연쇄적 클리셰(cliché, 판에 박은 듯한 문구)가 작용한다. 맞이의 주체가 되는 신격·군웅신격·조상신격 등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융합적 제차로 살아 있는 후손과 여러 신이 합체하는 석살림과 신명굿놀이 굿판이 하나가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군웅본풀이〉는 신격과 후손이 하나로 되는 역사적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이는 육지에서 이동하여 다른 곳의 선조 노릇을 하는 영웅의 장대한 여정이 곧 제주도와 육지부의 연결을 상징하는 본풀이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당나라 속종이 잠저(潛邸) 시에 당나라의 중심부에서 와서 주변부 인물인 저민의(渚旻義, 또는 焉旻義)와 결합하여 작제건을 낳고 작제건이 영웅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군웅이 아내와 결별하는 내용은 작제건의 내용과 다르며, 이것은 제주도에서 보이는 당신본풀이의 결별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 〈군웅본풀이〉는 세 가지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제주도의 조상신본풀이의 원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서사료이다.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본풀이가 전승되는데, 이 본풀이들은 의미상 육지와 제주도 사이의 역사적 근원과 융합을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 육지 인물이 제주에 와서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가 하는 근원적 합일이 핵심적 주제인데, 그 역사적 근거와 원형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군웅본풀이〉의 역사적 성격을 추론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둘째, 〈군웅본풀이〉는 영웅서사시의 전형적 성격을 띠는 서사시이다. 문헌설화나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거타지, 작제건, 도조와 같은 여러 영웅의 행위와 행적이 일치한다. 신과 신의 싸움에 개입하여 자신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적대 세력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아 신들의 행적과 영웅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점에서 영웅서사시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영웅서사시의 세계적 분포와 변이 속에서 이 본풀이는 영웅서사시로서 군사적 권능을 발휘한다. 페르세우스의 영웅적 능력과 비교될 만하며 배우자를 정하는 점에서도 영웅서사시의 면모와 행적을 비교할 수 있는 긴요한 자료이다. 또한 역사적 성격과 문학사적 지속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출처 三國遺事, 김금화의 무가집(김금화, 문음사, 1995),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 집문당, 1994),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屋號書店, 1937).

참고문헌 서사무가 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한국설화문학 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韓國의民間信仰-資料(장주근, 도쿄:금화사, 1973).

필자 김헌선(金憲宣)

전설

궁예

弓裔

정의 통일신라 말기에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궁예에 관한 설화.

역사 <궁예설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궁예전>에 전하며, 지금까지 민간에서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다. 구전되는 설화의 내용은 대체로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궁예설화>는 적어도 『삼국사기』의 제작 시기인 1145년(고려 인종 23) 무렵에 만들어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줄거리 신라의 왕자로 태어난 궁예는 태어날 때 이미 이가 났으며, 지붕 위로 긴 무지개가 떴다. 이에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긴 왕이 궁예를 죽이려고 하자 유모가 구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궁예는 한쪽 눈이 멀게 된다. 성장하면서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게 된 궁예는 세달사의 승려가 되었다가 896년 후고구려를 세워 철원에 도읍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 이후 송악의 호족 왕건이 궁예의 부하가 되고, 송악으로 천도한 궁예는 부석사의 신라왕상 벽화를 칼로 베어 버린다. 다시 강원도 철원으로 천도한 궁예는 스스로 미륵불로 자처하면서 석총과 부인 강씨,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다. 왕창근이란 상인이 산 거울에 비친 글자를 통해 장차 왕건이 왕위에 오를 것임을 암시한다. 궁예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

의해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고, 쫓기던 궁예는 백성들에게 타살된다.

변이 『삼국사기』 「열전」 궁예 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구전설화화 한 것이 <궁예설화>로, 특히 궁예가 후고구려의 수도로 삼았던 철원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이야기가 활발히 전승되고 있다. 철원 지역에 전승되는 <궁예설화>는 크게 궁예의 행적담을 중심에 놓고 흥미 위주로 재구성한 이야기와 궁예의 몰락과 비참한 죽음이 증거물과 함께 제시되어 전승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다. 각편에 따라서 형인 선화 공주가 아우인 설화 공주의 아들 궁예를 죽이려 했다거나, 궁예 어머니의 형이 아우의 아들인 궁예를 죽이려 했다는 등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출생 시에 궁예를 죽이려 한 인물들이 왕이 아닌 이모나 숙부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궁예가 출생할 때부터 이가 났다거나 무지개가 나타난 것으로 문헌에 기록된 것과는 달리, 태어날 때 등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여 출생의 신이성이 다르게 묘사되는 구전설화도 있다. 이 외에도 궁예의 조급함 때문에 삼백 년 궁궐터가 삼십 년으로 된 이야기, 궁예의 부인이 왕건과 사통하자 부인을 죽인 이야기, 왕건에게 쫓긴 궁예가 토성을 쌓은 이야기 등이 주로 철원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구전설화들은 궁예가 철원의 풍수를 알아보는 능력이 없고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전한다.

분석 그간 <궁예설화>에 관한 연구는 문헌과 구비전승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이야기의 전승적 특징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궁예 이야기가 문헌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구비전승 되고 있기 때문으로,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군주이지만 패배한 군주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궁예에 관한 내용이 포악한 군주상을 담고 있고, 그것이 구비전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도 문헌 기록과 구전설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궁예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왕위 다툼에 희생되었던 왕자로 보기도 하며, 고려시대에도 궁예의 부왕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과 구사일생한 경위가 극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왕자설을 의심하면서 정쟁(政爭)에서 패배하여 몰락했던 유력한 진골 귀족가문 출신으로 보기도 한다. 훗날 궁예가 스스로 미륵불을 자칭하며 경전을 짓고 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던 초기에 미륵불이 하생한 이상세계의 도래를 내세워 민중들을 포섭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본다.

특징 『삼국사기』 권50 「열전」에 기록된 <궁예전>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구전설화는 궁예의 포악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열전」에 기록된 설화의 서사구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궁예의 신이성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전형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왕건의 등장 이후부터인 후반부는 실정과 포악성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최근까지 채록된 구전자료를 참고해 보면 궁예에 관한 이야기는 철원과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며,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증거물과 무관하기 때문에 궁예의 행적과 관련한 흥미나 재미 위주의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다. 이는 증거물로 삼을만한 지명이나 사물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전설의 속성상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궁예 이야기 전승은 지역적으로 제한된 전승인 것이다. <궁예설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궁예의 패배는 궁예의 경솔한 행동과 실수, 포악한 성격과 폭정 때문이며, 나아가 그의 패배는 그의 운명이라는 것이 전승집단의 궁예에 대한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의의 <궁예설화>는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전승되기보다는 철원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는 철원이 비록 몇 십 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도읍지였다는 자긍심이 설화 전승집단으로 하여금 <궁예설화>를 전승하게 한 원동력이라 하겠다. 또한 <궁예설화>를 통해 패배한 군주에 대한 전승집단의 부정적 인식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설화 전승집단의 역사인물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출처 三國史記, 경기북부 구전자료집1·2(조희웅·노영근·임주영, 박이정, 2001), 철원군지-해(철원군, 199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925.

참고문헌 궁예설화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이영수, 한국민속학43, 한국민속학회, 2006),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조현설, 구비문학연구2, 한국구비문학회, 1995).

필자 한미옥(韓美玉)

신화

케네깃당본풀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에 전승되는 당신본풀이.

역사 이 본풀이를 전승하는 심방은 여럿이다. 지금까지 채록된 것은 김만보 심방, 이중춘 심방, 양창보 심방, 문순실 심방이 구연한 것인데, 이들 모두 의의가 있다. 김만보 전승본은 구전서사시로 묘사력과 표현력이 풍부하고, 이중춘 심방 전승본은 청이 좋고 사건의 개요를 집약적으로 서술하며, 양창보 심방 전승본은 압축미가 있고, 문순실 심방 3전승본은 의성어·의태어가 풍부하며 자신의 본고장 전승본 자체를 온전하게 전승하고 있다. 문순실은 이 자료의 채록 당시 38세로 자료의 이해와 전승 자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케네깃당이 여러 차례 수난을 겪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으나 고고학적 유물 발굴과 함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입증되었다.

줄거리 옛날 옷손당에 금백조, 셋손당에 세명도님, 매알손당에 소로소천국님이 살았다. 금백조와 소로소천국이 부부가 되어 여섯 형제를 낳고 일곱째 아기를 뱌다. 금백조가 소로소천국에게 농사짓기를 권하여, 소천국이 밭을 갈러 나갔다. 소로소천국이 밭을 갈고 있을 때 늦인덕 정하님이 점심을 내왔다. 마침 지나가던 삼배중이 시장하다며 음식을 청해 점심을 내준다. 소천국은 양반의 몸으로 삼배중이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서 밭을 갈던 검은 암소를 구워 먹는다. 그런 뒤 내려오는 길에 남의 집 소마저 잡아먹는다. 이를 보고 금백조가 못 살겠다면서 살림을 가른다.

소로소천국은 알손당으로 내려오다가 세명도님을 만나 노루 사냥을 하며 살아간다. 금백조는 일곱째 아들을 낳아 소천국에게 데려간다. 아들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수염을 건드리고 몸을 친다. 아버지가 불효자라 여겨 아들을 무쇠석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무쇠석함이 바다를 떠다니다가 용왕 황제국의 산호수 윗가지에 걸린다. 용왕 황제국이 계속해서 물 갈라지는 소리가 나자, 세 딸에게 나가 보라고 한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막내딸만 산호수 가지에 무쇠석함이 걸려 나는 소리라고 아된다. 용왕 황제국이 딸들에게 석갑을 내리게 한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내리지 못하고 막내딸만 내린다. 무쇠석함을 열도록 하지만 이 번에도 첫째와 둘째 딸은 못 하고, 막내딸이 건드려니 저절로 열린다. 무쇠석함 안에 장수가 있는데, 용왕 황제국에게 자신의 아방국은 소천국, 어머국은 백주님인데 강남 천자국의 난을 평정하러 가는 길에 인사차 들렀다고 거짓 인사를 한다. 용왕 황제국이 장수를 사위 삼고자 한다. 장수는 큰딸 방과 둘째 딸 방에 들어가서는 눈도 아니 뜨고, 막내 딸 방에 들어가서야 이빨이 드러나도록 웃는다. 장수는 용왕 황제국의 막내 사위가 된다. 장수는 상을 차려 와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신은 장수이니 밥도 장군, 술도 장군, 고기도 장군으로 먹는다고 한다. 사위 대접을 하느라고 나라의 창고가 비어 가니

마침내 황제국이 딸 내외를 나가도록 명한다. 장수가 황제국에게 산호수 천 근으로 만든 활과 백 근으로 만든 살을 청해 그것으로 강남 천자국의 세변을 막는다. 천자님이 장수에게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내주면서 제주도에 들어가 좋은 땅을 찾아 땅세, 국세를 받아먹도록 명한다. 장수 내외가 제주도로 와서 웃손당을 바라보니, 어머니가 동산에서 콩블림질을 하고 있었다. 늦인덕 정하님이 금백조에게 세 살 적에 버린 태자가 아방국, 어명국을 치러 왔다고 말해도 곧이듣지 않고 꾸짖어 욕한다. 그런데 태자가 웃손당에 올라와 청부채를 내어 부치자, 어머니는 겁에 질려 웃손당 고무니마루로 올라가 좌정하고 아버님은 알손당으로 내려 좌정한다.

태자가 좋은 땅을 찾다가 김녕 땅동산에 이르러 살피니 곡식이 익어가는 풍경이 좌정할 만하였다. 그런데 대접하는 자손이 없어서 용왕 처부모님에게 김녕마을에 비바람이 일도록 해 청해 김녕마을에서는 곡식을 거둘 수 없게 된다. 현 씨 할머님이 땅동산의 장수 조화인 것을 알아내고, 그제야 용왕 처부모에게 비바람을 그치도록 청한다. 마을 사람들이 헝쌀을 차려 놓고 좌정할 곳을 묻는다. 케네기로 좌정하고 황발갈소를 먹겠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가난한 살림을 살피서 돼지를 황발갈소만큼 키워 창자만 끊어 버리고 바치겠다고 약조한다.

옛날에는 뚝제를 하려면 문 씨 할아버지가 제장을 만들고 당 도마를 차려 철쭉나무 꼬챙이를 꽂아 차려 케네기에서 하였다. 이 한 집을 대접한 지가 연 삼 년이 되자, 자손들이 몸 편안하고 아기들이 건강하여서 땅세, 물세를 바쳤다.

분석 이 본풀이는 영웅서사시의 전범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불화를 배경으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바다에 버려져 곤란을 겪다가 아내를 구하고 다시금 버려진다. 그 후 강남 천자국이 그곳에서 괴물을 퇴치하고 수훈을 세운 뒤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판도를 차지하는 이야기를 근간으로 한다. 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판도를 통해 전체 서사를 구성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판도는 겹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다른 곳에 가서 연마하는 영웅의 고독은 장차 자신의 판도를 개척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다. 남을 정벌해야 자신의 고향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웅서사시의 근본적 문법이다.

영웅적 행위의 핵심 요소는 카마(Kama)와 다르마(Dharma)이다. 카마는 애정으로 여성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다르마는 정의로 집단이나 인류의 적대자를 물리치는 것이다. <케네깃당본풀이>에도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나타나는데, 개인의 고독이 집단의 승상으로 바뀌게 된다.

특징 당신본풀이는 그 역사적 성격으로 구비역사도 함께 전

한다. 이 본풀이 역시 그러한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구연하는 심방의 전통 속에 이러한 사실이 반영된다. 제주도 4·3사건 이후로 뚝제를 지내지 않게 되었고, 요즘에는 무속신앙의 와해와 케네깃당 맞은편 산의 공동묘지화로 말미암아 당신이 영장을 보기 싫어한다 하여 각자 집에서 뚝제를 지낸다. 그래서 <케네깃당본풀이>는 소멸 일로에 있다. 게다가 2000년 태풍의 피해로 케네깃당의 나무가 부러져 예전의 위용이 사라지는 불운마저 겪었다.

케네깃당은 ‘뚝제’를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뚝제는 제주도 내에서도 동부 일대의 신앙민들 사이에 베풀어지는 독특한 의례로, 제주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뚝제는 돼지 한 마리를 온전하게 받는 것으로, 세화리 본향당이나 케네깃당 한동본향당 등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민의 가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또는 2~3년에 한 번씩 거행하는데, 대개 7월 12일로 제일이 정해져 있다.

돼지고기를 마련해 신에게 바치고 이를 먹는 잔치는 지구 북반구보다는 오히려 남반구 전통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돼지고기를 분육하고 먹는 전통이 적도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에 널리 분포하는 것을 본다면, 뚝제는 분명 이러한 전통에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본풀이는 뚝제를 하고 뚝고기를 받는 전통에서 유래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영웅서사시의 전례가 후대의 영웅소설이나 애정소설로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라마야나>, <오디세이>, <마나스>, <게사르>, <장가르>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확인된다. <뚝제본풀이>는 세계의 영웅서사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출처 高麗史, 耽羅歷歷圖,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필자 김한선(金憲宣)

민담

귀머거리 동문서답

정의 한 집에 사는 귀머거리 셋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 엉뚱한 말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한 집에 귀머거리 셋이 살았다. 시아버지는 논 서미지가 나온 것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샀다. 머슴은 뚝장군을 깨놓고는 어쩔까 망설였다. 머느리는 뚝을 누고 안

씻은 손으로 머슴 밥을 준 적이 있어 머슴이 앙심을 품었다고 생각했다. 영감이 머슴에게 “소죽 잔뜩 먹어 나무 한껏 해오게.” 하고 말했다. 그러자 머슴은 머느리에게 “내가 오 년이나 살았는데, 뚝장군 하나 쫓다고 아침부터 물어내라고 주인이 야단을 치니 물어낼게요.”라고 했다. 영감은 다시 머슴을 보고 “돈 없는 사람에게 논을 사라 하네.”라고 하자, 머슴은 “뚝장군 물어 준다고요.” 하고 대답했다. 머느리는 머슴이 자기가 한 짓을 시아버지한테 이른다고 생각하여 “내가 뚝을 누고 손을 씻고 밥을 쫓는데 왜 안 씻고 쫓다고 하느냐?”라며 싸웠다. 이웃사람이 와서 듣고는 서로 엉뚱하게 각자 말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여 “이 집은 아침부터 싸움을 한나절이 되도록 하나?”라고 물었다. 그래서 차초지종을 듣고, 각자의 귀에다 사실을 말해 줬다. 나중에 서로 마음에 있던 말을 하고 잘 살았다.

변이 이 설화는 크게 가족형과 봉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 봉변형은 귀머거리와 청각이 정상인 동료가 동행하는데 의사 불통으로 귀머거리만 봉변당하는 이야기이다. 두 유형 모두 문제 해결과 미해결 상태로 다시 나누어진다. 미해결은 귀머거리가 동문서답하는 답답한 상태로 끝난다. 문제가 해결되는 가족형에서는 이웃사람이 나타나 오해를 풀어주고, 봉변형에서는 청각이 정상인 동료가 설명해 줘서 귀머거리가 이해하게 되는 변이형이 있다.

분석 세 귀머거리가 소통이 안 되었을 때, 이웃 정상인의 도움으로 소통이 되었다. 의사소통은 말하기와 듣기가 동시에 되는 것이다. 만약 화자의 말을 청자가 95% 알아들었다면 서로 공감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자가 5%만 알아들었다면 화자가 청자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바로 귀머거리의 소통 능력으로, 청자는 화자의 말을 엉뚱하게 오해할 수 있다. 또한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약점을 스스로 폭로하거나 화자의 표정만 보고 자격지심에 멋대로 생각하고 곡해할 가능성도 있다.

의의 귀머거리는 자기의 약점을 은연중에 폭로하여 때로는 웃음을 유발한다. 누구나 잠시 소통이 안 되는 귀머거리 경험 이 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듣거나 언어, 외국어, 사투리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듯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화에서는 이웃사람이나 동료의 설명으로 귀머거리의 고민이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의사소통의 중요함, 특히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는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689; 6-6,

506; 7-4, 50; 8-5, 186.

참고문헌 구비문학개론(최래옥·윤용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89).

필자 김낙효(金洛孝)

민담

글 잘하는 황정승 딸

정의 계모의 모해로 집에서 쫓겨난 전실(前室) 딸이 정혼자를 만나 혼인하고, 아버지와 재회하기 위해 한시(漢詩)를 남긴다는 내용의 계모설화.

역사 ‘황화일엽(黃花一葉)’이라는 이칭(異稱)은 설화에 등장하는 한시인 ‘黃花一葉風飄飄 / 飛去海南接李枝 / 慾見父主小女兒 / 明朝乘鶴來楊州’의 앞부분을 따온 것이다. 이 설화는 고전소설 <황월선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영웅소설과의 교섭을 보이는 <양소저전>에 이 설화의 한시 구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설화와 소설의 상호 영향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

줄거리 황 진사와 이 진사는 자식들이 태어나기 전에 맺속 정혼을 하였다. 황 진사의 새 부인은 자기 자식을 낳고는 재산이 탐나 전실 딸을 낙태로 위장하여 모함하였다. 강에 띄워질 위기에 처한 황 진사의 딸을 하인들이 남복을 입혀 도주시켰다. 전실 딸은 정혼한 이 진사 댁 동네를 찾아가 서당에서 정혼자를 만나 동문수학하다가, 전후 사정을 말하고 혼인하였다. 딸의 남편이 과거 급제하여 양주 목사를 제수받고 부부가 함께 황 진사 댁을 찾아갔다. 딸은 자신이 거쳐하던 별당에 자신의 신분과 그간의 사정 그리고 아버지 황 진사와 재회를 암시하는 시를 남겨놓고 떠났다. 황 진사가 그 시를 보고 딸을 찾아가 재회하고, 집에 불을 질러 새 부인을 처단하였다.

변이 각편 대부분에서 두 집안의 정혼으로 서사가 출발하며, 이 정혼 모티프는 서사 전체에 인과성을 부여한다. 한편 전실 딸과 올케 셋의 갈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각편도 있다. 전실 딸을 위기에서 구해 주는 원조자는 딸을 물에 띄워 죽이려는 명령을 받은 하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간혹 이복 남동생이나 오라비가 도와주기도 하고, 전실 딸 스스로가 남복을 하고 도주하기도 한다. 딸이 친정에 들러 시를 남겨 아버지와 재회하는 것이 이 설화의 특징인데, 시가 글로 대체되거나 아예 시가 등장하지 않는 각편도 있다.

분석 설화 속에서 전실 딸이 획득하는 것은 주체적인 자기 인

식이다. 즉 '아버지의 딸'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일구고, 아버지와의 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보다 주체적인 삶을 획득하는 것이다. 딸은 혼인을 통하여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존재임을 증명하였고, 동시에 배우자가 과거에 급제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현하고 있다.

특징 이 설화에 나타나는 한시들은 사건의 핵심을 서정적으로 요약하고 있으며 중요한 서사기능을 한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시로 깨우치는데, 이 깨우침으로 딸의 억울함이 풀리고 아버지와 화해한다는 점이 각별하다.

의의 이 유형의 설화 6편은 모두 남성이 구연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의 관심사가 많다. 특히 딸이 남긴 한시가 이 설화 유형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에서 남성 설화적 면모가 있다고 하겠다. 남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형에서는 서사의 중심이 계모에서 다소 벗어나 주인공의 사회적 처신과 성공에 초점을 두는 예가 많다.

출처 강릉어문학(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31.

참고문헌 계모설화의 연구(최운식, 한국의민속3,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6),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김현선, 보고서, 2009), 손 없는 색시(AT706)고(조희용, 수어성기열박사 환갑기념논총, 동간행위원회, 1989).

필자 이윤경(李倫慶)

전설

금강산

金剛山

정의 금강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해서 전승되는 설화.

역사 금강산은 태백산맥 줄기의 북부에 자리한다. 행정구역상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 그리고 통천군 일부에 위치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회양부」에 “금강산은 장양현 동쪽 30리에 있다. 회양부를 167리에 걸쳐 있다.”라고 적혀 있다. 현재 북한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금강산은 남북으로 60km, 동서로 40km 정도이며 면적은 530km²에 달한다. 금강산 주능선은 호룡봉-외무재령-내무재령-월출봉-비로봉-옥녀봉-상등봉-온정령-오봉산으로 이어진다. 주능선을 분수령으로 동쪽은 외금강, 서쪽은 내금강이라 부른다. 한편, 오봉산을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별금강이라 하며, 고성의 남강 하구와 통천의 총석정·시중호 일대

의 바닷가를 묶어 해금강이라 한다. <금강산설화>는 대부분 이들 자연 환경의 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생하였으며, 설화 속에서 금강산은 지상낙원으로 그려지고 있다.

줄거리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이며 세계의 명산(名山)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중국 진시황(秦始皇)이 장생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선남선녀(善男善女)를 보내기도 하였다. 많은 신선과 선녀들이 산과 계곡에 하강하여 노닐고, 토끼를 비롯한 각종 짐승들이 금강산의 경치에 매료되어 돌로 변했다. 심지어는 옥황상제조차도 금강산 경치에 빠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잊고 돌이 되었다고 한다. 옥황상제가 금강산의 경치를 돌아보고 구룡연 기슭에 이르렀을 때, 구룡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는 관(冠)을 벗어 놓고 물로 뛰어들었다. 그때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나타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하고 옥황상제의 관을 가지고 사라졌다. 관을 빼앗긴 옥황상제는 세존봉 중턱에 맨머리로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금강산은 많은 신(神)들이 기거하는 산이기도 하며, 설악산 ‘울산바위’를 비롯한 여러 곳의 바위들도 금강산으로 가다가 1만 2천 봉우리가 다 차서 도중에 멈춘 것이라고 한다. 금강산 1만 2천봉이 모두 다 각각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며, 금강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과 암자, 샘, 연못, 폭포 등에도 관련한 설화 각편들이 전승된다.

분석 <금강산설화>는 대부분 금강산의 절경을 이루는 바위나 연못, 폭포를 비롯하여 지명, 사찰연기(寺刹緣起) 등과 관련한 각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신이(神異), 치병(治病), 충성, 효도, 사랑 등을 담은 각편들도 곳곳에 분포한다. 이들 설화 각편들은 대부분 금강산의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으나 신화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설화 속에 옥황상제, 신선, 선녀, 하늘의 토끼 등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신성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의 절경에 취해 하늘로 올라갈 시기를 놓



금강산
한국관광공사

쳤다든가, 옷이나 모자를 잃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바위가 되었다는 등 금강산의 빼어난 경치를 강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과도 어울려 설화를 생산하고 있는데, 언제나 금강산의 신이한 힘이 작용하여 외부 침략자들이나 부정한 사람들은 금강산에 들이지 않는다. 마의대자를 제압하고자 금강산으로 온 고려의 군사를 되돌린 이야기, 왜구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한 수정봉 이야기, 매국노 이완용에게는 물을 주지 않았다는 금강수 이야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강산설화>에서는 금강산이 세상의 중심이며 최고의 낙원이다. 그래서 천상의 인물들이 모두 금강산을 동경하고, 실제로 금강산에 하강했다가 천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금강산의 바위가 된다. <선녀와 나무꾼설화>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용궁의 인물도 금강산에 왔다가 그대로 멈추어 버리고, 저승의 십대왕도 금강산 주변에 기거하며, 많은 부처님들도 금강산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내로라하는 고승들도 모두 금강산에서 도를 깨친다.

특징 <금강산설화>가 지니는 특징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과 천상·용궁·저승 등 신들이 기거하는 세상이 항상 교류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교류 장소가 모두 금강산의 어느 한 곳이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인간과 선녀가 만나는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금강산은 신들의 세계에서 인물을 추방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경치에 매료되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인간세계와 신들의 세계에 각각 거처하던 인물이 교류하는 시공간이라는 것은 금강산이 세속적인 시공간이 아닌 신성한 시공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러나 <금강산설화>는 보편적인 몇 개의 이야기를 빼고는 금강산을 떠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금강산설화>가 금강산의 자연물인 바위, 봉우리, 계곡처럼 현장성이 짙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의의 지금까지 금강산을 대상으로 한 문학작품의 연구는 한시(漢詩)와 유산기(遊山記), 기행가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문학작품을 통해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세계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민중 계층에서 금강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은 확인할 수 없다. 강원도 사람들은 흔히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한다. 그 이유는 강원도 사람들은 금강산을 신성한 공간이자 신과 인간이 어울릴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금강산이 강원도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의 명소와 연계한 <금강산설화>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출처 고성·회양의 전설(최승순, 강원도, 1979), 그리운 금강산 이야기(김익숙, 북

스힐, 1998), 금강산(유충준, 학교재, 1998), 금강산(전영률·손영중, 실천문학사, 1989), 금강산전설(이용준, 사회과학출판사, 1991), 알고 싶은 금강산(정인갑, 덕수출판사, 1996), 천하명산 금강산(culturecontent.com).

참고문헌 금강산 관련 문학작품에 나타난 유가적 사유 연구(양승이,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금강산 기행가사의 전개양상 연구(장정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필자 최명환(崔明煥)

지료

금계필담

錦溪筆談

정의 1873년(고종 10)에 서유영(徐有英)이 저술한 야담집.

내용 『금계필담(錦溪筆談)』에는 야담이 많으나, 필기나 잡록에 가까운 작품들도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2권 2책의 한문필사본에 141편이 실려 있다. 이본으로는 서울대학교 가람문고에 한문유인본(漢文油印本) 2책, 서울대학교 상백문고(想白文庫)에 한문필사본 1책, 고려대학교도서관에 한문필사본 2책 중 1책의 낙질본이 있다.

서유영이 일생 동안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말년에 기록한 책이다. 서유영이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 터전에서 살기도 했기에 평민 일화나 전설, 일부 야담을 적극 수용할 수 있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대부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기에 사대부 일화를 읊고 평민 일화나 전설 등을 번개했다고 할 수 있다. 계왕과 왕비·문신·이인(異人)·양반층 여인·기생·하층 여인·무인 등의 순으로 이들에 얽힌 이야기를 배열하고, 풍속에 관한 잡다한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서 끝에 첨부하였다. 각 인물은 단종부터 순조 때까지 걸쳐 대체로 시대순으로 배치했다. 서유영이 사릉참봉(思陵參奉)을 역임한 적이 있기에 단종과 관련된 단편들이 많다. 작품에서 다른 주인공들은 하층인보다 상층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보다 소망을 이루지 못한 인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용어

금기화소

禁忌話素

정의 이야기 속에 금기(禁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화소.

내용 금기는 꺼리고 삼가는 종교 현상의 하나인데, 기(忌), 기휘(忌諱), 재계(齋戒)의 뜻으로도 쓰인다. 폴리네시아의 토속어로 ‘Taboo’, ‘Tabu’라고 한다. 금기라는 말 속에는 ‘신성한’, ‘거룩한’ 무엇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위험한’, ‘금지된’, ‘부정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종교적으로는 성스러운 기피를 뜻하며 도덕적 금지와는 다른 개념이다. 금기는 인간의 모든 생활 주변과 사회구조 속에서 번지고 뿌리박혀 하나의 속신과 속설로 정립된다. 금기의 구조는 역설적으로 그 금기가 파괴됨으로써 본래의 존재이유를 드러낸다. 금기를 파괴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징벌로 나타난다. 이야기 속에서도 금기가 파괴됨으로써 징벌이 가해지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로 귀결된다. 따라서 금기화소는 설화 가운데 자아의 패배 양식과 관련된 전설 속에 많이 나타난다. 금기는 두 개의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나 표시으로써 하는 것이고 하나는 말로써 하는 것이다. 설화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위를 금하는 금기가 주로 나타난다. 행위에 대한 금기는 ‘보지 마라’, ‘먹지 마라’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금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장자못전설>에서는 ‘뒤돌아보지 마라’는 금기를 어겨서 머느리가 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무꾼과 선녀>에서는 ‘3년 동안 날개 옷을 주지 마라’는 금기를 어겨서 선녀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징벌을 초래한다.

필자 김용덕(金容德)

인담

금도끼은도끼

정의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설화.

역사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금도끼은도끼>는 『이습우화』에 수록된 고대 그리스의 전래동화이다. 『이습우화』는 1896년에 출간된 『신정 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 학부 편 전3권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설화는 개화기 학생들의 교과서에 번역, 수록되면서 한국적 이야기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다. 연못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산신령이 나타나 우는 사연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져와서 이것이나고 물었다. 그런데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는 쇠

도끼라고 정직하게 말했다.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탄한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주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욕심쟁이는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오히려 화를 당했다.

변이 그리스 전래동화가 한국적 토착화를 거치면서 헤르메스는 산신령으로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금도끼은도끼>의 변이 폭은 매우 적은 편이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 많은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뚜렷이 보여 준다. 각편에는 나무꾼을 시험하는 산신령 대신에 누님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다.

분석 인간의 정직함에 대한 교훈적 내용을 강조한다. 나무꾼은 산신령이 제시한 금도끼와 은도끼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정직하게 자신의 쇠도끼를 선택하여 복을 받는다. 반대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를 당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관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올바른 심성을 길러야 하는 어린이들의 전래동화로 활용되고 있다.

특징 개화기에 번역·수용된 이래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쟁이는 화를 당한다는 교훈을 담으며,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뜻밖에 부정한 기회가 오더라도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음을 강조한다.

출처 영남구전자료집6(조흥욱 외, 박이정, 200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65.

참고문헌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김태준, 일지사, 1981), 한국문학에 끼친 이습우화의 영향 연구(남미영, 새국어교육45, 한국국어교육학회, 1989).

필자 강은해(姜恩海)

전설

금돼지굴

양민담 최치원

정의 금돼지에게 잡혀간 사람을 기지로 구해 낸 설화.

역사 17세기에 편찬된 『신독재수택본전기집(慎獨齋手擇本

傳奇集』에 실려 있는 <최문헌전(崔文獻傳)』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유형의 설화는 17세기 무렵에 이미 세간에 구전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줄거리 어느 고을에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원님 부인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이에 지혜로운 원님이 새로 부임하면서 부인의 옷에 실꾸리를 매달아 놓았다. 어느 날 부인이 사라지자 옷깃에 달아 놓은 실꾸리를 따라가 보니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 금돼지와 원님의 부인이 있었다. 원님의 부인은 금돼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슴가죽임을 알아냈고, 원님은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사슴가죽으로 만든 열쇠 끈을 이용해 금돼지를 죽이고 부인도 구하였다.

변이 이 설화는 전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각편에 따라 잡혀간 사람이 원님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금돼지가 부인을 범해 아이를 낳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예는 신라 말 학자인 최치원(崔致遠)의 탄생설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분석 그간 <금돼지굴설화>는 최치원의 탄생담과 관련하여 설화와 소설의 연계성을 밝히려 하거나,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하나로 인식하여 그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설화와 소설의 선행 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설화가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는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설화가 소설로 먼저 만들어져 민간에 유포되었을 가능성과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유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지명유래담의 성격을 지닌 것임에도 최치원 탄생담과 결부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최치원 탄생담과 결부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여성을 납치하고, 재물을 훔쳐가는 만행을 저질러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등 사회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영웅이 나타나 훼손된 질서를 바로잡는다. 즉, 이때의 영웅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 탄생담과 결부될 때에는 금돼지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된다. 최치원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금돼지의 자식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질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질서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지명유래담, 최치원 탄생담과 결부되어 전국에 분포하는데, 기존 질서를 회복하는 영웅과 기존 질서에 대한 지속적 도전을 의미하는 내용이 뒤섞여 나타난다.

출처 전설지(전라북도,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1, 199, 향토의 전설(강원도, 1979).

참고문헌 지하국대적퇴치설화 연구(김기창, 국제어문18, 국제어문학회, 1997), 최고문전의 설화적 전승과 최치원설화의 연원(유광수, 한국문학연구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필자 박종오(朴宗畬)

전설

금산

錦山

정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삼동면·이동면에 있는 금산(錦山)에 얽힌 설화.

역사 금산을 소금강(小金剛) 또는 남해금강(南海錦江)이라고 한다. 본래는 신라 원효대사(元曉大師)의 기도처로 보광산(普光山)이라 하였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등극하기 전에 이 산에서 수도하면서 기원하여 왕위에 오르자, 은혜를 갚기 위하여 비단 ‘금(錦)’ 자를 써서 ‘금산(錦山)’으로 고쳤다고 전한다.

줄거리 금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첫째로 이성계와 관련된 유형이 있다. 이성계가 등극을 꿈꾸고 남해 금산에 와 백일기도를 한 뒤 왕이 되었다. 왕이 되고 나서 산에 비단을 씌워 주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어, 대신 산의 이름에 비단 금(錦) 자를 넣어 주어 금산이 되었다. 이성계가 백 일 동안 기도한 곳을 ‘태조기단’이라 하고 이성계의 소원을 산신령이 들어주었다는 바위는 ‘삼불암’이라 한다. 둘째, 상사바위와 관련된 유형이 있다. 옛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하인들 중에 돌쇠라는 총각이 주인의 딸을 사랑하다 결국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다. 돌쇠의 혼이 뱀이 되어 여인의 몸을 감고 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나타나서 금산에 있는 높은 벼랑 위에서 굶을 해 보라고 했다. 부자가 노인이 시키는 대로 굶을 하자 뱀이 몸을 풀고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변이 이성계 관련 이야기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승된다. 경남 고성에서는 하륜이라는 인물이 금산으로 가던 중 목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성계에게 가축신을 벗고 기도를 드려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알린다. 왕이 된 이성계가 금산의 신에 보답코자 산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이야기는 ‘가축신’ 화소 외에도 ‘칼집 끈’ 화소가 전승되는 것으로 보아 하륜과 관련된 <금산전설>도 활발하게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남해 금산은 이성계에 대한 인물전설과 함께, 이태조기단(李太祖祈壇)과 관련된 전설의 기본형이 활발하게 전승된다. 또한 인근의 자연물들을 흡수하는 방식의 확장형도 다양하게 전해진다. 이러한 과생적 전승양상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으로 이성계 관련 전설의 독특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사바위설화>는 신분의 장벽으로 이를 수 없는 사랑을 ‘머슴과 주인집 딸’, ‘중과 양반 가문의 딸’, 양반집 도령과 술집 여자나 백정의 딸’ 관계로 설정하여 신분 상승의 욕구와 인과응보 사상을 잘 드러낸다.

특징 이 전설은 원효가 마련한 영험의 기반 위에 이성계가 편승하는 형식이다. 지역민들은 왕조의 건국자라는 역사적 실체를 통해 삶의 공간을 성역화시켜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동체성을 획득한다. 여기에 상사암과 같은 전설이 더해지면서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 상생의 시대를 지향하는 전승집단의 강한 민중 의식이 나타난다.

출처 남해군지(남해군지편찬위원회, 201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245; 6-12, 753; 8-10, 629.

참고문헌 남해군설화의 지역성 연구(류경자·한태문, 한국민족문화학회, 2011), 상사뱀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이성계전설의 인물 인식과 그 특징(이태문,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학회, 1997).

필자 김구한(金求漢)

민담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정의 암소에게 먹힌 아이가 금송아지로 태어나 짚으로 만든 복을 울려 귀인의 사위가 된 뒤에 다시 사람이 되어 잘 살았다는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지금까지 민간에 구전되어 오는데, 고려시대인 1328년(충숙왕 5)에 간행된 것을 원본으로 하여 조선시대인 1448년(세종 30)에 목판으로 간행한 불교설화집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 제7지 <금독태자(金犢太子)>에도 실려 있다. 이 설화는 고소설 <금송아지전>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줄거리 한 남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첩을 얻었다.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한 아내가 남편이 먼 곳에 간 동안에 아들을 낳았다. 이를 시기한 다른 아내가 몰래 아이를 암소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남자가 집에 돌아온 뒤에 암소가 금송아지를 낳았다. 남자는 금송아지를 아주 예뻐했다. 이를 알아차린 다른 아내는 피병을 앓으며 금송아지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남자가 백정에게 금송아지를 잡아 간을 꺼내 오라고 했다. 백정은 금송아지를 놓아주고, 개의 간을 가져다주었다. 서울로 간 금송아지는 ‘짚으로 만든 복을 울리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는 방을 보고, 짚으로 만든 복을 울려 귀인의 사위가 되었다. 금송아지는 미남으로 변한 뒤에 아내와 함께 아버지한테 와서 지난 일을 밝히고, 생모를 구한 뒤에 잘 살았다.

변이 남편이 없는 동안에 아들을 낳은 아내가 본처 또는 첩 중에 본처인 이야기가 더 많다.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는 아이를 소에게 바로 주어서 먹게 하기도 하며, 여물통에 넣거나 된장독에 넣었다가 소에게 주어서 먹게 하기도 한다. 아기를 연못에 빠뜨리자 아기가 개구리로 변하고, 개구리를 죽여 땅에 묻으니 피로 변하므로, 피를 빼어 여물에 넣고 소가 먹게 하기도 한다. 아기의 이마에 바늘을 꽂아 죽게 한 뒤에 개 울물에 던졌는데, 아기가 개구리로 변하고, 소가 개구리를 먹기도 하며, 아기를 바닷물에 던지니 봉황이 내려와 보호하므로 돼지에게 주었다가 쇠죽술에 넣고 끓여서 소에게 주기도 한다. 아기를 먹은 암소가 금송아지를 낳았는데, 아기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채 소의 몸속에서 자라 소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태어나기도 하며,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우는 것을 보고 백정이 살려 주는데, 금송아지가 살려 달라고 말을 하여 살려 주기도 한다. 죽을 고비를 넘긴 금송아지가 가는 곳은 대부분 서울인데, 일본으로 가서 일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한다. 금송아지가 울리는 악기는 짚으로 만든 북이나 팽과리 또는 종인데, 사람의 가족으로 만든 북이기도 한다. 금송아지는 귀인의 사위가 되는데, 여기서 귀인은 정승·임금·대가(大家)로 다양하다. 금송아지가 사람이 되는 과정은 ‘허물을 벗고’, ‘칼로 가족을 벗기니’, ‘연못에 목욕을 하고’, ‘된장을 풀은 물에 목욕을 하고’, ‘꽃을 이마에 붙이니’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이 지난 일을 밝힌 뒤에 서모를 징벌하지 않고 용서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주인공의 결핍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차츰 호전되어 주인공의 행복으로 끝나는 상승형(上昇型)의 구성을 보인다. 이 설화는 ‘사람-소-사람’으로 변신순환(變身循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설화에서 사람이 소로 변하는 것은 불행한 현실을 폐기하고, 행복한 현실을 맞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이 구조는 한국인의 순환 사고(循環思考), 영혼관, 동·식물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과 동일시하거나 신성시하는 관념 등을 바탕으로 하

여 형성된 것이다. 이 설화의 주인공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로 변신한다. 일찍부터 농경생활을 해 온 우리 민족은 힘이 세면서도 착하고, 온순한 소를 농사와 운반에 이용하면서 친근감을 가졌을 것이다. 소의 뿔은 기울고 차는 달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부활과 재생의 상징으로 신성시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소는 민간의 신앙, 경제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성감과 함께 친근감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설화의 변신체(變身體)로 선택된 것이다.

특징 고려 때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금독태자>는 불경에서 그 저본을 찾을 수 없고, 한국적 변용이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금독태자>는 구전설화가 고려시대에 재창작되어 기록된 것 같다. 이는 문학적 소양이 있는 기록자에 의해 기록되어, 구전설화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고, 짜임새가 있으며, 지리적 배경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표현이 구체적이다. 『석가여래십지수행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으므로, <금독태자>의 내용이 민간에 유출되었을 것이다. 구전되는 <금송아지설화>는 <금독태자>의 내용이 민간에 유출되면서 민간의 의식에 맞게 변이되어 구전되어 오는 것이라 하겠다. <금독태자>보다 훨씬 뒤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고소설 <금송아지전>은 <금독태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면서 <금송아지설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더 흥미롭게 구성하였다. <금송아지설화>와 비슷한 이야기는 몽골에도 전해 온다. <금송아지설화>와 <금독태자>, 몽골의 <세 왕비를 둔 왕>은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만, 그 내용이 대체로 같아 모두 동계(同系)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설화가 형성과 전파·전승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출처 釋迦如來十地修行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814; 3-2, 333; 5-1, 474; 7-1, 260; 8-1, 256; 8-10, 226, 한국의 민담1(최문식, 시인사, 1999).

참고문헌 금송아지설화 연구(최운식, 한국민속학35, 한국민속학회, 2002), 금송아지전 연구(전진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금송아지전의 유통 양상(사재동, 낙은강전집선생 화갑기념논총, 창학사, 1992), 금우태자전 연구(신동진, 어문연구16, 어문연구학회, 1987).

필자 최운식(崔雲植)

민담

금시발복 명당

今時發福 明堂

정의 장사를 지내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발복이 되어 있을 만

큼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명당자리에 대한 풍수설화.

역사 조상을 길지(吉地)에 묻으면 그 조상의 기운이 후세에 미쳐 후손이 잘된다는 풍수사상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호응한다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과 연관된다. 그리고 직계 자손만이 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가락국기」에 그 기록이 보인다. 통일신라 말 도선(道詵)이 풍수사상을 토착화한 이후, 고려 왕건은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고, 유학사상을 기저로 하는 조선시대에 오면 이 사상이 조상 숭배, 가문의 영달과 직결되면서 명당발복(明堂發福)설화를 양산했다. 문벌 가문뿐 아니라 신분이 낮고 가난한 평민들에게도 발복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절실했는데,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염원을 바탕으로 <금시발복 명당> 이야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줄거리 유능한 지관(地官)이 좋은 밋자리를 보러 다니다가 산속 숲구이 총각의 집에 묵게 된다. 총각은 가난한 살림에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진 양식을 모두 털어 밥을 해 준다. 총각은 상(喪)을 당한 지 오래되었으나 가난하여 밋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풍수는 대접받은 보답으로 총각에게 묘를 쓰는 즉시 발복할 수 있는 ‘금시발복(今時發福)’의 밋자리를 잡아 준다. 다음 날 총각은 지관이 잡아 준 자리에 장사를 지내고, 장례에 쓸 제수를 마련하기 위해 아랫마을 부잣집 과부에게 쌀을 얻으러 간다. 전날 밤 상서로운 꿈을 꾸 과부 장자는 총각을 불러 인연이라고 하면서 혼인하자고 한다. 결국 총각은 과부와 혼인하여 부자로 잘살게 되고 자손 또한 번성하였다.

변이 이 설화는 주인공을 발복하게 해 주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위에 제시한 ‘쌀을 꾸어 주는 과부 장자에 의해 발복하는 유형’이 더 우세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금시발복형 풍수설화 51편 가운데 33편이 이 유형이다. 또 다른 유형은 ‘쫓겨난 부잣집 딸이 주인공을 발복하게 하는 유형’인데, 위의 풍수설화 51편 가운데 나머지 18편이 이 유형이다. 이 유형의 공통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상을 당했으나 장사를 지낼 처지가 못 되는 가난한 총각(또는 홀아비)을 딱하게 여긴 지관이 금시발복의 자리를 잡아 준다. 하관할 무렵 쫓기는(혹은 집으로 찾아온) 여인을 숨겨 주고 총각은 여인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리고 본래 대갓집 딸이었던 여인이 지니고 온 재물로 잘산다.

분석 발복(發福)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속발(速發)’ 또는 ‘금시발복’이라고 한다. 흔히 ‘인시하관(寅時下棺)에 묘시발복(卯時發福)’, ‘사시하관(巳時下棺)에 오시발복(午時發福)’이

라는 명칭으로 쓰인다. 총각이나 홀아비로 혼자 살던 인물이 금시발복 자리를 얻어 묘를 쓰자마자 곧바로 발복의 효험이 나타나 부자가 되고 아내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은 가난으로 당장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처지의 남성 또한 배우자를 얻기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풍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지관을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지관을 만나면 대접하기 위해 담배나 곡식을 모아 두기도 한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수라는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려는 점이 한계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은 노력하여 결국 지관을 만나고 발복할 수 있는 자리를 얻는다. 지관이 잡아 준 금시발복의 터 덕분에 가난한 총각은 부유한 여인을 만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며, 자손 대에 이르면 과거에 급제하여 신분까지 상승한다. 주인공인 가난한 머슴이나 홀아비는 풍수를 잘 대접하거나, 장사지내기 위해서 과부 장자에게 쌀을 꾸러 갔다가 과부 장자의 눈에 들어 도움을 얻거나 아예 같이 살게 된다. 결국 과부 장자를 통해 자신의 당면 문제인 경제적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 설화에 나타나는 남성 주인공들은 이상적인 가부장으로서의 남성상과는 거리가 있다.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 인물에 비해 그들은 지나치게 왜소하고 소극적이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하층민의 삶 속에서 현실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내면화해 온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남성 주인공들은 결핍 요소를 손쉽게 해결할 방편으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징 이 유형의 설화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둘러메고 다니거나 집안에 방치해 두는 머슴, 나무장수, 숯구이 총각이 등장한다. 이들이 묘를 쓰지 못한 이유는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경제적 궁핍으로 사람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들에게 조상 안치의 명분에 앞서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적 원조다. 주인공은 경제적 능력을 지닌 주체적 여성을 만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시발복설화> 대부분이 주인공 남성의 결혼으로 끝나는 것은, 그들의 발복과 앞으로의 복된 삶이 배우자에게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의의 <금시발복 명당>은 부를 통해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곳이다. 풍수설화 대다수가 후손의 발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설화는 가능한 빨리 발복이 일어나는 것이 관건이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기층민에게는 후대의 발복보다

당장 해결할 끼니가 더 시급하다. 즉, 이러한 기층민의 현실 지향적 사고와 염원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94; 2-7, 530; 4-6, 146; 5-4, 645; 5-5, 136; 6-3, 82.

참고문헌 풍수설화를 통해 본 남성발복의 양상과 그 의미(강성숙,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2001),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 풍수설화의 유형별 분석과 의의에 관한 연구(정영수,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필자 강성숙(姜盛淑)

신화

금와왕신화

金蛙王神話

정의 동부여 왕 금와의 탄생에 얽힌 신화.

줄거리 도움을 옮겨 새로 동부여를 창업한 해부루는 늙도록 아들이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아들을 얻기 위해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 그때 타고 가던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 큰 돌을 마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사람들을 시켜 돌을 굴리게 하자 거기에 금빛 개구리 모습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하늘이 나에게 훌륭한 아들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거두어 길렀다. 이름을 금와(金蛙)라고 하였으며 자란 뒤에 태자로 삼았다. 부루왕이 죽자 금와가 대를 이어 왕이 되었다. 금와왕은 다음 왕위를 태자 대소(帶素)에게 전하였다.

분석 동부여는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천제의 명에 따라 도움을 통해 바닷가 가섭원으로 옮겨 세운 나라이다. 해부루가 나라를 옮긴 이유는 북부여의 도움에 천제의 자손, 곧 주몽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천제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와왕은 동부여를 세운 해부루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금와왕은 후에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를 우발수에서 발견하여 궁에 가두었고, 주몽이 태어난 후에는 그의 양육자가 된다. 아들이 주몽을 두려워하여 죽이자고 했지만 그는 주몽을 시험하기 위해 말을 기르도록 한다. 주몽이 남쪽으로 떠나 고구려를 세운 뒤 동명왕 14년 8월에 유화가 죽자 금와왕은 태후의 예를 갖추어 장사를 지내고 신묘를 세워 준다. 이렇듯 금와왕은 문헌 기록상으로 보면 <주몽신화>의 조연으로 등장한다. 금와왕 스스로 주연인 이야기는 그의 탄생과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이 신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

국유사(三國遺事)』, 『동명왕편(東明王篇)』 등에 전해지는데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금와왕신화>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둘인데, 하나는 기자치성(訶子致誠)이고 다른 하나는 금와라는 이름의 유래인 ‘곤연의 큰 돌 아래서 나온 금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이다.

기자치성은 일찍이 건국신화에서부터 나타난다. <단군신화>에서 웅녀는 신단수 아래서 아이를 기원한다. 이때 숭배의 대상은 단수, 곧 나무이다. 해부루는 곤연이라는 연못 안 또는 연못가에 있는 큰 바위에서 기자치성을 드린다. 말이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곤연이 제사의 장소이고 큰 바위가 숭배의 대상이므로 이는 곧 큰 바위에 빌었다는 뜻이다.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기자석, 여음석, 남근석, 미륵바위 등으로 불리면서 널리 기자치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금와왕은 바위에 기원하여 얻은 아들, 곧 산천이 점지한 아들이라는 신화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특징 <금와왕신화>의 핵심 화소는 금개구리이다. 『삼국사기』에는 금와(金蛙)를 금와(金蝸)로 쓰기도 한다고 했지만, 초점은 달팽이가 아니라 개구리이다. 이 개구리는 아이의 형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여를 상징하는 신화적 동물로 보인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 따르면 유리왕 29년 6월에 모천(弔川)에서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가 무리지어 싸우다가 검은 개구리가 이기지 못하고 죽은 일을 두고 검은 색은 북쪽의 색이므로 북부여가 패망할 징조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북부여는 금와왕을 이어 대소왕이 통치하고 있던 동부여를 가리킨다. 이 기사에서 개구리는 단지 시끄러운 양서류가 아니라 특정 세력을 상징하는 신화적 동물이다.

개구리는 신화적으로는 물, 달, 여성적 원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개구리는 하천 주변의 평야지대에 거주하며 농경에 종사하는 종족의 상징체계 속에 자주 등장한다. 동이계의 신화적 인물인 예(羿)의 처 항아(姮娥)가 불로장생을 원하는 남편을 위해 서왕모의 약을 훔치고는 달로 도망쳐 두꺼비가 되었다는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은 두꺼비, 곧 개구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또, 여러 신화에서 개구리는 비를 예고하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동물로 등장한다. <금와왕신화>의 금개구리는 금와가 동부여의 수신계 집단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금와를 발견한 해부루는 북부여에서 온 해모수의 아들로, 해(日)나 밝음(光)의 상징체계를 지닌 집단,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천신계 집단의 수장이다. 고구려 <주몽신화>에서 천제의 아들 해모수는 아침에 내려와 정사를 보고 저녁에 승천한다고 하여 천왕랑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해모수는 태양신이 인격화된 존재이다. 이 해모수의 아들이 북부

여의 해부루인데, 이는 동부여를 세운 주도 세력이 북부여 및 고구려의 주도 세력과 마찬가지로 천신계 집단이라는 것을 뜻한다.

천신계 집단에 속하는 해부루가 수신계 집단을 상징하는 금와를 발견하여 왕위계승자로 삼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해부루와 금와가 같은 혈통이 아니라는 데서 알 수 있듯 동부여는 서로 다른 세력이 연합한 국가였다는 뜻이 숨어 있다. 그런데 동부여 <금와왕신화>에는 이 연합 관계가 고구려 <주몽신화>처럼 결혼 관계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주몽신화>에서 해모수와 유화의 결혼은 천신계와 수신계 집단의 연합을 상징한다. 이런 상징성이 <금와왕신화>에서는 왕과 태자의 관계로 표현되어 있다. 왕권이 천신계 집단에서 수신계 집단으로 넘어간 상황의 신화적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금와왕신화>의 두 번째 함의이다.

의의 개구리는 물의 상상계를 대표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신화나 도상에 자주 나타나는데 <금와왕신화>는 한국의 건국 신화나 왕권신화 가운데 유일하게 개구리 모티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明王篇.

참고문헌 고구려 건국사(김기홍, 창작과비평사, 2006), 한국 건국신화의 실상과 이해(이지영, 월인, 2000).

필자 조현설(趙顯高)

민담

금척

金尺

정의 금척원 유래 전설이며, 황금으로 된 자(금척)를 얻은 인물이 죽은 사람을 살려 출세한다는 설화.

역사 신라 때 조성되었다고 전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금척원의 유래담으로 민간에 구전되어 오던 <금척설화>는 조선 창업 이후 이성계의 왕권 획득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상징물로 금척(金尺)이 제시되면서 다각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에는 이성계가 신인(神人)으로부터 금척을 받는 꿈을 꾸 후 천명(天命)이 있음을 깨닫고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조선 창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원형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물로 재현된다. 개국 초에는 악장가사 <몽금척(夢金尺)>과 당악정재 <금척무(金尺舞)>, 장편서사시 <용

비어천가(龍飛御天歌) 등 창엽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왕권신화로서 활용되다가 조선 후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왕조의 신성함과 민족적 자긍심을 확인하는 신성 상징물로 재현되는데, 임진·병자년 양란 이후의 <몽수금척송병서(夢受金尺頌并序)>, 일제강점기의 <해동죽지> 몽금척, 대한제국의 <금척대훈장>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줄거리 『동경잡기(東京雜記)』에 실린 금척원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라의 왕이 황금으로 된 자를 하나 얻었는데, 사람이 죽거나 병들었을 때 이 자를 가지고 몸을 재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병든 사람은 일어났으므로 나라의 보배가 되었다. 중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진상을 요구했으나 신라의 왕은 주지 않으려고 이곳에 숨긴 뒤 산을 30여 개나 만들고 원사(院舍)를 세웠다. 혹은 신라의 시조가 미천할 때 꿈에 신인이 하늘에서 내려와 황금 자를 주며 말하기를 “너는 문무에 뛰어나고 신성하여 백성이 바라본 지가 오래되었으니 이 황금 자를 가지고 금주발을 바로잡으라.”라고 하였는데 꿈에서 깨어나 보니 황금 자가 손에 들려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금척설화>는 민간에서 다음과 같은 민담적 유형으로도 전승되고 있다. 옛날에 조실부모하고 남의 집 심부름이나 하던 아이가 잠을 자다가 대뿔을 꾸고는 혼자 웃었다. 옆에서 자던 어른이 왜 웃는가 물어도 웃기만 하여 관장에게 혼내 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물어도 웃기만 하니 관장도 화가 나서 아이를 옥에 가두었다. 하루는 큰 족제비가 새끼들을 데리고 옥 안으로 들어오기에 아이가 돌을 던졌더니 새끼 한 마리가 죽어 버렸다. 잠시 후 큰 족제비가 번쩍거리는 자를 물고 들어와서 새끼의 몸을 가로, 세로로 채니 죽었던 새끼가 벌떡 일어났다. 이를 보고 있던 아이가 바닥을 탁 치니 어미 족제비가 놀라서 황금 자는 버려두고 새끼만 데려갔다. 아이는 황금 자를 주워 웃고름에 묶어 두었다. 마침 관장의 무남독녀가 죽게 되었다고 야단이 나서 아이는 황금 자를 가지고 처녀의 몸을 재 살려냈다. 그러자 관장은 그를 사위로 삼았다. 공주가 죽자, 나라에서도 소문을 듣고 그를 부르니 황금 자로 공주를 살려내고 부마가 되었다. 궁궐 같은 집에서 두 부인의 시중을 받으며 살게 된 그는 금 대야와 은 대야를 놓고 좌우에서 자기 발을 씻어주는 두 부인을 보며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제야 자기가 예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 주었다.

변이 <금척설화>는 전설적 유형(금척원 유래), 신화적 유형(몽금척), 민담적 유형(양국부마 된 머슴)으로 존재한다. 금척을 핵심 화소로 삼으면서 독자성을 지닌 다양한 설화유형의 존재는 <금척설화>의 변이를 유형군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각권 차원의 변이는 민담적 유형에서

나타나는데, 전설이나 신화적 유형에서는 정형성을 보여 주던 금척 모티프가 생명 소생이라는 의미 기능을 부각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이된다는 점(황금 자, 막대기, 비늘, 구슬, 풀 이파리, 바늘 등), 주인공의 꿈 내용이 큰 행운의 예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이되고 있다는 점, 각편에 따라 결혼상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양국 부마가 기본이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분석 <금척설화> 유형군의 핵심 화소인 금척이 생명을 관장하는 주보이자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표상되는 이유는 ‘자’의 문화상징에서 비롯된다. 사물을 재고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자는 문화의 척도이자 문물제도와 규범의 기준이다. 따라서 왕권 사회에서는 규범의 척도를 관장하는 존재가 제왕이므로 금척이 왕권 상징물이 되는 것이다. 금척원 유래담은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지는데, 금척의 생명 소생 능력과 왕권 상징을 함께 보여 주고 있어, 제정일치시대 무당임금의 면모가 엿보인다. 반면, 금척의 왕권 상징성만 부각하는 <몽금척>의 경우는 유가적 이념에 기반한 조선시대 지배층의 세계관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 준다. ‘신인이 내려준 금척’이 천명사상에는 부응하지만 유가적 합리주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해결책으로서 꿈이라는 매개 항을 설정하여 어긋남을 해소하고 있다. 이후 <몽금척>은 지배층들을 중심으로 한 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신화체계로 자리하면서 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구비전승되는 민담적 유형은 꿈 화소를 서사의 원동력으로 활용한다. 꿈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고 꿈에 관한 속신을 지켜 낸 결과 주인공이 맞이하는 행복한 결말은 민중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이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금척을 이용한 ‘생명 되살리기’라는 것도 행복한 삶에 대한 민담 향유층의 가치 지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나아가 조실부모하고 결머슴을 살던 최하층민이 자신의 능력으로 두 나라의 부마가 되고 권력의 최상층에 편입하여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발상은 민담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담대한 상상력의 소산으로, 이를 통해 상하, 강약의 대립 구도 속에 담겨 있는 통념적 우열 관계를 전복시키는 민중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금척을 핵심 화소로 공유하면서도 독자적 성격을 지닌 신화적, 전설적, 민담적 유형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어 다른 설화와 달리 유형군 차원의 존재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의의 향유층의 역사적·계층적 성격과 설화의 전승방식, 의미 지향, 유형적 성격이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 주는 유형이므로 역사적 맥락에서 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이 주목된다. 나아가 조선시대 문화 전반에서 다양한 장르로 재현되면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했던 문화 원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출처 東京雜記, 조선대세시기4(국립민속박물관, 2007), 한국구비문학대계(1980~1988) 7-3, 620,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층위(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서대석, 세창출판사, 2011).

필자 강진옥(姜秦玉)

용어

기능

機能, function

정의 설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불변적인 행위.

내용 프로프(V. Propp)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으로 ‘기능은 주인공의 행위로, 행위 속에서도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규정된 주인공의 행위로 이해된다.’라고 한다. 즉, ① 차르가 영웅에게 독수리를 주었다. ② 노인이 수채코에게 말을 주었다. ③ 마법사가 이반에게 작은 배를 주었다. ④ 공주가 이반에게 반지를 주었다. 이들 네 문장은 각각 다른 인물의 이야기지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행위를 공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네 문장은 ‘중여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조를 형성하는 불변적인 행위가 기능이며, 이 기능의 배열은 고정적이다. 프로프는 이 기능의 수가 31개(부재, 금지, 위반, 정담, 누설, 사기, 공모, 악행·결핍, 중개, 반작용, 출발, 원조자, 영웅의 반응, 획득, 이동, 투쟁, 표지, 승리, 불행·결핍의 제거, 귀환, 추적, 구제, 남몰래 도착, 근거 없는 주장, 난해, 해결, 인증, 폭로, 변신, 처벌, 결혼)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핍’의 기능이라고 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용퇴치자(dragon slayer)설화>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이 기능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필자 노영근(盧映根)

자료

기문

奇聞

정의 조선 후기 간행된 작가 미상의 소화집(笑話集).

내용 『기문(奇聞)』은 1958년에 민속학자료간행회에서 간행한 유인본(油印本) 『고금소총(古今笑叢)』에 수록되어 있다. 총 6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본으로는 서강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본이 있다. 서강대본은 김태준(金台俊)이 당시 문학 연구와 혁명 사이에서 고민하던 1937년에 필사한 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문』의 편찬 시기는 19세기 말엽으로 추정된다. 『기문』에는 성(性)이야기와 동물 우화가 전체의 60~70%를 차지하며 중심을 이룬다. 찬자(撰者)가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욕구와 동물의 입을 빌어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할 목적으로 이런 글쓰기 방식을 취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 가운데는 소설이나 야담과 관련된 것들도 다수 있다. 서사문학이 소설적 지향을 보이던 조선 후기의 현상을 『기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 패설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장르 혼효에 따른 글쓰기의 변모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자료

기문총화

紀聞叢話, 記聞叢話

정의 조선 후기에 편찬된 편자 미상의 야담집(野談集).

내용 『기문총화(記聞叢話)』는 계서(溪西) 이희평(李義平)이 1828년에 편찬한 『계서잡록(溪西雜錄)』을 중심에 두고 1833년에서 1869년 사이에 집성된 야담집이다. 4권 4책으로 되어 있다. 연세대본이 가장 선본(善本)이다. 1권에는 183편, 2권에는 78편, 3권에는 56편, 4권에는 320편으로, 총 637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 『계서잡록』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권은 2권과 3권이다. 『계서잡록』 2~4권에 실린 이야기는 총 158편인데, 『기문총화』 2~3권에는 이 중 134편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만 당쟁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입장을 표한다는 점 등에서 『계서잡록』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기문총화』는 현재까지 소개된 야담집 중 가장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는 제목을 달리한 이본들도 많은데, 『해동기화(海東奇話)』, 『아동기문(我東奇聞)』, 『선언편(選諺篇)』 등 20여 종이 넘는다. 우리나라 야담의 소통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야담집이다.

필자 김준형(金俊亨)

민담

기인담

奇人談

정의 성격이나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한 설화.

내용 기인(奇人)이란 ‘성격이나 말, 행동 따위가 보통 사람과 다른 별난 사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다. 기인담은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설화에서 기인은 ‘별난’ 정도가 아닌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성격과 행동거지를 보여 주고 있기에 기인담(奇人談)은 초상식적(超常識的)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을 기준으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것과 무명씨에 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내용을 기준으로 유래에 관한 것과 기인적 행태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기인담의 주인공은 역사적 인물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기인담은 구비설화보다는 문헌설화에 더 많이 전해지고 있다.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휘집(東野彙集)』 등 조선 후기 3대 설화집을 비롯하여 여러 문헌설화집에 실려 전하는 것이 18편이며, 구전설화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3편이 전하고 있다. 구전설화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구연자나 조사자가 기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것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자료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세 편의 구비자료 중 한 편은 이진원(李振原)이라는 실존인물에 관한 것이고, 한 편은 패잔 왜병에 대한 것이어서 무명씨에 대한 것이라 할 만한 것은 한 편뿐이다. 두 편의 역사인물 중 이진원은 원주 이씨 세보에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전라남도 구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패잔 왜병의 이야기는 문헌설화로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기인담이 문헌과 친밀한 설화임을 알 수 있다. 문헌설화로 전하는 기인담의 주인공은 한명회(韓明澮), 송익필(宋翼弼), 김홍도(金弘度), 이정구(李廷龜) 등 조선시대 관직에 나갔던 인물들도 있으나, 이지함(李之菡), 이현배(李玄培)의 서자(庶子), 이정구의 사자관(寫字官) 등 하급관료나 은둔자들이 대부분이다.

기인담의 내용은 기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래를 설명하는 것과 기인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대별된다. 유래는 주로 외형적 특성으로 설명된다. 신체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일곱 달 만에 태어난 한명회를 가족들이 기르려 하지

않자, 늙은 계집종이 해진 솜옷으로 싸서 보호해 주었다. 한명회가 며칠 후 점점 자라는데 배와 등에 별자리 모양의 검은 사마귀가 있어서 기이하게 여겼다고 한다(『기문총화(記聞叢話)』). 어중익(魚重翼)은 고려 태조 때 벼슬한 인물로 나면서부터 체모가 기이하고 거드랑이에 비늘이 있었다. 원래 지씨(池氏)였으나 태조가 어씨성(魚氏姓)을 내렸다(『계서야담』). 이탁(李鐸)이 태어났을 때 용의 형상이었다. 이불을 덮어 두자 잠시 후 아이가 되었다(『기문총화』).

기인의 행적은 주로 관직에 나아가지 않은 인물들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모두 세속적인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기행(奇行)을 펼치고 있다. 신만(申曼)은 얼굴을 한 번 보거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사를 알 수 있었다. 학문을 우습게 여기던 신만은 송시열(宋時烈)과 친했는데, 어느 날 송공(宋公)을 찾아가 배움을 청한다. 송시열이 며칠 동안 학문을 논했더니 갑자기 하품을 하며 다리를 뻗고 누워서는 이학(理學)이 개다리 같다고 조소하였다(『매옹한록(梅翁閑錄)』). 이지함이 어느 날 사기로 된 샷갓을 쓰고, 긴 새끼줄을 허리에 매고 이이(李珥)를 방문하였다. 이이가 그 까닭을 묻자 찬 벽에 누웠다가 바람을 맞아 간질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더니 이런 모양으로 산사에서 면벽했더니 낫더라고 했다(『동괘낙송(東樞洛誦)』). 이러한 설화들이 기인의 행적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러한 기인담들은 모두 세속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 질서에 얽매어 살아가는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문헌설화가 유통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으로 보면, 규범에 더욱 민감했던 식자층의 억눌린 욕망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의 기인담과 유사한 것으로 이인담(異人談)이 있다. 두 가지 다 초현실적인 사유체제와 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 준다. 또한 신이담(神異談) 중 초인담(超人談)에 속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기에 양자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인(異人)의 사전적인 뜻은 재능과 관련된 명칭이다. 이인담은 문헌설화에도 등장하지만, 구비설화로도 상당수 전승되고 있다. 인물과 관련한 설화의 대부분이 이인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또한 주인공의 범위가 며느리, 노비, 사위를 비롯하여 귀족 양반에 이르기까지 기인담에 비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내용에서도 이인담은 이인 주인공이 펼치는 활약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내용의 측면이 기인담과 이인담의 변별점이 될 것이다. 즉, 주인공이 세상과 맺는 관계가 단절적인가 아닌가 하

는 점이다. 기인은 세상과 관계를 맺지 않는 인물이다. 자신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에 반해 이인은 자신의 자질로 세상의 문제와 대결을 벌인다. 이로써 재난을 극복하기도 하고, 불의를 징치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민담

기지 있는 부인

정의 원님이 이방 부인의 미모에 반해서 부인을 빼앗기 위해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하나, 이방 부인의 기지로 원님을 제압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어떤 원님이 도입한 후 이방의 부인이 절세미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부인을 빼앗고 싶어진 원님은 이방에게 내기하자고 한다. 원님은 자신은 많은 돈을 걸 테니, 이방에게는 부인을 걸라고 명령한다. 이에 이방은 할 수 없이 제안을 수락한다. 이방이 집에 와서 걱정하자, 부인은 사연을 물어보고는 웃으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방 부인이 원님에게 가서 자신이 남편 대신 내기를 하러 왔다고 하자, 원님이 수수께끼를 낸다. 하루에 해가 몇 리쯤 가는가를 물었더니, 이방 부인은 오십 리밖에 못 간다고 대답한다. 원님이 이유를 묻자,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나서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길로 오십 리 떨어진 친정에 가서 해가 빠지니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하여 원님이 진다. 이번엔 부인이 문제를 내겠다고 자리에 서서 “제가 이 문으로 나가겠습니까? 저 문으로 나가겠습니까?”라고 묻자, 답을 못한 원님은 탄복하고 부인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다.

변이 앞 줄거리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대표적인 설화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략의 구조는 비슷한데, 원님이 왕인 예도 있고, 돈이 많은 관사 혹은 서당선생이 학생의 아내를 탐내는 예도 있다. 또한 수수께끼의 내용에 따른 변이가 있는데, 원님이 “솔밭의 나무가 몇 그루냐?”라고 묻자, 이방 부인은 “뽕뽕하게 썼으니 백백이면 이백이고, 칠칠하게 썼으니 칠칠은 사십구이므로 나무는 모두 이백마흔아홉 그루”라고 대답한다. 또 배나무 가지에 앉은 새의 수를 물어보니, 이방 부인은 “배나무의 배를 달아 보면 닷섬 닷 말이니 새가 닷섬 닷 말”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왕이 “내 머리가 몇 근이나 나가느냐?”라고 묻자, “일곱 근 반”이라고 대답해 왜 그러냐

참고문헌 이야기문학 가을같이(조희용, 글누리, 2008), 이인설화 출현의 사상적 배경에 대하여(최삼룡, 어문논집18, 민족어문학회, 1966), 조선조문헌설화 집요1·2(서대석, 집문당, 1991·199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필자 노영근(盧暎根)

고 물어보자, 이방 부인이 잘라서 달아 보자고 해서 왕이 진다. 이런 상황이 더 노골적으로 변이된 것은 자신의 남근이 몇 근이 나가겠는가 하는 수수께끼인데, 이방 부인은 엇그제 달아 본 소의 성기와 비슷하다며 두 냥 반일 것이라 대답해 왕을 제압한다.

분석 이 설화는 지배층이 권력을 이용하여 민간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사건을 담은 설화로 관탈민녀형(官奪民女型) 설화로 불리며 연구되었다. 유사한 내용을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도미의 처〉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원님과 같은 권력자가 미모에 반해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남성의 부인을 빼앗고자 하지만, 권력으로만 뺏어 올 수 없기에 내기담의 서사가 결합한다. 여기서 ‘내기’라는 장치는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가리고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는 기제이다. 이 설화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수수께끼로 대표되는 언어로 팽팽하게 대결하는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수수께끼 시험에서 질문자의 역할을 맡은 원님은 대답자의 위치에 있는 이방보다는 우월한 입장이다. 배나무에 앉은 새의 수를 묻거나 해가 몇 리를 가는가 하는 수수께끼는 질문자 자신도 인식 능력의 한계로 알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남성이 더 이성적이라는 점을 드러내어 지혜 겨루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이고, 더구나 남근이 몇 근인가 하는 것은 성 담론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어 침묵하게 하거나 위협함으로써 승리를 얻고자 하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이방 부인은 남성인 원님이 관념적이고 비 노동적이라는 점에 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경험에 근거해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의 신체에 관한 것은 동물의 신체와 동등하게 취급해 성적 의미를 제거한 후 사물화해서 해결한다. 나아가 이방 부인은 원님과 같은 방식의 대답하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서 원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방 부인의 기지는 여성들에게 남성 우월주의를 깨는 통쾌함을 맛보게 한다. 반대로 원님으로서는 부당한 욕망과 허위 의식을 경계하는 윤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특징 관탈민녀형 설화군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절’이라

는 측면이 부각되어 열녀이야기의 근원이 되기도 했지만, 여성의 지략과 지혜 측면이 강조되면서 우부현녀형(愚夫賢女型) 설화 중 하나로 분류됐다. 우부현녀형의 대표적 설화인 <우렁각시>의 변이에도 원님과 내기를 하게 되고 부인의 도움으로 내기에서 승리하는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설화의 구성을 보면, 전반부는 우부현녀형 설화군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후반부는 지혜담의 골격이 중심이 되면서 여성이 전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원님을 상대로 어떤 말하기 방식으로 대결해 승리하는가가 이야기를 풀어 가는 핵심이 되면서, 기존의 우부현녀형 설화들보다 여성의 적극적인 지혜와 주체성이 드러난다.

의의 이 설화의 전승을 통해 권력이나 글재주와 같이 남성우위를 내세워 남의 여자를 빼앗으려는 불합리한 세태를 고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원님으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권력을 여성의 경험이 녹아 있는 지혜로 다스림으로써 통쾌하게 조롱하고 풍자한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여성을 남성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던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고, 남존여비와 같은 전근대적 윤리가 이방 부인의 기지 혹은 지혜를 통해 비판받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1, 221; 6-6, 585; 7-11, 732.

참고문헌 원님과 이방부인의 내기담에 나타난 부인의 문제해결적 말하기 전략을 통해서 본 여성(최경숙,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9), 원님설화의 유형과 전승의식(이희영,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정은(金廷恩)

전설

기지시줄다리기 유래

정의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전해오는 줄다리기의 유래전설.

역사 조선시대 기지시에 시장이 형성되던 시기에, 이 지역의 지리학자가 먼천군의 지세에서 오는 나쁜 기운을 퇴치하고 지역의 안정을 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설화로 보인다.

줄거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기지시리에 과거 시험만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선비가 귀향했다. 선비는 마을 산인 국수봉에 올라 자신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 마을에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천년 묵은 지네가 심술을 부려 생기는 일이라는



줄머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국립민속박물관



사가행진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국립민속박물관

것을 알았다. 꿈속에서 용이 노인으로 나타나 정월 대보름날 자정에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면, 그 꽃에 불을 질러 아가씨 입에 넣고 피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국수봉에 올라가 그 노인이 시킨 그대로 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열두 발 달린 구렁이가 나타나 천년 묵은 지네와 싸워 지네를 죽였다. 그 뒤 선비에게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 지네는 죽었지만 암컷과 새끼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며,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율년마다 한 번씩 줄다리기를 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노인이 시킨 대로 지네 모양으로 줄을 만들어 산 능선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변이 이 전설은 이 지역의 지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틀못'이 '틀모시', '틀무시'로 음운 변천하여 '틀'을 '틀 기(機)'로, '못'을 '못 지(池)로 혼차하고, '시'를 '시장 시(市)로 음차하여 생겨났는데,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이 '틀'의 의미를 '베를 짜는 틀'이라는 뜻의 '기(機)로 해석하면서 '옥녀직금형설(玉女織錦形說)'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틀못이'의 '틀'은 논들이나 밭들과 같은 독을 가리키며 '독방 아래 좋은 샘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진은 닭이고 기지시는 지네로 당진장은 흥하고 기지시장은 망한다."와 같은 전설도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전설은 먼천군 전체의 산세가 풍수지리상 지네 모양이었기에 형성된 것으로, 지기를 누르기 위해 형성된 지역전설이다. 땅이 솟구쳐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불안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市長)도 먼천군의 중앙산 능선에 사람들을 모아 지기를 누르려고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줄다리기로 이 지역을 평안하게 하려던 전설이다.

특징 이 전설에는 흔히 풍수지리적으로 지네 형국이 갖는 속성, 즉 밭이 많아 땅이 솟구쳐 일어난다는 불안 심리를 없애고자 용이 등장한다. 그리고 상인들이 시장을 번영시키기 위해 하던 줄다리기가 줄을 매우 굵고 길게 하여 지역 잔치로 바뀌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의의 이 전설은 기지시줄다리기를 더욱 신비롭게 하며 지네 모형의 줄로 형상화해 새로운 형태의 재액 줄다리기 유래를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지리 환경 토대 속에 상인들의 기획과 이해관계로 형성된 이야기로 우리나라 줄다리기 유래담의 새로운 형태이다.

출처 기지시줄다리기(명문사, 1986), 기지시줄다리기에 얽힌 전설(당진향토문화연구소, 1991), 기지시줄다리기(오석민 외, 민속원, 2006), 제75호 당진군 기지시 줄다리기 실측조사보고서(당진군, 2004), 제145호 기지시줄다리기(문화재관리국, 1981).

참고문헌 기지시줄다리기의 재조명(이인화, 고고와민속, 한남대학교박물관, 2001), 중요무형문화재 75호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 재검토(이인화, 실천민속학 13, 실천민속학회, 2009), 한일 양국 민속줄다리기에 관한 고찰(이재철,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필자 이인화(李仁和)

전설

김녕사굴

金寧蛇窟



김녕사굴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문화재청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의 사굴(蛇窟)과 관련된 전설로서, 조선 중종(中宗) 때 서련(徐麟) 판관이 사굴에 사는 큰 구렁이를 퇴치했다는 전설.

줄거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마을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큰 뱀이 살았다고 하여 '뱀굴(蛇窟)'이라고 한다. 이 뱀에게 매년 처녀 한 사람을 제물로 올려 큰굿을 했다. 만일 굿을 하지 않으면 뱀이 곡식밭을 다 휘저어 버려 대흥년이 들었다. 그런데 양반집에서는 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평민의 딸이 희생되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평민의 딸은 시집을 갈 수가 없었다. 그즈음, 조선 중종 때 서련이라는 판관이 제주에 부임해 왔다. 서 판관은 뱀굴의 소문을 듣고 괴이한 일이라며 분개하였다. 곧 술·떡·처녀를 올려 굿을 하라 하고, 몸소 군졸을 거느리고 뱀굴에 이르렀다. 굿이 시작되어 한참이 지나자 과연 어마어마한 크기의 뱀이 나와 술과 떡을 먹고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하였다. 이때 서 판관은 군졸과 함께 달려들어 창검으로 뱀을 찔러 죽였다. 이것을 본 심방이 "빨리 밭을 달려 성(현재의 제주 읍성) 안으로 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선 안 됩니다."라고 일러 주었다. 서 판관은 말에 채찍을 놓아 무사히 성의 동문 밖까지 이르렀다. 이때 군졸 한 사람이 "뒤쪽으로 피비(血雨)가 옵니다."라고 외쳤다. "무슨 비가, 피비가 오는 뱀이 있느냐?"라고 하며 서 판관이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마자 서 판관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다. 죽은 뱀의 피가 하늘에 올라가 비가 되어 서 판관의 뒤를 쫓아온 것이다.

변이 <김녕사굴>과 관련된 이야기의 변이로 판관 서련 대신에 이삼만(李三萬)이 등장하는 것도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삼만이 뱀을 죽이고 관아 마당에 이르러 안심하고 돌아보자 그만 죽사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 뒤로 정월 사일

(巳日)에 종이에 ‘李三萬’이라 써서 뱀이 잘 다니는 곳에 붙이면 뱀이 무서워서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 이 전설은 용기와 지혜가 있는 관장이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악을 제거하고 백성을 살린 구조이다. 한편 제주도의 큰 곳에서 진행되는 뱀굿으로 ‘용놀이’가 있다. 이 곳은 서런 관이 김녕사굴의 뱀을 퇴치하는 과정이 굿으로 전승되는 사례이다. ‘용놀이’는 신들을 모시는 제장에 청룡·황룡의 두 구렁이가 들어서 있는 모습을 설정한다. 시각적 효과를 위해 양쪽 당클(높이 매어 놓은 선반)에 긴 광목천을 바다까지 늘어지게 드리워 놓는다. 당클이 하늘이고 바닥이 땅이라고 할 때, 구렁이의 머리는 하늘에 꼬리는 땅에 드리워진 것이며, 이는 신성한 제장이 부정을 탄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심방이 이 두 구렁이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하고, 잠이 든 뱀 ‘친구아 구 대맹이’를 신칼로 죽이고, 뱀의 꼬를 후벼 파서 약으로 파는 뱀장사 놀이를 한 뒤, 제장에서 뱀을 퇴치하여 치위 버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의 서런 관관이 김녕사굴의 큰 뱀을 죽였다는 <김녕사굴전설>은 제주도 큰굿의 소재자인 ‘제오상계’에 큰 구렁이를 잡는 놀이굿 ‘용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1, 39; 191; 9-2, 637; 719.

참고문헌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필자 문무병(文武秉)

전설

김덕령

金德齡

정의 조선 중기 임진왜란 시기에 활동했던 명장 충장공 김덕령에 대한 전설.

역사 김덕령은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과 『김충장공유사(金忠壯公遺事)』에 그 역사적 행적이 기록돼 있으며, 『동패낙송(東裨洛誦)』과 『대동기문(大東奇聞)』,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회집(東野彙輯)』과 같은 야담집에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다. 구비설화는 연고지인 광주광역시 일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많은 자료가 전승된다. 임진왜란 당시부터 그 용맹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다 하는데, 이몽학의 난에 연루돼 처형당한 뒤로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설

화되어 널리 퍼지면서 강한 전승력을 발휘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뉘힘내기> 같은 광포전설 유형이 언제 김덕령 전승에 결부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김덕령 사후의 일일 가능성이 높다.

줄거리 김덕령은 무등산 인근의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중국의 명인이 큰 인물이 날 명당을 잡아 두었는데 김덕령의 부친이 거기 조상의 묘를 쓴 뒤 김덕령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민첩하고 용맹이 뛰어났다. 친구를 물고 간 호랑이를 쫓아가서 친구를 빼앗아 올 정도였다. 남다른 용력을 지녔던 김덕령은 씨름판을 모두 휩쓸면서 최고 장사로 이름을 날렸으나, 씨름판의 황소는 그의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힘자랑을 우려하던 누이는 어느 날 남자로 변장하고 씨름판에 나서서 김덕령을 놓는다. 자신을 이긴 사람이 누이라는 사실을 안 김덕령은 목숨을 건 시합을 청한다. 김덕령은 하루 아침에 무등산을 들고 오고 누이는 그 사이에 배를 짜 도포를 짓는 시합이었다. 누이가 일부러 옷을 마무리하지 않은 사이에 집에 도착한 김덕령은 자기가 이겼다며 누이를 죽이고 만다. 그 뒤 임진왜란이 나자 사람들은 김덕령한테 전쟁터에 나서서 왜적과 싸워 달라고 청한다. 마침 친상을 당한 몸이라 살생을 할 수 없었던 김덕령은 신이한 능력으로 적을 겁박하여 물리칠 뿐 왜군을 죽이지 않는다. 그는 결국 왜군을 죽이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역적으로 몰려 조정에 잡혀가고 만다. 조정에서 김덕령을 죽이려 했으나 칼로 내려치는 등 갖은 수단을 써도 죽일 수가 없었다. 김덕령은 ‘만고충신 김덕령’ 현판을 요구하여 받아낸 뒤, 오금에 있는 비늘을 때리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조정에서는 김덕령을 죽인 뒤 만고충신 현판을 깎아 없애려 했으나 글자가 더 뚜렷이 돌아나 없앨 수 없었다고 한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김덕령에 관한 여러 구비전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연고지인 광주 인근 지역에서는 위 사연이 두루 전승되며, 화살보다 빠른 용마를 실수로 죽였다고 하는 <말무덤전설>이 김덕령 일화로 전해지기도 한다. 이에 비해 김덕령의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주로 그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사연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가 역적으로 몰린 과정이나 죽음을 맞은 방법은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만고충신’(또는 ‘만고효자충신’) 현판을 얻은 뒤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내용은 공통된다. 한편, 문헌설화에 수록된 <김덕령설화>는 구비설화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동패낙송』에는 김덕령이 잡혀가던 중 수레를 깨뜨리고서 친구와 대작한 뒤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와 산중 노인이 용력이 뛰어난 어린 아들을 통해 김덕령의 방자함을 경계했다는 이야기, 김덕령이 추노(推奴)에 나서서 흉악한 종들을 징치했다

는 이야기 등이 실려 있는데, 추노담은 문헌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분석 구비전승의 세계에서 김덕령은 임진왜란 최고의 영웅으로 손꼽힌다. 그의 용맹은 당할 자가 없어서 제대로 전쟁에 나서기만 했으면 왜란을 손쉽게 종결시켰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는 왜군의 침략에 속절없이 당한 데 따른 억울함과 상실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 더 결정적인 지점은 조정에서 김덕령이 충신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기어이 죽였다고 하는 부분에 있다. 지배 권력층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 위해 백성의 신망을 받는 장군을 죽였기에 나라가 속절없이 유린되고 백성이 죽어 갔다는 비판적 역사 인식이 깃들어 있다. 그러한 인식은 역사의 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김덕령이 만고충신 현판을 받고서 죽는 법을 알려 줬다든가 하는 구체적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만, 김덕령을 위험 인물로 여긴 조정에서 그를 이몽학의 난에 무리하게 연루시켜 처형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이는 전설이 허구적 설정 안에 역사의 핵심적 진실을 꿰뚫고 있음을 보여 주는 유력한 사례가 된다. 한편, 그의 좌절과 연결되는 <오뉘힘내기>나 <노인의 경계> 삽화(插話) 등은 그의 패배를 합리화하는 설정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그의 경솔함이 결국 세상에서의 좌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역사상 명장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초야에 숨어 있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이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다.

특징 김덕령은 이순신이나 광재우와 달리 임진왜란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에 관한 전설을 승장(勝將)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활발하게 전승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피해를 남긴 임진왜란의 비극을 응시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새겨볼 때 김덕령과 같은 비운의 인물이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덕령의 오금에 비늘이 달렸다는 설정은 거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야기장수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런 비범한 인물이 좌절하고 말았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의 시운이 맞지 않았고 또한 세상이 부조리했음을 보여 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김덕령전설>은 비극적 영웅형 역사인물전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민중의 비판적 역사 인식을 대변한다는 데 크나큰 문학적·역사적 의의가 있다. 고전소설 <임진록>에 수용되어 널리 읽히는 가운데 비극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에 한몫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출처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자료(신동훈, 집문당,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337; 6-2, 102; 6-9, 446.

참고문헌 김덕령설화 연구(임철호, 한국언어문학22, 한국언어학회, 1983),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훈, 집문당, 2002), 장수설화의 구조와 의미(강현모, 역락, 2004).

필자 신동훈(申東昕)

전설

김병연

金炳淵

정의 조선 후기의 시인 김병연(金炳淵, 1807~1863)에 얽힌 설화.

역사 <김병연설화>는 그가 스무 살 때 강원도 영월군 동헌에서 실시한 백일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백일장에서 나온 시제(詩題)가 홍경래의 난 때 투항한 조부 선천부사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이었다. 나중에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인 것을 알고부터 김병연은 조상을 욕한 죄와 폐족의 후예이므로 버슬길이 막혀 있음을 알고는 방랑길에 들어섰다. 그로부터 선일곱 살로 죽을 때까지 김병연과 관련된 일화를 중심으로 설화는



김삿갓 유적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2005.1.17. 시흥

전개된다. 설화는 거의 그가 지은 한시(漢詩)를 중심에 두고 배경설화로서의 양상을 보인다. 샷갯을 쓰고 다녔으므로 설화에서는 김병연을 김삿갯 또는 김립(金笠)으로 부른다.

줄거리 이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만 38편이 채록될 정도로 그 양이 무척 많다. 그 가운데 〈서생들의 이를 뺨 중을 혼내다〉라는 설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김삿갯이 남루한 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가다가 어느 서당에 들렀다. 그런데 서당 학동들의 이가 모두 빠져있어서 금강산의 풍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느 암자에 사는 중의 소행이었다. 암자 구경을 간 서당 아이들과 글 내기를 해서 생치(生齒)를 뽑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니 아이들의 이가 다 빠지고 말았다. 김삿갯은 중의 소행을 쾌쩍하게 생각해 이튿날 암자에 찾아갔다. 남루한 옷차림을 한 김삿갯을 본 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 짓기 내기를 하였다. 김삿갯이 계속 이기자 중은 몇 개의 생리를 아이들에게 뽑혔다. 결국 중은 김삿갯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내기를 안 하겠다고 하였다. 김삿갯은 학동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변이 이 설화의 원형은 한시로부터 비롯한다. 김삿갯은 한시를 잘 지어서 위기를 모면하고, 어려운 민중을 도와주고, 못된 사람을 혼내주기도 한다. 위낙 한시를 잘 지어 한시로 예언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재주도 있었다. 김삿갯 한시의 중심은 세상에 대한 풍자와 놀림이다. 그래서 육담을 섞어서 조롱한 예가 많다. 반면에 시로써 한 시대를 산 김삿갯이지만, 여인이나 어린아이들에게 호되게 당한 일화도 있다. 또한 한시가 빠진 설화도 가끔 등장하는데, 할머니로 둔갑한 여우를 알아보고 죽인 설화, 처녀 사공의 말대꾸에 당한 설화가 이에 해당한다. 〈김삿갯설화〉는 광포설화이지만 굳이 지역적 특성은 띠고 있지 않다. 어느 지역을 대입해도 이야기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다.

분석 김삿갯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인물설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설화는 모두 김삿갯이라는 인물의 특성을 강조한다.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년 김삿갯, 신통력을 지닌 김삿갯, 의협심이 많은 김삿갯, 예언을 할 줄 아는 김삿갯,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김삿갯, 천재시인 김삿갯, 풍자시인 김삿갯, 풍류시인 김삿갯 등이 그러하다. 설화에서 김삿갯은 어디 한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방랑을 일삼으며,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지니지 않은 그야말로 걸인시인으로 나온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불쌍하고 힘없는 민중의 입장에 서 있으며, 인륜을 그르치거나 부당한 행위를 보았을 때는 비분강개하여 풍자와 익살로 가르치고 질타하

는 지사적(志士的) 인물로 그려진다. 김삿갯 당대의 인물인 황오(黃五)의 〈김사립전(金莎笠傳)〉에는 김삿갯이 술을 좋아하고, 광인(狂人)처럼 해학을 즐기고, 시를 잘 짓고, 술에 취하면 가끔 통곡하며, 과거를 보지 않은 기인이었다고 했다. 신석우(申錫愚)의 『기김대립사(記金籐笠事)』에서도 비슷한 평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입힌다고 했다. 그리고 더럽고 남루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오기만 하면 음식을 대접하고 머물러 묵게 했으며, 서당 학생들은 그의 시를 베끼면서 공부한다고 했다.

〈김삿갯설화〉는 그의 시와 함께 이응수의 『김립시집(金笠詩集, 1939)』에 실린 이후 십여 종이 더 나왔으며, 논문과 저서 또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연구 내용은 대부분 김삿갯의 생애와 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시를 짓게 된 일화를 통해서 김삿갯의 인물을 연구하기도 한다. 김삿갯의 생애는 시가 주축이 되므로 연구 경향도 시가 중심에 놓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향간에 전하는 김삿갯의 시는 김삿갯이 꼭 지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른 이의 작품이 풍자와 해학의 경향 때문에 김삿갯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설화를 구연하면서 구연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가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다.

김삿갯의 생애와 설화는 또다시 수십 종의 소설 〈김삿갯〉으로 발간되어 대중에게 읽히고 있으며, 대중가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김삿갯이 태어났다는 경기도 양주시에서는 학술대회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생가 터를 찾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김삿갯의 무덤이 있는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하동면을 김삿갯면으로 고치고 김삿갯 축제, 김삿갯 주막, 김삿갯 주(酒) 등을 만들었다. 매년 모든 참가자가 샷갯을 쓰고 죽장을 들고 두루마기를 입은 채 김삿갯처럼 방랑길을 걷는 걷기 행사도 치러진다.

특징 이 설화는 당대의 시대의식을 잘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곧 방랑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어 시로써 거침없이 비판한다. 설화에는 언제나 시가 중심에 놓이고, 시를 짓게 된 사연이 이야기된다. 일종의 운문과 산문의 결합이라는 것이 〈김삿갯설화〉의 또 다른 특징이다. 시를 담지 않은 설화라 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풍자와 해학이 넘쳐 읽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터트리게 한다. 그리고 언제나 힘없고 가난한 민중의 편에 서서 이들을 대변하는 문화영웅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그리고 설화 속에 담긴 그의 시는 정통 한시의 형태를 벗어나 파자시(破字詩), 육두문자, 이두식 표현 등을 활용해서 말하고 싶은 의도를 표현한다. 김삿갯의 행각과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 방법이다.

의의 시대의 불합리를 풍자하고 조롱하는 시대정신을 잘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통 한시의 개념을 떠난 독특한 시 형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산문과 운문의 절묘한 조화를 꾀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는 달리 건강한 사회를 향한 열망이 도처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처 강원전통문화총서(김의숙·전성국, 국학자료원, 199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475; 1-4, 540; 671; 2-5, 430; 2-7, 108; 180.

참고문헌 김삿갯 구전설화(김의숙, 푸른사상, 2001), 김삿갯 시연구(박혜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김삿갯 연구(정대규, 문학아카데미, 1990).

필자 김의숙(金義淑)

전설

김부대왕

金傳大王

정의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敬順王, 재위 727~935)과 그의 아들 마의태자에 얽힌 설화.

역사 신라 경순왕과 마의태자는 신라의 마지막 임금과 태자라는 역사적 실체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둘 다 나라 잃은 한(恨)을 품고 있지만, 경순왕은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고려에 바쳤고, 마의태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나라를 잃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는 양상이 다르다. 〈경순왕설화〉는 호국용(護國龍) 모티프가 주 유형이고, 마의태자설화는 구국 활동에 초점이 주어져 있



김부탑
강원 인제군 남면 김부리, 2009.10.26, 이학주

다. 여기서 경순왕은 한자 표기가 김부대왕(金傳大王)이고, 마의태자는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김부대왕(金富大王)이라고 한다. 설화는 경순왕을 주축으로 이뤄지나 마의태자인 김부대왕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줄거리 〈김부대왕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그 중 〈김부대왕 호국용〉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설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울릉도 부근에 섬이 많아 왜구들이 그 섬을 기지로 하여 쳐들어 와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또한 경상북도 포항 부근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 물 때문에 농사 지을 땅이 없었다. 그러자 김부대왕은 자신이 죽어 용이 되어 섬들을 없애겠다고 하였다. 김부대왕이 죽은 후 손살맥이에 큰 뱀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모두 뱀이라고 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뱀 구경을 갔는데, 등에 업힌 손자 유금이 용님이라고 했다. 그러자 그 큰 뱀은 용이 되어 산과 섬을 쳐서 없앴다. 용이 울릉도까지 없애려 하자, 하늘에서 나라의 수구맥이니 치지 말라고 해서 멈췄다. 울릉도 밑으로 보면 그때 없어진 섬의 흔적이 보이고, 산을 쳐서 만들어진 평야는 할머니 등에 업혀 용님이라고 했던 아이의 이름을



김부대왕제 진설장면
강원 인제군 남면 김부리, 2009.10.26, 이학주

따서 '유금이들'이라고 한다.

변이 이 설화는 대부분 경순왕을 주인공으로 한다. 초기 설화는 호국용 계통이고, 이어서 미륵세계, 신비담, 서낭당신화들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경주시와 그 인근 지역에는 김부대왕이 죽어 왜구의 근거지인 섬들을 없애고, 산을 뚫어 유금이들을 만든 내력을 중심으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이때 중요한 화소는 뱀을 용이라고 불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백성들의 입장을 알아본 것이다. 보령시를 중심으로 전하는 설화는 미륵신앙으로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어느 날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있는 김 씨가 꿈을 꾸었는데, 황룡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 바다에 가서 자신을 건지라 했다. 그래서 김 씨가 바다에 가 보니 '호서옥마산 김부대왕지기(湖西玉馬山金傅大王之旗)'라는 깃발과 '경순대왕김부신주(敬順大王金傅神主)'라는 위패가 있어, 집에 모셨더니 집안이 풍족해졌다. 경기도 시흥시 주변에는 김부대왕을 모신 서낭이 있는데, 그 서낭을 중심으로 두 유형의 설화가 전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이렇다. 김부대왕은 나라의 운명이 다하자 시흥시 군자동에 와서 안씨 부인과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고 살다가 죽었고, 안씨 부인도 남편을 위하여 치성을 드리다가 죽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서희가 송나라 사신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안씨 부인의 영혼이 서희의 뱃길을 보호해 주었다. 그 은공으로 서희가 서낭을 지어 주었다. 강원도를 중심으로 전하는 <김부대왕설화>는 또 다른 양상을 띤다. 대부분 마에미륵불과 지명유래를 중심으로 변이되어 전승하고 있으며, 두드러진 점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설화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김부대왕설화>는 원주의 미륵산과 귀래면, 황산이라는 지명유래들에 얽혀 있고, 이규경의 <김부대왕변증설>에도 기록돼 있다. 이규경은 인제군에서 김부대왕을 모시며 제사한다는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인제군에는 경순왕 이야기도 전하지만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 이야기도 함께 전하고 있다. 그것은 학자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와 맞물려 국권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이처럼 건강부회한 것 같지만 심상치 않은 면도 있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김부대왕에게 의탁해서 자식을 낳고 대왕각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옥새를 보전하고 있다는 옥새바위 이야기도 있다.

분석 <김부대왕설화>는 일찍부터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호국용설화의 계통을 잇고 있으며, 그 변이가 새롭기 때문이다. 설화의 중심은 사람들이 큰 뱀이라고 칭할 때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유금이 용님이라고 말하자 바로 일어나 용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왕이 아무리 비약을 꾀하고 큰 뜻을 품어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

고 지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칠 때, 백성들의 뜻으로 행했음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다. 이 설화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곧 조상신과 미륵불 조성자 그리고 자녀, 서낭신으로서의 김부대왕이 그것이다. 조상신은 후손에 의해 지어진 사당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미륵불은 사찰을 중심으로 그의 자손들과 같이 설화로 전승되며, 서낭신은 김부대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 나라를 잃은 왕, 그래서 한을 품고 죽은 왕이라는 사실 때문에 신으로 모셔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낭신으로 모셔지는 것은 무속신앙의 일종이다. 인제군에서 김부대왕각을 중심으로 전승하는 설화는 일제강점기 때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마의태자로 전이돼서 전한다는 의견이다. 그 때문에 김부대왕(金富大王)으로 한자를 쓰는 <마의태자설화>는 대궐터, 산성, 군사훈련, 전투, 옥새의 모티프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마의태자설화>는 민중의 시대적 욕구와 역사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김부대왕설화>가 많이 전하는 까닭은 인구에 회자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고, 한이 많은 마지막 왕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다. 김부대왕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의미, 변이, 유형, 전승양상을 비롯해서 제의, 지명설화의 정착, 문화 콘텐츠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마의태자에 대해서는 소설과 희곡과 노래들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징 경순왕과 그의 아들인 마의태자의 설화가 같이 전승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유형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언급된 내용과 일치한다. 곧 경순왕을 주축으로 전승하는 것은 백성의 안위가 주요 모티프고, 마의태자를 주축으로 전하는 것은 구국에 있다. 경순왕과 마의태자들 다 김부대왕이라 일컬었으나 한자 표기가 다르다. 또 <문무왕설화>에서 볼 수 있는 호국용 모티프가 등장하나 유금이들, 서낭신, 미륵신앙 등으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의의 한(恨)이 많고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민속신앙의 신으로 모셔진다는 표본을 보여 주는 설화라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역사서에서 기록한 인물의 성격에 따라 설화의 전승이 이뤄지며, 같은 인물의 설화가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의의도 있다. 변이와 더불어 갖는 특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출처 강원도의 설화(강원일보사, 2007), 내 고장 안산(내고장안산편찬위원회, 안산문화원, 1990), 인제조상의 열(강원도인제교육청, 2000), 태백의 설화(강원일보사, 197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43; 124; 7-2, 47; 233.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五洲衍文長箋叢稿, 김부대왕전설의 형성과 변모(전신재, 강원민속학19, 강원도민속학회, 2005), 김부대왕제 연구(이학주, 동아시

아고대학25, 동아시아고대회, 2011), 김부사적기(리태두, 갑둔향토사적연구회, 1988),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필자 이학주(李學周)

전설

김삿갓

표본 김병연

전설

김선달

金先達

정의 평양 출신의 사기꾼 김선달에 관한 설화.

역사 김선달이 언제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19세기로 여겨진다. 1906년부터 연재된 한문소설 「신단공안(神斷公案)」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 20세기 초에 이미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자리 잡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김선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조선 초기 문헌설화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김선달이 이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줄거리 <김선달설화>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이야기이다. 김선달이 대동강에 나가서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주면서 다음 날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계획한 대로 다음 날 아침 대동강에 나가서 “물값을 주시오.”라고 하면서 미리 뿌려 놓은 밀친을 걷는다. 외지에서 온 돈 많은 행인이 이 장면을 보고 의아해하며 뭘 하나고 물어보자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고 있다고 대답한다. 욕심이 생긴 행인은 김선달에게 큰돈을 주고 대동강 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산 후, 다음 날 아침 대동강에 나가 물을 걷는 사람에게 물값을 달라고 한다. 아무도 돈을 내지 않자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외에도 김선달이 남을 속이고 득을 보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쉰 팔죽을 초 친 팔죽으로 파는 이야기가 좋은 예이다. 동지에 팔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쑤어서 쉬어 버리자 김선달은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간다. 손님에게 초 안 친 팔죽과 초 친 팔죽을 판다고 하면서 초 친 팔죽의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른다. 손님들이 초 안 친 팔죽을 주문하면 김선달은

촌놈이 어디 초 친 팔죽을 먹어 보았겠느냐며 무시한다. 촌놈이라고 무시당하기 싫었던 손님들은 모두 초 친 팔죽을 시키고 결국 김선달은 쉰 팔죽을 다 팔아 치운다.

돈을 벌지 않더라도 먹을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남을 속이는 예도 있다. 여관에 들어가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는 이야기가 그 예다. 김선달이 옆에서 자고 있는 중의 옷을 입고 나가서 개고기를 먹거나 같이 투숙하는 상제의 옷을 입고 가까운 기생집에 가서 놀고는 계산은 다음 날 아침에 하겠다고 한다. 상제로 행세하는 이야기에서는 담보로 상제의 건(巾)을 주고 가기도 한다. 아침이 되면 중이나 상제가 어쩔 수 없이 대신 돈을 낸다. 결국 김선달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지만 남이 그 대가를 치르고 망신까지 당한다.

분석 김선달은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규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건달형 인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일찍부터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한 인물형인 트릭스터(trickster)로 알려졌다. 트릭스터란 어떤 경계에서 인간 사회가 정하는 모든 범주나 개념을 초월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선달이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체계를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고를 꿰뚫는 능력이 탁월하다. 대동강 물을 판다든지 쉰 팔죽이 별미라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해도 상대가 쉽게 넘어가는 것은 외지에서 온 행인의 욕심이나 시골 사람들의 무시당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알고 이용했기 때문이다. 여관에서 남으로 행세하는 사기는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역시 김선달의 경계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관 주인이나 기생집 주인이 손님을 대할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과 ‘상제’, 즉 신분이나 계급과 같은 사회적 범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이다. 김선달은 그런 경계를 쉽게 넘나들기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징 한국 설화 인물 중에 김선달 외에도 방학중, 정만서처럼 다른 트릭스터가 존재하지만, 김선달은 이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먼저 사회적 지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동강 물이나 쉰 팔죽을 파는 이야기에서는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트릭스터 인물을 보아도 대부분 미친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김선달은 다소 다르다. 심지어 「신단공안」 <김봉본전>에 등장하는 김선달은 남다른 능력을 지닌 자로 인정받기도 한다. 또한 다른 많은 트릭스터와 구별되는 점은 김선달의 치밀한 계획이다. 트릭스터들은 보통 임기응변이나 즉흥적 문제 해결에 능한데, 물론 김선달도 쉰 팔죽을 처리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모습도 있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사기를 치는 때가 많다. 대동강 물을 팔아 먹기 위해 하루 전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나 여관에 들어가 공짜로 먹고 놀기 위해 미리 표적을 정하고 철저히 계

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성격이 잘 보인다. 트릭스터 중에서 김선달은 상당히 지적이고 세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의의 〈김선달〉과 관련한 설화는 무엇보다도 재미있다. 원래 19세기 평양 출신인데도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이야기와 같이 그의 이야기가 전국에 전파되고 오늘날까지 온전히 전승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락성을 넘어서 다른 트릭스터담과 같이 사회질서를 공격하며 기성 체제를 뒤흔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세기 초 신문 연재소설 「신단공안」에서는 능력은 있지만 사회적 지위 때문에 영웅이 못 된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세 질서를 붕괴시키고 근대 질서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준비 과정에 동참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김선달이 주로 부자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은 자를 사기의 표적으로 삼는 때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그를 하층민을 위해 싸우는 민중 영웅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의 구비전승에서는 김선달에게 이런 모습뿐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북한에서는 김선달이 언제나 가엾은 백성을 옹호하고 그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을 징벌하는 영웅으로 등장한다. 마치 영국의 로빈후드(Robin Hood)를 연상케 하는 민중 영웅이다. 그러나 김선달이 어떤 모습으로 그러지든, 어떻게 해석하든 재치 있게 기성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처 역사 신단공안(한기형·정한국 역, 창비, 200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4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83; 3, 193.

참고문헌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의미(김현선, 경기어문학8, 경기대학교 국어문화회, 1990), 봉이형 건달의 문학사적 의미(최원식, 이조 후기 한학의 재조명, 창작과비평, 1983),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79),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7),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필자 나수호(那秀昊)

신화

김수로왕신화

金首露王神話

영웅담 허황옥신화

정의 금관가야의 시조이자 김해 김씨의 시조인 김수로왕에



구지봉석
경남 김해시 구산동, 2003.4.17, 시동

관한 신화.

역사 건국신화인 점에서 〈단군신화〉, 〈동명왕신화〉, 〈박혁거세신화〉 등과 같지만, 탄생과 죽음에 이르는 일대기의 순차적 구조로 보면 그 계통에 차이가 난다. 〈동명왕신화〉와 〈석탈해신화〉는 부계의 부정(否定)으로 말미암은 탄생의 시련 그리고 건국주로 등극하기 위한 시련과 투쟁이 구조화되어 있다. 반면 〈박혁거세신화〉와 〈김수로왕신화〉는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부정하지만, 탄생의 시련을 겪지 않고 건국주로 등극하는 데 투쟁이 없는 구조이다. 전자를 '사생아 유형의 신화'라 하고 후자를 '업둥이형 신화'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보면 〈김수로왕신화〉는 건국신화이자 시조신화이면서 업둥이형의 집단 무의식이 투영된 신화라 할 수 있다.

줄거리 천지개벽 후에 이 땅에는 아직 나라로 부르는 칭호가 없고 역시 임금이나 신하라고 부르는 칭호도 없었다. 다만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류수간, 류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귀간의 아홉 간이 있었고 이들이 추장이 되어 백성을 통솔하였다. 호수는 무릇 1백 호에 7만 5천 명이었다. 저마다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먹었다. 후한 광무제 건무 18년 입인 3월 계육날 이곳 북구지에서 무엇이 수상한 소리로 부르는 기적이 있었으므로 2~3백 명 되는 무리가 모였다.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데 형체는 감추고 소리만 내어 말하기를 “거기 누가 있느냐?” 라고 하였다. 아홉 간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있습니다.” 하니 그 목소리가 또 말하기를 “내가 있는 곳이 어데인고?” 하여 “구지외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말하기를 “하느님이 나를 명령한 까닭은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임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러기 위하여 여기 내려온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의 흙 한 줌씩을 쥐고 노래를 불러 ‘거복아 거복아/머리를 내밀어라/만약 아니 내놓으면/불에 구워 먹겠다.’ 하면

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마중하여 즐겨 뛰노는 것으로 될 것이다.” 하였다. 아홉 간이 그 말대로 모두 즐겨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얼마 안 되어 쳐다보니 보랏빛 노끈이 하늘로부터 드리워 땅에 닿아 있었고 노끈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로 싼 금합이 있었다. 합을 열어 보니, 등글기가 해 같은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도 기뻐서 함께 수없이 절을 하다가 조금 뒤에 다시 알을 싸 가지고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두고는 각각 홀어졌다. 그 후 열두 시간이 지난 다음 날, 날이 썰 무렵에 무리가 다시 모여 합을 열었더니 알 여섯 개가 사내아이로 화하였는데 얼굴들이 매우 틀스러웠다. 이들이 이내 평상 위에 앉으니 무리가 축하하며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였다. 그들은 나날이 장성하여 10여 일의 밤낮을 지냈다. 키가 9척이매 은나라 천을이라 할 수 있었고, 얼굴이 용 같으며 한나라 고조라 할 수 있었고, 눈썹이 여덟 가지 빛깔이매 당나라 요임금과 같았고, 눈동자가 겹으로 되었으며 우나라 순임금과 같았다. 여섯 개의 알 중에 가장 먼저 사람으로 변한 이가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오르니,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이름을 ‘수로’ 혹은 ‘수릉’이라 하고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일컬었으니, 즉 여섯 가야의 하나이다. 남은 다섯 사람은 각각 돌아가 다섯 가야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변이 수로의 탄생과 등극 이야기는 수로의 신성성과 왕위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이주집단인 수로집단이 초기에 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고, 이어 수로집단이 선주집단과 동화되었다는 점을 상정하면 전승집단은 변이를 허용하지 않았으리라 추정한다. 다만 현재 구비전승 중에는 김수로왕의 후손이나 아니냐를 가리는 징표에 관한 〈김수로왕설화〉가 있다. 이는 후손들이 그들의 시조인 김수로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집단 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분석 가락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했던 역사적 연구와 〈구지가(龜旨歌)〉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 연구 그리고 고대 제의와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했던 민속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학적으로는 무엇보다 신화의 전체 맥락, 텍스트의 표층과 심층, 건국신화 유형 전체를 살펴 〈김수로왕신화〉의 문학적 가치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수로왕신화〉가 왕들의 즉위 의례에 관한 구전 상관물이라는 사실과 〈구지가〉가 불계(祓除) 의식의 축귀요(逐鬼謠)라는 점을 밝힌 연구, 신화의 서술 원리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건국신화의 제의적 서사구조의 맥락에서 〈김수로왕신화〉의 제의적 구조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김수로왕신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의미의 층위를 더욱 다양화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신화

의 현재적 의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특징 『가락국기(駕洛國記)』에 전하는 건국 및 시조신화로서 〈김수로왕신화〉는 수로왕의 탄생과 혼사 그리고 즉위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내력을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들 신화적 내용은 첫째, 〈박혁거세신화〉에서도 발견되듯이 여러 씨족이 연합하여 이룩된 통합 왕국의 창건에 관한 신화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띤다. 둘째는 신화의 내용이 직접 신에게서 주어졌다는 점은 다른 건국신화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셋째는 수로가 등극하기까지는 시련과 시험이 없고 등극 후에 시련이 주어진다라는 점에서 다른 건국신화와 구별된다. 넷째는 결연담을 통한 집단 내부로의 동화가 등극 후에 나타난다는 점은 〈주몽신화〉, 〈석탈해신화〉와 구별된다. 다섯째는 수로의 트릭이 선주집단과의 이질성과 차별성을 강조하여 탁월성을 드러내 왕위 등극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동질성과 융합을 위해 트릭을 쓰는 〈석탈해신화〉와 구별된다. 〈김수로왕신화〉의 이러한 특징은 지속적인 제의화, 민속화, 전설화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 된다.

의의 문화의 원천이 되는 신화의 대중화 혹은 실용화라는 시대 요청에 응할 때 이 신화는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집단 구성원 전체가 새로운 문명과 체제를 맞아 커다란 가치관의 혼란을 겪던 시점의 이야기로, 새롭고 더욱 강력한 의식성을 갖추어 나가는 정신적 변환 과정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교육과 치유에서 이야기 만들기의 보편 공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신화가 왕의 즉위 의례 혹은 신막이굿의 구술상관물이라는 성격을 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리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수로왕신화〉가 춤과 노래로 표현되는 샤머니즘, 영웅 탄생의 구조를 보이는 영웅서사, 김수로왕과 허황옥이라는 영특한 두 남녀의 로맨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화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가락국기 서사원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일고찰(김영일, 가라문화5,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7), 김수로왕신화의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방지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수로신화의 서술 원리의 특수성과 그 현실적 의미(이강욱, 가라문화5,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87), 수로왕신화의 연구(김화경, 진단학보67, 진단학회, 1989), 수로왕 탄생신화의 심리학적 해석(박현순, 한국심리학회지24, 한국심리학회, 2005).

필자 김화경(金和擘)

김알지신화

金閼智神話

정의 신라 왕족이자 경주 김씨 시조인 김알지의 신화.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 1에 김알지에 관한 역사와 신화가 전한다. 김알지는 탈해왕 때 대보(大輔)의 직에 있었으며 태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위에는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김알지의 신이한 탄생담이 김씨 왕가의 시조신화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김씨 최초로 왕이 된 미추왕 대 이후였을 것이다. 한편 김알지 전승은 성씨 시조신화 또는 문중의 역사로서 경주 김씨 문중의 족보나 문집 등을 통해서도 지속되어 왔다.

줄거리 신라 탈해왕 때 대보(大輔) 호공(瓠公)이 밤에 월성(月城) 서리(西里)를 가다가, 크고 밝은 빛이 시림(始林) 속에서 비치는 것을 보았다.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뿔쳐 있고 나뭇가지에는 황금궤가 걸려 있었는데, 그 궤 속에서 빛이 나오고 있었다. 나무 밑에서는 흰 닭이 울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숲으로 가서 금궤를 열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그 아이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면서 기뻐하여 뛰놀고 춤을 추었다. 소아(小兒)를 의미하는 알지(閼智)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김(金)씨를 성으로 삼았다. 탈해왕은 길일을 가려 그를 태자로 책봉했지만 그는 파사왕(婆娑王)에게 양위하였다. 후에 김알지의 7대손 미추가 왕위에 올랐다. 신라의 김씨는 이 알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변이 〈김알지신화〉가 기록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내아이의 출현에 대해서 왕이 하늘이 아들을 보내 준 것이라고 기뻐하며 거두어 길렀다는 내용은 『삼국사기』에만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새와 짐승이 이 아이의 출현을 기뻐하며 뛰놀고 춤을 추었다고 했다. 『삼국유사』는 기사 말미에서 알지 이후의 7대를 열거하고 신라 김씨가 알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그가 김씨 왕족의 시조임을 강조하며, 계림(鷄林)으로 국호를 삼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삼국사기』는 편년체 정사서로서 이 일을 국가나 왕실의 역사로 기록한 데 비해, 『삼국유사』는 이 일을 신이지사(神異之事)로 기록한 데서 이런 차이가 생겼다. 『삼국사기』의 경순왕 기사를 보면, 김알지가 황금궤 속에 들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 또는 황금수

레를 타고 왔다는 설이 당시 민간에서 널리 회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강릉 김씨 문중에서 전해 온 『명원세기(溟源世紀)』에서는 김알지 탄생 당시 태를 갈랐던 흔적이 있는 돌이 남아 있었다고 전한다. 증거물을 통해서 성씨시조의 탄생을 생물학적인 사실로 합리화하느라 이런 변이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명원세기』에서는 성모가 김알지를 낳았다고도[聖母實誕] 하였다. 이는 선도산 성모의 박혁거세 출산을 모방한 신성화의 의도에서 생겨난 변이이다.

분석 경주 김씨 시조 김알지는 크고 밝은 빛이 비치고 자줏빛 구름이 하늘로부터 뿔쳐 있었던 시림의 신이(神異) 속에서, 나무 위에 걸린 황금궤로부터 이 세상에 출현한다. 탈해왕이 알지를 안고 대궐로 돌아올 때 새와 짐승들이 기뻐 춤을 추었다고 하는 내용은 신화적 신이를 더하는 부분이다. 그 나무 아래에서 흰 닭이 울어서 시림을 계림으로 바꾸었고 그 후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고 하는 데서도 당시 알지의 출현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비록 김알지는 왕 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7대손 미추왕 이래로 신라 역대 56왕 중 38왕이 김씨계로부터 배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김알지신화〉는 망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김알지 집단의 역사적 정체에 대해서는 ‘금(金)’의 문화를 지니고 한반도에 도래한 집단으로 보는 입장과, 선주한 토착집단이라 보는 입장이 맞서 있다. 천강(天降), 신수(神獸), 금궤 등의 중요한 신화소들을 두루 갖춘 〈김알지신화〉의 신화적 계통과 상징에 관한 대한 관심도 큰 편이다.

특징 김알지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아기’를 뜻하는 ‘알지’로 영원히 남았다. 그가 왕위에 올랐다면 ‘혁거세(赫居世)’나 ‘동명(東明)’처럼 국조신화의 주인공다운 새로운 이름과 더불어 장편의 건국서사시를 얻을 수도 있었을 터이다. 혁거세가 태어났을 때도 “스스로 이르기를 알지 거서간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한 걸 보면, ‘아기’왕의 탄생으로 시작한 것은 〈박혁거세신화〉와 다르지 않다. 알지가 탄생할 때 하늘로부터 서기(瑞氣)가 비치고 새와 짐승이 따르고 기뻐하며 춤추었다는 것도 혁거세의 탄생과 유사한 부분이다. 백마나 백계(白鷄)와 같은 신수가 등장하는 상황도 비슷하다. 알지의 탄생을 일컬어 “혁거세가 계정에서 탄생할 때의 고사(故事)와도 같았다.”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둘은 동일한 계통의 신화임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김알지신화〉는 천강, 난생, 신수가 등장하는 한국의 다른 건국시조 신화들과도 신화적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김알지신화〉는 천강이 간접적이고, 금궤가 난생을 대신하며, ‘흰 닭’의 신수가 등장하는 점

에서, 다른 국조신화들과 차이가 있다.

〈김알지신화〉는 다른 성씨시조신화들과도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성씨시조신화들에서는 ‘천강’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천강의 요소는 국조나 왕에게만 허용된 신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씨 시조들은 하늘 대신에, 땅, 바다, 못, 바위 등에서 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조도, 왕도 아니었던 김알지의 신화에 천강이 나타나는 것은 비록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7대손 미추를 비롯한 신라의 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같은 성격을 지닌 〈석탈해신화〉에 천강의 요소가 부재한 연유는 석탈해가 바다를 건너 도래한 존재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알지와 탈해가 궤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 신화가 유사한 부분이다.

의의 〈김알지신화〉는 왕족의 시조신화이자 성씨시조신화의 두 성격을 지닌 신화이다. 왕가 시조이지만 자신이 직접 왕이 되지 못한 점에서 국가적 의례 및 정치적 맥락에서는 소외되었던 신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박, 석, 김씨 왕족의 신화 체계 속에 뚜렷한 위상을 차지한다. 신성한 숲, 신목(神木), 황금궤와 같은 보편적 신화 상징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백계’, ‘계정’, ‘계림’에 대한 언급들을 통해 신라문화에서 ‘닭’의 상징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게 해 주는 자료이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명원세기(김봉기, 명주군왕실, 1973).

참고문헌 맥락적 해석에 의한 김알지 신화와 신라문화의 정체성 재인식(임재해,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신라신화의 형성과 신라상고사의 한 단서(박종성, 구비문학연구13,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한국신화의 연구(나경수, 교문사, 1994).

필자 천혜숙(千惠淑)

전설

김유신

金庾信

정의 신라 장군 김유신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설화.

역사 김유신 관련 설화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김유신과 백석의 일화, 문희와 김춘추의 결혼에 관한 일화, 소정방과의 전쟁에 관한 일화가 전하고, 『파환집(破閑集)』에는 김유신과 어머니의 일화가 전한다. 구비전승은 이러한 화소들을 결합하거나 변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줄거리 김유신이 국선으로 있을 때, 그의 무리에 백석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로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염탐에 참여하여 그를 죽이려 한다. 고구려에서는 김유신을 고구려 왕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추남이 환생한 것으로 보고 그를 죽이려 한 것이다. 김유신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한 세 호국신의 도움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백석을 처형한다.

김유신의 동생 문희가 언니 보희의 태몽을 산다. 그러던 중 김춘추의 웃고름을 문희가 껌매 주는 일이 생긴다. 이후 문희가 임신하자 김유신은 일부러 불을 피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선택 여왕은 김춘추와 문희를 결혼시킨다. 훗날 김유신은 왕이 된 처남 김춘추와 많은 공을 세우는데, 특히 소정방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삼국 통일을 이룬다.

김유신은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 교육 아래 자랐다. 어느 날 김유신이 우연히 기생집에서 자게 되고 이를 안 어머니가 눈물로 호소하자 다시는 기생집에 출입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다가 술이 많이 취한 날, 말이 기생집으로 유신을 데리고 간다. 술에서 깬 김유신은 말의 목을 베고 돌아온다.

분석 〈김유신설화〉는 백석과의 사건과 동생의 결혼 관련 일화, 소정방과의 전쟁에 관한 일화, 말의 목을 베는 일화를 통해 천운, 지략과 용맹 그리고 자기절제의 의지를 갖춘 영웅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변이형 역시 이런 사건들과 관련된 다. 특히 김유신이 말의 목을 베는 것을 본 기생이 슬픈 곡조의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관천사가 되었다는 것과 소정방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연기와 안개가 자욱해져 천지가 캄캄해지자 안개가 사라지면 천 개의 절을 짓겠다고 기도하고 이후 산세 때문에 절을 지을 수 없자 돌 천 개를 배치하여 절 형태로 만들어 절 한 채를 지어 천방사라 하였다는 유래담이 존재한다. 아울러 구비전승되는 유형 중 비록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승리하였지만 땅을 내준 것은 잘못이며, 결국 이것도 얼마 지키지 못해 신라가 멸망하였다는 변이형 역시 존재한다.

의의 김유신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여준 탁월한 능력으로 신화적 영웅의 반열에 오른다. 김유신이 갖춘 용맹과 지혜는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도움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강인한 의지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성과 세속을 아우르는 완벽한 영웅의 모습을 구현한다.

출처 三國遺事, 殊異傳, 新增東國輿地勝覽, 破閑集, 서울민속대관6(서울특별시,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1, 314; 5-3, 583; 7-1, 570; 7-3, 490.

참고문헌 김유신설화의 변이와 수용 연구(김영화,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김유신설화의 전승양상(안영훈, 한국의 민속과문화3, 민속학연구소, 2000), 김유신 이야기의 전승 유형에 따른 특징과 의미(김영주, 문학과언어30, 문학과언어연구회, 2008), 김유신 장군설화 연구(오세길, 동남어문논문7, 동남어문학회, 1997), 문헌소재 김유신설화고(김진영,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1978), 삼국유사 소재 김유신설화 고찰(이정훈, 국어문학49, 국어학회, 2010).

필자 송효섭(宋孝燮)

신화

김유신신화

金庾信神話

정의 김유신에 관한 신화적 자질과 행적을 바탕으로 민간과 무속에서 추앙되는 장군 신격에 관한 신화.

역사 〈김유신신화〉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제1〈김유신〉에 나타난 김유신의 탄생과 행적 그리고 죽음에 관한 서사를 바탕으로 한다. 문헌에 나타난 김유신의 자질은 무속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강릉단오제와 민간의 맥락에서 구비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김유신은 신라 서울 출생으로 김수로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그의 아버지 김서현은 만노군 태수가 되어 속흥종의 딸 만영과 도망가려 한다. 이를 눈치 챈 속흥종은 두 사람을 집에 가둔다. 하지만 집 문에 벼락이 떨어지고 이 틈을 타 두 사람은 만노군으로 도망간다. 이후 김서현은 형혹과 진, 두 별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꿈을, 만영부인은 구름을 탄 흰 동자가 금으로 된 갑옷을 입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20개월 만에 유신을 낳는다. 김유신이 어느 날 홀로 중앙산에 올라가 나흘간 빌자 한 노인이 나타나 신비한 비법을 전수하며 불의에 사용하면 양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검을 준다. 그는 이 보검을 갖고 열박산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향을 피우고 중앙산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맹세하였다. 이후 김유신은 이 검의 신비한 능력으로 삼국을 통일한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수십 명이 자신의 집에서 울고 나오더니 사라졌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다. 그리고 그 해 가을 7월 1일 내실에서 79세의 나이에 죽어 산신이 된다.

변이 〈김유신신화〉는 김유신의 탄생, 신비한 능력의 획득과 발휘 그리고 사후의 모습과 같은 신화적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먼저 탄생에서, 그가 태어난 집에 서기가 뻗치고 몸에 북두칠성과 같은 7개의 점

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칠성의 정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변이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신비한 능력을 획득하고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보다 더 구체적이며 초월적인 모습으로 김유신을 형상화한 변이형이 존재한다. 근천읍의 제일 남쪽 단석산에서 김유신이 10년을 공부하자 단석산 산신령이 현몽하여 “이 칼은 네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며 칼을 건네고 김유신은 그것으로 천탑바위를 겨누어 바위를 갈라지게 하였다는 변이형이 그 예이다.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에서는 김유신이 단을 찢고 신술을 부리자 갑자기 큰 독 만한 광채가 단 위에서 나와 적군의 활과 화살을 모두 부러지게 하고 군사들을 땅에 자빠뜨렸다는 이야기와 요물임을 알고 신검으로 까치를 겨누자 떨어져 죽었는데 까치가 백제 왕의 딸이었다는 변이형이 존재한다. 이처럼 김유신의 신비한 탄생, 능력의 획득과 발휘에 관한 변이형은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을 바탕으로 초월적인 모습을 더욱 구체화한 것들이다. 끝으로 김유신 사후에 관한 변이형으로는 그가 대관령 산신이 되어 임진왜란 때 대관령과 송정의 모든 소나무를 군사로 보이게 하여 왜군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 있다. 이는 문헌으로 존재하는 〈김유신신화〉가 지역의 역사와 특성에 맞게 구비전승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분석 〈김유신신화〉는 김유신을 신화적 존재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사로 구성된다. 따라서 〈김유신신화〉는 ‘신이한 탄생-초월적 능력의 획득과 발현-죽음 이후 신으로의 좌절’이라는 구조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김유신신화〉는 장군으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능력의 획득과 발현을 중심으로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며, 동시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의 탄생과 죽음을 신화적으로 구성하여 나라와 지역을 수호하는 무속적 영웅의 서사로 나타난다.

특징 〈김유신신화〉와 같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신격화되는 예로는 남이 장군이나 임경업 장군과 같은 부군당신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군당신화의 인물은 신이한 탄생과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적인 결함이나 모함 세력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좌절된 후 이후 민간에 의해 해원(解怨)된다. 하지만 〈김유신신화〉에서는 그러한 좌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김유신신화〉가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신격에 좌절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건국시조 신화나 무속적 영웅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의 〈김유신신화〉는 삼국 통일과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역사적 실존 인물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려는 욕구가 작용한 상상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유신의 혈통이나 삼국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모티프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인물의 신격화를 통해 그가 가졌던 능력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570.

참고문헌 강릉단오제의 근원설화 고찰(김선풍, 강원민속학16, 강원도민속학회, 2006), 강릉단오제의 역사와 근원설화(김선풍 외, 강릉단오제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김유신 관련 문헌자료와 설화의 비교(박성계 외, 신라문화31, 신라문화연구소, 2008), 김유신 이야기의 문학사적 의미(박대복, 어문논총42, 중앙어문학회, 2009), 무속신화와 문헌신화(현용준, 집문당, 1992), 무속적 영웅고(김열규, 진단학보43, 진단학회, 1977), 서울 부군당의 실존인물 숭배양상(홍태한, 남도민속연구17, 남도민속학회, 2008).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김응서

金應瑞

정의 조선 선조, 광해군 때의 장수 김응서(1564~1624)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김응서는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공을 세웠다. 광해군 때 명(明)의 요구로 강홍립과 함께 출전했으나, 강홍립이 투항하는 바람에 투옥되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적정을 탐지하여 보고하였으나 강홍립의 고변으로 처형되었다. 〈김응서설화〉의 핵심인 왜장 살해 이야기는 평양성 탈환 전투 때 있었던 사건을 내용으로 한다.

줄거리 왜장의 수청을 들던 계월향이 김응서에게 왜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주면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 김응서가 응하자 계월향은 김응서를 오패로 속여 인사시킨 다음, 왜장의 용력과 습성을 알려주었다. 김응서가 왜장의 방으로 들어가자, 두 눈을 부릅뜬 채 쌍검을 쥐고 앉아서 자고 있었다. 목을 치자 목이 없는 왜장이 칼을 휘두르는데, 하나는 벽에 꽂히고 또 하나는 기둥에 박혔다. 김응서가 왜장의 목을 가지고 나오려 하자 계월향이 따라 나섰다. 김응서는 둘 다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계월향을 죽이고 돌아왔다. 구비설화에는 문헌설화에 없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승된다. 김응서가 배속에 있을 때 일본에서 영웅이 태어날 것을 알고 국록을 먹여 키운 호랑이를 보냈다. 중으로 변신하여 김응서 모친을 죽이려 갔으나, 팔문금사진이 쳐 있어 그냥 돌아갔다. 김응서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평수길이 죽이러 왔다. 김응서가 자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개를 빼 보았으나 움직임이 없었다. 죽은 영혼은 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변이 이 설화는 구비설화의 왜장 살해 이야기에서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왜장의 목이 다시 붙으려 했을 때, 기생이 치마에 재를 담아와 뿌리자 더는 붙지 못했다. 김응서가 왜장의 목을 가지고 나가려 하자 기생이 배 속의 아이를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고 죽여 달라고 했다. 기너를 죽인 다음 배를 가르자 아이가 도망치면서 석 달만 있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원통하다면서 죽었다.

분석 문헌설화에서 계월향은 왜장에게 벗어나기 위해 김응서를 끌어들였고, 살기 위해 따라 나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김응서는 둘 다 온전히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일방적으로 계월향을 죽인다. 구비설화에서 기생은 나라와 가정의 차원에서 죽음을 자처하며, 차마 죽일 수 없어 망설이는 김응서의 나약함을 질책한다. 이러한 차이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 담당 계층의 서로 다른 역사 의식과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징 일부 구비설화와 〈임진록〉의 일부 이본에는 김덕령이 기생과 공모하여 왜장을 살해하는 이야기로 변이되어 있다. 〈김응서설화〉가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김덕령설화〉로 변이되었던 것이 〈임진록〉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기생은 김응서와 달리 김덕령의 우위에서 사건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인다. 김응서의 역사적 행적이 김덕령의 행적으로, 김응서 중심의 이야기가 기생 중심의 이야기로 변이되면서 민중화, 여성화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의의 왜장 살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전승 집단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예이다. 문헌설화에는 지배집단의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고, 구비설화에는 민중의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김응서 전설에는 민중과 여성 중심의 역사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기생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나라와 김응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죽음을 자처했기에 충효열을 겸비한 여자임을 강조한다.

출처 平壤志, 大東奇聞,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591; 2-5, 396; 8-5, 226.

참고문헌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임진록 연구(임철호, 정음사, 1986).

필자 임철호(林哲鎬)

전설

김중진

金仲眞

정의 조선 후기 이야기꾼 김중진(金仲眞)의 일화.

역사 정조 때에 활동했던 실존 인물 김중진은 조선 후기 직업적인 이야기꾼의 존재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김중진은 젊어서부터 이가 모두 빠져 딱딱한 음식보다 물렁물렁한 음식을 즐겨 먹었다. 그 까닭에 오이물음 또는 오물음으로 불렸다. 또한 <무속이타령>의 사실 정착본으로 알려진 고전소설 <계우사>에도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외물음(김중진)이 등장한다.

줄거리 김중진과 관련한 일화는 여러 편이 있다. 그중 편자 미상의 『청구야담(靑邱野談)』, 유재건(柳在建)의 『이향건문록(里鄕見聞錄)』, 조수삼(趙秀三)의 『추재기이(秋齋紀異)』에 실린 일화를 통해 대강의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김중진은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이가 모두 빠졌다. 따라서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오이와 나물을 즐겨 먹은 까닭에 오이물음 혹은 이를 줄여 오물음이라 하였다. 그는 옛날이야기를 잘 구연하기로 소문이 났다. 어떤 인색한 재상이 재산이 많으면서도 베풀 줄을 모르자, 오물음이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살아서 인색했던 한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인즉, 관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양손을 내보이라는 이야기였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을 빗댄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재상은 마침내 깨달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김중진이 저승에 간 세 선비의 소원 이야기를 구연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선비는 명예를, 두 번째 선비는 부(富)를 소원으로 말한다. 옥황상제는 이 둘의 소원을 이루게 한다. 그런데 세 번째 선비가 청복(淸福)을 소원하자, 옥황상제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번거롭게 이 자리에 있겠느냐고 되묻는다.

분석 김중진은 조선 후기 이야기꾼과 이야기관의 존재를 실제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구전으로 향유되던 것들도 있지만,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문헌으로 전승되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가 주로 들려주던 이야기거리가 『소부(笑府)』나 『어면순(禦眠桶)』을 비롯한 소화류(笑話類)였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

다. 또한 그가 『삼설기(三說記)』에 수록된 <삼사발원기(三士發願記)와 <황새결승> 등과 같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여 능숙하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신분이 중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삼설기』는 중인들이 소지를 쓰기 위해 연습하던 송서(訟書)였기 때문이다.

의의 김중진의 일화는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 후기 이야기꾼, 예컨대 『청구야담』에 소개된 이업복(李業福)이나 『추재기이』에 실린 전기수(傅奇叟) 등과 함께 조선 후기 이야기구연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출처 里鄕見聞錄, 靑邱野談, 秋齋紀異.

참고문헌 이야기꾼의 한 고찰(황인덕, 어문연구23, 어문연구회, 1992), 조선 후기 이야기판과 이야기꾼(김준형, 웃음문화4, 한국웃음문화학회, 2007).

필자 김준형(金俊亨)

전설

김춘추

金春秋

정의 역사인물인 김춘추의 일대기와 관련한 전설.

역사 12세기 『삼국사기(三國史記)』 「열전」 중 <김유신>에서 발췌한 이야기이다. 「열전」에 김춘추 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알려진 <구토지설(龜兔之說)이 함께 실려 있다.

줄거리 김춘추가 백제와의 전쟁에서 딸 고타소랑(古陀炤娘)



태종무열왕릉비
경북 경주시 서악동, 한국관광공사

과 사위 품석(品釋)을 잃었다. 이에 고구려에 병사를 청해서 백제에 원한을 갚고자 했다. 김유신에게 60일 안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고구려로 떠났지만 첩자로 의심받는다. 고구려 왕이 일부러 조령과 죽령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춘추는 거절하고, 이에 옥에 갇혔다. 왕이 총애하는 선도해(先道解)에게 김춘추가 술자리를 부탁하고, 이때 선도해가 용왕의 간을 구하는 거북이에게 속아 용궁으로 잡혀가다가 임기응변으로 위기에서 살아난 토끼의 이야기, 즉 <구토지설>을 들려준다. 이 말을 들은 김춘추는 죽령과 조령을 고구려에게 돌려주겠다는 글을 거짓으로 쓰고 비로소 왕의 마음을 얻었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구비전승된 변이형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는 선도해의 충고를 듣고 거짓으로 글을 써서 위기를 모면하지만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충고를 듣고 스스로 살 방법을 궁리하여 삼척 쪽으로 탈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분석 삼국 통일의 주역인 김춘추의 비범함과 성품을 일화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히 <구토지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김춘추에게 기지를 발휘해 탈출하라는 선도해의 충고로 해석된다. 그런데 의미를 확장하면, 당시 삼국이 대치하는 역사적 상황에 관한 비유로도 볼 수 있다. 거북과 토끼의 관계, 토끼의 간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당대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된다. 선덕 여왕 시절부터 외교적 능력을 통해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김춘추의 비범한 정치적 능력을 기술한 것이다.

특징 김춘추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일화로 우언(寓言)이 사용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토지설>은 화왕계와 함께 우언문학의 초기 형태로도 알려져 있다. 김춘추라는 인물의 비범함과 그가 처한 상황의 특성을 우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의의 김춘추는 <구토지설>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는 그가 우회적인 설화를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구토지설>을 해석하는 방식은 우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연구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210.
참고문헌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주보돈, 한국학논집2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3), 동물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윤승준, 월인, 1999), 삼국사기 김유신 조 구토지설의 독법과 맥락(정충권, 한국문학논총52, 한국문화회, 2009), 신라의 대외 외교와 김춘추(연민수, 신라문화37,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1).

필자 송효섭(宋孝燮)

신화

김춘추신화

金春秋神話

정의 삼국 통일의 기반을 이룬 왕인 김춘추의 일대기를 신성한 영웅의 면모가 드러나도록 기술한 설화.

역사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 태종춘추공 조에 기술된 이야기로,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진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기 전과 후의 일화를 서술한다. 김유신의 여동생인 문희와 김춘추가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독립시켜 다루기도 한다.

줄거리 김유신의 누이 보희가 서악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오줌이 서울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 문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니 비단 치마 한 폭에 꿈을 팔라 하였다. 열흘 후 김유신이 김춘추와 함께 집에서 공을 차다가 일부러 춘추의 옷끈을 밟아 떨어뜨리고 누이 보희에게 꿰매라 하였으나 보희가 거절하였고 대신 문희가 꿰매었다. 그 후 김유신이 문희가 임신한 것을 알고 꾸짖으며 누이를 태워 죽인다고 불을 피웠다. 선덕 여왕이 이 연기를 보고 김춘추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문희를 구하게 하여 둘은 결혼하게 되었다. 이후 김춘추는 신라를 성대(聖代)로 이끈 반면 백제는 의자왕의 실정(失政)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 김춘추는 이 틈을 타 김유신과 함께 나당연합군을 이끌어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고 삼국 통일을 이룬다. 이에 태종으로 불린다.

변이 <김춘추신화>는 문희의 꿈을 바탕으로 김춘추와 문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과정과 무열왕에 등극하는 과정 그리고 당나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설화적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김춘추와 문희의 결혼 과정에서 문희의 매몽(買夢)과 선류몽(旋流夢)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고려사(高麗史)』 「세계」에서 <작제건 탄생설화>가 기술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충의 둘째 아들 보육이 꿈에 곡령재에 올라가 오줌을 누자 조선 천지에 가득 차는 꿈을 꾸었다. 이 꿈을 형에게 말하니 비상한 인물을 낳을 꿈이라 하며 자신의 딸 덕주를 배필로 정해 준다. 보육은 두 딸을 낳았는데 막내딸인 진의는 역시 오관산에 올라 오줌을 누었다가 그 오줌이 천하에 가득 찼다는 언니의 꿈을 산다. 그 후 우연히 당 숙종이 보육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아버지인 보육에게 터진 옷을 꿰매 줄 것을 요청한다. 진의가 옷을 꿰매 준 후 두 사람이 연을 맺어 작제건을 낳는다. 작제건

이 장성한 후 아버지를 찾아가는 도중 용녀를 만나 결연하게 되어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왕용을 낳고 후에 작제건은 고려의 경강 대왕으로 추존된다.

『고려사』 「열전」 88권 〈헌정왕후 황보씨〉에서도 비슷한 변이형을 찾을 수 있다. 경종 승하 이후 헌정 왕후 황보 씨가 흑령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 꿈을 꾸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될 꿈으로 해석된다. 황보 씨는 숙부와 통하여 임신하고 불에 태워질 뻔했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은 후 죽었다. 그 아이가 훗날 현종이다. 이처럼 변이형에서는 산 위에서 눈 오줌이 천하에 가득 차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암시하는 바를 받아들여 신성한 인물을 탄생시킨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의 춘추공 일화가 시기로 볼 때 가장 먼저이고 나머지 변이형들은 그 이후의 것이다.

분석 영웅의 탄생과 관련하여 신이한 일들이 예기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신화의 일종이다. 꿈이 가진 신성성과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꿈에 높은 곳에서 오줌을 누다는 선류몽 모티프는 여성의 출산, 풍요로움, 비범함, 신성함, 강력한 지배력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인물이 갖는 신성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김춘추는 국조는 아니지만 통일신라 최초의 왕이 될 인물이며, 전대 왕들에 비해 혈연적 적통성을 덜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선류몽은 이처럼 왕이 될 인물의 신성성이 입증될 필요가 있을 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매몽 모티프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는가가 관건이다. 이야기 속에서 신이한 꿈을 꾸 사람은 보회지만, 최종적으로 꿈의 영험을 누리는 사람은 이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문화이다. 이와 같은 예지 능력은 김춘추가 왕이 될 것을 예기하고 그를 자신의 동생과 결연시킨 김유신의 예지 능력과 결부되어 신성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한다.

특징 〈김춘추신화〉는 김춘추의 면면이 드러나기보다는 문회를 중심으로 기술되는 전반부와 의자왕의 몰락이 다루어지는 후반부로 나뉜다. 특별히 문회의 비범함을 강조해서 기술하는 것은, 무열왕과 문무왕 2대에 걸친 신성성을 암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문회가 산 꿈은 신성한 인물과 결혼할 것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대한 인물을 낳을 것을 예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의 태종 무열왕 김춘추는 신라의 국조는 아니지만 통일신라라는 새로운 국가 체제의 수장이 된 왕이기에 그의 비범함을 기술하는 신화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이 된 김춘추는 신라에서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체제의 정통성과 함께 왕인 자신의 혈연적인 적통성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다. 고려 태조인 왕건의 탄생신화화도 유

사성을 가지는 〈김춘추신화〉의 영웅신화적 구조는 통일신라 건국의 주체들이 그 신성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출처 高麗史, 三國遺事.

참고문헌 꿈설화고(장덕순, 국어국문학46, 국어국문학회, 1969), 꿈전설(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삼국유사 소재 꿈의 서사적 의미와 성격(최기숙, 열상고전연구9, 열상고전연구회, 1996),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夢’자에 대한 소고(이윤석, 한국전통문화연구1,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5), 선류몽담의 거인설화적 성격(권태효, 구비문학연구2, 한국구비문학회, 1995), 설화 속 오줌 꿈 파는 행위의 심리적 특징과 그 의미(노영윤, 한국학연구4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일연의 글쓰기에서 정치적인 감각(고은기, 한국언어문화42,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초월의 기호학-위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송효섭, 소나무, 2002),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김열규, 일조각, 1982), 한국민속학논고(임동권, 집문당, 1978), 한국의 흥수 이야기 연구(김재용,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1996).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김현감호

金現感虎

상호명: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정의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만나 결연하게 되고, 이에 호랑이 처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보은하는 내용의 설화.

역사 11세기경 『수이전(殊異傳)』에 실렸다고 하며 전해지는 최초의 기록은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이다.

줄거리 김현이 답돌이를 하다가 처녀를 만나 정을 통하였는데, 처녀는 인간이 아닌 호랑이였다. 김현이 처녀의 오빠들(호랑이)에게 목숨을 위협받자 처녀가 김현을 구했다. 처녀는 고의로 사람들을 해칠 테니, 오빠들 대신 자신을 죽이고 절을 세워 주기를 청했다. 성 안에 호랑이가 나타나 김현이 호랑이를 잡으려 하니 호랑이가 어제의 그 처녀로 변했다. 처녀는 다친 사람에게 흥륜사의 장을 바르고 나팔소리를 들려 줄 것을 부탁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현은 벼슬길에 올라 절을 지어 호원사(虎願寺)라 하고 죽을 때에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변이 『삼국유사』에 김현감호와 함께 수록된 〈신도징설화(申屠澄說話)〉는 신도징이 호랑이 처녀와 결연을 맺지만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이다. 『보한집(補閑集)』에도 스님에게 못된 형 대신 자신이 죽기를 간청한 호랑이 소년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스님이 되는 호승설화가 전한다. 변이

형 모두 인간과 이물의 만남이나 결연이 나타나는 점은 같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변이형에서는 불법(佛法)보다 연애 모티프가 강조된다.

분석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동물과 인간이 결연하는 환상적 주제를 담은 이야기로 해석된다. 또한 불교적 영험을 드러내기 위한 신성한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왕권과 왕권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은유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특징 교류할 수 없는 이물과의 소통, 동물의 자기희생, 이를 기리기 위한 절의 창건을 통해 환상적 설화가 불교적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의의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과, 이물과의 결연을 ‘육망’하는 것이 환상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된다. 구분되어야 할 인간과 동물이 미분화된 상태로 결연하고자 하나 결국 갈등의 단초가 된다. 초기의 전기소설들이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제론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출처 大東韻府群玉, 三國遺事, 補閑集,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701; 7-3, 588; 8-1, 51.

참고문헌 김현감호를 통해 본 전기소설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류준경,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김현감호설화의 소설적 변용 연구(방민화, 문학과종교1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9), 김현감호설화의 연구(임재해, 한국민속학17, 한국민속학회, 1984),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송효섭, 국어국문학95, 국어국문학회, 1986),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2), 설화와 민중 의식(조동일, 정음사, 1985), 조선조 애정 전기소설의 소설시학 연구(이정원,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한국 고설화론(김현룡, 새문사, 1984), 한국 설화문학 연구(소재영, 숭실대학교출판부, 1984).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김호랑이굴

상호명: 호랑이로 변한 남편

정의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모친의 병을 고치기 위해 호랑이로 변하여 개를 잡아 오지만 결국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

역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채록되었지만, 중국의 고전 『선실지(宣室志)』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음을 보아 중

국에서 전파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줄거리 옛날 남해에 김 모라는 효자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났는데, 가난하여 약을 지어 드리지 못했다. 고민하던 중 꿈에 신선이 나타나 개를 100마리 잡아먹어야 낫는다고 하면서 책을 한 권 주었다. 깨어 보니 과연 책 한 권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아들은 책을 읽어 보고 호랑이로 변신해 밤마다 개를 한 마리씩 물고 왔다. 어느 날 아들이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으러 나갔는데, 어머니가 모르고 책을 불태워 버렸다. 아들은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아들은 산으로 들어가 짐승을 잡아먹으며 굴속에서 살았는데, 그 굴이 ‘김호랑이굴’이다.

변이 이 전설은 변이형이 많다. 효자가 효도하는 대상이 주로 ‘어머니’이나 드물게 ‘아버지’도 있고, ‘부모’도 있다. 〈김호랑이굴〉에서는 주인공이 ‘김 모’로 되어 있으나, ‘황팔도’라는 이름으로 된 설화도 많다. 주술책을 불태운 사람은 이야기에 따라 어머니도 있고, 아내도 있다. 호랑이로 변한 이들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포수 혹은 마을 사람의 손에 잡혀 죽는다. 드문 경우로 호랑이가 책을 태운 아내를 물어 죽이니 놀라서 어머니도 죽는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여러 이름으로 많이 채집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8편, 『한국구전설화집』-남해군에 3편,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4편이 실려 있고, 성기열, 김승찬, 최래옥 이수자도 1편씩 채집했다. 연구논문으로는 배도식의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 「한국호설화 연구」가 있다.

의의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주인공이 호랑이로 변신까지 하여 효를 실천하나 성공하지 못한다. 효(孝)를 강조한 나머지 효의 실천 방법이 너무 엉뚱하고 무참하여 결국 파국으로 끝을 맺는다. 효의 실천도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 준다.

출처 경남지방의 민담(김승찬, 제일문화사, 1986), 전북민담(최래옥, 형설출판사, 1979), 경남 해안 및 도서지방의 민속문화(김무조, 동아대학교, 1972), 설화화자 연구(이수자, 박이정, 1998), 한국구전설화집-남해군(류경자, 민속원, 2011), 한국민담의 세계(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참고문헌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배도식, 석당논총2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열, 일조각, 1976), 한국 호설화 연구(배도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배도식(裨桃植)

까치의 재판

정의 참새가 폴짝폴짝 뛰는 이유를 밝히는 설화.

줄거리 사람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떡을 많이 해서 제사상에 차려 놓았다. 이때, 파리가 날아와 제사 음식을 하느님보다 먼저 먹고 있어 사람들이 하느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 하느님이 파리를 잡아다가 먼저 먹은 죄를 물어 벌하려고 하자, 파리는 제일 먼저 먹는 놈은 따로 있다면서 참새가 곡식이 여물기도 전에 먹는다는 사실을 고했다. 하느님은 파리의 이야기를 듣고 참새를 불러서 곡식이 여물기도 전에 먹은 죄로 18,987대의 매를 때렸다. 참새는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아 다리가 아파서 이때부터 폴짝폴짝 뛰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변이 하느님이 자신보다 먼저 음식을 먹은 참새의 죄를 매로 다스렸다는 이야기에서 하느님의 역할이 까치로 바뀌는 것이 변이형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만물의 조물주가 참새나 파리 같은 피조물을 심판하고, 그들의 습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하느님의 심판이 훨씬 그럴듯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까치도 민간신앙에서는 인간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익조(益鳥), 즉 인간의 편이라는 점에서 하느님에서 까치로 변이가 일어난다. 또한 변이형에서는 파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 무수한 벌레를 잡아먹는 것을 참새의 큰 죄로 이야기하자, 참새는 파리가 아무 곳이나 똥을 누고 더러운 곳으로 다니며 오물을 발에 묻히고 옮겨서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까치는 참새와 파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 놈 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파리에 비해 참새의 죄가 더 커서 종아리를 백대 때려 보내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참새는 다리가 아파



참새와 파리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서 뛰어다니고, 파리는 까치에게 죄를 용서해 주어서 고맙다고 앞발이 닳도록 짹짹 밟고 다닌다.

분석 이 이야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구전되어, <새들의 회의(The Council of Birds)>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이야기도 심판자가 조류의 왕인 독수리로 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우리나라의 것 같고 같다.

특징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은 음식의 맛을 확인하는 과정이면서 맛을 잘 알기 위해 다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참새가 걸어 다니지 않고 폴짝폴짝 뛰는 것 역시 자연 현상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연 현상을 파리가 잘못해서 손을 비비는 것으로, 참새가 다리를 너무 심하게 맞아 폴짝폴짝 뛰는 것으로 서사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의의 처음 수확한 곡식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성한 음식에 하느님보다 먼저 손을 대는 파리나 참새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치(懲治)가 해학적으로 드러나 있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4, 43,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용, 한국연구원, 1983).

참고문헌 까치전 연구(임성래, 어학연구2, 순천대학교 어학연구소, 1990), 한국동물담(조희용, 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김경희(金璟姬)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 괴물

정의 부모를 죽인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이라는 괴물을 아들이 찾아서 죽여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아들이 어디 다녀와 보니 부모가 죽어 있다. 이웃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 괴물이 와서 물어 죽였다고 한다. 아들은 그 괴물을 찾아 길을 떠난다. 어느 마을에서 물어보니 나무 오십 짐을 해 달라고 한다. 다음 마을에서 물어보니 논 스무 마지기를 갈아 달라고 한다. 다음 마을에서 물어보니 일주일 동안 머슴 일을 해 달라고 한다. 모든 일을 해 주자 제일 큰 수숫대를 뽑으면 굴이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준다. 괴물의 집에 도착한 아들은 숨어 있다가 괴물이 밥을 하는 대로 몰래 훔쳐 먹는다. 그러자 괴물이 도둑을 잡겠다고 가마솥 안으로 들어간다. 아들이

큰 돌로 가마솥을 눌러 놓고 불을 때서 괴물을 죽여 원수를 갚는다.

변이 새(鳥) 형상인 괴물과 주인공이 문답하는 삽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괴물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벼룩, 모기, 빈대를 이용하여 방아로 찼어 죽이기도 한다. 주인공도 아들, 외아들, 오누이 등으로 나타나며 흠어머니가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분석 『한국구비문학대계』에 4편이 조사되어 있는 흔치 않은 설화이다.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나타난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 괴물이 부모를 죽이자 그 아들 혹은 오누이가 괴물을 찾아가 죽여서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우리에게 흔치 않은 사건을 다룬 복수담이다. 주인공이 찾아간 괴물의 집은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같은 구멍으로 연결되는 지하 세계이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이면서도 효행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관심은 효행이 아닌 퇴치에 있다고 하겠다. 괴물과의 대결에서는 힘이 아니라 지략으로 승리를 거둔다. 자연권력을 상징하는 괴물과 인간을 상징하는 아들의 대결에서 인간이 승리한다. 이는 괴물을 퇴치하는 수단이 인간의 지략과 불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인간이 지략을 사용하여 월등한 힘의 차이를 뒤엎었고,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킨 근원적 계기가 되는 ‘불’을 사용했다. 인간의 힘을 강화한 두 요소가 결합하여 자연의 힘을 굴복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의의 주인공이 괴물을 찾아가는 과정은 <구렁덩덩신선비>와 <바리공주>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과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 설화는 <여우누이>에 부분 차용되어 괴물이 여우로 바뀐 ‘꼬리 닳 발 주둥이 닳 발 여우’로 나타나기도 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36; 8-6, 34.

참고문헌 백석 시 古夜에 나타난 설화적 특성(김수경·이경수, 어문논집45, 중앙어문학회, 2010), 조마구설화 연구(오정아,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필자 노영근(盧映根)

꼬리 잘린 호랑이

정의 토끼의 꼬임에 빠져 임동설한에 꼬리를 냐가에 넣었다가 꼬리가 잘린 바보 호랑이에 관한 설화.



호랑이와 토끼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역사 생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유형의 설화가 인도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 일본의 원숭이와 곰 이야기가 이 설화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일 설화가 서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호랑이가 동지선달에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토끼를 만난다. 토끼는 호랑이에게 가재를 배불리 먹여 주겠다고 솔깃한 제안을 한다. 호랑이는 토끼와 냐가로 가서 토끼가 하라는 대로 꼬리를 물속에 넣는다. 토끼가 가재를 몰아오는 시늉을 하는 동안 호랑이는 포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이 앉아 기다린다. 아침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동지선달에 꼬리가 퐁퐁 얼어붙은 것도 모르고 도망가기 위해 황급히 일어난다. 그 순간 물속에 퐁퐁 언 꼬리가 잘려나간다.

변이 이 이야기는 단독보다는 다른 일화들과 결합하는 예가 더 많다. 호랑이가 토끼에게 속아 발강계 단 돌덩어리를 먹는 일화와 호랑이가 토끼의 꼬임에 빠져 숲에 앉아 새고기를 공짜로 먹으려 하다가 불에 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현명한 재판관 토끼 이야기나 교활하고 잔인한 토끼와 할머니 이야기가 차례로 결합하기도 한다.

분석 호랑이와 토끼는 늘 빛과 그림자처럼 함께 등장한다. 연구자들은 토끼를 트릭스터로 상대역인 호랑이를 바보 듀프(Dupe,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로 본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호랑이를 트릭스터로 보는 예도 있다. 한편, 호랑이를 치자(治者) 혹은 권력자, 토끼를 피치자 혹은 민중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호랑이에 대한 토끼의 승리를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민중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징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여 풍자적 웃음을 일으

킨다는 점에서 다른 바보 호랑이 이야기들과 같다. 한편, 호랑이와 토끼 둘만을 등장시켜 호랑이의 어리석음과 토끼의 사술(詐術)을 극단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는 여타 호랑이 설화와 구별된다. 이러한 대비는 호랑이의 원초적 본능과 어리석음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의의 호랑이의 바보스러움은 융(Jung)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문화가 고등화하면서 내면에 억압해 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된다. 또한, 피아제(J. Piaget)의 아동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조작기의 인지적·정서적 수준과 일치한다. 한편, 사회학적으로는 호랑이를 힘없는 민중의 착취자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616; 5-4, 492; 5-5, 248.

참고문헌 민담의 한국화 변이양상(성기열,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설화학 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82),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김기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기호(金基鎬)

민담

꼬리따기

정의 앞선 이야기 단락에서 언급된 구절이나 사건이 다음 단락에도 유사한 형태로 여러 번 반복되는 형식담.

역사 지금도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말 이어가기’ 놀음이 행해지듯, 과거 아동들이 즐겼던 민요 중에는 <꼬리따기요>란 것이 있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로 시작되는 이 민요는 앞 행의 마지막 단어가 다음 행의 첫 음절이 되어 계속 이어진다. 이와 유사한 형식적 특성이 설화에 적용되었을 때 <꼬리따기담>이 생겨났다. 구비전승 된 <꼬리따기담>이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문헌기록들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자료로 미루어 본다면 결코 그 역사가 짧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줄거리 <꼬리따기담> 형식의 하나인 <집안 문안>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에서 공부하는 도령에게 시골집의 하인이 찾아왔다. 도령이 하인에게 물었다. “그 사이 집안에 별일은 없느냐?” 하인이 대답했다. “예, 별로. 다만 도련님이 사랑하시던 개가

죽었어요.” “왜?” “집에서 기르던 말이 죽었는데 그 썩은 고기를 잘못 먹고요.” “아니 말이 왜 죽었단 말이나?” “집에 화재가 나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나르다가 지쳐서요.” “뒤편이 탔다고?” “예. 주인 나오리 관 앞에 있던 촛불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 “뒤편이고? 아버지 관이라고? 아버지께서 갑자기 왜?” “그게…… 사월초파일에 마님이 절에 가시다가 밭을 헐다 더 벼랑 아래로 떨어지셔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심한 나머지 병석에 누우시더니만…… 대충 그 정도 외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분석 ‘꼬리따기’ 형식을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유형은 ‘말따기’ 형식을 빌린 <길을 길을 가다가>란 이야기다. 물론 이런 것은 ‘설화라기보다는 차라리 ‘민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다. 좀 더 설화다운 이야기는 위에서 든 <집안 문안>과 같은 것이다. 시작과 결말부에서 하인이 ‘별고가 없었다.’고 대답한 것은 도령을 이완시키기 위한 하인의 술책이요, 청자의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화자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담의 플롯이 ‘원인-결과’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반대로, 이 이야기는 ‘결과-원인’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 사건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짐으로써 청자의 궁금증을 고조시킨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점층적 연쇄담의 특징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율격에 의지하는 민요 <꼬리따기요>가 주로 어절을 이어가는 데 그친다면, 이야기에 의존하는 설화 <꼬리따기담>은 유사한 사건을 반복하며 이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꼬리따기담의 특징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이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데 있다.

의의 <꼬리따기요>가 그러하듯, 대부분의 <꼬리따기담>은 다분히 어회(語戲)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놀이’의 특성을 지닌다. <꼬리따기요>나 <꼬리따기담>들이 대체로 문답법의 형태를 띠는 것은 그들이 원래 ‘놀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때문이다.

출처 옛날이야기선집1(임석재, 교학사, 1971).

참고문헌 한국의 형식담(조희웅, 한국학논총3, 국민대학교, 1981), The Folktales of S. Thomps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46).

필자 조희웅(曹喜雄)

민담

꼬마 명재판관

정의 지혜로운 아이가 슬기로운 재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한 부부가 남의 집에서 남편은 머슴으로, 부인은 식모로 살면서 십 년 동안 새경을 모아서 나가서 살자고 작정했다. 주인은 부부에게 십 년 동안 새경을 주면 자기 재산이 모두 없어질까 걱정하였다. 구 년째 되던 해 주인은 남편인 머슴을 심부름 보내고, 식모로 있던 머슴의 아내와 결혼하여 새경을 가로챌 계략을 짰다. 주인의 부인이 된 여자는 머슴인 남편의 도장을 가져다가 주인의 장부에 새경을 이미 다 받았다고 도장을 찍었다. 머슴이 돌아왔는데, 그동안의 새경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미쳐 버렸다. 머슴은 재판소에 가서도 “내 돈, 내 돈” 하고 돌아 다녔다. 판사가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걱정하고 있으니, 열두 살 된 판사의 아들이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판사의 아들은 케에 서기를 숨기고는 주인과 머슴에게 모두 그 안에 부인이 있다고 하였다. 주인에게 지고 가라 하니, 주인은 케에 대고 말 조심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케를 머슴에게 지라고 했다. 머슴은 자기 도장을 가지고 주인의 장부에 함부로 찍어준 부인에게 원망을 퍼부었다. 서기는 안에서 다 듣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증인이 되었다. 판사는 주인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남자에게 주었다.

변이 늙은 원의 어리석은 판결을 신연(新延) 맞이하러 가던 과거 급제한 소년 원이 해결하는 예도 있다. 포수가 여우를 잡았는데, 그 여우를 어떤 개가 물고 갔다. 포수와 개 주인이 여우를 서로 갖겠다고 다투었다. 늙은 원은 여우를 찢어서 나누라고 했지만 소년 원은 포수는 가죽이 필요하고, 개는 고기가 필요하니 포수에게는 여우의 가죽을, 개에게는 고기를 주라고 판결했다. 같은 모티프를 가진 이야기로 소년 원님이 아니라 원님 놀이하는 아이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출타한 고을 군수 대신 수달피를 찾아 주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이 설화에서는 어른인 원의 무능력이 드러난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린 원의 능력이 강조된다. 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당시 사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6세기 이후 수령 선발 기준은 형식적이었고, 수령도 차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청탁자들이 임명되었다. 19세기에는 많은

수령직이 매관매직의 대상이 되어 이들의 탐학을 조장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러한 사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는 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혜로운 어린 원을 통한 재판’을 통해 풍자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주목할 것은 어린 원과 비교되는 늙은 원, 원님 놀이하는 아이와 실제 원의 대립이다. 이러한 대립 구조에서 아이는 어른 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드러낸다. 이렇게 어른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어린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른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한 비판 의식을 보여 준다.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이 없는 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 의식이 이 설화에 담겨진 속뜻이라 할 수 있다. 현실에 대한 이러한 비판 의식은 <아기장수전설>에서 뛰어난 영웅이 때를 못 맞춰 태어나 부모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결말과 대치된다. <아기장수전설>에서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꿔 줄 어린 영웅이 탄생하지만 비극적인 결말로 죽는다. 하지만 이런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바꿔 줄 영웅을 고대하는 것은 <아기장수전설>과 이 설화가 가진 공통점이다. 어린아이는 과거나 현재가 아닌 미래에 거는 민중의 기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에 실권을 쥐고 있는 어른 지도층에 대한 불만이 아기장수, 재판을 하는 아이에 거는 기대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른의 능력을 뛰어 넘는 아이의 등장은 이 설화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결말을 맞는다.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을 통하여 합당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못마땅한 현재 지도자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어린아이를 통해 만족스럽게 성취한다.

특징 ‘재판’으로 재판하는 주체의 지혜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을 통해서 지도자, 통치자들의 능력을 시험했다. 재판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서는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는 혜안을 가진 지혜로운 인물의 우월성을 부각시킨다.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재판 주체의 뛰어난 지혜가 서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이를 통해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설화는 수령, 원을 넘어서는 어린 원이나 원님 놀이하는 아이들이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의의 어린아이를 ‘덜 자란 어른’,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라는 부정적 인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민담이다. 지혜로운 아이가 수령이나 원님 같은 현재의 지도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이야기들은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일깨운다. 또한 일상성, 피상성, 상식을 뛰어

님은 전복적 사유를 보여 준다. 또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명목만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 대한 풍자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어린아이의 재판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함축하고 있다는 데서 체제 비판적인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714; 4-4, 618; 8-3, 672; 8-4, 526.

참고문헌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지혜담 연구(오영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한국역사(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1992).

필자 이성희(李聖熙)

민담

꼬부랑할머니

정의 소담 중 언어유희담에 속하며 꼬부랑이라는 말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설화.

줄거리 꼬부랑할머니가 꼬부랑작대기를 쥔 꼬부랑고개를 넘어간다. 꼬부랑소나무에 앉아 꼬부랑똥을 누니까 꼬부랑강아지가 주위 먹는다. 꼬부랑할머니가 꼬부랑막대기로 꼬부랑강아지를 때리니까 꼬부랑캐깅 하며 도망간다.

변이 각편에 따라서는 꼬부랑강아지를 꼬부랑막대기로 때리니까 강아지가 항변하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한다. 이 설화는 이야기보다 민요로 전승되는 예가 더 많다.

분석 이 설화를 대하는 향유자들의 관심은 줄거리나 인물이 아닌 등장하는 소리에 있다. 웃음을 유발하는 소리가 핵심 요

소인, 혼하지 않은 독립된 언어유희담의 하나이다. (머느리의 말대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언어유희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하는 예가 일반적이나 이 설화에서는 ‘꼬부랑’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재미를 만들어낸다. 결말에서 강아지가 우는 소리도 꼬부랑과 결부된 발음인 ‘꼬부랑캐깅’이라고 하여서 소리가 주는 재미를 극대화한다. 개별적인 발음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아내는 정서를 극대화하여 그것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모어(母語) 화자들이 언어에 대하여 갖고 있는 본능적 차원의 의식이 형상화된 결과이다. 이를 즐기는 방법 또한 음악적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설화는 언어 고유의 음악성을 최대화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러한 음악적 성격 때문에 이 설화는 많은 지역에서 민요로 불리고 있으며, 현대 동요로 채보(採譜)·편곡되어 노래로 불리고 있다.

특징 민요와 설화의 중간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주 간단하나마 줄거리가 있으나 그것이 전승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일종의 수식어인 ‘꼬부랑’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구연자가 그것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발음하느냐가 재미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 설화는 일반 설화와 다른 차원에서 구연자의 능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의의 <새빨간 거짓말> 이야기가 경상남도 거창 지역에서 <거짓말타령>으로 전승되는 것과 같이 민요로도 전승되고 있다. 또한 조사와 채보를 거쳐 현대 동요로 편곡되고, 표준 가사라 할 만한 것이 제안되어 있는 등 설화로서보다는 동요로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315; 8-4, 164.

참고문헌 언어유희동요에 나타난 공간인식과 표현양상(한영란, 한국민요학10, 한국민요학회, 2002), 전래동요 꼬부랑할머니의 문화콘텐츠 자원화 과정(편해문, 민속연구16,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7).

필자 노영근(盧暎根)

무 가운데 연대기적으로 최초의 것은 단군 시절의 신단수(神檀樹)이다. 단수(檀樹)는 소도(蘇塗)나 서낭당에서 ‘무당의 대(臺)(샤먼의 나무·우주의 대·cosmic tree)’ 기능을 한다. 단군은 ‘단나무’의 아들이라 그 이름이 단군(檀君)이 되었다. 조선 이씨왕조는 오얏나무의 아들(목자득국(木子得國))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설 역시 한국인의 수목숭배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꽃과 연관된 이야기인 <모란과 선덕 여왕>, 설총(薛聰)의 <화왕계(花王戒)>, <철쭉꽃과 수로 부인>, <작약과 제국 공주>, <연꽃과 충선왕> 등이 우리나라 최초의 꽃전설로 보인다. 『삼

의 궁에는 작약이 만개하였는데, 제국 공주는 아름답게 핀 작약을 보고 생명의 무상함을 잠재의식 속에서 직관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연꽃 이야기는 이렇다.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 서울 연경에 있을 때 궁궐 안의 한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뒤 고려로 돌아오게 되어 두 사람은 슬픈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하는 궐녀에게 정표로 연꽃을 선사하니 그녀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충선왕에게 바쳤다. “떠나시던 그날에 꺾어 준 연꽃 한 송이 처음엔 빨강더니 얼마 안 되어 떨어지고 이제는 시드는 빛이 사람과 같사오이다(贈送蓮花片初來灼灼紅 辭枝今幾日 憔悴與人).”

이 밖에도 개화·고양이머리꽃·국화·금은화·나리꽃·나팔꽃·난초꽃·달리아·달맞이꽃·도라지꽃·동백꽃·두견꽃·등꽃·매화꽃·머느리밥풀꽃·모란꽃·목단꽃·물망초·민들레꽃·박꽃·백일홍·봉선화·붓꽃·패랭이꽃·실겉이꽃·양귀비꽃·연꽃·영춘화·월계화·옥잠화·인삼꽃·접시꽃·장미꽃·진달래꽃·초롱꽃·코스모스·할미꽃·해당화·해바라기·호이트꽃 전설 등이 오늘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현재 민간에 구전되고 있는 꽃전설로는 개나리라는 가난한 처녀와 그 식솔이 죽어서 개나리꽃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색다른 변이담도 전한다.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 “개 좃도 없다.”라고 하자 스님은 상자 하나를 준다. 상자를 열어 보니 개 좃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개 좃들을 울타리 주변에 묻었더니 개나리꽃이 피었다는 전설이다. 일종의 학승설화(唐僧說話)라 할 수 있다. 이런 사연으로 개나리꽃은 천한 꽃 가운데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다. 원래 도라지꽃은 도라지라는 처녀가 산신과 한 약속을 어겨 그 벌 때문에 변해 버린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사또의 명을 거역해 억울하게 맞아 죽은 처녀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꽃이라는 변이담도 구전되고 있다. 이들 외에 동백꽃·나팔꽃·만병초·매화꽃·머느리밥풀꽃·백일홍·봉선화·불로초·연꽃·인삼꽃·진달래꽃·할미꽃·해바라기 등도 이담이설(異說)을 지니고 있다.

의의 일찍이 육당(六堂) 최남선은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問答)』 속편에서 고소설의 형성 발달을 『삼국사기』의 <운달전>이나 『삼국유사』의 <조신낙산몽(調信洛山夢)>, 설총의 <화왕계>, 김대문(金大問)의 『잡전(雜傳)』,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및 『신라고사(新羅古史)』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만큼 꽃·나무전설이 고소설의 소재나 주제로 많이 이용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무전설보다는 꽃전설이 많은 편이고, 꽃전설의 경우 주인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

전설

꽃·나무전설

정의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서 그리고 우주관이 담긴 꽃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

내용 최초의 나무 이야기는 신단수(神檀樹)를 중심으로 한 <단군신화>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숭앙의 대상이 되었던 나

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에 선덕 여왕의 공주 시절 일화가 전한다.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 그림을 보고 선덕 여왕이 “꽃은 비록 고우나 그림에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을 것이다(此花絶艶 而圖畫無蜂蝶 是必無香花).”라고 하였다. 씨앗을 심어 보니 과연 향기가 없었다. 이에 선덕 여왕의 영민함에 모두가 탄복하였다 한다.

신라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부탁하자 설총은 <화왕계> 이야기를 해 주었다. 좋은 봄날 현란하게 꽃핀 화중왕(花中王) 모란이 수많은 꽃 위에 군림하니, 천홍만자(千紅萬紫) 꽃들이 화궁의 향궁(香宮)에 입조할 때 요염한 절세미인 장미가 화왕에게 “침이 일찍 왕의 엄덕을 듣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으니 행여 버리지 마옵시고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옵소서.”라고 간하였다. 이때 포의한사(布衣寒士,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선비)로 노방(路傍)에 있던 할미꽃도 구부리고 와서 화왕 곁에 있으면서 일하기를 원하며 충언직언을 하여 요염한 여자에게 현혹되지 말기를 간하였다. 그러나 화왕은 벌써 요염한 장미에게 빠져서 할미꽃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본 할미꽃은 분연히 왕에게 “신이 처음에는 왕께서 충민하시어 의리를 깨달으리라 믿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그렇지 못합니다. 요염한 여인과 가까이 함은 패망을 자초하는 길일 것입니다.”라고 아뢰며 왕에게서 떠나려 하자, 왕이 그제야 잘못을 깨닫고 충직한 할미꽃에게 사과하였다. 이 이야기를 설총이 신문왕에게 들려주자 왕은 “뜻이 깊은 이야기로서 왕자의 계(戒)가 될 만하니 곧 글로 만들어 오라.”라고 하였다 한다.

철쭉류 자생국인 우리나라는 철쭉꽃에 연관된 꽃 전설과 시가 많이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수로 부인> 조에는 신라 성덕왕(聖德王) 때 수로(水路)라는 아름다운 부인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남평 순정공(純貞公)을 따라 강릉으로 갈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한 노인이 꽃을 꺾어다 주면서 지어 바쳤다는 <헌화가(獻花歌)>는 철쭉꽃 설화 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 있는 향가(鄉歌)이다.

고려시대 꽃전설로는 꽃의 재상이라고 하는 작약과 연꽃에 얽힌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꽃 모양이 함지박처럼 크다고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작약을 함지박이라고 한다. 고려 때 충렬왕은 원나라 세조(世祖)의 외딸 제국 공주를 왕비로 맞았다. 왕비가 된 공주는 어느 날 수녕궁(壽寧宮) 향각(香閣)의 어원(御苑, 궁궐 안에 있던 동산이나 후원)을 산책하다가 작약이 탐스럽게 피었으므로 시녀에게 명하여 한 가지 꺾어 오게 하였다. 공주는 작약 한 가지를 한참 소중히 잡아 들고 있더니 그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로부터 얼마 뒤에 병이 들어 죽었다. 제국 공주가 향각에서 소묘하였던 송경(松京)

다. 또 대부분 꽃전설의 수사법은 ‘꽃 즉 여성’이라는 은유적 원리와 관련되어 있고, 의인화 수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꽃은 심청이가 부활한 장소이기도 하며, 화신(花神)의 은둔처이기도 하고, 그들이 노는 장소이기도 하다. 나무전설은 ‘죽어서도 단종을 옹위하고 있는 엄나무’의 엄흥도(嚴興道)나 <단군신화> 속의 단나무의 아들 단군처럼 남성 상징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대부분 꽃·나무전설류는 의인화

의 법칙과 구상(具象)의 법칙에 의해 화소(話素)의 변이가 초래되고 있다.

참고문헌 꽃전설 이야기(김선봉·리룡득, 집문당 1995), 민족문화대백과사전-꽃(이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조선상식문답-속(최남선, 동명사, 194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의 신화(김열규, 일조각, 1976).

필자 김선봉(金善豊)

민담

피로 얻은 명당

정의 부귀공명을 얻기 위해 피를 써서 남의 명당을 획득한 풍수설화.

줄거리 어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누나는 풍수에게 시집을 가서 잘살고 남동생은 가난하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러야 하여 자형을 찾아갔더니 풍수 일을 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 누나에게 좋은 뗏자리를 알아내 어머니를 그곳에 모셨다. 자형이 돌아와서 보니 그 자리는 아내의 사후공간(死後空間)으로 잡아 놓은 자리여서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 후 동지선달 추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동생은 아내에게 무명 배옷에 풀을 세계 먹이라고 하여 그 옷을 입고 자형을 찾아갔다. 그리고 추위에 무명 배옷을 입어 발강게 부은 다리를 보이며 나귀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 자형의 나귀를 타고 가니 나귀가 자형이 자신의 사후공간으로 준비해 놓은 뗏자리로 안내해서 그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다. 이를 안 자형은 자기 부부의 뗏자리를 다시 잡고, 남매는 부자가 되었다.

분석 피를 써서 명당을 얻는 행동은 명당을 얻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강렬하지만, 명당을 얻는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쓰던 방법의 하나였다. 원두표(元斗杓)가 주인공인 설화를 보면, 상을 당했지만 돈이 없어 지관을 청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원두표가 지관을 폭행하고 그의 형이 다시 지관을 구출하면서 그 대가로 명당을 받는다.

특징 명당탈취담 중 하나인 <피로 얻은 명당>은 쟁송(爭訟)의 주요 원인이 될 소지가 있음에도, 인간이 원망(願望)하는 부

귀공명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한다. 이 유형의 설화는 부모를 위한 일이고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며, 은혜를 입는 상황이므로 갈등 요소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의의 풍수설화는 당대의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 여건을 보여준다. 이 설화 유형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부모를 명당에 안장하는 것이지만, 명당에 대한 관심은 죽은 부모가 안주할 내세보다는 후손이 복을 받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지관을 고용할 형편이 안 되면 피를 써서라도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를 통해 남을 속여서라도 복록을 얻고 싶어 한 힘없고 가난한 민중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61; 5-5, 290; 6-3, 453; 7-16, 93; 8-6, 683.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공간과 인간의 관련성 연구(김미숙,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풍수의식(최은식, 한국어문교육10,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1), 풍수설의 국문학적 수용양상 연구(강중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필자 김미숙(金美淑)

민담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정의 피로 인해 평양감사를 지낸 사위에 관한 설화.

줄거리 옛날 어떤 사람이 대감 집으로 장가가서 원님 자리 하나 주기를 장인에게 바랐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자 사위는 기지를 발휘해 장인의 말에 먹칠을 해 검은 말로 만들어 주고 평양감사 자리를 얻었다. 그런데 소나기가 쏟아져 말에 칠한 먹물이 지워지자, 장인은 사위에게 속았다고 평양감사 자리

를 파직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장인은 큰아들을 평양으로 떠나게 하였다. 딸은 오빠가 평양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급히 전했다. 남편은 장인의 부고를 거짓으로 써 놓고 큰처남이 도착하자 보여 주었고 큰아들은 급히 돌아왔다. 이번에는 둘째가 평양으로 가는 도중 주막에 도착했는데, 기생이 동침을 유도하였다. 이때 갑자기 기생 남편이 나타나 둘째가 퀘짜 안으로 숨었는데, 두 사람이 싸우며 서로 자기가 퀘짜를 갖겠다고 우겼다. 결국 평양감사가 나서서 퀘짜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며 톱으로 중간을 자르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둘째가 발가벗은 몸으로 뛰쳐나와 평양감사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집으로 달아났다. 이번에는 셋째가 평양으로 가면서 주막에 묵었는데, 건너편 반석에서 신선 차림의 두 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주모에게 바둑두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주모는 그 바위가 신선바위인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셋째가 그 바위로 갔더니 신선들이 독한 술을 권해 마시다가 결국 술에 취해 쓰러졌다. 쓰러진 셋째를 낚은 옷으로 갈아 입히고 오래 묵은 술가지로 덮어 두었다. 셋째는 깨어나서 자신의 옷과 술가지가 여러 해 묵은 것을 보고 수십 년이 흘렀다고 여기고 주막으로 와서 할머니에게 주모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분은 몇 대 위의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되물었다. 셋째는 수백 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닮은 사람이 있었다. 셋째가 아버지를 보고 “네가 나를 모를 터인데 나의 몇 대손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자, 아버지가 “어디서 미처서 와서 헛소리하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그제야 아들은 정신을 차렸다.

분석 조선조에서 평양은 한양 다음으로 큰 고을이었다. 그래서 지방 수장 가운데 평양감사는 가장 부러움을 사는 자리였으므로 옛날이야기에 평양감사가 고을 원님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한다. 민담 가운데 ‘삼형제담’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삼형제담은 마지막 셋째에 이르러 갈등이 해소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점층적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이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이야기는 점층 구조가 아니라 평면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머리를 써서 획득하고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하라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4, 31; 8-1, 234.

참고문헌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설화연구(최은식, 집문당, 1991).

필자 김용덕(金容德)

민담

피쟁이 하인

정의 상전을 거둬 골탕먹인 뒤 교묘한 피로 상전의 딸을 차지한 어린 하인에 관한 민담.

역사 이 설화의 주인공은 ‘트릭스터(trickster)’로 오랜 역사를 지닌 캐릭터에 해당한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골탕먹이는 것이 이 설화의 특징이 된다. 조선 전기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상좌가 노승을 골려 먹는 이야기처럼 비슷한 설정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전국에서 수많은 자료가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며 이어져 온 것을 볼 때, 이 설화는 오래전부터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들어 양반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고 민중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야기 전승이 더욱 탄력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줄거리 시골의 한 양반이 어린 하인을 말몰이꾼으로 데리고 서울로 길을 나선다. 양반은 서울이란 곳이 산 사람 코 베어 가는 곳이라며 하인을 겁주었다. 둘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하인은 갖가지 교묘한 피로 상전을 골려 먹는다. 음식을 사오라고 하면 음식에 뭐가 빠졌다고 휘저어서 자기가 차지하며 숟가락을 뜨겁게 달구었다가 상전이 놀라 소리치면 밥상을 훌쩍 내 와서 자기가 먹는 식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하인은 상전의 딸을 팔아먹고는 눈을 감고 코를 쥐고 있다가 서울 사람이 코를 베어 갈까 봐 그랬다고 둘러댄다. 화가 난 상전은 하인의 등에 ‘이 녀석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하인은 돌아오는 길에 교묘한 피를 써서 방아 찧는 여인한테 떡보리를 빼앗고, 꿀장수한테 꿀을 빼앗으며, 어떤 스님한테 부탁해서 등에 쓴 편지를 ‘애를 우리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으로 바꾼다. 뒤늦게 서울에서 돌아온 상전은 하인이 자기 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부아가 나서 하인을 죽이려고 자루에 넣어 연못 위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 그러자 하인은 지나던 유기장수에게 자루에 들어오면 애꾸눈을 고칠 수 있다고 속여 자기 대신 죽게 만들고는 상전의 집으로 와서 연못 속 용궁이 아주 살기 좋다고 자랑한다. 상전 식구들이 용궁 구경을 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어 죽자 하인은 아내를 만류해서 붙잡은 뒤 상전의 재산을 차지해서 잘살았다고 한다.

변이 이 설화는 자료가 매우 많으며 변이가 다양하다. 먼저 주인공의 이름이 제각각이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막동이 외에 진평구, 김복선, 방학중, 유월삼, 애꾸이, 가걸이, 왕굴장굴

대 등이 있다. 일련의 서사적 흐름을 갖춘 완결형 외에 주인공이 피로 상전을 골려 먹는 삽화(挿話)가 독립적으로 구연되기도 한다. 하인이 상전을 골려 먹은 내용도 자료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상전의 음식을 가로채고 말을 팔아먹는다는 내용은 거의 공통된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야기 서두에 상전 양반이 하인의 어머니를 가로채려 해서 하인이 앙심을 품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기도 하다. 결말 부분에도 중요한 변이가 있어서 일부 자료는 하인의 아내가 된 상전 딸이 남편을 죽여서 집안 식구의 복수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하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분석 〈피쟁이 하인〉설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트릭스터담이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은 사기에 가까운 피로 사람들을 속여서 잇속을 차지해 나가는 인물로 트릭스터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속임의 대상으로 삼는 주요 인물이 자신의 상전인 양반이라는 사실이다. 양반은 하인한테 거드름을 피우며 위세를 떨지만, 길에 나서서 일대일의 상황이 되자 속절없이 당하고 만다. 열세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인공을 공격한 결과는 일가의 패망과 죽음이었다. 이런 설정을 통해 이 설화는 양반의 위세가 별것이 아니며 상민들의 능력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설화는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허구적이고 희극적인 설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이 설화가 주는 웃음 안에는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뒤엎는 전복의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사실은 이 설화에서 주인공이 속이는 대상이 상전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아 찧는 여인이나 꿀장수, 유기장수 같은 서민적 인물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주인공이 자기를 유아독존적인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존재와 부딪치며 길을 찾아 나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사적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의 주인공이 '민중의 영웅'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트릭스터'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설화에서 양반 상전 외에 유기장수가 주인공한테 속아서 죽는 모습이 억울하고 안타깝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인공의 사악함을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할 사항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특징 〈피쟁이 하인〉설화는 〈김선달설화〉나 〈방학중설화〉, 〈정만서설화〉처럼 특정 인물 중심의 트릭스터담에 비해 민중적 색채가 짙으며, 캐릭터의 전형성과 서사적 완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설화의 주인공이 펼쳐 보이는 트릭스터로서 일련의 행각은 선악의 윤리론보다는 강약의 존재론 차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동물설화 가운데 〈토

끼와 거북이〉의 토끼나 〈메추라기의 콩지〉의 메추라기도 이와 비슷한 성격이다.

의의 한국의 대표적 트릭스터담으로 민담의 발달한 캐릭터와 도전적인 세계관을 단면적으로 보여 주는 설화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원형적 인식과 사회의 차별적 위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Grimm) 민담 등 세계의 주요 민담에는 트릭스터 캐릭터가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그와 비견할 한국의 트릭스터를 들라면 이 설화 속의 하인을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513; 4-1, 36; 5-1, 491; 6-1, 40; 6-4, 79.

참고문헌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양상과 의미(김현선, 경이며문화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신분갈등설화의 상황설정과 문제해결 방식(신동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한국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나수호, 구비문학연구28,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필자 신동훈(申東暉)

민담

꿀 싸는 강아지

정의 강아지가 꿀 똥을 썬다고 속여서 팔았다는 사기담(詐欺談) 유형의 설화.

역사 구전되던 이야기를 1930년대 활동한 배우이자 동화작가인 김복진(金福鎭, 1908~1950)이 〈꿀 강아지〉로 다시 창작하였다. 현재 이 이야기는 구전서사보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로 더 유명하다.

줄거리 어떤 시골 사람이 강아지에게 꿀만 먹여서 기른다. 서울에서 친구가 오자 떡을 해 놓고 강아지 배를 눌러 꿀을 싸게 한다. 거기에 떡을 찍어 먹으니 정말 꿀과 똑같았다. 친구가 꿀 강아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하자 값을 많이 쳐서 받는다. 친구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가서 귀한 강아지라며 고기를 먹여 키운다. 얼마 후 강아지가 살이 찌자 떡을 해 놓고는 집안 사람들을 모아 놓고 강아지 배를 눌렀다. 강아지가 싸놓은 것에 떡을 찍어 먹는데, 다들 구려서 못 먹겠다고 했다. 강아지를 물리려고 시골로 내려가니 친구가 “이 강아지는 시원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은 온도가 높아 강아지를 버려 놓았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여러 개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로 〈꿀 싸는 강아지〉가 삽

입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다 사려고 했다. 동네 사람이 꿀 강아지라고 속여서 강아지를 팔았다. 강아지가 집에 와서 똥만 싸자 속은 것을 알고 물리러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나무에다 떡을 달아 놓고 떡이 열리는 나무라고 해서 꿀 강아지를 놓고 떡 나무를 가져갔다. 집에 가서 보니 또 떡이 열리지 않아서 속았다고 물리러 갔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여자 몸에 돼지 창자를 감아 놓고 여자를 때리는 척하니 창자가 터지면서 피가 나고 여자가 쓰러졌다. 거기에 대고 나팔을 불자 여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떡 나무를 물리러 왔던 사람은 그걸 놓고 대신 나팔을 가져갔다. 집에 가니 부인이 “똥 강아지 가져오고 떡 나무 가져오더니, 이제 또 나팔을 가져왔구나!”라며 빈정거렸다. 화가 나서 부인을 때리자 부인이 정말로 죽었다. 그래서 부인에게 대고 나팔을 불었다. 아무리 불어도 부인이 살아나지 않자 속았으면서도 물리러 갔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며 병풍을 쳐 놓고 장사를 지내는 척했다. 결국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 나팔을 그냥 가져왔다. 부인도 죽고 집도 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변이 〈꿀 싸는 강아지〉는 전혀 상관없는 설화에 삽화(挿話)로 편입되기도 한다. 〈반쪽이설화〉에서는 반쪽이가 부자가 되는 과정에 이 꿀 강아지를 먹여 팔기도 한다. 전래동화로 출판된 책에서는 먼저 다른 장사꾼에게 속임수를 당한 주인공이 꿀 강아지로 되갚음을 하는 이야기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또 선행 덕에 큰 부자가 된 주인공에게 동네 욕심쟁이 영감이 찾아오자 주인공이 일련의 속임수를 쓰는 이야기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이 전래동화들은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을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놓고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변이시켰다.

분석 〈꿀 싸는 강아지〉는 단일 이야기로 전승되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에 끼어들어 모티프 혹은 삽화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에서는 꿀 강아지가 서울 사람을 놀리는 수단이지만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욕심꾸러기를 징계하고 다스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나 꿀 강아지를 만드는 방법은 같다. 아무 것도 먹이지 않고 꿀만 먹여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다. 이 이야기에 대한 개별 연구 논문은 없으며, 다른 민담과의 관계에서 연구되거나 속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트릭스터담의 일부로 연구되었다. 특히 꿀 강아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속임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아지에게 꿀을 먹이거나, 나무에 떡을 달아 놓거나, 사람 몸에 창자를 감아 놓거나, 병풍을 쳐 놓고 죽은 척하는 것 같은 실제의 조작이 필요하다.

특징 이 이야기는 일종의 소화(笑話)이다. 강아지 똥을 꿀이라고 믿고 찍어 먹는 부분은 예외 없이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웃음은 배설물을 이용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속임수가 관여하기에 이 이야기는 소화 중에서도 사기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담에는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설화에서 속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은 시골 사람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 둘 사이에는 꿀 강아지 만드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는 정보 불균형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마지막까지 해소되지 않기도 해서, 속는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강아지가 꿀이 아닌 똥을 썬 이유를 모르는 예도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사기담이기도 하지만 속임수가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트릭스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트릭스터는 일반적인 사기꾼과는 달리 속임수를 통해 문화적 위계를 뒤바꾼다. 이 설화에서 트릭스터는 서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서울과 시골의 공간적 혹은 문화적 위계가 뒤바뀌는 것이다. 또한 속임수가 이루어지는 맥락을 선과 악, 영리함과 어리석음의 대결구도로 설정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흥미뿐만 아니라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달하는 텍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93; 4-5, 571; 7-12, 206.

참고문헌 민담 각편 형성 원리에 대한 실증적 연구(노영근, 겨레어문학연구38, 겨레어문학회, 2007),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노닐다(류정월, 샘터, 2006),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트릭서사 연구(임주영,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필자 류정월(柳正月)

민담

끝없는 이야기

▶▶▶ 쥘레도강

나도 계집 있다
나도밭나무
나옹화상
나주기린창본풀이
낙안읍성
낙화암
단생화소
남매탑
남매혼설화
남사고
남산
남원진씨시조신화
남의 북 빌려서 산 사람
남이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남편 따라 죽은 열녀
남편 병 고친 열녀
남평문씨시조신화
남한산성

내 병 다 나았다
내 북에 산다
노적봉
노힐부득 달달박박
논개
늦다리밟기 유래
농다리
누명 벗은 시아버지
누정·비각·묘충전설



: 니은

ㄷ
ㄹ
ㅁ
ㅂ
ㅅ

나도 계집 있다

정의 가족관계에서 부부사이를 강조한 설화유형.

줄거리 옛날 어느 농가에서 칠월에 개를 잡아 솥에 삶는데, 늙은 아버지가 사랑방에서 먼저 자기 먹을 차례가 올 것이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딸이 자기 남편을 불러서 부엌에서 개고기를 먹였다. 아버지가 속이 상해 있을 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도맷소리가 나게 개고기를 썰더니 한 손에 주전자를 들고 사랑방 앞으로 와서, “영감, 잠수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가 문을 화닥닥 열어젖히고 당당히 나오더니 팔뚝을 걷어붙이며 큰소리를 쳤다. “너만 계집 있느냐? 이놈아! 나도 계집 있다!”

변이 다른 이야기로는, 어느 집에서 선달그릇에 가래떡을 만들고 있었는데, 사랑방에 있는 시아버지가 자기 먹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또는 세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게 먼저 한 가닥을 떼서 먹였다. 이때 시어머니가 마을에 놀러갔다가 들어오면서, 떡가래 한 가닥을 뜯 떼어서 시아버지를 갖다 주니, 시아버지는 기세당당하게 큰소리를 쳤다. “나도 계집 있다.”

분석 첫째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분노와 그 해소가 있다. 부모에게 불효함으로써 심각하게 번져 나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웃음으로 해결하였다. 시아버지가 말한 두 마디에서 먼저 한, “너만 계집 있느냐?”라는 말은 며느리나 딸의 불효를 지적하는 분노이고, 뒤에 한 “나도 계집 있다.”라는 말은 이 갈등을 해결한 웃음이다. 분노와 웃음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었고, 그 비중은 대등하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한 한 마디, “이놈아! 나도 계집 있다.”라는 말은 분노가 더 강하다. 둘째로, 서로 챙기고 위해 주기는 내외간밖에 없다는 내외지친(內外至親)이 있다. 부부에 관한 유교의 덕목에 오륜(五倫)에 부부유별(夫婦有別)이 있고, 삼강(三綱)에 부위부강(夫爲婦綱)이 있듯이, 가깝기는 부부밖에 없으니 무릇 부부는 싸우지 말고 평생을 지친(至親)으로 살라는 말이다. 셋째로, 속담대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 가정에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本능, 윤리면)이 있고,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치사랑(윤리면)이 있으며, 부부간에 사랑하는 금실사랑(본능면)이 있다. 사랑은 소중한 가치지만 본능 면이 윤리 면보다 강함을 말하고 있다.

의의 부부는 해로(偕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와 반대로, 늙은 홀시아버지(鰥)나 홀시어머니(寡)는 “나는 계집이 없다. 나는 영감이 없다.”라는 현실적 고독(孤獨)과 섭섭함과 분노만 있게 됨을 자식이 알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490; 2-8 299; 4-5, 599; 7-7, 562; 8-5 308.

참고문헌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중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최래옥(崔來沃)

나도밤나무

정의 호환(虎患)을 당할 액운을 타고난 사람이 밤나무 천 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도액하여 호식을 면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이원수 공이 늦은 나이에 율곡을 낳아 애지중지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던 도사가 어린 율곡의 얼굴을 보고는 관상이 좋기는 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사주를 타고 났다면서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야 호환을 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원수 공은 도사의 말대로 뒷산에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다. 마침내 율곡이 스무 살쯤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 율곡을 내놓으라고 하자, 이원수 공은 밤나무 천 그루를 심어 정성을 다했다고 하면서 거절했다. 그 사람과 함께 밤나무 수를 세어 보니 한 그루가 모자랐다. 그때 옆에 있던 나도밤나무가 나서서 자기도 밤나무라고 하니 그 사람은 호랑이로 변해 죽었다. 그 후 율곡은 호식을 면하고 훌륭한 인제가 되었다.

변이 〈나도밤나무〉는 아이가 타고난 호환 운명을 예언하는 사람에 따라 시주승이나 도사가 예언하는 경우와 주모가 예언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형태이며, 주모가 예언하는 경우는 전승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율곡을 잉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판관대전설(判官堡傳說)〉과 연관이 깊다. 결말도 호환을 도액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나도밤나무〉 유래담이나 율곡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된 연유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자료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타고난 액운일지라도 모종의 방도를 통해 도액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이야기이

다. 또한 이 설화는 나무와 인간 사이에 신비한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수목숭배 신앙과 연관되어 있다. 즉, 밤나무를 심고 보호하는 행위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써 사람의 생명과 나무의 생명을 동일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특징 다양한 수종 중에서 하필 밤나무가 도액의 수단으로 설정된 것은 주로 밤나무를 이용하여 위패를 만들었던 풍속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밤나무라는 모티프는 조선 중기를 살았던 이이(李珣)의 호와 연관되면서 인물전설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의의 〈나도밤나무설화〉는 초월적으로 미리 정해진 호환 운명도 인위적인 도액행위를 통해 번역할 수 있다는 운명인식과 함께, 나무숭배에 기초한 도액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136; 7-16, 608; 8-5, 1028.

참고문헌 종교형태론(엘리아데, 이은봉 역, 한길사, 1996), 한국운명설화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나옹화상

懶翁和尚

정의 나옹화상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전설.

줄거리 〈나옹화상전설〉은 여러 유형으로 전승되는데, 대표적으로 출생담, 출가담, 풍수담, 도술담 등을 들 수 있다. 출생담은 다음과 같다. 한 여인이 세금문제로 포졸들에게 붙잡혀 가는 도중 길에서 아이를 낳았다. 포졸들은 아이를 버려둔 채 여인을 관아로 데려갔는데, 수령은 관원들에게 호통을 치곤 여인을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냈다. 돌아가 보니 까치들이 날개를 덮어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여인은 무사히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 키웠는데, 그가 바로 나옹이다.

다음은 출가담이다. 나옹은 날 때부터 팔상이 예사롭지 않았다. 자라서는 스스로 출가하기를 청했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스무 살 때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어른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다들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이에 공덕산 묘적암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풍수담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황희 정승의 아버지인 황군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콩테에 매인 채로 젊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황군서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것을 본 황군서가 스님을 구해 주었다. 그 스님이 나옹화상이었다.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나옹화상은 황군서에게 음택 명당자리를 얻어 주었다. 황군서는 아버지 묘를 그 자리에 이장하였는데, 그 뒤 황희가 태어나 훗날 조선의 유명한 재상이 되었다.

도술담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의 것이다. 묘적암 근처 냇가에서 나옹이 주지스님의 아침 공양을 준비하던 중 멀리 떨어져 있는 가야산 해인사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 나옹은 씻고 있던 상추에다 물을 흠뻑 적서 해인사 쪽으로 날려 보냈다. 물 묻은 상추들이 불타고 있는 해인사 건물에 붙더니 불이 꺼졌다.

분석 〈나옹화상전설〉들은 대부분 다른 고승들의 설화 유형과 내용 면에서 대동소이하다. 이로 보아 〈나옹화상전설〉은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한 것이라기보다 당대 승전문학(僧傳文學)의 내용적 전형성을 충실히 따른 작품이라 할 만하다. 먼저 출생담은 고구려 〈주몽신화〉에까지 그 근원을 들 수 있으며, 승전문학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서사구조를 고스란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출가담의 경우, 한국 승전문학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보편적인 서사구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반적인 내용이다. 이밖에 풍수담과 도술담의 경우에도 도승 관련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의의 〈나옹화상전설〉은 당대의 승전문학의 전형성을 잘 따르고 있으므로 승전문학의 보편성과 전형성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출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6, 69; 413.

참고문헌 나옹 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윤태현, 한국문학연구2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셋이면서 하나인 원구마을(인동대학교대학원 민속학과 BK21사업팀, 민속원, 2007),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김진형(金鎭亨)

나주기민창본풀이

정의 제주도 제주시 조천면 선흘리 안씨택 조상신의 내력을 구술하는 조상신본풀이.

역사 여러 심방이 전승하나 그 가운데 가장 완벽한 본풀이로 전승되는 것은 안사인 심방의 본풀이다.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나주기민창본풀이)는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리 안씨택(安氏宅) 조상으로 성편(姓便)을 따라 내려온다.

줄거리 안사인 심방의 본풀이에 따라 현용준이 정리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순흥(경상도의 순흥으로 짐작됨)에서 안 씨 삼 형제가 제주도로 들어와 각각 다른 마을에 살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막내는 조천면 선흘리에 정착했다. 그 뒤 안 씨의 후손이 조천면 조천리로 옮겨 부자가 되고, 크고 작은 배 수십 척을 부리니 마을 사람 모두가 그를 안 씨 선주라고 불렀다. 이때 제주에는 칠년대한(七年大旱)이 들어 백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제주 목사가 대책 마련에 애쓰던 차, 안 씨 선주의 재산이면 제주 백성이 사흘은 먹고 남을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안 씨 선주를 불러 구휼 방책을 논의하였다.

안 씨 선주는 제주 목사의 이 같은 계획을 쾌히 수락하고, 창고의 돈을 꺼내어 상선, 중선에 가득 싣고 쌀을 사러 육지로 떠났다. 전라도 영암에 배를 붙이고 쌀을 구하러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나주 기민창의 쌀을 샀다. 기민창의 3년 묵은 쌀을 모조리 사서 가득 싣고 배를 띄우려는 순간, 갑사댕기로 머리를 땀은 아가씨가 배에 올라오는 것이 언뜻 보였다. 그러나 이 아가씨를 배 안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제주가 가까운 물마루(수평선)에 왔을 무렵이었다. 홀연히 광풍이 일더니 산 같은 파도가 밀어닥쳐 뱃전 밑에 구멍이 뚫려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 안 씨 선주는 제주 백성을 살려 달라고 하늘에 간절하게 빌었다. 그러자 커다란 뱀이 파리를 트는 것처럼 서리어서 구멍을 막아 배가 다시 떠가게 했다. 안 씨 선주는 '이것은 내게 태운 조상님(집안의 수호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배가 무사히 조천리의 포구에 닿자, 향불을 피워 들고 이 뱀신을 집으로 청하였다. 뱀은 안 씨 선주의 집으로 기어가 울 안을 돌아보고는 다시 밖으로 나와 조천리 포구 쪽 '새콧알'이라고 하는 굴속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안 씨 선주의 꿈에 뱀신이 나타나, "나는 나주 기민창의 쌀을 지키던 신이다. 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너의 집에는 내 몸을 감출 데가 없어 새콧알로 좌정한다. 안 씨 선주는 상단골, 송 씨 선주는 중단골, 박 씨 선주는 하단골로 삼아 좌정하였다. 식개(제사) 명절 때, 기제사 때 그리고 1년에 한 번 칠갈이굿(벨룽갱이)을 하여 나를 조상으로 위하라. 그러면 내가 어부·해녀를 차지하고 거부가 되게 지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안 씨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위하고 또 어업 수호신으로 위하였다.

분석 〈나주기민창본풀이〉는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조상신과 업신앙(부군칠성)의 관계를, 둘째는 조상신과 당신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구령이를 조상으로 모시는 신앙의 형태는 업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제주도의 부군칠성은 육지에서 말하는 업신앙의 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본풀이 자료에서 나주 기민창고를 지키던 무곡섬의 조상, 즉 무곡을 지키던 구령이가 기민창고가 비어 갈 곳이 없어 제주도로 따라 들어왔다는 설정은 결국, 나주 고을 기민창의 업이 제주도로 옮겨 간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와 육지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이들 간 신앙 이동이 구체적인 주제로 바뀌면서 인간의 생명과 부에 대한 환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신앙이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풀이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군칠성이 안 씨 선주 상단골, 송 씨 선주 중단골, 박 씨 선주 하단골로 제민단골을 맺었다는 점은 단골신앙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이를 통해 일련의 성격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신이 차지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이 자료가 조상신본풀이에서 당신본풀이의 성격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조상신본풀이는 역사적 성격이 강력하게 투영된 본풀이다. 이 본풀이는 나주 기민창의 수호신에 대한 내력이자 이 수호신이 어떻게 제주도의 안 씨를 비롯한 단골들에게 섬겨졌는지를 해명하는 구술의 역사적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나주 기민창의 수호신은 무곡을 지키는 업신앙의 대상이었으나 이 존재가 갑사댕기로 머리를 땀은 아가씨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안 씨 선주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을 때 뱀으로 환생하여 위기를 구하였다. 그 뱀을 안 씨 선주가 태운 조상으로 간주하려고 하자, 뱀신으로서 다시 꿈에 나타나 자신은 새콧알로 좌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전 역사를 통해서 업신앙의 단계적 변화를 모두 보여 준다는 점에서 신화적 상상의 극치를 보여 주는 본풀이이다. 뱀, 갑사댕기를 드리운 처녀, 꿈에 현몽한 뱀신은 한 존재의 다면적 변화이다. 업신앙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존재들은 일관성이 있다. 나주 기민창을 지키던 동물에서 아가씨로, 뱀으로, 뱀신으로 둔갑을 거듭하면서 제주도의 새콧알 조상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 주고 있어서 소중한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령이업의 전형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본풀이의 전형성이 발견되는 문법에 있는데, 단순한 클리셰(cliché, 판에 박은 듯한 문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가령 이 조상신본풀이는 다른 조상신본풀이와 열개가 판박이이며, 동시에 일정한 단위들의 조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육지와 제주도의 연결 상황을 근간으로 하면서 이 설정 속에서 육지의 신앙이나 특정한 사회·경제적인 조건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구비로 전승되는 역사를 통해서 본풀이적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이 본풀이의 특성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조상의 내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순흥 안씨의 내력에 근거를 두면서도 후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보여 준다. 이 점에서 본다면 후손이 기억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의 산물이 이러한 본풀이로 구체화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출처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신화(현용준, 서문당, 1976).

참고문헌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김현선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필자 김현선(金憲宣)

전설

낙안읍성

樂安邑城

정의 임경업 장군이 누이와 내기하여 하룻밤에 쌓았다는 낙안읍성의 축성 전설.

역사 임경업(1594~1646)이 1626년(인조 4)에 낙안 군수로 부임해 왔을 때, 낙안읍성 중수에 관여한 역사적 사실 위에 전승자들의 임경업에 대한 지지가 결합하여 〈오뉘힘내기〉 유형의 성 쌓기 설화가 형성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임경업 장군과 누나가 내기를 했는데, 임경업 장군은 하룻밤에 성을 다 쌓기로 하고, 누나는 하룻밤에 배 한 필을 짜서 동생 옷 한 벌을 짓기로 했다. 누나는 배를 짜서 옷을 다 지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문화재청

어 놓고 마지막으로 옷고름을 다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임경업 장군이 성을 다 쌓지 못한 것을 보고 누나가 일부러 옷고름을 달지 않아서 결국 임경업 장군이 내기에서 이겼다고 한다.

변이 임경업 누나가 군사적 목적 때문에 동생에게 저 주었다고도 한다. 이런 때에는 임경업 장군은 군사들과 같이 성을 쌓고, 누나는 동생의 옷 대신 군사들의 군복 짓기로 내기를 한다. 군사들을 직접 통솔하는 동생이 내기에서 지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누나가 일부러 저 주었다고도 한다. 또 임경업이 도술, 축지법, 주문을 써서 굶은 돌들을 저절로 움직이게 하여 하룻밤에 성을 쌓은 도사라고도 하는데, 성 주변에 남은 굶은 돌과 바위들이 그 증거라고 한다.

분석 성 쌓기를 두고 오뉘힘내기가 내기를 벌이는 〈오뉘힘내기〉는 주로 산성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지에 있는 낙안읍성에 이러한 설화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임경업이라는 역사 인물에 대한 전승자들의 강한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임경업이 실제 낙안 군수로 부임하여 낙안읍성을 증수한 사실은, 낙안읍성의 축성을 임경업의 업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설화의 전승의식을 더욱 견고하게 했을 것이다.

특징 역사 인물과 〈오뉘힘내기〉 유형의 설화가 결합한 사례는 전국에 두루 나타난다. 이 설화에서처럼 누나가 임경업 장군보다 더 능력이 있음에도 동생의 업적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점은 김덕령, 이몽학, 정여립 등의 역사 인물과 결합한 〈오뉘힘내기〉에서도 공통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누나의 패배가 비극적 결말을 불러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나의 패배를 조장하는 어머니의 존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어머니도 나오지 않고 비극적 결말 부분도 없이 임경업의 성 쌓기 완성에서 이야기를 끝맺는 것은, 이 설화가 성 쌓기를 완수한 임경업의 업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의 임경업은 각종 설화의 영웅적 주인공이자 신앙의 대상으로 널리 전해진다. 이 설화가 전승되는 낙안읍성 인근 지역에서도 임경업은 축성 설화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당산신으로도 모셔지고 있다. 낙안읍성 축성에 얽힌 이 설화는 임경업 이야기 전승의 다양한 양상 중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처 낙안읍성민속마을 세부현황종합조사보고서1(전라남도 승주군, 1985), 순천시의 문화유적(순천시·순천대학교박물관, 순천시, 2000), 순천시의 전설문화(유년석, 순천대학교박물관, 1999).

참고문헌 남도민속문화론(표인주, 민속원, 2000), 한국의 읍성(허경진, 대원사, 2001).

필자 김월덕(金月德)

전설

낙화암

落花岩

정의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도성을 점령하자 의자왕의 후궁과 궁녀들이 낙화암(落花岩)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전설.

역사 이 전설은 백제 말 나당연합군에게 백제 도성이 함락되면서 일어난 일화를 바탕으로 한다. 곧 정림군이 도성에 들이닥치자 궁녀들이 이 바위에 와서 그 아래 금강(사비강, 백마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 이와 같은 〈낙화암전설〉은 구전되다가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백제 말 나당연합군이 부여성을 함락했다. 이때 도성 안에 있던 의자왕과 후궁, 궁녀들이 피하여 낙화암 근처에 이르렀다. 후궁과 궁녀들은 “차라리 자진할지언정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하며 바위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궁녀들이 떨어져 죽은 이 바위를 낙화암이라고 하였다. 궁녀를 꽃으로 비유하여 꽃이 떨어진 바위라는 표현이다. 또 타사암(墮死岩)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궁녀가 떨어져 죽은 바위인 데서 나온 이름이다.

분석 〈낙화암전설〉은 궁녀가 떨어져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기본형을 중심으로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 대개 기본형은 백제의 멸망과 그로 인한 궁녀의 자결을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변이형은 의자왕의 실정과 충신의 추방을 담고 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백



낙화암 전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문화재청

제가 멸망하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떨어져 자결한다는 구성이다. 또 다른 변이형은 〈삼천궁녀가 몸을 던진 백마강〉과 같은 것이다. 이 전설에서는 의자왕의 위업이 소개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주색을 좋아하고 충신을 멀리하여 국운이 기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때문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궁녀들이 낙화암에서 몸을 던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설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삼천궁녀의 언급이다. 〈낙화암전설〉이 기록된 『삼국유사』에 등장하지 않는 삼천궁녀가 갑자기 위 변이형에 등장한다. 하지만 당시 백제에는 삼천궁녀가 존재하였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낙화암전설〉에 삼천궁녀 소제가 빠지지 않는 것은 의자왕이 말년에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곧 이 전설이 전승해 내려오는 가운데 불특정 인종이 의자왕의 방탕함을 〈당나라 현종의 삼천궁녀 일화〉에 빗대어 표현한 데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유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의 이 전설은 백제 말 낙화암에서 궁녀가 떨어져 자결한 역사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화는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에 기록하였다. 일화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연 대에 이르기까지 이 전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지만 이 일화가 백제 멸망의 비극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언중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언중은 왕의 실정이 불러온 비극적 사건이라는 점과 멸망한 나라 궁인들의 최후가 죽음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회자하였을 것이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백제 관련 설화 자료집(황인덕·박종익, 충청남도·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0).

필자 박종익(朴鍾翼)



백화정
충남 부여군 부여읍, 2009.5. 한국관광공사

용어

난생화소

卵生話素

정의 사람이 알에서 태어난다는 화소.

내용 난생화소(卵生話素)는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신라의 혁거세와 탈해, 가야의 수로, 고구려의 주몽 등이 알에서 태어난 인물들이다. 신성한 인물이 인간의 태가 아닌 알에서 태어난다는 난생화소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남부아시아 지역에 많이 전한다. 난생의 유형은 하강형(下降型), 조란형(鳥卵型), 화생형(化生型), 인태적 출산형(人態的出產型) 등이 있다. 혁거세와 수로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알이 내려온 경우이고, 주몽과 탈해는 인간이 알을 낳은 경우이다. 난생은 비범한 인물의 출생을 드러내는 장치로 볼 수 있는데 신화 이후 서사문학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

알의 의미는 태생(胎上)과 달리 알로 한 번, 알을 깨고 한 번, 곧 두 번 태어남, 바꾸어 말하면 신화의 핵심 주제인 재생과 부활을 상징한다. 또한 자연 내지 우주의 근원성과 연결된다. 우리 신화에서 난생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 또는 시조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낸다. 즉 인간에 의해 탄생하지 않은 천상적 존재임을 드러내거나, 인간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는 장치로 사용된다.

필자 오세정(吳世鼎)

전설

남매탑

男妹塔

정의 스님과 처녀가 의남매 관계를 맺고 수행에 정진하다 같은 날 입적한 것을 기려 쌓은 탑과 관련된 전설.

역사 이 전설은 구전에 따르면 신라 말엽 상원스님의 일화로 알려졌다. 상원스님이 현 남매탑 근처에 막을 짓고 수행에 정진하는 가운데 우연히 한 처녀와 더불어 평생 수행한 뒤 득도하고 입적하였다는 내용이다. 불교의 포교적 성격일 뿐 수행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줄거리 목에 가시가 걸린 호랑이가 수행 중인 스님에게 찾아와 아픔을 호소하였다. 스님이 호랑이의 목에 손을 넣어 가시를 빼 주자 호랑이가 이내 사라졌다. 며칠 후 호랑이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 왔다. 스님이 “여기는 수행도량인데 살생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달려서 돌려보냈다. 다시 며칠이 지나서 호랑이가 한 처자를 물어다 놓고 사라졌다. 스님이 실신한 처자를 잘 간호해서 살려 놓은 뒤 집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처자는 스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며 시중을 들겠다고 하였다. 스님은 출가 사문으로 시중을 받을 일이 없다 하며 다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처자는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출가하였다. 두 사람은 의남매를 맺고 평생 수행 정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함께 열반하였는데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 뒤 신라 성덕왕 때 회의화상이 도량(현, 청량사)을 정비하고 탑을 모신 뒤 남매탑이라고 하였다 한다.

변이 변이형으로는 호랑이의 목에서 짐승의 가시(鬃)가 아닌 비녀를 빼냈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 스님은 목에서 비녀를 빼준 뒤 살생한 호랑이를 꾸짖는 대목이 나타난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잡혀 온 처녀에 대해서도 여러 서로 다른 예가 보인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호랑이와 마주친 사례, 혼인 전날 호랑이에게 물려 온 사례가 있다.

분석 이 설화는 공주시 반포면 관음암의 부현스님이 구술한 것이다. 그래서 호랑이 목의 가시를 빼 준 인물과 탑을 쌓은 인물의 제시가 구체적이다. 민간에 구전되는 보편적인 〈남매탑전설〉에는 상원스님이나 회의화상과 같은 인물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수행 정진하는 스님에게 호랑이가 찾아와 가시를 빼 달라 하고 그 보은을 위해 호랑이가 처자를 물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구전되는 〈남매탑전설〉에는 탑을 쌓은 인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 이야기가 구전되는 가운데 중심 줄거리만 남은 것이다.



남매탑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한국관광공사

한편 심한구는 이 전설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인간 무의식의 여러 원형 요소를 소재로 삼아 분석하였다.

의의 이 전설은 청량사 사찰연기설화로, 수행 정진하던 스님이 젊은 처자를 맞이하고도 흐트러지지 않고 처자와 더불어 열반하였다는 성불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설은 불교 포교를 암암리에 의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구전되는 과정에서 스님과 처자의 인연과 평생 남매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데에 애뜻한 관심이 더해졌다. 실제 전승과정에도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치료, 의남매로서 서로 아끼며 살았다는 대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집14(박종익, 민속원, 2000),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오누이탑전설에 대한 분석심리학적 이해(심한구, 가톨릭신학6,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필자 박종익(朴鍾翼)

용어

남매혼설화

男妹婚說話

정의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 하늘의 뜻을 물어 허락받고 남매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설화.

내용 친남매가 혼인한다는 것은 인류의 대표적인 금기인 근친상간(近親相姦)으로,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설화에서는 남매가 욕망에 의해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설정된다. 주로 대홍수로 인해 인류가 멸절하고 남매 단 두 사람만 생존하게 되며, 이들은 인류의 종족 번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인하여 자손을 퍼뜨린다. 홍수가 아닌 전란(戰亂)이 배경인 이야기도 있다. 이 설화는 인간의 윤리론과 존재론이 극명하게 충돌하는 경우를 잘 보여 준다. 남매는 하늘의 뜻을 물어 허락을 받은 후 혼인을 한다. 천의(天意)를 확인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유형화된다. 남매가 각각 다른 산봉우리에 올라 연기를 피우자 연기가 서로 합쳐진다. 남매가 다른 산봉우리에서 암수 멧돌을 아래로 굴리자 멧돌이 서로 합쳐진다. 남매가 손목에서 피를 떨어뜨리자 그 피가 서로 합쳐진다. 이 같은 초자연적 신호를 바탕으로 남매의 혼인은 정당화된다.

필자 오세정(吳世鼎)

전설

남사고

南師古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이면서 명풍수인 남사고에 관한 설화.

역사 남사고의 본관은 영양이고 호는 격암(格菴)이다. 남사고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남씨문헌록(南氏文獻錄)』의 기록에 따르면 1501년에 출생하여 1571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사고설화>는 천문·지리에 정통하고 도술을 부려 신이한 행적이 많았다는 이인(異人) 남사고에 관한 인물전설을 의미한다. 남사고는 선조 때에 천문교수(天文敎授)를 지냈다는 것 외에 뚜렷한 경력은 없는데, 당대부터 여러 문헌에 많은 설화를 남겼다. 따라서 <남사고설화>는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당시부터 민간에 구비전승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에 기록된 남사고에 관한 설화는 『동야회집(東野彙輯)』·『대동기문(大東奇聞)』에 각 7편, 『계산담수(鷄山談藪)』에 3편, 『송와잡설(松窩雜說)』·『지봉유설(芝峰類說)』·『어우야담(於于野譚)』·『청구야담(靑丘野談)』에 각 1편씩 전해지고 있다. 구비설화는 남사고의 고향인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풍부하게 전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전하고 있어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줄거리 민간에 구전되는 <남사고설화>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구천십장(九遷十葬)한 남사고> 이야기이다. 남사고는 부친(혹은 모친)의 묘를 명당자리에 쓰기 위해 아홉 번이나 이장을 하였다.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비룡상천(飛龍上天)' 형국의 명당자리를 얻어 부친의 묘를 썼다. 이장을 한 후 한창 봉분을 만들고 있는데 한 노인이 나타나 “남사고야 남사고야, 비룡상천(飛龍上天)이 웬 말이나, 고사괘수(枯死掛樹) 아니더냐?” 하고는 사라졌다. 남사고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피니, 묘 아래로 보였던 너른 바다가 실은 메밀밭이라 비룡상천 형국의 명당이 아닌 고사괘수 자리인 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결국 부친의 묘를 더는 옮기지 못하게 되었고, 남사고 또한 얼마 못가 죽고 말았다.

변이 구전설화 속 남사고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남사고설화>의 대표적인 유형인 <구천십장한 남사고> 이야기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고 있는 광포설화이다. 그러나 ‘외장수의 외를 남사고가 사술(邪術)을 써서 먹은 이야기와 ‘사술(邪術)을 부리다가 이황(李滉)에게

제지당한 남사고 이야기’ 등의 유형은 경상도 지역에서 특히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학방(學房)에 다니던 남사고 앞에 나타난 여화미인(如花美人)의 야광주를 삼키고서 풍수지리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데, 특히 야광주를 삼키고서 명풍수가 된 모티프는 <남사고설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풍수와 관련한 여러 인물전설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티프는 명풍수의 이인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분석 남사고 관련 설화는 그간 도선(道詵)이나 무학대사(武學大師)와 같은 명풍수와 더불어 풍수설화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남사고설화>가 인간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구천십장한 남사고>를 천기누설에 대한 경고와 남사고의 실패를 통해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다.

특징 남사고는 조선 중기에 명풍수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지닌 이인적인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채 평생을 하급관료로서 살아야만 했기에, 그는 설화 속 인물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남사고는 도선국사, 무학대사와 더불어 명풍수담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사고설화>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명풍수가 어떤 계기로 인해 명당을 상점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는 내용의 이야기 유형인 ‘명풍수 좌절담’에 속한다. 이야기 속 남사고는 명당을 상점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욕심’이나 ‘무분별한 지술 시행’ 및 다른 사람의 명당을 탈취하려는 그릇된 심성 때문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풍수설화에서 남사고는 이인 중의 이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이 그릇된 심성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언중(言衆)에게 보임으로써 풍수관행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의 기록에 의하면 남사고는 선조의 등극과 동서 당쟁의 시각, 정여립의 난과 임진왜란도 미리 알고 있었고, 정유재란 때는 왜군이 한강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는 등 이인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간에 구전되는 설화를 보면, 문헌기록과 마찬가지로 남사고의 이인적 면모를 강조하면서도 끝내는 실패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요인이 남사고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사술을 쓰고, 명당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린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전승은 천기누설에 대한 경고, 즉 인간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는 일반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남사고

설화>를 통해 민중들은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와 함께 천지 자연에 순응하는 겸손한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南氏文獻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816; 2-7, 439; 7-3, 217; 7-6, 65; 7-9, 867; 7-10, 364.

참고문헌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encykorea.aks.ac.kr).

필자 한미옥(韓美玉)

전설

남산

南山

정의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남산에 얽힌 설화.

줄거리 남산과 관련한 설화는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설화가 남산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옛날 서벌에 두 사람의 신이 찾아와 서벌의 경치를 둘러보고는 그중 남신이 “야!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로구나!” 하고 외쳤다. 이 때 빨래하던 한 처녀가 남신의 목소리에 놀라 바라보니 산과 같은 거대한 두 남녀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었다. 겁에 질린 처녀는 “산 봐라! 사람 살려!” 하며 정신을 잃었다. 처녀가 “산과 같은 사람 봐라!”라고 해야 할 말을 그만 “산 봐라!” 하고 외친 바람에 두 신은 각각 그 자리에서 산이 되어 망산과 남산으로 솟았다. 다음으로, <비파암전설>은 부처님이 망덕사의 낙성재에 누추한 옷차림으로 참석하였는데, 왕이 그 누추함을 업신여기자 왕을 꾸짖고는 진신석가의 모습으로 바뀌어 홀연히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 버렸다는 이야기이다. <열반골전설>은 각간 벼슬을 하는 사람이 외동딸을 키우고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시 남산동, 문화재청

있었는데, 딸의 미모가 뛰어나고 마음씨도 고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견딜 수 없었던 처녀는 집을 떠나 출가의 길을 택했다. 그녀가 열반골에 들어서자 골짜기의 모든 짐승들이 처녀의 앞길을 막으며 으르렁댔다. 처녀는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의 도움으로 부처의 세계인 천룡사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속세의 고통을 벗고 보살이 되었다. 그때 처녀의 냄새를 맡고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던 짐승들은 차례대로 각자 제 형상을 빼닮은 바위가 되었다.

분석 경주 남산 생성 설화는 거인 남녀가 각기 남산과 망산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설화는 창조신화적 성격이 퇴색하고 특정 지역의 지형이 형성되는 이야기로 전설화되었다. 현재 전승되는 지형 창조의 거인설화는 대부분 이들 설화처럼 특정 증거물을 바탕으로 전설화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른 남산 관련 설화는 부처와 보살이 남산과 남산 바위 속에 머물다가 권세 있는 자들이 잘못을 저지른 때는 밖으로 나와 그들을 호되게 꾸짖고 가르침을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고는 다시 산속과 바위 속에 숨었다가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 나타나 보살과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에 따라 끝마다 절이 세워지고, 바위마다 불상이 조성되었으며, 곳곳에 수많은 탑이 세워져 불국토를 이루었다. 아득한 옛날부터 지역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신들과 땅위의 선신(善神)들이 남산 바위 속에 머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산속, 바위 속의 신들이 부처와 보살로 바뀌어 남산이 불교의 성산으로 떠받들어지게 되었다.



경주 남산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경북 경주시 남산동, 문화재청

특징 남산은 신라인의 미의식과 종교의식이 예술로 승화된 곳이다. 남산 생성 설화는 거인신화의 잔존 양상을 잘 보여 주는 자료라는 점과, 거인설화가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남산의 숯한 전설들은 민초들에 의해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고대인들은 산림, 천택, 구룡, 계곡이 모두 신적인 존재가 거주하는 곳으로 믿었다. 그래서 바위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해 남산을 불국토로 만들려고 한 신라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의의 남산 관련 설화는 고대인의 신화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의 고양, 지역정체성의 확인이라는 민중들의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출처 거례의 땅 부처님 땅(윤경렬, 불지사, 1993), 신라의 전설집(경주시, 1980).
참고문헌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권태호,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경주 남산일대의 설화연구(정역수,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필자 김구한(金求漢)

신화

남원진씨시조신화

南原晉氏始祖神話

정의 남원 진씨 시조인 진합조의 탄생에 관한 신화

줄거리 『용성지(龍城誌)』, 『남원진씨족보(南原秦氏族譜)』 기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서기 9세기 말엽 이른 봄 따스한 어느 날, 교룡산의 정기가 한데 뭉친 옥정(玉井)이라는 샘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서리고 오색찬란한 무지갯빛이 일었다. 그때 마침 한 옥녀(玉女)가 옥정 샘가에 이르러서 보니 한 옥동자(玉童子)가 목편(木片)을 타고 샘 가운데서 노닐고 있었다. 그녀가 가까이 가자 옥동자는 별안간 숨어 버렸다. 신기하게 여긴 옥녀는 샘가에 숨어서 몰래 동정을 살피다가 동자가 다시 물 위에 나타나자 재빠른 동작으로 동자를 맞아 자세히 보니 옥인(玉人)이었다. 얼굴은 백옥같이 희고 눈은 영롱하게 빛나며 이마는 번듯하고 콧날은 준수하며 입은 한일자로 다물고 손은 산뜻하게 희며 나이는 열대여섯 살 가량 되어 보이고 키가 훗칠하여 대장부다웠다. 이리하여 인연이 된 옥동과 옥녀는 함께 돌아와서 부부가 되어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 옥동랑이 진성(晉姓) 비조이고, 옥정은 진씨의 발상지가 되었으며, 샘 이름은 '옥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옥동과 옥녀가 얼마 후에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남원 진씨의 시조 진합조다.

민담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정의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초월계(超越界)를 찾아가 신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복을 임시로 빌려서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어떤 사람이 나무장사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좀 더 잘살고 싶어서 하루에 나무를 세 짐씩 해서 집안에 쌓아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나뭇짐이 감쪽같이 사라지곤 했다. 이에 나무꾼은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뭇짐 속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다. 한 밤중이 되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나뭇짐을 하늘로 가져갔는데, 이때 함께 승천한 나무꾼은 옥황상제를 만나 좀 더 잘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옥황상제는 사람의 복분은 정해진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나무꾼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임시로 '차복(借福)'이라는 사람의 복분을 빌려줄 테니 후에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라고 했다. 그 후 나무꾼은 금방 부자가 되었다. 드디어 복을 빌린 기한이 다 되었을 즈음, 가난한 그릇장수 내외가 찾아와 마차 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날 밤 그릇장수 아내가 새벽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 이름을 차복이라고 지었다. 나무꾼은 고민 끝에 자기 아들과 차복이를 의형제로 맺어주고 두 가족이 함께 살기로 결정한다.

변이 <남의 복 빌려 산 사람> 이야기의 주요 변이는 주인공의 은신 여부와 최종적으로 주인공이 잘 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은신 여부는 복을 빌린 기한이 다가오자 주인공이 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주인공이 은신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런 갈등 없이 신의 뜻에 따르는 정명론적 사고가 강하다. 그에 비하여 주인공이 은신하는 경우는 신과의 약속을 어기려는 인간의 고의적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운명에 대한 거부 또는 신의(神意)에 대한 도전이 나타난다. 결말에서는 복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가난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변이를 찾아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신의 말대로 재산을 돌려주고 자신은 다시 가난한 처지가 된다. 하지만 후자에서는 복 주인과 의형제를 맺는다거나 복 주인을 한가족처럼 후대하여 계속 함께 사는 등의 인위적 방책을 통하여 잘살게 되기도 한다. 한편, 일부 각편에서는 주인공이 초월계를 찾아가는 화소가 생략되는 대신에 산재를 지내는 것으로 변이된 자료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이 현몽하여 박



옥정
전남 나주시 남평면, 2004.2.11, 서해숙

분석 <남원진씨시조신화>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용성지』에서는 채녀(采女), 옥동자(玉童子), 승목편(乘木片) 등으로 표현된다. 그렇지만 『남원진씨족보』에서는 시조의 아버지인 옥동자를 '강탄(降誕)'이라 하고, 옥녀, 대장부(大丈夫), 신조(神祖)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비교해 보면 족보 기록이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어서 그 신이성(神異性)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옥정>이라는 제목의 전설이 관련 자료집에 실려 전한다. 이 자료집에는 나물 캐는 아가씨, 동자, 용왕님, 처녀 등으로 내용 자체에 의미를 두고 흥미 위주로 전하고 있어 족보 기록이 라기보다는 신이성이 약화된 채 속화(俗化)한 설화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 <남원진씨시조신화>는 궁극적으로 시조의 탄생을 통해 진씨(晉氏) 성이 생기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또한 역사에서 말할 수 없는 씨족의 내면을 밝힘으로써 시조의 존재 의미를 후손에게 인지시키는 성스러운 이야기이다. 옥동자와 옥녀의 결합으로 태어난 남원 진씨 시조는 수신(水神)과 지신(地神)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점에서 신화적 질서를 보여 준다. 이러한 신화는 후손들의 기록을 통해, 시조신 제의를 통해 지속되면서 여느 시조신화와 같이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살아 있는 신화의 역할을 한다. 또한 남원 진씨만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보여 주며 씨족의 정신적 구심체가 됨을 알 수 있다.

출처 高麗史, 己巳譜(1905), 南原秦氏族譜(乙巳譜, 1809), 新增東國輿地勝覽, 龍城誌, 갑술보(1994), 병인보(1956), 을묘보(1975), 전설지(전라북도, 1990).
참고문헌 남원진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남도민속연구10, 남도민속학회, 2004),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복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도를 알려준다.

분석 <남의 복 빌려 산 사람>의 핵심적인 화소는 복을 빌리는 것과 복 주인공과의 동거이다. 다른 사람에게 품부(稟賦)된 복을 빌리는 것이 초월적인 방책이라면, 다복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인위적인 방책에 해당한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은 초월적 요소에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들 요소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휼하려는 착한 마음씨가 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남이

특징 이 설화는 『수신기(搜神記)』에 실려 있는 <장차자(張車子)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남책(周南策)이 밤늦게까지 농사를 짓고 돌아와 잠을 자는데 천제가 현몽하여 장차자 뚝으로 정해져 있는 돈 천만 냥을 빌려줄 테니 훗날 그가 태어나면 돌려주라고 한다. 그 후 주남책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부자가 되었다가 머슴살이를 하던 내외가 아들을 낳아 '차차'라고 이름을 짓자 전 재산을 복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타인의 복분을 임시로 빌렸다는 점이나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장차자> 이야기는 <남의 복 빌려 산 사람> 설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토착화하는 과정에 주인공이 자신의 운명을 회의하거나 이를 개척하려는 정신이 부각되고, 차복 기한이 되자 은신을 시도하거나 복 주인공과의 동거를 제한하는 점은 한국 자료만의 특징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설화는 행운을 구하기 위하여 이계를 방문한다는 점에서 구복여행담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그러나 구복여행담은 주로 타인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기희생의 과정을 통해 행운을 얻는 데 비하여, 남의 복을 빌려 산 사람은 근면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복을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의 <남의 복 빌려 산 사람> 이야기는 정명론적(定命論的) 인식과 조명론적(祚命論的) 인식이 함께 공존하는 이중적인 운명관을 보여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무꾼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었다거나, 정해진 복분 이상의 나뭇짐을 신이 가져갔다거나 하는 것은 정명론적 인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이를 호소하고 있으며, 재산을 처분하여 은신하거나 복 주인공과의 동거를 모색하는 등 조명론적 인식도 함께 보여준다. 이처럼 <남의 복 빌려 산 사람> 이야기는 운명의 품정성과 변역 가능성 사이의 설화적 논쟁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어 정명론의 틀을 벗어나 자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운명관의 단초를 마련했다

고 평가된다. 나아가, 복 주인공과의 동거를 통해서 행운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다복한 사람과 함께 복분을 공유하면 그의 복에 힘입어 고난을 면하거나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우리 민족의 인식을 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525; 2-6, 90; 5-7, 276.

참고문헌 搜神記, 大東野乘,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용, 일조각, 1996), 한국은명설화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한중 운명설화 연구(박명숙, 민속원,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전설

남이

南怡

정의 조선 전기의 무신 남이(南怡, 1441~1468)에 관한 인물 전설

역사 남이는 26세에 병조판서에 기용되는 등 출세가도를 걷다가 이듬해 유자광의 모함으로 역적 누명을 쓰고 참수되었다. 권람의 넷째 딸과 결혼했으며, 결혼에 얽힌 일화가 유명하다. 문헌설화로는 『언러실기술(燃藜室記述)』, 『청야만집(靑野謾輯)』, 『대동기문(大東奇聞)』,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전해지고 있다. 문헌자료는 순수 설화라기보다 여러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남이에 관한 기록을 인용한 것으로서 모두 같은 것이다. 구전설화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줄거리 비범한 능력을 가졌으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명장 남이에 관한 전설이다. 이 설화를 정리하면 '출생-혼인-입공-



남이장군사당제
서울시 용산구, 국립민속박물관

변이 남이가 뱀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가, 여장수의 몸을 통해 출생했다고 하며, 장군수를 훔쳐 마시고 장수가 되었다고도 한다. 입공 시 주민들을 해치는 뱀을 쫓아버렸다는지, 연당의 개구리를 부적으로 울지 못하게 하였다는 등 이인으로 변이 한 예가 있다.

분석 실제로 남이는 명문가에서 태어났음에도, 설화에서는 그 같은 신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남이의 죽음을 억울한 것으로 인식해 온 설화 향유층의 동정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권력의 횡포로 좌절당하는 남이를 민중적 영웅으로 이해하고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설화 유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 이 설화는 원귀형 설화로 출생, 결혼, 입공, 죽음 등이 모두 원혼과 관계있다. 남이의 억울한 죽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편으로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한다. 남이를 당신으로 숭배하여 신격화하고 있다. 이 유형은 인물의 실제 행적과는 상관없이 향유층에 의하여 민간 영웅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자료이다.

출처 大東奇聞, 大東野乘, 燃藜室記述, 靑野謾輯,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832; 3-1, 397; 6-8, 379; 7-11, 123.

참고문헌 남이장군전설고(서정일, 고흥3-2, 경희대학교, 1959), 남이장군전설고(한중구, 충주산업대학교논문집32-1, 충주산업대학교, 1997), 남이전승연구(홍태환, 경희어문학12,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필자 한중구(韓宗求)

민담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정의 죄인인 남편 대신 죽기를 각오한 여인을 치하하는 설화.

역사 문헌 『필원잡기(筆苑雜記)』, 『언러실기술별집(燃藜室記述別集)』과 『해동기어(海東奇語)』에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아내가 직접 옥에 들어가는 대신 종을 보내 남편과 바꿔치기 하도록 계획한다. 종과 옷을 바꿔 입은 남편이 도망치고 이 일이 조정에 알려졌으나 임금의 종의 의기를 높이 사 벌하지 않고 석방했다는 이야기이다. 구비설화처럼 아내가 남편 대신 옥에 갇히는 내용은 가사 <김부인열행록>, 고소설 <곽씨전>, <옥낭자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줄거리 명문 양반 집안끼리 혼약을 맺었다. 신랑 일행이 혼례



남이장군사당제
서울시 용산구, 국립민속박물관

죽음의 4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남이는 짐승의 원혼이 환생한 인물이라고 한다. 인신공회(人身供犧)를 받는 거대한 지내가 그 피해를 없애려 한 어느 이인에 의하여 퇴치된 뒤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남이는 용력이 빼어나고 귀신을 볼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남이가 젊었을 때 거리에서 놀다가 어린 종이 보자기에 작은 상자를 싸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보자기 위에 분 바른 여자 귀신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겨 뒤를 따라갔더니 어린 종은 권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집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서 물었더니 주인집 작은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다. 남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살릴 수 있다고 하였지만 그 집에서 허락하지 않다가 한참 뒤에야 허락을 하였다. 남이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분 바른 귀신이 남자의 가슴에 올라타고 있다가 달아났다. 그러자 남자가 일어나 앉았다. 이 일로 남이는 권람의 사위가 되었다. 한편, 그는 제주도 정벌과 두만강 정벌로 요동 700리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남이의 죽음은 그에게 쫓겨 간 분 바른 여귀 또는 제주도 여왕이라는 여귀의 장난에 의해 그가 읍은 시 가운데 '미평국(未平國)'이란 글자가 임금에게 '미득국(未得國)'으로 잘못 읽혔기 때문이다. 남이는 죽어서 당신(堂神)이 되었다고도 한다.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를 올리러 가는 길에 천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다툼 끝에 신랑이 양반에게 무례하게 군다며 천인을 죽이게 되었다. 신랑이 살인죄로 옥에 갇히게 되자, 그 소식을 들은 신부가 남장을 하고 옥에 갇힌 신랑을 만나러 갔다. 신부는 자기는 여자이니 죽어도 괜찮지만, 집안의 대를 위해서는 신랑이 살아야 한다며 신랑에게 자기 옷을 입혀 내보내고 대신 옥에 갇혔다. 이 일이 알려지자 관관이 신부의 열행을 칭송하며 신랑을 용서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신부에게는 열녀문이 하사되었다.

변이 유형의 변이가 심하지 않은데, 이는 유사한 내용이 가사와 소설을 통해 활발히 전승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옥에 가는 경우, 남편과 동침하여 대를 이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옥지기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문헌으로 전하는 이야기에서는 이미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종을 희생시키려고 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얼굴도 모르는 신랑을 위해 신부 스스로가 희생한다는 구비설화보다 설득력이 있다. 아내의 지혜와 종의 충성이라는 내용에서 아내의 희생으로 설화가 변이된 데에는 조선 후기 강화된 열 이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석 신랑 대신 죽겠다는 신부의 이러한 행동은 이념과 관습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삶의 모습이지만, 역설적이지도 자기 운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을 개선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신부가 죽음을 지향했으며, 자신의 박복한 운명 때문에 신랑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운명적 사고까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운명 순응적이라는 해석도 있다. 더욱이 과실치사이지만 죽은 천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철저히 양반들만의 명분론에서 도덕성을 찾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의의 이 설화의 모든 갈등과 해결은 의리 명분론에 의해 발생하고 해결된다. 이러한 작품은 왜곡된 가치가 극단적으로 이념화되었을 시기의 가치관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윤리와 가치의 지속,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霍氏傳, 金婦人烈行錄, 玉娘子傳,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7, 393; 7-5, 148; 7-11, 665; 7-15, 44; 7-18, 30; 8-9, 1115. 한국문헌학회(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참고문헌 가사와 소설의 길래 교섭에 대한 연구(서인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구비 열설화 연구(이인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부인열행록(홍재휴, 어문집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71).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

녀 이미지의 변모과정(정준식, 구비문학연구18, 한국구비문화학회, 2004). 한국송사 소설연구(이현홍, 삼지원, 1997).

필자 홍나래(洪나래)

민담

남편 따라 죽은 열녀

정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곳에 투신하여 죽은 후 남편 시신을 안고 떠올랐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열녀비인 '해평열녀기실비(海坪烈女紀實碑)'의 유래담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물들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알 수 없으나 용화산 아래 해평마을에 한 새댁이 있었는데, 남편이 고깃배를 타다 풍랑에 휩쓸려 죽자 남편이 빠진 지점에 가서 몸을 던져 죽었다. 사흘 뒤 부인의 시신이 남편 시신을 껴안은 채 떠올라 사람들이 거두어 묻었다. 비석은 1932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줄거리 혼인하고 친정에서 살다가 친영 전 남편이 섬으로 숲을 신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청상과부가 된 아내가 홀로 시집에 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매일 먹지도 않고 통곡하다가 남편이 죽은 장소에 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며 청했다. 아내가 배를 타고 나가 남편이 죽은 장소에 이르자 치마를 둘러쓰고 물에 빠져 죽었다. 배를 태워 준 사람들이 남편이 죽은 곳에서 순절하고자 그런 것이었음을 알고 시신을 찾고자 했다. 다음날 배를 타고 가 보니 여인의 시체가 남편의 시신을 안고 함께 떠올랐다. 사람들이 모두 열녀라고 칭송했다.

변이 대부분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은 경우이나, 한겨울에 얼음 구멍이 갈라져 남편이 빠지는 이본도 있다. 이때 아내가 즉시 남편이 빠진 얼음 구멍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하여, 위기에 빠진 남편을 구하려던 아내의 마음과 노력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생활고에 찌든 아내의 잔소리를 견디다 못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배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내의 죄책감이 서술된다. 대개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업을 잇기 위해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를 형상화하는 데서 차이가 발생한다. 열녀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남편의 시신을 안고 발견된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열녀로 칭송된다.

분석 이 설화는 정의영의 처 이 씨나 남열리 강씨 열녀, 통영의 해평열녀사당처럼 실존했던 여인이나 열녀비와 관련한 전설로 이야기된다. 남편에 대한 여인의 집요한 집착은 남편의 시체를 안고 물 위로 떠오를 만큼 극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여인이 죽음을 택한 것이 열(烈) 이념에 동화된 것인지 청상과부로 살아야 할 삶에 절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암담한 현실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 남편이 죽자 아내도 따라 죽은 설화 중 열 이념을 구현하며 종사(從死)한 경우는 많지만, 이 설화는 단지 열 이념에 집착하기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아내의 죄책감과 고통에 대해 서술하는 등 열행(烈行)에 개인적 동기가 개입되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와 관습, 재해의 위력 속에서 개인의 비극적 삶을 조명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황순원의 소설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이 설화가 소재로 활용되었다.

출처 海坪烈女紀實碑, 잃어버린 사람들(황순원, 현대문학, 195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51; 435; 2-8, 286; 6-3 477; 9-1, 27.

참고문헌 구비 열설화 연구(이인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선시대의 열녀담(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월인, 2002). 통영시청(longyeong.go.kr).

필자 홍나래(洪나래)

민담

남편 병 고친 열녀

정의 여인이 자신의 살, 시체 또는 비상으로 남편의 병을 고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신랑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시집간 새댁이 자신의 살을 베어 먹여 남편을 치료한다는 내용이다. 둘째는 시체의 다리를 먹어야만 남편의 병이 낫는다는 도사의 말을 듣고 아내가 구하러 간다. 밤에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데 시체가 내 다리를 내놓으라며 따라온다. 아내는 공포심을 극복하고 다리를 가져와 남편을 치료한다. 알고 보니 다리는 산삼이었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가난한 집 아들이 돈을 받고 나병에 걸린 정승 아들 대신 양반집으로 장가간다. 신부가 혼례를 올렸으니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여 양반집의 사위가 된다. 가난한 집에서 는 은혜를 갚기 위해 아들 대신 딸을 정승 아들에게 시집보

낸다. 첫날밤에 신부는 병든 남편보다 자신이 먼저 죽겠다며 비상을 준비한다. 우연히 그것을 먹은 신랑이 병이 낫게 되어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변이 첫째와 둘째 유형은 내용이 단순하여 변이가 심하지 않다. 첫째 유형에서는 결말이 이 일로 인해 아내가 죽는 것과 남편과 잘 살았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웃집 여인이 남편의 병을 고치려고 똑같이 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모방담이 첨가된 예도 있다. 둘째 유형에서는 인육 대신 산삼을 약으로 설정하여 첫째 유형의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내용이 풍부한데 (대신 든 장가) 설화와 거의 유사하다.

분석 『한국설화유형분류집(韓國說話類型分類集)』에는 '413-10 자기 살(비상)로 남편 살린(병 고친) 열녀'로 분류되어 있으며, 33편이 채록되어 있다. 남성 화자들은 주로 아내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열녀의 명분을 강조하지만, 여성 화자들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열녀의 명분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첫째와 둘째 유형의 주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나 공포를 무릅쓰고 약을 구한 아내의 정성이 남편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모방담의 구조를 갖는 이본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교조적(教條的)인 열 이념의 역기능과 열이라는 명분으로 조장되는 무고한 여성들의 희생을 비판하고 있다. 셋째 유형은 오빠와 여동생의 혼인이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구성되는데, 오빠의 혼인은 여동생의 혼인을 위한 도입부로 기능한다. 이는 오빠를 대신해 희생을 자청한 여동생이 신랑의 병을 극적으로 고쳐서 잘 살았다는 것으로 열행담보다 효행담에 가깝다.

특징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있는 〈성주의 선비 김종택의 아내(星州士人金宗澤之妻)〉라는 설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시체의 좁이 종택의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시체를 구할 수 없어서 아내가 자신의 넓적다리에서 피를 내어 먹이고 다시 넓적다리를 베어 구워 먹었다니 병이 나았다. 종택이 이를 보고 울었다는 내용이다. 문헌설화는 희생열(犧牲烈)을 미화하는데 반해, 구비설화는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430; 4-4, 780; 5-6, 43; 6-12, 198; 7-2, 238; 7-5, 308.

참고문헌 열녀설화의 재해석(이인경, 월인, 2006). 구비 열녀설화의 양상과 의미(김대숙,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4).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강진옥, 여성학논집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5).

필자 이인경(李仁卿)

신화

남평문씨시조신화

南平文氏始祖神話

정의 남평 문씨 시조인 문다성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득성(得姓)에 관한 신화.

줄거리 남평 문씨 족보의 세승(世乘)에 따르면, 시조는 전라남도 남평군에 있는 큰 연못의 바위 위 석함 가운데에 강립하였다. 이때 상서로운 자색 기운이 나타나자 신라 왕이 그것을 살펴보고 기이한 징조라 여겨서 그곳의 수령에게 거두어 기르도록 하고 문씨 성을 내려, 이로써 남평 문씨가 시작되었다. 한편 성원(姓苑)에서는 세상에 전하기를 남평군 동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바위가 갑자기 10장(丈)이나 일어섰다. 어느 날 군주가 강 위에서 노닐다가 바위 위로 자운이 홀연히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은은한 울음소리가 들려 기이하게 여겼다. 즉시 군주는 사람들을 시켜 배를 대어 바위 위로 올라갔는데, 석함 하나가 철근으로 묶여 있었다. 내려서 열어 보니 그 안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옥같이 흰 피부에 접눈동자 그리고 용의 코를 가진 특이한 모습이었다. 거두어 길러 '문(文)으로 성을 내리고 다성(多省)으로 이름을 삼고 명원으로 자를 썼다고 한다.

분석 그동안 <남평문씨시조신화>는 소략하기는 하나 문학적 의미를 살피는 논의가 있었다. 이 신화는 족보와 성씨 관련 자료에 자세히 수록되어 전하는데, 여느 성씨에 비해 활발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씨족집단의 신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신화는 시조의 탄생에 집중된 반면 혼인, 이적, 죽음 등은 생략되어 있으나 건국신화 못지않게



남평문씨시조신화 배경지 문암
전남 나주시 남평면, 2004.2.11, 서해숙

영웅 일대기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문다성은 역사적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의 탄생으로 새로운 성씨 집단이 형성되고 다른 씨족집단과 변별된다는 인식을 강조하고자 탄생에 집중하여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의의 <남평문씨시조신화>는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씨족 중심의 신화이며, 남평 일대를 지지 기반으로 세력을 떨친 씨족집단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이래 현재까지 신화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면서,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듯 문암(文巖), 시조묘(始祖墓), 장자지(長者池), 장연서원, 유허비 등을 조성하였다. 이는 오늘날 후손들에게 성소(聖所)로 자리하고 있어서, 신화를 인식하는 전승자에게 전승력과 생명력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신화는 화석화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승되고 있는 현재의 신화이며, 살아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출처 南平文氏族譜, 남평문씨대동문헌록(1990), 한국성씨대관(창조사, 1971), 한국인의 족보(일신각, 1977).

참고문헌 남평문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한국언어문학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한국 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 씨족설화 연구(허경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전설

남한산성

南漢山城

정의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에 위치한 남한산성 수어장대 앞 매마위의 내력 및 청량당 신앙 유래 설화.

역사 남한산성 축성역(築城役)을 배경으로 탄생한 설화이다. 18세기 초의 문헌에는 백제 온조왕 시절에 탄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20세기에 채록된 설화는 모두 그 배경을 조선시대 인조 때로 설정하고 있으며, 크게 무속설화와 역사설화 두 흐름으로 전승되었다.

줄거리 1624년(인조 2) 수어사 이서(李曙)가 성을 쌓을 때 서남쪽은 이회(李晦)에게, 동북쪽은 벽암(碧巖)대사에게 맡겼다. 벽암은 기한 내에 성을 쌓았으나, 이회는 성을 튼튼히 쌓느라 기한을 어겼다. 이회는 무고로 수어장대 앞에서 참형되었다. 이회가 죽기 전에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목이 떨어진 자리에서 매 한 마리가 날아올라 근처 바위에서 슬피 울다가



남한산성 수어장대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문화재청



수어장대에서 바라본 영춘정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문화재청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발톱 자국이 남았다. 뒤에 벽암이 쌓은 곳은 무너졌으나 이회가 쌓은 곳은 튼튼하여 무너지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이회를 위해 사당을 지어 억울함을 위로하였다. 이회의 부인이 남편을 대속하기 위해 영남 지방에서 돈과 곡식을 구해 오다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쌀을 버리고 통곡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송파나루 앞에 있던 쌀섬여울(米石灘)이 이회 부인이 빠져 죽은 곳이다. 삼전도 아래 이회의 유씨와 송씨 두 부인을 모신 당집이 있어 무너가 곱하고 부너자가 치성하였다. 뒤에 당집이 사라지면서 두 부인은 청량당으로 모셨다.

변이 이 설화의 변이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설화의 배경이 백제 온조왕 때에서 조선시대 인조왕 때로 달라진 점이다. 이는 본래 온조왕 때의 이야기로 전승되다가 인조왕 때에 남한산성이 대대적으로 개축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둘째는 <매마위설화>와 <쌀섬여울> 이야기의 습합 가능성이다. 근세 이후 청량당에는 이회 장군과 유씨와 송씨 두 부인이 함께 모셔져 신앙되어 왔다. 두 이야기는 별도로 전승되다가 습합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시대에는 남한산성과 쌀섬여울이 있던 곳은 하나의 지역 문화권이었던 사실은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전승 계층에 따른 역사설화와 무속설화의 분화이다. 남성 지식인들과 달리, 하층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이 설화는 무속 신의 좌정 과정으로 설명된다.

분석 이 설화는 이회 장군의 죽음과 관련된 <매마위설화>와 두 부인의 죽음 경위를 말하는 <쌀섬여울> 이야기로 구성된다. 두 이야기는 사회에서 빈발하는 억울한 죽음에서 민간 설화와 신앙이 발생하고, 그것이 자연 현상이나 사물과 결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다.

특징 역사의 축성역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신앙유래담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맹강녀설화(孟姜女說話)>와, 축성과 관련된 내기 및 억울한 자연의 발생이라는 점에서는 <오늬힘내기설화>와 유사하다. 이밖에도 <이차돈설화>와 조선시대 <얼녀설화>의 흔적이 흔재한다.

의의 역사와 설화와 신앙의 역학 관계를 잘 보여 주고, 관련 문헌 기록이 많아 시대와 계층에 따른 전승의 변화를 추리할 수 있다. 또한 역사지리의 특수성과 설화의 보편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 종합적 시각의 연구 모형으로 삼을 만하다.

출처 남한비사(광주시, 1956), 조선무속의 연구(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화암집(신성하, 국립중앙도서관).

참고문헌 남한산성 매마위 설화의 내력과 외연(이승수, 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남한산성 품에 안긴 산성마을(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99).

필자 이승수(李勝洙)

민담

내 병 다 나았다

정의 어머니 병에 남자의 고향이 특효약이라는 말에 머느리들이 시아버지 고향을 쓰자고 하자, 어머니가 자기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내용의 민담.

역사 역사적인 근원을 살필 만한 자료가 없지만, 여성의 성의식을 표출하는 이야기로서 유교의 억압된 성 문화에 대한 윤희한 반발로 보인다.

줄거리 어떤 부부가 아들 셋을 결혼시키고 잘 살던 중, 아들의 효성을 시험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다고 하고 아들들을 불렀다. 먼저 큰아들을 불러서 남자의 고환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하자, 큰아들은 둘째에게 미루고 둘째는 셋째에게 미루었다. 그러자 셋째 며느리가 나서서 시아버지는 아들을 삼 형제나 두었으니 그 고환을 쓰자고 했다. 아버지가 이 말을 아내에게 하자, “이제 내 병이 다 나았다.”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의 대체로 자식들의 효성을 시험하려고 일을 꾸미는 내용이지만, 경우에 따라 며느리들이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자 곱탕을 먹이려고 일을 꾸며다가 시어머니가 곤경에 빠지기도 하고, 아들들이 정말 효자여서 모두 제 고환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며느리들이 반대하는 내용도 있다.

분석 어떤 각편에서든 아들들의 효성을 시험하려 한다는 점이 공통인데, 문제는 그 결과가 엉뚱하게도 아버지 고환을 떼어 내는 쪽으로 귀결된다. 겉으로는 효도라는 당연한 윤리를 내세우지만, 인간의 본능인 욕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아들의 효심을 알아본다는 이유는 아들의 성기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을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는데 이야기의 묘미가 있다.

특징 부모와 세 아들 내외가 노소(老少)를 대변한다. 고환을 약으로 써야 한다고 할 때 거부하는 까닭으로 모두 후사 잇기를 대지만, 가장 나이가 많고 후사 잇기의 역할을 끝낸 아버지와 어머니에 이르러서도 성 기능이 중요하다고 함으로써 도리어 성의 의미를 긍정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엿볼 수 있다.

의의 사람의 고환이나 남근이 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입에 올리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사실상 육담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유교 윤리로 무장된 사회에서 드러내 놓고는 말할 수 없는 성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통해 욕구를 분출하는 기능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당위적인 윤리인 효를 내세우며 시작한 이야기가 본능적인 성 욕구의 표출로 귀결되는 반전에서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이야기처럼 어리석은 인물을 내세워 육담을 만드는 예는 우리 우행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1, 67; 6-4, 42; 6-6, 433.

참고문헌 바보음담의 사회문화적 해석(이강연,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한국육담의 세계관(김선동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이강연(李康燁)

민담

내 복에 산다

영유권 삼공본풀이, 복 타고난 백정의 딸

정의 내 복에 산다고 말해 부친에게 쫓겨난 막내딸이 가난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지혜로 금을 알아보아 부자가 되고, 몰락한 부친과 재회하여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은달전〉, 『삼국유사(三國遺事)』〈무왕〉, 무가〈삼공본풀이〉, 설화〈복진 며느리〉, 인도〈선광의 인연〉, 몽골〈조홍마〉, 일본〈숫구이 고고로〉 등이 설화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이다.

줄거리 옛날 어느 부잣집에 부부와 세 딸이 살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 누구 덕에 사느냐고 물었다. 언니들은 아버지 덕에 산다고 답하였으나, 셋째 딸은 “내 복에 산다.”라고 답해서 미움을 사고 쫓겨난다. 집에서 쫓겨난 셋째 딸은 가난한 숫구이 총각을 만나 혼인하고 신랑의 일터에서 생금장(生金藏)을 발견한다. 부부는 금을 팔아 부자가 된다. 셋째 딸은 부친이 자신을 내쫓은 후 거지가 되었으리라고 예견하고 부모와 상봉할 준비를 한다. 딸은 동냥 온 부모를 만나고 부친은 셋째 딸이 스스로의 복으로 잘살게 되었음을 인정한다. 셋째 딸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한다.

분석 이 설화의 등장인물은 아버지, 셋째 딸(막내딸), 언니들, 숫구이 총각, 숫구이의 노모, 금을 사 가는 사람이다. 부친이 막내딸을 미워하고 내쫓는 행위는 아버지의 자기과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셋째 딸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믿고 있다. 집을 떠난 셋째 딸은 산으로 향하고 오두막집에서 숫구이 총각을 만나 주체적으로 결혼한다. 그리고 신랑의 일터에서 생금장을 발견한다. 셋째 딸은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는 금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인은 남편에게 금을 팔아 올 방법을 지시한다. 여인이 시키는 대로 해서 식구들은 부자가 된다. 숫구이 총각은 뜻밖에 찾아온 여인을 만나 결혼하고 부자가 되지만, 그 자신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인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훤히 내다보는 주인공은 자신이 나온 후 친정이 몰락했을 것을 예상하고 부모를 만날 방법을 세운다. 주인공에게는 형제들이 있는데 둘 혹은 넷인 언니들은 아버지의 질문에 아버지 덕에 산다고 대답하여 부친을 흠족하게 하지만, 친정이 몰락한 후에는 도움을 청하는 부모를 외면한다.

이 설화는 초기에 중세 한국사회의 가부장권에 저항하는

여성 향유층의 보상심리가 만들어 낸 이야기로 해석되었다. 또는 동아시아 전역의 공포설화로 『삼국사기』〈은달전〉의 평강공주와 『삼국유사』〈무왕〉조의 선화공주와 같은 역사적 인물의 전설로 전승되고, 제주도 큰 곳의 제사에서 불리는 〈삼공본풀이〉와 신화적 기원이 일치하는 역사적 민담으로도 해석된다. 이 설화는 부녀의 분리와 재결합의 구조로 부녀는 전도된 상황에서 재회하며, 서사 전개과정은 주인공의 성인식을 치르는 과정이다. 설화의 초점은 생금장, 팔찌, 진흙처럼 쌓인 금과 같이 금으로 표시되는 물질에 있다. 금은 초기에는 철제 무기로, 이후로는 재화적 가치를 지니며, 부녀의 대결은 경제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다. 집을 떠난 딸은 친정보다 신분이 낮은 남자를 만나 성공시킨다. 이른 시기의 문헌에 딸이 공주로 설정되고 감(Kam, Gam; 神, 金)이라는 머리글자를 이름으로 하는 비밀상적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샤먼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서사 전개과정에서 부자가 되는 능력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부신(富神)의 기능을 가진 샤먼이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에서 부친과 권력을 놓고 다투던 딸은 집을 나와 자신보다 문화적으로 낮은 단계에 속한 남자를 만나 자신의 능력으로 발전시키고, 그 힘으로 부친의 집단을 복속시켜 나아간 역사적 사실을 신화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재화를 가져오는 부신의 능력을 지닌 샤먼과 짝이 되는 불을 다루는 존재, 숫구이 총각은 대장장이로 추측된다. 인도에서는 선광 이야기로 불교적 외피를 씌우고 몽골에서는 말을 다루는 기술로 평강과 연결되는 꺼끈따나의 조홍마 이야기가 되어, 평강과 선화의 전설로 일찍이 문헌에 기록되었다. 구전에서는 한 가정의 부녀에 얽힌 민담으로 전승되면서 주인공의 신화적 성격은 가려지고, 금은 생금장에서 진흙 또는 팔찌로 바뀌었으며, 일본에서는 동전으로 변이한다.

민담의 세계에서 부녀보다 부부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주인공은 부부간으로 변이한다. 그리고 무가의 세계에서는 원형을 유지하지만, 상대 남성이 숫구이가 아니라 마퉁이로 설정되는데 그 예는 〈무왕〉과 〈삼공본풀이〉 둘뿐이다. 주인공 남녀의 만남은 시부의 지인지감이나 삼신의 조화로 변이해서 차츰 주인공의 신화적 성격이 다른 인물에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형에서 다양한 갈래를 따라 원래적 성격과 모티프는 변해도 주인공의 성인식 과정을 담은 서사구조는 변함이 없다. 주인공과 부친이라는 두 인물의 입단식 과정이 시차를 두고 병행된다. 이 과정은 시련이라는 매개항을 중심으로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두 개의 대립항이 짝하고 있으며, 대립항 안에서는 두 인물의 관계 양상이 전도된다. 분리 단계에서 우위였던 부친은 재결합에서 열세로 바뀌고, 대신에 불리한 입장에서 분리를 겪은 딸은 우월한 형편에서 아버지와 만난다. 주인공과 적대자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해소라는 서사구조를 통해 남다른 능력과 굳은 의지를 지닌 주인공이 자신

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정해진 복이 있고 그 복은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전승자들의 운명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특징 연원과 역사적 발전이 시간·공간의 좌표상에서 매우 넓고 길며, 부녀가 권력을 놓고 벌이는 갈등이 특이하다. 신화적 갈래에서부터 남녀의 만남으로 말미암은 자식의 탄생은 전혀 없다. 핵심은 오로지 재화, 즉 금에 있다. 그래서 주인공이 딸에서 며느리로 변하고, 집을 나가 숫구이와 결혼하고, 다시 거지가 된 전남편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변이형에서도 주인공의 정조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이야기의 핵심이 부(富)에 있기 때문이다.

의의 민담의 신화적 기원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부계와 여권이 자아내는 권력의 대결, 금과 말, 비단, 마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 샤먼과도 같은 통찰력과 예견력의 소유자인 여성과 불을 다루는 남자의 근처에서 눈에 띄는 생금장 그리고 호남과 제주도에서만 마퉁이인 남자, 이 모든 모티프들이 이 민담이 지닌 깊고 넓은 문화의 진동을 전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96; 7-1, 274.

참고문헌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현승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김석배, 문학과언어3, 문학과언어연구회, 1982), 무왕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여성의식(임재해, 여성문제연구10,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1), 여인발복설화의 연구(김대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임재해, 여성문제연구11,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필자 김대숙(金大淑)

전설

노적봉

露積峰

정의 이순신 장군이 바위를 짚으로 위장하여 군량미처럼 보이게 해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전설.

역사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산과 해남시 옥매산에서 전승되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전설로, 임진왜란 뒤 널리 퍼졌다.

줄거리 전남 해남시 옥매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울돌목과 만호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장수들이 옥매산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왜적

이 만호 바다를 거슬러 쳐들어 왔다. 이순신 장군은 옥매산에 이영(마름)을 둘러싸워 노적거리처럼 보이게 했다. 이를 본 왜적들이 군량미가 그렇게 많은 줄로 생각하고 서둘러 도망갔다. 또한 목포시 유달산에서 내려다보면 고하도와 앞바다가 보인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도 왜적을 많이 물리쳤다. 마침 왜적이 침입하자 유달산 능선에 있는 거석(巨石)을 짚고 섰으로 둘러싸서 군량미처럼 보이게 하였다. 또한 영산강에 백토와 횃가루를 풀어서 쌀뜨물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왜적들이 서남해를 거슬러 올라오다가 노적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쌀뜨물이 바닷물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겁하여 후퇴해 버렸다.

변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노적봉전설>은 목포시 유달산과 해남시 옥매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인물을 달리하는 비슷한 전설은 전국에 분포한다. 흔히 그 생긴 모양이 벧가리를 쌓아둔 것 같다 하여 노적봉, 노적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명 수정리 비봉산의 노적봉 전설은 삼한시대의 소문국왕이 적에게 포위되어 식량이 떨어지자 짚으로 산봉우리를 덮어서 노적거리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건너편의 노적봉은 임진왜란 때 변협(邊協)과 관련이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때의 권율과 관련이 있다. 경북 칠곡군 인동면 금전동 천생산성에 전하는 광재우 일화도 이와 유사하다. 모두 전쟁 기간 동안 군량미로 위장하여 싸우지 않고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분석 해남시 옥매산과 목포 유달산의 <노적봉전설>은 이순신 장군의 지략으로 싸우지 않고 왜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백토 혹은 횃가루를 영산강에 풀어 쌀뜨물로 보이게 한 것과 쌍벽을 이루는 이야기다. 명량대첩처럼 왜구와의 전투에서 승전한 기억을 바위 모양의 지역 특수성에 투사하여 미화시킨 전설이다.



노적봉
전남 목포시 유달산, 한국관광공사

특징 전국에 분포하는 노적봉, 노적산 지명 가운데 서남해 해전에서 승전을 거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하여 생성된 해전 관련 설화라는 특징이 있다.

의의 바위 모양을 소재로 한 경관의 특성이 이순신 장군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집단 투사되어 심리적으로 보상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왜적과 싸워 이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이기도 하지만, 지리와 생태 조건을 잘 활용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 숨어 있다.

출처 목포의 땅(목포문화원, 2002), 유달산(유달산공원화추진위원회,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5, 24.

참고문헌 노적봉전승고(김열규, 한국문화인류학3, 한국문화인류학회, 1970), 수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부활하는 목포 삼학도(최성환, 플랫폼21, 인천문화재단, 2010).

필자 이윤선(李允先)

전설

노힐부득 달달박박

努躬不得 怛怛朴朴

정의 친구끼리 맹세하고 수도에 정진하던 중 관음의 화신이 도와주어 성불(成佛)한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관한 설화.

역사 경상남도 창원외의 백월산(白月山)에서 수도하던 두 사람이 경룡(景龍) 3년인 709년(성덕왕 8)에 성불했다고 하였다. 천보(天寶) 14년인 755년(경덕왕 14)에 왕이 절을 세우도록 하여 광덕(廣德) 2년인 764년에 백월산남사(白月山南寺)를 완성했다고 하였다.

줄거리 백월산 부근에 살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중이 되어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 연화장 세계에 노니는 부처가 되기를 염원하던 차에 금빛 팔이 이마를 쓰다듬는 꿈을 꾸고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달달박박은 북쪽 고개의 판방(板房)에서 미타불을, 노힐부득은 동쪽 고개의 뇌방(磊房)에서 미륵불을 간구하였다. 3년쯤 되었을 때, 스무 살 정도의 아름다운 여인이 북쪽 암자에 이르러 '노여워 마시고 하룻밤 재워 달라.'라는 내용의 사를 지었다. 달달박박은 청정한 곳을 범하지 말라면서 거절하였다. 여인은 남쪽 암자에 가서 '길을 인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계를 짓고 숙박을 청하였다. 노힐부득은 중생의 사정에 따르는 것도 보살행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오게 하고 자신은 밤새 염불을 외었다. 날이 썰 즈음, 산기(産氣)가 있다면서 여인은 자리를 깔아 달라고 하였다. 또 출산

한 다음에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하였다. 노힐부득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요청을 다 들어 주었더니, 문득 욕조의 물이 금빛으로 변했다. 여인은 노힐부득에게 욕조에 목욕하고 연화대에 앉으라고 권하고 자신은 관음보살이라 하고는 사라졌다. 달달박박은 노힐부득이 계율을 범했으리라 짐작하고 가 보니 성불해 있었다. 그리된 내력을 듣고 자기도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여 욕조에 목욕하였다. 그리하여 두 존사가 성불하니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 설법하고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후에 경덕왕이 절을 세우게 하고 미륵불과 미타불을 안치했는데 미타불은 도금하는 액체가 부족하여 얼룩이 남게 되었다.

분석 이 설화는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함께 서원을 이루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이성(二聖) 이야기 중 하나이다. 관음사상을 배경으로 미륵, 미타 신앙이 나타나 있다. 여인이 지은사와 게가 이야기 전개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두 인물은 나름의 근거를 대었지만, 중생의 소원에 따라 응해 주는 일을 실천한 노힐부득이 더욱 높이 받아들여졌다.

특징 두 인물을 대비하여 청정 수도와 성적 욕망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연화장 세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미륵상과 미타상의 모습이 증거물로 제시되어 전설로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의의 중생 제도의 관음 사상을 배경으로 수도의 자세와 깨달음의 문제가 진지하게 형상화되었다. 여인에 대한 두 인물의 대비적인 서사가 흥미롭게 전개되어 설화적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김현선, 구비문학연구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삼국유사 남백월이성 조에 나타난 일연의 문학비평(최귀묵, 한국사학연구12, 한국사학학회, 2002), 삼국유사 남백월이성의 서술방식을 통해 본 깨달음의 형상(강진옥, 한국민속학43, 한국민속학회, 2006), 신라 백월산 이성설화의 연구(김영태,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필자 신재홍(申載弘)

전설

논개

論介

정의 임진왜란 때 경상남도 진주 관기 논개와 관련된 전설.

역사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왜군에게 함락된 후 관군을 비롯



논개 사당
경남 진주시 본성동, 한국관광공사



의암
경남 진주시 본성동, 문화재청

한 의병과 민간인들이 왜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자,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는 기록이 조선 조 야담집을 비롯하여 영남과 호남의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었다. 1620년경 유몽인(柳夢寅)의 『어우야담(於于野譚)』에 채록되면서 문자화되었다.

줄거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김천일이 왜적에게 항거하였으나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성이 깃밟히자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죽어나갔다. 진주의 관기였던 논개가 축석루 아래 바위 위에서 왜장의 허리를 열 손가락에 낀 반지로 빠지지 않게 꼭 겨앉은 후에 남강 물속으로 뛰어들어 죽음을 택하였다.

변이 <논개전설>은 관기인 논개뿐 아니라 기생 신분인 아닌 논개에 대한 이야기도 전승되고 있다. 기생 아닌 논개가 최경희를 따라 진주로 와서 최경희가 죽자 원수를 갚기 위해 왜장을 안고 강물로 뛰어들었다는 모티프는 전라북도 장수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장수가 논개의 고향이라는 데 근거하여 논개의 신분을 상승시키려는 구연자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분석 전란을 겪으면서 도처에서 있었던 관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승되는데, 관기들의 애국적 희생을 통해 무능한 사대부들에게는 일침을 가하고, 사대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리학의 충(忠) 이념을 천한 기생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천민일지라도 무능한 사대부보다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특징 임진왜란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근거로 하여 생성되었고, 왜장을 죽였다는 통쾌한 갈등 해결로 민중들이 즐겨 대상으로 삼을 만한 모티프를 품고 있다. 논개를 기리는 사당을 짓고 관기였던 천민 기녀를 기리는 의례를 거행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즐기고 나누는 설화 향유층이 지배자들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의의 경남 진주 지역의 백성들이 비천한 ‘관기’로 죽은 논개를 ‘의기’로 살려냈다. 하층민에게는 전란의 체험을 전하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는 최상의 매체가 설화였다. 설화가 기록되면서 윤색되기도 하고 소설을 만들어 낼 정도까지 변모해 전란을 다루는 서사문학의 풍부한 유산이 되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9, 48; 8-3, 77; 130.

참고문헌 논개(김수업, 진주문화를 찾아서1, 지식산업사, 2001), 논개설화의 서사 전개 양상과 의미(박기용, 우리말글32, 우리말글학회, 2004).

필자 박성석(朴性錫)

전설

놋다리밟기 유래

정의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놋다리밟기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역사 홍건적이 1360년 11월 19일 침략을 시작하고 수도 개경을 향해 진격을 시작하자, 공민왕은 동년 11월 19일 왕궁을 떠나서 몽진 길에 올랐다. 파주, 양주, 광주, 이천, 충주, 용궁 등을 거쳐서 동년 12월 15일에 현재의 경북 안동시인 당시의 복주에 도착한 뒤에, 지역민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머물다가 개경을 수복한 뒤인 이듬해 2월 신축일에 환도했다. 환도 이후 공민왕은 안동 주민들의 환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옥대와 옥관자, 상아홀 등의 진귀한 물품을 하사하는 한편, 복주목을 안동대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조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놋다리밟기 유래에 관한 전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형성,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놋다리밟기
국립민속박물관

줄거리 두 개의 유래담이 전한다. 첫 번째 이야기이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공주와 왕후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길에서 고생을 한 일행이 안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송야천(松夜川) 입구에 이르렀을 때, 마중 나온 주민들 가운데 부녀자들이 왕후와 공주가 발을 적시지 않고 내를 건널 수 있게 허리를 구부려 등 위를 밟고 건너도록 했다. 주민들의 환대에 감격한 공민왕 일행은 원래 경주까지 갈 예정이었으나 걸음을 멈추고 안동에 머물다가 난이 평정된 뒤에 개경으로 돌아갔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이다. 공민왕이 공주를 데리고 안동에 몽진해서 머무는 동안 매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황송하게 여긴 주민들이 왕과 공주를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 놀이를 고안했다. 그것이 바로 공주로 하여금 부녀자들의 등을 밟고 가게 하는 놋다리밟기이다.

겨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고, 용마에 실었던 돌은 용바위가 되었다.

또 다른 한 편의 내용은 이러하다. 굴티 임 씨에게 남매가 있었다. 둘 다 훌륭한 장사로, 어느 날 죽고 시는 내기를 하였다. 아들(임연 장군)은 굽 높은 나무꾼(나막신)을 신고 목매기 송아지를 끌고 서울에 갔다 오기로 하고, 딸은 농다리를 놓기로 하였다. 딸이 치마로 돌을 날라 거의 다리를 다 놓았는데 아들은 올 기미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릴 묘책으로 딸에게 먹을 것을 해다 주며 일을 늦추게 했다. 결국 아들이 먼저 돌아와 내기에 이겼고, 화가 난 딸이 치마에 있던 돌을 내던졌다. 딸은 약속대로 죽었고, 딸이 내던진 돌이 아직 까지도 그 자리에 박혀 있다. 딸이 마지막 한 칸을 놓지 못해 나머지 한 칸을 다른 사람이 마저 놓았는데, 딸이 놓은 다리는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다른 사람이 놓은 다리는 장마만 지면 떠내려간다고 한다. 또, 나라에 큰 번고가 있으면 이 농다리가 며칠씩 운다고 한다.

분석 이 전설은 900년 전 고려 초기 굴티 임 씨 임연 장군이 붉은 돌로 음양을 배치해 28칸을 놓은 진천농교에 대해 임씨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 전설은 지역전설로 처음 임연이 효부를 돕기 위해 놓았다는 전설이 이후 장사인 오빠와 누이가 목숨을 걸고 힘내기 시합을 할 때, 어머니가 아들 편을 들어 딸이 죽는다는 <오누힘내기설화>와 결합하여 더욱 흥미를 더해 주고 있다.

의의 이 전설은 효를 백행의 근본으로 숭상했던 전통적인 의식과, 그런 가혹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을 줄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진천농교
충북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2011.6. 한국관광공사

분석 이 전설에는 공민왕의 몽진 경로 상에 있던 여타 고을들과 달리 고려의 건국 당시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안동에서 환대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놋다리밟기는 바로 왕에 대한 지극한 충성을 표현한 놀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특징 강강술래 유래담이 임진왜란 당시 위기에 처한 이순신 장군이 승기를 잡는 데 기여한 여성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것처럼, 놋다리밟기 유래담도 위기에 처한 공민왕 일행을 위해 벌이는 여성들의 충성스런 면모를 담고 있다.

의의 이 전설은 국난의 위기상황에서도 애국과 왕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지역민, 특히 여성들의 활약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면모는 강강술래와 월월이청청 등의 여성 집단놀이 유래담에도 공통적인 것으로서 충(忠)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민간의 여성 놀이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처 안동의 차전과 놋다리(임동권, 한국민속학논고, 집문당, 1971).

참고문헌 강강술래와 놋다리밟기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문화적 상황(임재해, 민속연구2,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공민왕 관련 민속놀이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인식(임재해,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놋다리밟기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임재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회, 1985).

필자 한양명(韓陽明)

전설

농다리

정의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있는 진천농교에 관한 전설.

역사 충북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1976년 12월 20일 지정)는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에 있는 길이 93.6m, 너비 3.6m, 두께 1.2m, 교각 사이 폭이 80cm인 석교로 고려 때 권신 임연(林衍)이 놓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설은 이 지방 씨족들 사이에 전해오는 설화이다.

줄거리 고려 고종 때 권신 임연이 놓았다는 전설과 그의 누이가 놓았다는 전설, 두 편이 전한다. 임연이 매일 아침 세금전에서 세수를 하였는데, 어느 몹시 추운 겨울날 한 젊은 부인이 세금전을 건너려는 것을 보고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임연은 부인의 지극한 효성과 그 정경이 딱해 용마를 타고 달려가 하루아침에 다리를 놓았다 한다. 그때 용마는 너무 힘에

출처 상산지(정우섭, 1932), 진천농교(진천군지편찬위원회, 진천군지, 1994), 조 선환여승람(이병언, 보문사, 1935).

참고문헌 농다리(구곡향우회, 농다리청년회), 농다리 비밀을 간직한 진천 구곡리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진천군 2010).

필자 이인화(李仁和)

민담

누명 벗은 시아버지

정의 시아버지를 치한으로 모함하는 며느리와 그 음모에서 벗어나는 시아버지에 관한 설화.

줄거리 과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자신의 방으로 모신 후 갑자기 옷을 벗고 유혹한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태도에 놀라지만, 이내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호하게 꾸짖고 야단친다. 그러자 며느리는 일부러 비명을 지르며 큰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시아버지가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고 모함한다. 파렴치한으로 몰린 시아버지는 관가에 잡혀가고 사또의 문초를 받게 되지만,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한다. 아들이 돈으로 석방시키려 하자 단호하게 이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시아버지를 연모해 유혹하고자 했던 여인이 나타나 그의 강직함을 항변하면서 적극 증언해 준다. 결국, 시아버지는 혐의에서 풀려난다.

변이 이 이야기 주인공인 시아버지는 무명으로 등장하지만, 사계 김장생이나 화담 서경덕 같은 유명한 유학자들이 설명

전설

누정·비각·묘총전설

樓亭·碑閣·墓塚傳説

정의 누정(樓亭)이나 비석, 무덤 등에 얽힌 전설.

내용 누각이나 정자, 비석이나 무덤 등에 얽힌 전설은 대부분 이름난 인물에 결부된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누정과 비석과 무덤은 인물과 사건을 증명하는 증거물에 해당한다. 특히 누각과 정자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에 연계된 공간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이름난 문사(文士)들이 교류

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이 며느리의 모함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두 사람 모두 젊었을 때의 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에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들이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다시 나타나 모함에 빠진 사계와 화담의 올바른 됴됨이를 설명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난다. 이런 이본들은 결국 사계와 화담의 도덕성과 강직함을 강조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이 설화는 <시아버지의 무죄>라는 이름으로 구연되기도 한다.

분석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특이한 상황을 이야기 소재로 설정한 드문 설화로, 며느리 혹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녹아 있다. 반면, 시아버지 혹은 김장생, 서경덕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부권(父權)의 강직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실명으로 거론되는 유학자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시아버지 이야기로 변모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의 가족관계가 설화에 등장하는 양상은 대개 효를 강조하거나 충을 실현하는 기초 단계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이 설화는 며느리가 성적인 문제로 시아버지를 모함하는 특이한 모티프를 선보인다. 하지만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도덕적으로 우세한 시아버지가 권위를 회복하는 사필귀정의 결론을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5, 55; 7-9, 747.

참고문헌 구비설화를 통해 본 노후의 삶과 가족(이인경, 구비문학연구17, 한국구비문학회, 2003),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강미정, 문학치료연구1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필자 김경섭(金鏡燮)

했던 일화나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 얽힌 전설이 전승된다. 예를 들면, 경기도 파주의 화석정(花石亭)은 율곡 이이가 어려서부터 학문을 닦고 나이가 들어서도 문사들과 교류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의 세검정(洗劍亭)은 인조반정에 참여한 인사들이 칼을 씻으며 결의를 다졌던 곳으로 이름이 나 있다. 그러나 누각과 정자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결부될 때 단지 공간적 배경으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화석정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피난을 떠나던 선조대왕이 어두운 밤길을 밝힐 수 있도록 정자를 불태웠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율곡 이이가 앞일을 예견하여 매일 정자에 기름칠을 해 두도록 일러둔 덕분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이는 율곡 이이의 예지력(叡智力)을 드러내는 일화로서, 정자 자체가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연결 고리로 등장한다. 정자 자체가 역사

적으로 유래가 깊은 경우 외에, 정자가 위치한 자연환경 자체가 오래 전부터 성스러운 공간으로 기능해 왔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 철원의 고석정(孤石亭)이 위치한 곳의 지형은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주상절리형 골짜기에 바위가 우뚝 솟아있다. 이 바위는 예부터 인근에서 주술 행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신성시되어 왔다. 이 때문인지 신라 진평왕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전설 외에 임꺽정이 관군을 피해 격지라는 물고기로 변해서 한탄강에 뛰어들었다는 신이담이 전한다. 그 밖에 임꺽정이 이 바위 주변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세를 규합하여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는 등의 이야기도 전한다. 지형과 바위가 자아내는 신성한 분위기 때문인지 변신이나 주술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전승되고 있다. 밀양의 영남루(嶺南樓)는 주요 문사들이 교류했던 장소라는 전설 외에, 성적 폭력에 희생되었던 아랑이 귀신으로 귀환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폭력의 가해자를 지목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아랑전설>의 주요 사건 전개 배경으로 등장한다.

비석이나 무덤은 이름난 인물이나 장수,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 얽힌 대상인 경우 특별한 성적(聖的) 에너지를 발휘한다. 예를 들어 사명당 등 나라에 충성을 다한 인물의 비석이나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린다는 이야기나, 억울하게 죽은 인물의 무덤에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승된다. 비석을 돌거나 무덤을 뛰어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말이나 개 등 특정 동물의 무덤에 얽힌 이야기는 대부분 상징적인 인물에 깊이 결부된 동물의 행위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용맹한 장수가 타던 말의 무덤에 얽힌 이야기도 있고, 사람을 구하고 죽은 의로운 개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 이들 이야기는 말이나 개의 용맹함과 충성스러움, 혹은 의로움이 인간의 그것을 넘어섭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화살을 쏘아 말과 화살 가운데 누가 먼저 도착할지 내기를 했던 장수가 자신의 말이 늦게 도착했다고 오해하여 그 말을 죽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전한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에서 말무덤은 사건을 표상하는 증거물로서, 장수의 비극성과 성급한 성격의 결함을 상징한다.

특징 누정에 얽힌 이야기는 대부분 역사적 인물의 일화들로 구성되거나 역사적 사건의 절정부 사건을 구현한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구전설화보다는 야담으로 전승되는 예가 많고, 야담 등의 문헌에서 전승되던 자료가 다시 구전되는 예도 많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역사적 성격이 강한 반면 문학적 성격이 약하며, 이야기 구성력보다는 역사적 진실성에 기대어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남루에 얽힌 <아랑전설>처럼 허구적으로 풍성하게 구성된 이야기가 단순히

사건 전개 배경을 누정으로 삼아, 누정에 결부된 전설로 연행되거나 전승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성격이 강한 이야기들과 달리 문학적 성격이 강하며 이때 누정은 이야기 속 핵심 사건과 인물의 상징성을 표상하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비각과 묘총에 얽힌 이야기는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비각과 묘총은 누정에 비해 역사성에 강하게 긴박되지 않으며, 비각과 묘총이 어떤 인물, 어떤 존재에 결부된 대상인지에 따라 이야기 내용이 달라진다. 비각이나 묘총의 주인공이 영웅적이고 민족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라면, 해당 비각과 묘총은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예고하거나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위기의 징후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비각이나 묘총의 주인공이 원한을 갖고 죽었다면 누군가의 소망을 풀어 주거나 또 다른 영험함을 드러내는 신성한 공간이자 의례와 주술의 대상 공간으로 그려진다. 비각이나 묘총과 관련된 인물이 효자이거나 열녀일 수도 있고 도깨비일 수도 있다. 주인공이 누구든지 간에 이야기 속에서 비각이나 묘총은 특별한 힘을 발휘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상징화된다. 무덤의 주인공이 동물이라면 인간보다 더 진실하고 영웅적이며 의기 넘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는 비극적인 장수나 이름난 영웅에 결부된 동물의 무덤은 장수의 비극성이나 인물의 영웅상을 표상하는 상징적 대상으로 그려진다.

의의 누정에 얽힌 이야기의 탐색은 누정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누정과 관련된 제2 콘텐츠 창작을 가능케 하는 문화 자원으로써 힘을 비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름난 문사들의 학맥이나 문학적 계보를 구체화하면서 이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정 관련 설화는 누정문화사 기술의 주요 자원이자 한국 문학사 탐색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각과 묘총은 신화론에 자주 등장하는 우주적 중심의 상징 모티프의 성격을 표상함으로써 이야기를 통해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관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 대상에 결부된 인물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이야기의 주제와 대상물의 상징적 의미, 의례적이고 주술적인 기능 등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특정 인물에 결부된 이들 비각과 묘총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상으로 기능하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거나 공동체의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 설정의 효과를 창출한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2),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강동학 외, 월인, 2000).

필자 김영희(金映希)

다리 떨어진 북 떨어진다의 유래

다시 찾은 옥새

다자구할머니

닥실나무

단군신화

단락소

단종

단월전설

달래강

달성배씨시조신화

당금애기

당신화

대감굿무가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대국산성

대동야승

대신 든 장가

대왕암

대흥수

덕 쌓아 얻은 명당

덕진다리

도깨비 물리치는 법

도깨비 씨름

도깨비가 준 돈

도깨비갑투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보

도깨비불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도담삼봉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도둑 잡은 아이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도드람산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도량 넓은 남편

도미의 처

도선

도술화소

도화녀비행랑

독도

독장수구구

돈 떼먹는 법

돈 친 냥의 구원

돈전놀이

동명왕신화

동물 나이 자랑

동물·사물전설

동물담

동부여건국신화

동아휘집

동자삼

동지팔죽 유래

동패낙송

돼지 맞돈

돼지꿈

두꺼비신랑

두꺼비의 보은

두더지의 혼사

등나무

땀 흘리는 비석

떠내려온 섬

떡보와 사신

류성룡



: 디

: 리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ㄷ

ㄱ

ㄴ

ㄹ

ㅌ

ㅍ

ㅎ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는 유래

정의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라는 속신(俗信)과 관련되는 운명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살았는데, 하루는 어떤 가난한 집에서 목게 되었다. 집주인의 관상을 보니 현재 처지와는 달리 부자 상을 지니고 있었다. 관상쟁이는 매우 의아하게 여겼는데 밤중에 보니 집주인이 발을 툭툭 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 관상쟁이는 비로소 집주인이 가난하게 사는 까닭을 짐작하고, 그날 밤 쇠망치로 집주인의 다리를 꺾어 놓고 도망쳤다. 그 후 집주인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금방 부자가 되었다. 몇 년 후 관상쟁이는 다시 그 집을 찾아가 목기를 청하였다. 관상쟁이가 집주인에게 한쪽 다리가 없어진 이후의 일을 물어보니, 지금은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리 하나가 없어도 살 만하다고 하였다. 관상쟁이가 자기가 바로 다리를 꺾어 놓고 도망친 사람이라고 알려 주자 집주인은 관상쟁이를 매우 후하게 대접했다.

변이 관상쟁이가 다리를 꺾어 놓은 사람의 집에 우연히 다시 목게 되는 예도 있고, 자신이 다리를 꺾어 놓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예도 있다. 이야기 끝 부분에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속신을 언급하면서 끝나기도 한다. 설화의 제목은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는 속신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가난한 주인 얼굴에서 부자 상을 읽어 내는 관상쟁이의 정확한 관상 행위에 초점을 두어 설정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야기 내용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분석 설화에서 ‘주인’은 타고난 관상이 훌륭한데도 다리를 떠는 버릇으로 가난하게 산다. 이런 상황 설정은, 다리를 떠는 것과 같은 나쁜 버릇이 타고난 운명까지 막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후천적 행위 때문에 정해진 운명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에 결국 버릇이 고쳐지고 나서 정해진 운명이 실현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운명의 절대성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주인공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한 관상쟁이를 후대하는 것에서도 신체적 건강함보다는 다복한 운명의 실현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이 설화는 다른 운명담과 달리 속신과 특별한 관련이 있

다. 이 설화는 “다리 떨면 복이 떨어진다(나간다).”라는 손복속신(損福俗信)과 관련되기에 손복설화로 보기도 한다. 다리를 떠는 행위와 복을 터는 행위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유사 법칙에 바탕을 둔 속신이다.

의의 이 설화는 손복속신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복속신에 대한 신뢰를 지속해서 강조하기에 다리를 떠는 버릇의 불편함을 상기시키거나 운명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차용된다. 현대에도 지속적인 생명력을 획득하고 있는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3, 69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95; 9, 237.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관(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2), 운명의 소비에 대한 기초학(류정열, 한국문화이론과비평44,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09),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정재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필자 류정열(柳正月)

다시 찾은 옥새

정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잃었던 물건을 우연히 찾아내거나, 혹은 어떤 일을 우연히 알아 맞추는 소담(笑談) 성격의 설화.

역사 ‘척척박사(Doctor know-all)’ 유형은 세계 광포설화로, 세계적인 설화 연구가 톰슨(S. Thompson)의 『설화 유형집(The Types of the Folktale)』에는 1641번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통 ‘그림동화집’으로 알려진 그림형제의 『가정과 아동을 위한 설화집』에는 98번째 이야기로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유형의 원발생지는 인도로 알려져 있다. 가장 오래 것으로 알려진 자료는 7세기 또는 13세기에 발간된 인도의 설화집인 『앵무 70화』에 수록되어 있는 〈뜻밖에도 공주의 종기를 고친 만트라사라 바라문의 이야기〉라고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자료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흡사한 자료는 11세기 후반에 카시미르의 시인 소마데바가 편찬한 『이야기의 바다』에 수록되어 있는 〈바라문 하리사만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국보 찾기’, ‘주인공의 자탄과 이에 부합하는 도둑의 이름’, ‘항아리 속에 숨긴 개구리 알아맞히기’ 등의 모티프가 들어 있어, 우리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다. 몽고의 불교설화집인 『시디·쿨』에도 유사한 자

료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세기의 우리나라 문헌설화집인 『동야휘집(東野彙集)』에는 〈지동장은수기계(知童藏銀授奇計)〉란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유형의 이야기는 몽고, 중국, 일본에서 다수 채록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00여 편의 각편이 채록되었을 정도이다.

줄거리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귀중한 그릇(혹은 패물)이나 옥새 따위를 찾아내거나 손(혹은 돌) 안에 든 물건을 알아맞힌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사람(이름이 ‘개구리’이다.)과 부유한 사람이 친구간이었는데, 부유한 사람이 피를 내어 저희 집의 귀중품을 숨겨 놓고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찾아내게 한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보상을 받고 용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진다. 때마침 중국 천자가 옥새를 잃고 명인을 구하던 끝에 가난한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옥새를 찾으라고 명한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과 약속한 대로 정한 시각에 집(사당)에 불을 지르자, 가난한 사람이 먼 곳에서 화재를 예언하여 그의 용함을 증명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한을 정해 받고 칩거하다가 마지막 날에 탄성(‘문풍지’ 등)을 내뱉었는데, 그것이 우연히도 가난한 사람의 동정을 엿보던 범인의 이름과 합치한다. 범인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복하고 목숨을 비는 대신 옥새의 행방을 알려 준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은 약속한 날에 언못 속에서 옥새를 찾아낸다. 천자가 다시 가난한 사람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손(혹은 돌) 안에 개구리를 넣고 무엇인지를 알아맞히라 한다. 절망한 가난한 사람이 우연히 자탄성을 내뱉은 것이 정답을 말한 것이 되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많은 상금을 받아 귀국한다. 그 후 예언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중병 때문에 신통력을 잃었다고 선언한다.

분석 이 이야기는 좀 더 좁게 규정한다면 ‘우연한 행운을 얻는 이야기’, 즉 ‘우행담(偶幸譚)’이다. 서구에서는 보통 이 유형의 설화를 ‘척척박사’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인공 이름에 착안하여 ‘돌이와 개구리’ 또는 ‘두꺼비와 개구리’로 부르거나, 주인공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용한 점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척척박사’라는 서구식 명칭은 주인공이 진짜가 아닌 엉터리 점쟁이었다는 점에서 적합한 이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용한 점쟁이’류의 명칭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두꺼비와 개구리’식의 명칭도 자칫하면 동물담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 유형의 모든 이야기가 ‘옥새 찾기’의 삽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찾은 옥새〉라는 제목이 적당하다. 주인공의 점복 행위는 속임수나 우연으로 행해지나, 상대방은 뜻밖에도 정답을 얻게 된다. 부도덕하고도 터무니없는 주

인공의 예언 행각은 그때마다 긍정적인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청자의 동정을 이끌어 낸다. 주인공의 속임수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로는 친구나 사제 간 애정의 결과로서 나타나거나, 또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결말부에 이르러 주인공은 일부러 감각기능(후각)을 잃는 행위를 보이고 예언자로서의 자격 상실을 선언한다. 이로써 우리는 ‘꾸며진 삶-화려하나 긴장으로 가득 찬 삶’ 대신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범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징 우리나라의 유사한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친구간(또는 사제 간)인 ‘돌이’와 ‘개구리’(또는 두꺼비)가 보편적이며, 주인공의 잃어버린 물건 찾아내기는 ‘집안 물건 찾기’와 ‘국보 찾기’라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전개된다. 이 유형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옥새 찾기’ 모티프에서는 주인공의 첫 번째 자탄을 범인이 제 이름으로 오인하여 자복함으로써 해결되고, 두 번째는 “불쌍한 개구리 돌에 치었구나!”라는 자탄의 말을 중국의 천자가 사실로 오해함으로써 해결된다. 동양의 자료들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화재 예언’의 모티프는 유럽의 자료들에는 보이지 않지만,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는 꽤 많이 나타난다.

의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묘한 경험을 종종 가지곤 한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우연성’을 강조하여 만들어 낸 이야기일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다시 찾은 옥새〉는 큰 나라의 천자가 작은 나라에서 명인을 청해 비로소 뜻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이야기를 통하여 민족의 자존의식을 표출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마치 〈떡보와 사신〉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무식한 ‘떡보’가 큰 나라 사신인 대학자와의 수화(手話) 겨룸에서 이기고, 그로 하여금 중도에 돌아가게 했다는 취지와 상통하는 것이다.

출처 東野彙集, 於于野譚, 조선동화대집(심익린,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학예사, 194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481; 7-4, 706, 827.

참고문헌 다시 찾은 옥새설화 소고(조희웅, 어문학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3), The Types of the Folktale(S. Thompson, Suomalainen Tiedeakatemia,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64).

필자 조희웅(曹喜雄)

다자구할머니

보통어 죽령산신당신화

닥실나무

정의 임진왜란 당시 충청남도 금산 군수 권종의 전략과 원혼에 의한 실패를 담은 전설.

역사 1592년 6월 21일 금산까지 진격한 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율의 사촌 형인 권종이 200명의 군사로 천내강이 내려다보이는 성재산성(저곡산성)에 진을 치고 물에 황토를 풀어 위장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하루 만인 6월 22일 강의 깊이를 파악한 왜군이 닥실(갯터)나무를 건너 성재산성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권종은 아들 준과 함께 전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줄거리 닥실나무 근처에 권종의 유허비가 있다. 임진왜란 때 금산 군수 권종은 600명의 군사를 모아 왜구의 진군을 막고자 하였다. 전주에 군대를 이끌고 갔으나 나이가 많다 하여 후방에서 군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권종은 왜군이 금산으로 진군하자 관찰지인 금산으로 돌아와 군사를 모집하여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닥실나무에서 대치하였다. 진군할 때 앞을 가로질러 간 여인은 그를 짝사랑하다가 자살한 원귀로, 권종의 진군을 만류하였으나 권종이 여인에게 칼을 휘두르자 사라졌다. 권종은 왜군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하게 금강 상류에서 흙탕물을 일으켜 진격을 막았다. 그러나 한 여인이 강물을 유유히 건너자, 물이 얇은 것을 눈치챈 왜군이 진격하여 성재가 무너지고 패하였다.

변이 역사적 인물인 권종과 관련된 전설이나 조현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승되는 예가 많다. 권종을 주인공으로 전승되는 이야기는 변이가 크지 않다. 조현을 주인공으로 전승되는 이야기에서는 금산군 구역리 유래담 및 영규대사와 관련되어 많은 변이형이 파생되고 있다. 원귀에 대해서는 권종을 짝사랑하던 여인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현과 결부되어서는 조현의 첩이거나 닥실나무 주막집 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석 금산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대왜 항전설화로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일대와 관련이 있다. 금산 군수 권종이 적은 군사로 많은 수의 왜적을 상대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하여 위장 전략을 펼쳤으나, 원귀의 방해로 적군에게 위장계가 탄로나게 되었다. 따라서 여자가 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구연된다. 때로는 여자가 방정맞아서 일

을 그르쳤다는 논평이 덧붙기도 한다.

특징 1592년 3월 금산 군수로 부임한 권종이 닥실나무에서 전사하게 되는 1박 2일간의 전쟁담이나 후일 청주성 탈환 후 금산성으로 진격하다 전몰된 조현의 이야기처럼 구연되는 예가 많다. 조현은 인근 옥천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고 칠백의총(七百義塚)이라는 역사적 기념물이 거대하여, 4개월간 금산 군수 생활로 생을 마감한 권종에 비해 지역적 친연성이 높으므로 전설의 주인공으로 회자될 개연성이 많다. 또 실제 역사와 관련이 적은 인물인 조현을 전설의 주인공으로 할 때 더욱 많은 변이와 문학적 상상력이 생성된다.

의의 실제 역사의 패배 원인을 원귀에 의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자가 방정맞아서 일을 그르쳤다는 것과 여자가 한을 품지 않도록 잘해 줘야 한다는 구연자의 상반된 전승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출처 금강 분류 유역의 구비설화1·2(김군태·강현모, 금산문화원, 2005), 이야기꾼 구연설화(황인덕, 박이정, 2007), 충남의 전설(한상수, 어문각, 1986).

참고문헌 성재전설의 전승 배경과 등장인물의 특성(강현모, 비교민속학32, 비교민속학회, 2006), 성재전설의 주인공에 대한 구연자들의 인식 태도(김군태·강현모, 금강 분류 유역의 구비설화1, 금산문화원, 2005).

필자 심민호(沈民皓)

단군신화

檀君神話

정의 고조선을 건국한 국조 단군의 신화.

역사 <단군신화(檀君神話)>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진 사연을 담은 개국의 시조신화로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비롯하여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紀)』, 권람(權擘)의 『응제시주(應製詩註)』,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단군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때 일연(一然)이 저술한 것으로 그 저술 연대를 고려 충렬왕 7년 전후로 보고 있다. 내용에 『위서(魏書)』나 『고기(古記)』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군신화>는 이미 그 이전의 문헌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군신화>는 신화의 내용으로 보아 전승되면서 도교나 불교의 영향으로 변모된 흔적이 발견된다. 본래 신화의 모습은 확실히 알

기 어려우나 곰이 여인으로 변하여 단군을 출산하였다는 수조신화(獸祖神話)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동물을 숭배하던 고대사회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줄거리 『삼국유사』 「기이(紀異)」 고조선(古朝鮮) 조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 환인(桓因)은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변을 굽어보다 그곳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만한 곳으로 여겨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으로 내려와, 바람의 신, 강우의 신, 구름의 신을 데리고 곡물과 생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 같은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다스렸다.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한 쑥과 마늘 20개를 주고 “너희가 이것을 먹고 햇빛을 100일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곰은 금기를 지킨 지 21일 만에 여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웅녀는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잉태하기를 빌지만, 결혼할 사람이 없어 환웅이 사람으로 변화하여 웅녀와 혼인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단군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朝鮮)이라고 하였다. 뒤에 백악산(白岳山), 아사달(阿斯達)도 도읍을 옮겼다가 다시 평양성으로 옮겼다.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이 지났을 때 주(周)나라에서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니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겨 갔다가 아사달로 들어가 산신이 되었는데 수명이 1,908세였다.

『삼국유사』와는 달리 『제왕운기』에는 단군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환인의 서자 단웅천왕(檀雄天王)이 태백산정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뒤 단수신(檀樹神)과 혼인시켜 낳은 아들이 단군이라고 되어 있다.

분석 <단군신화>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고조선의 개국 과정을 말해 주는 신화이다. 신화의 주역은 환웅으로 되어 있는데도 신화 명칭을 <단군신화>라고 하고 단군을 한민족(韓民族)의 시조로 인식하는 이유는 환웅이 창건한 신시(神市) 집단과 단군이 건국한 조선 집단의 민족 구성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단군의 조선은 환웅의 신시집단과 웅녀로 대표되는 곰 토맹 부족이 연합하여 새로 형성된 확장된 집단이라고 본다. 환웅 집단은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하고 곡물의 생산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농경생활을 하였던 도래(渡來) 집단의 성격을 띤다. 한편 웅녀로 표상된 집단은 환웅이 곰을 여인으로 변하게 하였다는 내

용에서 환웅 집단에 복속된 곰을 숭앙하는 토착집단의 성격을 띤다. 단군이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후대에 산신으로서 제향을 받는 신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특징 환웅이 신시를 개창한 태백산(太白山)은 신성공간으로서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산을 말한 것이다. 백두산이라는 설과 묘향산이라는 설이 있는데, 태백산을 백산 중에 가장 큰 산이라는 보통명사로 본다면 백두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단군신화>에는 천부인 세 개라는 통치자로서의 징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신경(神鏡), 신검(神劍), 신령(神鈴) 또는 신고(神鼓)의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신경은 한 집단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동경(銅鏡, 구리거울)인데 고대 부족장들의 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신검은 신성한 칼로서 군사의 통솔권을 나타내는 군주의 칼이다. 고구려(주몽신화)에서 주몽이 우리가 천자임을 확인할 때 부러진 단검을 사용하였는데 고대의 군장들은 세형동검(細形銅劍) 등 신성기물로 칼을 지니고 있었다. 신령은 제전(祭典)을 행할 때 소리를 울리는 방울이다. 신에게 인간사를 고하려면 신의 주의를 끄는 장치가 필요한데 방울소리나 북소리로 신이 귀를 기울이도록 한 뒤에 사연을 고해야 한다.

<단군신화>에서는 환인과 환웅의 부자관계가 먼저 설정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환웅과 웅녀의 부부 관계가 나타난다. 여기서 환웅을 중심으로 본다면 부자 관계만 나타나고 부부 관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환인의 부인이 누구인지도 나타나지 않고 환웅의 탄생 경위도 없다. 또한 단군을 중심으로 보아도 부계는 조부부터 기술하고 있으나 모계는 어머니만 기술하고 있으며 즉위 경위는 있으나 결혼 사연은 없다. 이런 점에서 <단군신화>에서는 아버지가 중시되는 가부장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의의 <단군신화>는 천신계의 아버지와 지신계의 어머니가 결합하여 시조를 출산한다는 천부지모(天父地母)형 신화이다. 천부지모신화는 가부장제사회가 확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신화로서 한반도의 건국신화 대부분이 천부지모신화라고 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한반도 최초의 개국신화라는 점에서 왕권신화의 효시라는 의의가 있다. <단군신화>에는 곰이 금기를 지켜 여인으로 변한다는 통과례를 나타내는 삽화가 있다. 이 삽화에서 곰이 금기를 지킨 굴이라는 공간은 주체의 질적 변화를 위하여 통과하는 시련의 공간이고 쑥과 마늘은 주술적 효능이 있는 약품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햇빛을 피하는 100일이나 21일은 금기의 기간으로서 재탄생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고대사회에서의 통과

래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생각된다.

출처 三國遺事, 帝王韻紀.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의 기원(김정배,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단군, 그 이해와 자료(윤이홍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서대석(徐大錫)

용어

단락소

段落素, motifeme

정의 서사 단락의 내용을 추상화하여 다른 단락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소주제를 말함.

내용 서사의 기본 단위로 행위자가 하나의 의미있는 움직임을 완결한 것을 하나의 단위로 나눈 것이 서사 단락이고 이 서사 단락의 소주제를 단락소(段落素)라고 할 수 있다. 조동일은 단락의 내용을 추상화하여 한 단락이 다른 단락과 갖는 대립적 관계의 성격만 드러내면 단락소가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옛날 어느 가난한 나무꾼이 한 겨울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벼랑 밑에 동삼(童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문장은 쉼표를 기준으로 두 단락으로 나뉜다. 여기서 단락이란 전후의 문장과 의미상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서 확연히 구분되는 문장들을 말하는데, 예문에서 한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다는 ‘고난’이 동삼의 발견에 의해 극적으로 반전되어 ‘의외의 행운’을 얻게 되었기에 서로 다른 단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문의 앞 단락과 뒤 단락의 대립 구조를 ‘고난’과 ‘의외의 행운’의 대립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대립적 관계를 드러내는 ‘고난’이나 ‘의외의 행운’ 등을 단락소로 보았다.

필자 최래옥(崔來沃)

전설

단종

端宗

정의 조선 6대 임금인 단종(端宗, 1441~1457)의 유배와 죽음

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수용하여 강원도 영월 지역을 공간으로 해서 전승하는 설화.

역사 1452년 조선 5대 임금인 문종(文宗)이 재위 2년 만에 승하(昇遐)하자, 문종의 뒤를 이어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즉위한다. 하지만 그의 숙부인 수양대군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1455년 6월에 수양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한다. 1457년 6월 21일 장인인 송헌수(宋玪壽)와 권완(權完) 등에 의한 단종 복위 사건이 문제가 되어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降封)되어 영월로 유배된다. 그리고 영월에서 단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단종의 영월 유배와 죽음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설화 전승자들은 다양한 설화들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보완하려 한다.

줄거리 영월군에서 전승하는 <단종설화>는 단종의 폐위와 유배로부터 시작한다. 단종은 영월군의 험난한 고개들을 넘어 유배를 온다. 임금이 오른 고개라는 의미의 군등치(君登峙), 단종이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절을 했다는 배일치(拜日峙) 등이 단종과 관련된 고개이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청령포(淸瀟浦)에서 유배생활을 한다. 현재, 청령포에는 단종이 한양과 정순왕후(定順王后)를 그리며 오르내렸다는 노산대(魯山臺)와 그가 쌓았다는 망향탑 등이 남아 있다. 청령포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단종에게 원호(元昊)는 강에 표주박을 띄어 소식을 전하고, 조여(趙旅)는 호랑이를 타고 건너가 단종을 만난다. 그러나 단종은 유배지에서 ‘복득이’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단종이 죽은 후 유배생활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영월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한다. 백마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하던 단종과 산머루를 진상하러 가던 추익한(秋益漢)이 만나는 설화를 통해서 단종이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변이 <단종설화>는 설화를 전승하는 영월의 지역민들이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화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단종이 ‘왕’이라고 하는 특정 신분의 소유자이며, 일정 기간 동안 설화 전승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도 설화 변이가 활발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단종과 관계를 맺는 주변 인물과 관련된 설화 각편에서는 변이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설화들은 단종의 신성성을 부각시키는 방향과 주변 인물들의 충성심을 부각시키는 방향,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구체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변이가 된다.

분석 단종을 중심으로 <단종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전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태백산산령지위 위패와 단종대왕 당신도
강원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2009.2.22, 김도현

양에서 영월까지의 노정기, 영월에서의 유배생활과 죽음, 영월에서 태백산까지의 노정기, 단종이 신으로서 보이는 영험담 등이 그것이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노정기에서 단종의 모습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묘사된다. 고개를 넘는 고행의 모습이고, 항상 목이 마른 모습이기에 설화의 전승자들에게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발한다. 영월에서의 유배생활과 관련한 설화 각편들은 유배길에 가졌던 연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향수’와 ‘고독’이라는 형태로 일관되게 전승한다. 한편, 단종의 신격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단종의 죽음과 관련한 설화 각편들이다. 단종은 그를 모시던 시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본인 스스로 죽음을 택하게 되었다고 설화 각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단종의 존재론적 위상을 전환시키는 일대 사건으로 작용한다.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한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단종이 완전히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비록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신령으로 승화해서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고 믿게 된다. 이로써 단종은 신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단종의 비극적인 삶과 죽음을 한스러워했던 마음을 완화시키게 된다.

특징 <단종설화>의 형성은 단종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여기에 설화 전승자들의 의도에 따라 허구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전승하고 있는 <단종설화>는 단종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물의 부재로 인해 전승자들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전승하고 있으며, 허구적인 요소를 확대시켜 설화 속에서 단종을 태백산신(太白山神)으로 묘사한다. 단종이 사후에 태백산신으로 좌정하였다고 하는 믿음과, 이와 관련한 문화적 현상으로 인해 단종의 신격화 관련 설화도

함께 형성되고 있다.

의의 강원도 영월에서 전승하는 <단종설화>에는 단종의 유배부터 죽음과 무덤 수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용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들까지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역사인물담보다 전승력이 활발하다. 또한 단종은 영월의 지역민들에게는 마을신앙의 대상으로 이를 증명하는 신격화 관련 설화 각편들도 비록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역민들의 신앙과 연계해서 전승된다. <단종설화>와 같이 역사적 실존 인물과 관련한 사건과 행위를 특정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승되는 경우는 한국 설화에서 흔한 현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설화 각편들은 지역과의 상관성을 토대로 그 대상 인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이나 부분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형태로 전승된다. 반면에 <단종설화>는 단종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출처 강원도의 설화(김용구 외, 강원도, 2005), 영월과 단종사(영월군, 1997), 장릉에 향을 사르며(엄홍용, 단종제위원회, 1997), 태백의 설화(최승순 외, 강원일보사, 197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57; 2-9, 100.

참고문헌 단종설화의 의식 변이양상(최명환, 강원민속학17, 강원도민속학회, 2003), 단종설화의 전승양상 연구(최명환,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현대의 지역축제와 전설(최명환,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학회, 2003).

필자 최명환(崔明煥)

용어

단혈전설

斷穴傳説

정의 어떤 요인에 의해 본래의 지형을 훼손함으로써 개인이나 집안, 고장이나 국가의 운수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전설.

내용 단혈전설은 지형의 기운이 사람이나 국가의 운수를 지배한다는 풍수 사상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 즉 명당의 지형을 변하게 함으로써 명당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즉, 혈(血)이 흐르는 지형을 훼손하여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의 운명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전승되고 있다. 개인적인 경우는 주로 인과응보(因果應報) 성격을 가진 것이 많다. 국가적인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재(人材)가 나는 것을 두려워한 중국이나 일본이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가 많다. 혈을 끊는 인물로는 중국 명나라 장수(將帥)인 이여송(李如松)이

나, 송나라 사람 고종달(胡宗弼)이 주로 언급되고 있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언급된다. 보통 땅을 파거나 쇠말뚝을 박는 등의 방식으로 혈을 끊는다. 이는 더 이상 명당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집안을 망하게 하거나 인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상층과 하층,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생겨나는 대립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불리한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극복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면서 민중들의 연대의식이나 민족혼을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필자 박종오(朴宗五)

전설

달래강

정의 달래강에 얽힌 지명전설.

줄거리 옛날에 어느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남겨진 오누이는 함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다. 농사를 지으려면 강 저편 농지로 건너가야 했는데, 마침 여름철이라 소나기가 와서 강물이 불었다. 오누이가 옷이 젖지 않도록 옷을 벗은 채 강물을 건넜다. 앞서 가는 누나를 보며 뒤에서 따라가던 남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욕정이 일어났음을 깨닫고는 남매간에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누나에게 뒤따라오라 하고는 먼저 강을 건너간 동생은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 자책하면서 바위 위에 남근을 놓고 돌로 찢어서 자살했다. 뒤를 따라 강을 건너온 누나는 동생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것을 보자 애달프고 원통하여 “달래나 보지, 말이나 해 보지, 왜 죽었느냐?”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하여 ‘달래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변이 <달래강전설> 이본은 현재 20여 편이 보고되어 있으나 기본적인 서사구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이본에 따라 단락별로 부분적인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는 누나와 남동생인 이본이 많고 오빠와 여동생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예외적으로 삼촌과 조카딸로 변이된 경우도 있다. 사건의 계기를 제공하는 장소는 전승 지역에 따라 강, 고개, 산, 바위, 굴 등으로 변이된다. 이 중에서 장소가 고개인 경우도 많아 ‘달래고개’라는 지명도 다수 분포한다. 남자 형제가 성 충동을 느끼게 된 계기는 소나기를 맞아 옷이 젖는 바람에 뭍뭍시가 드러나서라는 경우가 많지만 강물이

불어서 옷을 벗고 건너느라 몸을 보게 되어서라는 경우로 변이되기도 한다. 남자 형제의 죽음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한 탓이지만, 이본에 따라서는 근친상간을 행한 결과 벌락이 쳐서 천벌을 받아 죽는다는 예외적인 변이도 있다. 여기서 공간 배경의 변화는 전승 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변이이며, 그 밖의 경우도 화소의 속성을 공유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이 형태로서 전승자 개인의 기억 또는 전승 지역에 따른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달래강>은 근친상간 금지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광포 전설이다. 화소의 특이성으로 인해 <달래강>에 대한 연구는 소재적 원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동일한 화소를 공유하는 <남매혼>과의 연관성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남매혼>은 대흥수로 인류가 절멸될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매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하늘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쳐 혼인함으로써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남매혼>과 <달래강>을 비교하면 흥수 화소의 경우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비’는 속성을 공유하는 ‘소나기’로 변이되고, 남매간의 본능적 욕구의 작용은 ‘남매혼’에서 ‘남자 형제의 성 충동과 비극적 죽음’으로 변이되고 있다. <남매혼>이 종족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하늘의 뜻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쳐 신성성을 획득함으로써 인류의 조상이 된다는 신화적 세계관을 보여 주는 데 비해, <달래강>의 결말은 본능적 욕구가 세속적 윤리관의 검열 아래 근친상간이라는 윤리적 금기로 변모된다. 이는 신화적 모티프의 전설적 변이로서 윤리적 규범이 강화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 <달래강>의 핵심 사건은 남동생의 죽음에 대한 누나의 절규이다. 누나가 발화한 “달래나 보지, 말이나 해 보지.”라는 대목은 주제를 함축하는 부분으로서, 인간의 생명과 윤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전승 집단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능과 윤리의 갈등에서 벗어난 남동생의 자살에 대한 누이의 절규는 윤리적 규범에 선행하는 생명에 대한 긍정으로서, 인간 조건에 대한 실존적 물음이다.

그런데 <달래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규범과 인간적 본능의 갈등이 비극적 파탄 외의 다른 결말로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 소통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는, “에이 천하 몫쓸 놈아, 달래나 보지, 왜 죽었나? 내가 허락을 안 하더라도, 서로 싸움을 하더라도 달래나 보지 왜 죽었나?”라는 누나의 발화는 또 다른 단서를 보여 준다. 근친상간은 윤리적 금기이지만 본능적 욕구는 인간의 원초적 생명 현상이므로 남동생의 성 충동은 윤리적 관점에서는 허용할 수 없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물학적 본능과 윤리적 규범 사이의 대립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누나의 발화는 대화를 통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남동생의

죽음은 철저한 자기 검열에 걸려 행해진 것으로서 소통의 부재를 보여 준다. 왜냐하면 충동적 욕구는 일시적인 것이고 이성적 인식을 통해 승화할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징 <달래강>은 오누이를 통해 근친(近親) 간의 성 문제라는 예사롭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설화 유형들과는 차별적이다. 남매 사이의 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남매혼>과 유사하지만 <남매혼>의 성이 종족 보존의 차원에서 신성시되는 것에 비해 <달래강>의 성은 근친상간 금지라는 윤리적 검열에 의해 좌절되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 준다는 차이가 있다.

의의 <달래강>은 <남매혼>의 중심 화소를 계승하면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독자적 의미를 담아내는 전설 유형으로 창조적 변형을 이루었다는 점, 근친 간의 성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 인간적 본능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한편,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의의가 인정된다. <달래강>이 환기하는 남매간의 사랑과 좌절이라는 주제는 현대에 와서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장르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강원도 철원군 <달래고개전설>을 원형으로 재창조된 장편소설 <달래산 달래강>을 위시하여 ‘남매간의 사랑’이라는 소재는 <원형의 전설>과 영화 <울드보이>, 드라마 <가을동화> 등에서 그 사례가 확인되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산출하는 문화 원형으로서의 의의도 인정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8, 83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6, 29.

참고문헌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나경수, 한국언어문화학, 한국언어문화학, 1988), 남매혼신화와 반신화(천혜숙, 계명어문학4, 계명어문학회, 1988), 달래강 오라비(심우장,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2, 휴머니스트, 2008), 동아시아 창세신화연구(조현설, 구비문학연구11, 구비문화회, 2000),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전설에 나타난 전승집단의 의식구조 연구(강진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필자 강진욱(姜秦玉)

신화

달성배씨시조신화

達成裴氏始祖神話

정의 달성 배씨 시조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득성(得姓)에 관

한 신화.

줄거리 『달성배씨가승보(達成裴氏家乘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배천생은 단군시대에 남해 우두머리이다. 처음 단군이 동남쪽 산천을 주유하던 도중 지리산을 순행하고 바닷가를 순행하면서 토지신과 바다신에게 제사를 받들었다. 이때 바다에서는 두 마리 적룡이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두 신녀가 자색 금합을 받들고 내려와 해안에 놓아두었다. 단군이 이 광경을 보고 경이로워하며 합을 열어서 보니 붉은 비단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있었다. 단군이 백성과 신하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는 필시 황천후도가 나의 정성에 감동하여 신아(神兒)를 내림으로써 신령스럽고 기이한 종족을 보이신 것이다. 몸가짐이 바르고 후덕한 여인으로 하여금 젖을 먹여 기르도록 하라.”라고 했다. 그가 처음 입고 있던 옷이 붉은 비단 옷(緋衣)인 까닭에 ‘비(緋) 자에서 ‘糸’를 버리고 합자(合字)하여 배(裴)로 성을 삼고 이름을 천생(天生)이라 하였다. 나이가 15세가 되자 모습이 장대하고 뜻과 기상이 웅건하니 바닷가 사람들이 모두 그를 추대하여 장으로 삼았다. 그러자 단군이 그를 남해장(南海長)으로 세웠으며, 그 후로는 그의 자손이 남해장을 세습하였다고 한다.

분석 <달성배씨시조신화>는 단군과 적룡이 신화의 중심을 차지하는데, 단군, 신녀를 통해 까마득히 먼 시간에서 씨족의 기원을 찾고 있으며 천신(天神)의 의미를 지향하고 있다. 바다에서 두 마리의 적룡이 나타나고, 두 명의 신녀(神女)가 놓아 둔 자색 금합은 조상숭배의 구체적인 관념으로 영원불변성을 지향하고 성스러움을 구현하는 신성물의 현현이라 할 수 있다. 금합 속에 있을 때 아이의 옷 입은 모습을 보고 ‘배’ 씨라 한 것은 성씨로써 아이의 특별함과 신성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천생이라 함은 이름을 통해 천강(天降)의 자손임을 명백하게 하면서 시조의 비범성과 영특함을 표현하고 있다.

의의 달성 배씨는 신라의 육성신화에서 성씨의 시원(始源)을 찾고 있으면서 동시에 족보와 『규원사화(揆園史話)』에는 배천생을 시조로 하는 시조신화가 삽화(挿話)처럼 실려 있다. 그리고 고려 초기의 실존 인물인 배현경을 도시조로 하여 그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시조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이는 시조의 출현이 신적인 존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역사적으로 부합하는 사실을 통해 씨족만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후손들은 신화를 통해 다른 씨족집단과는 변별되는 특출함을 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출처 揆圖史話, 達成裴氏家乘譜.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승의 문화(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신화

당금애기

정의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는 제석신의 유래를 이야기한 무속신화.

역사 〈당금애기〉는 제석신의 탄생 과정과 신으로의 좌정 경위를 서술한 무속신화인데 전국적으로 전승되면서 농경생산신에 대한 무속제전인 제석굿에서 창송되고 있다. 그 서사가 정착한 여성과 도래한 남성이 결합하여 삼 형제 신을 출산한다고 되어 있어,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와 같은 북방 지역 건국신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특히 홀어머니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심부담(尋父譚) 화소는 고구려 건국신화에서 주몽과 유리태자의 만남과 상통하는 성격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고대 건국신화와 같은 뿌리에서 형성된 무속신화라고 본다. 현재 〈당금애기〉의 각편은 60여 편이 채록되었는데 가장 먼저 채록된 것은 경기도 오산 무부이종만본(제석)으로서 1937년경 오산 열두거리굿 중 세 번째 구거리에서 구연한 것이다. 다음으로 1940년 손진태가 평안북도 강계시의 무계 전명수의 보유자료를 채록하여 『문장』에 발표한 〈성인노리푸념〉이 있다.

줄거리 〈당금애기〉는 제주도를 포함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승된다. 신화적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된 한반도 북부 지역 전승본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기로 한다.

옛날 어느 곳에 고귀한 가정에 아들은 아홉 형제를 두었으나 딸이 없어 딸을 접지해 달라는 치성을 드리고 딸을 낳아 이름을 당금애기라고 하였다. 곱게 자란 당금애기가 처녀가 되었을 무렵 부모와 오라비 등 가족이 모두 불 일을 보러 떠나고 당금애기만 집에 남아 있었다. 그때 서역에서 불도를 닦은 스님이 당금애기를 찾아와 시주를 빙자하여 접촉하고 사라졌는데, 그 후 당금애기는 잉태를 하게 된다. 가족들이 귀가하여 당금애기가 스님의 씨를 잉태한 사실을 알아내고 당금애기를 지함 속에 가두거나 집에서 내쫓는다. 잉태한 지 열 달 후에 지함 속에 있던 당금애기는 아들 세쌍둥이를 출산한다. 당금애기의 아들 삼 형제가 일곱 살이 되어 서당에 다녔

는데 친구들에게 아버 없는 자식이란 욕설과 놀림을 당한다. 삼 형제는 당금애기에게 아버지가 누구며 어디 있는가를 물어서 알아내고 당금애기와 함께 스님을 찾아 서천국으로 가서 한 절에 이른다. 스님은 당금애기와 아들 삼 형제가 찾아온 것을 알고 친자 확인 시험을 한다. 종이웃 입고 청수에서 헤엄치기, 모래성 쌓고 넘나들기, 짚북과 짚닭 울리기 등의 시험을 거쳐,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 스님과 세 아들의 피가 합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친자임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신직을 부여한 후, 스님과 당금애기는 승천하고 아들 삼 형제는 제석신이 되었다.

변이 〈당금애기〉는 60여 편의 각편이 있고, 각편에 따라 세부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여주인공의 이름은 서장애기(관서 지방), 세주애기(관북 지방), 당금애기(중부 지역), 제석님네 따님애기(호남 지역), 자지명애기(제주도)로 다양하며, 남주인공은 황금산주재문장(강계), 서인님(함흥, 평양), 장석가여래(양평), 석가여래시준님(강릉, 영덕), 황금산 중상(수원, 오산), 황금대사(청주), 황금산 황예중(진도, 영동), 황금산 주재선생(제주도) 등으로 다양하다. 이야기의 세부에서 딸아기의 잉태 과정, 시련 과정, 스님과 아이들의 상봉 과정은 전승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대체로 함흥·평양·양평·동해안을 포함하는 남한강 동북 지역의 전승본들은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 딸아기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딸아기가 구슬 세 개를 품에 받는 꿈을 꾸고 잉태하는 반면, 오산·수원·청주·부여·줄포·순창·광주·목포·진도·해남·제주도 등 한반도 서남 지역 전승본에서는 스님이 시주를 받아 가지고 가면서 딸아에게 쌀 세 톨을 먹도록 하거나 손목을 잡아 보거나 머리를 만지자 잉태한다. 또한 딸아기가 잉태했기 때문에 쥐는 시련도 동북 지역과 서남 지역의 전승본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동북 지역 전승본에서는 딸아기가 토굴에 감금되고 그 안에서 출산하며, 출산한 아이들을 키운 뒤에 아이들의 요청으로 스님을 찾아간다. 그러나 서남 지역 전승본들에서는 딸아기의 부모가 바로 딸아기를 내쫓고 쫓겨난 딸아기는 잉태한 몸으로 스님을 찾아간다. 스님이 딸아기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각 지역 전승본들은 차이를 보인다. 동북 지역본들에서는 스님이 찾아온 아이들에게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부과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해결하자 성명과 직책을 부여한다. 반면 서남 지역본들에서는 스님이 잉태한 딸아기를 만나자 중노릇을 걷어치우고 세속살림을 준비한다. 제주 지역에서는 딸아기가 낳은 삼 형제가 과거를 보았는데 중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낙방을 당하고 화가 난 삼 형제가 연주문 종각을 부수자 조정에서는 딸아기를 잡아 가두고 삼 형제가 다시 종각을 수리하여 어머니를 방면하도록 하고 무제(巫祭)를 받는 신이 된다는 내용이 추

가되어 있다.

분석 〈당금애기〉는 스님과 당금애기가 결합하여 아들 삼 형제를 낳고 이 아들이 제석신이 된다는 제석신의 본풀이인데 여기에서 제석신은 ‘시준단지’나 ‘제석단지’와 같은 민속신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능이 농경생산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당금애기〉 서사의 핵심은 잉태와 출산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잉태와 출산이 신성시되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던 생산신의 기능을 서사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남주인공이 스님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당금애기에게 잉태시킨 스님은 하늘에서 하강하고 승천하기도 하며 도술을 부려 접근하는 신이성을 보이는데, 이는 해모수와 같은 태양신의 모습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스님으로 변모한 것으로 본다. 당금애기도 한 지역을 관장하는 여신의 성격을 띠는데 ‘당금’이란 말은 곡신(谷神)이나 촌신(村神)이라는 의미의 고구려어 ‘단금’에서 소원(溯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천신계 남성과 지상의 여신이 결합하여 새로운 신을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고대건국신화인 〈단군신화〉나 〈주몽신화〉와 신화적 성격이 상통함을 알 수 있다.

특징 〈당금애기〉는 한 여성이 잉태하여 출산한 아들 삼 형제가 신이 된다는 신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한 신화이다. 무속신화 중에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것으로 이 〈당금애기〉 외에도 〈바리공주〉나 〈자청비신화〉가 있다. 〈바리공주〉는 병든 부친을 살리기 위한 구약 행위가 중심이고 〈자청비신화〉가 문도령과 자청비가 부부로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애정서사에 중심이 있다. 이에 비하여 〈당금애기〉는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신성을 획득한다는 여성의 출산 과정에 핵심이 있다.

의의 〈당금애기〉는 무속의 농경생산신신화이면서 한반도의 대표적 무속서사시로서 귀중한 구비문학 유산이다. 특히 여성의 일생을 다룬 서사문학에서 추출되는 혼사장애에 따른 여성의 수난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 수난의 서사는 〈주몽신화〉의 유희에서 비롯하여 무속신화 〈당금애기〉, 〈속향전〉, 〈춘향전〉 등의 고소설, 〈화세계〉, 〈추월색〉 등의 신소설 그리고 현대소설 〈탁류〉에 이르기까지 서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한 여성이 인내와 끈기로 시련을 극복하고 여성의 지위를 확보하는 모습을 통해 한반도 전통사회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참용성과 정성스러움을 가르치는 교훈적 기능을 했다고 본다.

출처 서사무가 당금애기전집1·2(김진영·김준기·홍태환, 민속원, 1999), 한국무가집1·2·3(김태근, 원광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71~1978).

참고문헌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필자 서대석(徐大錫)

용어

당신화

堂神話

정의 마을 공동체 단위로 전승되는 공동체신앙에서 제사의 대상인 당신(堂神)이 제당에 좌정하게 되는 내력담을 이야기한 설화.

내용 당신화(堂神話)는 마을제사를 지내는 제의적 공간에서 신격을 모시는 곳인 당(堂)과 그곳에 모셔진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神話)의 합성어이다. 당신화를 제주도 지역에서는 ‘당본풀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내륙지역에서는 ‘마을신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당본풀이는 당신(堂神)의 유래를 풀어 낸 노래이고, 마을신화는 자연마을의 범위에서 신성성이 인정되는 마을신당에서 모시는 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 즉 당신화는 당신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당신화의 내용은 제주도에서는 거의 당본풀이인 서사무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내륙지역에서는 전설적인 성격을 지닌 이야기 형태인 경우가 많다. 당본풀이는 마을신앙의 신당인 본향당에 좌정하고 있는 신격에 관한 서사무가로서 그 신격의 유래와 그에 관한 제의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격해설, 좌정유래, 직능해설, 제일해설(祭日解說), 단골해설, 기도사(祈禱詞)로 구성되어 있다. 내륙지역의 이야기는 당신(堂神)의 좌정 유래를 설명하거나, 신의 영험담을 전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필자 표인주(表仁柱)

신화

대감굿무가

정의 함경도에 전승되는 재수 소망을 빌면서 무장으로서의 대감신의 유래를 보여주는 무속신화.

줄거리 〈대감굿무가〉의 전반부는 무속신화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청배무가이다. 일월이 명량한테 여러 대감을 모셔왔다고 하면서 지정대감, 신장대감, 조상대감 등을 청배한다. 여

러 대감은 자신의 근본에 따라 신장대감, 산령대감, 호기대감, 조상대감, 삼재대감, 당상대감, 혼수대감, 용신대감, 전쟁대감, 선상대감이 각각 들어온다. 뒤이어 조공을 받고 승전하던 여러 대감이 들어오고, 강남에서 들어오는 대감의 노정기와 함께 차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역에 보이는 대감과 성격이 유사하다. 대감의 성격은 여러 대감이 들어올 때 전장대감이 남한산성 북한산성의 대감과 함께 거론되면서 변화한다. 장군의 명대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이라며 군노, 통인, 아전을 데리고 앞다리 선각에 뒷다리 후각으로 소고기 맛을 보던 대감이 들어오면서 대감의 성격이 달라진다. 그러고는 본격적인 무속신화가 이어진다.

전장에 나가 패장이 된 짐달런의 아들로 태어난 짐달런은 세 살 때부터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한다. 네 살 때부터 어머니 몰래 무술을 연마한 짐달런은 열다섯이 되는 해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천리용마를 타고 원수를 갚으러 떠난다. 임팔로 마병을, 좁쌀로 포병을, 콩으로 보병을 만든 짐달런은 단숨에 두만강을 건너 저나라로 들어간다. 마귀할미의 도움으로, 짐달런의 아버지를 방해한 새파란 각씨님의 방해를 물리치고 드디어 저나라에 도착한다. 작다고 알보는 적군 앞에서 자신의 목을 스스로 따고서도 목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하여 혼비백산한 적군을 물리친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아버지의 신체를 다시 찾은 짐달런은 두만강을 건너 돌아온다. 오는 길에 군사들이 쓰러지자 머루, 다래, 호박, 수박이 열렸다고 달려서 무사히 귀가시킨 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으니 집에 가서 무엇 하나면서 용천검으로 목을 따 죽는다. 천리용마가 달런의 머리를 물고 집으로 가니 달런의 어머니는 통곡하다가 목을 매어 자결한다. 아버지는 선상군의 장군으로 굿을 받게 하고 어머니는 '성앙'(서낭)으로 굿을 받게 하였다.

분석 서울 경기굿에서 대감은 사람들에게 재물과 복을 주는 신령인데 함경도에서는 대감이 재수를 주는 신령이면서도 무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어서 색다르다. <대감굿무가>에서 대감이 들어올 때 “앞다리 선각이 뒷다리 후각으 양주머리 갈을 뽑고 쇠귀기 맛을 보던 대감이 두옴소사 소양푼에 영계 찜이 대양푼에 가리찜이 호생하던 대감이 저 한편 두옴소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절은 서울 경기굿 대감거리에도 보인다. 이로 미루어 함경도의 대감 역시 재물과 복을 관장하는 신령임이 분명하지만, 여기에 무장으로서의 대감신 성격이 보이는 무속신화가 후반부에 연결되어 있어 대감신의 성격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대감신의 원래 성격이 이처럼 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후대에 변화된 것인지, 관북지방에서만 대감신을 이렇게 인식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조사된 자료가 적고, <대감굿무가>에 대한 구송자

의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감굿무가> 초반부의 여러 대감을 불러들이는 내용에서 무속신화가 청배무가로 변화하는 과정이 보인다. 전국에 전승되는 <손님굿무가>에도 이러한 양상이 있어 앞으로 무속신화가 다른 성격의 무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특징 임석재와 장주근이 1965년에 조사, 보고한 『관북지방 무가』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다. 함경도 흥원에 거주하던 지금섬이 월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당동에서 조사자를 만나 구송한 것으로, 망목국의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상을 위로하는 성격이라 하고 있으나 분명하지 않다. 대감신이 장군신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짐달런이 아버지를 장군받기 법을 내고 어머니는 성앙받기 법을 내었다는 말에서 대감이 장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드러난다. 서울 경기굿에서 장군거리와 대감거리가 연이어 연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름의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의 함경도 무속신화는 설화와의 교섭 양상이 자주 발견된다. <대감굿무가>도 그러하여서 짐달런이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보여 주는 장면, 콩과 쌀로 군사를 만드는 장면, 용마를 타고 다니는 장면 등은 <아기장수전설>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또한 마귀할미가 원조자로 등장하는데 이는 서해안 지역에 보이는 마고할미와의 관련성 속에 <거녀설화(巨女說話)>를 떠올리게 하고, 방해자로 등장하는 구미호(새파란 각씨님)도 설화에 자주 보이는 구미호와 상통한다. <대감굿무가>는 다양한 설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으로, 전반부에 청배무가가 결합되어 있는 데서 무속신화가 일반 무가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도 보인다. 다른 무속신화와 달리 주인공 짐달런이 스스로 목을 따서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대감굿무가>에 등장하는 대감신이 장군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짐달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장군과 서낭으로 좌정했으나, 막상 주인공 짐달런이 신령으로 좌정하는 모습은 없어 신령의 유래담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다. 짐달런의 부모가 좌정한 신령이 장군과 서낭이라는 점은 한국 신령의 체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장군신과 대감신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음도 이 무가의 가치이다.

출처 대감굿무가(임석재·장주근,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13,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참고문헌 대감굿무가(권태효, 한국민속신앙사전-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함경도 서사무가에 나타난 아기장수전설의 수용양상(권태효,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필자 홍태한(洪泰漢)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大關嶺國師城隍堂神話

정의 대관령국사당성황신과 이와 관련된 신라 말의 선승(禪僧) 범일국사(810~889)에 대하여 강원도 강릉 지역에 전해오는 설화.

역사 실존인물인 범일국사 관련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조당집(祖堂集)』, 『증수 임영지(增修臨瀛誌)』 등의 문헌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승된다.

출거리 대관령국사당성황신으로 모셔져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의 수호신으로 인식되는 범일국사에 대한 설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 때 양가의 딸이 명주(옛 강릉) 굴산에 살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도록 시집을 못 갔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햇빛이 배를 비추자 돌연히 산기(産氣)가 있었다. 아버가 없는 아들을 낳자 집안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 같아서 아기를 얼음 위에도 버리니 새들이 날아와 아기를 덮어 감쌌다. 밤이 되자 하늘에서 상서로운 빛이 비추었다. 아기를 도로 데려다 길렀는데, 이름을 범일이라 하였다. 나이가 들어 성장하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데 신통력으로 성불세계에 들어가니 오묘한 조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신복과 굴산 두 산에 두 개의 큰 절을 창건하고 탑산을 지어 지맥을 보충하였다. 범일은 후에 오대산에 은거하다가 시적(示寂)하였다고 한다.

또한 신라 46대 문성왕 때 명주 학산마을에 열다섯 살 된 무남독녀가 여름날 새벽 우물에 갔다가 물속에 비친 해를 우연히 떠먹자 배가 불러 열 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다고 한다. 뒷산 바위틈에 아기를 버렸는데 학들이 입에서 젖물을 내어서 아기를 먹이자 하늘이 낸 아기라고 생각하여 다시 데려다 길렀다. 다섯 살에 글을 배우고 열 살에 사서오경을 배웠다. 어느 날 편모와 결별하고 떠나서 나중에 국사가 되니 그가 바로 유명한 범일대사이다. 학산마을 우물은 신정(神井)이라 하고, 범일에게 젖을 먹이던 학이 많아서 지금도 학산(鶴山)이라고 한다. 다른 구전 내용은 학산 처녀가 석천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뜨는데 햇빛이 비치는 물을 마시고 열네 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버렸는데 백학이 아기에게 단실(丹實) 세 알을 입에 넣어 주어서 살렸다고 한다. 아이는 네다섯 살이 될 때까지 아버 없는 자식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말을 못하였다.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는 집을 떠나 국사라는 승가의 최고위를 점하고 돌아와서 어머

니를 봉양하며 굴산사를 세웠다고 한다. 해가 비친 물을 마셔서 잉태되니 범일의 한자를 뜯 범(泛), 날일(日) 자로 쓰기도 한다.

대관령국사여성황에 대한 유래도 전한다. 옛날 강릉 정씨가 처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가족들이 딸을 찾으러 대관령에 올라가니 성황당 안에 죽은 채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황신이 처녀를 데리고 가서 부인으로 삼았다고 여기고 국사성황신 부부를 단오제 때 모시고 있다.

변이 이 설화를 전기 형태로 자세히 기록한 『조당집』에는 계림의 호족 김 씨의 아내 지씨 부인이 해를 겨안는 태몽을 꾸고 범일을 잉태해서 열세 달 만에 낳았다고 하였다. 범일은 열다섯 살에 부모에게 출가를 고하고 중국에서 산신, 수신, 동물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와, 40년 동안 굴산사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설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신라 46대 문성왕 때라고 한다. 모친은 열다섯 살 된 양가의 처녀, 나이 많은 처녀 등으로 나온다. 범일 탄생과 관련하여 지씨 부인의 꿈에서 해를 안고 잉태한 태몽형 이외에도 해가 배를 비추었다거나, 물속에 비친 해를 마시고 잉태했다는 내용으로 전승된다. 전승상 범일의 모친이 결혼한 부인 또는 처녀라는 두 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범일의 임신기간도 십 개월, 십삼 개월, 십사 개월 등으로 나타난다. 버려진 범일을 학이 보호해 주었다는 기아(棄兒) 내용도 있으며, 국사 지위를 부여받은 것, 굴산사를 창건한 내용도 있다. 임진왜란 때 대관령성황당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더니 범일국사가 산천초목이 모두 군사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일본군이 강릉으로 쳐들어가지 못했다고도 한다. 이에 따라 대관령국사성황당에는 전립을 쓴 범일국사 화상을 봉안하여 마을수호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강릉지역에서 전해지는 이 설화는 마을지킴이 신화인물로 형상화되었으며, 나이가 강릉단오제의 주신으로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좌정하면서 인물의 신화적



대관령 산신당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국립민속박물관

행적이 구체화되었다.

분석 이 설화는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신격화되는 신라시대 고승 범일의 일대기적 구조로 중국 남당 정(靜)과 균(筠)이 지은 『조당집』에 전한다.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어머니 지씨는 여러 대를 내려오는 호귀한 씨족으로서 태기가 있을 무렵 해를 받아들이는 꿈을 꾸었다. 열세 달 만에 범일이 탄생하니 머리에 나게(螺階)가 있고 정수리에 구슬이 있어 이상한 모습이었다. 열다섯 살이 되어 출가할 뜻을 품고 부모에게 아뢰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았다. 스무 살에 경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도를 닦았는데 출가인들의 귀감이고 동학들의 모범이 되었다. 왕지 김의종과 함께 당나라에 가서 순례의 길을 올랐으며, 염관제안 대사를 만나 6년 동안 선사를 모시고 약산과 문답하였다. 그 뒤로 고향에서 불법을 펴 생각으로 배에 올라 계림정에 돌아왔다. 명주의 도독이 굴산사에 주석할 것을 청하여 한번 숲 속에 앉은 뒤로 40여 년간 소나무로 도를 행하는 행랑을 삼고 평평한 돌로 좌선하는 자리를 삼았다. 경문왕, 현강왕이 국사에 봉하고자 했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으며 굴산사 상방에서 입멸하였다. 춘추는 80세, 승랍은 60세, 시호는 통효, 탑호는 연취라 하였다고 한다. 고려 때 정추(鄭樞, 1333~1382)가 쓴 원재고(圓齋藁)에도 범일국사라 불렀다.

특징 이 설화는 태양신화의 유형으로 일광(日光)을 받아들이는 꿈을 꾸었거나, 해가 배를 비추었거나, 햇빛이 비친 물을 마시고 임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또한 기아로 버려져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라 5교 9산의 하나인 굴산사를 창건하고 사굴산과의 개조로서 국사 칭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영웅설화적 양상을 보이는 이 설화에는 학산마을의 구체적 증거물이 존재하고 있다. 실존인물인 범일이 후에 고향에서 대관령국사성황신격으로 자리 잡고 지역설화로 승격되어 전한다.

의의 범일국사는 강릉단오제의 중심신격이 되면서 설화적 영향력이 확장되었다. 신비한 화소가 구전되고 있으며, 신이한 탄생담이 단오제 주신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祖堂集(952),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최선만, 강릉관광협회, 1962), 명주6호(경호, 명주사, 1957), 중수 임영지(농택성, 강릉고적보존회, 193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529.

참고문헌 강릉단오제(임동권,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 문화재관리국, 1966), 강릉단오제 현장탐방구(장정룡, 국학자료원, 2007), 범일국사신화의 형성과정 검토(김종철, 윤당구인환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989), 영동지방 인물신화의 내용적 고찰(장정룡, 중앙민속학3, 중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범일국사 전승설화의 변이과정 고찰(장정룡, 인문학보27, 강릉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필자 장정룡(張正龍)

전설

대국산성

大局山城

정의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대국산(370m) 정상에 있는 대국산성(大局山城) 축조에 얽힌 전설.

역사 대국산성의 정확한 축성 연대는 알 수 없다. 성터에서 고려시대의 유물이 다소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시대 때 성이 축조되어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1974년 경남지방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성 안에는 지휘소, 장대지, 연못, 천 장군 사당 터가 남아 있다. 설화에서 오백 년 전이라고 한 것이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보인다.

줄거리 옛날 남해 대국산 아래 비란리에 형제가 사이 좋게 살았는데, 마을의 예쁜 처녀를 동시에 사랑하게 되었다. 사정이 딱해서 형이 제안을 했다. 처녀가 신랑 될 사람의 두루마기를 만들 동안 형은 아주 무거운 쇠줄을 발목에 묶고 20리나 떨어진 읍내까지 갔다 오기로 하고, 동생은 대국산에 올라 돌로 성을 쌓기로 했다. 이 시합에서 이긴 자가 두루마기를 입고 처녀와 결혼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생이 이겼고, 형은 자결한다. 슬픔에 잠긴 동생은 처녀와 결혼할 수가 없었다. 그 후 왜적이 쳐들어오자 동생은 자기가 쌓은 성에서 왜적을 막아냈다고 한다.

변이 이 전설은 대개 형과 동생이 처녀를 차지하기 위해 시합하여 성을 쌓게 되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부부가 시합하여 성을 쌓는 경우, 중국에서 왔다는 천 장군이 시녀와 시



대국산성
경남 남해군 설천면, 2012.4.6, 배도식

합하여 축성했다는 변이형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대국산성 축조전설인데, 『경남 해안 및 도서지방의 민속문화』에 1편, 『한국구전설화집』-남해군에 5편,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에 3편 『한려수도와 제주도』에 1편이 실려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유일하게 배도식의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가 있을 뿐이다.

의의 남해는 지역적으로 섬이라 왜적의 침략에 많이 시달렸다. 특히 임진왜란 때 이 성에서 왜적을 잘 막아냈다는 대국산성 축성의 연기설화로 치기도 한다. 이 전설에서는 왜적을 막아내고자 하는 주민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출처 남해군지(남해군, 1994), 남해의 열(남해군, 1985),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0, 37, 한국설화·전설대전집(박영준, 태양사, 1975), 한국구전설화집-남해군(류경자, 민속원, 2011), 한려수도와 제주도(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1998).

참고문헌 경남 해안 및 도서지방의 민속문화(김무조, 동아대학교, 1972), 남해설화의 특성과 구조(배도식, 석당논총2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97).

필자 배도식(裵桃植)

자료

대동야승

大東野乘

정의 조선시대 야담, 잡록집들을 모아놓은 총서(叢書).

내용 숙종 말에서 영·정조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부 72권 72책이다. 필사본인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것이다. 1909년부터 1911년에 이르기까지 조선고서간행회에서 13책으로 인쇄했고, 1939년 계유출판사에서 현토하여 부분 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조선고서간행회본을 대본으로 하여 영인 출판했으며,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국역한 것에 원문을 첨부하여 17권으로 간행했다.

『대동야승(大東野乘)』은 총 59종의 잡록을 모아 놓은 것인데, 각각의 성격이 같지가 않다. 역사적 사건을 일정하게 변개하여 기록한 것에서부터 사대부사회와 민간의 자질구레한 일상사를 기록하거나 나아가 거기에 허구적 요소를 덧붙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잡록에 실려 있는 서사체들도 그 성격이 단일하지가 않다. 야사(野史)·일화(逸話)·시화(詩話)·소화(笑話)·만록(漫錄)·수필(隨筆) 등에 해당하는 단편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중 주요 잡록집들을 편찬

자의 생존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서 김안로(金安老, 1481~1537)의 『용천담적기(龍泉談寂記)』까지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편찬된 조선 초기 잡록집이라면, 안로(安謐)(16세기 후반)의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에서 편찬자 미상의 『일사기문(逸史記聞)』까지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편찬된 조선 중기 잡록집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잡록집에는 사회·경제·정치적 격변의 흔적이 나타난다. 사화(士禍)·옥사(獄事)에 대한 기록이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한 기록들은 중요한 사료가 된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민담

대신 든 장가

정의 부친의 빚을 탕감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들이 다른 사람 대신 장가가서 성공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회재계 고소설 〈육효자전(六孝子傳)〉 제1회 〈김효증전〉의 근원설화이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전승이 확인된다.

줄거리 관직에 있던 부친이 나라에 빚을 지자, 아들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선다. 어느 부잣집에서 문둥이 아들을 대신해서 혼례를 치르면 부친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한다. 혼례를 마친 아들이 동침을 거부하자 신부는 자기가 소박당한 것으로 여겨 자결을 하려 한다. 그 바람에 아들은 진실을 밝힌다. 신부의 집에서는 오히려 문둥이 사위를 얻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부친의 빚을 갚아주고 아들을 사위로 삼는다. 아들의 여동생은 아버지의 빚을 갚은 것이 결국 부잣집의 제안 덕분이라며 자칭하여 문둥이 신랑과 혼인한다. 첫날밤에 여동생이 자결하려고 준비한 비상을 실수로 문둥이 신랑이 먹었는데, 오히려 문둥병이 완치되어 부부로 행복하게 잘산다.

변이 대신 장가를 들었다가 진짜 부부가 되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되는 유형과 이후에 오빠 부부의 사연을 들은 여동생이 자칭해서 문둥이 총각과 혼인하는 서사를 갖춘 유형이 공존한다. 〈김효증전〉은 앞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화소의 변이는 크지 않은데, 부친이 공금을 유용하게 된 동기가 노모의 병구

완이나 친구에게 빌려주기 위함이라는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부친이 밧자리를 탐내는 권세가에 맞서다가 죄를 얻었다는 각편도 존재한다. 한편, 부잣집 아들이 앓는 병은 문둥병이 보통이지만, 드물게 곱사등이나 몸이 뒤틀리는 병으로도 나타난다.

분석 『한국설화유형분류집(韓國說話類型分類集)』에 따르면 설화유형 715-9 다른 사람 대신 장가가서 잘되기로 분류되어 있으며, 위기에 처한 부친을 구하려고 돈을 받고 대신 장가든 주인공이 진짜로 정승의 사위가 된다는 행운담이다. 주인공이 동침을 거부하자 신부가 자결을 시도하고, 대단한 재력가임을 내세우는 신부 가족에게 설득당해 부잣집의 은혜를 저버리고 정승의 사위가 된다. 결국 주인공의 여동생이 자청해 부잣집 문둥이 아들과 혼인하여 아버지, 오빠, 부잣집 주인 사이의 빛의 순환이 청산된다. 이 과정에서 효와 보은의 명분을 내세운 돈의 흐름이 주목된다. 한편, 주인공과 그 여동생이 자신을 희생하여 효를 실천하고자 했고, 그것이 오히려 행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희생효적 주제의식과 효행설화의 구조도 확인된다.

특징 나라에 빛을 진 부친, 돈을 받고 대신 장가가는 주인공, 문둥이 사위를 얻지 않게 된 행운을 돈으로 보상하려는 신부 가족의 모습에서 경제 논리가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충·효·열’이라는 유교의 실천 윤리가 퇴색되면서 화폐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의의 한 편의 설화 안에 불우한 주인공의 행운담과 자신을 희생하여 효를 실천하려는 효행담, 그리고 문둥이 신랑을 병구완하는 열녀담이라는 세 가지 서사가 유기적으로 복합되었다는 점에서 구비설화의 유형적 결합과 변이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363; 3-4, 446; 5-5, 170; 7-10, 648; 8-5, 826, 한국구전설화집(최문식 외, 민속원, 2002)
참고문헌 열녀설화의 재해석(이인경, 월인, 2006), 육효자전 연구(권윤정,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이인경(李仁卿)

전설

대왕암

포해어 문무왕

전설

대홍수

정의 옛날 큰 홍수가 나서 산정(山頂)만 남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 곳에 표착한 남매가 혼인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

줄거리 아주 먼 옛날에 큰물이 저서 온 세상이 바다가 되었는데, 남매만 산꼭대기에 표착하여 살아남았다. 물이 다 걷힌 뒤 남매가 세상에 나와 보았으나 인적이 없었다. 남매는 사람의 씨가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각각 마주보는 두 산정으로 올라가 여자는 암망돌을, 남자는 숫망돌을 굴렀다. 두 돌이 골짜기에서 합쳐졌다(혹은 청솔가지에 불을 붙였다니 그 연기가 공중에서 합쳐졌다). 남매는 그것을 천의(天意)로 여기고 혼인하였다. 사람의 씨는 이 혼인으로 계속되었으니, 이 남매가 지금 인류의 시조이다.

변이 대홍수 후의 남매혼을 통해서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특정 성씨의 시조가 태어난 변이가 나타난다. 남매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호랑이가 데리고 온 남자가 남매 중 누이와 결혼하거나, 목도령형에서 보듯이 두 쌍의 남녀가 살아남아 각각 혼인을 함으로써 근친상간을 피한 것이다. 홍수가 새로운 자연 창조의 계기가 되는 유형으로는 ‘산 이름 유래전설’을 들 수 있다. “홍수 때 산정이 ○○만큼 남아서 산 이름이 ○○산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전국 많은 산들의 이름이 그렇게 생겨났다. 이를테면 홍수 때 산정이 뒷박만큼 남아서 승봉산(升峰山)이 되고, 말만큼 남아서 두봉산(斗峰山)이 되었다는 것이다.

홍수 때 배를 띄운 것과 연관된 지명도 나타난다. 홍수 때 배고리를 매었다고 하여 ‘고리봉’, 배가 넘어간 고개라고 하여 ‘배너미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배와 연관된 변이는 행주(行舟)형 전설과도 이어진다. 행주형은 “홍수로 세상이 잠겼을 때 이 마을은 행주형국이어서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배말뚝을 댄 자리가 증거물로 남았다. 행주형 가운데는 미래에 있을 홍수에 대비하여 뚝대나 배말뚝을 마련해 두었다는 흥미로운 변이도 나타난다.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산 부근에 있는 ‘무너미재’도 장차 큰 물이 넘어가면 후천개벽의 새 세상이 오리라는 도참설(圖讖說)이 전하는 고개로, 이것 역시 미래에 있을 홍수와 관련되어 있다.

노파가 전하는 예언을 무시하여 함몰을 자초한 광포형 전설처럼, 시작보다는 종말에 초점을 둔 것도 있다. 이상은 모두 세계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망에 속한 유형들

로서 홍수전설군의 범주를 설정할 만하다. 산 이름 유래전설과 〈남매혼전설〉이 때로 복합되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분석 홍수전설군은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에 잠긴 상황을 기본단락으로 하면서, 홍수 이후의 종말과 새로운 창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큰물, 큰비, 해일 등으로 표현되는 대홍수로 인한 종말은 분명 재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재한 산과 나무, 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남매의 ‘산정 표착’ 모티프에도 “홍수로 세상이 물에 잠기고 ○○산만 남았다.”라는 모티프와, “남매가 그 산정에다 배를 댔다.”라는 모티프가 전제되어 있다. 대홍수를 계기로 그 산은 새로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되며, 살아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그 터전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것이다. 그들이 혼인을 하여 현세의 인류가, 또는 특정 씨족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때 홍수는 절멸이 아니라 신화적 재생의 상징이다. 광포형처럼 종말에 초점을 둔 전설에서는 종말을 초래한 인간 세상의 타락이 강조되지만, 여기서도 역시 소수의 인간은 살아남는다. 한편으로 미래에 있을 홍수를 예비하는 유형은 현세에 대한 부정의식과 더불어 미래의 새 세상에 대한 회구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특징 ‘대홍수’는 『구약성서』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중국의 복희(伏羲)와 여와(女媧) 관련 신화, 중국 치수(治水)의 신인 우(禹) 관련 신화 등에서 보듯이 세계적인 분포가 확인되는 신화소이다. 한국 대홍수전설의 남매혼은 복희와 여와의 남매혼과 유사하고, 목도령의 목선(木船)은 노아의 방주와도 흡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창세기나 중국신화처럼 신화의 범주에 들지 못하고 파편화된 전설로 전승된 차이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남매혼형, 지명유래형, 광포형, 행주형은 전국적인 분포가 확인된 유형들이다. 한국에서는 종말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홍수전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명으로 미래 일어날 홍수를 예언하면서 새 세상에 대한 회구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주형 홍수전설이 다수 나타나는 것도 풍수도참사상의 전통이 강한 한국적 특수성이라 할 만하다.

의의 홍수는 국지적이든 세계적이든 인간이 몸담고 있는 세상의 침수로 인식되면서, 세상의 종말 또는 새로운 시작의 분기로 의미화되었다. ‘새로운 시작’이란 홍수 후에 이루어진 자연, 마을, 인간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물 또는 홍수의 양가적(兩價的) 심벌리즘과도 연관이 있다. 따라서 홍수전설군은 비록 신화적 전설들로 파편화되어 전승되었지만,

종말론 신화와 창세신화의 한국적 전형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또한 미래의 홍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행주형 전설은 민간의 비보(裨補)풍수관념과 도참사상이 투영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출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태학사, 1947).

참고문헌 남매혼설화의 신화론적 검토(나경수, 한국언어문학26, 한국언어문학회, 1988),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홍수이야기의 연구사와 그 신화학적 조명(천혜숙, 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덕 쌓아 얻은 명당

정의 가난한 처지에서서도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대가 없이 도와준 후 그 보답을 받는다는 내용의 풍수설화.

줄거리 지사(地師)와 대사가 함께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헤매게 되었고, 근처에 보이는 집에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그 집은 아내가 죽었지만,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집 뜰에 묻어둔 30대 남자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곳이었다. 지사와 대사를 집으로 들인 남자는 어머니와 의논하여 비록 죽(粥)이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털어 대접하였다. 그의 인정에 감동하고 가난함에 연민이 든 지사와 대사는, 우선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아내를 묻게 하였고, 아침거리를 제 공한 얼굴빛이 희고 잘생긴 과부와 혼인시켰다. 이어 당대 천석 하는 자리를 찾아 남자의 죽은 아내를 이장(移葬)시켜 주었다.

변이 명당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자격이 갖춰져야 함을 알려 주므로 살인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든가, 무례하거나 정성 없이 획득하려 하면 응징된다는 내용의 변이도 나타난다.

분석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민중이 주로 주인공인 이 설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면서 타인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명당을 얻어 운이 튼다는 서사로 진행된다. 대체로 도움을 받은 사람은 풍수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주인공에게 감복하여 명당을 알려 주어 은혜를 갚는다.

특징 우리나라 설화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풍수설화는

신앙가치담과 신이담 중 운명담에 속하는 유형이다. 덕을 베풀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는 명당을 얻을 자격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격을 잃는다는 선악 대립 구조로 구성된다.

의의 풍수설화는 당대의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 여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설화로, 그중 <덕 쌓아 얻은 명당>은 권선징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땅으로 대변되고, 인과응보 와 같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일깨우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40; 4-4, 666; 5-7, 114; 7-18, 141; 8-6, 408.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공간과 인간의 관련성 연구(김미숙,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풍수지리설의 생태학적 이해와 한국인의 자연관(임재해, 한국민속학보9, 한국민속학회, 1998),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박이정, 1995),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용, 일조각, 1996), 한국 풍수설화와 토포필리아(곽진석, 한국문화이론과비평20, 한국문화이론과비평학회, 2003).

필자 김미숙(金美淑)

전설

덕진다리

정의 잘못 죽어 저승에 갔다 살아온 전라남도 영암 원님이 다리를 놓게 된 유래에 얽힌 전설.

줄거리 영암 원님이 갑자기 죽어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은 영암 원님에게 죽을 때가 아니지만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저승에 인정을 베풀고 가라고 했다. 저승에는 이승에서 적선한 것이 쌓여 있는 공간이 있는데, 베풀 것이 거의 없었던 영암 원님의 저승 공간에는 짙 한 단박이 없었다. 저승사자가 덕진의 공간에 노적이 쌓였으니 그것을 빌려서 인정을 베풀 후 이승에 돌아가서 갚으라고 했다. 영암 원님은 저승사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고, 이승에 돌아와 덕진강 근처 주막집 중노미로 일하는 덕진을 찾아갔다. 원님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쌀 삼백 석을 갚으려고 하자, 덕진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안 받겠다고 끝내 사양하였다. 그래서 원님은 쌀을 갚는 대신 주민을 위해 덕진강에 다리를 놓고 덕진의 이름을 따서 '덕진다리'라고 했다.

변이 덕진은 덕진이, 덕진 처녀 또는 덕진 여인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평소 남에게 많이 적선하고 덕진강에 다리 놓기를 소원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저승에 갔다 온 원님의 사

정 이야기를 듣고 덕진강에 다리를 놓아 달라고 청하거나, 덕진강에 다리를 놓기 위해 평생 돈을 모으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새로 부임한 영암 원님의 꿈에 나타나 다리를 놓아 달라고 소원을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덕진이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우에는 덕진다리가 놓이는 데 직접 관여함으로써 가난하고 착한 여인의 선행을 더욱 숭고하게 드러나도록 강조한다.

분석 덕진이 중노미이든 주막 여인이든 가난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 결과로 덕진강에 다리가 놓일 수 있었다는 점은 같다. 비록 가진 재물은 없지만 선한 마음으로 남에게 적선한 덕진은, 이승에서 부자로 살면서도 남에게 베푸는 데 인색한 영암 원님과 대조를 이룬다. 두 인물의 대비는 이승에서 재물을 쌓는 데 집착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특징 저승에 갔다 살아 온 사람의 이야기는 이승에서 베풀 선행이 저승에 쌓인다는 불교적 관념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승에서 적선하도록 권장하는 이러한 설화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같은 구비설화인 안동 제비원의 유래 전설뿐만 아니라 <당태종전(唐太宗傳)>과 같은 고전소설이나 제주 서사무가인 <세민항제분풀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공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의 이 설화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인색한 사람과 가난하지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한다. 설화의 교훈적 기능을 잘 실현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구비문학적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62; 6-6, 108; 7-13, 119.

참고문헌 저승설화의 전승양상에 관한 연구(이영수,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김월덕(金月德)

민담

도깨비 물리치는 법

정의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되지만 도깨비가 귀찮아서 도깨비를 퇴치하는 이물담(異物談) 성격의 설화.

줄거리 가난한 여자에게 도깨비가 찾아와, 한집에 같이 살게 되었다. 도깨비가 가져오는 재물로 땅을 산 여자는 금방 부자가 되었다. 잘살게 된 여자는 도깨비가 귀찮아서 그만 쫓아내 버리고 싶어졌다. 여자는 도깨비에게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봤고, 자기는 돈이 가장 무섭다고 거짓으로 알려 줬다. 도깨비는 백마의 피가 가장 무섭다 했다. 다음 날 여자는 집 주변에 백마의 피를 뿌려 놓았다. 여자의 집을 찾아온 도깨비는 백마의 피를 보자 무서워하며 도망쳤다. 화가 난 도깨비는 복수하려고 여자가 무섭다고 했던 돈을 집 안에 한 가득 던져 놓았는데, 이 덕분에 여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변이 주인공은 여성이 많으며, 각편에 따라 도깨비와 친하게 지낸 사람이 창백하게 마르거나 시름시름 앓자, 도깨비를 쫓아내기도 한다.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것은 주로 말의 피, 그 중에서도 백마의 피인 예가 많고 이외에도 백마의 가죽, 말대가리, 흰강아지, 흰수탉 따위로 다양하다. 복수하는 방법에는 먼저 돈이나 금은보화를 주는 예가 있고, 주인공의 눈발 네 귀퉁이에 말뚝을 박고 땅을 떼어 가려고 하는 예도 있다. 또 눈발에 자갈이나 사금파리를 가득 쌓아 놓는 예도 있는데, 주인공이 개똥이었으면 농사가 안 됐을 텐데 잘됐다고 하자, 밤새 모두 거둬가고 다시 거름을 부어 놓는다. 결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주인공의 피에 속아 복수에 실패하는 도깨비의 어리석은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

분석 도깨비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대와 무언가를 교환하거나 상대가 원하는 것의 반대로 심술을 부리기도 하는 신이한 이물(異物)이다. 또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하룻밤 사이에 돌 더미를 쌓고, 또 그것을 순식간에 치운 뒤 개똥을 가득 부어 놓기도 하는 환상적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은보화를 어디선가 계속 가져다주는 도깨비의 조화(造化)로 결국 부자가 되는 주인공의 치부담(致富談)에서는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 주길 바라는 재물신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 한편 혼자일 때 나타나고, 치명적인 신물 외에는 물리치기 어려우며 접촉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깨비의 힘과 정체성에 대한 경외심도 찾을 수 있다. 즉 친근하면서도 무서운 도깨비의 양면적인 특성과 이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이 설화처럼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된 뒤 물리치는 서사를 만들어 냈다.

특징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귀물(鬼物)이 지하에서 오래 활동하여 새카맣다는 것과 이야기에서 주로 어두운 시간에 음습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도깨비는 비교적 강한 음기(陰氣)를 가진 이물로 여겨진다. 그래서 양기(陽氣)를 약점으로 설정하여 가장 극단의 양기를 상징하는 백마의 붉은



도깨비 얼굴 무늬 기와 틀
국립중앙박물관

피가 도깨비에게 강한 벽사(辟邪)의 신력을 떨치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2, 113; 6-3, 48; 6-4, 654; 6-5, 166; 7-13, 182; 8-3, 223; 8-8, 196.

참고문헌 도깨비설화의 의미 연구(정미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국립민속박물관, 2011).

필자 이원영(李元榮)

민담

도깨비 씨름

정의 도깨비를 만나 씨름한다는 민담.

역사 도깨비를 만나 씨름한다는 의미로 언급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씨름이 민중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도깨비와 씨름하기 유형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줄거리 장에 갔다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 마신 사람이 고개를 넘어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깨비가 나타나 씨름이나 한 판 하자고 덤뻐다. 밤새 끙끙거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도깨비를 쓰러뜨리고 허리띠로 나무에 꿩꿩 묶어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가 보니 빗자루 몽둥이나 도리깨 장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변이 도깨비를 만나서 씨름한다는 내용은 전국에서 채록된다. 도깨비를 쓰러뜨린 후 나무에 묶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도깨비를 이기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도깨비의 발이 하나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도깨비의 한자 표기가 독각귀(獨脚鬼)이기 때문에 발이 하나 없으므로 그쪽으로 넘어뜨리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僊說)』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도깨비에 외형적인 결함을 부여한 때가 조선시대 후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도깨비의 정체를 확인하는 대목에서 대개 빗자루나 도리깨 따위로 변해 있는데, 이들 나무토막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편이다.

분석 이 이야기의 유형들은 도깨비가 나타나 씨름을 하자고 덤빈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덤비는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고기를 빼앗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씨름하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유형도 적지 않다. 도깨비가 씨름을 하자고 덤비는 것은 일종의 영역 확인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돼지고기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대개 밤중에 고개를 넘다가 씨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징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점에서 정령사상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논의도 있다. 이와 달리 자루에 사람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도깨비로 둔갑했다고도 한다. 김열규는 이런 변환은 바로 도깨비의 트릭스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한 바 있다.

의의 도깨비가 씨름에 목적을 두고 등장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나, 조선시대 민중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는 점에서 도깨비라는 존재가 한국적인 정체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씨름이 개인의 힘과 능력을 보여 주는 민속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깨비도 인간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고자 씨름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도깨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만하다.

출처 광주의 전설(광주지할시, 199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309; 5-3, 249; 8-6, 402, 향토문화유적조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86).

참고문헌 도깨비 날개를 달다(김열규, 춘추사, 1991),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필자 김종대(金宗大)

민담

도깨비가 준 돈

정의 정신 없는 도깨비가 준 돈으로 가난한 나무꾼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된 설화.

줄거리 도깨비가 나무꾼에게 백 원을 빌리면서 다음 날 갚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도깨비가 백 원을 갚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도깨비는 그 사실을 잊고 백 원을 또 갚았다. 나무꾼은 매일 도깨비가 준 돈으로 땅을 사서 부자가 되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도깨비는 심술을 부려 그 눈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자갈을 넣었다. 그런데 나무꾼의 아들이 개똥을 넣으면 농사를 못 지을 것이라 하여 도깨비는 다음 날 자갈을 치우고 이번에는 개똥을 넣었다. 결국 어리석은 도깨비 덕분에 나무꾼은 농사를 잘 지어 부자가 되었다.

변이 이 이야기의 변이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도깨비의 도움으로 부자 된 나무꾼>, <도깨비를 사귀어 부자 된 이야기>, <도깨비 돈으로 산 땅> 등이 있다. 모두 도깨비의 건망증으로 가난한 사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분석 도깨비담 갈래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에 속한다. 도깨비는 가난한 사람에게 한 번 빌린 돈을 계속 갚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나무꾼은 그 돈으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었다. 도깨비가 이 사실을 알고 눈에 자갈을 넣는 심술을 부렸지만 나무꾼은 도깨비의 심술을 역이용해 자갈 대신 개똥을 눈에 넣도록 하여 부자가 되었다. 이러한 도깨비 이야기는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준다.

특징 도깨비의 어리석음 덕분에 부자가 된 이 이야기는 땅에 대한 민중의 집착을 보여 준다. 도깨비가 가난한 나무꾼에게 계속 돈을 갚는 행위는 도깨비의 어리석음을 보여 주지만, 그러한 도깨비를 통해서나마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도깨비와 사귀어야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도깨비는 가난한 사람이 빌려준 돈에 대한 고마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인간보다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어리석지만 따뜻한 도깨비는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이 상상 속에서나마 기릴 수 있는

유일한 원조자였다.

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다. 도깨비가 가난한 나무꾼에게 돈을 빌린 다음 계속해서 갚는 반복담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꿈을 제시한다. 더욱이 도깨비가 준 돈으로 땅을 사서 풍년을 기약한다는 점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땅에 대한 집착을 잘 드러낸다. 도깨비는 한민족에게 부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297; 854; 6-2, 787; 6-4, 697; 7-2, 163.

참고문헌 도깨비 본색, 뿔 난 한국인(김열규, 사계절, 2010),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 도깨비의 세계(강은해, 예림기획, 2003).

필자 강은해(姜恩海)

민담

도깨비감투

정의 사람의 몸에 붙이면 형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신이한 물체에 관한 설화.

줄거리 어떤 사람이神通한 능력을 가진 도깨비감투를 우연히 얻었다. 감투를 쓰면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이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행인의 담뱃불에 그만 도깨비감투의 한 부분이 타버렸다. 아내가 그 부분을 빨간 천으로 기워 주자 다시 도깨비감투를 쓰고 남의 물건을 훔치러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빨간 천 조각이 지나가면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그것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빨간 천 조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덮쳐 감투를 벗기고 주인공을 실컷 때렸다.

분석 이 이야기 유형은 도깨비의 초월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도깨비방망이>의 다른 각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도깨비의 소도구인 방망이가 두드림을 통해 천변만화의 조화를 보여 주었다면, 도깨비감투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는 변신에 대한 적극적 욕망이 드러난다. 투명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신이한 물체를 얻게 된 내력은 각편에 따라 다르다. 도깨비로부터 직접 얻거나, 도깨비들이 장난치다 벗어 놓은 것을 몰래 가져 오거나, 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곤충이 떨어뜨린 것을 줍게 되는 등이다. 한편, 투명인간이 된 주인공의 행위는 주로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일인데, 그 대상이

소소한 생필품이나 음식인 것을 보면 가난한 서민의 보상적 욕구가 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도깨비감투>는 서양의 <요술모자>와 화소가 비슷하며, 이러한 화소를 담은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의의 변신하거나 투명인간이 되어 익명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욕신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만이 꾸는 꿈이다. 이 이야기는 이러한 꿈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로 연결될 경우 철저히 응징당한다. 선악 대립을 보여 주는 형제간 모방담 구조에서 이러한 주제는 더욱 강화된다. 도깨비감투와 같은 환상적인 화소는 우리 설화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주로 현대문학의 소재로 활용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265; 4-6, 47; 7-1 393.

참고문헌 옛날이야기선집(임석재, 교학사, 1971),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당, 1972),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필자 강은해(姜恩海)

민담

도깨비방망이

상호 참조 → 흑부리영감

정의 착한 사람(나무꾼)은 방망이를 얻어 부자가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도깨비방망이>는 당나라 단성식(段成式)이 쓴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수록된 <방이설화>와 서사구조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시원으로 삼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병기 선생의 『국문학전사(國文學全史)』에는 <홍부전>의 형성에도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북한에서 나온 『조선전사(朝鮮全史)』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9세기 당나라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신라의 설화라는 것이다. 권선징악(勸善懲惡) 요소와 선악의 대립 구조를 보면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오히려 <지성이감천이> 형제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준다. 도깨비의 역할을 하는 적아(赤兒)나 방이가 금방망이를 가져와 부자가 되고, 이를 흉내 낸 동생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그러하다. 하지만 본 이야기를 본질적인 선행담(善行談)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줄거리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개꿈(은행) 열매

가 굴러 와 줘게 되었다. 처음에 주운 열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드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드리고, 세 번째는 처, 네 번째는 자식,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먹어야겠다고 한다. 나무를 하다가 별안간 비가 내려 오두막으로 피해 들어갔다. 오두막에서 비가 그칠 것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살펴보았더니 도깨비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방망이를 두들길 때마다 술과 음식이 잔뜩 쏟아져 나왔다. 그 광경을 본 나무꾼도 배가 고파서 낮에 주웠던 개꿈 열매를 하나 꺼내서 깨물었다. 열매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놀던 도깨비들이 놀라서 모두 도망을 갔다. 착한 나무꾼은 도깨비방망이를 하나 주워 와서 부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웃집의 심성 나쁜 나무꾼이 찾아와 부자가 된 내력을 알려 달라고 졸랐다. 착한 나무꾼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나쁜 나무꾼은 자신도 부자가 되어야지 하고는 나무꾼이 알려 준 장소로 갔다. 그 장소에 있으니 개꿈 열매가 또 굴러 왔는데, 나쁜 나무꾼은 몽땅 자신이 먹을 거라면서 주웠다. 그러고는 바로 오두막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물러와 술과 음식을 차려 놓고 놀기 시작했다. 나쁜 나무꾼이 개꿈 열매를 딱 깨물었다. 그 소리를 듣자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우리를 속인 놈이 또 왔다고 하면서 찾아냈다. 도깨비에게 붙잡힌 나무꾼은 실컷 얻어맞고 죽을 뻔하였다.

변이 주인공과 그 대립 인물이 대개 나무꾼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방이설화〉처럼 형제로 나타나는 예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주인공이 형으로 나타나는 변이형도 찾아볼 수 있다. 더 큰 변이양상은 결말의 처리 과정에 있다. 대개 나쁜 나무꾼은 매를 맞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나쁜 짓을 하고 또 불효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당연히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내세우기 때문이다. 매를 맞는 것도 단순히 매를 맞는 것과 매를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게 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와 다른 별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신체 일부를 늘여서 병신으로 만든다는 방식이다. 이런 유형은 팔다리를 늘이는 경우와 남

성기를 늘이는 별책이 제시된다. 특히 남자의 성기를 열 발 늘이는 벌을 받는 이야기는 새로운 성기담으로 연결되어 교훈적인 속성보다는 흥미를 강조한다.



도깨비 얼굴 무늬 수막새 국립중앙박물관

분석 이들 이야기는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특징을 내세운다. 특히 착한 사람은 효자라는 등식으로 이야기가 표현되는데, 대개는 서두부에서 착하다는 점을, 그리고 개꿈 열매를 줌의 과정에서 효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이야기 표현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야기의 유형들은 교훈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담의 특징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성기담으로 연결되는 유형은 〈도깨비방망이〉의 내용이 축약되어 나타나고, 성기의 특징을 이용한 일화가 등장하여 흥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를 통해서 〈도깨비방망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훈적인 주제만을 강조하는 민담이 성인들 간에서는 흥미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형제갈등담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때에도 〈방이설화〉에서는 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홍부전〉에서는 동생이 주인공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형에서 동생으로 변이하는 까닭은 온전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중·후기에 와서 장자 상속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생에 대한 우호적인 즐거리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깨비방망이〉는 주로 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나무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민담의 효과를 극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징 〈도깨비방망이〉의 유형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효자담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선악은 이야기의 서두에서 서부터 나타나지만, 이들이 효자인가 불효자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개꿈 열매를 줌의 데서 표현된다. 채록된 이야기의 유형군 중에서 이들 효자를 더 강조하는 유형이 많은 이유도 권선징악이라는 속성보다 효자담을 앞세우려는 제보자들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또 다른 특징은 이 이야기에 나타나는 도깨비의 능력 표현을 들 수 있다. 대개 도깨비가 단독으로 나타나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군집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방망이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도깨비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의의 본 이야기는 도깨비 이야기 중에서 민담적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준다. 대부분의 도깨비 이야기가 도깨비를 단독으로 만나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이 이야기는 도깨비가 집단으로 어울려 놀고 있다는 점과 도깨비의 능력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방망이를 제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도깨비를 주인공으로 삼은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효자의 등장은 충효를 가장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민담민요지(충청북도,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19; 2-8, 547; 8-3, 497, 향토문화유적조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86).

참고문헌 국문학전서(이병기·백철, 신구문화사, 1976), 조선전서(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중대, 국학자료원, 1994).

필자 김중대(金宗大)

전설

도깨비보

정의 도깨비에게 팔죽을 주고 쌓은 보(저수지)에 관한 설화.

역사 고려 공민왕 때의 문신이었던 마천목과 관련해서 도깨비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섬전강에 어전(漁箭)을 쌓아 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어전은 전통적인 어로 방식에서 흐르는 강을 나무로 막아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인데, 도깨비가 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은 저수지를 쌓아 주었다는 점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따라서 보를 만들어 주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전해져 왔을 가능성이 높다.

줄거리 도깨비를 만나 팔죽(혹은 콩)을 줄 테니 보를 막아 달라고 부탁한다. 도깨비들이 하룻밤 새에 보를 막아 주자, 이를 고맙게 여긴 사람이 팔죽을 쑤어 주었다. 도깨비들이 팔죽을 나누어 먹다가 보니 한 도깨비가 먹을 양이 부족했다. 이에 화가 난 도깨비가 자기가 쌓은 보의 일부분에서 돌을 빼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 보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며, 단지 돌이 빠진 곳으로 물이 졸졸 흘러내린다고 한다.

변이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조그만 저수지라고 할 수 있는 보를 쌓아 주는 이야기로 나타나며, 보 대신 강물이나 개울에 살을 쌓아 주는 이야기도 등장한다. 살을 쌓는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도깨비가 메밀묵이나 팔죽을 먹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며, 그 도깨비가 자기가 쌓은 살을 무너뜨리기는 하나 전체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 도깨비에게 주는 음식은 대개 팔죽이 주류를 이루며, 메밀묵을 준다는 예도 있다.

분석 도깨비에게 팔죽을 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동지에 팔죽을 쑤어 담 주위에 뿌리는데, 이것은 잡귀를 물리치기 위한 벽사(辟邪) 행위이다. 그런데 도깨비가 팔죽을 먹는다는 것은 잡귀와는 다른 존재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도깨비가 보를 쌓거나 살을 쌓는 건축 행위를, 비

형량이 귀신들을 부려서 돌로 다리를 쌓았다는 점과 연결하기도 한다. 즉 비형량이 귀신을 잘 다룬다고 하는 이야기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데, 이때 귀신이 하룻밤 새에 돌로 다리를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건축 행위를 통해서 비형량의 귀신들을 도깨비라고 하지만, 실상 이런 연결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깨비가 팔죽을 먹는다는 습성을 보면 비형량의 귀신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려 주기 때문이다.

특징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도깨비 이야기가 경험담적 속성을 취하는 데 비해서, 경험담적 속성에 전설적인 특징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현재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서 경상북도 산청군 단성면의 장내기보와 상주시 공검면 지평리 도깨비보가 대표적인데, 이처럼 지명전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도깨비들이 보를 쌓았다는 것은 그것이 물과 관련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보에 살고 있던 물고기를 몽땅 잡아다가 땅에 묻어 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이것은 도깨비가 물고기를 다루는神通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도깨비의 속성은 서남 해안 지방에서 덩장이나 고정망을 설치해서 어로 행위를 하는 어민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출처 전남의 전통문화-해(전라남도, 198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0, 542.

참고문헌 도깨비 날개를 달다(김영규, 춘추사, 1991),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중대, 국학자료원, 1994).

필자 김중대(金宗大)

민담

도깨비불

정의 밤에 어른거리는 도깨비불을 보았거나 도깨비불에 홀려서 정신을 잃은 경험을 담은 민담.

줄거리 공동묘지에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보니 집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시퍼런 불이 커다랗게 서 있었다. 그 불은 순식간에 열 개로 갈라져 번갯불 같이 수직 벼랑에 한 줄로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도깨비불이 하나씩 나오더니 여섯 개가 서로 붙어 하나가 되었다. 그 사람은 번갯불 같은 도깨비불을 실제로 보았다. 한편,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도깨비불이 불더니 도깨비가 무조건 씌름하자고 덤벼들었다. 도깨비와 씌름해서 이기면 도깨비는 도망가고 지면 가지고 있던 고기를 모두 빼앗긴다는 내용이다.

변이 도깨비불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변이를 보여준다. 먼저 도깨비불은 벚꽃으로 만든 초가집의 화재와 연관되어 있다. 초가집은 화재의 위험이 대단히 높아서 한 집에서만 불이 나도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한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공동체문화의 신성한 공간인 서낭당에 개를 제물로 바쳐 화재를 예방한다. 두 번째는 고기를 달라는 도깨비불과 씨름하는 내용이다. 고기를 달라는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사람이 이기면 도깨비는 도망가고, 지면 고기를 다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씨름에서 도깨비를 이기는 방법은 왼쪽으로 잡아 들어서 넘어뜨리면 된다. 만약에 씨름에서 지면 죽지는 않지만 밤새 도록 끌려다녀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도깨비불 이야기는 고기를 좋아하는 도깨비의 속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산 경치 도깨비무늬 벽돌
국립중앙박물관

분석 농경사회에서 빈번하게 출현했던 도깨비불은 현재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깨비불은 아득히 먼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한 민족의 마음속에는 도깨비불이 두려움과 신비로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며 유계용의 <화신계>와 같은 현대소설에도 일부 수용되고 있다.

특징 도깨비불은 도깨비의 출현을 의미하는데, 이 이야기는 제보자들이 실제로 도깨비불을 목격한 경험담이라는 점에서 다른 설화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파란불이 커졌다가 여러 개로 나뉘는 도깨비불은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유발하였다.

의의 도깨비불은 농경생활에서 발생하는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태어난 영상이다. 따라서 그 불은 사람들에게 한때 고통을 주지만, 결국에는 행복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198; 1-8, 476; 2-2, 25; 5-1, 360; 6-9, 221; 6-11, 306; 6-12, 559.

참고문헌 신화·설화(김영규, 한국학술정보, 2001), 한국민간의 원형, 두드리 도깨비의 세계(강은해, 예림기획, 2003), 현대소설의 설화 수용양상 고찰(권혁준, 국제어문12·13, 국제어문학회, 1991).

필자 강은해(姜恩海)

민담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험

정의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험을 하고 이겨서 도깨비 땅을 차지하거나 도깨비의 도움을 받는다는 설화.

줄거리 도깨비를 만나게 되었는데, 도깨비가 주인공에게 수수께끼 시험을 하자고 덤빈다. 주인공은 시험에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도깨비의 조건을 받아들인다. 먼저 도깨비가 “두만강의 물이 얼마나 되느냐?(혹은, 연못 물이 몇 바가지나 되는가?)”라고 묻는다. 주인공은 “두만강을 담을 바가지가 있다면 한 바가지.”라고 대답한다. 주인공은 앉아 있으면서(혹은 누워 있으면서) 도깨비에게 내가 일어설 것인가, 그냥 앉아 있을 것인가 묻는다. 도깨비는 꼼짝 못하고 질 수밖에 없어 주인공의 요구를 들어준다.

변이 도깨비를 만나 수수께끼 시험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대급부가 주어지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오성대감이 등장하는 설화에서는 특정한 이유가 없이 수수께끼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성대감의 지혜를 알리는 장치로 사용된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대개 정해져 있다. 도깨비는 두만강(혹은 어느 연못)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걸 묻고 주인공은 일어설 것인가, 앉아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대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방에서 전반적으로 채록되는 것으로 보아 유형의 일반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밀양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의 거리를 물어보는 추가 사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분석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험을 하는 대상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오성대감과 손병사를 들 수 있다. 특히 도깨비와 대결할 때는 대개 성장 과정에 있을 때 하는 시험이어서 도깨비가 인물을 미리 알아보는 예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출현하는 도깨비는 기존 도깨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혜를 겨루는 데 도깨비가 뒤처진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인공의 지혜로움과 인물로서 성장할 것임을 드러내는 데 도깨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 본 이야기는 김열규가 ‘도깨비와 경합하는 인간’의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도깨비의 질문을 쉽게 받아넘기는 재치와 지혜를 보여 주는 의도로 수수께끼가 활용되었다. 물론 도깨비와 자리다툼을 하는 손병사 이야기나 아무 이유 없이 오성대감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것도 실상은 도깨비보다는 주인공의 인물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결국 도깨비는 단순한 이물적 존재이기보다는 인물을 어린 시절부터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자로 부각된다. 특히 주인공의 질문 방식은 <떡보와 사신>과 같은 여러 설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수수께끼의 흥미를 높이는 장치라고 할 만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152; 7-12, 643; 7-13, 754; 8-7, 551.

참고문헌 도깨비 날개를 달다(김열규, 춘추사, 1991), 한국의 도깨비 연구(김종대, 국학자료원, 1994).

필자 김종대(金宗大)

전설

도담삼봉

정의 충청북도 단양군 도담리에 소재한 도담삼봉과 관련해 서 전해지는 전설.

역사 이 전설은 도담삼봉이 단양에 위치하게 된 유래를 설명한다. 도담삼봉은 단양군 매포읍과 단양읍 사이에 있다. 도담삼봉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중봉으로서 높이 6m 정도이며, 그 옆으로 첩봉·딸봉으로 불리는 봉우리와 처봉·아들봉으로 불리는 봉우리가 각각 있다. 중봉에는 삼도정(三嶋亭)이라는 정자가 있다. 도담삼봉이 위치해 있는 마을은 정도전(鄭道傳, 1337~1398)이 태어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해지며, 이 설화의 주인공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줄거리 도담삼봉은 강원도 정선군의 삼봉산이 홍수에 떠내려와 단양팔경 가운데 하나인 지금의 남한강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 뒤로 해마다 단양군은 정선군에 세금을 냈다. 그러던 중 한 소년이 “우리가 삼봉을 정선에서 떠내려 오라 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니 아무 소용도 없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도로 가져가라.”라고 한 뒤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



도담삼봉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문화재청

변이 위의 줄거리와는 완전히 다르지만 도담삼봉 형상에 빗대어 전해지는 설화도 있다. 한 장군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자 첩을 두었다. 첩이 임신을 하자 중봉인 장군봉과 남봉(첩봉)이 마주보고 있고, 북봉(처봉)은 토라져 뒤돌아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분석 <도담삼봉설화>는 홍수 등에 떠내려 온 바위, 즉 부래(浮來)바위에 대한 유래전설이다. 또한 어린아이의 지혜로 세금을 내는 어려움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설화 각편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정도전이라고 하는 예도 있다. 총명했던 정도전이 인근 마을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설화는 이동 대상에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래설화에 세금 모티프가 덧붙여진 구조이다. 이동한 대상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부당함이 어린아이의 기지로 해결되는 아지 모티프도 결합되어 전설이 형성되었다.

의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배 계층과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민중 계층의 대립 구조가 마침내 어린 소년(정도전 또는 진인)의 지혜에 의해 해결되는 성공담이다. 이는 곧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소년을 통해 세금이라는 현실적인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의 소망을 그리고 있다.

출처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강원도 부래설화의 구조와 의미(김의숙, 강원도민속문화론, 집문당, 1995), 단양 남한강 민속을 찾아서(이창식·최명환, 대선, 2004), 단양팔경 가는 길(이창식, 푸른사상, 2002), 부래설화의 연구(정인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필자 이창식(李昌植)

민담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정의 징악(懲惡)이 아닌 적선(積善)을 통해 도둑을 개과천선시킨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한 도둑이 어느 고관대작 양반집(또는 류성룡)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집에는 쌀 한 톨 훔쳐갈 것이 없었다. 도둑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을 때였다. 집주인이 나타나 어느 곳에 약간의 돈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라고 일러주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도둑은 자신을 야단치고 혼을 내기는커녕 돈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에 감복하여 양반집에서 그냥 나왔다. 그 후 도둑은 집주인의 후덕함에 마음을 고쳐먹고 새사람이 되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착하게 잘 살았다.

분석 징악이 아닌 적선을 통해 도둑을 개과천선시킨다는 내용으로 권선징악의 요소가 담겨 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도리이다. 권선징악의 ‘징’은 징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징계는 벌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권선(勸善)’이 근본 목적이고 ‘징악’은 부수적이다. 다시 말해서 ‘권선’이 본(本)이고, ‘징악’은 말(末)이다. 착한 사람은 착한 본성을 유지하고, 악한 사람은 착한 본성을 회복해 착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권선징악의 목적이다. 여기서 도둑은 남의 물건을 탐한다는 점에서 악인이지만, 도둑질하러 들어간 집에서 주인의 행동에 탄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으로써 선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의의 권선징악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일시적인 징계, 즉 관용을 베푸는 형이고, 둘째는 영원한 징계, 즉 죽음으로 끝나는 형이다. 여기서 양자 모두 권선징악의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선징악은 본 설화에서처럼 악한 사람에게 적선을 베풀으로써 개과천선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설화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을 깨우쳐 이끌어 주면 개과천선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설화는 도둑의 개심을 통해 인간성의 선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의 성선설, 불교의 인과사상 등과 관련이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428; 708; 5-7, 739; 7-15, 269; 7-16, 71; 9-3, 233.

참고문헌 고소설의 징악양상과 의의(강재철, 동양학33, 동양학연구소, 2003), 논

어 장구와 관련한 고전소설 논의와 권선징악 이론(강재철, 고전산문연구2, 국어국문학회, 1998), 퇴계시가의 품격 연구(이민홍, 반교어문연구4, 반교어문학회, 1992), 한국 고전소설 연구(김기동, 교학사, 1981).

필자 강재철(姜在哲)

민담

도둑 잡은 아이

정의 지혜로운 아이가 꾀로 도둑을 잡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한 가난한 집 아이가 쌀 한 말을 메고 외가에 가다가 산에서 나무하던 노인에게 쌀을 빼앗겼다. 아이가 도끼를 뺏아서 노인의 등짝을 치니, 노인이 웅덩이에 빠졌다. 아이는 산에 있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는데, 노인이 바로 그 집의 주인이었다. 노인은 아이가 잠자리에 누운 것을 보고는 칼을 갈았다. 아이는 꾀를 내어 노인의 아들과 자리를 바꿨다. 노인은 이불 위에서 칼로 자기 아들을 죽였다. 노인은 부잣집을 음해하려고 죽은 아들을 부잣집 나뭇단에 숨겼다. 아이는 노인에게 되찾은 쌀을 가지고 집에 가서 떡을 해서 관 앞에서 팔았다.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부잣집 내외가 붙잡혀 노인과 함께 오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원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여 부잣집 내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 주었다. 부자는 아이에게 땅을 주어 잘살게 해 주었다.

변이 이 설화의 변이로 아이가 혼자 있는데 집에 소도둑이 들어서 소를 도둑질하려 하자, 자기 아버지도 소도둑인데 소를 변장시키는 재주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소도둑을 잡는 이야기가 있다.

분석 이 설화 속 아이는 위기를 지혜롭게 빠져나온다.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의외의 기지로 해결한다. 이렇게 아이의 지혜가 소재가 되는 이야기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아이는 보통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때로는 이인(異人)처럼 보통 사람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이의 지혜는 비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비쳐질 수 있다. 비록 영웅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아이는 강자 중심의 구조와 어른 중심의 기존 관념을 부정하며 역전시키는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른에 비해 약자이며, 이야기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약자인 아이가 결말에 가서 이기는 구조는 ‘약자의 승리’라는 전형적인 민담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설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이가 땅을 받는 것은 앞에서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민담의 해피엔딩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징 아이지혜담에서 아이의 지혜는 나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의 지혜는 대부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선지향성(善指向性)’을 갖는다.

의의 아이는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적극성을 띤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13; 938; 7-11, 805.

참고문헌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지혜대결담 연구(정운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어른과 아이의 지혜대결담의 구조와 의미 및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전은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필자 이성희(李聖熙)

민담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정의 조상의 시신을 옮기는 도중에 잃어버렸으나 우연히 그 시신이 명당에 안장되어 후손이 발복하게 되었다는 풍수설화.

줄거리 고향을 떠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조부의 시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이장(移葬)하기로 하였다. 고향으로 가서 시신이 든 관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관을 방으로 들고 갈 수 없어 문 밖에 세워 두었다. 마침 같은 주막에 묵던 생강장수가 관을 생강이 들어 있는 짐으로 착각하고 훔쳐 달아났다. 달아난 생강장수가 관을 열어 유골을 발견하고는 근처 땅을 손으로 헤집어 시신을 묻은 후 대강 덮어 놓고 떠났다. 조부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사람은 그 후로 하는 일마다 잘되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 후에도 잃어버린 시신에 대한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던 주인공은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재워 주고 먹여 주면서 집에 묵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한다. 어느 날 시신을 훔쳐 달아났던 생강장수가 마침 그 집에 묵게 되어 유골 훔친 이야기를 남자에게 들려준다. 풍수와 함께 생강장수가 유골을 묻은 장소를 찾아보니, 그 명당은 정식으로 관을

묻을 구덩이를 파서는 안 되는 자리인 ‘개 구멍 혈’이었다.

변이 주인공이 조상의 관을 운반하는 도중에 생긴 일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관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이 생강장수가 아닌 참빗장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등짐을 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이들의 짐이 관의 모양과 유사한 데서 관과 등짐을 착각한다는 설정이 사실적 근거를 갖는다.

분석 이 설화는 명당의 입자는 따로 있다는 운명론을 강조한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명당을 얻은 운명을 지닌 사람에게는 행운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명당을 얻은 주인공은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부자가 되었어도 욕심부리지 않고 적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특징 시신을 아무 데나 파서 묻었는데, 그 자리가 명당이었다는 우연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도둑이 시신을 값비싼 물건이라고 오해하고 훔쳤다는 사실은 그가 시신을 아무 데나 유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확실하게 한다. 명당에 시신을 매장하여 발복(發福)을 이루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장례 절차도 있었지만, 이 역시 우연히 해결되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신성한 힘이 도왔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연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고 대부분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내리는 보상의 성격을 띤다. 이 설화에서도 조상을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는 후손의 지극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배고픈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따뜻한 마음이 발복을 가능하게 한 요소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1, 287; 3-2, 280; 6-4, 216; 7-2, 290; 8-4, 447.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풍수의식(최운식, 한국어문교육10,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1),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 풍수설화의 서사구조와 의미 분석(신월균,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필자 강성숙(姜盛淑)

전설

도드람산

정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도드람산에 관한 설화.

역사 도드람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천부」 산천 조에 ‘저명산(猪鳴山)’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

현에 기록된 명칭과 구전되는 설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도드람산설화〉는 매우 오래 전부터 구전되었을 것이다.

줄거리 〈도드람산설화〉는 조산설화와 효행설화 두 유형이 전한다. 옛날에 전국 명산의 신령들이 모여 한양을 만들었다. 이때 마고할미는 삼각산 봉우리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계룡산에서 봉우리 하나를 등에 지고 이천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산봉우리를 어디로 가져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다. 마고할미가 사실대로 대답하자, “한양에는 이미 삼각산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냥 우리 곁에 두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마고할미는 하는 수 없이 이천까지 지고 온 산봉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돌아갔다. 그 봉우리가 지금의 도드람산이다.

효행설화인 〈효자를 구한 산돼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산 근처에 효자가 살았다. 어머니가 병으로 몸져눅자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으나 차도가 없었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를 청하러 왔다가 “도드람산에서 자라는 석이버섯을 드리면 나을 것이다.”라고 일러 주었다. 효자는 한 가닥의 밧줄에 몸을 묶고 절벽을 내려가 버섯을 뜯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산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 생각한 효자는 절벽 위로 올라와 주변을 살폈는데, 산돼지는 간 곳이 없고 밧줄이 바위 모서리에 닿아서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이로 인해 효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변이 〈도드람산설화〉는 주변의 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뚝 솟아 마치 금강산이나 설악산 또는 계룡산의 봉우리 하나를 옮겨다 놓은 듯한 모습에서 생겨난 이야기일 것이다. ‘도드라지다’라는 말의 뜻이 ‘겉으로 또렷하게 드러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면 도드람산의 명칭도 처음에는 단순히 외형을 묘사한 명칭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발음이 유사한 ‘돌(돼지)+울음’으로 구전되면서 지금의 도드람산 효행전설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효행전설로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자 표기인 ‘저명산(猪鳴山)’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분석 〈도드람산설화〉의 한 유형인 조산설화는 한양 도읍지를 형성하던 당시의 형국과 관련된다. 전국 명산의 신령들이 모여 한양을 만드는데 마고할미에겐 삼각산의 한 봉우리를 채우도록 하였다. 마고할미는 공주 계룡산의 한 봉우리를 옮기다가 도중에 이천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미 삼각산의 봉우리를 다 채웠다는 소식을 듣고 옮기던 봉우리를 이천에 버려두었다는 이야기이다. 효행설화는 효자의 지극한 효심을 가상하게 여긴 도드람산의 신령님이 산돼지를 보내 효자의 목숨을 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돌(돼지)울음산’으로 불

리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도드람산’으로 변했다고 한다.

의의 〈도드람산설화〉는 산의 독특한 외형으로 인해 명칭이 정해지고, 그 독특한 명칭으로 인해 설화가 과생된 경우이다. 조산설화와 효행설화가 함께 구전되면서도 독특한 외형과 명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다. 효행설화의 화소인 돼지굴도 조산설화의 화소와 공유된다.

출처 新增東國輿地勝覽, 이천지(이천시, 2009).

참고문헌 이천의 옛이야기(홍순석·이인수, 이천문화원, 2008).

필자 홍순석(洪順錫)

신화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정의 도량선비와 청정각시가 저승에서 염라대왕의 배려로 함께 살게 된 내력을 전한, 함경도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

역사 함경도에 전승되는 본풀이로 지금까지 세 편의 각편이 채록되었다. 첫 번째 각편은 손진태가 채록한 것으로 김성근이 구연하였고, 두 번째는 김태곤이 채록한 것으로 이고분이 구연하였으며, 세 번째 각편은 임석재가 채록하여 장채순이 구연한 것이다. 세 각편은 각기 다른 대목이 거의 없고 일치점이 많으므로 이를 토대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함경도 망목굿에서 가장 긴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적 거리로 여겨지며, 이 굿거리를 온전하게 구연하여야만 망자를 온전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시에미와 호시에비가 긴요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굿거리를 멋지고 장하게 연행하여 많은 돈을 얻는다는 증언이 있어서 주목을 필요로 한다.

줄거리 청정각시가 도량선비와 혼인하게 되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이 생겨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마침내 죽게 되었다. 청정각시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정성과 노력을 쏟는다.

첫 번째는 황금산 성인이 나타나 동냥을 주었더니, 유지박으로 정화수를 길어 와서 빌면 남편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렇게 했더니 과연 남편이 나타났는데, 도량각시가 손목을 잡으려 하자 남편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두 번째는 청정각시가 황금산 성인을 다시 만나서 남편을 보게 해 달라

고 청하자, 머리카락을 뽑아 끈을 삼아서 황금산 절에 가 손바닥에 구멍을 내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잡아당겨도 아프지 않아야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청정각시가 그대로 행하자 남편이 나타났는데, 이번엔 남편을 끌어안으려고 하자 다시금 사라지고 만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손가락을 기름에 적서 태우면서 부처님께 발원하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청정각시가 그렇게 한다. 이에 저승의 염라대왕이 금상철에 불이 났다고 하면서 이를 도량선비에게 끄고 오라고 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된 청정각시가 다시 안으려고 하자 남편이 또 사라진다. 네 번째는 안내산 금상철에 가는 길을 손으로 치우면 만날 수 있다고 하자, 청정각시가 이 일을 하다가 초립 소년을 만났다. 이들이 만나서 함께 오다가 도량선비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목을 매고 죽으라는 도량선비의 말을 듣고 청정각시가 목을 매고 죽는다. 그렇게 해서 둘은 염라대왕의 배려로 함께 있게 된다.

분석 이 본풀이는 남녀이합이 바탕을 이룬다. 남성이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갔는데, 이 여인이 남성을 만나기 위해 공덕을 닦고 마침내 만난다. 하지만 여성이 서두르는 바람에 남편이 자꾸만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기본 층위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남녀이합의 반복에도 여인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이다. 자신이 목숨을 끊고서야 남편과 재회하고 저승의 염라대왕 배려로 함께 살면서 선근 공덕을 지속하여 닦으면서 다른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 기본 설정이다.

이 본풀이는 오래된 화소와 삼화를 간직하고 있기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이다. 우선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베어서 끈을 삼아 자신의 손바닥에 구멍을 내고 그 끈을 넣어 혼들어도 그 이픔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에 있는 옥면염불서승(郁面念佛西昇) 조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옥면비가 뜰 좌우에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어 말뚝에 매고는 합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이 화소적으로 일치한다. 게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베어 갚신을 삼아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회생하는 전통은 흔하게 발견된다. 가령 조선 중기 무덤에서 발견된 〈원이 아버지에게〉 편지로 유명한 원이 엄마의 머리털로 삼은 미투리라든가 서정주의 〈귀축도〉에 형상화된 데서 이 원형적 사고를 만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본풀이에서 활용되듯 손으로 길을 닦는다는 삼화인데, 이는 저승길을 가는 인물들에게 발견되는 공통 요소이다. 이 점에서 이 본풀이는 여성의 공덕을 한량없이 내세우면서 남성의 궁극적 원조자이자 원형으로 작동하는 ‘아

니마’의 내적 인격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남성에 대한 궁극적 여인상으로 작용하는 데 청정각시의 공덕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다. 남성들이 순간적인 만남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영원의 이상적 만남을 중시하면서 이를 통한 일련의 구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본풀이는 남녀이합이나 남성과 여성의 재회라는 주제에 알맞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징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는 망자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구실을 한다. 가령 천도굿과 같은 것에서 이를 강조하여 “노니(?) 활을 불러내서 오귀 길을 닦았소. 오늘 도량선비 청정각시 불러내서 선근 길을 닦았소.”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신격의 기능과 함께 이들의 구실을 알 수 있다. 선근을 닦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직능이 이 신격에게 있는 것이다.

의의 이 본풀이에 드러난 남성과 여성의 애정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이 점에서 본풀이의 의미를 환기시키며,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주제로 하는 본풀이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출처 三國遺事, 조선신기유편(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한국무가집3(김태곤, 집문당, 1978).

참고문헌 도량선배청정각씨노래(서대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함경도 망목굿(임석재 외, 열화당, 1985), 함경도 무속서사시 연구(김현선, 구비문학연구8, 한국구비문학회, 1999).

필자 김현선(金憲宣)

민담

도량 넓은 남편

정의 남편이 아내의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도 간통한 남녀를 용서하고 이후 성공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조정에서 함께 벼슬하던 정승거리 태중 약혼을 했으나 양가 부친들이 사망한 뒤 남자 집이 가난해지자 여자 집에서는 다른 집과 혼인을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남자가 여장하고 방물장수로 분하여 찾아갔더니, 그 고운 모습에 호감을 보인 시어머니가 공부하러간 남편을 기다리던 며느리와 말벗이나 하라며 같은 방에 묵게 하였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동침하였는데, 시일이 지나자 집안사람 중 하나가 남자임을 눈치 채고 급히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남녀가 함께 있는 방에 불시에 들어가 칼로 방물장수의 옷을 벗겨 남자임을 확인하였지만 나와서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 출사한 남자가 조정에서 자신을 용서한 그 집 남편을 다시 만나 이전 일을 사례하니, 그 집 남편은 생각보다 그의 그릇이 작음에 실망했다고 말하였다. 남자보다 그 집 남편이 더 성공한 관리가 되었다.

변이 이 설화에서 남녀는 대개 태중 약혼한 사이지만, 이본 중에는 여자 집 하인이 좋은 신랑감을 소개하려다 일이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상사병이 난 남자가 등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세도가에서 여인의 미색을 알고 혼인을 강행하는데, 이때 경제력과 권력, 가문 중심의 중매혼 관습 때문에 기대가 무너진 청년이 억울한 마음에 간통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여인의 방에 머문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게 될 때까지 동침을 하는데, 하룻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들이닥쳤으며 동침 사실을 은근히 부정한 이본이 있어 간통한 여인을 용서한 데 대한 거부감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분석 설화는 여성의 정절을 무엇보다 중시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간통한 아내와 간부까지 수용한 인물의 넓은 도량을 그리고 있다. 남편이 간통 현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정황을 넉넉히 이해하면서 이들을 포용하고, 더하여 간부의 인물됨까지 알아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용서를 통해 가족·인간관계의 파국을 막고 인물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게 해준 것으로, 부부와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징 간통 현장에서 남편이 아내와 간부를 용서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서사라는 점에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처용과 비교되기도 한다. 〈처용설화〉의 내용은 현강왕대의 정치·사회적 정황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도량 넓은 남편〉의 일상적 면모와는 규모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남편의 행위를 고매한 인격의 발현으로 해석한 한국인의 의식을 살필 수 있다.

의의 남편의 성공과 상대 남자와의 비교우위를 통해 성(性)의 문제가 등장인물의 인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재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715; 2-6, 465; 3-2, 479; 3-4, 62; 4-3, 57; 6-3, 101, 7-12, 128;.

참고문헌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홍나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영화 라쇼몽을 매개로 본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에서 도량 넓은 남편까지(강미정, 문학치료연구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처용기와 도량 넓은 남편의

관련 양상 및 그 문학치료적 의의(정운채, 고전문학과교육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필자 홍나래(洪나래)

전설

도미의 처

정의 도미 처가 포악한 왕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부부의 신의와 절개를 지킨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이야기는 백제 제4대 개루왕(蓋婁王, 재위 128~166) 때 있었던 일이라고 전하지만 실화이기보다는 권력자가 벌인 민간 여성 탈취 사건을 도덕적이었던 백제 초기 왕에게 소급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3 「백제본기」 개루왕 1년 조를 보면, 실제 개루왕은 성격이 공손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었다.

줄거리 백제 사람 도미의 처는 아름답고도 절행(節行)이 있어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개루왕이 도미를 불러 “부인의 덕이 정결(貞潔)하다고 하나, 만약 으스스한 곳에서 잘 피기만 하면 마음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도미는 왕의 말을 부정하였다. 왕이 도미의 부인을 시험하고자, 신하에게 왕복을 입혀 도미의 처에게 보내 시험하였다. 왕복을 입은 신하는 도미의 처에게 도미와 내기를 하고 왔다 하고 도미의 처를 어지러이 하려 하였다. 도미의 처는 옷을 갈아입고 온다 하고 대신 하녀를 들여보냈다. 뒤에 왕은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의 두 눈을 빼고 배에 태워 강에 띄워 보냈다. 그리고는 도미의 처를 붙잡아 들었지만, 도미의 처는 몸이 더러우니 옷을 갈아입고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않았다. 도미의 처는 밤에 도망하여 강에 이르러 통곡하였다. 그때 별안간 배 하나가 나타나, 도미의 처는 배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가서 도미를 만났다. 도미와 도미의 처는 고구려로 가서 여생을 마쳤다.

변이 이 설화는 『청화담(淸華談)』 권5에 삽화(挿話)로 실려 있다. 이 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로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가 있으며, 유사한 구전설화로 〈우렁각시〉와 제주도 〈산방덕 전설〉이 있다.

분석 열전(列傳)에 실려 있으면서도 논란이 생략되어 있어 열전이라는 형식 규범을 적용하기보다는 설화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평민의 아내를 빼으려 하는 포악한 개루왕에 맞서 끝까지 인간적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평민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갈등과 긴장을 조성한다.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로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주인공이 처한 절대 위기 상황에서 홀연히 배가 나타나는 신이한 내용은 흥미를 유발한다. 평민의 아내를 빼으려 한 지배 계층에 맞서 남편을 위하여 정절을 지킨 열녀 설화, 관탈민녀형 설화로 연구되었으며, 특히 〈춘향전〉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징 도미의 처는 끝까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만 결말은 비극적이다. 이는 고난을 겪은 주인공이 행복한 결말을 맞는 민담과 비교되는 점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은 현실 세계에 대한 독특한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참고문헌 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최래옥,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도미설화 연구(이성희, 고흥논집26, 경희대학교대학원, 2000), 도미설화와 아랑의 정조(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1990), 춘향전 근원설화고(김동욱, 춘향전 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1965).

필자 이성희(李聖熙)

전설

도선

道詵

정의 신라시대의 고승 도선(道詵)에 관한 설화.

줄거리 구전자료를 중심으로 각 유형을 통합하여 〈도선설화〉의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어느 거울에 한 처녀가 썸에 빨래하러 가다 떠나려오는 오이를 먹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부모가 아이를 버렸으나 새들이 보호하였다. 처녀가 다시 아이를 데려다 길렀는데 커서 승려가 되었다. 도선이 중국에 가서 풍수를 배워 명당을 잡아 주고 발복하게 해 주었는데, 때로는 망자(亡者)가 살인자라서 실패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도선은 일행의 지시대로 혈을 끊고 다녔지만, 중국의 계략을 눈치채고 산 정상에 방이를 올려놓았다. 방이를 밟아 한 번씩 짙을 때마다, 중국의 인물들이 죽었다. 중국 황제와 담판을 해 사과를 받아 내고, 또 도력으로 하늘의 석공들을 불러 하루만에 운주사 천불사탑을 세웠다. 또 도선이 일봉암에 해를 잡아매 놓았는데 사동이 닭 우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석공들이 와불을 세우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나중에 도선이 탈혼하여 서천서역국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태

우지 말고, 백씨 성을 가진 사람을 절에 들이지 말라 했다. 세월이 지나 백씨 성을 가진 사람이 절의 화목한으로 들어와 도선의 육신을 태워 버렸다. 도선의 혼백이 돌아왔으나 육신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올 날을 일러 주고 가 버린다. 도선이 천 년 뒤에 오면 절이 중창된다고 한다.

분석 〈도선설화〉는 풍수설화의 성격을 지닌다. 이 설화가 많이 전승되는 전라남도 영암, 목포, 광양, 구례 지역의 자료를 보면, 전승자의 계층과 사회 지위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설화는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신화 및 민담 갈래와 혼재되어 있다. 거시적으로 보아, 문헌자료들은 모두 현세 중심적 동기에서 도선을 바라보고 있지만, 구전자료들은 다시 돌아올 세상에 대한 염원이 깃들어 있어 미래지향적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

의의 이 설화는 고려시대에 지배 계층에 의한, 지배 계층을 위한 설화로 존재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다양한 계층의 삶의 인식을 대변하고 수용한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시대가 흐르면서 각 계층의 필요에 따라 도선을 문학 장치를 통해 수용하기 시작했고, 전승자들이 원래 면모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용하거나 전개하였다.

출처 新增東國輿地勝覽, 국역동문선9(민족문화추진회, 196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500.

참고문헌 도선설화 연구(김현숙,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도선설화 연구(윤수경,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도선설화의 연구(강중탁, 월산임동권 박사 송수기념논문집, 집문당, 1986), 도선전설 연구(이준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인물전설의 전승양상과 축제적 활용(표인주,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필자 이복규(李福揆)

용어

도술화소

道術話素

정의 도술에 의해서 사람이 동물이나 식물로 그 모습이 변화하는 설화의 화소.

내용 도술화소(道術話素)는 변신화소 중에서 도술과 관련된 것을 가리킨다. 설화에서 도술을 행하는 사람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람, 도술을 익힌 사람, 도술을 가능하게 하는 신물(神物)을 가진 사람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에서는 탈해와 수로왕이 매·독수리, 참새·새매로 변하며 도술

경쟁을 벌이는데, 두 사람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최상수의 『한국민간전설집』에 실린, 경주 지방의 <작성전설(鶴城傳說)에서는 어려서부터 도술을 익힌 백제의 계선 공주가 까치로 변하여 신라군 진영으로 날아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신분이 탄로나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중으로 둔갑한 호랑이>에서는 호환(虎患)으로 죽을 운명을 타고난 정승의 외아들이 도사의 지도로 도술을 익힌 뒤에 ‘새-소-개-고양이-사람’으로 둔갑하면서 호랑이와 싸워 이긴다. 최운식의 『한국구전설화집』에 실린 <호랑이가 된 효자>를 보면, 효성에 감동한 도사가 준 도술책을 이용하여 효자가 호랑이로 변신하여 개를 잡아다가 어머니께 고아 드린다.

필자 최운식(崔雲植)

민담

도화녀비형랑

桃花女鼻荊郎

정의 왕의 혼령이 생전에 사모한 여인 도화녀를 찾아가 낳은 아들 비형에 관한 설화.

역사 신라 제25대 진지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에 실려 전승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경주부」에서 “신라 경주의 사람들이 비형 이후 두두리(豆豆里) 섬기기를 심히 성히 했다.”라고 했는데, 비형랑은 도깨비이다. 경주의 풍속에서는 지금도 ‘성제(聖帝)의 혼이 아들을 낳은 비형랑의 집’이라는 가사를 문에 붙여서 귀신을 쫓는데, 이것이 ‘동경두두리’의 시초라고 한다. <도화녀비형랑>은 문헌에 기록된 최초의 도깨비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줄거리 진지왕이 생전에 사랑부에 사는 아름다운 도화녀를 보고 함께 있기를 청하자, 도화녀가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하며 거부하였다. 진지왕이 폐위된 후 죽고 도화녀의 남편도 세상을 떠나자, 죽은 진지왕의 혼령이 도화녀를 찾아와 7일 동안 함께 머물다 떠났다. 그 후 달이 차서 비형이 태어났다. 진평 대왕은 비형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고 궁중에서 기르고 집사 벼슬을 주었다. 비형이 밤만 되면 서쪽 황천강 언덕 위에서 여러 귀신들을 모아서 놀자, 왕은 비형에게 다리를 놓을 것을 명한다. 비형이 무리를 부려 하룻밤 새 다리를 놓고 그 이름을 ‘귀교(鬼橋)’라고 불렀다. 비형은 그가 부리는 무리 가운데 길달을 조정에 천거하고 왕은 아들이 없는 신하로 하여

금 그를 양자로 삼게 하였다. 길달은 흥륜사 남쪽에 성문을 세우고 밤마다 그 문 위에서 잠을 자 사람들이 그 문을 길달 문이라 하였다. 어느 날 길달이 어우로 변해 도망가자 비형은 귀신들을 시켜 그를 죽이게 하였다. 이때 사람들이 노래를 짓고 가사를 문에 써 붙여 잡귀를 물리치게 되었다.

변이 비형랑, 즉 두두리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는 문헌과 구술 전승에서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며 여러 체계로 분화된다. 『고려사(高麗史)』 이의민 조의 기록을 보면 경주 사람들이 ‘두두을(豆豆乙)’이라 부르는 목매(木魅)가 있는데, 무식하여 무격만 믿은 의민이 당을 세워 그를 집에 모시고 있다고 하였다. 비형 두두리도깨비의 신성성이 훼손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도깨비를 트릭스터라고 규정하면서 흰 말의 피로 도깨비를 퇴치하는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나아가 도깨비가 나무빚자루 같은 허깨비로 나오는 경험담이나 도깨비방망이를 부자방망이로 삼는 민담으로 다양하게 확장된다.

분석 이 설화의 서사적 틀은 비형랑의 존재론적 근거와 그에 따른 신성 능력의 현시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은 왕의 혼령과 살아 있는 어머니의 결합은 저승과 이승의 결합이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비형은 양쪽 공간의 경계 표지이자 매개자이다. 비형이 이승에서 맡은 과업은 귀신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특히 두두리도깨비들을 부려 다리를 놓고, 성문을 세우는 등 건축신으로서의 직능을 보여 준 점은 구술전승에서 도깨비가 하는 대표적인 행위와 일치한다.

특징 이 설화는 밤에 오는 손님을 다룬 야래자설화(夜來子說話)와 이류교혼설화(異類交婚說話), 죽은 이와의 사랑을 다루는 시애설화(屍愛說話)와 상호 관련이 있다.

의의 도깨비는 한국인의 무의식적 심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존재이다. 도깨비의 본풀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형이야기는 도깨비의 존재론적 근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금방울전고(성기열, 한국구비설화의 연구, 1976), 시애설화와 소설(장덕순, 숙명여자대학교논문집2, 숙명여자대학교, 1962), 한국난타의 원형 두두리도깨비의 세계(강은해, 예림기획, 200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필자 강은해(姜恩海)

전설

독도

獨島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독도에 관한 설화.

줄거리 독도 지역과 관련한 광포전설로 <구명바위전설>이 있다. 현재 천부리 앞바다에 있는 구명바위는 원래 현포리 앞바다에 있었다는데, 현포리에 살고 있던 힘센 한 노인이 바위를 배에 매달아 끌고 가서 먼 바다에 갖다 버리려 했다. 그러나 바위가 끌려오지 않자 노인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바위를 들어 배에 묶인 바위에 던졌다. 그때 바위에 구멍이 생겼다. 배가 천부리 앞바다에 다다랐을 때 묶었던 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바위가 지금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바위에 구멍이 나 있어서 ‘구명섬’ 또는 ‘공암(孔岩)’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독도의 지명전설과 자연전설에 각각 해당되는 <하늘로 간 용>과 <가산도의 비밀>이 있다. <하늘로 간 용>은, 동해에 여러 섬이 있었는데 가장 큰 섬에 살던 용이 꼬리로 다른 섬들을 모두 때려 부수고는 울릉도의 성인봉 꼭대기에서 승천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이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라고 한다. <가산도의 비밀>은, 울릉도의 어부 세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바위투성이인 무인도에 표류했다. 그런데 신선 같은 노인이 선과(仙果)를 주고 배길을 인도해 준 덕분에 울릉도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으나 그 후로 그 바위섬을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분석 <구명바위전설>에서 바위를 이동시키는 노인은 산이나 바위와 같은 거대한 자연지물을 재조정하는 천지창조의 신에 기원을 둔 것으로, 원래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거인신에 속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이 독도의 바위를 이동시키는



독도 문화재청

과정에서 거대 자연물을 제어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상실한 모습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재조정하는 거인신이 일상화·비속화되는 과정에서 파편화하는 흔적을 담고 있는 한국 전설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인다.

특징 독도 지역전설은 대부분 독도의 지리적 한계 속에 국한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광포전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광포전설 가운데 독도 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유형이 바로 산이동전설이다. 해양, 하도(河島)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 지역에서는 산이동전설의 하위 유형 가운데 섬이동전설과 바위이동전설의 결합형이 확인된다. 독도 지역 산이동전설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구명바위전설>이다. 이 전설은 동해의 망망대해로 이어지는 독도 해안에 유독 돌출되어 있는 거대한 바위섬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형성된 이야기이다.

출처 울릉군지(울릉군, 1988), 울릉도의 전설·민요(여영택, 정음사, 1979).

참고문헌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권태효, 구비문학연구4, 한국구비문학회, 1997), 독도 광포전설의 존재양상과 그 지역적 정체성(권도경, 선도문화4, 국학연구원, 2008), 독도 지역전설을 통해 본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권도경, 인문논총5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8).

필자 권도경(權都京)

민담

독장수구구

정의 독을 파는 장사꾼이 비가 오자 나무 아래서 헛된 공상을 하다 독을 깨는 소화(笑話) 형태의 민담.

줄거리 옹기(독)장수가 옹기를 짊어지고 다니다가 소나기를 만나자 비를 피할 데가 없어 등에 짊어진 독을 뒤집어쓰고 들어가 앉았다. 캄캄한 독 안에서 독장수는 공상에 빠졌다. ‘이 독을 팔아서 돈이 얼마 남으면 또 무슨 물건을 사고, 그놈을 팔아서 돈이 또 얼마 남으면 또 다른 물건을 사고, 그걸 다시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공상하다 보니 수천 냥이 남을 정도였다. 돈이 많으니 집을 짓고 장가를 들고 하는 공상에 또 빠졌다. 그리고 사망에 눈을 사고 머슴을 부리면서 농사짓는 공상으로 이어지다가 침을 두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본처와 첩이 서로 다투는 상황을 상상하다가 양쪽을 말리는 과정에서 버럭 화가 나 주먹질하는 상상을 하였고, 마침내 주먹을 내두르고 말았다. 그 결과

자신이 쓰고 있던 독이 깨져 버렸고, 소나기만 듬뿍 맞게 되었다.

변이 〈독장수구구〉는 『이습우화』 중 하나인 〈아가씨와 우유항아리〉 이야기와 유사하다. 시골 아가씨가 우유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장에 팔러 나가면서 온갖 장밋빛 공상을 하다가 그만 우유항아리를 깨고 마는 내용이 우리 민담과 유사하다. 비현실적인 공상의 쓸모없음을 드러내는 이 이야기는 민담 고유의 상상력에 동질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분석 소화는 단순히 웃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웃음 뒤에는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있기 마련이다. 이 이야기에는 헛된 공상이나 망상이 현실 생활을 오히려 망칠 수 있다는 준엄한 교훈이 담겨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러한 공상밖에 없음을 드러내어 현실 인생의 쓸쓸함을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민담의 세계적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헛된 망상은 현실적으로 소유한 것마저도 헛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이 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담이다. 민담의 교훈이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민담적 흥미 역시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174; 1-7, 508; 4-2, 210.

참고문헌 소화의 효용(이석래, 성심어문논집14·15, 성심어문학회, 1993), 한국의 소화(황인덕, 설화문학연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돈 떼먹는 법

정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주인공이 저승에 갔다 왔다고 거짓 말을 하는 설화.

역사 이 이야기는 조선 말기의 한문 소화집 『교수잡사(攪睡雜史)』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선 말기 혹은 그 이전에 이 설화가 민속문학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빌린 돈을 갚은 적이 없는 사람과 빌려 준 돈을 떼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루는 돈 갚은 적 없는 사람이 돈 떼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 빌린 돈을 펄펄 쓰다가 돈 갚을 기한이 다 되어 가자 돈 빌린 사람이 가족들을 불러 놓고 자신이 죽은 척할 테니 장례를 치르라고 한다. 돈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받으러 왔다가 돈 빌린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돈을 받지 못하면 시체의 간(혹은 다른 신체부분)이라도 가져가겠다고 칼을 꺼낸다. 그러자 아들들이 장례를 치른 후에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다.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다시 찾아오자, 돈을 빌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는 “저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아버지(혹은 어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돈이 없어 저승 문에 못 들어가고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하고 있기에 돈을 빌려 주고 왔소.”라고 둘러대며 돈을 갚지 않는다.

변이 이 항목에 속한 설화는 일반적으로 위의 줄거리를 기본 구성으로 하며, 설화에 따라 서술 요소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등장인물에 있어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혹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약자가 지혜로 강자를 속여 이기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약자와 강자의 대결인 경우 속임수가 어느 정도 정당화되기도 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일을 안 하고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집 주인을 속이고 집세를 내지 않는 각편도 있다. 이로서 미루어 보아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워서 속임수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화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변이가운데 빚을 갚기 위해 장례식을 치러 부조금을 걷으려고 죽은 척했다가 돈이 부족해 위와 같은 속임수를 사용하는 각편도 있고, 마지막에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의 말을 믿지 않자 저승에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며 위협하는 대목이 덧붙여진 각편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저승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이승의 걱정을 해결하는 이야기다.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 대한 봉양의 의무와 외경심이 있으므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한다. 유교사상이 아니더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의의 돈을 빌려 준 사람과 달리 빚을 진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로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유교의 조상숭배사상을 이용한 속임수는 물론 재미도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저승과 같은 개념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가는 민중

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보여 주기도 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9, 897; 6-10, 210; 7-9, 517; 8-3, 470.

참고문헌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한국구비문학대계 소재 설화 해제(이인경, 민속원, 2008).

필자 나수호(那秀昊)

민담

돈 천 냥의 구원

정의 돈 때문에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가진 돈 천 냥을 다 주어서 살려낸 아들이 후에 그 사람 덕으로 아버지 묘를 명당에 쓰고 복을 받아 잘살게 된다는 민담.

역사 보답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준다는 점에서 증여 또는 순수증여라는 역사 민속 또는 종교적 발상과 관계되어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순수증여는 신적인 행위이고, 신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만큼의 보상을 얻게 된다는 현실적 바탕으로 마무리된다.

줄거리 가난을 못 견디게 된 양반이 전에 풀어 준 노비가 지방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서 자식을 보내 돈을 조금 얻어오게 한다. 노비가 천 냥(또는 삼천 냥)을 쫓고,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을 보게 된다. 딱한 사정을 듣고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주고 만다. 돌아와 고하니 아버지가 역시 내 아들이라며 잘했다고 칭찬한다. 뒤에 아버지가 죽어 뫼자리를 찾는데 중이 어떤 큰 기와집을 가리키며 여길 헐고 묘를 쓰라고 한다. 난감해하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에 도와주어서 살게 된 사람이 집주인이었다. 그 사람은 아들의 은혜를 갚으려고 이 집을 지었다면서 묘를 쓰게 했고, 그 후 함께 부유하게 잘 산다.

변이 이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분류 ‘414-1 은혜 입은 사람 집에다 무덤쓰기’ 전체 26편과 ‘414-2 보은받아 명당 얻기’ 중 일부로 나타나 있다. 이 유화는 상위 유형인 ‘414 사람에게 적선하고 보은(복)받기’에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 이 중에 널리 알려진 〈역관 홍순언(洪純彦, 1530~1598) 이야기〉도 ‘414-5 보은받아 부귀 얻기’에 해당한다. 천 냥이 아니라 소를 판 돈이거나 산삼 또는 단순히 떡으로 구원하는 방식의 다양한 변이가 있고 보은의 내용도 다양하다. 역관 홍순언이 중국 장

루에서 삼천 냥을 주어 구원한 아가씨가 후에 귀한 사람이 되어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 준다는 보은담도 이에 포함된다.

분석 이 설화의 특징 중 하나는 궁핍한 사람이 자기 가진 것을 다 주어 죽을 사람을 살렸으면서도 끝내 이름이며 거주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순수증여의 모습이다. 순수증여는 본래 신이 하는 행위이다. 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아야 한다는 민중적 사고를 드러낸다.

특징 보은담의 일종이다. 단순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사고를 볼 수 있다.

의의 이 설화에서 나타나는 사고방식은 원시시대부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해나가는 데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기적이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이타성이 오히려 놀라운 이익이 된다는 역설을 전달하는 데 탁월한 교육적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818; 1-2, 119; 2-2, 335; 3-3, 80; 4-2, 58; 8-14, 39.

참고문헌 보은담의 유형과 의미(이강엽, 고전문학연구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中沢新一, 김옥희 역, 동아사아, 2004).

필자 신연우(申蓮雨)

신화

돈전풀이

일월노리무늬

정의 함경도 망목굿에서 구송되는 돈전(錢)의 내력을 이야기한 무속신화.

줄거리 〈돈전풀이〉는 몇 개의 삽화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망자에게 본전과 환전을 올리는 이유 설명 : 초반부에는 곳을 받는 망자의 일대기에 대해 길게 구송한다. 어머니 아버지의 은덕으로 태어나서 혼인을 하고 구십까지 살다가 마침내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불러가게 된다. 저승사자가 이승으로 망자를 잡으러 나왔다가 망자를 저승으로 끌고간다. 오동나무로 만든 관을 둘러메고 명산대천을 찾아가는 장면과 무덤 터를 닦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이는 장례식의 반영이다.

여러 험한 고개를 넘고 황천강을 건너 저승에 들어간 망자는 십대왕을 만나게 된다. 열라대왕에게 인정을 써야 한다고 하며, 저승에 본전 불사하는 이유를 밝힌다.

2. 궁상이와 명월각시의 혼인과 수난 : 궁상이는 꿈보이며 못났지만 돈이 많아 명월각시와 혼인한다. 역적이고 도둑인 배 선비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는 궁상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내기를 하여 궁상이는 집안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명월각시까지 잃게 된다. 명월각시는 궁상이를 위해 소를 잡아 육포를 떠서 옷 세 벌을 만들고 바가지, 소금, 낚시 도구 등을 준비한다. 그리고 하녀와 복색을 바꾸어 앉았으나 배 선비는 하녀를 데리고 가겠다고 명월각시를 데리고 나간다. 명월각시는 할 수 없이 따라가며 궁상이를 데려가지만 도중에 배 선비는 궁상이를 물속에 집어넣는다.

3. 궁상이의 고난 극복과 재회 : 집으로 돌아온 배 선비는 명월각시와 첫날밤을 보내려 하나 종이칼로 종이단추를 베어 야기가능하다는 명월각시의 말에 석 달을 그냥 보낸다. 그리고 명월각시는 봉학을 궁상이가 있는 곳으로 날려보내 데려오라고 한다. 물속에 버려진 궁상이는 옷의 재료인 육포를 뜯어먹고 낚시를 하며 살다가 마침내 봉학을 만난다. 궁상이는 힘이 떨어진 봉학에게 다리살을 끊어 먹이며 명월각시 옆으로 돌아온다. 명월각시는 배 선비에게 걸인잔치를 하자고 한다. 궁상이가 걸인잔치에 찾아오자, 명월각시는 구슬 옷을 내놓으며 입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구슬 옷을 입은 궁상이는 삼천 유인 앞에서 배 선비를 야단치고 명월각시와 함께 집을 나선다.

4. 궁상이의 보물 얻기 : 궁상이와 명월각시는 걸인으로 떠돌다가 잘사는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게 된다. 돈이 필요하다는 궁상이 말에 명월각시가 돈을 주지만 궁상이는 엉뚱하게 고양이와 뱀을 산다. 껌질을 벗고 새파란 새서방이 된 뱀이는 자신이 용왕의 아들인 용곡천자인데, 궁상이 내외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그들을 용왕에게 데려간다. 그러면서 건만중태라는 보물을 청하라고 이야기해 준다. 용왕이 거절하였지만 궁상이가 키우던 고양이가 건만중태를 훔친다.

5. 본전과 환전으로 좌정한 궁상이 내외 : 궁상이가 자고 일어나니 건만중태에 돈이 가득 차 있고, 다시 하룻밤이 지나면 돈이 또 가득 차 있다. 반면, 상감의 집에서는 돈이 다 없어졌다. 궁상이를 데려가 전후사정을 알게 된 상감은 궁상이로부터 건만중태를 뺏는다. 그러나 상감의 집에서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도 건만중태 속에 김불이나 티, 흙만 가득 차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다시 궁상이에게 건만중태를 돌려준 상감은 마침내 두 사람을 선간으로 올라가게 하여 명월각시는 한전을 찾게 하고 궁상이는 변전을 찾게 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다.

6. 한전 본전에 올리는 축원 : 궁상이가 신령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이 끝나고 나서는 축원이 이어진다. 여러 망령이 가지고 온 돈전에 대한 축원의 말, 돈전을 바치고 좋은 곳으로 가는 망령에게 바치는 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변이 모두 세 편이 채록되었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차이가 없다. 이중 함경남도 함흥에서 채록된 <돈전풀이>의 서사 단락이 가장 풍부하다. <일월노리푸념>은 명월각시가 구슬 옷을 내어놓아 궁상이가 구슬 옷을 입고 허공중천에 뗏다가 내려오는 반면에 배 선비는 내려오지 못해 술개가 되었다는 데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보물을 얻은 삽화는 없다. 함흥 지역의 <궁상이긔>은 궁상이가 물에 버려졌을 때 거북의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있고, 육포로 만든 옷을 뜯어먹다가 새끼를 친 학에게 육포를 나눠준 후 그 보답으로 학을 타고 강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돈전풀이>와는 다르다. <궁상이긔> 후반부에는 널리 알려진 고양이와 개의 구슬 찾기가 삽화로 들어 있다. <돈전풀이>에서는 궁상이가 뱀이의 보답으로 보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고양이가 이를 훔쳐 오지만, <궁상이긔>에는 집에서 키운 개와 고양이가 장자의 구슬을 훔쳐 와서 부자가 되고 불어난 재산을 나라에 바치나 백성이 게을러지면 안 된다며 구슬을 불태워 버린다. 나중에 이 개와 고양이는 고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돈전풀이>에서는 두 주인공이 돈전을 맡는 신으로 좌정했다고 하지만 <일월노리푸념>에서는 일월신이 된 것으로, <궁상이긔>에서는 선간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 <돈전풀이>가 신의 내력담으로 가장 적절하다. 더욱이 <돈전풀이>에는 앞 뒤에 돈전의 내력을 이야기하게 된 과정과 돈전을 써서 망자가 좋은 곳으로 가는 내용이 있어 다른 두 편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

분석 <돈전풀이>는 1933년 손진태가 평안북도 강계에서 전명수를 대상으로 <일월노리푸념>으로 조사한 이래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다. 임석재와 장주근이 함남 함흥 출신의 강춘옥을 대상으로 <돈전풀이>를, 김태곤이 함남 함흥 출신의 이고분을 대상으로 <궁상이긔>을 조사한 바 있다. <돈전풀이>는 망목긔의 중요한 재차였음은 분명하나 현재는 전승이 단절되었다. <돈전풀이>의 내용을 볼 때 다양한 설화와의 교섭 양상이 확인되어 무속신화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특성의 이해가 가능하다. 이야기의 열개로 볼 때 다양한 이야기가 주인공의 일대기와 결합되면서 돈전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징 <돈전풀이>는 신의 유래담이다. 특히 한국 무속신화에서는 찾기 어려운 돈전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어 새롭다. 망목긔에서는 망자가 저승에 가면서 사용하라고 황색과 흰색의 종이돈을 올리는데, 그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돈전풀이>

는 망목긔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돈전풀이>는 무속신화와 설화의 관련성이 보인다. 초반부에서 궁상이와 명월각시, 배 선비의 삼각구도를 통해 지혜로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한국 설화의 지혜로운 여성담과 상통하며, 고양이와 뱀의 보은담, 용궁에서 보물을 획득하는 이야기 등은 기존의 동물담과 통한다. 특히 고양이가 보물을 훔쳐오는 것은, <궁상이긔>에서 고양이와 개가 보물을 훔쳐오는 이야기보다는 축소되어 있지만 <돈전풀이> 유형의 무속신화가 동물보은담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건만중태에 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고대소설 <전우치전>에서 ‘그림 속의 창고에서 돈을 꺼내 썼는데 알고 보니 나랏돈이었다’는 삽화와도 상통한다.

의의 <돈전풀이>는 돈전의 기원담이면서도 여러 설화를 담고 있어 서사문학의 갈래 교섭 및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출처 돈전풀이(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5).

참고문헌 일월노리푸념(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한국 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8), 함경도 본풀이 돈전풀이의 특징과 의의(김현선·시지은,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필자 홍태한(洪泰漢)

신화

동명왕신화

東明王神話

정의 부여·고구려·백제와 같은 부여 계통 집단의 시조이고, 북부여의 창업 왕인 동명왕(東明王)에 관한 신화.

역사 북부여 건국시조인 <동명왕신화>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1세기 말 중국 왕충(王充)의 『논형(論衡)』 권2「길험(吉驗)」에 실린 것으로 그 이전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외 3세기 말의 『위략(魏略)』, 4세기 초의 『수신기(搜神記)』, 7세기 중반의 『북사(北史)』, 7세기 후반의 『법원주림(法苑珠林)』 같은 다른 중국 문헌에도 수록되어 있다.

줄거리 북이(北夷) 탁리국(橐離國) 왕의 시비(侍婢)가 임신하였다. 왕이 시비를 죽이려 하니, 시비가 “달같은 한 기(氣)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까닭에 임신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살려주었다. 그 후에 아들을 낳자 돼지우리 안에다 버렸더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구간 안으로 옮겨

말에 깔려 죽게 하려 했지만, 말도 입김을 불어 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속으로 ‘하느님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하여, 시비가 거두어 종처럼 천하게 기르게 하였다. 아이 이름을 동명(東明)이라 하고, 마소를 치게 하였다. 동명은 활을 잘 쏘았는데, 왕은 동명한테 나라를 빼앗길까 두려운 나머지 동명을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은 남쪽으로 도망쳐 엄호(堧)수(掩澗水)에 이르렀다.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 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격병은 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리고 도읍을 정하고 부여(夫餘)의 왕이 되었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인 『논형』에 나온 내용이다. 후대의 기록들에서도 기본 줄거리는 동일하다. 다만 동명왕의 출생국과 건넌 강 이름의 한자 표기만 일부 다르다. 우선 동명의 출생국인 탁리(橐離)가 ‘고리(高麗)’(『위략』), ‘고리(橐離)’(『수신기』), ‘색리(索離)’(『후한서(後漢書)』·『북사』), ‘포리(褒離)’(『신론(新論)』), ‘고려(高麗)’(『수서(隋書)』)들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건넌 강의 이름이 ‘엄호(堧)수(掩澗水)’에서 ‘시엄수(施掩水)’(『위략』·『수신기』), ‘엄사수(掩澗水)’(『후한서』), ‘엄체수(淹澗水)’(『양서(梁書)』·『북사』), ‘엄수(淹水)’(『수서』)들로 다르다. 그 밖에 동명의 이름, 어머니, 잉태 원인, 출생 양상, 망명 동기, 세운 나라의 이름은 똑같다. 위에서 보인 여러 문헌의 기록들은 북이의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동명이란 인물이 남하해 부여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야기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유지한다. 그런데 어째서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출생국과 강 이름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인지 궁금하다. 특히 동명왕이 남하하여 세운 나라를 ‘고려(高麗)’라고 적은 『수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기록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면, 부여가 고구려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인 셈이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통전(通典)』의 찬술자인 두우(杜佑)는 삭리국이 부여의 북쪽에 ‘고려’라는 분국을 세웠던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변이는 앞선 기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글자의 모양 또는 음(音)의 유사성 때문에 착오가 빚어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이 문헌들의 기록자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민족인 부여의 일을 적으면서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록으로 거의 유일한 자료인 『천남산묘지(泉男産墓誌)』(702)에서는 동명왕이 건넌 강의 이름을 ‘호(堧)천(澗川)’으로 기록하고 있어, 중국의 『논형』의 표기와 같은 계통임을 보여 준다. 요컨대 <동명왕신화>는 다른 신화에 비해 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채 800여 년의 세월을 걸쳐 계속 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가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제왕운기(帝王韻紀)』 사이에 미

묘한 차이가 있고, 고구려의 <주몽신화>도 『구삼국사(舊三國史)』의 것과 다른 자료들과 길이나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

분석 한동안 이 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의 한 각편으로 여겨져 왔기에 독립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주몽의 왕호가 동명성왕인 데다, 부여가 망한 후 고구려가 길게 이어지면서 착시 현상이 빚어져, 부여의 건국시조인 동명(동명왕)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것이다. 주몽의 왕호가 부여의 건국시조 동명의 이름을 차용한 것에도 부여시조 동명(동명왕)을 고구려시조 주몽의 다른 이름으로만 알아왔다. 하지만 이 신화를 신고 있는 여러 문헌의 기록을 보면, 두 신화는 별개였음을 알 수 있다. 『천남산묘지』에서도 동명과 주몽을 별개로 다루고 있고,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 조선 후기 실학자들도 그간의 잘못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근대에 들어와 잊혀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오다,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기존의 동일시 견해와 대립하고 있다. 북한 학계에서는 <동명왕신화>를 <주몽신화>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역사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학계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부여에서 고구려가 파생된 게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고, 고구려의 시조신화 이전에 부여의 시조신화가 먼저 존재했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고구려의 건국신화는 부여의 건국신화를 차용하여 확대 변용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의의 <동명왕신화>는 고구려 건국신화인 <주몽신화>와 구조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부여가 고구려보다 앞선 나라이듯 엄연히 앞서 나온 신화이다. <동명왕신화>의 첫 기록이 1세기 말의 문헌인 왕충의 『논형』인 데 비해, <주몽신화>의 첫 기록은 5세기 초 장수왕이 세운 ‘광개토태왕비문’인 것도 이를 방증한다. 부여에서 파생된 고구려 건국 주체 세력은 민심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부여시조 <동명왕신화>를 차용하되, 탁리국을 부여 또는 동부여로, 시비를 하백의 딸로, 하늘의 계란 같은 기운을 햇빛 또는 해모수로, 탁리국왕을 부여왕 또는 금와왕으로, 태생(胎生)을 난생(卵生)으로, 동명을 주몽으로, 건국한 나라를 부여에서 고구려로 바꾸었다. 이처럼 <주몽신화>는 <동명왕신화>에 비해 많은 요소가 첨가되어 훨씬 다채로워졌다. 2대기 구조가 3대기 구조로 개편된 것도 그 변화의 하나이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북방계 신화의 구조를 ‘천신과 지신(수신)의 혼례-시조의 탄생-건국’으로 도식화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혼례 과정이 생략되어 나타나는 남방계 신화와 구별되는 특징인 바, <동명왕신화>는 이 구조를 <단군신화>에서 계승하여 <주몽신화>에 물려주고 있다. 특히 고난

(불행)과 극복(행운)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단군신화>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로, 후대 고구려의 <주몽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주몽신화>의 이 구조는 후대 영웅소설의 근간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미 밝혀져, <동명왕신화>가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論衡, 三國遺事, 法苑珠林, 北史, 隋書, 搜神記, 新論, 梁書, 魏略, 泉男產墓誌, 後漢書.

참고문헌 고전소설론(이상택·윤용식,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이복규, 집문당, 1998), 조선전사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한국 건국신화 연구(나경수,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한국문학통사1(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한국사2(한길사, 1994),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이복규(李福癸)

민담

동물 나이 자랑

정의 동물들의 나이 자랑에서 두꺼비가 지혜로 승리했다는 내용의 동물우화(動物寓話) 성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토끼, 거북이, 두꺼비가 서로 만나서 나이 자랑을 했다. 제일 먼저 토끼가 자신은 천황씨(天皇氏) 때에 이 세상에 나왔다고 자랑을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 자신은 천황씨보다 더 먼저인 반고(盤固) 때에 이 세상에 나왔다고 했다. 두 동물이 서로 나이 자랑을 하는 것을 듣고 두꺼비는 영영 울기 시작했다. 토끼와 거북이가 우는 이유를 묻자 두꺼비는 한참 울다가 천황씨와 반고라는 말을 들으니 반고 때 죽은 아들과 천황씨 때 죽은 손자 생각이 나서 슬퍼서 그런다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크게 동물들이 하나의 내기만을 하는 기본형과 내기가 두세 번 반복되는 확장형으로 나누어진다. 확장형에서는 나이 자랑 말고 ‘언덕에서 떡시루 굴리고 아래에서 먼저 받기’, ‘키 자랑’, ‘술 못 마시기’, ‘햇빛 먼저 보기’, ‘강 건너기’, ‘달리기’ 같은 여러 가지 대결이 더해진다. 비록 기본형과 확장형을 통해 다툼의 방식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첨가되더라도 이야기의 초점은 변함없이 지혜를 이용한 약자의 승리에 맞추어져 있다. 한편, 이 설화에 등장하는 동물은 대부분 셋이고 변이에 따라서는 둘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두꺼비, 토끼, 여우가 등장하여 대결을 펼치는 경우가 많다. 확장형에서는 변이에 따라 이야기 끝에 두꺼비의 생김새와 관

련된 유래담이 덧붙기도 한다.

분석 설화에서는 반복과 대립의 형식이 자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흔히 ‘3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번의 반복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 설화에서도 보통 세 동물이 등장하고 세 번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항상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존재는 마지막 동물이며 주로 두꺼비이다. 이는 대결에서 먼저 말한 동물보다 나중에 말한 동물이 앞에서 한 말을 듣고 유리한 조건에서 지혜를 발휘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자인 두꺼비를 승리자로, 강자인 동물들을 패배자로 설정하여 꾀와 힘이 대립하는 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권34 「십송률(十誦律)」에서 제일 처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코끼리, 원숭이, 사막새가 등장하는데, 몽골이나 한국은 각각 그 민족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동물들로 변이되어 나타난다. 게다가

전설

동물·사물전설

動物·事物傳説

정의 상상이나 현실 속의 동물, 사물 등과 관련된 설화.

내용 민속에 많은 동물들이 등장한다. 한국 문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신성(神聖)이나 주력(呪力)의 현시(顯示)로서, 인간과 신, 이승과 저승, 자아와 우주를 연결하는 영매(靈媒)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설화에는 호랑이와 용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외 빈도는 말·소·뱀·닭·거북·개 등의 순이다. 곰·용·말·시슴 등 물짐승, 비둘기·까치·닭 등의 날짐승, 거북·개구리·물고기 등 물짐승들이 총망라된다. 동물과 관련된 설화는 동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설명하는 이야기, 지적 능력에 따라 꾀 많거나 어리석은 동물 이야기, 동물들끼리 달리기·윗자리 차지하기·골탕 먹이기 등 능력을 다투는 이야기, 둔갑(변신)·보은·해 끼치기·교혼(交婚) 등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동물 전설의 경우에는 용, 이무기, 삼족오, 삼족구, 불가사리, 뱀, 접동새, 빠꾸기 등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승천하는 이무기, 서로 승천하려고 다투는 용 싸움, 아주 작은 몸집에 다리도 하나 부족하지만 천년 묵은 여우를 물리칠 수 있는 사나운 개 삼족구, 고려 말 거리에 나

동물들이 다투는 음식도 한국은 떡인데, 몽골은 버터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불전(佛典)에서 기원한 동일한 설화가 한국과 몽골에서 어떻게 변이 전송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의의 이 설화는 약자인 두꺼비가 지혜를 발휘해 강자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으로 동물우화의 교훈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전소설인 <두껍전>의 형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4, 490; 6-5, 45; 8-4, 49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95; 12, 56.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두껍전 연구(이성우,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몽 설화의 비교(윤승준,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이홍우(李洪雨)

타나 닥치는 대로 쇠를 먹으며 계속 자라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불가사리,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있고 허물 벗으며 변신하는 뱀, 젊어 죽은 머느리의 전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슬프게 우는 접동새, 늦은 봄날 야산에서 울어대며 봄날의 정서를 표현하는 빠꾸기 이야기 등이 동물전설에 해당된다.

사물 전설에는 자연 현상, 지형지물, 유적·유물 등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사물에서부터 구슬, 붓, 피리, 재尺 등 단일 유물 혹은 구체적인 물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특정 지형지물과 관련해서는 용(龍) 관련 자료가 가장 많다. 용 지명전설은 전국 1,261곳에 쓰여 다른 동물들에 비해 압도적이다. 용의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용이 들어간 지명, 용이 승천하거나 누워 있거나 또는 었드려 있는 모습에서 유래된 지명, 풍수 관련 유래를 가진 지명도 나타났다.

단일 사물에 관한 자료는 <단군신화>의 천부인(天符印), 진평왕의 천사옥대(天賜玉帶), 문무왕의 만파식적, 이성계의 금척(金尺) 등이 있다. 국조 단군왕검(檀君王儉)이 한웅천왕(桓雄天王)으로부터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였다는 세 개의 도장 천부인(天符印), 금으로 만들고 옥으로 수를 놓았다는 허리띠를 옥황상제가 보내주었다며 항상 그 띠를 차고 다니면서 자신의 권력과 왕실의 권위를 과시하였다는 진평왕의 <금사옥대>, 682년(신라 신문왕 2)에 용으로부터 영험한 대를 얻어 피리를 만들었는데, 피리를 불 때마다 나라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었다는 전설상의 피리 <만파식적>, 미천한 인물이 꿈을 통해 ‘금으로 된 재尺’을 얻음으로써 영예로운

지위에 이르게 된다는 <금척 이야기> 등이 대표적이다.

의의 한국 문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물들은 여러 문화적 관계 속에서 속성(屬性), 기호(記號)의 상징체계로서 전시대(全時代)와 전영역(全領域)에 걸친 문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동물 기호와 상징은 문화의 비밀을 푸는 또 하나의 암호이며, 열쇠이다. 고대인들은 동물의 형태론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조화를 이루면서 문화적 표상(表象)을 만들어 냈다. 이 동물은 세계에 대한 표상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이며, 동물의 형태적 특성 등을 통해 토대로 설화적 상징 의미를 만들고 있다.

사물전설 중 지형지물에 관한 전설은 지명전설이 가장 많

다. 단일 사물전설은 주로 나라를 건국할 때마다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신성한 물건과 관련된 전설이다. 단군은 천부인 세 개의 도장으로 천손의 후예임을, 진평왕은 옥황상제의 선물인 옥대로 권위와 권력을 과시했고, 통일을 이룩한 문무왕에 이어서 즉위한 신문왕은 정치적 힘의 결핍과 일본의 침입이라는 문젯거리를 타결하기 위해 만파식적을 만들어서 지배층의 정통성과 동질성을 재확인했다.

참고문헌 새의 문화기호 읽기(천진기, 새가 날아든다. 경기지역대학박물관협의회, 2008),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지역상징동물연구(천진기, 우리문화연구32, 우리문화회, 2011),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있다. 지략담, 치우담, 경쟁담 등이 본격동물담이나 동물우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분류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지략담과 치우담은 대결을 벌이고 있는 두 동물에게서 각각 드러나는 성격이기 때문에 경쟁담과 구분하기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논자에 따라서는 신이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여 동물담에서 제외하여 따로 분류하기도 하는 보은담이나 신이담을 여기에 추가하여 동물담을 유래담, 지략담, 보은담, 신이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래담은 동물의 생김새에 대한 유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호랑이나 토끼의 꼬리, 메추라기의 꼬지에서부터 메기, 게, 원숭이의 특징적인 생김새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외에도 동물 울음소리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다. 유래담은 동물들의 생김새나 울음소리와 같은 생물학적인 특징을 철저히 인간의 관점에서 기발한 상상력으로 설명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동물설화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이다.

지략담은 힘의 관계에서 아래에 있는 동물들이 위에 있는 동물들을 지략을 사용하여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호랑이를 지략으로 물리친 토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호랑이의 관점에서 보면 치우담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약자인 토끼가 멋진 지략을 발휘하여 호랑이를 물리쳤다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지략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보은담은 동물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 준다. 유래담이나 지략담, 신이담 등은 동물담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보은담은 거의 대부분이 동물담이다. 따라서 보은담은 곧 동물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을 빗대어 보은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의 보은에서부터 까치, 꿩, 황새 등의 새의 보은, 뱀, 두꺼비, 호랑이, 물고기, 모기, 파리의 보

은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신이담은 변신담의 성격이 강하다. <단군신화>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우나 호랑이, 구렁이 등 일반적으로 신이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설화들이다. 보은담 중에도 신이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토템이나 동물신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정착된 작품들로 이해할 수 있다.

특징 리치(M. Leach) 등이 편찬한 『표준민속학사전(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에서 동물담을 분류하면서 제시한 동물서사시(beast epic), 『일본석화사전(日本昔話事典)』에서 역시 동물담을 분류하면서 제시한 동물갈등담 중의 동물서사시가 우리의 설화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의에서 독립된 서사시의 전통이 강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한국 동물담에 등장하는 동물 중에서는 특히 호랑이와 토끼, 여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랑이는 신이하면서도 어리석은 존재로, 토끼는 꾀가 많은 트릭스터(trickster)로, 여우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신이한 존재로 많이 등장한다. 서구에서 특히 여우가 트릭스터로 자주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의 조선 후기에 이원명(李源命)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동야휘집(東野彙輯)』의 이본으로는, 서울대학교에 4종, 연세대학교에 2종, 성균관대학교에 1종, 숙명여자대학교에 1종, 국립중앙도서관에 2종이 있으며, 일본의 오사카시립도서관(大阪市立圖書館)에도 8권 8책본이 소장되어 있다. 경북대학교 국문학회에서 장지영소장본(張志暎所藏本)을 대본으로 유인(油印)한 8권 8책본(전 2책, 1958)과, 국립중앙도서

의의 동물설화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곧 인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동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인간과 대등한 위상의 동물, 또는 조화롭게 공존해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동물이라는 생각은 주로 전자와 관련이 깊고, 후자의 관점에서는 동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특징적 모습에 관심을 두게 된다. 인간의 형상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기에 가장 알맞은 대상이 동물이었을 것이다. 동물은 자연물 중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면서도 인간과 똑같지는 않다. 유사하면서도 똑같지는 않다는 점 때문에 인간은 동물을 바라보면서 항상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것이다. 동물은 인간의 주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타자였던 것이다. 설화 속 동물은 이야기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항상 인간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 주체성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이다.

참고문헌 동물설화와 인간 주체화의 과정(심우장,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용, 일조각, 1983), 한국의 동물담(민찬, 설화문학연구-상,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심우정(沈愚章)

관 8권 8책본이 있다.

이 책은 편찬 당시까지의 야담 작품들을 집대성한 성격이 강한데, 편찬자의 취향과 세계관에 부합하는 것을 주로 선택하였고, 상당 정도 윤색하고 수정하였다. 또 별개의 단편을 하나의 제목 아래 조합하기도 하였다. 사대부 의식을 적극 개입시켜 사건의 국면들을 다소 보수적으로 변개한 부분이 있고, 문체도 문어체적 성향을 보인다. 편찬자의 폭넓은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의 야담집뿐 아니라 중국 문헌들에서도 취합하였는데, 특히 중국 필기소설집인 『해탁(諧鐸)』의 작품 18편을 수용하였다. 그 외 『어우야담(於野談)』, 『기문총화(記聞叢話)』,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 장한철(張漢喆)의 『표해록(漂海錄)』 등을 수용하였다.

야담집으로서의 특이하게 체제를 갖추어, 13부의 대항목을 나누었고 각 부 밑에 유(類)를 만들어 모두 80여 유에 이른다. 각 작품에는 칠언(七言)이나 팔언(八言)으로 된 한문 제목이 붙었다. 그리고 작품의 끝에 평결(評結)을 붙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민담

동자삼

童子蔘

정의 부모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린 자식을 삶아 바쳤는데 알고 보니 동자삼이었다는 내용의 효행설화.

줄거리 어떤 부부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머니(혹은 아버지)가 병에 걸려 백방으로 약을 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하루는 지나가던 중이 자식을 삶은 물을 어머니께 드리면 낫는다고 했다. 부부는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중의 말대로 하기로 했다.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어린 아들을 목욕시켜 준다고 하고는 뿔뿔 끓는 술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들을 삶은 물을 어머니께 드렸더니, 병이 완전히 나았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어제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늦어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술뚜껑을 열어 봤더니, 술에는 동자삼이 둥둥 떠 있었다.

변이 부모가 걸린 병으로 나병을 제시한 경우가 꽤 많다. 어린아이의 간을 먹으면 나병이 치유된다는 속설 때문에 생긴 변이로 보인다. 아이를 삶아서 술을 만들어 먹거나, 사탕고기 혹은 아이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변이도 비슷한 맥락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선택의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만들기 위해 어린 자식을 삼대독자로 설정하거나, 반대로 선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두 아들 중 하나를 선택하기도 한다. 공부를 위해 절의 주지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효성에 감복하여 절의 동자삼이 둔갑하여 아이 대신 온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덧붙기도 한다.

분석 희생제의의 전통에 바탕을 둔 유아 살해 모티프가 활용된 전형적인 효행설화의 하나이다. 어린아이의 재생 이미지가 병으로 약화된 부모의 신체를 회복시켜 준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한다. '부모의 죽음이나, 자식의 죽음이나'라는 독한 선택의 기로에서 부모를 선택함으로써 효행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의의 동자삼은 몇 백 년 묵은 산삼으로 낮에는 둔갑해 민가를 다니며 훌륭한 사람을 찾다가, 저녁이면 산삼으로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관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삼의 모양과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효행설화를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준다. 유아 살해를 모티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효행설화 중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그만큼 가장 대중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416; 5-2, 78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286.

참고문헌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최혜진, 어문논집6,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6),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회, 1997),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심우장, 실천민속학연구10, 실천민속학회, 2007).

필자 심우장(沈愚章)

전설

동지팔죽 유래

정의 동지팔죽을 먹는 유래에 관한 설화.

역사 24절기의 하나인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로 예부터 세시명절로 여겨왔다. 조선시대에는 동지를 작은 설, 곧 아세(亞歲)라고 했다. 이는 중국의 고대 역법에서 동지를 세수(歲首)로 하던 것의 유습으로 보기도 한다. 동지팔죽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설날의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먹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곧 설의 잔재이다.

우리나라에서 팔죽을 먹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등장한다. 『익재집(益齋集)』에 동짓날은 흠어졌던 가족이 모여 적소두(赤小豆)로 쏘 두죽(豆粥)을 끓이고 채색 옷을 입고 부모님께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사상과 관련이 있지만 동짓날 팔죽을 먹는 유래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중국 세시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릉(宗懷)의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 기록을 인용할 따름이다.

줄거리 『형초세시기』에 기록된 동지팔죽의 유래담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데 내용은 지극히 짧다. 옛날 공공 씨(共工氏, 요순시대에 형벌을 맡았던 관명에서 비롯된 성씨)에게 바보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 역질 귀신이 되었는데 생전에 팔을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물리쳤다. 이 유래담을 통해 팔이 예전부터 악귀를 예방하는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다소 확장되어 팔죽과 아이를 관련시킨 이야기가 전해온다. 동지는 드는 시기에 따라 별

자료

동괘낙송

東稗洛誦

정의 조선 후기 노명흠(盧命欽, 1713~1775)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동괘낙송(東稗洛誦)』은 1774년에서 1775년 사이에 노명흠이 홍봉한(洪鳳漢) 집안의 숙사(塾師, 글방의 스승)로 있으면서 편찬한 야담집이다. 현존하는 이본 가운데는 연세대본이 가장 선본(善本)이다. 여기에는 총 78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러나 본래 이 책에는 100여 편 정도의 이야기가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홍락수(洪樂受)가 쓴 서문에 “한묵(翰墨, 글을 짓거나 쓰는 일)의 여가에 세속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아 100여 종을 취하여 한 권의 책으로 모았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동괘낙송』은 귀신이나 신선에 대한 이야기,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이야기, 신분 갈등을 다룬 이야기, 전란이나 나라일과 관련된 이야기, 착한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당대 현실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전에 비해 많아졌다. 작품 각편에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 『동괘낙송』은 이후 야담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희평(李羲平)의 『계서잡록(溪西雜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민담

돼지 맞돈

정의 외상술을 주지 않은 주막 주인에게 복수하는 설화.

줄거리 술을 좋아해 날마다 주막에 가서 외상술을 먹는 사람이 또 주막에 가서 외상술을 달라고 하니 주모가 돈이 없으면 술을 주지 않겠다고 하고 일하러 나간다. 남자가 주막에서 주모를 기다리는 사이 돼지가 나와서 주모가 만들어 둔 술밥을 먹는다. 주모가 돌아와 돼지가 술밥을 먹는 것을 보고 남자에게 “돼지가 술밥을 먹고 있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느냐.” 하고 화를 내니, 남자는 “돼지가 돈을 내고 먹는 줄 알았다.”라고 대꾸한다.



동지팔죽
국립민속박물관

칭이 있다. 동지가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하순에 들면 노동지라 하는데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팔죽을 쑤지만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는다. 그 까닭은 아이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동지팔죽 유래와 관련이 있다. 즉 동지팔죽은 역질이 된 아이 귀신을 쫓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축귀(逐鬼)행위가 자칫 집안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탈이 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팔죽유래담은 동지팔죽이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다는 신앙성을 말하고자 부연된 이야기이다.

분석 동짓날에는 팔죽을 쑤어 먼저 사당에 올려 동지차례를 지낸 다음 집안을 수호해 주는 주요 가신(家神)에게 올린 후 가족이 먹는다. 그리고 차례상에 올리기 전, 팔죽이 부글부글 끓을 때 국물을 떠서 대문이나 담, 집 앞의 고목 등에 뿌리는데 붉은 팔이 벽사와 축귀의 역할을 한다고 믿어 예방하였다.

특징 팔죽은 다른 때에도 먹을 수 있지만 동짓날 먹는 팔죽은 명절식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민속에서 붉은 색은 벽사의 기능이 있다고 여기는데, 동짓날 팔죽은 그 기능의 강도가 한층 더해진다. 또한 팔죽 한 그릇을 먹으면 나이 한 살 먹는다는 통과의례 음식의 의미도 있다.

출처 高麗史, 東國歲時記, 荆楚歲時記.

참고문헌 역법의 원리분석(이은성, 정음사, 1985), 조선의 동지팔죽과 그 사회성(최덕경, 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필자 김명자(金明子)

변이 이야기가 간단해서 대체로 모든 각편이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 주인공이 그냥 주인을 기다리려고 주막에 남아 있는 예가 있고, 주막 주인이 자리를 잠깐 비워야 해서 주인공에게 주막과 술밥을 봐 달라고 부탁하는 예도 있다. 또한 돼지가 스스로 나와 술밥을 먹어 치우는 예도 있지만 주인공이 일부러 돼지를 풀어 놓거나 술밥을 직접 주는 예도 있다. 이런 차이점들은 설화를 구연하는 화자가 주인공을 수동적인 인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싶은지, 능동적인 인물로 꾀를 내어 복수를 꾸미는 것으로 묘사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전자에서는 단지 채치 있는 인물이지만 후자에서는 보다 짓궂은 인물로 묘사된다.

분석 이 설화에는 흔히 정수동, 정만서, 방학중, 김선달과 같은 트릭스터(trickster)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속임수(trick, 트릭)를 사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 자에게 보복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술집 주인을 골탕먹이기는 하지만 외상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인공이 이겼다고 볼 수 없고, 주인공이 혼자서 피해를 보기 싫어서 술집 주인도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것뿐이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외상술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것’이라는 협박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각편 중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보복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해당 설화 중 한 편은 흥선대원군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어 흥미롭다.

의의 이 설화의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이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인공은 결코 강자의 압제를 받은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로 보는 것이 맞다. 즉, 항상 외상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술집 주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소위 보복을 한다는 것은 주인공이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이기주의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인물을 이야기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 재미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 구조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389; 7-7, 433; 7-17, 112.

참고문헌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필자 나수호(那秀昊)

민담

돼지꿈

정의 같은 돼지꿈을 꾸고도 다른 해몽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세 사람이 똑같이 돼지꿈을 꾸었다. 해몽가에게 꿈풀이를 하니, 첫 번째 사람은 재수 있겠다 하고, 다음 사람은 푼돈이나 생기겠다 하고 마지막 사람은 낭패를 당하겠다 하였는데, 모두 해몽대로 실현되었다. 똑같이 돼지꿈을 꾸었는데 어찌하여 자신은 두들겨 맞게 되느냐고 마지막 사람이 따졌다. 그러니 해몽가가 설명하기를, 처음에 돼지가 울면 배가 고프고 싶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래도 울면 추워서 그런가 싶어서 북데기를 가져다 덮어 주지만, 그러고도 울면 ‘먹을 걸 주고 덮어 주어도 꿀꿀거리느냐?’ 하면서 당연히 몽둥이를 들고 패게 된다는 것이다.

변이 각편상 해몽의 이치를 설명하는 대목만 나오기도 하고, 해몽대로 실현되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예도 있다. 후자가 해몽의 중요성과 신기함이라는 설화의 주제를 더 명확히 한다. 또한 길몽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수 있겠다.’와 ‘푼돈이나 생기겠다.’라고 한 대목이 ‘잘 먹겠다.’와 ‘옷을 얻어 입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변이를 보인다. 후자가 해몽의 이치상 돼지가 처음 울어 대면 먹을 것을 주고, 그래도 울어 대면 북데기를 덮어 준다는 점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거짓꿈의 해몽〉은 한 사람이 같은 꿈을 세 번 해몽한 예로 해몽의 결과와 이치에 있어서는 이 설화와 같다. 다만 이 설화는 거짓꿈도 해몽대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해몽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길몽인 돼지꿈도 해몽에 따라서는 흉몽이 된다 하여 해몽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구조는 ‘세 사람의 돼지꿈-길몽과 흉몽으로 해몽-해몽대로 실현-해몽의 이치’로 되어 있다. 첫째, 처음 두 사람의 꿈은 길몽이고, 마지막 사람의 꿈은 흉몽으로 해석되어 같은 꿈도 다르게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해몽이 꿈 자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꿈의 선후 관계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둘째, 해몽대로 실현된 데서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셋째, 흉몽일 때 대처법을 알려 주었으나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꿈의 실현에는 꿈꾼 이의 책임도 있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돼지꿈이라도 세 번째에 가서 흉몽이 되었으니 좋은 꿈도 거듭 꾸면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길몽도 지나치게 탐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담겨 있다.

특징 이 설화는 길몽인 돼지꿈도 흉몽으로 실현된다고 하였으니 해몽법 중 반대해석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점에서 흉몽도 해몽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과 같다. 초점을 둔 것이 길몽인지 흉몽인지만 다를 뿐이다. 흉몽이라도 꿈꾼 이가 해몽에 따라 적극 행동하면 길몽으로 실현될 수 있듯이, 길몽이라도 꿈만 믿지 말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의의 돼지꿈은 우리 민속에서 대표적인 길몽이다. 이런 돼지꿈을 가지고 길몽도 해몽 나름이라고 하여 꿈만 믿고 행동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경계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이야기에는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좋은 일일수록 주변을 살피고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의 처신법이 잘 나타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 500; 8-3, 457.
참고문헌 꿈 이야기의 유형과 꿈에 관한 인식(임재해, 문학과비평6, 문학과비평사, 1988).

필자 박성린(朴商蘭)

민담

두꺼비신랑

정의 변신담의 하나로, 하늘나라의 선관이 죄를 짓고 두꺼비의 몸으로 지상에 내려왔다가 결국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890년대 초반부터 1910년 후반 사이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설 〈두꺼비전〉의 내용과 유사하고, 이 소설이 구전설화 〈두꺼비신랑〉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연구를 고려할 때, 1890년대 이전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자식이 없는 노부부가 고기를 잡아 연명하는데, 하루는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아 집으로 가져와 아들을 삼았다. 두꺼비가 노부부에게 장자 집에 장가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허락 받을 방법을 알려주었다. 장자는 할머니의 혼사 제안에 화가 나 할머니의 목을 쳤으나 떨어진 목이 다시 붙는 것을 보고 막내딸과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첫날밤에 두꺼비는 막내딸에게 칼을 쥐어 주며 똑바로 눕더니 자기 배를 가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잘생긴 선비가 나왔다. 첫날밤을 잘 치르고 아침이 되니 선비는 다시 두꺼비 껍질을 쓰고 두꺼비로 지냈다. 두꺼비가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사는데, 마침 장인의 환갑날이 다가왔다. 동서들이 사냥을 가는데 두꺼비도 사정을 하여 따라갔다. 각자 헤어져 사냥하는데, 두꺼비는 선비로 변해서 사냥하였다. 따라온 마부가 놀라서 절을 하자, 두꺼비신랑은 글자 석 자를 적어 주면서 어느 곳에 가면 노인이 있으니 갖다 주라고 하였다. 마부가 노인에게 가져다주니, 노인은 글을 보더니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주문하느냐고 하였다. 두꺼비가 별별 짐승들을 모두 잡아서 산에서 내려오자 아무것도 잡지 못한 동서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동서들이 두꺼비에게 사냥한 짐승을 나눠 달라고 하자, 두꺼비는 동서들의 등에 어떤 글자를 쓴 다음 잡은 짐승을 모두 나눠 주었다. 장인의 환갑날 허물을 벗은 두꺼비는 선비 차림으로 처가로 가서, 여기에 자기 하인들이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장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하인을 찾자, 사위 둘을 보여 주며 하인 같은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두꺼비신랑이 그 사위들이 자기의 하인이라며 옷을 벗기니, 그들의 등에 ‘하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서들이 빌자 두꺼비신랑은 동서들이 자기를 고생시켰으니 이제 동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들의 등에 찍힌 도장을 지워 주었다. 그 후 두꺼비신랑은 부인과 아들 셋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잘 살았다.

변이 구혼이나 사냥 과정에서 두꺼비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두꺼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없는 변이도 있다. 동서들보다 활쏘기와 사냥에서 뛰어난 재주를 보여 줄 뿐, 동서들의 등에 투서를 한다든지 장인의 환갑날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내용 없이 몇 년 뒤 노부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승천하는 변이도 있다. 또한 두꺼비가 요술에 걸린 이웃 나라 왕자였는데 예쁜 셋째 딸과 결혼하면서 요술이 풀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거나, 두꺼비가 첫날밤에 허물을 벗은 대목에 이어 〈구렁덩덩신선비설화〉의 내용이 제시되기도 한다. 두꺼비의 구혼 과정이 〈구렁덩덩신선비설화〉와 유사하지만, 이후 장인이 왕과 간신이 부여한 난제를 해결하면서 왕위를 빼앗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변이와 고소설 〈두꺼비전〉의 내용에 더 가까운 변이 등이 있다.

분석 두꺼비의 출현, 노부부 집 부유하게 하기, 두꺼비의 결혼과 변신, 사냥 대결을 통한 동서 또는 처가 징치, 부부의 승천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중에서 ‘두꺼비의 결혼과 변신’을 기점으로 천상적 질서에 의해 지상적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 설화가 신화적 논리의 자장 안에서 형성된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두꺼비가 승천하는

것, 두꺼비 신랑이 처가의 박대를 받는 것, 사냥으로 신랑의 적격성을 시험받는 것 등은 적강소설과 ‘못마땅한 사위’형 고소설, 그리고 혼사 장애를 모티프로 하는 고소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설화의 내용은 다분히 설화적 문법을 따랐지만, 구성은 소설적 문법에 더 충실하게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특징 변신담, 이물교혼담 등의 측면에서 <구렁덩덩신선비설화>와 유사하다. 두 설화 모두 동물이 인간으로 변신하고 인간 처녀와 결혼하는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렁덩덩신선비설화>가 인간 여주인공의 고난과 고난 극복의 이야기인 반면, <두꺼비신랑설화>는 동물 남주인공의 고난과 고난 극복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의의 이 설화는 고소설 <두껍전>으로도 전하기 때문에 설화와 소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6, 718; 7-14, 79.
참고문헌 구렁덩덩신선비와 두꺼비신랑의 비교(이태문, 연민학지5, 연민학회, 1997), 두꺼비신랑설화의 신화적 성격(최원오, 온지논총1, 온지학회, 1995), 적강형 두껍전 연구(이지영, 한국문학연구3, 경기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3).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두꺼비의 보은

정의 두꺼비가 소녀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지네를 죽이고, 제물로 바쳐진 소녀를 구하는 내용의 설화.

역사 1920년대 초기 채록본(손진태)부터 1980년대 채록본(한국구비문학대계)까지 많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된 이야기다. 유사한 유형의 이야기가 중국과 일본에도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두 나라에 비해 보은과 퇴치의 이야기 구조가 안정되게 전승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으며, 청주 지역의 장터유래담이 대표적이다.

줄거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홀아비 장님 아버지를 부양하며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엌에 나타난 두꺼비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며 보살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큰 지네가 나타나 사람과 재산에 큰 해를 주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당집을 짓고 해마다 지네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소녀가 제물로 결정되어 두꺼비와 작별을 하고 당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꺼비가 나타나 지네와 맹렬히 싸웠고, 지네와 두꺼비 모두 죽었다. 소녀는 살아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에는 더 이상 지네의 피해가 없었다.

변이 비교적 오랜 기간 많은 지역에서 전승된 이야기라 각편의 수가 많은 편이다. 세세한 이야기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두꺼비가 자신을 보살펴 준 소녀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은 공통이다. 지네 대신에 구렁이(뱀)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소녀가 제물이 되는 경우는 자기 차례가 된 경우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돈을 받고 제물이 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지네를 퇴치한 두꺼비가 죽고 소녀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후 소녀에 대한 보상 부분도 각편에서 차이가 있다. 소녀가 지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간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돈이나 좋은 배필을 얻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인간에게 은혜를 입은 동물의 보은이 중심 사건을 이루고 있다. 다른 동물보은설화와 다른 점은 인신공희(人身供犧)가 주요 모티프가 된다는 것이다. 보은설화에서 잘 드러나는 윤리 의식은 이야기의 인물들에서 구체화된다. 먼저, 자신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가난한 소녀가 두꺼비를 보살핌으로써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행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자에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보은하는 두꺼비의 의리가 강조되고 있다. 소녀와 두꺼비가 공통적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심을 표상한다면, 정반대의 악한 인물은 이기심을 표상하는 지네와 마을 사람들이다. 지네는 강한 힘을 가졌으며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존재로 결국 처벌받는다. 마을 사람들은 집단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산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데, 이들은 집단 이기심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소녀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두꺼비는 의로운 일을 하고도 죽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약한 존재에 대한 보살핌, 즉 타인을 위한 이타심은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되지만, 은혜를 갚는 행위는 옳은 일이나 당연한 일로 보상까지 받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집단 이기심은 권장할 만한 덕목은 아니지만 지네와 달리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윤리의 가치 체계는 이야기를 전승한 집단의 윤리관 내지 가치 체계를 드러낸다. 어느 집단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있었는데, 이 행위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정당화되어 온 것이다. 인신공희와 같은 인간 희생제의(human sacrifice)가 대표

사례이다. 이 설화는 지네로 표상되는 존재, 막강한 힘이나 권력 혹은 그것을 소유한 자와 인간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를 보여 준다. 특히 당집을 지어 제사를 지낸 점을 볼 때,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한 공포심이 종교적 관습을 형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징 일반적으로 동물보은설화는 수혜자 동물이 은혜를 베푼 시혜자에게 보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홍부전>의 제비, <인불구 유래>의 사슴이나 구렁이, <선녀와 나무꾼>의 사슴처럼 동물들은 인간에게 귀중한 정보나 재화 따위를 제공하여 은혜를 갚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반해 <두꺼비의 보은>에서 두꺼비는 시혜자 인간을 돕기 위해 약한 존재와 싸우고 스스로를 희생한다. 또한 이 설화의 중요한 특징은 인신공희에 있다.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에게 약한 인간이 승배와 복종의 의미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는 신화, 전설, 고전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모티프이다. 경외심에서 우리나라는 승배 행위로 하는 인신공희와 달리 공포와 폭력에 굴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해지는 인신공희는 차이가 있다. 경외심으로 인신공희하는 전통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서 소개된, 전 세계에서 행해진 생산과 풍요를 위한 재생제의에서 잘 나타난다. 반면 우리나라의 설화에서는 <두꺼비의 보은> 말고도 <백일홍>이나 <김녕사굴 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무기나 뱀과 같은 흉악한 동물에게 강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백일홍>이나 <김녕사굴 뱀>에서는 남성 영웅이 출현하여 괴물을 퇴치하고 인신공희의 악습을 없앤다는 점에서 <두꺼비의 보은>과 다르다.

의의 동물을 내세워 인간의 윤리덕목이나 행동규범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한국의 동물(보은)설화의 전통을 잇고 있다. 또한 인신공희 모티프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악신에 대한 사유방식과 관계 맺기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악신 내지 공포의 대상인 지네와 인간과 상부상조하는 두꺼비의 대립 체계로 동물들에 대한 상상력이나 관념을 볼 수 있다. 특히 두꺼비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전통에서 재복신 혹은 가신, 수호신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신화적 동물관을 계승하고 있다.

출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5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8, 519; 8-14, 572,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문고, 1972).

참고문헌 동북아시아 와(蛙)설화의 전승과 의미체계(이종주,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학회, 1996), 두꺼비 보은형 민담의 유형분류와 해석(노영근, 비교민속학 46, 비교민속학회, 2011), 희생서사의 구조와 인물 연구(오세정, 어문연구116, 한국어문연구회, 2002).

필자 오세정(吳世鼎)

민담

두더지의 혼사

정의 두더지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윗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두더지를 사위로 얻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 어떤 두더지가 아주 예쁜 딸을 두었다. 세상에서 제일가는 사윗감을 얻고자 해에게 청혼을 하니, 해는 자신은 비록 만물을 비추나 구름이 가리니 구름이 자신보다 높다고 했다. 다시 구름에게 청혼을 하니, 구름은 바람이 한번 불면 흩어질 수밖에 없으니 바람이 자신보다 높다고 했다. 다시 바람에게 청혼을 하니, 바람은 저 발 가운데 서 있는 석불은 넘어뜨릴 수 없으니 석불이 자신보다 높다고 했다. 다시 석불에게 청혼을 하니, 석불은 두더지가 자신의 발밑을 파헤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오직 두더지가 자신보다 높다고 했다. 두더지는 비로소 자신이 천하에서 제일 높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같은 두더지를 사위로 삼았다.

변이 두더지를 보다 구체화하여 은진미륵 밑에 사는 두더지로 설정한 예도 있고, 두더지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윗감을 찾는 예도 있다. 쥐가 배필을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두더지와 결혼하는 예도 있는데, <쥐의 혼사>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두더지의 혼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겨난 변이로 생각된다.

분석 이 작품은 분수에 넘치는 엉뚱한 희망을 갖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두더지 혼인 같다.”라는 속담의 유래를 일러주는 설화이다. 이야기의 귀착점이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적 진행 형식을 취하는 대표적인 형식담이다. 능력이나 조건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나은 능력과 조건을 추구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순환구조를 통해서 보여 주는 작품이다.

특징 고대 인도의 우화집 『판차탄트라』에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중국의 『응해록(應諧錄)], 일본의 『사석집(沙石集)], 우리나라는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양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널리 전승된 우화(寓話)로 생각된다. 쥐의 혼인이 아니라 주로 두더지의 혼인인 점, 바람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설정한 사물이 산이 아니라 석불인 점이 우리 설화의 특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 305; 8-6, 5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327.

참고문헌 두더지 혼인설화의 인·종·한 비교고찰(황인덕, 어문연구48, 어문연구학회, 2005), 두더지 혼인설화(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형식담(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필자 심우장(沈愚章)

전설

등나무

정의 등나무의 발생 유래에 관한 전설.

줄거리 신라시대 한 마을에 연년생(혹은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다. 자매는 둘 다 이웃에 사는 한 화랑을 남몰래 짝사랑했다. 화랑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자, 언니와 동생이 각각 밤에 몰래 화랑을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다. 그제야 둘이 한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갈등을 겪던 자매는 연못에 몸을 던졌고, 죽어서 두 몸이 칭칭 얽힌 등나무가 되었다. 전장에서 돌아온 화랑이 이를 알고는 같은 연못에 몸을 던져 팽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등나무는 이 팽나무를 감고 자란다고 한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천연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된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등나무에 얽힌 전설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미와 다마끼(三輪環)가 편찬한 『傳説の朝鮮』을 보면 등나무 유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내용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백두산에 한 덩굴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라서 한 뿌리는 만주로, 다른 한 뿌리는 한국으로 뻗어 나갔다고 한다. 만주로 뻗어 나간 뿌리는 등나무가 되었고 한국으로 뻗어 나간 뿌리는 칙나무가 되었다. 때문에 조선에는 원래



경주 오류리 등나무
경북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문화재청

등나무가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일본에서 옮겨 온 것이라며 등나무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분석 등나무의 유래를 설명하는 다른 유형의 두 전설은,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만 '갈등(葛藤)'이라는 한자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갈(葛)' 자는 칙나무를, '등(藤)' 자는 등나무를 뜻하는데 일이나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단어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전설 속 자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죽어서도 갈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등나무가 된다. 이 전설은 줄기가 서로 얽혀 있는 등나무의 형상과 '갈등'이라는 한자어의 의미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의의 〈오늬힘내기〉, 〈악형선제〉, 〈등나무〉의 설화에 등장하는 형제와 남매, 자매는 가장 가까운 가족임에도 본질적으로 복잡한 갈등과 경쟁 구도 속에 있다. 설화 속에서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쫓아 내거나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 이렇게 가까운 가족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설화 속에 설화 향유층이 갈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나 관계,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난다. 갈등은 인간 삶에서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조차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삶은 이런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끊임없는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이러한 설화들을 통해 잘 드러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 76; 146.

참고문헌 삶, 구비문학, 구비문학 연구(신동훈,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학회, 1994), 옛날이야기(최인학, 최인학, 엄용희, 집문당, 2003),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은현정(殷賢貞)

전설

땀 흘리는 비석

정의 '사명대사비'라고도 하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비석면에 땀방울이 맺힌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전설.

역사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증거물만 있다면 인물이나 사건을 제시하여 환상적 요소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전한다. 신기한 현상을 기후 변화에 따른 외기 현상이나

결로 현상으로 보는 등 과학적으로 해명해도 비석이 그 자리에 있는 한 민중은 비석이 지닌 영험함을 믿는다.

줄거리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어 왜병을 크게 무찌르고 일본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 삼천 명을 한국시킨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옛 표충사 터에 비를 세웠다. 이 비를 세우고 나서부터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비석면에 땀방울이 맺혔다고 한다. 땀방울은 마치 구슬처럼 비석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변이 이 설화는 비석을 증거물로 하여 땀을 흘리거나 피를 흘리는 데서 유래한 이야기이다. '땀 흘리는 표충비(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알려진 비석은 경남 밀양에 있는데 나라에 큰일이 있기를 전후하여 땀방울이 맺혀서 몇 시간씩 구슬땀처럼 흘러내린다. 이 외에도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대제봉구비는 '피 흘리는 비석'으로 알려져 있다. 전북 벽골제의 북구비에는 비석에 낮을 갈다가 다친 사람은 영원히 낫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분석 비석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나라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 준다는 예지력을 믿는 민중의 신앙에 바탕을 둔다. 피 흘리는 비석에서는 본래의 자리에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비석이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성성과 진실성을 갖춘 객관적 증거물을 바탕으로 인간의 왜소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특징 〈땀 흘리는 비석〉과 〈피 흘리는 비석〉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전한다. '사명대사비'라고도 하는 경남 밀양 표충사에 있는 비석은 사명대사를 기리는 것이고, 전북 김제시에 있는 대제봉구비는 비석 근처에 땀을 흘리는 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면 비석이 피를 흘린다는 전설이 있다.

의의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비석이 먼저 알고 땀을 흘린다고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훌륭한 인물들이 미리 알려 줄 수도 있다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비석에 해를 가하거나 탐욕으로 훼손하면 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민중에게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출처 김제시사(김제시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7, 495; 517.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개론(김태곤 외, 민속원, 1996),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김영규 외, 개문사, 1979).

필자 박성석(朴性錫)

전설

떠내려온 섬

떠내려온 산

민담

떡보와 사신

정의 무식한 떡보가 중국의 대학자와 수화로써 대결하여 물리친다는 형식담 성격의 설화.

역사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야기의 기원지는 오리엔트 지역이라 추정되는데, 아라비아어로 쓰여진 〈40인의 대신〉(버튼이 영역한 『천일야화(千一夜話)』에 포함)이란 이야기 속에 기독교 수도사와 회교 수도승이 국왕 앞에서 문답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또 아라비아의 이븐·하심(伊本·哈心)의 작품 속에도 회교국 대사와 그리스의 왕자가 문답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유럽 최초의 기록으로는 15세기 전반 이탈리아의 승정 앙·루이스의 〈좋은 연서〉 중에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논쟁을 들 수 있다. 이어 16세기에는 프랑스의 작가 라블레의 명저 〈팡타그뤼엘 이야기〉 중에도 영국인이 수화로 논쟁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7세기 중엽의 중국 문헌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비롯하여, 이를 번역하여 수록한 11세기 일본의 『금석물어(今昔物語)』, 그리고 12세기 말 내지 13세기 초의 일본 문헌인 『우치습유물어(宇治拾遺物語)』 등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료가 늦게 채록된 탓이겠지만 시기적으로 훨씬 늦은 17세기 초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비로소 보인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의 문헌으로 보이는 『이언총림(俚諺叢林)』에도 수록되어 있고, 홍명희의 소설 〈임격정〉에서는 임격정의 처남 황천왕등이가 이방의 사위 취재(取才)에 응하는 데에 이 설화가 차용되고 있다.

줄거리 이웃 나라에서 조선의 인재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사신을 맞이할 인물을 찾던 끝에 전국에서 인재를 모집했다. 합당한 인물이 없어 근심하는데, 떡을 매우 좋아하는 떡보가 떡이나 한 번 싹둑 먹어보려고 자원하였다. 떡보는 뱃사공이 되어 압록강을 건너려는 이웃 나라 사신을 만났다. 말이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은 수화로 대화하였다. 먼저 이웃 나라 사신은 '하늘이 등

글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내보였다. 떡보는 동그란 떡을 먹었느냐고 묻는 줄로 알고 자기는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을 네모나게 하여 보였다. 이것을 사신은 '땅은 네모지다'고 대꾸한 줄로 알았다. 사신이 다시 '삼강(三綱)을 아느냐?'는 뜻으로 세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떡보는 세 개를 먹었느냐고 묻는 줄로 알고 다섯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다섯 개라고 하니, 사신은 떡보가 '오륜(五倫)까지 안다'고 답한 줄로 알았다. 사신이 이번엔 수염을 쓰다듬으며 '염제(炎帝[髡帝])를 아느냐?'라고 물어 떡보는 '배부르게 먹었다'란 뜻으로 배를 쓰다듬었는데, 사신은 '복희(伏羲[伏羲])까지 안다'라고 답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웃 나라 사신은 "이 나라에는 천한 사람까지도 학식이 저와 같으니, 다른 인물과는 겨룰 수가 없겠다."라고 탄복하며 돌아갔다. 나라에서 떡보에게 큰상을 내렸다.

분석 이 유형은 이제까지 <떡보와 사신>을 비롯하여 <사신 간의 수화(手問答)>·<중국 사신을 이긴 떡보>·<중국 사신과의 문장 겨루기> 등의 이름으로 채록 보고된 바 있다.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떡보'와 '사신'이란 점에서 <떡보와 사신>이란 명칭이 좋겠다.

이 유형 설화의 이본들은 대체로 중국인이 조선인의 역량을 시험해 보려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이에 맞서기 위한 인재 모집이 시도되고, 적격자로 양반 학자가 아닌 무식한 상민(常民)이 뽑힌다. 상민과 대결하게 된 대학자 사신은 언어불통한 탓에 수화로 대화하려 하나,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엉뚱한 오해로 대결을 끝낸다.

특징 우리나라 이야기들의 특징으로는 우선 대화자가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설정되어 각각 국가와 민족을 대표하여 대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질문자와 응답자가 주고받는 수화에서 질문자는 '천원지방(天圓地方)'·'삼강오륜'·'염제복희'로 말하지만, 응답자는 '네모진 떡'·'다섯 개'·'배가 부르다'로 대답하여 서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양측의 오해는 다른 나라의 유형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만, 질의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보인다. 가령 '염제'가 '수염[髡]'으로, '복희'가 '배[腹]'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유형의 설화들에서 두 사람의 대결이 대체로 세 번으로 끝난다는 점은 국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의의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젖었던 과거 상층 지배 계급은 종종 중국을 대국시한 나머지 '중국 땅', '중국 천자', '중국 사신' 대신에 '대국 땅', '대국 천자', '대국 사신'으로 불러 스스

로를 비하(卑下)하였다. 그러나 <떡보와 사신>의 창작자인 민중들은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식자층의 복종에 반발해, 이 설화를 통하여 '대국인'의 콧대를 여지없이 꺾어 놓는 '소국인'을 서술함으로써, 민족의 역량과 자긍심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다시 말하면, <떡보와 사신>은 민중들의 주체 의식의 발로이자 저항 정신의 표현이며, 이 설화를 통하여 우리는 지배층의 무력감을 뛰어넘는 민중의 승리를 엿볼 수가 있다.

출처 於于野譚, 조선동화대집(심의린,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조선민담집(손진태, 향토연구사, 1930),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학예사, 194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74; 1-4, 87, 783.

참고문헌 떡보와 사신설화 소고(조희웅,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The Types of The Folktale(S. Thompson, Suomalainen Tiedeakatemia, Academia Scientiarum Fennica, 1964).

필자 조희웅(曹喜雄)

전설

류성룡

柳成龍

정의 조선 선조 때 퇴계 이황의 문인이면서 임진왜란의 일등공신이었던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과 관련된 설화.

역사 류성룡은 조선 선조 때의 재상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이다. 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의 사촌마을 외가에서 태어났고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의 하회마을에서 성장했다.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 대사헌과 경상도관찰사 등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고, 임진왜란의 극복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징비록(懲毖錄)』 등의 저서를 남겼다. 류성룡의 행적과 관련하여 크게 4가지 유형의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첫째, 비범한 태몽과 출산 등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 둘째, 어린 시절의 비범한 사건, 셋째, 친형인 겸암(謙菴)이 돕거나 천우신조가 일어나 공을 세웠던 임진왜란 관련 이야기, 넷째,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서 우거, 별세, 현조로 모셔지는 과정과 관련한 이야기 등이다.

줄거리 류성룡이 여섯 살 때 강가에서 헤엄을 치다가 깊은 곳에 빠졌는데, 갑자기 들개바람(회오리바람)이 불어와 류성룡을 바위 위에 올려놓아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 후로 하회마을에서는 이 바위를 들고지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이 이야

기는 <서애대감 구한 들고지바위(서애대감 구한 능파대)>로도 불린다. 또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은 경상도 안동 하회 땅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뻗쳐오르고 있음을 알고, 서애를 죽일 요량으로 현소(玄蘇)라는 중을 자객으로 보냈다. 이를 감지한 겸암은 어느 날 서애를 불러 바둑을 두자고 했다. 국수(國手)로 불리는 서애였지만 궁지에 몰려 크게 지고 말았다. 겸암은 서애에게 36수를 훈수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해질 무렵 어떤 중이 와서 바둑 내기를 하자고 하며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할 것이니, 절대 재우지 말고 나에게 보내라."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서애의 집에 낫선 중이 찾아와 대국을 청했는데, 서애는 겸암에게 배운 36수를 동원해 크게 이겼다. 중이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자 서애는 거절하고 겸암에게 보냈다. 겸암은 중을 재운 후 한밤중에 중의 짐을 뒤져 나온 칼을 목에 대고 호통을 쳤다. 중은 도망쳤지만 아무리 가도 제자리였다. 겸암이 술법을 쓴 것을 알게 된 중은 겸암에게 백배 사죄하며 빌었다. 그러자 겸암은 신이 떨어진 중에게 엽전 두 냥을 주면서 "서쪽으로 10리에 있는 장터에 가서 신을 사라."라고 했다. 과연 겸암의 말대로 풍산 구담 장터로 가서 신을 사 신으니, 중의 발에 꼭 맞았다고 한다.

변이 류성룡 관련 전설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겸암과 서애의 이야기가 『한양가』 등의 문헌과 몇몇 각편에서는 '치숙(痴叔)'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회마을의 두 과를 이루고 있는 두 형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어리석은 숙부로 형상화함으로써 익명성을 확보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서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에서는 류성룡이 욕심 많고 세속적인 인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분석 류성룡 관련 이야기는 <돌고지바위전설> 등과 같이 인물전설과 지명 유래가 한데 복합되어 있는 양상이 드러나며, 대개의 실존 인물에 대한 전승의 폭이 지역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데 비해서 광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서애가 임진왜란을 수습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민중의 삶을 지키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애를 도운 이인 겸암 이야기는 안동 문화권 선비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수양하고 학문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지역 정서와, 종법 질서 속에서 벼슬과는 상관없이 중손에 대한 위상을 더 높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의의 류성룡 관련 전설은 드러나지 않는 이인으로서 겸암과 현실 정치에서 영의정까지 오른 서애를 대비하고 있다. 여기



하회마을 충효당
경북 안동시 풍천면, 문화재청

서 외부적으로는 서애 류성룡이 큰 인물로 숭앙되지만 지역이나 마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가의 계통을 잇고 있는 겸암 류운룡의 입지를 굳건히 세울 필요가 있기에, 서애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인물로서 겸암 혹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더욱 훌륭한 인물로서 겸암의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서애가 말년을 보내거나 묘가 자리잡은 마을에서는 세도가로서 여러 가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로 서애 관련 이야기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마을 성격에 따른 인물전설의 변이와 지역담론의 창출-안동지역 서애 류성룡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조정현,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설화에 나타난 겸암과 서애의 엇갈린 삶과 민중의식(임재해, 퇴계학5,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93), 영남의 전설(류중선, 형설출판사, 197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8, 940.

참고문헌 내고향 전통가꾸기(안동군, 1984),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안동시사(안동시사편찬위원회, 1999),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욱, 일조각, 1981),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필자 조정현(曹鼎鉉)

마고할미

정의 이 세상의 자연물 또는 지형을 창조한 거인 여신에 관한 신화.

역사 조선조 유학자들의 시편에 마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보이지만, 모두 중국의 『신선전(神仙傳)』에 기록된 마고의 형상을 옮겨 놓은 것이다. 1624년(인조 2) 홍익환의 『조선항해록(朝鮮航海錄)』에도 연행 길에 중국 마고선녀의 화상을 본 경험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국문소설(속향전)과 무가(바리테기)에서도 주인공을 도와주는 중국 천태산 마고할미의 형상을 만날 수 있다.

한국 마고할미에 관한 기록으로는 일찍이 신라 박제상이 기록했다는 『부도지(符都志)』가 있으나, 아직은 사료적 객관성에 대한 평가가 유보된 자료이다. 우리 마고할미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1771년(영조 47) 장한철(1744~?)이 쓴 『표해록(漂海錄)』이다. 표류하던 일행이 제주도 한라산을 만나자 기뻐 울면서 백록선자님과 선마선파(洗麻仙婆)님에게 살려달라고 축원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표해록』에는 “아득한 옛날 선마고(洗麻姑)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다.”라는 내용도 있다. 선마선파의 ‘선파’와 선마고의 ‘고’는 ‘할미’를 뜻하는 것이니, 신적 명칭은 ‘선마할미’이다. 선마는 설문대वाद 음이 상통하므로, 선마할미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서해를 걸어서 건넜다는 모습도 거인 형상의 한국 마고할미에 가깝다.

한편, 선마할미가 서해를 건넜다는 내용은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의 마고할미를 중국 도교 계통의 마고선녀가 유입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시기와 과정이 확실치 않다. 종종 서왕모वाद도 동일시되는 중국의 마고선녀는 신화의 내용이나 형상 면에서 한국의 마고할미와 많이 다르다. 기록이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마고할미가 창세신화의 주역인 것을 고려하면 그 역사는 아득한 창세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다.

줄거리 거인 여신 마고할미가 치마폭에 싸서 나르던 흙이 산 또는 섬이 되었다. 그리고 마고할미의 방뇨 또는 배변으로 산이나 하천이 생겨나기도 했다. 마을의 큰 돌은 마고할미가 손이나 채찍으로 굴리다가 던져서 그 자리에 앉힌 것이다. 마고할미는 마포(麻布) 구만 필로 옷을 지어도 몸을 다 감싸지 못할 정도로 몸집이 컸다. 또, 키가 얼마나 컸던지 완도

일대의 바다를 걸어서 다녔고, 그곳 해안의 선바위에 발을 딛고 오십이고개에 손을 딛고 용듬병의 물을 마셨을 정도였다. 힘도 엄청나서 양주의 노고산과 불국산에 두 다리를 걸치고 오줌을 누자 문학재 고개에 있는 큰 바위가 깨어져나갔다고 한다.

변이 마고할미는 산, 섬, 하천, 돌, 다리, 성곽 등의 창조에 관여하는 존재로, 창조의 대상과 행위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각편들이 전승된다. 한 예로, 산의 창조를 위한 마고할미의 행위도 각편에 따라 다양하다. 마고할미의 터진 치마 틈으로 떨어진 흙이나 마고할미의 배설물이 산이 되었는가 하면, 마고할미의 명령으로 때내려 오던 산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기도 한다. 한편 그녀가 눈 오줌 줄기가 바위를 깨거나 하천을 형성하였으며, 때로는 바다 물길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고할미는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마고할미라는 명칭 외에도, 경기 지역의 노고할미, 서해안 지역의 개양할미, 강원도 지역의 서구할미, 제주 지역의 설문대할망처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은 거인 여성의 형상과 창세 행위라는 면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다만 해안 도서 지역의 마고할미는 산, 섬, 바다의 창세에 관여하는 데 비해, 내륙 지역의 마고할미는 주로 산, 하천의 창세에 관여할 때가 더 많다. 마고할미가 산을 조성했다는 전설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내륙지역의 마고할미가 산과 친연성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고할미는 주로 특정 산과 연관되어 지칭되는 예가 많다. 전승 과정에서 창세신보다 산신의 성격이 강해진 것이며, 산신으로 좌정한 후에는 혼인과 출산이 이어지기도 한다. 지리산성모, 충청도의 안가닥할무이, 경상도 지역의 다자구할마이 등은 산신 마고할미의 계승이다.

그 밖에 흥미로운 변이형으로 악행을 일삼다가 효자에 의해 퇴치된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물의 깊이를 시험하다 한라산의 물장오리에 빠져 죽은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있다. 두 유형은 마고할미 신화가 신화적 신성을 상실하고 유교적 담론에 편승한 전설, 또는 희화적 민담으로 변이된 전형적 사례이다. 이러한 변이는 국가와 시작과 더불어 가부장 사회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여신들이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삼척 지역의 서구할미 유형은 ‘서구(瑞孺)’의 의미와는 모순되게, 마고할미가 음이 유사한 마귀할미로 와전되는 변이의 흐름을 보인다.

분석 〈마고할미신화〉는 민간에서 구비전승되어 온 거인 여신의 창세신화이다. 마고할미는 산, 섬, 하천, 돌, 다리, 성곽 등의 창조에 관여하였지만, 문헌에 기록되거나 국가적 제향의 대상이 되지 못한 존재이다. 유화나 선도산 성모처럼 여

신의 신화가 일부 문헌에 남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시조의 모신에게 허용된 현상이다. 무속제사에서 여신의 신화가 구송된 예도 생산신인 당금애기나 영혼천도신인 바리공주처럼 중요한 직능신에 국한된 것이었다. 〈마고할미신화〉는 민간에서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창조신의 지위를 상실하고 자연물 형성에 연관된 지명유래전설이나 퇴치되어야 할 부정적 신격에 관한 전설로 와전되어 일찍이 신화 연구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모신으로부터 당신으로 이어지는 여계 신성의 역사가 주목되면서 여신신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부계신화의 재편에 따른 여신의 주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신화의 변이 및 변이 요인에 대한 분석, 지역별 비교 연구도 이루어졌다.

특징 마고할미의 창세는 한국의 다른 신화에서 미륵이나 천지왕과 같은 남신이 행하는 창세와는 차별점이 있다. 남신은 천지개벽이나 일월 조정의 제1차적 창조를 하는 데 비해 마고할미와 같은 여신은 1차 창조 후 자연과 산천을 세상의 일부로 조성하거나 특정 지역의 지형을 형성하는 제2차적 창조 행위를 담당한다. 이렇게 1단계와 2단계의 창세가 남신과 여신으로 갈라져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 창세신화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여신의 주변화나 위계 변동과도 관련이 있다.

의의 〈마고할미신화〉는 민간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전설의 성격이 강해지고 더러는 민담적 희화까지 보태졌다. 그렇지만 거인 여신의 창세에 관한 내용이 뚜렷하고 풍부하여 한국의 창세신화 또는 여신신화의 국면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여신에 관한 서사라는 점에서 한국 여성사와 여성문화의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출처 한국국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568: 4-4, 813: 6-5,174 :175.

참고문헌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강진옥, 한국민속학25, 한국민속학회, 1993),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조현설, 민족문화사연구4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여성신화연구 1(천혜숙, 민속연구1,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호, 역락, 2002),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송화섭, 역사민속학27, 한국역사민속학회,2008), 한국의 신화(장주근, 성문각, 1961).

필자 천혜숙(千惠淑)

마누라본풀이

정의 제주도 큰 곳에서 구연되는 천연두 신인 마누라신의 근본 내력을 설명하는 무속신화.

역사 현재 제주도 무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속신화의 하나로 서사무가이며, 일반신본풀이에 속한다. 〈마누라본풀이〉가 언제부터 제주도의 큰곳에서 불렸을까 하는 문제는 이 본풀이가 구송되고 있는 ‘불도맞이’, 혹은 불도맞이가 속해 있는 제주도 큰곳의 역사가 해명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제주도 큰곳은 본토에서 전해진 것으로, 이러한 큰곳은 원래 열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불도맞이는 이 중 두 번째 거리에서 행해졌다. 육지 쪽 무속에서는 현재 〈마누라본풀이〉와 같은 신화는 구송되지 않고 있으나, 호구별상신이라 하여 마마신을 제외했던 흔적 및 마누라신의 노정기는 남아 있다.

줄거리 안사인 구연본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기산육신 생불할망이 어떤 날 만민자손에 생불을 주려고 서천강다리를 건너 사도전 거리에 갔다. 그곳에 이르니 생불할망 앞에 온갖 화려하게 꾸민 영기를 갖추고 삼만관속 및 육방하인을 거느린 대별상신이 인물 도감책을 가슴에 안고 아이들에게 호명정구를 주려고 길을 가고 있었다. 생불할망이 그 앞에 가서 공손하게 무릎 꿇고 자기가 생불을 준 자손이 마마를 곱게 앓게 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대별상신은 눈을 부릅뜨며 사물(邪物)인 여자가 앞길을 막는다고 호령하면서 생불할망이 생불을 준 자손들이 마마를 심하게 앓도록 하여 얼굴을 뒤웅박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겸손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신이 자신이 태어나게 한 아이들에게 마마를 심하게 앓게 하자, 화가 난 생불할망은 복수를 위해 생불꽃으로 마마신의 부인을 잉태시키고 열네 달이 되도록 해 복을 시키지 않았다. 부인이 죽어가게 되자 대별상신은 할 수 없이 생불할망에게 와서 잘못을 빌고, 이 여신을 위해 서천강 연다리를 놓아 준다. 생불할망은 이 다리를 밟고 대별상신의 집으로 가 아이를 낳게 해 준다.

변이 천연두를 앓게 하는 마누라신은 남신으로서 얼굴치지 혼합천궤벨금상마누라, 벨금상마누라님, 흥신국마누라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서는 마누라신은 서신국으로 표현되고, 흥신국은 흥역을 일으키는 여신으로 마누라신과 부부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누라신은 온갖 영기(승旂)와 함께 삼만관속 및 육방하인을 거느리고 다니며, 저승장

적, 이승호적과 같은 인물 도감책을 갖고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생불신이 대별상신의 부인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생불을 주고 잉태를 시키고는 해복을 시키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다.

분석 〈마누라본풀이〉는 제주도의 큰굿 중 불도맞이에서 〈할망본풀이〉에 이어 구송되고 있는데, 불도맞이는 아기 산육신인 맹진국따님애기(생불신=삼승할망), 아기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죽게 하는 동해용왕따님애기(저승할망=구삼승할망), 그리고 아기에게 마마를 앓게 하는 마누라신 등의 세 신을 맞이하여 아이 잉태와 안전 출산 및 안전 성장을 기원하는 의례다. 〈마누라본풀이〉는 단독제인 ‘마누라 배송’에서도 구송된다. 이것은 아기가 마마를 앓을 때 마마신을 청하여 마마를 곱게 앓고 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배송땃가라 하여 기를 쫓은 채롱 속에 갖가지 음식물과 돈을 넣어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갖다 버린다.

의의 생불신이 마마신의 항복을 받고 나서야 마마신의 부인이 아이를 낳도록 해 주는 것은 마마신보다 생불할망의 능력을 우위에 두고자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현실 삶속에서 이러한 신의 역량이 반영되어 아이들이 마마를 앓지 않도록, 혹은 앓더라도 가볍게 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술적 장치이다.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했던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민속문학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성신과 남성신의 갈등-여성신에 대한 남성신의 멸시와 모독-여성신의 복수-남성신의 항복과 같은 일련의 서사 구조를 가진 이 본풀이는 남성의 지배하에 억눌려 있었던 전통사회의 여성들에게 일종의 보상 심리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천연두인 마마는 어린아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쯤 앓는 병인데, 잘못되면 죽거나 혹은 얼굴에 흉한 자국이 남아 꿈보로 일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탓에 아주 무섭게 생각했던 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두는 19세기 말 지식영에 의해 중두법이 실시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마마를 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본풀이는 앞으로 무속의례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출처 마누라본풀이(고대중 구연본,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마누라본풀이(안사인 구연본, 현웅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마누라본풀이(진부옥 구연본,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할망본(고술생 구연본,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참고문헌 삼신신앙의 기원과 성격(이수자, 제주도언어민속논총, 1992),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한국문화에 나타난 불의 다층적 의미와 의의(이수자, 역사민속학11, 역사민속학회, 2000).

필자 이수자(李秀子)

전설

마십굴

정의 황해도 수안군에 있는 마십굴의 유래에 얽힌 전설.

줄거리 황해도 수안에 마십이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예쁘고 마음 착한 아내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던 마십은 웬 젊은 사냥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들쳐업고 내려왔다. 부부의 정성스러운 구완에 되살아난 청년은 고을 원님의 아들이었다. 청년은 부부가 자기를 살려 준 은혜를 잊고, 마십 아내의 미모를 탐내서 그를 꼬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부하자 장정을 데리고 와서 그녀를 강제로 가마에 태워 납치했다. 원님 아들은 마십에게 벼랑을 가리키며 거기 50리 굴을 뚫으면 여자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마십은 그날부터 망치와 끌로 바위를 뚫기 시작했다. 백 일째 되던 날, 갑자기 바위가 뿔뚝 나뉘고 굴이 나타났다. 안에 50리나 되는 굴이 있었던 것이다. 마십이 굴로 들어가 맞은편으로 나와 보니 그곳은 원님 집 뒤뜰이었다. 마십은 아내를 데리고 굴로 도망쳤다. 원님 아들이 사람을 보내 마십을 쫓게 했으나 굴이 무너져 사람들이 깔렸다. 원님 아들은 급히 굴 반대편으로 와서는 입구에 불을 질러 굴속으로 연기를 피워 보냈다. 하지만 사람 대신 물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그 뒤로 마십 내외를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마십의 굴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흘러나오며, 바위에는 마십이 그어 놓은 백 개의 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

변이 전설의 주인공 이름은 ‘말십’이라고도 하며 ‘말쌩’이라 되어 있는 자료도 있다. 원님 아들이 불을 피우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하는 대신 사람들과 함께 마십을 뒤쫓다 굴이 무너져 죽었다고 하기도 한다.

분석 북한 연구자들은 이 설화를 백성의 고상한 품성과 대비되는 지배층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투쟁의식을 표현한 전설로 평가해 왔다. 마십과 원님 아들의 선명한 선악 대비는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된다. 바보로 불리던 마십이 우직한 노력으로 바위에 굴을 뚫었다는 것은 전설적 경이를 잘 보여 준다. 마십 부부가 끝내 굴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짙은 어운을 남기면서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부각한다.

특징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 선과 악의 어긋남, 자연의 신비와 경이, 이름답고 슬픈 사랑과 같은 여러 서사요소가 긴

밀하게 잘 짜인 전설로 문학적 가치가 높다.

의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식이 잘 표현된 이야기로, 북한에서 민간 전설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인상적인 서사와 캐릭터가 큰 감명과 여운을 전해 준다.

신화

마을신화

정의 개촌(開村)의 신성한 역사를 비롯하여, 마을에서 섬기는 당신의 좌정 유래과 영험에 관한 신화.

역사 고대 제의에 관한 기록은 나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행 제의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대로 내려와도 읍치(邑治) 성황사(城隍祠)에 대한 기록들이 대부분이다. 자연촌들이 성장하여 하나의 리(里)로서 독자적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16세기 이후는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동신신앙이 체계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개촌의 역사나 마을 단위로 모신 신당 및 신격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사람이 죽어 당신이 된 인격신의 사례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보인다. 『동국여지승람』 22권 양산군 사묘(祠廟) 조에는 고려 태조를 도왔던 김인훈이 죽어 성황사신(城隍祠神)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26권 밀양도호부 사묘 조에는 역시 고려 태조를 도운 공이 있었던 손공훈이 사후 성황사신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오늘날의 당신화에서 반복되는 ‘현몽을 통한 신격 좌정’과 ‘원혼의 신격화’ 모티프는 이미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 1의 〈달해왕〉과 〈내물왕과 김제상〉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책의 권2 「기이」 2의 〈가락국기〉에 나타난 수로왕 ‘신당의 금기’도 오늘날의 당신화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모티프이다.

내용 마을신화는 마을에서 섬기는 당신에 관한 신화를 비롯하여, 개촌의 신성한 역사에 관해 말하는 신화적 언술을 포함한 개념이다. 나라에는 국가시조신화가 있고 가문에는 성씨시조신화가 있듯이, 마을에도 개촌시조에 관한 신화가 있었음직하다. 개촌시조가 사후 마을 당신으로 좌정한 사례도 많다. 그런데도 개촌조에 관한 신화적 서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신화 전승집단의 부침과 이주 등으로 인해 망각되었기 때문이다. 개촌조의 문중이 여전히 동성촌을 유지하고 살아왔다고 해도, 시조에 관한 신화는 족보나 문집의 체계로 편입되고

출처 조선민간전설(윤영·조정현·최용범,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90),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3, 218.

참고문헌 조선 구전문학 개요(장경표, 사회과학출판사, 1990), 조선 구전문학 연구(고정옥, 과학원출판사, 1962).

필자 신동흔(申東昕)

그 내용도 업적을 현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동해안 해촌에는 동성촌은 아니지만 개촌시조를 당신으로 모신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오랜 전승 과정에서 신화는 망각되고 본관과 성씨만 기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씨 터전에 ○씨 문전에 ○씨 배판”과 같은 향언이 함께 전하지만, 신화만큼 상징적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을사의 전개 속에서 당신의 정체와 신화가 망실된 후, 어떤 계기로 원혼신(冤魂神)이나 다른 연고가 있는 신적 존재가 당신으로 좌정하기도 한다.

현재는 원혼 당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죽동에 좌정한 금성대군이다. 죽동에는 금성대군 원혼이 자신을 모셔달라고 권씨 부인에게 현몽하여, 동회를 거친 후 모시게 되었다는 내용의 좌정담이 전한다. 마을에 일어난 원인모를 괴변들이 신적 존재의 해코지로 밝혀져 그 존재를 동신으로 모시는 경우도 많다. 당신의 좌정 계기로 흔히 나타나는 것이 현몽과 해코지의 모티프이다. 동회에서 좌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신성의 섬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신화는 그 신화를 신성시하는 집단의 것인 만큼, 마을 단위로 그 신성을 섬기는 데는 마을공동체의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마을에서 신화인 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한갓 전설일 수 있다.

산신이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한 사례도 있다. 충청남도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에서는 죽령산신 다자구할머니를 당신으로 모신다. 문경세계의 신을 마을의 당신으로 모셔 왔다는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마을의 사례도 흥미롭다. 그런가하면 경북 안동시와 봉화군 일대의 여러 마을에서는 공민왕 가족신군(家族神群)을 당신으로 섬기고 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 일대에서 조기잡이신으로 섬기는 임경업장군도 가족신군의 형태를 취한다.

동제가 지속되는 마을에서는 당신의 영험을 강조하는 언술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 굿은 일이 자꾸 일어나 당집을 옮기게 되었다든가, 신당이나 동제 금기를 어긴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든가 하는 영험담들은 마을신과 동민간에 이루어진 일종의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동신신앙이 지속되는 한, 이런 신성체험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영험담들은 좌정담 못

지않게 살아있는 신화로 주목되었다. 따라서 신화인이 아닌 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료의 언술방식이 아니다. 마을 단위에서 그 신격을 대상으로 동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신성에 대한 마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제야말로 당신화가 형성되고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이다. 무엇보다 당신화가 마을신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동제의 지속적 수행을 통해서 신성의 상징으로 살아있기 때문이다.

특징 이 신화는 제주도 당본풀이처럼 동제에서 직접 구송되지 않는다 해도 동제의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승될 뿐 아니라, 동신신앙의 지속과 더불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나라와 가문의 시조신화는 더러 기록으로 남아 있는 데 비해서, 개촌시조 신화는 기록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오랜 구전 과정에서 망실될 경우가 많다. 원혼신은 개촌시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서 마을신으로 자리잡은 존재들이다. 원혼신 가운데는 왕이나 장군, 대군도 있지만 이름없

이 죽어간 익명의 존재들이 더 많다. 원혼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마을신화의 한국적 특징이라 할 만하다.

의의 마을신화는 마을공동체를 우주의 시작으로 보는 신화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 비록 신화적 서사는 망각되었지만 개촌의 존재는 향언으로, 나아가 마을의 신격으로 살아 있다. 그리고 마을신과 관련된 영험담들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신화 만들기(myth making)’의 실체로서, 동신 신앙을 지속하게 해 주는 구실을 한다. 또한 원혼신의 신격화를 통해서 신원(伸冤) 또는 해원(解冤)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문화적 심성을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동해안 여촌 당신화 연구(이승철, 민속원, 2004), 문경화장마을의 당신화와 동제의 관계(한국민속학보 9, 한국민속학회, 1996), 민속신화의 범주와 그 민속사회적 가치(천혜숙, 인문과학 28,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전남의 당신화 연구(표인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필자 천혜숙(千惠淑)

전설

마이산

馬耳山

정의 전라북도 진안의 마이산이 커 올라가다가 멈추었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진안현 산천조에 따르면, 마이산에 높이 솟아오른 두 개의 산봉우리를 용출봉(湧出峰)이라 하였는데 동쪽을 아버지, 서쪽을 어머니라 했다고 한다. 마이산의 두 산봉우리를 남녀 산신으로 인식하



마이산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한국관광공사

는 관념에 산이동설화와 산의 독특한 형상에 대한 유래담이 결합하여 형성된 설화로 파악된다.

줄거리 부부인 암수 마이산이 비밀리에 커 올라가기로 하였다. 암 마이산은 새벽에, 수 마이산은 밤에 크자고 하였는데, 결국 암 마이산의 요구에 따라 두 산은 새벽에 커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가 이를 발견하고 “산이 크고 있다.”라고 소리치자, 부정타서 두 산이 크기를 멈추고 주저앉아 버렸다. 암 마이산이 한 말을 들었다가 여자에게 들켜서 못 크게 되었다며 수 마이산은 화가 나서 암 마이산을 발로 차 버렸다. 그래서 암 마이산이 지금처럼 돌아앉은 형상이 되었다고 한다. 두 산이 그대로 커 올라갔으면 지금 그 자리가 서울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변이 산의 이름은 서다산, 용출산, 마이산으로 역사적 변천이 있었으나, 구전설화에는 솟금산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져 있다. <솟금산전설>의 상상적 근원이 말의 귀를 닮았다는 인상보다는 역동적으로 솟아오른 산의 형상에 대한 인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산이 커 오르는 대신 서울로 가다가 멈추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산이 커 오른 곳이 서울이 된다는 발상에는 주변의 한계를 부정하고 중심을 지향하는 지역 전승자들의 현실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자가 한 말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식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 설화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남

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여자의 말에 부정타서 산이 더 크지 못했다는 좌절에서 끝나지 않고, 수 마이산이 화가 나서 암 마이산이 낳은 두 아이를 뺏고 발로 차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 이는 두 산봉우리의 독특한 형상에 대한 설화적 해명으로 이 설화를 전승하게 하는 중요한 내적 원인이 된다.

특징 이 설화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산의 형상이 잘 보이는 곳일수록 산의 외형에서 비롯되는 상상력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잘 안 보이는 곳일수록 이야기가 간략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산의 독특한 형상에 대한 인상이 설화의 형성과 전승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의의 이 설화는 산이동설화의 지역적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산 이름은 마이산으로 알려졌지만 구전설화로는 솟아오른 산의 모습에서 비롯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솟금산전설>이 전해진다. 즉, 이 설화가 지역적 변이형이 갖고 있는 보편성에 함몰되지 않고 독특한 지역형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구비문학적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2, 47; 81.

참고문헌 산이동설화의 연구(최래옥, 관악어문연구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솟금산전설 연구, 상상의 형상화 양상과 그 지속성(황인덕, 대전어문학16,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9), 솟금산전설의 유형성과 전승양상(황인덕, 어문연구29, 어문연구회, 1997).

필자 김월덕(金月德)

전설

막산이

정의 막산이의 내력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 지역의 장사전설.

역사 <막산이전설>은 신화의 이야기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신화에서 대식(大食)을 영웅의 징표로 삼던 것을 전설에서 적극 받아들인 경우이다. 제주도 지역 전설의 장사는 이처럼 영웅의 면모를 타고났으나 배불리 먹지 못하여 결국 좌절하고 만다. 막산이는 장사이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종의 신분이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는 탓에 오히려 종의 신분마저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좌절한다. 대식을 징표로 삼던 남성신은 힘센 장수라는 영웅의 면모를 지닌 존재였다가, 타고난 힘은 있으나 쓸 데가 없어 남의 집 종으로 전전한다. 그러다

가 결국 도둑질이나 일삼다 죽는 존재로까지 변모한 뒤에 사라져 간 셈이다.

줄거리 막산이는 부잣집 종이였다. 하루는 주인 집에서 50명이나 되는 일꾼들의 점심을 준비하느라 야단법석이었다. 막산이는 주인에게 50인분의 점심을 모두 주면 혼자 일을 다 해내겠다고 하고 허락을 얻었다. 미심쩍었던 주인은 점심때쯤 되어 막산이가 일하는 곳으로 가 보았다. 논밭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으나 먼지가 구름처럼 자욱하여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 보니 일이 모두 끝나 있었다. 주인은 막산이의 힘에 놀랐으나, 그보다 막산이의 먹성에 놀라고 말았다. 그래서 막산이를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종문서를 내어 주며 내쫓고 말았다. 막산이는 갑작스럽게 쫓겨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하였다. 하는 수 없이 제주목과 대정현을 오가는 길목에 숨어 지내면서 남의 소를 빼앗아 잡아먹다가 잡혀 죽고 말았다. 힘이 장사이면서 지혜도 갖춘 정운디라는 인물에게 잡혀 죽었다고 하기도 한다.

변이 인근 지역에서는 <새샘이>, <논하니>와 같은 이야기로 전승되기도 한다. 주인공과 전승 지역이 바뀌지만 주요 내용은 별로 다르지 않다.

분석 이 전설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다만 신화 속 영웅의 면모를 물려받은 전설적인 주인공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연구에 그쳤으며,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간 사례는 찾기 어렵다.

특징 주인공이 능력을 드러내기 전에는 그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었으나, 능력을 드러낸 뒤에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좌절하는 이야기이다. 종의 신분이라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종의 신분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된다. 신분보다 먹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룬다.

의의 막산이는 본풀이의 장수신을 계승한 인물이다. 주인공의 신분이 종으로 하락하고 결국 좌절하는 이야기로 바뀌면서 철저하게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신화적 맥락의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로 바뀌는 과정을 뚜렷이 살필 수 있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설화집성1(김영돈 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9-3, 27.

참고문헌 제주도 장수설화(현길언, 흥성사, 1981).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만어사

萬魚寺

정의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만어산 만어사(萬魚寺)의 창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자성산(慈成山) 또는 아야사산(阿耶斯山)이라는 곳 곁에 가라국(呵囉國, 가락국)이 있었다. 하늘에서 바닷가로 내려온 알에서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린 이가 있었으니, 바로 수로왕(首露王)이다. 그때 나라 안에 옥지(玉池)란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 속에 독룡(毒龍)이 살고 있었다. 만어산에 살던 다섯 나찰녀(羅刹女)들이 이 독룡과 왕래하며 교접한 까닭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려 4년 동안 오곡이 익지 않았다. 수로왕은 주문으로 그들이 왕래를 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로왕이 부처를 청해 설법을 하게 하니, 나찰녀들이 오계(五戒)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재앙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골짜기 속의 돌로 변하였는데, 그 돌에서 쇠북과 경쇠의 소리가 났다. 이곳에 만어사를 지었다.

변이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이 설화는 『고기(古記)』에 전하고 있는 것을 일연(一然)이 옮겨 실은 것이다. 일연은 이를 믿을 만한 것이라 하면서, 『관불삼매경(觀佛三昧海經)』(실제 문헌은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 제7권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고기』의 기록보다 더 상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 경전 속에 등장하는 나건가라국(那乾訶羅國)의 독룡과 나찰의 사귀를 왕이 석가모니를 청해 진압했다는 사건이 후에 '가라국'의 김수로왕의 이야기로 변이된 것이다. 불교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된 만어사 창건설화는 '너덜지대'로 알려진 만어사 주변의 수많은 돌들을



만어사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2010.7.29, 시흥



용왕의 아들이 변신한 미륵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2011.11.11, 배도식

증거물로 삼아 지속적으로 전승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보면, '만어산 경석(萬魚山磬石)'이라 하여 동해의 물고기와 용이 돌로 변했다고 세상에 전한다고 했고, 세종 때에 이를 채굴하여 악기를 만들었지만 음률이 맞지 않아서 폐지하였다고도 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전하는 설화를 보면, 경전의 불교적 색채가 많이 탈색되어 나타난다. 가라국 수로왕의 꿈속에서 동해 용왕이 도사의 범문을 듣고 좋아서, 아들과 일만 마리의 물고기들을 함께 보내 범문을 배워 오게 한다. 그들은 만어사가 있는 자성산에 왔다가 해일로 돌아가지 못한다. 용왕의 아들은 미륵돌이 되고, 물고기 일만 마리는 모두 너덜경이 된다. 이 꿈을 꾸고 난 수로왕이 그곳을 찾게 되어 만어사를 짓는다.

분석 이 설화는 불교 경전의 설화를 바탕으로 사찰의 창건설화가 재편된 결과를 잘 보여 주는 서사물이다. 『불설관불삼매해경』에 등장하는 '가라국'이나 '국왕'은 만어사 창건설화에서 '가라국'과 '김수로왕'으로 변화하면서, 독룡과 나찰귀들을 물리치고 사찰을 창건하는 이야기로 변화되었다. 이 설화는 '불국토 신앙'을 구체화하는 설화로서, 김수로왕을 내세워 만어사가 역사가 깊은 사찰임을 드러내기 위한 설화로서 재편된 것이다. 최근 전하는 구비설화는 불교적 의미는 많이 탈색된 상태로 사찰 주변의 너덜경이나 바위들의 유래를 전하는 것으로 변이되어 전승되었다.

의의 불교경전을 바탕으로 재편된 불교설화이자, 사찰 창건설화의 형성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설화로서 그 의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8, 182.

참고문헌 불교문학의 환상성과 사찰연기설화(오대혁, 불교어문논집9, 한국불교어문학회, 2005), 신라불교설화연구(황태강, 일지사, 1975), 한국사찰연기설화의 연구(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필자 오대혁(吳大赫)

전설

만파식적

萬波息笛

상호텍스트 연구 문무왕

정의 신문왕이 바다의 용에게 얻은 신기한 대나무 피리인 만파식적에 관한 전설.

역사 인간에게 신기한 대보(大寶)나 신인을 증여한 증여담이다. 이 유형의 설화에는 〈연오랑세오녀〉, 〈처용설화〉, 〈천사옥대〉, 〈보양이목〉, 〈진표전간〉, 〈가타지설화〉, 〈낙산사 연기설화〉, 〈한우물설화〉 등이 있다.

줄거리 해관 박숙청이 신문왕께 한 작은 산이 감은사를 향해 떠 온다고 보고하였다. 일관이 점을 쳐서 이는 용신 문무왕과 천신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대보를 줄 징조라고 아뢰었다. 왕이 그달 이렛날 이견대로 거동하고 심부름 간 사람이 돌아와서 산 모양은 거북처럼 생겼고 그 위에 대 막대가 한 개 있는데 낮에는 돌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친다고 하였다. 왕이 감은사에 묵던 이튿날 대가 합쳐서 천지가 진동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레 동안 캄캄하다가 16일이 되어서야



이견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브리, 문화재청

바람이 잦아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자 용이 검은 옥대를 가져와 바치고 "이 대를 가져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으시면 천하가 화평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금과 옥으로 시주하고 칙사가 대를 꺾어 바다에서 나왔다. 왕의 행차가 돌아와 그 대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의 천존고방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나고 바람이 자고 파도가 잦아졌으므로 이름을 '거센 물결을 자게 하는 대(萬波息笛)'라 하여 국보로 일컬었다.

변이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 부래짐, 대, 피리, 피리의 명칭, 피리의 기능은 항체로 전승되고 있다. 반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대체로 생략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오늘날 〈만파식적설화〉가 증여담의 보편 구조로 기억·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발생학적으로는 국가적 제의에 근거한 설화 혹은 용신극의 구술상관물로 볼 수 있다. 신양적으로는 토착룡·호법룡·호국룡이 결합한 한국 고유의 호국불교신앙과 관계가 있다. 정치적으로는 신문왕 당대의 국내의 문제 해결과 김씨 왕족의 정통성 확립과 관련된다. 사상적으로는 예악을 강조하는 유교 정치이념의 표방을 나타내며, 음악적으로는 신라 나름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다.

특징 〈유리전설〉이나 〈지하국대적퇴치설화〉는 주인공의 의지로 신성한 물건이나 사람을 찾아 귀환한다는 점에서 탐색담이다. 〈만파식적설화〉는 수령자의 지위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령자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여담이다. 이러한 점에서 〈만파식적설화〉는 다른 탐색담과 구별된다.

의의 〈만파식적설화〉는 신문왕이 신성 징표를 획득하는 신비체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신비체험은 통일 직후 신라의 종교, 사상, 정치, 음악 등을 함축하는 문화 기호이다. 이는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으로 전개되는 신라 중대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만파식적설화의 서사구조와 역사적 의미(박진태, 국어교육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만파식적설화의 역사적 의미(김남형, 한국학논집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만파식적설화의 연구(장장식, 국제어문6·7, 국제어문학회, 1986), 만파식적설화의 형성과 의의(김상현, 한국사연구34, 한국사연구회, 1981), 방언에서 본 만파식적과 문무왕릉(서정범, 한국민속학8, 한국민속학회, 1975).

필자 김화경(金和攄)

말무덤

정의 장수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명마의 능력을 시험하려다가 부주의나 실수로 죽인 다음에 만든 말무덤에 관한 설화.

역사 전국적으로 분포된 〈말무덤설화〉는 일반적으로 무명의 장수와 결부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연관 있는 실존인물인 흑치상지, 견훤, 최영, 이성계를 비롯하여 많은 유명한 장군들 과도 결부되었다. 그리고 의병장인 곽재우, 김덕령이나 왕에게 반역하였던 정여립, 이몽학, 이괄과 같은 거의 모든 장수들의 수련기 과정에서 나타난다. 〈치마대전설(馳馬臺專說)〉의 증거물로 등장하는 이 전설은 지명유래담으로 등장한다.

줄거리 옛날에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능력을 쌓기 위해 천하의 명마를 얻어 끊임없이 무예를 닦았다. 어느 날 장수는 훈련하다가 말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자 쓴 화살과 빠르기 내기를 하였다. 장수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화살이 보이지 않자, 화살보다 늦게 온 줄로 알고 말의 목을 베었다.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와 말에 꽂혔다. 장수는 자신의 실수로 아까운 명마를 잃게 되었다고 후회하면서 말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변이 〈치마대전설〉의 변이를 보면, 훌륭한 말이란 하늘이 내려 준 천마, 용마라는 각편도 있다. 용과 말이 결합한 용마는 장수의 능력을 확대해 줄 존재임을 상징한다. 또 시험에서 말이 빨리 도착하지만, 앞에 〈오뎅힘내기〉 삽화(挿話)가 결부된 김덕령 등 일부 장수의 〈치마대전설〉에는 누이의 원귀가 화살을 잡아 말을 죽이게 하기도 한다.

분석 〈치마대전설〉은 장수가 활동 반경을 넓혀 줄 훌륭한 말(용마)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한다. 장수가 역사적 주체 세력으로 편입되지 못하였을 때, 장수의 능력을 확대시켜 줄 말을 죽여 한계를 가진 인물로 만든다. 또 충직한 말은 장수를 위해 온 힘을 다하였음에도 장수의 경솔함으로 죽임을 당한다. 민중은 이 전설을 통해 권위적이고 부도덕한 지배층의 횡포를 풍자한다.

의의 ‘말무덤’은 어학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묻힌 큰 무덤이라는 의미도 있고, 〈치마대전설〉의 증거물인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일 수도 있다. 특히 치마대전설의 증거물로서의 ‘말무덤’은 문인에게도 성장기의 수련담으로 등장한다. 이 설화에서 말의 죽음은 말뿐만 아니라, 소중한 말을 잃은 장수

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 이성계나 최영처럼 후회하면 성공하지만, 후회가 없는 인물은 최후에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출처 부여의 구비설화1·2(김군태·강현모, 보경문화사,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176; 8-11, 404.

참고문헌 비극적 장수설화연구(강현모,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필자 강현모(姜賢模)

말바위

정의 말[馬] 형상을 한 바위에 관한 전설.

줄거리 옛날 한 스님이 어느 마을의 부잣집에 가서 시주를 부탁했는데 욕심 많고 인정없는 주인 영감이 시주는커녕 물벼락을 안기고 머슴들을 시켜 몰매를 때리게 했다. 느닷없이 봉변을 당한 스님은 혼잣말로 “뒷산의 바위를 부수면 이 집에 자자손손 정승이 날 텐데.”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주인 영감이 석수장이를 데리고 가서 바위를 부수려고 망치를 내리치는 순간 굉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가 깨지며 영감과 석수장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그날 밤 뒷산에서 구슬픈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가 보니 옛 바위의 형상은 간데없고 대신 말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의 바위가 우뚝 서 있었다. 그 뒤로 마을에는 재앙이 끊이질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학대한 영감 때문이라 생각하여 인심을 후하게 쓰자 차츰 안정을 되찾았다고 한다.

변이 말 형상을 한 바위전설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전승된다.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복흥리 횡산마을에서는 마을 처녀를 납치해 가던 오랑캐의 대장이 그 처녀를 사랑한 이웃 마을 명궁 총가의 화살에 맞아 쓰러졌는데, 얼마 후 그 자리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 형상의 바위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에서는 부잣집 여자들이 손님을 대접하기가 싫어서 한 노인에게 부탁해 집 뒤의 산에 있는 말처럼 생긴 큰 바위를 깨뜨리도록 했더니 부잣집 용마루에서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튀었고 사람이 죽는 흉사가 이어지다 결국 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분석 고대부터 말을 신성시해 온 관념과 말의 신이(神異)한

능력을 현실 삶과 연결 짓는 사고가 낳은 산물이 바로 〈말바위전설〉이다. 〈말바위전설〉에서 말은 재앙을 예시하는 존재로서 뒷산의 바위는 말의 상징물인 썸이다. 바위를 깨뜨리자 구슬픈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용마루에서 시뻘건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는 것은 곧 재앙을 예시한 것이다.

특징 〈말바위전설〉은 말의 신이한 능력을 형상화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위 형상의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 말 형상을 한 바위를 부수게 된 사연을 전하는 이야기, 용마(龍馬)와 신마(神馬) 이야기처럼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

의의 인색한 부자의 악행과 그 징벌에 관한 〈말바위전설〉은 말의 신이한 능력을 빌려 권선징악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을 전하고 있다.

출처 울촌면지(울촌면지편찬위원회, 1998), 흥천의 전설과 효열(흥천문화원, 대양출판사, 1998), 횡성의 전설과 설화(횡성문화원, 1998).

참고문헌 민속문화에 나타난 말의 의미(표인주, 한국의 馬민속, 집문당, 1999), 설화에 나타난 말(최운식, 한국의 馬민속, 집문당, 1999).

필자 김태수(金泰水)

말하는 남생이

정의 말하는 남생이의 도움으로 잘살게 된 효자에 관한 설화.

줄거리 옛날에 아주 가난한 모자가 살았다. 명절 지낼 걱정을 하며 나무하러 산에 오른 아들이 신세 한탄을 하는데 앵무새처럼 자신의 말을 받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놀란 아들이 말을 되풀이하였고, 돌 밑에서 자신의 말을 똑같이 흉내 내는 남생이를 발견하였다. 아들은 남생이를 지고 서울로 가서 똑같은 말을 남생이와 주고받으며 큰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말하는 남생이를 팔아서 아들은 잘 살게 되었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말하는 남생이에 대한 여러 변이 형이 있다. 〈마음씨 고운 남생이〉, 〈남생이〉, 〈말하는 남생이〉, 〈효자와 자라〉 등이다. 이들은 대개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서 채록되었다. 대체로 효행설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부모님을 공양할 것을 염려하다가 남생이를 만나게 된다. 남생이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장에 나가 큰돈을 번다는 이야기다. 경상남도 김해군 상동면에서 채록된 〈효자와 자라 설화〉는 말하는 남생이와 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있으나

민담으로 되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고 풍부하게 전한다. 이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나 도깨비방망이의 이야기처럼 형과 동생 사이의 선악의 결말을 회화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분석 많은 변이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과 인간의 교류가 전제된 동물담의 한 부류이자 효행설화와 연관이 깊다. 또한 빈부차를 가진 형제간의 갈등을 그린 점과 서남 해안에서 주로 채집된 점을 감안할 때 남방설화의 영향 관계가 추정되는데 〈별주부전〉과의 연관성과 말하는 남생이를 어떤 연유로 이야기의 주요 모티프로 설정했는지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징 강강수월래의 춤놀이 중에는 ‘남생아놀아라’라는 놀이가 ‘고사리꺾기’, ‘청어꺾기’, ‘기와꺾기’ 같은 다양한 놀이와 함께 구성된다. 남생이 역을 하는 몇 사람이 손을 잡고 둥근 원을 그린 중앙에서 자유로운 춤을 추는 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음성과 경기도 이천 일원에서 전승되는 거북놀이와 연관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1972년도에 복원된 이천의 거북놀이에는 남생이 한 마리가 거북이 두 마리와 함께 등장하는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1, 452; 6-1, 308; 6-5, 41; 8-9, 1016.

참고문헌 강강수월래 민속고(최상수, 학술계1, 학술계사, 1958), 이천 거북놀이의 전승과 전통창출(윤경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전남진도지방의 민속놀이고(지춘상, 여문학논집5, 1969).

필자 이정재(李丁宰)

망부석

望夫石

충청남도 치술령

정의 절개 굳은 아내가 외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고개나 산마루에서 기다리다가 지쳐 돌이 되었다는 설화.

역사 대표적인 〈치술령 망부석〉은 신라 눌지왕 때 충신인 박제상의 전설이 문헌설화를 통해 전승되고 구비설화에서는 치술령 바위와 연관한 박제상 아내의 전설로 변이되어 전승된다.

줄거리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되었다. 부인은 남편



치술령 망부석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문화재청

이 오는지 잘 보기 위해 날마다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 남편의 배를 기다렸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내는 끝내 돌이 되었고, 그 이후 사람들은 그 돌을 망부석이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망부석의 대표 설화인 박제상의 처에 관한 것인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돌이 되었다는 <북평의 망부석>과 중인 아버지를 찾아 떠난 아들과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는 <월아산 망부석> 모두 망부석의 전형적 이야기이다.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의 <망부석 슬개전설>은 신라 경애왕 때 소 정승이 일본에 사신으로 간 후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산에 올라가 기다리다 지쳐 망부석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이 역시 <망부석설화>의 한 변이이다.

분석 남편을 기다리다 돌이 된다는 <망부석설화>는 한편으로는 시간을 초월한 견고한 기다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한(恨)까지 느끼게 한다. 기다리다 돌이 된다는 것은 한국인의 역설적 발상과 맞물려 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돌이 된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만남을 향한 의지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까지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압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억압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금기에서의 탈출이 역설적으로 돌로 표상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특징 이 설화는 사람이 돌로 변한다는 화석(化石) 모티프이다. 장지못에 등장하는 <머느리바위> 역시 화석 모티프로 함께 논의됐는데, <머느리바위>가 ‘금기와 위반’이 특징이라면, <망부석설화>는 ‘간절한 소망과 한’이 주요 특징이다.

의의 포기할 수 없는 한 여인의 기다림과 만남의 의지가 돌로 화한다는 상징은 <정읍사(井邑詞)>에서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대변한다. 이렇듯 망부석은 여성의 한,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한국인의 역설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283; 318; 342; 727; 8-13, 265.

참고문헌 박제상 전승의 양상과 의미(권영호, 어문학75, 한국어문학회, 2002),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치술령 전승의 두 양상(김정은, 온지논총24, 온지학회, 2010),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최학래, 울산어문논집2,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중국변형신화전설연구(김선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필자 김정은(金廷恩)

전설

망우리

忘憂里

정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옛 망우리)의 지명이 생겨난 유래를 전하는 지명전설.

줄거리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종묘사직을 마련한 후, 선왕들의 능지를 정하기 위해 대신들과 함께 현재의 동구릉을 답사하였다. 그런데 무학대사는 그 자리가 선왕의 능지보다는 태조의 신후지지(身後支地)로 더 적합하다고 권고하였다. 태조는 그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능지로 결정한다. 기쁜 마음으로 환궁하던 중 지금의 망우고개 위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자신의 능지로 결정한 곳을 바라보니 과연 명당이었다. 이에 태조가 “이제는 근심을 잊게 됐다.”라고 경탄한 데서 ‘망우(忘憂)’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변이 이 전설의 변이는 다음과 같다. 조선 태조가 개국한 뒤 사후에 묻힐 곳을 찾기 위해 개국공신 남재(南在)를 비롯한 다른 신하들과 명당을 찾던 중, 현재의 건원릉(健元陵) 부근에서 세 혈을 얻었다. 이곳은 이미 남재가 뗏자리로 잡아놓은 지라 태조가 남재에게 다른 곳과 바꿀 것을 제의했다. 남재는 “왕릉으로 정한 곳에 어찌 제가 묻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경일 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중죄가 되는 것이니 불가합니

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는 “내가 잊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 줄 터이니 이것으로 중병을 삼으라.” 하고 친히 불망기(不忘記)를 써 주었다는 내용이다. 그 밖의 변이형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망우라는 이름이 들어간 지역은 전국에 있다.

분석 ‘망우’라는 낱말이 들어간 명칭은 중랑구 망우동 외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망우는 근심을 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망우당은 객재우의 호이다. 한자의 뜻으로 볼 때, 객재우와 반드시 연관되어 사용된 지명이나 전설은 아닌 듯하다. 경상남도 의령에 객재우 장군을 추모하여 세운 망우당과 경상북도 달성군 구지읍에 객재우 장군의 묘가 있는 망우당굴이 있다. 그 밖에도 망우당묘라든지 망우당정각,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과 양주군 매곡리의 망우리 마을 그리고 망우리포, 망우리골, 망우정, 망우제 같은 명칭이 다양하게 있다. 아무튼 망우라는 낱말이 들어간 지명은 묘나 정자와 관련이 있어 걱정을 잊고 쉬는 곳, 마음을 편안히 해 주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다. 특히 공동묘지가 있는 중랑구 망우동은 태조의 근심덜기와 함께 사후의 평안을 기리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지명으로 보인다.

특징 <망우리>는 역사전설에도 해당된다. 조선 태조와 무학대사가 수도 한양에 터를 잡는 것에 관한 설화가 다양한데(왕십리, 인왕산 등) 이 전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무학대사의 불교와 민중사상과 이 태조의 건국이념인 유교의 조화과정을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출처 우리고장 역사탐방(구리문화원, 200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266.

참고문헌 우리 민속문학의 이해(소재영, 전설편, 1979), 한국 명어를 큰사전(한글학회, 1991), 한국 설화전설 대전집(박영준, 태양사, 1975).

필자 이정재(李丁宰)

자료

매옹한록

梅翁閑錄

정의 조선시대 영조 때 박량한(朴亮漢, 1677~1746)이 편찬한 야담집(野談集).

내용 매옹(梅翁) 박량한이 엮은 야담집으로, 대부분 역대 인물들의 일화가 중심을 이룬다. 수록된 인물들은 소론(少論)

출신이 많다. 특히 정태화(鄭太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정태화의 아들인 정재륜(鄭在崙)이 편찬한 『공사견문록(公私見聞錄)』을 참조한 데서 비롯된다. 박량한은 정태화의 외조카(外姪)다. 『매옹한록(梅翁閑錄)』이본 가운데 천리대본은 260편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본들과 대비해 볼 때 원래 『매옹한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실렸을 것으로 보인다. 『매옹한록』에 실린 이야기 대부분은 짧은 형식의 인물 일화다. 구비설화를 정착한 작품은 없다. 이 점에서 『매옹한록』은 당시 인물들의 행적과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 할 만하다. 특히 많은 이야기가 『기문총화(記聞叢話)』에 실려 있으며 야담의 전대문헌 수용 양상과 변천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자료집이다.

필자 정명기(鄭明基)

신화

맹감본풀이

정의 제주도 무당굿에서 액을 막아 목숨을 연장하는 서사무가.

줄거리 큰굿과 환자의 병 치료를 위한 ‘시왕맞이’에서 구연되며,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등에 수록되었고 장주근의 『韓國의民間信仰』 資料篇에는 일본어로 쓰여 있기도 하다. 『풍속무음(風俗巫音)』에서는 ‘방액본(防厄本), 액막이본, 소사만이본’ 등을 한데 모아 그 기능을 드러내며, 본풀이의 내용은 사만이가 정명을 연장하게 된 내력담으로 다음과 같다.

사만이가 혼인하였으나 가난하여 아내를 할 수 없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며 팔아서 쌀을 사 오도록 한다. 사만이는 쌀 대신 총을 사서 사냥을 다니다가 백년해골을 발견하여 그것을 집에 갖고 와 ‘조상’이라며 기일제사 때나 집안에 대사가 있을 때 잘 모셔 부자가 된다. 어느 날 저승사자가 명이 다했다며 사만이를 잡으러 내려오자 해골이 이를 알고 미리 꿈에 나타나 연명(延命) 방법을 알려준다. 그 방법은 정갈한 음식을 차린 제상 아래 사만이가 이름 석 자를 붙이고, 심방(무당)을 불러 시왕맞이를 하면서 황소 사만 삼 필을 준비하여 방액하라는 것이었다. 저승차사는 배가 고프던 차에 사만이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고민에 빠진다. 사만이를 잡으러 왔는데 사만이가 차린 음식을 공짜로 먹었기 때문이다. 사만이가 아내를 시왕맞이로 대액(大厄)을 막고 사만이는 정성을 기울

이니 저승차사는 할 수 없이 저승의 장적(帳籍)을 고치기로 한다. 저승 등자판관실(童子判官室)에 적힌 삼십삼(三十三)에 한 금을 비스듬히 그어 ‘십(十)’ 자를 ‘천(千)’ 자로 고치니 사만이는 삼천 년을 산다.

변이 제주도의 <맹감본풀이>는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하는데, 호남 지방에서는 <장자풀이>·<고풀이>·<명두굿>·<대심배기굿> 노래로, 함경도에서는, <황천혼시>로 전승된다. 이들 이본들은 그 내용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데, 두드러진 차이는 해골을 발견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해골 주인은 자신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부모와 처자식이 제사를 지내 주지 않고 있으니 해골을 잘 위해 주면 부자가 되게 해 주겠다고 한다. 부부는 해골을 당클에 모시고 금세 부자가 되었다. 당클에 모신다는 것은 신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연명 처리 부분이다. 해골은 사만의 명이 다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이를 방백하는데, 저승차사가 사만이 대신 오사만을 데려가거나 우마장자를 잡아간다. 각편에 따라서는 사마장자가 타던 청충마를 잡아가거나 닭을 대신 잡아가지도 한다. 하지만 정명 삼십을 삼천으로 바꾸는 연명 방법은 한자의 유입 결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의례에서는 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 <맹감본풀이>는 10개의 화소가 중심을 이루며,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맹감본풀이>는 사람에게 닥칠 죽음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한 의례인 액막이 때 불린다. 따라서 죽음을 모면하거나, 삶을 연장하기 위한 소망이 들어가기에 연명무가이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백년해골과 사만의 연명 방법이 있었다. 그것은 대체로 저승차사에게 사만이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가도록 하거나 말이나 닭 등의 짐승을 제물로 삼아 수명을 연장하는 대명대충형(代命代充型)과, 음식을 준비하여 먹이고 굶을 하여 연명하는 치성연명형(致誠延命型)으로 나뉜다. 해골이 사냥을 도와주는 것은 수렵시대의 신앙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조상신의 영혼을 숭배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도 들어 있다.

특징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이승에 남고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는 영육이원관(靈肉二元觀)에 근거한 설화는 저승차사가 등장하여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내용이 중심이다. <맹감본풀이> 또한 동일한 유형으로서 저승차사에게 잡혀가지 않으려는 고대인의 소망과, 자신을 대신하여 타자를 잡아가도록 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고대인의 관념을 담고 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타자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짐승을 제물로 연명하는 방식보다 원초적인 사고일 것이다. 함경도의 <황천혼시>

는 해골을 숭배하자 그에 대한 대가로 주인공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연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점에서 제주도의 <맹감본풀이>와 유사하며, 사만의 목숨 대신 타자를 제물로 하는 것은 호남 지방의 <장자풀이>와 유사하다. 저승차사에게 음식을 대접한 결과 ‘남의 것을 공짜’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도덕성에 따라 저승차사는 저승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데, 이는 설화 전승자들에게 저승보다 이승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의의 사만이가 우연히 발견한 해골을 아내는 당클로 모서 제사를 드린다. 당클은 제주도 무속의례에서 신들의 거처지이다. 따라서 <맹감본풀이>는 해골을 모시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만의 내력담을 통해 조상신을 극진히 모시면 액을 막을 수 있음을 증거로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사냥을 하던 사만의 행동은 수렵사회의 생활을 반영한 것이며, 해골 숭배는 동물의 두개골이 갖는 풍요의 기능을 의미한다. 죽음을 모면하고 연명하는 사만의 행위는 민간에서 망자의 영혼을 잘 달래어 저승으로 곱게 모셔 보내는 상례(喪禮)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맹감본풀이>는 신화와 의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동북 정병준택 시왕밧이(강정식, 보고사, 2008), 양창보 심방 본풀이(허남준, 보고사, 2010), 이응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대학원 한국학협동과, 보고사, 2009),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풍속무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94), 韓國의民間信仰—資料(장주근, 도쿄:금화사, 1973).

참고문헌 사만이본풀이 연구(현승환, 백록어문16,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2000),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조선신가유편(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최원오, 한국민속학29, 한국민속학회, 1997).

필자 현승환(玄丞桓)

전설

맹사성

孟思誠

정의 맹사성이 정승이면서도 서민적 삶을 살고 양반의 행패를 다스렸다는 민담.

역사 맹사성이 소를 타고 다닌 기행(奇行)과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를 여관에서 만나 허물없이 문답한 <공당문답>은 문헌설화에 전하며, 구비설화에서는 서민과 친근한 설화 외에 양반의 고장이라 일컫는 경상북도 안동의 양반을 혼낸 설화가 전승된다.

민담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정의 여우에게 빼앗은 해골을 뒤집어쓰면 누구든지 예쁜 여인으로 변하게 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한 남자가 여우가 해골을 머리에 쓰고 예쁜 여인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고는 여우에게 그 해골을 빼앗는다. 해골을 썩워보니 무엇이든지 예쁜 여인으로 둔갑했다. 개를 미인으로 둔갑시켜 옆에 세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인이 목격하고는 남편이 첩을 얻었다며 화를 내고 급기야 앓아눕는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부인은 그제야 마음을 누그러트리고 안심한다.

변이 여우에게 빼앗은 해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변이가 나타난다. 해골을 썩운 개를 주막에 파는가 하면, 고이 모셔둔 해골을 부인이 친정에 자랑했다가 없애라는 충고를 듣고는 없애 버리는 결말도 있다.

분석 여우는 우리 설화에서 변신의 대명사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 주목할 것은 여우의 변신이 재주넘기 같은 것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해골을 머리에 써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골을 쓴 개나 소처럼 다른 동물도 여우와 똑같이 변신하는 점에서 변신이 여우의 능력이 아니라 해골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여우가 지니고 있던 초월 능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우는 더 이상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 능력을 지닌 사물을 인간에게 연결시켜 주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작품의 내용은 부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전개되는데, 미인과 함께 다니는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내가 그러하다. 이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해골을 뒤집어쓰는 여우의 변신을 목격한다는 점에서 <여우 잡은 소금장수>와 도입부가 유사하다. 하지만 관심 대상이 변신인지, 여우인지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전개된다. <여우 잡은 소금장수>의 경우에는 여우의 행적을 뒤쫓지만, 이 설화는 변신을 가능케 하는 해골의 행방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변신이라는 초월적 능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되는데, 해골만 가지면 인간도 변신이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념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줄거리 맹사성이 정승을 마치고 퇴임한 뒤 낚시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를 건너게 해 달라고 한다. 건너게 해 준 뒤에 자신이 맹사성임을 밝히니 그 사람이 사죄한다. 맹사성이 그에게 안동 부사를 하게 하고 자신을 죄수로 그리고 또 다른 퇴임 재상을 이방으로 삼게 한다. 안동에는 정승, 고관을 지낸 사람이 많아서 세금 걷기가 어려웠는데, 새로 온 부사가 맹 정승과 퇴임 재상을 아랫사람으로 둘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게 해서 세금을 거둔다.

변이 위의 줄거리는 <맹고불 정승과 안동 사람의 납세>이다. <맹사성설화>는 서민의 태도를 보인 설화와 위정자의 면모를 보인 설화 그리고 이 둘이 복합된 설화 등이 있다. 충청남도 아산에는 맹사성을 같은 서민으로 오해한 인물이 맹사성의 생일에 보리개떡, 메밀묵, 수수팥단지 같은 서민 음식을 가져가서 낭패했는데 오히려 이를 나눠 먹거나 팔아서 수습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또한 경북 안동에는 눈이 머는 사람이 많이 생기자 홍국사의 이름을 열 개(關), 눈 목(目)의 '개목사(開目寺)'로 개명하여 눈을 뜨게 했다는 설화가 있다. 또 호랑이가 생기는 호두혈(虎頭穴)에 관왕묘(關王廟)를 세움으로써 호랑이의 횡포를 막아 고을을 안정시키기도 한다.

분석 <맹사성설화>는 고향 아산에서는 정승임에도 서민적인 청렴한 생활과 소탈한 태도의 인물로 구전되며, 안동에서는 양반의 위세를 남용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다스리는 인물로 구전되어 지역별 차이를 보인다. 이 설화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서민과 흉허물 없이 대화하고, 신분이 드러난 뒤에도 서민의 처지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대인의 모습과 서민을 위협하는 고을 양반의 위세와 자연 재난을 해결해 주는 위정자의 면모를 두루 갖추어 당대 서민이 바랐던 위정자 상을 보여 준다.

의의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다. 서민은 이를 극복하는 설화적 방법으로 민중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기도 하지만 바람직한 위정자 상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 설화는 역사적 인물을 서민의 입장을 옹호하고 부조리한 양반을 징계하는 위정자 상으로 형상화하여 당대의 제도적 부조리를 극복하려 한 서민의 인식을 보여 준다.

출처 奇聞叢話, 梅翁閑錄, 구비문헌현지답사보고서(상명대학교 구비문화회, 1993), 한국구비문화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865; 4-3, 514.

참고문헌 문학 속의 아산연구(손지봉 외, 한국민속학36, 한국민속학회, 2002),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훈, 집문당, 2002),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손지봉(孫志鳳)

의의 이 설화에서 해골은 무엇이든 미인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해골이 귀중한 보물로 그려지는 것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심리가 투영된 결과이다. 또한 개를 미인으로 둔갑시켜 파는 행위를 통해서 미를 통한 재화의 획득이라는 사회 현실을 포착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신이한 능력이 있는 해골을 버리는 것은 인간과 초현실계를 구분 짓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7, 193; 8-2, 371.
참고문헌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인식양상1(강진옥,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변신설화에 나타난 여우의 형상과 의미(강진옥,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화회, 1994), 여우변신설화연구(손정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여우의 초월적 성격과 변모양상(박대복·유형동, 동아시아고대학23,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필자 유형동(兪亨東)

민담

메기 꿈의 해몽

정의 메기가 꾸는 꿈의 해석을 놓고 광어와 메기가 서로 싸우다가 생김새가 지금과 같아졌다는 설화.

줄거리 아흔아홉 살 먹은 메기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은금을 물은 듯이, 금줄을 탄 듯이, 천당을 올라갔다 지하로 뚝 떨어져서 통천관을 쓴 듯이, 번개칼에 맞은 듯이, 용상에 올라갔다 남대문으로 들어간 듯이, 수구문으로 쏙 빠진 듯이’ 정신없이 옮겨 다니는 요상한 꿈이었다. 메기는 꿈의 의미를 알 길이 없어 광어를 찾아갔다. 광어는 그것이 용이 되어 승천할 꿈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메기는 너무 기뻐서 온갖 물고기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한 새우가 꿈 얘기를 듣더니 그것은 뉘싯바늘에 걸려서 사람에게 잡아먹힐 징조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메기가 광어를 때려서 광어의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광어가 질세라 메기주둥이를 깔고 앉아 메기의 생김새가 지금과 같이 되었다. 옆에서 이를 본 새우는 신나게 웃다가 허리가 구부러졌다.

변이 꿈을 꾸는 대상이 민물에 사는 메기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동해에 사는 삼천 살 먹은 멸치로 설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가 난 메기(멸치)가 잔치에 참여한 다른 물고기들에게도 화풀이를 했는데, 광어가 맞을 때 마침 옆에 있던 도다리는 흥분한 메기(멸치)가 휘두른 꼬리에 맞아 오른쪽으로 눈이 들어졌으며, 병어는 입이 짧고 둔한 모양이 되었다. 이 광

경을 본 오징어는 눈을 다칠까 봐 다리에 감추어 숨긴 것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때 무척 놀란 망둥이 가슴은 아까까지도 콩닥콩닥 뛰고 있으며,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던 갈치는 뒤늦게야 싸움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다가 다른 물고기들이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몸이 갈려 납작하게 길어졌다고 한다.

분석 민물에 사는 메기나 작디작은 멸치가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을 꿈꾼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욕망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친 욕망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몽인데, 승천하여 용이 되는 꿈과 뉘싯바늘에 걸려 냄비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 같을 수 있다는 게 이야기가 주는 재미의 핵심이다. 과도한 욕망은 결국 비극으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이 설화는 과도한 꿈을 꾸는 자에겐 제대로 된 꿈풀이를 해서 그것을 경계하도록 해야 하지, 이를 방조하고 부추기면 안 된다는 깨달음도 준다. 광어의 생김새가 흉측하게 변한 것은 일종의 징벌이고, 잔치에 놀러 왔던 다른 물고기들까지 생김새가 변한다는 것은 메기(멸치)에게 부과하는 광어의 행동을 묵인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이 설화는 물고기들의 생김새에 대한 일종의 유래담이다. 물고기 생김새의 독특한 특징들을 잡아낸 흥미로운 이야기로, 과도한 욕망을 경계하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교훈성도 갖추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4-1, 95; 4-4, 418; 5-1, 524.

참고문헌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한국설화의 꿈 화소 연구(최명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필자 조선영(曹善映)

민담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정의 메뚜기의 이마가 반질반질하고 물새의 부리가 뾰족하고 개미의 허리가 잘록한 이유를 설명한 설화.

역사 이 이야기는 메뚜기, 물새, 개미가 등장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여 준다. 개미가 밥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자의 다리를 물어 광주리를 쏙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개미가 무는 곳이 여자 혹은 조개젓 장수의



물새와 종달새와 개미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성기인 예도 있다. 개미가 사람들의 성기를 무는 것에서 점차 다리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줄거리 옛날에 개미, 메뚜기, 물새가 배가 고파 개미는 밥을, 메뚜기와 물새는 반찬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미는 밥 광주리를 이고 가는 여자의 다리를 물어 밥을 준비하고, 물새는 물고기 배 속에서 자꾸 살려 달라는 소리가 들려와 물고기 배를 가르자, 메뚜기가 나오면서 이마에 묻은 땀을 닦다가 이마가 벗겨져 반질반질해졌다. 메뚜기는 물새와 개미에게 자신이 잡은 것이니 실컷 먹으라고 했다. 물새는 메뚜기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뼈죽거리다 입이 뾰족해졌다. 이 광경을 보던 개미는 너무 웃어 허리가 잘록해졌다.

변이 개미, 메뚜기, 물새가 함께 놀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일반적이지만, 평소에 개미, 물새에게 매일 얻어만 먹던 메뚜기가 자신이 먹을 것을 사냥해 오겠다고 큰소리 치고 나가는 변이형이 있다. 메뚜기는 사냥에 나섰다가 오히려 붕어에게 잡아먹혀 배 속에서 소리치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물새는 메뚜기가 너무 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갔다가 붕어 배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메뚜기를 구한다. 이후 메뚜기, 물새, 개미의 반응은 대부분 같다.

분석 이 이야기는 메뚜기의 반질반질한 이마, 물새의 뾰족한 부리 그리고 개미의 가는 허리가 지닌 생김새에 대한 유래담이다. 관찰을 통하여 동물이 지닌 특징적 요소를 사건화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징 메뚜기, 물새, 개미가 먹을 것을 준비한다는 설정에서 메뚜기와 개미는 물새보다 외형적으로 열악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개미는 사람을 무는 기술로 먹을 것을 잘 준비했다.

반면에 메뚜기는 물새처럼 멋있게 물고기를 잡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도리어 죽을 위기에서 물새의 도움으로 살아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메뚜기는 오히려 생색을 내려다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회화화되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48; 6-5, 4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40; 3, 177; 3, 233; 5, 110; 111; 7, 153; 154.

참고문헌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의 성격과 의의(김경희, 겨레어문학41, 겨레어문학회, 2008), 한국 동물담(조희웅, 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필자 김경희(金璟姬)

민담

메추라기의 꿈지

정의 메추라기의 꿈지가 짧은 이유를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메추라기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여우에게 살려 주면 배불리 먹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메추라기는 밥을 이고 오던 여인네를 유인하여 광주리를 놓고 쫓아오게 하였다. 그사이, 여우는 광주리의 밥을 모두 먹어 버렸다. 또 메추라기는



여우와 메추라기 삽화
20세기 전반, 국립민속박물관

여우에게 우스운 꼴을 보여 주겠다고 해서 옹기장수 형제의 옹기에 앉았다. 동생이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형의 옹기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여우가 웃었다. 이번에 메추라기는 서럽고 아픈 꼴을 보여 주겠다고 하면서 여우에게 땅을 파고 들어가 코만 내밀고 있으라고 했다. 메추라기가 여우의 콧잔등에 앉아 있으니 나무꾼이 잡으려고 막대기로 힘껏 내리쳤다. 여우는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메추라기를 죽이겠다고 하며 물었다. 그러자 메추라기는 여우에게 죽기 전에 엄마를 한 번만 불러 달라고 사정하였고, 여우가 입을 벌리자 도망가다가 콩지를 물러 털이 빠지게 되었다.

변이 토끼나 호랑이가 메추라기를 물고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메추라기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한 번만 불러 달라고 요청한다. 토끼나 호랑이가 메추라기의 부탁을 듣고 '엄마'를 부르는 순간, 입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도망가 버린다. 그때 토끼나 호랑이에게 물려서 메추라기의 콩지가 빠지게 되었다. 다른 변이형은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떨어진 꿩과 메추라기가 쥐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꿩은 쥐에게 공손하게 대해 양식을 받아오지만, 메추라기는 쥐를 화나게 하여 물려 콩지 털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이다.

분석 메추라기의 콩지가 아주 짧은 것에 대한 유래담을 다양하게 보여 준다. 메추라기는 작은 새이고 맛이 좋아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되었다가 풀려나는 과정에서 콩지를 물려 잘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쥐 역시 메추라기를 먹잇감으로 삼을 만하기에 쥐가 예의 없는 메추라기의 콩지를 잡아 뜯어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징 꼬리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호랑이와 토끼의 꼬리에 관한 것이다. 토끼의 꼬리가 짧아진 이유는 이러하다. 호랑이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토끼와 함께 꼬리를 묶고 갔다. 그런데 호랑이가 무서워서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묶어 놓았던 꼬리가 끊어지면서 토끼의 꼬리가 짧아졌다는 유래담이다.

의의 메추라기는 여우보다 아주 작은 새에 불과하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상황에 처한 토끼가 호랑이를 기지로 물리치는 것처럼 메추라기 역시 여우에게 더 많은 먹물거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결국 위협에서 벗어난다. 이러한 이야기는 강자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동물이 힘이 아닌 지혜로 강한 동물을 물리치는 서사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4, 978; 8-9, 68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1; 3, 234; 5, 138; 7, 364; 10, 99; 12, 57.

참고문헌 김복진의 유성기 동화의 특징(김경희,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한국 동물담(조희웅, 문화인류학5,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필자 김경희(金璟姬)

민담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정의 시부모가 불효하는 며느리를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하여 며느리가 효부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적 민담.

줄거리 옛날에 시아버지에게 불효하는 며느리가 있었다. 하루는 시아버지가 환갑잔치에 초대받았다. 시아버지는 잔칫집에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아들의 옷을 입고 나갔다. 개울가에서 빨래하던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빨랫방망이를 들고 시아버지를 쫓아왔다. 시아버지 친구가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쫓아온 이유를 물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잔칫집까지 자신을 배웅 온 것이라고 둘러댔다. 주인이 며느리가 효부라면서 음식을 후하게 대접했다. 그 후 며느리가 개심하여 시아버지를 잘 모셨다.

변이 시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입고 나가는 이야기에서 며느리가 빨랫방망이를 들고 쫓아온 이유를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은 시아버지를 업고 왔다고 하거나 취하면 업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개심하는 예도 있다. 끼니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부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를 자랑하여 주변에서 며느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개심하여 진짜 효부가 되었다는 이야기 유형도 있다.

분석 설화 속 며느리는 남편과 자식에게는 깊은 애정을 보이지만 시부모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시아버지가 아들의 옷을 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빨래하다 말고 방망이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효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무조건 이념적으로 강요해서는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설화에서는 말하고 있다. 시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며느리의 행위를 폭로하여 망신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감싸 주자 며느리는 시부모를 진심으로 받드는 효를 실천하게 된다. 효는 상대성, 쌍방향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 설화에서는 효를 부모에 대한 자식의 절대적·일방적 순종으로 부각하기보다 쌍방의

인간적 관계에서 함께 뛰어 나가는 생활 규범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징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분류에 따르면 '432-2 불효를 효도라고 칭찬하기' 유형에 속해 있는 설화이다. 설화에서 불효하는 며느리나 아내를 효도하게 하는 방법은 망신 주기, 공감해 주기, 감싸 주기, 칭찬하기 등이 있다. 이 설화에서는 시부모가 감싸 주기나 칭찬하기를 통해 며느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효를 이념이 아닌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식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인간적 교감을 통해 갈등을 풀어냄으로써 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의의 효는 계층과 시대를 떠나 기본적인 인간적 당위에 해당하는 문젯거리이다. 인간관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설화의 구비전승은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36; 2-8, 300; 6-6, 255; 7-4, 251; 7-13, 636; 8-5, 310; 8-11, 278.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담긴 효관념의 층위 연구(신동훈, 한국문화과 윤리의식, 박이정, 2000),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손문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필자 박현숙(朴賢淑)

민담

며느리 고르기

정의 며느리 감의 뽕뽕이를 시험하여 관문을 통과한 지혜로운 처녀를 며느리로 뽑는다는 설화.

역사 이러한 설화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왕비간택>은 1873년 『금계필담(錦溪筆談)』에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의 일화로 소개되고, 『대동기문(大東奇聞)』에도 실려 있다. 이후 이 일화는 『한국야담사화전집』, 『왕조별정통한국전서』 「이조」를 비롯한 다수의 야담·야사 책자들에 거듭 수록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순왕후의 출생지인 서산 지역의 군지(郡誌)를 비롯한 향토문화지(郷土文化誌) 등에 일정 부분 수용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일화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문헌설화류가 전설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에 비해 구전설화는 민담적 유형으로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며느리 고르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서 우선 <왕비간

택>을 들 수 있다. 어느 집에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서해바다가 되는 꿈을 꾸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다. 마침 임금이 상처하여 왕비를 뽑으려고 전국에 방을 내려서 동생도 후보자로 간택장에 나갔다. 모두들 방석에 앉아 있는데 한 처녀만 방석을 안고 있으므로 왕이 까닭을 물으니 아버지가 이름이 쓰인 방석이라 깔고 앉을 수 없다고 하므로 왕이 동생을 눈여겨 보았다. 이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동생만 목화꽃이라고 대답했고, 가장 큰 새는 먹새, 찬물에 데어 벗겨지는 것은 큰물로 인해 산사태가 난 것이라고 대답하여 동생이 왕비로 뽑힌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도 며느리 고르는 이야기에 해당된다. 어떤 부자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상을 보니 도저히 집안 살림을 지킬 그릇이 아니므로 며느리를 잘 봐서 지켜 나갈 요량을 했다. 토지를 많이 주고 며느리를 데려온 후 산중에 집을 지어놓고 종 몇 명과 한 달 치 양식을 주고는 석 달을 살라고 했다. 며느리가 도저히 지낼 수 없어서 시집에 돌아오니 며느리 자리에 부적합하다며 쫓아 보냈다. 두 번째 며느리는 죽만 끊어 먹어도 턱없이 모자라므로 쫓겨났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니 더 이상 딸을 주겠다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딸만 주면 백석 거리 땅을 준다고 소문을 내니 한 처녀가 시집가겠다고 나섰다. 한 달 치 양식을 받아 나온 며느리는 밥을 넉넉히 하여 배불리 먹은 뒤 종들에게 나무를 해 오게 하여 팔아서 양식을 마련하고, 자신은 길쌈을 해서 파니 살림이 넉넉해졌다. 대어섯 달이 지나도 며느리가 오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산중의 집에 가보니 집안에 양식이 가마니 채로 쌓여 있고, 며느리는 베를 짜고 있었다. 이제 살림을 지키겠다고 싶어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가서 곳간 열쇠를 맡기니 며느리가 경영을 잘하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변이 <며느리 고르기> 유형에는 <왕비간택>과 <살림 잘하는 며느리>가 포함된다. 문헌설화 <왕비간택>은 정순왕후 일생담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데 비해, 민담 형식으로 구연되는 구전설화 <왕비간택>은 간택장에서 주고받는 문답의 내용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왕비 고르기가 일반적이나 이본에 따라 반가 또는 민가의 며느리 고르기로 변이되기도 하고, 수나인(首內人) 뽑기나 딸들의 소견을 시험하는 변이도 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이강석 구연본은 서두에 꿈을 꾸는 매몽(買夢) 삽화가 있어 여타 이본과는 구별된다. 질문과 답변의 내용은 이본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 문항도 네 개부터 한 개까지로 변이된다. 좋은 꽃을 묻는 질문에 목화꽃, 나락꽃이라 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큰 새를 묻는 질문에 먹새, 높은 고개를 묻는 질문에 보릿고개도 빈도가 높으며, 서까래 숫자 맞추기와 맛있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 소금, 맛있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잠이라는 문답도 있다. 간택 상황의 변이는 대체로 속성의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으나, 문항 수의 변화는 기억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림 잘하는 며느리〉의 경우, 기본 서사구조에서의 변이는 거의 없고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혜로운 며느리의 현실 대처 방식에서 가장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수발드는 할멈에게 일거리를 구하게 하여 바느질·빨래·길쌈 등 여성 노동을 스스로 행하는 경우, 남종에게는 나무를 하게끔 하고 여종에게는 나물을 뜯게 하여 파는 행위,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음식을 받아 와서 식량 문제 해결하기 등의 변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이 설화 구성이 며느리의 가정 경영 능력 시험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구조가 단순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삶과 밀착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석 정순왕후 일화로 전승되던 〈왕비간택〉은 독특한 상황과 수수께끼 형식의 문답 구조라는 특이성이 부각되면서 민담적 유형으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문헌과 구전, 전설과 민담에 걸쳐 있으므로 자료의 편폭이 넓은데, 이러한 자료 실상을 주목한 이본 검토와 전승론적 연구, 서사적 성격과 인물 형상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답은 며느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지혜 측정 방법으로 행해지지만 그 내용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지혜와 인간적 국량(局量)을 부각하는 것이다. 답변의 내용은 현실적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통찰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한편, 〈살림 잘하는 며느리〉에서 시아버지는 받은 곡식과 종을 밀친 삼아 돈을 벌어 정해 놓은 기간을 지내는 지혜와 능력을 보고자 했고, 며느리는 과제의 의미를 알고 수행 능력을 발휘한다. 며느리 뽑는 시험은 현실 대처 능력을 중시하는 시험 방식인데, 현실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는가에 초점이 있다. 주어진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창조해 가는 태도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하는데, 그 대처 방법이 집안을 일으키고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특징 이 유형은 여성의 지혜를 측량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지혜담에 속하지만 며느리 고르기라는 서사적 정황이 전제되고, 시택에서 부과하는 특정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발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혜담과는 구별된다.

의의 이 유형에서 며느리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내용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여성적 덕목의 일단을 보여 준다. 왕비 또는 부잣집 며느리는 큰살림을 맡아야 하

는 여성들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여성들이 지녀야 할 덕목을 통해 여성적 지혜 인식을 볼 수 있다. 부잣집 며느리의 조건은 가정 경제를 경영하는 능력으로서, 재산을 불리는 치산(治産) 능력이다. 여성의 치산 능력을 중시하는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의 야담이나 치산가류의 여성 가사에서 도 볼 수 있는 가치 관념이다. 이 설화는 여성 입사식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면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가치 관념과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여성 인물 형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인정된다.

출처 이강석구연설화집(이복규, 민속원, 199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2; 55.

참고문헌 며느릿감 고르기 설화에 나타난 부자 며느리의 조건과 경제의식(최운식,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왕비간택담의 서사적 성격과 인물형상(강진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왕비간택담의 전승론적 연구(강진옥, 민속학연구9, 국립민속박물관, 2001).

필자 강진옥(姜秦玉)

민담

며느리고개

정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에 얽힌 전설.

줄거리 이 설화는 며느리고개에 얽힌 지명 유래로 많은 각편들이 전하고 있다. 그 중에 채록 시기가 가장 빠르고 서사구조를 제대로 갖춘 〈며느리고개〉의 줄거리는 이렇다. 옛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고개를 넘고 있었다. 울창한 숲이 있는 성황당 산마루턱에 이르렀을 때 시아버지는 짚신이 없었진 걸 알았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만 남겨둔 채 짚신을 찾으러 오던 길을 되돌아갔으나 찾을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며느리도 없었다. 며느리를 찾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려는데 나귀마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 후 며느리는 산도적에게 잡혀가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혼사 행렬이 그곳으로 지나가면 나귀의 발굽이 불튼가 색시가 없어져서, 제사를 지내고 가든가 아예 먼 길로 돌아갔다.

변이 이 설화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고개를 넘다가 시아버지가 짚신을 잃어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니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최초의 것이다. 그 이후 채록한 설화는 많은 변이를 보인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며느리를 잡아간 것은 짐승이나 허깨비고, 며느리가 시

아버지의 신을 신고 도망가고, 남편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고개에서 잡혀 거꾸로 묻혀 죽고, 시아버지가 만든 짚신을 팔던 며느리가 고개를 넘다가 굶어죽고, 고개를 넘던 며느리가 호랑이나 도독한테 잡혀갔다는 여러 변이형이 전해진다. 후일담만 남아서 혼례 행차는 며느리고개를 넘지 않고 길이 먼 삼마치(고개 이름)로 돌아다닌다는 내용만 전승되는 예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며느리고개라는 지명이 나온 사연을 담고 있다. 상당히 신비스럽기까지 한데, 짚신이 갑자기 사라지고 며느리까지 사라졌으며, 나귀의 발굽이 붙어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뒤로 색שי가 이 고개를 넘으면 화근이 생기고, 제사를 지내면 괜찮다고 하는 점에서 며느리의 원혼이 서려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설화는 대부분 동신신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동신신앙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명 유래로만 남았다. 설화에서 며느리의 갑작스런 사라짐은 곧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많은 상징 체계까지 띤 것으로 봐서 설화의 근원이 된 사건은 말 못할 사연을 담고 있음에 틀림없다.

특징 이 설화에서 주목할 화소는 짚신의 등장, 며느리의 죽음, 나귀 발굽의 붙음, 혼례 행차가 고개를 넘지 못하는 것들이다. 민속에서 짚신은 여근(女根)을 의미하고, 발은 남근(男根)을 뜻한다.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유감주술로 성행위를 뜻한다. 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상간을 말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며느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나귀 발굽이 붙은 것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금기를 어겼기 때문이고, 혼례 행차가 고개를 넘지 않은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멀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근친상간의 상징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 때문에 동신신앙의 근원설화와 같은 형태를 띠면서도 마을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의의 이 설화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도리를 깨트린 사례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 때문에 〈며느리고개전설〉을 구연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출처 강원구비문학전집(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림대학교출판부, 1989), 강원도의 설화(최용,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태백의 설화(강원일보사, 1974), 홍천군지(홍천군, 1989).

참고문헌 강원도의 전설(전신재, 집문당, 2007).

필자 이학주(李學周)

민담

며느리밥풀꽃

정의 며느리가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고 밥풀을 입에 넣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핑계로 며느리를 때려죽이자, 며느리 무덤가에 그녀를 닮은 꽃이 피었다는 전설.

역사 이 설화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온 고부간(姑婦間) 갈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을 지닌 여인’이 ‘꽃’으로 환생하였다는 점에서, 꽃유래담의 일종이기도 하다.

줄거리 옛날에 마음씨 곱고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와 성질이 못된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늘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고 밥알을 입에 넣자, 시어머니는 이를 핑계 삼아 어른보다 먼저 밥을 먹었다며 며느리를 때려죽인다. 이후 며느리의 무덤가에 붉은 입술에 밥풀 두 알을 입에 문 듯한 모양의 꽃이 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 꽃을 보며 ‘며느리밥풀꽃’이라고 불렀다.

변이 기본 골자는 같으나 각편에 따라 이야기 초반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외에 효자 아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아들이 장가를 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슴살이하러 다른 마을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며느리를 때려죽이는 이유로는 첫째는 며느리가 밥이 잘 되었는지 보려고 밥풀을 입에 넣어서, 둘째는 시어머니의 구박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며느리가 배가 고파 밥풀을 몰래 훔쳐 먹어서, 셋째는 며느리가 방아를 찧다 곡식 낱알이 몇 개 절구에서 튀어나와 땅에 떨어지자 얼떨결에 주워 먹어서 따위로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난다.

분석 며느리를 죽이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 모두가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핑계일 뿐이다. 결국은 아들이라는 한 인물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립관계에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약자인 며느리가 희생양으로 그려진다.

특징 예로부터 시집살이는 많은 문학 작품의 소재로 쓰였다. 이 설화에서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밥[食] 한 톨조차 허락하지 않고 그녀를 죽이는데, 이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 욕구도 허락되지 않았던 당시

머느리들의 인생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의의 〈머느리밥풀꽃(정식 명칭은 꽃머느리밥풀)〉은 고부 사이라는 관계에 얽매어 아무런 대꾸조차 못 하던 머느리들의 한 많은 삶의 반영이다. 또한 붉은 입술에 하얀 밥알을 문 듯한 모습의 머느리밥풀꽃은 죽어서나마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그 원한을 풀려는 것으로, 원혼은 반드시 위로 받아야 한다는 한국인의 인식도 담겨 있다.

출처 서산의 전설(박춘석, 지혜문화사, 1987), 충남의 구비전승-생(한상수, 정문사, 198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9) 5, 101, 한국의 전설10(박영준,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참고문헌 꽃 유래담 연구(정호선,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꽃 백 가지(김태정, 현암사, 1990),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설, 일조각, 1976), 한국의 꽃설화 연구(박용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필자 김혜정(金慧淸)

민담

머느리의 말대꾸

정의 엉뚱한 말대꾸로 시부모에게 대응하는 머느리에 관한 민담.

줄거리 시어머니가 시집은 머느리에게 키가 작다며, “저리 작을까?” 하며 타박하였다. 그러자 머느리는 “절이 작으면 암자지요.” 하며 엉뚱하게 말대꾸하였다. 머느리가 못마땅한 시어머니는 머느리를 쫓아내기 위해 시아버지를 설득하고, 시아버지는 “그럼 보내지.” 하며 승낙하였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머느리는 “어머니, 어디 작답(作畜)했소?” 하며 엉뚱하게 말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작답이라니?” 하며 화를 냈다. 그러자 머느리는 “보 낸다면서요? 어디 작답합니까?” 하며 말대꾸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야, 이년아! 작답은 무슨 작답. 너를 보내야 된단 말이다.” 하고 털어놓았다. 머느리는 다시 “보 내긴 나를 왜 보내요? 분통같은 내 보지를 쟈 놓고 보내요?” 하며 말대꾸했고, 결국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살았다.

변이 각 지역에 따라 시어머니를 향한 머느리의 말대꾸뿐 아니라 시아버지를 향한 말대꾸도 전해져 온다. 실컷 놀다 온 시아버지가 마당에 널어 놓은 보리가 그대로 있다며 머느리를 닦하자, 머느리는 보리가 뜨거우면 혼자서 되돌아 눕는다며 말대꾸한다. 이 외에도 늦잠 자는 머느리를 닦하는 시부모에 대한 말대꾸 이야기도 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전해지는 만큼 (말대꾸 잘하는 머느리), (바보 머느리의

가지), (익살맞은 시아버지와 머느리)와 같은 다양한 제목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담류에 속하는 이야기이다. 일부러 상대가 말한 의도와 다르게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분통이 터지도록 하는 데 흥미의 초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머느리의 말대꾸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재담으로 해석하지 않고, 불만과 억울함이 내포된 소수자의 항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예컨대 머느리의 외모에 대한 질책, 집안일의 책임을 전가하는 질책이 전제될 때, 머느리가 이에 말대꾸하여 소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다.

특징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전해 오는 〈머느리의 말대꾸〉는 전승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95; 6-6, 507; 8-10, 167.

참고문헌 설화 속 여성의 말하기(강성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학회, 2008),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오정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한국 구비문학에 수용된 재담 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한국 머느리설화 연구(손문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필자 오정미(吳正美)

민담

멸치의 꿈

▶▶▶ 메기 꿈의 해몽

민담

명당 빼앗아간 딸

정의 출가한 딸이 친정의 명당을 탐내 뺏은 설화.

줄거리 옛날에 최씨 집안에서 가난한 정씨 집안으로 딸을 출가시켰다. 딸이 친정에 와서 몰래 살펴보았더니, 뫼자리가 명당인 것을 보고 탐이 나서 물을 부었다. 최 씨가 날을 받아 장례를 모시려고 하는데 물이 차 있으니 묘를 쓸 수 없어서 뫼자리를 도로 메우고 다른 곳에 묘를 썼다. 삼 년이 지나고 딸이 오라버니에게 원래의 뫼자리를 달라 하여 시가의 묘를 썼다. 그 이후로 최씨 집안은 자꾸 망해 가고 정씨 집안은 부자가 되었다.

변이 출가한 딸이 묘에 물을 붓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5편 중 4편), 물이 나오는 뫼자리의 물구멍을 막으면 명당이 된다는 말을 듣고 딸이 뫼자리를 차지하여 시아버지 묘를 쓰는 각편도 있다. 또한 결말에서 변이가 일어나 친정과 시댁이 모두 발복한다는 각편도 있다. 또한 친정의 재산을 뺏는 각편들도 있다.

분석 풍수설화는 뫼자리를 잘 써서 복을 받았다든지, 뫼자리를 잘못 써서 흉한 일을 겪었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명당과 발복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딸이 차지한 명당 유형은 명당과 발복이라는 주제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출가한 딸의 적극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상 뫼자리의 길흉이 자손들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다는 풍수신앙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주제화되었다. 이로써 명당과 발복이라고 하는 풍수신앙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신앙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의 이 설화에는 출가한 딸은 남이라는 전승자들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딸은 출가하면 남이라는 인식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 자신이 속한 곳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혈육기간일지라도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제어할 수는 없다는 통찰을 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206; 2-6, 614; 5-2, 602.

참고문헌 딸이 뺏은 명당설화에 관한 일고찰(이성희, 경희어문학17,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7),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필자 이성희(李聖熙)

자료

명엽지해

莫葉志諧

정의 조선시대 홍만중(洪萬宗, 1643~1725)이 편찬한 소화집(笑話集).

내용 『명엽지해(莫葉志諧)』는 민속자료간행회에서 편찬한 『고금소총(古今笑叢)』과 일본 동양문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금소총』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엮은 서문에서 홍만중은 병으로 마포·서강 근처에서 칩거하던 중, 촌로(村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고 하였다. 웃음을 야기하는 이야기만을 선별하였고, 이야기마다 모두 4자의 제목이 있으며, 80여 편 가운데 51편에 논평이 첨부되어 있어 정연한 체계를 갖춘 소화집으로 평가된다. 수록된 이야기들 가운데에는 거울을 몰라보고 부부와 아버지 원님이 소동을 일으키는 〈부처송경(夫妻訟鏡)〉 같은 민담성 소화와 유명한 문사(文士)인 황신(黃愼, 1560~1619)을 몰라보고 그의 시를 수창하는 〈타수부아(墮水赴衙)〉 같은 일화성 소화가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다소 많아 기록자의 계층적 특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논평 가운데에는 도덕적·윤리적 시각을 보여 주는 논평 외에 웃음을 야기하는 요소들에 대한 해학적 평도 포함하고 있어 편찬자가 소화를 소화답게 감상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류정월(柳正月)

용어

모방담

模倣譚

정의 민담 중에서 모방에 의한 대립과 반복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내용 모방담(模倣譚)은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서 첫 번째 단계의 상위 유형 중 7. 잘되고 못되기, 두 번째 단계의 상위 유형 중 72. 잘될 만한테 못되기,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상위 유형 중 722. 본뜬 사람 못되기'에 속하며, 널리 알려진 유형으로는 〈홍부와 놀부〉, 〈금도끼은도끼〉, 〈부자방망이 사용 본뜨다 망하기〉 등이 있다. 모방 대상과 모방자(模倣者) 사이에 선(善)과 악(惡), 지혜(智慧)와 우매(愚昧), 성실(誠實)과 불성실(不誠實), 무욕(無慾)과 탐욕(貪慾) 등 대립과 반복의 상황이 전개되고, 여기에 산신령·도깨비 등 보조자(補助者)의 개입으로 모방자가 낭패를 보거나 징벌을 받는 것으로 결말이 이루어진다. 모방담은 수용자(受容者)에게 교훈을 주고, 현실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게 해 주는 한편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필자 광정식(郭正植)

목도령과 대홍수

상호주요 인물구 유래

정의 천상선녀와 나무의 아들로 태어난 목도령이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설화.

역사 세상의 멸망과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다룬 홍수신화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에서는 <목도령과 대홍수>, <대홍수와 남매>에서 홍수신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때 채록된 손진태의 <목도령과 대홍수>는 신화의 요소가 강한 반면, 이후 채록된 이야기에서는 신화의 요소가 약해지고 민담 성격이 강해졌다.

줄거리 옛날 천상선녀가 땅으로 내려와 나무(목신)의 정기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다. 나무에서 얻었다 하여 '목도령'이라 불렀다.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고, 곧이어 큰 비가 내려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아버지인 나무가 목도령을 싣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물에 휩쓸린 개미떼와 모기떼를 만나 목도령이 구해주었다. 조금 더 가자 한 소년이 달려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목도령이 구해주려 하자 나무가 반대하였다. 하지만 목도령은 소년을 불쌍히 여겨 결국 구해주었다. 이윽고 목도령을 태운 나무가 높은 산의 정상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한 노파가 딸과 수양딸(혹은 여중)을 데리고 있었다. 목도령과 소년은 모두 딸과 결혼하기를 바랐다. 소년이 딸과 결혼하기 위해 목도령을 모함하여, 목도령은 모래밭에서 곡식을 가려내는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물에서 건져 준 개미떼가 나타나 해결해 주었다. 이번엔 노파가 방에 여자들을 숨기고 딸을 찾는 과제를 냈다. 이번에는 모기떼가 나타나 딸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결국 목도령은 딸과 결혼하고, 소년은 남은 여자와 결혼하였다. 대홍수로 인류가 사라졌는데, 이 두 쌍이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었다.

변이 이야기의 일관성과 논리성을 고려해 볼 때, 목도령의 탄생, 홍수, 목도령이 다른 존재들을 구원하기, 노파의 시험과 동물들의 도움, 목도령의 결혼이 이야기의 전체 구도라 할 수 있다. 각편에 따라 목도령이 나무의 아들로 태어난 전반부에서 차이가 있다. 나무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경험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되거나 홍수가 일어나 부모를 잃고 나무를 얻어 타자, 나무를 아버지로 불렀다는 식으로 합리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설화가 전승되

면서 신화적 성격이 약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홍수 이후의 대목이 중심을 이루는 각편도 있는데, <인불구 유래>와 유사하게 살려준 소년의 모험으로 옥에 갇히고 동물들에게 구출되기도 한다. 이야기가 구술전승되면서 구연자에 따라 변이가 용이한 것으로는 목도령이 구해준 동물, 목도령이 처하게 된 시험들이다.

분석 이 설화는 주인공 목도령이 홍수로 인간이 멸절된 세계에 새로운 시조가 된다는 점에서 홍수신화 혹은 인류기원신화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에서 주목할 점은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되는 목도령의 성격으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성한 혈통, 즉 출신성분이다. 목도령은 천상선녀와 나무(목신)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이다. 이는 단군이나 주몽처럼 새로운 세계의 시조가 되는 인물들과 공통된 자질이다. 목도령이 출생한 이후 어머니인 선녀가 목도령을 버리고 천상으로 회귀하고 홍수가 나자, 목도령은 아버지에게 양육된다. 이는 새로운 시조인 목도령이 천상의 기반보다는 지상의 기반을 지향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목도령의 성격은 경쟁자인 소년과의 대립을 통해서 잘 나타난다. 소년이 세속의 가치와 악한 심성을 표상한다면, 목도령은 자연의 가치와 선한 심성을 표상한다. 특히 자신이 구원해 준 동물(곤충)들 사이의 교감과 소통을 통해 경쟁자를 꺾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인류시조의 자질이 잘 드러난다. 다른 말로 새로운 인간세계에 절박한 가치가 목도령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신화에서 자신을 구해준 목도령을 음해한 소년 역시 인류의 시조가 된다는 점은 새로운 의미를 보여 준다. 대홍수 이후의 인류는 목도령과 같은 선한 존재의 후예인 동시에 소년과 같은 악한 존재의 후예이기도 한 것이다. 목도령만이 인류의 시조가 되었다면 그의 후예들은 모두 목도령과 같이 자연의 가치를 알며 생명을 보살피는 선한 존재이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악한 모습은 바로 소년에게서 유전된 것이다. 이 설화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두 속성, 즉 선과 악의 출처를 보여 주고 있다.

특징 한국에 전하는 몇 안 되는 인류기원신화인 <목도령과 대홍수>를 통해 어떤 가치가 새로운 인류에게 요구되는지 잘 드러난다. <인불구 유래>와 같이 동물들은 보은하지만 은혜를 입은 인간은 오히려 배은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동물과 대비되는 인간의 배은망덕을 지시한다기보다 목도령과 소년으로 대표되는 인간 존재의 양면성을 보여 준다 하겠다. 한국 신화에서 시조가 되는 인물의 출신은 주로 부계혈통인 하늘, 모계혈통인 땅이나 물이다. 그런데 목도령은 천부지모(天父地母)가 아니라 지부천모(地父天母)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신이한 탄생, 신성한 부모, 여행,

배우자 찾기, 동물들의 원조는 건국신화의 영웅들과 그 행적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의의 이 설화는 홍수신화와 같은 세계에서 보편적인 신화 성격을 가지면서, 목도령 특유의 성격을 통해 한국 신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목도령과 소년의 대립 체계는 한국의 대표 창세신화인 <창세기>의 미륵과 석가의 대립 체계의 연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을 애초의 창조신인 미륵을 쫓아내고 악신인 석가가 인간을 차지한 것에서 찾는다. 고귀함과 비루함, 선과 악의 모습이 공존하는 인간의 존재론의 근원을 이 설화는 잘 설명하고 있다.

출처 조선민담집(손진태, 향토문화사, 1930),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697; 8-5, 814; 8-12, 54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269; 9, 59.

참고문헌 동아시아 홍수신화 비교 연구(조현설, 구비문학연구17, 한국구비문학

필자 오세정(吳世鼎)

전설

묘향산

妙香山

상호주요 사명당, 서산대사

정의 평안북도 영변군·회천군과 평안남도 덕천군에 걸쳐 있는 묘향산의 전설.

줄거리 <묘향산전설> 중에서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줄거리는 이렇다. 묘향산에는 서산대사가, 금강산에는 사명당이 있었다. 사명당은 자신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금강산의 정기를 타고 났기 때문에, 지략과 도술에서 자기를 능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묘향산의 서산대사가 도술이 아주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본패를 보여 주고 싶어 묘향산으로 떠났다. 서산대사는 이미 사명당이 올 것을 알고는 동자를 보내 맞이하였다. 서산대사와 만난 사명당은 기전을 제압할 목적으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잡고는 물었다. “내가 이 새를 놓아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자 서산대사는 문턱을 넘어서다 말고 선 채 되물었다. “내가 지금 이 방에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겠습니까?” 사명당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명당이 점심을 먹으러 방에 들어가자, 서산대사가 동자더러 국수를 가져오라고 했

다. 동자는 바늘로 사리를 만 국수를 가져왔다. 사명당이 억지로 먹고 나자, 입가심 할 물을 가져왔는데, 물그릇에는 새끼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었다. 서산대사가 먼저 마시고 빨자 산 물고기가 튀어나왔다. 사명당이 똑같이 하자 입에서 죽은 물고기가 튀어나왔다. 사명당이 방에서 나와, 이번에는 산 남기 내기를 하자고 했다. 사명당은 작은 봉우리를 디디고서야 겨우 큰 봉우리를 뛰어넘었는데, 서산대사는 단 한 번에 넘었다. 그제야 사명당은 서산대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자가 되었다.

분석 보통 지명전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 설화도 애항심이 강하게 드러난다. 금강산의 사명당이 묘향산의 서산대사보다 한 수 아래라고 함으로써 묘향산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문답 경쟁에서의 기발한 질문과 응답은 선승들끼리의 경쟁다운 면모를 보이며, 다른 종교에서 전승되는 인물들의 유사한 문답과 비교할 수 있다. 도술 경쟁에서는 죽은 물고기를 뱉어 낸 사명당에 비해 물고기를 죽이지 않는 서산대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살생을 금기시하는 불교의 지향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의의 남한에서도 <서산대사>와 <사명당> 이야기가 채록된 게 있으나 묘향산을 배경으로 한 자료는 드물며, 이야기로서 갖는 긴밀도나 풍부성도 부족한 자료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 설화의 가치는 크다.

출처 명소에 깃든 전설-묘향산(민형·김경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7, 172.

참고문헌 북한의 설화인식과 전설의 도구화(한정미, 민속학연구15,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필자 이복규(李福圭)

전설

무너미고개

정의 경기도 용인, 충청남도 공주 등 우리나라 각지에 산재해 있는 '무너미고개'에 관한 지명전설.

역사 <무너미고개전설>에는 신화적인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설을 신화시대에 형성된 설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설의 시대에 신화의 모티프를 차용한 설화로 볼 것인지에 따라 이 설화의 역사는 크게 차이가 난다.

줄거리 경기도 용인시의 함박산과 무너미고개(水踰峴)에 관한

전설은 다음과 같다. 까마득한 옛날 천지가 개벽할 때의 이야기이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어느 한 산의 봉우리만 물 위로 함지박만큼 올라와 있어서 후에 함박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때 함박산 옆의 작은 산은 홍수에 무너져 그 위로 물이 넘어갔다. 그것이 지금의 무너미고개이다. 물이 그 위로 넘어갔기에 무너미고개라고 불렀다.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산리·사곡면 가교리에 있는 <무너미고개전설>에 따르면, 계룡산 신도안(新都內)에 도읍이 정해지면 금강 물이 이 고개를 넘어서 논산시 노성면의 초포(草浦)를 지나 논산천과 합하여 강경포(江景浦)로 들어가서 초포에 배가 드나들게 된다고 한다.

변이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무너미고개전설>에서는 신라시대의 스님이 이곳에 대청호(大靑湖)가 생길 것을 예언한다. 정진대사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유숙한 곳이 물에 잠기고 큰 배들이 떠 있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어 이 골짜기에 물이 차고 고개 위로 물이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곳에 대청댐이 생겼다. 설악산 천불동 계곡과 가야동 계곡, 즉 내설악과 외설악 사이에도 무너미고개가 있다. 물이 전에는 외설악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내설악으로 넘어간다. 관악산 서쪽에도 무너미고개가 있고, 지리산에도 무녕기고개가 있다. 진주에서 집현산으로 가는 고갯길도 무너미고개이다. 이 밖에도 여러 곳에 무너미고개가 있다.

분석 용인의 전설은 전형적인 고리봉형 홍수설화이다. 신화가 신성성을 상실하고 지명전설로 변모한 것이다. 공주의 전설은 정감록 부류의 이야기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무너미고개전설>의 광범위한 수집과 치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징 세상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은 곧 카오스의 상황이다. 이것은 코스모스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정감록 부류의 예언도 결국은 혼란한 현실에 대한 부정과 질서가 바로 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의의 무너미고개의 전설들은 서사구조가 단순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92, 한국지명유래집-충청도(국토지리정보원, 2010).

참고문헌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최래옥, 일조각, 1981),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

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 홍수설화에 대하여(최래옥, 한국민속학9, 민속학회, 1976).

필자 전신재(全信宰)

민담

무당호랑이

호랑이 춤추는 호랑이

전설

무등산

無等山

정의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허락하지 않아 조선 건국 후에 무등산이 벼슬을 받지 못했다는 전설.

역사 무등산의 명칭은 무진악, 무덤산, 무당산, 무들산, 서석산, 무정산 등으로 여러 가지이다. 무등(無等)이라는 말은 불경(佛經)에 나오는 말로, 백제가요에 <무등산가>라는 노래가 나올 정도로 오래되었다. 무정산이라는 무등산의 이칭은 전설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무등산신에게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허락하지 않아 무정하게 느꼈다는 민간어원적인 명칭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조선 태조 3년 여러 산과 더불어 무등산 역시 호국백(護國伯)이라는 봉작을 받았으며, 세종조 이후에도 무등산신에게 관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많다.

줄거리 이성계는 무학대사와 함께 전국의 산천신(山川神)들에게 나라를 세울 뜻을 전하고 도와줄 것을 빌고 다녔다. 하



무등산
광주시 북구 금곡동, 문화재청

루는 무등산에 올라가 무등산신에게 허락을 얻으려 하였지만, 무등산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무정한 마음이 생겼지만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바위에 걸터앉아 쉬고 있었다. 배도 고팠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보자기에 먹을 것을 잔뜩 싸와 대접을 하는 것이었다. 이성계는 대견해하며 누구인지 물었다. 담양에 사는 왕 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 집안이 곧 멸망할 것을 알고 걱정하다 말까지 잃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가를 가던 날 밤에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초행길에 가져가기 위해 장만한 음식을 싸 들고 무등산을 올랐다. 이성계가 무등산을 찾을 것을 알고 때를 기다려 만난 것이다. 그는 이성계에게 자신은 왕 씨이며, 어떻게든 살려만 달라고 빌었다. 이성계는 그에게 ‘임금 왕(王) 자 위에 ‘사람 인(人) 자를 얹어 성씨를 삼으라며 전씨(全氏)로 사성(賜姓)하였다. 그 덕에 조선이 건국한 후에 멸족을 면했다고 한다.

분석 무등산은 지리산과 더불어 호남을 대표하는 산이다. 광주의 진산으로 지역의 안녕과 관련한 내용의 이야기와 노래가 백제시대부터 전해 온다. 즉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백제의 노래 <무등산가>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그만큼 지역민들이 무등산에 많이 의존한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이 충절을 다하였지만 반대로 역적으로 몰려 죽은 비통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이에 대한 지명과

신화

무속신화

巫俗神話

정의 무속의례인 굿에서 무당에 의해 구송되는 신화, 즉 본풀이를 지칭하는 말.

역사 무속신화의 역사는 고대의 무속 제전까지 소급될 수 있다. 부여의 영고(迎鼓)·고구려의 동맹(東盟)·예의 무천(無天) 등과 같은 고대의 제천의식이나 단군제(檀君祭)·동명제(東明祭)·혁거세제(赫居世祭)와 같은 국조제(國祖祭)는 모두 고대의 무속 제전으로 볼 수 있다.

제주도에 남아 있는 큰굿을 구조적 원리에 따라 재구성해보면, 무속신화의 존재기반이라 할 수 있는 무속 의례의 원초적인 모습은 열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었던 ‘큰굿’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들 및 인간사를 관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제의를 하

전설이 많은 산이기도 하다.

특징 무등산과 이성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무등산전설>은 그만큼 무등산을 바라보고 살아 온 사람들의 역사적인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다. 즉, 역성혁명을 불의로 간주하는 부정적 시각도 투사되어 있지만, 특히 조선조를 통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아 온 지역 정서가 전설에 반영되어 있다.

의의 <무등산전설>은 부당한 권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등산전설>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지리산전설>과 장흥 <천관산전설> 역시 바탕에는 비슷한 집단 의식이 흐르고 있다. 이들 역시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허락하지 않아서 본래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고 하고, 본래 보성에 있던 천관산을 장흥으로 귀양 보냈다고 한다. 이들 산신전설은 의향(義鄉) 호남을 표상하는 전설적 현상으로 보인다.

출처 高麗史樂志, 朝鮮王朝實錄.

참고문헌 무등산권 사람문화의 특징(안진오, 전통과현실15, 고봉학술원, 2001), 무등산전설의 연구(나경수,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호남정신의 뿌리를 찾아서(김세곤, 은새미로, 2010).

필자 나경수(羅景洙)

면서 우리들 인간의 안전 출산 및 성장, 장수, 저승에서의 재생 및 영생, 목축의 번식, 풍농, 집이나 마을의 안전 등을 기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큰굿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대적인 종교 의례였다고 할 수 있다. 큰굿의 각 거리에서는 각기 해당되는 신들에 대한 신화, 곧 본풀이가 구송되었다. 이들 본풀이 내용들은 육지 쪽에서는 무속에 신화로 남아 있기도 하고, 전설, 민담, 고소설, 민요 등에 그 흔적을 드리우고 있다. 큰굿 열두 거리의 구조 및 이들 본풀이 내용들이 육지 쪽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본풀이 속에는 신화의 본질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의례의 기원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제주도 큰굿에서 구송되고 있는 일만본풀이들은 우리 무속신화 중 가장 고형의 신화들이고 원형적인 신화들이라 할 수 있다.

내용 무속신화는 무속에서 숭배되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로 서사적 구조를 갖고 있기에 서사무가라 할 수 있고, 무당이 청중들 앞에서 줄거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구비서사시에 속하기도 한다. 무속신화를 본풀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들의 근본 내력을 풀어 설명하기 때문이다. 본풀이

는 흔히 일반본풀이, 당본풀이, 조상본풀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곳에서 무속신화를 구송하는 이유는 '말은 하는 대로 되어진다고 믿는 언어 주술에 의거하여, 제의의 현장에 신들의 현현(顯現)을 기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속신화는 기원적으로는 제의와 관련하여 나타난 주술적 이야기라 할 수 있지만, 제의의 현장을 벗어나면 그저 재미있는 단순한 이야기로 존재한다.

각 지역의 수호신인 당신에 관한 본풀이 및 집단의 조상신에 대한 신화까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채록된 무속신화는 수백 개에 달한다. 여기에서는 큰굿 열두 거리의 틀에 준거하여 주제별로 묶어 무속신화 자료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①창세신화 계통 : 배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포함), 일월노리푸님, 생긋, 창세가, 시루말 등. ②아기 탄생 및 질병신 계통 : 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손긋, 손님긋 등. ③무법마련 및 무조신 계통 : 초공본풀이(전국의 제석본풀이계 신화 : 시준긋, 삼태자본풀이, 제석본풀이), 공시본풀이 등. ④서천꽃밭 꽃감관 계통 : 이공본풀이, 신선세턴님칭배. ⑤운명이나 전상신 계통 : 삼공본풀이, 원천강본풀이. ⑥저승 혹은 죽음 관련 계통 : 방광침, 강림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황천혼시, 바리공주 계통의 신화. ⑦방액법 창조신, 혹은 장수신 계통 : 맹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 장자본풀이 등. ⑧농경 기원 및 목축신 계통 : 세경본풀이(함경도의 치원대 양산복). ⑨풍농신, 혹은 부신 계통 : 칠성본풀이, 돈전본풀이. ⑩집과 같은 공간, 성주신 계통 : 문전본풀이, 성주본가, 성조신가. ⑪마을과 같은 지역 공간을 지키는 본향당신 계통 : 서울의 도당긋 및 부군당 신화들, 전국 각 지역의 당신화, 제주도의 각종 본향당본풀이 등. ⑫조상신 계통 : 건국시조신화, 제주도 삼성신화, 균웅본풀이 계통의 신화, 성씨시조신화, 제주도의 각종 일월조상본풀이 등. ⑬기타 : 심청긋, 도랑선비청정각시노래, 속영랑앵연랑신가, 충렬긋 등.

우리 무속신화는 자료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주제별로 묶으면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하다. 이 중 당본풀이 및 조상본풀이 계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일반본풀이다.

육지 쪽의 (제석본풀이) 계통의 (시준긋), (삼태자본풀이), (제석본풀이) 같은 신화는 원래 제주도의 (초공본풀이)와 같은 계통의 신화다. 이들은 모두 중을 아버지로 하는 쌍둥이 세 아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이미 서대석에 의해 제석본풀이계 신화로 불리며 같은 계통의 신화로 연구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의 신화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의 무속 의례에서 공통적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전국의 무속이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

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는 우리 무속, 혹은 무속신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호남 지역의 (장자본풀이)는 제주도의 (맹감본풀이)와 공통점이 있고, (칠성본풀이)는 제주도의 (칠성본풀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계모담인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유사성이 있다. (바리공주신화)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무조신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새남굿이나 오구긋과 같이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서 불리고 있다. (심청긋)은 경상도 지역에서만 구연된다. 무속신화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이며, 그 다음은 함경남도다. 그런데 제주도의 (균웅본풀이)는 (작제건설화)에서 그 소재를 취하고 있어, 무속신화 중 일부는 여타의 서사물이나 기록문학에서 소재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세신화 속에는 천부지모(天父地母) 사상 및 원래 둘씩 있던 해와 달을 화살로 쏘아 하나씩으로 만드는 일월조정 내용 및 꽃 피우기 시합이 중요한 신화소로 등장한다. 이 중 일월조정 내용은 (사양설화(射陽說話))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요소는 중국을 포함, 동북아시아 창세신화에 두루 나타나고 있어 아주 중요한 신화소라 할 수 있다. 인간 생명의 탄생, 죽음, 환생과 관련해서는 생불꽃, 환생꽃 등의 생명꽃과 이들이 피어 있는 곳인 서천꽃밭이 등장하는데, 서천꽃밭은 인간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해명해 보고자 창조된 특별한 신화적 생명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남성신과 관련해서는 심부담적(尋父譚의) 요소, 즉 아버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15세가 되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서사구조가 특징으로 나타나고, 고귀한 신분-기자치성에 의한 출생-기아-고난-공업-신으로의 좌절과 같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특히 여성신과 관련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 무속신화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징 수많은 마을 수호신에 관한 신화 및 조상신에 대한 신화가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제주도에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하다. 당신화와 조상신에 관한 신화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적층되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의의 고대의 큰굿에서 구송되었던 무속신화들은 이후 우리나라의 전설, 민담, 고소설, 민요 등의 문학 작품을 이루는 소재적 원천이 되었다.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등에 나타난 심부담적 요소는 (주몽신화)를 비롯, 우리나라 문학사에 심부담이 하나의 중요한 서사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는

그 내용이 (지림사연기설화), 『석보상절』 중의 안락국태자경, 고소설 (안락국전)과 상통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특히 (지림사연기설화)는 석가모니의 본생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본생담인 자타카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삼공본풀이)는 선학들에 의해 이미 (서동요), (내 북에 산다)형 민담 및 (숫구이총각)과 같은 민담, 그리고 판소리 (심청가), 고소설 (심청전) 등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 외에 (세경본풀이)는 (축영대설화)나 함경도의 (치원대 양산복)과 같은 서가무가, 고소설 (양산백전)과 그 내용이 일부 상통하고 있으며, (원천강본풀이)는 (구복여행)과 주인공이 되는 신의 성별만 바뀌어 있을 뿐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고대의 큰굿 시 회생 제물 의식에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장본풀이)는 시집살이 민요와 서사구조가 일치한다. 우리 설화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생명꽃 내용도 그 기원은 무속신화에 있었던 생명꽃 신화소와 밀접한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담

무수옹

無愁翁

정의 팔자가 좋아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에 대한 설화.

줄거리 옛날 어떤 노인에게 아들 삼 형제 내외가 있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모시고 있는 아들네가 아침저녁 밥만 해 올리면 반찬은 다른 아들네들이 해서 드렸다. 이에 노인은 아무 근심 없이 편안히 살았다. 그래서 '무수옹(無愁翁)'이라는 현판을 내 거니 노인의 존재가 임금에게까지 알려졌다. 임금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백성에 대한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 백성으로서 한 가지 근심도 없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노인을 불러 보니 정말 안색과 기백이 좋아 보였다. 임금은 이 노인에게 시험 삼아 근심을 주기 위해 구슬 하나를 하사하고 집에 돌아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부르면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사공이 그것을 빼앗아 바다에 빠뜨렸다. 임금이 미리 시킨 것이었다. 노인은 집에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에 빠졌다. 며느리들은 음식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좋은 반찬을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좋은 잉어 한 마리를 사 가지고 왔다. 음식을 하기

무속신화는 또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를 보면, 우리의 세시 중 칠월 백중의 기원이 바로 우리 민족의 농경 기원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속신화가 판소리의 선형 양식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학설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구연 형태와 서술 구조가 일치할 뿐 아니라 무너나 광대가 같은 계층에 속해 있어 상호 유대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다.

무속신화는 이상과 같이 여러 분야에 걸쳐 우리 문화를 형성한 모태로 기능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무속신화는 한국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막중하다 할 수 있다. 무속신화가 가지는 이와 같은 위상이나 의의를 생각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사무가(서대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홍태한, 민속원, 1998), 여인발복설화의 연구(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1994), 제석본풀이 연구(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이수자(李秀子)

위해 잉어 배를 따니 구슬이 들어 있었다. 바로 노인이 잃어 버린 구슬이었다. 임금이 다시 부르므로 노인은 구슬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잃은 일부러 찾은 일까지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이는 하늘에서 준 복이라 하고 '무수옹'이라는 호를 하사하였다.

변이 이 설화는 구조 면에서 각편마다 큰 차이가 없다. 이야기의 서두에서 효자, 효부인 자식들이 노인을 대접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변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대부분의 각편에선 무수옹의 상대 격으로 임금이 나오는데, 그 임금이 역사적 인물인 숙종 대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각편도 있다. 임금은 한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으므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이지만 이러한 임금에게도 한두 가지 근심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낱 백성인 무수옹에겐 아무 근심이 없으므로 임금보다 팔자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숙종은 여러 고전문학 작품에서 태평시대의 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무수옹이 태평성대에 아무 근심 없는 임금보다 더 팔자 좋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숙종을 등장시킨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는 근심 없는 노인이라는 인물을 통해 행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히 사는 데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한다. 우선 이 설화의 구조는 '근심이 없음-임금이 구슬을 하사함-구슬을 잃고 근심에 빠짐-구

슬을 찾아 근심에서 벗어남'으로 되어 있다. 즉, 근심 없이 살던 노인이 임금에 하사한 구슬을 잃고 근심에 빠졌다가 그것을 찾아 다시 근심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사적 요소는 자식들의 효행이다. 효행 덕에 노인에게 근심이 없었고, 효행 덕에 근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각편에 따라서는 자식들이 서로 부모를 모시려고 싸움을 하는 예도 있다. 그리고 노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에 빠져 있자 며느리들이 입맛을 돌리려고 좋은 음식 재료를 찾아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구슬 삼킨 잉어를 구하여 아버지의 근심을 풀어 드렸다. 마침내 그 며느리의 손에 구슬 삼킨 잉어가 주어졌다는 것은, 지극한 효행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설화는 지극한 효심에는 하늘도 감동한다는 민중의 효 관념을 나타낸다. 또한 이 설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은 임금이다. 임금은 한 나라에서 가장 팔자 좋은 인물이지만 그에게도 근심은 있다. 그런데 한낱 백성인 노인에게 아무 근심이 없다고 하였다. 팔자로 치면 이 노인이 임금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설화는 근심 없는 마음의 상태는 부귀영화보다는 효심 어린 자식들의 대접을 받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중에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임금의 존재는 이러한 주제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이 이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주려고 일을 꾸미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하여 임금도 이 노인의 근심 없음이 천복이요 팔자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 설화는 타고난 복은 인위로 없앨 수 없다는 민중의 운명관을 드러낸다.

특징 이 설화에 나오는 구슬 삼킨 물고기 화소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티프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톨슨 모티프 인덱스 211.1에 해당하는 <물고기에서 찾아낸 반지>이다. 이 모티프가 들어 있는 그리스 전설 <폴리크라테스의 반지>를 보면, 왕인 폴리크라테스는 지나친 행운을 꺼려 인장 반지를 스스로 바다에 던진다. 이 반지는 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슬을 빼앗긴 이 설화의 무수옹과 차이가 있다. 또한 부귀영화를 소유한 당사자가 그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버리려고 한 점에서 이 설화의 왕과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버려진 물건을 물고기가 삼키고 그것이 다시 당사자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스스로 도모한 불행조차 비켜갈 만큼 그가 운이 좋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이 설화에 담긴 운명관과 상통한다. 요컨대 구슬 혹은 반지는 하늘이 정해 준 운명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운명론적 관점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이 설화에서 근심 없음의 요인이 자식들의 효심이라고

하였다. 그 외 재산 같은 요건이 있으나 대부분의 각편에서 근심 없는 노인에게는 효심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다투다가 노인의 중재로 해결되는 예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설화는 노인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자 젊은이들에게는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의가 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의미처럼 부귀영화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획득한 이보다는 효성스러운 자식들과 함께 소박하면서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점을 이 설화는 시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이 지닐수록 근심도 많으므로 가진 것을 던져 버려 그로 말미암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말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9, 765: 7-15, 284.

참고문헌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서대석 외, 집문당, 2007), 설화학 원론(스티스 톰슨,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필자 박상란(朴尙蘭)

민담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정의 사위가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처가 식구를 글로 보복한다는 소화 성격의 설화.

역사 이 설화는 남자가 처가살이하던 결혼 풍속을 바탕으로 생겨난 이야기다.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는 결혼식 날 사위가 처가에 와 서옥(사위가 머무르는 집)에 살다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고려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는 풍속이 있어서, '사위가 아내의 집에 머무르는 혼인'이 있었다. 조선시대 초부터 친영제(親迎制)가 시행되면서 여자가 혼인 후 남자의 집에 사는 '시가살이(시집살이)'가 시작되었지만, 이 '처가살이' 풍속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남자는 처가살이하면서 낯설을 느끼고 처가 식구에게 박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처가에서는 능력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게으른 사위를 곱지 않게 대했을 것이다. 이 설화는 사위가 박대하던 처가 식구를 글로 보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그 글귀가 『태평광기(太平廣記)』 권248에 실린 <산동인(山東人)>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설화는 고려 말 이후부터 식자층을 중심으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줄거리 어느 집에 사위가 둘 있었는데, 둘째 사위는 영리하여

총애를 받았지만 큰 사위는 미련하고 침묵하기를 좋아한 탓에 별로 대접받지 못하였다. 어느 날 장인이 두 사위를 불러 글을 짓게 하였다. 장인이 산을 가리키며, '산은 어찌서 높은가?' 하니, 큰 사위가 침묵하는 사이에 둘째 사위가 곧 응대하여, '산지고고(山之高高, 산이 높은 것)는 탕석고(撐石故, 돌이 쌓였기 때문)'라 하였다. 또 장인이 '술은 왜 푸른가?' 하자, 둘째 사위가 '송지청청(松之青青, 소나무가 푸른 것)은 실중고(實中故, 그 속에 열매가 있기 때문)'라 하였다. 또 장인이 '노류(路柳)는 왜 크지 않는가?' 하자, 둘째 사위가 '노류부장(路柳不長, 길가의 버드나무가 자라지 못한 것)은 열인고(閹人故, 사람들이 많은 데서 시달리기 때문)'라 하였다. 다시 장인이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내 머리는 왜 벗겨졌는가?' 하자, 이번에도 둘째 사위가 '장인탈두(丈人脫頭, 장인의 머리가 벗겨진 것)는 연만고(年滿故, 나이가 많기 때문)'라 하였다. 둘째 사위가 읊는 시구마다 장인이 '옳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장모까지 칭찬하면서 만사위를 조롱하였다. 이에 만사위가 분이 나서 "그것도 글인가요?" 하며 동서(同壻)의 글을 조소하였다. 장인이 '그러면 글을 지어보라.'라고 하자, 만사위는 '산지고고는 탕석고라 하나, 천지고고(天之高高, 하늘이 높은 것)도 그러한가? 송지청청은 실중고라 하나, 죽지청청(竹之青青, 대나무가 푸른 것)도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모가 키가 작은 것을 빗대어 놀려주려고 '노류부장은 열인고라 하나, 장모부장(丈母不長)도 그러한가?' 하자, 장인 장모가 노기와 부끄러움이 가득하였다. 끝으로 그는 바지를 내려 보이면서 '장인탈두는 연만고라 하나, 오신탈두(吾臂脫頭, 내 물건의 머리가 벗겨진 것)도 연만고인가?' 하였다. 만사위는 평소 천대받은 것을 이렇게 분풀이 하였다.

변이 자료 대부분이 장인이 사위들에게 글짓기 시험을 벌이고 그 글귀의 내용이 '산지고고는 다석고'로 짜여 있어서, 이 내용이 이 설화의 핵심으로 보인다. 그 외에 처가 식구에게 박대받던 사위가 화전놀이의 글짓기에서 장원하거나 셋째 사위가 아내에게 글을 배운 뒤 두 동서와 함께 과거시험에 장원하고 또는 팔자받던 만사위가 수수께끼를 풀어서 붙잡혀간 장인과 동서를 구해오는 예도 있다. 박대받은 사위는 '만사위'보다 '막넷사위'로 설정한 경우가 더 많은데, 이는 일반 설화에서 막내딸, 막내아들이 다른 형제보다 더 능력이나 미모가 더 뛰어난 것으로 설정한 것과 상통한다. 사위를 박대하는 처가 식구는 '장인'이거나 '장모'로, 그 빈도수도 거의 비슷한 편이다. 사위가 박대받는 이유를 보면, 글을 모르거나 글짓기를 모르는 것처럼 무식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얼굴이 못났다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못난 사위는 이 모든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처가 식구에게 받는

박대가 자못 심각하다.

분석 이 설화는 『한국설화유형분류집』에 따르면, '3. 속이고 속기' 유형 가운데 '335-10 푸대접 받던 사위 계약으로 보복하기' 형에 속한다. 처가와 사위의 관계를 말하는 이야기에 해당하면서도, '실수만 연발하는 바보사위 이야기'와 달리 '실제로는 글재주가 있어서 처가 식구를 보복하는 능력 있는 사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 설화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손진태가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에서 소개하면서 그 근원설화로써 중국 『태평광기』에 있는 <산동인설화>를 들면서,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

특징 이 설화는 첫째로 바보, 무식, 모자란 사람도 재주가 있기 마련이어서,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나아가 무식해 보이던 사위는 유식하고 글짓기 잘한다고 뽐내던 동서들과, 박대하던 처가 식구(특히 장인, 장모)를 도리어 글로 통쾌하게 보복하고 있어서, '글 짓는 것이 유식한 것이 아니며, 글 모른다고 정말 무식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둘째는 외모와 가난함으로 사람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위의 인물됨보다 그 배경에 따라 대우를 달리하던 세대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기도 하다. 셋째는 글 짓고 책만 읽던 선비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생활의 지혜가 더 소중함을 말한다. 글 잘하는 사위들의 글귀는 고정되고 관념화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무식해 보이던 사위는 그 글귀의 내용이 가지는 허점을 파고들면서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장인은 그에게 결국 '도량이 넓고 의견이 무섭다.'라고 말한다.

의의 사위와 처부모의 갈등을 보여 주는 이야기로서, 가난하여 배우지 못한 탓에 처가 식구에게 박대받던 사위들의 삶과 그들의 대응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출처 태평광기110(김정환 외 역, 학교방, 200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7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327.

참고문헌 기대와 실망, 필사와 보복의 서사(윤승준, 한민족문화연구37, 한민족문화학회, 2011),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필자 이지영(李志映)

진설

무영탑

無影塔

표어인 영지

전설

무왕

武王

서동

전설

무학대사

無學大師

정의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 건국에 기여한 도승 무학대사에 관한 전설.

줄거리 〈무학대사전설〉은 하나의 줄거리로 전하지 않고, 모두 네 가지 삽화(挿話)로 전해진다. 〈학의 보호〉, 〈쌀 나오는 구멍〉, 〈무학대사를 나무란 농부〉, 〈나무 예언〉이 그것이다. 그중 〈학의 보호〉의 내용은 이렇다. 무학대사의 어머니는 서산 간월도(혹은 남면) 사람이었는데, 만삭이었지만 시장에 해물(혹은 굴)을 팔러 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길에서 해산하였는데, 해물을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풀 속에 아이를 놓아둔 채 장에 갔다. 해물을 팔고 와 보니 학이 아이를 품어 주어 살아 있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무학(舞鶴 혹은 無鶴)이라고 하였다. 〈쌀 나오는 구멍〉의 내용은 이렇다. 무학대사가 제자와 함께 간월도에 있는 한 절에서 머물렀는데, 절에 있는 바위에는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다. 무학대사가 절을 비우자, 배부르게 먹고 싶은 욕심에 제자가 쌀 나오는 구멍을 키우자, 다시는 바위에서 쌀이 나오지 않았다. 가장 걱정이 많은 〈무학대사를 나무란 농부〉의 내용은 이렇다. 무학이 이성계를 도와 한양 터를 잡고 궁궐을 지었으나 지을 때마다 쓰러지기를 세 번이나 하였다(또는 도읍지를 물색하느라 왕십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무학이 도망가다 보니 밭 가는 농부가 자기 소를 보고 미련하기가 무학보다 더하다고 꾸짖자, 무학이 농부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농부는 서울이 학의 형상인데 몸통 부분에 궁궐을 지으니 무거워 날개를 치므로 궁궐이 쓰러진다면 먼저 날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4대문(또는 성곽)을 짓고 나서 궁궐을 지으라고 했다(또는 도읍지를 물색하는 무학에게는 10리만 더 가라고 했다). 무학이 농부의 말대로 하여 궁궐을 지을 수 있었다. 〈나무 예언〉의 내용은 이렇다. 무학대사가 태어난 곳인 간월도를 떠나게 되었다. 나무(지팡이)를 가리키면서(뚫으면서)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아 있으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라.”라고 예

무왕

언하였다. 예언대로,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분석 무학대사는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창건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전설을 통해 이성계에 대한 민중의 이중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을 지녀, 일개 농부가 무학대사를 나무라는 것으로 설정하여, 민중의 역량이 이성계보다 낫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왕조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왕권이 안정되면서, 농부를 신령으로 변화시켜 민중의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 서산지역에서 이 설화가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어, 전국적(이주적)인 전설의 지역적 전설화 양상을 보여 준다.

출처 東文選, 旬五志, 五山說林, 太祖實錄, 서산민속지(서산문화원, 1987), 한국 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4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0, 64,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무학대사전설의 역사적 의미(김일렬,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무학전설의 형태와 의미(김일렬, 어문론총31, 경북어문학회, 1997).

필자 이복규(李福燾)

전설

문경새재

정의 문경새재와 관련된 지명, 자연환경, 인물에 얽힌 전설.

역사 조선시대부터 중요한 교통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던 문경새재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전설이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다.



문경새재 성황당과 산신각
경북 문경시 문경읍, 2010.1.5, 안태현

신화

문굿무가

세경본풀이

문굿무가

전승은 전국에 많이 퍼져 있다. 이는 문경새재가 영남에서 서울로 가기 위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출처 문경군지(임병설, 회상사, 1965), 영남의 전설(유중선, 형설출판사, 1971).
참고문헌 길 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문경새재박물관, 실천문화사, 2002), 문경새재의 전설과 신앙(문경새재박물관, 1998), 옛길 문경새재(안태현, 대원사, 2012).

필자 안태현(安泰賢)

정의 평안도 망목굿에서 망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편안하게 보내 주기 위해 부르던 서사무가.

역사 강춘옥 무녀를 대상으로 조사·채록한 자료와 이고분 무녀를 대상으로 조사·채록한 자료가 현재 학계에 보고되었다. 인물 명칭, 서사적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서사무가는 중국의 〈양축설화(梁祝說話)〉를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축설화〉가 먼저 우리나라의 고소설에 영향을 주어 국문소설 〈양산백전〉이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함경도 지방의 서사무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중국에서의 양축 관련 기록은 당대(唐代)의 문헌기록에서 먼저 확인되는데,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한 『십도사번지(十道四蕃志)』와 거기에 설화적 요소를 첨가한 『선실지(宣室志)』가 그것이다. 이후 송대, 명대, 청대를 거치면서 각종 전설이나 민담 또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형태로 변모됐는데, 그중 명대의 『고금소설(古今小說)』에서 이 서사무가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다수 확인된다. 『고금소설』의 작가 풍몽룡(馮夢龍)이 당인(唐人)의 소설을 근거로 하여 개작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양축설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당대 이후이거나 명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줄거리 강춘옥 무녀의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산백은 양 씨의 아들이고, 추양대는 추 씨의 딸이다. 어렸을 적에 양산백과 추양대가 은하사에 가서 함께 공부했다. 양산백이 열여섯 살, 추양대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둘이 한강에 가서 목욕하다가 혈수(血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양산백은 비로소 추양대가 여자임을 안다. 양산백은 추양대에게 청혼하였으나, 추양대는 부모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집으로 돌아갔다. 추양대는 집으로 와서 부

줄거리 문경새재와 관련한 주요 전설 세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재의 유래〉의 내용이다. 고개가 높고 험해서 날아가는 새도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새재 또는 조령(鳥嶺)이라고 전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문헌에 새재[草帖]라는 지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역새풀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새재로 먼저 불린 듯하다. 이 외에도 ‘사이’의 준말 ‘새’, 이웃한 하늘재에 비해 ‘새’로 만든 고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문경새재 성황신과 최명길〉의 내용이다. 최명길이 어릴 때, 안동부사로 있는 외숙을 찾아가다 새재 동쪽에 이르러 여쁜 여인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인은 자신을 새재 성황신이라 밝히며 안동에 사는 모 좌수가 성황당의 치마를 가져가 제 딸에게 입혀 용서할 수 없어서 지금 좌수 딸을 죽이러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 최명길의 뒤통이를 보고 장차 공신에 오를 몸이라고 하면서, 호란이 일어나면 명은 망하고 청이 흥할 것이니 청과 화친하여 이 나라를 보전하라고 일러주었다. 최명길이 그길로 좌수의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좌수 딸이 앓고 있었다. 급히 좌수에게 말하여 새재 성황당에서 가져온 치마를 불사르고 제사를 올리게 하니 생사를 오가던 딸이 소생하였다. 이후 최명길은 병자호란 때 화친을 주장해 나라를 구하였다.

〈문경새재와 산신령〉의 내용이다. 조선 초 조령의 길을 개척할 때 일이다. 문경현감이 역졸을 시켜 조정에 문서를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현감의 명령을 받아 문경새재를 넘어가던 역졸은 그만 호랑이에게 번을 당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호랑이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명을 받은 봉명사(奉命使)는 문경새재에 도착해 산신당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어명을 제단 위에 붙여 놓고 소식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산신당 앞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봉명사는 호랑이가 가죽을 벗겨 왕에게 바치며 이 사실을 아뢰었다. 그 후부터 호환이 사라졌다. 어느 날 전 씨라는 사람의 꿈에 새재 산신령이 나타나 죄를 사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전 씨가 약속대로 상소를 올리자 나라에서 산신령의 죄를 사해 주었다.

분석 문경새재를 배경으로 하는 성황신과 최명길, 산신령 설화는 이 설화의 무대가 되는 성황당과 산신당이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 마을 사람들이 동제를 모시고 무속인들이 찾아와 치성을 올리고 있다. 이들 설화는 민중 의식을 반영하는데, 전통 사회에서 피지배층인 민중은 그들의 입장에서 설화를 해석하였다. 이 설화의 전승과 맥락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에서 오히려 벗어나 있다.

특징 문경새재는 고갯길과 관련한 많은 전설이 있다. 전설의

모에게 양산백이 청혼했다는 말을 하였으나 부모는 허락하지 않았다. 양산백은 추양대를 못 잇다가 집으로 와서 부모에게 고한 후 알아봤지만, 추양대는 이미 다른 가문과의 혼인을 허락한 후였다. 양산백은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죽음에 이르렀는데, 죽기 전 추양대가 시집가는 길목에다 자기를 물어 달라고 유언하였다. 추양대는 양산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그리워한다. 추양대가 시집가는 도중 양산백의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소변을 보겠다고 내려서는 양산백의 무덤으로 갔다. 추양대는 금봉채(金鳳釵)를 빼서 무덤을 치며 “산백이 묘가 분명하거든 인간에게 표적을 내 주시오.”라고 말하니 무덤이 갈라졌고, 추양대는 그 무덤으로 들어갔다. 갈라진 무덤이 다시 합쳐지고 추양대의 나삼자락이 걸려 너울너울하였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추양대의 나삼자락을 잡아채 떼어내니 푸른 나비, 붉은 나비, 흰 나비로 변하였다.

변이 분량이나 서사적 전개 등에서 강춘옥 무녀의 자료가 이고분 무녀의 자료에 비해 더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고분 무녀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 정승 부인과 이 정승 부인이 빨래를 하다가 까마귀가 떨어뜨린 배를 주워 절반씩 쪼개 먹었다. 그 후 김 정승 부인은 아들 양산복을 낳고, 이 정승 부인은 딸 치원대를 낳았다. 그러나 이 정승 부인은 치원대를 딸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속여 가며 남자 옷을 입혀 남자처럼 키웠다. 남장을 한 치원대는 금상사에서 양산복과 함께 공부했다. 양산복은 치원대를 여자라 의심하여 확인하려고 같이 목욕을 하고 오줌 누어 담 너머로 넘기기 내기를 하지만 결국 확인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래서 잠안 자고 사흘 밤 동안 공부하기 내기를 하였는데, 치원대는 여자의 몸이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다. 양산복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치원대의 가슴을 만져본 후 비로소 치원대가 여자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양산복은 치원대에 게로 향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공부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양산복이 상사병으로 죽으면서 치원대가 시집가는 길목에 물어 달라고 유언했다. 치원대가 시집가는 길에 양산복의 무덤을 지나게 되자 소피를 이유로 가마를 세우고 내려다. 치원대가 양산복의 무덤을 금봉채로 치자 무덤이 갈라졌고, 치원대는 그 속으로 뛰어 들었다. 신랑이 황급히 말에서 내려 치원대의 치맛자락을 잡았으나 허사였다. 치원대가 양산복의 무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무덤에서 찬란한 쌍무지개가 솟았고, 양산복과 치원대는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분석 중국의 〈양축설화〉는 함경도 서사무가와 고소설 〈양산백전〉뿐만 아니라 서사민요, 제주도의 〈자청비설화〉 및 서사

무가 〈세경본풀이〉에도 수용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서사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두 서사무가의 결말로 보자면, 강춘옥 무녀의 자료는 두 주인공의 사후 재회에 나비유래전설을 덧붙이고 있는 명대의 『고금소설』과 유사하며, 이고분 무녀의 자료는 재생화소에 적강화소를 덧붙인 우리나라의 고소설 〈양산백전〉과 유사하다. 특히 재생화소의 내용은 중국의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고 〈양산백전〉에서만 보인다는 점에서, 이고분 무녀의 자료는 다분히 소설적 색채가 짙다. 그러나 두 서사무가가 모두 청춘 남녀의 사후 결합을 강조한 점에서는 망목굿이라는 무속제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양산백전〉은 두 주인공이 재생 후 현실 세계에서 복을 누리다가 승천하는, 소위 적강소설의 전형적 패턴을 보여 준다. 서사무가이든 고소설이든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하게 〈양축설화〉가 변모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도의 〈자청비설화〉에서는 무덤 속에 뛰어든 자청비를 신랑이 붙잡지만, 자청비가 저주하여 찢어진 치맛자락이 모기와 파리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해충유래설화로 변개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세경본풀이〉에서는 문 도령과 자청비의 사랑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양축설화〉의 일부 구조를 빌린다. 제주도의 자료에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모두 자청비로 바뀌어 있어 중국의 색채가 어느 정도 지워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축영대’를 중심에 둔 기존 서사의 변개와 새로운 서사의 재생산이 제주도에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암시한다. 서사민요에서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이사원네 딸애기’로 등장하며, 이승에서 맺어지지 못한 인연이 저승에서는 꼭 맺어지기를 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몇몇 자료에서는 〈나비유래전설〉이 덧붙여 있기도 하다. 서사민요에서의 이러한 변모 역시 제주도의 자료에서 보이는 변개 및 재생산의 맥락과 유사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의의 여성의 열(烈)을 강조하는 정치 사회적·사상적 맥락과 원한을 품고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민간신앙적 맥락, 그리고 사후 재회를 통한 남녀결연담의 맥락이 혼재된 작품이다.

출처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구할자본 고소설전집 26(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이사원네 딸애기(조동일, 서사민요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70),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한국무가집3(김태곤, 집문당, 1978), 남국의 전설(진성기, 학문사, 1978).

참고문헌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양산백전고(정규복, 중국연구4,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79), 이승과 저승을 잇는 신화의 세계(임석재, 함경도 망목굿, 열화당, 1985), 중국 양축설화의 수용과 변용(박진태, 어문학75, 한국어문학회, 2002).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정의 여인이 병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부자인 남자와 혼인한다는 민담.

줄거리 이 유형의 설화는 여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아이를 낳아준 경우와, 후부(後夫)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낙태한 뒤 태아로 술을 만들어 병든 남편에게 먹인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아이를 낳아준 경우를 살펴보면, 여인은 문둥병에 걸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부자의 청혼을 받아 남편 구원을 조건으로 내걸고 후처가 된다. 아들을 낳아 주는 동안 좋은 약을 써서 남편을 구원하여 병이 낫자 아내는 부자에게서 떠나 남편에게 돌아간다. 다음으로 후부의 자식을 낙태시켜 본부를 구원한 경우를 살펴보면, 앞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인은 문둥병에 걸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집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부자의 청혼을 받아 남편 구원을 조건으로 후처가 된다. 아내는 후부의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 아이로 술을 만들어 본부(本夫)에게 먹여 병을 고쳤다. 이후 아내는 병이 나은 본부와 함께 시가로 가던 중 남편에게 먼저 들어가라 하고는 마을 어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변이 아내가 후부와 혼인한 후 본부에게 되돌아가는 첫 번째 유형에서도 여인이 자결하는 이본들이 있다. 구원하던 남편이 죽자 여인도 따라 죽은 경우와 건강해진 남편이 후부에게 아내를 맡기고 혼자 떠나려 하자 아내가 자살했다는 이본 등이다. 비록 자살하지 않고 행복한 결말을 맺더라도 후부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고 망문했을 때 만나지 않았다거나, 여인이 죽을 때 사실을 발설하고 이혼을 선언했지만 양가의 자손들이 다 이해하고 모두 모여 초상을 치렀다는 데에서도 여인의 훼손에 대한 시비가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후부의 아이(태아)를 죽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여인들이 자살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분석 이 유형은 이른바 ‘희생열’ 설화로도 불리며 열(烈)의 주제로 논의된 바가 있다. 희생열 설화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생명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몸 역시 도구화하는 맹목적이고 이념적인 인물들을 그림으로써 열 이념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남편의 죽음과 여인의 자결, 낙태와 자결이 연계되는 유형들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여인의 성(性)과 훼손은 오직 살아있는 남편이 곁에 있을 때에만 의미를 지

니고, 과정 중에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 책임은 오로지 여성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한계를 깨닫게 한다.

특징 『소한세설(消閑細說)』에서는 광산에 매몰된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시신이라도 구하려는 여인이 광산 주인과 혼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광산 주인이 남편을 살리게 되자 부부의 의리와 광산 주인의 은혜를 모두 갚아야 한다며 광산 주인에게로 가서 아들 둘을 낳아 주고 본남편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다. 문헌에서는 여인의 정절 문제보다 어떤 남편과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구비설화의 경우 아내의 정절 문제와 이에 대한 평가를 중시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93; 5-5, 590; 5-7, 68; 7-8, 667; 8-1, 327.

참고문헌 간통 소재 설화의 연구(홍나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구비 열설화 연구(이인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남의 씨로 아들 낳기 소재 설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와 문제해결방식(홍나래, 한국고전연구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열녀전승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본 여성적 대응양상과 그 의미(강진옥, 여성학논집1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1995).

필자 홍나래(洪나래)

전설

문무왕

文武王

유형 만파식적

정의 태종무열왕의 만아들로 삼국통일을 완수한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왕(文武王)에 관한 전설.

역사 문무왕 관련 설화는 죽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왕의 유언과 감은사(感恩寺), 대왕암(大王巖), 이견대(利



문무왕 수증릉(대왕암)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문화재청

見臺), 만파식적(萬波息笛)이 관계하면서 생성된다. 이후 이 설화의 용은 풍요와 관련된 전통신앙의 용과 호국용으로 나타나면서 전승된다.

줄거리 왕은 죽으면서 동해 가운데 큰 바위 위에 장사하라고 유언하였다. 왕이 평상시 지의법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원컨대 나라를 수호하는 큰 용이 되어 불교를 떠맡고 국가를 보위하라.”고 하였다. 이에 법사가 말하기를 “짐승으로 태어나서 용이 되어도 좋겠나이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세상 영화를 싫어한 지가 오래되었다. 만약에 내가 나쁘게 태어나 짐승이 된다면 나의 소망에 꼭 맞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문대왕은 선대 부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지었다. 절 기록에 이르기를 문무왕이 일본 군사를 진압하기 위하여 처음 이 절을 짓다가 끝내지 못하고 죽어 용이 되었으며, 그 아들 신문왕이 즉위하여(682년(개요 2)에 내부 장치를 마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절 문지방 아래 동쪽을 향하여 구멍이 한 개 났는데 이는 용이 절에 들어와서 서릴 것을 예비한 것이라고 한다. 유언에서 뼈를 간직하라는 곳이 대왕암이요, 절 이름이 감은사며, 현신한 장소를 이견대라 하였다고 한다.

변이 <문무왕설화>에서 용은 전승과정에서 전통신앙의 용과 호국룡으로 나타난다. 유급이들과 문무왕의 득천은 풍요 혹은 농업신의 용으로, 열두 개의 섬과 문무왕의 득천은 호국신의 용으로 현신한 예이다.

분석 <문무왕설화>는 용의 의미와 대왕암의 실증성에 대한 연구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는 용의 호국 상징이 무엇이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후자는 대왕암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안장한 흔적이거나 아니냐를 두고 전개되어 왔다.

특징 불교의 윤회사상에 기반을 두면서도 문무왕이 스스로 사후(死後) 용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왜 문무왕이 스스로 용이 되고자 했는가에 답하기는 간단치 않다. 다만 불교에 기초한 호국룡으로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의의 한국의 용은 전래 신앙 대상으로서 용과 불교의 호법룡이 조화하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호국룡으로 거듭났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호국룡설화를 계승하면서도 문무왕이 자임하여 호국룡이 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에 기반을 둔 다른 호국룡과도 구별된다. 이에 따라 이 설화가 한국적 호국룡설화라는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기린굴신화 연구(전관수, 동방학지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만파식적설화의 역사적 의미(김남형, 한국학논집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문무왕의 사상과 대왕암전설(영전정치, 동아시아고대학16, 동아시아고대학회, 2007), 문무왕의 산골 처와 문무왕릉비(김창호, 경주문화연구9,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07), 문무왕 호국룡설화의 교육적 의미(이동철, 한민족문화학회, 2005).

필자 김화경(金和經)

민담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정의 위급한 상황에서 융통성 없이 문자를 쓰다가 장인을 죽게 만든 어리석은 사위에 관한 설화.

역사 조선시대 문헌 『고금소총(古今笑叢)』에 보이는 이 설화는 구전설화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문자 쓰기를 좋아하는 사위가 잘못하여 호랑이에게 장인을 잃는데, 귀양가기 전 자신을 전별(餞別)하는 외숙부에게도 조롱하는 내용의 한시를 지어 주고 결국 자신도 웃음거리가 된다.

줄거리 문자 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장가가서 처가에 있는데, 밤중에 호랑이가 와서 장인을 물고 갔다. 사위는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함에도 문자를 써서 “원산맹호(遠山猛虎, 먼산 호랑이)가 래오처가(來娶妻家, 처가에 와)하야 오지장인(吾之丈人, 우리 장인)을 착거(捉去, 잡아가니)하니, 유창자(有創者, 창 가진 자)는 지창래(持創來, 창을 가지고)하고 유총자(有銃者, 총 있는 자)는 지총래(指銃來, 총을 가지고)하고, 유궁시자(有弓矢者, 활 가진 자)는 지궁시래(指弓矢來, 활을 가지고 오되)하되 무창무총무궁시자(無創無銃無弓矢者, 창도 총도 활도 없는 자)는 지창래(指杖來,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하라. 속속래구(速速來救, 빨리 오라)요, 속속래구(速速來救)요.”라고 소리친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아무도 오지 않았고, 장인은 호랑이에게 속절없이 물려 갔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사정을 알고 추궁하자 “에구 에구, 차후로는 불용문자(不用文字, 문자를 쓰지 않겠다.) 하오리다.”라고 하였다.

변이 구전설화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문자를 써서 장인을 호랑이에게 물려 가게 한 사위의 이야기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장인을 물어 간 후 동네 사람들이 사위에게 물매를 안겨도 여전히 문자를 쓴다는 화소가 추가되기도 한다. 사위가 동네 사람을 고소하는 유형에서도 문헌에서처럼 외삼촌에게 시를

지어 전별하는 화소는 빠진 채 전승되거나, 그 대신 옥바라지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써서 편잔을 듣는 내용이 더해지는 것으로 변이된다. 구전설화는 한자의 음과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려우므로 한시 대신 아내와 주고받는 간단한 대화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설화에 등장하는 사위는 문자를 모르거나 풍습을 몰라서 무식한 바보사위 유형과 차이가 있지만, 물색 모르고 정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내는 주인공 역시 회화화된다든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의의 한문을 해독하고 구사할 줄 아는 향유자 사이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로, 정황에 맞지 않게 유식함을 드러내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여 준다. 이 설화는 우스갯소리는 기는 하지만 문자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古今笑叢,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8, 300.

참고문헌 바보사위설화 연구(강성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월인, 2006), 바보사위설화의 희극미와 그 의미(김교봉,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바보이야기의 유형과 그 의미(이강엽, 민속문화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필자 강성숙(姜盛淑)

신화

문전본풀이

정의 제주도 큰굿에서 불리는, 문신(門神)의 내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속신화.

역사 굿판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으나, 제주도 무당굿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거리임을 고려하면 제주도 무당굿과 역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 가운데에는 193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 실린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 외에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에 실린 안사인 심방 구연본이 있고,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91)에는 서귀포읍, 표선면, 안덕면에서 얻은 3편의 자료가 실려 있다.

줄거리 남선고을의 남선비와 여산고을의 여산부인이 일곱 아

들을 두고 가난하게 살았다. 어느 날 여산부인이 남편에게 무곡(質穀)장사를 하도록 권유하자 남선비는 배를 타고 장삿길에 나섰다.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닿은 남선비는 노일제대귀일 딸의 땀에 빠져 재물을 탕진하고 그녀에게 얹혀사는 신세가 되었다. 남선비는 그녀가 주는 거죽으로 연명하며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영양실조로 눈마저 멀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여산부인은 아들이 만들어 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오동나라에 닿았다. 남편을 찾아 헤매던 여산부인은 우연히 아이들의 노래를 듣고 남편의 행방을 알게 되어 그 집을 찾아갔다. 여산부인이 하루 저녁만 재워 달라고 사정하였지만, 눈이 먼 남선비는 부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재워 줄 곳도 없다고 거절했다. 가까스로 승낙을 받아 움막으로 들어간 여산부인은 준비해 간 쌀로 밥을 지어 남편에게 올렸다. 그 밥을 한 숟갈 먹은 남선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자신도 옛날 여산부인과 살 때에는 이런 쌀밥도 먹었던 남선고는 남선비였는데 무곡장사를 나섰다가 이곳으로 흘러 왔고 노일제대귀일 딸의 땀에 빠져 재물을 탕진하고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산부인이 자신이 바로 그 여산부인임을 밝혀 부부는 재회한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여산부인을 속여 주천강 연못에 목욕하러 가자고 하고는 등을 밀어 주는 척하다가 여산부인을 떠밀어 물에 빠뜨려 죽인다. 그러고는 자신이 여산부인인 척하며 “노일제대귀일의 딸 행실이 쾌쌌하여 주천강 연못에 가 죽이고 왔다.”라고 남선비를 속인다. 남선비는 이 말을 곧이듣고는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함께 남선고을로 돌아왔지만 일곱 형제가 보니 어머니가 자신들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아들이 의심하는 것을 눈치챈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일곱 아들을 죽일 계락을 꾸민다. 배가 아파 죽겠다고 남편을 속이고는 큰길가에 떡서리를 뒤집어쓰고 앉아 짐을 치는 점쟁이에게 가서 짐을 쳐보라고 한다. 남선비가 짐을 치러 나가자,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지름길로 달려가 큰길가에 떡서리를 뒤집어쓰고 앉아 자신이 바로 그 점쟁이인 척하면서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낫겠다고 한다. 어리석은 남선비는 그 땀에 빠져 아들을 잡을 생각으로 칼을 간다. 뒷집에 사는 청태산마귀할머니가 불을 담으러 왔다가 남선비가 칼을 가는 연유를 물어 알고는 이 사실을 일곱 아들에게 귀뜸한다. 이 말을 들은 막내아들이 자신이 아버지 대신 여섯 형의 간을 꺼내 오겠으니 아버지는 나중에 자신만 처치하라고 속이고는 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다. 일곱 형제가 지쳐 졸고 있는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올 텐데 그 노루를 포위하여 죽이려고 하면 알 도리가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과연 노루 한 마리가 내려오기에 일곱 아들이 그 노루를 둘러싸고 죽이려 하였더니 노루가 조금 있으면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올 테니 어미는 살

려 두고 새끼들의 간을 꺼내 가라고 알려 주었다. 아들이 기다리니 과연 산돼지 일곱 마리가 내려와 새끼 여섯 마리의 간을 꺼내었다. 막내가 형들에게 자신이 소리치면 들이닥치라고 하고는 산돼지 새끼 간 여섯 개를 가지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가서 먹으라고 주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그 간을 먹는 착하고는 자리 밑에 감추는 것이었다. 막내아들이 들어가 노일제대귀일 딸의 머리채를 칭칭 감아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죄를 알리고 형들에게 소리쳐 들이닥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놀란 남선비는 달아나다 정낭(집의 입구에 대문 대신 걸쳐 놓는 굵은 막대기)에 목이 걸려 죽어 주목지신(柱木之神)이 되었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매어 죽어 화장실의 신인 축도부인(廁道婦人)이 되었다. 일곱 형제는 서천꽃밭으로 가 환생꽃을 따다가 주천강 연못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모시고 일곱 형제는 각각 신직을 차지하였다.

변이 무속신화라는 측면에서는 신격이나 좌정하는 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설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형은 같으면서도 다른 이름의 무속신화들이 다른 지역에 전승된다. 관북 지방 무속의 〈살풀이〉와 관서 지방의 〈성신굿〉 그리고 충남·호남 지방의 〈칠성굿〉 또는 〈칠성풀이〉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후반부 내용인 계모의 피병, 점쟁이 매수, 부친의 문복, 아들을 살해 기도, 산짐승의 희생, 계모의 음모 탄로, 계모 징치 등에서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인물의 이름에서는 각 지역 이본들이 차이를 보이지만 그것이 서사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분석 집 안의 여러 구역을 관장하는 신들과 그들의 유래에 관한 무속신화이다. 주로 제주도 큰곳의 일부로 구연되지만 새로 집을 짓거나 증축했을 때 행하는 곳에서도 구연되고 정초에 문전비념을 할 때에도 구연한다. 자료 정리도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져서 아카마스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문무병의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 『이용옥 심방 본풀이』 등에 보고되어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계모담이다.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전형적인 악인형 계모이고 남선비는 그 악처의 꾀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가장이다. 막내아들은 사태의 본질을 재빨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가족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의 가정은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그 공간들에는 각각 그 구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존

재하며, 그 신들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유지·계승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신화-열두본풀이 자료집(문무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조선인쇄주식회사, 1937).

참고문헌 이용옥 심방 본풀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장주근, 역락, 2001), 칠성풀이의 연구(서대석, 진단학보66, 진단학회, 1988), 한국 무속신화에 나타난 모신상과 신화적 의미(이수자,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고전문학, 월인, 2001),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박경신(朴敬伸)

용어

문헌설화

文獻說話

정의 글자로 기록되어 문헌으로 전승되는 설화.

역사 예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구술로 전승되다가 어느 순간 문자화되어 문헌에 정착한 경우는 많겠지만,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문헌설화로는 여말선초에 편찬된 『수이전(殊異傳)』을 꼽을 수밖에 없다. 『수이전』에는 다양한 지괴(志怪)나 전기(傳奇) 작품이 실려 있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중 일부만 여러 문헌에 산재하여 전해진다. 고려 중기에 편찬된 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도 다양한 설화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삼국유사』는 신화와 전설 등 다양한 설화가 담겨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 문헌설화 집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외에 고려시대에 편찬된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 『역옹패설(櫟翁稗說)』 등에도 여러 편의 설화가 문헌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헌설화는 조선시대에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 초기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을 위시하여 1958년에 민속학자료 간행회에서 수집 정리한 『고금소총(古今笑叢)』에 이르기까지 술한 패설 문학이 있다. 『고금소총』에는 묶이지 않았지만, 근래에 소개된 『소낭(笑囊)』, 『각수록(覺睡錄)』, 『거면록(祛眠錄)』 등도 주목할 만한 패설집이다. 특히 임진·병자 양란 후에 유몽인(柳夢寅)이 편찬한 『어우야담(於于野談)』을 위시하여, 소위 3대 야담집이라 하는 『청구야담(靑邱野談)』, 『계서야담(溪西野談)』, 『동야취집(東野彙輯)』은 물론, 20세기 초에 편찬된 『양은천미(揚隱園微)』에 이르기까지 야담류는 설화에 작가의식을 가미한 창작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설화 향유 방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구

나 야담은 1927년에 김진구(金振九)가 중심이 된 조선야담사(朝鮮野談社)를 중심으로 민중계몽운동을 표방한 야담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고, 이후 한국 근대 단편소설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내용 우리나라 설화가 부분적으로 문헌에 정착되기도 했지만, 문헌으로 대거 수용되기 시작한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조선 중기 이후부터다. 이들을 두고 ‘필기’, ‘패설’, ‘야담’, ‘한문단편’ 등 다양한 용어가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일하지 못했다. 연구자에 따라 이들을 각각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 필기는 조선 초기 야사류를 포함한 잡록, 패설은 골계미를 갖춘 소화류, 야담은 당대 일상을 재현하면서 서사성이 강한 작품, 한문단편은 야담 가운데서 소설적인 성향이 강한 작품에 한정해서 보는 것이다. 문헌설화는 이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담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어떤 용어를 쓰고,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문학연구에도 일정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실제 최고의 설화집이라 할 『수이전』이나 설화문학의 집대성이라 할 『삼국유사』에 접근하는 방법과 조선조 패설이나 야담에 접근하는 방식은 꼭 다르다. 이들을 모두 문헌설화라 하면서도 상호 연관성을 찾아 공통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거의 없다. 『수이전』과 야담을 전혀 다른 장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문헌설화의 특성을 구비설화와 관계에서만 구명하려고 했고, 문헌설화 상호간에 나타나는 교섭 양상에는 소홀했던 탓이 아닌가 한다. 문헌설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야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사회경제사적인 측면에서 문헌설화를 이해하려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패설이나 필기류에도 관심을 드러내지만, 아직은 그 경향이 미비하다.

특징 문헌설화는 구비설화와 함께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구비설화는 구전성과 현장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문헌설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전승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비설화가 유동성을 강조한다면, 문헌설화는 고정성을 지향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헌설화는 정착이 되었어도 고정된 실체로만 남아 있지 않는다. 문헌설화가 다시 구전되는 양상이 흔하기 때문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는 문헌설화가 다시 구전된 것이기도 하다. 〈송익필(宋翼彌)〉이나 이준경(李浚慶) 등은 문헌설화에서 다시 구전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점에서 보면 문헌설화 역시 구전설화가 지닌 성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다만 문헌설

화를 기록설화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록설화는 구비설화를 그대로 기록한 것으로, 구비설화가 지닌 시간의 제약에 따른 유동성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설화는 기록자에 의해 어느 정도 창의성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의의 문헌설화는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어느 한 순간에 문자로 정착시켜 시공간적 제한을 넘어서 당대의 삶과 가치를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기록되는 순간 기록자의 의식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기록자의 의식,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헌설화는 흥미로운 문학 장르라 할 만하다. 문헌설화는 시공간을 고정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정된 시공간을 당시 기록자의 해석에 따른 의식과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로 작동한다.

참고문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정명기, 보고서, 2001), 이조한문단편집(이우성·임형택, 일조각, 1973, 1978), 조선조 문헌설화집요1·2(서대석, 집문당, 1991, 1992), 조선 후기 문헌설화의 연구(조희웅, 형설출판사, 1981), 한국문헌설화(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문헌설화전집10(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태학사, 1981), 한국야담자료집성 23(정명기, 계명문화사, 1987~1992).

필자 정명기(鄭明基)

전설

미륵사

彌勒寺

 서동

정의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된 내력을 밝힌 전설.

줄거리 부여의 한 과부가 용과 정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집이 가난해 산에서 마를 캐어 생계를 꾸려 갔기에 마동 또는 서동(薯童)이라 불렸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이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경주로 갔다. 그는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서동요〉라는 이 노래는 곧 경주에 퍼졌는데,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을 몰래 만나 정을 통한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은 깜짝 놀라 선화공주를 멀리 귀양 보냈다. 이때 왕비가 공주에게 황금 한 말을 주었다. 공주의 귀양 길을 뒤따르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서동이었다. 공주는 운명으로 알고 서동을 따라갔다. 공주가 황금을 내어 놓자 서동은 그



미륵사지석탑
전북 익산시 금마면 기암리, 문화재청

것이 산에 많다고 했다. 공주가 따라가 보니 과연 황금이 널려 있었다. 지명법사의 도력으로 황금을 신라의 진평왕에게 보내 인심을 얻어 서동은 백제의 무왕이 되었다. 어느 날 무왕과 공주가 용화산의 지명법사를 만나러 가는데, 산 아래 큰 연못에 이르자 미륵삼존이 출현하였다. 두 사람은 경배했고, 못을 메우고 절을 짓기로 하였다. 진평왕도 많은 일꾼을 보내 도움을 주었는데, 이때 완공된 절이 바로 미륵사이다.

분석 〈미륵사전설〉은 향가 〈서동요〉의 배경설화로 유명하다. 백제의 무왕과 왕비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미륵사 창건주이자 당시의 왕은 무왕이 아니라 백제의 동성왕(東城王, 재위 479~501) 또는 무녕왕(武寧王, 재위 501~523)이라는 주장이다. 동성왕은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해 493년 신라에 혼인 동맹을 요청하여 신라 왕족 이찬 비지(比智)의 딸과 혼인했다. 백제의 왕이 신라 왕족과 결혼한 예는 동성왕뿐이어서 동성왕이 이 전설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이병도의 설이다. 또 사재동은 무왕이 무강왕(武康王)이라는 기록도 있고, 무녕왕의 출신과 관련한 전설이 〈무왕전설〉과 비슷하다며 그와 같이 주장한다. 또한 〈서동요〉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신라의 고승 원효일 것으로 추론하여 주인공이 원효라고 하는 김선기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 다른 역사가 최근에 밝혀졌다. 국립문화재연

구소가 2009년 1월 19일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굴한 ‘금제사리봉안기(金製舍利奉安記)’에 따르면 미륵사를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한 사람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이라 한다. 건립 연대도 기해년(639)으로 나와 있어 무왕의 재위기간인 600~641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로써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음이 증명되었다.

특징 〈미륵사전설〉은 신화, 민담, 전설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된 구조이다. 앞부분인 서동 탄생설화는 마한을 세웠다는 〈무강왕신화〉이고, 중간의 마를 캐는 산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것은 〈내 북에 산다〉 민담구조와 같으며, 끝으로 미륵사의 창건 동기는 전형적인 사찰연기전설이다. 전설은 기억되는 역사로 가변성이 강하다. 익산 지역은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인 기루왕(무강왕)이 마한을 세웠던 땅이며, 백제시대의 별궁이 있던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하나의 전설 속에 뒤섞여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역사에 바탕을 둔 〈미륵사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처 東國輿地勝覽, 三國遺事.

참고문헌 마한신화(나경수, 민속원, 2009), 서동요(나경수·서해숙, 한일미디어, 2005), 서동설화 연구(사재동, 장암지현영선생 화갑기념논총, 1971), 서동요 연구(김승찬, 국어국문학35, 부산대학교, 1998), 소동노래(김선기, 현대문학151, 현대문학, 1967).

필자 나경수(羅景洙)

신화

미추왕신화

味鄒王神話

정의 경주 김씨 중시조인 신라 제13대 미추왕(味鄒王)의 호국 신격에 관한 신화.

역사 제14대 유리왕 당대의 역사적 사건에 미추왕의 신이한 이적을 추가함으로써 미추왕을 호국신으로 신격화한 이야기다. 신성화의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왕위 세습의 정당성을 공고히 해 주는 가문신화 혹은 중시조신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한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전설에 해당한다.

줄거리 신라 제13대 왕 미추 이즐금은 김알지의 7대손이다. 누대 귀족으로 겸하여 가락한 덕이 있어 점해 이사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하였고, 왕위에 오른 지 23년 만에 죽었

다. 왕릉은 흥륜사 동쪽에 있다. 제14대 유리왕 시대에 이서국 사람이 와서 금성을 치자 신라 측은 대부대 군사를 동원하여 막았으나 오래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런데 돌연히 이상한 군사들이 와서 돕는데 모두 댓잎사귀를 귀에 꽂고 이편 군사들과 힘을 아울러 적을 쳐서 깨뜨렸다. 적군이 물러간 후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댓잎사귀들이 미추의 왕릉 앞에 쌓여 있었다. 이를 보고야 비로소 선대 임금의 음덕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왕릉을 죽현릉(竹現陵)이라고 불렀다. 훗날 지나서 제37대 혜공왕 시대인 779년(대력 14) 기미 4월에 김유신 공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났다. 회오리바람 속에 웬 사람 하나가 좋은 말을 탔는데 장군의 차림을 하였고, 갑옷 차림에 병장기를 가진 자 40여 명이 뒤를 따르더니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조금 있다가 왕릉 속에서 왈차지껄하고 울음소리 혹은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말소리는 “제가 살아서는 정치를 돕고 환란을 구제하고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세웠으며 지금은 혼백이 되어도 나라를 수호하며 재앙을 물리치고 환란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야 잠시라도 변함이 없었거늘 지년간 경술년에 제 자손이 죄 없이 사형을 당하였고 임금이나 신하들은 나의 공적을 생각하지 않으니 저는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다시는 애써 근념도 않겠으니 원컨대 왕은 허락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대답하기를 “오직 나와 그대가 이 나라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저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는 이전과 다름없이 힘을 쓰소.” 하며 세 번을 청했으나 듣지 않고 회오리바람은 그만 돌아갔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즉시 대신 김경신을 보내어 김 공의 무덤에 가서 사과하고 공을 위하여 공덕보전(功德寶田) 30결을 취선사(鷲仙寺)에 들여 놓아 그의 명복을 빌었다. 이 절이 김 공이 평양을 친 후에 복을 닦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추의 영혼이 아니었다라면 김 공의 노임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니 왕이 나라를 보호하는 품이 무척 크다고 할 것이다. 이래서 나라 사람들이 그의 덕을 사모하여 삼산(三山)과 함께 제사를 끊지 않고 제사의 직위를 오릉(五陵)보다 위에 두고 대묘(大廟)라 일컬었다.

변이 죽엽군과 김유신의 혼백을 등장시켜 미추왕의 호국신격 성격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씨족신화이자 가문신화이다. 김 씨 왕족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가문의 후손들은 변이를 허락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설이기는 하지만 가문신화의 영향력이 미쳐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분석 〈미추왕신화〉는 문학과 역사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문학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미추왕의 영웅적 성격에 주목하

기도 하였고, 미추왕과 김유신의 혼령이 보인 신이한 활약상을 들어 신화가 끝난 시대의 신화로서 가문신화로 보기도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씨 왕족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기획된 김씨 중시조신화로 규정하기도 한다. 역사학계에서는 박·석·김 세 씨족의 왕권 교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료로 보거나, 신라 중대 정치사의 변화를 담고 있는 설화로 파악하고 연구해 왔다.

특징 신라의 박씨 왕조는 〈박혁거세신화〉를, 석씨 왕조는 〈석탈해신화〉를 전승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김씨 왕들은 성씨 시조인 〈김알지신화〉가 있기는 했지만, 김알지가 왕으로서 등극하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박씨와 석씨에 비해 왕위 세습의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씨 왕족으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왕을 호국신으로 신성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 신화이다.

의의 제14대 유리왕 대 〈미추왕 이야기〉는 죽현릉 유래라는 면에서 지명유래전설에 해당하며, 제37대 혜공왕 대 〈미추왕 이야기〉는 김유신의 혼백이 미추왕을 찾아 신원한다는 점에서 신원전설이다. 지명유래전설과 신원전설을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는 것이 미추왕의 호국신격으로서 신성화이다. 이는 김씨 왕족 왕위 계승의 정당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문신화이자 경주 김씨 중시조신화이다. 신화이면서 전설인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신화시대가 끝난 역사시대에 전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가문의 신화로 기획, 편입되는지를 보여 준다. 아울러 일연의 편찬 의도 혹은 전승자의 의도로 보면 이 미추왕의 호국신격 성격에는 고려 당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유사설화와 기호학(송효섭, 일조각, 1990), 삼국유사 소재 미추왕설화의 형성배경과 그 의미(조유영, 어문학98, 한국어문학회, 2007),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이병교, 민족사, 2005), 신라정치사회사 연구(이기백, 일조각, 1974), 한국문학통사(조동일, 지식산업사, 2005).

필자 김화경(金和經)

전설

미혈

米穴

▶▶▶ 쌀 나오는 바위

민담

民談

정의 인격을 지닌 주인공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공(時空)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전승의 비사실적인 설화.

역사 민담이 인류의 유아기부터 존재하였음은 가정이 아닌 사실이다. 그런데 민담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19세기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와 논쟁을 거듭해 왔다. 현재의 결론은 민담의 발생 및 기원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 기록이 없던 역사시대 이전의 일에 대해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담이 기록되기 시작한 역사시대 이후의 실상을 두고 말한다면, 아무래도 기록을 남긴 세계 4대문명 발생지를 민담 발생의 중심지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즉 바빌로니아나 이집트에서는 토관이나 파피루스 같은 기록 매체를 통하여 4~5천 년 전의 이야기 자료를 남겼고, 이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지만 인도나 중국 등에서는 2~3천 년 전의 자료를 남겼다. 물론 이들은 순수 민담이라기보다는 전설이나 신화에 근접한 자료들이지만, 그중에는 후대 민담들에 나타나는 많은 삽화나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어, 기원적으로 전승 민담을 차용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민담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고, 많은 문학가나 사상가들이 종종 민담을 인용하거나 재창작을 해 왔지만, 민담 자체를 본격적으로 채록하기 시작한 것은 근세 이후의 일이다. 일찍이 16~17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스트라파롤라(G. F. Straparola)와 바실레(Gi. Basile)는 『유쾌한 밤』(1550), 『펜타메로네』(1634~36)와 같은 이야기책을 각기 편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무렵부터 여러 야담집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들 자료의 대부분은 편찬자에 의해 첨삭이 가해진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순수 민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실제 민간의 구전자료를 이용해 프랑스의 페로(C. Perrault, 1628~1703)가 쓴 『어미 거위의 이야기』(1697)나 독일 그림형제(Brüder Grimm)의 『가정과 아동을 위한 설화』(전 3권, 1812~1815)에 이르르면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들도 원자료가 아닌 편찬자의 수정·윤색이란 점에서는 여전하였다. 물론 다듬어지지 않은 조잡한 낱 것 그대로의 자료를 독자에게 전한다는 것은 학자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록 매체의 미발달

로 인해 구연 그대로의 채록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담 자료의 채록이 삼국시대와 고려·조선시대에 걸쳐 이루어졌을 터이지만, 문헌의 인멸로 그 실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개중에 어떤 것들은 『삼국유사(三國遺事)』나 『수이전(殊異傳)』, 여말의 패관서, 조선시대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관찬서 또는 그 밖의 개인 문집들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자료들은 순수한 민담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신화나 전설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모두 식자층의 기록으로서, 내용을 보면 역사에 관계되는 것이거나 도덕적으로 추장(推獎)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본질적으로 ‘거짓말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는 일반 민중의 비속한 이야기들은 매우 드물다. 다만 문헌설화의 채록자도 때로는 세상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담의 내용을 변형하거나, 혹은 심심파적으로 하찮고 비속한 민담을 기록하여 전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 왕성해진 야담 패설집의 편찬은 이러한 사조에 따른 결과물이라 하겠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 민담사에 특기할 만한 일은 가린(N. Garin), 그리피스(W. E. Griffis), 에카르트(P. A. Eckardt) 같은 외국인들의 공헌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저서는 내용의 개편이 너무 심하고 간략하였으며, 그 취향도 동화집에 가까운 것으로, 본격적인 민담집으로 보기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 무렵 민담에 대한 인식이 차츰 높아짐에 따라 더욱 구전에 가까운 원자료를 채록하려는 노력이 더해져 이른바 ‘설화력(說話歷)’을 명시한 자료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한충의 『우리 동무』(1927), 정인섭의 『온돌야화』(1927),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이다. 이 중 정인섭과 손진태의 민담집은 유감스럽게도 당시 시대 상황에 따라 일본에서 일본어로 간행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동란이라는 민족의 대시련을 겪은 후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민담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비문학 자료가 점차 사라져 갔다. 이런 와중에 구비문학 연구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국적인 자료 발굴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약 7년간에 걸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전 82책)가 간행되었다. 이후 개인 연구가들에 의해 많은 민담 자료집들이 간행되었는데, 자료 측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해방 이전 채록 자료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전 12책)이다. 종래 주로 속기에 의존하던 채록 작업도 녹음기의 발달로 원문 그대로의 채록이 가능해졌고, 음성인식 기술의 출현으로 구연과 동시에 원문 그대로의 채록도 가능해질 정도에 이르렀다. 반면에 구비전승 자료 자체의 급격

한 소멸로 인하여 새 자료의 발굴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내용 민담은 대체로 그 줄거리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나 또는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다. 예컨대 인간이 아닌 동물이 등장하여 인간의 언행을 보여 준다면 이것은 동물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인간 혹은 초자연적 존재가 등장하여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행동을 보여 준다면 신이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장인물의 우스꽝스러운 언행을 통하여 청자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면 소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상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보여 주는 것이라면 일반담이라 할 수가 있겠다. 이처럼 민담의 내용은 듣는 사람에겐 감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다만 지루한 시간을 잊게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민담의 내용이 어떤 취향의 것이냐에 따라서 향유층이 상층 아니면 하층으로 갈릴 수도 있겠고, 혹은 여자나 남자로 갈릴 수도 있겠고, 연령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하여 양반들이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비천하되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층민들의 이야기가 있고, 남자들의 세계 혹은 여자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구연되는 이야기도 있고, 어른들 혹은 아이들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다.

민담은 처음에는 개인 창작에 의하여 시작되어 원작자는 망각된 채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역사 시기 이후에 이르러 문자로 기록됨으로써 고정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담의 내용이 구전될 때에는 화자의 망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첨삭이 더해져 이합집산이 계속된다. 그런데 민담의 전승은 구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포물라(formula)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승적인 민담에는 단순한 구절의 반복만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반복되거나, 인습적인 모티프와 에피소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수많은 이본이 생겨나고 때로는 새로운 유형도 생겨난다.

변형의 차원은 매우 다양하다. 극히 사소한 모티프에서부터 때로는 단편적인 삽화, 나아가 유형 전체에 걸친 변개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콩쥐팍쥐> 이야기의 경우 주요한 모티프의 하나인 ‘신발’이라는 소재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비단신’이나 ‘가죽신’, 나아가서는 ‘유리구두’로까지 바뀐다. 이본에 따라 결말부에서 콩쥐가 죽었다가 소생하기도 하고, 콩쥐는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에 반해 팍쥐는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로도 바뀐다. 이처럼 다양한 이본들의 변형은 얼핏 보면 전혀 새로운 창안으로 보이나,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

의 요소를 빌려 온 것이지, 없었던 것을 지어서 붙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집단 속에서 전수받은 민담의 자산 일부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민담의 역동성은 일단 문자를 빌어 기록되는 순간 고정된 형태로 굳어 버려 생명력을 잃고 만다.

특정 민담 유형의 내용이 거의 모든 지역, 민족에 공통적이거나 유사하게 나타남은 전파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복잡한 내용의 이야기가 극히 멀리 떨어진 광범위한 지역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연된다는 것은 전파의 결과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반면에, 세계 각처의 인류가 문화 발전의 단계에서 좀 늦고 빠름은 있어도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결과로, 이야기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인심동사설(人心同似說)’, 즉 진화론적 인류학과의 이론은 단순 모티프를 지닌 이야기라면 몰라도 복잡한 구성을 지닌 이야기에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파론적인 입장이 아니더라도 민담의 유형이나 모티프를 모두 모아 분류함은 매우 유용할 수가 있다. 특정 유형이나 모티프들을 모아 연대순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분류하여 배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특정 지역의 발생 시기나 장소를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야기의 분포 상태나 대략적인 역사, 이야기 내용의 이합집산, 나아가 어느 정도의 기본 형태 따위를 가늠하는 데는 크게 유용하다. 또한 구전민담이 기록문학에 끼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피는 데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계 민담에 대한 아르네-톰슨(Aarne-Thompson)의 유형 인덱스나, 톰슨의 모티프 인덱스는 선구적 모범이 된다.

특징 민담은 신격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격 중심의 이야기란 점에서 신화와 다르고, 증거물이 없다는 점에선 전설과 구별된다. 또한 전설이나 신화는 특정 지역에 고착함에 반하여, 민담은 시공을 초월하여 널리 전파되는 특성을 지닌다. 민담 중에도 어떤 것은 이야기의 처음이나 끝 부분에서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나 유래를 명확히 하는 어구 혹은 문장이 덧붙여 전설적 색채를 띠기도 한다. 가령 동식물담의 경우 등장인물의 습성이나 외모에 대한 기원론적인 설명이 덧붙고, 일반담의 경우에는 집단의 습관에 대한 설명 등이 덧붙는다. 그러나 이것은 민담의 원모습이라기보다는 민담이 전설화한 것으로, 후대에 부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담의 종류 중 동물담이나 소담, 형식담 같은 것은 대체로 단순 구조를 보임에 비하여 일반담이나 신이담(특히 환상담)은 대체로 복잡한 구조를 이룬다. 따라서 일반담이나 환

상담은 보통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을 취한다. 물론 신이담 중에도 단순 형식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동물담이나 소담 같은 것 중에서도 구조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동물담이나 소담은 대개 여러 개의 삽화가 합성된 복합담이며, 이러한 예들은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것이다.

민담의 등장인물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 어리석은 어른이나 혹은 귀인, 용이나 도깨비 같은 초월적인 존재, 의인화된 동식물, 지혜로운 아동이나 여성 등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을 내세워 민담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저항이나 보복을 보여 주고, 비법적인 행위로써 계층을 허물며, 현우(賢愚)의 역전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경험케 한다. 웃음의 극대화를 노려 때로는 장애인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여 폄하하거나, 불법적인 사기 행위를 주저 없이 용인하기도 한다. 여성을 일반적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성차별에 대한 반동으로 여성을 영웅화하는 이야기도 많다. 민담 중에는 극단적인 잔인성을 보이는 예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뒷부분에 이르러 원상태로 복구되거나 좋은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보이는 전설과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민담을 포함한 설화의 일반적 특징으로는 유사한 사건을 반복하거나 특정어구의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담이 특히 그러하다. 이제까지 민담 연구자들이 많이 지적했던 민담의 서두와 결말의 형식 같은 것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의의 민담의 가장 큰 기능은 윤리적 기능을 들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청자에게 감흥과 동시에 도덕적 효과를 주려 한다. 이러한 효용 때문에 민담은 계층,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애용되어 온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민담을 통하여 집단의 관습과 제도, 사상, 종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주입할 수가 있고, 역사적 지식을 주거나 사회적 책임을 자각시킬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인간성이나 상상력의 계발, 지혜나 상상력의 촉구, 또는 우주·세계·집단·인간·동식물 등 사물의 기원 문제,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도 있다. 민담의 서두나 결말에서 화자가 교훈적인 속담이나 경구적 발언을 덧붙임은 그러한 목적의식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민담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오락적 기능을 빼놓을 수가 없다. 민담 구연의 시간이나 장소는 비록 특정되지는 않지만, 흔히 저녁이나 휴식 시에 가족이 모이는 안방이나 손님들이 모이는 사랑방이나 객사(客舍), 일꾼이 모이는 쉼터, 심지어는 양반들이 모이는 회합의 여가 시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때로는 전문적인 이야기꾼을 중심으로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윤리적인 목적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점은 한가한 시간을 심심치 않게 보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담 속에는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나아가서는 모두가 이루고 싶어 하는 생각이 투영된다. 민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꿈[願望]의 기록이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수(壽)·부귀·결혼 심지어는 성적 욕구 같은 소원들을 대상적(代償的)으로 충족시킨다. 허구적 이야기로나마 각 개인은 사회적인 구속과 금기를 벗어나고, 이를 수 없는 꿈을 가상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민담은 작든 크든 그것이 거쳐 온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미술이나 음악, 기록문학 따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속에는 역사고고학적 흔적을 담고 있다. 나아가 거기에는 심리학, 사회학 등의 단서가 들어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민담은 다양한 인간의 심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학제 간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요긴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민담의 세계(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전래동화 연구(손동인, 정음문화사, 1984), The Folktale(S. Thompson, New York: Holt, Rimehart & Winston, 1946).

필자 조희웅(曹喜雄)

민속문학

民俗文學

표제어 구비문학

일본

密本

정의 신라 선덕왕(善德王, 재위 632~647) 때, 경전을 읽어서 귀신 무리를 쫓아내고 병을 고친 밀교 계통의 승려인 밀본에 관한 설화.

줄거리 선덕여왕은 흥륜사 승 법칙의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때 밀본이 약사경(藥師經)을 읽자 그가 가지고 있던 육환장이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 한 마리 늙은 여우와 법칙을 찢어 뜯 아래로 내쳤다. 또 승상 김양도는 어릴 적 몸이 뻣뻣하게 굳는 병에 걸려서 곳간에 귀신들이 떼 지어 몰려와 난장판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양도의 아버지가 밀본법사를 부르니, 법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대역신(四方大力神)들이 와서 귀신의 무리를 잡아갔고 양도의 병도 나았다.

분석 토착신앙은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이 귀신 때문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거나 그들보다 센 힘을 가진 신의 힘을 빌려 와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토착신앙과 상대하는 방법으로 불교는 강력한 주술을 동원한다. 밀본은 경전의 주력(呪力)으로 선덕왕에게 병을 일으킨 늙은 여우를 무찔렀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망대역신들의 도움을 받아 김양도와 그의 집안에 해를 끼친 귀신 무리를 퇴치했다. 이처럼 불교는 밀교를 중심으로 귀신이나 무당보다 더 큰 불력(佛力)을 과시함으로써 토착신앙 세력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다.

특징 신라에 불교가 토착화하는 시기에 불교는 전래의 토착신앙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밀교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다라니, 점찰, 문두루법 같은 밀교적 색채의 신앙은 신라 전 시기에 걸쳐 폭넓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일연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신주(神呪)」를 따로 설정하고 그 밀교의 성격을 치병(治病)·제액(除厄) 주술에 한

정하였다. 특히 밀본최사(密本摧邪) 조는 신라밀교의 이른 시기를 대표하는 예로 약사경을 치병주술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의의 대결 구조는 <주몽신화>부터 나타나는 구비서사의 특성이다. 그러나 밀본최사 조는 어디까지나 불교 우위의 입장에서 불교와 무속의 갈등을 서술하는 이념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결 구조를 통한 이념성의 강조는 시대나 집단의 계층적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출된다.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한 토착신앙과 불교의 대결도 조선으로 내려오면 무속과 유교 사대부의 대결로 전이된다.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3에는 안공(安公)이 귀신이 붙어 날뛰는 소년을 복숭아 가지로 다스려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사를 실고 있다. 또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譚)』에 나오는 귀신이 권람(權擘, 1416~1465)을 보고 그가 정승이므로 범할 수 없다면서 피해 갔다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이는 문화사 차원에서 한국문화의 각 지층을 이루는 무속, 불교, 도교, 유교가 어떤 담론을 펼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2004),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 연구(박성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신라밀교의 사상내용과 전개양상(고익진, 한국 밀교사상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필자 박성지(朴聖智)

바다·섬전설
바닷물이 짠 이유
바리공주
바리데기
바보며느리
바보사위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바보원님
바보의 문자 쓰기
바보형제
바위·굴전설
박문수
박문수 친척 된 사람
박상의
박연폭포
박엽
박제상
박혁거세신화
반쪽이
밥 안 먹는 마누라
방귀시합
방귀쟁이며느리
방리득보
방이

방학중
배너미골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백두산
백마강
백일홍
백제건국신화
뱀신랑
범이사
병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벽골제
변신담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변신화소
변이
병립구조
보리암
보양
보은속리정이품송
보한집
복 타고난 백정의 딸
본풀이
봉사 남편과 멍어리 아내
봉정사
부모 때리는 효자
부부간의 비밀신호
부부의 떡 다툼
부석사
북두칠성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북부여건국신화
불가사리
불국사
불씨 지킨 며느리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비 내린 이무기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빈대절터
뼈꾸기
뼈악뼈악꼬꼬



: 비읍



전설

바다·섬전설

정의 바다를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하거나, 도서·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광포전설과 지역전설을 총괄하는 개념의 전설.

역사 발생과 전승의 과정은 도서 해양의 생태적 조건을 매개 삼아 형성된 전설이 근간을 이루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이 습합되어 변이되고 확장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생태적 조건을 매개로 형성된 전설은 용왕이나 용궁, 마을제당의 신화, 미륵 등 신앙 관련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역사적 이야기의 습합은 해당 해양 공간이 갖는 크고 작은 사건과 대내외적 상호관계들이 중심을 이룬다.

내용 연구자에 따라서는 바다전설과 섬전설을 통칭해 ‘해양 전설’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해양은 연안 어촌을 포함 해 섬 및 바다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바다전설이라고 하면 연안과 해양을 포함해 사람의 삶이 미치는 영역 전반을 포괄한다. 하지만 섬전설은 바다전설을 포함하여 내륙에 분포하는 전설의 상당수도 포함한다. 왜냐하면 섬 자체가 내륙을 축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산과 들과 강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며, 내륙산간에서도 해양 관련 전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시작되는 용왕전설 등이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이다. 곧 바다·섬전설은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대상화하는 전설을 근간으로 하되, 도서해안 지역 사람들에게서 구전되어 온 전설 전반을 포함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일부 내륙을 포함한 연안 해역과 섬을 포괄하는 광포전설, 해양 공간의 조건에 따라 변별적인 지역전설로 나눌 수 있다.

전설의 범주를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생태적 환경과 관련된 전설 및 역사적 사건 혹은 인물이 습합된 전설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용궁과 용왕 관련 전설이다. 울릉도 석포마을에 전해져 온 할머니 이야기는 ‘정들포’의 지명유래담으로 용녀가 정을 들이고 간 곳이라는 뜻이다.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의 생태 환경을 투사시킨 전설인 남해용왕의 세 아들 이야기가 전해 온다. 전라남도 해남의 〈박씨총각전설〉은 청룡과 황룡의 싸움을 평정하는 용녀 아내를 놓친 이야기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의 〈비비각시전설〉은 인근 바다 바윗돌의 지명유래담이

다. 확일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대개 바다와 지역 간의 생태 환경들이 전설 속에 직간접적으로 매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해안바위 등 지명 관련 유래담이다. 부산광역시 절영도에는 장사의 신발처럼 생긴 〈장사바위〉 이야기가 전해 온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의 갈목이란 갯마을에는 박서방과 용녀의 사랑 이야기인 〈용녀바위전설〉이 전해 온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에는 이오복이라는 어부가 신저갯이라는 물귀신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도와준 때의 이야기인 〈매바위전설〉이 전해 온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는 김종윤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이를 용왕에게 바치고 해안 독을 쌓은 전설이 전해 온다. 충남 천수만 부근 빈섬에는 삼만이라는 총각과 선주 딸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인 〈독수리바위전설〉이 전해 온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의 〈망해암전설〉은 서해용왕의 영험과 관련되어 있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의 〈노고바위전설〉은 이무기였던 부인과의 애달픈 사랑을 그리고 있다. 제주시 용담동 서북쪽 바닷가의 〈용머리바위〉는 제주도의 흰 말이 용이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 성인봉의 〈산삼전설〉은 효성 깊은 아들이 산삼을 캐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한 내용으로 신령이 산삼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다는 ‘성인봉’의 지명유래담이다.

셋째, 기타 바다와 섬에 전해지는 유래담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자매이야기〉는 용궁의 고양이가 죽어 나무가 되었고 황금색 열매를 열게 했다는 ‘꿀나무’의 유래담이다. 함경북도 명천 땅의 태서방이라는 어부 이야기는 새로운 고기를 잡아 앞바다 이름과 어부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명태’의 유래담이다. 전남 담양군 추월산의 〈용연전설(龍淵專說)〉은 바다에서 솟은 봉래산에서 대나무 피리를 얻었는데, 이 피리소리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대평리의 〈군산전설(軍山專說)〉은 중국의 곤륜산 왼쪽 봉우리가 회오리바람에 쫓겨 와서 생긴 것이라는 내용이다. 황해도의 〈돈개나루전설〉은 돈 포대를 깔아서 태자를 모셨다고 해서 붙여진 전포(錢浦)나루의 유래담이다. 〈부석사전설〉은 용녀가 충남 천수만에 던진 바위가 해적들을 쫓은 이야기로 부석사(浮石寺)와 도비산(鳥飛山)의 지명유래담이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해인사(海印寺)의 ‘해인’이라는 개 이야기는 용왕의 딸이 변해 축복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해인사의 연기설화(緣起說話)이다. 강원도 강릉시의 안인진이라는 어촌에 전해지는 〈해랑당설화〉는 해랑지신과 김대부지신이 죽은 후에 혼인했다는 내용으로 해랑당의 변천사를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전남 영광군 군서면의 〈벼락터전설〉, 충남 보령시 원안마을의 〈배코날전설〉, 영산강 남해포

에 전해지는 〈현종과 용왕〉 등 다양한 전설이 있다.

넷째,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관한 전설이다. 중국 진시황 때 고종달이라는 장수가 탐라국 ‘종다리’에 와서 벌인 에피소드를 그린 전설을 비롯해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수궁에서 벼슬을 한 이진원이라는 사람에 관한 전설이 있다. 경북 영덕군 병곡면의 거무역리라는 마을에는 현명한 거북이가 일러주어 삼대를 베풀하게 된 박세통 일가 이야기와 마을유래담이 전해 온다. 울릉도의 장사였던 배성삼의 이야기,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전해오는 〈임씨와 계명당전설〉, 우리나라 추씨의 시조설화, 조기잡이를 처음 알려준 〈임경업장군전설〉, 제나라 왕이었다가 오백 무리를 이끌고 서해안의 섬에 정착한 〈전횡전설〉, 진시황의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진했던 서북 관련 전설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서해, 남해에 널리 분포해 있다.

다섯째, 섬 자체를 대상으로 전승되어 온 전설이다. 제주 시 삼성사 내 〈삼성혈전설〉은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 세 명의 신으로부터 이루어진 세 성씨 유래 및 탐라국의 유래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앞바다의 〈칠기도전설〉은 도장리의 장수가 씨름을 해서 얻은 섬이라는 유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 태종대 앞 〈주전자

민담

바닷물이 짠 이유

정의 요술 뱀들에서 소금을 나오게 한 뒤, 뱀들을 멈추지 못해 바닷물이 짜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한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다. 동생은 형의 집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심술 고약한 형은 동생을 죽일 요량으로 심부름을 핑계로 도깨비 소굴로 보냈다. 동생은 한 노인의 도움으로 도깨비들의 요술 뱀들을 구해 행복하게 살았다. 동생의 소식이 금궁해 찾아간 형은 동생에게 뱀들 이야기를 듣고는 뱀들을 빌려 가는데 멈추는 방법을 몰라 곤욕을 치른다. 동생이 뱀들을 멈춰 형을 구하자, 형은 동생에게 뱀들을 돌려준다. 요술 뱀들 얘기를 들은 소금장수들이 찾아와 뱀들을 팔라고 한다. 동생은 비싼 값으로 뱀들을 팔고, 소금장수들은 배에 올라 소금을 나오게 하지만 멈추는 방법을 몰라 뱀들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지금도 뱀들에서 소금이 나와 바닷물이 짠 것이다.

섬전설)은 불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라북도 호곡리의 〈이만경전설〉은 만경원독과 낭섬이 생긴 유래담이다. 경기 백령도에는 백학이 알려주어 사랑을 이루었다는 사랑 이야기인 흰 날개, 즉 ‘백령(白翎)’의 지명유래담이 있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와 홀로 산 처녀에 대한 〈할미섬전설〉이 전해 온다. 울릉도에는 우산국 시절의 〈우해왕과 풍미녀전설〉이 전해 온다. 제주도에 있는 조천리 고동지라는 사람이 조난당했다가 데리고 온 〈여똥 할망(이어도 할머니)전설〉이 전해 오는데, 이어도의 유래담이자 조천리 장귀동산당의 유래담이다. 이외에도 전남 강진군의 〈비라도와 최총각전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유자도와 유부도 부자전설〉 등 무수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의의 바다와 섬, 즉 해양전설은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 온 인간이 생태 환경과 역사적 체험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축적해 온 독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도서해양문화&지역문화산업(이운선, 민속원, 2012). 바다기담(김지원 엮음, 청아출판사, 2009). 전남의 전설(김정호, 전라남도, 1991).

필자 이윤선(李允先)

변이 뱀들 대신 망 또는 활인기(活人器), 활인레(活人櫃)가 나오기도 하며, 선행의 대가로 보물을 얻은 사람에게 그 보물을 훔치는 식으로 변이 된 이야기도 있다. 또 결말이 동생의 뱀들을 빌려 가, 돈을 나오게 하고는 멈추지 못해 형이 돈에 묻혀 죽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결말은 〈도깨비방망이〉와 같은 소재에서 유사성을 가진 이야기와 교섭된 결과이다.

분석 이 설화는 바닷물이 짜게 된 이유를 다룬 점에서 기원담의 성격을 지니며, ‘민담은 신화의 부스러기’라는 언술에 적합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모방담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모행위자가 선행위자의 행위를 탐문하고 초월적 존재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위자에게 접촉하여 보물을 얻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특징 일찍이 손진태는 그림동화 중 〈바닷물이 짠 이유(Warum das Meerwasser salzig ist)〉와 소재의 유사성을 들어 이 설화가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전파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설화의 내용이 나쁜 형과 착한 동생의 형제 갈등으로 형을 징치(懲治)하는 것이 아니며, 바닷물이 짜게 되는 것도 형의 잘못으로 생긴 결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구의 설화와 차이가 있다. 이는

형제애(우애)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의의 형이나 소금장수가 맷돌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맷돌을 사용하는 바탕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생이 가진 결핍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 설화는 이를 통해서 과욕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591; 3-3, 383; 6-3, 536; 6-9, 146; 7-5, 139; 7-9, 1040; 8-7, 367.

참고문헌 모방담의 구조와 의미(서대석, 한국고전전문연구, 동화문화사, 1981),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전래동화 연구(손동인, 정음문화사, 1984).

필자 유흥동(兪亨東)

신화

바리공주

정의 진오기굿, 오구굿, 씻김굿, 망목이굿 등 사령제(死靈祭) 무의(巫儀)에서 구연되는 저승신의 유래를 서술한 서사무가.

줄거리 바리공주의 온전한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이 본풀이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상금마마와 중전부인이 혼인하게 되었다. 천하궁 다지박사에게 물으니 혼사를 서두르지 말라는 금기를 내리는데 이 금기를 어기면서 둘은 혼인한다. 이로 말미암아 바리공주의 부모는 거꾸 딸을 낳게 되었으며 일곱 번째 역시 딸을 낳는다. 그런데 일곱 번째 딸은 마지막에도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버려진 공주는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얻고 비리공덕할아비와 비리공덕할미에게 구조되어 키워진다. 한편 바리공주의 부모는 죽을병에 걸리는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약이 무장승이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약령수와 환생꽃임을 알게 된다. 부왕은 여섯 공주에게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령수를 구해 오라고 하는데, 여섯 공주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한다. 하는 수 없이 버린 일곱 번째 공주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버려진 공주를 찾는다. 마침내 바리공주와 주상금마마 내외는 서로 재회한다. 바리공주는 남장을 하고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수를 구하기 위해 저승 여행을 떠난다. 그곳까지 가는 동안 바리공주는 여러 가지 주문과 주령을 사용하여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한다. 마침내 저승에 이르러서 남성인 무장승을 만난다. 무장승에게 여러 가



바리공주 무복
국립민속박물관

지 일을 해 주면서 공덕을 쌓은 끝에 아이들을 낳고, 마침내 그곳에 있는 꽃이나 약물이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바리공주는 약령수와 환생꽃을 가지고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 오다가 강림도령을 만나 인산거동(因山舉動)이 났음을 알게 된다. 더욱 서둘러 가서 약령수와 환생꽃으로 부모를 모두 되살린다. 마침내 부모를 살린 덕분에 부왕에게 신직을 부여받는데, 아이들은 칠성으로 자리하고, 무장승은 시왕궁 용노릇을 하게 되었으며, 바리공주는 만신의 몸주노릇을 함으로써 만신의 섬김을 받는다.

분석 〈바리공주〉는 서울의 진오기굿·안안뫼굿·새남굿 등에서 불리는 서사무가로, 말미 드린다는 곳거리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서울에서는 말미라 하여 구연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발원굿·오구물림·씻김굿·시뫼굿과 같은 거리에서 이 본풀이를 부른다. 〈바리공주〉는 본풀이이고, 진오기굿은 무속의례이다. 신화와 의례, 즉 본풀이와 말미가 서로 긴밀하게 작동한다. 진오기굿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실을 하는 인물은 바리공주로, 만신의 몸주가 되어 만신들이 지옥에 가서 망자를 해방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구실을 한다. 〈바리공주〉의 핵심 면모는 지옥의 시왕에게 갇혀 있는 망자에게 바리공주의 내력을 들려주어 시왕에게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이다.

〈바리공주〉에서는 주인공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이계여행을 하는 것이 중점적인데, 이처럼 바리공주는 망자를 극락으로 천도한다. 이것이 의례에서 얻은 해방의 가능성이며 약령수와 환생꽃으로 다시 태어날 원형을 구하는 것이다.

마치 인로왕보살의 인도를 받아서 극락으로 가듯이 바리공주는 이렇게 해방된 망자를 데리고 새로운 탄생과 환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 〈바리공주〉는 말미·도령들기·베짜 등이 연관된 의례의 유기적 구성을 갖추며, 이것이 〈바리공주〉의 진오기굿이 지니는 종교적 비의성(秘儀性)이 높은 이유이다.

의의 〈바리공주〉는 죽음의 노래이자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노래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이 기본적 의의이다. 삶의 노래와 다르게 죽음의 노래가 강조되어 있으며 죽음을 부정하고 새롭게 혁신하고자 하는 진오기굿에서 이 노래가 불리는 이유이다. 이 본풀이는 세계관적 변혁의 산물이고 고유 신격과 외래 신격이 서로 얽혀 긴요한 구실을 하는 융합의 산물이다. 저승 여행을 하는 구비서사시나 죽음의 신화에서 그 주인공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저승에서 꽃이나 물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생명수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신화는 비교신화학적으로도 의의가 있는데,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내용은 모두 고유 신격의 면모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바리공주〉는 고유한 신격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이 인물이 외래 신격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인물들의 면모는 각별하며 외래 신격과 수직적인 결합 양상을 보인다. 가령 지장보살, 시왕 같은 신격보다 아래에 있으며 석가여래세존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다른 외래 신격이 위계 구성을 하면서 이들의 가운데와 아래에 바리공주를 넣었다. 전형적인 수직적 위계 구성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외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구현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중국 〈노자화호(老子化胡)〉나 일본 〈혼지수이자쿠(本地垂迹)〉와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인다. 그러므로 수평적 주인공의 이야기가 수직적 구성과 맞물려 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와 같은 구비서사시는 세계의 샤먼 영웅서사시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인도의 고대서사시인 〈라마야나(Ramayana)〉와 깊은 관련이 있다. 〈라마야나〉는 전체 열개가 〈바리공주〉와 비슷하고 마지막 대목은 〈당금에기〉처럼 전개된다.

출처 서사무가 바리공주 전집1·2·3·4(홍태한 외, 민속원, 1997~2001).

참고문헌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홍태한, 민속원, 1998), 서울진오기굿-바리공주연구(김현선, 민속원, 2011).

필자 김현선(金憲宣)

신화

바리데기

바리공주

민담

바보며느리

정의 며느리가 시집에서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는 우행담 성격의 민담.

역사 이 이야기는 여자가 시집가서 생활하며 벌이는 바보짓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에서 시집살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줄거리 어떤 집에서 새로 며느리를 들었는데 말을 함부로 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쳤는데, 어느 날 밖에서 개가 짖자 무슨 일이 있는지 며느리더러 나가 보라고 했다. 밖에 갔다 온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 “소씨가 똥을 뜯으시니 개씨가 보시고 공공씨라 하십니다.” 또 시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입에 밥풀이 붙자 며느리는 “아버님 주 등씨에 밥풀씨가 붙었습니다.”라고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러 가려고 며느리더러 두루마기를 꿰매 달라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옷감을 실로 꿰매는 게 아니라 밥풀을 짓이겨 붙여서 두루마기를 만들었다.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마침 비가 오자, 두루마기가 비에 젖어 다 떨어져서 엉망이 되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무엇이 바빠서 그렇게 읊니까? 하룻밤 자고 날 좋을 때 오면 안 떨어질 것을.”이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존댓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옷을 짓지 못하는 며느리 이야기 말고도 웃고픈 하나 제대로 못 달거나, 팔죽 물을 못 맞춰서 계속 물을 붓는 통에 엄청난 양의 팔죽을 쏟은 이야기처럼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야기가 많다. 또, 똥을 누고 밭을 닦지 않는 지저분한 며느리 이야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속여 똥물을 뒤집어쓰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은 엄격한 시집살이와 연관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시집살이 문제가 심화된 예로는 시집가서는 병어리로 3년을 지내라는 친정어머니의 가르침에 아예 말을 하지 않아 병어리로 오해받고 쫓겨나는 경우까지 있다. 종종 이런 바보 며느리 인물은 실존 인물에 겹쳐져 전해

지기도 한다. 퇴계 선생의 부인이 좀 모자란 인물이어서 옷에 구멍이 난 것을 기워 놓으라고 하면, 색깔이 다른 천으로 기워 놓았다는 이야기같은 경우가 그렇다.

분석 과장이 심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주 내용이다.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려면 우선 시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야기가 비롯된다. 하지만 어리석은 며느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에까지 ‘-님’이나 ‘-씨’라고 부르는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한다. 이는 시집살이에서 며느리의 불평등한 관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각편들이 살림 못하는 며느리를 비웃고 있는데, 주로 웃고름 달기나 죽 쭉기처럼 비교적 쉬운 일도 못 해내는 못난 며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분명 우스개인 이런 이야기들에서 여러 면에 서툰 며느리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더러 잘못이라고 한다거나, 어이가 없어서 웃는 사람을 보고 좋아서 웃는다고 오해하는 것처럼 구제불능으로 그려지는 예가 많다. 하나같이 모자란 며느리를 조롱하는 투로 구연되는 가운데, 심지어는 뒤를 닦지 않는 며느리를 혼내기 위해 뒷간에 낫 끝을 세워 뒤 국부에 상처를 내는 경우까지 있다. 예법이나 집안 일을 가르쳐서 온전한 며느리로 만들어어나가는 데 초점이 있기보다는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바보 며느리라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가운데 병어리 3년으로 지내라는 말에 말을 하지 않던 며느리를 칭찬하는 예도 있는데, 구연자는 “얼마나 감탄을 했던지 며느리를 꼬아 뒀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시집살이의 미덕으로 여기던 사회풍조를 엿보게 한다.

특징 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이다. 바보사위담과 비교해 볼 때, 혼례나 장례 같은 의례가 강조되기보다는 실제 생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 또 주인공이 혼자 벌이는 바보짓보다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같은 시집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점이 주목된다. 사위에게 부과되는 과제가 어려운 문자 쓰기나 문상(問喪)을 제대로 하는 특별한 의례들인데 비하면, 며느리는 그보다 훨씬 간단한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존대법이라는 점도 특이하다. 또한 시집살이에서는 흔히 고부(姑婦)간의 갈등이 중심에 있지만 바보 며느리 이야기에서는 시어머니는 물론 시아버지와 짝을 이루며 등장하는 예가 잦다. 며느리의 바보짓이 시아버지를 난처하게 하거나 망신시키고,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의의 등장인물로 며느리를 내세우는 데서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의 역할과 처지가 강조되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의 전통 결혼 풍속에서 며느리는 자기 집안보다 못한 집안에서 데려오는 강혼(降婚)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이야기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며느리에 대해 일차적으로 집안일을 전담하는 주부(主婦)로 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694; 4-1, 343; 7-6, 478; 7-13, 201; 8-4, 43; 8-11, 13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13.

참고문헌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이강엽, 박이정, 2011), 바보이야기와 웃음(김복순, 한국학술정보, 2009).

필자 이강엽(李康燁)

민담

바보사위

정의 사위나 신랑이 혼인 과정이나 처가에서 벌이는 갖가지 우행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남성 바보 민담.

역사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전하고 있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하는 <온달설화>에서 전승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구전되는 민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양적으로도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이 또한 다양하다. 김유정의 <봄봄>을 비롯한 현대소설은 물론 낮은 환경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웃음거리가 되는 전형적 인물 유형으로 현대 개그 프로그램의 웃음 모티프로 자주 활용된다.

줄거리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바보라서 인사도 할 줄 몰랐다. 장인어른이 온다고 하기에 아내는 남편에게 인사법을 가르쳤으나,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아내는 남편의 불알에 실을 매어서 그 실을 잡아당기는 횡수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보, 나가서 밥이나 한 상 차려 오구려”, “어서 진지 드세요.”, “별써가 시려고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하라고 연습시켰다. 장인이 집에 왔을 때 아내가 밖에서 줄을 당기니 바보는 연습한 대로 잘 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불일이 생겨 실 끝을 닭뺨(혹은 명태)에 매어 두고 나갔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고양이가 이 뺨을 먹겠다고 낚아채는 바람에 실이 계속 당겨졌다. 그러자 바보는 “아이고, 별써가시려고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아야,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아이고

아야, 여보, 밥이나 한 상 차려 오구려.”, “아야, 아야, 어서 진지 드세요.”, “아이고 아야야, 별써가시려고요?” 하고 계속 반복했다. 장인이 뭔가 이상해서 “여보게, 왜 그러나? 혹시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하니, 아파서 화가 난 사위는 “미쳤느냐고요? 장인어른이야 불알이 안 아프니까 그렇지, 나는 불알이 아파서 이릅니다.”라고 했다.

변이 바보사위담은 양적으로 풍부한 만큼 그 내용도 다양하게 전승된다. 바보 사위나 바보 신랑이 인사법이나 예절을 몰라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 유형이다. 이런 이야기는 인물의 지적 무능을 부각하여 바보짓과 결부시킨 이야기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초례를 치르기 위해 음식을 장만하여 처가에 가는 신랑이 음식의 이름을 몰라 모양이나 소리에 따라 떡을 ‘늘어쪼르레기’, 지짐떡을 ‘건절입’, 술을 ‘올롱졸롱’, 닭을 ‘꺄꺄꼭대기’라고 제멋대로 주워섬기는 이야기가 있다. 또 잊어버린 처가 동네의 이름을 찾겠다고 도랑에서 허우적대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겨우 다시 기억해 내거나, 한 번 본 자기 아내를 기억하지 못하여 바보짓을 하는 이야기와 처가에서 차려 준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조개를 껍데기째 먹거나, 송편의 껍질을 까서 먹는 이야기도 있다. 한편, 체면 차리느라고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바람에 막상 신부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첫날 밤에 신부는 외면한 채 음식을 훔쳐 먹다 들켜서 도망을 치는 이야기와 새 사위의 글 솜씨나 노래 솜씨를 보겠다고 모여든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글을 짓거나 엉뚱한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 같은 상황적 바보짓과 결부된 변이형도 흔히 보인다.

분석 바보사위담은 조혼 풍속을 배경으로 형성된 이야기이며, 아직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를 조혼이라는 인습을 통해 강제로 독립시키려는 데서 오는 사회적 부작용을 부각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다. 전형적 인물인 바보사위 혹은 바보신랑을 형상화함으로써 관습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보사위담에 대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가부장제의 확립에 따른 정략혼이나 중매혼의 최대 피해자인 여성이 조혼 풍습 때문에 맞아야 할 어린 신랑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저항의식을 대변하는 해학적 담론이자, 체면이나 허례에 치중하는 혼인 풍토에 대한 폐해를 우회적으로 고발하는 이야기로 해석의 초점을 맞춘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 민담을 사위나 신랑에 대한 여성들의 지나친 기대감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새로 맞이한 사위나 신랑이 처가 식구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이러한 민담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바보사위

담에서 주목할 점은 바보짓은 모두 사위(신랑)들이 하는데, 사위의 바보짓 탓에 피해를 보거나 웃음거리가 되는 인물은 대부분 장인, 장모라는 것이다. 이는 바보사위담에는 어린 신랑에 대한 여성의 비판적 의식뿐 아니라 처가 식구에 대한 사위들의 거부감도 일부 내재하기 때문이다. 사위들도 역시 자신의 사소한 실수를 바보짓으로 취급하는 처가의 가족, 특히 장인, 장모를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바보 사위들의 우행으로 막상 장인, 장모가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 유형은 이러한 사위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시한 견해들 외에 이 민담의 형성 배경을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으로 보기도 하고, 신화와 관련하여 통과제의에 실패한 인물의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바보사위담은 일반 향유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많이 받고 있어 새롭고 다양한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징 바보사위담의 향유자층이 넓은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 또한 길고, 현대까지도 바보형 인물의 전형으로 재생산되는 까닭은, 이야기의 배경을 특정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혼인으로 맺어지는 가족과 가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상황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날카롭고 직설적인 풍자 화술이 아닌 웃음 뒤에 감춘 해학적 비판은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라도 그 속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 둔 담론 방식이다.

의의 바보사위담 혹은 바보신랑담은 대부분 혼인 과정에서 벌어지는 새신랑의 실수담을 보여 준다. 이런 실수담은 초행이나 재행, 동상례라는 풍속과 관계를 맺고 있어 전통적인 혼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습속과 생활상들을 접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571; 3-3, 36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346; 8, 365; 11, 48.

참고문헌 바보사위설화의 신화적 소인(신연우, 연민학자9, 연민학회, 2001), 바보사위설화의 희극미와 그 의미(김교봉, 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바보신랑 이야기의 생성과 한국의 혼인 풍속(김용의, 호남문화연구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바보 이야기의 유형과 그 의미(이강엽, 민속문화과 전통문화, 박이정, 1997).

필자 김복순(金福順)

민담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정의 장가를 들고도 잠자리를 할 줄 모르는 바보 사위에게 장

인이 잠자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소화.

줄거리 일을 하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여덟 살 먹은 딸을 스무 살 먹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어 데릴사위를 삼아 부려 먹었다. 몇 년이 흘러 딸이 열세 살, 열네 살…… 열일곱 살이 되었으니 아이를 가질 만도 한데 영 아이 소식이 없자 장인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사위, 자네는 동네에 가서 북을 빌려 오게. 내가 사랑방에서 그 북을 치려고 할 때 자네는 자네 방에 있다가 죽은(사실은 죽은 척하고 있는) 아내를 살리려면 아내의 거기[下門]에 자네의 그것[陽物]을 대고 있다가 내가 북을 ‘둥!’ 한 번 치면 쑥 들이밀게나.”라고 말하고 나서 장인이 북을 “둥! 둥! 둥!……” 하고 쳤다. 시킨 그대로 하던 사위는 조금 있다가 장인에게 “아, 그 줌 자주 쳐요.”라고 말한다. 장인은 빨리 북을 “둥둥둥……” 하고 쳤다.

변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옛날 서당아이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사고를 굳게 민다가 나이가 들어 장가를 들어서도 신부를 손도 안 잡고 벽만 보고 있었다. 답답한 신부의 오빠가 홀기(笏記)대로 “진(進) 퇴(退) 진(進) 퇴(退) 진(進) 퇴(退)”를 교육하니, 사위가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빨리 “진(進)퇴(退)진(進)퇴(退)진(進)퇴(退)”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또 다른 이야기로, 바보 형에게 동생이 홀기대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형님. 안방에 들어가 형수에게 진(進) 퇴(退) 진(進) 퇴(退)……” 하라고 하니, 형이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빨리 “진(進)퇴(退)진(進)퇴(退)진(進)퇴(退)……”를 부르라고 하였다.

분석 첫째로 일을 하기 싫어한 장인은 데릴사위를 보면서 딸에게 고통을 주었다. 여덟 살 먹은 어린 딸을 수단으로 하여서 스무 살 먹은 바보 사위를 얻은 것이니, 어린 딸의 행복을 거들떠보지 않은 무정한 부모였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식이 결혼하면 부부가 되어 성(性)을 통하여 즐거움도 맛보고, 자식을 낳는다는 교육을 하여야 옳지만,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아 딸이 결혼한 지 근 십 년이 되어도 진정한 부부가 되지 못하였다. 이미 성숙한 딸에게 부부의 재미를 모르게 한 부모는 또 잘못된 것이다. 끝으로, 고지식한 사람, 한번 믿으면 그대로 하는 옹고집은 부부생활에 나쁘다는 것과, 성의 즐거움, 그리고 자녀 출산은 어떤 부부나 바라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도와 주워서 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 이와 성생활을 하려면 화끈하게, 빨리 잘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성행위는 빨리 잘해야 좋다는 것과 성(性)이 없는 부부 생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준다. 이야기는

웃음 가운데 성교육을 할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의의 혼인은 신랑과 신부가 될 자녀의 처지에서 하여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가족이 불행하다는 것이다. 이전에 신랑과 신부에게 성교육이 절실했지만 실제로는 부족하였다는 현실과, 그 성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當爲)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361; 5-3 51; 6-1, 136; 6-5, 18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6, 186.

참고문헌 한국민속대관(임석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바보원님

정의 원님이 된 사람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조롱하는 설화.

역사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 설화는 원님에 대한 공격성이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조선 전기부터 시행된 중앙집권화의 맥락에서 서울에서 파견되어 지방 사정에 어두운 고을 원이 지방의 사족이나 향리층과 대립하던 역사적 배경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줄거리 서울에서 파견된 고을 원님이 마침 그름 때 부임지로 왔다. 그름이기에 달이 없었다. 걱정을 하며 이방에게 묻자 이방이 지난해 흉년이 들어 이웃 마을에 달을 팔고 곡식을 사왔다고 대답한다. 마을에 달이 없어서야 쓰겠느냐며 천 냥을 주고 되사오라고 한다. 초승달이 뜰 때 돌아온 이방에게 달이 왜 저렇게 작으냐고 묻는다. 돈이 모자랐다고 하자 원님이 오천 냥을 주었다. 얼마 후 보름달이 떴다. 그것을 보고 원님은 “저런 달은 오천 냥도 싸구나.”라고 했다.

변이 각편이 다양하게 있는데, 원님은 다음과 같은 어리석은 언행을 한다. 세배를 언제 하는지 모른다, 노루가 알을 낳는지 새끼를 낳는지 모른다, 그름달을 보고 걱정하더니 달을 사오라고 이방에게 돈을 준다, 송사를 처리하지 못해서 부인의 말을 따라 하다가 어리석은 판결을 하여 백성에게 피해를 준다.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어리석어서 이방에게 망신당한 이야기, 달을 사오라고 한 이야기, 송사 잘못된 이야기 등 셋으로 구분된다.

분석 이강엽은 바보설화 전반을 다루면서 양반을 풍자하는 바보양반담의 하위 분류로 〈바보원님〉을 두었다. 신연우는 〈바보원님설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설화가 조선조 중앙집권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은 지방세력의 반발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특징 이 설화는 바보설화라는 대단히 보편적인 유형으로 조선시대의 원님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보원님설화의 상위 단계에는 바보양반설화가 있고 횡축으로는 훌륭한 원님설화가 있다. 이들을 설화의 논리와 역사적 맥락에서 더욱 정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의 바보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통해 보편적이다. 동시에 〈바보원님〉 이야기는 조선이라는 시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설화가 역사와 갖는 관계 속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66; 491; 2-7, 142; 4-2, 204; 5-7, 74; 7-7, 73; 7-8, 400; 7-10, 718,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23; 3, 319; 5, 348; 6, 432; 12, 153.

참고문헌 바보설화의 웃음과 의미탐색(이강엽, 박이정, 2011), 바보원님설화의 유형과 시대적 대응구도(신연우, 우리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원님설화의 유형과 전승의식(이희영,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훌륭한 원님설화의 구조와 의미(정인관, 청람어문교육1, 청람어문교육학회, 1988).

필자 신연우(申蓮雨)

민담

바보의 문자 쓰기

정의 바보사위가 유식한 체하며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자기와 처가 식구가 망신당하는 우행담 성격의 설화.

역사 옛날에는 사위를 맞이하는 동상례(東床禮)에서 한시(漢詩)를 짓거나 노래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설화는 이때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바보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새신랑에게 노래를 가르치려다 낭패를 겪는 이야기가 『성수패설(醒睡裨說)』에 실려 있다.

줄거리 어떤 바보가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망신을 당할까 싶어 미리 문자를 가르쳐 주었다. 첫날밤에 사람들이 문의 창호지를 뚫고 보려 하면, ‘백공천창(百孔穿窓, 백 구멍이 창을 뚫었다)이르고.’라 하고, 장모님이 상을 차려 주거든 ‘만반진수(滿盤珍羞, 진귀한 음식이 상을 가득 채웠

다)로군.’이라고 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러나 사위는 그 말의 순서를 거꾸로 외워서,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문을 뚫자 “만반진수로군.”이라고 하고 장모가 상을 차려 주자 “백공천창이로다.”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는 ‘입춘대길(立春大吉)’을 못 외우는 바보를 위해 입을 만져 ‘입’이라는 음을 상기시킨다는 게 게 코를 만지는 바람에 ‘코춘대길’로 읽거나, ‘초경에는 두견이 울고’라는 시가를 ‘채경에는 두덕(여성 음부의 불룩한 부분)이 울고’ 같은 식으로 황당하게 변개하거나, 신부가 노래를 가르치면서 따라하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하세요’라는 말까지 따라 해서 결국 장인장모를 욕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다.

분석 이야기의 핵심은 바보사위를 똑똑한 사위로 위장해 보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만히 두었으면 사위 혼자 바보짓으로 그칠 일이 어떻게든 가르쳐서 그 허물을 덮어보려던 것이 아버지나 신부를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장인 장모에게 욕설을 해 더 큰 파탄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으로 사위는 지체가 높은 집에서 들이는 양혼(仰婚)을 선호하여 그 기대치에 따른 격차로 볼 수 있다. 결혼이 사실상의 성년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본적으로 성인이 되는 입사의례에 실패하는 입사실패담이기도 하다.

특징 ‘모방’과 ‘모방 실패’가 연속되는 이야기로 웃음을 유발한다. 간단하게는 단순한 실수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바보인 것을 숨겨 보려는 인물에게 결정적인 모욕을 가함으로써 당사자를 조롱함은 물론 주변 인물들의 허세를 풍자하고 있다.

출처 醒睡裨說,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49; 807; 8-3, 374; 8-11, 230,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99; 6, 139.

참고문헌 바보사위설화연구(강성숙,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웃음을 통해 본 바보사위담의 의미(김복순, 강원인문논총1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예약으로 보는 바보사위담(이강엽, 한국민속학44, 한국민속학회, 2006).

필자 이강엽(李康燁)

민담

바보형제

정의 형제 중 바보인 이가 뒷에 걸린 어머니를 죽이고 다른 어리석은 것을 했다는 우행담 성격의 설화.

역사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되던 시기를 배경으로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줄거리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바보이다. 애써 밭을 놓아 잡은 짐승을 그 바보가 놓아 준다. 그래서 무엇이든 걸린 것을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소변 보러 나왔다가 밭에 걸린 어머니를 잡아 죽인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웃 또는 삼촌 집에 가서 곡식(쌀)을 얻어 와 (쌀)죽을 쑤었으나 바보가 사람들 머리 위로 쏟아 부어 일을 망친다. 무덤을 만들기 위해 풀을 태우다가 바보는 어머니까지 태워 버린다.

변이 하나의 각편에 모든 삽화(挿話)가 등장하기보다는 각편에 따라 밭에 걸린 어머니를 죽이는 것, 곡식을 구하려고 이웃에 도둑질하러 가는 것, 끓는 (쌀)죽을 보고 화를 내다 쏟아 버리는 것, (쌀)죽을 사람들 머리 위로 붓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바보형제담에는 단순한 음담도 있다. 속곳 사이로 제수의 성기가 보여 “에이고, 참.” 하고 나오는 형에게 “그것 보고 성내는 사람은 형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보 아우 이야기이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달리 깊은 의미가 없는 단순한 음담이다.

분석 이강엽은 이 이야기가 보여 주는 공격성의 의미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연우는 형제의 생업이 사냥

이었으나 후반부에는 부자에게 얻은 곡식으로 살게 된다는 설정으로 보아 수렵에서 농경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어머니를 죽인 데 대하여는 구체제의 전복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형상화하였다고 보았다. 차배옥덕은 같은 맥락에서 가부장제의 성립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역사적 단계를 보여 준다고 더욱 상세하게 개진하였다.

특징 끔찍한 공격성의 이유나 그 의미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이 설화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각편이 있다. 수렵과 농경, 여성 배제 외에 다른 시각으로 해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의의 이제까지의 연구로 보아 이 설화는 수렵과 농경, 가부장제와 여성 배제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화이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설화와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18; 2-2, 371; 4-5, 190; 6-1, 309; 7-16, 498; 8-14, 288.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215; 217; 218; 219; 3, 282; 9, 130; 131.

참고문헌 바보 설화의 웃음과 의미 탐색(이강엽, 박이정, 2011), 바보형제의 모(母) 살해 이야기 연구(차배옥덕, 애산학보28, 애산학회, 2003),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신연우, 민속원, 2008).

필자 신연우(申蓮雨)

하는 것으로 전설화되기도 하였다.

내용 바위는 전설이 아니라도 그 형상에 따라 붙여진 이름들이 많다. 예를 들면 병풍바위, 촛대바위, 치마바위 등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바위 이름들이 많다. 그 이름들은 나름대로의 형상 때문에 붙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정표와 같은 표식 기능을 하기도 한다. 바위들은 대개 평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데에서 이름을 얻게 되지만, 이들 중에서 더 특징하게 전설이 부여된 바위들도 많다.

바위전설 역시 대개는 형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설악산의 울산바위에 대해서는 경상도 지역 울산에 있던 바위가 걸어서 금강산으로 가려다가 그 자리에 멈춰 버렸다는 전설도 있지만, 울타리처럼 생긴 산이라는 뜻에서 울산바위라고 하다가 울산이라는 지역과 연결되어서 전설의 틀을 가지게 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제주도의 용두암 역시 용의 머리처럼 생긴 데서 용두암이란 이름이 생겼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장수설화와 결합되어 하나의 전설

로 탄생했다.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바위전설로 <미륵바위전설>이나 <망부석전설>이 있으며, 또한 크기가 거의 같은 바위가 나란히 서 있으면 형제바위, 남매바위, 또는 모자바위 등으로 명명되면서 전설이 생긴다. 역시 그 형태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유명한 부석사의 부석이 있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뜻한 사랑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사찰연기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바위는 장수나 장사와 관련되기도 하는데, 장사가 돌을 움직였거나 공깃돌로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지역 출신의 장사나 이인(異人)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다. 또 어떤 바위는 전설적인 장수의 투구바위라고 이름이 지어지기도 한다. 형태만이 아니라 바위에 남은 흔적을 통해서 전설이 되기도 한다. 바위에 있는 말발굽 같은 모양을 보고 <아기장수전설>과 관련된 용마바위라 하는 등의 이야기가 많다. 또 다른 유형으로 바위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는 전설도 많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비기(秘記)가 감춰져 있다거나, 전쟁에 사용하던 무기나 무기를 만들던 풀무가 바위 속에 숨겨져 있다는 전설도 있다. 전국적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바위전설로 음양석이 있다. 남근석의 경우는 촛대바위 또는 삿갓바위 등의 이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바위와 굴을 함께 말하는 전설이 전하기도 하는데, 유명한 삼척의 <환선굴전설>은 촛대바위와 함께 전해진다. 촛대바위 아래 용소에서 먹을 감던 선녀가 사람들을 보고 놀라 굴 속으로 숨자 주변의 바위가 무너져 굴을 메웠다는 전설이다. 선녀가 돌아가 버렸다는 뜻에서 환선굴이라는 이름까지 얻게 된다. 전국적으로 전해지는 폐사전설의 하나도 바위 또는 굴과 관련된다. 매일 한 사람 몫의 쌀이 나오던 바위굴을 스님이 부지깅이로 쑤셨더니 다음부터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이다. 한편 굴은 지하로 통하는 관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전국적으로 전해진다. 또 굴 속에 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구렁이나 이무기가 살고 있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전설도 많다. 전란전설에서는 사람들이 굴속에 피난을 했던 이야기가 많으며, 또 굴속에서 수도를 했던 도인에 대한 전설도 전한다. 그러나 굴은 사람만 사는

전설

박문수

朴文秀

정의 정의로운 해결자로 이름난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 1691~1756)에 관한 설화.

곳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전국적으로 여시굴(여우굴)이 많고, 호랑이나 곰이 살았다는 이야기도 많다.

의의 바위는 지상으로 표출되고, 굴은 지하로 뚫려 있어서 서로 반대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서 바위전설의 경우는 그 형태로부터 비롯된 전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굴의 경우는 그 속에 무엇이 살았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많다. 특히 바위전설의 경우로서 이정표와 같은 지리적 표식 기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바위를 빌려 이름과 전설을 남김으로써 일종의 표지석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위는 또한 민중들의 소망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기도 한다. 즉, 바위 속에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민중세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비기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민중들이 바라는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희망의 바위로 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기장수전설>은 용마바위라는 증거물과 함께 전하면서 좌절된 민중의 꿈을 바위전설에 आरो새긴 경우이다.

굴은 지하로 통하는 문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어둠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탓인지 악의 소굴로 전설화되어 전하는 예들이 많다. 유명한 <지하국대적퇴치설화>가 그 유형이지만,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해한다는 이야기 또는 호환을 당하게 하는 호랑이 굴이나 사람을 홀리는 여우굴로 전해지는 바위전설도 많다. 한편 굴과 관련된 전설이 도덕적 지표로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 전형적인 전설이 <쌀 나오는 바위(굴)>이다. 이는 지나친 욕심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서 전국적으로 폐사전설의 한 유형이 되어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서울지방의 암석전설에 대한 일고(이재근, 향토서술45, 서울특별시, 1988), 조선민간전설(윤영·조정현·최웅범, 한국문화사, 1994), 지하국대적퇴치설화와 이조 전기소설의 구조 대비분석(김순진, 구비문학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필자 나경수(羅景洙)

역사 박문수에 관한 설화는 문헌에도 꽤 많지만 특히 구비설화는 다른 인물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 가운데는 박문수의 행적을 반영한 것도 있겠으나, 이전부터 전해 오던 설화에 박문수 이름이 결부된 것도 꽤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설화 속의 박문수는 암행어사를 표상하는 일종의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예가 많아서 단순하게 인물전설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줄거리 〈박문수설화〉의 핵심은 암행어사 활동담으로, 한 가지 삽화 중심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여러 삽화가 이어지기도 한다. 박문수 암행담의 첫머리에는 흔히 그의 과거급제에 얽힌 이야기가 놓인다. 박문수는 과거 길에 상복을 입은 한 여인한테 불길한 느낌을 받고 그 집에 유숙했다가 여인이 외간 남자와 사통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박문수가 뒷날 그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길을 나섰는데 웬 도령이 나타나 과거의 시제(試題)를 알려 준다. 그 덕에 장원급제하여 어사가 된 박문수는 여인이 정부와 짜고 남편을 죽인 사실을 밝혀낸다. 전날 시제를 알려 준 도령은 죽은 남편의 원혼이었다고 한다. 그 뒤 본격적으로 어사로 움직인 박문수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어느 가난한 집에 들어갔다가 오누이한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는데, 그 오누이는 부자 정혼자에게 꺾박과 함께 파혼 압력을 받는 중이었다. 박문수는 어사 출두 후 오누이의 후견인이 되어 두 사람이 좋은 배필을 얻도록 해 준다. 한 번은 그가 웬 중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여인을 겁탈하고 죽인 뒤 숨어 지내는 사 람이었다. 박문수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중을 정치하여 죽은 여인의 한을 풀어 준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다. 박문수가 산에서 쓰러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웬 여인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젖을 짜서 먹여 준다. 의식을 되찾은 박문수는 여인의 집에 출두해서 친척 행세를 하여 그 집이 크게 발복하도록 한다. 하지만 박문수가 늘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무뢰한들한테 쫓기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 그를 죽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원님놀이를 하던 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잠깐 장님 노릇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모르느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박문수를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지혜와 용기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기도 한다. 깊은 산중에 있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주인을 겁박하던 흉악한 종들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처했을 때 아이가 기지를 발휘해서 마을을 빠져나와 관가에 연락하여 문제를 무사히 해결했다고 한다. 박문수는 때로 문제 해결의 주체라기보다 접근이나 이용의 대상처럼 형상화되기도 한다. 돈 많은 백정이 박문수의 친척 행세를 하다가 그의 도움을 얻어 훌륭한 양반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변이 〈박문수설화〉는 암행담에 해당하는 민담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의 행적에 얽힌 전설적인 자료도 있다. 소금짐을 지고 고개를 넘다 쓰러진 노인을 구원하고 짐을 대신 져 줬다는 가 암거미를 먹여 급살병 걸린 사람을 살렸든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박문수는 문헌설화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형상은 구비설화와 꽤 차이가 있다. 그가 등과 전에 천하박색의 물 낚는 여종과 동침해 준 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문헌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문헌에

는 박문수가 다른 선비의 글을 빼내어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도 실려 있다. 박문수가 가련한 오누이의 후견인이 되어 배필을 구해 줬다는 이야기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함께 나타난다.

분석 박문수는 실명의 역사인물 가운데 한국 설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설화 속 박문수는 특정 개인이라기보다 암행어사를 표상하는 보통명사적인 인물의 성격을 지니는 때가 많다. 그는 임금에게 받은 막강한 힘을 지닌 존재이면서 숨어서 움직이는 정의로운 문제 해결자로 형상화되는데, 무엇보다도 백성의 편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 그가 문제 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움직이는 경우 이외에 어린이이나 신령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들의 이용 대상이 되는 예에서도 박문수는 늘 백성과 함께하는 인물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 그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그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 박문수의 형상에는 양반 관리에 대한 민간의 소망과 기대가 단적으로 담겨 있는바, 그것은 ‘백성의 편에서 정의롭게 움직이며 나라에서 받은 힘을 통쾌하게 발휘하는 인간적이고도 친근한 사람’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일부 설화에서 박문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엿보이는 것은 설화의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워낙 높았던 데 따른 자연스러운 반대급부라 할 수 있다.

특징 역사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설화는 대개 인물전설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일부 표상적인 인물에 대한 전승은 민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오성과 한음이나 숙종 대왕, 박문수 등이 그 사례인데, 박문수에 관한 전승은 민담 지향성이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암행어사가 등장하는 수많은 설화가 박문수 이야기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박문수를 ‘어떤 암행어사라고 해도 서사적 맥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고유명사가 설화에서 하나의 보통명사처럼 된 셈인데, 이런 사례로는 박문수가 가장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숨은 해결자’로서 암행어사가 갖는 서사적 표상성과 매력도가 워낙 높았던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의 박문수는 구전설화의 세계에서 형성된 최고의 역사인물 캐릭터 가운데 하나로, 그가 세상을 숨어다니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는 서사는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 매력이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일찌감치 〈박문수전〉이나 〈삼괘정〉으로 소설화된 바 있으며, 현대에도 동화와 만화로 거듭 출판되고 있다. 암행어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라디오나 TV 드라마들도 박문수 설화를 바탕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역사인물이야기연구-자료(신동훈, 집문당, 200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438; 4-2, 761; 6-8, 292; 7-11, 141; 7-13, 67.

참고문헌 박문수설화의 성격 분석(최래욱,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 연구(최운식, 청람어문교육21-1, 청람어문교육학회, 1996),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훈, 집문당, 2002).

필자 신동훈(申東暉)

민담

박문수 친척 된 사람

정의 백정 출신으로 당당히 박문수 친척 노릇을 해서 양반 대접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한 설화.

역사 민간에서 구전돼 온 설화로 형성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박문수와 부유한 천민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18세기 이후에 틀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어느 고을에 백정 일을 해서 큰돈을 번 사람이 있었다. 그는 신분이 친한 탓에 모욕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곤 했다. 어느 날 고을 이방이 관가의 돈을 크게 축낸 죄로 곤란을 겪자 백정은 그 돈을 대신 갚아 준다. 이방은 보답으로 백정에게 좌수 사령장을 주지만, 고을 양반들이 들고일어나 양반 노릇을 할 수 없었다. 백정은 재산을 정리해 먼 고을로 이사를 해서 박문수 친척을 자칭하면서 양반 행세를 한다. 박문수가 소문을 듣고서 그 집에 찾아들어 가자 백정은 정체를 눈치채고 박문수를 잘 대접한 뒤 도움을 청한다. 뒷날 박문수가 관가에 출두한 뒤 그 집에 찾아오자 백정은 천연스럽게 박문수를 맞이한다. 이로써 백정은 훌륭한 양반 대우를 받게 되었지만, 박문수 동생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백정을 죽이겠다고 찾아온다. 백정은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여 잡아 가둔 뒤 항복을 받아내고 길이 양반 행세를 했다고 한다.

변이 이 설화는 대개 백정과 박문수 짝을 기본 틀로 삼지만, 간혹 백정과 가난한 양반이나 하인과 옛 상전 사이의 사연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이방한테 좌수 사령장을 받는 대신 양반의 족보를 베꼈다고도 하며, 백정이 때문에 ‘박문수는 들러가라’고 글을 써 붙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도 꽤 있다. 백정은 박문수의 당숙이나 삼촌 행세를 주로 하며 사촌 형이나 동생을 잠칭하기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조선 후기 신분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가운데,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주인공은 조선 후기에 떠오른 천부(賤富) 유형의 인

물로, 현실을 깨닫는 안목과 인간적 능력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그가 양반이 되는 것은 단순한 신분 상승을 넘어 인간 해방적 자기실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야기 속의 박문수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인물로, 동생은 그것을 거부하다가 곤욕을 치르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대 변화의 필연성을 확인하는 서사구도라 할 수 있다.

특징 이야기에서 박문수는 주인공이라기보다 백정의 상대역으로서, 이용 대상에 가까운 인물로 등장한다. 박문수 관련 설화 가운데에서도 민중을 주체로 삼는 서사적 틀이 견고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의의 변하는 시대상을 서사적으로 반영하면서 전형적 캐릭터를 생생하게 살려내어 큰 호응 속에 전승된 설화로 높은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2, 238; 2-7, 344; 5-5, 742; 7-6, 225.

참고문헌 박문수설화의 성격 분석(최래욱, 한국민속학18, 한국민속학회, 1985), 설화에 나타난 박문수의 인간상과 민중의 의식(최운식, 청람어문교육21, 청람어문교육학회, 1999), 신분갈등설화의 상황설정과 문제해결 방식(신동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필자 신동훈(申東暉)

전설

박상의

朴尙義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이면서 명풍수인 박상의(朴尙義, 1538~1621)에 관한 설화.

역사 박상의는 조선 중기 때의 유학자이자 풍수지리학의 대가로, 일찍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출생하였으며 묘소 역시 장성군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그에 관한 설화는 주로 전라도 일대와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에서 활발히 전승된다.

줄거리 이 설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전승되는데, 대표적으로 〈신후지지(身後之地) 빼앗긴 박상의〉를 들 수 있다. 뒷자리를 잡기 위해 집을 나서면 몇 달 만에야 집에 돌아오곤 하는 박상의는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일을 마을의 정 씨 총각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박상의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는데, 박상의가 집에 없는 동안 첩과 정 씨 총각이 서로 정분이 났다.

얼마 후 정 씨 총각의 모친이 죽자, 첩이 박상의에게 “영감은 죽으면 문힐 신후지지는 잡아 놓았소?” 하고 물었다. 이에 박상의가 “알 것 없다.”라고 대답하자, 첩이 “당신이 죽으면 나라도 밋자리를 알아 두어야 그곳에 묘를 쓸 것이 아니요.” 하며 조르자, 박상의가 할 수 없이 신후지지를 알려 주었다. 그 뒤 박상의가 외출했다 돌아오니 자신의 신후지지에 정 씨 총각이 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체념하면서도, “필시 기름 구멍을 막을 것이니 후손은 많겠지만 큰 벼슬할 인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 씨 총각이 밋자리를 파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흙으로 막아 버리고 봉분을 썼다. 그 뒤로 후손은 많았지만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변이 박상의에 관한 설화 중 대표적인 유형은 〈신후지지를 빼앗긴 박상의〉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전라북도 정읍 지역에서는 인촌 김성수의 조부가 박상의의 부친 밋자리를 가로채는 형태로,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에서는 장계 정씨 중시조가 박상의의 신후지지를 가로채는 내용으로 전승된다.

분석 박상의 관련 설화는 그간 개별설화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무학대사나 도선, 남사고와 같은 명풍수담에서 함께 다루어져 왔다. 〈박상의설화〉중에서 박상의 자신의 밋자리나 부친의 밋자리를 타인에게 빼앗기는 내용의 설화는 빼어난 지관의 실수담을 통해 인간의 욕심에 대한 경계와 명당의 입자는 결국 따로 있다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특징 〈박상의설화〉는 조선 중기의 뛰어난 명풍수였던 〈남사고설화〉와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남사고설화〉가 대개 남사고의 실패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박상의설화〉는 실패담뿐만 아니라 명풍수로서 하층민에게 명당을 잡아 준다는 각편도 상당히 많이 전승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의의 명풍수담으로서의 〈박상의설화〉는 〈남사고설화〉와 비슷하게 전승된다. 두 인물의 설화 모두 명당 상점에서 인간의 지나친 욕심에 대한 경계, 천기누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운명론적인 사고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명풍수담의 전승 특징을 공유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1038; 4-6, 711; 5-4, 125; 5-7, 124.

참고문헌 남사고설화에 나타난 전승의식(한미옥, 남도민속연구20, 남도민속학회, 2010),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필자 박종오(朴宗梧)

전설

박연폭포

朴淵瀑布

정의 황해북도 개성시 북부 박연리 천마산에 있는 박연폭포에 관한 전설.

역사 고려 때 문인 이규보의 시에 “용낭은 피리소리에 흑해 박생에게 시집가니, 한 백년 함께 즐겨 마음속에 알맞구나.”라는 시구가 있다. 조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권152의 〈박연〉 설명에서는, 같은 내용을 기술하면서 용녀가 자기 남편을 죽이고 박 진사를 남편으로 맞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구전되고 있는 〈박연폭포전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보아, 〈박연폭포전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널리 구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기이(松都記異)』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한다. 박연폭포가 개성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만큼, 이에 관련한 전설도 널리 전파되었다.

줄거리 옛날에 박 진사가 이 폭포에 놀러왔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폭포 아래 못에 사는 용녀에게 홀려 백년가약을 맺었다. 박 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 자신도 폭포 밑 못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그 못을 고모담(故母潭)이라 하고, 박 진사의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바가지와 같이 생긴 담소(潭沼)에서 떨어지는 폭포라고 하여 박연폭포라고 불렀다는 설화도 있다.

분석 〈박연폭포전설〉은 박 진사 설화와 고모담설화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박연은 폭포 위의 못이며, 고모담은 폭포수가 떨어져 아래에 형성된 못이다. 박 진사·용의 딸·박 진사의 모친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박 진사는 박 씨 성을 가진 총각으로도 나타난다. 박 진사 설화는 못 속의 용녀가 세상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 남편으로 삼은 예인데, 박연의 이름과 연관을 맺고 있다. 고모담 설화는 박 진사 또는 박 총각의 어머니가 폭포에서 아들이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폭포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내용인데, 전승과정에서도 거의 고정적이다.

의의 박연폭포와 관련된 설화는 폭포와 못의 명칭 유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이야기로 보인다. 고려시대 문헌에 수록되었을 정도로 매우 오래된 이야기로, 조선시대에도 송도삼설의 하나로 예찬되었던 만큼 박연폭포 관련 설화는 광



박연폭포
개성시 북부 박연리, 2004.7.10. 홍순석

범위하게 전파되었다. 하지만 설화의 변이양상은 적은 편이다. 주인공이 박 진사 또는 박 씨 성을 가진 총각으로 대체되거나, 용의 딸이 박 진사를 유혹했다거나 박 진사가 용의 딸을 유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고려시대의 문헌자료에서는 용녀가 박 진사를 유혹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조선시대에서는 박 진사가 용녀를 유혹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 이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사회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補閑集, 松都記異, 新增東國輿地勝覽, 개성(우만형, 예술춘추사, 1970).

참고문헌 한국문헌설화기(김현룡,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필자 홍순석(洪順錫)

전설

박엽

朴燁

정의 무술과 도술이 뛰어나 후금의 누르하치와 용골대에 대적할 만한 힘과 비범한 능력을 지닌 박엽(朴燁, 1570~1623)에 대한 설화.

역사 박엽은 조선 중기 때 문신으로 평안감사와 황해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한 실존인물이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이나 『속잡록(續雜錄)』에서 박엽은 함부로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백성들을 수탈하고 학정을 일삼았던 인물로 나타난다. 또한 여색을 탐하여 날마다 기생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향락을 일삼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로 기록되어 있다.

줄거리 어느 날 박엽이 가난과 굶주림에 지친 아내가 몰래 흙덩이를 먹는 모습을 보자, 박엽은 호국(胡國) 장수 용골대에

게 큰돈을 받고 두루마리 죽자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용골대는 박엽에게 큰 벼슬에 오르기를 청하였으나 박엽은 끝내 거절하였다. 나중에 평안감사가 된 박엽이 밤마다 자리를 비우자 기생 홍도가 그 연유를 궁금해 하였다. 박엽은 홍도를 데리고 도술을 써서 단숨에 후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들판으로 갔다. 그리고 후금이 조선과 명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뛰어난 무력으로 무찌르고 돌아왔다.

변이 문헌설화집 『계서야담(溪西野談)』에는 박엽 관련 설화 다섯 편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의 사정을 정탐하러 온 용골대와 마부대의 정체를 알아채고 돌려보내거나, 호식(虎食) 당할 운명을 지닌 아이에게 불운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는 이야기, 계해반정(癸亥反正)으로 인해 자신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걸 알았으나 천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설화도 존재한다.

분석 박엽 관련 설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화에 나타나는 박엽의 가난한 생활상이나 영웅적 행위는 실록과 같은 실기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대조된다. 이는 당시 집권층의 정치적 견해와는 다르게 설화의 향유층은 박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징 구전설화에 전하는 박엽의 가난한 생활상은 실록과 같은 실기류에 기록되어 있는 “박엽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라는 내용과 대조된다. 이는 당시 집권층의 정치적 견해와는 다르게 설화의 향유층이 박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엽은 실제로 광해군 때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여진족의 동정을 면밀히 살피 방비를 튼튼히 한 까닭에 외적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박엽이 후금과 대적할 만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화에서 형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전승되는 설화에서 박엽은 홀로 후금의 군대와 맞서 승리를 거둔 만큼 도술과 용맹이 뛰어난 인물이다. 박엽의 뛰어난 재주를 조선이 아닌 후금의 우두머리와 장수들이 먼저 알아보았다는 내용은 당시 조정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溪西野談, 樊巖集, 承政院日記, 靑野謾集,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201.

참고문헌 약창 박엽론(이승수, 민족문화연구4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7).

필자 정명기(鄭明基)

리고, 굴뚝을 드나든 아이는 굴뚝에 박혀 있거나 숯검댕이가 되어 있다. 집에 돌아와 사정을 알게 된 방귀쟁이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방을 향해 절굿공이를 날린다. 그리고 이를 되받아치는 것으로 두 방귀쟁이의 대결이 이뤄진다. 시종 더 무니없이 강한 방귀가 웃음을 유발하며, 마지막에 서로 방귀로 절굿공이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그 웃음은 극대화된다.

이 설화의 소재인 방귀는 웃음을 유발하는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기에 다양한 소화(笑話)에 사용된다. 즉,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경험하였다는 보편성이 있으며, 그 발생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외성이 있기에 사건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그 형태와 지속, 강약, 고저 따위에서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방귀쟁이는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 설화가 단순한 소화 이상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방귀쟁이는 전라도와 경상도, 서울과 시골, 윗녘과 아랫녘, 남성과 여성 등 여러 층위의 대립 양상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른 대립요소와는 관계없이 두 방귀쟁이가 동성(同性)일 경우 승부가 나지 않는 데 비해, 이성(異性)일 경우에는 여성이 승리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설화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홀어머니 과부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다. 방귀설화의 주인공이 많은 예에서 여성, 특히 며느리로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방귀와 여성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결이 남성의 도전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모계사회에서 가부장제사회로 이행하는 문화적 흔적을 반영하였다고 보아 남성이 여성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남녀 간 대립을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징 방귀의 위력을 과장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설화 〈방귀쟁이며느리〉와 같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방귀쟁이며느리〉가 방귀의 세기를 강조하는 것이 단발성인데 비해, 대결 화소가 개입됨으로써 세기를 지속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이와 함께 아이와 부엌, 절굿공이 등 여성과 관련 있는 소재가 공통으로 동원되며, 등장인물도 홀로 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설화의 형성에는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드러낸다.

의의 대결 화소는 방귀쟁이 간 대결 외에도 방귀쟁이와 다른 재주꾼의 대결로 확장된다. 〈방귀쟁이며느리〉의 일부 각권에 방귀쟁이며느리와 풍각쟁이의 대결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세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방귀의 지속과 음의 고저장단이 강조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풍각쟁이가 팽과리를 치는 소

린인 ‘땡따당따당’과 방귀쟁이며느리의 방귀소리인 ‘뽕뽕뽕뽕’을 같은 장단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방귀시합〉과 달리 이 대결은 며느리에게 승리의 결과물로 유기그릇이나 비단 같은 보상을 준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며느리가 집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도 도전자인 남성 풍각쟁이에 맞서 방귀쟁이며느리가 승리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방귀시합〉과 같은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99; 2-10, 501; 6-1, 23.

참고문헌 방귀담의 신화성과 구조적 변이양상(김복순, 어문연구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노영근,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한국 방귀 소화의 유형, 묘미, 의의(황인덕, 비교민속학14, 비교민속학회, 1997).

필자 노영근(盧暎根)

민담

방귀쟁이며느리

정의 시부모 앞에서 엄청난 위력의 방귀를 끼는 며느리에 대한 민담.

줄거리 옛날에 한 며느리가 점점 얼굴이 노래지면서 병색이 돌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 아프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사실 방귀를 끼고 싶는데 그러지 못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시부모는 괜찮으니 부담 없이 방귀를 끼라고 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러면 시아버지는 상기둥을, 시어머니는 문짝을, 서방님은 부엌문을, 시누님은 솔단지를 불드세요.”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 뒤 방귀를 끼었는데, 방귀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시아버지는 기둥을 붙든 채로 뱅글뱅글 돌고, 시어머니는 문짝에 붙들려서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은 부엌문을 붙잡은 채로 덜컹덜컹 하고, 시누는 솔단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집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위력의 방귀를 끼자 시부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며느리를 소박하기로 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시아버지가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 유기장수와 비단장수를 만났다. 유기장수와 비단장수는 마침 갈증이 심해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 먹고 싶었지만 나무가 높아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이었다. 이에 며느리는 자신과 내기를 하자고 했다. 유기장수와 비단장수는 만약 배를 따 준다면 유기와 비단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며느리는 또 한 번 엄청난 위력의 방귀를 끼어 배나무의 배를 따 주고 그들에게서 유기와 비단을 얻게 되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본 시아버지는 알고 보니 며느리의 방귀가 쓸모가 있는 것이라고 깨닫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변이 변이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며느리가 엄청난 위력의 방귀를 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다. 시부모가 이제 시원하냐고 물어보거나 며느리 얼굴이 다시 예뻐졌다는 것으로 끝맺는다. 두 번째는, 며느리가 방귀를 끼어서 시부모만 멀리 날아가거나 아니면 남편까지 날아가 버려 과부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며느리가 방귀를 끼어서 쫓겨난다는 것으로 끝맺는 것이다. 네 번째는, 며느리가 방귀를 끼어서 소박맞아 친정으로 가는 길에 시아버지가 높은 나무에 매달린 배를 먹고 싶어 하자 며느리가 방귀로 그것을 구해 주어서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이다. 다섯 번째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며느리가 쫓겨나 친정으로 가다가 유기장수, 비단장수와 내기를 하여 방귀로 그것을 얻게 되는 내용이다. 유기장수나 비단장수가 아닌 삼베장수나 황아장수, 이남박장수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엄청난 위력의 방귀가 달리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귀로 인해 쫓겨났지만 그 방귀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얻게 돼 당당하게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며느리의 방귀쟁이로서의 면모가 가장 돋보인다고도 볼 수 있다.

분석 〈방귀쟁이며느리〉는 방귀담의 일종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444. 그를 만한테 그르기-별난 녀석들의 괴상한 짓’에 속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방귀담이 전하고 있는데, 황인덕은 이를 방귀의 세기에 따라 ‘에사 방귀담’과 ‘별난 방귀담’으로 나누었다. ‘에사 방귀담’은 방귀를 끼게 되는 상황과 관련지어 방귀 낄 주체를 웃음거리로 삼는 이야기이고, ‘별난 방귀담’은 냄새가 달고 좋은 방귀나 도둑을 쫓을 정도의 괴이한 방귀처럼 초인적 위력을 지닌 방귀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방귀쟁이며느리〉는 이 중 ‘별난 방귀담’에 해당한다.

초인적 위력을 지닌 방귀가 주된 화소이고 방귀를 끼는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이 설화가 본래 여성 거인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 김영경은 이 설화가 거인설화의 배설모티프를 계승하여 변이된 유형이라고 하면서, 신인(神人)의 성격을 지닌 거인이 점차 이인(異人)의 성격을 띠는 인물로, 거인의 거대한 체구가 보통 체형으로, 배설의 주체가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변화된 요소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배설의 형태가 방귀인 것은 웃음을 강조

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노영근 역시 ‘배설’과 ‘초인적 힘’에 초점을 맞추어 이는 거인의 징표이므로 이 설화가 거인신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며느리가 쫓겨 갔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축출(죽음)-과업수행-귀환(재생)’에 이르는 입사식의 구조와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외부 인물인 며느리가 방귀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에서 온전한 식구로 인정받게 되는 일종의 통과의례적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복순도 방귀담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방귀쟁이며느리〉에서 며느리가 방귀를 통한 내기로 물건을 얻고 재산을 불리는 것이 방귀가 지닌 생산력과 상통한다고 하면서, 신화적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는 방귀대결담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 흔적이 은폐되거나 약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러 신화적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일단 〈방귀쟁이며느리〉는 오늘날 민담적 성격이 강조되어 전승되고 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설화에서 방귀는 며느리의 ‘생활력’ 또는 ‘노동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며느리가 시련을 극복하고 시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까닭이 며느리의 행동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의식 변화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며느리가 조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방귀에 대한 시댁 식구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며느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따라서 이 설화는 ‘여성이란 마땅히 얌전하고 조신해야 한다’는 기존의 편견을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방귀쟁이며느리〉는 여러 면에서 신화적인 모티프를 지닌다. ‘방귀’라는 모티프는 거인설화의 배설모티프가 변형된 것으로, 배설의 형태가 방귀인 것은 소화적(笑話的) 요인이라고도 본다. 또, 며느리가 쫓겨 갔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통과의례의 입사식 구조와 연결된다고도 한다. 각편에 따라 〈방귀시합〉과 결합된 경우도 있는데, 방귀를 통해 방앗공이를 서로 날려 주고받는 행위는 남녀의 성적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방앗공이가 날아가서 동해의 방어가 되었다든가 가오리가 되었다는 식의 이야기 결말을 여신의 생산성과 관련된 것이라 연결 짓기도 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595; 5-1, 285; 5-7, 517; 8-9, 1152.

참고문헌 내송 따윈 필요없어-방귀쟁이 며느리(조선영, 우리고전캐릭터의 모든 것4, 휴머니스트, 2008), 방귀담의 신화성과 구조적 변이양상(김복순, 어문연구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방귀 잘 끼는 며느리의 유형별 구조와 의미(손문숙, 동남어문12, 동남어문학회, 2001), 방귀쟁이 며느리 민담의 신화적 성격(노영근,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한국 방귀 소화의 유형, 묘미, 의미(황인덕, 비교민속학14, 비교민속학회, 1997).

필자 조선영(曹善映)

민담

방리득보

放鯉得寶

표제어 잉어의 보은

전설

방이

旁佞

정의 형 방이는 우연히 방망이를 얻어 잘되고 동생은 형을 따라 하다 망했다는 내용의 민담.

역사 9세기 중국 문헌인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 및 『유양잡조속집(酉陽雜俎續集)』에 신라인의 이야기로 소개되어 전한다.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에는 『유양잡조』의 것이 인용되어 있다. 아우가 부자로 등장하고 누에와 곡식 종자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재산 축적이 가능했던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형성된 이야기라 추정된다.

줄거리 형인 방이가 부자인 아우로부터 누에와 곡식 종자를 얻으려 했으나 심술궂은 아우는 그 종자를 찌서 주었다. 형이 받아 온 누에에서 황소만 한 누에 한 마리가 나오자 새이 난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아가 그 누에를 죽였다. 그러자 사방의 누에들이 형의 집으로 들어왔다. 또한 이삭 한 알이 자라 그 길이가 한 자가 넘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 곡식을 물고 달아나 방이가 새를 쫓아 산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자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나타나 방망이로 원하는 것을 뒤편지 얻으며 놀았다. 방이는 아이들이 놓고 간 방망이를 가지고 돌아와 부자가 되었다. 그 후 아우가 형을 따라 하다 아이들에게 잡혀 코가 코끼리처럼 길게 뻗혀서 돌아왔다.

변이 『동사강목』에 실린 것에 비해 『유양잡조속집』에 실린 것은 아우가 형을 따라 하다 망하는 부분이 더 자세하다. 후자의 이본에서 아우는 코를 뻗혀 집으로 돌아온 후 사람들이 모두 구경하니 부끄러워서 앓다 죽었다고 한다. 또한 방이의 자손들이 장난삼아 방망이를 사용해 똥을 구하려 하니 뇌성벽력이 내리쳐 방망이가 부서졌다고 한다.

분석 형제간 대립과 선악, 빈부의 대립이 결합된 이야기이

다. 한 알 남은 곡식 이삭을 물고 달아나는 새를 쫓아간 방이의 행위는 생존을 위한 것이므로 긍정될뿐더러 행운도 주어진다. 하지만 부자인 아우의 모방 행위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정되며 벌까지 가해진다. 최초의 행위는 보상을 받고 모방 행위는 벌을 받는다는 설정은 모방담의 중요한 특징이다. (방이설화) 역시 모방담에 해당한다. 다만 그것이 형제간에 일어난 문제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족 윤리가 강조되던 시기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특징 모방담에서 최초 행위자와 모방자의 관계는 형제나 이웃 사람으로 설정된다. 그중 (방이설화)는 형제 관계로 설정되었다. 다만 형이 착하고 동생이 악하다는 설정이 (홍부전)에 익숙한 우리에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악형선제(惡兄善弟) 설정이 조선 후기의 적장자 우대 재산상속제 확립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고려하면 이런 설정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다.

의의 중국 측 문헌을 통해 이 설화의 존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방이설화)는 엄밀히 봤을 때 문헌설화이다. 『유양잡조속집』의 기록만으로 이 설화가 본래 신라의 설화였다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이러한 유형이 신라를 비롯해 동아시아에서 널리 구연되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 이후 지속적으로 구비전승되어 조선 후기에 들어 (홍보가)라는 판소리의 서사적 바탕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출처 酉陽雜俎續集, 東史綱目.

참고문헌 방이설화 모티프의 교과서 수록양상 연구(권효명, 어문교육29, 한국어문교육학회, 2004), 홍부전 근원설화론(정충권, 홍부전연구, 월인, 2003).

필자 정충권(鄭忠權)

전설

방학중

표제어 꾀쟁이 하인

정의 경상북도 영덕 출신 꾀쟁이 하인 방학중이 남을 속이거나 꾸리는 설화.

역사 실존 인물인 방학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찾기가 어렵지만 조선 후기인 19세기경 경북 영덕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지역에 묘가 있으며 후손들도 살고 있다고 하나 방학중에 대해 남은 정보는 설화밖에 없다. 상전을 속이는 대

표적인 인물 중 하나이다.

줄거리 <꾀쟁이 하인> 유형에 해당하는 인물로 상전의 음식 빼앗아 먹기, 팔아먹기, 떡방아 찧는 여인을 속여 떡 훔쳐 먹기, 포대에 갇혔는데 다른 사람과 자리 바꿔 대신 죽게 하기, 주인의 편지 내용을 고쳐 주인의 딸과 결혼하기, 주인의 가족을 물에 빠져 죽게 하기 같은 이야기가 이 설화의 주를 이룬다.

그 외에 전승되는 각편 중에 <하던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방학중이 선비들을 따라 서울로 가는데 선비들이 방학중을 떼어 놓으려고 방학중에게 저만치 들관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동침하고 오면 같이 데려가 주겠다고 한다. 방학중이 여자에게 가서 가위와 방석을 가리키며 자신의 동네에서는 각각 ‘썩썩개’, ‘하던 방식’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준 후 가위를 방석 밑에 감추고 일행에게 돌아온다. 여자가 일을 하다가 가위가 필요한데 찾을 수 없었으니 방학중을 부르며 “썩썩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니 방학중이 “썩썩개는 하던 방식 밑에 있다.”라고 대답한다. 방학중과 여자가 들관에서 정확히 뭘 했는지 알 수 없는 선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방학중이 여자와 동침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 여자를 이용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이야기도 있다. 담배뿔을 팔러 가는 담배장수를 만난 방학중이 담배를 좀 달라고 한다. 담배장수가 주지 않자 혼내 주겠다고 결심하고 담배장수를 앞질러 길을 간다. 사람들이 여럿 일하고 있는 논에 다다르자 일하고 있던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는 뒤에서 걸어오는 담배장수를 향해 “형님, 빨리 오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도망간다. 여자와 함께 일하던 남자들이 담배장수가 방학중의 가족인 줄 알고 방학중 대신 담배장수를 때리고 담배를 모두 빼앗는다.

분석 방학중은 상전을 속이는 하인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사실 상전뿐 아니라 남녀·노소·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거나 놀리는 인물이다. 처음에는 상전과의 관계만 등장하기에 상전이 표적이 되지만 나중에는 자신과 같은 하층민이나 자신보다 불쌍한 사람까지도 속이고, 심지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대신 죽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여자를 희롱하는 이야기도 많은데 여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조선 사회에서 그 금기를 깨트리고 희롱하거나 입맞춤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방학중이 트릭스터(trickster)이기 때문이다. 트릭스터란 경계적인 인물인데, 이런 경계성으로 모든 규칙·범주·관습·개념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화자들 중에도 방학중이 잔인하거나 상스러운 인물이라면서 꺼리기도 한다. 특히 주인공의 이름

은 다르지만 방학중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신단공안(神斷公案)』의 <어복손전(魚福孫傳)』에서는 방학중과 같은 트릭스터에 대한 사회의 반응을 볼 수 있다. 트릭스터가 성공적으로 주인과 주인의 식구를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악몽에 시달리고 병이 들어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처형된다.

특징 김선달이나 정만서 같은 다른 한국 트릭스터와 달리 방학중의 신분은 <꾀쟁이 하인>을 비롯한 다른 설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상전을 모시는 하인이다. 트릭스터 중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고 가장 미천하다. 방학중이 선보이는 속임수나 장난도 거창한 것이 없고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어서 엄청난 돈을 벌지도 못하고 그날 먹고 마실 것이나 얻는 정도이다. 그리고 한국 트릭스터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아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예가 많지 않으나 방학중은 그런 경험이 많다. 방학중은 또한 복수심이 강한 인물이다. 위기를 만나면 피로써 벗어나고, 벗어난 후에는 용케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복수의 길에 나선다. 심지어 방학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골탕먹거나 망하기도 한다.

의의 설화 구연자들도 방학중의 이야기를 꺼린다는 점이나 20세기 초 신문 연재소설 『신단공안』에서 트릭스터담이 일종의 교훈극이 되어 버리는 것을 보면 방학중이라는 인물의 의의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어느 트릭스터담처럼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금 더 깊은 층위에서 본다면 기득권 층을 상징하는 상전을 골탕먹이는 것으로 기성 체제를 뒤엎고 싶은 하층민의 염원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방학중의 이야기를 폭넓게 보았을 때에는 방학중이 기득권 층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속이고 희생시키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방학중은 전형적인 트릭스터로 기성 체제 전체를 뒤흔드는 인물로 보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즉 방학중은 기득권 층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공격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역주 신단공안(한기형·정환국 역, 창비, 200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6, 420; 7-7, 549; 689; 742; 7-9, 887,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2, 45.

참고문헌 건달형 인물이야기의 존재 양상과 의미(김현선, 경기어문학8,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79), 트릭스터담 연구(조희웅, 어문학논총6, 국민대학교 어언문학연구

소, 1987).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나수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필자 나수호(那秀昊)

전설

배너미골

정의 예전에 배가 넘어다녔다고 하는 골짜기에 대한 지명 전설.

줄거리 지금은 배나무골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배가 넘어 골’이라고 했다. 인근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옛날에 이곳에 물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넘어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의 용진산에도 배너미 이야기가 있다. 용진산 봉우리를 올라가는 중간에 사기 조각이 많이 나온다. 옛날에는 배들이 이 산을 넘어 다녔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이 사기 조각들이다. 옛날에 사기 그릇을 실은 배가 산을 넘다가 난파하는 바람에 사기 조각들이 남았다는 것이다. 즉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변이 전국에 배와 관련된 고개나 산은 많다. 치악산에도 배너미와 배무덤이 있는데, 배가 넘어왔다거나 배나무가 많은 것을 유래로 설명한다. 배너미골(舟月里, 舟越里)은 전국에 널리 분포된 지명으로, 전설 대부분은 산이나 언덕으로 배가 넘어 다녔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배가 넘어 다닌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다. 즉 옛날에 물이 넘쳤을 때라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건너편 저수지로 넘어 다녔다든지, 배를 대는 다리가 있었다든지, 배가 들어왔다 나갔다든지 혹은 선창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마다 다르다. 그에 따라 지역의 명칭도 각각 다르게 전한다. 즉 배내, 배내미, 배내미골, 배내기, 배나들이, 배냉갯다리, 배너리, 배너미, 배너리, 배널리, 배다리라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분석 전국에 분포된 광포전설이다. 그러나 그 명칭은 앞서 변이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이나 배가 드나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의 특성을 볼 때, 물이 차면 배가 드나들었을 정도로 표고가 낮은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이는 배너미라는 용어가 반드시 배의 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형이 배의 모양을 하고 있거나, 풍수적으로 배형을 하고 있다(行舟形)는 속설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또한 배가 가지는 상징성, 즉 불교적 열반의 심성이 깃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이

안정되고 마치 피안의 경지처럼 평안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너미골은 배나무골과 음차가 크지 않아 배가 많이 나는 지역을 지칭하다가 음운변이로 명칭이 변화했을 가능성도 있다. 배골, 배나뭇골, 배남골, 배낭골, 배내, 배내미로 표기되는 배나뭇골의 명칭은 변이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예에서 보는 배내미와 배내는 각각 배가 다니던 곳과 배가 나던 곳이라는 서로 다른 의미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 나대 덕수쟁이 남쪽 골짜기 배내미 마을은 돌배나무가 있었던 곳이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 봉계 계명 동남쪽 마을 배내는 전에 배나무가 많았던 곳이다.

특징 지형적으로 볼 때, 해안가나 하천 변의 내륙 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지대가 낮은 곳은 만조시나 홍수가 날 때 물에 잠겨 배너미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은데, 이는 배나무골과의 연관성을 가정할 수 있으며, 또한 배가 가진 상징적 의미를 따른 결과로도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8, 647; 862.

참고문헌 한국 땅이름 큰사전(한글학회, 1991), 한국의 지명유래(김기빈, 지식산업사, 1986), 한국지명유래집(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2008).

필자 이정재(李丁宰)

민담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정의 신랑이 납치된 신부를 구하러 갔다가 이미 도적과 한통속이 된 신부를 처단하고 의리를 지킨 여종과 혼인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옛날 서울의 이 정승이 인물됨이 좋은 아들의 배필을 구하고자 직접 사방을 다니다가 우물가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집까지 따라갔다. 그 집 주인인 뱃사람의 말이 그 처녀는 딸의 몸종이고 자기 딸의 미모가 더 낫다고 하여 사돈 맺기를 약속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도적의 배가 패물을 잔뜩 싣고 와서는 여인들에게 배 위로 올라와 물건을 보기만 하면 비단을 주겠다고 하자, 비단 욕심이 난 여인의 모친이 딸과 몸종을 보내 비단을 받아오게 했다. 도적들은 처녀들이 올라오자 그대로 배에 싣고 도망쳐 버렸다. 뱃사람 집에서는 혼인날이 다가오자 이 정승 집에 딸이 죽었다고 전갈을 보냈지만, 이 정승 아들이 죽은 아내의 시신이라도 보겠다고 찾아오자 결국 부부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정승 아들이 배를 타고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가, 마을 우물가에서 몸종이 우물을 떠 놓고 주인이

른이 오게 해달라고 비는것을 보았다. 남자는 몸종과 함께 아내를 만나러 갔으나, 아내는 술을 대접한 후 남자를 공간에 가두어 버렸다. 주인의 행동에 기가 막힌 몸종은 장군수를 계속 떠와 남자에게 마시게 하고 갑옷과 칼을 주어 도적들을 전부 죽일 수 있게 했다. 남자는 잡혀온 사람들을 구출하고 아내와 몸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를 널 속에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게 톱으로 썰게 하여 죽인 후, 몸종과 결혼했다.

분석 이 유형은 지하국에 사는 괴물을 퇴치하고 납치된 여자를 구해내 혼인한다는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금돼지의 자손 최치원>처럼 널리 알려진 유형에서는 아내가 납치되는 데 반해, 이 설화에서는 혼인을 약속한 여인과 그 몸종으로 변이되었다. 이로 보아 비록 얼굴밖에 모르는 약혼자라 하더라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공감을 얻던 시기에 이 설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신부가 도적의 여러 조건에 유혹되어 부부관계를 맺게 되고, 이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찾아온 남자는 오히려 여인의 적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아내와 몸종이 함께 납치되지만 믿었던 아내는 배신을 하고 오히려 신분이 천한 몸종이 의기가 있었다는 점을 대비시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의리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리를 지킨 인물의 인생 역전과 불의한 인물에 대한 잔혹한 응징을 통해 교훈성을 드러낸다. 부부 사이의 극단적인 갈등 양상에 주목하여 신의와 관계성을 조명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징 『동패낙송(東裨洛誦)』의 <조식설화>나 『계서야담(溪西野談)』의 <정운설화>, 『청구야담(靑邱野談)』의 <임형수설화>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간부(姦夫)와 결탁하여 남편을 살해하자, 그의 동비(童婢)가 자신의 미모에 반해 쫓아 온 선비에게 주인어른의 복수를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다. 특히 <정운설화>에서는 그러한 동비를 후실로 삼음으로써 의리를 고양한 두 남녀가 이상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을 그렸다.

출처 충청남도 민담(최운식, 집문당, 198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1, 45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79; 12, 75.

참고문헌 영화 라소몽을 매개로 본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에서 도량 넓은 남편까지(강미정, 문학치료연구1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지하국대적퇴치설화의 유형(강은미, 청람어문교육17-1, 청람어문교육학회, 1997), 첫날밤에 신랑 죽이는 이야기에 나타난 부부되기(조은상, 겨레어문학35, 겨레어문학회, 2005).

필자 홍나래(洪나래)

전설

백두산

白頭山

정의 백두산과 그 주변의 산천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설화.

역사 우리나라 함경남북도와 중국 동북지방 길림성(吉林省)이 접한 국경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봉(2744m)인 백두산은 한민족의 발상지(發祥地)인 성지(聖地)요 영산(靈山)이므로, 단군조선 때 고조선 개국신화부터 고려건국신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전설이 많이 출현하였다. <백두산 전설>은 과거 문헌으로, 백두산 탐방기(探訪記)로, 또 근래 현지 채록의 여러 형태로 남아 있다.

줄거리 백두산에 관한 전설은 매우 많다. 그 중 몇 개를 들어 본다. <천지(天池)>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 심술이 사나운 흑룡이 나타나서 물길을 막아 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해졌을 때, 백장수라는 장사가 그를 찾아온 공주의 도움으로 천하장사가 되어 공주와 합심하여 흑룡을 물리치고 물을 찾아 만든 것이 천지다. <천지를 기운 돌바늘> 이야기도 있다. 백두산 일대에 대홍수가 나고 백두산 천지가 넘쳐 사람들이 다 죽고, 어머니와 유복자(遺腹子)만 살아남았는데, 굶주린 나머지 어머니는 죽고, 하늘에 있는 여와씨의 증손녀가 백두산에 내려와 유복자를 구하였다. 여와씨의 증손녀는 백두산 바윗돌을 갈아 돌바늘을 만들고 실로 백두산 돌을 꿰어 물을 막아 천하를 평안히 했다. 그 이후 유복자와 여와씨의 증손녀는 혼인하였고 백두산 일대에 또다시 사람이 살게 되었다.



백두산 천지
한국관광공사

분석 〈천지〉 이야기는 신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즉 악한 흑룡(黑龍)과 선한 백룡(白龍)의 싸움에 공주가 나타나 백룡을 도와 백성을 살게 하였다는 것이다. 백두산이나 천지가 사람을 살려 주는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말이다. 〈천지를 기운 돌바늘〉은 대홍수에서도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희망을 준다. 이 밖에도 〈가출기재습득(家出技才習得)〉 이야기는, 백두산 여인이 천신에게 빌어 얻은 아들 일곱을 이 세상에 보내(家出) 재주(技才) 하나씩을 배워 오게 한다(習得)는 것으로 백두산이 영웅과 같은 인격(人格)이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신화와 민담을 합친 것이며, 국내에 있는 이야기와 상통한다. 인삼 이야기 등은 백두산에서 산삼을 캐는 이야기인데, 영산인 백두산은 사람을 살리는 영약(靈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삼인(採蔘人) 이야기는 그들의 기쁨과 갈등과 배신 등을 담고 있다. 동물과 포수 이야기는 백두산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거기서 사는 동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특징 첫째로, 백두산에 관한 많은 전설들은 백두산의 성격이나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사고를 잘 나타내고 있다. 관련 전설은 다음과 같다.

신계(神界)의 갈등(용을 동여맨 돌기둥), 신의 분노로 징벌하고 추방(관일폭포), 괴물 퇴치(천지), 홍수시대(선녀폭포), 암석 봉재(縫裁)(천지를 기운 바늘), 알을 먹고 잉태(천녀육궁처), 영웅 출생과 성장(왕눈), 시조신화(천녀육궁처), 천우신조, 백두산산신령, 신선, 삼신, 동물원조(장생초), 이물교구(異物交媾)(삼신 소녀), 선녀수욕(仙女水浴)(인삼과 꽃시습), 이류금혼(異類禁婚)(인삼과 꽃시습), 변신, 현현(變身顯現)(삼태성), 거울(옥장천), 신인갈등(神人葛藤)(소천지), 견우직녀설화 일부(견우교), 도미설화(都彌說話) 일부(송풍라월), 가출기재 습득(家出技才習得)(내두산과 칠성봉), 효자 부모 간병(인삼굴), 약질지주 부자, 재물 착취, 여자 겁탈(백두산 삼형제), 용궁 방문(천지 속의 용궁), 주보(呪寶)(술이 나오는 그림), 동물 구조(와호봉), 동물사회, 갈등(온천), 아들의 복수(내두산과 칠성봉), 채삼 배신(採蔘背信)(인삼굴), 난제(難題)(금붕어치녀), 노방 노인 구조(路傍老人救助)(백두산 신령), 포수를 노리는 악당(백두산 아래 첫 동네), 화술 과장(話術誇張)(종덕사), 전쟁(보마성) 등이 있다.

둘째로 〈백두산전설〉은 북방 여러 민족의 발상(發祥)에 관한 전설로 신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백두산이 태백산(太白山)이 되어서 한국의 건국신화가 된다. 그리고 청나라 조상인 애친각라(愛親覺羅) 혹은 포고리용순(布庫哩雍順)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또 백두산에서 발원한 두만강의 강변 지암이라는 곳에서, 짐승 노라치가 거기에 사는 이좌수(李座首)의 딸과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으니, 곧 청나라 태조인 누르하치(奴兒哈赤)라는 전설이

있다.

셋째로 〈백두산전설〉은 ‘한국인’이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 중국 땅인 만주, 좁게는 간도(間島)로 조선시대나 일제 강점기에 이주한 한국인의 후손은 지금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사는데, 한국인의 얼을 지탱할 때 〈백두산전설〉을 소재로 삼고 있다.

넷째로, 〈백두산전설〉은 국내에 있는 전설과 흡사한 것, 약간 내용을 바꾼 것, 전설의 근거를 백두산으로 바꾼 것들이 많아서 국내 전설과 비교를 할 수 있다.

의의 〈백두산전설〉은 범상하게 볼 수가 없다. 곧 백두산은 국내에 있는 한민족이나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영산(靈山)이라는 의식이 신앙적이라서, 백두산을 근거로 한 전설도 신앙적이라 특이하다. 조선족은 백두산이나 거기에 있는 천지가 조국 땅이면서 중국 땅이기 때문에, 비록 중국에 살아도 조국에 산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조선족이 〈백두산전설〉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들은 한국 땅에서 사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한다. 〈백두산전설〉은 거의 다 국내에 전해오는 이야기이다. 조선족이 중국으로 이주했을 때, 머리카락 속에 국내에서 들은 설화를 다 담아갔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한국의 설화를 말할 때는, 특히 〈백두산전설〉을 말할 때는 순수하고 완전한 한국인이 된다. 곧, 〈백두산전설〉을 말할 때는 그들이 고국에서 멀리 떠나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백두산전설〉에는 여러 가지 내용과 정신이 들어 있다.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백두산은 역사를 처음 만들어 내는 곳이며, 산 모습이 높고 신비로워서 하늘과 통하는 곳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백두산 산신이 보호하는 곳이라는 사고와, 풍부한 생활 자원이 있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 들어가 숨어서 살 수 있는 피난처라는 사고가 담겨 있다.

출처 길림성민간문학집성 상·하(연변조선족자치주 민간문학집성편위원회, 1987). 백두산전설(연변인민출판사, 1989). 삼태성(연변인민출판사, 1963). 팔선녀(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1983).

참고문헌 高麗史, 三國遺事, 백두산 설화(최인학, 밀알, 1994), 백두산설화연구(정재호 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2).

필자 최래옥(崔來沃)

전설

백마강

白馬江

정의 당나라 장수가 용으로 변신한 백제왕을 죽여 백제 침공

에 성공했다는 백제 멸망에 관한 전설.

역사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된 백제설화로, 역사 사실과는 상관없이 소정방(蘇定方)이 사비강을 건널 수 있어서 백제가 멸망했다는 의식을 보여 준다. 또한 역사 사실과 무관하게 의자왕이 백제에서 죽는 것으로 전승하여, 사비강의 용이 된 백제왕이 소정방에게 죽어 백제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줄거리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할 때, 용이 되어 사비강을 지키는 백제왕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은 용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백마라는 걸 알아내, 백마를 낚시대에 꿰어 사비강가 바위에서 용을 낚아 잡았다. 이때부터 그 강을 백마강이라고 하고, 용을 낚은 무릎 자국이 남아 있는 바위는 조룡대라고 부른다.

변이 각편에 따라 사비강을 지키는 왕이 의자왕과 무왕으로 나뉜다. 의자왕인 각편에서는 의자왕이 낮에는 인왕(人王), 밤에는 용이 되어 백제를 지킨다. 무왕인 각편은 의자왕이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자, 그의 부왕인 무왕이 분노하여 강에 비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개된다.

용과 대립하는 인물로는 주로 소정방이 등장하는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백제왕의 사위로 설정해 이색적이다. 이런 각편에서는 백마에 대해 일러 주는 인물로 백제왕의 딸이 설정되어 비극성이 가미된다. 무왕인 각편에서는 백마에 대해 알려 주는 인물이 애첩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용의 죽음은 단지 백마강에 국한되지 않고, 인근 지역까지 확장되어 공주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분석 무왕의 〈수중룡전설〉을 소정방의 〈조룡대전설〉로 변모시켜, 영웅이자 주인공이 백제왕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으로 교체되어 이야기가 전승된다. 역사 사실과는 무관하게 수



백마강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국관광공사

중룡인 백제왕을 소정방이 지용(智勇)으로 낚아 죽임으로써 비로소 도성으로 진입한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러한 설화의 상상력을 통해, 백제의 멸망을 치열한 싸움과 패망의 비극으로 형상화하여 지역민의 역사관을 표출한다.

특징 백제의 도읍지였던 부여 지역에 전승되는 백제의 대표설화로 백제 멸망에 관한 지역민의 의식을 지역의 산천을 증거물로 삼아 진실성 있게 표출하고 있다. 백마강 주변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지명전설로 남아 있는 곳이 다수인데, 용이 날아갔다는 용전리, 낚인 용이 용전리에 떨어지자 검은 연기가 자욱했다는 거문내, 용이 썩어 냄새가 났다는 공주 구린내들이 그것이다.

의의 〈조룡대전설〉은 조선시대 시조 및 한시에서 모티브로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지역 전설은 지역 공동 제의나 축제의 유래와 근원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백마강 〈조룡대전설〉도 부여 지역에 전승되는 백제설화와 함께 지역 축제, 문화제의 근원을 마련한다.

출처 부여군지(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03), 부여의 구비설화(김군태, 보경문화사, 1995), 부여의 전설집-백제의 고향(김석기, 화산출판사, 198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55.

참고문헌 의자왕 관련 전설의 전개 양상(황인덕, 백제문화33,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04), 전설과 지역문화(최은식, 민속원, 2002).

필자 이상희(李尙姬)

전설

백일홍

百日紅

정의 이무기를 퇴치한 남자를 기다리다 죽은 처녀의 혼이 백일홍이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인신공희, 남성 영웅의 괴물퇴치와 여성 구원 모티프가 나타난 설화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거타지설화〉가 대표적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나 동일 모티프는 〈작제전설화〉와 같은 문헌설화뿐 아니라 각종 구비설화에서도 발견된다.

줄거리 옛날 한 바닷가 마을에서 물속 괴물(이무기)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처녀가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졌는데, 이때 한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이 처녀 대신 가서 괴물을 퇴치하겠다고 나섰다. 영웅은 처녀와 헤어지면

서 자신이 성공하면 흰 깃발을 달고 돌아올 것이고, 실패하면 붉은 깃발을 달고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영웅이 괴물을 퇴치 하러 떠난 지 100일이 되자, 영웅을 태운 배가 돌아왔는데 붉은 깃발을 달고 있었다. 처녀는 영웅이 죽은 줄 알고 자결하였다. 괴물과 싸울 때, 괴물의 피가 깃발을 붉게 물들인 바람에 영웅이 죽은 줄 오해한 것이다. 그 뒤 처녀의 무덤에서 붉은 꽃이 피어났는데, 100일 동안 영웅의 무사생환을 기도하던 처녀의 안타까운 녀이 꽃이 된 것이다. 이 꽃은 100일 동안 붉게 핀다고 하여 백일홍이라 불렸다.

변이 괴물을 퇴치하고 돌아오는 남자를 기다리다가 깃발의 색을 오해하고 소녀가 죽는 각편도 있다. 다른 종류의 설화도 있다. 신분 차는 있지만 서로 우정이 돈독했던 두 소녀가 눈길을 가다 벼랑에 떨어져 죽었는데, 두 소녀의 시신에서 백일홍이 피어났다는 내용이다. 안타까운 여인의 녀이 백일홍으로 피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분석 이 설화는 전형적인 남녀 주인공의 형상을 보여 주며, 인신공희, 영웅의 괴물 퇴치, 색깔 오인하기, 꽃으로 변신 같은 여러 설화 모티프들이 모여 극화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신공희의 제물이었던 여성 인물이 구원되었다가 죽는 예는 없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백일홍으로 형상화된 여성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랑과 정조가 강조된다. 다른 꽃들과 달리 여름철 오랫동안 피어있는 백일홍의 속성이 여성 주인공의 성격과 잘 맞아 떨어진다.

특징 흥포한 동물에게 인신공희가 이루어지는 예로 (김녕사굴 뱀), (두꺼비의 보은) 이 있다. 이들 이야기는 괴물을 퇴치한 자가 죽는 반면, (백일홍)은 제물이 되었다가 살아난 소녀가 죽는다는 점이 다르다. (백일홍)은 조선족 설화에도 전승된다.

의의 다양한 화소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돋보이는 설화다. 인디애나(Indiana) 대학의 『한국 민속 교재(Korean Folklore Reader, 1963)』에 ‘100days pink’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문학 작품의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출처 조선민간고사선(연변민간문예연구회, 1982),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9, 368, 한국의 민담(임동권, 서문문고, 1972).

참고문헌 국어교육 100년사(윤여탁 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옛이야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삶과 죽음(최운식, 한울, 1997).

필자 오세정(吳世鼎)

신화

백제건국신화

百濟建國神話

표제어 온조비류신화

민담

뱀신랑

표제어 구렁덩당신선비

전설

범어사

梵魚寺

정의 범어사의 창건 유래와 사찰 주변 시설의 이적(異蹟) 이 야기로 범어사의 호국사찰 위상을 소개한 설화.

역사 범어사 창건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범어사창건사적(梵魚寺創建史蹟)』에 기록되어 있다. 『범어사창건사적』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興德王, 재위 826~835) 때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지었다고 하나, 이는 의상의 생몰연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신라文武왕(文武王, 재위 661~681) 18년인 678년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헌 기록이 가지는 권위 때문인지 현재 범어사 창건과 관련된 다른 내용의 구비



범어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한국관광공사

찰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성암 느티나무는 임진왜란 후 등치가 썩어가다가 광복과 함께 새로운 움이 돋아나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이 느티나무가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목조여래좌상과 관련한 설화도 범어사가 호국 사찰이라는 특성을 드러낸다.

출처 東國輿地勝覽, 梵魚寺創建史蹟, 三國遺事, 금정이야기(주영택, 부산시 금정구 기획감사실, 2005).

참고문헌 금정과 범어사 관련 설화 연구(정무룡, 동양한문학연구26, 동양한학회, 2008), 범어사지(한국학중앙연구원, 아세아문화사, 1989).

필자 오세길(吳世吉)

민담

병어리로 삼년 지내려 한 며느리

정의 시집가서 병어리 행세를 하려는 며느리에 관한 설화.

줄거리 친정 부모가 딸을 시집보내면서, 딸에게 병어리로 삼년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딸은 시집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병어리 행세를 했다. 시부모는 병어리 며느리를 맞았다고 생각하여, 며느리를 친정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을 보게 된다. 그 순간, 며느리는 “평의 날개는 떼어 시아버지 주고, 주둥이는 잘라 시누이 주고, 발목은 잘라 시어머니 주어야지.” 하며 말을 하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병어리가 아닌 것을 알고는 며느리에게 병어리 행세를 한 이유를 물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의 가르침을 말씀드렸고, 비로소 시아버지는 훌륭한 며느리를 봤다며 도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뒤로 며느리는 잘 살았다.

변이 이 설화는 서사민요로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약 10여 편의 이본이 전승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줄거리에서 소개한 평 노래 유형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된다. 우선, 며느리가 시집을 때 돌이나 바둑알을 가지고 오고 그 돌이나 바둑알이 말할 때까지 병어리 행세를 하려는 유형의 이야기가 있다. 병어리 행세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 한 이본으로,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병어리 행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형도 있다. 또 며느리가 친정 부모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병어리 행세를 하는 이야기도 있다. 며느리가 어릴 적 도승을 만나고 그의 가르침대로 대인을 낳기 위해 그 때부터 병어리 행세를 하며 살아가다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



범어사 입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문화재청

전승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줄거리 신라 흥덕왕 때, 왜인이 10만의 병선을 거느리고 신라를 침략하려 하였다. 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의상을 청하여 화엄신중기도(華嚴神衆祈禱)를 하면 왜인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였다. 왕이 그에 따라 하였더니, 왜선들끼리 서로 공격하여 모든 병사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왕은 의상을 예공대사(銳公大師)로 삼고 범어사를 창건하였다. 범어사의 사찰명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에 구체적으로 나오며, “동국(東國)의 남산에 명산이 있어 그 산정에 높이 50여 척의 거암(巨巖)이 있고, 그 바위 한가운데에 샘이 있으며 그 물빛은 금색에다 물속에 범천의 고기가 놀았다. 그래서 산명을 금정산(金井山)이라 하고, 절을 범어사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분석 범어사 창건설화 외에도 범어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범어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는 대성암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전설이다. 청룡동에서 구포로 가는 스님과 구포에서 청룡동으로 가는 도인이 대성암 앞에서 우연히 만나 선문답을 나누다 나뭇가지를 쫓아 놓았다. 그것이 자라 지금의 느티나무가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왜병들이 이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려고 하다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벼락이 쳐 주변의 왜병 20여 명이 죽사하였다는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해진다.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직후 범어사의 주지였던 묘전 스님이 꿈에 나타난 목조미륵불을 찾아 미륵전에 모셨는데, 보통은 불상을 동해바다 쪽으로 하여 안치하지만, 이 목조여래좌상은 왜국을 싫어해 서쪽으로 안치하였다고 한다.

의의 범어사와 관련한 설화는 범어사가 호국사찰이라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범어사 창건설화는 범어사가 왜적 퇴치라는 호국 불교의 성격으로 세워진 사

은 후에야 비로소 입을 연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이본이 전승되고 있지만, 당대 여성의 삶을 사실적 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공통점이 있다.

분석 이 설화는 한 여자가 시집을 가서 새로운 형태의 삶, 즉 며느리로 살아가는 삶이 형상화된 이야기이다. 시집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이야기로, 설화를 통해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헤아리게 만든다. 최근에는 시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며느리가 적응하며 사는 이야기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동안 병어리 행세가 여성이 살아왔던 폭력적 삶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여성이 시집의 구성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삶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의의 한국 사회의 여성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다. 이 설화는 병어리 행세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여성들이 겪어 온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함축적으로 표상하였다. 다만 구전설화의 특성상 병어리 행세가 조금씩 다른 의미로 변형되어,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며느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전략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이 설화는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상징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234; 4-6, 529.

참고문헌 설화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과 문화교육(오정미,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시집살이에 대한 알레고리(서영숙, 한국민요학31, 한국민요학회, 2011),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손문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필자 오정미(吳正美)

전설

벽골제

碧骨堤

정의 단야라는 처녀가 심술을 부리는 청룡에게 스스로 몸을 바쳐 벽골제 보수공사가 성공했다는 내용의 전설.

역사 벽골제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2 「신라본기」2 흘해니사금 21년 조에, “처음으로 벽골지를 만들었는데 뚝의 길이가 1,800보이다.”라고 하여 330년에 신라에서 만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 뒤 790년(신라 원성왕 6)과 1143년(고려 인종



벽골제 수문
전북 김제시 부랑면 월송리, 문화재청

21)에 보수공사를 하였다. <벽골제전설>은 김제 지역에 전승되는 쌍용놀이의 기원전설로도 알려졌다.

줄거리 벽골제가 오래되어 보수공사를 해야 했다. 이름난 토목기술자인 원덕랑이 파견되어 공사를 지휘했다. 이때 김제 태수의 딸 단야도 일을 도우면서 원덕랑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 그러나 원덕랑에게는 정혼한 월내라는 남자가 있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마무리 무렵 그만 독이 터져 버렸다. 벽골제 부근에 백룡과 청룡이 살고 있는데 심술꾼은 청룡이 이기고 나서 독을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산 처녀를 청룡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원덕랑을 보기 위해 월내남자가 왔다. 김제 태수는 음모를 꾸몄다. 월내남자를 보쌌해 청룡에게 제물로 바치면 공사를 성공할 수 있고 또 딸도 원덕랑에게 시집보낼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김제 태수는 사람들을 시켜 밤중에 월내남자를 보쌌해 청룡이 사는 곳으로 데려갔다. 남자를 못에 던지려고 할 즈음 사람들은 그녀가 단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 김제 태수의 음모를 눈치챈 단야가 대신 보쌌이 되어 왔던 것이다. 단야는 순식간에 못에 몸을 던졌다. 그 후 보수공사는 순조롭게 끝났고, 원덕랑과 월내남자도 결혼하여 잘 살았다 한다.

분석 소위 인신공회(人身供犧), 특히 처녀를 신이나 신령에게 제물로 바치는 설화는 비장미를 지녀 미학적 감동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단야전설>은 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제 지역에 전승되는 쌍용놀이의 기원설화이기도 하고, 죽은 단야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세웠다는 단야각과 단야루를 증거물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는 넓은 김제 평야의 수원으로 역할이 컸다.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히 베풀지만, 또한 가혹하기도 하다. 전설에서 백룡과 흑룡이 이러한

자연의 두 얼굴을 표상한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자연에 대해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안위를 보장받고자 했던 것이 바로 원시종교의 제의 방식이기도 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접적인 인신공회는 없어졌지만, 설화에서는 모티프로 활용되고 있다.

의의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충돌할 때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효라는 규범을 좇아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단야 역시

민담

변신담

變身談

정의 자의(自意) 혹은 타의(他意)에 의하여 인간이 아닌 존재나 물상이 인간으로 변신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양상으로 변신하여 특별한 사건을 겪어 나가는 설화.

내용 인간이 다른 존재로 변신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심층의 의식 가운데 하나이다. 일찍이 자연현상을 인격화하여 신화 속의 존재로 변모시킨 사례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된다. 무속신화 <창세가>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금벌레 다섯과 은벌레 다섯이 각각 인간 남녀로 화생(化生)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화적 인식이 드러난다. 변신담의 깊고 오랜 전통을 확인하게 된다. 변신담의 하위 유형은 설정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변신체(變身體)의 양상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 변신형, 동물 변신형, 식물 변신형, 광물 변신형, 기타 변신형 등의 구분이 논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설화의 경우에는 비인간이 인간으로 변신하여 특별한 사건을 겪어 나가거나 예사롭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양상이 다수다.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변신에 성공하는 비인간적 존재는 뱀이나 두꺼비, 지네 등 용사류(龍蛇類)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계된 동물이 빈도수에서 앞서고 여우나 호랑이 등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단군신화>, <구렁덩덩신선비>, <상사뱀설화>, <야래자설화>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도 <사신칠성본풀이>는 인간이 뱀으로 화하여 신으로 좌정하는 내용을 전승한다. 자식이 없는 집안에 기자치성(祈子致誠)으로 태어난 딸이 중에게 유인되어 임신하여 뱀 일곱을 낳고서 그녀 자신도 뱀이 되

청룡에게 스스로 몸을 던져 희생하였다. 인신공회는 원시종교의 대표적인 유습이면서도 훗날 종교적 성격보다는 사회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설화에서 핵심 모티프로 작용한다.

출처 三國史記, 벽골제사(정진형, 대흥출판사, 1982).

참고문헌 민담과 민속의 신학적 이해(박정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6), 우리고장 유래와 전설(표성흠, 여명출판사, 1998),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회의 유형과 의미(이영수, 한국학연구13,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필자 나경수(羅景洙)

어 제주도로 입도하여 뱀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이다. <선녀와 나무꾼>에서 수탉이 된 나무꾼의 사례와, 시집살이의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한 며느리가 죽어서 꽃이 되었다고 하는 <며느리밥풀꽃설화>는 인간이 동물과 식물의 기원이 되는 변신담의 한 사례이다. <장자못전설>은 금기를 위반한 인간이 선돌 혹은 선바위가 되었다고 함으로써 광물로의 변신을 이야기하는 설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인간이 동식물이 아닌 천체의 자연물로 변신하는 설화 역시 변신담의 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설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대표적이다.

변신담의 범주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신의 주체와 변신의 결과를 중심으로 대표적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다.

변신담은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변신담의 범주는 변신의 계기와 과정 및 결과가 하나의 이야기, 곧 사건의 형성과 전개에 직접적인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어떤 사건의 단순한 결과로서 변신이 나타나는 경우는 변신이 사건의 형성과 전개에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변신담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사건의 결과로서 변신이 나타난 경우에도 변신의 결과가 사건을 이끌고 전개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때 변신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서 수명장자가 천지왕 혹은 소별왕에게 징치되어 파리, 모기, 빈대 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신의 결과가 정치의 강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지 사건 전개 과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부연하면 수명장자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건이 전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변신의 결과가 최종 목적으로 설정되고 해석되는 설화에서는 결과로서의 변신이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담당하므로 앞의 경우와 층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선녀와 나무꾼> 설화 가운데 ‘수탉 유래형’은 변신담의 범주

에 포함할 수 있다. 수탉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는 만큼 변신의 결과가 사건의 전개 과정에 의미상 긴밀한 연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목적으로서의 변신’과 ‘수단으로서의 변신’으로 변신담을 구별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일시적 변신과 항구적 변신의 두 사례는 최종 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변신’에 해당한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천하의 게으름뱅이가 타의(노인)에 의해 소로 변신하게 되어 갖은 고초를 겪다가 다시 사람이 되어 열심히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역시 이에 해당한다. 아래자설화에서 밤마다 남성으로 변신하여 과부 혹은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찾아들어 동침하고 사라지는 지룡(池龍)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룡이 변신하여 동침한 목적이 비범한 후손의 출생에 있는 것이어서, 비범한 존재의 신이한 출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신의 모티프가 활용된 것이다. 한편 ‘목적으로서의 변신’은 변신의 과정과 결과(변신체) 그 자체에 설화의 궁극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설화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에서 확인된다. 주인의 박해와 하층민의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극하게 염불공덕을 쌓아 인간의 몸을 버리고 진신(眞身), 곧 불보살(佛菩薩)이 된 옥면의 변신은 그 자체로 최종적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불교의 심오한 이치를 담아내는 응집체로 기능한다.

간명한 기준으로 ‘일시적 변신’과 ‘항구적 변신’이라는 두 가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몽과 송양 사이에서 벌어진 변신술 대결을 들 수 있다. 후자의 사례에는 곰이 환웅에게 청원하고 금기를 준수하여 웅녀라는 인간 여성으로 변신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변신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환웅과의 결연을 통한 국조(國祖) 단군의 출생이라는 최종 목적이 별도로 존재한다. 일시적이든 항구적이든 간에 변신이 갖는 기능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점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변신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변신의 의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측면에서도 변신담을 나누어 살필 수 있고, 변신의 의미가 신성성을 지향하는가 혹은 세속성을 지향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변신담의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의의 변신담은 비단 설화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정문학과 서사문학에서 다채롭게 활용되는 모티프로 기능한다. 설화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무수한 변신체들, 그리고 변신체의 다기한 형태는 각각 그 민족과 집단의 삶의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격리된 채 유폐된 것이 아니다. 변신의 상황은 분명 현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비현실(非現實) 그 자체라고 단언할 수도 없고 반(反) 현실은 더욱 아니다. 변신은 반 현실이 아닌 것, 곧 비(반)현실이다. 그러기에 변신은 현실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녹록하지 않은 현실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현실과 환상(현실을 넘어선 그 무엇)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수많은 변신의 설화들은 또한 현실과 환상을 걸러 서로에게 넘겨주고 투과시키는 삼투작용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세계가 있기에, 그리고 욕망하는 것을 획득하려 하는 변신의 욕망과 추구가 있기 때문에 변신 설화의 세계가 현재까지 의미를 갖는다. 변신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통해 변신의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변신과 현실에서 보여 주는 두 양상이 대립적 자질을 지니면서 동시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구비문학, 분석과 해석의 실제(박종성, 월인, 2002), 변신설화의 이론과 전개(이상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설화에 나타난 변신의 의미(조동일, 문학과비평5, 문학과비평사, 1988), 한국 서사문학의 변신 연구(정상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필자 박종성(朴鍾聲)

민담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정의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삼국유사(三國遺事)』 「감통(感通)」에 실린 <김현감호(金現感虎)>라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줄거리 호랑이를 잡으러 산에 간 포수가 큰 백호(白虎)를 발견하여 쫓았는데 빗나갔다. 이에 화가 난 호랑이가 포수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 나무에 걸어 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포수의 아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사격 연습을 시작했다. 오랜 연습 끝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력을 실험하였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고 있는 물동이에 엽전을 붙인 후 총을 쏘서 엽전 구멍으로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를 성공하자 아들은 실력을 갖추었으니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여겨 호랑이를 찾아 나섰다. 여러 고개를 넘어 깊은 산속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 그만 깜빡 졸았다. 그때 아버지의 환생인 두

한 까치가 나타나 졸던 아들을 깨워 산중에 문이 열두 개나 있는 기와집으로 데려갔다. 아들이 주인을 부르자 처녀가 나와 맞이한다. 포수의 아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청했으나 처녀는 자신의 집에 마흔여덟 식구가 살았는데 모두 호랑이가 잡아먹었고, 오늘 밤 마지막으로 자신을 잡아먹으러 올 것이라며 거절했다. 포수의 아들은 그 호랑이를 잡으러 왔다고 고백하고는 처녀와 같이 호랑이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다. 한편 호랑이는 원숭이와 토끼를 시켜 점을 쳤는데, 운세가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호걸인 자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며 큰 소리쳤다.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가 그날따라 의관정제하여 들어가니, 벽장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포수의 아들은 감히 쏠 수가 없었다. 마침 호랑이가 처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자, 처녀는 포수의 아들에게 호랑이가 술을 먹으면 총을 쏘라고 하고는 호랑이에게 독주(毒酒)를 먹였다. 이때 포수의 아들이 호랑이를 쫓다. 결국 호랑이는 날뛰다가 죽고, 원숭이와 토끼도 열두 대문을 나가기 전에 죽었다.

변이 호랑이 변신담은 호랑이가 인간으로, 인간이 호랑이로 변신하는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에게 잡히기>, <여자로 둔갑한 호랑이의 수단에 넘어가기>와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후자는 효자가 호랑이로 변해 부모를 봉양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편 전라남도 해남군 지역 설화에서는 신부가 산신령이 되기를 기도하자 호랑이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증으로 둔갑한 호랑이가 자신의 눈썹을 떼어 주자, 호랑이의 눈썹을 붙이고 보았을 때는 호랑이로 보이고 호랑이의 눈썹을 떼고 보았을 때는 다시 증으로 보인다는 <호랑이 눈썹> 이야기도 전한다.

분석 호랑이는 주로 노승(老僧)으로 변신하는데, 이때 영웅과 이인(異人)을 만나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된다. 이처럼 호랑이가 변신하여 인간이 되기도 하나 인간도 호랑이로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호랑이로 변신한 후에는 인간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다.

특징 이 유형의 설화는 호환형(虎患型)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호랑이에게 화(禍)를 자주 당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02; 2-3, 122.

참고문헌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한국호랑이 이야기(이기원, 민조사, 1977).

필자 김명희(金明姬)

용어

변신화소

變身話素

정의 인간·동식물·사물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화소.

내용 변신화소(變身話素)는 변신설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며, 변신 양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둔갑(遁甲)은 변신 주체가 자기 의지로 술법(術法)을 사용하여 모습을 바꾸는 자의(自意) 변신이다. 변신체의 의도가 성취되거나 그 정체가 발각되면 본체로 돌아오는 순환(循環) 변신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변신에 이용된 특정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금기를 위반할 경우 본체로 돌아오지 못하므로 고정(固定) 변신이 된다. 둘째, 탈각(脫殼)은 허물이나 껍질을 벗는 것이다. 주몽처럼 알에서 태어나거나 <구렁덩덩신선비>처럼 뱀허물을 벗고 미남자가 되는 경우이다. 셋째, 착주(捉呪)는 주술 또는 주물(呪物)에 의한 것으로, 변신 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타의(他意) 변신이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처럼 변신의 동기가 해소될 경우 본체로 회귀한다. 넷째, 환생(還生)은 변신 주체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환생 동기는 신분 상승에 대한 강한 발원(發願), 원한으로 인한 강렬한 복수 의지, 전생의 업보 등이다. 다섯째, 화석(化石)은 변신 주체가 죽음과 함께 돌로 굳어지는 변형으로서 고정 변신에 해당된다.

필자 강진옥(姜秦玉)

용어

변이

變異

정의 동일한 설화 유형이지만 개별 작품으로 구연하거나 기록할 때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 또는 달라진 내용.

내용 모든 내용이 동일한 설화는 존재할 수 없다. 설화는 구비문학의 일종이기 때문에 실제 구연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크든 작든 작품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변이(變異)는 구비설화의 핵심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설화의 변이에는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 대체로 작품의 핵심 골격은 변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핵심 골격을 유형구조라고 하며, 이것에 의해 설화의 유형성이 유지된다. 변이는 유형구조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일한 유형 내에서 유형구조가 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변이에 의해 여러 개의 하위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필자 심우장(沈愚章)

용어

병립구조

並立構造, paradigmatic structure

정의 설화에 내포된 대립적 요소들이 맺고 있는 구조.

내용 레비스트로스(C. Levi-Strauss)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설화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할 때 이야기의 순서가 아닌 기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이때 기본적인 대립항은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선과 악 등으로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들의 관계가 설화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즉, 최초의 대립관계가 최후의 대립관계로 전환되는 과정이 설화, 특히 신화의 내용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설화가 담고 있는 은유를 발견하고자 한 것이다. 마란다 부부(Maranda & Maranda)는 레비스트로스의 관점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들은 중재(仲裁, meditation)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대립의 전화(轉化)가 일어나는 기제(機制)를 설명한다. 마란다 부부에 따르면 주인공은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설정되며,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두 인물의 대결이 중재를 통해 새로운 대립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설화이다.

이들 외 여러 연구자들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점은 순차구조와 마찬가지로 애초에 기도했던 설화 구조의 의미를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필자 노영근(盧暎根)

전설

보리암

정의 전라북도 담양군 용면 용계리에 위치한 보리암(菩提庵)과 관련된 전설.

역사 보리암은 송광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일으킨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20)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으나 1607년(선조 40)에 승려 신찬(信贊)이 중수하였으며, 1650년(효종 1) 다시 스님들이 힘을 모아 재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창건설화와 충장공 김덕령 장군 관련 설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줄거리 보리암 창사전설을 보면, 보조국사가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 나무로 만든 매 세 마리를 공중에 날려 보내니 한 마리는 장성 백양사, 한 마리는 순천 송광사, 또 한 마리는 이곳 보리암 터에 앉으므로 각각 그 자리에 절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보리암 주변은 임진왜란 때 이순성의 처 광산 김씨(光山 金氏)와 이원경의 처 제주 양씨(濟州 梁氏), 김충장공의 처 정정부인 홍양 이씨(興陽 李氏)가 순절한 곳이기도 하다. 여기서 김덕령 장군 부인 홍양 이씨를 이순성과 이원경이 홍양인(興陽人)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한집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순성의 처 광산 김씨는 남편과 함께 산 속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왜적에게 잡혔는데, 왜적이 남편을 죽이고 김씨 부인을 육보이려 하자 이를 꾸짖으며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적이 칼로 부인의 왼팔과 오른팔을 찌르며 복종을 요구했으나 끝끝내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분석 왜적에 항거하다 죽은 홍양 이씨에게 1609년에 정려(旌閭)가 내려졌는데, 그곳은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신평마을이다. 이처럼 홍양 이씨가 열녀로서 우리나라의 부인상을 보여 주었던 고개가 바로 ‘비호재’인데, 산세가 마치 새처럼 나는 호랑이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는 선비들이 이곳 비호재에서 호랑이(飛虎)를 만나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하여 고개의 정상에서 산신령께 두 손 모아 호랑이 보기를 빌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호재를 일명 ‘벼슬재’라고도 부른다. 비호형국으로 생긴 추월산 중심부에 제비처럼 자리 잡은 보리암은 임진왜란 때 충장공 김덕령 장군의 처 홍양 이씨가 왜적에게 쫓기자 이곳 절벽에서 몸을 던져 순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이 암벽에는 담양부사 조철영이 1840년(헌종 6)에 새겨 놓은 “김충장공 덕령부인홍양이씨만력정유매 담양추월산왜적순절처○(金忠壯公 德齡婦人興陽李氏萬曆丁酉罵 潭陽秋月山倭賊殉節處○)”라는 명문이 남아 있다.

의의 보리암은 충장공 김덕령 장군 부인과 얽힌 전설이 전해

지는 곳으로, 무등산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김덕령장군전설>의 주제를 이해하고 김덕령의 성격과 심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술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담양설화(이해설, 담양향토문화연구회, 2002), 문화재도록(전라남도, 1992).
참고문헌 담양군 문화유적 학술조사(전남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담양군, 전남대학교박물관, 1996), 향사의 맥3(담양군, 1990).
필자 표인주(表仁柱)

전설

보양

寶壤

우물마을 비 내린 이무기

정의 신라 말에서 고려 초, 이무기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천제의 분노로부터 이무기를 보호해 준 운문선사 승려에 대한 전설.

줄거리 보양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이 그에게 금라가사(金羅袈裟) 한 벌을 보시하고 아들 이목(璃目, 이무기)을 시켜 그를 모시고 가도록 했다. 보양은 용왕의 말대로 까치떼가 쪼고 있는 곳에 작갑사(鵲岬寺)라는 절을 세웠다. 날이 가물자 이목은 보양의 명을 받아 비를 내리게 했는데, 천제는 이목이 자기 직분에 넘치는 짓을 했다고 그를 죽이려 하였다. 보양은 이목을 상 밑에 감추고, 그를 요구하는 하늘사자에게 이목과 음이 같은 배나무(李木)를 가리켰다. 하늘사자는 배나무에 벼락을 치고 올라갔고, 이목이 시든 배나무를 어루만져 소생시켰다.

변이 <보양이목설화>의 각편들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사나 대비사 일대 그리고 경상남도 밀양 등지에서 구연되고 있다. <보양이목> 안에 모티프가 삽입되어 있기도 하나 대체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화소가 중심이 된다. 대표적인 전설로는 밀양에서 전해지는 <시래호박소 이무기> 전설을 꼽을 수 있다. 상좌가 밤마다 자취를 감추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스님이 쫓아가서 엿보니 그가 대비지(大悲池)에 가서 요동을 치며 용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정체가 드러난 이무기는 하늘로 날아가며 꼬리로 절 남쪽의 억산 바위를 쳤으며, 그 때문에 바위가 뽕죽해졌다고 한다.

분석 구비전승을 불교적으로 윤색한 데에는 이 지역에 절을 세우면서 전래의 이무기신앙을 누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의도는 전래하는 천신신앙에 부딪혀 굴절되고 만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보양이목> 조에 따르면 갈등의 초점은 의외로 보양과 이목이 아닌 보양과 하늘사자 간에 있다. 이목은 보양의 명을 따라 비를 내렸을 뿐인데, 천제는 이목에게 벌을 주려고 한다. 보양은 이목을 요구하는 하늘사자에게 이목과 음이 비슷한 배나무를 지목하면서 직접 대결하지는 않으려 한다. 즉 불교는 천제로 상정되는 민간의 천신신앙과 대면할 때는 귀신이나 무당을 앞세운 여타 토착신앙과 달리 갈등을 표면화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

특징 이무기가 있다는 호박소는 ‘구연(臼淵)’이라고 하는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6 밀양도호부(密陽都護府) 산천 조에는 여기에 호랑이 머리를 넣으면 비가 온다고 했다. 호박소가 기우제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승되는 전설에서도 정체가 탄로 난 이무기가 호박소에 들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양이목> 이후의 전설은 불교적 자장(磁場)을 벗어나면서 이무기의 성격에 변화가 나타나 비를 내리게 하면서도 용으로 변신하지 못하는 한계가 강조된다. 이런 이무기의 양면성은 전승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새롭게 해명해야 할 지점이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유사 보양이목설화의 전승론적 검토(천혜숙,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형설출판사, 1990), 삼국유사 설화와 구전설화의 관련양상(조동일,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 연구(박성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이무기설화와 기우제(황경숙, 한국민속학보4, 한국민속학회, 1994).

필자 박성지(朴聖智)

전설

보은속리정어품송

報恩俗離正二品松

정의 조선 세조와 얽힌 일화로, 속리산 범주사 입구에 서 있는 소나무에 대한 설화.

역사 1464년(세조 10)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세조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대와 속리산을 행차한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전승해 온 이야기이다. 정어품송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지역민의 상상력과 역사관이 응집되어 전승된 것으로 본다.

줄거리 세조가 피부병과 안질이 심해 명산대첩을 찾아 피접(避接)할 당시, 속리산 범주사를 찾았다. 말티재를 넘은 세조의 일행이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당도하니 길가에 우산 모양의 큰 소나무가 있어, 세조가 “연(叢) 걸린다.” 하니 축 늘어져 있던 가지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 세조가 지나갈 수 있게 했다. 이에 세조가 기특하다고 여겨 정이품의 품계를 하사했다고 전한다.

변이 다른 각편에는 범주사에 갈 때는 가지를 들어주고, 행궁으로 갈 때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해 줘서 정이품의 품계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덧붙기도 한다. 소나무 모양에 빗대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승되는데, <청도 동산 처진 나무>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승이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큰 절을 하듯 가지가 밑으로 처지더니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분석 이 설화는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물이 결합하여 구비전승되는 전설로, 정치적 변혁기에 살아남고자 하는 지역민의 의식을 담아낸다.

특징 이 설화는 소나무라는 상징을 통해 중앙 권력에 대한 충절과 절개를 보여 준다. 세조가 피접할 때, 세조의 권력이 안정적이지 않았으므로, 역사 변혁기에 소나무의 절개와 충절의 상징성을 빌어 충성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다른 각편에 따르면 왕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 또한 지역민의 역사관을 표출한 것이다.

의의 이 전설은 세조가 피접을 위해 충북 보은군을 다녀간 역사 사실에 빗대어, 충북인의 왕권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충북 보은군에는 세조의 피접에 관한



보은속리정이품송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문화재청

이야기가 교암, 미륵대이고개, 목욕소 등에서 전승된다. 뿐만 아니라, 정이품송 나무와 관련하여 ‘정부인송’이라는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출처 문화유적분포지도-보은군(중원문화재연구원·보은군, 2005),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전설과 지역문화(최은식, 민속원, 2002), 중원 지역문화사 서술의 방법론에 대하여(김승환, 중원문화논총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0).

필자 이상희(李尙姬)

자료

보한집

補閑集

정의 고려 말에 문신 최자(崔滋, 1152~1220)가 1254년에 편찬한 잡록(雜錄).

내용 『보한집(補閑集)』은 최자가 편찬한 것으로, 3권 1책으로 되어 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최이(崔怡)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을 보충한다는 의미로 ‘보한집’이라 표제를 붙였다. 1권에는 52조, 2권에는 46조, 3권에는 49조 등 총 147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보한집』에 수록된 작품은 대부분 시화(詩話)다. 『파한집』에는 삼국시대의 시화도 실린 반면, 『보한집』에는 오로지 고려시대의 시화들만 선취하였다는 점에서 두 책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시 이론 부분에서도 『보한집』은 『파한집』보다 좀 더 치밀하게 그 이론을 드러낸다. 시화는 시론(詩論), 작시법(作詩法), 시 일화로 구성되는데, 그중 『보한집』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시 일화다. 특히 시 일화들 가운데는 구비적인 속성을 지닌 작품도 더러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의구설화(義狗說話)라 할 수 있는 <오수설화(獒樹說話)> 등을 포함하여 <호승설화(虎僧說話)>나 <강감찬설화(姜邯贊說話)> 등은 기록된 문헌 속에서 구비문학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예다.

필자 김준형(金竣亨)

민담

복 타고난 백정의 딸

상호호 내 복에 산다. 삼공본풀이

유하게 살 수만 있다면 신분의 차이도 상관없다는 가치관을 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352; 7-8, 535.
참고문헌 내 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현승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내 복에 산다형 민담 연구(김석배, 문학과언어3, 문학과언어연구회, 1982), 복 많은 여자계 민담 연구(이승균,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여인발복설화의 연구(김대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쫓겨난 여인발복설화의 여성상징 연구(김영만, 국어국문학연구20,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필자 김대숙(金大淑)

용어

본풀이

정의 무속의례인 굿에서 섬기는 무속신의 근본 내력을 구비 서사시의 형태로 풀어내는 굿의 절차.

내용 굿은 다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굿에서 여러 가지 의례적 요소들이 입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본풀이·맞이·놀이 등이 그러한 요소들이다. 굿에서 이들은 무속신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저마다의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굿에서는 무속신에 관련된 무속신화, 무속신을 맞이하는 무속영신의례, 무속신을 두고 벌이는 놀이 등이 서로 깊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종합 제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가 본풀이이다. 본풀이는 갈래의 성격상 무속신 화이고, 구연 형태로는 구비서사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풀이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유형과 특정한 곳에만 있는 지역유형으로 갈라진다. 그러나 보편유형이든 지역유형이든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고, 특히 보편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적 편차가 심해서 두 가지 형태는 엄격하게 나누기 어려운 점도 있다. 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에 동일한 무속신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본풀이의 이러한 보편유형과 지역유형의 구분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가능하다.

본풀이의 지역유형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간직하면서 본풀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제주도이다. 제주도에서는 본풀이의 분화와 갈래적 속성, 그리고 내용 전개와 관련하여 특정한 본풀이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본풀이의 원초적 속성을 보여 주는 곳이 제주도 굿에서 발견되며, 제주도 본풀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도 당연하다.

제주도의 본풀이는 본풀이의 기능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의 복은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마다 각각 타고나는 것이고, 결혼으로 보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내 복에 산다> 이야기 유형에서 변이된 설화이다. 가족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 관계보다 부부라는 수평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쪽으로 향유층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주인공이 며느리인 줄거리로 변이되었다.

줄거리 옛날 서울에 사는 어느 대감이 외아들을 두었다. 대감에게는 관상을 보는 능력이 있었는데 아들을 보니 빌어먹을 상이었다. 대감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찾다가 백정의 딸이지만 복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삼았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며느리를 내쫓았다. 집을 나온 며느리는 숲에서 총각을 만났고 총각의 일터에서 금을 발견했다. 그 금을 팔아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거지를 위해 잔치를 열었다. 그 후 며느리는 본 남편을 만나 시가로 돌아가고 부자로 잘살았다.

변이 처음 혼인이 이루어지는 계기에서 변이가 일어난 예가 있다. 부친이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소유자로 아들을 보니 자기 생전에는 부친의 덕으로 먹고 살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거지가 될 팔자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빌어먹을 신세를 면하게 해 주고자 몸소 전국을 돌며 복 있는 처녀를 찾는다. 변이 유형은 다음과 같다. 윗대는 양반이었으나 지금은 가난한 인물이 집에 해산날이 임박한 아내를 두고 장에서 돌아오다 한 멧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잠결에 삼신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니 그 사이에 아내가 해산하고 삼신 대접을 소홀히 해서 자기 아들은 복을 아주 적게 주었지만, 이웃의 백정은 딸을 낳고 삼신 대접을 잘해서 큰 복을 점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장성하자 백정의 딸과 혼인시킨다.

분석 <내 복에 산다>는 부녀간 갈등이 신화적 연원을 가지는 역사적 설화이다. <삼공본풀이>, 『불경』 <선광의 인연>, 『삼국사기(三國史記)』 <운달>,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 몽골의 <조흥마>, 일본의 <숫구이 고고로>와 서사구조가 같은 유형으로 금(金)에 초점이 있다. 부부의 만남과 이별, 재결합의 과정은 성인식의 문학적 표현으로, 결혼 과정은 변이를 보여도 집을 나가 숫구이를 만나고 부자가 되는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복에 따라 살기 마련이라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면서, 타고난 복이 고난을 겪으면서 실현되는 것을 통해 행운과 불운이 표리 관계임을 보여 준다.

특징 부자가 되고 싶다는 민중의 소망을 담은 설화로 주인공의 재가에 따른 문제점은 무시된다. 그리고 가난을 면하고 부

현재에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본풀이의 내용이 가장 다채롭게 발달해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기능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속의례에서 활발하게 본풀이가 작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본풀이들이 세부적 절차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나아가 이 본풀이들이 의례에서 어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가령 본풀이는 제주도의 굿 절차에서 곳곳에서 거듭 구연된다. 특정한 의례로서 본풀이만을 연행하는 앓은굿의 절차에서 구연되기도 하지만, 달리 다른 작은 절차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환기되면서 일정하게 본풀이의 축약형 또는 특정한 조상신본풀이나 공시풀이 등이 재서술되는 기이한 면모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제주도 이외의 육지부 곳에서는 이러한 본풀이의 의례적 기능이나 형태가 거의 소멸하고 있다고 보아도 잘못된 아니다. 다만 본풀이의 내용과 형태만이 간신히 살아남아 있을 따름이고,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단계임을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풀이에 대한 입체적 기능과 의미는 제주도에서 찾은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본풀이는 내용에 의한 기능을 존중하여 본다면 대체로 제주도의 준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구분이 일정하게 유용하다. 제주도에서는 본풀이의 성격과 기능상 이를 일반신본풀이·당신본풀이·조상신본풀이·특수본풀이 등으로 나눈 학문적 전례가 있다. 이 구분은 일정하게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정태적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아 구분해 보면, 천지인문현상을 관장하는 신격을 일반신본풀이라고 하고, 지역마을의 수호신에 대한 내력은 당신본풀이라고 하고, 특정하게 조상에 관련된 신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라고 하며,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으면서 특정하게 된 본풀이는 특수본풀이라고 하면서 구분한 전례가 있다.

본풀이가 전승되는 현황을 고려하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본풀이의 종류를 전국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함경도 : 〈창세가〉, 〈황천혼시〉, 〈숙영랑앵연랑신가〉, 〈도랑선비청정각시〉, 〈오구풀이〉, 〈돈전풀이〉, 〈대감굿〉, 〈생굿〉, 〈살풀이〉, 〈짐가제굿〉, 〈산천굿〉, 〈안택굿〉, 〈문굿〉, 〈중렬굿〉.
- 평안도 : 〈신선체천님청배〉, 〈원구님청배〉, 〈테석님청배〉, 〈일월노리푸넵〉, 〈성인노리푸넵(삼태자풀이)〉, 〈성신굿〉.
- 경기도 : 〈바리공주〉, 〈성주본가(황제본풀이)〉, 〈제석본풀이〉, 〈시루말〉.
- 충청도 : 〈제석풀이〉, 〈장자풀이〉.
- 경상도 : 〈오귀풀이〉 또는 〈발원굿〉, 〈당금애기(세존굿)〉, 〈심청굿〉, 〈계면굿〉, 〈손님굿〉, 〈악양궁왕자노래〉, 〈시무염불〉.
- 전라도 : 〈바리대기(오구물림)〉, 〈제석굿〉, 〈칠성풀이〉, 〈장자

풀이〉.

- 제주도 : ① 일반신본풀이 -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 〈세경본풀이〉, 〈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지장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
- ② 당신본풀이 - 〈서흥리본풀이〉, 〈송당본풀이〉, 〈케네깃또본풀이〉, 〈토산여드랫당본풀이〉, 〈칠머릿당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등.
- ③ 조상신본풀이 - 〈나주기민창본풀이〉, 〈구실할망본풀이〉, 〈광청아기본풀이〉, 〈고대정본풀이〉, 〈양이목스본풀이〉, 〈양씨아미본풀이〉 등.
- ④ 특수본풀이 - 〈허웅애기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군웅본풀이〉.

특징 본풀이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생성되어 각각의 고유한 유형을 형성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갖추면서 성장하여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으로 전국적인 보편유형과 지역적인 지역유형이 발견되는 것이다. 구비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현상은 전승의 광포성과 지역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승의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에 일정한 의의를 부과할 수 있다. 가치가 있는 현상에서 우러난 민족적 특징을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단일한 유형의 내용상 문제점만이 아니라 내용에 의한 여러 가지 이야기의 원형을 준거해서 본다면 이 본풀이들은 일정하게 자체의 고유성을 지닌 것도 있지만 본풀이가 아닌 다른 이야기의 전승 내용과 동일한 것도 있어서, 본풀이가 결코 독자적인 전승 속에서만 우러난 것이 아님을 거듭 일깨운다. 그러므로 본풀이 전승과 예사 이야기 전승이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서로 융합되고 복합되면서 다양성을 갖추면서 공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의 무속신화의 전통 속에서 등장한 본풀이는 민족신화의 시원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의 건국신화 자료와 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영웅서사시의 열개가 유지되면서 영웅 일생의 서사적 전개에 의한 내용상 일치점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욱이 이 본풀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전승 유형에 속하며 다른 곳에서 전승이 단절된 것과 다르게 현재도 굿이라고 하는 의례 속에서 풍부하게 전승된다고 하는 사실은 세계 구비서사시의 유산으로도 심층적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점에서 본풀이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의 이해(김현선 외, 월인, 2005).

필자 김헌선(金憲宣)

민담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

정의 불구경과 성(性)을 소재로 한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의 말장난을 다룬 설화.

줄거리 옛날에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가 살았는데 하루는 어디에서 불이 났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내에게 다녀오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은 어디서 불이 났는지 물었다. 이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자신의 사타구니에 갖다 대자, 남편은 어느 골목에서 불이 났는지 알았다. 남편이 다시 누구의 집에서 불이 났는지 묻자, 아내는 남편에게 입을 맞추었다. 남편은 여(呂) 서방네 집에서 불이 났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다시 부인에게 얼마나 불에 탔는지 묻자, 이번에는 부인이 남편의 성기를 만졌다. 그러자 남편은 다 타고 기둥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변이 이 유형의 설화에서 등장인물은 모두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이며, 불구경을 다녀 온 아내가 남편에게 그 상황을 전달한다는 중심 사건은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만 남편과 아내의 대화와 행동에서는 이야기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불이 어디서 났는지, 누구의 집에서 불이 났는지, 집이 불에 얼마나 탔는지로 정리할 수 있다. 불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는 주로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자신의 음부(陰部)에 갖다 대어서 알려 준다. 그리하여 남편은 불이 난 곳이 ‘진골’, ‘진밭’, ‘골목’이라는 걸 알아차린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서 불이 났는지는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입을 맞추어 알려 준다. 이에 남편은 입[]이 포개어 지기 때문에 여(呂) 서방네 집에서 불이 났음을 알게 된다. 일부 다른 변이형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고환을 만지며 달아보는 흉내를 내어 저울대 장사 집에서, 문을 두드려서 문(文) 서방네 집에서 불이 난 것을 알려 주기도 한다. 특이하게 누가 불을 났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변이형도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고환을 만져서 남편이 감자를 구워먹다 불을 낸 것을 알아차린다. 마지막으로 집이 불에 얼마나 탔는지는 거의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의 음경(陰莖)을 거머쥐어서 알려 주는데, 그 결과 남편은 기둥만 남고 모두 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석 이 설화의 핵심은 남녀의 성기를 이용하여 병어리 아내가 불구경한 내용을 봉사 남편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다. 여기서 아내의 성기는 불이 난 장소를, 그리고 남편의 성기는 불난 집의 위치와 화제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알려 준다. 실제

이야기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기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육담(肉談)의 전승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특징 이 설화는 장애를 지닌 부부가 서로의 성기를 이용한 대화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담이면서 소화(笑話)이기도 하다. 성기를 이용한 말장난이나 파자(破字)의 측면에서는 어희담(語戲譚)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육담은 비교육적인데다가 듣는 사람이나 구연하는 장소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로 동성이나 같은 연배끼리 향유하게 된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장애를 가진 부부가 성을 소재로 어떤 상황을 웃음으로 풀어내고 있어 향유층의 긍정적인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3, 78; 6-1, 603; 6-4, 535; 8-14, 292.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한국육담의 세계관(김선종 외,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이홍우(李洪雨)

전설

봉정사

鳳停寺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위치한 봉정사의 연기 설화.

줄거리 이야기의 큰 줄기는 의상(義湘, 625~702) 혹은 능인(能仁)이 도력(道力)으로 종이 봉황을 만들어 날렸는데, 이 종이 봉황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황이 앉은 자리’라 해서 봉정사(鳳停寺)라 하였다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상 조사가 영주 부석사(淨石寺)를 지은 다음, 종이로 학(봉황)을 만들어서 날렸는데, 그 학이 신기하게도 하늘을 날아서 서후리에 있는 천등산 뒤쪽 기슭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의상 조사가 이곳에서 도를 닦겠다고 하여 절을 지은 것이 바로 봉서사이다. 봉서사를 지은 다음에 또 종이 봉황을 날렸는데, 종이 봉황이 천등산을 넘어서 떨어진 자리에 지은 절이 지금의 봉정사이다. 또한 봉정사의 뒷산에 굴이 있어 거기서 의상이 도를 닦고 있을 때 아래따운 처녀가 끊임없이 유희했지만 끝내 거절했는데, 처녀가 사라진 후 커다란 등이 남아 굴을 밝혔다고 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등의 덕택으로 도통

했다고 해서 그 굴을 ‘천등굴(天燈窟)’, 그 산을 ‘천등산(天燈山)’이라 부르게 되어, ‘천등산 봉정사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변이 의상대사가 종이 봉황을 날려 내려앉은 곳에 봉정사를 세웠다는 전설이 주류를 이루지만, 그의 1대 제자인 능인대덕이 종이학을 날려 봉정사를 세웠다는 각편도 전승된다. 또한 영주 부석사를 세운 뒤 날린 종이학이 봉서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봉정사에 내려앉아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전승된다.

분석 672년 의상 조사(義湘祖師) 혹은 능인대덕(能仁大德)이 종이로 만든 봉황을 날려 내려앉은 곳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고운사의 말사인 봉정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의상은 당나라에 건너가 화엄을 공부하였고, 귀국 후 부석사를 세우고 화엄종을 강론하여 우리나라 화엄종의 창시자가 되었다. 의상의 제자인 능인 또한 동문인 표훈(表訓)과 함께 금강산에 표훈사(表訓寺)를 창건했다. 불법의 후광을 입은 지고한 대사가 신과 같은 기적을 통해 사찰을 설립했다는 이야기로, 사찰의 확대와 상징적 스님으로서 의상과 능인의 계통 형성 등이 그대로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딸린 전설로서 <천등굴> 이야기는 종이 봉황을 날려 봉정사가 생겼다는 미미한 구조에다 의상의 결기와 천우신조를 덧붙임으로써 더욱 높은 개연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의 고승이 종이학을 날려 내려앉은 자리에 사찰을 세웠다는 연기설화는 보편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안동 문화권에서는 종이학뿐만 아니라 방울 등이 날아와 내려앉은 곳에 마을 제당을 짓거나 주택 혹은 묘 등을 썼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승되고 있다. 결국 불교 이전부터 전승되던 이야기의 모티프가 사찰 연기설화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사찰 연기설화가 일반의 제당, 집, 묘 등의 유래 전설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임에도 의상 혹은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한국관광공사

능인이 종이 봉황을 날려 사찰을 지을 곳을 선택했다는 전설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신의 조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불교가 활성화되었다는 담론을 형성할 수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

출처 영남의 전설(류중선, 형설출판사, 1971).

참고문헌 안동유적지도(안동대학교박물관·안동시, 2000), 안동의 사찰(안동민속박물관, 1999).

필자 조정현(曹鼎鉉)

민담

부모 때리는 효자

정의 어릴 적 재물이었던 부모 때리는 버릇을 커서도 계속한 아들이 버릇을 고치고 효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효행설화.

줄거리 산골 외진 곳에 사는 어떤 부부가 늦둥이 아들 하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웠다. 아들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아들이 자신들을 때리는 버릇도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려 보라고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때려 보라고 하며 더 부추겼다. 아들은 부모를 때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일인 줄로 알고 나이가 들어서도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부모님께 좋은 음식으로 잘 봉양하고 잠자리도 잘 챙겨 드리는 다른 효자의 행동을 보고, 크게 뉘우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행동해서 훌륭한 효자가 되었다.

변이 서두에 아들이 외진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는 배경 설명이 첨가된 예도 있다. 아들이 부모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를 잡아끌거나 상투를 잡아당기기도 한다. 아들이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 부모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 때리는 것이 불효임을 깨닫는 예도 있다. 아들이 나무를 해다 시장에서 팔기도 하는데, 시장에서 효자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똑같이 사다가 부모님께 음식을 대접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효자가 되기도 한다. 포수나 장사치 혹은 문복가(問卜家)가 아들을 데려다가 효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서 깨닫게 하는 예도 있다. 특이하게도 큰 깨달음을 얻은 아들이 집으로 달려오자 또 때리려는 것으로 오해한 부모가 부엌 아궁이에 숨는데,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방을 따뜻하게 덥혀 놓으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부모가 불에 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각편도 있다.

신화적 상징이 있게 마련인데, 이 설화에는 부모로 상징되는 노쇠한 신격을 소생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제의적 요소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효행설화라는 맥락에서 재해석되고, 특히 후반부의 반전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부모 때리는 효자>는 때리는 행위에 관한 신화적 모티프와 유아 시기에 부모를 때리는 아이들의 일상적 행동이 동일한 맥락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불효설화라 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6, 546; 5-1, 22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0, 201.

참고문헌 만족삼노인고사집(장기탁·동명, 춘풍문예출판사, 1984),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심우장, 실천민속학연구10, 실천민속학회, 2007),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26, 도남학회, 1997), 효행설화의 구조와 의미(최혜진, 어문논집6,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6).

필자 심우장(沈愚章)

민담

부부간의 비밀신호

묘담 > 배악배악고고

민담

부부의 떡 다름

정의 떡을 걸고 부부가 말 안 하기 시합을 하느라 심한 손해를 입고도 떡을 독차지하여 기뻐하는 우행담 성격의 민담.

역사 『백유경(百喻經)』에 떡 내기를 하느라 도둑을 맞고 아내가 겁탈당할 위기에 처해도 가만히 있는 남편 이야기가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 터키까지 퍼진 유사한 이야기들은 모두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 스티스 톰슨(S. Thompson)이 『설화학원론』에서 <침묵시합(The Silence Wager, J2511; AT1351)>으로 명명한 유형이다.

줄거리 옛날 어느 노부부가 살았는데, 이웃집에서 제사 음식으로 밥과 떡을 가져다 주었다. 부부는 밥은 사이 좋게 나누어 먹었으나 떡을 두고 다투게 되었다. 부부는 말을 하지 않고 참는 내기를 하여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떡을 먹기로 했다. 마침 도둑이 들어 재물을 훔쳐 가는데도 부부는 떡 먹을 생각에 가만히 있었다. 결국 참다못한 할멈이 소리를 질러 도둑을 쫓은 뒤 남편에게 따졌다. 그러나 영감은 “이제 떡은

분석 어린 자식이 재물을 부리면 부모는 한없이 기쁘기 마련이다. 특히 늦게 낳은 자식은 그 정도가 더해져 자칫 너무 애지중지하다가는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 이 설화는 버릇이 나빠진 자식에 대한 이러한 상식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설화로 보인다. 이런 자식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식을 부모에게서 떨어트려, 집 밖으로 내보내서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모범이 될 만한 사례와 견주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효행설화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효행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설화는 불효의 극단과 지극한 효행의 극적인 대비로 효행의 의미를 강조한 대표적인 불효설화라 할 수 있다.

특징 만족(滿族)은 유수신격(柳樹神格)을 시모신(始母神)으로 숭배하는데, 그 유래담에 이 설화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 마흔 살에 낳은 아이를 금지옥엽으로 키웠더니, 어머니 때리기를 일삼았다. 밭에서 일을 하는 아들에게 밥을 내다 주면, 늦으면 늦는다고, 이르면 이르다고 죽으라며 어머니를 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두루미 새끼가 어미 봉양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금수보다 못했다며 크게 뉘우친다. 마침 땀을 흘리며 밥을 내 오시는 어머니를 보고는 반갑게 맞으러 뛰어갔더니, 어머니는 밥이 늦다고 또 때리러 오는 줄 알고 도망쳤다. 그러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대유수(大柳樹)에 머리를 부딪고 죽었다. 아들은 울면서 이 유수를 베어다가 사람 모양을 만들어 조상신위 옆에 모시고 때마다 음식을 해서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 버렸는데, 이 목두인(木頭人)만 그대로 있었다. 사람들은 유수는 신수(神樹)라서 불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후 만족은 유수를 유수놀눌(柳樹訥訥)이라고 숭배하였고, 집안의 조상신 옆에 모시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부모를 때리다가 결국 아궁이에서 불태워 죽이는 우리 설화의 변이형을 연상시킨다. 제의적인 전통에서 볼 때, 신적인 존재를 때리는 것 또는 그것의 대신이라 할 수 있는 인형을 때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들의 힘을 소진시킨 사악한 힘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신적인 힘을 자극하고 소생시키는 것이다. 우리 설화는 이러한 제의적 전통을 특별히 효행설화의 가장 안에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의의 불효설화에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다. 나이 든 부모를 산속에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살찌게 해서 시장에 내다 파는 설정이 나오기도 하고, 이 설화에서처럼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때리기도 한다. 대체로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들은

내 차지다.”라며 좋아했다.

변이 이 설화의 내용은 손진태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백유경』에 있는 〈부부식병요유(夫婦食餅要喻)〉를 그대로 전한 것이다. 좀 더 부연된 이야기도 있는, 먼저 욕심쟁이 남편이 장끼를 잡아서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먹고, 나중에 떡을 했는데 욕심수를 써서 또 혼자 먹었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다시 떡을 해서 자식들과 먹으려 했지만 남편은 말 안하기 내기를 제안하여 나중에 고환이 문고리에 끼는데도 떡 먹는 것만 좋아했다. 『백유경』에서는 아내가 도둑에게 겁탈당할 지경에 이르자 말을 하게 되지만, 우리 설화에서는 남편의 고환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아내가 “아이고, 영감 저 불알이……”라고 한 변이가 흥미롭다.

분석 하찮은 떡 하나 때문에 소중한 재물을 잃고 사람이 상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좋아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다. 떡이 생존의 조건으로 인식되는 밥보다 욕심을 드러내기엔 훨씬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특징 이 이야기는 『백유경』에서 출발한 우언(寓言)으로, 이야기가 끝난 뒤에 작은 명이나 이익을 위해 나쁜 길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우의(寓意)를 덧붙이고 있다. 우부현녀형(愚夫賢女型) 우행담이 대체로 똑똑한 아내 덕에 어리석은 남편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쪽으로 진행되지만, 이 설화는 탐욕을 강조하여 파탄으로 끝맺는다.

출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80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8, 322.

참고문헌 설화학원론(S.Thompson,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일본의 구전소화와 문헌자료(稻田浩二, 최인학 편, 한·중·일 설화비교연구, 민속원, 1999). 한일민담의 비교연구(성기열,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0).

필자 이강업(李康燁)

전설

부석사

浮石寺

정의 부석사(浮石寺) 창건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연기전설(緣起傳說).

역사 〈부석사전설〉은 중국 송대(宋代)의 승려 찬녕(贊寧)이 저술한 불교서 『송고승전(宋高僧傳)』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 책의 〈의상전(義湘傳)〉에 ‘당 신라국의 성자’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3세기 때 일본의 승려 명혜(明惠)가 저술한 『화엄연기(華嚴緣起)』에 그림과 함께 이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전통사회 시절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전설과 함께 선묘(善妙)를 신격화한 선묘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의해제5(義解第五) 〈의상전교(義湘傳教)〉 부분에 의상대사가 화엄 교리를 전파하는 과정과 부석사를 창건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을 뿐 선묘 관련 문학적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전설은 현재 경상북도 북부 일대에서 구비전승의 형태로 비교적 잘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의상이 당나라에 가서 공부할 때 어느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집주인의 딸 선묘가 의상을 사모하게 되었다. 의상은 그저 의연하게 대처하였으며, 공부를 모두 마친 뒤 그 신도의 집에 들러 집주인에게 인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것을 뒤늦게 안 선묘는 자신이 준비한 범복과 각종 용품을 부랴부랴 함에 담아 의상이 있는 해안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상이 탄 배는 벌써 멀리 떠나 버렸다. 선묘는 자신이 가져온 함을 바다에 던진 뒤, 용으로 변해 대사를 모시면서 그의 불도를 이루게 해 달라는 주문을 외웠다. 그랬더니 선묘는 용으로 변했으며, 배의 바닥을 받쳐 의상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왔다.

신라에 귀국한 의상은 불법을 전파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권종이부(權宗異部)의 무리들이 수백 명씩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의상을 따라다니며 지키던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더니 절의 정상을 덮고 떨어질 듯 말 듯했다. 이것을 본 많은 승려들이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상은 이 절에 들어가 화엄경을 펴 내기 시작했고, ‘돌이 공중에 떴다.’ 하여 이 절의 이름을 부석



부석사 무량수전 서편 부석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990.8.16, 배도식

사(浮石寺)로 지었다.

분석 〈부석사전설〉은 사찰연기전설에 해당하는 불교설화로, 〈선묘설화〉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전설은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 교리를 배워 익히고 우리나라에 정착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의상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바탕 아래 선묘라는 여인의 헌신적 사랑이 주요 모티프이다. 선묘의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 환생 등은 매력적인 문학요소인 까닭에 이 전설이 중국 및 일본까지 전파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징 이 전설은 우리나라에서 민담형식으로 폭넓게 구비전승되는 〈상사뱀설화〉가 불교 화엄종의 유입 시기에 불교설화로 정착된 것으로 추측된다. 〈부석사전설〉과 〈상사뱀설화〉의 서사단락별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설화학계에서는 변신하는 용 모티프의 원형을 구렁이 또는 뱀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출처 宋高僧傳,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0, 781.

참고문헌 사성계 창사설화 연구(김홍철, 교육과학연구2,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88). 송고승전 소재 의상전교(김홍철, 인문과학논집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4).

필자 김진형(金鎭亨)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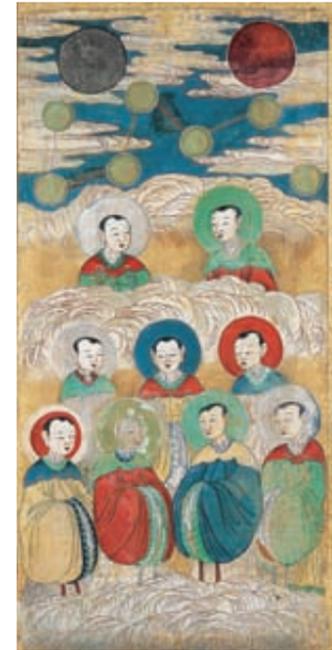
북두칠성

北斗七星

상호표지 칠성풀이, 효불효다리

정의 북두칠성 별자리의 생성에 관한 내력을 이야기하는 설화.

줄거리 한 과부가 일곱 아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새벽이면 이슬을 맞고 집에 들어오곤 했다. 일곱 아들이 어머니가 날마다 홀아비를 만나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건너다니는 개울에 먼저 가서 앞드려 다리가 되어 주기로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그렇게 했다. 그 어머니는 개울을 건너면서 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일곱 칠성이 되기를 기원했다. 어머니가 홀아비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홀아비가 일곱 아들을 앓아려고 죽을병에 걸린 듯 피병을 앓았다. 짐을 치니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하자, 일곱 아들이 산으로 가서 희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산짐승이 와서 간을 내어 주어 일곱 아들은 죽지 않았다. 일곱 아들은 후에 칠성이 되었다.



칠성신
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설화의 전반부는 〈효불효다리〉의 서사 내용이고, 후반부는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변이형에 해당한다. 〈칠성풀이〉에서 후실부인의 계략이 의붓아버지의 계략으로 바뀐 것이 다를 뿐이다. 결핍이 있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북두칠성이 되었고 이 별자리가 인간의 덕행을 고스란히 간직하면서 인간 세상에 필요한 별자리로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간략한 이야기로 전승되는 것이다. 한편, 이전부터 전해 온 은하수와 북두칠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개울에 놓인 일곱 개의 다리가 칠성과 이어져 이런 전설이 형성되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기우에 관한 칠성신앙의 속성이 불교의 칠석 의식이나 민간의 기우신앙으로 넘어가고 서사무가와 전설에서는 그 흔적만 남아 전승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의붓아버지의 최종 행방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어머니를 위해 정성을 다한 일곱 아들이 칠성이 되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홀로된 어머니를 위하여 다리를 놓은 것은 어머니에게는 효이지만 죽은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되니 그 다리가 ‘효불효다리’가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덧붙었다.

특징 일반적으로 민간신앙에서 칠성신은 기우·수명·재물을 관장하는 신인데, 육지부에서 전승되는 〈칠성본풀이〉에서는 기우와 관련한 표지가 전승되지 않는다. 칠성신은 신화의 서사 맥락과 별개로 불교 행사일인 칠석에 기우의 대상신으로서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주변 별자리와 관련시켜 볼 때, 개연성을 얻을 수 있다. 여름 하늘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

고 대각선으로 떨어져 있는 건우성과 직녀성, 그 사이에 남두육성(南斗六星)이 있고, 직녀성의 북쪽에 북두칠성이 있다. 북두칠성과 은하수를 경계로 필수(畢宿)가 마주한다. 전설에 따르면 남두육성과 북두칠성은 건우와 아이들이 은하수 강물을 퍼내던 국자였다고 하므로 기우와 연결될 수 있다. 별개로 형성된 <칠성본풀이>나 <북두칠성유래담>이 천체의 별자리와 은하수 그리고 <건우직녀전설>과 연결되면서 기우의 관념이 형성된 것은 아닐까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불교의 칠석 의식이 일반화되면서 기우와 칠성신앙이 직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 공간설화 연구(박현국, 국학자료원,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6, 124; 5-1, 476.

참고문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고찰(김일권, 백산학보47, 백산학회, 1996), 구비전승의 삼태성과 북두칠성 신화 일고(박종성,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학회, 2003), 조선조 무속 국행의례 연구(최종성, 일지사, 2002),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필자 박종성(朴鍾聲)

민담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정의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소년이 사람의 생사를 관장하는 북두칠성에게 치성을 드려 수명을 연장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어떤 사람이 독자를 낳아 기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던 신승이 아이의 관상을 보고 열아홉 살에 단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아버지가 아이를 살릴 방도를 간청하자, 신승은 한밤중에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바둑을 두는 노인에게 애원해 보라고 하였다. 다음날 밤에 소년은 남산에 올라가 바둑을 두는 두 노인에게 술과 안주를 접대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추한 얼굴을 한 노인은 소년의 못 들은 척했으나, 고운 얼굴을 한 노인이 소년을 살려주자고 하여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 논쟁을 벌였다. 결국 고운 얼굴을 한 노인의 말에 따라 소년을 살려주기로 하고, 명부를 꺼내 소년의 나이를 99세로 고쳐 주었다. 그 후 소년은 이혼아홉 살까지 잘 살았다. 추한 얼굴의 노인은 사람의 죽음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이고 고운 얼굴의 노인은 사람의 생을 주관하는 남두칠성이라고 한다.

변이 연명설화는 그 치성대상에 따라 칠성신에게 치성을 바치고 수명을 연장하는 유형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잡으러 오는 저승차사에게 밥, 짚신, 엽전을 대접하고 수명을 늘였다거나 염라대왕에게 치성을 드려서 오래 살게 되었다는 등의 변

이형이 전승된다. 손진태는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이야기가 중국의 『수신기(搜神記)』에 실려 전하는 <관로설화>가 조선에 전파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두 자료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추정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분석 북두칠성과 남두칠성이 사람의 생사를 관장한다는 것은 곧 일월성신이 인간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성신신앙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칠성신은 사람의 생사를 관장한다고 여겼던 신앙대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소년이 밤중에 산에 올라가 노인에게 술과 안주를 접대하는 것은 칠성신에 대한 치성행위를 의미하며, 칠성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려 수명을 늘일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의의 이 설화는 운명담의 대표적 유형 중의 하나로서, 초월적 존재의 힘에 기대어 단명할 운명을 변역(變易)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몽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472; 8-8, 621,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참고문헌 搜神記, 연명설화고(정규복, 어문논집11,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8),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연명담 연구(최인황,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한국운명설화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정재민(鄭在珉)

신화

북부여건국신화

北夫餘建國神話

동명왕신화

전설

불가사리

정의 고려 말 닥치는 대로 쇠를 먹으며 계속 성장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괴물에 관한 전설.

역사 불가사리[不可殺伊]는 민간에서 구전되어오던 환상 속의 괴물로, 민속에서는 재앙과 화재를 예방해 주는 존재로 여겨 병풍이나 굴뚝에 그려 넣기도 하였다. 『송남잡지(松南雜識)』에 “민간에 전하기를 송도(松都) 말년에 어떤 괴물이 있었는데, 쇠붙이를 거의 다 먹어 버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죽일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불가살(不可殺)’이라고 이름 하였다. 불에 던져 넣으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인가(人家)로 날아들어 집들이 또한 다 불에 타 버렸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줄거리 어느 날 나라에서 중들을 모두 잡아들이라는 공문이 내려와 절에 있던 중들이 도망 다니게 되었다. 하루는 어떤 중이 자신의 여동생 집으로 가 숨겨 주기를 청하였다. 여동생은 중을 숨겨 주는 척하고 벽장에 가둔 뒤 남편에게 자신의 오빠를 관아에 바치고 큰 재물을 얻자고 하였다. 여동생의 남편은 오빠를 관아에 팔아넘기려 한 행동에 분노하여 아내를 죽이고 중을 풀어 주었다. 중은 벽장에 갇혀 있을 때 밥풀로 괴상한 짐승 모양의 물건을 만들어 재미삼아 바늘을 먹었다. 놀랍게도 그 괴물은 바늘을 받아먹고 점점 자라나다 집 안에 더는 먹을 게 없자 밖으로 나와 온갖 쇠붙이를 먹으며 더욱 크게 성장하였다. 나라에서 이 괴물을 잡아들이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활을 쏘기도 하고 칼로 내리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로 녹여 없애려 하였으나,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괴물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바람에 온통 불바다가 되고 말았다.

변이 불가살이가 처치되지 못한 이야기뿐 아니라, 이름난 승려에 의해 처치되는 설화 또한 구전되고 있다. 설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가살이의 뜻은 두 가지로 전해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의 불가살이(不可殺伊)이고, 둘째는 ‘불로써 죽일 수 있다’는 뜻의 불가살이[火可殺伊]이다. 후자의 경우 구전에서는 화가살이, 화가사리로 전승되기도 한다. 위의 줄거리는 첫 번째 명칭에 부합하여 구전되는 설화라 할 수 있다. 전승되는 설화에 따라 나라에서 중을 잡아들이라 한 이유가 고려 말 국정을 맡아보던 신돈이 부녀자들을 간음하여 많은 자손들을 낳은 일이 발각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을 이용해 불가살이 퇴치에 성공한 경우를 보면, 나라에서 중을 잡아들이는 이유가 숭유억불(崇儒抑佛)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가살이는 죄 없는 중을 잡아들이는 나라의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신승(神僧)이 일부러 만든 괴물로 풀이된다. 한편, 전승되는 설화에 따라 불가살이는 여동생에 의해 죽은 뻘한 승려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처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만든 괴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불가살이를 퇴치하는 방법은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불가살이를 쇠붙이로 유인한 뒤 부싷돌로 꼬리에 불을 붙이는데, 이때 큰 굉음과 함께 불가살이가 까맣게 탄 밥풀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구전되고 있다.

분석 불가살이는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 언급된 맥(貍)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쇠를 먹는다



경복궁 자경전 글독의 불가사리 문양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한국관광공사

는 것 말고는 서사적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설화에 등장하는 불가살이가 식철(食鐵, 철을 먹는 행위)하는 행위는 전쟁에 대한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한국에서 전승되는 <불가살이설화>는 『구잡비유경(舊雜比喩經)』에 수록된 불전설화 <화모(禍母)> 이야기의 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모와 관련한 불전설화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 전파되어 고유한 설화로 발전하였다. 화모의 파괴자적 이미지는 잠재된 인간의 공포와 불안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여러 나라의 설화에 수용되었다. 중국의 경우 『태평광기(太平廣記)』에 수록된 <오감(吳堪)과 나니(螺女)>에서 아내를 빼앗으려는 현령의 마지막 요구는 불을 먹는 개 와두(蝸斗)를 데려오라는 것이었다. 오감이 데려온 와두는 불을 쏘아내 성을 태우고 현령을 없애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내량현민속지료(奈良縣民俗誌料)』에서 부부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은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부부의 원혼이 작은 벌레로 변하였다가 쇠를 먹고 괴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설화는 인간의 색욕(色慾)을 경계할 뿐 아니라 남의 아내를 함부로 빼앗으려는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한국의 <불가살이설화>는 중이 된 오빠를 관아에 팔아넘기려는 여동생을 통해 물욕(物慾)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가족 관계를 통해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윤리적 경계(警戒)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모두 함유하고 있다. 한·중·일 세 나라 설화는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고유의 문화적, 민족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징 한국의 <불가살이설화>는 이중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첫째는, 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다. 전승되는 설화에 따라 신돈과 같이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나라의 잘못된 정책을 깨우쳐 주는 비범하고 신이한 존재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는, 불가살이의 존재를 인식하는 두 가지 시선이다. 불가살이는 성을 태우고 나라의 멸망을 앞

당기는 존재임과 동시에,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징적이다.

의의 한국 설화에서는 드물게 괴물이 등장하는 설화로, 왕조의 멸망과 새로운 왕조의 탄생, 그리고 불교에 대한 비판과 옹호 등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며 전승되고 있다. <불가살이 설화>는 중국, 일본의 설화와 비교문학적 연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1921년 현영선이 지은 활자본 고전소설 <송도말년 불가살이전>의 바탕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고전서사를 아우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舊雜比喩經(동국대학교 역경원, 한글대장경18), 松南雜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174; 5-4, 176; 8-1, 436; 8-9, 721; 8-13, 592, 황구연 민담집(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보고서, 2007).

참고문헌 고전서사에 나타나는 불가살이연구(조재현, 어문연구14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불교사 불교(雲陽), 불교사 불교75, 1930), 한국 불가살이 설화와 일본 내량현민속자료 석화 비교연구(조재현, 일어일문학42, 대한어일문학회, 2009),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불가살이 연구(김보영,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필자 조재현(趙在顯)

전설

불국사

佛國寺

정의 불국사 및 석굴암의 창건 내력에 관한 전설.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 조에 실려 있다. 사찰연기담, 영혼전이담, 재생담 등으로 이루어진 설화이다. 가야 김수로왕이 꿈의 징조가 있는 뒤에 거등왕을 낳은 이야기는 김대성의 꿈 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영혼전이담은 『삼국유사』 효소왕대죽지랑(孝昭王代竹旨郎) 조에서 한 거사의 죽음이 죽지랑 탄생으로 연결된다는 내용에 흔적이 남아 있고, 재생담은 석탈해가 토함산에 올라가 돌무덤을 만들고 이레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에 그 흔적이 보인다.

줄거리 모랑리 여자 경조(慶祖)에게 아들이 있었다. 머리가 크고 이마가 넓어서 대성(大城)이라 했다. 어느 날 흥륜사(興輪寺) 스님 점개(漸開)가 와서 하나를 베풀면 만 배의 복을 얻는다고 하자 대성은 어머니에게 권하여 시주토록 했다. 얼마 뒤 대성이 죽어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손에 대성(大城)이라고 쓰인 금간자(金簡子)를 쥐고 있었다. 훗날 자신을 낳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봉양했다. 어

느 날 토함산에서 꿈 한 마리를 잡은 뒤 산 아래 마을에서 묵었다. 그날 밤 꿈에 꿈이 나타나 자신을 죽인 일에 대해 따지니, 대성은 두려워 땀으로 요를 적셨다. 꿈은 자신을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고 하였고 대성이 이를 허락했다. 잠에서 깬 대성은 이로부터 사냥을 금하고 꿈을 잡은 곳에 장수사(長壽寺)를 지었다. 그 뒤 발원한 바가 더욱 돈독해져서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불사(石佛寺)를 지어서 신림(神琳), 표훈(表訓)을 각각 머물게 했다. 석불을 새길 때 돌을 깎아서 감실(龕室) 뚜껑을 만들려고 했는데, 홀연 돌이 세 조각으로 쪼개졌다. 대성이 분한 마음을 어찌지 못하다 졸고 있는 사이 천신(天神)이 내려와 이를 완성하고 돌아갔다. 잠이 깬 대성은 급히 남쪽 고개로 달려가 향을 태워 천신에게 바쳤다. 또한 불국사에서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751년(경덕왕 10)에 대상(大相) 대성이 처음으로 불국사를 세웠는데, 774년(혜공왕 10) 선달 초이튿날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완성시켰다고 했다.

분석 <석탈해설화>(재생담), <금와탄생담과 거등왕탄생담>(기자담), <죽지랑탄생담>(영혼전이담) 등에 나오는 화소들을 바탕으로 형성된 설화이다. 대성이 김문량의 집에 다시 태어날 때 자기 이름이 적힌 금간자를 쥐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개 금간자는 도교의 선간(仙簡)이나 제왕의 조서(詔書)를 말한다. 따라서 대성은 왕위에 오른 인물일 수도 있다. 혜공왕(惠恭王)의 탄생과 관련된 설화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삼국유사』 경덕왕충당사표훈대덕(景德王表訓大德) 조와 연결해야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이야기가 된다.

의의 <불국사> 창건설화는 불국사나 석굴암의 위세에 가려져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설화로서 아직까지 설화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설화는 임금 자리까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성의 개인적인 삶과 불국사를 창건을 중심으로 구성된 설화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불국사 근경(연화교칠보교)
경북 경주시 불국로, 한국관광공사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불국사창건설화 연구(전관수, 동방학지15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석굴암(신영훈, 조선일보사, 2003), 석불사(남천우, 일조각, 1991), 석탈해와 토함산, 그리고 석굴암(강인구, 정신문화연구24, 한국학중앙연구원, 2001), 신라정치사상사연구(이기백, 일조각, 1973), 탈해신화의 문학사적 의미(박대복, 우리문화연구18, 우리문화회, 2005).

필자 전관수(田寬秀)

민담

불씨 지킨 며느리

정의 대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 오던 한 집안의 새 며느리가 불씨를 꺼뜨리는 존재를 쫓다가 부자가 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대대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 오던 한 집안에 새로 며느리가 들어왔다. 시부모가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며느리는 불씨를 지키던 첫날부터 그만 불씨를 꺼뜨리고 말았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불씨를 지켰는데, 어느 날 밤 벌거숭이 동자가 나타나더니 오줌으로 불씨를 꺼뜨리고는 달아났다. 며느리가 사력을 다해 쫓아갔는데 동자가 갑자기 어느 곳에서 사라져 버렸다. 사라진 곳을 파 보았더니 아이만 한 동자삼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캐어 와서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분석 <불씨 지킨 며느리>는 자료마다 내용의 편차가 크지 않아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설화는 아니다. 다만 불씨를 꺼뜨리는 존재가 누구인지와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각편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정도이다. 한편, 불씨를 꺼뜨리는 존재를 쫓아가는 내용에서는 바늘에 실을 꿰어 그 존재를 찾아가는 아래자설화의 형태를 보이는 자료도 다수 있어, 이 설화와의 친연성 또한 두드러지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 설화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전승되는 광포 설화이다. 그 채록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 중심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며, 북한 지역의 자료 또한 채록되어 전국적인 분포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설화임에도 실제 채록 편 수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성냥과 같은 발화 도구의 발달과 함께 불씨를 지키는 민속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전승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설화가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중국, 대만, 북방 수렵민 사이에도 분포하고 있어 인근 지역과도 친연성을 가진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의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불씨를 지키는 민속을 기반으로 전승되는 설화이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집안 대대로 지켜 오던 민속과 이런 소임이 며느리에게로 계승되는 양상 그리고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곧 가운을 왕성하게 하고 재복을 가져온다는 믿음 등 불씨 관련 민속이 설화에 잘 반영되고 있어 설화와 민속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이 설화는 이미 민담화되었지만 불씨를 지키는 존재와 불씨를 꺼뜨리고자 하는 존재 간 대결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이어서, 불을 훔쳐 오는 과정을 보여 주는 불 기원신화적 흔적 또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출처 삼척지역의 설화(두창구, 국학자료원, 2003),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1014; 5-1, 60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51; 7, 360, 한국구전설화집5(최문식, 민속원, 2002).

참고문헌 대대로 내려온 불씨담의 성격과 불 기원신화적 면모(권태효,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화회, 2008), 불씨형 설화와 여성(최인학, 인학20, 인학대학교, 1984).

필자 권태효(權泰孝)

민담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정의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며느리를 아들이 지기를 발휘해 마음을 고치고 효도하게 길들이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관련 설화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아버지 살 찌워서 팔아먹기>의 내용이다. 한 부부가 어머니를 일찍 여윈 후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아들이 가만히 보니 아내가 부친을 박대하고 부친은 불평만 하니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지고 형편도 어려워져 갔다.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장에 가서 보니 어떤 사람이 부친을 살을 많이 찌워서 데려와 팔았는데, 비싼 값을 받고 팔고 가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버지를 살찌워 팔아먹자.”라고 하였다. 그 말에 솔깃한 아내가 그러자고 하면서 그날부터 시아버지를 잘 모셨다. 끼니때면 밤, 고구마, 고기, 콩죽 등을 먹고 고운옷에 때가 묻을 만하면 갈아 입혀 가며 시부를 공양하였다. 이렇게 며느리가 알뜰히 대접하니 시아버지도 기분이 좋아져서 전과는 달리 마당도 쓸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에 나간 사이에 손자도 돌보아 주고, 식전에 며느리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의 재도 쳐내어 주었다. 이렇게 일 년이 흘러서 처음 아들이 약속했던 선달그믐날이 돌아와 아내에게 아버지를 팔자고 짐짓 마음을 떠보았다. 그러자 아내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여러모로 편하다며 만일 시부가 없다면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서 안 된다고 필쩍 뛰며 반대하

였다. 두 번째 (아내를 효부로 만든 남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내가 어머니를 미워하고 박대하니 아들이 피를 내어 노인에게 꿀밥, 콩죽, 술을 매일 주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거짓 말하였다. 남편의 제안에 솔직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매일 주고 시모를 잘 섬기니 모친이 뽕얇게 살이 오르고 며느리 칭찬이 대단하였다. 동네에 효부라고 소문이 나니 며느리가 마음을 돌려 시어머니를 잘 모시게 되었다.

변이 첫 번째 유형에는 시부가 해 주는 집안일의 종류와 살찐 노인의 몸값 등에서 변이가 있으나, 변이 유형을 설정할 만한 특이한 차이는 없다. 두 번째 유형 역시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는 것은 ‘먹을 것’이고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변이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첫 번째 유형의 대상이 시어머니인 각편 혹은 두 번째 유형의 대상이 시아버지인 각편이 간혹 있는데, 이야기의 의미구조에서 볼 때 구술자가 착각하여 일어난 현상이다.

분석 〈여름에 홍시 구한 효자〉와 같이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효행담 유형에서 좀 더 발전한, 현실적 삶에 기초한 민담으로 해석된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가족 각자의 입장에서 부모 섬김의 문제를 입체적이고 밀도 있게 설명하고 있다.

효행담은 가족관계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갈등의 야기와 해소가 가족관계 안에서 일상적인 사건, 특히 먹을 것과 관련되어 일어난다. 예로부터 며느리가 시집에서 가장 힘든 일은 홀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이다. 그래서 “홀시아버지를 모실래? 바담벽을 길래?”라든가, “홀시아버지를 모실래? 구슬을 서 말 꿰래?”라는 옛말이 있다. 여기서 효성은 부자간의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여성, 즉 며느리가 주역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팔아먹지는 제안을 하였고, 사태는 역전된다. 가족 간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의 관계 설정에 관건임을 보여 준다. 시아버지가 집안일을 힘껏 도우면 며느리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다행이라 그런 부모를 박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설화는 고부 관계가 아들을 사이에 둔 정서적인 삼각관계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와 그 마음을 이용해 모친을 구제하는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은 ‘먹을 것’이다. 맛있는 음식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최우선이고, 그 결과 고부간 관계는 역전된다.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지로 효부가 되긴 하였으나, 현실에서 며느리의 시어머니 사랑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보여 준다.

특징 가장 현실적인 효행담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

즉 치사랑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게다가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태도에서 자연스러운 애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시아버지는 너무 짐스럽고 시어머니는 그 존재만으로도 고통스럽다. 그 사이에 낀 아들은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다. 효부라고 하는 주변의 칭송도 며느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효행담의 한쪽 끝에서는 자식을 죽여서 부모를 받드는 도리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삶에서는 도저히 아낄 수 없는 사람을 섬겨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의의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이야기는 소설과 가사문학에서 가끔 등장하나 자식이 부모를 파는 일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럴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늙으면 오직 자식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농경사회, 즉 1차 산업사회에서 자식의 부모 섬김은 무척 힘겹다. 그러기에 부모를 갖다 버리는 〈고려장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57; 1-4, 387; 1-6, 544; 2-9, 879.

참고문헌 구비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숙,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김대숙,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회, 1998), 한국설화연구(최은식, 집문당, 1991),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 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필자 김대숙(金大淑)

전설

비 내린 이무기

인물상 보양

정의 천제(天帝)의 명을 어기고 인간을 위해 비를 내려 준 이무기에 관련한 설화.

줄거리 이목이 용으로 변신하여 웅덩이에 들어가곤 했다. 스님이 이목의 뒤를 밟아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어느 해 날이 심하게 가물어 흉년이 들 위기에 처했다. 스님이 이목에게 “비를 내려 해갈하고 흉년을 면하게 해 달라.”고 했다. 이목은 옥황상제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은 죽게 된다고 거절했지만, 스님이 계속 부탁하자 비를 내려 주었다. 이목은 옥황상제의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스님은 이목을 구들장 아래에 숨겨 주었다. 옥황상제의 사자가 찾아와 이목의 소재를 물었다. 스님은 절 앞의 대추나무를 가리키며 이목이라고 하였다. 이목은 스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고, 못에 거주하며 가뭄이 올 때마다 비를 내려 주었다.

변이 이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보양이목 조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보양이목 조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설화도 있지만, 주인공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는 예도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이무기가 거주하는 곳이라고 믿어지는 연못의 이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이되고 있다.

분석 이 이야기는 가뭄 때 이무기가 산다고 여겨지는 용소에 기우제를 지내면 이무기가 비를 내려 준다는 내용이다. 고대부터 우리나라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해마다 겪는 가뭄은 늘 고민이었고 고통이었다. 그래서 기후를 관장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용에게 기우제를 지내 왔다. 전국 각지의 용강(龍江)·용연(龍淵)·용담(龍潭)·용추(龍湫)·용소(龍沼)·용정(龍井) 같은 용 관련 지명도 그와 관련이 있다. (시래호박소 이무기전설)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무기가 일정 기간의 수련을 마치면 승천하게 되는데, 승천할 때에 구름이 모이고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때 생겨난 강이나 못이 용과 관련된 지명이 되고 가뭄 때에 거기에서 기우제를 지내 왔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용 승천과 관계없이 이무기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못으로 상정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특징 일반적으로 용은 인간을 돕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이무기는 인간에게 심술을 부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는 이무기가 자신을 희생하고 서라도 인간을 돕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의의 『삼국유사』에서는 이목(璃目)으로, 구비설화에서는 이목(李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모두 발음상 이무기를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이무기라는 명칭의 어원을 유추해볼 수 있는 이야기로서 그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7, 134; 8-8, 510.
참고문헌 삼국유사 소재 용전승 연구(김문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용사사상의 한국문학적 수용양상(이혜화,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한국설화에서 용신신앙의 수용 양상과 의미 연구(이동철,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이동철(李東哲)

민담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정의 빈대와 벼룩과 이와 같은 물자들이 지금과 같은 형상이 된 기원을 설명한 설화.

줄거리 이 설화는 내용의 구성상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단순한 내용으로, 셋이 싸움을 벌인 결과 빈대는 놀려 납작하게 되고 이는 차여 멍들었으며, 벼룩은 뺨을 맞아 주둥이가 뽕족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빈대의 환갑잔치를 소재로 한다. 환갑잔치에 초대받은 벼룩이 먼저 가서 술 한 잔을 마셨다. 오지 않는 이를 빈대가 마중 나간 사이에 벼룩은 남은 술을 모두 먹었다. 그래서 벼룩은 온몸이 빨갱게 되었다. 뒤늦게 도착한 이가 화를 내며 벼룩에게 달려 들었다. 말리던 빈대는 둘 사이에 끼어 납작해졌고, 이도 등을 걷어차여 퍼렇게 멍이 들었다. 세 번째 유형은 글짓기 내기인데, 모기도 등장한다. 빈대가 시험관이 되고 이와 벼룩과 모기가 각각 시를 짓는다. 벼룩이 ‘팔짝 장관방 단견일지인(壯板房 但見一指人, 팔짝 장관방을 뛰니 다만 한 손가락의 사람만 보도다.)’이라고 지으니, 이는 ‘슬슬 요간거 부견정구인(腰間去 不見正口人, 슬슬 허리사이로 가니 입이 바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이라고 짓고, 모기는 ‘웁웁 이변과 매견타협인(耳邊過 每見打類人, 웁웁 귓가로 지나가니 매번 뺨을 치는 사람을 본다.)’이라고 지었다. 빈대가 모기를 장원으로 뽑자, 이와 벼룩이 화를 내고 달려들어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변이 글짓기 내기 유형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다. ‘인간(人間)’ 두 글자를 운(韻)으로 삼아 지은 설화를 보면, 벼룩은 ‘용약천 지간에 단견일지인(勇躍天地間에 但見一指人)’이라 지었고, 이는 ‘회향요대간에 난견직구인(回向腰帶間에 難見直口人)’, 모기는 ‘비입주렴간에 빈견타협인(飛入珠簾間에 頻見打類人)’이라 지었다. 이보다 더 발전한 것이 심판관인 빈대마저도 글짓기에 참가한 설화다. 파리는 ‘형형 미단행 단견요두인(眉端行 但見搖頭人)’, 벼룩은 ‘폴적 도방중 단견일지인(塗房中 但見一指人)’, 이는 ‘슬슬 요간행 부견정구인(腰間行 不見正口人)’, 모기는 ‘웁웁 이변과 단견타협인(耳邊過 但見打類人)’이라 지었다. 빈대는 이 4편을 보더니 너희들 시는 다 틀렸다고 하면서 ‘효두절벽상(曉頭絕壁上) 하니 전정거화인(前程舉火人)’이라, 또 ‘와복유벽간(臥伏幽壁間) 하니 부견정구인(不見正口人)’이라’고 지었다. 냇이 빈대에게 왜 우리 글이 틀렸냐고 항의하니, 빈대는 너희 글은 모두 사람을 비웃는 글이 아니기에 그런다고 하였다. 이후 싸움이 벌어지고, 그 결과 다들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분석 이 설화는 물자들의 형상을 설명하는 동물유래담에 속하며 전국에 퍼져 있다. 이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이의 모습은 민요 〈이(虱)타령〉에도 나온다. 오늘날은 의학과 위생의 발달

민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비

내린 이무기

로 보기 힘들게 된 물건들이 예전에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생활 속에 기생한 물건들도 허투루 보지 않고 관찰한 조상들의 지혜가 이 설화 속에 담겨 있다.

특징 이 설화는 동물들이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여 서로가 잘났다고 재주를 겨루는 이야기다. 그중 하찮은 물건들(빈대, 벼룩 등)을 등장시켜 하찮지 않은 문인들이 하는 글짓기에 도전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하여 해학을 발생시킨 우스개[才談]로서 유일한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5, 480; 4-1, 12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43; 3, 150; 177; 4, 44; 163; 5, 113; 7, 152; 9, 55, 한국민담사전(최근학, 문학출판공사, 1987), 한국의 전설(김열규, 한국학술정보, 2002).

참고문헌 물건들의 싸움(조희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필자 이한길(李漢吉)

전설

빈대절터

정의 빈대로 인해 절이 망했음을 말해 주는 폐사유래담에 속하는 설화.

줄거리 경상남도 산청군 집현산 밑 절골에 한때 큰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절을 단았다. 얼마 후 떠났던 중이 옛절에 다시 가 보니, 방 안 기둥에 빈대가 뭉쳐 있어서 다시 떠났다. 몇 년 뒤 한 사람이 그 절터로 풀 베러 갔다가, 나무에 붙어 있는 큰 지네를 보고 놀라 죽었다. 어느 날 떠났던 중의 꿈에 한 여인이 나타나 ‘혼자 절을 지키느라 욕을 보고 있다.’면서 중에게 절을 비웠다고 꾸짖었다. 그리고 중이 부처 앞에 불공을 드릴 때, 지네가 서렸다가 중을 삼키려 하자 놀라 잠에서 깨었다.

변이 가장 간단한 이야기는 ‘절(혹은 암자)에 빈대가 많아서, 스님들이 살지 못하고 절에 불을 지른 뒤 떠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절의 이름과 절터를 확인해 주거나, 그 절터의 돌을 들추면 지금도 빈대가 수북하다는 현지 주민의 증언이 곁말로 붙어 있기도 하다.

분석 이 전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빈대로 망한 절터에 지네가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뱀’을 지칭하는 방언인 ‘긴대, 진대, 진자이’가 음성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빈대로 교체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용사설화의 하나인 <거미복수담>에서 구렁이가 ‘거미’로 변하여 나타나는 예를 들 수 있다. 둘째는 ‘바위굴 속의 이무기가 지네가 된다’는 이야기와 지네가 여인으로 변하거나 ‘지네가 중을 해치는 바람에 절이 망했다’는 이야기로 보아, 지네는 뱀, 구렁이의 용사 성격과 상통한다. 셋째는 구렁이와 중 혹은 지네와 중의 관계를 말해 주는 용사설화가 많은데, ‘매년 구렁이(지네)가 절의 중을 잡아먹자, 원조자가 그 구렁이를 제거한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원조자 없이 지네에게 중이 잡아먹혀 결국 그 절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빈대절터>가 된다. 넷째는 용사설화에는 용, 구렁이, 지네 등의 신격이 인간을 희생물로 요구하는 예가 많거니와, 그 희생 대상은 처녀, 청년, 노인뿐만 아니라 점차 원님이나 중으로 확대된다. 그것은 용사신격의 ‘악행’이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빈대절터>에서 ‘지네가 중을 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용사신격의 인간 희생’이라는 일반적인 용사설화의 주제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의의 이 설화는 단순히 폐사유래담 혹은 지명유래담의 차원을 넘어선다. 빈대는 단지 생물학적 흡혈곤충인 빈대로 보기 어렵고, 이야기 속에 드러난 지네와 여인 및 지네와 중의 상관성에 비추어 볼 때, 용사설화의 전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1, 607; 6-8, 261; 8-4, 645,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박종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용사설화의 측면에서 본 빈대절터설화(이지영, 구비문학연구1, 한국구비문화회, 1994).

필자 이지영(李志映)

전설

뼈꾸기

정의 모진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떡국을 끓이다가 실수하여 죽은 후 넋이 떡국새(뼈꾸기)가 되어 “떡국떡국” 하고 운다는 내력을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모진 시집살이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명으로 떡국 한 솥을 끓여 놓고 빨래하러 갔다 오니 개가 떡국을 다 먹어 버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개가 먹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맞아 죽었다. 며느리의 넋이 떡국새가 되어 “떡국떡국” 하고 울다가, 날아갈 때는 “개개개” 하고 날아간다. 개가 먹었다

는 소리다. “뼈꾸뼈꾸” 하고 우는 뼈꾸기는 날아갈 때 꼭 “개개개개-” 하면서 날아간다. 또 다른 이야기로, 시어머니가 떡조각 수를 헤아리고는 며느리에게 떡국을 끓여오라고 시켰는데, 원래 준 떡조각 수보다 하나 모자랐다. 그 한 조각을 먹었다고 타박 받아 며느리가 죽었다. 나중에 보니 떡 한 조각이 솥 앞에 붙어 있었다. 죽은 며느리의 영혼이 “떡국떡국” 하며 우는 뼈꾸기가 되었다. 떡국을 끓일 때 함께 넣는 가무락조개는 늦은 봄이 되면 뼈꾸기가 울 때 조개 위에 구멍이 뚫린다.

분석 이 설화는 사람이 죽어서 새(鳥)로 환생한 설화 유형에 속한다. 새가 환생한 설화에는 뼈꾸기 외에도 접동새 혹은 소쩍새, 파랑새, 갈매기, 까마귀, 닭 등이 있다. 이 설화를 대부분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서 그 원혼이 새로 환생한 경우이다. <뼈꾸기설화>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가 죽어 서라도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떡국떡국, 개개개” 하고 소리를 내는 뼈꾸기로 환생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한다. 이처럼 ‘새로 환생한 설화 유형은 살아있을 때의 바람이나 억울하게 죽은 원한을 사후에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의의 뼈꾸기는 우리나라 전역에 찾아와 번식하는 비교적 흔한 여름새이다. 개활지, 농촌의 야산, 농경지 주변의 산지·잡목림 등 도처에서 눈에 띄며, 단독생활을 한다. “뼈꾸뼈꾸” 하고 우는 것은 수컷이고 암컷은 “뼈뼈뼈” 하는 소리를 낸다. 뼈꾸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5월에서 8월까지 시기는 춘궁기의 빈한한 보릿고개와 겹친다. 배고픈 봄날과 고달픈 시집살이가 겹쳐져 “뼈꾸뼈꾸” 우는 소리는 배고픈 이에게는 “떡국떡국”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늦은 봄날, 배고프고 힘든 보릿고개의 상황은 고달픈 시집살이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늦은 봄, 뼈꾸뼈꾸 우는 뼈꾸기의 소리는 떡국 끓이다 억울하게 죽은 며느리의 원혼이 떡국새가 되어 “떡국떡국” 하고 울었다는 설화로 전승되었던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754; 3-3, 542, **참고문헌** 새(鳥)의 문화기호 읽기(천진기, 새가 날아든다, 경기지역대학박물관협의회, 2008), 새 설화 연구(강신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운명을 읽는 코드 열두 동물(천진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지역상징동물연구(천진기, 우리문화연구32, 우리문화회, 2011),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천진기(千鎭基)

민담

뼈악뼈악꼬꼬

정의 단칸방에서 사는 자식 많은 부부가 원만한 성생활을 위해서 신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자식들에게 들킨다는 민담.

줄거리 단칸방에 사는 부부에게 자식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부부는 자식들을 가운데 두고 잤기 때문에 원만한 성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이 “뼈악뼈악” 하면서 왼편으로 돌면 부인이 “꼬꼬” 하고 답을 하며 오른편으로 돌아 와 같이 자자고 약속을 하였다. 하루는 신호를 보내면서 도는데, 남편이 실수로 막내를 밟았다. 그래서 막내가 울자, 형이 울지 말라고 야단을 치면서 자기도 부모님이 열두 마리째 들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한다.

변이 ‘뼈악뼈악꼬꼬’는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부부간의 암호인데, 이런 암호가 없이 그냥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찾아서 방 안을 뱅뱅 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것은 제보자가 암호에 대한 관심보다는 희화된 모습을 강조해서 표현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부부간 동의로 암호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분석 ‘뼈악뼈악꼬꼬’는 병아리와 닭의 울음소리로, 이런 신호는 새벽녘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아이들이 자는 시간을 택해서 자신들의 성생활을 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유형군은 부모의 성행위를 엿보는 자식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많이 채록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당대 민중의 궁핍한 생활과 동시에 성적 궁핍함을 잘 보여 준다.

특징 이 이야기는 <술 한잔 주게>와 함께 성관계를 하기 위한 부부간의 암호를 주제로 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술 한잔 주게>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성적 욕구가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만, <뼈악뼈악꼬꼬>는 모두가 잠을 자는 밤에 성적 결합을 시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민담은 당대 민중들이 단칸방에서 자식과 어울려 잠을 자야 했다는 현실적인 궁핍함을 잘 표현한다. 이런 궁핍함 속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자 암호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아이들에게 들려 그런 모습이 희화되어 나타나기에 궁핍함보다는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笑話)로서 기능이 더 강조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6, 490; 6-12, 308, **참고문헌** 민중들이 바라본 성 문화(이종철·김종대, 민속원, 1999), **필자** 김종대(金宗大)

전설

뼈악뼈악꼬꼬

사귀가 된 엽전
 사기담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사만이본풀이
 사명당
 사복
 사자바위
 사자생존지지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사찰·탑상전설
 산·봉·영전설
 산방산
 산삼과 이시미
 산상왕
 산합일구 강도이주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삼각산
 삼공본풀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년고개
 삼대 후레이들 놀
 삼두구미본풀이
 삼부연폭포
 삼성신화
 삼승할망본풀이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삼죽구
 삼죽오
 삼척해신당신화
 삼천갑자동방삭
 삼태성
 삼학도
 삼화
 상가승무노인탄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상객의 망신
 상사바위
 상사뱀
 상사여귀
 상원사
 새끼 뱀 쥐와 용한 점쟁이
 새끼 서 발
 새빨간 거짓말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새털옷 신랑
 생불할망본풀이

서경덕
 서고청
 서귀포본향당본풀이
 서기
 서동
 서산대사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서화담
 석탈해신화
 선녀와 나무꾼
 선녀홍대
 선덕여왕
 선도산성모
 선운사
 설문대할망
 설씨녀
 설화
 섬진강두꺼비
 성·다리전설
 성기 큰 남녀
 성덕대왕신종
 성삼문
 성조무가
 성질 급한 사위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세 여인의 소원
 세검정
 세경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세화본향당본풀이
 생긱무가
 소 바꿔 탄 사돈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사람의 복수
 소가 된 상좌
 소박맞은 세 자매
 소백산
 소화
 속 깊은 어린 신랑
 속리산
 속어면순
 손 없는 색시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손님긱무가
 손들목
 손순매아
 송광사
 송당본향당본풀이
 송동지영감본풀이
 송시열
 송익필
 송정장군당신화
 수로부인
 수부지모
 수성당신화
 수수께끼 풀 아이
 수이전
 수증명당
 숙영랑앵연랑신가
 순차구조
 술 귀신 유래
 스님 골러먹은 상좌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시골여자의 딸대담
 시골취서울취
 시루말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시무긱무가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시조신화
 시ړ스
 신들석
 신라건국신화
 신림
 신묘신화
 신목전설
 신물
 신방 지키는 유래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게모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다
 신중본풀이
 신통한 여덟 형제
 신화
 신화소
 심청긱무가
 심화요담
 쌀 나오는 바위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쌀 노적 돌 노적
 쌍계사
 쌍녀분



: 시웃

사귀가 된 엽전

정의 땅속에 오래 묻어 둔 엽전이나 금덩이가 사귀(邪鬼)가 되어 부잣집을 몰락시키자 지나가던 대담한 나그네가 사귀를 물리치고 부잣집 딸을 구제한다는 신이담 성격의 설화.

줄거리 나그네가 산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폐허가 된 기와 집을 찾으니 처녀가 혼자 있었다.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자, 처녀는 밤마다 귀신들이 나타나 가족들을 하나씩 죽였고 오늘 밤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 말하며 돌아가라고 한다. 나그네는 처녀의 사정을 듣고 자신이 귀신을 물리쳤다고 한다. 한밤중이 되자 귀신 무리가 나타나 처녀를 위협하였다. 나그네가 절구를 던져 귀신들을 차례로 쓰러뜨리니 귀신들이 도망가면서, 자신들은 부잣집에서 몇 대째 묻어 둔 엽전 독에 갇혀 엽전 사귀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나그네에게 엽전 독을 파내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청하였다. 날이 밝자 나그네는 쓰러진 처녀를 깨워 땅속에 묻혀 있던 엽전 독을 파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다. 처녀는 나머지 돈을 나그네에게 전하며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하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산다.

변이 오랫동안 땅에 묻혀서 사귀가 되는 존재는 엽전이나 금덩이로 설정되어 있다. 사귀를 물리치는 주인공도 과거를 보러 가는 나그네, 뱃사공, 부잣집의 하인 또는 구체적 인명인 장병사 등으로 변이하고 있으나, 대체로 담력이 센 용감한 사나이로 설정된다. 사귀들의 해코지는 부잣집 가족들을 차례

로 죽이는 예가 일반적이지만, 부잣집 딸의 대례 때 신랑을 송곳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산딸기를 따 먹으면 죽게 하겠다고 모의하는 내용으로 변이를 보인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사건을 해결한 후 나그네가 처녀를 수용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신립장군설화>에 삽입된 원귀설화로 확대 변이하기도 한다.

분석 엽전이나 금덩어리가 오랜 시간 땅에 묻혀 사귀가 되었다는 의미는 화폐 경제에서 유통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돈을 땅에 묻어 두어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병폐를 막으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된 이야기로 보인다. 또 이 설화에는 부의 분배를 권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 나그네가 사귀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사귀들은 자신들을 파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간청하고 있다. 이는 곧 탐욕스러운 부자들에게 집중된 부를 수많은 백성에게 고루 나누는 것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방편이라고 제시하며 부의 고른 분배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의의 전국적 분포를 보이는 설화로, 경제와 유통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다. <석송> 이야기, <구복여행설화>, <처녀 원혼설화>와 결합하여 다양한 변이를 보이며 이야기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화폐나 재화의 유통을 막는 행위가 인간의 몰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부자들의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도 담긴 이야기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1-2, 376; 4-6: 601; 643, 671.

참고문헌 거부가 들려주는 돈의 철학(박명숙, 우리 고전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귀신설화연구(안병국, 규장각, 1996).

필자 김중근(金鍾濶)

의 꾀에 대한 이야기[第四 脫解王]일 것이다. 호공(瓠公)의 집터가 탐난 석탈해가 거기에 숯들과 숯을 묻어 두고는 관가에 가서 예전에 대장장이였던 자기 집안이 살았던 곳이고 땅을 파 보면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하여 땅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전형적인 사기담이다. 이후 사기담이 포함된 소화(笑話)가 실린 소화집이 여러 차례 출간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전의 소화 자료를 집성한 『고금소총(古今笑叢)』이 간행되었다. 이런 기록문학 전통과 병행하여 구비전승 사기담의 전통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내용 사기담은 그 정의와 분류에 있어서 여러 시각이 있다. 넓은 의미로 정의하면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사기의 목적까지 고려하여 더욱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꾀로 남을 속이는 이야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설화 분류에 있어서 사기담은 소화 중에 지략담(智略談)의 하위분류, 혹은 소화의 하위분류로 보기도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분류 체계로 보면 '속이고 속는 사연'에 해당되며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득을 얻으려는 사연'이라는 하위 범주에 속한다.

사기담이라는 범주는 다양한 이야기를 포함한다. 사기담의 소재가 되는 사기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다. 상전을 골리는 하인의 이야기 중에 상전이 밥이나 술을 사오라고 할 때에 하인이 거기에 이나 코를 빠뜨렸다고 하여 음식을 차지하는 단순한 사기도 있는 한편,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퍼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나누어 주었다가 그 다음 날 다시 걸으면서 마치 대동강의 물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양 부자를 속이는 정교한 사기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성공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 사기꾼은 사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아무나 사기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도 아무 사기에나 넘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꾀쟁이 하인은 주인이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음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말재주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김선달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돈을 주고받는 매매행위의 증거를 보여주는 했지만, 그래도 표적이 된 사람이 그것을 믿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게 하려면 말재주가 필수적이다. 셋째,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든 즉흥적으로 꾀를 내든 간에 상대방은 물론 상황과 환경을 순식간에 파악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태가 전개되도록 계산을 해야 한다. 일반인은 이런 기회를 놓쳐도 사기꾼은 머리를 빨리 굴려서 기회를 잡는다. 넷째,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능력을 지닌 자라면 악명이 높을 테니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상대방을 찾아야 사기를 치기가 더 수월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주로 자신의 마을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거나 마을에서도 외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김선달은 평양 사람이 아니라 서울이나 심지어 중국에서 온 외지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대동강 물을 판 것이다.

특징 사기담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설화유형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속종 대왕 같이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서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남을 속이는 이야기도 있다. 이때 후자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다른 지략담과 비교했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는 위기 모면담 등과는 달리 주인공이 걸으려는 아무리 약자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받지 않으며, 실제로 상대방보다 훨씬 우월한 인물로 묘사된다.

의의 사기담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다루는 이야기다. 사기를 치러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는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규칙과 규제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야기는 그 의의가 더욱 복잡하다.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남을 해치는 부정적인 인물이 사기의 표적인 경우에는 사회 규범 안에서가 아닌 사기 행위를 통해 악행을 정벌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질서의 파탄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회질서 안에서 상대방을 처벌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회질서를 무시하면서 행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회질서에 구속받지 않는 사기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善)이라는 것이 사회질서를 존중하면서 사는 태도와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권선을 포기하더라도 징악의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패한 관료와 같은 악당이 아닌 경우에는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된다. 이때는 주인공의 지혜나 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석탈해의 이야기에서 호공은 잘못된 것이 없었으나 석탈해의 사기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이는 탈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이든 설화 분류에서 볼 수 있듯이 사기담은 듣는 이에게 재미를 주는 이야기로 전체 내려오고 있다. 상대방이 속아도 마땅한 인물이라면 청자나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며, 상대방이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의 지략이 감탄의 대상이 된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2006), 조선조 문헌설화집요1(서대석, 집문당, 1991), 한국 설화의 유형(조희용, 일조각, 1996), 한·중 소화의 비교(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 설화의 분류 체계와 '속이고 속는 사연'(조동일, 구비문학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한국 소담의 연구(조희용, 어문학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필자 나수호(那秀昊)

사기담

詐欺譚

정의 주인공이 꾀를 이용하여 남을 속여서 주로 이득을 취하는 이야기.

역사 한국에서 사기담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록상 가장 오래된 사기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13세기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기록된 '석탈해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상호민담 김현감호

정의 부처의 법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압호랑이의 인간 남성
에 대한 사랑을 담은 설화.

역사 사람을 사랑한 가장 이른 시기의 호랑이 이야기는 『삼국
유사(三國遺事)』 김현감호(金現感虎) 조에서 확인된다. 그러
나 현재 구비전승되는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이야기가 〈김
현감호〉 이야기로부터 생성되었는지 아닌지는 단정하기 어
렵다. 현전 구비전승 이야기를 보면 〈김현감호〉 이야기의 유
형을 계승한 것과 김현과 부처의 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아 이와는 구별되는 이야기로 나뉜다.

줄거리 옛날 당진 신평에 사는 성 씨라는 사람이 장가를 가기
위해 열심히 탑을 돌았다. 탑을 돌던 어느 날 문득 앞서서 돌
고 있는 예쁜 아가씨를 발견했다. 탑돌이가 끝나자 그는 아
가씨에게 자신은 장가가기 위해 탑을 돈다고 하고 아가씨는
어떠한 이유로 탑을 도는지 물었다. 아가씨는 살생을 저질러
이를 참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가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하자 그녀는 문득 성 씨의 손을 잡고 숲으로 데리고 가 인연
을 맺었다. 그는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를 뒤따라
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를 골방에다 넣었다. 얼마 후 서너 명의 남자
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들어서자, 하늘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소리가 들
렸다. 그 소리를 듣고 아가씨가 하늘을 향해 자신이 죽을 테
니 오빠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오빠들이 떠난 뒤 그 남
자가 골방에서 나와 보니 아가씨의 자태가 아름답기 그지없
었다. 아가씨는 성 씨에게 자신은 인간이 아니니 자신을 사랑
하지 말라고 했다. 성 씨는 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했다. 아가씨는 마을로 내려가 호
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는 방이 붙으면 자신을 죽
여 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호랑이를 잡는 사람
에게 벼슬과 현상금을 주겠다는 방이 붙었다. 그것을 본 성씨
는 마을의 영감에게 찾아가 자신이 호랑이를 잡겠다고 했다.
성 씨가 창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가씨를 다시
만났다. 아가씨는 전에 만난 절 옆에 고인 물을 상쳐 난 사람
들에게 바르면 낫는다는 것을 알려 주고는 성 씨의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했다. 그러자 아름다운 아가씨는 큰 호랑이로 변
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다. 성 씨는 호랑이를 잡은 대가로 현상

금을 받고 큰 벼슬길에 올랐다. 이후 성 씨는 아가씨를 위해
망각산에 망각재 절을 지었다. 그 절은 현재 이름이 신흥사로
바뀌었다.

변이 현재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들을 보면 남성 호랑이가 여
성 인간을 사랑하는 예도 있고 그 반대인 예도 있다. 이들 이
야기를 결말 처리 방식에 따라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희극적 결말 처리를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호
랑이는 남성이며 여성 인간을 사랑하여 평생 부귀영화를 누
리며 함께 행복하게 산다. 둘째, 희비극적 결말 처리를 보여
주는 이야기로 김현감호 이야기의 계통이다. 여성 호랑이는
결말에서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고 영혼의 아름다운 가약을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호랑이는 남성과 여성 둘 다 등장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는 인간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이처럼 이 설화는 그
변이형이 다채롭다.

분석 이 설화에 관한 연구는 〈김현감호〉 이야기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 연구의 주된 관점은 한국 소설의 발생
문제에 놓여 있다. 다른 관점에 선 연구에서는 호랑이 처녀의
행위를 무한 영역으로 통하는 신화적 발상인 대칭적 사고로
보기도 하고, 더 큰 사회적·우주적 질서의 승리를 위한 성스
러운 이야기로 보기도 한다. 한편, 이 설화를 신성혼(神聖婚)
에서 인간혼(人間婚)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의 매개 논리로
보기도 한다.

특징 여성 호랑이가 남성을 사랑한 희비극적 결말 처리의 이
야기로 한정하여 보면, 여성 호랑이는 순수하게 인간 남성
에 대한 사랑과 부처의 법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즉, 부처의 가
르침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몸을 바침으로써 스스로 신성
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입증한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는 물론
자아실현이다. 자신을 희생하는 죽음은 차원 높은 신성으로
의 변화를 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을 통하여 스스로 신
성을 입증하는 호랑이 이야기는 다른 유형의 호랑이 이야기
들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의의 영적 존재로서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는 기이함과 낭만
성을 넘어 그 이상을 의미한다. 죽음을 통해 스스로 신성의
중심에 선 호랑이는 두려움과 매혹, 부드러움과 사나움, 온순
함과 거침을 함축하면서 무질서한 이중 세계를 조화로운 우
주로 변형하는 성스러운 힘을 상징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1, 177; 7-3, 588.

참고문헌 김현감호설화의 형성과정과 탈불교적 의미(정상진, 한국문화논총17,
한국문화학회, 1995), 김현감호의 환상적 주제(송호섭, 국어국문학95, 국어국문학
회, 1986),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설화의 전통과 사유체계(김기호, 민족문화논총
3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5), 호랑이처녀의 변신과 회생에 나타난 대칭
적 사고 고찰(김정은, 남도민속연구22, 남도민속학회, 2011), The Korean Tiger-
trickster and Servant of the Sacred(R. Canda, Korea Journal21, Korea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81)

필자 김기호(金基鎬)

신화

사만이본풀이

표제어 뱀김본풀이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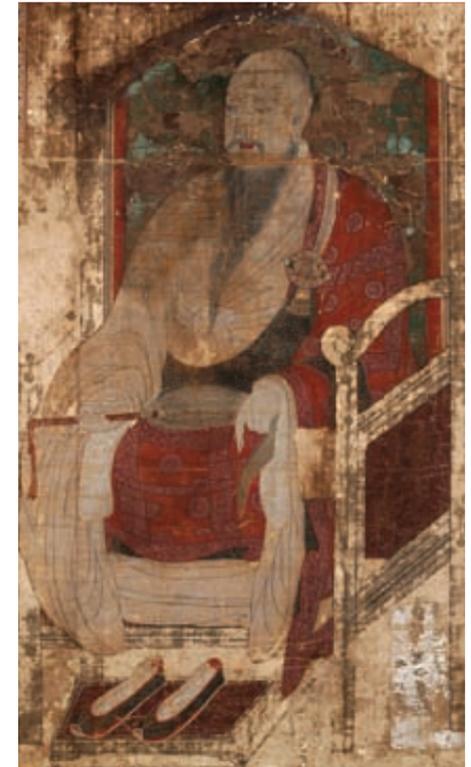
사명당

四溟堂

상호민담 서산대사, 묘향산

정의 임진왜란 때 의승군(義僧軍)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이후 수신사(修信使)로서 일본으로 건너
가 지혜와 도력(道力)으로 일본을 제압(制壓)한 사명당에 관
한 설화.

역사 사명당은 조선 선조 때 고승으로 속성은 임(任) 씨, 수
성(守城)의 아들로 1544년(중종 39) 10월 17일에 경상남도 밀
양군 무안면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응규(應奎)이고, 법명은
유정(惟政)이며, 법호는 송운(松雲) 또는 사명당(四溟堂)이
다. 7세 때부터 조부에게 유학 경전을 배우다가 직지사(直指
寺)로 들어가 신묵화상(信默和尚)의 강론을 듣고 선지(禪旨)
를 깨달았다. 1561년(명종 16)에 선과(禪科)에 급제하고, 당
시 학자 시인과 교류하였다. 1575년(선조 8)에 묘향산에 들어
가 서산대사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선수행(禪修行)의 정법을
배웠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의승병을 모집하여 서
산대사 휘하에서 승군부총섭(僧軍副總攝)으로 활약하였다.
1604년(선조 37) 8월 2일에 국서를 받들고 일본으로 가서 도
쿠가와(德川家康)를 만나 강화를 맺고, 이듬해 5월에 포로로
간 사람을 인솔하고 귀국하여 6월 초에 복명하였다. 1610년
(광해군 2) 8월 26일에 해인사 홍계암에서 입적하였다. 향년
67세에 법랍(法臘)은 54세였다. 이처럼 사명당의 출가과정,
의병활동, 일본에서의 활약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후 설화
화 되었다.



동화사 사명당 유정진영
대구시 동구 팔공산 동화사, 문화재청

줄거리 사명당이 출가하게 된 동기에 대한 두 유형의 설화가
널리 전승된다. 첫째 유형은 사명당이 젊은 시절에는 집안이
부유했다고 한다. 장가들이 아들을 낳고 아내가 죽어 후처를
얻은 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첫날밤에 아들의 머리가 잘리
는 참변을 당하였다. 이 일로 누명을 쓴 며느리는 누명을 벗
기 위해 방물장사로 변장하여 범인을 찾으러 나섰다. 그리고
3년 만에 사명당 집 노비로 살던 사람이 후처의 지시로 범행
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가(媿家)로 와 사명
당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하여 남편의 머리를 찾아내고 누명
을 벗는다. 사명당은 종 문서와 논발 문서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후처와 그 소생을 방에 가두고 불태워 죽인 뒤 출가한
다. 둘째 유형은 응규(사명당의 아명)가 조실부모하고 누이
채운(彩雲)과 함께 사는데, 13세 때 밀양 부사가 실시한 향시
(鄕試)에서 장원급제하였다. 응규는 황여현의 딸 현옥과 약
혼한 사이였는데, 부사의 딸인 동옥(아랑)이 그를 사모하여
식음을 전폐하자 응규가 찾아가 위로한다. 이때 동옥은 내일
동헌 뒷산 대밭가에서 만나자고 한다. 이를 엿들은 통인(通
引)이 대밭에서 응규를 기다리는 동옥을 검탈하려다 실패하
자 죽인 후 대밭 속에 시체를 버린다. 한편, 응규는 선친 시묘
살이를 하고 있는데, 한 중이 와서 자신의 염주 가운데 큰 구
슬과 불경(佛經) 두 권을 주면서 시묘살이가 끝나면 산문(山

門)으로 오라고 했다. 응규가 그 구슬을 지니고 불경을 읽으니 시묘살이가 싫어져 누이에게 글을 남기고 직지사로 향해 가다가 전불산 집에 들러 하루를 쉬다. 그리고 직지사로 가서 신목화상의 제자가 되고 ‘유정’이라는 법명을 얻는다. 그 뒤 유정은 선과에 장원급제한다. 누이와 현옥은 통도사에 가서 여승이 되고, 전불산의 딸 보배는 직지사로 찾아와 유정을 산문출송(山門出送, 승려들이 큰 죄를 지었을 경우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시킨다. 그 뒤 보배는 후회하고 신목화상에게 그 사실을 고백하고는 여승이 된다. 세 여승은 신목대사의 지시로 신월비구니를 따라 남해 섬에 있는 해상사호(海上四皓)에게 가서 전법을 배운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채운, 현옥, 보배는 각각 이순신, 권율, 홍의 장군의 아장(亞將)이 되어 전란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 첫째 설화는 작자 미상의 구할자본(임진왜란 사명당전)을 읽은 독자가 화자가 되어 유포한 것인데, ‘신랑 머리 찾기’ 또는 ‘신부의 누명 벗기’라는 화소는 많은 변형이 생긴다. 사명당이 점쟁이를 통해 머리가 감추어진 곳을 알게 되거나, 신부가 시가에 갇혀 있을 때 홀연히 나타난 호롱불의 인도로 신랑의 머리를 찾게 되기도 한다. 또는 신부가 첫날밤 속적삼을 잃고 소박당하여 산막을 지어 천제(天祭)를 지내는데, 한 무당이 속적삼을 찾아 주어 간부(姦夫)가 있다는 누명을 벗는 것도 있고, 임 진사가 집을 비운 사이에 후처가 전처 소생인 두 아들의 머리를 베어 엿항아리에 넣은 것을 임 진사가 찾아냈다는 변이형도 전승된다. 둘째 설화는 이종익(李鍾益)이 1957년에 쓴 역사소설 〈사명대사〉를 읽은 독자의 구술을 들은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어 구술한 것이다. 그 뒤 사명당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왕명을 받들어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간다. 일본인들이 사명당을 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묘책을 썼으나 결국 지혜와 도력으로 막아내고 왜왕에게 항서(降書)를 받아 귀국한다. 이에 관한 설화들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사이 작자 미상 영웅계 역사소설(임진록)의 〈사명당〉에 나오는 단편들이 현재 구전하는 것이다.

단편적 설화는 360간 병풍에 쓴 한시를 말을 타고 달려가며 차레대로 외웠는지 시험하기, 철화방(鐵火房)에 갇혀 타 죽게 되었지만 도술로 이겨 내기, 채단방석과 백목방석을 내어 어느 방석에 앉는가 시험하기, 물 위에 띄운 쇠방석을 타고서 사해 용왕의 도움을 청하여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기, 독사가 들어 있는 물속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염주 한 알을 던져서 물 위에 유리가 깔렸음을 알고 들어가기, 철화마(鐵火馬)타기 등이 있다. 그중 철화마 타기 때 대사가 조선을 향해 사배(四拜)하고 비밀진언을 외니 갑자기 비가 쏟아져 일본이 표몰(漂沒)할 지경에 이른다. 왜왕이 그제야 사명당이 신불(神佛)이며 생불(生佛)임을 알고 항서를 써 바치니, 대사가

10년간 매년 처녀 인피 300장과 남아의 고환 서 말씩 바치라 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 외에 나라에 큰일이 닥치려고 하면 사명대사비(碑)에서 땀이 흘러내린다는 전설과 사명당이 꽃아 둔 지팡이가 살아 현재 고목(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삼부사, 부석면 부석사, 상주군 공성면 도로가의 고목)으로 서 있다는 전설 등이 전한다.

특징 〈사명당설화〉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더해져 조선 후기에 설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명당설화〉중 일본에서 행한 도덕에 관한 내용은 대단히 허구적이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전란과 경술국치라는 민족적 치욕으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패배에 대한 심리적 보상 욕구로 임진왜란 때 사명당의 업적 일부를 허구로 설화화하고, 민중의 영웅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출처 壬辰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962; 1-8, 448; 4-6, 513; 7-1, 587; 8-14, 523.

참고문헌 奮忠紆難錄, 旬五志, 於于野談, 芝峰類說, 사명대사(이종익, 통문관, 1957), 사명대사와 호국불교의 이념(사명대사연구는총간행회, 2000),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임진록(이경선 주해, 정음사, 1962).

필자 김승찬(金承燦)

전설

사복

虵福

정의 고승 사복이 모친의 시신을 업고 지하의 연화장 세계로 들어갔다는 설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3 「홍법」 동경홍륜사벽화 금당십성 조에 보면, 신라 십성(十聖) 중 하나로 사파(虵巴)의 소상(塑像)이 서라벌 홍륜사의 금당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23 남행월일기에도 부안의 원효방(元曉房) 옆 암자에 거하며 사포(虵包)가 원효에게 차를 끊여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

줄거리 서라벌에 사는 한 과부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는데 열두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여 ‘사동’ 또는 ‘사복’이라고 불렸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죽자 사복은 고선사(高仙寺)의 원효(元曉)에게 가서 “전생에 경전을 실던 소가 죽었다.”라면서 함께 장례 치르기를 요청했다. 원효가 ‘생과 사가 괴롭다.’라는 내용의 축문을 짓고 함께 활리산(活

里山)으로 갔다. 사복이 ‘연화장(蓮花藏)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게(偈)를 짓고 나서 띠풀을 뽑으니 그 밑에 장엄한 세계가 열렸다. 시신을 짊어진 채 그 안으로 들어가자 땅이 도로 단혔다. 후에 서라벌의 금강산 동남쪽에 도량사(道場寺)라는 절이 세워졌다.

분석 신라에서 10성 중 한 명으로 추앙되었던 사복의 기이한 행적이 담겨 있다. 원효보다 우위에 선 태도를 보이고 모친의 시신을 업고 연화장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연화장 세계를 염원하는 면에서 화엄사상이 바탕이 되었고, 모친이 전생에 소였다고 한 점에서 윤회전생사상도 나타난다. 띠풀을 뽑은 곳에 연화장 세계가 열렸다는 데에서 우주수(宇宙樹)의 관념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에서 모태 회귀의 신화적 사유가 투영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특징 땅속에 이상 세계가 있다는 생각은 다른 여러 설화에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불교의 연화장 세계와 결부된 점이 특징이다. 원효가 짓고 사복이 수정한 축문에 생과 사의 주제가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상적 깊이를 지닌다.

의의 이 설화는 사복에 대한 인물전설이자 도량사 연기설화이기도 하다. 연화장 세계를 염원하는 신앙이 신라 중기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행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고승 사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설화 자료이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불교설화에서 본 송고와 비속(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사복설화 시론(황패강, 한국서사문학연구, 단국대학교출판부, 1972), 사복설화의 불교적 의미(김상현, 사학지16, 단국사학회, 1982), 신라십성조(김영태, 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필자 신재홍(申載弘)

전설

사자바위

정의 전국에 산재하는 사자 모양의 바위에 관한 전설.

역사 바위 생김새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실제 역사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는 사자바위 관련 설화는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해안에 있는 〈사자바위전설〉이 유일하다. 울릉도 〈사자바위전설〉은 6세기를 전후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 신라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에 걸쳐 있던 해상제

국인 우산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줄거리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사자바위는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자와의 외형적 유사성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금강산 만폭동, 선운산, 신진도, 나로도 등의 사자바위 유래 전설이 그러하다.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에 위치한 백월산의 〈사자바위전설〉은 그중에서도 특이하다. 옛날 중국 당나라 황제가 궁중 연못에 사자 모양의 산봉우리가 비치는 것을 보고 천하를 수소문케 하였더니 창원의 백월산 정상에 사자 모양의 바위 세 개가 있어서 사자바위란 이름을 하사했다는 것이다. 울릉도 〈사자바위전설〉은 바위의 모양이 사자 형상이라서 사자바위로 불린다는 이야기와, 화산 폭발로 번개가 생길 것이라는 노인의 현몽으로 모든 동물들이 피난가지만 사자만 남아 고향 섬을 지키려다 결국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지금의 사자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리고 우산국 멸망시에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해왕의 강력한 해군을 궤멸시키기 위해 사자 모양의 목상을 만들어서 불을 뿜게 하여 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산국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함대를 전몰시켰으며, 그때의 사자 목상이 바위로 변해 사자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존재한다.

분석 울릉도 〈사자바위전설〉은 토착 전통문화를 유지한 우산국과 달리, 6세기를 전후한 즈음에 이미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과학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인 신라가 기술적 우위와 앞선 문화를 무기로 우산국을 점령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6세기까지 동해상에서 강력한 국력을 유지한 우산국이 멸망한 데에는, 오늘날의 첨단무기에 해당하는 불화살을 내뿜는 사자상과 같은 새로운 군사기술의 미비, 풍미녀의 사치로 상징되는 대마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 도서 국가의 이반, 사자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 조류에 대해 공포감을 가질 정도로 묘사된 문화적인 폐쇄성 등이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징 울릉도 〈사자바위전설〉 형성기인 6세기에 이르러 삼국 통일을 위한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신라에게 울릉도·독도 연근해 해상권을 빼앗긴 우산국은 신라의 속국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국가 멸망의 과정을 사자바위의 유래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야기로 풀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울릉군지(울릉군, 1988), 울릉도의 전설·민요(여영택, 정음사, 1979).

참고문헌 독도 광포전설의 존재양상과 그 지역적 정체성(권도경, 선도문화4, 국학연구원, 2008), 독도 지역전설을 통해 본 독도의 문화적 정체성(권도경, 인문논총59,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8), 우산국 우해왕전설의 스토리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여세주, 한민족어문학56, 한민족어문학회, 2010).

필자 권도경(權都京)

사자생손지

死者生孫之地

정의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여성과 인연을 맺어 대를 잇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17세기 이후 혼인, 가족 제도에서는 부계 혈연 의식이 더욱 강화되었다. 혼인의 목적은 아들을 출산하여 가계를 잇는 데 있었으며, 제사와 재산 상속도 적장자 우대가 관례화되어 갔다. 이 설화는 그러한 시대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작품이다. <고목생화(枯木生花)>라는 명칭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이러한 비유적인 명명보다는 작품 내용을 직접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자생손지(死者生孫之地)>가 적절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30편의 각편 중에도 ‘사자생손’ 또는 ‘사자생손지’라 이름 붙여진 것들이 ‘고목생화’라 이름 붙여진 것보다 많다.

줄거리 어떤 집의 외동아들이 죽자 아버지가 그 시신을 묻지도 않고 집에 두는데, 이를 본 도승이나 지관이 사자생손 명당을 잡아 준다. 그 명당이란 곳은 대로변, 길 복판, 세 갈래 길, 주막, 정자나무 밑 등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거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매장한 후 그 지역에 부임하는 사또 일행이 우연히 그곳에서 쉬게 된다. 사또의 딸은 밤중에 달구경을 하거나 소변을 보다가 한 총각을 만나 신이한 일을 겪고 칼 등을 징표로 받는다. 그 후 딸은 임신을 하게 된다. 사또는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집안 망신이라며 딸을 죽이려 하다가 당시 있었던 일과 칼 등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딸의 얘기를 듣고 일단 칼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 사이 아이가 태어난다. 사또는 잔치를 베풀어 칼 주인을 찾으려 한다. 결국 칼 주인인 아이의 할아버지를 찾게 되고, 할아버지는 손주와 상봉한다.

변이 외동아들이 죽자 그냥 집에 두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각편에 따라 죽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건포로 만들어 매질하는 엽기적인 경우도 있다. 죽은 아들과 관계를 맺는 여성은 대부분 고을 사또로 부임하는 이의 딸이나 정승의 딸로 설정된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정승이 되거나 큰 인물이 되기도 한다. 어떤 각편은 현풍 광씨, 평산 신씨, 해주 오씨, 회덕 송씨 등 특정 가문의 신화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이 설화에서 여성들의 입장은 배제될 수밖에 없지만, 몇몇 각편에서는 여성이 사자생손지지를 점지해 준 중의

가슴을 찌르거나 그를 나무에다 묶어 복수를 하기도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그 여성이 죽은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는 변이도 발견된다. 이러한 변이에는 부계 혈연 이념의 폭력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이 설화의 문제적 상황은 외동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가계 단절이다. 몇 대에 걸친 독자이기에 대부분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그려진다. 사자생손 명당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는 비법으로 지관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 설화는, 문제적 상황은 현실적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신이함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 단절이라는 사건은 현실에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이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설정은 현실적 불가능성을 뛰어넘으려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이면에는 부계 직계 혈연에 의한 가계 계승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설화 뒷부분에는 손자임이 확인된 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는 장면이 제시되는데, 이는 그러한 욕망이 추구하는 가장 소망스러운 장면일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부계 혈연에 대한 강한 집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징 이 설화에는 후손을 중요시하는 한국인의 행복관이 담겨 있다. 모든 이들은 반드시 후손이 받드는 제사를 통해 조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설화에서 미혼(未婚)인 상태로 죽은 아들은 결과적으로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은 셈이므로 자신의 불효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아버지는 불행한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 이 설화에는 현실의 복을 위해 풍수에 기대고자 하는 의식도 담겨 있다. 현실의 문제를 초현실적 힘에 의존해서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설정 뒤에는 강한 현실중심적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의의 이 설화는 부계 직계 혈연을 중요시하는 혼인, 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설화이다. 설화 속에 나타난 직계 혈연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아들에게 매를 가하는 일을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자의 행위라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러한 일에 끌려든 여성의 삶은 어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남게 된다. 설화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 주는 집착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의식이 문제적인 것임을 반증한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표면적으로는 직계 혈연이 초월적 힘의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부계 직계 혈연에 대한 집착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작품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32; 2-4, 733; 3-1, 237; 4-3, 609; 5-3, 132; 7-1, 437; 8-4, 673.

참고문헌 고목생화설화의 성격(최래옥, 관악어문연구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7),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계승과 혈연의식(이인경, 고전문학연구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족 재생산과 혈연 문제(정충권,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필자 정충권(鄭忠權)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정의 사회 신분과 무관하게 인간의 삶이 가지는 가치의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설화.

줄거리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이 수많은 백성을 거느리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임금은 다른 사람 중에서도 자기처럼 팔자가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명을 내려 자신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다가 강원도 어느 아주 깊은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에게 태어난 날과 시를 물어보니 마침 임금의 사주팔자와 같아 노인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노인과 대면한 임금은 한 날한시에 같은 정기를 타고 태어났는데, 자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 팔도 감사까지 두고 있는데, 노인은 왜 그렇지 못하냐고 물었다. 이에 노인은 자신도 아들 팔 형제를 두고 있으며, 그 자식들이 치는 별통이 수천 개나 되고 또 별통에 사는 벌이 나라의 백성 수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응수하였다.

변이 서사 전개 상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진 이 설화를 기본형으로 삼으면, 여기서 확장된 두 가지의 변이가 나타난다. 첫째는 임금과 노인의 대결 구도를 강화한 것이다. 위의 줄거리에

사찰·탑상전설

寺刹·塔像傳説

정의 사찰연기설화라고도 부르며, 절·탑·불상 등의 불교적

이어, 노인의 대답을 쾌쩍하게 여긴 임금이 노인에게 열쇠 하나를 주고, 뱃사공을 사주하여 그 열쇠를 한강에 빠뜨리게 한다. 근심에 쌓인 노인이 기력을 잃자 머느리가 약으로 먹일 요량으로 구입한 잉어에서 열쇠가 나오는 내용이다. 둘째는 임금과 노인의 화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기에서 임금은 자신과 사주팔자가 같은 노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데, 노인에게 감사와 별꼴을 대접받고 친구가 된다. 그리고 해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평생을 친구로 잘 지낸다는 내용이다.

분석 이 설화는 임금에 비해 결코 부족함이 없는 노인의 삶을 부각하여, 민중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인식과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간의 삶이 가지는 동질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실존인물을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짐으로써 다양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즉 시대 상황에 따라 최고 통치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임금과 대결 구도를 중시하는 첫째 변이형에서는 태조 이성계를 임금으로 내세워 그에 대한 민중들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반면 둘째 변이형에서는 평소 민중들의 삶을 돌리보기를 좋아했던 숙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의의 이 설화는 최고 통치자와 최하층 민중의 대결 구도를 기본 구조로 설정하고, 그 속에서 민중의 승리를 주된 틀로 잡고 있다. 이는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정신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저항 의식을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중들은 이 설화를 통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이며, 동시에 자신들을 억압하는 지배층을 포용하고자 하는 여유로운 마음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5, 606; 7-6, 503.

참고문헌 민담학개론(김열규, 일조각, 1982), 한국 운명설화 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필자 오세길(吳世吉)

인 공간이 지어진 신이한 내력을 기술하는 설화의 한 종류.

역사 사찰연기설화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대표적 광포설화 중 한 종류이며, 불교가 전래된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배경으로 기술되어 시기상으로도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13세기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가장 많은 수의 사찰·탑상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등장

하는 다수의 불교 설화들이 사찰·탑상전설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만큼 대표적인 불교 설화의 유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문헌에 전승되는 사찰연기설화 대부분이 구비전승 텍스트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문헌설화가 다수를 차지한다. 『삼국유사』에 가장 세련되고 정교한 형태의 사찰·탑상전설들이 실려 있으며, 13세기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문집뿐 아니라 지리서들에서도 사찰·탑상전설로 분류할 만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8세기의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을 통해서도 사찰과 탑상에 관련된 전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사찰 자료집인 『범우고(梵宇攷)』와 『가람고(伽藍考)』 등에도 사찰에 대한 간략한 기록들이 있다. 1964년에 간행된 『한국사찰전서』는 사찰·탑상전설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문헌이다.

내용 사찰·탑상전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 장소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전설로 분류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교적 신비, 영이의 체험 등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주제가 자주 등장한다. 사찰, 탑상 등을 위시한 불교 건축물이 지어진 유래를 신이한 불교적 사건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사찰·탑상전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서사구조는, 신이한 불교적 사건을 만들어 내는 주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월적인 존재가 영험을 통해 신이한 사건을 드러내게 하는 유형, 일상적 존재의 바람과 기원이 신이한 사건의 바탕이 되는 유형, 고승대덕(高僧大德)의 존재 자체가 신이한 불교적 사건으로 인식되는 유형,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서 신이한 체험을 통해 사찰과 탑상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유래를 기술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찰·탑상전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 온 편으로, 문헌설화를 통해 관련 전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대부분의 연구도 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사찰·탑상전설이라는 용어의 범주를 확정하는 연구를 필두로, 사찰·탑상전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전설로서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를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인 상징물에 관련된 설화이므로, 불교적 신이가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여 불교문화적 환상성의 차원에서 다루기도 한다. 이 계열의 설화들이 소설로 이행하고 있는 양상을 다루는 연구들의 경우는 종교적 환상성이라는 주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사찰·탑상전설은 상대적으로 정교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범주적 접근뿐 아니라, 개별 텍스트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삼국유사』에 실린 사찰·탑상전설이 비교적 설화로서 완성도가 우수하며 분량도 긴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찰·탑상전설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서사적 특질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연구가 더욱 다각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찰·탑상전설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기술 방식에 주목하거나, 이야기로 기술된 공간에 각인된 문화적 기억에 주목하거나, 문헌설화에 드러난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작업 등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삼국유사』의 사찰·탑상전설뿐 아니라 다른 문헌설화 자료들로 그 관심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특징 사찰·탑상전설은 특정한 주체에 의해 영험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신성한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서사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 공간과 환상적 체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공존하는 셈이다. 설화 속에서는 절, 탑, 불상 등이 지어진 내력을 기술하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나 지명, 명칭들이 기술된다. 따라서 가장 실제적이고 구상적인 속성을 가진 설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설화가 기술된 내력은 불교적 영험과 같은 환상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실제하는 공간의 내력을 환상적이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설화가 갖는 극단적인 두 가지 상반되는 성격, 즉 역사성과 환상성이 동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의의 사찰과 탑상과 같은 종교적 건축물에 관한 전설은 통일신라 이후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아우르며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사찰·탑상전설을 통해 개별 시대적, 사회적, 혹은 문화적 맥락을 추출해 내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사찰·탑상전설은 설화의 역사성과 환상성, 두 가지 모순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찰·탑상전설에 등장하는 공간적 지표들은 종교적인 뫼트스와 역사적 로고스가 겹치는 지점으로 기능한다. 종교적인 믿음이 생성되는 공간인 동시에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신화적인 접근과 역사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설화에 대한 연구는 문학 연구를 확장하여 통섭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특히 공간에 대한 설화라는 점에서 공간이 갖는 여러 조형성과 관련한 미학적이거나 기호학적 연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참고문헌 불교문화의 환상성과 사찰연기설화(오대혁, 불교어문논집9, 한국불교어문학회, 2004), 사찰연기설화의 신성성 구성 체계 연구(황인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신라 불교설화 연구(황매강, 일지사, 1975), 초월의 기호학-뫼트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송효섭, 소나무, 2002), 한국 사찰연기설화의 연구

(김승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5),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이도흠,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산·봉·영전설

山·峰·嶺傳説

정의 산이나 산봉우리, 그리고 산에 있는 고갯길에 얽힌 전설.

역사 우리나라는 산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산, 산봉우리, 그리고 산에 난 고갯길 등은 삶에 매우 익숙한 자연환경이다. 산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줄뿐만 아니라, 산신이 머무는 신령스러운 곳으로 믿어지기도 했고, 또한 피난을 하는 은신처이기도 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이름 있는 산들은 나름대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산봉우리 역시 신화와 전설의 배경이 된다. 특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풍수지리를 믿어 온 까닭에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을 고르는 데도 산세를 보았으며, 배산임수를 가장 좋은 삶의 터로 삼았다. 산길을 의미하기도 하는 고개(嶺)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애환의 갈림길로 표현되는 예가 많다.

내용 산 자체에 대한 전설도 많지만, 산이나 산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전설도 대단히 많다. 이미 <단군신화>에 태백산이 등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산을 신령스러운 것으로 믿어 왔으며, 따라서 산신령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백두산과 한라산 외에도 묘향산, 계룡산, 마니산, 지리산, 태백산, 설악산, 금강산, 무등산, 팔공산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산들에 대한 수많은 전설이 전하고 있으며, 또한 크고 작은 주변의 산들에 대한 지역전설도 역시 많다. 개벽형 모티프를 가진 설화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것이지만, 걸어가는 섬과 같이 어디로 걸어가다가 멈춰 버린 산에 대한 전설이 전국적으로 전한다. 지맥에 상관없이 홀로 동그마니 서 있는 산에 대한 민간지식의 일종일 것이다. 또한 산은 그 밑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심성을 대표하기도 한다.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후에 개국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래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을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가, 무등

산에게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고도 하는 전설들은 의향 호남의 집단적 심성을 산의 전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예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산신령의 도움으로 개국을 하거나 큰 위업을 달성한 장군에 대한 전설들도 많다.

<김수로왕신화>에 처음으로 산봉우리인 구지봉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산의 형태와 정기를 묶어서 필봉(筆峰)이나 촛대봉이 있는 마을에서는 글공부를 열심히 하여 큰 선비가 난다는 전설이 많다. 전국적으로 국사봉이나 옥녀봉 등의 이름을 가진 산봉우리도 많다. 국사봉은 전설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국가를 생각한다는 뜻의 ‘국사(國思)’, 나라에서 제사를 모신 곳이라는 뜻에서 ‘국사(國祀)’, 나라의 큰 스님을 의미하는 ‘국사(國師)’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시봉, 국수봉, 구수봉 등 방언화한 명칭도 많다. 옥녀봉은 대개 옥황상제의 딸인 옥녀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와 살던 곳이라는 내용의 전설이 함께 전하면서 음기가 성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옥녀봉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며, 옥녀탄금(玉女彈琴)이나 옥녀단좌(玉女端坐) 등 지명도 많은데, 이들은 모두 명당으로 간주된다. <옥녀봉전설>의 경우,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 내용인 경우가 다수인데 주로 옥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결국 인륜을 지킨다는 내용이 많다.

고갯마루에 대한 전설은 대단히 다양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밀도가 아주 높다. <달래강전설>의 아류로서 <달래고개전설>이 전국적으로 많다. 남매가 고갯길을 넘다가 소나기를 만나자 비에 젖은 여체를 보고 음욕이 생긴 오빠나 남동생이 결국 죄책감을 못이겨 자신의 음경을 찍어서 죽고 만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또 ‘피재’라는 이름도 많이 전하는데, 나쁜 용이나 이무기를 죽이자 피를 흘렸다는 장소로서 국면의 전환을 설명한다. 전라남도 장성 갈개의 주막집 처녀 갈애의 처연한 사랑을 담은 <갈재전설>이나 과거 보러 가는 선비 박달과 산에 사는 처녀 금봉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박달재전설>은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시재(詩材)가 되기도 했다. <대관령전설>처럼 강릉단오제의 배경 설화가 된 이야기도 있다. 순탄하지 못한 인생이나 세월을 고개에 비유하곤 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에서 고개는 흔히 비극적이거나 피해를 입는 장소로 전설 속에서 전한다.

의의 산에는 봉우리(峰)도 있고 고개도 있다. 봉우리는 솟아 있고, 고갯길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유명하고 높은 산은 물론이고 마을 주변의 산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지명전설들이 전해지고 있다. 산은 신령한 곳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신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선악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산신령이 등장하는 전설들도 많다. 산은 또한 개간되지 않은 자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날 법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전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풍수지리의 힘을 입어 개인이나 문중의 출세담으로 전하기도 하며, 또 산세나 산형과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집단적 심성을 표상하는 예들도 많다.

산과 더불어 산봉우리에 대한 전설 역시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국사봉과 옥녀봉 등이 가장 흔하다. <국사봉전설>은 대개 국가의 기강이나 운명 등에 해당하

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옥녀봉전설>의 경우는 근친상간의 비극적 전설이 주류를 이룬다. 옥녀는 옥녀로도 발음이 되는 것이어서 특히 성애담의 배경으로 <옥녀봉전설>이 전하는 예가 많다.

고갯길은 아리랑에 반영되어 있듯 그 정서가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개 고개와 관련된 전설은 비극적 결말을 보이는 예들이 많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나 전쟁에서의 패배, 또 산적을 만나 크게 피해를 입는 등의 전설이 주류를 이룬다.

참고문헌 무등산전설의 연구(나경수, 한국민속학41, 한국민속학회, 2005), 선도성모 서사의 형성과 그 의미(윤미란, 한국학연구1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설화 속에 나타난 호랑이와 여성(김명희, 동방학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996).

필자 나경수(羅景洙)

전설

산방산

山房山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에 관한 전설.

줄거리 고려 말엽 '고단'이라는 사람이 늘그막에 아들 귀동(貴童)이를 얻었다. 귀동이는 조실부모하고 산방산 주변에서 얻어먹으며 살았는데, 산방굴사 주지인 혜일(慧日)이 그를 거둬 공부를 시키고 법명을 방철(房哲)이라 하였다. 방철은 중국을 돌며 공부한 뒤 강원도 금강산에서 기도하다가 선녀로 변한 관세음보살에게서 생진주를 얻었다. 그리고 제주도 산방굴사에서 생진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다른 이야기로, 진시황이 제주도에 왕후지(王后之地)가 있음을 알고 고종달을 보내 그 맥을 끊도록 했다. 산방산에서 바다로 뻗어 내린 바위언덕이 바로 용의 형상임을 알고 고종달은 용의 등을 단칼에 베었다. 그러자 산방산 일대가 붉은 피로 물들고, 용의 슬픈 울음소리가 사계리를 뒤덮었다. 용의 죽음으로 그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지 않게 되었다.

변이 산방산은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무너져서 현재의 장소에 옮겨진 것이다. 북쪽 절벽에 있는 석굴 속에는 샘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고려 말 고승 혜일이 머물렀다고 한다. 산방산 위는 옥촉조천형(玉燭照天形)으로서 왕후지라 하여 사람들이 금장지(禁葬地)로 인식할 만큼 신성하게 생각한다.

분석 사슴을 사냥하던 사냥꾼이 활을 쏘려고 화살을 높이 던 순간 옥황상제의 영당을 건드렸고,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의 봉우리를 뽑아 서쪽으로 던진 것이 지금의 산방산이 되었다는 것으로 <백록담전설>과 내용을 공유한다. 이는 산방산을 신성시한 결과이며, 풍수지리적으로는 산방산에 묘를 쓰면 재앙이 닥친다는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식까지 담고 있다.

특징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제주목사의 위협으로부터 사



산방산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국관광공사

하는 보상을 해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 설화에서 이시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 위기에 빠진 나무꾼을 구해 주는 것은 나무꾼이 단지 착한 심성을 가진 존재여서 그럴 수 있다는 논리가 확인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주인공이 여의주를 가진 여자에게 가서 여의주를 얻어 이시미에게 주었더니, 이시미가 용이 되어 승천하였다고 하는 각편에서는 이시미와 나무꾼이 호혜적 관계에 있음을 서사적 표면에서 드러내지 않고 결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이시미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설명하기 위한 설화적 논리의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호혜적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각편은 크게 보면 <유금이들>이나 <동래 정씨 발복 이야기>와 같이 이시미의 승천을 도와 주고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묶일 수 있는 것이다.

특징 이 설화는 민담의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서사단락 사이의 대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나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고난이다. 산삼을 발견한 것은 의외의 행운이다. 산삼을 혼자 힘으로 쫓 수 없는 것은 고난이다. 이웃사람 혹은 형제의 도움은 의외의 행운이다. 원조자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고난이다. 이시미의 도움은 의외의 행운이다.' 이렇게 보면 민담의 성격 가운데 고난과 의외의 행운이 반복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946, 구비문학의 세계(조동일, 새문사, 1980).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사신설화의 형성과 변이(박종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동일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필자 박종성(林鍾聲)

전설

산상왕

山上王

정의 산상왕의 즉위와 후사에 대한 전설.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6 「고구려본기」 제4에 따르면 산상왕(山上王, 재위 197~227)은 고구려 10대 왕이다. 9대 고국천왕의 아우인데, 즉위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파생되었다. 그리고 그 일부가 『삼국사기』에 기록되었는데,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산상왕전설>은 인물전설에 속한다.

랑을 지키기 위해 산방굴로 들어가 사라진 여인에 관한 설화이다. 사라진 여인이 산방산신이 되었다고도 하는 이 설화는 <춘향전>의 근원설화인 <관탈민녀설화(官奪民女說話)>와도 맥락이 일치한다.

의의 진시황이 두려워할 정도로 산방산은 신성한 곳이다. 비록 호종단이 맥을 끊어 제주민의 기대와 염원을 상징하는 용의 뜻이 꺾일 수밖에 없었지만 외부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민중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출처 역주탐라지(이원진, 김찬홍 외 역, 푸른역사, 2002),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9),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좌혜경·오창명·신영대,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참고문헌 新增東國輿地勝覽, 군산 및 주변지역(김태능, 남제주33, 제주특별자치도, 1976), 산방산에 대하여(주원일, 제주도37, 제주특별자치도, 1968),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필자 현승환(玄丞煥)

민담

산삼과 이시미

정의 산삼을 발견한 나무꾼이 이웃사람의 배신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나 이시미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옛날 어느 나무꾼이 한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벼랑 밑에 동삼(童蔘)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가파른 벼랑을 혼자 내려갈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 일을 이웃사람에게 말하자 도와주겠노라 했다. 밧줄에다 소쿠리를 묶은 뒤, 이웃사람이 밧줄을 잡고 나무꾼은 소쿠리를 타고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동삼을 모두 담아 올리고 나자, 이웃사람은 나무꾼을 벼랑에 내버려 두고 가 버렸다. 이때 이시미가 나타나 나무꾼을 등에 태워 구출하고, 이웃사람을 물어 죽였다. 나무꾼은 큰 부자가 되었다.

분석 나무꾼의 상대방은 흔히 이웃사람이나 형제로 설정되는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상대방이 신뢰를 저버리고 나무꾼을 배반하는 반전의 효과를 더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이다. 설화에서 산삼 혹은 동삼은 선한 마음을 갖고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의 눈에만 띄는 것으로 설정된 각편들도 있다. 설화에서 용이 못 된 이시미, 이무기, 깡철이는 심술을 부리는 부정적 존재로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자신의 승천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

줄거리 고국천왕이 죽자 왕비 우 씨가 죽음을 알리지 않고 먼저 왕의 아우 발기(發岐)에게 가서 왕위를 이으라고 한다. 하지만 발기는 천운과 예의를 거론하며 거절한다. 반면 고국천왕의 다른 아우 연우(延優)는 왕후를 환대했고, 급기야는 왕후를 따라 입궐한다. 다음 날 왕후가 선왕의 유명(遺命)을 빙자하여 연우를 왕으로 삼자, 발기가 군사를 일으켜 궁을 포위한다. 그러나 백성이 따르지 않자 발기는 요동으로 도주하여 요동 태수의 군대를 빌린 후 다시 고구려를 친다. 연우의 아우 계수(颯須)가 이에 맞서 승리를 거뒀고 도망치던 발기는 자결한다. 연우는 우 씨 덕분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우 씨를 왕후로 삼는다. 208년(산상왕 12)에 천제에 쓸 돼지가 달아난다. 돼지를 따라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스무 살쯤 되는 미녀가 돼지를 잡아 준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미녀를 찾아가 앞으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는 미녀와 동침한다. 다음 해 왕후가 알고 미녀에게 군사를 보내지만, 배 속에 왕의 혈육이 있다는 말을 듣자 감히 죽이지 못한다. 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가 자신의 혈육임을 확인한다. 9월 아들이 태어나자 하늘이 주신 후사라고 하면서 이름을 교체(郊畿)로 짓고 아이의 어머니를 소후(小后)로 삼는다. 213년(산상왕 17)에 왕이 교체를 태자로 세운다.

분석 즉위전설이 강조하는 것은 왕위 계승의 명분이다. 고국천왕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후는 연장자인 발기를 찾아간다. 그러나 그는 왕후를 부끄럽게 한다. 전설은 발기가 아니라 연우가 왕위를 이은 것이 천명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발기의 죽음을 다룰 때도 산상왕의 예와 의리가 강조된다. 아우 계수가 발기의 장례를 치른 것을 나무라자 계수는 연우가 발기처럼 사양하지 않아 형제간의 의리가 없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장례가 왕의 예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그 결과 형제는 화해한다. 이와 같이 천명과 의리, 예와 명분에 초점을 맞춰 산상왕은 전설화되었다.

후사전설 역시 후사가 천명으로 정해졌다고 말한다. 이 전설에서는 돼지가 초점인데 보통 돼지가 아니라 천제에 쓸 돼지, 즉 천명을 전하는 돼지이다. 부여계 신화에서는 돼지가 중요한데, 탁리국 건국신화에 돼지우리에 버려진 시녀의 아이를 보호하는 돼지가 등장하고, 이 모티프는 <주몽신화>에 그대로 계승된다. 『삼국사기』 유리왕 19년 조에도 천제에 쓸 돼지가 달아났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 모티프는 고려 건국신화인 <작제건이 이야기>에도 나타난다. 부여계 건국신화를 수용한 후사전설은 고구려의 왕들이 천명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의 <산상왕전설>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천명이라는 명분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의의가 있다. 고대국가의

왕위 계승은 권력 집단 간 역학 관계의 결과이지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역사서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천명의 결과로 담론화되는데 이 전설은 그 점을 잘 드러낸다. 또 부여계 민족의 제사에서 신성한 돼지를 통해 천명을 확인하는 점복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의의도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志.

참고문헌 고구려사연구(노태돈, 사계절, 1999), 산상왕봉기의 서사문학사적 의미 연구(정상균, 연민학지8, 연민학회, 2000).

필자 조현설(趙顯高)

민담

산함일구 강토이주

山舍—曰江吐二珠

 지성이감천이, 형제투금

정의 상속 때문에 다투던 형제가 ‘산함일구 강토이주(山舍—曰江吐二珠)’의 뜻을 깨닫고는 우애 있게 지냈다는 설화.

줄거리 어느 형제가 유산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은 ‘산함일구 강토이주’라는 글을 써서 형제에게 주고 그 뜻을 알아 오라고 했다. 형제는 글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형제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는데, 하나뿐인 돌절구(石臼)는 깨뜨려서 나눠 가질 수 없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그러다가 산꼭대기에서 돌절구를 굴러 누구 쪽으로 굴러가는가를 보아 주인을 정하기로 하였다. 형제는 돌절구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서로 자리를 정한 후 산 아래로 굴렀다. 하지만 돌절구는 도중에 산속으로 사라져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산함일구’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일찍 부모를 여의고 거지가 되어 살면서도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다. 어느 날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구슬 하나를 주워 서로 가질 것을 권하며 양보하다가 그만 도랑에 빠뜨리고 말았다. 형제가 구슬을 찾으려고 힘을 합쳐 도랑을 뒤졌더니 이번에는 구슬 두 개가 나왔다. 형제는 구슬을 하나씩 나눠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 이를 두고 ‘강토이주’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후 형제는 잘못을 뉘우치고 우애 있게 잘 지냈다.

변이 내용에 다음과 같은 변이가 나타난다. 어느 날 형이 친구의 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친구가 아버지 몫을 따로 싸 줄 테니 마음 놓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친구가

술에 취해 음식 싸 주는 걸 잊어버렸다. 형이 그냥 돌아오다가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음식을 토해내자, 앞산에서 돌절구 하나가 굴러 내려왔다. 대추 하나를 집어넣자 돌절구에 대추가 가득 차서 이를 아버지에게 드린 후 마찬가지로 쌀과 돈을 집어넣어 금세 부자가 되었다. 이를 본 동생이 돌절구를 빼앗으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일부러 자기 집 쪽으로 굴렸으나 중간에 없어지고 말았다. 한편, 우애 좋은 형제가 있어 하루는 동생이 강을 건너는데 잉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뛰어나왔다. 형과 같이 먹으려고 배를 갈랐더니 구슬 하나가 나왔다. 형제가 서로 사양하다가 강물에 던져 버렸다. 며칠 후 동생이 다리를 건너는데 또 잉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뛰어나왔다. 이번에는 배에서 구슬 두 개가 나와 형제가 하나씩 나눠서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잘살았다.

분석 이 설화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전승되기도 하는데, 그 바탕에는 사람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배워야 한다는 향유층의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의의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교훈성을 지니며, 전승과정에서 <화수분설화>, <지성이감천이>, <형제투금설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393; 8-1, 41; 8-3, 631,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평순, 형설출판사, 1983).

참고문헌 구비 우애설화의 양상과 의미(조춘호, 논문집11, 경신대학교, 1993), 한국 설화에 나타난 형제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곽정식, 문화전통논집4,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6).

필자 곽정식(郭正植)

민담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정의 피장자(被葬者)의 아들이 죽으면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는 명당 발복 설화.

역사 발복 조건으로 인명의 희생이 전제되는 풍수설화로 발복을 위해 남겨진 세 며느리는 유복자를 지켜 가문의 중흥을 이룬다. 풍수사상, 열녀관념의 확산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삼 형제가 지관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밧자리를 구하러 다니는데 지관이 삼 형제가 죽고 삼 정승이 날 명당이

있다고 했다. 삼 형제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돌아왔다. 지관의 말대로 큰형은 첫 제사를 치르자마자 죽어 버렸고, 작은 형은 두 번째 제사를 치르자마자 죽어 버렸다. 지관이 예언한 날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차례로 죽자 막내아들은 자기도 죽기 전에 세상 구경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렇게 길을 떠나 떠돌아다니던 막내아들은 어느 날 산중에서 밤을 맞게 되어, 불빛을 따라 어떤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쉬어 가기를 청하였다. 그 집에는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노파는 막내아들에게 오늘은 어머니의 기일이라 친정집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니 자고 있으라고 하였다. 막내아들은 종일 돌아다니던 탓에 세상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보니 웬 여자가 옆에 누워 있었다. 막내아들은 그 여자와 동침을 해 버렸다. 그 여자는 한 대감의 딸로 혼인날을 앞두고 시집을 가기 전에 유모인 노파와 함께 자려고 찾아왔다가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이 마침 아버지의 세 번째 제삿날이어서 막내아들은 날이 새기 전에 죽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노파가 돌아오자 여자는 웬 남자와 동침을 하였다고 털어놓았다. 노파는 대감에게 찾아가 사정을 알렸다. 대감은 딸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대감의 아내가 말리는 바람에 겨우 참았다. 대감의 아내는 막내아들의 시체에서 호패를 찾아냈다. 대감은 막내아들의 상여를 꾸미고 딸에게 소복을 입혀 호패에 적혀 있는 주소로 보냈다. 한편 세 번째 제삿날이 지나도 막내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한 여자가 그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두 형수는 막내아들이 장가를 들고 죽어 버렸다는 것을 알고 여자를 집으로 들였다. 그 후로 막내며느리가 열 달 만에 출산을 하였다. 막내며느리는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큰며느리가 데리고 가고 둘째 아들은 둘째 며느리가 데리고 갔다. 그래서 막내며느리는 셋째 아들을 키웠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막내며느리의 아버지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찾아왔다가 세 아이를 보고 데려다가 글을 가르쳤다. 세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영특하여 자라서 모두 정승이 되었다.

변이 지관이 삼 형제에게 여러 자리를 잡아 주며 그중에 선택 하라고 하였는데 형제가 삼 정승 날 자리를 잡는 예도 있고, 지관이 명당에 아버지의 묘를 쓰고 대국 공 정승의 딸과 혼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거나 막내아들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길을 나섰다가 어떤 선비의 양자로 들어가는 예도 있다. 또 어머니가 정승 할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자리에 묘를 쓰자고 하는 예도 있고, 죽은 아버지가 직접 마을의 샘 자리에 명당을 봐 두고 막내아들에게 목만 잘라서 넣으라고 하여 삼 형제 죽을 명당을 쓰는 예도 있다. 막내가 대감의 첩이

었던 여자와 그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묵었다가 딸과 동침하게 되는 예도 있고, 막내아들이 묵는 집의 딸이 막내아들을 보고 반하는 예도 있다. 막내아들의 아내는 동침 후 막내아들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버지가 잡아 놓은 명당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 예도 있고, 막내아들이 호식당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막내아들에게 명주를 감아 살리는 예도 있고, 호식당해 죽을 날이 되어 막내아들이 호랑이에게 흘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를 잡아 사는 예도 있다. 일부 설화에서는 파평 윤씨, 현풍 껍씨, 남양 홍씨 등 특정 성씨와 연관지어 가문전설처럼 구연되기도 한다.

분석 당대의 세 아들이 죽고 그 후에 세 손자가 태어나 정승이 된다는 명당에 묘를 쓰고 발복한 이야기다. 묘를 쓰는 데는 조상을 편히 모시고자 하는 뜻과 그 음덕으로 후손이 잘되게 하기 위한 뜻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된 것이 아니고 조상이 편안하면 그 음덕을 후손이 받으니 결국은 한 가지라고 믿는다. 당대의 삼 형제가 죽어야만 그 후손이 정승에 오르는 그 뒷자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명당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흉당이 될 수도 있다. 후대에 삼 정승이 난다는 것은 분명 명당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당대의 삼 형제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이 뒷자리를 적덕(積德)의 대가로 얻는다고 하여 명당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자생손지지설화>와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행복이 개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가문 차원의 것으로 개인적인 부와 명예보다는 가문의 명예와 발전을 우선시한다.

특징 신분상승담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가문의 영달을 이룬 예가 될 것이다. 삼 형제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묘를 쓴다. 후손에게서 정승을 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는 개인의 영화나 복록보다는 가문과 혈족을 먼저 생각하는 혈족 중심의 사고를 보여 준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여성이 희생되어도 좋듯이, 가문의 영달을 위해서는 당대 자식들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인식이다. 삼 정승 육 판서 자리에 묘를 써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는 것은 그 자체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며, 가문을 살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서민들의 신분 상승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풍수사상과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의의 이 설화의 주인공들은 삼 정승을 내기 위해서는 상주가 모두 죽어야 한다는 지관의 말을 믿으면서도, 그 자리가 명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묘를 쓰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 죽음을 당한다. 실존하는 세 사람의 생명보다 장차 태어날 자손의 권세를 지향하는 이 이야기는, 효와 가문의 영화라는 목적 가치를 위해 개체의 희생은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이 점이 이 설화의 핵심적 가치인 동시에 명당에 대한 의식의 일단을 엿보게 하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출처 한국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8, 506; 3-2, 424; 4-4, 129; 5-6, 646; 6-12, 609; 7-3, 357; 7-12, 671; 7-13, 239; 7-17, 334.

참고문헌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풍수의식(최은식, 한국의 풍수문화, 박이정, 2002),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풍수와 한국문학(손정희, 세종출판사, 2000),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심민호(沈民皓)

전설

삼각산

三角山

정의 서울특별시 북부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있는 삼각산(북한산)과 관련된 전설.

역사 삼각산은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의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룬 형태의 산으로 삼국시대에는 부아악(負兒岳), 횡악(橫岳), 한산 등으로 불렸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삼각산 또는 화산(華山)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삼각산은 한양을 병풍처럼 둘러싼 북악(北岳)으로 서울이라는 우주를 지탱하는 다섯 기둥(五岳) 가운데 북쪽 기둥에 해당하는 산이다. 서울을 상징하는 산으로, 특히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던 이들이 삼각산을 돌아보며 고국을 떠나는 정회를 노래한 시조나 한시가 많다.

줄거리 <삼각산전설>과 관련해 크게 세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궁궐 터를 잡기 위해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백운대로부터 지맥을 따라 비봉에 이르렀는데 “무학이 길을 잘못 들어 여기에 이른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었다. 이것은 도선이 세워둔 비석이었으며 이 때문에 지금의 경복궁이 있는 곳에 궁궐 터를 정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조선의 도읍을 정할 때 전국의 명산 가운데 구봉산과 삼각산이 선택되었다. 도사에게 물어 두 산 가운데 백 개의 봉우리를 먼저 만드는 쪽을 도읍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두 산의 산신령이 봉우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구봉산 산신령이 먼저 백 개의 봉우리를 만들자 삼각산 산신령이 억수 같은 비를 퍼부어 한 개의 봉우리를 무너뜨렸다. 그 사이 삼각산 산신령이 마지막 봉우리를 만들어 결국 삼각산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천 년 묵은

삼각산
문화재청

너구리와 여우가 내기해서 이기는 쪽이 삼각산을 차지하고 지는 쪽이 개성 송악산을 차지하기로 하였다. 서울의 어느 대감 댁 딸과 혼인하는 것으로 내기를 삼았는데, 여우가 총각으로 변신해서 대감 집에 들어가 대감의 딸과 문장을 겨루게 되었다. 딸이 먼저 시제를 내자 여우가 멋진 문장으로 화답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두보의 무덤에 가서 두보 귀신에게 답을 얻어 왔다. 딸이 총각의 시 구절을 듣고 의심하여 자신의 집에 있는 삼살개를 동원하여 여우의 정체를 밝혀냈다.

변이 삼각산 봉우리나 바위에 얽힌 이야기도 여러 편이 전한다. 사모바위에는 청나라로 끌려간 연인을 그리워하다 바위가 된 총각에 얽힌 전설이 전하고, 노적봉에는 노적가리를 군량미로 속여 왜군을 무찔렀다는 전설이 전한다. 원효봉과 의상봉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수도했다는 전설이 전하고, 문수봉에는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두꺼비바위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분석 삼각산에 얽힌 이야기는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삼각산의 지세나 삼각산을 도읍으로 정할 당시 무학대사에 얽힌 일화이고, 둘째는 구봉산과 삼각산의 내기에 얽힌 신화적 서사이다. 셋째는 삼각산에 깃들여 살려던 여우를 물리친 대감 댁 여인에 관한 설화이고, 넷째는 삼각산의 봉우리나 바위에 얽힌 전설이다.

의의 삼각산은 서울이라는 우주적 공간의 중심산으로 그에 걸맞은 풍수담들이 전한다. 풍수설화는 한국 고유의 공간에 대한 해석학적 담론이라 할 수 있으며 다분히 신화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삼각산에 얽힌 설화는 대부분 삼각산의 성스러운 상징성을 표상하거나 한양을 도읍으로 정할 당시의 내력을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5-6, 622, 내 고장 옛이야기(홍순석·이인영, 용인문화원, 1985), 문화재청(cha.go.kr).

참고문헌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임재해, 당대, 2002), 풍수설화(신월균, 밀알, 1994), 한국의 풍수설화 연구(장장식, 민속원, 1995).

필자 김영희(金映希)

신화

삼공본풀이

정의 내 북에 산다, 북 타고난 백정의 딸

정의 제주도 큰곳의 삼공맛이에서 구송되는 서사무가로 전상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신화.

역사 제주도의 큰곳에서 부르던 무가로 감은장아가기 주인공인 여성신화이다. 육지 여러 곳에서 전승되는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와 『삼국사기(三國史記)』 <운달>, 『삼국유사(三國遺事)』 <무왕>과 유사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신화, 전설, 민담으로 수용되면서 오랫동안 전승되었으리라 추측한다. 같은 줄거리가 인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전승 공간이 넓고 전승기간이 장구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옛날 옛적에 윗마을에는 남자 거지가 살고 아랫마을에는 여자 거지가 살았다. 남녀 거지는 길에서 서로 만나 품을 팔며 함께 사는데 차례로 세 딸이 태어난다. 큰딸이 태어나자 동네 사람이 은그릇에 밥을 갖다 주어 은장아가기, 둘째는 낫그릇에 갖다 주어 낫장아가기, 셋째는 납박새기(나무 바가지)에 주어 감은장아가기라고 이름지었다. 감은장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차츰 살림이 부유해져서 어느새 천하 거부가 되었다. 호강스럽게 살던 부부는 비가 촉신촉신 오는 어느 날 딸 셋을 차례로 불러 누구 덕에 잘사는가를 묻는다. 큰딸과 둘째 딸은 하늘님[天]과 지에님[地] 그리고 부모님 덕이라고 대답하여 칭찬 받는다. 그런데 뜻밖에 막내딸이 “하나님, 지에님, 부모님 덕도 있지만 배또롱(배꼽) 아래 선그릇(배꼽부터 음부 쪽으로 내려 그어진 선)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幸祐發身) 한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부모는 셋째 딸을 내쫓는다. 감은장은 얼마간의 양식과 입던 입성을 검은 암소에 싣고 정 하님(하인)을 거느리고 집을 나선다. 막내딸을 쫓아내고 가없는 생각이 든 부모는 두 언니에게 나가서 동생을 불러 식은 밥에 물만 것이라도 먹고 가도록 하라고 시킨다. 시기심이 든 두 언니가 차례로 나와서 어머니, 아버지, 너를 때리러(죽이러) 나온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

자 감은장은 도술을 부려서(중얼거려서) 언니들을 지내, 말뚝버섯, 청지냉이로 번신시킨다. 부모는 걱정이 되어서 어찌되었는가 보려고 밖으로 나오다가 문지방에 부딪혀 장님이 되고, 그날부터 앓은 채로 먹고 입고 쓰게 되어 차츰 재산을 다 없애고, 마침내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밥을 얻어먹으려 다니게 된다.

감은장은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가다가 늙은 할망이 사는 초막살이 집에 이르러 하룻밤 묵기를 청한다. 감은장은 그 집 술을 빌려서 가져온 쌀로 밥을 지어 주인 식구에게 대접한다. 마만 삶아 먹던 마통이네 가족은 조상이 모르는 버리지 밥이라고 쌀밥을 안 먹으려 하다가 셋째 마통이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는 따라서 받아먹는다. 감은장은 셋째 마통이와 결혼했는데 어느 날 마를 파던 들에 신랑과 함께 나가 보니 구덩이에 자갈(돌)이라고 버린 것들이 죄다 금덩이, 은덩이었다. 금덩이, 은덩이가 나와서 일시에 부자가 되고, 이것을 검은 암소에 실어 들이니 저절로 전답과 마소가 나오고, 재장오리(장)에 가서 팔기도 한다. 감은장은 자신이 집을 나온 후 친정 부모는 눈이 멀고 거지가 되어 빌어먹으려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감은장은 석 달 열흘간 거지 잔치를 열고 잔치의 끝에 온 부모를 따로 상을 차려 모시고는 옛날이야기 해 주기를 청한다. 부부는 자신들이 거지로 만나 세 딸을 낳고 부자가 되어 살던 일부터 지간과 과거사를 읊듯이 들려준다.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던 딸이 자신이 감은장임을 털어 놓자 부부는 놀라서 눈을 뜬다. 감은장은 자신이 전상을 차지하고 나온 신이라고 말하면서 전상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다. 감은장은 친정 부모를 모시고 부자로 잘 산다.

변이 제목은 주로 '풀이' 혹은 '맞이'로 표시한다. 감은장아기 혹은 가문장아기는 동일한 명칭을 부르는 대로 들고 받아 쓴 차이이다. 부친의 이름은 할림수사, 강이영상, 강이영성이서 불, 강이영성 등이고 모친의 이름은 구에궁전녀설부인, 흥문소천구에궁전궁남, 흥은소천구에궁전궁남, 흥문소천 등이다. 감은장은 집을 떠나며 가루 한 줌을 뿌려서 부모의 눈을 멀게 하고 오방신장을 불러 집안을 망하게 하기도 한다. <삼공본풀이> 무가는 제주도에서 불리는 신화로 지역보다는 구연자에 따른 변이가 있으나 큰 차이는 없다.

분석 이 무가는 제주도 큰곳의 제차에서 부르는 무가로 전상 차지 신격인 삼공신의 근본 내력을 풀어 설명한다. 현재는 큰곳 서른한 번의 제차 가운데 열네 번째 거리에서 거행되는 <삼공본풀이> 대목에서 구송되고 있지만, 원래는 큰곳 열두거리 가운데 초감제, 불도제, 초공제, 이공제에 이어 다섯 번째 거리인 삼공제에서 구송되던 신화이다. '전상'은 "인간살이 모든 것이 다 전상이라."라고 하여 '사람이 한평생 그렇게

살도록 마련된 어떤 운명이나 팔자를 뜻하는 말로 해석된다. 이 무가의 중요한 화소는 셋째 딸, 북, 마통이, 금, 거지 잔치, 안맹, 개안으로 무가 연구 못지않게 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주목받았다. 육지에서 폭넓게 전승되고 이른 시기에 문헌에 정착된(쫓겨난 여인 발복설화)와 구조 및 요소 면에서 같은 유형으로 파악된다. "부친과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대립한 딸이 집을 나와 자신보다 문화 단계가 낮은 남자를 만나고, 여인의 능력으로 부자가 된 부부는 부모가 거지가 되었음을 예견하고 거지 잔치를 열어 부친과 상봉한다. 그리고 부친은 재회 장면에서 딸의 의지가 옳았다고 인정하고 딸은 말년의 부모를 봉양한다."라는 내용에서 그러하다. 발복설화와 <삼공본풀이>의 논의를 종합하면 금, 쌀과 친연성을 가지며 번영을 가져오는 존재인 여인이 가부장권이 강화되는 단계에서 아버지와 경제적인 주도권을 놓고 다투고 집을 나와, 자신보다 낮은 문화 단계의 남자를 만나 생금을 녹이면서 획기적인 부(富)를 일으킨 사건이 핵심이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 야장(治匠)으로 변신하였는데 야장과 사면이 결합한 이야기의 원형은 금속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화였으리라 추측된다. 한국 신화의 특징은 삼대기로 표현되는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고 웅녀, 유화, 당금아기의 시련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수난이었으나, 감은장아기의 고난은 부신(富神)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제주도 큰곳의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볼 때 감은장아기는 삶과 죽음의 중간 단계, 즉 잘살고 못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단계의 신화이다. 그래서 자식의 탄생이 없으며 두 남년의 결합은 부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전상신은 잘살고 못사는 평생을 결정짓는 운명의 신이다.

특징 금이 화폐 가치를 가지기 이전, 이른 시기의 역사에 기문화의 시작과 문화발전이 인간의 풍요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문화영웅의 신화이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제주도 무당굿놀이(현용준·김영돈, 문화재관리국, 1965),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제주도 신화(현용준, 서문당, 1976),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屋號書店, 1937).

참고문헌 내 북에 산다게 설화 연구(현승환,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내 북에 먹고 산다형 민담과 삼공본풀이 무가의 상관성(황인덕, 어문연구18, 어문연구회, 1997), 삼공본풀이 형성과정 연구(현승환, 국문학연구 총서12, 태학사, 1997), 여인발복설화의 연구(김대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이수자, 집문당, 2004).

필자 김대숙(金大淑)

삼국사기

三國史記

정의 1145년(인종 23) 경에 김부식(金富軾)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역사서.

내용 김부식 등이 편찬한 기전체의 역사서로서 「본기(本紀)」 28권(고구려 10권, 백제 6권, 신라·통일신라 12권), 「지(志)」 9권, 「표(表)」 3권, 「열전(列傳)」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삼국사기(三國史記)』를 역사서로만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역사를 서술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설화도 수용하고 있다. 그 점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사람의 전기(傳記)를 소개한 「열전」 대목이다. 『삼국사기』의 「열전」은 모두 10권인데, 문학적인 성격이 강해 귀중하다. 10권의 「열전」 중에서 김유신(金分信) 개인 열전이 3권을 차지하며, 나머지 68인의 열전이 7권에 포함되어 있다. 「열전」은 중국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비롯된 것인데, 월남이나 일본의 역사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삼국사기』는 적극 도입하여 역사 창조자들의 모습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보여 준다. 김유신의 전기에 중악 석굴에서 기도를 하다 노인을 만나 비법을 전해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온달의 전기에서 비슷한 설화의 유형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필요하면 민간전승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백성에 속하는 미천한 신분이라도 행실이 아름다우면 등장시켰으니, 설씨녀(薛氏女), 도미처(都彌妻)에 대한 전기가 그 예이다. 반역자의 행적도 소개해 잘못을 나무람으로써 후대의 거울을 삼게 하였으니, 창조리(倉租利), 궁예와 견훤의 전기가 그 예이다.

『삼국사기』는 정사이면서도, 역사 서술의 하나인 「열전」 형태로 여러 설화 자료를 남겨 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크다. 유교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따라 일관된 시각으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여 수준 높은 문장으로 기술함으로써 후대 역사서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필자 이복규(李福楙)

삼국유사

三國遺事

정의 고려조 때 고조선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문화, 종교, 민속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는, 보각국사 일연(一然, 1206~1289)이 쓴 사서(史書).

내용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총 5권 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력(王曆)」에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 등 고대 왕들의 세계와 연대가 기록되었다. 「기이(紀異)」 제1편은 통일신라 이전 국가들의 건국과 신라의 역사에 관해 서술했다. 「기이」 제2편에서는 문무왕부터 후백제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을 서술했다. 「흥법(興法)」 제3편에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관해 서술했다. 「탑상(塔像)」 제4편에서는 불교적 상징인 탑과 절 그리고 사리에 관련된 내력을 서술했다. 「의해(義解)」 제5편에서는 신라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고승들의 모습, 「신주(神呪)」 제6편은 밀교의 이적, 「감통(感通)」 제7편은 불교 신앙의 영험함에 관해 주로 서술했다. 「피은(避隱)」 제8편에서는 속세를 떠나 사는 승려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효선(孝善)」 제9편에서는 효행을 중심으로 불교적 선행에 관해 서술했다.

역사적 내용을 주제별로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서술과는 다른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설화들이 수록될 수 있었다. '유사'라는 말이 암시하듯, 정통성을 굳이 내세우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신이한 일을 담은 여러 신화와 전설들이 수용될 수 있었다. 기존의 여러 문헌들을 인용함으로써 실증적 차원에서도 신뢰성을 갖는 자료로 간주된다. 역사와 문학, 초월과 일상, 사실과 허구와 같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술되고 있어,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문학적 텍스트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 송효섭(宋孝燮)

삼년고개

정의 넘어지면 삼 년 내에 죽는다고 알려진 삼년고개에 관한 전설.

역사 삼년고개란 지명의 역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설화는 일제강점기인 1923년에 한 일본인이 채록하여 펴낸 『온돌야화(溫突夜話)』란 자료집에 처음으로 채록되었다. 이 자료가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교과서인 『조선어독본(朝鮮語讀本)』1930~1937)에 게재된 전래동화 <삼년고개>의 원전

이다. 광복 이후에도 <삼년고개설화>는 3~4차 교육과정기(1973~1987)를 제외하고는 줄곧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의 전래동화 교재로 채택되었다. 많은 동화집들에도 이 설화가 거듭 게재되었음은 물론이다.

줄거리 경상도 어느 곳에 삼년고개가 있었는데, 예로부터 이곳에서 넘어지면 삼 년 내에 죽는다는 말이 있었다. 한 노인이 귀갓길에 삼년고개에서 넘어졌다. 크게 낙담한 노인이 자식들을 불러 유언을 하던 중, 이웃의 의원이 와서 그 고개에 가서 여러 번 더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더 살 수 있다는 계책을 내놓았다. 노인은 과연 그렇겠다고 여겨 다시 삼년고개로 가서 몸을 마구 굴리며 빌었다. 그러자 공중에서 “걱정마라. 동방삭도 여기서 천 번을 굴렀다.”라는 말이 들렸다.

변이 <삼년고개설화>는 가파른 고개에 얽힌 지명전설에서 역발상의 지혜를 강조한 소화(笑話)로, 나아가 미신타과의 교훈을 담은 동화로 변이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어독본』의 교재로 채택되면서 미신타과의 교훈이 보태졌다. 광복 후의 국정 교과서에서는 점차 아이의 지혜와 슬기, 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모되었다. 민간의 구비전승에서는 지락을 낸 존재가 아들이나 손자로 바뀌면서 효(孝)를 강조하는 변이형도 나타난다.

분석 삼년고개에서 넘어져 삼 년 이내에 죽을 위기에 처한 노인이 의원, 친구, 소년, 아들 등의 지혜로 오히려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설화이다. 장수의 상징인 동방삭도 등장하고 있다. 설화의 내용과 무관한 ‘미신타과’의 교훈은 일제의 식민교육 방침에 의해 주입된 것이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삼년고개전설(三年坂專説)>이 전승되고 있어, 이 설화가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특징 한국에 비해 일본의 <삼년고개전설>은 주로 사찰이나 묘지를 중심으로 오래되었고, 광범한 전승이 확인된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삼 년 내에 죽는다.’는 내용도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는 주술적 해결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비해, 한국은 역발상의 전환이 강조되는 소화의 성격이 강하다.

의의 한국의 <삼년고개설화>는 오랜 기간 국정 교과서의 동화 교재로 채택되면서 오히려 구비전승이 위축되고 고착된 경우이다. <혹부리영감>이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구비문학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럼에도 이 설화는 수명연장담이나 아지형(兒智型) 설화가 풍부한 한국 구비문학의 토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역발

상의 지락을 낸 주체가 아들, 손자 등으로도 나타나는 변이형의 관념과 문화가 특히 발달한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처 보통학교 조선어독본4(조선총독부, 1934), 온돌야화(田島泰秀, 교육보성주식회사, 192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8, 48.

참고문헌 삼년고개와 산년도개(三年とうが)의 비교연구(심은정, 일본학보55-2, 한국일본학회, 2003),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최운식, 민속원, 1997), 한일 삼년고개설화의 비교로 본 설화원류의 문제(천혜숙,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7).

필자 천혜숙(千惠淑)

민담

삼대 후레이들 놀

정의 사돈지간에 일어난 성(性)적인 소화(笑話)가 담긴 전형적인 육담(肉談) 설화.

줄거리 한 여인이 딸을 시집보내고는 딸이 너무나 보고 싶어 사돈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장마에 물이 불어 냇물을 건널 수 없었다. 그래서 사위를 불러 자신을 좀 건네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위는 옷을 모두 벗어 던지고 성기를 다 드러내고는 이쪽으로 건너왔다. 그리고는 물이 옷에 젖으면 곤란하니 장모도 벗으라고 말했다. 거부했지만 사위가 한사코 권유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장모도 옷을 벗고 말았다. 그런데 사위는 장모를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업고 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물을 건너는 도중에 사위의 물건이 용을 써서 장모는 매우 불쾌하고 언짢을 수밖에 없었다. 다 건너간 후 장모는 사돈댁 할아버지를 먼저 찾아가 사위의 불경함을 고발했다. 그러자 사돈댁 할아버지는 “허허, 나이라는 게 원수로구나! 들어온 걸 놓치다니.”라고 말했다. 장모는 기가 막혀 이번에는 사돈댁 바깥양반을 찾아갔다. 그러자 사돈 양반은 “사돈, 그런 말 마오. 그거 일어나요.”라고 말했다. ‘삼대 후레이들 놀’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변이 특별한 변이형태는 없고, 사위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당한 장모가 사돈댁을 찾아가는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각편 중에는 장모가 먼저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 대상이 사돈댁 바깥양반인 것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유사하다. 할아버지는 이성을 상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아버지는 욕정이 일어남을 토로한다.

분석 육담은 소화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 많기에 성소화(性笑話)로 불리기도 한다. 친족관계 내에서도 애

매한 위치에 있는 사돈 간에 벌어지는 육담이기에 소화로써의 재미가 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육담이라 할 수 있지만, 문헌 육담에서 찾기 힘든 구전 육담의 발랄함과 유쾌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민담 특유의 상상력과 오락성 때문이다.

의의 육담은 설화문학의 이야기 유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는 문화 내에서 금기시하는 영역들을 파괴하며 유쾌함을 준다. 장모와 사위 간의 성적인 일탈이나 사돈간의 성적인 의사소통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담에서 육담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일탈과 파괴의 유쾌함에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3, 219; 4-5, 470.
참고문헌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류정월, 구비문학연구25, 한국구비문학회, 2007),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한국의 민속과 성(비교민속학회, 지식산업사, 1997).

필자 김정섭(金鏡燮)

신화

삼두구미본풀이

정의 제주도에서 특수본풀이로 전승되는 괴물이 등장하는 무속신화.

줄거리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서는 삼두구미본, 『풍속무음(風俗巫音)』에서는 버드남본으로 수집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이와 같은 계열에 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구비문학대계 9-3(제주도 대정읍), 1-7(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1-2(경기도 여주읍) 자료가 있다. 이것들의 줄거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삼두구미라는 괴물이 가난뱅이 나무꾼의 세 딸을 부잣집에 중매 시켰다고 속여 데리고 와서는 그녀들에게 사람 다리를 주며 먹으라고 한다. 첫째와 둘째는 다른 데 숨긴 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게 들롱이 나서 죽임을 당하지만, 막내는 다리를 불에 태워 가루를 자신의 배에 묶어둠으로써 먹은 것으로 인정되어 괴물의 아내가 된다. 막내는 괴물을 안심시키고, 달걀과 무쇠와 버드나무를 이용해 괴물을 죽인 뒤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공중으로 날린다.

<삼두구미본풀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로는 『풍속무음』에 실린 <버드남본>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 채록된 <와라진 귀신>이 있다. 삼두구미의 정체는 사람도 아니고 귀신

도 아닌 백발노인의 형태를 한 땅귀신이다.

변이 <삼두구미본풀이>는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과 『풍속무음』에 실린 것은 본풀이로 대접받고,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자료는 민담으로 취급할 만하다. 이중 본풀이로 대접받는 자료의 공통 내용은 삼두구미가 괴물 형상을 하며, 인간과 혼인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신부의 조건은 사람 다리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자료이든 막내딸이 지락을 써서 위기를 극복한다. 그것은 다리를 불에 태워 그 가루를 보따리에 싸 배에 감는 것이다. 괴물이 “다리아!” 하고 불렀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므로 먹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시험을 통과한 막내딸은 지락을 써 괴물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낸다. 이는 버드나무, 무쇠, 날달걀로 나타나며 이는 괴물을 퇴치할 수 있는 주구(呪具)로서의 기능을 한다. 제주도의 자료에서는 괴물의 시신을 가루로 만들고 있으나 육지부의 자료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안 보인다. 괴물퇴치 역시 버드나무, 무쇠, 날달걀이 갖는 속성을 주술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자료는 신화로 전승되고, 육지부 자료는 신성성이 사라지며 남은 흔적임을 알 수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제주도에서는 특수본풀이라 해서 신화로, 강화군과 여주읍에서는 민담으로 전승되는데, 삼두구미의 혼인과 죽음에 관한 것이 중심 내용이다. 혼인을 위해 괴물은 가난한 나무꾼의 딸을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는 산 아래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산속은 괴물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괴물 퇴치에는 버드나무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날달걀과 무쇠 덩어리가 추가로 쓰인다. 날달걀은 그 모양으로 보아 눈, 코, 입, 귀가 없으니 무엇을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 얼굴에 맞아 깨지면 끈적끈적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하므로 두려운 존재이다. 동으로 뺨은 버드나무 가지는 햇빛을 먼저 받으니 독이 있어 두렵고, 무쇠 덩어리는 맞으면 가슴이 멍멍하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아 변동이 없으니 괴물이 조화를 부릴 수 없어 두려워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도의 이장(移葬) 풍습과 일치한다. 설화 내용이 신화라면 그에 따른 의례는 이장 풍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장에 앞서 삼두구미에게 옥황으로 올라가라는 축을 고한다. 삼두구미가 옥황으로 간 사이에 묘를 파고 시신의 유골을 수습하여 뒷자리에서 100보 떨어진 곳으로 옮겨 성복제를 지낸다. 파헤쳐진 묘에는 날달걀 세 개와 무쇠 조각 세 개를 묻는다. 그리고 흙을 덮고 그 위에 버드나무 한 가지를 꺾어 심는다. 그러면 옥황에 갔던 삼두구미가 내려와 시신을 찾아도 달걀은 코·눈·입·귀가 없어서 모른다, 무쇠는 멍멍하여 모른다, 버드나무는 뺨뺨하여 모른다 하므로 이장하는 인간에게 조화를 부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징 신화와 의례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신화는 의례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고, 의례는 신화의 내용을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은 제주도 의례에서 구연되지 않기에 특수본풀이로 구분되고 있으나, 이것은 이장 의례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 장례 풍습에서 관 위에 동심결을 놓는데, 이는 삼두구미가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삼두구미 신을 시신을 먹는 괴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교식 장례 의식이 행해지지만 그 이전에는 아마 무속에 따른 의식이었을 것이다. 이장 의례에서 날달걀, 무쇠, 버드나무를 매장하는 것은 무속 의례의 흔적을 보여 준다. 제주도의 무당이 <삼두구미본풀이>를 다른 신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전승해 왔다는 점 또한 그 잔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의 <삼두구미본풀이>의 전반부는 혼인이 중심 내용이다. 괴물이 강제로 여성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천금을 주고 딸을 사는 것은 구매혼적 요소이고, 괴물이 지상의 여성과 혼인하여 자신이 사는 산속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보아 외혼제이며, 아버지가 딸의 혼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부계제 사회의 혼인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후반부는 장례 방식이다. 괴물의 약점을 파악한 막내딸은 버드나무로 괴물을 처치하고 죽은 언니의 시신을 거두어 감장한 후, 살아나려는 괴물을 아버지와 함께 버드나무로 때려죽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1차 죽음이 아니라 2차 죽음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2중 장법은 영웅들을 대상으로 많이 행해진다. 시신을 가루로 만들어 하늘로 날리거나, 가루를 다시 떡으로 만들어 세에게 먹이는 방식은 천장(天葬)과 유사하다. 제주도가 100년 가까이 몽골 지배하에 있었기에 이러한 장례 풍습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할 수 있겠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풍속무음(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43; 1-7, 564; 7-4, 134; 9-3, 624.

참고문헌 제주도의 본풀이와 민담의 교섭양상(현승환, 탐라문화3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제주도 특수본풀이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철리터방법(진성기, 남국의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69).

필자 현승환(玄丞煥)

전설

삼부연폭포

三釜淵瀑布

정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3리의 삼부연폭포(三釜淵

瀑布)에 얽힌 설화.

역사 궁예가 풍천원에 태봉국(泰封國)의 도읍을 정할 당시 이곳에서 도를 닦던 두 쌍의 이무기 가운데 세 마리가 폭포의 기암을 뚫고 용이 되어 승천했다. 그때 세 곳의 혈연(穴淵)이 생겨 삼부연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줄거리 폭포 아래 큰 못에 두 쌍의 이무기가 도를 닦았는데, 그중 세 마리만 용이 되어 승천하자,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해마다 심술을 부려 비가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몇 달째 계속되자 한 젊은이가 나타나 이무기의 심술 때문이니 삼부연에서 기우제를 지내자고 독려했고 이에 주민들은 정성껏 제를 올렸다. 그런 치성에도 비가 내리지 않자 젊은이는 화가 나서 삼부연의 바위를 깨뜨려 연못에 던져 넣었다. 그러자 갑자기 뇌성벽력과 함께 폭우가 쏟아졌고 젊은이는 폭우에 휩쓸려 못 속에 빠졌다. 폭우가 사흘 동안 계속되어 메말랐던 대지는 가뭄에서 벗어났다. 그 뒤로 가뭄이 들면 마을 사람들은 삼부연에 찾아가 정성껏 기우제를 지냈는데 세 개의 못에 돌을 던져 넣으면 뇌성벽력이 치면서 폭우가 내려 가뭄이 끝났다고 한다.

변이 이 설화는 기우제 가운데 성소(聖所)를 더럽혀 비를 얻는 폭력적인 의례 이야기 유형으로 전국에 분포한다.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엄정리에서는 이무기가 산다는 웅덩이에 가시덤불과 돌 등을 던져 넣으며 기우제를 지내고,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에 있는 시래호박소에서 기우제 때 돌과 나뭇가지, 돼지를 집어넣는다. 강원도·함경도·전라도에서도 용소나 성스러운 바위에 개나 돼지의 피를 뿌리고,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용계리의 도연기우제에서는 개를 잡아 생피를 폭포바위에 바르는 등 다양한 주술을 사용한다.

분석 <시래호박소설화>를 분석한 황경숙의 견해에 따르면,



삼부연폭포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2010.7. 한국관광공사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성소에 머무르는 존재인 성물(聖物)에 대한 숭배의 거부이며, 성과 속에 대한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이다. 그러하기에 못에 돌을 집어넣은 젊은이를 죽임으로써 하늘의 지고한 성성(聖性)을 드러내고, 비를 내림으로써 성소를 정화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이 설화는 인간들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폭력(반감) 대 초자연적 존재의 인간에 대한 정화(대응)라는 논리를 담고있다.

특징 이 전설에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는 악행을 자행하는 신이(神異)한 존재로, 그러한 이무기와 대결에서는 성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폭력적인 의례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의의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제앙을 초자연적인 힘을 역이용하여 극복하는 민중의 지혜를 담고 있다.

출처 금산의 마을공동체신앙(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0), 삼척시지(삼척시, 1997), 철원향토지1·3(철원문화원, 1998), 한국세시풍속사전-어름(국립민속박물관, 2005).

참고문헌 이무기설화와 기우제(황경숙, 설화, 민속원, 2008),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임재해, 지식산업사, 1991).

필자 김태수(金泰水)

신화

삼성신화

三姓神話

정의 고·양·부(高·良·梁·夫) 세 성씨의 시조 출현과 정착 내력 그리고 고대 탐라의 역사적 경험을 전승하는 제주도 신화.

줄거리 그들의 옛 기록에 이르기를, 태곳적에는 (어떠한) 사람과 물상(物象)도 없었는데,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 제일 큰 사람이 양을나(梁乙那)요, 다음이 고을나(高乙那)요, 셋째가 부을나(夫乙那)이다. 세 사람은 황량한 들판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했는데, 가족으로는 옷을 만들고 고기는 먹었다. 하루는 인(印)을 찍어 봉한 나무 껍질이 동쪽 바닷가에 닿는 것을 보았다. 쫓아가서 열어 보니 그 껍질 속에는 들함이 들어 있었으며, 동시에 붉은 띠에 자주색 옷을 입은 사신이 따라왔다. 들함을 열어 보니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땅아지, 송아지, 오곡(五穀) 씨앗이 나왔다. 그제야 사신이 “나는 일본국의 사신시오, 우리 임금의 세 따님을 낳아 놓

고 말씀하시기를, ‘서해 북판에 있는 멧부리에 신의 아들 세 사람을 내려 보내 나라를 이룩하려고 하나 배필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에 나더러 세 따님을 모시고 가라고 하여 모시고 왔으니 그대들은 짝을 이루어 큰일을 성취하시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구름을 타고 사라졌다. 세 사람이 나이 순서에 따라 장가를 들고, 샘물이 달고 토지가 비옥한 고장으로 가서 화살을 따라 각기 자리를 잡았다. 양을나가 사는 고장을 첫째 도읍, 고을나가 사는 고장을 둘째 도읍, 부을나가 사는 고장을 셋째 도읍이라고 하였다. 처음으로 오곡을 심고 땅아지와 송아지도 길러서 날로 번창하였다.

분석 이 신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태초에 사람과 물상이 전혀 없었다는 배경 설정이 초두에 등장하지만 이에 관한 서사가 단절되고 곧이어 세 성씨의 시조가 출현한다고 하는 점에 있다. 창세신화의 기본 설정에서 출발했다가 갑작스럽게 시조 출현 신화로 전환되는 양상은 제주도 고유 창세신화의 특별한 내력이 기록으로 전승되기에 불완전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땅에서 솟아나온 세 신인이 태초에 이미 성씨를 갖고 있었다는 설정은 옛 탐라국 건국시조 세 영웅이 특별한 역사적 요인에 의하여 성씨시조의 지위로 확정되는 신화 재편의 과정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세 과정에 관한 상세한 부분은 <조감제>와 <천지왕본풀이> 같은 무속신화에 전승되고 있지만 기록 전승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세 신인의 출현 양상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육지 신화에서 찾을 수 없는 개별적 성격이다. 세 신인이 수렵생활을 하다가 일본국에서 온 세 처녀와 혼인하여 수렵에서 목축으로 그리고 농경생활로 전환하였다는 설정은 제주도의 경제적 토대의 변화를 신화적 서사로 드러낸 것이다. 세 신인이 각기 활을 쏘아 각자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제주도의 전통적 신앙권역, 곧 송당계(松堂系), 칠일당계(七日堂系), 팔일당계(八日堂系)라는 세 권역과 특별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세 처녀의 출자처가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에서는 일본국으로 설정되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역사상의 국가가 아닌 벽랑국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공식 역사서의 기록에서 일본이라는 실제 국가가 신빙성을 더해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특징 창세신화의 서두가 제시되었다가 급격하게 성씨시조 신화로 전환된 점이 주목된다. 또 성씨를 보면 고대 부여, 고구려계 왕성(王性)인 부 씨와 고 씨로 확정되어 있는 것도 특별하다. ‘을나(乙那)라는 칭호 역시 『고려사』 「세가(世家)」 권 4 현종 9년 8월 조 기사에 여진(女眞)의 추장 이름에 서을나(徐乙那)가 보이고, 현종 21년 1월 조 기사에 동여진(東女眞)

의 오을나(烏乙那)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 탐라의 세신인이 북방계통과 연관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외에 여진의 추장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요을내(要乙乃), 알나(闕那) 등이 등장한다. 그리고 『신당서(新唐書)』와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탐라 관련 기사에서 탐라와 부여, 고구려와의 긴밀한 관련성이 확인되어 고을나, 부을나의 출처에 대해 단서를 제공한다. 용담동 제사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초기 철기 유물이나 고구려 계통의 무기단 적석 양식의 묘제(墓制) 그리고 초감제에서 “우리나라 고구려 신(臣) 배포도업 제이르자. 왕이 나사 국입고, 국이 나 왕입네다.”(정주병본) 등의 근거는 현전 <삼을나전승>에 녹아 있는 부여, 고구려계 집단과의 관련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초감제>에서 영평(永平) 8년 곧 기원후 1세기경에 삼을나가 출현했다 하고, 고대 탐라 관련 문헌 기록들과 유물 등을 포괄하여 연대를 비정하면 대체로 고대 탐라국의 역사적 출발이 기원후 1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근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전 <삼을나전승>의 삼을나 가운데 고을나와 부을나는 제주의 토착 세력이 아니라 부여와 고구려에 족원을 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양을나의 성씨가 본디 ‘양(梁)’이 아니라 ‘양(良)’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나 육지의 중앙정부에 대한 양이목사 전승을 고려할 때 토착 세력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래의 탐라국 건국시조전승은 오랜 기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탐라국이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공식적 노선을 표방한 고려에 완전히 복속된 1105년을 기점으로, 어느 시기에 탐라국의 건국시조전승이었던 신화가 일개 군현이 되어 버린 탐라의 성씨시조전승으로 한 단계 격이 낮아진 형태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가 현재의 <삼을나전승>이라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려가 고구려를 공식적으로 계승한 국가였고 기원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부여, 고구려계 집단의 입도 사실을 견인하여 세신인의 성씨를 확정함으로써 고려와 탐라의 혈통상 동질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지역 <구농아방본풀이>의 내용이 고려 태조 왕건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삼을나전승>의 재편 과정에 고려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한다. 구농아방 왕 장군이 동해 용왕을 도와 서해 용왕을 없애고, 그 딸인 용녀와 결혼하여 왕근·왕빈·왕사랑 삼 형제를 낳았다는 내용이다. 이때 등장하는 ‘구농어명은 희속에낭’이라는 대목에서 ‘희속에낭’은 고려 태조 왕건의 모친인 위숙왕후(威肅王后)의 와음(訛音)으로 볼 수 있으며, 딸이들인 왕근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과 일치한다.

결국 이 신화는 고려 왕실의 신화적 전승을 무속신화로 옮겨 노래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주도 왕건의 가계와 관련된 중요한 신화를 무속신화로 전승하는 이면에는 고대 탐라국의 고려 복속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삼성혈
제주도 제주시 이도동, 국립민속박물관

다. 이렇게 보면, 원래의 탐라국 건국시조신화에 있던 창세신화적 요소 가운데 그 서두만 살려 두고 세신인의 성을 확정하는 성씨시조전승이 급격하게 결합하는 양상으로 <삼을나전승>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재편된 <삼을나전승>이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탐라의 성씨시조전승으로 자리 잡아 1416년에 『성주고씨가전(屋主高氏家傳)』이 정이오(鄭以吾)에 의해 편찬되고, 1454년에 이르러 『고려사』 「지리지」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할 것이다.

출처 高麗史地理志, 屋主高氏家傳, 世宗實錄地理志, 瀛州誌.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한국의 신화(서대석, 집문당, 1997),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박종성, 태학사, 1999).

필자 박종성(朴鍾聲)

신화

삼승할망본풀이

민담 삼승할망본풀이

민담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정의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소년이 집을 떠나 삼정승 딸과 혼인하여 도액(度厄, 액막이)하고 출세한 뒤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산다는 민담.

줄거리 어떤 부잣집에 중이 시주를 받으러 오자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시켜 바람에 쌀을 부어 주도록 했다. 그런데 시주를 받은 중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를 본 어머니가 중을 집안으로 모시고 그 이유를 물으니 시주승이 말하길 아들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 일찍 죽을 운이라고 했다. 깜짝 놀라 살려 낼 방도를 묻는 어머니에게 시주승은 아들을 집에서 내보내 삼정승 딸과 혼인시켜야 살릴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삼정승의 딸과 혼인시킬 방도를 찾지 못한 부부는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다. 외동아들이 이유를 묻자 부부는 할 수 없이 시주승의 예언을 모두 말해 주었다. 그제야 자신이 단명할 팔자라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집을 떠나 유랑하다가 서울로 올라가 팔죽장사 집에 머물면서 몇 달을 소일하며 지냈다. 그랬더니 팔죽장사 노파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소년은 자초지종을 얘기하였다. 노파는 어떻게든 소년을 도와주고 싶어서 삼정승의 딸들이 모여 공부하는 초당에서 몸종으로 일하고 있는 자기 딸에게 소년을 도와주라고 했다. 노파의 딸은 소년을 치마속에 감추어 삼정승 딸들이 머무는 초당으로 데려갔다. 소년이 삼정승 딸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녀들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서 소년을 방안에서 숨여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며칠 후 커다란 호랑이가 초당 앞에 나타나 아우성을 쳤지만 삼정승 딸들이 주역을 잃어 물리쳤다. 그 후 삼정승의 딸들은 소년을 가르쳐 과거에 급제시키고 부모에게 전후 사실을 말씀드려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사위로 인정받았다. 소년은 세 부인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

변이 <삼정승 딸 얻은 단명 소년> 이야기는 단명 또는 호식당할 운명을 지닌 소년이 세 처녀의 도움을 받아 도액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자료에서는 과거급제 및 사위인정 화소가 탈락되거나, 혼례를 치른 첫날밤에 신부가 피살되어 살인범의 누명을 썼다가 가까스로 벗어난다는 등의 내용이 부가되는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삼정승 딸 얻은 단명 소년>의 서사구조는 크게 예언-고행-도액-행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명담의 보편적인 순차단락이라 할 수 있는 예언과 행운은 각기 결핍과 충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결핍을 극복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고행과 도액 부분은 팔죽장사 노파 및 삼정승 딸과 같은 보조적 인물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어 준다. 특히, 삼정승 딸은 여성 사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녀들은 외부인의 출입이 어렵고 세속과 단절된 신성공간에 거처하면서 주역을 외위 호랑이를 물리치는 도액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따라

서 삼정승 딸들은 무속적 도액의례를 주관하는 무당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년의 도액과정은 성년의례로서의 구조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출가-도액-귀가로 이어지는 도액과정은 분리-전이-통합이라는 통과의례의 단계와 서로 상응한다. 생애주기 차원에서 보면 소년은 도액의례를 거쳐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바뀌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급제자와 정승의 사위라는 수직적 지위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문 차원에서는 세 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물로 전환된다. 그러므로 소년의 도액과정은 생애주기적, 사회적, 가문적 차원에서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징 <삼정승 딸 얻은 단명 소년설화>는 출가나 유랑과 같이 고행을 거쳐 도액하는 이야기, 밤나무 천 그루를 심는 행위를 통해 도액하는 이야기, 밤새 경문을 읽어 호환을 물리치는 이야기와 함께 모종의 도액행위를 통한 운명의 변역을 보여주는 연명담의 하위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 설화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부수적인 삽화와 다양한 보조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장수를 포함하여 부귀(富貴)와 다남(多男)까지 추구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이야기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연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운명담이라고 할 만하다.

의의 <삼정승 딸 얻은 단명 소년> 이야기는 한국인이 추구했던 행복관, 즉 수(壽)·부(富)·귀(貴)·다남(多男)을 두루 포괄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리 정해진 불행한 운명일지라도 적절한 방도를 통해 변역할 수 있다는 역명론적 운명관을 담고 있다. 이는 무속이나 불교와 관련된 도액신앙, 관상이나 사주팔자를 중시하는 민간신앙과 생활 풍속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설화는 <홍연전>, <반필석전>, <전관산전>, <사대장전>, <십생구사> 등의 고소설 필사본에 유사한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어 설화가 소설로 전변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기도 하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494; 5-1, 81; 5-7, 276.

참고문헌 구할자본 고소설전집(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은하출판사, 1985), 반필석전 논고(소재영, 한국문학 1월, 1975), 연명설화고(정규복, 여문논집11,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68), 전관산전 연구(조상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한국 서사문학에 나타난 연명담 연구(최인항,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한국운명설화연구(정재민, 제이앤씨, 2009), 홍연전 연구(김정성, 성대문학 27,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필자 정재민(鄭在珉)

삼족구

三足狗

정의 다리를 세 개만 가지고 있고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삼족구(三足狗)와 관련된 설화.

줄거리 구미호가 예쁜 여자로 변해 은나라 주왕(紂王)의 첩인 달기(妲己)가 되었다. 주왕의 마음을 얻은 달기는 주왕에게 구슬로 집을 지어 달라고 했다. 주왕이 달기에게 구슬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니, 달기는 강태공(姜太公)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최고의 책사인 강태공이 두려웠던 달기는 강태공에게 구슬로 집을 지으라고 해 놓고 못 짓는다고 하면 주왕의 명으로 죽일 계획이었다. 주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강태공은 천자의 곁에 서 있는 여인이 구미호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그래서 구슬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는 물러 나와 멀리 도망쳐버렸다. 강태공이 도망간 사이 달기의 악행은 더욱 심해져서, 이른바 포락지형(炮烙之刑)으로 사람을 죽여 몰래 잡아먹기를 일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공이 다리가 셋 달린 삼족구를 얻어 다시 주왕에게 되돌아왔다. 강태공의 도포 안에 숨어 있던 삼족구는 달기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었다. 그러자 달기는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로 변하여 죽고 말았다.

변이 삼족구에 관한 설화의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뉜다. 그 하나는 천자(天子)나 왕의 부인으로 둔갑하여 악행을 일삼는 구미호를 삼족구가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주왕의 첩인 달기나 궁예의 왕비 등이 구미호가 둔갑한 인물로 등장한다. 다른 하나는 구미호의 계약으로 살인 누명을 쓴 사람을 삼족구가 구한다는 내용이다. 삼족구가 둔갑한 구미호의 정체를 밝히고 물리치는 것은 두 유형에서 일치한다.

분석 아주 작은 몸집에 다리가 세 개인 사나운 개, 삼족구가 꼬리가 아홉씩이나 달린 천년 묵은 여우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족구가 그만큼 신이한 동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설화에서 삼족구가 사람으로 둔갑한 쥐나 저승사자를 퇴치하는 것을 보면, 삼살개와 마찬가지로 악귀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신이한 개로 여겨졌던 것 같다.

의의 〈삼족구설화〉는 승리한 자가 패망한 나라의 어두운 역사를 초자연적 상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며 철저히 폄하하려는

역사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둔갑한 여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여, 이미 그 나라는 천명을 잃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2, 84; 806.

참고문헌 구미호에게는 내가 천적(이홍우, 우리 고전캐릭터의 모든 것, 휴머니스트, 2008). 설화 속 동물 인간을 말하다(심우장 외, 책과함께, 2008). 숫자 3의 비밀(김중대, 사파리, 2007).

필자 심우장(沈惠章)

삼족오

三足鳥

정의 태양 안에 산다거나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 발 달린 상상의 새에 관한 설화.

역사 중국 기록을 보면 삼족오(三足鳥)의 이름은 태양 안에 있는 흑점이 까마귀처럼 보인 데서 비롯하며, 발이 세 개인 것에 대해서는 양(陽)을 나타내는 수라는 설과 태양을 달리 일컫는 말이라는 설이 있다. 한국 자료로는 진파리 1호분, 덕화리 1호분 등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삼족오를 두루 확인할 수 있다. 대개는 공작 벼슬을 달고 있으며, 날아오르려고 하거나 날개를 접고 앉아서 있는 까마귀의 모습으로 원륜(圓輪) 안에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까마귀의 모습 대신에 비둘기나 기러기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예도 있다. 그리고 삼족오의 문양은 고려 지광국사현묘탑비(址智光國師塔碑), 삼보명자수가사(三寶名刺繡袈裟)와 조선시대 이곤(李



삼족오
쌍영총

坤, 1462~1524)의 묘비, 박운(朴雲, 1493~1562)의 묘표 등에 서도 확인된다.

줄거리 삼족오로 추정되는 새가 등장하는 설화는 두 편이 있다. 구전으로는 〈금오산전설〉을 들 수 있다. 금오산(金烏山)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산인데, 금오산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금오산은 원래 대본산(大本山)이었다. 당나라 국사가 빛을 내며 나는 새를 따라왔더니 이 금오산에 와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후로 까마귀가 빛을 내어 날아왔다고 하여 금오산이 되었다고 한다.”라는 전설이 소개되어 있다. 문헌으로는 〈연오랑세오녀〉를 들 수 있다. 157년(아달라왕 4)에 동해 바닷가에 살던 연오와 세오 부부가 움직이는 바위를 타고 일본에 가자 일본 사람들이 두 사람을 왕과 귀비로 모셨다. 그때 신라에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졌다. 변고를 살핀 관원이 해와 달의 정기가 신라에 있다가 일본에 갔기 때문에 이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달라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연오와 세오 부부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연오는 아내인 세오가 짠 비단을 신라에 가져가서 하늘에 제사지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하였더니 해와 달이 것처럼 다시 밝아졌다.

분석 〈금오산전설〉에는 태양조(太陽鳥)인 까마귀가 지명전설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연오랑세오녀〉에는 인격화되어 등장한다. 해가 지상의 임금에 비유되는 천체라는 점에서 볼 때, 〈금오산전설〉의 까마귀는 정치적 권력의 상징물에서 퇴색하여 그저 하나의 신물로만 남아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특징 〈사금갑(射琴匣)〉에는 까마귀가 신조로 등장한다. 까마귀가 날아와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음을 알려 주는데, 그 때문에 왕은 죽을 위기를 모면한다. 그래서 왕은 까마귀를 기념하여 정월 대보름을 오기일(烏忌日)로 정하고 찰밥을 지어 제사지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족오에 대한 신화적 숭배가 만들어 낸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삼족오설화〉는 고구려의 문화 유물에서 나타나는 상징으로서, 고구려 민족의 태양 숭배와 신화적 표상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三國遺事, 금오산 도립공원(geumo.net).

참고문헌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전호태, 풀빛, 1999). 삼족오설화와 문학연구(윤경수, 부산외국어대학교논집1,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85).

필자 최원오(崔元午)

삼척해신당신화

三陟海神堂神話

정의 강원도 삼척시 갈남마을의 해신당에 전해 오는 신화.

역사 이 신화는 약 400여 년 전 임진왜란 이후부터 전해진다. 갈남지역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마을에서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계를 지냈는데, 이때부터 해신당신화는 제의와 함께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옛날 삼척 갈남에 서로 사랑하는 처녀 총각이 살았다. 어느 날 처녀는 미역을 따기 위해 사랑하는 총각의 배를 타고, 미역이 많이 붙은 바위로 갔다. 총각이 처녀를 바위에 내려 주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 미역을 따던 처녀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처녀는 살려달라고 외치며 애를 쓰다 끝내 죽고 말았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살려고 애쓰다 죽은 바위라 하여 ‘애바위’라고 불렀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바다에 흉년이 들어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조업하려고 배가 바다에 나가면 전복되어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였다. 계속된 흉년에 고기는 잡히지 않았으며, 마을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의 꿈에 죽은 처녀가 나타나 자기가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니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처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서낭당을 짓고 제를 지냈으며,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나무로 깎은 남근(男根)을 제물로 바쳤다. 그 후로 마을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고,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도 사고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변이 여신에게 남근을 바쳤다는 내용의 신화는 동해안 어촌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며, 그 내용도 거의 같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 최북단에 있는 고성군 문암에서는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 나무로 깎은 남근을 바닷가 바위에 꽂아 두며, 고성군 가진에서는 남근을 따로 봉헌하지는 않지만 여신을 모시는 서낭당의 위패를 남근 모양으로 깎아 둔다. 그 밖에 고성군 대진, 가진, 공현진, 아야진, 양양군 오산, 수산, 기사문, 강릉시 강문, 안목, 정동2리, 동해시 대진, 어달, 삼척시 정라진, 장호2리, 임원에서는 여신에게 수소의 생식기를 봉헌하고 있다. 이 역시 상징적인 면에서는 남근을 깎아 봉헌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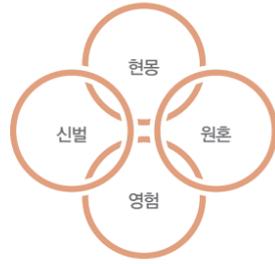


금줄이 쳐진 당집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이 신화가 전승되고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안의 남쪽 끝 자락에 자리한 삼척시 갈남마을이다. 동해안 일대에서 전해지고 있는 남근 봉헌 풍속은 해안형과 내륙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동해안 일대의 해안가에 자리하고 있는 서낭당의 성격이 여성임을 상기할 때, 여신에게 만족감을 준다는 관점에서 성의 풍요적 의미를 상징하며 아직도 전승적 요소가 퇴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해안가에 위치한 남근석은 기사석 또는 수구막이로서의 기능과 함께 풍요와 주술로 신봉되고 있다. 특히 어부들은 수소의 고기나 머리 또는 신낭(腎囊)을 흠향한 여신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어를 보장한다고 믿고 있다. 수소 고기는 반드시 여신을 모시는 서낭당에만 쓰는데, 남신을 모시는 서낭당에는 생선이나 다른 종류의 고기를 제물로 쓴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행동은 성적 결합을 통하여 신화의 주인공인 여신을 달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동해안 어촌의 신화에서 마을의 신으로 모시는 신화의 주인공은 입향조·현몽·원혼·부래·신



삼척해신당 당신도
강원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국립민속박물관



행위소의 결합구조

주인공은 죽은 후 마을에 흉어와 기근을 가져오고(신벌), 마을 노인의 꿈에 나타나서(현몽), 처녀로 죽은 억울함을 호소하며(원혼), 남근을 제물로 바침으로 마을에는 풍어와 안녕을 가져왔다(영험)는 것이다.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현몽·원혼·신벌·영험 사이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친연성을 보인다. 네 개의 행위소 중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세 개의 행위소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는 거의 완벽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나 다소 변이를 가져온다고 해도 신화로서 강한 전승력을 지니게 된다. 이 신화는 한국문화에서 여성이 다산(多産)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처녀신에게 남근으로 결핍된 남성을 채워 주어 하나의 완벽한 여성으로 만들어 줌과 동시에 어촌 마을에 풍어라는 생산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부들이 자신의 삶을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는 늘 위험한 공간임을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목숨을 담보로 삶을 영위하는 어부들에게 바다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여신을 모시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 이 신화는 현몽·원혼·신벌·영험 네 가지의 행위소를 지니고 있다. 신화가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는 것은 이 마을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공동체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이 신화를 테마로 하여 해신당 공원, 어촌민속전시관이 건립되어 성(性)을 주제로 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의의 이 신화에서 신화의 주인공은 흉어와 해상 사고가 일어나자, 그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모셔진 경우이다. 신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신화는 동해안 어촌 신화 중에서 서사구조가 거의 완벽한 신화로 전승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이승철,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설화(최용·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실직문화논총1(김영기, 실직문화연구회,

별·영험의 여섯 가지 유형의 ‘행위소(actant)’가 있다. 이 중에서 <삼척해신당신화>의 행위소는 현몽·원혼·신벌·영험 네 가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마름모형이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왼쪽과 같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죽은 후 마을에 흉어와 기근을 가져오고(신벌), 마을 노인의 꿈에 나타나서(현몽), 처녀로 죽은 억울함을 호소하며(원혼), 남근을 제물로 바침으로 마을에는 풍어와 안녕을 가져왔다(영험)는 것이다.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현몽·원혼·신벌·영험 사이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친연성을 보인다. 네 개의 행위소 중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세 개의 행위소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는 거의 완벽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나 다소 변이를 가져온다고 해도 신화로서 강한 전승력을 지니게 된다. 이 신화는 한국문화에서 여성이 다산(多産)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처녀신에게 남근으로 결핍된 남성을 채워 주어 하나의 완벽한 여성으로 만들어 줌과 동시에 어촌 마을에 풍어라는 생산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부들이 자신의 삶을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는 늘 위험한 공간임을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목숨을 담보로 삶을 영위하는 어부들에게 바다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여신을 모시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신화의 주인공은 죽은 후 마을에 흉어와 기근을 가져오고(신벌), 마을 노인의 꿈에 나타나서(현몽), 처녀로 죽은 억울함을 호소하며(원혼), 남근을 제물로 바침으로 마을에는 풍어와 안녕을 가져왔다(영험)는 것이다. 이 행위소의 결합 구조는 현몽·원혼·신벌·영험 사이에서 서로 떨어지지 않는 친연성을 보인다. 네 개의 행위소 중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세 개의 행위소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신화는 거의 완벽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세월이 지나 다소 변이를 가져온다고 해도 신화로서 강한 전승력을 지니게 된다. 이 신화는 한국문화에서 여성이 다산(多産)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처녀신에게 남근으로 결핍된 남성을 채워 주어 하나의 완벽한 여성으로 만들어 줌과 동시에 어촌 마을에 풍어라는 생산성을 기원하는 것이다. 또한 어부들이 자신의 삶을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는 늘 위험한 공간임을 대변하는 말이다. 따라서 목숨을 담보로 삶을 영위하는 어부들에게 바다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다의 신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여신을 모시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 이 신화는 현몽·원혼·신벌·영험 네 가지의 행위소를 지니고 있다. 신화가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는 것은 이 마을의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공동체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이 신화를 테마로 하여 해신당 공원, 어촌민속전시관이 건립되어 성(性)을 주제로 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의의 이 신화에서 신화의 주인공은 흉어와 해상 사고가 일어나자, 그를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모셔진 경우이다. 신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이 신화는 동해안 어촌 신화 중에서 서사구조가 거의 완벽한 신화로 전승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이승철,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설화(최용·김용구, 국학자료원, 1998), 실직문화논총1(김영기, 실직문화연구회,

1989), 한국민간신앙연구(김태곤, 집문당, 1994), 한국의 해양문화 4(해양수산부, 2002).

참고문헌 민간신앙으로 본 성(장장식, 한국의 민속과 성, 지식산업사, 1997), 성기신앙 연구(김태곤, 한국종교1,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71), 성기신앙의 형태와 성격(장장식, 한국민속학27, 한국민속학회, 1995), 한국 강릉지역의 설화(두창구, 국학자료원, 1999).

필자 이승철(李昇哲)

민담

삼천갑자동방삭

三千甲子東方朔

정의 동방삭(東方朔)이 삼천갑자(三千甲子)를 살고 죽었다는 설화.

역사 중국 문헌설화에서 동방삭은 서왕모의 선도(仙桃)를 훔친 인물로 소개되어 있다. <삼천갑자동방삭>은 동방삭이 숲을 셋어 하얗게 만든다는 저승차사의 수법에 걸려들어 어이 없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단천유래전설(炭川由來專說)>이 되기도 한다.

줄거리 동방삭은 다른 사람 눈에 구멍을 뚫어서 자신의 눈에 물을 댄다. 눈 주인인 봉사가 시비하러 왔다가 수명도 짧으면서 나쁜 짓을 한다고 한다. 이에 봉사에게 수명을 연장할 방법을 물으니 저승차사에게 밥, 돈, 신발 등을 대접하라고 알려 준다. 대접을 받은 저승차사는 명부 담당자가 조는 사이에 동방삭의 수명 ‘삼십’을 ‘삼천’으로 고친다. 동방삭이 삼천 살을 살게 되자 귀신같이 똑똑해져서 잡히지 않는다. 저승차사들이 피를 내어 물가에서 숲을 셋으면서 숲을 하얗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자, 동방삭이 “삼천갑자를 살았지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라고 한다. 이에 저승차사가 동방삭임을 알고 잡아간다.

변이 <삼천갑자동방삭>은 숲 셋는 저승차사에게 잡혀간 설화, 저승차사를 대접하여 수명을 연장한 설화 그리고 이들이 복합된 설화가 있다. 그중 복합된 설화가 가장 많으며 이들은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연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승차사를 대접한 것 외에 ‘동냥 귀신을 만나서, 노인을 대접해서, 서왕모 복숭아를 훔쳐 먹어서’ 등이 있는데 복숭아를 훔쳐 먹는 내용은 중국 설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동방삭이 죽은 이유는 대부분 숲 셋는 차사의 피에 넘어갔기 때문인데 아내의 고자질 때문으로 바뀐 예도 있다.

분석 동방삭은 중국의 역사적 인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삼천갑자동방삭’으로 수명이 가장 길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구전된다. 무가에서 부자의 대명사인 석승과 함께 장수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한편 ‘삼천갑자’의 구체적 기간에 대해 갑자(甲子)를 해로 풀이해서 3,000세라고 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세 갑자로 해석해서 180세로, 또 500세나 14,000세로 설명한 예도 있다.

의의 <삼천갑자동방삭>은 수명에 대한 서민의 인식을 보여 준다. 즉 인간에게는 단명할 운수가 있으며, 명부(冥府)에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운명관을 보여 주는 한편, 연명 이야기를 통해 수명이 변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보여 준다. 그러나 그 계기는 이인(異人)을 만나 연명 방법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우연히 획득된다고 한다. 이처럼 수명은 정해져 있지만 바꿀 수도 있으며, 이는 우연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이 <동방삭설화>에 나타난 운명관이다.

출처 列仙傳, 漢武故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8, 541; 5-4, 140; 7-2, 734.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중국인물 연구(손지봉, 박이정, 1999), 한국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정재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한중 운명설화 비교연구(박명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필자 손지봉(孫志鳳)

전설

삼태성

三台星

정의 큰곰자리에 딸린 자미성(紫微星)을 지키는 별자리인 삼태성(三台星)의 생성에 관한 설화.

줄거리 밤하늘에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삼 형제 별을 삼태성이라 부른다. 옛날 흑룡담 늪가에 유복자로 태어난 삼 태자가 있었는데, 어머니에 의해 각각 스승을 찾아 십 년 동안 학문과 재주를 배우고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고 비가 퍼붓더니 해가 사라졌다. 사흘이 지나자 어머니가 해를 찾아오라며 삼 태자를 떠나보냈다. 삼 태자가 만이의 스승에게 연유를 알아보니, 흑룡담의 암수 흑룡(黑龍) 두 마리가 하늘에서 행패를 부리다 암놈이 해를 삼키고 하늘 끝으로 올라가자 수놈도 따라갔다는 것이다. 삼 태자가 두 흑룡과 대결하며 침내 암놈이 해를 토하게 했다. 그리하여 인간 세상에 다시 밝은 날이 돌아왔다. 삼 태자가 한 마리는 죽었으나, 다른 한 마리는 흑룡담으로 도망갔다. 도망간 흑룡이 다시 해

를 삼키지 못하도록 삼 태자가 하늘에 올라 해를 지키는 삼태성이 되었다.

분석 세 쌍둥이가 유복자로 설정된 것은 환인, 해모수, 제석신에서 확인되는 ‘사라진 부신(父神)의 양상’과 관련된다. 전체 서사는 세계적 분포를 보이는 악룡을 퇴치하는 영웅담에 해당하고, 퇴치 결과 해를 지키는 삼태성이 된 것은 개별성을 지닌다. 흑룡은 오행(五行)의 북방으로 물(水)에 대응하는데, 이것이 동방의 해(火)를 삼켰다. 해의 처소이기도 한 동방은 사령(四靈) 가운데 청룡(靑龍)에 해당하므로 ‘청룡을 제압한 흑룡’으로 해석된다. 삼 형제가 흑룡을 제압하고 해를 회복했다고 했으므로 삼태성은 물을 제압할 수 있는 속성(土)을 지니야 한다. 이는 방위상 중앙에 해당하며 황색(黃色)을 상징한다. 삼태성은 사람을 낳고 기르고 지켜 주는 신장(神將)으로서 각 방위의 신장 역할을 하는 사두성(四斗星, 東斗七星·西斗七星·南斗七星·北斗七星)이 만나는 중앙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중앙방위에 대응한다. 중앙의 삼태성이 북방의 흑룡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한 신화적 발상은 사두성과의 관계를 볼 때 실상에 부합한다.

특징 이 설화는 삼태성의 생성 내력과 유행 경로를 전하고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의 삼태성 위치와 연관지을 수 있다. 또 삼 형제가 흑룡을 제압하는 양상은 청룡에서 황룡으로의 변화·상승의 의미를 지녀 (주몽신화)에서 주몽이 금(水)과 대결하는 양상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석본풀이>와 내용이 같은 각편도 있는데, 여기서는 삼불 제석이 세 쌍둥이와 대응한다. 또 평양의 정운학본 <삼태자풀이>와 연계해 보면, 삼 태자(삼불 제석)와 <삼태성>의 삼 형제가 모두 삼태성 기운을 받아 태어났고 <제석본풀이>의 제석님이 친신이자 태양신인 점이 <삼태성>의 신승(神僧)과 대응하여 삼불 제석과 삼태성의 성격이 같다. 그러나 인간에서 신으로의 좌정이 아니라 죽은 뒤 삼태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와 다르다. 본풀이가 아닌 별자리 전설인 것이다. 삼 형제의 묘가 옆으로 나란히 있기에 하늘에 뜬 삼태성이 세로로 나왔다가 옆으로 나란히 진다는 식으로 별자리 움직임을 설명해 관계성을 밝혔다.

출처 민담집 삼태성(김명환 수집·정리, 연변인민출판사, 1983), 한국민화에 대하여(손진태, 역락, 2000).

참고문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고찰(김일권, 백산학보47, 백산학회, 1996), 구비전승의 삼태성과 북두칠성신화 일고(박종성, 구비문학연구16, 한국구비문화회, 2003), 관서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한국무가의 연구(서대석, 문학사상사, 1980),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한국민간신앙의 연구(최길성, 계명대학교출판부, 1989).

필자 박종성(朴鍾聲)

전설

삼학도

三鶴島

정의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산(儒達山)의 한 장수가 세 처녀가 탄 배를 활로 쏘자 섬이 생겼다는 삼학도에 얽힌 전설.

역사 유달산과 삼학도의 관계를 말해 주는 설화로, 몇 가지 변이 형태가 남아 있다가 개항 이후 확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전남 목포시 유달산에 이목구비가 수려한 젊은 장수가 홀로 살았다. 이 장수는 시와 노래는 물론 칼 쓰기와 활쏘기를 잘했다. 그때 유달산 아래 갯마을에 예쁜 아가씨 세 명이 살았는데, 셋은 유달산 아래 우물가로 함께 물을 길으러 다녔다. 세 아가씨는 수련에 열중한 젊은 장수를 종종 보다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수련에 전념해야 할 젊은 장수 역시 세 아가씨의 친절과 유혹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젊은 장수는 아가씨들을 불러 자기를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튿날 새벽 세 아가씨는 작은 배를 타고 목포항을 떠났다. 정들었던 유달산 갯마을을 떠나는 세 아가씨를 바라보던 젊은 장수는 건잡을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젊은 장수는 하는 수 없이 활을 쏘아 배를 멈추고자 하였지만, 화살에 맞은 배는 점점 기울어 갔다. 배가 침몰하자 세 아가씨는 학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학이 오른 자리에는 나란히 섬 세 개가 생겼다.

변이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설화이지만 몇 가지 변이를 보여 준다. 더 근본적인 줄거리는 삼학도가 학처럼 생겼다는 설과 학이 많이 날아들었다는 설을 들 수 있다. 변이 중 큰 형태는 첫째, 수도생활을 우선시하는 이야기, 둘째, 사랑을 우선시하는 이야기, 셋째, 수도생활과 사랑이 양립하는 이야기 등으로 나뉜다. 유달산 선비가 섬의 세 아가씨와 연정이 싹트려고 하자 아가씨들이 탄 배를 침몰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장수와 세 아가씨가 등장하고 장수가 흑산도로 세 아가씨를 보내려 하다가 화살을 쏘아 배를 침몰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목포시 유달산과 주변 도서 지역 간의 관계가 모티브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석 <삼학도전설>은 유달산과 그 부속 도서 격인 삼학도의 관계를 장수와 아가씨들의 관계로 설정하여 이루지 못한 사랑이야기로 구성한다. 신안, 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다도

해 도서들의 지역 전설에서 부속 도서 간 관계를 설화적으로 설명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유달산 은금동 마을 뒤편에 있는 ‘장사바위’와 삼학도의 ‘세 아가씨’ 또한 경관 혹은 배길 등의 관계로 읽을 수 있다.

특징 서남해 인근 도서 지역에는 심신수련을 하던 장수가 예쁜 아가씨 때문에 벼락을 맞아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 조각들이 섬이 되었다는 전설이 분포한다. 그러나 <삼학도전설>은 장수가 직접 활을 쏘아 세 아가씨들이 탄 배를 침몰시키고, 아가씨들의 낮이 학이 되어 날아올랐다가 섬이 된다는 줄거리이다. 유달산은 지명에서 나타나듯이 유교 나아가 불교 관련 수도처라는 장소의 의미가 있으며, <삼학도전설>은 벼락과 같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간이 사건을 직접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의의 유달산 포구와 삼학도라는 섬의 지리적 관련성을 암시한다. 유교, 불교적 수도처라는 장소의 성격은 물론 뱃사람들이 의례나 출어 등에 여성을 극단적으로 금기하는 일반적인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유달산(유달산공원회추진위원회, 1990), 한국지명총람14(한글학회, 1988), 목포시청(mokpo.go.kr).

참고문헌 務安木浦鎮地圖, 수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부활하는 목포 삼학도(최성환, 플랫폼21, 인천문화재단, 2010), 목포팔경과 목포문화의 수수께끼(정태영, 뉴스투데이, 2005).

필자 이운선(李允先)

용어

삼화

挿話, episode

정의 단락소가 앞뒤와 인과관계(因果關係)를 맺어서 고차적인 사건으로 발전하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 여러 작은 이야기. 또는 한 이야기 중에 같은 주제를 부각하기 위하여 나열하여 들어간 작은 이야기들.

내용 짧은 이야기 하나가 삼화 하나이기도 한다. 이때는 삼화란 말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딸을 시집보내면서 시댁에서는 무엇이나 “님”자를 말하라고 하였더니, 이 딸이 시집가서 시동생이 바지를 입지 않고 다니니까, “시동생님이 부랄님을 너털님 너털님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설화가 길면 여러 삼화가 있다. <장자못전설>을 보면, “부

자가 중에게 쇠뿔을 주었더니 장자 집이 벌을 받아 함몰해서 연못이 되었다.”라는 장자 삼화와, “중이 머느리에게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라고 말하였는데도 뒤를 돌아다보아서 돌이 되었다.”라는 머느리 삼화가 있다. <우렁각시>를 보면, “우렁각시가 총각과 결혼하여 잘 살았다.”라는 결혼 삼화와, “우렁각시가 원님에 붙들려가서 애통한 총각이 죽었다.”라는 이별 삼화 등 두 삼화가 있다. 금강산의 <선녀와 나무꾼>은 “나무꾼이 선녀와 잘 살았다.”와, “금기를 어겨 선녀를 잃은 나무꾼은 지상에서 슬프게 홀로 살았다.”와,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니 나무꾼이 뒤따라 하늘에 올라가서 잘 살았다.”와, “나무꾼이 잠시 지상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종내 하늘에 못 올라갔다.”라는 네 삼화가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개 삼화로 된 것도 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삼화가 앞뒤와 인과관계를 맺어서 앞 삼화가 없으면 뒤 삼화도 없는 경우와, <봉이 김선달 설화>처럼 웃기는 짧은 이야기들을 시리즈 식으로 나열(羅列), 병렬(並列)하여 여러 개의 삼화가 앞뒤 순서나 인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필자 최래옥(崔來沃)

민담

상가승무노인탄

喪歌僧舞老人嘆

정의 가난하지만 효심이 깊은 젊은 내외가 제사상을 차리면서 벌어진 이야기와 이들의 효행에 탄복한 임금의 그 효심을 표창한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 임금(또는 숙종)이 미복잠행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저녁 한 고을을 지나가는데, 상주가 노래하고 여승이 춤을 추고 노인이 탄식하며 앉아 있었다. 임금이 그 연유를 물으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오늘이 마누라 제삿날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머느리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아 제물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식발한 머느리는 춤을 춘다고 했다.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아들 내외의 눈물겨운 정경을 목격한 임금은 아들에게 나라에서 별과가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한다. 아들이 시험장에 가보니 시제가 ‘상가승무노인탄(喪歌僧舞老人嘆)’, 즉 ‘상주는 노래하고 스님은 춤추고 노인은 탄식한다.’라는 내용이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빗대어 글을 지어 장원급제하

였고, 높은 벼슬에 올라 잘 살았다.

분석 가난 때문에 제물을 장만하기 어려운 자식 내외의 눈물겨운 사연을 담은 효행설화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4편이 수록될 정도로 널리 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효행설화는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대부분으로, 효행의 주체는 자식이며 그 대상은 부모이다. 이때 자식은 친자식뿐만 아니라 양자와 며느리도 포함된다. 효행설화 중에는 그 주체가 효이건 불효이건 간에 이야기의 흐름이 며느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많다. 부모에게 며느리는 아들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한편 효행설화에는 비범하고 신이한 요소가 들어 있지만, 대부분 현실적 문맥에 토대를 두고 이야기가 전개된다.

의의 우리나라 설화를 채록하다 보면 효행담이나 열녀담이 많이 나온다. 이 설화는 이러한 효행담의 하나이며, 효는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중요한 덕목이다. 부모를 잘 받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보본의식(報本意識)의 발로이다. 그래서 효행설화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채 오늘날에도 전승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1; 5-2, 178; 5-5, 115; 7-7, 438; 8-7, 420.

참고문헌 구비 효행설화의 거시적 조망(김대수, 구비문학연구3, 한국구비문학회, 1996), 이화공 연구(최인숙,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국의 민담 2(최문식, 시인사, 1999), 효·불효설화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문학적 상상과 문화 문법에 관한 비판적 독해(최가숙,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효행설화의 고난 해결방식과 그 의미(박영주, 도남학보16, 도남학회, 1997).

필자 강재철(姜在哲)

민담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뎀 말

정의 가난하게 사는 친정아버지가 딸네에 상객(上客)으로 갔다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몰래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켜지만, 딸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다는 설화.

줄거리 어떤 영감이 배가 고파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을 찾아갔다. 마침 딸은 팔죽을 쑤어 둔 것이 있어서 아버지께 대접했는데, 아버지는 부족했지만 체면을 차리느라 말을 하지 못했다. 밤이 되자 배고픔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동이째 들고 나오다가 상투가 갈퀴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한참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다 웃

이 몽땅 벗겨졌는데, 안사돈이 새벽에 쇠죽을 끓이려고 나오다 그 모습을 보고 머느리를 불렀다. 딸은 재빨리 시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사돈집에서 창피를 당해야 자신이 잘산다는 말을 듣고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 위기를 모면했다.

변이 딸이 죽을 내왔다고 아예 먹지를 앓다가 배가 고파 밤에 훔쳐 먹다 걸리기도 하고,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못이나 조리에 걸리기도 한다. 늦그릇을 훔치다가 실수로 넘어져 들키기도 하는데, 딸의 변명으로 위기를 잘 모면하는 것 외에 상투가 걸린 것을 사돈이 붙잡았다고 착각해 도망가거나 창피해서 그냥 도망가는 실수담도 이 이야기의 변이형이다.

분석 이 설화에서 문제 상황은 병립적 구조로, 대립 요소가 상관관계에 있다. 가난한 아버지와 부잣집으로 시집간 딸의 상황과 친정아버지로서의 체면과 배고픔 사이에서의 갈등이 부풀려서 표현된다. 배고픔의 절실함만큼 사돈댁에서 엄격하게 차려야 할 체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결과는 까다롭게 예의를 지켜야 할 사돈댁에서 치욕스러운 실수를 하게 되는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때 문제 해결의 주체인 딸은 딸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담하고 순발력 있는 말로 아버지의 치명적인 실수를 무마한다. 극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실수와 그 실수를 한 번에 무마하는 딸의 재치가 대조되어 웃음을 고조시킨다.

특징 지혜담 중에서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위기 상황에서 단 한 번에 문제 해결에 이르는 재치있는 말을 하여 상황을 한순간에 반전시키는 묘미가 특징이다.

의의 전통적으로 가족공동체에서 가장 어려워 까다롭게 체면을 차려야 하는 곳이 딸이 시집간 사돈집이다. 가장 엄격하기에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운 관계 속에서, 수치스러운 실수를 한 아버지를 창피해하거나 내치지 않고 지혜로 감싸 안는 딸의 태도는 온정주의와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의 가족관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1988) 6-12, 261; 7-7, 556; 8-8, 551.

참고문헌 실수설화의 유형분류와 전승의식(강민경,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정은(金廷恩)

민담

상객의 망신

정의 상객(上客)이 사돈집에 가서 술로 인해 실수를 하여 망신을 당했다는 소화(笑話) 성격의 민담.

줄거리 옛날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평소에 형이 술을 과하게 마셨다. 어느 날 조카가 장가를 가게 되어서 형은 술을 안 먹기로 동생에게 약속을 하고 사돈집에 상객으로 가게 되었다. 상객은 몇 번 술을 거절했지만 결국 술에 취하여 바지에 똥을 썼다. 그래서 하인들이 바지를 벗겨 마당에 던지자 개가 물어 뜯어 찢어 버렸다. 벌거벗고 자던 상객은 밤중에 오줌을 누려 나갔다가 여자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잤다. 얼마 후 자다가 일어난 여자들에게 들켜 놀라 뛰쳐나가 다시 자던 방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마침 방에 어린애가 자고 있어서, 그 아이의 바지를 벗겨서 입었다. 다음 날 아침 상객은 나귀를 방 앞에 바짝 대고 떠날 준비를 했는데, 그때 아이가 일어나 자기 바지를 찾으며 울었다. 상객이 급히 나귀를 타려고 했지만 바지가 작아서 오르질 못하고 떨어졌다. 아이가 이것을 보고 사돈이 자기 바지를 입었다며 소리를 쳤다. 결국 상객은 바지를 뺏길까 봐 나귀도 버리고 내뺐다.

변이 이 설화의 변이를 보면, 우선 상객이 사돈집을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히 친정아버지가 딸의 소식이 궁금해 집에 들른 경우도 있지만, 혼인 후 신랑이나 신부의 후행(後行)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이때 주로 신랑의 큰아버지나 작은 아버지, 아버지가 상객으로 가는데, 대부분 평소에도 술이 지나쳐 실수를 많이 했던 인물로 묘사된다. 상객이 바지를 벗겨진 것은 자다가 방이 너무 더워 자발적으로 벗는 경우와 술에 취해서 바지에 똥을 싸는 바람에 바지를 못 입게 되는 경우로 나뉜다. 밤에 여자들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 계기는 오줌을 누러 나오거나 목이 말라 물을 먹으러 나왔다가 방을 착각해서이다. 상객이 자신의 바지 대신 입는 옷으로는 주로 고쟁이나 어린애의 바지로 변이를 보이지만 밀이 터져서 성기가 노출된다거나 바지가 작아 말을 타다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점은 동일하다.

분석 소화는 대체로 비정상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정상적인 기대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웃음이 나게 한다. 이 설화에서 보통 때에도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야 할 사돈집에서 술로 인해 연달아 실수를 하는 상객의 행동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상객의 실수는 ‘과음-바지 탈의-실수

로 여자들 방에 들어가기-고쟁이나 아이 바지 입기-말을 타다가 떨어지기’로 연이어 일어난다. 이렇게 상객이 연속해서 저지르는 실수는 ‘사돈집’이라는 특수한 장소 때문에 더 큰 웃음을 유발한다.

특징 이 설화는 (바보사위)나 (바보며느리)처럼 혼인 당사자들의 실수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 중 하나인 후행을 소재로 제삼자인 상객의 실수를 다루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소화 중에서 우행담(愚行譚)이나 치우담(痴愚譚)으로 분류되는 유형인데, 우리 문화에서 서로 어렵고 조심해야 할 사돈 관계에서 상객을 희화화해 웃음으로 풀어내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95; 2-5, 160; 2-6, 306; 605.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1971),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용, 일조각, 1983), 한중 소화의 비교(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필자 이홍우(李洪雨)

전설

상사바위

정의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생겨났다는 상사바위에 얽힌 전설.

역사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광포전설(廣布傳說)의 하나로, 인간의 본성보다 중세의 질서가 우선하던 시기에 형성된 설화이다.

줄거리 한 마을에 홀로 된 할아버지와 ‘피리’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았다. 피리는 할아버지를 잘 모셨고, 할아버지 또한 피리를 아꼈다. 피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할아버지는 무척 허전하였다. 어느 날 피리의 환상을 본 할아버지는 피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 피리가 사는 마을을 바라보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목을 매 죽었다. 할아버지는 바위로 변하여, 피리가 사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 뒤로 피리는 밤마다 뱀이 와서 몸을 휘감는 꿈을 꾸었다. 어느 날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 죽어서도 잊을 수 없어 괴롭다며 용서를 빌었다. 피리는 할아버지를 측은히 여겨 바위에 올라 뛰어내렸다. 그리고 바위 옆에 또 하나의

바위가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상사바위라 불렀다.

변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충청남도 논산시의 〈상사바위전설〉은 농부의 딸과 원님 아들의 이루지 못한 사랑 이야기이다. 처녀가 죽은 다음에 원님의 아들이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처녀가 죽은 바위로 와서 떨어져 죽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전설은 부자집 처녀와 가난한 어부의 사랑과 죽음 이야기이다. 고기잡이 갔다가 죽은 총각이 뱀으로 변하여 바위에서 기다리던 처녀를 안고 바다로 들어갔다. 경상남도 함양군 용추계곡의 전설은 동자승을 짝사랑하다가 죽은 처녀가 뱀이 되어 동자승을 바위 아래로 밀어 죽게 하였다. 경남 남해 이명산의 전설은 가난한 총각이 원님의 딸을 짝사랑하다가 죽어 뱀이 되었는데, 처녀의 몸을 감아 떨어지지 않자 바위에서 고통을 하여 떨어뜨려 죽게 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전설은 신림과 인연을 맺은 처녀가 신림의 승리를 빌다가 패사 소식을 듣고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남해군의 전설은 머슴 돌쇠가 주인 과부를 짝사랑하다가 병이 들자, 과부가 상사를 풀어주었다는 내용이다.

분석 〈상사바위전설〉은 사회의 관습, 신분, 윤리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거나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여건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다. 지역에 따른 변이와 관계없이 남녀 사이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인간성이 무시되는 중세의 윤리와 질서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징 〈상사바위전설〉의 대부분에는 같은 의미를 지닌 〈상사뱀전설〉이 포함된다. 특정 개체로서의 뱀이 증거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치 않는 바위를 증거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의의 남해군의 전설은 돌쇠의 한을 과부가 풀어주었다는 내용이다. 상사의 한을 풀었기 때문에 돌쇠는 죽지 않아도 되며, 상사바위 또한 비극의 공간이 아닌 상사 풀이의 공간으로 변이된다. 중세의 이데올로기가 약화되는 과정에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룬 이야기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놀래의 전설(논산문화원, 1981), 충주의 구비문화(충주시, 2002), 한국구비문화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4, 367, 남해군청(namhae.go.kr), 무안군청(muang.go.kr), 함양군청(hyang.go.kr).

참고문헌 상사뱀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 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18, 한국언어문화회, 2000).

필자 임철호(林哲鎬)

전설

상사뱀

상사뱀 청평사

정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뱀이 되어 연모하던 인물을 괴롭힌다는 설화.

역사 『용재총화(慵齋叢話)』에는 〈상사뱀설화〉가 두 편 실려 있는데 권4 〈홍재추와 여승〉은 여성 상사뱀 유형이고, 권5 〈보광사 승려〉는 남성 상사뱀 유형에 해당된다. 이 자료들에서 상사뱀으로 변하는 존재는 불승(佛僧)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인물 설정은 조선 전기 사대부 계층의 불교에 대한 시각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한편 『삽교만록(雪橋漫錄)』의 〈조정암(趙靜菴 일화)〉의 서사구조는 구전되는 여성 상사뱀 유형 〈조월천과 상사뱀〉과 동일한데, 처녀의 상여가 정암의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결말만 다를 뿐이다. 이처럼 동일한 의미 지향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 문화가 규범적 관점에서 다루었던 여성의 욕망을 인간적 관점에서 논의하지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이 구전설화에서는 ‘상사뱀으로의 변형’이라는 방식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줄거리 조월천이 열아홉 살 때 오성 대감 집에 글을 배우러 다녔다. 매일 자기 집 앞을 오가는 월천의 모습을 보고 이방의 딸 월이가 연정을 품게 되었다. 연모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편지를 써서 월천이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고 살펴보던 월이는 월천이 편지를 찢어 물속에 던져 버리자 낙심하여 병이 들었다. 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니 이방은 대감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딸이 월천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대감은 이튿날 공부하러 온 월천에게 월이를 한번 찾아갈 것을 당부했지만, 월천은 양반이 상민과 서로 말을 통할 수 없다며 거부하다가 대감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거듭 부탁하니 마지못해 승낙했다. 월천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의 집에서는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월천을 기다렸다. 월천은 저녁 무렵 살며시 그 집에 가기는 했지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한밤중이 되도록 처녀의 방문 앞에서 서 있다가 새벽녘에야 방 안으로 들어가 처녀의 머리맡에 앉았다. 월천이 살이 닿는 것을 꺼려하여 명주 수건을 여러 겹 손에 감고 처녀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으니, 이에 처녀는 자기가 상것이라서 손 닿는 것조차 꺼려한다며 절망하여 죽었다. 다음날 대감이 보니 죽은 처녀가 상사뱀이 되어 월천의 뒤를 따라오고 있으며

로 호통쳐 물러나게 했다. 대감은 상사뱀을 붓두껍에 넣어 월천에게 주면서 형제들에게도 절대 보이지 말라고 했다. 월천의 동생이 그것을 빼앗아 열었더니 뱀이 나와서 집안의 사람들을 해쳤다. 안동향사에 모셔 있는 월천의 영정은 항상 뱀이 감고 있었다 한다.

변이 〈상사뱀설화〉는 몇 개의 하위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일시적으로 상사뱀 되기’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욕망을 일으킨 남성이 상사뱀으로 변하여 상대 여성에게 접근하지만 여성 인물이 방비책을 마련하여 차단하는 유형이다. 〈상사뱀설화〉는 변형 주체에 따라 크게 여성 상사뱀, 남성 상사뱀으로 나눌 수 있다. 남성형과 여성형은 연모 대상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상사뱀으로 변형된다는 공통성이 있으나, 서술 내용이나 상사뱀의 대응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남성형은 〈상사바위〉 유형으로서, 상층 여성을 연모하는 하층 남성이 상사뱀으로 몸을 바꾸어 처녀의 몸에 밀착하자 견디지 못한 처녀가 상사풀이를 하러 나서지만 실패하여 함께 죽는다는 비극적 결말이 일반적이나, 〈청평사〉 유래담처럼 상사풀이에 성공하는 이본도 있다. 여성형의 경우, 연모 대상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유명 인물로 설정되고 이본에 따라 등장인물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 조월천·조남명·정인홍 같은 문신형 인물과 이순신·강감찬 같은 무신형 인물로 변이되며, 인물형의 변이에 따라 결말 구조가 달라지고 있음이 주목된다. 연모 대상이 문신형 인물인 이본들은 대립과 갈등의 지속이라는 결말을 보여 주는 데 비해, 무신형 인물의 경우 소통과 화해를 지향하는 결말을 보여 준다. 이처럼 역사적 인물의 명칭과 결말 구조의 상관성은 해당 인물에 대한 당대의 역사적 시선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분석 〈상사뱀설화〉의 기본 구조는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상관없이 상층 인물을 연모하는 하층 인물의 좌절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상층 인물에 대한 하층 인물의 애정이 좌절되면서 원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하층 인물의 몸 바꾸기가 이루어진다는 설정에는 계층 분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원혼 발생의 중요 변수가 사회적계층적 갈등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몸 바꾸기는 현실 공간에서 허용되지 않는 개인적 주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는데, 남성형이 계층 간의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의식을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면, 여성형은 원혼의 등장을 통해서 남성 인물의 경직되고 규범적인 도덕관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감이 사회적 규범 앞에서 차단되는 서사적 상황은 인간성보다는 규범을 우선시하는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보여 주며, 〈상사뱀설화〉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비정상적이고 굴절된 욕망 표출 방식은 그와 같은 상황의

소산물로 이해된다. 〈상사뱀설화〉는 사회적 규범의 경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펴는 유형이다. 욕망의 좌절에서 비롯된 원혼의 발생과 그 현현을 통해 도덕적 규범이나 당위로도 누를 수 없는 인간적 욕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그 요인이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연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특징 이 설화는 죽음과 몸 바꾸기라는 방법으로 금제된 욕망을 드러내는데, 특히 뱀이라는 형상을 통해 사랑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 구조와 권력의 위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사뱀으로 변형된 여성 원혼이 연모 대상에게 자기 존재를 직접 드러내고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아랑각전설〉에서 원혼이 원님을 통해 신원(伸冤)을 시도하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으로서 여성 원혼 서사에서는 특이한 사례이다.

의의 우리 설화의 세계에는 여성의 욕망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유형이 드문데, 〈상사뱀설화〉는 개체의 욕망과 그것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갈등을 상사뱀 방식으로 보여 줌으로써 경직된 규범적 가치 아래 인간의 욕구가 비인간적 양태로 표출되는 비정상적이고 불건강한 사태를 충격적으로 그린다. 이를 통해 문체적 현실을 부각하고, 신분 문제, 여성 윤리 규범의 억압성, 경직된 윤리관을 비롯한 사회 제반 규범의 경직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반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화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1, 740; 7-13, 70.

참고문헌 상사뱀설화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김용덕, 한국언어문화18, 한국언어문화회, 2000), 상사뱀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강진옥, 고전문학연구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성 정치로 본 상사뱀설화(강성숙, 고전문학연구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필자 강진옥(姜秦玉)

민담

상사여귀

相親女鬼

정의 상사병을 앓던 여성이 거절당한 뒤 죽어 원귀가 된다는 내용의 원혼설화.

줄거리 옛날에 ‘이봉구’라는 이가 혼자서 밤늦게까지 글을 읽고 있는데, 이웃 양반집 딸이 담을 넘어 방으로 들어왔다. 이 봉구는 양반집 규수가 외간남자의 방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내쫓았다. 양반집 딸은 사모하는 남자에게 거절당한 것에 원한을 품고 죽어 원귀가 되었다. 그 뒤로 늘 이봉구를 따라 다니며 훼방을 놓았다. 이봉구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아 어느 절에 찾아갔다가, 하루는 절의 중과 근처 산천을 구경하러 나섰다.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다가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봉구는 이웃집 양반 딸을 거절했더니 죽어서 원귀가 되어 따라다닌다고 했다. 중이 이봉구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여자 원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면, 젊어서 어떤 집에 동냥을 갔다가 젊은 여자가 혼자 있기에 욕보였더니 여자가 원귀가 되어 늘 나타나 훼방을 놓는다고 하였다. 이야기를 들은 이봉구는 “중놈인 주제에……”라며 격분하면서 중을 발길로 차 산골짜기로 떨어뜨려 죽여 버렸다. 그랬더니 저쪽 산골짜기에서 무엇인가 ‘톡탁’하는 소리가 나, 그 쪽을 보니 여자 귀신 둘이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원귀였고, 다른 하나는 모르는 귀신이였다. 두 귀신이 한참 싸우더니 이봉구를 따라 다니던 원귀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죽고 말았다. 같이 싸우던 여자 귀신이 이봉구 앞에 나타나 “이제부터는 안심하라, 괴롭히던 원귀를 내가 죽였으니 그리 알라.”라고 했다. 이상해서 누구기에 자신을 도왔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 중놈한테 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여자 원귀다.”라고 했다. 그 뒤로 이봉구는 아무 탈 없이 과거에 급제하고 대장까지 지냈다고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정육이나 연모의 정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도덕의 규범이 되는 원리, 즉 윤리가 본능보다 위에 있음을 보여 준다. 원혼설화에서는 정육 같은 본능에 도덕이나 윤리, 규범만으로 억제할 수 없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송유억불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그 시대 상황에 합당한 근거를 두고 이런 설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놈’이란 모티프가 가진 상징성이 주목되며, 중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한 이봉구 대장이 ‘비윤리적 인물’인 중을 발길로 차서 산골짜기로 떨어뜨린 것과 양반 딸 원귀(정육)를 젊은 여자 원귀(윤리)가 제거한다는 데서 ‘윤리의 승리’라는 명제를 추출할 수 있다.

의의 남성에게 거절당하고 죽어서도 집요하게 방해하는 ‘광기’의 귀신을 옹지 않은 일을 거부하여 죽은 귀신이 없앤다는 점에서 사필귀정(事必歸正)한다는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당대 여성에게는 조신(操身)이나 요조(窈窕)함을, 남성에게는 금욕이나 규범을 요구하였음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전라북도편(임석재·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1),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7, 111.

참고문헌 귀신설화 연구(안병국, 규장각, 1995), 원혼형전설 연구(강진옥, 구비문

학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저승과 영혼(이상일 외, 한국사상의 원천, 양영각, 1973), 조선민담집(손진태, 동경 향토연구소, 1930), 한국 전설에 나타난 전승 집단의 의식구조 연구(강진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필자 안병국(安炳國)

전설

상원사

차악산

민담

새끼 뱀 쥐와 용한 점쟁이

정의 점복자가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죽을 운수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다는 설화.

줄거리 홍계관은 용한 점쟁이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루는 점을 쳐 보니 자기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죽게 되었는데, 왕의 용상(龍床) 밑에 있으면 살 수 있었다. 마침 왕이 홍계관이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불러 용상 밑에 앉드리게 했다. 그때 쥐 한 마리를 보고 왕은 쥐가 몇 마리 지나갔냐고 물었다. 홍계관이 세 마리라고 답하자 왕은 한 마리인데 왜 세 마리냐고 답하느냐며 흑세무민할 사람이니 당장 죽이라고 했다. 홍계관이 사형장에 끌려간 뒤 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신하에게 쥐를 잡아 배를 갈라보게 했다. 그러자 새끼 두 마리가 나왔다. 그제야 왕은 홍계관이 용한 점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 당장 사형을 중지시키라고 했다. 한편 홍계관은 사형수에게 한 시간 뒤에 죽어 달라고 했고, 사형수는 마지막 소원이니 알겠다고 했다. 그때 왕의 명을 받은 신하가 사형수를 보고는 손을 흔들면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사형수는 당장 죽이라는 신호인 줄 알고 홍계관을 죽였다. 그 뒤 그 고개를 아차고개라고 한다.

변이 이규경은 「명통시변증설(明通寺辨證說)」에서 홍계관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무렵에 쥐의 배를 갈라서 실험해 보기를 위하여 자신의 점이 맞았음을 증명하고 세상에서 그를 신복(神卜)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구비설화에서 홍계관은 점술이 증명되기 전에 사형된다. 변이로는 홍계관이 용상 아래 숨어 있을 때 쥐가 지나가자 임금이 즉흥적으로 묻은 예와 그릇 속에 쥐를 숨겨 놓고 쥐가 몇 마리냐고 묻은 예가 있다. 홍계관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 임금이 홍계관

을 불러 질문을 한 예와 죽을 운명을 피하고자 홍계관이 스스로 임금의 용상 밑으로 숨는 예도 있다. 아차산(현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지명유래담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분석 홍계관은 세조 때 활약했던 인물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복술이 뛰어난 맹인으로 소개된다. 홍계관은 왕의 명령으로 지나가는 쥐의 숫자를 점치는데, 그가 용상 밑에 있거나 쥐가 상자 속에 감춰져 쥐를 직접 볼 수 없었다. 맹인은 시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통의 것을 볼 수 없는 대신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한다. 인간의 눈은 쥐의 배 속에 있는 새끼는 보지 못했지만, 홍계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본 것이다.

특징 과거 맹인들은 주로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다. 맹인 점술가들은 가정의 대소사에서 국가의 일까지 불려가 점을 치거나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점복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홍계관> 이야기는 조선시대 맹인 점복가의 사회적 위치와 처우가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전승되고 있다.

의의 이 설화는 아무리 뛰어난 점술가도 자신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운명 결정론적 세계관과 성급한 인간의 일면을 보여 준다. 사람의 생명을 논하는 자리는 숙고하여야 함에도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생명이 희생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264; 2-6, 12; 5-2, 280; 6-11, 101.

참고문헌 명통시변증설(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20, 민족문화추진회, 1973),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창권, 문학동네, 2005),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글항아리, 2011), 오래된 운명의 숲을 지나다(류정월, 이숲, 2009).

필자 심민호(沈民皓)

민담

새끼 서 발

정의 주인공의 성공이 누적되어 마침내 큰 성공을 얻게 된다는 내용의 형식담 성격의 설화.

역사 개화기 이전의 문헌설화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알려진 가장 최초의 사례는 1930년대 송금선(宋金璇)이 『경성일보』

에 일본어로 게재했던 <게으름뱅이 사내의 복>이란 전래동화이다. 채록 일시 및 장소가 분명한 1960년대 이전 자료로는, 임석재가 1943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채집하여 1990년에 그의 전집 제6권 『한국구전설화』에 수록한 자료가 유일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채록된 자료는 약 20여 편에 달한다.

줄거리 옛날에 어머니와 게으른 아들이 살았다. 어머니가 새끼 서 발을 주고는 아들을 내쫓았다. 도중에 만난 옹기장수가 새끼가 필요하니 동이와 새끼를 바꾸자고 해서 새끼를 주고 동이를 얻었다. 다시 길을 가다가 동이를 깨뜨린 색시의 쌀 한 말과 동이를 바꾸었다. 하룻밤 묵던 집의 쥐가 쌀을 다 먹어서 대신 그 쥐를 가져갔다. 어느 집 고양이와 쥐를 잡아 먹어서 그 고양이를 대신 받았다. 어떤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여서 그 말을 대신 받았다. 죽은 처녀를 묻으려던 사람을 만나 말과 처녀의 시신을 바꾸었다. 어느 곳에 이르러 한 예쁜 처녀가 시신을 밀어 쓰러뜨렸다. 멀쩡한 처녀를 죽게 했다고 야단을 친 끝에 그 예쁜 처녀를 대신 얻었다. 처녀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부자를 만났다. 처녀를 보고 욕심을 낸 부자가 내기를 요청하여 수수께끼 내기를 하였다. 게으름뱅이가 “새끼 서 발이 동이로, 동이가 쌀로, 쌀이 쥐로, 쥐가 고양이로, 고양이가 말로, 말이 죽은 처녀로, 죽은 처녀가 산 처녀로 바뀐 것이 무엇이나?”는 문제를 내어 이에 답하지 못한 부자의 재산을 빼앗고 색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잘 살았다.

변이 주인공이 ‘주인과 머슴’으로 설정된 이본도 있으며, 위와 거의 같은 줄거리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인공이 얻었던 것을 잃게 되는 바보의 이야기도 있다. <뒤주 지고 간다지>란 각편이 그러한데, 전반부까지의 내용은 대체로 <새끼 서 발>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보가 처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대목부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보가 처녀를 꾀작에 넣어 깊어지고 가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워 꾀작을 길가에 내려놓고 용변을 보았다. 그때 임금(사또)이 지나가다가 꾀작에 든 처녀를 꺼내고 대신 두부 비지를 넣어 두었다. 바보는 이를 모른 채 집에 이르러 제 어미에게 잔치 준비를 시켰다. 그러나 꾀작 뚜껑을 열어 보니 처녀는커녕 두부 비지(혹은 지게미)만 가득하니, 바보가 말하기를 “내 언제 처녀가 있다고 했나? 간장 얻고 숟가락 얻어 두부 비지 먹자고 했지.”라고 했다.

분석 내용적으로 말한다면 <새끼 서 발>이 지략담인 데 반하여 <뒤주 지고 간다지>는 우행담(偶幸譚)에 속한다. 전체 형식으로 보면 <새끼 서 발>은 직선적 형식담인 데 비해, <뒤주 지고 간다지>는 이른바 순환적 형식담에 가깝다. <새끼 서 발>과

비슷한 이야기로는 <조 이삭 하나>란 것이 있는데, 내용은 ‘조 이삭 하나-쥐-고양이-말-황소-정승 딸’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 이삭 하나>는 <새끼 서 발>의 동공이곡(同工異曲, 재주나 솜씨는 같지만 표현된 내용이나 맛이 다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제출된 설화 채집 보고서들에는 <새끼 서 발>, <새끼 서 발 파서 장가까지 든 총각>, <운 좋은 게으름뱅이> 등 여러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은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고 내용을 요약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끼 서 발>이 좋겠다. 외국 설화와 견주어 보면 톰슨(S. Thompson)의 『설화 유형집(The Types of Folktale)』의 <유리한 거래(The Profitable Exchange)>(1655번)가 동일 유형이고, 일본의 <지푸라기 장자(藁び長者)>도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특징 이 이야기의 전체적 틀은 ‘새끼-동이-쌀-쥐-고양이-말-죽은 처녀-산 처녀-부자의 재산’과 같이 점층적으로 진행된다. 이 틀은 이본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어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동이’ 부분에서 새끼 서 발을 ‘깨어진 동이’와 바꾸고, 이어서 ‘깨어진 동이’를 ‘새 동이’로 바꾸기도 한다. 하여튼 이러한 이야기들에 나타나는 특유의 ‘틀’로 인하여, 이 이야기는 점층적 구조를 지닌 형식담으로 규정할 수가 있다.

의의 이 이야기는 ‘게으름뱅이’로만 여겼던 사람이 뜻밖의 지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서민으로선 최대의 꿈인 배우자와 부를 단번에 얻게 되었으나 그의 행위 자체는 무고한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각의 연속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하지만 설화적 허구로서 영웅한 지략을 써서 약자가 강자를 굴복시키고 입신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음흉하고 욕심쟁이인 부자를 보기 좋게 꺾은 것은 통쾌스러울 정도이다. 이 이야기가 드러내고자 한 의도는 주인공이 보여 주는 사기 행각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37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6, 440, 한국민담선(한성수, 형설출판사, 1980).

참고문헌 한국설화문학연구(장덕순,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한국의 형식담(조희웅, 한국학논총3, 국민대학교, 1981).

필자 조희웅(曹喜雄)

민담

새빨간 거짓말

정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과 있을 수 없는 사물을 연이어 나열하여 사건을 그려냄으로써 거짓말의 정체를 설명하는 설화.

줄거리 이바구가 저바구를 지고 태산을 넘어가니 뿌리 없는 배나무가 있다. 그 나무에 꼭지 없는 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머리 없는 중이 와서 꼭지 없는 배를 모두 따 먹는다. 말기 없는 치마에다 한가득 따서 귀틀 없는 마루에 부어 놓고 보니 물에 거적이 떠내려간다. 그것을 뒤집으니 거짓말이 가득하다.

변이 각편에 따라서 거적을 뒤집으면 나오는 것이 새빨간 쥐이거나 등치 없는 나무로 나오기도 한다. 이야기의 결말이 거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박이 백두산에서 지금도 굴러 내려오고 있다거나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바뀌어 있기도 하다.

분석 전국에서 10여 편이 전하는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로 일종의 메타서사라 할 수 있는 유형이다. 등치 없는 나무, 꼭지 없는 과일, 말기 없는 치마, 머리 없는 중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물과 고드름으로 군불을 때거나 사람 없는 장에서 물건을 파는 등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을 계속해서 나열하여 거짓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는 결말에 ‘거적을 뒤집으니 거짓말이 가득했다.’라고 끝난다. 각편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인격화되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백두산 꼭대기에서 수박이 아직도 굴러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등 내용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타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거짓말은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향유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이야기이다. 즉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적극 받아들이고 메타서사화하여 허구 자체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과 다른 차별적 가치를 허구에 부여함으로써 구전서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근원적인 부분이다.

특징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건이 연쇄적으로 나열되어 사건을 구성함으로써 이야기가 전혀 현실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구연자와 청중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세계가 허구의 세계이며, 그 세계는 무척 재미있는 곳이라는 허구에 대한 정의와 강한 긍정이 반영되어 있다.

의의 <새빨간 거짓말> 유형은 허구에 대한 강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는 메타서사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이야기> 유형과 유사한 인식을 드러낸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644; 8-7, 653.

참고문헌 거짓말 구비서사의 서사적 성격과 신화적 기원(최원오, 기호학연구29, 한국기호학회, 2011), 거짓말 이야기에 대한 고찰(류정월, 한국고전연구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필자 노영근(盧映根)

민담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정의 새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그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가 그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거나 성공한 내용의 설화.

줄거리 새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길에서 까마귀 울음소리를 들으니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아이가 그쪽으로 가 보니 송장이 있었다. 놀라서 돌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범인인니까 다시 와 본 것이 아니냐며 살인자로 물었다. 아이는 새소리를 알아듣고 와 본 것뿐이라고 하였으나 곧이듣지 않았으므로 관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는 아이의 말이 사실인가 시험을 해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비집에서 새끼를 꺼내 도포 소매에다 넣고 아이에게 어미 제비가 무엇이라 하는가 맞추어 보라고 했다. 아이는 제비 울음소리를 듣더니 ‘왜 내 새끼를 소매에 넣었느냐?’라고 한다고 하였다. 사또는 과연 이 아이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으니 살인하지 않았다 하며 석방하였다. 이후 이 아이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천자가 내 준 과제를 해결하고 그 상으로 평양감사를 제수받고 돌아와 잘 살았다.

변이 대부분 작품에서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각편에 따라 인재로 평가받거나 출세를 하는 예가 있다. 술과 고기가 사람 술, 사람 고기임을 간파하거나 사또의 태생에 대해 알아맞히고, 중국 천자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서 드러난 신통력 덕분이다. 북창 정렴(鄭磾, 1506~1549) 같은 역사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기지와 신통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한편 변이형으로 쥐의 소리를 듣는 능력 때문에 첫날밤에 소박당했다가 다시 그 능력 덕분에 남편과 시댁에게 인정받는다는 <짐승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형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새소리를 알아듣는 능력-곤경에 처함-시험에 통과함-위기를 모면함’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새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확인하는 시험에 통과하여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비범한 재주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자신을 옹아매는 족쇄일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할 때에는 위기를 벗어나 성공에 이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징 이 유형의 설화는 <동물 언어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기본형은 동물 언어를 알아듣는 능력을 획득하지만, 그 사실을 발설하면 죽는다는 금기 때문에 곤경에 처하다가 다른 동물의 말을 알아듣고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서 살인자로 몰리는 위기가 금기 파기의 위기로 변이되어 있어 신비한 능력 소유와 관련하여 좀 더 원초적인 문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각편에 따라서는 본 설화의 변이형처럼 그러한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의의 이 설화는 비범한 능력에 대한 인간의 소망, 그것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경계, 성공에 대한 바람을 담고 있다. 또한 인간이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가 신화적 세계처럼 자연계와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설화는 자연계를 비롯하여 주변 세계에 관심을 갖고 상호소통하는 신화적 인간관을 환기시킨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131; 7, 277.

참고문헌 설화학원론(스티스 톰스, 윤승준·최광식 역, 계명문화사, 1992).

필자 박상란(朴尙蘭)

민담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정의 이상한 소리를 내는 새털을 사서 장가간 노총각에 관한 민담.

줄거리 가난한 노총각이 머슴을 살다가 얼마 되지 않는 새털을 받고 쫓겨나 산속을 배회한다. 그러다 걸을 때마다 “비지, 비지” 하고 우는 새를 보고 신기해하니, 새가 노총각에게 자기 깃털을 사서 산 사람의 몸에 붙이면 그 소리가 날 것이라

고 한다. 엽전 한 냥을 주고 새에게 깃털을 사서 길을 가는데, 다음 고개에서 “배지, 배지” 하고 우는 새의 깃털을, 그다음 고개에서는 “덩더꿍, 덩더꿍” 하고 우는 새의 깃털을 산다. 마지막 고개에서 만난 노인이 노총각에게 새털을 양반집 처녀에게 붙여 장가가라는 당부를 한다. 마을로 내려오니 새막에서 새를 쫓다가 잠이 든 처녀가 있어서 그 배꼽에 깃털 세 개를 붙이자 처녀가 길을 때마다 “비지, 배지, 덩더꿍” 하는 소리가 난다. 처녀의 아버지는 방을 붙여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한다. 그때 노총각이 나타나 깃털을 떼고 병을 낫게 한다. 그런데 처녀의 아버지가 딸의 병이 쉽게 나은 것을 보고 사위 삼겠다고 약속을 어긴다. 그러자 노총각은 아무도 몰래 다시 처녀에게 깃털을 붙여 궁지에 빠뜨리고, 먼저 혼인을 치르면 병을 고쳐 주겠다고 한다. 결국 노총각은 처녀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다.

변이 새의 깃털을 몸에 붙이면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화소가 오줌을 눈 자리에 깃털을 꽂으면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변이되기도 하고, 깃털이 씨앗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그리고 노총각이 새에게서 신기한 깃털을 사는 행위도 장가들게 해 달라고 서낭당에 비는 것으로 변이되기도 한다. 피를 내어 주인집 딸을 아내로 맞는 <피쟁이 하인> 이야기와 상통하기도 한다. 노총각이 소금장수로 변이하는 각편에서는 육담으로 바뀌기도 한다.

분석 불우한 처지에 있는 노총각 머슴의 장가들고 싶은 소망을 익살스럽게 표현한 이야기이다. <피쟁이 하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상전을 골탕먹이는 심각성보다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노총각 머슴의 소박한 소망으로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한다. 성욕을 풀지 못하는 남성의 욕망에 주목하여 노총각 머슴이 소금장수로 대체될 때는 이야기의 성격이 육담으로 변하며, 이 육담은 조선 후기에 야담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의의 노총각 머슴이 신분을 초월한 결혼을 소망하고 이를 성취한다는 내용은 트릭스터 이야기의 한 유형으로, 민중의 소망을 구현하는 민담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새의 깃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화소가 흥미소로 특화되어 있는데, 이후 사실성을 확보하면서 성적인 육담으로 변질하고 있다. 민중의 소박한 소망이 남성의 성적인 욕망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500; 5-2, 508; 6-6, 219; 8-14, 679; 8-16, 406.

참고문헌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소금장수설화의 유형과 의미(이중

주, 한국문학이론과비평25,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4).

필자 김종근(金鍾涓)

민담

새털옷 신랑

정의 주인공이 마법을 지닌 새털옷을 이용하여 부자 또는 권력자의 재산이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는 소담적 성격을 지닌 설화.

역사 손진태가 1930년경 평안북도 강계에서 채록한 무가 <일월노리푸념>이 가장 오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임석재와 장주근이 관북 지방 무녀에게서 채록해 보고한 <돈전풀이>도 같은 계열의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다소 거리가 있다. <일월노리푸념>은 주인공인 궁산 선비가 미녀인 명월각사를 차지하기 위해 부자인 배 선비와 구슬옷을 입고 하늘에 오르는 내기를 한 끝에, 궁산이 시험을 통과하여 명월각사와 부부의 연을 맺고 해로하다 죽어 일월신이 된 반면에 배 선비는 옷을 벗는 방법을 몰라 하늘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솔개로 변했다는 이야기이다. 주술적인 옷이 ‘새털옷’이 아니라 ‘구슬옷’이란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줄거리 한 총각이 미녀를 아내로 맞았다. 남자가 아내의 초상화를 품에 지니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바람에 초상화가 날려 갔다. 이를 주운 사람이 임금에게 가져다 바치자 임금이 신하를 시켜 그림 속의 미녀를 찾게 했다. 미녀가 임금에게 잡혀 갔으나 웃지 않았다. 남편이 활쏘기 연습을 하여 명궁이 되었다. 미녀가 임금에게 걸인잔치를 열어 달라고 하였다. 남편이 새털옷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여 춤을 추었다. 이른 본 미녀가 비로소 옷자, 임금이 남편과 옷을 바꿔 입었다. 남편이 용상에 올라 임금을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분석 주인공이 새털로 된 옷을 입고 적대자와의 내기에서 이기고 배우자를 차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새털옷 신랑>이라고 불린다. 이야기의 개요는 ‘어떤 남자가 내기에서 이겨 세력자의 재산이나 지위를 차지하는 반면, 세력자는 남자의 흉내를 내어 남자의 새털옷과 자신의 옷을 바꿔 입었다가 지위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에 전제적인 삽화로서 <웃지 않는 미녀> 유형이 결합하여 구연되기도 한다.

특징 외국의 설화에서도 많이 보이는 ‘하늘을 나는 담요’의 모티프는 <새털옷 신랑> 유형들에서 ‘새털옷’ 뿐만 아니라 ‘부채’ 등으로도 나타나고, 그러한 후보(呪寶)의 획득은 보은으로 입수하기도 하지만 사기적 수법으로 탈취하기도 한다.

의의 주인공의 적대자인 권력자가 임금이나 중국 천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금을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는 절대왕권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역의 행위이지만,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신분 상승을 바라는 욕구가 이 같은 환상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출처 관북지방의 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학예사, 194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18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2, 83, 朝鮮巫覡의神歌(孫晉泰, 靑丘學叢28, 1937).

참고문헌 색시 찾은 신랑(조희웅, 어문학논총25,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6), 왕이 된 새샘이 설화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김종근, 겨레어문학38, 겨레어문학회, 2007), 왕이 된 새샘이 설화의 해석에 투영된 자기서사(이인경, 어문론총50,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필자 조희웅(曹喜雄)

신화

생불할망본풀이

정의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인간에게 포태(임신)를 시키고 출산을 돕는 생불할망이 좌정하게 된 내력을 담은 본풀이.

역사 산신(産神)에 대한 관념과 의례는 널리 전승되고 있으나, 그 신화가 갖추어진 사례는 드물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의 <생불할망본풀이>는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풀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토착 성격을 지닌 신격을 외래 성격을 지닌 신격이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래 생불할망은 요왕황제국 따님아기였다. 그런데 뒤늦게 명진국생불할망이 나타나서 동이용궁 따님아기를 물리치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제주도 당신앙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신은 일뤼당신인데, 이 신은 본래 요왕황제국 따님아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진국 따님아기를 석가여래의 딸이라고 한 사례도 있다. 이로 보아 명진국 따님아기는 불교적인 윤색이 더해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과거 한때 잉태, 출산, 산육과 관련한 의례의 필요성이 많아졌고, 이에 제각기 신을 설정하고 본풀이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동이용궁 따님아기는 불효한 죄로 버려진다. 동이용궁 따님아기는 살 방도를 알려 달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한다. 그 결과로 아기의 포태, 출산, 양육을 맡는 생불왕의 임무를 얻는다. 아기씨는 무쇠 상자에 담긴 채 바다에 버려지고 무쇠 상자는 바닷물에 떠다니다가 드디어 인간 세상에 닿는다. 임박사 임부루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 본다. 상자에서 나온 동이용궁 따님아기는 곧 생불할망의 일을 하느라고 임부루주의 아내에게 포태를 시킨다. 그러나 해산시키는 방법은 미처 배우지 못한 터라 임신부와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아기씨는 당황해서 그저 앉아서 울고, 임부루주는 원통해서 옥황상제에게 도움을 청한다. 옥황상제는 임부루주의 하소연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다. 지부사천왕의 추천에 따라 석가여래의 딸인 명진국 따님아기를 불러 생불왕으로 임명하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기로 한다. 명진국 따님아기는 명령을 기억하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옥황상제를 찾아간다. 그리고 옥황상제로부터 포태, 해산의 방법을 듣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간다. 인간 세상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동이용궁 따님아기를 만난다. 둘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을 알고 옥황상제에게 따지기로 한다. 옥황상제는 가꾸기 내기를 하여 승패에 따라 생불왕을 결정하라고 한다. 둘은 꽃 가꾸기를 하는데, 명진국 따님아기의 꽃은 잘 자라 번성꽃이 되지만, 동이용궁 따님아기의 꽃은 시들어 금뉴울꽃이 된다. 이로써 명진국 따님아기가 꽃 가꾸기 내기에서 승리하여 이승생불왕을 맡게 되고, 동이용궁 따님아기는 저승할망을 맡게 된다. 동이용궁 따님아기가 아기들에게 각종 흥험을 주겠다고 하지만, 명진국 따님아기는 동이용궁 따님아기를 곱게 달래어 저승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명진국 따님아기는 인간의 잉태와 해산을 돕고, 아이를 건강하게 길러 주는 일을 맡는다.

변이 줄거리에 제시한 내용은 저승할망 또는 구삼승할망이라고 하는 동이용궁 따님아기의 내력담을 겸하고 있다. 흔히 <할망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명진국 따님아기의 내력담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삼승할망, 마누라 등의 내력담을 포함하기도 한다. 명진국 따님아기의 내력담만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인간에게 포태와 해산시키는 과정을 간단히 풀어낸다. <생불할망본풀이>와 구삼승할망의 내력담을 함께 갖추는 예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마누라본풀이>의 내용이 덧붙이기도 한다. <마누라본풀이>는 명진국 따님아기가 마누라의 행패에 대응하여 그 며느리가 해산을 못 하게 하고, 용서를 받은 뒤에 비로소 해산을 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 이야기는 의례와 의례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혼란이 생겨서 여러 신격의 내력담을 포괄한 하나의 본풀이를 두루 쓰는 사례가 늘었다.

분석 조동일은 〈할망본풀이〉를 여성 영웅서사시의 사례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주목한 것이 동이용궁 따님아기의 내력으로 명진국생불할망이 등장하여 동이요왕 따님아기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후대에 일어난 변모로 보았다. 이처럼 두 신의 싸움을 토착신과 외래신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김현선, 강정식과 같은 여러 학자의 공통된 견해기도 하다. 강정식은 〈삼승할망본풀이〉, 〈구삼승할망본풀이〉, 〈마누라본풀이〉가 명확히 구분되어서 의례에 따라 그 쓰임이 다른데, 이러한 복잡한 사정이 후대에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본다. 의례를 알지 못하면 본풀이를 연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생불할망본풀이〉가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징 본풀이의 변이가 의례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이 제주도 본풀이의 특징이며, 바로 〈생불할망본풀이〉가 대표 사례이다. 의례에 따라 〈구삼승할망본풀이〉와 〈마누라본풀이〉가 엮인다. 이들 본풀이는 불도맞이에서 주로 구연되며, 〈마누라본풀이〉는 마누라 배송이라는 별도의 의례에서 구연된다.

의의 의례와 신화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근원적 의미의 신화를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의례의 변화에 따라 본풀이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정도 함께 살필 수 있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제주도무가(현용준·현승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김현선, 민속학연구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할망본풀이의 전승양상(강정식,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 발표자료집,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필자 강정식(姜晶植)

전설

서경덕

徐敬德

정의 조선시대의 탁월한 철학자인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이 등장하는 인물전설.

역사 서경덕은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송도에 머무르며 학문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하여 황진이(黃眞伊), 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 3절(松都三絶)’로 일컬어진다. 하급 무관

의 집안에서 태어난 서경덕은 우주의 근원과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데 뜻을 두고 있었기에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여러 번 천거되었으나 한 번도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또 서경덕은 성리학뿐 아니라 도가사상이나 역학(易學)과 수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으며, 학문을 하면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태도를 중시하였다. 성현의 말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회의하고 사색하여 깨닫는自得之學(自得之學)을 강조하면서 독창적 기(氣) 철학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철학적 자세 때문인지 설화 속 서경덕은 상상을 초월하는 도술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 서경덕의 학문적 독창성이 구비문학의 도술로 전환되어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서경덕이 등장하는 구비설화로는 〈서화담과 처녀〉,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 문답〉, 〈400리 앞일을 내다본 서화담〉, 〈9대손을 구출한 서화담〉, 〈서화담과 제자 원불천의 도술〉, 〈서화담의 도술〉, 〈여우인 동생을 물리친 서화담〉, 〈천기를 안 서화담〉, 〈화담 선생과 건달 사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단편적인 내용으로 각각 다른 이야기이다. 〈서화담과 처녀〉,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 문답〉이 비교적 현실적인 내용이라면, 나머지 설화들은 서경덕이 도술을 부린다거나 천기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다.

〈서화담과 처녀〉의 내용은 이렇다. 서경덕이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한 처녀에게 회초리질을 했다. 그 뒤 서경덕의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혼자가 되어 함께 살다가 서경덕이 며느리를 겁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다. 그때 혼련도감이 옛날 회초리를 친 여인의 아들이었다. 여인은 회초리질로 생긴 상처를 보여 주며 서경덕을 구해 주었다. 〈서화담과 황진이의 글 문답〉의 내용이다. 서경덕을 유혹하고 싶었던 황진이 첩인 시구를 써 두고서 시에 화답을 잘하는 남자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뒤, 시구를 지은 서경덕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다. 〈400리 앞일을 내다 본 서화담〉은 서경덕이 서울에서 살면서 400리 떨어진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의 스님이 팔죽을 쑤다가 술에 빠져 죽은 일을 훤히 꿰뚫어 보았다는 이야기다. 〈9대손을 구출한 서화담〉에서 서경덕은 9대손이 목숨을 잃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준비해 준다. 〈서화담과 제자 원불천의 도술〉에서 서경덕은 제자 원불천이 역적이 될 것을 꿰뚫어 보고서 적어도 자기가 살아 있을 동안은 역적 짓을 못하도록 조치한다. 그 과정에서 서경덕은 짐승으로 변신까지 하는 등 도술을 보여 준다. 〈서화담의 도술〉에서도 서경덕은 동생보다 월등한 도술의 소유자로 활약한다. 〈여우인 동생을 물리친 서화담〉에서 서경덕은 이복 동생이 여우의 환신임을 꿰뚫어 알고 범 처녀를 초빙하여 죽게 만든다. 〈천기를 안 서화담〉에서 서경덕은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천기를 아는데, 수명이 짧은 누이 아들의 수명을 늘

려 준다. 〈화담 선생과 건달 사위〉의 전반부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의 내용과 동일하고 후반부는 〈오금획득설화〉와 유사하다. 후반부에서 서경덕은 건달 사위와 함께 서촉으로 가서 오금을 발견하는데, 그 오금을 팔아 사위가 부자가 되는 내용이다.

변이 〈서화담과 처녀〉는 글 읽는 선비에게 사랑을 고백한 처녀가 그 선비에게 회초리를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글 읽는 선비는 설화에 따라 다양하다. 조광조, 권필, 김수항, 이차의, 정인지, 심수경 등이 선비로 나온다. 그래서 글 읽는 선비가 꼭 서경덕일 이유는 없다. 〈9대손을 구출한 서화담〉과 유사한 이야기가 이황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승된다. 〈화담 선생과 건달 사위〉의 전반부는 〈쌀 나오는 바위〉 설화이고, 후반부는 야담으로도 전한다.

문헌 야담집에서 〈서경덕 이야기〉는 몇 개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황진이가 서경덕을 유혹하였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두루 발견되며, 서경덕이 스님으로 변신한 호랑이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는 호랑이가 해치려는 처녀를 구출한다는 이야기가 야담집에 가장 널리 실려 있다. 또 명석한 제자가 있어 사위로 삼으려 하다가 여우의 기운이 있어 측백나무 가지를 꺾어 불을 밝혀 비춘 후, 제자가 구백 살먹은 여우임을 알아내고는 그 어미와 함께 죽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구비설화와 상통한다. 또 서경덕은 이른 나이에 지리산에 올라갔는데, 지리산에서 만난 도사가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하지만 거절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전설 속의 서경덕은 도술을 구사하면서 세상 온갖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 이인(異人)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경덕은 스스로 회의하고 사색하여 자기만의 수준 높은 사유 체계를 만들어 내었는데, 이를 대중들이 도술과 통찰력으로 바꾸었다. 특히 여우가 여러 모습의 인간으로 변신하여 서경덕에게 접근하지만, 서경덕은 예외 없이 그 본질을 밝혀내어 퇴치한다. 그런 점에서 서경덕은 예견된 불행에서 세상과 사람을 수호하는 이인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서경덕설화〉는 주인공이 탁월한 철학자인데도 사건이 추상화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그것은 서경덕의 학문적 탁월함이 도술이라는 통속적 능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서사 능력이 기존 고급문화의 요소들을 자기 식으로 전환했음을 보여 주는 의의를 가진다.

출처 記文叢話, 溪西野談, 凍野彙集, 於于野談, 靑邱野談,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608; 4-5, 1080; 6-2, 794; 7-2, 119; 8-9, 408; 9-2, 165.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훈, 집문당, 2002),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4).

필자 이강욱(李康沃)

전설

서고청

徐孤靑

 서기

신화

서귀포분향당본풀이

정의 바람웃도와 지산국을 당신으로 모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분향당의 본풀이.

줄거리 이 본풀이는 바람웃도와 지산국이 좌정한 서귀포분향당뿐만 아니라 고산국이 좌정한 서흥분향당에서도 전승되는 본풀이이다. 즉, 서귀동, 동흥동, 서흥동 세 지역과 관련이 있다. 1930년대에 아카마쓰 지쵸(赤松智城)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가 처음 채록한 뒤로 현용준, 진성기, 장주근이 1970년대까지 거듭 채록하였다.

바람웃도가 흥토나라 흥토철리 비오나라 비오철리를 다니다가 어떤 집에서 천하미색의 딸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본래 마음에 두었던 고운 아기씨가 아니라 못생긴 언니인 고산국과 혼인한 것을 알게 되었다. 막상 혼인하고자 하였던 고운 아기씨는 처제가 되었다. 원치 않은 장가를 간 바람웃도는 하루 이틀 살다가 결국 고산국과 살지 못하고 처제와 함께 제주로도



서귀포분향당 신목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959.7, 장주근

망갔다. 고산국도 남편과 동생이 함께 도망간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뒤를 쫓았다. 바람웃도와 처제가 한라산을 넘어서 살오름(슬오름)에 당도하니 고산국도 이내 따라왔다. 셋이서 군막을 치고 있는데 마침 사냥하러 나온 김 씨 영감(김봉태)이 지나가자 불러 세우고는 “앞에 보이는 마을이 어느 마을이나?” 하고 물었다. 김 씨 영감은 앞에 보이는 지경이 동흥리, 서귀포, 서흥리라고 대답하였다. 셋은 김 씨 영감에게 길을 인도하라고 하고 김 씨 영감의 집으로 들어섰다. 셋은 김 씨 영감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먼지 냄새, 그을음 냄새 등이 나서 인간과 신이 함께 자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시돌리웨돌이라는 곳으로 갔다. 남편과 동생에게 배신감을 느낀 고산국은 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셋은 결국 화해할 수 없으므로 땅을 갈라 좌정하기로 하였다. 고산국이 돌을 묶어 뽕개질(한 발쭝 되는 노끈을 접어 겹친 사이에 돌을 끼우고 노끈 끝을 쥐고 돌리다가 돌을 멀리 날려 보내는 일)을 하니 흥리마을 안의 흙담에 떨어졌다. 바람웃도가 뽕개질을 하니 문섬에 떨어졌다. 고산국은 각자가 던진 뽕개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좌정하자고 말하였다. 고산국은 자신은 서흥리를 차지하여 갈 것이니, 남편과 동생에게는 우알서귀(서귀포 뒷마을인 동흥동과 아랫마을인 서귀동)를 차지하여 들어가라고 하였다. 고산국은 남편과 동생의 잘못이 크니 동생에게 성을 지씨로 바꾸라고 하였고, 또한 땅과 물을 갈라 서로 차지한 마을끼리는 왕래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동생은 성을 바꾸어 지산국이라 하였고, 서흥리와 우알서귀는 마을끼리 교류나 통혼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고산국은 서흥리에 좌정하고 바람웃도와 지산국은 함께 우알서귀에 좌정하였다.

변이 각 이본마다 서사의 상세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서귀포분향당 감실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1959.7. 장주근

바람웃도와 고산국의 혼인 과정, 바람웃도와 지산국의 도망, 그에 따른 고산국의 추격과 대결 과정 등에서 체보한 심방마다 자세한 서사나 표현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한 변이나 지역적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현재는 서귀포분향당 안에 아예 본풀이의 주요 내용을 적은 비석을 세워 놓았다.

분석 이 본풀이는 당본풀이와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즉, 당시 사이의 갈등과 대립 양상이 실제 마을의 사회문화적 실상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고산국은 바람웃도, 지산국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이다. 본풀이에서 신들이 땅과 물을 서로 갈랐기 때문에 이들 신이 각각 좌정한 서흥동과 우알서귀(동흥동과 서귀동)마을은 서로 교류와 통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당본풀이의 형성이 각 마을이 자리한 자연적 배경, 풍토, 생업, 생활문화 양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검토되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동흥동과 서귀동은 서흥동에 견주어 동일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주도 당본풀이에는 신들의 불화나 식성 차이 때문에 땅과 물을 가르고 서로 좌정처를 달리하는 예가 종종 나타난다. 이 가운데 〈서귀포분향당본풀이〉는 인근 마을의 역사적 형성과 교류 양상까지 드러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의의 이 본풀이는 당본풀이 가운데 비교적 풍부한 서사를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남녀의 애정관계가 주요 내용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애정관계가 서로 다른 마을을 차지하여 좌정하게 한 요인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또한 고흥의 화소도 일부 드러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바람웃도와 동생이 도망가고 그 뒤를 고산국이 추격하여 서로 대결하는 과정에서 천지가 어둡고 암흑으로 둘러싸이자 한라산의 구상나무를 꺾어 절벽에 꽂으니 닭의 형상이 생기고 이어 울음소리가 나면서 세상이 밝아졌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천지창조의 화소와 흡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돌을 묶어 뽕개질을 하여 떨어진 곳에 좌정처를 정하는 모습은 원시적 수렵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화소이다. 한편, 당본풀이가 인근 마을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는 점도 소중하다. 해당 마을의 역사적 경험들이 본풀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개(장주근, 역락, 200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참고문헌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고광민, 탐라문화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서귀포분향당본풀이의 구조분석(김화경, 구비문화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필자 강소전(姜昭全)

전설

서기

徐起

정의 조선 중기의 유학자 고청 서기(徐起, 1523~1591)에 관한 설화.

역사 고청 서기는 미천한 출신으로 큰 학자가 된 인물이다. 〈서고청설화〉는 문헌과 구전에 걸쳐 있는데, 특히 충청남도 공주 지역에 많은 전설이 전해진다. 독특한 이력이 전설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줄거리 공주시 반포면의 한 대감댁에 얼굴이 박색인 여종이 있었다. 어느 날 논에 새를 보러 갔다가 소나기를 피해 길가의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소금장수가 비를 피해 들어왔다가 그녀를 만나 정을 통했다. 비가 그친 뒤 그는 여자가 박색임을 확인하고 말없이 떠나 버렸다. 그 후 여인이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고청이다. 자기 성씨도 몰랐던 고청은 출생 내력을 듣고는 굴 옆에 머물며 지나는 사람들을 관찰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굴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 내막을 물으니 자기 아버지였다. 고청은 그렇게 서 씨라는 성을 찾았다.

한편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진다. 고청이 상전의 말을 끌고 가다가 채찍에 냇물을 묻혀 공중에 뿌렸는데, 알고 보니 멀리 궁궐에 난 불을 끈 것이었다. 서고청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명정(銘旌)을 쓸 사람이 없었는데 송구봉이 와서 태연히 ‘종막덕의 날’이라고 쓰자 서고청이 탄복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고청이 잉태되었다는 그 굴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청굴이라고 부른다.

변이 자료 가운데는 부친탐색담 없이 고청의 출생담만으로 구연된 것들이 많다. 고청의 어머니 명정에 관한 사연은 이율곡과 송구봉의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한다. 문헌설화에는 서고청이 종달새 나는 모습을 보고 지기(地氣)를 깨우쳤다는 이야기와 상전의 모부인이 고청을 매질하려다 선비들의 만류로 포기했다는 이야기, 서고청 집의 분벽사창에 이토정이 똥칠을 하고 갔다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분석 서고청은 송익필, 정충신과 함께 삼노(三奴)의 명인으로 일컬어지는 학자로 그 이력이 남다르다. 〈서고청설화〉는 ‘미천한 신분’과 ‘뛰어난 능력’의 대비를 기본 구조로 삼는다. 아버지도 모른 채 태어난 밑바닥 인물이 상전을 뛰어넘는 놀

라운 능력을 보였다든 데서 신분 계층과 인간적 자질이 일치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부각한다. 서고청이 뛰어난 능력에도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분적 한계를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특징 학자에 해당하는 이인형(異人型) 인물이면서 미천한 출신이 강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송구봉에 대한 전승과 견주어질 만하다. 굴이라는 증거물과 관련하여 연고지의 전설 전승이 활발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의의 친출 학자라는 인물 전형이 독특하며 결연담과 부친탐색담 등 흥미로운 서사요소를 잘 갖추고 있다.

출처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자료(신동훈, 집문당, 2002), 한국구비문화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4, 396; 4-1, 426; 5-3, 201.

참고문헌 역사인물이야기 연구(신동훈, 집문당, 2002), 친부탐색담형 민담의 구조와 의미(노영근, 구비문화연구6, 한국구비문화학회, 1998).

필자 신동훈(申東暉)

전설

서동

薯童

彌勒寺 미륵사

정의 노래로써 선화공주(善花公主)와 결연하여 왕위에 오르 고 미륵사(彌勒寺)를 창건한 서동에 관한 설화.

역사 서동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의 어릴 때 이름이고 선화공주는 진평왕(재위 579~632)의 셋째 딸이라고 하여, 시간적 배경을 6세기 말~7세기 초로 설정하였다.

줄거리 백제의 수도 남쪽 못가에 사는 과부가 못의 용과 통정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마(薯蕷)를 캐어 팔았으므로 서동이라고 불렸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천하의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중의 행색으로 서라벌에 가 거리의 아이들에게 마를 주어 친해졌다. 〈서동요(薯童謠)〉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가 궁중에 들어가 신하들이 공주를 귀양 보내도록 간하였다. 귀양지로 가는 도중 서동이 나타나 같이 가다가 정을 통했으니 그제야 노래의 징험을 알게 되었다. 함께 백제로 간 뒤 공주가 떠나올 때 왕후가 준 금을 꺼내 놓으니 서동은 마를 캐던 곳에 쌓여 있는 게 그것이라고 하였다. 용화산(龍華山) 사자사(師子寺)의 지명법사(知命法師)에게

부탁해 금을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서동이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올랐다. 어느 날 사자사로 가던 중 용화산의 큰 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나왔다. 부인이 그곳에 큰 절을 세우기를 발원하니 왕이 허락하여 미륵사를 창건했는데 진평왕이 기술자들을 보내어 도왔다.

변이 이와 내용이 유사한 (내 복에 산다 설화)(혹은 여인발복 설화)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 서사무가인 (삼공본풀이)도 비슷한 내용이다. 옛날 어느 부잣집 막내딸이 누구덕에 먹고사느냐는 부친의 질문에 자기 복에 산다고 대답하여 집에서 쫓겨난다. 그 뒤 숲구이 총각을 만나 살다가 구덩이에서 금을 발견해 큰 부자가 된 후, 망해 버린 아버지를 모셔와 잘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분석 서동을 무왕이 아니라 무령왕(武寧王), 동성왕(東城王)에 비정하기도 하였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중심 내용을 이루는 중에 여주인공의 진취성과 생활력이 부각되었다. 미륵사 연기설화의 성격도 지니는데,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왕후가 발원하였다고 기록되어서 설화의 사실성에 대한 재론이 불가피해졌다.

특징 광포설화인 (내 복에 산다 설화)가 백제 무왕에 결부되어 기록되었다. 역사적으로는 신라와 백제 간의 혼인 정책이 배경이 되었다. 국적과 신분이 다른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속에 (서동요)가 삽입되어 있다.

의의 개성 있는 인물들이 펼치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흥미를 자아낸다. 백제 최대의 절인 미륵사의 연기설화이며, 향가(서동요)의 배경 설화로써도 의의를 지닌다.

출처 三國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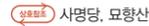
참고문헌 미륵사석탑사리기를 통해 본 삼국유사 무왕조의 이해(신종원, 미륵사사리장엄 연구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 요지문,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09), 서동설화의 신교찰(이병도, 역사학보1, 역사학회, 1953), 서동설화의 연구(사재동, 불교계 서사문학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6), 서동설화 형성의 설화적 논리(민찬, 한국언어문학50, 한국언어문학회, 2003),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정문채, 겨레어문학19, 겨레어문학회, 1995), 여인발복설화의 연구(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94), 쫓겨난 여인 발복설화고(최운식, 한국민속학6, 한국민속학회, 1973).

필자 신재홍(申載弘)

전설

서산대사

西山大師


 묘향산 사명당, 묘향산

정의 임진왜란 때 왕명을 받들어 서울까지 왕을 호종한 뒤 묘향산으로 돌아가 있다가 입적한 서산대사에 관한 설화.

역사 조선 선조 때 고승으로 속성은 최 씨, 세창(世昌)의 아들로 1520년(중종 15) 평안도 안주(安州)에서 태어났다. 아명은 여신(汝信) 또는 운학(雲鶴)이고 호는 청허(淸虛), 법명(法名)은 휴정(休靜)이다. 묘향산에 오래 머물렀기에 서산대사(西山大師)라 칭한다.

임진왜란 때 왕이 팔도십육종도총섭(八道十六宗都摠攝)의 직책을 부여하고 의승군(義僧軍)을 일으키게 하였다. 대사는 곧 전국의 제자에게 격문을 보내어 구국에 참여토록 호소하였다. 대사와 사명당이 각각 모집한 의승병은 함께 명군을 도와 평양성을 회복하였다. 1594년(선조 27)에 도총섭직을 사명당에게 넘기고 묘향산으로 돌아갔다. 1604년(선조 37) 1월 23일에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입적하니, 세수 84세이고 법납(法臘) 67년이다. 대사가 입적하자 원적암에 21일 동안 상서로운 향기가 계속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서산대사설화>는 서산대사가 의병 활동 등을 통해 보여 주었던 신이한 행적 외에도 제자인 사명당과의 일화들이 구전되면서 발생하였다.

줄거리 서산대사에 대한 설화는 두 유형이 있다. 첫째는 다음과 같다. 서산대사가 중국을 유람하고 요동 석숭(石崇)의 집에 가 백공단에 금강산이 나오는 병풍 그림을 그려 주고 천금 수표를 받아 압록강의 마을에 이르렀다. 저녁에 한 집을 들여다보니, 고깔을 쓴 보살은 춤추고 처녀는 노래하고 노인은 술을 마시며 울고 있었다. 대사가 들어가 그 연유를 묻자, 노인이 “내 성은 여(呂) 씨로 국죄(國罪)를 입어 칠 년간 귀양을 갔는데, 오늘이 내 환갑날이라 아들이 대신 그 여년(餘年)을 살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간구(艱苟)하여 며느리는 머리를 깎아 팔아 음식을 장만해 놓고 고깔을 쓰고 춤추며, 딸은 노래를 불러 나를 위로하니 읍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처가 죽어 장사를 치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대사가 천금 수표를 처녀에게 주어 어미의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석숭의 아들인 석성이 당시 이조정랑이었다. 석숭은 매파(媒婆)를 시켜 며느릿감을 찾던 중이었다. 매파가 여 씨 처녀의 관상을 보니 대인(大人)의 부인이 될 상이라 석숭에게 추천

하였다. 그러자 석숭은 당장에 석성을 그 처녀와 혼인시켰고, 곧 석성은 병부상서가 되었다. 한편, 석성의 부인은 조선의 은혜를 갚고자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에서 청원병의 사신이 오니, 남편에게 조선에 원군 보내기를 종용하였다. 그리하여 석성이 황제에게 적극 건의하여 군사를 파병하게 했다. 둘째는 서산대사가 주구(呪具)를 얻



서산대사 영정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문화재청



서산대사 부도탑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문화재청

어 사명당에게 준 설화이다. 서산대사가 임 진사 덕을 방문하여 사명당의 독선생이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 동자가 『사서삼경(四書三經)』과 『주역(周易)』을 가지고 와서 모르는 대목을 대사에게 묻곤 하였다. 그 뒤 대사는 동자가 사는 서천서해국에 갔는데, 동자가 용왕국의 태자였다. 태자가 대사에게 글을 배웠으니 용왕이 각별히 대접하였다. 대사가 용왕국을 나올 때 연적(硯滴)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연적에 글자를 쓰면 글자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주구(呪具)였다. 대사가 하늘로 등천할 때 그 연적을 사명당에게 주어 일본에 가서 사용하여 항서를 받아 오게 하였다.

두 유형 외에 또 다른 설화는 경주에 사는 손인석이라는 사람이 주막집을 들렀더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를 따라오기에 10년 동안 잘 길렀다. 10년이 되는 날 아침에 강아지가 청년으로 변신하여 말하기를 “나는 수궁왕의 셋째 아들로, 부모에게 죄를 지어 인간계로 가서 10년간 죄를 씻고 오라 하여 강아지로 변신하여 죄를 씻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손 씨가 청년에게 수궁을 가보고 싶다 하여 같이 수궁으로 들어가 수궁왕을 만나고 수궁을 구경하고서 나올 때, 수궁왕이 손 씨에게 작은 주머니를 주면서 “앞으로 10년이 되면 이 주머니를 찾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였다. 10년이 되는 날, 서산대사가 와서 해인도장(海印圖章)이 든 주머니를 받아 갔다. 그 뒤 서산대사가 그 주머니를 사명당에게 주어 일본에 가니, 일본인들이 여러 계책을 써 사명당을 죽이려 하였으나, 해인도장으로 막고 왜왕에게 항서를 받아 돌아왔다.

분석 두 유형은 변이양상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육효점(六爻占) 풀이와 도술경쟁담에 관한 설화가 구전된다. 하루는 서산대사와 사명당이 산마루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들판에 검은 소와 누런 소가 누워 돼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소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사명당은 점괘에 화괘(火卦)가 나오니 누런 소가 먼저 일어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두 대사가 한 집에 가서 저녁상에 무엇이 올라올까를 점치는데, 그날의 일진(日辰)이 뱀 사(巳) 자라 사명당이 국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상 위에는 부침개가 올라왔다. 다음으로 도술 경합을 벌였다. 수십 개의 달걀을 갖다 놓고 쌓기 시합을 하였다. 서산대사는 공중으로부터 내려 쌓고, 사명당은 밑에서 위로 쌓아 올렸다. 또 산봉어를 먹고 토해 내는 시합을 하였다. 서산대사가 봉어를 씹어 물에 뱉으니 봉어가 힘차게 노니는데, 사명당이 뱉어 낸 봉어는 힘없이 움직였다. 또 하루는 점심때가 되어 장국을 내어 놓았는데 바늘장국이였다. 서산대사는 바늘장국을 먹었으나, 사명당은 먹지 못했다. 이처럼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도

술 경합 설화는 언제나 사명당이 서산대사에게 지는 것으로 구술된다. 이는 서산대사의 법력(法力)이 사명당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징 서산대사는 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그 대비책으로 제자(유정, 영규, 처영 등 대사)들에게 무술을 가르쳤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국의 승려를 의승군으로 활약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명당이 강화사로 일본으로 건너가 임무를 수행할 때 열반한 서산대사가 조력자로 임했다는 활약상을 강조한 것이 이 설화의 특징이다.

출처 旬五志, 於于野談, 芝峰類說,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847; 2-8, 496; 6-4, 844; 7-2, 225; 7-8, 908; 7-11, 730; 7-13, 133; 7-18, 308.

참고문헌 조선시대 문헌설화의 승상(박상란, 한국학자료원, 2009), 한국의 인간상(우정상, 신구문화사, 1966).

필자 김승찬(金承燦)

민담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정의 서울사람이 시골사람을 속이려다가 오히려 속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선조 한문 문헌에는 전하지 않으며, 1910년에 발간된 재담집 『요지경』에 서울사람이 시골에 갔다가 시골아이에게 속는 내용의 재담이 처음 보인다. 또한 “서울 손님은 고을 으히의게 각금 이럿치오.”라고 끝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런 일이 종종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화는 적어도 1900년대 이후부터 전승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줄거리 어수룩한 시골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큰 가게를 기웃거렸다. 가게 주인은 시골사람이 어수룩하게 생겼기에 돈을 벌어 볼 심산으로 명태를 좋은 고기라고 속여 열 냇을 주고 팔았다. 시골사람은 자루에 명태를 집어넣고서는 가게 주인에게 자루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시골사람이 다시 와서 맡겨 놓은 자루 속에 손을 넣어 보더니 돈 천 냇이 없어졌다며 물어내라고 하였다. 가게 주인은 그런 돈을 본 일이 없으니 물어 줄 수 없다고 대들었다. 이렇게 해서 시골사람과 서울 가게 주인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 순검(巡檢)이 지

나다가가 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 이야기를 들은 순검은 명태 한 마리에 열 냇이나 받고 판 가게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가게 주인에게 천 냇을 내주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가게 주인은 시골사람에게 돈 천 냇을 물어주게 되었다.

변이 이야기 속 대결 구도에 있는 인물이 가난한 영감과 잘사는 영감, 꾀 많은 여자와 어리석은 남자, 술수 좋은 머슴이나 소금장수 또는 남자와 어리석은 남자, 빌려준 사람과 빚진 사람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상대를 속이는 내용으로는 풀이나 술을 짜는 강아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나팔이나 방망이, 떡이 열리는 나무, 팥을 잡는 솔뚜껑이나 옹기그릇, 돌멩이, 맷돌, 밥상을 차리는 다듬잇돌, 알 낳는 소 등으로 속이는 예와 가짜 무덤을 만들어 죽은 척하고 그 속에 숨어 있다가 서울 사람의 똥구멍을 찢어서 속이는 예, 그리고 가짜 밀을 만들어 속이는 예가 있다.

분석 이 설화는 조선 후기에서 근대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사람과 시골사람의 상호 인식상 충돌 지점과 그 변모를 반영한다. 특히 경제적 이해타산에서 시골사람이 서울사람을 압도하는 내용이 많다. 이는 정치적 상하 관계로 서울사람과 시골사람을 인식하던 중세의 경향이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서히 변모되었음을 보여 준다.

의의 조선 후기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있는 사회에서 시골사람이 서울사람을 이겨 보려는 인식을 드러내는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6, 493,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5, 255, 한국재담자료집성1(정명기, 보고사, 2009).

참고문헌 요지경(박영진, 슈문서관, 1913), 한성, 경성, 서울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공간 인식과 서울사람에 대한 인식 변화(최원오, 기호학연구26, 한국기호학회, 2009).

필자 최원오(崔元午)

전설

서화담

徐花潭

보통어 서경덕

신화

석탈해신화

昔脫解神話

정의 신라 제4대 왕이며 석씨 왕가의 시조인 탈해에 관한 신화.

역사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탈해왕 조와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조가 주된 자료이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도 ‘탈해왕과 김수로왕의 왕위 싸움’에 관한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줄거리 『삼국유사』 탈해왕 조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해왕 때 아진포에서 혁거세왕의 고기잡이 할미였던 아진의선(阿珍義先)이 어느 날 바다에서 까치들이 떼를 지어 날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히 여긴 노파가 살펴 보았더니, 거기에 배 한 척이 있었고 배 안에 큰 궤짝이 있었다. 궤를 열자 안에는 단정하게 생긴 한 사내아이와 여러 보물과 노비 둘이 있었다. 그 사내아이를 7일 동안 보살피 주자, 사내아이는, “나는 본디 용성국(龍城國) 사람이다. 왕비에게서 알로 태어났으나 버림받아 이곳에 달았다.”라고 하였다. 아이는 말을 마치자, 지팡이를 끌고 두 종(從)을 데리고 토함산에 올라가 돌무덤을 파고 7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성 안에 살 만한 곳을 찾은 뒤, 호공(瓠公)의 집에 갔다. 아이는 속임수를 써서 호공 집 곁에 몰래 숫돌과 숯을 묻었다. 다음 날 아침 호공 집에 가서 ‘자신의 조상이 대대로 살았던 집’이라 우겼다. 그리고 관가에 고발하여 “나는 본래 대장장이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자가 차지한 것이니, 그 땅을 파보면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대로 숫돌과 숯이 있어서, 아이가 호공의 집을 차지하였다. 이 사내아이가 탈해이다. 남해왕이 탈해의 슬기로우음을 알고, 만사위로 삼았다.

탈해가 동악(東岳, 토함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백의에게 물을 떠오라 하였는데, 백의가 요내정에서 물을 떠오다가 먼저 그 물을 마시자, 물그릇이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탈해가 꾸짖고 백의가 사죄하니 그릇이 떨어졌다. 그 후로 백의가 두려워 속이지 않았다. 노래왕을 이어서 탈해가 왕이 되었지만, 왕에 오른 지, 23년 만에 죽어 소천구(疏川丘)에 모셔졌다. 훗날 신조(神詔, 탈해 신령의 말)로 뼈를 묻었는데, 그 크기가 역사(力士)의 뼈였다. 이에 뼈를 부수어 소상(塑像)을 만들어 대궐에 모셨다. 다시 신령의 말에 따라 그 상을 동악에 봉안하였고, 나라에서 계속 그를 동악신으로 모셨다.

변이 탈해 관련 기사를 싣고 있는 세 문헌에는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탈해와 수로의 경쟁 기사인데, 『삼국유사』 가락국기 조에는 ‘탈해가 수로와 왕위 싸움에서 밀려난 뒤, 계림으로 달아났다.’라고 하였지만, 같은 책 탈해왕 조에는 ‘수로왕이 백성들과 함께 탈해를 환영하여 맞이하나, 탈해의 배는 외면하고 아진포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가야와 신라 쪽의 입장에 따라 기술된 기사の内容이 다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용성국왕이 왕비가 알을 낳자, 상서롭지 못하다면서 알을 궤에 넣고 칠보와 노비를 함께 배에 실어 띄워 보낸다.’ 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국왕이 알을 버리려 하자, 왕비가 버리지 못하고 비단으로 알을 싸서 보물과 함께 궤 속에 넣고 배에 띄워 보낸다.’ 하여, 알을 배에 띄워 보낸 주체가 다르다. 그밖에도 『삼국사기』에는 노파 아진의선이 탈해에게 학문에 정진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있지만, 『삼국유사』처럼 ‘왕 사후의 이중장 및 산신화’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는 『삼국사기』가 유가의 합리주의 입장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이다.

분석 이 신화에는 고대의 역사 민속과 고고학 자료가 부족한 사정을 볼 때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석탈해와 그 집단의 출신과 문화적 성격이다. 탈해의 출생지가 왜의 동북 1천리에 있는 용성국이며, 그곳에 28명의 용왕이 있다거나, 그 모친이 적녀국(積女國)의 왕녀라 하였고 또한 탈해는 붉은 용이 호위하는 배를 타고 가야의 남해를 거쳐 계림(곧 신라) 동쪽 해안 하서지촌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탈해 집단은 해양문화를 가지며 출생 원천이 물(바다)과 친연성이 깊다는 점을 나타내며, 한국 고대신화에서 천상에 근본을 둔 신화 말고도 물이라는 신성한 조월계를 상징한 신화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탈해의 출신지 기록에 근거하여, 동북 시베리아의 어로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류를 따라 동해안을 거쳐 경주 지역으로 이동하여 왔으며, 선진 청동기 내지 철기문화를 가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둘째는 탈해가 숫돌과 숯을 몰래 묻어 남의 집을 빼앗은 속임수는 이 신화를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 탈해가 ‘사술(詐術)을 통한 지능의 과시’로 호공과 겨루어 집을 빼앗고, 이 때문에 남해왕의 사위가 되며 나아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지능겨루기’가 왕위 등극의 전제였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그에 앞서 있었던 ‘토함산 돌무덤 속에 7일간 머물기’를 ‘상징적 죽음과 재생’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지능겨루기’는 결국 ‘입사식의 시련’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탈해가 자신을 본래 ‘대장장이’라 한 것은 탈해가 새로운 철기문화를 가진 집단의 우두머리임을 말한다. 더욱이 시베리아 사회에서 금속, 철기, 무기들의 주술적 힘을 가

人

석탈해신화

人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진 대장장이가 샤먼(무당)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신라 2대 남해왕이 차차웅 곧 무당을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탈해는 야무왕(冶巫王)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탈해 사후(死後)의 기록은 민속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탈해의 골상이 역사처럼 거대하며, 신령으로 현몽하여 이중장(二重葬)을 치르게 하고, 시신의 뼈를 소상으로 만들어 토함산에 봉안하여 동약신이 되고, 대대로 나라의 제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먼저 이중장은 고대부터 기원이 오래된 것으로 조상숭배 관념, 뼈 속에 영혼이 깃든다는 조상유골 관념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뼈를 소상으로 모신 것은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 볼 수 있는 ‘온곤(ongon, 신체를 깃털, 천, 가죽, 나무로도 만듦)’에 비교될 수 있다. 또한 탈해가 사후에 토함산 산신으로 좌정한 것은 산신이 원래 여성이었다가 점차 남성으로 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삼국사기』에는 그 일이 태종 무열왕 때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함산이 국방의 요충지로서 국가의 제사처인 오악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탈해의 산신화는 무력이 중시된 삼국전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석탈해신화)는 서사문학상 그 내용이 풍부하여 ‘영웅의 일생’의 전기구조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세계 영웅신화의 보편적인 서사구조에 해당한다.

의의 (석탈해신화)는 신라의 건국신화가 아니라 석씨 왕가의 시조신화로, 이와 유사한 것은 김씨 왕가의 시조신화인 (김알지신화)가 있다. 아울러 신라 육촌장신화와 함께 성씨시조신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신화는 건국시조신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탈해가 야무왕의 성격을 지니고, 고대국가 초기에 왕과 샤먼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사후의 이중장 및 남성 신격의 산신화라는 민속적 사례를 제공하여 한국 서사문학상 풍부한 내용의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三國遺事, 三國史記.

참고문헌 석탈해신화의 연구(김하경, 어문학69, 한국어문학회, 1998), 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 집문당, 2000), 한국신화와 무속연구(김열규, 일조각, 1977).

필자 이지영(李志映)

민담

선녀와 나무꾼

정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나무꾼이 짝이 되었다가 영원히 이별했다는 설화.

역사 이 설화는 도교사상이나 신앙과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유래가 꽤나 오래되었다고 추정되며, 민간에도 널리 퍼져 있다.

줄거리 아주 옛날 한 마을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무꾼이 부지런히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사냥꾼에게 쫓기던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서는 살려 달라고 애원했다. 나무꾼은 쌓아 놓은 나뭇더미 속에 사슴을 숨겨서 사냥꾼으로부터 구해 주었다. 무사히 살아난 사슴은 나무꾼에게 산을 돌아 나가면 하늘의 선녀들이 먹갈 감는 연못이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그리고 선녀들이 먹갈는 틈을 타서 그중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선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 이내 아내가 될 거라고 했다. 그런데 둘이 결혼해서 세 아이를 낳기까지는 날개옷을 깊이 감추고 절대로 보여 주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을 찾아가서 사슴이 일러준 대로 했다. 먹갈 다 감은 선녀들이 다들 하늘로 돌아가는데, 날개옷을 도둑맞은 막내 선녀는 그러지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나무꾼은 막내 선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나무꾼은 선녀와 수삼 년을 지나는 사이에 아이를 둘 얻었다. 아내는 이제 아이를 둘이나 두었으니 제발 날개옷을 보여 달라고 했다. 결국 나무꾼은 날개옷을 꺼내 와서 선녀에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날개옷을 날째게 입더니 두 아이의 손을 잡고는 훨훨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혼자 내버려진 나무꾼에게 사슴이 찾아왔다. 사슴은 연못을 다시 찾아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나무꾼은 연못으로 가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났다. 그렇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고자 했다. 아내는 천마 한 마리를 내주면서 타고 가서 어머니를 만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에서 내려 땅을 밟지 말라고 했다. 나무꾼은 천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팔죽을 끓여 주었고, 아들은 팔죽이 너무 뜨거운 탓에 먹다가 말 등에 흘리고 말았다. 그러자 말이 기겁하고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천마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다시는 하늘로 못 가게 된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닭이 되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듯이 울었다.

변이 전체 줄거리는 그 자체로 독립될 수 있는 세 토막으로 나뉜다. 첫째, 선녀가 하늘로 되돌아가서 나무꾼이 혼자 되는 이야기이며, 둘째, 나무꾼도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선녀와의 재결합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나무꾼이 혼자 하늘에서 내려와 닭으로 변신하는 이야기이다. 이 세 토막이 또 첫째 토막, 첫째+둘째 토막, 첫째+둘째+셋째 토막으로 각기 독립된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면서 세 편의 변이가 구전되고 있다. 이 세 개의 변이는 각기 나무꾼과 선녀의 이별, 나무꾼과 선녀의 함께 되기, 혼자된 나무꾼이 닭으로 변신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변이에서 선녀는 원하던 대로 고향인 하늘로 되돌아가서 행복한 결말을 맞지만,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만다. 그리고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비극을 맞는다. 둘째 변이를 보면 하늘에서 재회함으로써 나무꾼은 선녀와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한편, 셋째 변이에서 나무꾼은 홀로 지상에 내려와 닭으로 변신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변이의 즐거리를 주인공인 나무꾼을 중심으로 볼 때 ‘비극-해피엔딩-비극’으로 엮갈리게 나타난다.



벽사도
국립민속박물관

민담

선녀홍대

仙女紅袋

갈라서는 비극이 이 설화에서 그려진다.

한국 남성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여성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여성이 다름 아닌 선녀이다. 남성들이 마음으로 그려 볼 수 있을 뿐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꿈의 여성, 그것이 하늘의 선녀에 깃들인 원형일 것이다.

특징 (금강산 선녀) 이야기라고도 하는 (선녀와 나무꾼)은 비슷한 민간전승이 세계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으나, 그중에도 몽골과 동북 시베리아 지역에서 전해지는 (백조 처녀)와 보다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의의 한국에 전해진 민간설화 가운데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애기가 곧 이 설화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랑을 받아 만화, 연극, 뮤지컬로 다양하게 옮겨져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3-2, 411; 4-2, 219; 8-14, 507.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일민담의 비교연구(성기설, 일조각, 1979).

필자 김열규(金烈圭)

정의 신라시대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이 시를 통해 귀신과 사랑을 나눈 행적에 관한 설화.

역사 이 설화는 당나라 장문성(張文成)의 (유선굴(游仙窟))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태평통재(太平通載)』 권68에 (최치원전)으로 수록되어 전승되던 것이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선녀홍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문헌에서는 남송 장돈이의 『육조사적편류(六朝事迹編類)』에 (쌍녀묘)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최치원은 중국 유학 중 어느 날 쌍녀분이라는 무덤의 석문에 시를 쓴다. 그곳은 18세와 16세에 소금장수와 차장수에게 시집오기를 권유받으나 마음에 차지 않아 우울병에 걸려 요절한 부호 장 씨의 두 딸 무덤이었다. 그들은 비록 귀신이 되었지만, 최치원이 무덤에 남긴 시를 보고 최치원과 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나눈다. 하지만 다음 날 두 여

립된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면서 세 편의 변이가 구전되고 있다. 이 세 개의 변이는 각기 나무꾼과 선녀의 이별, 나무꾼과 선녀의 함께 되기, 혼자된 나무꾼이 닭으로 변신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 변이에서 선녀는 원하던 대로 고향인 하늘로 되돌아가서 행복한 결말을 맞지만,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고 만다. 그리고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국 비극을 맞는다. 둘째 변이를 보면 하늘에서 재회함으로써 나무꾼은 선녀와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한편, 셋째 변이에서 나무꾼은 홀로 지상에 내려와 닭으로 변신함으로써 비극적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이처럼 세 가지 변이의 즐거리를 주인공인 나무꾼을 중심으로 볼 때 ‘비극-해피엔딩-비극’으로 엮갈리게 나타난다.

분석 지역별로 널리 퍼져 있는 민간설화이며, 손진태를 중심으로 최상수 그리고 성기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선녀와 나무꾼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처지 그리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넘어서서 꿈같이 짝이 되지만, 결국은 그 차이 때문에

인은 사라지고, 최치원은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한다.

변이 『대동운부군옥』, 『태평통재』에 변이형이 전승된다. 두 변이형 모두 환상적인 사랑이라는 공통된 모티프를 갖지만, 『태평통재』에는 주인공들이 주고받은 애정시와 최치원이 다음 날 새벽에 두 여인과 작별한 뒤 쌍녀분을 찾아와 부른 장가(長歌)가 나타나 있는 반면, 『대동운부군옥』에서는 그런 시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고 환상적 애정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분석 이 설화에는 원한을 푸는 과정에서 삽입 시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인간과 귀신 간의 사랑이라는 환상적 주제를 서사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시를 통해 이들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됨으로써 서사의 극적 요소가 강화된다. 이처럼 시 쓰기를 통해 원한을 푸는 모습은 시에 대한 당시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다. '시'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 당시 시가 수행한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 대해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에는 다양한 용사의 제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문장가로서 최치원의 능력과 시 쓰기의 방법에 관해 파악할 수 있다.

의의 의의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우선 서사구조 전반에 깔려 있는 환상적 애정 양상이다. 이는 이후 김시습 『금오신화(金鰲新話)』의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과 비교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 찾을 수 없는 마음속의 이상적 애정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은 어쩔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후 낭만적 열정은 유교적 규범을 넘어서는 고전서사에 주제로 계속 등장한다. 다음으로, 당시 시에 대한 인식과 최치원의 시에 나타난 다양한 용사(用事)의 제법이다. 두 여인이 최치원에서 매력을 느끼고 마음병을 치유 받는 모습을 통해 글쓰기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한 당시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치원이 보여 준 어전과 사전을 통한 용사의 제법은 당시 글쓰기의 전범과 다양한 기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출처 大東韻府群玉, 殊異傳, 太平通載.

참고문헌 신라 수이전 최치원 본고(이갑근 외, 중국어문학33, 중국어문학회, 1999), 쌍녀분기의 작가와 창작배경(이동환, 민족문화연구37, 고려대학교 문학연구원, 2002), 애정전기소설사 초기의 성격(이정원, 고소설연구25, 한국고소설연구회, 2008), 최초의 낭만적 작품 신라 수이전 부 최치원과 쌍녀분(장덕순, 한국고전문학의 이해, 일지사, 1973), 최치원전의 용사법과 문화심리학적 분석(한계호 외, 연민학지15, 연민학회, 2011), 태평통재전권 소고(이인영, 진단학보12, 진단학회, 1940).

필자 송효섭(宋孝燮)

전설

선덕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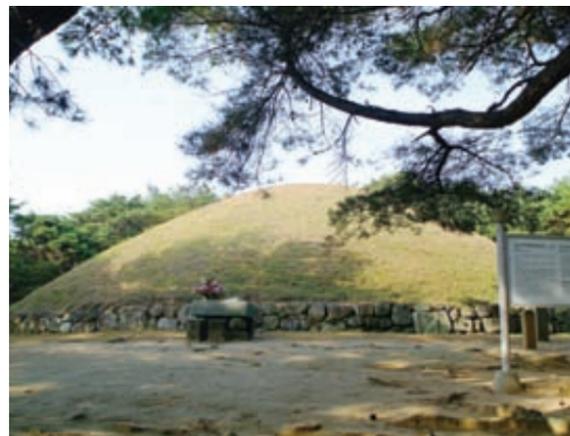
善德女王

상호 참조 지귀

정의 신라 27대 왕이며 최초의 여왕인 덕만이 왕과 여성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 주는 설화.

역사 〈선덕여왕설화〉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는 〈모란설화〉 유형과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는 〈지귀설화〉 유형으로 전승된다. 전자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紀異)」 제1 〈선덕왕지기삼사(善德王知幾三事)〉 조와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節要殊異傳), 『수이전(殊異傳)』(雜錄殊異傳)에, 후자는 『태평통재(太平通載)』와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에 유사한 유형이 실려 전승된다.

줄거리 진평왕의 딸 덕만은 신라 27대 왕으로 시호는 선덕여대왕이고 정관 6년 임진년에 즉위하여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선덕 여왕은 재임 중 세 가지 일을 미리 알아 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주었다. 먼저 당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으로 그린 모란꽃 그림과 씨앗 석 되를 보내 왔는데 이 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 다음으로 영묘사 옥문지에서 한겨울에 수많은 개구리가 사나흘 동안 울어댔는데 이것을 보고 서쪽 교외의 여근곡에 정병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습격하여 모두 죽였다. 끝으로 자신이 죽을 해, 달, 날을 예언하여 도리천 가운데서 제사지내게 하였다. 이것이 모란설화 유형이다. 이 외에도 지귀설화 유형이 있다. 신라 사람 지귀(志鬼)가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에 빠져 왕을 만나기를



선덕여왕릉
경북 경주시 보문동, 한국관광공사



모란도
국립민속박물관

학수고대한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영묘사에서 그를 만나려 하지만 지귀는 영묘사 탑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져 만나지 못한다. 왕을 기다리다 잠들어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 지귀는 마음에 화가 일어 몸을 태우고 화귀(火鬼)가 되었다.

변이 왕과 여성으로서 덕만이 지닌 능력에 관한 설화이다. 여성의 면모를 강조한 〈지귀설화〉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승된다. 이에 반해 〈모란설화〉는 전승본에 따라 다른 인식을 보여 준다. 『삼국사절요』에서는 왕으로서의 지위가 강조되고, 세 가지 사실을 미리 알아내는 능력은 부차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수이전』에 있는 〈지귀설화〉에서는 덕만의 능력이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같지만 지위가 왕이 아닌 공주로 나타난다. 끝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왕으로서의 지위는 물론 능력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주로 주인공의 능력과 그것의 실현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모란설화〉에서는 신통력 있는 왕으로서의 능력을, 〈지귀설화〉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준다.

특징 〈선덕여왕설화〉에는 최초의 여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욕망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즉, 왕으로 기대하는 모습과 여성으로 기대하는 모습이 이중적인 전승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능력에 대한 변이형이 다양한 것은 여왕의 입지와 능력을 바라보는 당시의 복합적인 시선이 반영된 것이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선덕 여왕의 기호 해석 능력이 주목되는데, 이는 당대에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기호와 상징의 소통 양상에 대해 알려 준다. 기호가 제시되고 그것이 해석되는 양상은 『삼국유사』의 여러 설화 가운데서도 특히 〈선덕여왕설화〉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출처 大東韻府群玉, 三國史節要, 三國遺事, 殊異傳, 太平通載, 한국국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5, 385.

참고문헌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조동일, 집문당, 1990), 선덕여왕 이미지 창조(정현식, 한국사연구74, 한국사연구회, 2009), 선덕여왕지기삼사조 설화 연구(강재철, 동양학21, 동양학연구소, 1991), 신라 선덕여왕에 대한 재고(김수연, 동국사학 44, 동국사학회, 2008), 초월의 기호학-뤼토스와 로고스로 읽는 삼국유사(송효섭, 소나무, 2002).

필자 송효섭(宋孝燮)

신화

선도산성모

仙桃山聖母

정의 박혁거세의 모신(母神)이자 경상북도 경주시 선도산의 여산신 성모에 관한 신화.

역사 선도산성모는 신라의 시조모로 알려졌으므로 신라 건국 시기에 출현한 존재로 볼 수 있다. 김부식이 송나라 사신으로 가서 접한 성모 숭봉(崇奉)의 일을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한 것이 최초의 자료이다. 일연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그녀는 선도산의 여산신으로 신라 삼사(三祀)의 대상이었으며 신사(神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는 고려 사람들도 성모의 일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전한다.

줄거리 진평왕 때 비구니 지혜의 꿈에 선도산성모가 나타나 자신의 신사 밑에 있는 황금으로 안홍사의 불전을 수리하라고 일렀다. 지혜는 성모가 시킨 대로 따랐다. 성모는 원래 중국 제실의 딸로 일찍이 신선의 술법을 배워 해동으로 왔다. 그 부황이 보낸 소리개가 선도산으로 날아가 머무르자 성모

도 선도산에 머물러 지선(地仙)이 되었다. 성모가 선도산에 오래 살면서 신이한 일이 많이 있어 나라에서 이 산을 삼사의 하나로 삼았다. 성모는 사냥 중에 잃어버린 경명왕의 매를 찾아주고 '대왕'을 봉작받기도 했다. 그녀는 또 진한에 처음 왔을 때 두 성군인 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 하늘의 선녀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남편의 조복을 만들어 주기도 했으니, 나라 사람들이 그녀의 신비한 영험을 알게 되었다.

변이 현몽을 통한 수희불사(隨喜佛事) 등의 모티프는 『삼국유사』에만 있다. 일연은 선도산성모를 서술산성모라고도 일컬었다. 또 일연은 선도산성모가 낳은 해동의 시조가 박혁거세와 알영이라고 했지만, 김부식은 그에 대해 구체적 실증을 하지 않았다. 『삼국유사』외의 다른 기록들은 지아비 없이 잉태하여(不夫而孕) 남에게 의심을 받게 되자 해동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성모를 폄하하였다. 이는 신화적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변이다. 조선조 이후에는 성모 전승 자체를 괴설시하고 그 변증을 추구하는 유학자들의 탈(脫)신화적 언술이 늘어나는 한편, 난생설을 버리고 오히려 성모 탄생을 천명으로 강조하는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유교적 합리주의와 함께 가문 신앙의 이데올로가 작용한 결과였다.

분석 『삼국유사』의 〈선도산성모신화〉는 선도산성모의 이주(移住)에 관한 내용과 함께 고려 때까지 전승된 성모의 영험담을 모아놓은 것이다. 선도산성모가 남편 없이 박혁거세와 알영을 낳았다는 내용은 천강과 난생을 부각하는 〈신라국조신화〉와는 모순된다. 그래서 선도산 성모의 실체와 아울러 신라에서 두 유형의 국조신화가 전승된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징 선도산성모는 여산신이자 시조모라는 특징을 지닌 점에서 가야산 정경모주, 지리산성모와 유사하다. 동신성모 유화는 시조모이지만 산신으로 좌정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여산신 신앙이 국조신화와 연계되는 것은 대체로 남방계 신화의 특징이다. '부계(父系)'의 탐색과 계승을 강조하는 다른 국조신화들과도 대조적이다.

의의 〈선도산성모신화〉는 신라 시조(박혁거세신화)의 이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불부이잉'의 모티프는 대모신(大母神)의 신화와 닮아 있는 것이다. 또한 '현몽', '매 찾아주기', '천녀(天女) 직조' 등의 에피소드를 통해 영험담 신화의 오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三國史記, 三國遺事, 帝王鎮紀

참고문헌 서술산 여신 신화와 선도산 여신 신화의 서사윤곽과 구비문학적 면모

(윤해신, 구비문학연구34, 한국구비문학학회, 2012), 선도성모담론의 신화학적 조명(천혜숙, 구비문학연구26, 한국구비문학학회, 2008),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박상란, 한국학술정보, 2005).

필자 천혜숙(千惠淑)

전설

선운사

禪雲寺

정의 선운사의 창사연기(創寺緣起)에 관한 설화.

역사 선운사는 진흥왕(540~576)에 의한 창사설화와 577년(위덕왕 24) 검단선사(黔丹禪師)에 의한 창사설화가 전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이 창사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도솔산선운사창수승적기(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와 같은 문헌기록에 의한 것이며, 검단선사에 의한 창사설화는 구전자료에 의한 것이다. 두 설화 모두 6세기 후반 무렵에 생성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줄거리 먼저, 신라 진흥왕이 창사했다는 설화는 진흥왕이 늙어서 왕위를 버리고 도솔산의 어느 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이때 미륵 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꿈을 꾸고 크게 감응하여 왕비 도솔(兜率)과 딸 중애(重愛)의 이름을 따서 도솔암과 중애사를 창건하고 존상(尊像)을 봉안함으로써 선운사의 시조를 열었다는 이야기이다. 일설에는 진흥왕이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 의운화상(義雲和尚)을 선운산에 보내 선운사를 창건했다거나 의운화상이 진흥왕의 큰 시주를 얻어 대참사(大叅寺)를 창건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검단선사에 의한 창사설화는, 본래 선운사 자리는 용이 살던 큰 못이었었는데 검단선사가 이 용을 몰아내고 돌과 솥으로 못을 메워 그



선운사 대웅전
전북 고창군 아산면, 문화재청

자리에 선운사를 세웠다고 한다. 솥으로 연못을 메우는 과정에서, 검단선사는神通력으로 마을사람들이 눈병을 앓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연못에 솥을 던지면 눈병이 낫는다고 하였다. 이에 마을사람들이 너도나도 연못에 솥을 던지니 금세 못이 메워졌다고 한다.

변이 검단선사에 의한 창사설화는 검단리의 소금 생산 기원설화와 맞물려 전승되고 있다. 검단선사가 선운사를 창건하고 나서 마을사람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사람들은 해마다 봄·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갖다 바치면서 이를 '보은염(報恩鹽)'이라 불렀으며, 마을명도 검단리라 하였다고 한다.

분석 선운사 창사설화와 보은염에 대한 연구는 고창 지역의 '자염(煮鹽) 생산에 관한 조사보고에 의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당시 신라와 백제의 역사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선운사 창건은 신라의 진흥왕보다는 백제의 검단선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징 진흥왕 창사설화에 나타나는 미륵삼존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하는 미륵사 창사설화를 연상시키며, 도솔암과 관련해서 선운사가 미륵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단선사가 연못의 용을 쫓아내는 과정은 토착종교를 내몰고 외래종교인 불교가 들어서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검단선사는 용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솥을 이용하고 백성들에게 솥 굽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는 당시의 선진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단선사가 용추를 메우는 데 흙을 이용하지 않고 솥을 이용한 것은 외래문화가 토착문화를 점유하는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의 검단선사에 의한 선운사 창사설화에 덧붙여 전승되는 〈보은염설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자염(煮鹽)이 만들어지게 된 내력과 전통적인 소금 제조법을 알 수 있다.

출처 兜率山禪雲寺創修勝蹟記, 고창군지-하(고창군지편찬위원회, 2009), 명찰순례2(최완수, 대원사, 1994),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4, 136.

참고문헌 검단선사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이동철, 실천민속학18, 실천민속학회, 2011), 선운사 창건과 보은염의 유래(김용덕, 한국언어문화39, 한국언어문화회, 1997), 선운사 창건설화의 고찰(김상현, 신라문화33,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필자 한미옥(韓美玉)

신화

설문대할망

정의 바다 속의 흙을 삼으로 떠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제주 여성신에 관한 설화.

줄거리 태초에 탐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할망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누워서 자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방귀를 끼었더니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했다. 불꽃 섬은 평음을 내며 요동을 치고,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할머니는 바닷물과 흙을 삼으로 퍼서 불을 끄고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날라 부지런히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 치마폭의 흙으로 한라산을 이루고 치맛자락 터진 구멍으로 흘러내린 흙들이 모여서 오름들이 생겼다. 또 할망이 싸는 오줌발에 성산포 땅이 떨어져 나가 소섬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몸속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풍요로웠다. 탐라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밭을 갈았다. 할머니의 털은 풀과 나무가 되고, 할머니가 싸는 힘찬 오줌 줄기로 부터 온갖 해초와 문어, 전복, 소라, 물고기들이 나와 바다를 풍성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물질하는 잡ner가 생겨났다.

할머니는 흰 치마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 빨래를 해야만 했다. 한라산에 엉덩이를 깔고 앉고,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놓고, 또 한쪽 다리는 서귀포시 앞바다 지귀섬에 놓고서, 성산봉을 빨래바구니 삼고, 소섬은 빨랫돌 삼아 빨래를 했다. 가끔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워 발끝은 바닷물에 담그고 물장구를 쳤다. 그때마다 섬 주위에는 하얀 거품이 파도와 물결을 이루었고, 몸을 움직이고 발을 바꿀 때마다 거대한 폭풍처럼 바다가 요동쳤다. 한라산에서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한 발로 한라산을 딛고, 또 한 발로 성산봉을 딛고, 관탈섬을 빨랫돌 삼으면, 세상은 또 한 번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



영장매키지(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다 만 곳)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허남준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풍요로움의 근원인 설문대할망도 거대함으로 인해 불행했다.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터지고 흰 치마를 입고는 있었지만 고래굴 같은 자신의 음문을 가릴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항상 탐라 백성들을 위해 욕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속옷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욕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할머니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이 필요했다. 탐라 백성들이 명주를 다 모아도 99통밖에 안 되었다. 99통을 베어 짜서 속옷을 만드는데, 속옷 한 벌을 다 만들지 못했다. 인간 세상에 명주가 별로 없을 때라서, 사람들은 모자람과 안타까움 탓에 속이 상했고, 할머니는 음문이 살며시 드러난 미완성의 속옷에 부끄럽고 화가 났다. 할머니는 욕지까지 다리 놓는 걸 포기해 버렸고, 그때부터 제주는 물로 막힌 섬이 되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 용연물이 깊다고 하기에 들어섰더니 발등에 겨우 닿았고, 홍리물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한라산 물장오리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순간 빠져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죽음과 오백장군 이야기가 결합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있다.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을 낳아 한라산에서 살고 있었다. 식구는 많고 가난한데다 마침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이어갈 수 없었다. 할머니는 아들들에게 밖으로 나가 양식을 구해 오라고 했다. 오백 형제들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 할머니는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백록담에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지핀 다음, 술전 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어머니는 죽 솥에 빠져죽어 버렸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오백 형제는 돌아와서 죽을 먹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죽 맛이 좋았다. 맨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가 죽을 뜨려고 솥을 젖다가 이상한 빠다귀를 발견했다. 다시 살펴보니 어머니의 뼈가 틀림없었다. 동생은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불효한 형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통탄하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 한없이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그제야 사실을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없이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졌다. 그러니 영실(靈室)에는 499장군이 있고, 차귀섬에 막내 하나가 외롭게 있다.

분석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여신이다. 제주도 각지에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지역의 지형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각색되어 향토색을 반영하며 전승되어 왔다. 설문대할망이 가장 보편적인 명칭이지만, 옛 문헌에는 ‘사만두고(沙曼頭姑)’, ‘선마고(訛麻姑)’ 등으로 기록되어 있

으며, 민간에서는 ‘선문대할망, 설문디할망, 설만두할망, 설명지할망, 세명주할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전승되어 왔다. 설문대할망은 물속에서 흙을 퍼 올려 제주도를 만들었으므로 창조신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설문대할망신화>는 창세신화이며, 천지창조의 거인신화라 할 수 있다. 신화 전승의 유형으로 볼 때 <설문대할망신화>는 구전산문신화로써 문헌으로 기록되지도 않고, 제의나 신앙에서도 제외된 채 단순히 구두 전승만을 지속하고 있는 천지창조신화라 할 수 있다.

특징 신화의 존재양상을 살펴보면, 배설물로 지형을 만들거나 성기로 사냥을 하는 등의 형태로 설문대할망이 회화화되거나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는 비극적인 존재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의 뱃사람들은 설문대할망을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었음을 보여 준다. 이와 더불어 드문 사례 이기는 하지만 표선리 당개 포구의 해신당에서는 설문대할망이 해녀들을 보호해 주고 부(富)를 가져다주는 당신(堂神)으로 나타나며, 고봉선(高奉仙) 심방 구송의 <산신굿가사>에도 설문대할망을 섬기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무속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제주도전설(현용준, 서문당, 1976), 제주도전설지(제주도, 1985), 풀어쓴 한국의 신화(장주근, 집문당, 1998).

참고문헌 漂海錄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고혜경, 한겨레출판, 2010), 한국의 거인설화(권태효, 역락, 2002).

필자 문무병(文武秉)

민담

설씨녀

薛氏女

정의 신라 진평왕 시절, 약혼자 가실(嘉實)과의 신의를 굳게 지킨 여인에 관한 설화.

역사 인간적 신의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 설화는 1145년(인종 23)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三國史記)』 권48 열전(列傳) 제8조에 처음 보이는데,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21과 조선 후기의 『계산담수(鷄山談藪)』에도 실려 있다.

줄거리 설씨녀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었지만 행동거지가 바르고 용모가 아름다웠기에 감히 함부로 넘보지 못했다. 늘

은 아버지가 군대에 징집되자 자신이 대신할 수도 없어서 매우 근심했는데, 마침 설씨녀를 좋아하던 가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대신 가기를 청했다. 아버지는 그 보답으로 딸을 주겠다고 가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다. 하지만 설씨녀는 혼인이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자신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돌아와서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그의 청을 거절하는 대신 거울을 쪼개어 신표로 주었다. 그런데 3년을 기약하고 떠난 가실이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아버지는 딸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려 했다. 설씨녀는 가실이 자신을 믿고 종군하여 고생하고 있는데 신의를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므로 아버지의 명을 따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아버지가 몰래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자 설씨녀는 도망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가실이 두고 간 말이 있는 마구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남루한 옷에 몰라보게 마른 가실이 돌아와 쪼갠 거울을 던져 자신임을 알렸다. 결국 설씨녀는 가실과 혼인하여 해로하였다.

분석 <설씨녀>는 도미의 처, 온달의 처 등 『삼국사기』 열전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성처럼 아내의 처지로 그려진다. 김부식의 유가적 입장을 여성의 입전(立傳) 의식에서 분석한 연

구 성과들이 대부분 ‘열(烈)’ 의식을 주목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이념화된 열행(烈行)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녀 간의 인간적 신의(信義)를 강조하는 설씨녀의 행동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열절(烈節)로 해석하기보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보편적 윤리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의의 이 설화는 『삼국사기』 열전 중 인물전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편찬자인 김부식의 유학자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혼자에 대한 신의를 지킨 설씨녀의 열행 말고도 스스로 자신을 지켜 내고 아버지의 그릇된 결정을 교정하는 주체적인 행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조선시대 기록에 보이는 열녀의 행위가 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평가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설화에서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인 신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출처 三國史記.

참고문헌 고전 서사문학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예술양상(신선희, 고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이혜순, 고전문학연구11, 한국고전문학회, 1996).

필자 강성숙(姜盛淑)

용어

설화

說話

정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일정한 줄거리를 가진 허구적인 이야기. 민간에서는 ‘옛(날) 이야기’ 혹은 ‘고담(古譚)’, ‘야담(野譚)’ 등으로도 이르며, 또한 ‘민간에 전해 오는 이야기’란 뜻으로 ‘전설(傳說)’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설화’의 하위 범주의 이야기 명칭으로 사용함이 좋을 듯하며, 사실상 요즘에는 ‘설화’란 명칭이 모든 종류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학술상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추세에 있다.

역사 설화가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설화는 주로 입으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화가 세계 최고(最古)의 문자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가상할 수는 있다. 바빌로니아 지방의 수메르 족이 토판에 췌기문자로 써서 남긴 <길가메시(Gilgamesh)>의 이야기는 B.C. 2,000~3,000년경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자료에 내포되어 아직까지도 세계 여러 민족의 설화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대홍수전설>와 같은 이야기들은 무려 4,000~5,0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기원전 천수백 년의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기독교·불교·유교 같은 종교의 경전들에도 기원전 수백 년을 소급할 수 있는 이야기 자료들이 수록되어 전한다. 그 밖에 전문 연구가들은 희랍신화나 이슬람화, 인도의 고대 서사시나 불전(佛典) 문학 중에 일부 자료들이 기원전에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 문헌의 일실로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먼 조상이 유입 정착할 때부터 설화문학은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연 남아 있지 않다. 기록이 시작된 이후에도 초기의 자료들은 극소수의 금석문이나 벽화 따위 혹은 중국 문헌에 수록된 단편적인 자료들로써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주몽 혹은 동명왕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고구려의 국조설화는 12~13세기의 문학가 이규보에 의해 자세히 기록되었지만 그 원초적인 모습의 일단은 이미 5세기경에 세워진 ‘광개토대왕비’에 편린이 보인다. <도깨비방망이>또는 <홍부늬부> 이야기와

유관한 자료로 알려진 신라의 <방이 설화>는 9세기경의 중국 문헌인 『유양잡조(酉陽雜俎)』에 수록되어 있다.

12세기의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특히 「열전」에 민간전승 자료들이 꽤 많이 수합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화문학서라 할 만한 문헌은 『삼국유사(三國遺事)』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거의 불교 취향의 것들이지만, 설화임에는 틀림이 없고, 개중에는 민간설화를 그대로 수록한 자료들도 꽤 많이 보인다.

이보다 앞서 박인량이 편찬했다는 『수이전(殊異傳)』은 현재 원전은 전하지 않고 10여 편의 잔편만이 남아 있는데, 이들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개인 창작 작품이라기보다는 설화 문학적 성향이 강해 보인다.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이르르면 수많은 문헌들에서 설화 자료들을 찾을 수 있거니와, 특히 15세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7세기 『순오지(旬五志)』 같은 문헌에는 설화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이 무렵에는 설화 전집 편찬이라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예컨대 15세기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이나 17세기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같은 문헌들을 들 수 있다. 이어 18~19세기에는 『계서야담(溪西野談)』·『동야취집(東野彙輯)』·『청구야담(靑邱野談)』 같은 3대 야담집을 비롯한 수많은 야담집들이 산출되었고, 이들을 한데 모은 『대동야승(大東野乘)』·『패림(裨林)』·『고금소총(古今笑叢)』 같은 총서까지 유행하였다.

19세기 말 내지 20세기에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조선’이라는 국가 혹은 민족의 생활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땅의 설화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기 시작하였고, 이어 우리말로 된 설화집들도 간행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까지 간행된 설화집 중 외국어로 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과 정인섭의 『Folk Tales From Korea』(1952)를 들 수 있다. 이후 1980~1988년, 약 8년간에 걸쳐 간행된 『한국구비문학대계』 총 82권은 현지조사 자료를 구연 그대로 수록한 매우 방대한 양의 설화 자료집이며, 이어서 간행된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 전 12책(1988~1993)도 빼 놓을 수 없는 주요 자료집이다.

설화가 어디에서 발생했을까 하는 문제는 18세기 이래 연구자들의 주요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더구나 설화의 각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문자로 기록되어 전승되는 기록문학과 달리, 설화는 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발생 시대와 마찬가지로 발생 장소를 찾을 수는 없다. 다만 특정 유형에 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설화의 발생지를 제한적으

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과거에 설화의 인도발생설이나 중근동발생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이러한 주장들은 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설화적 작품을 놓고 시대와 공간을 특정시키려 해 봤자 그 결과는 헛된 추정으로 끝날 뿐이다.

내용 설화는 통상적으로 신화·전설·민담의 셋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셋의 말뜻(語義)을 본다면 각각 ‘신의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쯤이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이들 간의 구별은 매우 모호한 셈이다. 물론 학술적으로는 이 셋을 엄밀히 구별하기 위한 차이점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예컨대 <주몽(동명)설화>, <죽령산신설화>는 신화인가 전설인가, 혹은 <꽃설화>, <동물로의 환생설화>, <임경업설화>는 전설인가 민담인가를 판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신화의 내용은 대체로 민간에서 숭앙되는 신들이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 및 신이 된 후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은 최초부터 신일 수도 있지만, 인간 영웅이 신으로 승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랑의 경우와 같이 체계를 이루는 구전신화는 드물고, 국조신화나 시조신화 같은 문헌 신화나 무당들의 무속신화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설의 주 내용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인간의 활동을 그린다. 전설의 대상은 산이나 강, 혹은 마을 같은 자연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유물 같은 인공물, 인간이나 동식물, 사물 등에 대한 신앙적 행위 등이다. 그리고 이를 확신시키기 위한 증거물이 반드시 첨가된다.

설화의 하위 범주를 신화·전설·민담으로 나누는 3분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화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동(식)물담·소담·신이담·일반담·형식담으로 구분하는 5분법의 분류안도 제기되기도 한다. 내용 위주의 분류에 형식 위주의 ‘형식담’을 더함이 이상하다면 형식담을 소담에 포괄시켜 4분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분류안도 좀 더 세분하여 하위 분류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착종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상위 분류 항목들 간의 경계는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분류안을 통하여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동(식)물담은 의인화된 동물, 또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의인화된 식물들의 이야기이다. 인간이 등장할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인간의 역할은 보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둘째, 소담은 웃음을 주는 이야기로, 대개가 단편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구전성이 강한 일화들 중 소담적인 것들도 여기에 속한다. 셋째, 신이담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상 속 초인들의 신비스러운 이야기이다. 넷째, 일반담은 신비스런 요소가 제거된 보통 인간들의 이야기로, 이른바 야담·일화들의 상당수가 포함된다. 교훈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형식담은 이야기의 진행 자체가 특별한 형식(frame)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가령 반복·누적·연쇄·회귀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 이 이야기들 역시 넓은 의미로는 소담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형식적 특성에 의하여 독립시킨다.

특징 설화는 역사 시대 이전부터 있어 온, 말로 된 예술 형식이다. 아직 기록 수단을 갖지 못한 인류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개인 혹은 집단의 다수 구성원에게 흥미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구연하였다. 처음에는 개인에게서 시작되었을 특정한 이야기가 차츰 윤색의 과정을 거쳐 멀리 퍼져 나간다. 이처럼 이야기가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전파됨에 따라 세계 도처에서 유사한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 개중의 어떤 이야기, 가령 전설이나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은 특정 시간과 공간에 고착되기도 한다.

오늘날 세계 각처에서 전승되는 설화 중에는 <콩쥐팍쥐>의 경우처럼 이야기 전체가 차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중의 일부 삽화나 혹은 모티프의 차용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화 연구가들은 ‘전파’의 결과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심동사(人心同似)’ 즉 유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대응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야기에 따라서는 양자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기원적으로는 독자 발생의 것이라도 이내 시공간적으로 전파되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설화는 아무렇게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는 인류 대대로 암암리에 전승되어 온 일정한 서사법칙이 적용된다. 화자 즉 이야기꾼은 그러한 법칙을 원용하여 쉽사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혹은 기왕의 이야기를 변용시키는 한편, 청자 즉 듣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새로이 듣는 이야기 세계에 낯설지 않게 쉽사리 빠져들게 된다. 이 ‘이야기의 서사법칙’은 설화 전반에 적용되긴 하지만 신화나 전설보다는 특히 민담에 더 강하게 적용되는 성질이 있다.

설화의 화자는 특정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 직·간접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에 더하여 말씀씨가 좋은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야기꾼’이란 평판을 얻는다. 그리하여 기록의 수단이 없었던 시대나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집단의 지도자나 역사가로서 활약하기

도 하고, 현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좁은 사회 안에서는 한 고을 또는 한 집안에서 교육 혹은 오락 담당자로 크나큰 활약을 했다.

설화는 일반적으로 운율을 수반하지 않는 산문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민요처럼 운율을 지니기도 한다. 과거 문자를 가지지 못했던 무문자층에게는 운율이란 형식에 이야기의 내용을 담는 것이 전승에 훨씬 유리하였을 것이고 청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야기꾼’의 운율 차용에 반하여, 민요를 부르는 ‘소리꾼’이나 무가를 부르는 ‘무당’에 의해서 설화가 차용되면 ‘서사민요’나 ‘서사무가’로 된다.

의의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 설화는 신적인 존재를 찬양하고,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한 공사(公私)의 의식석상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로는 설화가 사회의 규범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이러한 종교적·사회적 기능은 차츰 쇠퇴하여 교훈적 기능이나 오락적 기능으로 바뀌었다. 설화는 호기심을 돋우는 즐거리를 통하여 듣는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 마치 양의(良醫)가 쓰디쓴 약을 달콤한 것으로 싸서 주듯, 화자는 흥미 있는 줄거리 속에 역사에 대한 감계(鑑戒)나 생활상의 지혜를 청자에게 넌지시 암시하여 자각심을 갖게 한다. 또한 설화는 아무런 교훈적 의도가 없이 단순히 즐거움 때문에 구연되기도 한다. 잠시의 심심과적을 위하여, 때로는 가나간 향해, 고된 병영이나 일터, 혹은 공중의 모임 장소, 또는 겨울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이야기꾼이 벌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갖가지 오락의 수단과 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설화의 구연 기회가 적어지고 그 직접적인 교훈적 기능이 매우 약해졌지만,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설화의 오락적 기능은 여전히 왕성하게 남아 있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일조각, 1971), 설화(민속학회, 한국민속학총서1, 교문사, 1989), 설화 연구(국어국문학회, 설화 연구, 태학사, 1998), 설화와 역사(최내옥 외, 집문당, 2000), 설화·소설의 연구(최철·설성경, 한국고전비평집4, 정음사, 1984), 설화문학연구—상·하(황태강선생고회기념논총 간행위원회,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조선 구전문학 연구(고정옥, 과학원출판사, 1962), 설화문학개설(장덕순, 삼우사, 1976),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설화론(최인학, 형설출판사, 1982), 한국설화문학연구(소재영, 송실대학교출판부, 1989), 한국설화연구(최은식, 집문당, 1991), 한국설화의 연구(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Motif-index of Folk-Literature, 6 vols.(Stith Thompson, Copenhagen, 1955~1958;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1958), The Folklore(Stith Thomps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46).

필자 조희웅(曹喜雄)

섬진강두꺼비

정의 물난리에서 아가씨를 구하기도 하고 왜구를 물리치기도 한 섬진강두꺼비에 관한 전설.

역사 섬진강의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명유래담으로 전승되다가 왜구 출몰기의 역사적 사건과 합쳐지면서 확장된 설화이다.

줄거리 섬진강은 본래 다사강 혹은 모래내 두치강(豆恥江) 등으로 불렸다. 섬(蟾) 자로 익히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에 분포하는 <두꺼비전설>로 인해 섬진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고려 말 섬진강 하구에 왜구가 쳐들어왔다. 그러자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蟾居)마을'에 살던 수십만 마리 두꺼비가 섬진나루에 몰려와 울부짖어 왜구를 물리쳤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우왕이 1385년(우왕 11)에 섬진강이라는 이름을 내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강 동편에서 왜구에 쫓기던 우리 병사들이 꼼짝없이 붙들려 죽게 되었는데, 두꺼비 떼가 강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놓아 건너편으로 건너게 해 주었다. 뒤쫓아 온 왜구도 두꺼비 등을 타고 강을 건너던 중, 이들이 강 한가운데 이르자 두꺼비 떼가 모두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려 왜구만 빠져 죽었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마당에 두꺼비가 나타나면 “고수레”라고 말하며 두꺼비에게 음식을 던져 준다.

변이 이외 변이본은 섬진강변을 따라 지역별 편차를 보인다. 섬진강 두치진 나루터에 마음 착한 아가씨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마가 진 어느 날 부엌으로 뛰어든 두꺼비가 가여워 보살펴 주었다. 겨울이 와 모든 두꺼비가 겨울잠을 자러 가도 이 두꺼비는 부엌 아궁이 옆을 떠나지 않았다. 삼

년 후 두꺼비는 큰 솔뚜껑만큼 커졌다. 어느 날 밤 섬진강 상류에 폭우가 쏟아져 물이 불어나 아가씨가 익사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행히 아가씨는 두꺼비를 타고 강기슭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물살과 사투를 벌였던 두꺼비는 강기슭에 도착하자마자 죽어 버렸다. 이 설화는 섬진강변 동산에 두꺼비를 장사지내고 매년 제사지내는 근거로 제시된다. 변이본의 내용은 두꺼비를 매개로 섬진강과 사람들 사이의 삶의 관계를 보여준다.

분석 섬진강의 명칭 유래를 다룬 전설이다. 두꺼비 떼가 울부짖어 왜구를 물리치기도 하고 물난리에서 아가씨를 구해 주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도 두꺼비를 ‘고수레’의 대상으로 여겨 보호한다는 점에서 상응한다. 사람과 두꺼비 간의 관계가 강이라는 생태 환경을 통해 서로 조응하고 상생하는 가운데 왜구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결합하여 다양한 변이를 보여 준다.

특징 전국에 두꺼비가 처녀를 구한 보은담이 널리 분포된 것은 두꺼비가 가진 기호적(記號的) 의미뿐 아니라 생태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이 <섬진강 두꺼비전설>이다. 여기에 섬진강 하구와 남해라는 지리적 조건이 왜구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결합하여 회자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의의 이 전설은 두꺼비가 자신을 키워 준 아가씨를 물난리에서 구해 주는 보은 이야기와 왜구를 물리친 역사적 이야기로 나뉜다. 섬진강이 가진 생태 조건은 물론 왜구와의 관련성을 적극 표방하는 설화로, 생태 환경과 역사 환경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출처 광양군지(광양군지편찬위원회, 1983), 하동의 구전설화(하동향토사연구위원회, 하동문화원, 2005).

참고문헌 신선설화의 전승양상과 한국인의 의식(최운식, 한국민속학44, 한국민속학회, 2006).

필자 이윤선(李允先)

역사 성곽과 다리는 구체적으로 축조의 역사가 전하는 경우에도 전설과 함께 전설 증거물로 채택되는 경우가 흔하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성은 나무로 만든 목책성이나 흙으로 만든 토성에서 돌을 쌓아 만드는 석성으로 바뀌고, 다리 역시 나무 다리에서 돌다리로 후대에 바뀌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전설들이 만들어져 전한다. 또한 대보름에 주로 하는 세시 풍속 중에서 성밧기와 다리밧기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건강

을 지키는 주술적 방법으로 믿어지고 있다.

내용 멀리 고조선시대에 단군의 세 아들이 축성하였다는 삼랑성(정족산성)이 강화도에 있고, 또한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이 위만에게 쫓겨나 배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으로 와서 도움을 청하고 미륵산에 쌓았다는 기준성이 남아 있다. 이러한 성들은 기원전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신화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축조된 것으로 전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고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의 도성전설은 유명하다. 무학대사는 불교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 인왕산에 있는 스님 형상의 선바위를 도성 안쪽에 놓고자 하였지만, 정도전이 반대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중에, 하룻밤 사이에 눈이 내렸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이상하게도 안쪽은 전혀 눈이 없고 바깥쪽에서만 눈이 쌓여 있었다. 신의 계시로 알고 그 선을 기준으로 삼아 성을 쌓은 것이 서울의 도성이 되었다. 자신의 의도가 빗나가자 무학대사는 “이후 불자는 유생의 책 보따리나 지고 나르는 심부름꾼을 면치 못하겠구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오누힘내기전설>에 성 쌓기가 등장한다. 남매가 서로 재주를 겨루기 위해 한쪽에서는 성을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사실은 누이가 시합에서 이기지만 동생을 위하여 스스로 진 것으로 꾸며 동생을 살리고 자신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천마산의 <할미성전설>은 명칭과는 다르게 <남매힘겨루기전설>의 내용을 가진 것이어서 특이하다.

전국적으로 할미성이라고 불리는 성들이 산재해 있다. 할미성이라는 이름은 마고할미가 다른 산의 돌들을 불러다 성을 쌓았다거나 또는 치마폭으로 돌을 옮겨 성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들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쌓기 어려운 산성들이며, 주로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고할미는 성뿐만 아니라 다리를 놓은 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마고할미는 남해 일원에서 산신이 아니라 바다를 걸어 다니는 거인설화로 전한다. 마고할미가 남해에 있는 금산을 가면서 치마도 걷어 올리지 않고 바다를 건너갔으며, 바다위를 걸어 다니면서 치마폭에 돌을 싸서 옮겨 다리를 놓았는데, 치마가 닳아 돌이 떨어져 그만두었다는 설화도 있다. 또 마고할미가 제주도까지 다리를 놓기 위해 지리산 돌을 치마에 싸 가지고 가다가 떨어져 돌을 쏟아 버리는 바람에 금오산에 돌이 많다는 전설도 전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다리전설이 전하고 있는데, 모티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윤리도덕과 관련이 깊다. 충

청북도 진천에 있는 농다리를 고려 고종 때 장군 임연(林衍, ?~1270)이 놓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갈을 듣고 추운 겨울에 시내를 건너려는 젊은 새댁을 보고 순식간에 용마로 돌을 날라 다리를 놓아 주었다는 내용이다. 전라북도 전주의 추천교에 얽힌 전설은 중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위독해지자 추운 겨울 맨발로 내를 건너 약을 지어와 아버지를 살린 효자에게 마을사람들이 감동하여 다리를 놓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전라남도 영암의 덕진다리가 놓인 전설도 전한다. 냇가에서 주막을 하던 여인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국밥을 주곤 했다. 그것이 모두 저승에 돈으로 쌓였다. 저승으로 잘못 잡혀갔던 고을 원님이 그것을 빌려서 저승사자에게 재물을 쓰고 다시 이승으로 와서 갚았는데, 그 돈으로 다리를 놓았다 한다. <장자못전설>의 변이형으로 전하는 다리전설도 있다. 부자로 사는 마을에 시주를 갔다가 망신을 당한 스님이 마을의 구시다리라는 이름의 다리를 도마다리라고 고쳐서 부르게 해서 지맥을 끊어 마침내 마을이 망해 버렸다는 전설이다.

의의 성곽은 성안과 성 밖을 양쪽으로 가르는 구실을 하고, 다리는 물로 끊겨 있는 양쪽을 잇는 구실을 한다. 조선조의 지리지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각 고을의 성과 다리에 대한 소개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얼마나 필요한 인공물인지를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성곽과 다리에 대한 전설이 전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주제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성의 전설에는 국가나 지역적인 문제가 주제적 충위를 이루는 것에 비해서 다리전설은 개인의 선악에 대한 도덕성이 주로 주제를 이루고 있다.

강화도의 삼랑성이나 익산의 기준성은 성의 축조 자체보다는 신화적 인물의 지역 연고권에 초점이 맞춰진다. 즉 단군의 세 아들이나 무강왕으로도 불리는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 기준과 지역의 연고관계를 잇는 매개로 축성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서울 도성전설에는 왕조의 교체는 물론 불교와 유교라는 정치종교사상의 대립 등이 투영되어 있다. 또한 <남매힘겨루기전설>에 등장하는 성곽전설은 남존여비사상이 성 쌓기 시합에 부회되어 전한다. 주로 남한 지역에 마고할미가 성을 쌓았다는 <할미성전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성도 마고할미가 지리산의 여신으로 믿어졌던 때문인지 산성을 축조했다는 전설이 많다. 또, 왕건의 어머니 위숙 왕후가 마고라는 이야기도 있고, 『동문선(東文選)』에 따르면 도선대사가 지리산의 성모천왕께 부탁을 한 일도 있는데, 고려조에 널리

성·다리전설

정의 성곽이나 다리를 만들게 된 내력을 전하는 설화.

민어졌던 마고신앙 때문에 고려조의 산성전설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낙안읍성의 삶과 잎(나경수 외, 순천시·한국민속학회, 2011), 조선불교

민담

성기 큰 남녀

정의 성기가 큰 남녀가 만나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룬 설화.

줄거리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성기가 엄청 크고 길었다. 어느 날 성기를 감아 광주리에 담아서 이고 길을 갔다. 가는 도중에 정자와 샘이 있어서 쉬어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큰 성기를 가진 남자도 그것을 지게에 지고 가다가 그곳에서 쉬게 되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지게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내 물건이 길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둘은 찰떡궁합이라 생각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지아비, 지어미가 되어 함께 길을 갔다. 장에 가서 성기를 풀어놓자, 장꾼들은 모두 “아이고, 무서운 구렁이 나왔다.”라면서 도망쳤다. 장을 본 둘은 또 길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났다. 여자가 성기를 풀어서 기다랗게 다리를 놓자, 사내는 그 위를 걸어갔다. 그런데 도중에 담뱃대를 털어서 재가 다리에 떨어졌다. 뜨거워서 여자의 성기가 오그라들자, 사내는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성기를 거둔 여자는 사내가 장에서 산 물건들을 챙겨서 잘살았다.

변이 짧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변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1권 「기이(奇異)」 편에는 다음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신라 제22대 지철로왕은 성기의 길이가 자그마치 한 자 다섯 치나 되어서 왕비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다. 신하들이 배필을 구하러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다가 개 두 마리가 북만큼 커다란 똥덩어리를 물고 으르렁대며 다 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똥덩이가 하도 커서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이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근처 마을의 한 여자가 숲 속에 몸을 숨기고 눈 똥똥치었다. 그 여자는 키가 일곱 자 다섯 치나 되는 거인이었다. 그래서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분석 이 이야기는 성인 남녀의 가벼운 음담패설로 오래전부

통사(이능화, 신문관, 1918), 한국의 마고할미 고찰(송화섭, 역사민속학27, 역사민속학회, 2008),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성격 인식 양상 연구(권태효, 한국민속학30, 한국민속학회, 1998).

필자 나경수(羅景洙)

터 민간에서 성인들 사이에 유포되고 전해졌다. 성기를 주고받는 단순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과장으로 해학과 재미를 준다.

의의 이 설화는 성인들 사이에서 사교성을 높여 주며 민중의 해학과 익살을 담고 있어 민속학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출처 三國遺事,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10, 532,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3.

참고문헌 한국설화의 유형(조희웅, 일조각, 1996).

필자 김열규(金烈圭)

전설

성덕대왕신종

聖德大王神鐘

대표어 에밀레종

전설

성삼문

成三問

정의 사육신(成三問, 1418~1456) 성삼문의 뛰어난 시재(詩才)와 관련한 인물전설.

역사 성삼문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대역 죄인으로 처형당한 사육신 중 한 사람이다. 본관은 창녕, 자는 근보(謹甫)·눌옹(訥翁)이며, 호는 매죽헌(梅竹軒)이다. 그의 일대기는 사후에 제한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17세기까지 출현한 소화집이나 일화집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1691년(숙종 17)에 있었던 사면복권을 계기로 성삼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성삼문선생 유허비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문화재청

줄거리 성삼문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자 중국에서는 황제를 비롯해 문무백관이 성삼문을 시험하고자 『백로도(白鷺圖)』라는 책을 보여 주며 한시를 짓게 했다. 성삼문이 “설작의상 옥작제(雪作衣裳玉作蹄, 눈으로 옷을 만들고 옥으로 발굽까지 만들어), 규어강상기다시(窺魚江上幾多時, 강 위 물고기 엿보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까지 지었을 때 중국 대신이 『백로도』를 펼쳤다. 그러자 책 속에는 까만 흑로가 들어 있어 앞에 지은 시구와 맞지 않았다. 성삼문은 태연히 다음과 같이 뒷 구절을 이어 중국 황제와 대신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우연비과산음현(偶然飛過山陰縣, 우연히 산음 고을을 날아 지나다가), 오락희지세연지(誤落羲之洗硯池, 잘못하여 왕희지가 베풀 씻은 연못에 빠지고 말았네.)”

변이 성삼문 관련 설화는 첫째 단종 복위 의거에 관한 이야기 들쭉, 성삼문의 다리가 문혔다는 일지묘(一脂墓) 이야기 셋째, 중국 선비를 가르치거나 중국에서 자신의 시재를 드러내는 이야기 넷째, 누이를 출가시키고자 추노(推奴)하러 갔다가 이인을 만나는 이야기 등의 변이군(群)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세 번째는 주로 구술전승의 형태로 전해지고, 네 번째는 주로 문헌소재 야담집에 전해져 내려온다. 위의 이야기와 관련된 일본 중에는 ‘한시 짓기’ 모티프에 세종과의 일화가 첨가되거나, 조선을 시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중국 사신을 ‘한시 짓기’로 물리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한시의 내용도 조금씩 다르지만, 성삼문의 문재(文才)를 드러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분석 중국과 관련된 성삼문 일화는 주로 성삼문의 재능이 출중함을 강조하면서 그의 비범한 인물됨을 극대화한 이야기이다. 아기가 태어났는지 세 번 질문했을 때 태어나 삼문(三問)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작명 일화는, 위에 소개한 이야기들

의 앞쪽에 배치된 예가 많다.

의의 성삼문은 사후 약 250년 동안 언급이 금기시된 인물이었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도 활발하게 형성되거나 전파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나온 〈육신록(六臣錄)〉은 남효온의 〈육신전〉과 당시까지 제한적으로 구전되던 성삼문 일화의 영향을 받아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게 남아 있는 자료이다. 홍만형(洪萬衡, 1633~1670)의 부인 민 씨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육신록〉은 〈육신전〉의 내용이 구전으로 전환된 뒤에 다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성삼문설화〉는 문헌전승과 구술전승의 상호 관련성을 언급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성삼문의 다리가 문혔다는 특정 지역의 설화로도 전승되어 다양한 전승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출처 동패낙송(김동욱 역, 아세아문화사, 1996), 육신록(홍기원, 민속원, 200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776; 778; 3-2, 377; 3-4, 41; 374; 4-5, 904.

참고문헌 매죽헌 성삼문설화 고찰(황인덕, 어문연구45, 어문연구학회, 2004), 한국문헌설화(김현룡, 한양대학교출판부 1998).

필자 김경섭(金鏡燮)

신화

성조무가

成造巫歌

정의 성주군에 주로 구송되는, 가신(家神)의 하나인 성주신의 유래를 밝힌 무속신화.

줄거리 〈성조무가〉는 가택신인 성주신의 내력을 다룬 무속신화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내용이 사뭇 다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채록, 보고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성조무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천하국 천사랑과 지하국 지탈부인이 결혼하여 황우양을 낳는다. 천하국의 일천 난간이 쓰러져 황우양이 적임자로 선 발되고 차사가 잡으러 간다. 여러 번 저항하다가 결국 차사의 명을 받은 황우양은 사흘 말미를 얻어 집으로 돌아오고, 황우양의 부인은 하늘에 소지를 올려 셋가루를 받아 연장을 만들어 준다. 집 떠나는 황우양에게 부인은 말대답을 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하나 황우양은 새겨들지 않는다. 부인의 당부를 잊은 황우양은 도중에 소진랑을 만나 옷을 바꾸어 입는다. 소진랑은 황우뜰로 와서 남편 행세를 하나 황우양의 부인이 이를 알아차린다. 결국 소진랑은 부인을 강제로 소진뜰로 데려

人

성조무가

人

성기 큰 남녀

가는데, 부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혼례를 미루며 황우양을 기다린다. 천하궁에 있던 황우양은 흥몽을 꾸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의 혈서를 발견하고 소진뜰로 부인을 찾으러 간다. 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황우양은 새[鳥]로 변해 부인의 치마폭에 싸여 들어가 마침내 소진랑을 징치한다. 소진랑을 장승으로 만들고 소진랑 부인은 서낭으로, 그리고 여러 자식은 짐승으로 만든다. 황우뜰로 내려와 살다가 마침내 황우양은 성주가 되고 부인은 지신이 된다.

변이 경기도 남부에서 채록된 〈성조무가〉는 몇몇 단락에서 이본 간의 세부적인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정도는 아니다. 등장인물도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성조무가〉가 경기 남부에만 전승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광역시 동래에서 손진태가 조사한 〈성조푸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김태곤이 조사한 〈성주 드리는 말문〉 역시 무속신화로 〈성조무가〉가 전승되고 있다. 이 둘은 성주신의 유래를 다루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앞에 제시한 경기 남부의 〈성조무가〉와는 내용이 달라 유형이 다르다. 하지만 모두 성주신의 유래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성조무가〉에 포함하는 것이다.

부산 동래에서 채록된 〈성조푸리〉에서는 서천국 국반왕과 옥진부인이 치성을 올리고 태몽을 얻어 만득자로 성조를 낳는다. 성조는 15세가 되어 옥황상제께 아뢰어 술씨를 얻어 지하궁 무주공산에 심는다. 18세가 되던 해 계화부인과 혼인하나 아내를 박대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다가 황토섬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황토섬에서 온갖 고생을 하던 성조는 청조에게 혈서를 매달아 계화부인에게 보낸다. 편지를 받은 계화부인은 성조의 어머니인 옥진부인에게 편지를 보여주고, 마침내 성조는 귀양에서 풀려난다. 귀양에서 돌아온 성조는 계화부인과 의좋은 부부가 되어 5남 5녀를 낳는다. 나이 70이 되자 심어 놓은 소나무를 돌아본 후 연장을 장만하여 궁궐과 백성들의 집을 짓는다. 그리고 성조는 입주 성주신이 되고 계화부인은 몸주 성주신이, 아들과 딸은 각각 오토지신과 오방지신이 된다.

이처럼 부산 동래에서 조사된 〈성조푸리〉는 성주신의 내력을 다루었다는 점 말고는 경기 남부의 〈성조무가〉와 내용이 다르다. 성주신에 대한 관념은 한국 무속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지역에 따라 성주신의 내력을 다르게 이해했다는 의미이다. 경상북도 안동에 전승되는 〈성주 드리는 말문〉은 내용이 더더욱 소략하지만, 성주의 내력을 다루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석궁에서 태어난 성주님은 이름이 유광덕으로 하늘에서 죄를 지어 인간세상으로 귀양을 내려왔다. 성주는 집을 지으면서 풍수사를 불러 집터를 잘 잡고 여러 일꾼들을 불러 모

아 터를 잘 닦았다. 여러 연장을 만든 후에 나무를 베러 갔으나 그때마다 사정이 생겨 베지 못하고 마침내 도끼까지 나무에 붙어 버렸다. 문복을 하니 산신제를 지내면 된다 하여 산신제를 올리자 마침내 도끼가 떨어져서 나무를 마련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성주는 장가를 가기 위해 배필을 찾는다. 이때 하늘에서 지상으로 유배오던 옥녀 셋을 만나 부인으로 삼아 성주로 좌정하게 되었다. 부인 셋은 각각 삼신할머니, 제석님, 조왕님으로 좌정하여 인간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러한 안동 지역의 〈성조무가〉는 성주뿐만 아니라 삼신, 제석, 조왕의 내력까지 설명하고 있어 색다르다.

분석 〈성조무가〉는 집 안의 으뜸가는 신인 성주의 내력을 다룬 무가이다. 주 내용은 성주가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인데, 집짓는 과정과 관련이 있는 여러 사건이 등장한다. 경기 지역에서 천하궁에 집을 지으러 가는 내용이나, 동래 지역에서 술씨를 얻어 심는 내용, 경북 안동 지역에서 나무를 베러 가는 장면은 모두 집짓기와 관련이 있다. 결국 집짓는 과정을 제시하면서 성주신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조무가〉의 내용이다.

〈성조무가〉는 193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에 최초로 보고된 이후 손진태에 의해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에 조사 보고되었으며, 이후 주로 경기도 화성과 안성 지역에서 1970, 80년대에 조사 보고된 바 있다. 과거에는 가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성주굿을 거행할 때 〈성조무가〉를 불렀다. 경남 일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만 무속신화로 〈성조무가〉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일반 무가로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무속신화인 〈성조무가〉가 점차 일반 무가로 대체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성조무가〉가 거의 조사되지 않아 현재는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징 〈성조무가〉는 지역적인 편차가 있으나 모두 성주의 내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남녀 간의 결연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성주의 부인이 지신이나 삼신, 제석 등이 되었다고 하여 가택신의 유래를 함께 다룬 것은 〈성조무가〉의 가치이다. 우리나라 무속신화 중 이처럼 집 안 곳곳에 존재하는 가택신의 유래를 다룬 신화는 드문 편이다. 이것은 성주와 지신, 성주와 제석, 조왕과의 친연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한국 가택신의 관계 및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의의 집을 짓는 과정이 주요한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어 성주신이 집을 관장하는 주신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경기 남부의 〈성조무가〉에는 적대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황우양이 소진랑을 징치한 후 그 부부를 장승과 서낭으로 만들

고 있어 장승과 서낭이 한국 무속에서는 격이 낮은 신령임을 제시하고 있다. 신성한 인물들의 대립 및 장승과 서낭의 위상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출처 경기 남부의 성조무가(김태곤, 화성 심복순 구송 성주굿, 한국무가집3, 집문당, 1978), 경남 동해의 성조무가(손진태, 동래 최순도 제공 성조푸리, 조선신가유편-이북 명의 무가, 박이정, 2012), 경북 안동의 성조무가(김태곤, 안동 송희식 구송 성주 드리는 말문, 한국무가집2, 집문당, 1978).

참고문헌 성조무가의 연구(나경수, 어문논총7·8, 1985), 성주본가(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집문당, 2011), 성주무가 연구(홍태한, 한국서사무가연구, 민속원, 2002), 성주무가의 연구(성길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필자 홍태한(洪泰漢)

민담

성질 급한 사위

정의 성질 급한 사람이 출세도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여 사위로 얻었으나 모두 불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어떤 아버지가 큰사위가 행동이 느려 둘째 사위는 빠른 사람을 얻어야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이웃 머슴이 듣고 그 집에 장가가려고 작정했다. 머슴이 선달그믐날 그 집 뒷간 쪽으로 급히 가는데, 바지 허리끈이 빨리 안 풀리니까 허리끈을 칼로 뚫고 들어갔다. 그것을 본 그 집 아버지가 고놈 성질이 어지간하겠다며 그날 바로 사위로 삼았다. 다음 날 초하룻날 아침에 딸이 자꾸 울어 가서 보니 신랑이 때린 것이었다. 이유는 장가간 지 이태인데 아직도 아들을 안 낳는다고 때렸다고 했다.

변이 신방에 들어간 다음 날 아이를 못 낳았다고 신부를 때린다는 내용은 공통이지만, 날짜를 말할 때 ‘하룻밤 사이’라는 표현과 ‘선달그믐날 들어가서 초하루가 되어 햇수로’는 이태 동안’이라고 하는 해학적 표현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둘째 사위를 보는 것과 외동딸의 사위를 보는 것에서도 변이가 있다. 한편, 성품이 급한 자가 출세하는 사람이 많아 성질 급한 사위를 찾은 것으로 이유를 명시한 이야기도 있다. 앞은 〈거짓말 잘하는 사위〉 이야기였다가 뒤는 〈성질 급한 사위〉를 결합한 변이형도 있다. 이러한 설화의 끝에는 사위가 이태가 되어도 애 못 낳는 여자는 못 데려가겠다 하여, 처가에서 돈을 꾸 주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분석 장인이 자기의 욕구를 사위를 통해 실현하고 싶어 그에 따라 사위를 골랐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이다. 가부장제 시대

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설화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부속물 정도로 알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했다. 성질이 급하면 출세도 빨리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성질 급한 사람’을 사위로 구했지만, 사위를 구하는 저급한 가치 기준은 결국 불행을 가져온다. 그 결과 사위는 하룻밤 자고 나서 아이를 안 낳았다고 신부를 마구 때린다. 이것은 자식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반적 조건(외모, 경제, 재주, 가문 등)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오늘날 무리한 혼수 요구나 까다로운 혼사 조건처럼 무가치한 것이 기준이 되어 혼인을 망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의의 이 설화에서 보이는 장인의 가치관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다. 장인과 사위는 서로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접근했다. 장인은 딸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다가 가정 전체의 불행을 가져왔다. 사위는 장인이 원하는 조건을 수단으로 ‘장가들기’라는 목적은 성취했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국 사위는 자기 부인을 두들겨 패는 지경에 이르고, 장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망신당하고 돈도 뺏긴다. 처음에는 장인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신방을 치르고 나서는 사위가 우위를 점하는 전세역전이 되었다. 결국 장인이 “내가 성질 급한 자를 사위로 얻은 것이 도리어 낭패가 되었다.”라고 탄식했듯이,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다. 즉, 갖은 꾀를 내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 자신을 옥아맨 것이다.

출처古今笑叢,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9, 894: 7-10, 716.

참고문헌 윤,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이나미, 민음인, 2010),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조희웅, 한국연구원, 1983).

필자 김낙효(金洛孝)

민담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정의 며느리 세 명이 시아버지에게 세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화(笑話) 성격의 육담설화.

줄거리 어떤 사람이 세 명의 며느리를 보았다. 평소엔 자신이 유식하다고 생각하던 시아버지는 설이 다가오자 며느리들을 불러 놓고 반드시 문자 세배를 하라고 명령했다. 정월 초하룻날 세배가 시작되었다. 첫째 며느리는 갓을 쓰고 들어가 “올해에는 편안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갓을 썼으

니 ‘편안할 안(安) 자입니다.’ 하고 세배했다. 시아버지가 흠족해하자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를 보듬고 “아버님, 올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았으니 ‘좋은 호(好) 자입니다.’” 하고 세배했다. 역시 만족한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의 세배를 기다렸는데, 셋째는 아무리 생각해도 뽀족한 수가 없고 그저 자신의 몸뚱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까고는 그대로 쑥 들어 밀었다.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뛰하는 것이냐고 꾸짖자, “아버님 올해도 아랫입하고 윗입이 딱 맞는 ‘범칙 여(呂) 자처럼 법 없이도 잘 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하고는 셋째가 제일이라고 평가했다. 과연 이후에 셋째 며느리가 살림도 불고 자손 중에서 정승까지 났다.

변이 각편 중에는 셋째 며느리를 골려 주려다 오히려 손윗동서들이 당하는 내용의 이본이 있다. 첫째, 둘째 며느리가 셋째 며느리를 혼내고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세배할 때 문자 세배하기로 미리 잔다. 이후 이야기는 위의 내용과 같아 오히려 셋째의 기지가 부각된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생신에 맞추어 인사말을 각각 “천황세, 지황세하시라(하늘 황제의 수명, 땅 황제의 수명을 누리시라).”라고 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셋째는 “아버님, 좃이 되어 주세요.” 하고 기상천외의 인사를 한다. 천황세든 지황세든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성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므로 이번에도 셋째를 당해내지 못한다.

분석 이 이야기가 육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유는 셋째 며느리의 대답 때문이다. 그녀의 행동은 일반적인 가족관계의 위계와 일반적인 문답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성적인 소재를 빌린 그녀의 대답 속에 민담의 재미와 구전 육담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녀의 행동과 말은 민담의 상상력에 서나 가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칫 지루하고 칙칙하기 쉬운 육담이 경쾌한 이야기로 변해 한바탕 웃을 수 있게 한다.

의의 문헌 육담과는 다른 구전 육담의 세계관과 그 특징이 잘 드러난 이야기이다. 구전 육담은 문헌 육담보다 성적인 담화가 밝고 명랑하게 나타난다. 비정상적인 엽색행각이 주요 화제로 많이 등장하는 문헌 육담에 비해, 성적인 모티프를 소재로 윤리나 애정의 문제를 유쾌하고 건강하게 그려내는 구전 육담의 좋은 예가 바로 이 설화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9, 127; 8-11, 87.
참고문헌 성소화 텍스트 향유와 성적 정체성(류정월, 구비문학연구25, 한국구비학회, 2007), 한국 육담의 세계관(김선풍 외, 국학자료원, 1997), 한국의 민속과 성(비교민속학회, 지식산업사, 1997).

필자 김경섭(金鏡燮)

민담

세 여인의 소원

정의 세 명의 여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육담설화.

역사 세 여인이 말이나 행위를 통해 성적 욕망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성리학적 교조화에 따른 반발 심리가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속출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 그런 배경에 토대를 둔다. 특히 이런 유형의 이야기가 다른 유형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각각의 이야기는 각편이라 할 만큼 다양한 변화를 보이지만, 그 공통된 주제가 성의 긍정이라는 점에서 성(性)과 정(情)의 대립 양상을 담고 있다.

줄거리 시어머니, 며느리, 딸 이렇게 여자만 셋이 사는 집에 어느 날 소금장수 한 명이 방문한다. 그가 날이 어두우니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하나 세 여인은 거부한다. 소금장수가 한 귀퉁이라도 좋다고 사정하자, 세 여인은 마지못해 허락한다. 그날 밤, 잠을 자던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며느리의 발을 건드려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다. 시어머니가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내 곁으로 드르렁.” 하면서 유혹하여, 소금장수는 시어머니와도 관계를 맺는다. 이를 본 딸이 “나는 새 것인데.” 하며 유혹한다. 결국 소금장수는 세 여인과 관계를 맺고 다음 날 아침 떠난다.

변이 이 이야기는 변이의 폭이 너무 커서 그 양상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다. 등장하는 인물이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로 나타나는 예가 있고, 시아버지가 등장하는 예도 있다. 내용에서도 소금장수가 찾아오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세 여인이 길쌈을 하다가 문득 남자의 성기가 담긴 광주리를 요구하는 유형도 있다. 또한 여기에서 좀 더 변이를 일으키면 <첫날 밤에 소박맞은 세 딸>의 이야기로 변환하기도 한다.

분석 육담은 억눌린 사회 상황에서 빈번하게 표출되는 문학 양식이다. 이성의 힘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 감정에 의한 글쓰기를 감행하는 때가 많다. 그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장르가 육담이다. 이 이야기 또한 그러한 배경에서 향유된 작품이다. 곧 성리학의 교조화에 따른 사회적 억울함이 문학 작품으로 표출된 한 예이다.

의의 육담은 일회적이며 소비적인 요소만을 가진 것처럼 비치지만, 그 이면에는 향유자의 아픔이 녹아 있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서는 즐거움과 고통이 혼재하는 육담이 지닌 의의를 읽어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9, 513; 7-4, 59.
참고문헌 조선 후기 성소화 선집(김준형, 문학동네, 2010),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한국고소설학회, 보고서, 2009).

필자 김준형(金俊亨)

전설

세검정

洗劍亭

정의 인조반정과 관련하여 서울 창의문 밖에 있는 정자가 세검정이라 불리게 된 유래를 밝힌 전설.

줄거리 선조의 둘째 아들 광해군은 포학무도하여 인목대비를 감금하고, 의붓동생 영창대군을 귀양 보냈다가 죽였으며, 다시 능양군마저 죽이고자 하였다. 능양군은 종사의 위태로움을 탄식하고, 또한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비밀리에 무신(武臣) 이서, 신경정, 김류, 이귀 등과 더불어 난을 일으키기로 상의하였다. 광해군은 주위의 원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궁녀들을 모아 놓고 밤마다 가무 주연에만 빠져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자, 능양군은 친히 병사를 거느리고 이서의 군사를 연서역에서 맞이하고 현재의 세검정터인 창의문 밖 사천(홍제천) 상류에 있는 바윗돌에서 칼을 간 다음, 일거에 창의를 문을 짓부수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갔다. 광해군은 크게 놀라 창황히 도망하였고, 능양군은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옥좌에 앉게 되었다. 그가 곧 인조이다. 인



세검정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012.8.13, 시몽

조는 즉위 후 인목대비를 다시 영접하고 광해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냈으며, 백성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었다. 후에 인조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서 ‘세검정(洗劍亭)’이라고 이름 지었다. ‘세검’이라는 단어는 칼을 씻어서 칼집에 넣었다는 뜻으로 평화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분석 세검정의 건립 시기는 연산군 때 혹은 숙종 때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조반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정자의 이름이 ‘세검’이라 불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구연되던 전설이라 하겠다. ‘세검정’이라는 정자의 이름도 불의를 무찌른 정의의 칼을 씻어 칼집에 넣는다는 의미를 담아 영조가 현관을 써서 하사한 것에서 연유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반란군이 칼날을 갈아 세웠기 때문에 ‘세검’이라 하였는데, 정자 앞 반석이 물에 닳아서 숯돌처럼 반들반들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형성된 듯하다. 이 반석에 대해서는 여염집 아이들이 붓을 가지고 글 쓰는 연습을 하였으므로 돌 위에는 언제나 먹물이 밴 흔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특징 세검정은 연산군이 유흥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도 하고, 숙종 때 북한산성을 축조하면서 군사들의 휴식처로 세운 정자라고도 한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에 따르면 세검정은 열조(列朝)의 실록이 완성된 뒤에는 사초(史草)를 물에 씻는 세초(洗草)를 하고 관원에게 잔치를 베풀던 곳이었다. 도심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이곳은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창의를문의 다른 이름인 자하문의 밖이란 의미로 ‘자문밖’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비장감이 깃든 유래전설과는 달리 이 정자는 도성 밖 최고의 유원지로서 사랑을 받아 왔던 셈이다. 현재의 세검정은 1941년 화재로 소실돼 주춧돌만 남아 있던 것을 1977년에 복원하여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宮闕志, 한국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참고문헌 東國輿地備考, 漢京識略, 이규태의 600년 서울(이규태, 조선일보사, 1993).

필자 김준기(金俊基)

민담

세경본풀이

당유화초 문굿무가

정의 제주도 큰굿 의례 중 농경의 풍요를 비는 제사에서 구송

되고 있는 무속신화.

줄거리 1968년 『남국의 무가』에 실린 강일생 구연본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진국과 조진국 부부는 아들을 원했으나 바친 재물 한 근이 모자라서 딸자식을 접지 받게 되고, 아기를 낳은 후 이름을 자청비라고 짓는다. 자청비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하늘 옥황으로 공부하러 가던 문도령이 마실 물을 청하자 버들잎을 띄워 준다. 문도령이 화를 내자 지혜로써 순간을 넘기고 남장하여, 하늘옥왕에서 문도령과 같이 동문수학을 하는데 남들보다 월등히 잘한다. 때로는 남성들에게 여성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받게 되나 지혜와 기지로써 이를 모면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이성적 사랑이 싹트게 되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여성임을 밝히고 사랑을 고백하여 자청비의 집에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 한편, 자청비는 딸이지만 공부를 했다는 이유로 집문서, 발문서, 종문서를 얻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 인정받는다. 문도령이 사랑의 징표를 남기고 떠난 후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다 지친 자청비는 집안의 종인 정수남이를 데리고 문도령을 찾아나섰다가 정수남이의 유혹을 물리치고 폭행에서 벗어나려고 그를 죽이게 된다.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다. 자청비는 청태산 마귀할멈의 수양딸로 들어가 문도령에게 연서를 보내자 바로 문도령이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아, 자청비는 할멈에게도 내쫓겨 오갈 데 없던 차 천신만고 끝에 중의 행색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 문도령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문도령과 사랑에 빠진 자청비는 시아버지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갈선다리 걷기’ 등의 시험을 거쳐서 혼인 승낙을 얻어낸다. 특히 여성으로서 생리현상법을 마련하여 생산력을 인정받게 되고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워 농사지을 땅도 얻는다. 이를 시기한 일친 선비가 남편을 죽이자, 그들의 모략을 지혜로 물리친 후,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감관의 사위가 되어 환생꽃을 따고 죽은 문도령을 살린다. 자신이 맺은 서천국의 막내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문도령에게 서천국의 막내딸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나 그는 기한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화가 나서 이러한 남편의 불의를 문선왕에게 아뢰었으나 문선왕은 자신의 아들을 두둔한다. 결국 남편은 돌아오고, 자청비는 세경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문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이는 하세경에 봉해지는데, 이는 농사를 위한 천신과 지모신 그리고 목축신의 좌정을 의미한다.

분석 〈세경본풀이〉는 함남지방의 ‘문굿’과도 그 설화 구성을 같이 하고 있고, 〈양축설화〉나 고소설 〈양산백전〉의 내용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

물바가지에 띄운 버들잎 모티프는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 왕후와의 만남, 조선 태조 이성계와 강씨의 만남 등으로도 전해지고, 여성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남장 모티프와 관련해서 유사한 설화들도 다수 전승되고 있다. 이는 고대 〈세경본풀이〉가 있어서 형성된 민담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분석 〈세경본풀이〉는 오곡종자를 가져다 준 농경기원(農耕起源) 신화이면서 농축신(農畜神)에 관한 신화이다. 재물이 부족하거나 모자란다는 모티프는 여신의 탄생으로 나타나며, 지모신(地母神)의 한계라는 신화적 사고와 가부장적 남성 권위 사회에서 부족함으로 생긴 고난, 극복의 삶이 전체 되기도 한다.

농경신이 여신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성 간 갈등과 신분에 따른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신화체계의 상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암수 결합에 의한 열매 맺음’과 자청비의 남장(男裝)이라는 남녀 양성의 성결합 상태, 곧 양성구유(兩性具有) 역시 우주적 풍요로 해석할 수 있다.

신화의 궁극적인 문화사적 체계는 농경신격의 정당성, 제사의 기원, 의례의 당위성을 붙여 넣는다. 아울러 농사의 시작과 농경법 마련, 작물의 파종 시기 등을 규정하고 목축신, 천신과 함께 농경사회에서 필요한 조직을 마련한다. 풍요기원의 세경신화 속 주인공인 자청비는 곡물 생산의 지반이 되는 땅의 어머니로서의 모성성을 지닌 지모신으로, 농본 사회의 내재된 잠재력을 함축하고 있다. 자청비가 오곡(五穀)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거나,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 공을 세우고 제주 땅을 얻는다거나, 농사를 위한 우마 증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점 등은 곡모적(穀母的)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 여성으로서 전란을 평정하고 대지를 얻어 농사를 짓는다는 문화적 여성 영웅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자청비신화〉는 〈양산백전〉이나 중국의 원대의 〈축영대잡극(祝英臺雜劇)〉, 명대 〈양산백보권불전(梁山伯寶券佛典)〉, 청대의 〈방우기전기(訪友記傳奇)〉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왔다. 〈세경본풀이〉와 〈양산백전〉은 주인공의 이름이 다르지만 사건 전개 면에서 유사하다. 양산백(梁山伯)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공부를 하러 절에 갔다가 동갑내기인 추양대를 만나고, 추양대를 여자로 의심하면서도 삼 년 동안 같이 학업을 마쳐서 의형제를 맺지만 우정을 넘어 애정이 싹트기 시작한다. 양산백은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평강의 추양대 집에 당도하여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추양대가 재상의 아들과 혼사를 치르게 되는 것에 낙담하여 그는 상사병으로 죽게 되는데, 그의 주검을 추양대의 신행 길에 묻었다. 추양대가 지나가자 순간 무덤이 갈라져 무덤 속으로 들

어가게 되고, 이후 추양대와 양산백은 부골생육해서 사흘 동안 잔치를 치러 혼인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의의 신화 속에 나타나는 자청비의 행적을 통해 무속을 신봉하는 여성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데, 신화 속 자청비의 인물적 성격은 인간적인 면과 초월적 비범성의 양면을 잘 갖추고 있다. 제주 여성들은 자기화에 일익을 부여함으로써 영원한 인물로 자청비를 탄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도 민속문화연구소, 1968), 남국의 무속서사(진성기, 정음신서, 1980),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서사무가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설화에 나타난 버들잎 화소의 설화적 기능과 의의(이수자, 구비문화연구2, 한국구비문화학회, 1995), 조청비-문화적 여성영웅에 대한 이미지(좌혜경, 한국민속학30, 한국민속학회, 1998),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 가지 특징(박경신, 국어국문학96, 국어국문학회, 1986), 한국 민속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양상(강진옥, 한국민속학27, 한국민속학회 1995).

필자 좌혜경(左惠景)

신화

세민황제본풀이

정의 당태종 이세민의 저승내왕담을 담은 제주도 무속신화.

역사 〈서유기(西遊記)〉의 영향을 입은 〈당태종전(唐太宗傳)〉을 수용하여 이루어진 본풀이이다. 그러나 제주도 곳에서도 본격적으로 의례에 포함되지 못하여 일찍이 전승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줄거리 세민황제는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다가 죽어 저승에 갔다. 저승에 가 보니 이승에서 세민황제에게 수난을 당한 사람들이 세민황제가 온 것을 알고 당장 저마다 처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다. 이에 저승 왕도 어쩔 수 없어 세민황제를 불러 다른 이들의 원성을 막을 방도를 찾기에 이른다. 저승 왕은 이승의 삶이 저승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세민황제에게 설명해 주었다. 즉, 이승에서 적선하고 활인공덕을 쌓아야 저승의 참고가 가득차서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세민황제도 이승에서 저지른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 저승 왕은 세민황제에게 이승의 매일장상을 본받아 적선하고 돌아오라며 매일장상의 저승계에서 돈을 꺼내 주면서 이승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승으로 돌아간 세민황제는 매일장상을 본받아 적선하기로 하고 즉시 매일장상을 찾아 그 하

는 모양을 살폈다. 세민황제는 매일장상의 행동을 통하여 크게 감명받고 스스로 적선할 방도를 찾았다. 먼저 호인대사를 용궁으로 보내 팔만대진경을 구해 오라고 시켰다. 호인대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팔만대진경을 구해 온다. 부처에게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팔만대진경을 받아든 세민황제는 호인대사의 공을 크게 칭찬하고 벼슬을 주어 보답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이 만족스러워 매일장상을 불러 그동안의 행적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아울러 자신을 깨우쳐 준 매일장상의 행적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매일장상은 칭찬받은 것을 오히려 불쾌히 여기고 아직도 적선을 베풀 일이 남았다고 하였다. 세민황제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저승에서 빌린 돈을 매일장상에게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 매일장상이 거둬 받지 않으려 하였으나, 저승 왕의 명령이라 하고 억지로 맡겨 버렸다. 그리고 항상 매일장상과 모든 일을 의논하면서 팔만대진경을 염불하고 적선을 베풀면서 살았다.

변이 〈박봉춘본〉과 〈조술생본〉에서 단지 두 편이 채록되었을 뿐이다. 조술생본은 전형적인 덕담창의 사설로 되어 있다. “오닐오닐 오닐이라. 매일장삼 오닐이면 성도 언만 가실소나.”라고 하는 대목은 덕담창 사설의 첫 대목을 장식한다. 조술생본은 상대적으로 서사성이 미약한 편인데 호인대사가 팔만대진경을 구해 오는 대목이 없다. 팔만대진경을 구해 오는 내용은 제주도 무속에서는 그다지 필요한 대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는 1930년대와 1960년대에 채록된 것이지만, 30년 사이에 이러한 변이가 생겼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전승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미 전승이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이본의 차이는 〈세민황제본풀이〉가 일찍이 전승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다. 이 설화는 한때 충분한 서사성을 갖춘 단계로까지 구연되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덕담창의 형태로 구연되다가 ‘매일장삼’이라는 관련 명칭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분석 이 설화는 〈당태종전〉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서사구조가 같고 등장인물도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설화는 전승되지 않으며 당태종 혹은 세민황제라는 이름조차 의례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사무가가 어떠한 의례적 맥락에서 구연하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시왕맞이의 차사영맞이 가운데 절침을 할 때 죽은 자가 이승에서의 잘못을 비는 뜻에서 구연하던 것이라고 본 사례는 있다. 일부 심방(무당)의 면담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워낙 관련 사실을 아는 심방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 〈세민황제본풀이〉는 지나치게

불교적인 내용이 많고 <차사본풀이>와 많은 부분이 겹치므로 의례적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전승 중단의 요인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본풀이처럼 말미에 주인공인 세민황제가 특정한 직능을 맡은 신으로 좌정하는 대목이 없는 것과 세민황제의 내력에 근거해서 어떠한 의례가 이루어진다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본격적인 본풀이로 정착하지 못한 근거로 꼽을 수 있다. 관련 자료집은 모두 의례적 맥락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자료를 깊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징 실존 인물, 그것도 널리 알려진 중국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죽어서 저승을 다녀온 뒤에 개관천신해서 선행을 배풀게 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어찌 보면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당태종전>을 받아들여 본풀이로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미에 신직을 받는 내용과 관련 의례의 기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본풀이로서 완성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의의 고소설이 본풀이에 수용됨을 보여 주는 분명한 사례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례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본풀이를 확장해 왔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朝鮮巫俗の研究-上(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7).

참고문헌 서사무가 연구(서대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제주도 특수본풀이 연구(강권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필자 강정식(姜晶植)

신화

세화본향당본풀이

정의 천궤도, 백궤도, 금상님이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세화리 본향당의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내력을 담은 당본풀이.

역사 <세화본향당본풀이>는 성격을 달리하는 여러 신을 모시게 된 사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제각기 별도의 당에 모시다가 사정이 생겨 함께 모시게 되면서 본풀이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가 일반적이지 않아 제주도 당신본풀이 가운데 특별한 사례로 꼽힌다. <송당본향당본풀이>와 같은 신명이 등장하며, 크게 보면 남녀 신의 관계도 같은 궤도 내에서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개별 신을 중심으로 한 내력담이 제각기 전승되기도 하고, 상호 맥락이 이어지는 하나의 내력담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이것은 당신

본풀이의 전승과정을 여러모로 해석해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단서이다.

줄거리 세 가지 본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천궤도본풀이>는 천궤도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다. 불과 일곱 살에 여러 서책을 통달하며, 열다섯 살에는 소지를 써서 천상과 지상의 일을 맡게 된다. 옥황의 명령으로 상세화리에 본향신으로 좌정하여 단골로부터 제향을 받는다. <백궤도본풀이>에서 임정국 따님이기는 서울 서대문 밖에서 솟아난다. 일곱 살에 부모 눈 밖에 나서 요왕국의 외삼촌에게 심부름꾼으로 간다. 외삼촌은 여러 가지 주술을 가르쳐준 뒤에 주술 주머니를 주어 부모에게 돌려보낸다. 아기씨는 부모를 찾아가 사죄하나 부모에게 다시 쫓겨난다. 갈 곳이 없어 외조부가 있는 한라산으로 향한다. 도중에 선비들이 광대와 함께 노는 것을 보고 거문고를 빌리려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주술 주머니로 선비들을 아프게 하여 영험을 보인 후 거문고를 빌린다. 그것으로 자신의 내력을 읊으며 마음을 달랜다. 제주도에 이르러 안내를 받고 집을 쳐 봐도 외조부인 천자님의 행방을 알 길이 없어 헤맨다. 그러다 천자님의 집사인 척하는 소천국에게 속아 겁탈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소천국이 백궤도의 손목을 잡아 화를 내며 장도로 손목을 깎아 버리며 단호하게 인연 맺기를 거절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세화리에 이르러 외조부인 천자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기거해도 된다는 허락을 얻는다. 그런데 천자님이 아기씨에게서 피비린내가 나는 까닭을 물어 소천국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자 천자님이 화를 내어 땅과 물을 갈라 소천국과는 자손들이 교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 백궤도는 일곱 주머니로 풍운조화를 불러 주어 단골들로부터 제향을 받는 당신이 된다. <금상님본풀이>에서 금상님은 천하명장의 풍모를 지니고 서울 남산에서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 솟아난다. 남산에 올라 궁궐을 내려다보고 흥함을 주었더니 조정에서는 금상님을 잡으려고 팔도에서 명장을 불러 모은다. 금상님은 일부러 붙잡혀 임금에게 간다. 금상님을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썼으나 실패한다. 금상님을 무쇠 집에 가두고 백일 동안 불을 지켰으나 오히려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였다. 금상님은 화가 나서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간다. 세화리로 가서 천자님에게 명함을 드리고 백궤도와 천정배필을 맺을 운명이어서 찾아왔다고 한다. 천자님이 금상님에게 무슨 음식을 먹느냐고 물으니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쫓겨나고 만다. 물러나는 금상님을 백궤도가 붙잡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한다. 그 말대로 하여 들은 부부 인연을 맺고 산다. 그러나 금상님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백일 넘게 살았더니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지경이 된다. 백궤도가 천자님에게 고하여 상을 따로 받게 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돛제법을

마련하여 단골들로 하여금 금상님에게 돼지고기를 바치게 한다. 금상님은 돛제를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청주로 깨끗이 양치를 하고 목욕한 뒤에 천자님, 백궤도와 함께 좌정한다.

변이 천궤도를 본향신으로 설정하고 백궤도는 천궤도를 보좌하는 신으로 설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궤도는 <송당본향당본풀이>나 <케네깃당본풀이>의 동이요왕 따님의 성격까지 공유하는 존재로 설정하고, 금상님은 단지 장수신이면서 동이용궁으로 가서 그 따님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대신 제주도를 찾아 백궤도를 만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당신의 성격과 직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천궤도본풀이>는 대체로 내용이 간단하다. 다만 안사인본은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갖추었는데, 마을에 흥함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제향을 받는다는 전형적인 내용을 활용하였다. <백궤도본풀이>의 이본 가운데는 백궤도가 본래 주술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설정된 사례도 있다. 주술은 용왕황제국과 관련한 것이 보통이다. 한편, 금상님은 여러 가지로 제주도 영웅 전승의 주인공과 상통하는 내력을 지녔다. 금상님이 원래 돼지고기를 먹는 신이었지만 천자님, 백궤도와 함께 좌정하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돼지고기를 먹게 된 사정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분석 <세화본향당본풀이>는 본풀이 가운데 가장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사례에 해당한다. 먼저 신의 식성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백궤도와 소천국의 관계로 말미암아 땅을 가른 것을 신앙권의 구획과 관련하여 풀이한 사례도 있다. 그런가 하면 특정 신의 내력담을 중심으로 한 본풀이가 개별적으로도 전승되는 점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특징 이 본풀이는 천궤도, 백궤도, 금상님이라는 세 신위의 본풀이가 개별적으로도 전승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면서 세 신이 개별신 중심의 본풀이에도 지속해서 등장하여 일정한 역할을 한다. 결국 개별신 본풀이이면서 하나로 엮여 결합형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당신본풀이 가운데 의례와 연관성이 뚜렷한 사례라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돛제라는 의례와 관련이 있다. 돛제를 할 때 돼지고기를 받는 금상님과 그렇지 않은 천궤도, 백궤도의 사이를 백지로 가리는 것을 특별하게 여긴다.

의의 당신본풀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앙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세화본향당본풀이>는 <송당본향당본풀이>와 신명이 같은 백궤도, 소천국이 등장하는 점에서 본래 같은 계통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당본향당본풀이>와 달리 개별적으로 전승되기

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주도 당신본풀이가 개별신의 내력담을 기본으로 해서 전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신의 본풀이가 사정에 따라 결합하는 방식으로 당신앙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것이다.

출처 남국의 무가(진성기,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제주도무가(현용준·현승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참고문헌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구조(김현선·오정아, 한국무속학23, 한국무속학회, 2011),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강정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이경하, 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필자 강정식(姜晶植)

신화

생긱무가

정의 관북 지방에서 노인의 장수와 득자(得子), 성공, 재수(財數) 등 가정사의 모든 일을 다루는 생긱이라는 큰긱에서 불리는 창세신화.

줄거리 임석재와 장주근이 채록한 자료인 『관북지방무가』 추가편에 실린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천지개벽 후에 인간 세상은 구별이 없는 혼돈의 시절이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고 인간이 생겨났다. (창세신이) 흙으로 인간 남녀를 창조했다. (치국잡기 구송) 석가모여래서인님이 인도에서 출생하여 조선국에 당도했다. 석가와 미륵이 인세 차지 경쟁을 벌였는데, 마지막 잠자면서 꽃 피우기 대결에서 석가가 속임수를 써서 승리했다. 미륵은 미륵당으로 들어가고 인간 세상은 석가의 시절이 되었다. 석가의 시절이 되자 복수의 일월로 사람이 살지 못했다. 석가가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추어 절하고 삼천 구슬을 꿰고, 월망국·일망국에 가서 해와 달을 조정하여 직성별을 마련했다. 석가가 조선국에서 물과 불의 근본을 탐색하고 알아냈다. 생쥐를 통해 쇠 마찰로 불의 근본을 알아내고 풀개구리를 통해 천태산 샘물에서 물의 근본을 알아내었다. 물과 불의 근본을 알아내고 난 후 인간은 유한한 생을 누리게 되었고, 화장법(火葬法)이 기원했다. 여기에 <성주신화>, <득남형설화>, <에밀레종설화>, <장자못설화>, <제석본풀이>가 이어지면서 인간 세상을 차지한 석가의 행적이 계속된다.

분석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설정이 특별하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석가의

소종래가 인도라고 확정한 것도 특별한 양상이다. 불교의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변이가 생겨난 결과이다. <생긱뉡가>는 미륵과 석가의 인세 차지 경쟁 이후에 물과 불의 근본을 탐색하는 내력이 이어진다. 개구리에게서 물의 근본을, 쥐로부터 불의 근본을 알아내었다고 하는 발상은 두 동물이 오행에서 보면 각각 물과 불의 속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된다. 개구리는 달동물로 물을 의미하니 오행(五行)에 비추어도 음(陰)에 해당하여 여성을 뜻하고, 쥐는 불을 의미하니 오행 중에 양(陽)에 해당하여 남성을 뜻한다. 석가가 인간 세상의 통치자로 확정되어 한 세상에 두 통치자의 혼란을 시정하였기에, 무차별적 상황이 차별적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 석가가 남과 여, 삶과 죽음, 생식에서 화식으로의 구별을 분명히 한 인세의 치자로 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불의 근본 역시 개구리와 쥐로 구별되어 인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낱알을 먹던 미륵의 시대와 달리 석가의 시대에 와서 나무에 불을 지피 노루, 사슴을 구워 먹은 행위는 동물로 한정된 동물계의 섭취를 의미하고 이는 또한 생의 부정을 의미한다. 미륵의 시대에는 삶과 죽음의 구별이 없다가 석가의 시대에 와서 삶과 죽음의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화식(火食)의 시작은 무차별의 상황이 구별의 상황으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표지이면서 동시에 삶의 유한성을 확정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이 창세신화에는 창세의 내력에 이어서 <제석본풀이>가 연결됨으로써 둘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북부 지역의 다른 창세신화에서 미륵과의 모든 시험에서 패배하는 석가는 미륵에 비해 능력이 열세인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생긱뉡가>에서는 석가가 세 번의 대결에서 앞의 두 번은 승리하고 마지막 한 번의 꽃 피우기 대결에만 패하여 속임수를 썼다고 함으로써 석가에게 우호적인 관점을 드러낸다는 차이가 있다.

특징 <강춘옥본>은 생긱 혹은 센풀이, 세인긱 곧 성인긱이라 불린다. 성인긱은 관북 지방에서 노인의 장수와 성공·득자(得子), 재수(財數) 따위를 기구(祈求)하는 긱으로 연행된다. 모든 가정사를 다루는 큰긱이라 할 수 있다. 이 긱에서 받고 있는 신 역시 인간의 장수와 복록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된다고 하겠는데, 제석신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은 곧 성인(聖人)이니 창세의 거인신 가운데 인세를 차지한 이가 성인이 된다. 창세신화에 <성주신화>, <득남형설화>, <에밀레종설화>, <장자못전설>, <제석본풀이> 등이 장황하게 이어져 있어 성인이라 하는 석가의 행적을 하나로 모았다고 할 수 있다. 태초의 시절에 인세를 차지한 거인신 석가가 인세의 최고신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묶어 그 내력을 길게 노래한 것이라 하겠다. <정운학본>은 ‘삼태자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삼태자는 <제석본풀이>에서 제석신과

당금아기 사이에서 태어난 삼불제석을 지칭하는 것이니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창세서사시의 주역신인 석가가 인세를 차지하여 인세의 여인과 결연하고 인세의 신으로 좌정하는 삼불 제석을 태어나게 했다는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구연자가 인식했을 수 있다. 실제로 <정운학본>에는 <제석본풀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춘옥본>과 <정운학본>은 창세 거인신의 행적이 대단히 확장된 결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창세서사시의 변천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결국 창세의 주역신이 인간 세상을 맡아 다스리고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드러난 신화라 할 수 있다.

의의 <생긱뉡가>에서 미륵과 석가의 대결 양상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 의미가 선명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이들 대결에서는 특별한 속임수나 위계 따위가 동원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전적으로 능력의 우열 관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경쟁인 셈이어서, 그리스신화의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대결과 같은 맥락이다. ‘잡자면서 꽃 피우기’는 크로노스와 제우스의 대결과도 같은 궤에 있다. 이어 석가에서 제석님으로 연계되는 부권의 아버지신 등장은 크로노스를 밀어내고 가정 내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가장이자, 올림퍼스 궁전의 절대신이 된 제우스의 등장과 대응관계를 갖는다. 여성을 유인하여 결연하고 자식들의 출생과 양육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부권만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아버지신의 성격도 같다. 세 쌍둥이가 제석님을 찾아 친자 확인을 받고 삼불제석으로 좌정하는 것이나 아폴론이 위세당당하게 제우스를 찾아 올림페스의 이인자가 되는 것은 양육과 보살핌, 규범의 교육과 계승 같은 부성(父性)이 배제된, 절대적 부권에 집착하는 아버지신의 선택이요 선물일 따름이다. 삼불제석이나 아폴론이 그들의 아버지신에게 출생과 양육 그리고 교육의 결핍에 대한 직무유기에 대해 일체의 항의와 반항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아버지신의 눈에 들어 그의 인정을 받는 것 자체로 아들신의 과업은 성공적이다. 창세신화에서 출발하여 <제석본풀이>로 이어진 제석님의 노정기는 남성신의 이행 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남성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는 신화의 보편적 흐름의 한 축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출처 관서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관북지방무가-추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6).

참고문헌 창세시조신화의 변이와 의미(서대석, 구비문학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의 창세신화(김현선, 길벗, 1994),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박종성, 태학사, 1999).

필자 박종성(朴鍾聲)

민담

소 바꿔 탄 사돈

정의 사돈끼리 술에 취해 서로 소를 바꿔 타고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실수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한 사돈은 수소를 사기 위해 암소를 데리고 장에 나가고, 다른 사돈은 암소를 사기 위해 수소를 데리고 장에 갔다가 서로 만났다. 사돈끼리 서로 가지고 온 소를 바꾸면 되겠다며 흥정하고는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갔다. 오랜만에 사돈끼리 만나 술을 마시는 바람에 둘 다 술에 잔뜩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맞바꾼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소라는 동물은 원래 자기 집으로 가는 습성이 있어서, 양쪽 사돈을 원래 집으로 태우고 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떠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드릴 밥상을 차려서 방에 가지고 들어와 보니, 시아버지 대신에 친정아버지가 숙을 바람으로 누워 있는 것이었다. 딸이 아버지를 깨워 이유를 묻자 아버지는 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변이 각편에 따라서는 소 대신 말이 등장하는 예도 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사돈집으로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중에 서로 만나서 이 일을 절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설화로 ‘포천 소(疏) 까닭’이라는 말의 유래를 설명하는 각편도 있다.

분석 ‘만만찮기는 사돈집 안방’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가장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사돈이다. 특히 안사돈과 바깥사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설화는 이러한 관계를 뒤집어 웃음을 주는 육담이다. 특히 제일 마지막에 “너희 어머니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주는 웃음이 육담의 맛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의의 원래 ‘포천 소 까닭’이라는 속담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얼버무리며 슬쩍 넘어갈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속담은 조선시대 고종 때, 포천 출신의 최익현이 빈번히 상소를 올려 정사(政事)가 바뀌는 일이 많아서 사람들이 무슨 까닭으로 변경되었는가를 물으면, 포천에서 올린 상소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는 데서 유래했다. 후대에 이 설화와 연결시켜 포천장에서 소를 바꿔 탄 때문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696; 8-10,

478.

참고문헌 문헌 육담과 구전 육담에 담긴 성의식(신동훈,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성이야기의 유형과 민중들의 의식지향(김종대, 한국 육담의 세계관, 국학자료원, 1997).

필자 심우장(沈愚章)

민담

소가 된 게으름뱅이

정의 게으름뱅이가 소 탈을 쓰고 소가 되어 힘들게 일하다 무를 먹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는 설화.

역사 게으른 사람이 소가 되고 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하거나, 소가 된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소로 만들어 자신이 부자가 되는 이야기로 다양하게 변해 왔다.

줄거리 게으름뱅이가 부인에게 명주 두 필과 닛 낱을 받고는 소를 구해 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섰다. 그러나 사실 게으름뱅이는 이것으로 편하게 놀다 들어올 생각이었다. 길을 가다 노인을 만난 게으름뱅이는 노인이 만들고 있던 소 탈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소 탈을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고 소 울음소리만 났다.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게 일을 시키는 소를 팔면서 상대방에게 무를 먹이면 안 된다고 했다. 소는 여름내 힘들게 일하고 가을에 무밭에서 우연히 무를 먹고는 소 탈이 벗겨져 다시 사람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고 살았다.

변이 주인공은 게으름뱅이 아들이거나 결혼한 선비로, 무위도식하는 인물이다. 이를 건디지 못한 어머니나 부인이 배를 짜 주거나 전답을 팔아서 살 방도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궁리하다가, 소 탈을 쓴 후 고생만 하다가 결국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한다. 이야기 가운데는 소 탈이 아닌 탕관을 바꾸어 쓰는 예도 있다. 게으름뱅이 아들이 새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와 달리, 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노인과 할머니를 소로 만들어 버리고 그 집에 있던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석 인간이 동물로 일시 변신하는 양상은 주로 소, 말 등으로 나타난다.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게으른 사람은 전생, 내세 등 세계를 달리할 때에 소로 환생시켜 업을 닦게 하는데, 이

때 살아온 생에 대해 반성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일생에서 동물로 변신하는 것을 작은 윤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의 이 이야기는 게으른 사람을 소로 변신시켜 소가 지닌 우직함과 성실함을 몸소 체험하게 한다. 이를 통해 게으른 사람은 현실로 돌아왔을 때 부지런한 인간으로 변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한다. 소는 우리 민족의 삶에서 가족처럼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집안의 힘든 일을 함께해 준 부지런한 동물이다. 이 이야기는 무위도식하는 게으름뱅이가 소가 지닌 좋은 성품을 본받기를 바라는 상상에서 비롯된 변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803; 5-2, 277; 8-9, 24.

참고문헌 변신설화의 서사구조와 변신의 의미(강희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필자 김경희(金璟姬)

민담

소가 된 사람의 복수

정의 낫선 이가 준 떡을 먹고 소가 된 사람이 무를 먹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복수하는 변신담 형식의 설화.

줄거리 나그네가 길을 가다 낫선 이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주인은 나그네에게 떡을 권하는데, 이를 먹은 나그네는 소로 변한다. 다음 날 주인은 소가 된 사람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소에게 무를 먹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 말을 엿들은 소가 된 나그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무를 먹는데, 다행히 무를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 본래 모습을 찾은 나그네는 복수를 위해 손님 행세를 하며 주인집에 묵는다. 나그네는 주인이 권한 떡을 먹지 않았지만, 그가 떡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주인은 손님이 소로 변하지 않자 이상하게 여기며 자신이 떡을 먹어 본다. 나그네는 떡을 먹고 소로 변한 주인을 시장에 데려가 판다.

변이 나그네는 떡을 먹고 소가 되거나 탕건을 쓰고 소가 된다. 무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예도 있다. 나그네를 소로 변화하게 하는 인물은 욕심 많은 장사꾼이나 인간으로 변신한 여우인 사레가 대부분이다.

분석 이 설화는 주인공이 속는 이야기인 전반부와 주인공이 속이는 이야기인 후반부로 구성된다. 주인공이 욕심쟁이에게 속아 소가 되는 전반부 이야기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와 매우 유사하다. 이 설화는 편하게 살려던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어 고생한 후 부지런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교훈적인 주제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소는 근면과 재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가 된 사람의 복수〉 후반부에서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행을 저지른 인물을 주인공이 처벌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는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이라는 윤리의식이 작용하여 형상화된 구성이다. 따라서 이 설화에서 소는 부와 노동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의의 창조적 에너지·재생·충성심·사랑·우직함·헌신·재산·정직함·깨우침·미련함의 의미로 상징화되는 소는 특히 우리 민족에게 우직하고 순박한 동물로서 인내를 표상한다. 소는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가축이자 재산의 일부였기에, 한 집에 사는 하인이나 종을 가리키는 생구(生口)라고 불렸다. 이처럼 소를 인격체로 대한 풍습은 여러 설화로 전해진다. 특히 소는 월(月) 동물이라 하여 부활과 재생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이 설화의 변신과 관계가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253; 5-2, 277; 6-10, 323; 7-3, 688; 7-8, 148.

참고문헌 소의 상징성 고찰(김영민, 한국문화학회 문화연구4, 한국문화학회, 2000), 한국문화 상징사전(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한국민속대사전(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민족문화사, 1994).

필자 김정경(金靜京)

민담

소가 된 상좌

정의 중이 조 이사를 부러뜨린 대가로 주인의 집에서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하고 절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옛날에 스님이 상좌(上佐)에게 떡 시주를 보냈는데, 상좌가 조밭에 들어가 똥을 누다가 이사를 분질러 버리고 돌아왔다. 스님이 시주받고 돌아오는 상좌를 보니 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하였다. 스님은 상좌를 불러 그 이유를 듣더니 그 집에 가서 소가 되어 3년 동안 공을 갚아 주고 오라고 하였다. 상좌는 3년 동안 일하고 돌아가면서 주인의 밭에 들어가 곡식 이사를 분지른 죄를 갚기 위해 일을 했노라고 주인에게 알렸다. 상좌가 절로 돌아가니 스님이 받아 주었다.

변이 중이 불일을 보다가 실수로 곡식을 훼손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곡식을 분질러 버리는 변이형이 일반적이다. 또한, 중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본래 중으로 돌아가 절로 복귀하는 단일형 서사가 도둑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는 이야기로 확장되기도 한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소가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얼마 안 있으면 도둑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갈 것이니 준비하라고 일러 주어 주인은 소의 말을 따른다. 도둑수장이 주인에게 자신들이 올 것을 누가 알려 주었느냐고 묻자, 소가 알려 주었다고 하였다. 주인과 도둑수장이 외양간으로 가 보니 소는 없고 염주를 든 중이 있었다. 중이 도둑들을 모두 데리고 절로 들어가 잘못을 뉘우치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

분석 중이 실수 혹은 장난으로 곡식을 훼손한 벌로 곡식 주인의 집에 가서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다는 이야기이다. 중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뿐만 아니라 부잣집에 들어온 많은 도둑까지 함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복합적인 서사로 형성되었다.

변신 이야기는 신, 사람 그리고 자연물이 변하는 예가 있으며, 이 이야기는 사람이 변하는 예에 해당한다. 또 사람이 변하는 이야기는 형태적 변화와 질적인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변신 주체가 변신 이전의 속성을 유지한 채 외적 형상만 변하는 형태적 변화 유형에 속한다.

의의 곡식 한 톨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과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수로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곡식을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설화에서 중은 곡식 주인집에 가서 3년 동안 봉사하여 그 죄를 씻는다. 이러한 행위에서 생명이 있는 것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불가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가의 가르침이 중 자신의 개인적인 뉘우침과 더불어 도둑들에게 미쳐 반성하고 절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3, 692; 7-15, 229; 8-12, 578.

참고문헌 한국동물민속론(천진기, 민속원, 2003), 한국 전래동화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의 구현 양상과 의미(이은선,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필자 김경희(金璟姬)

민담

소박맞은 세 자매

정의 시집간 세 딸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 소박맞고 쫓겨 온 사연을 이야기하는 여성 바보민담.

줄거리 시집가서 쫓겨 온 세 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소박맞은 세 딸의 사연〉은 세 딸이 모두 첫날밤 잠자리 때문에 쫓겨났다는 이야기이다. 한 집에 딸 셋을 두었는데 모두 시집간 첫날밤에 쫓겨 왔다. 첫째 딸은 시집가던 첫날밤에 신랑이 옷을 벗기려고 하자 부끄러워서 옷을 꼭 쥐고 절대로 벗으려고 하지 않다가 소박을 맞아 쫓겨 왔고, 둘째 딸은 언니가 옷을 안 벗으려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옷을 벗고 들어갔다가 무례한 게 집이라고 소박을 맞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딸은 방문 앞에서 신랑에게 “옷을 입고 들어갈까요? 벗고 들어갈까요?”라고 말해서 소박을 맞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인 〈소박맞은 세 자매〉는 모두 같은 이유로 첫날밤을 치르지 못하고 쫓겨나는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세 딸이 각자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이야기이다. 첫째 딸은 옷에 이가 너무 많아 밥술에다 월경한 속곳을 찌서 수수밥(붉은 밥)을 만들어 놓은 까닭에 쫓겨나게 되고, 둘째 딸은 시아버지 대머리를 요강으로 오인하여 오줌을 똥다가 쫓겨난다. 셋째 딸은 시동생과 잠자리를 했다가 쫓겨난다.

변이 소박맞은 여성 바보담은 세 딸이 쫓겨난 이유가 부분적으로 달라지거나 쫓겨나는 인물이 딸에서 며느리로 바뀌는 등 주체의 변화를 통해 내용상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체에 불을 떠서 시아버지에게 갔다 드렸다가 쫓겨나는가 하면, 시아버지 대머리에 칼자루를 박았다가 쫓겨나고, 뒷집 총각의 언 손을 자신의 젖가슴으로 녹여 주다가 쫓겨나가거나, 화장실에서 책을 읽다가 쫓겨난다. 이처럼 쫓겨난 사연을 각기 달리 형상화함으로써 변이형이 새롭게 재생산되고 있다. 또 한 쫓겨나는 인물이 한 집안의 세 딸이 아니라, 한 마을에 사는 며느리들이나 같은 동네에 살던 세 처녀로 바뀌어 등장함으로써 변이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는 세 주인공이 우물가나 담 밑에 모여 각자 쫓겨난 사연을 토로하며 자신을 소박한 처사가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연은 기본 유형과 큰 차이가 없다.

분석 소박맞은 여성 바보담은 어리석은 세 자매를 통하여 혼인 첫날밤이나 시동생, 이웃집 총각과의 부적절한 행위와 같

人

소가 된 사람의 복수

人

소박맞은 세 자매

이 주로 성과 관련된 흥밋거리를 이야기하거나, 시아버지 머리에 오줌을 누는 식으로 세 딸의 어리석은 행위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청중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전하는 소화(笑話)의 성격이 강하다. 민담에 등장하는 세 자매는 모두 초야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상식선에선 절대 범하지 않는 무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왜 잘못됐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별것도 아닌 일로 쫓겨났다고 항변하기까지 한다. ‘소박’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비록 인물들에게는 가혹한 징치일지는 모르나, 몰지각과 뻔뻔함이 강조된 인물들의 이 같은 행위는 민담의 향유자들에게 연민이나 특별한 동정 없이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는 재미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민담이 단지 성적 우스개나 농담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사회적 의미가 배제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바보담도 특정 집단의 사회·문화적 가치 질서를 근간으로 삼는 한 어떤 식으로든 나름으로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 민담은 성에 무지한 세 자매에게 첫날밤을 지내는 동방화촉(洞房華燭) 절차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은 채 혼인시킨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첫째 딸이 소박을 맞았음에도 둘째 딸, 셋째 딸의 성적 무지함 역시 그대로 방관함으로써 똑같은 곤경에 처하게 한다. 누구도 이들에게 합궁례(合宮禮)에 대해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바보짓이 단지 세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민담의 이면에는 성에 대한 것이라면 결혼 문제에서조차도 터부시했던 당대의 문화적 허점과 폐쇄성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시아버지 머리에 오줌을 누고 쫓겨 온 딸에게 “예끼 고안 놈이다. 그보다 더 좋은 기 어땠노. 왜 쫓노. 그놈 고안 놈이다.”라고 하거나, 시동생과 관계하고 쫓겨온 딸에게 “아, 그건 제 새끼 아닌가?”라고 하며 오히려 딸을 두둔하고 제 딸을 쫓아낸 시아버지를 닦하는 친정 부모의 태도, 그리고 쫓겨난 인물들 모두 한 집안의 딸이라는 설정은 내재한 발화의 의도가 가정교육 문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징 이러한 민담들에서 딸이나 며느리 같은 여성 인물만 등장하고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유사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과 덧붙인 구연자의 논평에서 나타나듯 잠자리를 함께한 시동생에게도 문제가 있는데도 며느리의 행위만 부정으로 간주하여 쫓아내는 것에서 이 이야기에 ‘여성 길들이기’라는 가부장적 의식이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아버지의 머리에 칼자루를 박는다거나 오줌을 누는 며느리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소박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인물들의 태도는 가부장적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

과 항변의 역설적인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의의 소박맞은 여성 바보담은 단지 우스개처럼 보이지만, 이면에 함축된 담론을 그리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이 민담들은 혼인하는 딸들에게 아내로서 지켜야 할 여필중부나 순종과 같은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시키면서도, 막상 혼인하는 여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실질적인 성 지식이나 가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사회적 폐쇄성이나 비현실적 교육 방식을 문제 삼음으로써 가정교육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이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민담은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해서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694; 2-8, 357; 5-3, 456, 한국구전설화(입석재, 평민사, 1988~1993) 8, 318.

참고문헌 바보음담의 사회문화적 해석(이강연, 한국민속학33, 한국민속학회, 2001), 바보이야기, 그 웃음의 참뜻(이강연, 평민사, 1998), 한국민담의 세계(성기설,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필자 김복순(金福順)

전설

소백산

小白山

정의 소백산과 죽령에 얽힌 전설.

역사 백두대간의 중심축을 이루는 소백산과 고갯길 죽령의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설화가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줄거리 소백산과 죽령에 얽힌 전설 세 가지를 소개한다. <죽령과 죽지랑>의 내용은 이러하다. 신라 진덕 여왕 때 술종공이 삭주도독이 되어 임지로 가고 있었다. 죽령에 이르렀을 때, 한 거사가 고갯길을 닦고 있었다. 술종공이 거사를 칭찬했고, 거사 또한 공의 늠름한 모습을 흠모하였다. 어느 날 공의 꿈에 거사가 나오자, 공이 거사의 안부를 알아보니 꿈을 꾸 그 날 죽었다고 하였다. 공은 “아마도 거사가 우리 집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군사를 보내어 거사를 죽령 북쪽에 장사지내고 미륵불을 만들어 세웠다. 꿈을 꾸 날부터 공의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으니 ‘죽지라 하였다. 죽지는 뒤에 김유신 장군을 도와 삼국을 통일하고 재상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죽령과 상원사 동종>의 내용이다. 조선시대 세조는 오대산 상원사를 확장 중수하여 원당 사찰로 삼았다. 이때 전국의 범종 가운데 소리가 가장 청아하며 자태가 아름다운 종을 찾았는데, 경상북도 안동 남문루에 있던 동종을 상원사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영남을 지나는 죽령 마루에서 종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운종도감이 온 힘을 다하고 제사까지 올렸으나 허사였다. 여러 생각 끝에 동종의 종유(鐘乳) 가운데 하나를 떼어 안동 남문에 정성스럽게 안치하자 종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상원사 동종은 그래서 종유 하나가 없다. 그것은 고향을 그리는 동종의 마음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도솔봉 산삼 밭>의 내용이다. 소백산 도솔봉의 산삼 밭에 사는 가장 크고 오래된 산삼은 풍기장날이 되면, 동자로 변하여 장을 보러 가곤 하였다. 장날 마을 앞을 지나는 동자를 알아본 어느 농부는 동자에게 선의를 베풀어 친분을 맺고, 도솔봉 아래 세마지기에 산삼 밭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삼 밭으로 들어간 동자가 자기는 캐지 말고 다른 산삼을 따먹게 라고 부탁했지만, 농부는 욕심 때문에 동자 산삼마저 캐버렸고 산삼 밭은 옷나무 밭과 부추 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분석 죽령은 삼국시대부터 한강 상류 유역과 낙동강 상류 유역을 잇는 중요한 고갯길이었다. 소백산 관련 설화들은 주로 소백산을 관통하는 고갯길인 죽령과 관련한 역사 사실을 바탕으로 전승된다. 삼국시대의 죽지랑전설을 비롯하여, 상원사 동종의 이운(移運)과 관련한 전설은 죽령이 가지는 역사 사실과 맞닿아 있다. 죽령은 서기 158년에 길이 열렸다.

특징 소백산은 백두대간이 지나며 예로부터 명산대천에 속하는 곳이었다. 비로봉, 연화봉, 도솔봉 같은 지명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지명유래담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솔봉 산삼 밭>은 지리적으로 넓고 깊은 소백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출처 소백산에 얽힌 전설(한국자연공원협회, 국립공원문화74, 1998), 영주영풍향토지(송지향, 여강출판사, 1987).

참고문헌 민속연구3(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3), 영주시사(영주시, 영주시사편찬위원회, 2010).

필자 안태현(安泰賢)

용어

소화

笑話

정의 웃음을 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설화의 총칭.

역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문왕이 설총에게 주문한 이야기 중에 우스개 이야기(高談善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화(笑話)는 삼국시대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이색이 지은 <오동전(吳斗傳)>도 소화의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다. 『파한집(破閑集)』, 『보한집(補閑集)』, 『역옹패설(樸翁稗說)』에서도 소화들이 일부 발견된다. 본격 소화집의 시초는 15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서거정(徐居正)의 『태평한화공계전(太平閑話滑稽傳)』이다. 이 책에서부터 『촌담해이(村談解頤)』, 『어면순(禦眠楯)』, 『속어면순(續禦眠楯)』, 『명엽지해(茗葉志諧)』 등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편찬된 소화집들을 한데 모은 『고금소총(古今笑叢)』은 한국 소담 연구에 중요한 문헌이다. 『결작소화집』, 『십삼도재담집』, 『재담 기담 꽃동산』, 『팔도재담집』, 『고금기담집(古今奇談集)』 등 근대 초기에 많이 간행된 ‘재담집’의 이야기들도 소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내용 소화는 ‘우스운’ 짧은 이야기이다. 소화를 성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웃음이다. 소화에서는 웃음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웃음 자체보다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활용된 방식이아말로 소화를 다른 장르와 변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소화의 웃음은 서술 과정에서 형성된 상황의 독특함에서 유발된다. 또 등장인물의 독특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도 웃음이 유발된다. 등장인물들이 주변인물과 관계를 맺을 때 인물 간의 관계가 일상생활에서 익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역시 웃음이 유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웃음은 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나 사건을 변형하거나 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현실에서 실제로 형성되는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이 우스운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항상 우습지는 않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발생한 우스운 경우는 특별하다. 현실에서 우연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발생하여 존재했던 우스운 상황이나 사건이 참조되어 하나의 모형이 설정되고, 마침내 그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더 다양하고 심한 변형과 과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소화의 출발이 된다. 결국 소화는 웃음의 창출을 위해 일상적 상황이나 일상적 사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형상을 대

단히 크게 변형하고 그 인물의 자질을 과장한 것이다. 그래서 소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존 인물 그대로일 필요가 없다. 소화는 독자나 청자가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작위성이 강하다. 그 작위성은 등장인물이 진지하기보다는 장난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된다. 그리고 서술자도 등장인물을 회화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작위성은 마침내 허구성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극대화되면 소화의 모든 이야기는 꾸며진 것이라는 인상을 만들기에 이른다.

소화는 서사문학 중 가장 압축적이며 짧은 장르 중 하나에 등장인물들이 관계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 등장인물의 처지가 어떠한지 또는 어떤 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 준다. 또는 한 등장인물이 갖추고 있는 독특한 면모를 폭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들을 ‘처지담’이라 명명할 수 있다. 처지담은 한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품성이나 성향을 드러내 웃음을 유발한다. 소화의 등장인물은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인물이 대부분이다. 비정상성이 과장된 셈이다. 바보·사기꾼·구두쇠·게으름쟁이·건강증 환자·허풍쟁이 등이 그 사례이다.

둘 이상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사건이 전개되면서 그 관계의 양상은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관계담’이라 한다. 그것을 변별하여 그렇게 된 사연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는 흔히 대립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피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등장시키고, 양자로 하여금 각각 승리와 패배를 맛보게 한다. 이 경우 주인공의 행위가 정상인의 행위를 벗어날수록 그 이야기는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형성이 처지의 변화 또는 욕망의 충족과 연결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처지담’과 ‘관계담’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동인물이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경우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욕망성취담’이라 명명할 수 있다.

소화는 다시 그 유형에 따라 치우담(癡愚譚), 과장담(誇張譚), 지략담(智略譚), 우행담(偶幸譚), 포획담(捕獲譚), 모방담(模倣譚), 풍월담(風月譚), 기원담(起原譚), 외설담(猥褻譚) 등으로 분류된다.

특징 소화는 민담과 비교된다. 주인공의 능력 면에서 민담 주인공의 능력은 일상적인데 비해 소화 주인공의 능력은 평균 이하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차이는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민담의 서술자는 주인공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여 주인공이 타인과 부딪혀 난관에 봉착할 때도 결국은 난관을 극복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소

화의 서술자는 그 주인공에 대해 애착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화의 서술자는 주인공보다는 주인공과 대비되는 타인의 편을 들 때가 더 많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을 조롱하거나 주인공이 봉변당하게 만든다. 타인과 투쟁하는 경우도 주인공이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아울러 민담의 서술자는 단순한 어른이나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민담의 내용은 유치하거나 세상의 실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해 소화의 서술자는 성숙한 어른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른의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소재를 즐겨 활용한다. 소화에 성(性)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도 그것이 어른의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어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화에 자주 등장하는 독특하고 재치 있는 말의 구사도 어른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소화는 일화वाद 구분된다. 단지 우스운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일화가 아니고 소화라 할 수 없듯이,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 해서 모두 소화가 아니고 일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화와 일화는 얼핏 보기에 잘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짤막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모두 소화라고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소화는 과장되고 꾸민 것인데 비해 일화는 있었던 그대로가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서술자의 태도 면에서도 소화와 일화는 구분된다. 소화의 서술자가 기본적으로 주동인물을 회화화하는 서술 태도를 취하는 데 비해, 일화의 서술자는 설사 심각한 자세로 그 인물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관된 회화화의 태도를 취하지도 않는다.

참고문헌 태평한화골계전연구(이강옥, 인문연구1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한중 소화의 비교(서대석,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기록소화시론(황인덕, 태학사, 1999), 한국 소담의 연구(조희웅, 어문학3,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84).

필자 이강옥(李康沃)

민담

속 깊은 어린 신랑

정의 어린 신랑이 시부모에게 신부의 잘못을 감춰 주자 신부가 어린 신랑을 존경하며 살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열여덟 내지 열아홉 살 처녀와 아홉 살 난 신랑이 혼인을 했다. 신랑은 신부가 밥을 푸면 누룽지를 긁어 달라고 칭얼했는데, 하루는 화가 난 신부가 신랑을 안아 지붕 위에 올

려놓았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하자 호박을 따러 올라왔으며, 큰 것을 딸지 작은 것을 딸지 물었다. 덕분에 신부는 혼나지 않았다. 또 하루는 신랑이 누룽이를 달라고 칭얼대자 화가 난 신부가 신랑을 외양간에다 들어다 놓았다. 어머니가 왜 밥 안 먹고 거기에 있느냐고 하자, 어린 신랑은 외양간 치우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한다고 말해서 이번에도 신부가 혼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나이 든 신부는 신랑을 잘 받들며 살았다.

변이 신부가 점심을 가지고 가는 어린 신랑을 논두렁에 빠뜨리고는 혼날 것을 걱정하는데, 신랑이 자기 실수로 넘어져 논두렁에 빠졌다고 말해 신부가 감복하기도 한다. 또 부지깅이로 이마를 때린 신부를 감싸 주기도 하고, 동이와 호박을 켠 신부를 감싸 주기도 한다.

분석 어린 신랑의 행동은 신부 처지에서 보면 남편 노릇이기 보다는 아들 노릇에 가깝다. 혼인한 이들의 관계는 사실 허울만 부부이다. 신부보다 신랑은 작고 귀찮은 약자다 보니 신부는 신랑을 만만하게 보고 횡포를 부린다. 어린 신랑은 지금의 관계를 뒤집을 수 있도록 신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재치로 감싸 안아 진정한 ‘부부 되기’로 나아가며, 진정한 부부의 관계 맺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특징 꼬마 신랑이 첫날밤에 오줌을 싸고, 엄마 보러 집에 가겠다는 것을 누룽지 긁어 주겠다고 달라는 동요에서는 나이가 더 많은 신부가 감싸 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반면에 설화에서는 어린 신랑이 나이 많은 신부를 재치 있게 감싸 안는 것으로 뒤집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이점에서 동요와 차이가 있다.

의의 이 설화는 혼인의 한 풍습 중 조혼(早婚)으로 인해 벌어진 한국 문화의 갈등 양상을 보여 준다. 민머느리와 데릴사위제에서는 신랑이나 신부는 몰락한 양반가문이나 가난한 집 자녀들이다. 이런 풍습의 폐해를 어린 신랑의 지체어린 감싸기를 통해 현실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전승자들의 의식을 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5, 152; 2-6, 308; 3-3, 228.

참고문헌 아이지혜담에 나타난 부자간의 관계와 그 의미(이성희,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화회, 2010), 아이지혜담 연구(이성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지혜, 신화와 우언을 잇는 고리(조현설, 고전문학연구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김옥숙,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김정은(金廷恩)

전설

속리산

俗離山

정의 속리산을 공간으로 해서 전승하는 전설.

역사 속리산은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에 위치한 백두대간의 한 봉우리로 보은군과 괴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상주시 경계에 걸쳐 있다. 명승고적이 보은군에 많이 있어 ‘보은 속리산’이라고 부른다. 속리산에는 호서에서 제일 큰 가람인 법주사(法住寺)가 자리하고 있으며, 법주사는 사적과 명승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줄거리 〈속리산설화〉는 금산사(金山寺)에 거주하던 진표율사가 구봉산(九峰山, 속리산의 옛 이름)으로 오면서 시작된다. 진표율사가 보은에 다다랐을 때, 들판에서 밭갈이를 하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율사를 맞았다. 농부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율사에게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율사는 “이 소들이 걸으로는 어리석으나 속으로는 현명하여 내가 깨우친 불법을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농부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낫을 들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속리산의 봉우리와 바위에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 문화재청

는 다양한 설화가 전한다. 입석대는 옛날 신라 진평왕의 왕비인 마야부인이 서라벌을 향해 기도를 올릴 때 세웠다고 하며, 배석대는 진평왕이 이곳에서 신라 왕실을 배향했다고 한다. 그 아래에 있는 경업대는 조선 인조 때 임경업 장군이 수련했던 바위이며, 입 장군이 수련하던 토굴 아래의 샘은 장군수라 부른다. 신선대는 그 바위 봉우리에 백학이 수없이 날아오르며 춤을 추고, 그 가운데 백발의 신선들이 앉아 놀았다고 한다. 한편 속리산은 조선시대 7대 임금인 세조와 관련해서 다양한 설화가 전승한다. 세조가 속리산으로 오는 도중 넘어졌던 말티고개, 비를 피하게 하고 연(簾)이 지나가는 것을 도와주어 벼슬을 받은 정이품송, 세조를 호송하던 관군들이 진을 쳤던 진터, 책을 읽었던 문장대, 질병을 치료한 목욕소, 그 보답으로 땅을 내리고 위해 끝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은구석이 있다.

분석 원래 구봉산이라고 불리었는데, 진표율사(眞表律師)를 따라 ‘속리(俗離)’, 곧 속세를 떠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속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조선시대 7대 임금인 세조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는 설화가 여러 증거물들과 함께 전승하고 있다. 속리산 자락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이 속리산의 내력과 사연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특징 속리산은 법주사 팔상전(捌相殿)을 중심으로 숫자 8과 관련한 곳이 많다. 천왕봉을 비롯한 비로봉·길상봉·문수봉·보현봉·관음봉·묘봉과 수정봉의 여덟 개 봉우리와 문장대·입석대·경업대·배석대·학소대·신선대·봉황대·산호대의 여덟 개 대(臺)가 있으며, 내석문·외석문·상환석문·상고내석문·비로석문·금강석문·추래석문으로 여덟 개의 문이 있다. 또한 속리산에는 ‘여덟 다리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수정교와 환선교, 그리고 태평교만 남아 있다. 이는 속리산이 불교와 밀접하고,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불국토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속리산과 관련한 설화들을 통해 부처님의 신력(神力)을 보여 주고 있다.

의의 〈속리산설화〉는 민중 계층이 속리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보여 준다. 속리산은 부처님이 거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며, 인간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공간,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속리산에 있는 봉우리와 연못, 바위, 절 터와 연계한 증거들로 속리산이 신성한 공간임을 증명하고 강조하기 위한 담론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출처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속리산의 민속과 축제(이창식 외, 민속원, 1999), 충북의 민속문화(이창식, 푸른사상, 2003).

필자 이창식(李昌植)

자료

속어면순

續禦眠楯

정의 조선시대 중기 성여학(成汝學, 1557~?)이 편찬한 소화집(笑話集).

내용 『속어면순(禦眠楯續)』은 쌍천(雙泉) 성여학이 편찬한 소화집이다. 그는 변변한 관직을 갖지 못했지만, 시에 관하여서는 출중한 능력을 발휘했다. 『속어면순』은 표제 그대로 송세림(宋世琳)이 편찬한 『어면순(禦眠楯)』의 속편임을 자칭하였다. 그 내용이나 형식 모두 『어면순』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예컨대 『어면순』에 실린 남성의 성기를 의인화한 〈주장군전(朱將軍傳)〉에 대응하여, 여성의 성기를 의인화한 〈관부인전(灌夫人傳)〉을 지은 것도 그러하다. 상권에는 논평을 붙인 반면 하권에는 붙이지 않는 『어면순』의 방식을 준용하여 수록된 총 32편 중 17편은 논평을 붙였지만 15편은 논평을 붙이지 않았다. 다만 『어면순』에는 82편 중 절반 정도가 성 이야기인데 반해, 『속어면순』에서는 32편 가운데 27편이 성 이야기다. 『속어면순』은 『어면순』을 본받되, 성 이야기를 대폭적으로 확장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속어면순』은 전대 이야기 문학 양식을 수용하면서 드러나는 변이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라 하겠다.

필자 김준형(金墩亨)

민담

손 없는 색시

정의 계모에게 모해를 당해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났던 처녀가 혼인과 출산 과정을 통해 손이 재생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내용의 설화.

역사 세계적인 전승 분포를 보이는 민담(AT706)으로 11세기 〈천일야화〉에서 단편적인 기록이 확인되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프랑스에서 자료가 채록되었다.

줄거리 전설 딸이 계모에게 쥐를 이용한 낙태 모해를 당해 부친에게 두 손이 잘린 채 집에서 내쫓긴다. 정치 없이 길을 가던 딸은 배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입으로 배를 따 먹다가 글 공부하던 도령에게 발견되어 구조된다. 도령은 처녀를 벽장 안에 숨겨 두고 돌보다가 부모에게 발각되어 혼인한다. 남편이 과거보러 간 사이에 색시는 아들을 출산하고, 그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계모가 조작하여 색시는 아이를 업은 채 시집에서 쫓겨난다. 색시가 목이 말라서 우물의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다가 등에 업은 아이가 물속에 빠진다. 영겁결에 아이를 건지려고 양팔을 뻗는 순간 색시의 두 손이 재생된다. 색시는 아이와 함께 어떤 할머니 집에서 배를 짜며 생활하다가, 아내를 찾아서 유랑하던 남편을 만나 다시 부부로 함께 살게 되고, 계모는 징치된다.

변이 평안도부터 제주도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중복 채록된 각편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총 11편의 자료가 보고되었다. 지역에 따른 변이나 서사 전개상의 변이보다는 화소 차원의 변이가 확인된다. 쥐 등을 이용한 낙태 조작 화소는 총 7편의 각편에서 확인되며, 전설 딸의 손을 자르는 주체는 아버지가 대부분이나 계모 혹은 전설 딸 본인인 예도 있다. 쫓겨난 여주인공이 먹는 과실의 종류도 배와 감이 일반적이거나 제주도에서는 콩으로 나타난다. 그 외에 잘린 손의 행방, 쫓겨난 색시와 아이가 정착하는 장소, 아내를 찾아 나서는 남편의 신분 등에서 다양한 변이가 확인된다.

분석 이 설화는 가임기에 이른 전설 딸이 계모의 모해로 두 손이 잘린 채 쫓겨났다가 혼인과 출산을 통해 아내와 어머니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여성의 ‘통과의례’적 구조와 의미를 지닌다. 여성은 초경을 치르는 시기가 되면 더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딸이 아니라 온전한 모성성을 지닌 어머니로 거듭나야 하는 존재 변환에 직면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의 계모는 어머니가 딸의 온전한 자립과 성숙을 위해 매물차고 냉정한 어머니로 변화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설화는 손의 절단과 재생, 배나무와 우물에 담긴 신화적 상징성과 신이성이 주목된다. 부친에게 잘린 두 손은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새들이 물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 행방이 초현실적으로 처리된다. 또 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잘렸던 두 손이 생겨났다는 대목 역시 신화적 초월성이 개입되어 있다. 배 혹은 배나무는 인공의 음식물이 아닌 자연이 성숙시켜 제공하는 자연의 음식물로서, 주인공이 태아와 같은 원초적 상태인 모태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상징성이나 초월적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인 우

주목이라는 상징성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손의 재생이 실현되는 물이나 우물은 치유와 회복, 생산과 풍요, 지하 혹은 죽음의 세계로부터 지상 세계로 회귀하는 통로의 상징성을 지닌다. 신화적 계의학과 관점에서 보면 부친에 의한 손 절단은 입문의례의 ‘상징적 죽음’에 해당하며, 우물에서 손의 재생은 ‘지옥으로의 하강’이라는 입문의례의 마지막 단계를 상징한다. 심층심리학적 관점에서 손의 절단은 어머니의 상징적 모성상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 재생되는 손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구체화된 모성상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손의 절단과 재생 모티프는 ‘성 의식 억압과 극복’, ‘여성의 정체성과 관계 변환’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설화는 계모와 전설 딸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콩쥐팍쥐〉, 〈황화일엽〉, 〈연이와 버들도령〉 같은 여타의 계모설화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설화들에서는 계모가 과도한 노동이나 불가능한 과제를 맡기는 방식으로 전설 딸을 학대하거나 내쫓거나 살해 위협을 하지만 딸은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모를 징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전설 딸과 계모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설화들이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인 의례 서사구조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설화유형 ‘441-4 콩쥐팍쥐(그 밖의 전설 자식 구박하는 계모 포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콩쥐팍쥐〉와 다른 서사 전개를 보인다는 점에서 독립된 분류 항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징 이 설화에는 계모의 모해로 친정과 시집 모두에서 쫓겨나는 사건과 아이의 출산과 양육 모티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른 계모설화에서 학대받던 전설 딸이 고난을 극복하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는 것으로 종결되던 서사가 이 설화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는 혼인 이후 고통스럽지만 시집의 새로운 질서에 창조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여성의 두 번째 성인의례, 즉 ‘사회적 입문의례’가 진행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의 여성이 친정은 물론 시집에서도 갈등을 겪고 축출되었다가 재결합한다는 점에서 이 설화는 계모와 전설 딸의 갈등을 다루는 계모설화 유형들 중에 비교적 후대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설화는 〈연당전〉, 〈순금전〉 같은 계모형 가정소설의 근원설화로서 두 작품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출처 제주도 민담(현용준, 제주문화, 1996),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9, 252; 7-13, 332; 7-14, 684; 8-11, 714,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31.

참고문헌 손 없는 색시(AT706)고(조희용,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손 없는 색시설화의 신화적 성격과 심리학적 접근(이인경, 구비문학연구13, 한국구비

문학회, 2001), 손 없는 색시설화의 유형 체계(김혜정,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손 없는 색시설화와 여성 의식의 성장(신연우, 한국문학과 낭만성, 국학자료원, 2002), 민담 손 없는 색시를 통한 여성심리의 이해(이유경, 심성연구21, 한국본색심리학회, 2006).

필자 이인경(李仁卿)

민담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정의 부잣집 며느리가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싫어서 손님이 많이 오는 혈을 끊었다가 집안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높은 벼슬까지 했던 큰 부자가 살았다. 워낙 큰 부자라 집에 늘 손님이 많이 찾아왔다.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며느리가 시주 온 도승에게 손님 좀 덜 오게 하는 법에 대해 물었다. 도승은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이 적막해진다.”라고 경고했다. 그래도 며느리는 손님이 안 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중이 집 근처에 있는 중요한 목을 알려 주면서 그곳의 혈을 끊으면 될 것이라는 비책을 알려 주었다. 며느리가 그대로 했더니 중요한 혈에 있던 나무에서 피가 나고, 그 뒤로는 손님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모두 비렁뱅이가 되어 집이 망하고 말았다.

변이 각편에 따라 손님 맞이하기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주체가 며느리나 안주인이거나 주인 자신일 때도 있다. 도승이 알려 주는, 손님을 안 오게 하는 방법으로는 혈을 끊는 대신, 집 앞에 흐르는 냇물의 보를 막아서 벌을 모두 눈으로 만들라는 방법이 등장하는 각편도 있다.

분석 며느리와 도승의 관계 그리고 부자의 패망이라는 결말로 볼 때, 이 설화는 광포전설인 <장자못전설>과 구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장자못전설>의 장자가 손님을 박대하고 그 죄로 하늘의 벌을 받아 망한 것과는 반대로, 이 설화 속의 부자는 손님을 박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할 정도로 손님을 잘 대접하고, 그로 인해 집은 더욱 번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려는 며느리의 게으름 때문에 손님이 끊어지고 결국 그 집안은 망하게 된다. <장자못전설>과 이 설화의 구조를 보았을 때, 손님 대접과 집안의 흥망은 필연적 관계에 있다. 남이나 손님을 잘 대접해야만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것이 가진 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화 향유층의 윤리 의식이 이 설화를 통해 표현된 것이다.

의의 혈을 끊어 부자가 망한다는 내용의 패망설화는 여러 가지 행운으로 부자가 된다는 발복설화와는 내용이 반대된다. 설화 향유층은 손님을 대접하지 않아 망하는 내용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쌓은 부를 감당하려면 이웃과 사회를 배려하고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부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부자로 흥하는 설화에 비해 부자가 망하는 내용의 설화는 그 양은 절대적으로 적지만, 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7, 705; 7-10, 497.

참고문헌 부자 이야기의 주제와 민중적 상상력(천혜숙, 구비문학연구29, 한국구비문학회, 2009), 부자 패망담에 담긴 부에 대한 인식 연구(은현정, 겨레어문학47, 겨레어문학회, 2011), 비극적 구전서사의 연행과 여성의 죄(김영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필자 은현정(殷賢貞)

신화

손님굿무가

정의 손님굿 혹은 별상굿이라고 불리는 천연두 치병굿에서 구연되는 무가.

역사 굿관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손님굿 혹은 별상굿이라는 굿거리가 전국에 널리 분포하고 종두법이 보편화하기 전에는 천연두가 전염성이 매우 높고 무서운 전염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아카마스 지조와 아키바 다카시의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 실린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이 책은 1937년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실린 자료는 서사무가가 아니라 노정기와 축원 중심의 무가이다. 박경신이 정리한 『동해안별신굿무가2』에 실린 김동연 구연본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줄거리 세존손님, 호반손님, 각시손님이라는 세 손님들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온다. 압록강가에 이른 손님들은 사공을 불러 배를 빌려 달라고 한다. 사공은 손님네의 청을 거절하면서 각시손님이 타고 있는 가마 문을 열어 보고는 하룻밤

수척 들면 건네 주겠다고 한다. 화가 난 손님들은 사공의 목을 쳐 죽이고 사공의 일곱 아들도 천연두에 걸리게 해서 모두 죽이려고 한다. 그렇지만 사공의 아내가 손님네에게 마지막 한 아들만은 살려 줄 것을 간절히 빌어 막내아들은 살려 준다. 손님네는 스스로 배를 만들어 타고 압록강을 건너 서울 김 장자의 집으로 찾아간다. 하지만 김 장자에게 박대를 당한 반면, 김 장자의 삼대독자 철현이의 유모로 방아 품을 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구할머니에게 갔더니 할머니는 손님네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할머니는 급히 김 장자의 집으로 가서 베푼 말을 빌려 달라고 한다. 김 장자 부인의 도움으로 겨우 베푼 말을 빌린 할머니는 그것으로 죽을 썬어 손님네를 대접한다. 노구할머니의 정성에 감동한 손님네는 할머니의 손자나 손녀를 데려오면 천연두를 가볍게 앓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할머니는 자신이 기른 철현이에게 손님을 잘 시켜 달라고 한다. 손님네가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할머니는 김 장자를 찾아가 철현이에게 천연두를 가볍게 앓게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김 장자는 화를 내며 손님네를 모욕한다. 손님네는 할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손녀를 데려오라 하여 가볍게 천연두를 앓게 하고 회복시켜 준다. 노구할머니가 외손녀를 위하여 손님배송굿(천연두신을 떠나보낼 때에 하는 무당굿)을 하는 것을 본 김 장자가 또다시 손님네를 모욕하자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한다. 김 장자는 집으로 돌아와 철현이를 깊은 산속에 있는 유점사로 피신시키라고 한다. 손님네들은 김 장자를 혼내 주기로 작정하고 각시손님이 철현이 어머니로 변신하여 유점사로 가서 철현이를 부른다. 영문을 모르는 철현이는 각시손님을 어머니로만 알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철현이는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천연두에 걸려 고통으로 울부짖는다. 철현이가 거의 죽게 되자 김 장자는 어쩔 수 없이 손님네에게 건성으로나마 빌고, 이를 불쌍히 여긴 손님네는 철현이의 증세를 가볍게 해 준다. 그러나 아들이 약간 낫는 기미를 보이자 미련한 김 장자는 다시금 손님네를 모욕하고 이에 몹시 화가 난 손님네는 철현이를 죽게 만든다. 철현이는 죽어서 손님네의 마부가 되었다. 한양 이 정승댁을 찾아가 손님네는 그 집의 아들 삼 형제에게 손님을 시켜 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 다시 노구할머니를 찾아온다. 그 사이에 노구할머니는 손님네를 잘 대접해 준 덕분에 큰 부자가 되어 잘살고 있었고 반대로 철현이네 집은 거지가 되어 빌어먹고 살고 있었다. 철현이 어머니의 형상을 불쌍히 여긴 손님네가 그 재물들을 되찾아 주니 철현이 아버지도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되었으며 작은부인을 얻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변이 <손님굿무가>에는 서사적 줄거리를 가진 유형과 서사



손님굿무가 구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07.2.24, 김구한

적 줄거리 없이 노정기와 축원 중심으로 된 유형이 있다. 서울이나 서해안 지역에서 구연되는 <손님굿무가>는 셋김굿과 채수굿에서도 구연된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손님굿무가>는 서사적 줄거리가 없다. 시작 부분은 동해안 지역과 비슷하게 손님네 셋이 압록강에 당도하여 사공에게 배를 빌려 달라고 하는데 사공이 배를 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손님네는 그것 때문에 사공을 응징하지는 않는다. 갈등이 더는 확산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의 <손님굿무가>는 주로 마을굿인 별신굿에서 구연되고 완결된 서사적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이나 서해안 지역본과 다르다. 또한 동해안 지역본도 구연자에 따라 서사적 줄거리에 얼마간 차이가 있다. 『동해안무가』에 실린 변연호 구연본에서는 김 장자의 모욕에 화가 난 손님네들이 김 장자의 외아들 철웅이를 죽이지만 이 사실을 감지한 영순생이라는 건넛마을 사람이 재빨리 건너와 간절히 빌자 도로 살려 준다.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김 장자와 그의 아내는 손님네를 위해 성대한 손님굿을 하고 손님네도 이에 만족한다. 이처럼 <손님굿무가>는 분포 지역도 넓고 내용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손님굿무가>를 구연한 무녀로는 변연호, 이금옥, 김석출, 김복순(김영희), 신석남, 김동연, 송명희, 박용녀, 민순애가 있는데 모두 동해안세습무집

단에 속해 있다.

분석 <손님굿무가>는 원래 손님배송굿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무가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지금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거리의 끝에 손님네 말치레놀이라는 극 형식을 통해 천연두신을 떠나 보내는 의식의 흔적을 보여 준다. 또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마마배송굿이 있었고 그 곳에서 이 무가가 구연되었다고 증언하는 무당들이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무가가 왜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의의 <손님굿무가>에는 무속의 신관이 잘 드러나 있는데, 무속의 신관에는 선악의 개념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 무속신들은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존재일 필요가 없으며,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되고 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신으로 모셔지는 예가 많다. 그리고 위협이나 해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신으로 모셔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무속에서 감기를 관장하는 신을 위한 독립된 제차(祭次)는 없지만 천연두신을 위한 독립된 제차가 있었다는 것은 감기보다 천연두가 우리 삶에 더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동해안무가(최정여·서대석, 형설출판사, 1974), 동해안별신굿무가2(박경신, 국학자료원, 1993),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조선인쇄주식회사, 1937), 한국의 별신굿무가(박경신, 국학자료원, 1999).

참고문헌 손님굿무가의 유형과 전승(변성환,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유동식,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한국무속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필자 박경신(朴敬伸)

전설

손돌목

정의 음력 10월 20일을 전후해서 부는 바람과 추위를 손돌이라는 인물과 관련지어 설명한 설화.

줄거리 고려 때 뱃사공 손돌이 몽고군에 쫓겨 강화도로 피신하는 고려 왕을 모시게 되었다. 손돌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오인한 왕에 의해 참수를 당한다. 손돌은 바가지 하나를 물에 띄우고, 그 바가지를 따라갈 것을 간언한다. 죽은 손돌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손돌의 묘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곳이라 손돌목이라 부른다. 손돌이 죽은날이 음력 10월 20일이다. 이 날은 죽은 손돌의 원혼이 바람과 추위를 몰고 온다고 하여, ‘손돌바람’과 ‘손돌추



덕포진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03.11.13, 국립민속박물관



덕포진 안의 손돌묘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2003.11.13, 국립민속박물관

위'라고 한다.

분석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와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음력 10월 20일경에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孫突風)’ 추위를 ‘손돌추위’라고 하며, 손돌이 죽은 장소를 ‘손돌목(孫突項)’이라고 하였다. ‘손돌목’과 관련한 연구로는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손돌목의 유래를 살펴본 연구와 손돌전설을 풍신신앙(風神信仰)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전승하는 손돌전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성격을 파악한 연구 그리고 문헌과 구전자료를 토대로 <손돌목전설>에 내재된 민중의식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손돌목전설>에서 풍신의 성격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시기에 전하는 내용과 현지에 남아 있는 묘비 그리고 구전되는 설화를 볼 때, 손돌목은 손돌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유래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특징 손돌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인 전란은 ‘고려, 임진왜란, 일본전쟁, 전란’ 들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다. 설화 전승 집단에게 있어 손돌목에 등장하는 전란은 역사의 혼란기인 이

느 시기쯤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전승과정에서 많은 변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설의 증거물로 제시되었던 손돌추위와 손돌바람도 기상 이변과 주택, 피복 같은 제반 여건이 과거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향상된 관계로 증거의 활용도는 약화될 것이다. 이에 비해 손돌목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바가지를 이용해 손돌목을 빠져나가는 형태의 이야기 위주로 전승될 것이다. 김포군에서 김포의 3대 일로 손돌공의 충성심을 선정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 설화는 손돌의 충정을 돋보이게 하는 경향의 설화로 심화될 것이다.

출처 기전문화연구15(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86), 조선민간전설집(최상수, 통문관, 1958),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120.

참고문헌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김포지방의 전설(이현복, 기전문화연구15집,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86), 동북아의 중심지 인천의 역사와 문화(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3), 손돌목전설의 분석과 현장(이영수, 비교민속학 13, 비교민속학회, 1996), 손돌전설의 변이유형 연구(설성경, 설화, 교문사, 1989), 손돌항에 대하여(박광성, 기전문화연구9,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1978), 한국설화연구(이영수, 한국학술정보, 2008).

필자 이영수(李瑛洙)

민담

손순매아

孫順埋兒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전설

송광사

松廣寺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에 얽힌 설화.

역사 『송광사지(松廣寺誌)』에 따르면, 신라 말기 헤린대사가 송광산(松廣山) 길상사(吉祥寺)를 창건했고, 고려 중기 고승 보조국사가 이를 중창하면서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寺)와 송광사로 개칭되었다. 이런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에 얽힌 불교설화가 현재 전해진다.

줄거리 신라 말기 헤린대사가 제자들과 깊은 산속에서 수도하던 중이었다. 제자들이 괴질에 걸려 괴로워하자 헤린대사



송광사 보조국사비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명리, 문화재청

는 부처님의 구원을 빌다가 문수보살 석상을 발견하였다. 그 앞에서 칠일기도를 한 마지막 날, 꿈에 석가여래가 나타나 헤린대사에게 새 절터를 찾아 절을 세우고 중생을 구제하라고 하였다. 대사가 깨어 보니 제자들은 모두 병이 나아 있었다. 대사가 다시 문수보살 석상 앞에서 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노승이 나타나 석가모니의 불보(佛寶)를 전해 주며 송광산에 절을 지어 불법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에 헤린대사 일행은 송광산으로 가서 절을 창건했다. 송광사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는 보조국사가 이적을 보인 일화이다. 보조국사가 절을 세우려 할 때, 그곳에 수천 명이나 되는 도둑 무리가 있어서 무리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 가라고 했으나 거부하



송광사 보조국사 감토탑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명리, 문화재청

였다. 그러자 국사가 신력으로 나뭇잎을 수천 마리 범으로 변하게 하여 도둑들을 항복시켰다. 한편, 국사는 도둑 무리가 머물 곳을 정해 주었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국사가 육환장으로 땅을 뚫어 샘물이 솟도록 하였다. 또 보조국사가 도둑들을 쫓아내려 할 때 그들이 국사의 신통력을 시험하려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공양하였는데, 국사가 이를 받아 삼켰다. 도둑들이 국사의 파계 행위를 비난하며 해하려 하자, 국사가 물가로 가서 물고기들을 모두 산 채로 뱉어냈다. 그것이 지금의 송광사 능허교 아래에서 노니는 물고기 떼의 원조라고 한다.

분석 이 설화는 송광사의 창건과 중창에 얽힌 내력이 중심 내용이다. 헤린대사는 기도의 효험으로 석가여래의 계시를 받아 절을 창건했고, 보조국사는 절터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보여 준다. 보조국사가 절터에서 쫓아낸 도둑 무리는 반대 종파 또는 대립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설화는 송광사가 고승들의 신이한 행적으로 세워진 절로, 송광사가 불연(佛緣)이 깊은 성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징 이 설화는 사실성보다 사찰의 신성성과 영험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불교설화의 특성상 전승자들은 승려 또는 신도 집단이거나 불교에 우호적이므로, 이 설화에는 고승들의 신이한 행적의 결과로 세워진 사찰에 신성함을 부여하려는 목적성이 적극 반영되어 있다.

의의 우리나라 삼보(三寶)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한 송광사의 연기설화이며, 종교적 성소로서 사찰의 권위를 상징하는 불교설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처 송광사지(림석진, 1965), 순천시의 문화유적(순천시·순천대학교박물관, 순천시, 20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참고문헌 한국 불교설화의 양상(최래옥, 한국문화연구3,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한국 불교설화의 형성과 전승원리(김용덕·윤석산, 한양어문연구4, 한양대학교 한양어문연구회, 1986).

필자 김월덕(金月德)

신화

송당분향당본풀이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분향당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



송당분향당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조선영

줄거리 백조할망이 강남천자국 세모래밭 또는 서울 남산의 송악에서 솟아난다.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무슨 일을 계기로 그곳에 거처할 수가 없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백조할망이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와서 사냥바치 노릇을 하는 소로소천국과 혼인한다. 백조할망은 육지부에서 곡종과 농경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갖고 제주도로 온다. 그래서 사냥바치 노릇을 하고 다니던 남편 소로소천국에게 밭 가는 일을 전수한다. 하루는 소로소천국이 밭을 갈다가 배가 고파서 일을 시키던 소를 잡아먹는다. 이에 백조할망과 소천국은 식성 갈등으로 갈라선다. 그러나 둘 사이에 생겨난 말썽 아들이 태어나고, 부모에게 불효해서 쫓겨난다. 상자에 담겨 버려진 아이가 용왕 황제국의 사위가 되어 황제국의 말썽 딸과 혼인한다. 말썽 아들이 강남천자국에 가서 세번난을 막고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말썽 아들이 돌아와서 부모가 있던 곳을 차지하고, 형제간의 좌정처를 정한다. 송당에서 여러 제주도의 형제들이 갈라지고, 손지방성이 크게 번성하면서 제주도의 당신 본향으로 좌정하게 된다.

분석 〈송당분향당본풀이〉는 영웅서사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제주도의 분향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당신의 주된 시조신 노릇을 하는 본풀이이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송당은 제주도 분향당의 원향당으로 취급된다. 중산간에 모셔져 있으면서 여러 당의 근거를 이룬다.

이 본풀이에는 영웅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하는 영웅서사의 흔적이 강렬하게 투영되었다. 한 세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영웅의 생애담이 본풀이의 핵심적 구실을 한다. 1대담은 토박이신과 떠돌이신이 결합하는 이야기로, 문화적으로 원시시대의 두 가지 양상이 모두 보이는데 미식과 육식의 흔적이 신의 성격으로 결합되어 있다. 2대담은 소천국 말썽 아들의 영웅적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웅이 전대나 상자에 버려졌다가 용왕 황제국에 들어간다. 그곳에

서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고 혼인한다. 둘이 용왕국을 위태롭게 해서 용왕국에서 쫓겨나 강남천자국의 세번난을 물리치러 간다. 그곳에서 적대자를 물리친 뒤에 함께 자신의 출생지로 되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물리치고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영웅서사시이고, 영웅신화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 본풀이는 1대담과 2대담이 연결되어 있으며, 각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1대담은 외지의 여자와 제주도의 남성이 혼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점에서 〈삼성신화〉의 혼인담과 서로 상통한다. 외지에서 온 여성이 오곡의 곡종을 가지고 옷을 잘 입고 온 것은 문화적 선두주자임을 상징하고, 활로 고기를 잡아먹는 수렵은 남성의 상징이다. 서로 이질적인 상징이 만나서 결합하는 면모를 1대담으로 구현하고 있다.

2대담은 그러한 부모와 갈등을 겪는 남성 주인공을 핵심으로 한다. 바다에 버려진 존재가 용왕국에 가서 혼인하고 다시 큰 곳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2대가 돌아와서 새로운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신앙의 대상으로 모셔지는 것이 이야기의 요체이다. 2대담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부자갈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남녀 갈등과 식성 갈등에서 부자갈등으로 이야기가 이동한다.

영웅의 투쟁 방향에서 중요한 것이 이 본풀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러 면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말썽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태어난 강남천자국에 가서 그곳에서 어머니의 탄생처에 생긴 변고를 막고,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를 물리치는 일을 벌인다. 이 〈송당분향당본풀이〉에서는 그 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각편에서는 선명하게 보인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신화나 서사시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갈등이다. 고대적 사고방식과 중세적 사고방식 탓에 둘의 관계는 심각한 양상을 띤다. 곧 아버지의 판도를 차지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판도를 물려받는가 하는 양상에 따라서 본풀이와 신화의 내용이 달라진다. 탁월한 능력을 지닌 아들을 죽이려고 바다에 버리는 일을 감행한 아버지는 징벌받아 마땅하다는 정치 철학 혹은 역사의식이 이러한 면에 들어 있는 셈이다. 아들이 자신의 영웅적 위업을 달성한 뒤에 마침내 출생처로 되돌아와서 판도를 일구겠다고 하는 것은 중세적 가치관과 다른 고대의 역사의식이자 가치관이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판도를 잇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중세적인 가치관이거나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것과는 다른 후대적 방식일 수 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는가 순종하는가 하는 점은 영웅서사시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양상이다. 고대 가치관과 중세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은 시대의 관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근본적 사고가 가지는 특징을 단

순한 계승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반영으로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고대의 가치관은 힘이 센 군사 귀족 영웅을 높이 사는 시대이다. 그러나 중세의 가치관은 힘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지만, 이와 달리 인간 중심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남다른 시대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의의 영웅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뜻을 이루고, 부족의 추장이 되거나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야기는 세계에서 널리 확인된다. 시련이 슬기롭게 극복되고 집단의 숭앙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매우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령 아프리카의 〈므윈도서사시(Mwindo Epic)〉, 〈리옹고서사시(Utendi wa Lion)〉와 같은 데서 같은 발상을 지닌 서사시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므윈도서사시〉는 내용이 비슷하다. 이 구비서사시는 자이레 또는 콩고 동부 지역 니양가라는 부족에 의해서 전승되는데, 제주도의 본풀이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주인공 므윈도의 아버지는 임금이었다. 므윈도가 태어나자 아버지가 미워하여 북에다 넣어서 강에다 버렸다. 아이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죽지 않고, 물뱀의 나라에 이르러서 구출되고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도망쳤다. 땅속 나라까지 도망간 아버지를 추적해서 마침내 나라를 절반으로 잘라 중심부를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고, 키가 작은 피그미를 삼킨 용을 퇴치하고,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 내려왔다. 그러고는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이 서사시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영웅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판도를 차지하고 추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송당분향당본풀이〉와 비슷하다. 특히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대목이 명확하게 일치한다. 되돌아와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신의 판도를 구축한다는 결과 역시 일치한다.

출처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조동일, 문학과지성사, 199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朝鮮巫俗の研究(赤松智城·秋葉隆, 大阪屋號書店, 1937).

참고문헌 제주도 김녕 궤네깃당본풀이연구(김현선, 미간행, 2009), 韓國の民間信仰(장주근, 동경:금화사, 1973), Hero and Chief: Epic Literature from the Banyanga(Zaire Republic)(Daniel Biebuyc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The Mwindo epic from the Banyanga Congo Republic(Daniel Biebuyc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필자 김현선(金憲宣)

송동지영감본풀이

광창애기본풀이

송시열

宋時烈

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 관한 인물전설

역사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우리나라 당쟁사의 중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당시의 역사의식과 민중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송시열설화>는 문헌·구비에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문헌설화는 『계서야담(溪西野談)』, 『매옹한록(梅翁閑錄)』, 『동괘낙송(東稗洛誦)』, 『기문총화(記聞叢話)』, 『금계필담(錦溪筆談)』, 『청야담수(靑野談藪)』 등에 전승되고 있다. 구비설화에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고른 일화를 다루고 있다.

줄거리 (송시열설화)는 ‘출생-성장-결혼-입신-사망’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옥천의 집동강과 서대산이 입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 뒤 송시열을 낳을 때 옥천강물이 사흘을 말랐다고 한다. 송시열이 외가에서 자랐는데 많은 구박을 받았으며 소년시절에 축지법을 익혔고 귀신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장모가 가난하다고 하여 사주를 돌려주려 하자 장인한테 편지를 써서 그가 장차 명인이 될 큰 인물임을 깨닫게 해 혼인을 하었다고 한다. 송시열은 섬광을 뿜는 호안을 가지고 있어 밤에 책을 읽을 때 등잔불을 켜지 않고도 책을 읽었다고 한다. 봉림대군이 송시열이 이인임을 알고 효종으로 즉위한 뒤에 크게 중용했다. 한편, 송시열과 미수 허목이 사이가 나빴다고 한다. 송시열과 허목 사이의 약방문을 둘러싼 이야기가 유명인데, 송시열이 병이 나서 백방으로 약을 썼으나 무효라 아들을 불러 미수 선생에게 가서 약을 지어오라고 하였다. 아들이 생각하니 서로 원수지간이라 약을 제대로 지어줄지가 의문이었다. 그래도 아버지의 명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찾아가 미수에게 이야기하니 약 방문을 알려주었는데 “비상 서 돈쫘를 먹고 등줄기를 세계 치라.” 라고 하였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미수의 약방문을 의심하여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상 두 돈쫘를 자시게 하고 등을 치라고 하였다. 그 처방대로 하였더니 병이 좀 나

았다. 허목의 처방대로 세 돈쫘를 먹으면 병이 다 나았을 텐데 약을 약하게 써서 오래 살지를 못했다고 한다.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 죽을 때 보통사람은 한 사발만 먹어도 죽는데 세 사발을 먹고서야 죽었다고 한다.

변이 문헌설화에는 송시열의 어머니가 명월주를 삼키는 태몽을 꾸었고, 태어날 때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공자(孔子) 꿈을 꾸었다고 한다. 최후담으로 송시열에게 사약을 두 번씩이나 내려도 죽지 않아 정적들이 바다에 가라앉히자 죽었다고 한다.

분석 문헌설화에서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구비설화에서는 신이한 태몽은 물론이고 비범성과 이인적인 면모 등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징 충청도 지역에서 채록된 설화에는 송시열의 비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기타 지역에서 채록된 경우에는 대결 구도 등에 대한 설화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역사적 실존 인물이 전승집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 한 예이다.

출처 溪西野談, 記聞叢話, 東稗洛誦, 梅翁閑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67; 2-4 439; 3-2, 712; 4-1, 419; 5-5, 576.

참고문헌 우암 송시열 전설고(김영진, 인문과학논집3,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우암 송시열전설의 의미(이주영, 호서문화논총17, 서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2003).

필자 한중구(韓宗求)

송익필

宋翼弼

정의 송익필(宋翼弼, 1534~1599)과 이이의 교유(交遊)를 소재로 한 전설.

역사 서열(庶孽) 신분으로 ‘서인(西人)의 모주(謀主)’로 일컬어졌던 구봉(龜峰) 송익필의 일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송익필은 특히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와 교유가 깊었다. 1584년 이이가 죽자, 동인 세력의 공격이 송익필에게 집중되기도 했다. 실제 송익필은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死)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전설에서는 주

로 이이와의 교유 양상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이야기는 계서(溪西) 이희평(李義平, 1772~1839)이 편찬한 『계서잡록(溪西雜錄)』 등 다양한 야담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줄거리 서열 신분인 송익필은 율곡 이이와 아무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낸다. 더구나 율곡을 가르치려고도 한다. 이런 모습에 불만을 품은 율곡의 동생은 몇 번이나 율곡에게 주의를 주지만, 율곡은 이를 무시한다. 오히려 동생에게 송익필을 직접 만나면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한다. 이후 송익필이 율곡을 찾아오는데, 마침 율곡은 출타하고 그의 동생만 있었다. 송익필에게 무안을 주려고 버리고 있던 율곡의 동생은 도리어 송익필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 송익필이 위대한 인물임을 안 것이다.

변이 변이의 폭은 크지 않다. 율곡의 동생이 무안을 주려고 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에 약간씩 변화가 있을 뿐이다. 이야기에 따라서는 율곡이 동생이 아닌 다른 인물, 예컨대 율곡의 동료라든가 문하생 이귀(李貴)로 나오는 예도 있다. 다만 이야기 후미가 약간씩 변화를 보인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예컨대 송익필의 대답이 변변치 못한데도 율곡의 동생이 깊이 감화를 받았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는 당과 간 이해관계에 따라 송익필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당과의 중심에 놓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인물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중시하는 역사와 달리 이야기는 향유자의 주관적 평가를 위주로 한다. 송익필에 대한 평가도 그러하다. 이 점에서 인물전설의 가치가 있다.

의의 이 이야기 유형은 특정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특히 당과의 중심에 놓였던 인물에 대한 후대인들의 평가를 역사와 문학 두 경계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처 溪西雜錄,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173.

참고문헌 구봉 송익필(이종호, 일지사, 1999), 인물전설의 의미와 기능(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필자 김준형(金俊亨)

송징장군당신화

宋徵將軍堂神話

정의 전라남도 완도군 지역 마을제당에 좌정하고 있는 당신(堂神)과 관련된 신화.

역사 전남 진도를 거점으로 한 삼별초는 먼저 전라도를 제압했는데, 해안 지역은 물론이고 전주와 나주 등의 내륙 지역도 삼별초의 공격을 받았다. 그로 인해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가 삼별초의 군사적 영향권 아래 들게 되면서 이들 지역의 조운(漕運)이 막혀 공부(貢賦)의 수송선이 차단되었다. 송징(宋徵) 장군은 진도에 웅거하던 삼별초가 1270년(원종 11) 완도에 주둔했을 때 해로와 해안 지역의 삼별초군을 지휘한 장수인데, 계속된 흉년과 내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섬 주민들을 위무하고 구출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강진현(康津縣) 사묘(祠廟) 조에 의하면, “현의 남쪽 칠장리에 호국신사(護國神祠)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시는 신은 송징이라 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송징 장군이 신격화되어 지역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29년에 간행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寶輿勝覽)』에 의하면, “장도(將島)에 단(壇)이 있는데, 그곳에서 모시고 있는 신은 고려시대의 송징 장군이다. 송징은 청해에 살면서 장도에서 무술을 닦았는데, 지략과 무용을 겸비했다고 한다. 그래서 송징이 죽은 뒤에도 그 영험함이 현저하여 주민들이 추모하기 위해 단을 갖추어 제사를 지냈다.”라고



송징장군당
전남 완도군 완도를 정좌리, 국립민속박물관



송정장군당
전남 완도군 완도를 정좌리, 국립민속박물관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이 훗날 전승되면서 마을신앙의 신격으로 좌정하게 되었는데, 송정 장군의 영험함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송정이 신격으로 받아들여 모셔진 곳은 완도 지역의 중도리, 화개리, 대구미, 부흥리, 대신리, 대야리, 고마리, 사후리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완도읍 장좌리 당제에서만 송정 장군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줄거리 〈송정장군당신화〉로 완도군 일대에 전승되는 이야기와 완도읍 정도리와 장좌리에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들 지역에 전승되는 구술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옛날에 엄 장군과 송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결국 엄 장군은 갈을리 위 엄속골이라는 곳에 살고 송 장군은 장도라는 섬에 살았는데, 원래 엄 장군은 송 장군의 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엄 장군이 송 장군을 배신하여 죽이려 하자, 송 장군은 까투리가 되어 신지면 솔섬 옆에 위치한 '까뜨린여'라는 곳으로 날아가 머물러 있었으나 결국 엄 장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둘째, 옛날부터 전해오는 수호신이 있는데, 원래 장좌리는 장보고 장군이고, 이곳 정도리는 송대 장군이라고 한다. 송대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로는 송대 장군의 목이라는 '송대 목바위'와 그 바위 옆에 '장군샘'이라는 지명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는 송대 장군이 탄 말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도 있었다고 한다. 정도리에는 장보고 장군 이야기는 없고, 송대 장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셋째, 송정 장군이 용력이 뛰어나 손쓸 방도가 없자 나라에서 송정을 죽이는 사람에게 벼슬을 준다는 방을 내걸었다. 그러자 벼슬이 탐이 난 송정의 딸이 자기 남편한테 아버지를 죽이자고 하였다. 남편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자 딸이 혼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장좌리로 갔다. 송정 장군이 딸에게 왜 왔냐고 묻자, 딸은 가

볼 데가 있다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암뽕인 까투리가 머물던 섬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까뜨린여'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앉아 있다가 송정 장군이 평으로 변하자 딸은 매로 변하여 평을 쳐서 바다에 떨어뜨려 송정 장군을 죽였다. 그래서 송정 장군은 정도리에 있는 '송단여'라는 곳으로 떠내려갔다고 한다. 장좌리에서는 원래 장도섬에 있는 당에다 송정 장군을 모시고 있다. 넷째, 삼별초난 때 완도에 들어온 송정 장군은 장도 근방에 토성을 쌓은 뒤 그곳을 본거지로 삼았다. 이후 세미선을 털어 사람들을 구휼하면서 마을의 안정을 이루고 선정을 베풀었다. 그래서 장좌리 마을 사람들은 그 공을 잊지 못하여 송정 장군을 마을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분석 구술 자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엄 장군, 송 장군, 장보고 장군, 송대 장군, 송정 장군, 그리고 송정 장군의 딸과 사위 등이다. 여기서 송 장군, 송대 장군, 송정 장군은 필시 동일 인물일 것으로 파악된다. 송 장군이나 송정 장군이 까투리가 되었다는 동일한 화소를 가지고 있는 점이 그러하고, 장좌리에서 죽은 송정 장군이 정도리로 떠내려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정도리 지명전설의 송대 장군은 송정 장군을 일컫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완도의 대표적인 신화적 인물이 송정 장군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송정 장군의 존재를 두고 완도 지역 일대의 구술집단 사이에서는 장보고의 별칭으로 불리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조금 더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래 장보고 장군과 송정 장군은 별개의 신격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 가치 지향에 따라 공동체신앙의 신격으로 배향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래 장좌리 당제의 제당에는 송정 장군, 정연 장군, 헤일 대사 세 분의 신격을 모셨으나, 1982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장보고 장군을 추가로 배향하면서 네 분의 신격을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송정 장군과 장보고 장군은 어떻게 해서 제당에 모시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정연 장군과 헤일 대사는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그 연유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정연 장군은 장보고의 뒤를 이어 청해진을 지켰고, 헤일 대사는 그의 조카 이영(李穎)이 완도읍 장좌리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할 때 완도에 들어와 활동한 것으로 『신중동국여지승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고려시대의 인물인 송정 장군을 배향하면서 신라시대의 청해진과 관계된 정연 장군과 불교계 인물인 헤일 대사를 소급하여 배향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 정연 장군과 헤일 대사를 먼저 배향하고 고려시대에 송정 장군을 배향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완도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역 주민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자의 경우가 더욱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특징 〈송정장군당신화〉는 다른 당신화와는 달리 살아생전에 지역사회에 선정을 베푼 역사적 인물의 사후에도 그 유혼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 마을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의의 〈송정장군당신화〉는 마을신앙의 신격 가운데 역사적 인물신이 어떻게 마을신으로 좌정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신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완도 지역 마을신앙의 성격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출처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輿勝覽, 구비전승자료(문화재연구소, 개문사, 1987), 완도군의 문화유적(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완도군,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완도군지(완도군지편찬위원회, 1992).

참고문헌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표인주, 집문당, 1996), 정보고 신연구(완도군문화원, 샘물, 2000), 전남의 민속연구(나경수, 민속원, 1994).

필자 표인주(表仁柱)

전설

수로부인

水路夫人

정의 신라시대의 인물인 수로부인과 관련한 설화.

역사 수로부인(水路夫人)과 관련한 설화는 『삼국유사(三國遺事)』 수로부인 조에 전하며, 8세기 초의 향가인 〈헌화가(獻花歌)〉와 〈해가(海歌)〉의 형성 배경을 설명해 주는 배경 설화의 역할을 한다.

줄거리 성덕왕(聖德王, 재위 702~737) 때 순정공(純貞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길에 부인인 수로부인이 천 길이나 되는 높은 벼랑 위에 핀 철쭉꽃을 갖고 싶어 했다. 모든 사람이 난색을 표하였으나, 소를 몰고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 주면서 수로부인에게 〈헌화가〉를 지어 바쳤다. 또한 수로부인이 임해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용이 나타나 수로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갔다. 그때 한 노옹이 순정공에게 “근처 백성을 모아 노래 부르게 하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수로부인이 나왔다.

분석 〈헌화가〉와 〈해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해 주는 설화이다. 수로부인 주변의 인물들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이 설화를 제의 현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 다. 이 설화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부

여하고 있는데, 보통 세 가지 시각이 있다. 첫째는 제의(祭儀)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보는 관점, 둘째로는 성(性)에 대한 여러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해석하는 관점, 마지막으로 실존 인물로 보고 정치적 해석을 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특징 〈수로부인설화〉는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헌화가〉와 관련하여 벼랑에 핀 철쭉을 꺾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해가〉와 관련해서 바다의 용이 수로부인을 바다 속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다. 이 개별적인 사건들은 이야기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제의 현장의 모습을 연속하여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을 지닌다.

의의 고대 제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곧, 합리적 사유와 주술 관념의 병존이라는 이중적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 전통 주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출처 三國遺事.

참고문헌 삼국유사 수로부인조와 헌화가의 의미 재론(황병익, 한국사학연구22, 한국사학회, 2007), 수로부인설화의 의미(이동철, 한민족문화연구18, 한민족문화학회, 2006), 수로부인설화의 현장론적 연구(이창식, 동악어문논집25, 동악어문학회, 1990).

필자 이창식(李昌植)

용어

수부지모

水父地母

정의 시조의 신성한 혈통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신화의 구조와 체계를 설명하려는 서사모형.

내용 수부지모(水父地母)는 서대석이 백제 신화의 흔적을 탐색하면서 야래자설화(夜來者說話)의 신화적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붙인 용어이다. 야래자가 주로 지렁이, 뱀 등과 같은 수신적(水神的)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설화를 '수부지모형(水父地母型) 신화'로 파악하고 있다. 이 유형의 신화는 “수신적 성격의 아버지[水父]와 지신적 성격의 어머니[地母]의 신성한 혼인으로 탄생한 2세가 건국시조가 된다.”라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야래자설화는 농업을 주요 생업수단으로 했던 집단에서 농작물의 풍요한 결실을 기원하는 의식으로서 지신과 수신의 결합을 의인화(擬人化)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야지

(野地) 농업이 발달했던 백제 지역에서 생산신 신화로 전승된 것이다. 이 설화를 전승하던 집단은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 신화의 경우와 달리 수신신앙이 강했던 부족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시각은 전승집단의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의식에 의하여 신화의 성격이 다르게 수용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필자 이지영(李志映)

신화

수성당신화

水聖堂神話

정의 여덟 딸을 낳아 칠산바다를 관리했다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죽막동 수성당(水聖堂)의 개양할미에 관한 설화.

역사 부안군 죽막동에서 백제의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계, 왜계, 중국계 유물이 출토되어 원삼국시대 동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던 사람들의 항구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같은 공간에 있는 수성당 거인여신에 관한 <개양할미설화>도 비슷한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道光 三拾年 庚戌 四月二十八日 午時 二次上樑이라는 수성당의 상량문으로 보아 적어도 1804년 이전부터 현재의 당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칠산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부안군 죽막동에 개양할미가 살았다. 개양할미는 수성당 옆 여울골에서 나와서 서해를 열고 딸 여덟을 낳았다. 딸 여덟 중 일곱을 칠산바다에 보내서 일곱 섬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막내딸과 함께 죽막동 여울골을 지켰다. 일곱 딸과 함께 수심을 재거나 풍랑을 다스렸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부들이 항상 풍어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거인신이기 때문에 나막신으로 칠산바다를 걸어 다녀도 벼신이 젖지 않았다. 이러한 수호적 성격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개양할미를 수성(水聖)이라 불렀으며, 여울골 절벽 위에 수성당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냈다. 개양할미와 딸 여덟을 모신 곳이라 하여 수성당을 구량사(九娘祠)라고도 부른다.

변이 구전에 따라서는 개양할미가 딸 여덟을 팔도로 시집 보냈다고도 하고 여울골로 일곱 딸을 데리고 들어 왔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철마 관련 설화가 전해오는데 내용은 이러하

다. 죽막동 대막골에 마음씨 착한 형제가 맹인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형이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아우가 형을 찾겠다고 나갔으나 역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들 형제를 찾아 나선 맹인 어머니는 여울골(당굴)의 메아리를 형제의 소리로 착각하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다가 발을 헛디더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후 형제가 무사히 돌아왔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웬 도인이 나타나 황금부채를 주면서 “어머니는 좋은 곳에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고장과 나라를 구하라.”라고 당부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형제는 도인이 아마도 어머니의 현신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때부터 황금부채를 가지고 서해를 관광하였다. 때마침 여울골에서는 형제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철마가 나왔다. 형제는 이 철마를 타고 황금부채를 부치며 칠산바다와 서해를 날아다녔다. 왜구가 침입하면 황금부채를 부쳐 풍랑이 일게 하여 물리치기도 하고, 바람을 조절하여 어부들이 만선하도록 하였다. 이후 형제는 이 도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수성당을 지어 제사지냈는데 이것이 수성당이 생긴 유래이다.

분석 수성당의 <개양할미설화>는 거인여신설화에 속한다. 개양할미라는 이름은 바다를 연다(開洋)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개양할미가 ‘여울골’에서 나와 서해를 열었다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칠산바다를 발도 적시지 않고 걸어 다니는 거인여신이라는 점이나 칠산바다와 서해의 파도와 풍어를 관광한다는 전지전능의 측면이 마고신격과 유사하다. 거인여신인 마고의 이름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지리산에서는 마고, 삼척에서는 서구할미라고 하며, 제주도에서는 설문 혹은 선문대할망이라고 한다. 장한철의 『표해록(漂海錄)』을 보면, 사람들이 한라산을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선마고(詵麻姑)로 표현한다. 죽막동 인근에 있는 고창의 고인돌은 거북바위, 칠성바위, 마고할미바위라고 불린다. 미륵신앙을 표상한다고 알려진 전라남도 화순군 운주사도 도선국사 외에 마고할미가 세웠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마고할미신화>는 성경의 창세기처럼 천지창조신화와 민족기원신화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신화>나 지리산, 강원도의 마고 관련 설화들도 천지창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개양할미도 당굴에서 스스로 나와 여덟 딸을 두었고, 서해를 열어 물길과 바람을 관광했다는 점에서 천지창조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서해를 관광하는 개양할미가 좌정한 변산반도가 삼신산의 하나라는 맥락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삼신산은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서복(徐市) 일행을 동해로 보낸 데서 비롯되었다. 애초 불로초가 있다고 믿었던 삼신산은 중국의 동

해 어딘가에 떠 있는 섬으로 나오지만, 지명전설로 보면 한반도 내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부안반도 사람들은 변산을 영주산으로, 금강산을 봉래산으로, 지리산을 방장산으로 여긴다. 또는 변산을 봉래산으로, 고부의 두승산을 영주산으로, 고창의 방장산을 방장산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 지역이 봉래구곡, 선녀탕, 신선대, 선계사, 선계안골, 쌍선봉, 선유도 등 관련 지명이 많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변이 설화인 <철마> 이야기는 거인여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심청설화>에 가깝다. 부안 사람들이 죽막동과 위도 사이에 있는 입수도 앞바다를 인당수라고 여긴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남 곡성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비롯해 충청남도 예산군, 경기도 화성시까지 인당수에 대한 이견과 주장들이 있지만, 죽막동이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나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어 보인다. 심청과 맹인 아버지의 관계가 형제와 맹인 어머니로 치환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청전>은 딸의 희생을 통하여 맹인 아버지가 눈을 뜨는 서사구조이지만, <수성당신화>에서는 모친이 직접 눈을 뜨지 않고 도인의 출현으로 대체된다. 심청은 용궁에서 나와 황후가 되어 나라의 맹인들까지 다 눈 뜨게 하는 이적을 행하지만, 죽막동 수성당의 형제는 철마를 타고 서해를 날아다니며 왜구를 무찌르는 이적을 행한다. 여울골에서 나온 철마는 두 형제만 탈 수 있는 신성한 말이라는 것과 형이 타고 나가 금부채로 풍랑을 일으켜 왜구를 물리치기도 하고 동생이 타고 나가 금부채로 부쳐 풍랑을 만난 어부들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적을 행한다는 점에서 심청과 닮았다. 부안 사람들은 애초 형제들이 없어진 것이 서해 어딘가 있다는 봉래도의 선인들에게서 도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으며, 황금부채를 준 도인이 바로 봉래산의 도인이었다고 말한다.

특징 <수성당신화>는 거인여신인 개양할미와 <심청설화>의 모티프와 이적을 행하는 형제 이야기로 구성된다. 특히 수성당이 있는 곳에서 고대 동양 삼국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와 항구 기능을 했던 곳이라고 밝혀져 역사와 설화가 상호 보완적인 맥락에서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거인설화>나 <심청설화>의 이본을 뛰어넘어 실제 역사 공간에서 국제항구 기능과 연관되어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출처 부안군지(전북향토문화연구소, 부안군청, 1991), 전남의 전설(김정호, 전라남도, 1987), 전남향토문화백과사전(전라남도, 태학사, 2002).

참고문헌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고고민속학적 고찰(표인주, 비교민속학15, 비교민속학회, 1998), 한국 서복전설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이윤선·함은선, 도서문화3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7), 해양문화의 프랙탈, 죽막동 수성당

포지서님(이윤선, 도서문화회3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7), 漂海錄(張漢喆著·宋昌彬譯, 新幹社, 1990).

필자 이윤선(李允先)

민담

수수께끼 푼 아이

정의 중국에서 낸 어려운 수수께끼를 아무도 풀지 못하자 지혜로운 아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설화.

줄거리 중국에서 조선에도 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으로 그리면 동그랗고, 글자로 쓰면 모가 나며, 용이 되면 짧고 호랑이가 되면 긴 것은 무엇일까?’라는 수수께끼를 내서 보낸다. 조정의 대신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한 정승이 팔도를 돌아다니며 인재를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원님놀이 하는 아이가 재주가 있어 보여 중국에서 낸 수수께끼를 물어보았는데, 아이는 정답이 ‘해’라고 어렵지 않게 말한다. 그 이유는 해를 그리면 동그랗고, 글자로 쓰면 모가 나며, 봄에는 인방(寅方)에서 떠서 진방(辰方)으로 가니까 길고, 가을에는 진방에서 떠서 인방으로 가니까 짧으므로 용단호장(龍短虎長)이라 해석한 것이다. 정승이 답을 중국에 보내자, 중국에서는 조선이 나라가 작아도 인제가 많다고 인정하게 된다.

김복선이라는 아이의 부친이 신평 이씨의 노예였다. 이 아이의 모친이 미인이라 주인이 동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자 주인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송아지 낳는 황소(수소)를 구하라.”라고 요구하고, 못하면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어린 김복선이 주인을 찾아가 “우리 아버지가 아이를 출산했다.”라고 하며, 그래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했다. 주인이 남자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느냐고 묻자, 김복선은 어떻게 황소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주인은 김복선의 기지에 감탄해 단념했다.

변이 첫 번째 설화는 다음과 같은 변이형이 있다. 대국에서 조선에 인제가 많음을 시기하여 문제를 낸다. 문제는 ‘대국의 암탕나귀를 조선에 있는 수탕나귀로 임신하게 하라.’라는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님놀이 하던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며 몽둥이 든 장병 서른 명을 뽑아 대국에 들어간다. 그러고는 보이는 모든 개를 몽둥이로 패기 시작해 조정에 잡혀 들어간다. 왜 개들을 죽였느냐고 하자, 아이는 개는 도둑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대국의 개들이 조선의 도둑을 지키지 않아 조선에 도둑이 많아졌다고 답한다. 대국에서 여기 개가 어찌 조선의 도둑을 지키느냐고 하자, 조선에 있는

人

수수께끼 푼 아이

人

수성당신화

수당나귀가 어떻게 여기의 암당나귀를 임신시키느냐고 반문해 상황을 해결한다.

두 번째 설화의 변이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매우 포악한 전주 관찰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세금을 못 내 곤장을 맞고 집에 돌아갔다. 일곱 살 먹은 아들이 자신이 대신 관아에 가겠다고 하고 관아로 들어가 아버지가 중병에 들어 대신 왔다고 한다. 때는 겨울인데 관찰사는 딸기 세 개를 구해 오라고 요구한다. 아이는 후에 빈손으로 찾아가 독사에 물려 딸기를 못 따다고 하자, 관찰사는 동지선달에 무슨 뱀이냐고 호통을 친다. 그러자 겨울에 딸기는 있겠냐고 아이가 맞받아친다. 관찰사는 아이의 지혜에 감탄해 죄를 면해 주고 자기 밑에서 공부시킨다.

분석 수수께끼 이야기는 풀이 과정이 이야기의 주 내용이다. 위에서 거론된 이본을 대상으로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문제-해결’의 일방형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문제의 쌍방향 이야기이다. 문제를 푸는 일방형은 일반적인 문답 과정에서 아이의 지혜가 드러나지만, 쌍방향에서는 색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즉, 불가해한 문제에 불가해한 문제로 대응함으로써 원래 문제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형식을 취한다. 아이는 부당함에 부당함으로 응대함으로써 문제를 중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모방 본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지혜형의 수수께끼답이 다수 분포된 것은 약자들의 유일한 탈출구로서 이런 이야기가 향유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계급 간 억압이 존재했던 사회에서 이야기에서만이라도 불만을 해소하고자 했던 민중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기제로 수수께끼가 적극 활용되었다.

의의 대국의 문제를 풀어내는 이야기에서 아이는 ‘대국 : 소국’, ‘국가 : 백성’, ‘어른 : 아이’라는 세 겹의 차이를 뛰어넘어 기발한 착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당함에 대한 부당함의 모방이라는 발상으로 위기 상황을 해결한다. 지식이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어른에 의해서 낯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수수께끼답이 적극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수수께끼답의 주인공은 낯선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이이다. 물론 이런 사회·문화적인 전도 현상을 적극 실현할 수 있는 기제로 수수께끼라는 양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수수께끼가 가진 놀이성이나 조작성이 전도의 방식을 취하는 이야기에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아이를 등장시킨 이런 이야기는 ‘새로운 시선을 통해 세계를 발견하고 확장시키는 문학적 본령’의 표현이기도 하다. 어른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린이가 해결함으로써 계몽 대상인 어린이

가 어른들의 사회적 위치를 전복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어른 세계가 지닌 불완전성에 대한 고백이자 무능함에 대한 폭로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162; 4-1, 418; 5-2, 584; 6-4, 250.

참고문헌 수수께끼담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김경섭,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수수께끼의 소통 구조연구(최경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수수께끼의 소통상황 연구(김미숙,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 수수께끼의 기능과 의미 연구(주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필자 김경섭(金鏡燮)

자료

수이전

殊異傳

정의 신라시대의 전기(傳奇)를 모아놓은 작자 및 연대 미상의 책

내용 『수이전(殊異傳)』은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으며 그 작자에 대해서는 신라 때 최치원이 지었다는 설, 고려 때 박인량이 지었다는 설, 고려 때 김척명이 지었다는 설 등이 있다. 근래에는 『수이전』이 단일한 저작물이 아니라 『고승전』 등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전(傳)들을 집합적으로 일컫는 유별전(類別傳)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신라시대 최치원에 의해 지어진 『신라수이전』이 고려시대 박인량이나 김척명 등에 의해 개작·보완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 『삼국유사(三國遺事)』, 『태평통재(太平通載)』, 『필원잡기(筆苑雜記)』,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등이 『수이전』에 실렸던 작품들을 인용하고 있다. <아도(阿道)>, <원광(圓光)>, <보양(寶壤)>, <호원(虎願)>, <연오랑세오녀(延烏郎細烏女)>, <보개(寶開)>, <탈해왕(脫解王)>, <선덕여왕(善德女王)>, <수삽석남(首插石柵)>, <죽통미녀(竹筒美女)>, <노옹화구(老翁化狗)>, <심화요담(心火繞塔)>, <최치원전(崔致遠傳)>, <법공(法空)>, <법운(法雲)>, <비허(備虛)> 등이 인용되었는데, <비허(備虛)>를 제외하고는 현재 그 내용이 전해진다. 그 외 더 많은 작품들이 『수이전』에 실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 이강옥(李康沃)

전설

수중명당

水中明堂

표제어 천자바위

신화

숙영랑앵연랑신가

淑英郎鶯蓮娘神歌

정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 병긩에서 구연하였던 숙영선비와 앵연각시에 관한 서사무가(敘事巫歌).

역사 함남 함흥군 운전면 궁서리에서 대무녀 김쌍돌이가 구송하였다. 그리고 1936년에 손진태가 평안북도 강계의 무격전명수에게 채록한 <제석님청배>가 있다. 한편, 1965년 월남한 무녀 강춘옥에게 입석재, 장주근이 채록한 『관북지역무가』에는 <혼쉬굿>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며, <황천혼시>와 <숙영랑앵연랑신가>를 묶어서 구송하고 있다.

줄거리 방년 열다섯 살의 숙영선비와 열네 살의 앵연각시 사이에 혼담이 오고 갔다. 주인 어머니와 주인 아버지에게 세 번 말을 붙여 반 허락이 나고 이쪽저쪽에 핀 꽃이 서로 고개를 숙여 참 허락이 났다. 숙영선비가 아랫녘 선생에게 가서 궁합을 물으니 임오계미(壬午癸未)는 양유목(楊柳木)이라 합궁이 좋다고 해서 날을 받았다. 납채(納采)와 기물(器物)이 풍족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런데 혼인하고 한 해, 두 해가 가고 나이 이십, 삼십을 지나 사십이 되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대감이 날이 좋아 구경을 나갔다가 강남 갔던 제비가 새끼들을 앞뒤로 세우고 밖으로 나오더니 3년 묵은 구쇠통에 새끼들을 얹혀 놓고 벌레를 물어다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대감은 마음이 처량해 집에 돌아와 그만 드러누웠다. 부인의 권유로 부부는 같이 경상도 아랫녘에 문복을 가서 궁합을 가리니, 적덕을 드리고 공덕을 드러야 자식을 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백미, 황초, 대추, 황지(黃紙)와 같은 예물을 갖추어 안애산 금상(金祥)절에 찾아가 석 달 열흘을 기도하고 한 아들을 얻었는데, 눈이 먼 판수 자식이었다. 부부는 아들 이름을 ‘거북’이라 짓고 유모를 두어 잘 길렀다. 아들이 세 살이 되고나서 둘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는 곱사등이에 앓은뱅이였다. 부모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남생’이라고 짓고 유모를 붙여 길렀다. 기물은 억십만재(億十萬

財)이나 부모는 화병이 들어 다 죽고, 자식들은 그 기물을 다 쓰고 가난뱅이가 되어 밥을 얻어먹고 다녔다. 밥을 얻으러 간 집에서 앞으로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형제는 대문 밖에 나와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자신들이 생긴 절을 찾아가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눈먼 형이 앓은뱅이 동생을 업고, 동생은 형의 막대기를 쥐고 둘이 서로 의지하여 절을 찾아갔다. 절 입구에 다다르니 생금(生金)이 떠다니고 있었다. 눈이 밝은 남생이가 생금을 건지자 하니, 형이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 이 금을 쓰겠느냐?”라며 그냥 가자고 했다. 부처님이 불목이에게 형제를 남간 초당에 들여 글공부를 시키고 하루에 흰밥을 세 끼 주라고 했다. 형제가 불목이에게 생금을 보았다고 알려 주어 삼천중이 나가서 보니 생금이 아니고 금 구렁이여서 형제를 두들겨 뺐다. 형제가 나가 보니 역시 금이어서 그 금을 안고 들어와 부처님 앞에 드렸다. 그러자 절이 춤을 추어 부처님과 절 안을 도감하였고, 부처님은 거북이의 눈을 뜨게 해 주고 남생이의 등과 다리도 펴 주었다. 형제는 조선으로 나와서 여든한 살까지 살다가 죽어 혼수성인이 되었다.

분석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朝鮮神歌遺篇)』 각주에 의하면 “숙영과 앵연은 소리를 취하여 한자로 나타낸 것으로, 조선 사람 고유의 이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또 “원어대로 표시하면 숙영선비 앵연소부(혹은 각시)이지만, 선비나 각시는 각각 소년(또는 청년)이나 소부(또는 소녀)의 보통 존칭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무가의 끝에 <어린애몸혼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 무가는 잉태를 못 하는 부부가 부처에게 치성을 드린 뒤 잉태하여 아들 형제를 두었고, 불구인 아이들이 부처에게 공양하여 병을 고쳤다는 내용으로 부처의 영험을 강조하고 있다. 함흥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채록되지 않은 자료이며, 무속 고유의 신화라기보다는 불교의 변문(變文)으로 형성된 설화가 무가로 이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건지는 못하지만 눈이 보이는 동생이 눈먼 형의 등에 업혀 형의 막대기로 탁탁 소리를 내며 길을 짚어주고, 그 소리에 따라 눈먼 형이 건지 못하는 동생을 업고 길을 간다. 어느 한 쪽이 부족해도 두 사람이 서로 도우면 앞길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눈먼 형은 세상을 보지는 못하지만, 생금을 건지지는 동생의 제안에 “우리 복에 저 금은 맞지 않는다.”라며 동생을 타이른다. 즉, 앞은 보지 못하나 선량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특징 병긩에서 불리는 무가라는 특징이 있다. 거북이와 남생이라는 이름도 장수와 치병의 능력을 암시한다. 함경도에서

혼수굿 혹은 횡수막이를 하거나 어린아이의 병을 고치고자 할 때 부르는 무가이다. 혼수굿에서 성인의 중병을 낫게 할 때는 저승사자를 대접해 인간의 정해진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의 〈황천혼시〉를 부르고, 어린아이의 병을 낫게 할 때는 〈속영랑앵연랑신가〉를 부른다. 〈제석님청배〉에는 제석님의 근본을 철령(鐵嶺) 땅의 높이라고 하면서, 오누이인 앓은뱅이 남생이와 장님 거북이가 철령 늪에서 금방석을 구해 부처님께 시주하여 병을 고치는 내용으로 나온다. 전체적으로 인물 설정과 내용은 같지만, 치병(治病)이 아닌 곡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서사무가 가운데 주인공 남녀가 한자어로 된 이름을 가지고 불구인 자손을 얻으며, 부처의 은혜로 병을 고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 신화 가운데서는 드물게 형제신이 등장한다.

출처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조선무격의 신가3(손진태, 청구학총23, 청구학회, 1936), 朝鮮神歌遺篇(孫晋泰, 東京 郷土研究社, 1930).

참고문헌 근대 여명기 우리 신화연구(권태효, 민속원, 2008),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한국신화(최원오, 여름언덕, 2004).

필자 김대숙(金大淑)

용어

순차구조

順次構造, syntagmatic structure

정의 사건의 진행 순서에 따라서 각 부분들을 구별할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성격과 관계에 따라 도출되는 구조.

내용 구조란 일반적으로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양태를 말한다. 즉,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개체로서 성립할 수 있으며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관계는 요소들의 배치와 체계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찾기 위한 시도로서, 프로프(V. Propp)에 의해 시작되어 던데스(A. Dundes)에 의해 계승된 것이 순차구조이다. 이 관점은 이야기를 전개 순서에 따라 부분들을 구별하고, 그 부분들의 근본적인 성격과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프로프는 러시아 민담 중 아파나시예프(A. N. Afanasiev)의 『러시아 민담집』에 수록된 신이담을 대상으로 31개의 기능과 7종의 인물형을 구별해 냈다. 던데스는 미국 인디언의 설화를 대상으로 6개의 진행단계(결핍-결핍해소-금지-위반-결과-회피시도)를 정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개별적인 설화는 위와 같이 파악된 요소

들의 조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은 귀납적이며 경험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 노영근(盧暎根)

민담

술 귀신 유래

정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다가 죽인 사람의 뉘이 술 귀신이 된다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망으로 약을 구하러 다녔다. 용한 의원에게 아버지의 병은 선비, 광대, 광인(狂人) 세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정말 아버지의 병이 나았다. 아들은 자신이 죽인 사람의 시신을 한 곳에 수습했는데 그 무덤에서 밀이 돌아났다. 이 밀로 빚은 것이 술이다. 술에는 죽은 세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어서, 한 잔 마시면 점잖고, 두 잔 마시면 흥이 올라 춤추고 노래하게 되며, 세 잔을 마치면 광기가 드러나게 되었다.

변이 처방을 내리는 의원이 토정, 명의 의적, 신령한 노인, 아버지의 친구로 변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이들은 아들에게 약을 구할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이는 윤리 관념의 충돌(사람을 죽이는 것과 효성) 때문이다. 의적은 중국 전설에서 처음 술을 빚은 인물로 되어 있는데, 화자가 이를 염두에 둔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아들이 죽이는 대상이 광인에서 개로 바뀌는 변이도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음주의 부작용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이다.

분석 아들은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의원들이 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면서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 사람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결국 이 설화는 생명존중의 윤리와 효라는 윤리의 대립 양상을 보이며 효가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그릇된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를 주는 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술의 기원이라는 화소이다. 아들이 죽은 이의 무덤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견한 밀과 이를 가공한 술은 마시는 사람의 몸에 죄 없이 희생된 사람을 호명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도록 경계한다.

특징 효행설화라는 관점에서 이 설화는 〈동자삼〉과 유사하다. 〈동자삼〉에서 이들은 자신의 아이나 송장의 다리를 고아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받고 시행하는데, 자신의 아이나 송장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동삼이었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그런 환상적 결말이 아닌 실제 살인을 저지르며 그 속죄의 차원에서 무덤을 돌보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술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살았을 때의 성품이 죽은 뒤에도 이어진다는 사생관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의의 이 설화는 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를 만한테 그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화에서 아들이 징치(懲治)되지 않는데 이것은 효라는 관념이 매우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뉘이 밀로, 다시 그 밀로 빚은 술로 전이되어 술을 마시는 이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한국인이 지니는 원령(怨靈), 원혼(冤魂)에 대한 의식의 소산이다. 또한 결말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술은 과하게 마시면 안 된다는 교훈성을 내포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665; 1-7, 465; 2-2, 759; 2-8, 827; 3-1, 383; 7-9, 130.

참고문헌 한글개정판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2006), 한국구비전승의 연구(성기열, 일조각, 1976), 한맥원류(김열규, 주우, 1981).

필자 유형동(俞亨東)

민담

스님 골려먹은 상좌

정의 스님과 상좌 사이에서 생긴 일을 내용으로 한 설화.

역사 조선 초기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편찬한 『촌담해이(村談解頤)』에 실린 〈사미투스(沙彌偷柿)〉와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 5권에 수록된 일명 〈과부와 스님〉을 비롯하여 문헌, 구전으로 향유되는 작품이 많다. 이야기의 연원이 오래고 향유 폭도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줄거리 항상 상좌를 괴롭히는 괴팍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마구간에 있는 말과 비밀리에 수간을 즐긴다. 이를 알아차린 상좌가 스님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스님이 하던 방식대로 말의 엉덩이를 어루만진다. 그 행동에 맞춰 말은 순순히 음부를 내어주는데, 그 순간 상좌는 부지깥이로 말의 음부를 찔러 심한 고통을 준다. 이 사실을 모르는 스님은 마구간

에 와서 예전처럼 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다. 상좌에게 고통을 받았던 말은 놀라 급히 뒷발질을 하며 난동을 피운다. 이에 화가 난 스님은 상좌를 시켜 장에 가서 말을 팔아 오라고 한다. 상좌는 말을 팔고 얻은 돈을 모두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스님에게는 “말을 팔려고 하는데 중 새끼를 낳았다.”라고 말한다. 중은 그 새끼가 자기 아들이라며 상좌를 앞세워 장으로 간다. 그리고 상좌가 일러 준 사람에게 가서 “네가 말의 음부에서 나온 중의 자식이 아니냐?”라고 물었다가 신나게 얻어맞는다.

변이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주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이야기가 많이 채록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라도에서만 향유된 것은 아니다. 이야기의 변이 폭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큰 편이다. 앞서 본 줄거리 외에 상좌 몰래 떡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상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스님, 이웃 과부를 탐내는 스님을 골려준 상좌, 스님의 계교를 역으로 이용하여 이웃 과부를 차지하는 상좌 등 각편으로 봐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가 있다. 특히 앞서 본 줄거리에 이들 삽화(挿話)가 첨가되어 한 편의 이야기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분석 스님은 도덕적인 계율을 지켜야 하는 존재다. 그런 존재가 오히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비도덕을 넘어서서 수간이라는 반도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도덕성이 부족한 인물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비판을 그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폭로하는 존재가 어린 상좌라는 점에서 사회적 강자에 대한 약자의 저항으로 읽어낼 여지를 남겨 둔다.

의의 음담패설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처 慵齋叢話, 村談解頤,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6-1, 647.

참고문헌 조선 후기 성소화 선집(김준형, 문학동네, 2010), 한국 고소설과 섹슈얼리티(한국고소설학회, 보고서, 2009).

필자 김준형(金竣亨)

민담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정의 번번이 과거에 낙방한 선비가 자기 다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선비의 기지로 시험에 합격한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문헌으로는 전하지 않으며, 구전으로는 20여 편 정도 조사, 채록되었다.

줄거리 어떤 선비가 글은 많이 배웠으나 번번이 과거에 낙방하자 죽으려고 남산에 올라갔다. 때마침 임금이 변복하고서 남산을 순회하다가, 어떤 선비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기에 따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이유를 물었다. 선비는 과거를 열 번이나 낙방하여 죽으려고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금이 내일 과거 시험이 있는데, ‘소리개 연(鳶)’자를 써서 붙여놓고 그 글자만 알아맞히면 합격할 것이니 시험을 한 번만 더 보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지만, ‘연’이라는 낱말만 떠오르고 ‘소리개’가 떠오르지 않았다. 선비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빙빙 연’이라고 말해 결국 낙방하였다. 그런데 선비가 시험장을 나가다가 그제야 답이 생각났다. 그래서 자기 다음에 시험 보러 들어가는 선비에게 ‘소리개 연’이라고 대답하라고 일러 주면서, 자기는 ‘빙빙 연’이라고 해서 낙방하였다고 말했다. 시험 문제의 답을 들은 선비가 시험관의 질문에 “시골말로 알려 드릴까요? 서울말로 알려 드릴까요?”라고 물었다. 시험관은 시골말은 무엇이고, 서울말은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러자 선비는 “시골말로는 ‘빙빙 연’ 자이고, 서울말로는 ‘소리개 연’ 자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을 들은 시험관은 ‘빙빙 연’ 자라고 말하여 낙방한 선비를 다시 불러 과거에 합격시켰다.

변이 과거 시험 문제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난다. 글자나 그림으로 보여 주는 문제, 감춰 놓은 물건이나 새 이름을 알아맞히라는 문제, 기다란 장대에 매달린 짚등우리에 감춰 놓은 글자를 알아맞히라는 문제 등이 있는데, 글자로 보여 주는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기지를 발휘하여 번번이 낙방한 선비까지 합격시키는 사람의 대답으로는 “서울말로 ‘소리개 연’이고 경상도 말로는 ‘뽕뽕이 연’입니다.”, “서울말로 ‘소리개 연’ 자가 충청도 말로는 ‘뽕뽕이 연’ 자입니다.”, “글자로는 ‘술개 연’ 자이지만 지방방언에 따라서 ‘뽕뽕이 연’이라고도 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뽕뽕 연’ 자이고, 충청도 말로 하면 ‘소리개 연’ 자입니다.”처럼 서울말과 지방말을 대비시킨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분석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는 선비를 임금이 도와주어 합격시키려 하였지만, 결국 그 선비는 다른 선비가 발휘한 언어적 기지로 합격한다. 그 점에서 이 설화는 상층 권력자보다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의 도움이 더 가치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지방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한자를 서울과 달리 발음한다는 사례를 들어 서울말 중심의 획일적 평가 기

준이나 언어 생활을 문제 삼아 서울과 지방의 언어적 소통을 강조한다.

특징 과거 시험을 소재로 한 대부분의 설화는 시험자의 글재주를 강조하는 예가 많은데, 이 설화는 특정 한자나 대상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611; 5-6, 122.
참고문헌 근대초기 재담과 로컬리티의 문제(이강욱, 구비문학연구34, 한국구비학회, 2012),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전경목, 정신문화연구34, 청계사학회, 2011).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시골여자의 말대답

정의 여자 사공의 배를 타고 가던 남자가 농을 하자 여자가 재치 있게 대꾸하여 망신을 준다는 설화.

줄거리 여자 사공이 배를 부리는데, 농을 잘하는 남자가 이 배를 탔다. 남자가 말을 걸기를 “내가 당신의 배를 탔으니, 나는 당신의 남편이요.” 했다. 여자는 쾌찍히 여겨 남자가 배에서 내릴 때 “당신은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요.”라고 했다.

다른 이야기로는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여자 사공을 보고 하는 말이 “배 위에서 배를 타면 얼마나 좋을꼬?” 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배 속에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놈이 나가니 속이 시원하네그러.”라고 대꾸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선비가 길을 가며 보니 밭에서 김을 매는 여인의 엉덩이가 드러나 보였다. 선비가 구경을 하다가 “여보시오, 뒷문이 열렸소이다.” 했다. 그러자 여인이 대꾸하길 “뒷집 개가 짓지 않았더라면 엉덩이 도둑맞을 뻔했네.”라고 했다.

변이 이 설화도 변이가 많다. 기본 줄거리에 말장난이 덧붙여 확장용 보이는 게 더러 있다. <사천 원님과 여자 사공>에서는 사천(泗川) 원이 배를 타고 여자 사공에게 묻기를 남편의 성이 뭐냐고 하니 백(白) 서방이라 대답한다. 원은 “서방이 백(百) 명이라 좋겠다.” 라고 빈정댄다. 여자가 원에게 말하기를 “댁의 부인은 좋겠소. 왜냐하면 사천(四千) 명의 원을 서방으로 맞아 사니까 말이요.” 한다. <백 서방과 이천 원>에서도 비슷한 말장난이 전개된다. 이천(利川) 원의 부인은 원님 이천(二千) 명을 맞아 사니까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천 원이 배에서 내릴 때 여자 사공이 “오라버니 잘 가시오.” 한다. “내가 어찌 당신의 오라버니냐?” 하고 물으니, 우리가 한 배에서 나왔으니 남매가 아니냐고 대꾸한다. 이천 원이 할 말을 찾지 못한다. <배 위에서 배를 타면>에서는 한 선비와 처녀 사공이 배 위에서 배를 타는 화두로 서로 육담 공세를 한다. 거의 같은 이야기로 남자가 “배 위에서 배를 타 보기는 난생처음”이라 하니, 여자 사공이 “웬 세상에, 물 위에서 물 받아 보기는 난생처음”이라고 되받는다.

분석 이 유형의 설화는 소화(笑話)에 속한다. 재치 있는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웃게 한다. 이 이야기에는 언어유희가 주류를 이룬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2편, 『그래 그래 좋아 좋아』에 1편, 『충청남도 민담』에 1편, 『한국민담의 유형연구』에 1편 『육담』에 1편이 실려 있다. 인터넷에서도 유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의의 이 유형의 이야기는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웃게 한다. 선인들의 재치와 해학을 엿볼 수 있다.

출처 그래 그래 좋아 좋아(최래옥, 제삼기획, 1999), 육담(이원규, 지성사, 1998), 충청남도 민담(최은식, 집문당,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7, 225; 8-4, 446, 한국민담의 유형연구(최인학,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참고문헌 한국문학의 해학(전신용, 시사영어사, 1982), 한국인과 해학(정덕순, 시인사, 1986), 해학과 풍자문학(김지연, 문장, 1983).

필자 배도식(裵桃植)

민담

시골쥐서울쥐

정의 동물담의 하나로, 시골쥐가 서울에 놀러 와서 먹을 것이 많은 서울쥐를 부러워하지만,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자 시골로 돌아간다는 내용의 설화.

역사 이 설화는 『이습우화』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이습우화』를 처음으로 소개한 책은 1896년에 발간된 『신정심상소학(新訂尋常小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설화가 소개되어 있지 않고, 1921년에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에서 발간한 『이습우언』에 <춘취와 성낙취>라는 제목의 설화가 나온다. 그러나 1885년 무렵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이습우화』가 국내에 유입되어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1919년에 발간된 『만고기담(萬古奇談)』에 동일한 내용이 재담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설화의 유입 시기를 조금 앞당겨 볼 수 있다.

줄거리 시골쥐가 서울쥐를 시골로 초청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었다. 서울쥐는 시골쥐가 먹는 음식이 초라한 것을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시골쥐에게 “너 서울에 한번 갈래? 서울에 가면 먹을 것이 참 많다. 서울에 가자.” 하면서 시골쥐를 데리고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갔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이 들어와 숨느라고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시골쥐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사람이 들어오니 어떻게 먹을 수가 있니? 그러니까 독 안에서 먹는 쥐는 독 안에서 먹는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시골로 돌아갔다.

변이 각편에 따라 배경이 되는 공간이 서울이나 시골 대신 들과 집이 있는 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분석 아직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은 시도된 적이 없다. 근대 이습우화 자료집이나 재담자료집에서 이 작품이 다수 확인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 현재의 연구 성과이다. 내용 면에서 이 설화는 서울쥐와 시골쥐의 관계에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평화를 누리는 삶이 더 나음을 보여 준다.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삶이 더 낫다고 인정하여 물질적 허영을 추구하는 삶을 비판한다. 자신의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재발견하도록 교훈을 제시하는 설화이다.

의의 『이습우화』가 한국 근대의 구비문학 또는 구전설화에 끼친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출처 이습우언(조선야소교서회, 1921), 충청남도 민담2(집문당,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 306, 한국재담자료집성2(정명기, 보고서, 2009).

참고문헌 개화기 신문소설연구(박수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근대 계몽기 조선의 이습우화(허경진·표연복·유춘동, 보고서, 2009), 이습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김태준, 한국학보7-3, 일지사, 1981).

필자 최원오(崔元午)

전설

시래호박소 이무기

호박소 비 내린 이무기

시루말

정의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에서 전승되는 창세서사시이자 열두 거리 곳의 두 번째 거리에서 연행하는 곳거리 명칭으로 창세신화적 성격이 강한 무속신화.

역사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자료가 있으나 이중만의 조카인 이용우 산이에 의해서 대략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전승되었던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시루말의 유산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전승되었던 이중만의 전승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우의 전승본이다.

줄거리 일제강점기에 채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천하궁 당칠성이 지하궁에 내려와서 인물추심을 다닌다. 당칠성이 하루 설 곳을 찾다가 매화뜰 매화부인의 불 켜진 집을 발견한다. 당칠성과 매화부인이 하룻밤을 동품하였는데, 매화부인의 꿈에 여러 가지 꿈이 나타난다. 당칠성은 해몽하고 장차 아들 형제를 낳을 것이라며 이름을 짓고 천하궁으로 떠난다. 매화부인이 잉태하고 마침내 아이를 낳으니 아이 이름을 선문이와 후문이라고 한다. 선문이와 후문이가 서당에 들어서 글공부를 하다가 친구들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당한다. 두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천하궁 당칠성이라는 걸 알고서 아버지를 만나러 하늘로 올라간다. 아버지와 만나서 이름을 확인하고 선문이는 대한민국을 후문이는 소한국을 지니게 된다.

분석 구체적인 문면을 살펴보면 이 본풀이가 왜 창세신화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령 '이 세는 어느 때이고 썩갈남게 썩어 열고, 쌀이남게 쌀이 열고 말머리에 풀이 나고, 쇠머리에 갈기 나고 비금주수(飛禽走獸) 말을 하고 인간은 말 못하든 시절이라…… 옛날 시절에는 달도 두 분이도 드시고 히도 두 분이 도드실제 궁에 시윗 살 맥여 들고 히 하나 쏘와 태석궁(帝釋宮)에 걸어두고 달 하나 쏘와내어 명모궁(明圖宮)에 걸어두고 가 불전에 들어갈 제(이중만본)'에서 이러한 면모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인용한 대목에서 보이는 천지혼돈 신화소와 뒷부분에 나오는 해와 달이 두 개인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월조정 신화소는 매우 중요한 창세신화소의 요소이다.

〈시루말〉은 현재 그 의례적 성격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곳과 본풀이의 상관성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곳거리로서 〈시루말〉은 시루에 비는 말

이다. 이 시루에 비는 말은 전물을 모두 차려 놓고 처음의 신에게 비는 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창세신화가 구송되어야 필연성이 있게 되는 셈이다. 〈시루말〉은 곳에서 산이가 시루를 놓은 상 앞에서 장구를 두드리면서 구송한다. 혼자서 장구 장단에 맞추어서 오늬섭채, 모리, 발빠드래라는 장단의 틀에 맞추어서 대략 10여 분 내외로 부르는 것이 〈시루말〉의 구연형태이다.

경기도 남부의 산이들은 미지들이 하는 곳 연행에 앞서서 이와 같은 형태로 앉아서 본풀이를 구송하는 특징이 있다. 이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장단으로 본풀이를 하는데 앞에서 말한 장단이 바로 이들이 구송하는 본풀이 장단의 전형적 사례이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더욱 긴 본풀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렀을 개연성이 있다. 현행 본풀이에 견주어서 본풀이의 내용이 상당히 길고 사설이 풍부한 것이 이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본풀이의 구연 형태는 창세서사시의 본풀이 구연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거듭 그 특성을 확인해야만 한다.

〈시루말〉에 해당하는 본풀이는 경기도 남부에서만 구연된다고 하였다. 천부지모의 결합 형태를 혼인 방식으로 추구하는데, 그 명칭이 천하궁 당칠성과 매화뜰 매화부인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본풀이는 중부나 서북부의 본풀이와 구조적으로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천지의 혼돈인 일월조정을 시도하는 것을 보아서는 미륵과 석가가 나서서 이를 처리하는 것과 일치한다. 다만 주인공의 명칭에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과 소한국의 형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제간에 인세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나 속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미륵과 석가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창세서사시의 풍부한 전승을 보이는 지역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본풀이의 전승과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하늘의 천지왕이 지상의 총명부인과 만나서 두 자식을 얻고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창세 임무를 맡아서 가는 것과 상당히 닮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산의 〈시루말〉과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고장에서는 본풀이 자체가 상당 부분 파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보아서는 중부의 〈시루말〉과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가 공통점이 많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의의 우선 〈시루말〉은 창세서사시의 중부 지역 전승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세서사시의 전국적 전승형과 일정하게 공통되면서, 구전되는 면모에서는 각별하게 구분되는 장단의 전승형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본풀이가 지니는 구조적 원형성

과 함께 의례적 특성을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풀이에 대한 일반적 전승의 범칙을 검증하는 데 중부 지역의 산이들이 구연하는 이 본풀이가 꽤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창세서사시의 전승 집단을 연구하는 데에서도 이 본풀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출처 관북지방무가(임석재·장주근, 문화재관리국, 1965), 손진태전집5(손진태, 태학사, 198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朝鮮巫俗의研究-上(赤松智城·秋葉隆, 조선총독부, 1937).

참고문헌 경기도 오산 부산리(가뫼골) 산이의 창세서사시 시루말 연구(김현선, 한국무속학24, 한국무속학회, 2012), 무속의 천신의례에 관한 연구(황루시, 비교민속학22, 비교민속학회, 2002), 제주도 무속 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경기도 도당굿 무가의 현지 연구(김현선,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한국의 창세신화(김현선, 길벗, 1994),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박중성, 태학사, 1999).

필자 김현선(金憲宣)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정의 시묘하는 효자를 도와준 호랑이가 위기에 처하지만 효자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진다는 설화.

역사 호랑이 관련 설화는 신화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호위하는 호랑이에 대한 설화는 후백제 건국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견훤의 인물됨을 알아본 호랑이는 갓난아이인 견훤을 호위한다. 이어 고려 태조 왕건의 5대조 할아버지인 호경의 이야기에서도 호위하는 호랑이가 등장한다. 이러한 호랑이의 형상이 민담으로 전승되면서 건국영웅이 아닌 효자, 효부, 열녀와 같이 약하지만 윤리성이 강한 인간을 호위하는 존재로 바뀐다.



점필재 묘소 옆 호랑이 무덤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2010.4.23, 배도식

줄거리 최 씨가 아버지의 선산(先山)에 가서 시묘(侍墓)를 하는데 호랑이가 늘 호위해 줘서 고맙게 생각했다. 그러다가 최 씨는 왕산골에서 호랑이가 잡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호랑이의 가죽을 벗겨서 팔려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 최 씨가 가서 보니 자신을 보호해 준 그 호랑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값을 얼마든지 줄 테니 놓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놓아 주냐면서도 무서워서 우리에는 들어가기를 꺼렸다. 그때 최 씨가 직접 들어가 호랑이를 꺼내 주고 만산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당장 돈이 없어 나중에 물어 주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을 원님(나랏님)이 대신 물어 주고 효자각을 세워 줬다.

변이 기본적인 서사구조는 비슷하나 이 설화에 현몽(現夢)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거나 호위의 대상이 효자에서 효부, 열녀로 변이되어 전승된다.

분석 호랑이 이야기의 자료들은 문헌설화, 구비설화에서 나아가 소설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중 가장 많은 수에 이르는 것이 구비설화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실려 있다.

호랑이는 선악(善惡)의 양면성을 지닌 동물로 설화에 전해진다. 민담에 나타나는 호랑이는 신화와 전설에 비해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승된다. 그러나 윤리담(倫理談)에 전하는 호랑이는 효자, 효부, 열녀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특히 자비심과 의협심을 가진 존재로 부각되면서 전설이나 민담에서 주로 충신, 효자, 열자, 의인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정의롭거나 지조 있는 사람에게 아량과 은혜를 베푸는 동물로 등장한다.

의의 이 설화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오히려 인간에게 윤리적 교훈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승화시켜 이야기로 담아낸 우리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1, 152; 6-1, 609.
참고문헌 구비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성격 고찰(라인정, 어문연구18,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88), 옛 문학의 비평적 시각(김명희, 태학사, 1997), 호랑이(손도심, 서울신문사, 1974).

필자 김명희(金明姬)

시무곳무가

정의 동해안에서 망인의 영혼을 저승으로 천도하는 오구굿 가운데 네 번째 시무곳에서 구송하는 본풀이.

줄거리 실제로 굿을 행했던 것으로, 1997년 1월 26일에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1리 싯밭마을에서 있었던 굿을 대상으로 한다. 구연자는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화랭이(무당, 화랑이의 방언)인 김장길이다.

망자의 하소연이 시작되고 시·공간 배열에 따른 내력을 서술하면서 시무염불을 해야 하는 긴요함을 말한다. 저승 시왕이 수부사자에게 망자를 잡아오라고 분부하지만, 이를 거절한다. 그래서 강돌래미 강 차사에게 망자를 잡아오라고 말한다. 강돌래미가 저승 시왕을 알현하고 망자를 잡아올 직분을 받는다. 강돌래미 차사가 중국 노정기와 한국 노정기를 타고 온다. 어른타령을 하면서 골매기서낭님의 근본을 들추어 결국 강돌래미는 싯패하게 된다. 강 차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성수 강변에서 여 차사에게 꼬임을 당해 가지 못한다. 그 차사에게 망자 잡아오는 일에 싯패한 사연을 말한다. 여처구 여 차사가 강 차사의 임무를 대신하여 망자에게 가서 가고 간 복숭아 무초와 계교로 골매기서낭을 물리치고 망자를 붙잡는다. 그리고 다시금 집안의 여러 가신인 지신, 조왕님, 성주님, 삼신할머니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망자의 혼을 잡아 데리고 온다. 그 과정에서 죽음을 다시 체험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상엿소리 등으로 죽음의 허망함을 보여 준다. 저승에서 망자의 동갑들이 나와 마중하는 모습, 문전값을 요구하는 것, 여러 지옥을 면하고 가라고 하는 모습, 용선을 타고 강을 건너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보살이나 부처가 있는 극락 세계, 시왕세계에 이른다.

분석 이 본풀이는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사자의 본풀이 내력을 들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망자가 사자에게 잡혀가는 대목을 본풀이로 만든 것으로 여러 각편이 있다. 각편마다 강조점이 다르고 본풀이의 주인공이 다르지만, 구조적 열개는 거의 같다. 사자의 내력에 대한 본풀이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고장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와 비교할 수 있다. 뚜렷하게 같은 성격의 본풀이를 가진 지역은 제주도이다.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차사본풀이>가 적절한 사례이다. 이 본풀이에서는 강림차사가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내력을 분명하게 밝힌다. 함경도 망목굿에서 보이는 <타승굿> 역시 이와 비교할 수 있으나 내용이 미약하다. 이와 달

리 다른 지역에서는 본풀이보다 놀이로 대체해 보여 주는 특징이 있다. 그 적절한 사례가 서울곳의 <사재삼성>, 함경도의 <사재성방>이다. 본풀이와 놀이가 서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 본풀이의 신격은 무척 중요하다.

의의 <시무곳무가>의 의의는 여러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보여 준다. 본래는 죽음에 대해 대체로 평면적인 이승과 저승 정도의 분간만 있었다. 그런데 이 평면적 저승 관념을 구분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 특히 불교적 세계관에 따른 저승관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저승 신격 세계가 구성되었다. 차사나 사자가 이러한 관념에서 마련된 신격이다. 이 본풀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신격으로 저승까지 망자를 잡아가는 신격 관념으로 형성된 것이다. 둘째, 차사는 시왕신앙과 다른 독자적인 신격 관념인데 이를 통한 일련의 본풀이적 성격을 창출하면서 놀이와 본풀이의 접합점을 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형이다. 저승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체험에 대한 일반적 구성과 달리 삶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지점에 차사를 설정하고 독자적인 신앙 형태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본풀이는 놀이와 풀이의 양면을 형성한 한 축으로 매우 중요한 차사신앙을 산출한 것이다. 셋째,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적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죽음을 유도하고 저승으로 데려가는 신과 삶을 고양하고 이를 지켜내는 신격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삶에서 죽음으로 전환하는 경계에서 이들 신은 어떠한 구실을 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이 전환기의 경계에 이른바 신앙적인 특성을 띠는 일정한 전환이 있는데 골매기서낭·지신·조왕님·성주님·삼신할머니와 같이 차사신이 맺는 관계 역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문제로, 신격의 융합적 특색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불교와 무속, 불교와 민간 신앙의 복합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필요하다. 신격 간 융합은 종교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 가운데 외래 종교와 고유 종교 간 역동적인 구성이 이뤄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른바 불교의 회심곡이나 화청에서 보이는 세계관적 기저와 적절하게 융합한 본풀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무가집2(김태곤, 집문당, 1971), 한국무가집3(김태곤, 집문당, 1978), 현지조사자료(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오구굿, 1997년 1월 26일).

참고문헌 한국무속 연구(김태곤, 집문당, 1981), 한국의 무속신화(김태곤, 집문당, 1985).

필자 김헌선(金憲宣)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정의 혹독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시집간 며느리가 수단을 써서 시어머니의 기를 꺾고 살림을 맡는다는 내용의 설화.

줄거리 어느 마을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켜서 며느리를 내쫓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새장가를 가려고 할 때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집 처녀가 부모를 설득해서 시집을 간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자 모두 암전한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을 나가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 그러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절구통에 묶어 놓고 때린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산발하고 난리를 피운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미친 병이 났다며 듣지 않는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을 나가자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때린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때리지 말라고 사정한다. 며느리는 암전해진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집안이 화목해졌다.

변이 각편에 따라 혼인식장에서 몸종을 때리거나 개를 죽이는 등 위력시위를 하거나 일부러 모자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한 논리적인 언변을 사용하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시조신화

始祖神話

정의 시조의 탄생과 득성(得姓) 과정을 통해 씨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역사 시조신화는 시조의 탄생과 득성 과정을 통해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와 순차적 과정과 혼재를 거쳐 오늘날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시조신화이자

분석 전국에 분포하는 며느리 관련 설화 중 한 유형으로, 현재까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30편이 조사되어 있다. 이 설화는 혹독한 시어머니가 있는 집에 처녀가 시집을 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폭력이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시어머니의 기를 꺾고 살림을 맡는다는 내용이다. 각편에 따라서 며느리는 폭력이 아닌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논리적 변론을 수단으로 시어머니 기를 꺾기도 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기 싸움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점에서 이 설화에는 가족의 성원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즉, 가계 계승자로서 며느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서사화된 것이다.

특징 이 설화는 두 가지 파격을 갖고 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대결한다는 것과 대결이 폭력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살림의 운영권이 이양되는 과정이 한쪽의 승리라는 형태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의의 각편 가운데 <역센 시어머니 길들인 셋째 딸>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누구 덕으로 사는가를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대해 셋째 딸은 자신의 복으로 산다고 대답한다. 이 부분은 <내 복에 산다> 유형과 같은 삽화(挿話)이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3, 231; 4-5, 427; 7-8, 436; 7-15, 220.

참고문헌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설화에 반영된 현실과 극복의 문제(박현숙, 구비문학연구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유형의 갈래와 의미(노영근, 어문연구14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한국 며느리설화 연구(손문숙,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필자 노영근(盧暎根)

환씨(桓氏) 씨족의 신화이며, <동명왕신화>는 고구려의 시조 신화이자 고씨(高氏) 시조신화이다. <박혁거세신화>, <김알지신화>, <석탈해신화> 역시 신라의 시조신화이며, 동시에 각각 경주 박씨, 경주 김씨, 경주 석씨 시조신화이다. 또한 <김수로왕신화>는 가락국의 시조신화이자, 김해 김씨 및 김해 허씨의 시조신화이며, 신라 육성인 이씨·최씨·손씨·배씨·정씨·설씨 신화 역시 각각의 씨족집단에 의해서 향유된 시조신화, 씨족신화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의 긴밀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데, 씨족집단이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면 시조신화가 건국신화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자질과 기능면에서 건국신화와 시조신화의 차별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원류는 같다. 고대 씨족 단위의 시조신화가 국가체제 속에서는 자연 건국신화가 되는데, 그에 반해 건국신화가

되지 못한 시조신화는 씨족집단에 의해 신화적 문맥을 지속하면서 전승된다. 따라서 시조신화는 건국신화적 자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신화로, 후대의 역사의식의 개입으로 변이를 거듭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시조신화는 소규모 씨족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국신화보다 쉽게 망각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 일부 시조신화는 씨족집단의 존망(存亡)에 따라 씨족의 범주 안에서 신성시되고 중간에 가계기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 신성성의 관념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조신화를 통해 역사시대에 적합한 신화적 질서를 찾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조신화는 결코 고대의 상고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기마다 각각의 시대적 사실과 문화를 수용하면서 오늘날까지 현전한 것임을 살필 수 있다.

내용 건국신화와는 달리 시조신화는 이야기 전개가 간략하다. 시조가 탄생하고 그로 인해 성씨가 부여되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시조의 탄생이 신화 전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시조신화의 분류가 가능하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김수로신화>, <삼성신화> 등의 건국신화는 건국에 초점을 두고 시조의 탄생에서부터 혼인, 이적, 죽음 등에 이르기까지 영웅일대기적 과정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시조는 죽어서도 산신이 되거나 시조신격으로 숭앙되고 있다. 물론 <주몽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삼성신화>는 성씨의 기원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성씨시조신화의 면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건국시조로서의 양상을 보이는 신화 외에 시조의 탄생과 득성 과정을 통해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는 <김알지신화>의 경주 김씨, 남평 문씨, 하음 봉씨, 파평 윤씨, 달성 배씨, 창녕 조씨, 충주 어씨, 평강 채씨 시조신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조신화는 해당 씨족집단에서 족보와 같은 가계기록을 통해 그 신화적 기능과 의미가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화는 크게 상생담(箱生譚)과 이류교혼담(異類交婚譚)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생담은 금궤(金櫃), 석함(石函), 궤(櫃), 금함(金槩)과 같은 상자를 매개로 하여 성씨시조가 탄생하는 신화로서, 성씨시조가 태어나기까지 부모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인 예조만이 강조된 뒤, 상자와 같은 신체(神體)를 통해 신이한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는 이야기이다. 상생담에서는 성씨시조를 이 세상에 보낸 하늘[天]의 존재가 강조되며, 왕이나 노파, 단군은 하늘이 보낸 시조를 발견하고 양육하며 성씨를 주어 지상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대행자이다. 한편, 이류교혼담은 특정한 공간에서 인간과 이류와의

교혼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성씨가 부여되는 공통의 즐거리를 갖는다. 이런 신화에 등장한 인물들의 관계는 각각 혈연관계, 배우관계, 개입관계라는 구도 속에서 파악되며, 여성과 동물, 즉 지모신(地母神)과 수부신(水父神),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수평적, 수직적인 대립 관계를 맺고 있다.

그동안 성씨를 중심으로 한 시조신화의 연구는 미흡했다. 시조신화는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에 부분적으로 언급되거나 몇 개의 시조신화를 야래자설화 유형 속에 다룬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김광순을 필두로 허경희, 성기열, 장장식, 이수봉, 이영수 등에 의해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논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특정 성씨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상세한 의미 분석과 문학적 의의를 규명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권씨 시조, 청주 권씨, 하음 봉씨 신화가 그 대상이다.

특징 시조신화는 고대적 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실현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곧 역사문화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조신화는 오늘날 과거의 시조와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후손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 주는 연결고리이며, 동시에 시조가 있기에 자신이 존재하고 자신이 있기에 후손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의 성씨시조신화는 특정 성씨의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신화이며, 오늘날 성씨라는 제한된 혈연적 지속성 위에 존재한다. 성씨시조신화의 전승자는 그 성씨를 지닌 특정의 씨족집단이다. 신화를 통해 씨족의 신화적 연원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이를 통해 자기 조상을 신격화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신성성과 성씨에 대한 당위성을 표출하기 때문에 시조신화는 신화적 질서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또한 시조신화는 성씨 제도와 족보 편찬, 시조신 제의 등과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며 오늘날까지 신화적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성씨 제도는 단지 혈통의 표시에 끝나지 않고, 사회조직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 사상·문화·도덕·관습의 근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 성씨시조의 근원과 성씨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시조신화 역시 우리 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 따라서 시조신화는 성씨 제도의 사회성, 족보의 역사성, 시조신 제의의 종교성 등의 복합관계 속에 위치하며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신화를 거듭나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씨 시조설화의 형성과 신화성(장장식, 한국민속학보9, 한국민속학회, 1998), 청주 권씨 가문신화의 변증고(이수봉, 설화문학연구-하, 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하음 봉씨 성씨시조설화 연구(이영수, 한국학연구1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한국구비전승의 문학(김광순, 형설출판사, 1988), 한국설화의 연구

(성기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8), 한국씨족설화 연구(허경희, 전남대학교출판부, 1990),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서해숙,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필자 서해숙(徐海淑)

용어

시퀀스

sequence

정의 하나의 의미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서사단위.

내용 순차구조를 밝히는 데 동원되는 서사단위이다. 프로프(V. Propp)의 연속개념과 유사한 것으로서, 사건들이 단순히 직선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단위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방향성을 갖고 있기에 단위가 구별된다는 개념이다. 던데스(A. Dundes)에 의하면 최소의 시퀀스는 결핍과 결핍해소의 화소군(motifeme)으로 구성되며, 금기와 위반이 수반될 때 그 결과와 회피시도의 화소군이 다음 시퀀스를 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 설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개 또는 두 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우렁각시설화>의 경우에는 총각과 우렁각시가 만나 함께 살게 되는 시퀀스와 원님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시퀀스가 순차적으로 놓임으로써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결연이 완전해지는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구복여행설화>의 경우에는 금기와 위반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단일 시퀀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가난했던 총각이 부자가 되고 아내도 얻어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필자 노영근(盧映根)

전설

신돌석

申堧石

정의 구한말 의병장인 신돌석과 관련된 인물전설.

역사 <신돌석설화>는 출생, 수련, 행적, 죽음이라는 서사구조

에 있어 한국장군설화와 <아기장수설화>와 그 맥이 닿아 있다. 특히 비극적 결말 부분은 <김덕령설화>나 <아기장수설화>와 연관성이 상당히 짙다. 그러나 위의 두 설화와는 다르게 <신돌석설화>의 형성은 근대 정신에 기초하고 있어 출생과 죽음에 관한 서사단락은 역사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수련과 행적담에서도 이런 근대 정신의 개입이 흔히 발견된다.

즐거림 신돌석의 고향은 복대미로, 작은 내를 끼고 있으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신돌석은 어릴 때부터 근처 고래산에서 장수 공부를 했다. 고래산에는 방갈이 생긴 집동바위가 있었는데, 신돌석은 그 바위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하였다. 그때 우연히 천서(天書) 한 권을 주워 공부했는데, 밤마다 밖으로 나가 주문을 외우고 돌아오곤 하였다. 이를 눈치 챈 아버지가 집안에 장수가 나면 망한다고 하여 천서를 태워버렸다. 그 바람에 신돌석은 스스로 날아다닐 만큼 배웠으나 더 이상은 배우지 못하였다. 신돌석은 하루에 산을 세 번도 오르고, 네 번도 오르고 하였는데, 날고뛰는 것이 번개같이 빨랐다. 또 나무를 하고 내려 올 때는 나뭇짐을 지고 높은 바위나 나무를 뛰어 넘는 수련을 하고, 네 사람이 들기도 힘든 바위를 50미터씩 던지는 훈련도 하였다. 수련을 마친 신돌석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였다. 하루는 신돌석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호랑이가 앞을 막아섰다. 그 호랑이는 종종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두려운 존재였다. 신돌석이 호랑이를 노려보며 호령을 하자 겁에 질린 호랑이가 꿈무늬를 빼고 도망갔다. 또 신돌석이 옛재(큰 고개)를 오르는데, 산적들이 나와 물건을 빼으려 하였다. 신돌석이 자기 이름을 밝히자, 산적들은 '장군님'하며 모두 도망가 버렸다. 당시 경부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될 때인데, 신돌석이 공사를 방해하였고, 신돌석을 제지하려던 일본 군인들을 많이 때려 죽였다. 하지만 신돌석은 31세 되던 해에 돈을 노린 외삼촌이 준 독주를 먹고, 도끼로 살해된다.

변이 경상북도 영해 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신돌석설화>는 이 지역에서만 국한된 전설로 그 전승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이야기가 이미 문헌에 기록되었고 또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변이의 가능성이 그만큼 제약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분석 〈신돌석설화〉는 크게 네 개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출생 단락은 신돌석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신돌석이 태어나는 출생과정은 아니고, 단순히 출생을 암시하거나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해 주는 정도에 그친다. 민중들은 현실에서는 영웅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대는 이미 신이한 출생을 통한 영웅의 탄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련 단락에서는 신돌석이 수련하는 장소와 방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신돌석이 장수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한 곳은 산 또는 굴이다. 신돌석이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 산은 단순한 자연물의 산이 아니라 비인간계의 영역을 의미하며, 신돌석이 수련한 산속의 굴은 곧 재생의 공간을 의미한다. 신돌석이 수련하는 방법은 모두 다섯 가지로 천서, 뛰어오르기, 바위 던지기, 산 오르기, 차력약 먹기이다.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현실 상황에서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련 방법의 형상화에는 전통적인 장군설화의 영향과 근대적 인식이 동시에 개입하고 있다. 설화의 내용대로 무거운 바위를 던지고, 사람을 뛰어넘고, 번개같이 산을 오르는 일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발상에는 현실성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훈련 방법들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적담에서 신돌석의 힘은 일본군을 무찌르고, 물길을 열어 농사를 짓게 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권을 잃고 억압 받던 민중들이 그 무엇보다 절실히 바라던 것이 강력한 힘을 지닌 영웅의 출현이었기 때문에 해석된다. 죽음에 관한 단락에서는 몇 가지 화소를 제외하고는 역사 사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아기장수설화와 많은 유사성을 보이기도 한다. 아기장수가 당한 비참한 죽음의 방식 곧 부모가 돌로 눌러 죽이는 것과 신돌석이 친척이나 부하 그리고 지방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방식은 상당히 닮아 있다.

의의 설화에서 신돌석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많은 구연자들이 신돌석의 패배 원인으로 '잘못된 시대'를 들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영웅이 곧 신돌석이며,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신돌석설화〉의 전승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일본에 굴욕을 당한 우리의 엄연한 역사 사실이 신돌석을 이야기하는 몇몇의 구연자들에게는 깊이 인식되어 있는 듯한데, 그 결과 신돌석의 힘은 일본군을 무찌르는 데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그의 행적만큼이나 적극적으로 묘사되지 못하고, 때로는 힘을 도망가는데에 사용하는 때도 있다. 요컨대 〈신돌석설화〉는 역사 인물이 근대적 인식에 의해 설화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역사 사실과 설화의 허구가 결합하는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으

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처 영남출신독립운동약전1(윤보현, 상신사, 196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3(국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7-2, 328.

참고문헌 설화와 민중의 역사(김철호, 집문당, 1989), 역사인물담의 현실대응방식 연구(신동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인물전설의 기능과 의미(조동일, 영남대학교출판부, 1979), 한국 장군설화 연구(오세길,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필자 오세길(吳世吉)

신화

신라건국신화

新羅建國神話

김일지신화, 박혁거세신화, 석탈해신화

전설

신립

申碩

정의 조선 중기의 무신 신립(申碩, 1546~1592)에 관한 인물 전설.

역사 신립은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순변사가 되어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다 순국하였다. 〈신립설화〉의 핵심인 '신립 장군 이야기'는 그의 이적(異蹟)과 충주 전투를 내용으로 한다. 신립에 관한 인물전설은 문헌·구전을 통해 전승되어 왔다. 문헌설화는 『어우야담(於于野談)』, 『대동야승(大東野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대동기문(大東奇聞)』 등에 실려 있고, 구비설화는 각 시·군지와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실려 있다.

줄거리 신립관련 설화를 '출생-성장-결혼-이적-출사-사망'의 6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신립은 고자의 아들로 기생의 몸을 통해 출생하였다고 한다. 신립이 저잣거리에서 걸식을 하고 다니다 울곡의 눈에 들어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호랑이를 부리고 귀신도 알아볼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권율이 관상을 잘 보는데 신립이 삼국대장 재목이라서 사위를 삼는다. 이적은 〈신립설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신립이 사냥을 나갔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인가를 발견했다.



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문화재청

사람을 찾으니 소복을 한 여인이 홀로 있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 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주인집 식솔과 종들을 모두 죽여 자신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녀는 종의 아내가 되든지 맞아 죽든지 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신립이 의기가 나서 종을 없애려고 그 집에서 묵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종이 나타났다. 신립이 화살을 쏘아 죽이고 처녀를 구해 주었다. 처녀가 자신은 의지할 데가 없는 처지라며 데려가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신립이 자신은 이미 취처를 한 몸이라 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자, 거절을 당한 처녀가 이튿날 집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하였다. 신립이 장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 장인이 듣고 잘못된 일이라고 꾸짖었다. 그 원혼이 신립으로 하여금 조령이 아닌 탄금대에 진을 치게 하여 왜군에게 패하게 했다고 한다. 한편, 이인인 그의 장인에게 선택을 받아 무관으로 출사한 신립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순변사로 임명을 받고 조령에 포진을 한다. 그날 밤 꿈에 처녀가 나타나 "장군님 어찌 험산에서 포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저 넓은 충주 평야로 적을 유도해서 초개처럼 섬멸시키는 것이 천하명장의 기개라고 생각되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왜적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왜군과의 접전이 벌어지자 대문산 탄금대 북쪽의 기암절벽인 열두대에 화살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번개처럼 활시위에 화살을 먹여 쏘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활시위에 열이 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워지자 백 여척이나 되는 암벽을 열두 번이나 오르내리며 강물에 열을 식혔다고 하여 열두대라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신립이 배수진을 친 탄금대는 원래 대문산 또는 견문산으로 불리던 산으로, 북으로는 남한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이 흘러내려 서로 만나는 곳에 있는 독산(獨山)이다. 산세는 평탄하면서도 남한강 쪽으로 암석이 첩첩이 솟아 기암절벽을 이루고, 경치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탄금대라는 지명은 신라 때 악성 우륵이 이곳에서 가야금을 탄주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



신립장군 순절비 및 비각
충북 충주시 칠금동, 문화재청

름이다. 사망은, 조령에 진을 치지 않고 꿈에 나타난 처녀의 말을 듣고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싸우다가 패하여 투신 자결하였다.

변이 신립의 이적 중 처녀의 집에 나타나 가족을 해치는 존재는 귀신, 도깨비, 이무기, 장사, 장군 등 다양하게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 신립의 패전을 유도하는 존재도 처녀 원귀 외에 산신, 백발노인, 귀신 등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신립이 패전한 뒤 강물에 투신해 자결하려고 하였는데 새들이 방해하여 화살에 맞아 죽었다, 금마산에서 죽었다,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죽었다, 고향에 돌아가 자살했다, 행방 불명이 되었다는 등 다양하게 변이되어 있다. 사후담은 문헌설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구비설화에 주로 지명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분석 〈신립설화〉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고르게 일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영웅의 일생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문헌설화에는 나타나지 않고 구비설화에서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되며, 성장 시 울곡의 눈에 들어 수학하는 등 구출 양육자를 만난다. 이는 그가 비범한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결혼담은 신립이 권율의 사위이며 권율을 이인이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임진왜란의 영웅인 권율의 선택을 받았다면 장차 그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인물이라는 복선을 깔고 있으며, 그가 훌륭한 장군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적담에서는 용력과 지혜가 뛰어나 종을 퇴치하는데, 이는 신립이 장차 문무를 겸비한 장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가 청혼을 하는 처녀의 청을 거절하자 처녀가 자결을 하여 원귀가 되는데, 이런 원귀형 전설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은 보상을 받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 인간 세상에 재생하고 있다. 원귀 모티프는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

투에서 패한 것을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귀의 탓으로 돌려 패배에 따른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신림이 처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내용에서 전승자들은 신림을 통해 도덕적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양반들의 형식적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 전설은 신림이 포용력이 부족해서 왜군에게 패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통해 암암리에 전달하고 있다.

특징 문헌설화에서는 신림이 충주 전투에서 패한 것은 무능하고 용렬하며 지략이 부족한 그의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비설화에서는 이를 원귀의 작용으로 해명하고자 했다. 신림을 실패한 영웅으로 이해하고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 〈신림설화〉는 신림이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패사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하여 의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림과 처녀의 은원관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처신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유형은 인물의 실제 행적과는 상관없이 향유층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자료이다.

출처 大東奇聞, 大東野乘, 於野談, 燃藜室記述,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2, 70; 3-1, 309; 4-2, 133; 7-8, 947; 7-18, 342, 전설지(충청북도, 1982).

참고문헌 신림설화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임철호, 구비문학연구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신림장군설화의 세계인식(신동훈, 연가재신동익박사 정년기념논총, 경인문화사, 1996), 신림전설연구(이준현,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필자 한종구(韓宗求)

용어

신모신화

神母神話

정의 지모숭배사상(地母崇拜思想)을 근간으로 하며, 풍요와 다산의 생산력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여성신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구연되는 신화.

내용 신모신화(神母神話)는 원시 지모숭배사상에서 유래하여, 현재의 여성산신신앙으로 이어진다. 신모신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첫째로는 스스로의 위대한 행위에 의해 신성시되는 신모의 유형을 들 수 있다. 거인여신이 자 창조신인 〈마고할미〉와 무조신화(巫祖神話) 〈바리데기〉 등

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로는 신의 배우자로서 신격이 부여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당금애기〉나 〈대관령 국사여서낭〉 전승 등 신과의 성혼담이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이다. 셋째로는 위대한 영웅의 어머니인 신모 이야기로, 〈선도산신모〉, 〈가야산신 정견모주〉, 〈지리산성모〉 등의 전승이 있다. 특히 이 유형의 신모신화들은 각각 신라, 가야, 고려의 건국신화에 차용되기도 하여 민간층에서 전승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필자 김준기(金俊基)

용어

신목전설

神木傳説

정의 신성하다고 믿는 나무와 연계해서 전해지는 형태의 설화.

내용 신화에서 단군(檀君)은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온 환웅(桓雄)에게서 태어난다. 여기서의 신단수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신령한 나무이다. 한국의 전통 마을들은 마을 가운데 서낭나무가 위치하며, 서낭나무에는 마을 제당의 기원을 설명하는 전설이 전한다. 이 전설은 마을 서낭나무에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해 준다. 신목전설은 일반적으로 풍요·생산과 연계되어 있다. 재물이 될 만한 과일을 내려 주는 나무전설은 효성스런 소년 등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은혜 갚음과 결부해 전한다. 전설 속에서 치성을 드리던 여인에게 채기가 있게 하여 아기를 낳게 하고, 나무에 기대어 잠자던 선녀가 나무의 정기를 얻어 아이를 낳게 한다. 또한 홍수나 적군,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신령한 나무는 모성적 속성을 지니기도 한다.

필자 최명환(崔明煥)

용어

신물

神物

정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물.

내용 신물(神物)은 인간이 우주만물과 교감하면서 느끼는 힘의 발현물이다. 동물과 식물, 금석류(金石類), 주문(呪文), 주문부(呪符), 주약(呪藥), 주문(呪具) 등이 포함된다. 우주, 자연 속에 숭배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주술적 목적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들도 있다. 신화나 전설에서도 다수의 신물이 확인된다. 〈단군신화〉에서 천부인(天符印)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능을, 〈주몽신화〉에서 말채찍, 백록(白鹿) 등은 각각 동실(銅室)을 만들거나 비를 내리게 할 때 사용하는 주술적 기능을, 〈박혁거세신화〉에서 계룡(鷄龍)은 좌협(左脇)으로 알영을 낳음으로써 알영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결하게 태어난 신성 인물임을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아기장수전설〉에서 용마(龍馬)는 아기장수의 영웅적 탄생을 징표하는 한편, 그 보조자로서도 기능하고, 〈무왕전설〉에서 ‘연못 속의 용’이나 〈견훤전설〉에서 지렁이는 영웅적 인물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신물로서 기능하며, 〈구린내전설〉에서 ‘금강(錦江)에 사는 천년 묵은 용’은 백제(百濟)를 수호하는 호국신(護國神)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상에 제시한 신물들은 모두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외경(畏敬)의 대상이 되었다. 그 점에서 신물은 원시종교적 성격의 신물숭배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만파식적(萬波息笛)〉에서 피리와 옥대(玉帶)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필자 최원오(崔元午)

민담

신방 지키는 유래

정의 왜 첫날밤에 신방을 엿보게 되었는데 대한 유래를 전해주는 민담.

역사 18세기 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권30 「사소절(士小節)」에 “사위를 맞아 그 사위가 사흘 밤을 잘 때 집안 부인들은 반드시 그 신혼부부의 사담을 엿들으니, 어찌 그리 누추한 짓을 할까?”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풍습임을 알 수 있다.

줄거리 어린 신랑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 어머니가 ‘첫날밤에는 신부를 벗기는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아들은 문자 그대로 칼로 신부의 가죽을 벗겼다. 신부는 친정어머니에게 첫날 밤에는 아파도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원래 이런 것이

가 보다 하고 끝까지 참는다. 아침에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신부가 가죽이 벗겨진 채 죽어 있었다. 이후로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까 염려하여 신방을 엿보는 것이라고 한다.

변이 대개의 각편은 신랑이 어려서 첫날밤의 의미를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경기도 양평 지역의 설화에는 공부밖에 모르는 아들로 나타난다. 또한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역의 설화에는 아들에게 ‘각을 잘 떠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백정의 아들과 연관 짓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분석 첫날밤에 신부를 각을 떠서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허구라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신부가 참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죽기까지 참는다는 것도 의아하다. 조혼이라는 좋지 못한 풍습을 고발한다기보다는 어떤 민속학적 유래가 있을 것 같으나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오출세는 이것을 ‘대례 잔치 뒤의 긴장을 해소하는 일종의 주술적 혼인의례’로 보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설화 분류에는 ‘241-2 첫날밤에 실수한 신부’ 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따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특징 이 설화 생성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혼 풍습의 폐해이다. 혼인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 신랑이 바보로 표현되기도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강화군 설화에 “귀신이 엿봐서 새악시가 죽었던 말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첫날밤에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민속학적 유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의의 조선 후기 사대부가에서도 지켜지던 오래된 혼인풍속에 대한 유래담이지만 그 연관성이 적실해 보이지 않는다. 설화와 의례의 관련성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설화이다. 신부를 죽이기까지 하는 폭력성을 상징으로 이해할 때 혼인을 하게 되면 여성의 자이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폭력에 대한 민중적 저항을 형상화한 것일 수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3, 215; 1-7, 294; 346; 2-6, 307; 8-5, 386;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6, 162; 353.

참고문헌 靑莊館全書,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오출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2).

필자 신연우(申蓮雨)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정의 계모가 신방에 든 전실 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고, 며느리에게 간부(姦夫)와 사통(私通)한 누명을 씌운다는 설화.

역사 임진왜란 때 승병장인 사명당 유정에 관한 설화의 하나로 형성되어 전승되고 있다. 사명당 관련 설화는 출가 유래를 밝히는 계모옹정설화, 왜왕의 항복, 서산대사와 사명당의 제주 시합, 사명당의 전리품 등으로 구성된다.

줄거리 임 진사가 아들 하나를 두고 상처하여 계모를 들였다. 아들이 장가가는 날 계모는 하수인을 시켜 신방에 든 전실 아들의 목을 잘라 살해하고는, 며느리에게 간부와 사통하였다는 누명을 씌웠다. 쫓겨난 며느리가 남복을 하고 시택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노파 집에 머물면서 계모의 악행을 알아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사실을 고하여 누명을 벗고, 시아버지가 계모와 그 소생을 불태워 죽였다. 그 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가산을 맡기고 출가(혹은 방랑)하였다. 그 후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아 키워 시아버지를 찾아 모셔와 가족이 재회하고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었다.

변이 ‘신방의 아들 살해’ 모티프의 서사전개에 따라 두 갈래 변이가 있다. 하나는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가장이 사명당으로 등장하며, 가정의 갈등이 가정의 출가로 귀결된다. 그 이후의 행적을 덧붙여, 임진왜란 때의 활약상과 표충사(表忠寺) 유래를 삽입하는 각편도 있다. 한편 (신방에 든 아들을 죽인 계모)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각편은 가장이 사명당이 아닌 ‘최 참판’, ‘이 참판’, ‘조 생원’으로 나타나며 후일담이 덧붙는다.

분석 이 설화와 관련된 소설의 선후 영향 관계에 대해, 사명당 출가유래담을 구연한 화자 대부분이 책에서 읽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근거로, 이런 설화 유형이 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민족의 구원자나 영웅으로 인식되는 사명당의 출가 동기에 극적인 모티프를 갖는 것이 일반 민중의 기호와 맞아서 고전소설에서 계모설화를 수용하고, 고전소설 독자층이 설화 담당층으로 확대되면서 사명당의 출가 동기로 이 설화가 민간에 전승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특징 이 설화는 계모와 전실 아들의 갈등을 기본으로 하되, 계모와 며느리 그리고 계모와 가정의 관계를 두 축으로 한다.

이 설화가 두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차이를 드러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계모와 전실 아들의 갈등을 표면에 내세우면서도 서사의 중심은 그 갈등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가장이나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의의 사명당 출가유래담으로 전설의 양상을 보이는 각편들은 후에 (사명당전)의 전반부 서사를 이루고, ‘계모의 악행을 밝힌 지혜로운 며느리’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각편들은 필사본 (조생원전)을 이룬다. 또한 며느리의 열행을 부각한 (성부인전), (김씨열행록) 같은 이본을 생생해 냈고, 신소설 (구의산)에도 영향을 미쳤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1, 569; 627.

참고문헌 계모형 고소설 연구(이윤경,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사명당설화 연구(손정희, 한국문화논총13, 한국문화회, 1992),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임철호, 집문당, 1989).

필자 이윤경(李倫慶)

신선놀음에 도깃자루 썩다

정의 “신선놀음에 도깃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의 근원설화.

역사 손진태는 (선유(仙遊)에 후부가(朽斧柯))라는 제목으로 이 설화를 소개하면서, 중국 진(晉)나라 우희(虞喜)의 『우희지림(虞喜志林)』에 유사 설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기록을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6세기경에 간행된 『술이기(述異記)』에는 진(秦)나라 때 왕질이라는 나무꾼이 절강성(浙江省) 상류 구주(衢洲)의 석실산(石室山)으로 나무하러 올라갔다는 내용이 있다.

줄거리 재미있는 일이나 놀이에 너무 열중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리켜 “신선놀음에 도깃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고 한다. 옛날 한 나무꾼이 도끼를 메고 깊은 산중으로 나무하러 갔다. 커다란 동굴을 발견한 나무꾼은 아무 생각 없이 굴속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가니 어떤 백발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노인들은 바둑에 골몰하여 나무꾼이 옆에 있는 줄도 모르는 듯하였다. 나무꾼도 옆에서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저녁때쯤 되어 날이 저물자 나무꾼은 문득 집 생각이 나서 옆에 놓았던 도끼를 찾아보았더니 자루는 간 곳 없고 녹슨 도끼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상하

게 생각한 나무꾼이 마을로 내려오자, 마을은 예전과 상당히 달라져 있었고, 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할 수 없어 한 사람을 붙잡고 자기 이름을 대며 집을 찾으려 하니 그 사람은 깜짝 놀라며 “그분은 내 증조부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는데 웬일로 찾으시오?”라고 되물었다.

변이 중국의 신선전설에는 대부분 소년과 노온(老嫗)이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광포전설에는 노옹(老翁)과 노파(老婆)가 나온다. 이는 우리 전설에서는 대부분 노인이 예언자 구실을 하므로 그에 맞게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체된 시간을 찾아낼 수 있다.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지만 인간계의 시간 단위와는 사뭇 다르다. 늙지 않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망, 즉 시간의 흐름에 구속받지 않고자 하는 인간의 꿈은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설화를 발생시켰다. 가령 일본의 (우라시마 타로(浦島太郎)) 이야기는 우리 설화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특징 중국 문헌에는 전설처럼 구전되는 데 비하여 우리 것은 민담으로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전설로 전해 왔던 흔적이 엿보인다. 황해도 평산읍 부동(가마골)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선암(仙巖)과 난가정(爛柯亭)이 있어서 옛날 신선들이 이곳에서 바둑을 두었다고 전한다. 이 설화는 속담의 유래담으로도 구전되고 있지만, 이항세계(離鄉世界)를 여행하고 현세로 돌아오는 모티프가 중심인 이항세계설화라 할 수 있다. 즉 신라 이래 한국적 신선사상이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조선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47),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3, 506.

참고문헌 국어국문학자료사전-상(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한국사전연구사, 1994), 설화학강요(조희웅, 새문사, 1989), 속담 이야기(김선봉·리룡득, 국학자료원, 1993), 이야기문학 모꼬지(조희웅, 박이정, 1995), 조선설화집(손진태·최인학역, 민속원, 2009).

필자 김선봉(金善豐)

신중본풀이

정의 제주도 당국의 하나인 (토산일렛당신화) 가운데 나오는 여성 당신(堂神)의 신화.

역사 국관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신화이므로 그 역사를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그러나 (일렛당신화)는 제주도의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 존재하는 당신화이고 제주도의 당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1937년에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 실린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줄거리 아랫송당의 당신인 소로소천국의 일곱째 아들이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벌을 받아 무쇠철갑 속에 넣어져 동해에 띄워졌다. 아버지의 수염을 당기고 어머니의 젖가슴을 쥐어뜯었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무쇠철갑은 떠내려가 동해용왕국의 산호수 가지 위에 걸렸다. 동해용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궁전 앞 산호수 가지에 청룡, 황룡이 얽혀 있었다. 놀라 잠이 깬 용왕은 큰딸을 불러 나가 보게 하였으나 큰딸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둘째 딸에게 똑같이 시켰더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셋째 딸을 불러 나가 보게 하였더니 산호수 가지 위에 무쇠철갑이 걸려 있더라고 하였다. 용왕이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그 무쇠철갑을 내려 보게 하였지만 내리지를 못했다. 셋째 딸에게 내려 보게 하였더니 내렸다. 용왕이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그 무쇠철갑을 열어 보게 하였지만 열지 못했는데 셋째 딸에게 열게 하였더니 자물쇠가 저절로 열렸다. 무쇠철갑 속에는 한 옥동자가 있었다. 그는 아랫송당 소로소천국의 일곱째 아들로 중국에 변란이 생겨서 도원수로 출전하여 변란을 막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였다. 용왕은 그에게 첫째 딸과 둘째 딸의 방에 들 것을 청했으나 그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셋째 딸의 방에 들 것을 청하였더니 기뻐하며 응했다. 그리하여 그는 용왕의 셋째 사위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위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석 달 열흘도 안 되어 동해용왕국의 창고가 텅텅 빌 지경이었다. 이를 근심한 용왕은 셋째 딸로 하여금 남편을 데리고 아랫송당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아랫송당으로 와 보니 소로소천국은 콩불림목(북제주군 구좌면 송당리)에서 콩을 불리고 있었다. 소로소천국은 일곱째 아들이 돌아온다는 하녀의 말을 듣고는 놀라 콩깍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을 앓게 되었고 그녀의 남편은 놀라 도망가다가 정살(제주도에서 집 출입로에 대문 대신 걸쳐 놓는 굵은 나무)에 눈을 찔려 죽어 갔다. 용왕국의 셋째 딸이 가지고 있던 푸른 부채를 부쳐 주자 소로소천국의 눈병이 깨끗이 나았다. 며느리의 재주를 신통하게 생각한 소로소천국이 며느리에게 토산(제주도의 지명)의 당신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를 당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에 소로소천국의 일곱째 아들은 오백장군의 셋째 딸을 첩으로 삼아 한라산으로 올라가고는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지친 용왕국의 셋째 딸은 어느 날 남편이나

찾을까 하고 한라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목이 말랐다. 그래서 산돼지의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산돼지의 털이 콧구멍을 찢렸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부정하다고 하여 마라도로 귀양을 보냈다. 첩인 오백장군의 셋째 딸이 와서 보고는 그만한 일로 부인을 귀양 보내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이 가서 모셔오겠다고 하여 남편의 허락을 받았다. 오백장군의 딸이 마라도로 가 보니 본부인인 용왕국의 셋째 딸은 아들 일곱을 낳아 기르고 있었다. 오백장군의 딸은 동해용왕국 셋째 딸과 그녀의 일곱 아들을 모시고 본도로 나왔다.

변이 이 당신신화는 여러 이본이 있다. 그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은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 실린 것이고, 내용이 가장 자세한 것은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실린 것인데 어느 것이나 기본적인 이야기 흐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서는 이 신화의 제목을 ‘신중도푸리(神僧都解)’라고 하였고, 그 내력에 대해 “우리가 모두 제주 신중이 되기로 하여 큰부인과 작은부인은 일렛당 당주가 되고 남편과 아들들은 제주 각 본향당 당주가 되어 인간 차지를 합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신중본풀이>는 『조선무속의 연구』 상권에 나온 제목 ‘신중도푸리(神僧都解)’가 이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석 이 신화는 제주도 당신들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산일렛당신화>가 중심인데 일렛당은 음력으로 7일, 17일, 27일에 제향을 받는 당이다. 일렛당 당신이 밖에서 들어온 신, 그것도 동해용왕국의 셋째 딸로 설정된 것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이 신화가 실제 곳에서 연행될 때에는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눈병을 막는다, 눈병을 치료한다’라는 기능과 연결되어 있음을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로소천국이 쿵을 불리고 있다가 쿵각지가 눈에 들어가서 눈병을 앓았다는 내용이나 소로소천국의 남편이 도망가다가 정살에 눈이 찢렸거나 오백 장군의 딸이 데려오던 동해용왕국 셋째 딸의 일곱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나뭇가지에 눈이 찢렸다는 내용들이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의 이 신화는 제주도 당신들의 유래를 함께 설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무쇠철갑에 담아 버린 아이나 신이한 기능을 가진 부채 등 설화적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모티프들이 활용된다. 셋째 딸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역사가 오랜 설화적 장치이다. 이 신화에서 매우 특이한 것은 처첩 간 관계이다. 대부분 이야기에서 처첩 간은 극심한 갈등 관계이기 마련이다. <문전신본풀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첩

이 본처를 죽이는 예까지 있다. 그러나 이 신화 속 처첩 관계는 그러한 갈등이 없어 특이하다. 첩인 오백장군의 딸은 남편이 본부인을 마라도로 귀양 보낸 것을 알고는 용서해 줄 것을 청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본부인을 찾아간다. 처첩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지만, 이 신화에서는 본부인이 낳은 자식들과 첩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부인인 동해용왕의 셋째 딸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지만, 이들과 첩인 오백장군의 딸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없다.

출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진성기, 민속원, 1991), 제주도무속자료사전(현용준, 신구문화사, 1980), 조선무속의 연구-상(赤松智城·秋葉隆, 조선인쇄주식회사, 1937).

참고문헌 제주도무속연구(현용준, 집문당, 1986), 한국 신화의 연구(사대석, 집문당, 2001).

필자 박경신(朴敬伸)

민담

신통한 여덟 형제

정의 여덟 형제(혹은 여러 형제)가 각기 자기 이름처럼 능력을 발휘하여 곤란을 해결하는 내용의 민담.

줄거리 여덟 형제가 있었다. 이 형제들의 이름은 만리보기천리보기, 진동만둥, 자른동만둥, 여니딸각, 줄었다늘었다, 기프니아트니, 더우니차니, 올라티기내리티기이다. 만리보기천리보기가 사방을 살피다가 마침 신행 가는 신부가 있어 이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신부로 삼았다. 또 집이 가난하여 부잣집(혹은 왕궁)의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진동만둥을 보내 재물을 지고 왔다. 그러자 관청에서 수사한 후 진동만둥이를 잡아갔다. 만리보기천리보기가 살펴보니 진동만둥이의 목을 벤다고 하여 여니딸각과 자른동만둥을 보내, 여니딸각이 문을 열어 진동만둥을 빼내고 자른동만둥을 대신 집어넣었다. 이튿날 관청에서 목을 베니 자른 목이 다시 붙어 버렸다. 할 수 없어서 연자방아에 갈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줄었다늘었다를 보냈고, 벼랑에서 굴리겠다고 하자 올라티기내리티기를 보내고, 콩기름에 끓여 죽이겠다고 하자 더우니차니를 보내고, 깊은 물에 빠트리기로 하자 기프니아트니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형제는 서로의 목숨을 구했다.

변이 <신통한 능력을 지닌 여덟 형제> 설화는 굳이 여덟 형제가 아니어도 괜찮다. 전승과정에서 육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칠 형제가 되기도 한다. 칠 형제가 나오는 또 다른 설화를 보

면, 맏이는 산에올라만경이, 둘째는 어둡고도밝은놈, 셋째는 무겁고도가벼운놈, 넷째는 꿇고도있으매, 다섯째는 뜨겁고도찬놈, 여섯째는 잠그고도열쇠, 일곱째는 깊고도얕은놈으로 이름 짓기도 한다. 첫째가 산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대궐이 보이기에 형제 셋을 보냈다. 여섯째가 대궐 문을 따고 둘째가 환하게 살피고 셋째가 물건을 잔뜩 실어 왔다. 이윽고 대궐에서 범인을 잡아들였다. 여섯째는 열쇠를 열고 도망치고, 셋째는 바위를 올려놓아 압살을 시키려 했지만, 워낙 무거운 것도 가볍게 여기는 터라 아무리 눌러도 죽지 않았다. 작두로 머리를 끊으려 하면 넷째를 보냈고, 기름가마에 튀기려고 하면 다섯째가 갔고, 깊은 물에 빠트리려고 하면 일곱째가 갔다. 결국 형제가 모두 죽지 않았다는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분석 이 설화는 이름에 따른 신이한 능력과 이름에 걸맞은 과제(혹은 시련)가 부과되고 이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서사구조는 영웅의 일대기 유형과 통한다. 이 설화어나 오는 인물들은 타락한 영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건을

신화

신화

神話

정의 전승집단이 신성시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 또는 더욱 보편적 상징으로 인류의 공통된 심층의식(집단무의식)에서 발로된 원형상징의 이야기.

역사 신화(神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다. 구비문학자는 신성한 이야기라고 하고 고전 인류학자는 원시인들의 사고에서부터 형성된 이야기라고 한다. 심리학자는 집단 무의식에서 발현한 이야기라고 하며 문예학자들은 은유나 상징보다도 더욱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의식의 심연에서 발로한 원형상징이라고 한다.

신화를 뜻하는 ‘미스(myth)’란 말은 그리스어 ‘뮈토스(mythos)’에서 유래했다. 뮈토스는 논리적 언어인 로고스(logos)와 대립되는 말로서 신성하고 감성적인 언술이라는 의미이다. 즉 원시인들이 직관적 감성으로 우주 자연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가 전승 집단의 규범으로 신성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나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화는

만드는 계기가 재물 훔쳐 오거나 신부 훔쳐 오기처럼 부정하기 때문이다. 타락한 영웅의 모습으로 사건을 시작하지만 차츰 형제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야기의 재미를 옮겨간다.

특징 건국신화부터 비롯한 ‘영웅의 일대기’ 유형으로, 오늘날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영웅담과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되는 민담이다. 또한, 영웅의 일대기이면서도 타락한 영웅의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더불어 주인공들은 각자 이름에 맞는 능력을 부여받는데, 이와 같은 민담의 명명법은 먹보나 떡보와 같은 명명법으로 민중의 소박한 심성이 담겨 있다.

출처 동해시 지역의 설화(두창구, 국학자료원, 2001),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2-3, 339; 3-4, 339; 5-2, 552; 559,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84.

참고문헌 한국민속과 문학연구(김열규, 일조각, 1971).

필자 이한길(李漢吉)

신성성을 본질로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이야기한 존재가 신성해야 한다. 신성한 존재는 신이거나 인간사회에서 신과 교통하는 존재인 사제자이다. 이런 점에서 신화는 원시사회에서 집단의 숭앙을 받았던 사제자가 신의 계시를 받아 우주 자연의 근원을 설명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고 고쳐 말할 수 있다. 19세기 독일의 쿤(A. Kuhn)이나 영국 학자 막스 뮐러(M. Muller) 등 자연신화학파는 신화가 벼락, 태양, 바람, 구름 등 자연현상을 의인화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스신화에서 제우스는 구름을, 아폴로는 태양을, 헤라는 바람을 의인화한 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신화학파의 주장은 동양신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수신(水神) 뇌공(雷公)은 홍수의 의인화이고, 사막에 거주하다가 홍수를 퇴치한다는 발(魃)이란 여신은 가뭄의 의인화로 볼 수 있으며, <해모수신화>에서 해모수는 태양을 의인화한 기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연신화학파의 주장은 고전인류학파의 공격을 받게 된다. 타일러(E. B. Tyler) 등 고전인류학자들은 원시인들이 모든 존재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생명이 있다고 보고 모든 자연현상을 신이 주도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믿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장애가 되는 악천후나 질병을 주관하는 악신을 쫓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자연현상이나 농경의 풍요를 주관하는 선신을 환대하는 의례가 발달하였고 이를 맡아 시행하는 사제자가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에 대한 제의(Ritual)에서 신화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인류학자들 중

에 제의학파는 제의에서 행위로 실현되던 내용을 언어로 바꾼 것이 신화라고 한다. 특히 가축을 번식시키거나 농작물의 수확을 관장하는 생산신에 대한 제전이 발달하였는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전승되는 생산신 신화가 그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심리학자들은 신화가 무의식의 발로로 생겨난 이야기라고 한다. 프로이트(S. Freud)는 <오이디푸스신화>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라고 해석하였으며, 융(C. G. Jung)은 인간의 가장 심층에 자리한 집단무의식에서 발로한 원형(Archetype)이 신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신화는 흔히 신들의 이야기나 신성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가 다시 문제가 된다. 신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정의되기도 하나 신성한 존재이고 그 징표는 제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신화는 인간사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말이 된다. 제사를 받는 신은 공동체에서 기록한 존재로 숭앙되는 존재이면서 공동체의 번영과 행운을 관장하는 권능을 지닌다. 그래서 가족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번성을 위하여 조상제를 모시고 마을에서는 주민의 안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동신제를 지낸다. 신들은 각기 기능이 있는데 복을 주는 복신, 수명을 관장하는 수명신, 생산을 관장하는 생산신,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 등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들에 대하여 인간은 제향을 드리고 소원을 빈다. 이러한 제사문화에서 신화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속신화를 '본풀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속제의인 굿에서 무속인이 창송하는 신의 일대기이다. 이처럼 신화는 신에 대한 의식을 통하여 형성되고 전승되었다. 원시부족사회에서 형성된 신화는 원시부족사회가 국가사회로 발전하면서 왕권신화로 편입되어 재편되었다. 건국시조신화는 건국을 주도한 부족집단의 신화가 국조신화로 수용된 것이다.

내용 신화는 내용에 따라 개벽신화와 건국신화, 또는 자연신화와 인문신화로 나뉜다. 개벽신화는 우주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한 신화로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해, 달, 별 등의 천체 및 지상의 산과 강, 초목과 인간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우주 창생의 이야기이다. 개벽신화의 중요 신화소는 천지창조(천지개벽), 일월유래(일월조정), 불의 기원, 물의 기원, 인류의 시원 등이다. 천지창조신화에는 창세신이 하늘과 땅을 분리시킨다거나 바다에서 토양을 가져온다거나 하여 우주 공간을 처음 만들었다는 창조신화와 혼돈에서 맑고 가벼운 기운과 탁하고 무거운 기운이 분리되면서 하늘과 땅이 이루어졌다는 자성신화(自成神話)가 있다. 중국의 <반고신화(盤古神話)>는 혼돈의 시대에 반고라는 거인이 나타나 하늘을 밀어

올려서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우주공간을 만들고 힘이 다해 쓰러졌는데 반고의 육신에서 산과 강, 초목 등이 생겼다는 것으로서 거인창세신화이다. 중국의 『회남자(淮南子)』에는 혼돈 속에서 음신과 양신의 두 대신이 천지를 만들고 팔방의 위치를 정하여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 이 신화는 『열자(列子)』나 일본의 『고사기(古事記)』 등에 기록된 혼돈의 시절에 맑고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었다는 자성의 신화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성의 신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신화가 아니라 철학적 해석이 담긴 논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와 달의 신화는 해와 달이 생긴 유래를 말하는 <일월생성신화>와 해와 달이 여러 개 운행하여 인간이 살기 어려웠는데 어떤 영웅이 해와 달의 수를 조정하여 하나씩만 남기고 제거하였다는 <일월조정신화>로 나누어진다. 지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존재의 두 눈이 해와 달이 되었다는 신화가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루 전승되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월조정신화가 두루 전승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羿)의 <사양신화(射陽神話)>이다. 회화(羲和)의 아들인 태양 열둘이 한꺼번에 지구를 돌아다녀서 세상의 만물이 모두 타죽게 되었는데, 제준(帝俊)의 명령을 받은 예가 활로 태양을 쏘아 열한 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만 남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를 태양을 쏘았다고 하여 '사양신화'라고 하는데 한반도의 무속신화 중에 경기도 오산의 <시루말>과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 이런 삽화가 들어 있다.

인류시원신화는 창세신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는 인류창조신화와 창세신이 하늘에서 별레를 받아 키워서 사람으로 변화시켜 인류가 퍼졌다는 인류진화신화로 나눌 수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다시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들었다는 인간시원신화와 중국 『풍속통의(風俗通義)』에 기록된 여예신이 황토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는 <여와고사(女媧故事)>는 인류창조신화이다. 한국의 <창세기(創世歌)>처럼 미륵님이 하늘에 기도하여 금별레와 은별레를 받아서 남자와 여자로 변화시켜 키운 뒤에 이들을 결혼시켜 인류가 퍼지기 시작하였다는 무속신화는 진화론적 인류시원신화라고 할 수 있다. 불의 기원 신화도 충돌에 의한 불의 기원신화와 마찰에 의한 불의 기원신화로 나누어진다. <천궁대전(天宮大戰)>에 기록되어 있는 만주족의 불의 기원신화는 창세의 신 아부카허허가 굽주림을 못 견디어 돌을 먹고 구르는 바람에 뱃속 돌들이 부딪쳐서 불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충돌의 의한 불 기원신화

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수인씨(燧人氏)가 수목(燧木)을 비비어 불을 처음으로 냈다는 중국의 신화는 마찰에 의한 불 기원신화이다. 물의 기원신화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물이 되었다는 천강기원신화와 땅에서 솟아난 샘물에서 물이 시작되었다는 지출기원신화로 나누어진다. <백두산 천지수(天池水) 유래설화>에는 하늘에서 내린 눈이 녹아서 천지가 이루어졌다는 만주족의 천강기원신화와 백장수가 파내어 던진 흙무덤이 백두산 주위의 16기봉이 되고 흙을 파낸 웅덩이에서 물이 솟아나서 천지가 이루어졌다는 우리민족의 지출기원신화가 공존하고 있다. 물은 여성과 관련을 가지는데 물의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천신의 성(性)이 여성이라는 것이고 물의 기원을 땅으로 설정한 것은 대지의 성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물과 불의 기원은 하늘과 땅, 물과 불, 남자와 여자가 모두 음양계열로 대립되어 있다는 점에서 음양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본다. 인문신화는 인간이 이룩한 위대한 공적을 이야기한 것인데 건국영웅, 전쟁영웅, 문화영웅의 행적을 이야기한 신화들을 말한다. 건국신화는 국가를 창건한 시조왕의 일대기를 이야기한 조상신화이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고구려의 시조 주몽, 가락의 시조 김수로 등이 건국신화의 주인공이다. 건국신화는 후손인 왕들이 건립한 시조묘(始祖廟)에서 행한 시조제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었다. 고구려에서는 3대 대무신왕이 동명묘를 건립하고 동명제를 지냈으며 신라에서는 2대 남해왕 때 시조묘를 건립하고 시조제를 지냈다. 전쟁영웅신화는 평범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악수(惡獸)를 퇴치하거나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일을 한 영웅의 이야기나 씨족이나 부족, 민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동족을 지킨 조상영웅들의 활약을 이야기한 것이다. 싸움의 영웅들로는 악수를 퇴치한 중국의 예(羿), 악물을 물리친 영국의 베어울프, 니벨룽겐족의 영웅 지그프리트,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그리스의 페르세우스, 몽골의 장가르, 일본의 스사노오 등이 있다. 이러한 전쟁영웅의 이야기에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공통된 전기적 서사유형이 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오이디푸스(Oedipus), 테세우스(Theseus), 로물루스(Romulus), 헤라클레스(Heracles), 페르세우스(Perseus), 디오니소스(Dionysos), 모세(Moses) 등의 일대기를 바우라(C. M. Bowra), 로드 래글런(Lord Raglan), 오토 랑크(Otto Rank) 등이 검토하여 공통된 서사단락으로 정리하여 도식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문화영웅신화는 인류문명사에 길이 빛날 문화적 공적을 이룩한 인물의 이야기이다. 인류의 문명사는 문화영웅의 발견과 창조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발명이나 발

견을 한 존재가 문화영웅이고 그 발견과정을 담은 이야기가 문화영웅신화이다. 중국 『사략(史略)』에 약술되어 있는 불을 만든 수인씨, 수렵법을 개발한 복희씨(伏羲氏), 배를 만든 황제씨(黃帝氏), 농사법을 개발한 신농씨(神農氏) 등이 문화영웅들이다.

특징 구비문학에서는 설화 삼분법의 하위 갈래로 신화, 전설, 민담을 설정하는데 신성성을 본질로 하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한다. 구연자가 이야기의 내용이 신성하다고 여기며, 이야기의 내용이 옳은가 거짓인가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되는 것이 신성성이 구현되는 양상이다. 이야기의 시간은 태초(太初)의 시간으로서 시원(始原)의 시간이며, 이야기의 공간은 신성공간으로서 세속의 현실적 공간과 다르다. 개벽신화에서 하늘과 땅이 처음 형성되는 시간이나 개국의 시조가 탄생하는 시간은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서 역사의 시간과 달리 그 이전의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하강한 태백산 신단수 아래나 수로왕이 탄강한 구지봉은 그리스신화의 올림퍼스 산이나 불교의 성산 수미산과 같이 신의 거주처나 탄강처(誕降處)로서 신성시되는 신화의 공간이다. 증거물은 하늘, 땅, 해, 달, 별 등의 천체나 산, 강, 호수 등 널리 알려진 자연물, 그리고 국가나 종족과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는 보편적 실체이다. 주인공은 신이거나 신성한 자질을 지닌 비범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혈통과 신이한 출생의 강조와 그리고 신이한 행적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숭앙을 획득하는 존재이다. 신화는 성공한 주인공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는 업적을 이룩한다. 혹은 주인공은 인류의 삶에 방해가 되는 자연현상이나 악수를 제거하기도 하고 국가를 세워 질서를 지키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주인공은 공동체로부터 추앙을 받게 되고 사후에는 제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 신화로서 신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전에서 전승되어야 하는데 무속제전에서 신의 유래를 창송하는 신본풀이는 무속신화로서 신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신의 근본을 푸는 이야기는 인물의 일대기 형식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여기에는 '신이한 출생, 역경과 극복, 신이한 행적으로 세인(世人)의 숭앙 확보, 신으로 좌정의 순으로 일정한 서사적 유형구조가 있다. 신화는 숭고미를 나타낸다. 전설이 비장미를 드러내고 민담이 골계미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신화의 특징이다.

의의 신화는 그 신화를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것이다. 신화에 민족명이나 국가명과 같은 전승집단의 명칭이 앞에

불은 경우가 있다. 이는 신성성이 유지되는 범위를 말해 준다. 한국 신화는 그리스인에게는 신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신화도 한국인에게는 재미있다고는 여겨져도 신성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신성성은 인간의 사고와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신화는 그것을 전승하는 집단의 규범이 내재된 이야기이다. 인간의 사회에는 금기(禁忌)가 있다. 금기는 신화에서 유래된다. 또한 종교의 경전에는 종교창시자인 교조의 행적이나 언설(言說)이 담겨 있다. 이것이 곧 신화이고 그 종교집단의 규범이 된다. 이처럼 신화에는 그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을 통어하는 규범과 금기가 내재되어 있어 공동체가 창조하는 문화에 지속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신화는 전승집단에 따라 내용도 다양하고 특징도 다르게 나타난다. 세계에는 수많은 신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전승집단에 따라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담겨 있다. 한국신화는 문헌에 정착한 건국신화와 무속의식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마을에서 전승되는 당신화와 씨족집단에서 전승되는 성씨시조신화 등도 있다. 건국신화는 대체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나 그 후예가 국

용어

신화소

神話素, mytheme

정의 신화의 기본적인 최소 구성 단위.

내용 신화소(神話素)의 개념은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가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 언어의 기본 요소인 음소, 형태소와 같이 신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신화소로 상정했다. 이것은 보통 신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관계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이다.”와 같은 문장이 신화소이다. 신화소는 단순히 신화 줄거리의 일부를 짧게 요약한 것이 아니라, 신화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들의 복합체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전체 신화의 다른 신화소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 신화의 의미를 드러낸다.

신화소의 개념을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화적 성격을 지닌 화소(話素)나 소재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가의 시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민족이 천신의 후예라는 긍지를 심어 주는 기능을 하였다. 한국 무속신화의 대표적 유형인 〈당금애기〉와 〈바리공주〉의 내용은 고귀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 부친에게 버림받아 가정에서 쫓겨나 고난을 겪다가 공업(功業)을 이룩하고 신으로 좌정하여 제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화를 통하여 한국여성에게 인내와 지극한 정성이 가정과 국가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었다.

신화는 원시인들의 직관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전승집단의 삶의 규범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신화는 인간의 심연에 내재한 본능적 원형상징이 투영되어 있고 영웅의 일생이나 여성의 일생과 같은 서사유형이 잠재되어 있어 후대에 서사시나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 갈래의 형성과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참고문헌 구비문학개설(장덕순 외, 일조각, 2006), 중국신화전설1·2(위먼커,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2), 한국신화의 연구(서대석, 집문당, 2001).

필자 서대석(徐大錫)

경우가 많다. 신화는 다른 이야기 갈래와 달리 그 내용이 주로 창조나 기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 창조, 천지개벽, 신성한 존재의 출현, 신이한 행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신화소라고 칭하기도 한다.

필자 오세정(吳世晶)

신화

심청굿무가

정의 동해안별신굿의 심청굿 혹은 맹인거리에서 구연되는 서사무가.

역사 〈심청굿무가〉가 동해안별신굿 굿거리로 정착한 정확한 시기나 과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판소리 〈심청가〉나 고소설 〈심청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이 작품이 1960년대 이후에 정리된 자료들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형성 연대는 그리 오래지 않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신공희(人身供犧)나 맹인개안(盲人開眼)설화가 우리 문

학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극심한 가난이나 질병이 인간 삶의 근원적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이 우리가 아직 규명하거나 확인하지 못했을 뿐 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줄거리 심봉사와 그 부인 광 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어 산천에 열심히 기도하여 심청을 얻는다. 그러나 현숙한 부인이 심청을 낳자마자 산후별증을 얻어 세상을 떠나, 심청은 이레 만에 어머니를 잃는다. 심봉사는 갓은 고생을 하면서 심청을 기르고 심청은 눈먼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한다. 그러던 어느 날 개천에 빠진 심봉사는 자신을 구해 준 몽은사 회주승의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기로 약속하고 후회한다. 이 사실을 안 심청은 남경장사 선인들에게 인당수 제물로 팔리기로 약속하고 공양미 삼백 석을 받아 몽은사로 보낸다. 약속한 날이 되자 선원들이 찾아오고 선원들을 따라간 심청은 인당수에 이르러 물에 뛰어들지만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구조된다. 심청은 용궁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어머니를 만난다. 며칠 후 어머니는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고 심청은 연꽃 속에 실려 환생한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발견한 남경장사 선인들은 그 꽃을 황제에게 바치고 꽃 속에서 나온 심청은 황제와 혼인하여 황후가 된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심청은 황제에게 청하여 석 달 열흘 맹인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자리에서 아버지 심봉사를 만난다. 딸을 만난 기쁨에 심봉사는 눈을 뜬다.

변이 이 작품은 고소설 〈심청전〉을 바탕으로 한 서사무가이며, 이 고소설은 판소리 〈심청가〉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심청굿무가〉는 고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의 무가적 변용으로 볼 수 있다. 심청전 작품군은 우리 서사문학사에서 가장 다양한 변이를 보인 작품들로 춘향전 작품군과 함께 그 이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심청굿무가〉도 동해안세습무집단의 여러 무녀가 구연하였는데, 구연본들은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와 비교할 때 그다지 크지 않다. 그것은 〈심청굿무가〉 구연자들이 모두 동해안세습무집단이라는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동해안세습무집단은 혈연관계로 연결된 집단이고 대를 물려 가며 무업을 생업으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각각의 굿을 할 때에 이 굿거리를 맡아 구연하는 구체적인 무녀는 다를 수 있지만, 이들이 구연하는 굿은 동해안별신굿 속의 ‘심청굿’ 혹은 ‘맹인거리’라는 같은 굿거리이고 그 기능도 같으며, 청중 역시 동해안 마을 사람들이라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므로 변이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심청굿무가 구연
경북 경주시 김포읍, 국립민속박물관

분석 〈심청굿무가〉는 다른 지역의 굿에는 전혀 없고 오직 동해안 지역에서만 전승된다. 동해안 지역에는 〈당금애기〉, 〈바리공주〉, 〈손님굿무가〉, 〈심청굿무가〉 등의 서사무가가 전승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심청굿무가〉는 길이가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서사무가를 구연할 수 있는 무당을 기량이 뛰어난 무당으로 평가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중에서도 〈심청굿무가〉를 구연할 수 있는 무당을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고로 친다. 이금옥 무녀가 당대 제일의 〈심청굿무가〉 구연자로 알려졌는데, 그녀가 죽은 후에는 김동연 무녀가 이 거리를 구연하는 때가 많다. 굿판에 나온 할머니들은 다른 굿거리도 좋아하지만 특히 이 〈심청굿무가〉를 좋아한다. 어린 심청이 고생 고생하는 대목에서는 무녀도 울면서 구연하고 관중인 할머니들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내며 귀 기울여 듣는다. 예술이 어느 정도의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절감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동해안 별신굿 심청굿거리라고 하여도 좋다.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심청굿무가〉는 판소리 〈심청가〉나 고소설 〈심청전〉이 서사무가로 정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판소리나 고소설이 서사무가로 그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서사갈래

류에 속한다 하여도 그 각각의 갈래종은 고유의 특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 심청곳의 첫머리가 “바닷가 사람들은 특히 눈이 밝아야 하고 그래서 안질을 막고 눈을 밝히는 곳거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되고, 마지막이 황봉사 점 치는 놀이인 것은 이 거리가 판소리나 고소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서사무가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주술적 장치를 앞뒤에 설정함으로써 〈심청곳무가〉는 동해안별신곳의 한 곳 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의의 〈심청곳무가〉는 같은 내용의 고소설과 판소리가 있고, 관련된 근원설화들도 있어서 우리 서사문학 갈래종 사이의 관계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판소리 〈춘향가〉가 곳에서 유래하였다는 정노식의 설명이 있지만 아직 실제 자료를 통해 이 사실이 입증된 사례는 없다. 고소설 〈춘향전〉이나 판소리 〈춘향가〉 사실이 서사무가로 구연되었다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심청곳무가〉는 고소설 혹은 판소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사무가로 직접 구연된 특별한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고소설이나 판소리와 서사무가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갈래종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한국인의 심성이나 원형 심상에 잘 들어맞는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출처 동해안무가(최정여·서대석, 형설출판사, 1974), 동해안별신곳무가4(박경신, 국학자료원, 1993), 서사무가 심청전집(김진명·김영수·홍태한, 민속원, 2001), 한국의 별신곳무가(박경신, 국학자료원, 1999).

참고문헌 심청곳무가의 변이양상과 형성과정 추론(홍태한, 서사무가 심청전집, 민속원, 2001), 심청곳의 형성문제(이균옥, 동리연구1, 동리연구회, 1994).

필자 박경신(朴敬申)

전설

심화요람

心火繞塔

📖 지귀

전설

쌀 나오는 바위

정의 절 근처의 바위나 동굴에 있는 쌀이 나오는 구멍을 욕심 많은 중이 망쳤다는 설화.

줄거리 옛날 산속에 있는 어떤 절에 수도승이 상좌와 함께 기거하였다. 절 근처에 있는 바위의 작은 구멍에서 끼니때마다 쌀이 흘러나왔다. 그 양은 언제나 절에 머무는 사람의 수만큼 이어서 스님들은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수도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구멍을 넓히면 쌀이 많이 나올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부지깽이로 그 구멍을 쭈셨더니 쌀은 나오지 않고 뿔뿔이 나왔다. 지금도 그 구멍에서는 물만 나온다.

변이 문헌설화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전하고 있으며, 구비설화는 전국에 걸쳐 전승되는 대표적인 광포설화의 하나이다. 쌀 나오는 구멍이 있는 장소는 동굴 속이거나 절의 부엌 한쪽으로 이야기되며, 구멍 속에 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내어 쌀 나오는 구멍을 쭈신 사람은 스님이나 수도하는 일반인이다. 구멍을 쭈서 망친 이유는 스님이 없을 때 상좌승이 밥을 배불리 먹고 싶었거나 떡을 해 먹고 싶어서라는 이야기도 있다. 쌀이 나오는 양이 한 사람 분이므로 수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이면 범이 와서 물어 간다는 설화도 있다. 구멍이 망쳐졌을 때 주로 물이나 피가 나오지만 까투리가 나왔다는 예도 있다.

분석 구멍에서 쌀이 저절로 나온 것은 수도승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을 마련하여 수도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수도하는 스님은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설화에서 스님은 쌀을 더 얻으려 물욕을 냈으므로 그 벌로 쌀 나오는 구멍이 파괴되었다. 이 전설은 영웅이나 장군의 탄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암석에서 많이 보인다. 그리고 〈술 나오는 샘(酒川)설화〉와 비교된다. 자연물에 인공적인 노력을 가해야 얻을 수 있는 물건인 술이나 쌀이 저절로 나온다는 점, 욕심을 부려 샘이나 구멍을 망쳤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이 설화는 과욕에 대한 징계를 자연물의 파괴로 나타내어, 천벌이라는 우리 민족의 소박하지만 엄격한 윤리의식을 잘 반영한다.

의의 이 설화는 자연이 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망쳐 버린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다. 소중한 보물들을 함부로 대할 때 가치가 없어지고 손해를 입는다는 충고이다. 노력하지 않고 큰 것을 얻기 위해 욕심만 부린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다. 행복하기 원한다면 순수한 소원을 달성하였을 때 신이나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기적에 감사하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할 줄 알고 노력해야 한다. 즉, 욕심을 경계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제시한다.

출처 東國輿地勝覽, 부여의 구비설화2(김군태·강현모, 보경문화사, 1995),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4-1, 415; 5-2, 265; 7-2, 215.

참고문헌 한국 불교설화의 양상(최래옥, 한국의 민속과문화3,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0), 한국 전래동화집 발행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김하영,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필자 강현모(姜賢模)

민담

쌀 나오는 죽순 뚝 나오는 죽순

정의 착한 형은 복을 얻고 나쁜 동생은 벌을 받는 형제에 대한 설화.

역사 착한 형은 복을 얻고 나쁜 동생은 벌을 받는 이야기 구조와 쌀과 뚝이 나오는 이야기의 소재를 결합한 것이다. 이 형제 이야기는 신라시대 〈방이설화(旁兪說話)〉 혹은 〈금추설화(金錐說話)〉의 구조를 원형으로 한다.

줄거리 넉넉하게 사는 동생에 비해 부모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형이 설을 앞둔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다. 혼잣말로 “명절은 다가오는데 부모님은 어찌할꼬?”라고 하자, 나무토막이 그 말을 똑같이 흉내 낸다. 형은 이 나무토막을 시장에 가져가 백 냥에 판다. 이를 사간 사람이 말을 따라 하도록 해 보지만, 나무토막은 말을 하지 않는다. 마침내 화가 난 사람은 나무토막을 길에 내다 버린다. 형이 이것을 다시 주워 집에 묻어 놓자 죽순이 나고 쑥쑥 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순에서 쌀이 흘러 나와 덕분에 형은 풍족해진다. 동생이 형에게서 이러한 사정 이야기를 듣고서는 형과 똑같은 나무토막을 얻는다. 동생도 이것을 시장에서 팔려고 하지만, 앞서 나무토막을 샀던 사람으로부터 심하게 맞는다. 또 형의 말을 듣고 집으로 가져가 땅에 나무토막을 묻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순이 나서 자란다. 그러나 죽순에서 나온 것은 뚝이었다. 계속해서 나온 뚝에 파묻혀 결국 동생은 죽는다.

변이 이 설화는 착한 형과 나쁜 동생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한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착한 형은 복을 얻고 나쁜 동생은 벌을 받는다. 형이 복을 얻는 과정과 동생이 벌을 받는 과정에서 변이가 다소 나타난다.

분석 본 유형의 이야기는 착한 형과 나쁜 동생을 등장시켜 적장자(정실이 낳은 맏아들)의 우월적 또는 지배적 지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다. 형이 선이

되고 동생이 악이 되는 것은 형은 기존 가치관을 이해하고 순응하는 태도와 의식을 보이지만, 동생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특징 형제설화는 〈형제투금설화〉를 원형으로 하는 형제우애형(兄弟友愛型)과 〈방이설화〉를 원형으로 하는 형제갈등형(兄弟葛藤型)으로 나뉘는데, 이 유형은 형제갈등형이다. 또 하위 갈래인 악형선제형(惡兄善弟型)과 선형악제형(善兄惡弟型) 중에서 선형악제형이다.

의의 인성 차이에 따른 갈등, 부모에 대한 효와 불효에 따른 갈등, 재물 욕심에 따른 갈등을 통해 형제간 당위적 가치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 준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5, 93; 8-14, 99.

참고문헌 한국민족설화의 연구(손진태, 을유문화사, 1982), 한국 설화에 나타난 형제 간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곽정식, 문화전통논집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형제갈등의 양상과 의미(조춘호, 경북대학교출판부, 1994), 형제설화 연구(신수민,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형제우애설화 연구(하영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필자 김기호(金基鎬)

민담

쌀 노적 돌 노적

정의 가난한 집에서 부자인 옆집에 있는 쌀 노적을 보고서, 며느리 또는 어린아이의 주장에 따라 꿈을 걸고 돌 노적을 쌓았는데, 결국 부잣집의 쌀 노적을 차지하여 꿈을 이루었다는 설화.

줄거리 어느 가난한 집에서 부자인 옆집에 있는 쌀 노적(또는 벼 노적)을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이 집에 갓 시집은 며느리가 가족들에게, “우리도 부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식구 누구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돌덩이를 가져오시오.”라고 하였다. 식구들이 반대하지 않고 실행하여 식구마다 집에 가져온 돌로 집 마당에 돌 노적을 차곡차곡 쌓았다. 마지막에 산꼭대기까지 가서 애써서 돌 하나를 찾아 집에 가져와, 돌 노적의 맨 위에 올려놓아 드디어 돌 노적을 다 쌓았다. 그 돌 노적을 옆집에 사는 부자가 보니, 그 꼭대기에 있는 돌이 황금이었다. 부자는 그 황금을 차지할 욕심으로 가난한 집 돌 노적과 자기 쌀 노적을 바꾸자고 했다. 가난한 집에서는 돌이 쌀이 되니까 좋아서 찬성하였다. 정작 두 노적을 맞바꾸는데, 부자는 자기 쌀 노적의 꼭대기에 있는 쌀 한 섬을 내려 자

기네 지킴씨(守護物)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가난한 집에 주었다. 그러자 가난한 집에서도 돌 노적 꼭대기에 있는 돌을 자기네 지킴씨(守護物)이라고 하면서 내려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부잣집에 주었다. 이렇게 바꾼 결과, 부자는 쓸모없는 돌 노적을 갖고, 가난한 집은 쌀 노적을 가져 부자가 되었다.

분석 가난한 집에서 옆에 사는 부자를 닮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본능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발전하고, 이 꿈은 실천으로 발전한다. 꿈이 실현이 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역사가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착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는 한국인의 욕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유화(類話)에 따르면 돌 노적을 쌓자는 의견을 낸 사람이 어린아이나 막내아들이다. 그 집에서 힘이 약한 아이나 갓 시집은 며느리가 가난을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돌 노적 쌓기를 제안하고, 온 가족이 합심하여 실천하여 드디어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아이나 며느리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본래 부자인 사람은 욕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가난한 집에서는 그 돌 노적 꼭대기에 있는 돌이 황금인 줄 몰랐는데, 부자가 알아보고 쌀 노적과 돌 노적을 바꾸자고 한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부자가 되는 노력을 이전에 하였는지, 부자의 가족이 어떠한지 모르나, 가난한 집이 부자가 된 이유를 안다. 순수하게 노력한 편과 노적 꼭대기에 있는 돌이 황금인 줄을 모르는 가난한 이웃을 속여서 더 부자가 된 악덕부자가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기 이득을 곱으로 챙기려는 욕심에서 쌀 노적 꼭대기 한 섬을 차지하였는데, 이 욕심으로 쌀 노적도 가난한 집에 주고, 황금덩이도 가지지 못하는 두 가지 손해를 보았다. 욕심 때문에 소탐대실(小貪大失)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도 이렇게 집을 부자로 만든다. 가족의 인정을 받는다.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실감이 나게 구연(口演)을 한다.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나 지금 하는 이 이야기 바깥에 있는 어린아이나 주인공이다.

의의 이 설화는 가정의 행복, 곧 돈을 벌며 화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소박하게 보여 준다. 돌 노적이 쌀 노적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가난한 생활을 하는 현재 생활 습속을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꿈을 실현할 참신하고 혁신적인 발상을 하여 꾸준히 과감하게 노력하면, 꿈을 실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으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집에서 가장 아랫사람인 막내아들이나 갓 시집은 며느리는 가난한 현실을 바꿀 안목이 있었

다. 그 집은 잘 살기를 바라는 한 가지 목표에 온 가족이 동의하였다. 가정에서 부자가 되려는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정하였으면 가족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하여야 한다. 가족끼리 의견이 분열이 되면 실패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일단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완수(完遂)할 지도자를 정하였으면 그의 의견이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실천하여 목표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1%는 성공을 확정한다는 면에서 그 가치가 황금덩이와 같이 귀중하다.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한 가난한 집에, 마지막 작은 돌은 지금까지 쌓아 둔 큰 돌 노적보다 가치가 크다. 곧, 작은 황금덩이 하나가 큰 돌 노적 하나보다 귀하다. 바로 유종의 미(有終之美)를 뜻한다. 결국 황금이라는 소중한 물질(유형적 가치)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한다는 황금 같은 소중한 정신(무형적 가치)을 뜻한다. 남에게 이로운을 주는 것은 자기에게 이롭다. 우리 속담에 “돌맹이 하나에 곡식 한 포기”가 있다. 내가 나의 땅에서 돌맹이 하나를 치우면 돌맹이가 있던 자리가 농토가 된다. 그 동네에 있는 남의 밭이나 동네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있는 돌이란 돌을 다 파고 캐고 나르면, 남은 땅(農土)이 넓어지고 또 돌이 없어져서 농사짓기에 편해지고, 동네 사람은 길을 걷기에 편해진다. 이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공생공익(共生共益)이다. 끝으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돌 하나하나의 쓸모가 없고 귀찮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지만, 모아 놓은 돌은 땅을 메우거나 담을 쌓거나 집을 짓는 데에 유용(有用之物)하다. 무용을 유용으로 바꾸는 제주와 노력은 그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교훈을 준다.

출처 영남구전자료전집2(조희웅·노영근·박인희, 박이정, 2003), 전북민담(최래옥, 형설출판사, 1979),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1-4, 791; 1-7, 871; 4-4, 87; 4-6, 59; 5-5, 655; 5-6, 258, 한국구전설화(임석재, 평민사, 1988~1993) 1, 150; 5, 204; 6, 81; 7, 357; 9, 14.

참고문헌 한국 아지담의 기교(최래옥, 제6차 한중일 설화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집, 2000).

필자 최래옥(崔來沃)

전설

쌍계사

雙磎寺

정의 쌍계사에 선종 불교 육조인 혜능선사(慧能禪師)의 정상(頂相)을 모신 경위를 설명한 사찰전설.

역사 쌍계사에 선종 불교 육조 정상을 모신 사실을 『쌍계사기

(雙磎寺記)』에 기술하고 있으나 현재 쌍계사에는 전하지 않는다. 일본의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에 수록된 삼법선사의 기록 중에 인용된 『쌍계사기』 내용이 설화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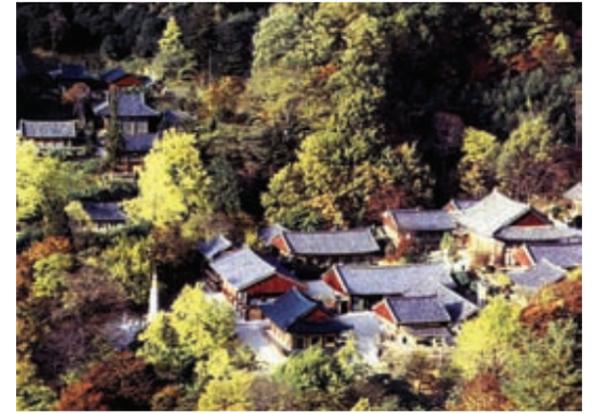
줄거리 중국 선종(禪宗)의 육조(六祖)가 갈화사(葛花寺)에서 불법을 설교하였다. 그런데 진주에 사는 정씨 성을 가진 중(삼법선사)의 꿈에 육조가 현몽하여 자신을 동국(우리나라)으로 모셔가야 한다고 하였다. 삼법선사가 김유신의 부인에게 중국으로 갈 여비를 빌려 중국 갈화사에 도착해 보니 육조의 유골을 탑 안에 봉안하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같이 지내던 절의 머슴이 어머니 초상을 치를 돈이 없다고 하여 삼법선사가 여비를 나누어 주자, 머슴이 육조의 정상을 훔쳐 주었다. 삼법선사가 육조의 정상을 모시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서 다시 현몽하니, 지리산 기슭의 칙꽃이 피는 곳(갈화처)에 묻으라고 하였다. 삼법선사는 한겨울이라 칙꽃이 핀 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삼진강을 따라 지리산으로 올라오다 따뜻한 곳이 있어 가보니 칙꽃이 피어 있었다. 그곳에 육조 정상을 모시고 나라에 절을 지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자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어 육조 정상을 모실 탑을 세우고 쌍계사를 지었다.

변이 경상남도 하동군 쌍계사에 전해 오는 사찰연기설에 인근 촌로들이 약간의 허구를 더하여 전설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쌍계사기』 내용 중 삼법선사가 장정만(張淨滿)을 매수하여 육조 정상을 구하는 부분을, 함께 거처하던 머슴의 모친상 장례비를 보내주니 그 머슴이 육조 정상을 훔쳐다 준 것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칙꽃이 핀 곳을 찾는 과정도 금강산, 한라산을 두루 찾다가 지리산에 도달하니 커다란 호랑이가 따라오라는 시늉을 하였고, 흰 눈 속에 칙꽃이 만발한 곳을 발견했다는 변이가 이루어진다.

분석 『쌍계사기』에 수록된 사찰 창건 기사가 민간에서 다소



쌍계사 대웅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문화재청



쌍계사 전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문화재청

간의 변이를 겪으면서 전승된 설화이다. 의상대사의 제자인 삼법선사가 중국 조계의 육조 혜능선사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으나 혜능선사가 입적하여 애통해 하였다. 그 후 김유신 장군의 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 중국에 들어가 장정만에게 그 돈을 주고 육조의 정상을 구해 돌아왔다. 정상을 경상북도 경주 영묘사에 모셨는데, 육조가 현몽하여 지리산 아래 칙꽃이 핀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였다. 한겨울인데도 칙꽃이 만발한 곳이 있어 돌함을 만들어 모시고 18년간 공양하다 입적하였다. 후에 진감선사가 그곳에 옥천사를 지었는데, 얼마 후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징 쌍계사 사찰연기전설로, 불교계와 인근 사하촌 식자층에 국한되어 전승되는 특징이 있다. 현재 쌍계사에는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과 구분하여 높은 언덕에 금당이라는 전각을 마련하고 그 안에 육조정상탑을 별도로 모시며 신성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8-14, 174, 하동군지(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96), 화개면지(화개면지편찬위원회, 2002).

참고문헌 전통사찰의 창건설화(서문성, 창, 1997), 조선선교사(忽滑谷快天, 계명회, 1930), 지리산권 불교설화(이상구 외, 국립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2009).

필자 김종근(金鍾涓)

민담

쌍녀분

雙女墳

지역별
전통문화
쌍녀분

색인

ㄱ

가락국기	101, 117, 193, 219, 361, 434, 822
가마고개	30
가문장아기	330, 502
가야건국신화	30, 652
가짜열녀	30, 31, 61
가짜지관	31, 701
가짜풍수	31, 701
각시섬	32
각편	32
간부 잡은 원님	33
감기의 유래	33
감은사	34, 35, 223, 249, 250, 821
감은장아기	35, 329, 330
강·폭포전설	35
강감찬	36, 37, 38, 70, 517, 558, 788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강태공	338, 515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개과천선	73, 188, 503, 650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개무덤	41, 42
개벽신화	426, 427
개양할미	216, 217, 404, 405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개운포	43, 44, 713
개촌신화	44
거북바위	44, 82, 83, 404, 794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거인 장길손	45, 46
거인설화	34, 45, 46, 50, 51, 146, 281, 373, 405, 778
거짓말 세 마디	46, 47
거타지설화	88, 223, 287, 519, 551, 796
건국신화	48, 49, 53, 103, 116, 117, 143, 152, 172, 199,

	200, 239, 276, 286, 298, 326, 362, 413, 415,
	416, 425, 490, 523, 548, 550, 585, 605, 624,
	648, 657, 674, 693, 696, 771, 780, 782
건망증 심한 사람	49
걸어온 산	50
검단선사	366, 367
계으름뱅이	72, 73, 292, 293, 349, 350, 385, 386, 518, 799
견묘쟁주	51
견우직녀	51, 286, 304, 499, 719, 743, 763, 764
견훤	48, 52, 53, 224, 331, 413, 421, 504, 505, 534,
	540, 705, 706, 786
경업대	392
계룡산	53, 54, 178, 190, 240, 323, 531, 653
계림	118, 119, 175, 176, 276, 361, 583, 689
계모담	54, 55, 242, 252, 662, 743, 745
계모설화	95, 96, 393, 422, 495, 496, 526, 745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계서야담	55, 56, 106, 110, 203, 252,
	275, 285, 370, 400, 506, 609, 664, 723
계서잡록	55, 56
고구려건국신화	56
고금소총	56, 105, 250, 252, 314, 370, 389,
	542, 589, 697, 728, 750
고기 놓친 까마귀	56
고대신화	361
고대정보풀이	57, 58, 298
고려건국신화	58, 285
고려사	91, 123, 124, 194, 241, 335, 336, 501, 516,
	523, 530, 550, 567, 581, 597, 624, 631,
	654, 664, 729, 730, 758, 767, 795, 796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고리봉	59, 60, 178, 240, 808
고목생화	320, 321
고분지통 유래	60
고석정	61, 62, 161
고수레 유래	62
고승·이승전설	6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202
고유	64, 65, 66, 613
고조선건국신화	66
고종달	66, 170, 263, 324, 805
고창녕	65, 66
곡성 안 들은 상복	66, 576
곰나루	67, 68, 549, 597
공갈못	68
공민왕	68, 69, 70, 158, 159, 185, 219,
	626, 670, 730, 777, 795

공식적표현	70
과객 제사 차려준 며느리	70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과부와 며슴	71
과장담	72, 73, 279, 390, 635, 659
곽재우	73, 74, 75, 111, 156, 224, 227, 533, 670
관용적표현	75
관음 신앙	594
관음보살	75, 76, 157, 532, 544, 545, 582, 594, 671
관음사	75, 76
관촉사은진미륵	76
관탈민녀	77, 107, 193, 325, 530, 560, 647, 715
광덕 엄장	77
광창애기본풀이	78
광포설화	45, 50, 65, 112, 144, 155, 164, 307,
	321, 358, 430, 498, 517, 635, 660,
	677, 681, 682, 767, 808, 819
광포전설	79, 110, 170, 195, 262, 284, 345,
	394, 423, 655, 819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구령덩덩신선비	80, 81, 127, 207, 208, 291, 293, 597, 798
구령이	32, 37, 41, 55, 80, 81, 82, 108, 109, 110, 140, 203,
	208, 209, 271, 303, 310, 407, 505, 514, 519, 552,
	553, 554, 557, 565, 566, 584, 597, 607, 621, 644,
	648, 664, 675, 684, 685, 690, 694, 717, 720, 737,
	738, 795, 812
구룡사	54, 82, 83
구미호	174, 338, 519
구복여행	83, 84, 148, 243, 314, 417, 570, 578, 579, 597, 715
구불십년	55
구비문학	84
구비설화	65, 74, 86, 106, 110, 121, 144, 149, 150, 151,
	178, 180, 222, 225, 227, 228, 249, 253, 271, 272,
	287, 293, 309, 348, 354, 355, 400, 413, 418, 419,
	420, 430, 527, 530, 535, 568, 581, 582, 583, 594,
	603, 604, 606, 609, 615, 618, 663, 668, 669, 670,
	715, 729, 736, 755, 795, 817, 818
구슬할망본풀이	79, 87, 88
구연	88
구운 계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구월산	89, 800
구토지설	90, 122, 123, 750, 751, 752
국사봉	90, 323, 324
국신당	69
군웅본풀이	91, 242, 298
궁예	48, 92, 93, 331, 334, 338
권선징악	66, 135, 180, 183, 184, 188, 225, 315, 386, 495,

	503, 547, 631, 644, 682, 700, 743, 803, 806
퀘네깃당본풀이	93, 94, 383, 622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귀신담	512, 596, 601
귀신설화	596, 601
그리스신화	384, 425, 427, 428
근원설화	64, 75, 177, 235, 245, 325, 393, 422, 430, 525,
	563, 586, 699, 704, 750, 751
근친상간	144, 170, 171, 178, 235, 323, 324,
	498, 546, 547, 783, 809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금강산	96, 97, 112, 190, 239, 270, 300, 319, 325, 323,
	324, 343, 358, 363, 405, 433, 511, 558, 573, 596,
	617, 648, 660, 726, 731, 760, 775, 776, 799
금계필담	97, 233, 400, 496, 575, 722
금기	70, 98, 170, 219, 351, 408, 428, 533, 564, 574,
	600, 644, 682, 765, 810
금도끼은도끼	98, 237
금돼지굴	98, 99
금산	99, 100, 373, 531
금상님	382, 383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금시발복 명당	101, 102
금와	48, 102, 103, 200, 306, 342, 523, 524, 549, 588,
	589, 673, 674, 779, 780, 781, 782
금척	103, 104, 201, 202, 604, 731, 785, 811
기능	105
기문	105
기문총화	55, 56, 65, 106, 203, 227, 400, 575, 615, 725, 774
기우제	58, 68, 309, 334, 524, 556, 560,
	561, 562, 569, 571, 735, 748
기인담	106
기지 있는 부인	107
기지사출다리기 유래	108
김녕사굴	109, 110, 209, 288, 492, 567
김덕령	110, 111, 121, 141, 224, 241, 294,
	295, 427, 493, 533, 540, 620, 639
김병연	111, 112, 613
김부대왕	113, 114, 534, 792, 793
김삿갓	112, 115, 513, 758
김선달	115, 116, 134, 206, 283, 315, 343,
	544, 545, 589, 643, 665
김수로왕신화	116, 117, 270, 277, 323, 415, 791
김알지신화	118, 119, 255, 362, 415, 416, 580, 771
김유신	119, 120, 121, 123, 124, 202, 223, 255, 331, 388
김응서	121
김중진	122

김춘추	119, 122, 123, 124, 551, 582
김현감호	124, 125, 292, 316, 597, 816
김호랑이굴	125
까치의 재판	12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127
꼬리 잘린 호랑이	127
꼬리따기	128
꼬마 명재판관	129
꼬부랑할머니	130
꽃·나무전설	130, 131, 132
피로 얻은 명당	132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133
피쟁이 하인	71, 133, 134, 282, 283, 315, 352
꿀 싸는 강아지	134, 135, 278
끝없는 이야기	135, 181, 793, 794

L

나도 계집 있다	138
나도밤나무	138, 139, 612
나옹화상	139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140, 298
낙안읍성	141
낙화암	142
난생화소	143
남녀결연담	148, 563
남매탑	53, 54, 143
남매혼설화	144
남사고	144, 145, 274, 556, 566, 669, 776
남산	145, 276, 289, 539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147
남의 북 빌려서 산 사람	147
남이	120, 148, 149, 533, 728, 730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591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남한산성	152, 153, 174
남해왕	361, 362, 427
내 병 다 나왔다	153
내 북에 산다	154, 155, 243, 254, 297, 358, 415, 502, 564, 653
노고바위전설	262, 395, 155, 156, 329
노구할머니	395
노적봉	155, 156, 329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515, 538
논개	157, 158

늦다리밭기 유래	158, 159
농경신	380, 556, 588, 745, 766
농다리	159, 160, 373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C

다리 멀면 북 떨어진다는 유래	164
다시 찾은 옥새	164, 165, 785
다자구할머니	219, 678, 679
닥실나무	166
단군신화	48, 49, 67, 89, 103, 116, 130, 132, 166, 167, 272, 273, 199, 200, 201, 202, 203, 270, 277, 286, 291, 323, 415, 416, 421, 427, 580, 589, 596, 652, 694, 715, 757, 766, 780, 803
단락소	168, 343
단종	35, 97, 132, 168, 169, 374, 375, 529, 577, 626, 690, 723, 728, 729, 730, 749, 750
단혈전설	169
달래강	170, 171, 323, 809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당금애기	172, 173, 217, 265, 298, 420, 428, 429, 585, 586, 742, 780
당신화	173, 175, 339, 401, 404, 490, 491, 625, 627, 657, 677, 729
대감굿무가	173, 174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대국산성	176, 177
대동야승	148, 177, 370, 418, 561
대신 든 장가	177
대왕암	34, 35, 178, 249, 250, 584
대흥수	59, 60, 69, 144, 170, 178, 179, 238, 285, 286, 369, 621, 637, 638, 739, 808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180
덕만	364, 365
덕진다리	180, 373
도교사상	362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가 준 돈	182, 183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방망이	162, 183, 184, 194, 225, 263, 369, 601, 733, 806, 807
도깨비보	185
도깨비불	185, 186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험	186, 543

도담삼봉	187, 663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도둑 집은 아이	188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도드람산	189, 190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190, 191, 242
도량 넓은 남편	191, 192
도미의 처	77, 107, 192, 193, 624, 647, 696
도선	62, 82, 101, 145, 193, 274, 328, 373, 404, 505, 519, 537, 550, 566, 571, 572, 776
도술화소	193
도화녀비형랑	194, 601
독도	195, 319
독수리바위전설	262
독장수구구	195, 196
돈 떼먹는 법	196
돈 천 냥의 구원	197
돈개나루전설	262
돈전풀이	197, 198, 199, 242, 298, 352, 624
동국여지승람	96, 118, 166, 189, 194, 219, 220, 222, 247, 256, 276, 288, 289, 295, 322, 368, 370, 401, 402, 430, 523, 524, 531, 547, 548, 555, 560, 635, 637, 675, 677, 687, 689, 712, 716, 786, 795, 800, 817, 818
동래 정씨 발복 이야기	325
동명왕신화	116, 199, 200, 415, 549, 674, 780
동물 나이 자랑	200
동물·사물전설	201
동물담	64, 165, 199, 202, 203, 225, 257, 258, 411, 542, 587, 750, 783, 794, 801, 804, 817
동물유래담	202, 309, 685
동부여건국신화	203
동야취집	56, 65, 106, 144, 165, 203, 252, 370, 496, 506, 642, 667, 723, 725
동자삼	204, 307, 409, 686, 739
동지팔죽 유래	204, 205, 764
동패낙송	56, 106, 110, 205, 285, 400, 725
돼지 맞돈	205
돼지꿈	206, 207, 781
두꺼비신랑	207, 208
두꺼비의 보은	208, 209, 288, 607
두더지의 혼사	202, 209
등나무	210
땀 흘리는 비석	210, 211
떠내려온 섬	211
떡보와 사신	165, 187, 211, 212

R

레비스트로스	294, 428
류성룡	188, 212, 213, 609, 613, 614, 619, 642, 771, 809

Q

마고할미	46, 174, 190, 216, 217, 373, 404, 420, 571, 572, 637, 679, 775, 778
마누라본풀이	217, 218, 242, 353, 354
마십굴	218
마을신화	173, 219, 220, 731
마이산	50, 221
막산이	221, 546
만어사	222, 794
만파식적	201, 202, 223, 250, 421, 523, 560
말무덤	110, 161, 224, 639, 728
말바위	224, 225
말하는 남생이	225, 565, 591
망부석	225, 226, 271, 736, 748, 779, 795
망우리	226, 227
망해암전설	262
매바위전설	262
매웅한록	106, 227, 400, 602, 642
맹감본풀이	227, 228, 645
맹사성	228, 229, 613, 815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메기 꿈의 해몽	230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꿈지	134, 202, 231, 232
메타서사	350, 351
머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머느리 고르기	233, 234
머느리고개	234, 235
머느리밥풀꽃	131, 235, 236, 291
머느리의 말대꾸	130, 236
멸치의 꿈	236
명당	101, 132, 179, 189, 236, 327, 407, 521, 564, 566, 629
명당 빼앗아간 딸	236
명심보감	547, 548, 635
명엽지해	45, 56, 237, 389, 681
명의설화	587, 790
모방담	151, 183, 237, 263, 282, 390, 517, 518, 783, 790, 806
목도령과 대흥수	238, 621
묘향산	167, 239, 317, 323, 358, 637
무너미고개	239, 240

무당	57, 78, 91, 104, 130, 227, 241, 259, 295, 318, 334, 337, 362, 370, 371, 381, 396, 414, 429, 491, 495, 507, 520, 578, 580, 586, 623, 687, 688, 689, 709, 712, 730, 734, 753, 773, 777
무당호랑이	240, 733
무등산	110, 240, 241, 295, 323, 670
무속설화	152, 153, 597
무속신앙	94, 114, 368, 507, 712, 731, 754
무속신화	78, 87, 172, 173, 174, 190, 197, 198, 199, 217, 241, 242, 243, 251, 252, 291, 297, 298, 303, 333, 335, 336, 342, 370, 375, 376, 380, 412, 416, 426, 427, 428, 506, 508, 577, 581, 582, 585, 586, 623, 644, 645, 657, 691, 704, 715, 726, 727, 731, 740, 742, 743, 788
무수옹	243, 244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무열왕	123, 124, 249, 362, 813
무영탑	245, 524, 535, 536
무왕	53, 154, 155, 246, 254, 287, 297, 329, 357, 358, 421
무학대사	53, 63, 45, 226, 227, 240, 246, 274, 328, 329, 373, 551, 552, 776, 777
문경새재	246, 247, 678
문굿무가	247
문둥이 남편과 이부엌녀	249
문무왕	34, 35, 77, 78, 82, 114, 124, 201, 202, 223, 249, 250, 288, 331, 583, 792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문전본풀이	242, 251, 298, 742, 743
문헌설화	40, 65, 74, 85, 91, 106, 110, 115, 121, 148, 151, 165, 225, 228, 233, 252, 253, 256, 272, 282, 287, 322, 341, 349, 357, 400, 413, 418, 419, 420, 430, 519, 527, 539, 567, 581, 582, 583, 593, 601, 604, 609, 612, 615, 618, 629, 663, 668, 669, 670, 696, 714, 729, 755, 786, 818
문화영웅	112, 427
미륵불	76, 77, 92, 114, 156, 157, 289, 388, 559, 560, 609, 821
미륵사	253, 254, 357, 358, 367
미추왕신화	254, 255
미혈	255
민간설화	363, 370, 528, 529, 605, 629, 684
민간신앙	92, 126, 138, 248, 303, 337, 414, 523, 558, 559, 562, 567, 572, 620, 657, 658, 684, 689, 742, 812
민담	256
민속문학	85, 196, 218, 259, 288, 667, 670, 692, 727
민속신앙	82, 114, 173, 556
일본	259

바다·섬전설	262
바닷물이 짠 이유	263
바리공주	127, 173, 217, 242, 264, 265, 298, 428, 429, 526, 534, 715
바리데기	216, 265, 298, 420, 502
바보며느리	265, 345, 568
바보사위	245, 251, 266, 267, 269, 345, 568
바보설화	269, 438, 567, 568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바보원님	268, 269, 568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바보형제	269, 270, 591
바위·굴전설	270
박문수	65, 71, 271, 272, 273, 500, 503, 509, 581, 613, 619, 620, 627, 696, 759, 785, 786, 788, 82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박상의	273, 274, 519, 537, 577, 776
박연폭포	35, 274, 275, 354
박엽	275
박제상	216, 225, 226, 276
박춘재	646
박혁거세신화	48, 116, 117, 118, 255, 276, 277, 366, 415, 416, 421, 523, 757, 771
반쪽이	135, 277, 278
발복설화	102, 329, 330, 358, 394, 504, 548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279
방귀시합	279, 280, 281
방귀쟁이며느리	43, 282, 520
방리특보	43, 282, 520
방이	183, 184, 370, 431, 502, 503
방학중	115, 133, 134, 206, 282, 283, 544, 665
배너미굴	284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285
배코날전설	262
백두산	48, 167, 210, 285, 286, 323, 350, 427, 550, 551
백마강	286, 287
백일홍	131, 209, 287, 288, 812, 813
백제건국신화	288
백쫄도	382, 383
뱀신랑	288
범어사	288, 289, 523, 294
병어리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벼락터전설	262
벽골제	211, 290, 291
벽사진경	37, 712

변신담	203, 207, 208, 291, 292, 293, 386, 521, 682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변신화소	193, 293, 521
변이	293
별신굿	394, 395, 428, 429, 430, 748, 764, 772, 773, 774, 780
병립구조	294
보리암	294
보양	223, 295, 309, 406, 571, 575, 796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296
보조국사	294, 397, 398, 693
보한집	36, 41, 124, 252, 296, 389, 613, 654, 760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본풀이	297
본향당	94, 173, 242, 298, 355, 381, 382, 383, 398, 399, 424, 621, 622, 623, 693, 740, 741, 753, 766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	299
봉정사	299, 300
부모 때리는 효자	300, 301
부부간의 비밀신호	301
부부의 떡 다툼	301
부석사	92, 262, 271, 299, 300, 302, 303, 318, 583, 593, 594, 679, 680, 693, 723, 795
북두칠성	120, 303, 304, 495, 650, 707, 719, 743, 812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645
북부여건국신화	304, 652
불가사리	201, 304, 305
불교설화	41, 63, 76, 100, 164, 223, 303, 397, 398, 574, 574, 596, 598, 621, 682, 684
불국사	306, 535, 536, 575, 582, 811, 813
불씨 지킨 며느리	307, 591
불전설화	45, 305, 691, 762, 795, 796, 827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비 내린 이무기	308
비라도와 최총각전설	263
비비각시전설	262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빈대절터	310
뼈꾸기	201, 310, 311, 662, 814
뼈악뼈악꼬꼬	311
사귀가 된 엽전	314
사금갑	339
사기담	134, 135, 314, 315, 697, 728, 756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사만이본풀이	228, 242, 298, 317
사명당	161, 239, 317, 318, 358, 359, 360, 422, 531, 582, 620, 698
사복	318, 319, 580
사신설화	685
사자바위	319
사자생손지지	320, 328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사찰·탑상전설	321, 322
사찰연기담	271, 306, 559
산·봉·영전설	323
산방산	324, 325, 775, 776
산삼과 이시미	325
산삼전설	262
산상왕	325, 326
산신제	90, 376, 599, 678, 679, 735, 749
산함일구 강토이주	326
살림 잘하는 며느리	233, 234, 69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삼각산	37, 190, 328, 329, 776
삼공본풀이	154, 155, 242, 243, 297, 298, 329, 330, 358, 564
삼국사기	52, 92, 93, 102, 103, 114, 118, 120, 122, 130, 131, 154, 155, 192, 202, 252, 266, 276, 277, 290, 297, 325, 326, 329, 331, 336, 361, 362, 365, 368, 369, 370, 389, 493, 498, 501, 516, 517, 530, 547, 548, 549, 580, 583, 585, 588, 612, 617, 624, 654, 678, 687, 689, 712, 736, 750, 752, 779, 780, 782, 792, 797, 813, 816
삼국유사	43, 48, 52, 53, 63, 91, 101, 102, 114, 118, 119, 123, 124, 131, 142, 154, 155, 157, 166, 167, 175, 185, 191, 192, 193, 194, 199, 202, 219, 222, 252, 253, 256, 259, 276, 277, 287, 288, 292, 295, 297, 302, 306, 309, 314, 517, 523, 525, 536, 538, 539, 548, 549, 550, 551, 560, 571, 574, 575, 580, 582, 583, 588, 593, 594, 596, 597, 612, 617, 631, 635, 636, 637, 654, 670, 671, 683, 684, 687, 689, 712, 736, 739, 755, 779, 780, 781, 782, 791, 795, 796, 797, 811, 813, 816
삼년고개	331, 332
삼대 후레이들 농	332
삼두구미본풀이	333, 334
삼부연폭포	334
삼성신화	242, 335, 399, 416
삼성혈전설	263
삼승할랑본풀이	298, 336, 354
삼을나전승	336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7

삼족구	201, 338, 521
삼족오	51, 201, 338, 339
삼척해신당신화	339, 340
삼천갑자동방삭	341
삼태성	286, 304, 341, 342
삼태자풀이	242, 298, 342
삼학도	342, 343
삼목전설	559
삼화	343
상가승무노인탄	343, 591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상객의 망신	345
상사바위	99, 100, 345, 346, 347, 557
상사뱀	74, 291, 303, 346, 347, 579, 581, 601, 726
상사병	89, 99, 192, 248, 347, 380, 557, 684, 722
상사여귀	347
상원사	348, 389, 737
새끼 뱀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새끼 서 발	349, 350, 785
새빨간 거짓말	130, 350, 351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새털 사서 장기간 총각	351
새털옷 신랑	352, 353, 624
생불할망본풀이	353, 354
서경덕	160, 354, 355, 613
서고칭	355, 357
서귀포본향당본풀이	355, 766
서기	357, 613
서동	243, 253, 357, 358, 495, 505, 564
서불설화	666
서사무가	55, 78, 86, 87, 91, 173, 180, 217, 227, 241, 247, 248, 264, 303, 329, 358, 371, 394, 398, 407, 408, 428, 429, 430, 494, 495, 508, 540, 577, 578, 579, 598, 624, 625, 643, 691, 699, 726, 733, 734, 741, 808
서산대사	239, 317, 358, 359, 360, 422, 531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15, 360, 791
서화담	354, 355, 360, 615
석가탑	535
석탈해	116, 117, 119, 255, 306, 314, 315, 361, 362, 415, 416, 537, 771
선녀와 나무꾼	97, 209, 362, 363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259, 364, 365, 696, 813
선도산성모	365, 366
선운사	366, 367
선형악제	503, 691

설문대할망	46, 216, 367, 368, 542, 543, 774, 775
설씨녀	331, 368, 369, 516
설화	369, 370, 371
섬진강	185, 372
섬진강두꺼비	372
성·다리전설	372, 373
성기 큰 남녀	374
성덕대왕신종	374, 515, 516
성삼문	374, 375, 613, 656
성조무가	375, 376, 377
성조푸리	376, 377
성질 급한 사위	377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답	377
세검정	379
세경본풀이	379, 380, 524, 578
세민황제본풀이	381, 789
세시풍속	372, 561, 586, 763, 764
세종실록지리지	166, 274, 276, 523, 560, 654, 779, 780
세화본향당본풀이	298, 381, 382
생긱무가	383, 384
소 바뀌 탄 사돈	385
소가 된 게으름뱅이	292, 385, 386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소가 된 상좌	38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소백산	388, 389
소화	237, 314, 315, 345, 389, 390, 514, 676, 750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속담	55, 64, 84, 86
속리산	295, 296, 391, 392, 550
속어면순	56, 389, 392
손 없는 색시	392, 393, 394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손님긱무가	174, 394, 395, 396
손돌목	396, 397
손돌바람	397
손순매아	397, 517, 635
송광사	294, 397, 398
송당본향당본풀이	382, 383, 398, 399, 623
송동지영감본풀이	400
송시열	106, 400, 519, 613, 787, 788
송익필	106, 253, 357, 400, 401, 612, 613
송징장군당신화	401, 402
수로부인	403, 596
수목송배	130, 139, 559
수부지모	52, 403, 505
수성당신화	404, 405

수수께끼	107, 186, 405, 406, 640, 680, 758
수수께끼 풀 아이	405
수이전	124, 252, 253, 256, 365, 370, 406, 525, 683, 684
수중명당	407, 675
숙영랑앵연랑신가	242, 298, 407, 408
순차구조	294, 408, 576
술 귀신 유래	408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스티스 통슨	301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시골쥐서울쥐	411
시래호박소	411
시루말	242, 298, 720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시무곳	414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415
시조모	365, 366
시조신화	44, 48, 116, 117, 118, 200, 220, 286, 362, 370, 416, 585, 760
시퀀스	417
신돌석	417, 418, 533
신라건국신화	418, 652
신립	35, 74, 346, 418, 419, 420
신모신화	420
신목전설	420
신물	181, 193, 339, 420, 421, 525, 557, 646, 647, 785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신사임당	612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다	422
신선전설	423
신원	67, 255, 347
신중본풀이	423, 424
신중동국여지승람	118, 189, 220, 222, 247, 276, 322, 368, 401, 402, 531, 547, 548, 675, 677, 712, 716, 786, 795, 800
신화	425
신화소	118, 119, 179, 242, 243, 270, 412, 426, 428, 540, 585, 588, 625, 637, 638, 720, 755
심청긱무가	428, 429
심화요탑	406, 430
심삼도채담집	57, 389, 646
십이지	528, 529
쌀 나오는 바위	271, 355, 430, 677
쌀 나오는 죽순 뚝 나오는 죽순	431
쌀 노적 돌 노적	431, 785
쌍계사	432, 433

쌍녀분	363, 364, 433
야기봉	490
야기씨당신화	490, 491
야기업개당신화	491, 492
야기장수	61, 79, 111, 129, 174, 271, 278, 417, 418, 421, 490, 493, 494, 532, 533, 546, 547, 599, 631, 655, 734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아랑각	347, 496
아르네-통슨	607, 695, 714, 733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버와 동침할 운명	498
아우라지	499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아지담	497, 500, 643, 821
아지재판	33, 501
아차산	349, 501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643
악형선제	210, 282, 431, 502, 503, 691
암행어사 젓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애오개	504, 689
야담집	55, 97, 105, 110, 157, 205, 227, 252, 256, 355, 370, 375, 401, 496, 508, 512, 575, 576, 613, 615, 639, 654, 664, 667, 668, 698, 705, 716, 723, 724, 725, 774
야래자	52, 194, 403, 416, 504, 505, 563, 732, 763
양사언	506, 613
양씨아미본풀이	298, 506
양은천미	252, 508, 722
양이목사본풀이	508, 509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591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어면순	56, 122, 202, 511
어사가 된 막냇사위	51
어우야담	56, 144, 151, 157, 203, 211, 252, 259, 370, 418, 512, 536, 601, 615, 664, 687, 800
어희담	299, 513, 514, 568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엮질러진 물	515
에밀레종	515, 516
어름에 흥시 구한 효자	308, 516, 591, 819

여우	56, 57, 113, 127, 129, 194, 200, 201, 203, 229
여우 잡은 소금장수	229, 517
여우고개	518
여우구슬	518, 519, 699
여우누이	127, 520, 521, 526
여우와 까마귀	521
여우혈 명당	521, 522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역옹패설	252, 389, 523, 760
연기설화	75, 76, 177, 262, 300, 319, 358, 398, 593, 594, 598, 720, 725, 784, 785, 813
연명설화	304, 523, 570, 645, 664
연못·샘전설	523, 524
연오랑세오녀	223, 339, 406, 525, 625, 637
연이와 버들도령	393, 526, 591
열녀비	150, 151, 659
열녀시험	526, 527, 591
열두 띠 유래	528
열불열녀	529, 530, 591
열행담	151, 527, 530
영규대사	54, 166, 531, 533, 641
영남루	161, 496, 531
영등신	531, 532, 766
영등할머니	531
영웅·장수전설	532, 533, 618
영웅신화	86, 120, 124, 362, 399, 427, 509, 520, 534, 652
영웅의 일대기	86, 200, 242, 398, 425, 534, 648
영웅전설	532
영월하승리은행나무	534, 535
영지	524, 535, 536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예인·재인전설	537
옛 지아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오곡밥 유래	539, 764
오구굿	242, 264, 414
오뎨산성	540, 641
오뎨탑	53, 540
오뎨힘내기	46, 72, 79, 110, 111, 141, 153, 159, 210, 224, 540, 541, 600, 639, 641, 778, 808
오동도	541
오물음	122, 542
오백장군	368, 423, 424, 542, 543, 622, 623
오성과 한음	272, 543, 544, 619
오성의 장난	543, 618
오세암	63, 54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오찰방	545, 546

육녀봉	96, 323, 324, 546, 547
온달	35, 266, 297, 329, 331, 369, 501, 547, 548, 564
온돌야화	256, 331, 563
온조비류신화	548, 549
와라진 귀신	333
왕건신화	48, 550, 551, 605
왕권신화	53, 103, 104, 167, 426, 584, 585, 586, 782
왕비간택	233, 234, 696
왕십리	227, 551, 776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용 못 된 이무기	552, 553
용 승천	309, 553, 554, 555
용 싸움	44, 79, 524, 555, 56, 560, 654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용녀바위전설	262
용다리	557
용마	63, 74, 110, 159, 224, 225, 271, 373, 421, 493, 655, 662
용머리고개	557, 558
용머리바위	262
용문사	558, 559
용미리석불입상	559
용비어천가	91, 103, 524, 555
용사설화	310, 685
용소	35, 79, 82, 271, 309, 334, 555, 556, 560, 561, 562
용연전설	262
용왕	42, 91, 93, 94, 123, 198, 222, 262, 295, 318, 336, 359, 361, 398, 520, 550, 557, 571, 596, 622, 631, 679, 750, 751, 753
용재총화	36, 133, 181, 259, 266, 346, 309, 527, 561, 592, 601, 613, 781
용추폭포	562
우렁각시	77, 108, 192, 343, 563, 661, 662, 715
우묵낭상	564, 656, 657
우물명당	564, 777
우부현녀	108, 302, 564, 715
우애담	565, 590
우연히 들어온 업	565, 566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우주수	319
우탁	567, 613
우투리	604, 605, 687, 755, 756
우해왕과 풍미녀전설	763
우행담	72, 154, 165, 265, 269, 301, 302, 345, 349, 390, 567, 568, 725, 744
운림지	569
운명담	164, 180, 304, 337, 569, 570, 651, 652, 724

운문사	295, 571
운주사	193, 571, 572
울돌목	508, 572
울산바위	96, 573, 637
웃개나루	573, 574
원광법사	574, 575
원귀	166, 224, 347, 348, 419, 579, 581, 582, 596, 601, 618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원님의 명판결	576, 577
원두표	132, 577
원령	409
원조사	55, 95, 105, 174, 183, 191, 310, 325, 442, 495, 520, 526, 587, 682, 704, 720, 762, 790, 802, 817
원천강본풀이	242, 243, 577, 578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626
원형	580
원혼설화	347, 348, 580, 581, 582, 601, 626
원효	77, 99, 254, 318, 319, 329, 580, 582, 583, 593, 698
월성	118, 583
위숙왕후	336, 688
유금이들	114, 250, 325, 555, 556, 584
유래담	33, 52, 103, 150, 158, 166, 202, 204, 230, 347, 501, 523, 529, 536, 559, 584, 590, 604, 646, 678, 704, 706, 724, 432, 775
유리왕신화	584, 585, 586
유왕산	586
유의태	510, 587, 790
유형	587
유화부인	588, 589
육담	589
윤리담	590, 591
은혜값은 끼치	591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음택풍수	566
의견	42, 55
의상	78, 82, 83, 271, 288, 299, 300, 302, 329, 433, 558, 582, 593, 594, 794, 821
의좋은 동서	594
의좋은 형제	503, 595
이건대	223, 249, 250
이계담	596, 597
이계여행화소	597
이공본풀이	242, 298, 597, 598
이괄	224, 533, 599, 670, 722
이류교혼화소	600
이만경전설	263
이몽학	110, 111, 141, 224, 533, 540, 600, 641

이무기	68, 83, 201, 209, 262, 263, 271, 287, 295, 308, 309, 310, 323, 325, 334, 335, 411, 419, 552, 553, 554, 555, 562, 571, 605, 675, 685, 735
이물교혼	37, 53, 208, 505, 685
이물담	180, 601, 602
이산해	602, 613
이서구	603, 604, 613
이성계	48, 53, 63, 99, 103, 201, 224, 226, 240, 246, 321, 501, 524, 551, 555, 604, 629, 663, 675, 687, 717, 728, 730, 755, 758, 767, 776
이습우화	56, 64, 98, 196, 202, 369, 411
이순신	74, 111, 155, 156, 159, 318, 347, 579, 605, 606, 628, 670
이야기꾼	122, 258, 371, 606, 681, 699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278, 607
이야기판	88, 122, 371, 546, 606, 608, 629, 788
이어도	263, 608, 609
이여송	121, 169, 609, 613, 618, 619, 620
이완	610
이원익	610, 611, 613
이의 울음	611
이이	106, 609, 612, 613, 614
이인·명사전설	612, 613
이인담	106, 697
이재수	509, 614
이준경	253, 613, 614, 615
이지란	615
이지함	106, 537, 602, 613, 615, 616, 661
이차돈	63, 617
이태원	617, 618
이항복	543, 609, 613, 618, 619, 620, 670
이황	144, 212, 355, 519, 613, 619, 620
인과응보	66, 100, 169, 180, 386, 536, 700, 810
인문신화	426, 427
인문전설	620, 655
인물전설	620
인불구 유래	209, 238, 620
인신공희	68, 208, 209, 287, 288, 290, 291, 428, 516, 621, 657
일뤼또본풀이	621, 622
일식 월식	623
일월노리푸념	198, 242, 298, 352, 623, 624, 625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일월신화	525, 625, 626
일월조상	58, 78, 79
일화	627

임경업장군	627, 628
임격정	61, 62, 161, 211, 629
임자 있는 명당	629
임지한	630
임진왜란	63, 73, 110, 120, 145, 155, 160, 166, 175, 197, 211, 241, 253, 273, 289, 294, 317, 339, 358, 396, 418, 422, 531, 551, 605, 609, 612, 614, 628, 630, 642, 662, 669, 698, 712, 787, 794, 805, 809, 811
입사식	234, 277, 281, 361, 520, 696, 748
입석대	392
잉어의 보은	631

ㅈ

자린고비	73, 634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자연신화	426
자연전설	53, 54, 195, 620, 636, 637, 655
자연창조전설	637, 638
자청비신화	173, 380, 638
작제건	49, 88, 91, 123, 242, 287, 523, 550, 551, 597, 605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잡기고담	639
장군봉	187, 639
장군수	149, 285, 392, 524, 533, 640
장보고	402, 533, 640, 728, 778
장수바위	641
장수전설	532, 533, 613
장승재판	576, 642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장자못	79, 98, 291, 343, 373, 383, 394, 547, 574, 643, 644, 655
장자풀이	228, 242, 298, 644, 645, 646
재담	86, 87, 236, 360, 389, 411, 513, 514, 618, 646
재복데기	646, 647
재인폭포	647
재주 많은 의형제	648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저승설화	596, 649, 651, 679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적강화소	652
적대자	94, 155, 352, 353, 399, 526, 648, 652, 671, 750

전래동화	80, 98, 135, 331, 349, 625, 801
전래설화	592, 663
전봉준	533, 652, 653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전설	654
전승집단	31, 66, 85, 93, 100, 219, 425, 505, 649, 690, 706
전실 자식 눈 뺨 계모	591, 656
전횡장군	657
절부암	658, 659
절어지는 샘물	659
점복담	660, 661
접동새	201, 311, 661, 662
정기룡	613, 662, 663
정도전	187, 373, 551, 613, 663, 776
정령	351, 613, 661, 664
정령	522, 600, 658, 693
정만서	115, 134, 206, 283, 544, 664, 665
정방폭포	666
정승 낳을 여자	666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정철	669, 758
정충신	74, 357, 669, 670
제석님청배	407
제석본풀이	242, 298, 342, 383, 384, 585, 586, 670, 715, 726, 741, 708
제왕운기	49, 166, 199, 365, 670, 687, 782
조력자	360, 413, 521, 645, 646, 648, 661, 671, 745, 757, 785
조룡대	287
조마구	671
조상	41, 57, 70, 88, 101, 114, 140, 170, 227, 228, 242, 298, 328, 506, 507, 566, 605, 609, 684, 718, 740
조상본풀이	78, 242, 506, 578
조선민담집	256, 370, 565, 623
조선환여승람	401
죽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종소리	673, 737, 738
주구	333, 359, 421, 557
주몽신화	48, 102, 103, 117, 139, 167, 172, 200, 242, 259, 270, 277, 326, 342, 416, 421, 532, 549, 585, 588, 625, 673, 674, 715, 780, 782
주보	286, 353
주약	421
주왕산	674, 675
주원장	629, 675, 718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주천강	251, 252, 676, 677, 704
죽령산신당신화	677, 678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죽을 고비 세 번	679
중들의 절 자랑	680
쥐메도강	681
쥐의 둔갑	681, 682
쥐의 보은	683
지귀	364, 683, 684
지내각시	684
지내와 구령이의 승천 다툼	684, 685
지내장터	685
지눌	294, 693
지령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지령이 살아 봉양한 효자	686
지리산	53, 63, 171, 240, 294, 323, 355, 373, 404, 433, 550, 551, 604, 687, 767
지리산성모	216, 366, 420, 688, 689
지명유래담	99, 224, 262, 263, 310, 349, 372, 389, 505, 572, 599, 617, 637, 641, 690, 711, 740, 778
지명전설	67, 170, 185, 195, 201, 226, 239, 271, 284, 287, 324, 332, 339, 402, 405, 524, 557, 558, 561, 654, 655, 675, 687, 689, 690, 715, 818
지모신	276, 277, 380, 416, 657, 707, 763
지성이감천이	183, 327, 690, 795
지역전설	89, 109, 159, 195, 262, 323, 556, 557, 655, 691, 777, 808
지장본풀이	242, 243, 298, 691, 692
지중용출	692, 693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지하국대적퇴치	99, 105, 127, 223, 271, 285, 602, 640, 648, 652, 671, 694, 695, 729, 732, 757
지혜담	108, 234, 344, 568, 610, 695, 696, 697, 721, 757, 758
진가장무가	697
진담록	56, 697
진목대사	697, 698
진안할망당본풀이	492
진정한 친구	591, 698, 699, 739
진좌수	699
진표율사	63, 391, 392, 796
진흥왕	366, 367, 571, 583, 617
짐가제무가	581, 699, 700, 704
꽃겨울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大

차복	147, 148, 570, 704
차사본풀이	298, 382, 414, 581, 692, 699, 700, 704, 705, 812, 813
차산필담	705
차전놀이 유래	705, 706
참새가 뛰는 이유	707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763
창세가	46, 217, 239, 291, 298, 540, 626, 683, 707, 708, 709, 719, 720
창세신화	179, 216, 239, 242, 335, 368, 383, 384, 412, 525, 643, 707, 708, 719, 720
창조신	46, 217, 239, 242, 420, 689
채제공	709
처녀 더위 빼기	710
처녀고개	711
처용	43, 192, 223, 711, 712, 713
처지담	390
천낭점 치고 잘 된 사람	713
천년두골쌍용수	714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천부지모	48, 167, 238, 242, 404, 412, 585, 715
천생연분	648, 649, 715, 724
천안삼거리	715
천연두	217, 218, 394, 395, 396
천예록	601, 639, 716, 717
천자가 된 구령이	717
천자명당	675, 717, 718
천자바위	718
천지왕본풀이	242, 291, 298, 335, 412, 426, 540, 643, 715, 719, 720, 789
철마	404, 405, 729
철쭉꽃	131, 403, 720
첫날밤에 똥 쓴 신부	721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청구야담	40, 52, 56, 106, 122, 144, 203, 252, 285, 370, 504, 506, 575, 609, 642, 664, 667, 702, 723, 774
청다리	723
청실홍실	724
청야담수	400, 724, 725
청어장수	725
청평사	347, 725, 726
초감제	330, 335, 336, 719, 727
초공본풀이	242, 298, 538, 578, 726, 727, 728
촌담해이	56, 389, 409, 567, 728

춧대바위	270, 271, 794
최영	224, 533, 641, 658, 728, 729, 730, 731
최제우	731
최치원	363, 364, 406, 505, 593, 613, 672, 694, 695, 732, 784
출생설화	506
춤추는 호랑이	732, 733
총렬굿무가	733
총주어씨시조신화	734, 763
치마대	224, 729, 735
치마바위	270, 735, 736
치병굿	394
치술령	225, 736
치악산	82, 284, 675, 737, 738
치우담	64, 202, 345, 390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칠기도전설	263
칠산바다	404, 739, 740
칠성본풀이	58, 242, 298, 303, 304, 740, 741
칠성풀이	242, 252, 298, 303, 741
칠월칠석	51, 52, 743, 763, 764

ㄱ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공쥐팔쥐	55, 257, 371, 393, 743, 744, 745, 789

ㄴ

탄금대	418, 420
탐색담	223, 357, 557, 748
탕건바위	748
태몽	44, 119, 175, 212, 376, 400, 533, 575, 600, 603, 787
태백산	167, 168, 169, 286, 323, 420, 427, 643, 730, 749
태평한화골계전	56, 252, 370, 389, 511, 750
토끼	122, 123, 127, 134, 200, 202, 203, 232, 446, 449, 484, 500, 541, 542, 592, 744, 746, 750, 751, 752, 802, 834, 837
토끼와 호랑이	750
토끼의 간	750, 751
토끼의 재판	752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98, 741, 753
토정	357, 408, 537, 613, 615, 616, 620, 661, 754
통과의례	51, 100, 167, 205, 281, 337, 393, 647,

	730, 745, 748, 798, 834
통과제의	267, 754
통도사	318, 571, 680, 754, 755
통두란	604, 605, 755, 767
트릭스터	115, 116, 127, 134, 135, 206, 283, 500, 665, 674, 752, 756, 757, 821
트릭스터담	116, 134, 135, 283, 752, 756, 757, 821

ㄷ

파송자	671, 757
파지놀이	758
파자점	759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파한집	119, 252, 296, 389, 613, 654, 760
팔도새담집	57, 389, 646
팔봉산	760
팔죽	115, 185, 204, 205, 265, 278, 337, 344, 354, 363, 507, 540, 610, 680, 745, 761, 762
팔죽담 흘리는 시아버지	761
팔죽할멈과 호랑이	762
패망설화	394
평강공주	155, 501, 548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763
표충비	211, 763
풍속유래전설	763, 764
풍수담	41, 139, 329, 543, 566, 599, 765, 766
풍수지리설	49, 537, 551, 644, 765, 808
풍신신화	766
풍자	108, 112, 129, 130, 224, 267, 269, 514, 530, 648, 758, 773, 774, 820
피바위	767

ㄹ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는 유래	768
하음봉씨시조신화	768, 770
하회마을	212, 213, 771, 772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773
학산한언	723, 725, 774
한국설화유형분류집	51, 151, 178, 237, 245, 597, 676, 682, 807
한라산	57, 216, 323, 324, 325, 356, 367, 368, 382, 423, 542, 666, 766, 774, 775, 776
한양도읍	776
한우물	223, 777

할미산성	778
할미섬전설	263
할미할아비바위	778, 779
해동고승전	63, 77, 252, 406, 548, 549, 571, 575, 779
해랑당설화	262
해모수	35, 47, 48, 103, 425, 585, 588, 596, 652, 673, 715, 779, 780, 782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해부루	102, 103, 549, 585, 674, 779, 780, 781, 782
해와 달이 된 오누이	291, 520, 625, 626, 638, 782, 783, 784, 812
해인사	73, 139, 262, 317, 531, 556, 557, 631, 680, 784, 785
행운담	178, 568, 785, 786, 810
행위소	39, 340
허가바위	786, 787
허목	787, 788
허미수	788
허웅애기본풀이	298, 788, 789
허준	537, 786, 789, 790
허황옥신화	791
현몽	41, 79, 120, 140, 147, 219, 319, 340, 362, 366, 413, 581, 625, 735, 740, 771, 800, 811
형산강	584, 792
형식담	128, 209, 211, 257, 349, 350, 370, 371, 568, 681, 793, 794
형제바위	271, 794
형제투금	431, 503, 595, 795, 796
해린대사	397, 398
해통	796
호구신	491
호국룡	34, 223, 250, 597, 792
호국신	119, 250, 254, 421, 805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호랑이	124, 143, 167, 194, 202, 232, 247, 250, 278, 292, 293, 316, 413, 417, 516, 522, 615, 630, 720, 733, 752, 762, 768, 783, 785, 797, 798, 799, 800, 801, 802, 817
호랑이 눈섭	293, 785, 797, 798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호랑이로 변한 남편	801
호랑이와 꽃감	801
호랑이의 보은	802
호랑이형님	805

호식당할 운명	804
호정설화	669
호종단	805
혹부리영감	332, 805, 806, 807
흔쉬굿	407, 645
흔쥐	597, 807
홀어미산성	808
홍계관	348, 349, 501, 576, 661, 808
홍수설화	60, 240, 535, 748, 808
화석정	160, 612, 809
화소	809, 810
화수분	810
화엄사	687, 810, 811
화엄사상	319, 594
환생	63, 119, 124, 140, 149, 235, 265, 303, 311, 447, 456, 479, 526, 575, 597, 654, 662, 692, 700, 745, 811, 812, 813
환생꽃	264, 526
환생담	41, 601, 653, 811, 812
환생화소	813
황금계	118, 119, 580
황룡사	77, 571, 583, 754, 755, 813, 821
황새의 노래 재판	814
황천혼시	228, 242, 298, 407, 408, 645
황팔도	125, 801
황화일엽	95, 393
황희	139, 509, 613, 620, 627, 814, 815
효녀 지은	816
효부와 호랑이	591, 816, 817
효불효다리	303, 724, 817, 818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효자동	818, 819
효행담	151, 178, 308, 344, 516, 517, 526, 590, 635, 739, 804, 817, 819
효행설화	190, 204, 301, 308, 344, 510, 517, 687, 816, 817, 818, 819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흥륜사	124, 194, 255, 259, 306, 821
흥보가	282
흥부전	183, 184, 209, 282, 682
희생열	151, 249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편

필자

강성숙(姜盛淑) 인제대학교

금시발복 명당	101
도둑맞은 유골과 명당	189
문자 쓰다 장인 잃은 사위	250
설씨녀	368
장승재판	642
천자명당	717
코흘리개 눈곱쟁이 부스럼쟁이	744
콩쥐팍쥐	744
호랑이가 잡아준 명당	800

강소전(姜昭全) 제주대학교

서귀포분향당본풀이	355
오백장군	542
절부암	658
정방폭포	666
토산여드렛당본풀이	753

강은해(姜恩海) 계명대학교

금도끼은도끼	98
도깨비가 준 돈	182

도깨비감투	183
도깨비불	185
도화녀비형량	194

강재철(姜在哲) 단국대학교

구두쇠 개심시킨 공수래공수거	79
도둑 감싸서 개심시킨 사람	188
상가승무노인탄	343
잘되는 집안과 못되는 집안	638
저승사자 대접하여 살아난 사람	650

강정식(姜晶植) 제주대학교

구슬할망본풀이	87
막산이	221
생불할망본풀이	353
세민황제본풀이	381
세화분향당본풀이	382
아기업개당신화	491
오칠방	545
일췌도본풀이	621
진좌수	699
허웅애기본풀이	788

강진옥(姜秦玉) 이화여자대학교

금척	103
달래강	170
며느리 고르기	233
변신화소	293
상사뱀	346
여우누이	520
연못 · 샘전설	523
용소	560
원혼설화	580
유형	587
이류교혼화소	600
이물담	601
지혜담	695
짐가제무가	699
차사본풀이	704

강현모(姜賢模) 한남대학교

말무덤	224
쌀 나오는 바위	430
영웅 · 장수전설	532
오누힘내기	540
온조비류신화	548
이몽학	600
이완	610
임지한	630
장군수	640
장수바위	641
최영	728

곽정식(郭正植) 경성대학교

가짜열녀	30
모방담	237
산함일구 강도이주	326
지성이감천이	690
형제바위	794
형제투금	795
호동왕자 낙랑공주	797
효녀 지은	816

권도경(權都京) 대전대학교

독도	195
사자바위	319
이성계	604
장보고	640
천자바위	718
통두란	755

권선경(權宣慶) 덕성여자대학교

아기씨당신화	490
--------	-----

권태효(權泰孝) 국립민속박물관

거인 장길손	45
거인설화	46
걸어온 산	50

불씨 지킨 며느리	307
울산바위	573
할미산성	778

권혁래(權赫來) 용인대학교

우애담	565
윤리담	590
지령이 눈과 가재의 띠	685
진정한 친구	698
친구 간에 지킨 의리	738
팔죽할멈과 호랑이	762
호랑이와 꽃감	801

김경섭(金鏡燮) 건국대학교

누명 벗은 시아버지	160
독장수구구	195
삼대 후레이들 농	332
성삼문	374
세 며느리의 육담 문담	377
수수께끼 푼 아이	405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 먹는 오이	501
이야기꾼	606
자식에게 들킨 부부동침	636
죽을 고비 세 번	679
파자놀이	757
훈장 골탕 먹인 제자	819

김경희(金璟姬) 세종대학교

까치의 재판	126
메뚜기와 물새와 개미	230
메추라기의 꿈지	231
소가 된 게으름뱅이	385
소가 된 상좌	386
아들로 태어난 원수	494
청개구리가 우는 이유	722

김광욱(金佻郁) 광주발전연구원

엉터리 염불로 극락 가기	514
죽어서 염라대왕 된 사람	679

지하국 다녀와 명의 된 사람	694
-----------------	-----

김구한(金求漢) 울산대학교

금산	99
남산	145
옥녀봉	546
웃개나루	573
형산강	792

김기호(金基鎬) 영남대학교

꼬리 잘린 호랑이	127
사람을 사랑한 호랑이	316
쌀 나오는 죽순 똥 나오는 죽순	431
아이를 술에 넣고 도망친 토끼	500
여자 음부 보고 도망간 호랑이	522
토끼의 재판	752
호랑이로 변한 효자	801

김낙효(金洛孝) 한양대학교

건강증 심한 사람	49
귀머거리 동문서답	94
성질 급한 사위	377
우탁	567
황희	814

김대숙(金大淑) 평택대학교

내 복에 산다	154
복 타고난 백정의 딸	296
불효부를 효부로 만든 남편	307
삼공본풀이	329
숙영랑앵연랑신가	407
어머니 병 고친 효자	510
여름에 흥시 구한 효자	516
우렁각시	563
우부현녀	564
지령이 싫어 봉양한 효자	686
행운담	785
효행담	819

김명자(金明子) 안동대학교

동지팔죽 유래	204
오곡밥 유래	539
칠월칠석 유래	743
풍속유래전설	763

김명희(金明姬) 강남대학교

변신한 호랑이 물리친 사람	292
시묘살이 도와준 호랑이	413
호랑이의 보은	802

김미숙(金美淑) 아주대학교

피로 얻은 명당	132
덕 쌓아 얻은 명당	179
임자 있는 명당	629
중들의 절 자랑	680
쫓겨날 며느리 구한 가짜지관	701

김복순(金福順) 강원대학교

감기의 유래	33
바보사위	266
소박맞은 세 자매	387
청어장수	725
팔죽땀 흘리는 시아버지	761
화수분	810

김선풍(金善豊) 중앙대학교

꽃 · 나무전설	130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다	422
쥐의 둔갑	681

김승찬(金承璨) 부산대학교

사명당	317
서산대사	358

김열규(金烈圭) 서강대학교	
선녀와 나무꾼	362
성기 큰 남녀	374
지하국대적퇴치	694

김영희(金昴希) 연세대학교	
공갈못	68
누정·비각·묘총전설	160
삼각산	328
아랑각	496
우물명당	564
장군봉	639
치마바위	735
탕건바위	748

김용덕(金容德) 한양대학교	
고승·이승전설	63
금기화소	97
피로 평양감사 지낸 사위	132
이차돈	617
청평사	725
허가바위	786
허황옥신화	791

김월덕(金月德) 전북대학교	
낙안읍성	141
덕진다리	180
마이산	220
송광사	397
옹머리고개	557

김의숙(金義淑) 강원대학교	
고석정	61
김병연	111
이괄	599

김정경(金靜京) 서강대학교	
소가 된 사람의 복수	386
아차산	501
잉어의 보은	631

김정은(金廷恩) 건국대학교	
가지 있는 부인	107
망부석	225
상객 간 아버지 실수 덮은 딸	344
속 깊은 어린 신랑	390
치술령	736

김중군(金鍾濶) 건국대학교	
가마고개	30
사귀가 된 엽전	314
새털 사서 장가간 총각	351
쌍계사	432
원두표	577
임꺽정	629
지리산	687
화엄사	810

김종대(金宗大) 중앙대학교	
도깨비 씨름	181
도깨비방망이	183
도깨비보	185
도깨비와 수수께끼 시합	186
빼악빼악꼬꼬	311
왕십리	551
흑부리영감	805

김준기(金俊基) 경희대학교	
세검정	379
신모신화	420
용문사	558
이태원	617
지리산성모	688
화석정	809

김준형(金俊亨) 부산교육대학교	
거울 처음 본 사람	45
계서야담	55
계서잡록	56
기문총화	105
김중진	122
보한집	296
세 여인의 소원	378
속어면순	392
송익필	400
스님 골려먹은 상좌	409
어면순	511
역옹패설	523
이준경	614
재담	646
진담록	697
천예록	716
파한집	760

김진형(金鎭亨) 고려대학교	
나옹화상	139
부석사	302
주왕산	674

김태수(金泰水) 삼척시립박물관	
말바위	224
삼부연폭포	334
허목	787

김헌선(金憲宣) 경기대학교	
군웅본풀이	91
괘넬깃당본풀이	93
나주기민창본풀이	139
도량선비청정각시노래	190
바리공주	264
본풀이	297
송당본향당본풀이	398
시루말	412
시무굿무가	414
칠성본풀이	740

김현경(金賢敬) 국립민속박물관	
애오개	504

김현룡(金鉉龍) 건국대학교	
고금소총	56
에인·재인전설	537
음부에 그린 그림	591
이산해	602
정도전	663
처녀 더위 빼기	710

김혜정(金慧靜) 고려대학교	
머느리밥풀꽃	235
쥐의 보은	683

김화경(金和經) 영남대학교	
감은사	34
김수로왕신화	116
만파식적	223
문무왕	249
미추왕신화	254
해통	796
흥륜사	821

나경수(羅景洙) 전남대학교	
무등산	240
미륵사	253
바위·굴전설	270
벽골제	290
산·봉·영전설	323
성·다리전설	372
운주사	571
일월신화	626
전봉준	652
전횡장군당신화	657
지역전설	691

나수호(那秀昊)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선달	115
돈 때먹는 법	196
돼지 맞돈	205
방학중	282
사기담	314
정만서	664
정승 때리고 얻은 벼슬	667
토끼의 간	750
트릭스터담	756

노성환(魯成煥) 울산대학교	
오동도	541

노영근(盧映根) 국민대학교	
각편	32
과장담	72
기능	105
기인담	106
꼬리 닷 발 주둥이 닷 발 괴물	126
꼬부랑할머니	130
반쪽이	277
방귀시합	279
병립구조	294
새빨간 거짓말	350
순차구조	408
시어머니 길들인 머느리	415
시퀀스	417
허풍선이	790
훈장 장가보낸 학동	820

류정월(柳正月) 서강대학교	
꿀 싸는 강아지	134
다리 떨면 북 떨어진다는 유래	164
명엽지해	237
자린고비	634
저승에서 만난 배필	651
전생 인연으로 부부된 사람	653
촌담해이	728

문무병(文武秉) 제주교육박물관	
김녕사굴	109
설문대할망	367
이어도	608

박경신(朴敬伸) 울산대학교	
개운포	43
공식적표현	70
관용적표현	75
문전본풀이	251
손님굿무가	394
신중본풀이	423
심청굿무가	428
충렬굿무가	733
칠성풀이	741
태평한화골계전	750

박명숙(朴明淑) 苏州大学	
구복여행	83
아들 많이 낳을 팔자	494
청실홍실	724

박상란(朴商蘭) 강남대학교	
돼지꿈	206
무수옹	243
새의 말 알아듣는 사람	351
음탕한 선생 발거벗긴 과부	592
해몽 덕분에 잘된 사람	781

박성석(朴性錫) 경상대학교	
거북바위	44
논개	157
땀 흘리는 비석	210
용다리	557
지팡이가 살아난 나무	693

박성지(朴聖智) 이화여자대학교	
일본	259
보양	295
원광법사	574
조신	671

박연숙(朴蓮淑) 계명대학교	
아들의 간 먹는 계모	495
연이와 버들도령	526

박종성(朴鍾聲)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변신담	291
북두칠성	303
산삼과 이시미	325
삼성신화	335
삼태성	341
생긱무가	383
창세가	707
천지왕본풀이	719

박종오(朴宗梧) 목포대학교	
고수레 유래	62
금돼지굴	98
단혈전설	169
박상의	273
아비와 동침할 운명	498
우연히 잡은 명당	566
울돌목	572
칠산바다	739
한양도읍	776
한우물	777

박종익(朴鍾翼) 충남대학교	
관촉사은진미륵	76
낙화암	142
남매탑	143
용미리석불입상	559

박현숙(朴賢淑) 건국대학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4
구연	88
며느리 개심시킨 시부모	232
오세암	544
재복대기	646
처녀고개	711
춤추는 호랑이	732
친딸보다 나은 양아들	739
호랑이 배 속 구경	798

배도식(裴桃植) 부산시문화재위원	
개가하지 않은 며느리 도운 호랑이	39
김호랑이굴	125
대국산성	176
시골여자의 말대답	410
철쭉꽃	720
효자 태워 나른 호랑이	818

서대석(徐大錫) 서울대학교	
구령당영신선비	80
구비문학	84
단군신화	166
당금애기	172
신화	425
영웅의 일대기	534
일월노리푸념	623
적대자	652
조력자	671
치악산	737
파송자	757

서종원(徐鍾源) 단국대학교	
임경업장군당신화	627

서해숙(徐海淑) 전남대학교	
남원진씨시조신화	146
남평문씨시조신화	152

달성배씨시조신화	171
시조신화	415
우연히 들어온 업	565
창녕조씨시조신화	707
충주어씨시조신화	734
파평윤씨시조신화	759
평강채씨시조신화	762
하음봉씨시조신화	770

손지봉(孫志鳳) 이화여자대학교	
맹사성	228
삼천갑자동방삭	341
이여송	609
주원장	675

송효섭(宋孝燮) 서강대학교	
김유신	119
김유신신화	120
김춘추	122
김춘추신화	123
김현감호	124
사찰·탑상전설	321
삼국유사	331
선녀홍대	363
선덕여왕	364
연오랑세오녀	525
원효	582
자식 묻다 돌종 얻은 효자	635

신동흔(申東昕) 건국대학교	
계룡산	53
김덕령	110
괴쟁이 하인	133
마십굴	218
박문수	271
박문수 친척 된 사람	273
서기	357
영규대사	531
오성의 장난	543
이인·명사전설	612
이항복	618

인물전설	620
호랑이 눈썹	797

신연우(申蓮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돈 천 냥의 구원	197
바보원님	268
바보형제	269
신방 지키는 유래	421
어머니 애인 찾아나선 효자	510
옛 지아버가 황천에서 운다	538

신재홍(申載弘) 가천대학교	
광덕 엄장	77
노힐부득 달달박박	156
사복	318
서동	357
처용	711

심민호(沈民皓) 한국족보박물관	
닥실나루	166
삼 형제 죽고 삼 정승 날 명당	327
새끼 뱀 쥐와 용한 점쟁이	348
여우혈 명당	521
파자점	759

심우장(沈愚章) 광주과학기술원	
거짓말 세 마디	46
구운 계도 다리를 떼고 먹어라의 유래	88
동물담	202
동자삼	204
두더지의 혼사	209
변이	293
부모 때리는 효자	300
삼족구	338
소 바뀐 탄 사돈	385
이야기로 쫓은 도둑	606
이야기주머니	607
이야기판	608
족제비가 된 남편의 원혼	672

안병국(安炳國) 선문대학교	
상사여귀	347

안태현(安泰賢) 옛길박물관	
문경새재	246
소백산	388
청다리	723

오대혁(吳大赫) 동국대학교	
관음사	75
만어사	222
의상	593
통도사	754
해동고승전	779
해인사	784
황룡사	813

오세길(吳世吉) 동의과학대학교	
범어사	288
사주가 임금과 같은 사람	321
신돌석	417
유의태	587
이순신	605
이지함	615
채제공	709
허준	789

오세정(吳世鼎) 충북대학교	
난생화소	143
남매혼설화	144
두꺼비의 보은	208
목도령과 대홍수	238
백일홍	287
신화소	428
에밀레종	515
인불구 유래	620
인신공희	621
적강화소	652

통과제의	754
------	-----

오정미(吳正美) 건국대학교	
며느리의 말대꾸	236
밥 안 먹는 마누라	278
병어리로 삼 년 지내려 한 며느리	289
암행어사 첫 먹이고 발복한 여인	503
엮질러진 물	515
왜적 물리친 여자 대장부	552

유광수(劉光洙) 연세대학교	
최차원	732

유형동(俞亨東) 중앙대학교	
머리에 쓰면 둔갑시키는 해골	229
바닷물이 짠 이유	263
술 귀신 유래	408
여우 잡은 소금장수	517
이의 울음	611

은현정(殷賢貞) 국립민속박물관	
등나무	210
손님 끊어 집안 망친 며느리	394
정승을 소로 만든 망태기	668
천도복숭아 따온 효자	714

이강엽(李康燁) 대구교육대학교	
과부와 머슴	71
내 병 다 나았다	153
바보며느리	265
바보의 문자 쓰기	269
부부의 떡 다름	301
우행담	567

이강옥(李康沃) 영남대학교	
	
고분지통 유래	60
금계필담	97
대동야승	177
동야취집	203
서경덕	354
소화	389
수이전	406
어우야담	512
옹재총화	561
이황	619
차산필담	705
학산한언	774

이동철(李東哲) 한양대학교	
	
과거 급제한 백정 아들	71
비 내린 이무기	308
영지	535
옹 못 된 이무기	552
옹 승천	553
지귀	683

이복규(李福揆) 서경대학교	
	
구월산	89
도선	193
동명왕신화	199
묘향산	239
무학대사	246
삼국사기	331
운림지	569
해모수신화	779

이상희(李尙姬) 충남대학교	
	
백마강	286
보은속리정이품송	295
유왕산	586
이서구	603
이원익	610
정기룡	662

이성희(李聖熙) 경희대학교	
	
간부 잡은 원님	33
관탈민녀	77
꼬마 명재판관	129
도둑 잡은 아이	188
도미의 처	192
명당 빼앗아간 딸	236
아버지 구한 아들	497
아지담	500
어린 원님의 지혜	509
장인 버릇 고친 사위	642

이수자(李秀子) 이화여자대학교	
	
개로 환생한 어머니	41
고려장 없어진 유래	58
마누라본풀이	217
무속신화	241
지장본풀이	691
초공본풀이	726
탐색담	748

이승수(李勝洙) 한양대학교	
	
남한산성	152

이승철(李昇哲) 관동대학교	
	
강릉안인진해령사신화	38
삼척해신당신화	339

이영수(李瑛洙) 단국대학교	
	
손돌목	396
저승 갔다 살아온 사람	648
저승 창고에서 재물 빌려온 사람	649
저승사자의 실수	650

이영식(李英植) 강릉원주대학교	
	
구룡사	82

이원영(李元榮) 건국대학교	
	
구룡이의 보은	81
도깨비 물리치는 법	180

이윤경(李倫慶) 성신여자대학교	
	
계모담	54
글 잘하는 황정승 딸	95
신방에 든 아들 죽인 계모	422
전실 자식 눈 뵈 계모	656

이윤선(李允先) 목포대학교	
	
각시섬	32
노적봉	155
바다·섬전설	262
삼학도	342
섬진강두꺼비	372
수성당신화	404
여우고개	518
피바위	767

이인경(李仁卿) 인제대학교	
	
개가해서 유복자 키운 열녀	40
남편 병 고친 열녀	151
대신 든 장가	177
손 없는 색시	392
열녀시험	526
열불열녀	529
열행담	530
혼쥐	807
효불효다리	817

이인화(李仁和) 충남문화재단연구원	
	
국사봉	90

기지사줄다리기 유래	108
농다리	159
천안삼거리	715
할미할아버바위	778

이정재(李丁宰) 경희대학교	
	
곰나루	67
말하는 남생이	225
망우리	226
배너미골	284
최제우	731
효자동	818

이지영(李志映) 상명대학교	
	
개와 고양이 구슬 다툼	42
견우직녀	51
무식으로 유식 이기기	244
박혁거세신화	276
빈대절터	310
석탈해신화	361
수부지모	403
야래자설화	504
이계담	596
이계여행화소	597
일식 월식	623
지네와 구렁이의 승천 다툼	684
천부지모	715

이창식(李昌植) 세명대학교	
	
도담삼봉	187
속리산	391
수로부인	403
죽령산신당신화	677

이학주(李學周) 강원대학교	
	
김부대왕	113
머느리고개	234

이한길(李漢吉) 강릉원주대학교	
	
빈대와 벼룩과 이의 싸움	309
신통한 여덟 형제	424
오쟁이 지다의 유래	545
의좋은 형제	595
재주 많은 의형제	648
호랑이 잡은 비루먹은 강아지	799

이홍우(李洪雨) 서울대학교	
	
동물 나이 자랑	200
봉사 남편과 병어리 아내	299
상객의 망신	345
옹추폭포	562
주인집 딸에게 장가간 머슴	676
천냥점 치고 잘 된 사람	713
황새의 노래 재판	814

임철호(林哲鎬) 전주대학교	
	
곽재우	73
김응서	121
상사바위	345
정철	669
정충신	669

장장식(張長植) 국립민속박물관	
	
가짜지관의 성공	31
풍수담	765

장정룡(張正龍) 강릉원주대학교	
	
강감찬	36
대관령국사성황당신화	175
태백산	749

전관수(田寬秀) 연세대학교	
	
불국사	306
월성	583

전신재(全信宰) 한림대학교	
	
무너미고개	239
아우라지	499
이이	612

정경민(鄭京珉) 이화여자대학교	
	
과객 제사 차려준 머느리	70
정승 낳을 여자	666

정명기(鄭明基) 원광대학교	
	
기문	105
동패낙송	205
매옹한록	227
문헌설화	252
박엽	275
양은천미	508
잡기고담	639
정령	664
청구야담	723
청야담수	724

정상박(鄭尙朴) 동아대학교	
	
고유	64
처용암	712

정재민(鄭在珉) 육군사관학교	
	
나도밤나무	138
남의 복 빌려서 산 사람	147
북두칠성과 단명소년	304
삼정승 딸 얻은 단명소년	336
연명설화	523
운명담	569
원님의 명판결	576
호식당할 운명	804

정진희(鄭眞熙) 아주대학교	
광청애기본풀이	78
양이목사본풀이	508
이공본풀이	597

정충권(鄭忠權) 충북대학교	
방이	282
사자생손지지	320
익좋은 동서	594

조선영(曹善映) 국립민속박물관	
메기 꿈의 해몽	230
방귀쟁이머느리	280
호랑이 잡은 기름강아지	799

조재현(趙在顯) 한국학중앙연구원	
불가사리	304

조정현(曹鼎鉉) 안동대학교	
계불삼년 구불십년	55
류성룡	212
봉정사	299
유금이들	584
하회마을	771
하회별신굿탈놀이 유래	772

조현설(趙顯高) 서울대학교	
건국신화	48
금와왕신화	102
산상왕	325
왕건신화	550
원통해서 사그라진 신부	579
유리왕신화	584
유화부인	588
제왕운기	670

주몽신화	673
해부루신화	781
해와 달이 된 오누이	782
홍수설화	808

조희웅(曹喜雄) 국민대학교	
꼬리따기	128
다시 찾은 옥새	164
떡보와 사신	211
민담	256
새끼 서 발	349
새털옷 신랑	352
설화	369
악형선제	502
점복담	660
쥐떼도강	681
형식담	793

좌혜경(左惠景) 제주대학교	
세경본풀이	379
영등할머니	531

천진기(千鎭基) 국립민속박물관	
동물·사물전설	201
뼈꾸기	310
열두 띠 유래	528
접동새	661

천혜숙(千惠淑) 안동대학교	
개촌신화	44
광포전설	79
김알지신화	118
대홍수	178
마고할미	216
마을신화	219
삼년고개	331
선도산성모	365
아기장수	493
용 싸움	555

운문사	571
일월산황씨부인당신화	625
자연창조전설	637
장자못	643
전설	654
지명전설	689

최래옥(崔來沃) 한양대학교	
고리봉	59
나도 계집 있다	138
단락소	168
바보에게 성행위 가르치기	267
백두산	285
삼화	343
쌀 노적 돌 노적	431
어사가 된 막넛사위	511
육담	589
일화	627
진목대사	697
화소	809

최명환(崔明煥) 한국외국어대학교	
강·폭포전설	35
금강산	96
단종	168
신목전설	420
아기봉	490
영월하송리은행나무	534

최운식(崔雲植) 한국교원대학교	
금송아지로 태어난 아들	100
도술화소	193
영혼이 뒤바뀐 사람	536
온달	547
원님으로 환생한 머슴	575
환생담	811
환생화소	813

최원오(崔元午) 광주교육대학교	
고기 놓친 까마귀	56
두꺼비신랑	207
문굿무가	247
삼죽오	338
서울사람 속인 시골사람	360
시골말로 급제한 선비	409
시골쥐서울쥐	411
신물	420
어희담	513
여우구슬	518
용궁에서 보물 얻어온 사람	556
원천강본풀이	577
원형	580
젊어지는 샘물	659
풍신신화	766

표인주(表仁柱) 전남대학교	
당신화	173
보리암	294
송징장군당신화	401
인문전설	620
자연전설	636
최영장군당신화	729

한미옥(韓美玉) 전남대학교	
견훤	52
궁예	92
남사고	144
선운사	366
주천강	676
첫날밤에 똥 썬 신부	721
호랑이형님	803
흠어미산성	808
효부와 호랑이	816

한양명(韓陽明) 안동대학교	
공민왕	68
늦다리밭기 유래	158
차전놀이 유래	705

한종구(韓宗求) 한국교통대학교	
남이	148
송시열	400
신립	418

허남춘(許南春) 제주대학교	
고대정본풀이	57
양씨아미본풀이	506
이재수	614
지중용출	692

현승환(玄丞桓) 제주대학교	
맹감본풀이	227
산방산	324
삼두구미본풀이	333
한라산	774
호종단	805

홍나래(洪나래) 이화여자대학교	
곡성 안 들은 상복	66
남편 대신 옥살이한 열녀	149
남편 따라 죽은 열녀	150
도량 넓은 남편	191
문둥이 남편과 이부열녀	249
배신한 신부와 의리 지킨 몸종	284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	721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 쌓는다는 유래	770

홍순석(洪順錫) 강남대학교	
개무덤	41
도드람산	189
박연폭포	274
양사언	506
재인폭포	647
팔봉산	760

홍태한(洪泰漢) 중앙대학교	
대감굿무가	173
돈전풀이	197
성조무가	375
장자풀이	644

자문위원

강진옥(이화여자대학교)

신동훈(건국대학교)

이강옥(영남대학교)

정명기(원광대학교)

조현실(서울대학교)

천해숙(안동대학교)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감수위원

김열규(서강대학교)

나경수(전남대학교)

서대석(서울대학교)

조희웅(국민대학교)

최래옥(한양대학교)

최인혁(인하대학교)